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제4권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목 차

제 1 조　사람의 마음을 구슬린다 1

참고　복음 전도 방면의 진리를 보충하다 1

리더 일꾼에 대한 정의 및 그 생성 이유 10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 12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구슬리는지 해부하다 23

1)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다 23

2)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뽐내다 29

3)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호감을 사다 30

제 2 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한다 36

제 3 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44

제 4 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 59

참고　< 포서기(捕鼠記) > 59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높이고 증거하는지 해부하다 64

제 5 조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한다 104

참고　< 다바오(大寶)와 샤오바오(小寶)의 이야기 > 104

1.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해부하다 112

2.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회유하는지 해부하다 128

3.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위협하는지 해부하다 139

4.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해부하다 147

제 6 조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 158

참고　< 다밍(大明)과 샤오밍(小明)의 이야기 > 158

1.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168

2.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180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1) 212

참고　캐나다 적그리스도 사건을 처리하다 212

< 밑천을 따지다 — 그러거나 말거나 > 217

1.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226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2) 257

참고　캐나다 모 교회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다 257
2. 부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271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3) 312
참고　< 선물 > 312
3. 적그리스도가 숭배하고 경모하는 것을 해부하다 327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1) 370
참고　설교를 정리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해부하다 370
< 샤오강(小崗)의 꿈 > 375
1.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388
2.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지닌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410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2) 438
참고　정상 인성의 세 가지 측면을 간단히 다루다 438
1)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 439
2)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 445
3) 이성을 접할 때의 태도와 모습 454
3.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461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3) 495
참고　동서양의 전통문화를 해부하다 495
< 샤오자(小賈)의 하루 > 503
4.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515

부록 1　무엇이 진리인가 542
1.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해부하다 545
2. '와신상담'에 대해 해부하다 553
1) 불복하다 556
2)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563
3)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 586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1) 600
참고 무엇이 진리인가 600
1. 무엇이 하나님의 이익이고 무엇이 사람의 이익인가 629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2) 652
2. 적그리스도의 이익 652
1) 자신의 안위 653
2) 자신의 명예와 지위 667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3) 677
2. 적그리스도의 이익 677
2) 자신의 명예와 지위 677
(1)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685
(2) 적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697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4) 710
2. 적그리스도의 이익 710
3)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한다 711
(1)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한다 711
(2) 형제자매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도록 이용한다 723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5) 734
2. 적그리스도의 이익 734

3)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한다 734
(3)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다른 것(이점)도 사취한다 735
사례 1. 사역을 핑계 삼아 먹고 마시다 737
사례 2.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고 원한을 품다 741
사례 3. 시골집으로 돌아가자 적응하지 못하다 746
사례 4. 사취한 제물로 자신의 빚을 갚다 749
사례 5. 하나님 집을 위해 한 일에 보수를 요구하다 751
사례 6. 먹고살기 위해 관직에 오르려 애쓰다 754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6) 762
2. 적그리스도의 이익 762
4) 앞날과 운명 762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764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7) 787
2. 적그리스도의 이익 787
4) 앞날과 운명 787
(2)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 788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8) 813
2. 적그리스도의 이익 813
4) 앞날과 운명 813
(3)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814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9) 843
2. 적그리스도의 이익 843
4) 앞날과 운명 843

(4)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843
① '봉사자'의 정의와 유래 843
②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852
③ 적그리스도는 왜 봉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가 862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10) 871
2. 적그리스도의 이익 871
4) 앞날과 운명 871
(5)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 873
① 위장한다 873
② 사칭한다 886
③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897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1) 901
1.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한다 905
1)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한다 908
2) 하나님의 전능을 멸시한다 912
3)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이함을 멸시한다 918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2) 934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935
1)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한다 937
2)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 952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3) 960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960
3)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 960
(1)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의 모습 962
(2) 그리스도가 쫓겨 다니며 머리 둘 곳 없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대하는 모습 970
(3)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생겼을 때의 모습 972
(4) 발탁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의 모습 974
(5) 교회가 처한 각종 상황을 대하는 모습 977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4) 991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991
4)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992
부록 2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는가(1) 1023
1.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 1023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 1028
3.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폭로하다 1036
부록 3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는가(2) 1050
1.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노아의 태도 1050
2.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1066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5) 1078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1078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한다 1078
2)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1092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6) 1105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1105
3)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다 1105
(1)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엿본다 1108
(2)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엿본다 1114
(3)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엿본다 1120
(4)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대업을 이루는지와 관련된 말씀을 엿본다 1126
(5)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엿본다 1129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7) 1135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1135
4)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 1136
(1) 하나님의 말씀을 지위와 명예를 얻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삼다 1138
(2) 하나님 말씀 책을 팔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다 1151

제 11 조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1160
1.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가 1160
2.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1169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1169
2)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1178
3)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1187
제 12 조 복받을 희망이나 지위가 없으면 물러나려 한다 1190
1.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1190
2. 적그리스도는 본분 조정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1198
3. 적그리스도는 교체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1207
4. 적그리스도는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215
제 13 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통제한다 1223
1.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1223
2.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재정을 통제한다 1226
1) 교회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 1227
2)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친다 1240
(1) 제물을 낭비하다 1240
(2) 제물을 유용하다 1242
(3) 제물을 외부로 빌려주다 1243
(4) 제물을 편취하다 1245
(5) 제물을 훔치다 1245
제 14 조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1249
1.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독점한다 1251
2. 적그리스도는 상황을 조종한다 1263
3.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한다 1271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1) 1277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1277
1)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1279
2)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1294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2) 1302
2.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 1304

1)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출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1304
2)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어떻게 대하는가 1314
3)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을 어떻게 대하는가 1322
부록 4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1) 1329
1. 적그리스도의 인품 1329
1)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 1330
2) 음험하고 악랄하다 1335
3)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1339
4)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1346
5)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한다 1351
6)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다 1353
부록 5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2) 1357
2. 인품과 성품 본질의 차이 1357
3.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1366
1) 사악하다 1366
(1)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겨냥해 하는 행동 1368
(2)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겨냥해 하는 행동 1373
① 의혹을 품는다 1373
② 연구한다 1374
③ 추측한다 1377
④ 경계한다 1379
부록 6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3) 1382
3.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1382
1) 사악하다 1382
(2)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겨냥해 하는 행동 1382
⑤ 시험한다 1382
⑥ 요구한다 1387
⑦ 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독한다 1395
2) 진리를 싫어한다 1402
3) 흉악하다 1406

이 책에 별표(*)로 표기된 것은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역자가 단 것입니다.

제 1 조　사람의 마음을 구슬린다

참고　복음 전도 방면의 진리를 보충하다

지난 몇 번의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는 기준에 맞는 본분 이행 방면에 관한 것으로,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과 인원을 분류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각급 리더 일꾼, 세 번째는 각종 특수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네 번째는 보통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여가 시간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총 여섯 부류가 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부류에 대해 다루었다. 그것은 복음 전도 본분의 여러 원칙과 진리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면에 관계된 내용, 즉 주의 사항, 관련된 원칙과 진리, 경계해야 할 것, 복음 전도의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생하는 실수와 치우친 부분을 다루었다. 너희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그 주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된 진리를 마음에 새긴 다음,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런 것을 자신의 실제와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고, 자신의 실행 길이 되게 한다면, 너희는 내가 교제한 이 내용들을 완전히 소화한 것이다. 내가 말씀 한 편을 교제했는데 만약 너희가 대략적인 내용, 몇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만 기억하고, 거기서 말하는 진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이야기하려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느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그 안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 교제한 핵심 내용에 대해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느냐?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 본분의 본질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는 복음 전도 본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내면의 관점입니다. 넷째는 복음 전도의 구체적인 실행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도 원칙에 어떤 사람이 부합하고 어떤 사람이 부합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복음 전도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입니다. 여섯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무단이탈하여 도주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째는 복음 전도에 헌신한 역대 성도들에 관한 내용, 저희 또한 본분을 이행할 눈앞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서둘러 진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교제한 몇 가지 내용의 핵심을 대체로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아주 훌륭하다. 또 빠진 것은 없느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바로잡아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책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선민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사람의 직책이자 의무로, 이 역시 한 가지 내용이다. 너희는 이 진리를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사람의 치우친 이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어느 측면에서 치우쳤는지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너희가 이 부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럼 나는 왜 이 진리를 교제하려고 하겠느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측면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복음 전도에 대한 모든 사람의 치우친 이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 전도에 관한 일을 치우치게 이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특수한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러니 복음 전도 측면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와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등은 모두 나와 무관하고,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면 멍하니 있으면서 전혀 진지하게 구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으며, 듣고 난 후에도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은 후로 줄곧 리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질도, 사역 능력도 갖추고 있죠. 타고난 리더감이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본분과 이번 생에 제가 해야 할 사명은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인 듯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함의인즉슨, 복음 전도의 일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된 진리를 교제하면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배 때 지난번 교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요약해 보라고 하면 한참 동안 노트를 뒤적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기억력이 나빠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머리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복음 전도는 어떤 부류의 사람 혹은 어떤 집단 사람들의 특수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의 직책이다. 왜 복음 전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느냐? 왜 사람은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하겠느냐? 이는 한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복음 전도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명이자 직책이다. 이 사명이 너에게 임해 네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네가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이것은 간단한 도리가 아니다. 이는 진리다. 왜 이를 진리라고 하겠느냐?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장소와 공간이 바뀌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영원히 긍정적인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와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영원한 것이며, 피조물이라면 모두 이를 마땅히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진리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행하는 본분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복음 전도 방면의 진리는 사람이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異象) 방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깨달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토대를 다져 주는 것으로, 생명 진입에도 이롭다. 또한, 네가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이방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니 네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네가 복음 전도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면 속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나의 직책이야. 언제 어디서든, 내 신분과 역할이 무엇이든, 배우가 되더라도 내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 지금 내가 교회 리더여도 복음을 전하러 갈 의무가 있는 거야. 지금 이행하는 본분이 무엇이든 내게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회가 있거나 여가 시간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 이건 내가 마땅히 다해야 하는 책임이야.'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지금 고정적인 본분이 있고, 고정적인 업무와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이야.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와 관계없어.' 이것은 어떤 태도이냐? 책임을 미루고 사명을 회피하는 태도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누구든 복음 전도에 책임감이 없다면 이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네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충 하는 것인데, 이는 취해서는 안 될 태도이다. 네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업무나 분야에 관계된 본분을 이행하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주된 효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사역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만약 최소한의 것조차 할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은 몇 년 동안 본분을 이행하면서 무엇을 수확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오랜 세월 본분을 이행하면서 업무에 정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하고, 어떤 측면의 진리도 교제하지 못하니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이는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적어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도(道)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으며, 어떤 깨달음이나 인식, 이해도 없다. 그러니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했겠느냐? 이러한 것에 모두 도달하지 못했으니 네게는 진리 실제가 없는 것이다.

이제 다시 방금 이야기하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복음 전도는 모든 하나님 선민의 직책이자 의무이다. 이 측면의 진리를 끝까지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대가를 치르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든, 생명을 바칠 수 있든 사실 이런 것은 다 표면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분량과 생명이 자랄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네가 하나님의 사역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담긴 각종 진리를 점차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너의 부담이 점차 분명해지고, 이 본분을 짊어지려는 네 의지도 점점 커지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몇 년간 교회에서 리더 사역을 하였는데 교회를 이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음 전도 본분에 대한 느낌과 감동, 부담이 점점 더 사라진다면 그는 본분을 어떻게 이행한 것이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 사람에게 이런 내적 상태가 생겨나고 이런 내적 상태로 살 수 있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몇 년간 진리를 추구한 적도 없고,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큰 붉은 용과 같은 관료 간부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이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든 그는 자기 분량이 무척 크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대해 말하면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면서 참도를 구하고 알아보려는 사람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어디에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지도, 얻지도 못해 하나님을 증거할 줄 모르는 것이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네 본분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만약 네가 진리를 깨닫고 얻었다면, 참도를 알아보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할 말이 없겠느냐?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종종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이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부담이 없는 것은 문제 아니겠느냐? 부담이 없는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설사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 기준에 이를 수 있겠느냐? 부담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복음 전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고, 복음 전도와 관련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너희가 하는 갖가지 사역은 모두 복음 전도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전부 복음 전도 범위 안에 속한 사역이다. 또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정복과 구원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복 있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마지막에 어떤 성과를 내야겠느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목적에 이르러야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방면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고 공허한 것이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꺼내 놓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복음 전도 방면의 진리에 공을 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해야겠느냐? 왜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위 문제의 본질적인 답은 아니다. 그럼 이 문제의 본질적인 답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가진 자들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가진 자들을 얻고자 하므로 복음 확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널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을 최대한도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최대한도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원칙 중 하나이지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이 단계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줄곧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시대를 여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옛 시대를 끝맺는 것, 즉 하나님나라시대를 가져오고 은혜시대를 끝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보았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여 인류를 심판하며,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한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수많은 나라에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인류는 이미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서 나와 더 이상 성경을 보거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거나 구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편, 하나님이 현재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인생의 생존 원칙과 방식,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럼 말세 복음과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은 여전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겠느냐? 그들은 여전히 은혜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너희의 직책은 무엇이냐? 그들을 은혜시대에서 데리고 나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해서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몇 마디 전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너희 모두가 부담을 갖고 복음 전도라는 부탁을 맡아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한편,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해야 한다. 확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 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며, 그들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너희처럼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을 들은 후 받아들이고 따르는 너희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이나 극소수의 사람, 혹은 어떤 작은 민족을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려고 한다. 그럼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널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널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과 길을 통해 널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널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려면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만약 사람이 마음속으로 항상 낡은 것들을 지키고 치우친 것들을 품으며 낡은 규례와 행동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복음 사역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탁되어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나는 반드시 너희의 사상을 바꿔 줘야 하고, 너희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보고 그 측면에 관련된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해 줘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무감각하고 우둔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쉬지 않고 말해

주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너희가 이행해야 할 본분임을, 너희가 살아가는 이번 생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알게 해야 한다. 네가 듣고 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또 계속 말해 줘야 한다. 질릴 정도로 들었다고 해도 네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말해 줘야 한다.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하나님이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자 사람에 대한 요구이며, 새 시대의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리 실제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가감 없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후 순종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되느냐? 어떤 이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데, 이는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닐까요?"라고 말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관계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 일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창조'와 '피조'는 어떤 관계냐? 주동과 피동 관계이고, 만드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의 관계이다. 창조주의 뜻을 네게 나타낸 이상,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느냐?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 너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어떤 대가도 불사하고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에 진리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모두 포함된다. 네가 하나님의 요구와 부탁을 알게 된 이상, 그것은 네 사명과 연관된다. 그것은 네 본분이다. 너는 알게 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요구와 부탁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양심과 이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와 무관하다면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집의 사람도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네 부모는 너를 낳아 오랫동안 키워 주었다. 너는 집에서 먹고 거하며 집안 돈을 썼다.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겼을 때 너와 무관하다며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달아난다면, 이는 어떤 작자겠느냐? 남이라고 한다면 많이 봐준 것이다. 사실 너는 불효막심한 놈, 사람의 탈을 쓴 금수, 짐승만도 못한 작자이다. 하나님의 뜻이 네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였고, 나는 이 말들을 너희에게 먼저 베풀어 주어 듣게 했다. 너희는 알아듣고 이해했다. 이제 내 뜻과 너희에 대한 요구 또한 알려 주려 한다. 너희는 내 사역과 말, 내가 이루려는 일을 전파하여 전 인류가 내 음성을 듣게 해야 한다. 또 내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여 전 인류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요구이다." 이 일에 대해 듣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겠느냐? 너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 피조물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어떻게 다해야겠느냐? 어떤 사람은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진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너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복음 전도의 책임을 맡기셨으니 이는 저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깨달은 진리가 몹시 적지만, 최선을 다해 이 부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여 당신의 부탁을 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명확히 말한 바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자 의무이며, 평생의 본분이라고, 이는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라고 말이다. 이 말에 하나님의 분부가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당부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실행해야 할 길과 원칙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내가 전부 몇 가지를 말했느냐?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부와 당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실행해야 할 원칙과 길입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네 가지를 말했다. 그럼 이제 그 네 가지에 관한 세부 내용을 교제하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부이다. 그럼 하나님의 분부는 무엇이냐?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왔고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였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어 옛 시대를 끝내고, 인류를 이끌고 새 시대로 들어갈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복음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복음 확장에는 최종적인 목적과 결과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오시어 새로운 사역을 하셨다는 것, 옛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 이 시대는 변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다시 읊어 보아라.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자 하십니다. 옛 시대를 끝내고, 인류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 중 한마디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모두 적었느냐? (네.) 세 번째,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이 진리는 무엇이겠느냐? (복음 전도는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이다. 이 진리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의 본분을 받아들인 후 이 말에서 실행의 길과 원칙을 찾는 것이다. 사람에게 이 말은 진리이다. 이 말은 무엇이었느냐? (복음 전도는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이자 사명이어야 한다. 본분과 사명을 어떻게 보아야겠느냐? 본분은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이행해야 할 책임은 사람의 본분이다. 하지만 사명은 다르다. 사명은 책임보다 더 막중하고 적절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며, 무게가 있다. 적어 두었느냐? (적었습니다.) 지금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너희는 내가 말한 내용을 전부 문자로 기록해 두어야 마음속으로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적지 않고 이렇게 듣기만 한다면 인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만을 좀 이해한다면 어떤 측면의 진리든 정의와 개념, 윤곽만을 알게 될 뿐 그런 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해야 할지 등은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처럼 많은 사람이 도리를 말하면 두세 시간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이 닥쳤을 때 진리로 해결하라고, 너희가 체험하고 이해한 실행 원칙과 실행의 길로 해결하라고

하면 어려워한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네 번째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실행해야 할 원칙과 길입니다.) 이 원칙과 길은 무엇에 근거하여 정해졌겠느냐? 두 가지에 근거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러기 싫다고 해 보자. 하나님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 실행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네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느냐? 가감 없이, 마땅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되 이유를 묻지 말고 분석하거나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순종이다. 이는 진리를 실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정의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의사이고, 하나님이 행사하는 목적이자 근원, 출발점이다. 영적인 말로는 뜻, 이상(異象)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네게 알려 준 것은 하나님이 네게 큰 방향을 주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원칙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네가 구체적인 실행의 길과 방향을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내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면, 머리가 좋고 마음과 영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인 후 바로 세부 내용을 찾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한다. 하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마음과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이 쉽다고 생각해서 세부 내용을 알려 주기도 전에 일을 처리하러 간다. 이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이고, 너무 맹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또 너는 반드시 그 부탁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마땅히 받아들이고 헤아려야 하며, 나아가 순종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그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 선민과 하나님 집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실행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는 바로 해당 측면의 본분과 관련된 진리를 깨닫고자 구해야 한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 실행의 원칙과 길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원칙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해서, 원칙이란 진리를 실행하여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게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 시켰다고 해 보자. 그 일의 구체적인 실행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먼저, 너는 구매할 물건의 규격이 얼마인지, 어떤 모델인지, 품질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등을 알아야 한다. 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알게 된다. 원칙은 너에게 척도와 범위를 알려 주니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물건의 규격과 품질, 가격 등 측면에서 기본 원칙을 파악했다는 것은 네가 그 일의 요구 기준을 파악했다는 뜻이며, 이는 네가 기본적으로 실행할 줄 안다는 의미가 된다. 진리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원칙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다. 본분 이행의 기본 원칙을 파악했다는 것은 그 본분을 이행할 때의 요구 기준을 파악했다는 의미이며, 원칙을 파악했다는 것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럼 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이 요구한 말씀 한마디만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본분 이행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깨달았다면 본분 이행과 관련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이 밖에,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본분 이행의 원칙과 실행의 길도 파악해야 한다. 본분 이행의 원칙을 파악하면 적용할 수 있다. 때로는 지혜를 좀 발휘해야 하는데, 그래야 본분을 이행하면서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원칙을 파악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만약 본분을 이행할 때 사람의 뜻이 섞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처리하며,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다면, 네 본분 이행은 완벽하게 기준에 맞는 것이다. 설령 성과 면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네 본분 이행이 완전히 원칙에 부합한다면, 충성을 다하고 전력을 다한 것에 속한다면 그 본분 이행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으로, 너는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여 이룬 성과이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을 깨달아야 사람이 실행해야 할 원칙과 길을 파악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우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다음 가감 없이,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실행과 태도이다. 그다음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느냐?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 안에 들어 있는 세부 내용이 바로 원칙과 길이다. 사람이 실행해야 할 원칙과 길을 파악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다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이다.

첫 번째 부류인 복음 전도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자. 오늘도 일부 내용을 보충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교제했던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측면 진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 네가 지금 이행하는 모든 본분이 이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 바탕 위에서 행해지고, 복음 전도에 관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비록 너는 복음 전도의 전선에서 복음 전도 대상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네가 이행하는 본분은 모두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면의 진리를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보충한 내용을 통해 너희가 이 복음 전도 방면의 본분의 무게와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방면의 진리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겠느냐?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 옛 시대를 끝내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옛 시대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들어가도록 이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기운도 없고, 협력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인성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일깨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절실한 마음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는 인성이 없는 모습이다. 너는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싶어 하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헤아림도 없다. 이를 두고 인성이 없다고 하며, 이런 사람은 양심이 없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리더 일꾼에 대한 정의 및 그 생성 이유

이제 두 번째 부류인 리더 일꾼의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이 부류의 인원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역 성질로 볼 때 무척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리더 일꾼의 본분과 관련된 각 항목의 진리 역시 무척 많은데, 복음 전도 측면의 진리보다도 많다. 어째서 많다고 하겠느냐? 이 측면의 본분은 관계되는 범위가 무척 넓다. 대외적으로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양육하고 공급하며, 교회 생활을 잘해 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교회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리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어떤 실행 원칙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 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되는 것은 다양한 진리의 실행과 진입 및 사람이 걸어가는 길 등 많은 측면과 관련이 있다. 또 리더 일꾼이 되는 것은 복음 전도 본분을 이행하는 것보다 생명 진입과 더 큰 관계가 있는데, 성품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리더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는지와 관련된 각 항목의 진리는 더욱 광범위하고 많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든, 결국 몇 가지 큰 분야가 있으니 항목별로 조금씩 이야기하겠다. 그럼 너희도 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일단 정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자. 어째서 정의를 해야겠느냐? 정의는 위치 정립과 같다. 즉, 사람이 이 본분 이행의 성질과 직책 범위, 그리고 어떻게 불리는가 하는 직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본분을 정확히 정의하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부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또 그들의 본분 이행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실행해야 할 원칙은 과연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들의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든 상관없이 이 부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파악하고 실행해야 할 진리 원칙이 있으며,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발된 선도자, 사역자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확한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그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정의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 사도이냐? 그렇지 않다. 제자이냐? 제자도 아니다.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목자라는 호칭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제자도 안 되며, 목자도 부적절하다면 이 본분을 이행하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호칭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것이 더 적합하겠느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적절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목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름은 거창하고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으니 말이다. 이런 호칭은 전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본분 이행 성질에 근거할 때 어떻게 부르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그들을 정의하는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의 사역 성질, 신분, 지위와 부합하고 적절해야지 너무 거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정의한다면 좀 거창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어떠하냐? (더 거창합니다.) 네가 파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면 파수꾼이 아니다. 목자는 어떠하냐? 목자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양 떼를 목양하고 돌보는 사람을 가리킨다. 만약 그들이 하는 사역의 성질을 본다면 사실 적절하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의 패괴 성품으로 볼 때 목자라는 호칭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거창하다. 즉,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은 현재 사람이 하는 그 사역의 성질이나 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명백히 부적절하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은 무엇이겠느냐? (리더 일꾼입니다.) 그 호칭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

리더 일꾼인 이 부류의 사람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크게 보면 하나님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작게 보면 교회 사역의 필요와 하나님 선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 부류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그들은 일반 하나님 선민과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는 모두 똑같다. 비록 교회에 리더 일꾼이란 호칭이 있고, 그들은 리더이고 일꾼이며, 이행하는 본분이 형제자매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라 불린다.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리더 일꾼이 일반 하나님 선민들과 다른 점은 그저 그들이 이행하는 본분의 특수성에 있을 뿐이다. 이 특수성은 특히 '리더십' 역할에서 두드러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 교회 리더가 바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리더는 무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 선민을 이끈다. 그는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교회의 모든 이가 리더를 따라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이는 교회 전체의 하나님 선민에게 무척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울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와 하나님 선민들을 이끌었다.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자 그가 이끌던 교회와 하나님 선민들 역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리더가 치우치게 행하여 제 길로 갈 경우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이끄는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리더가 올바른 사람이고, 올바른 길을 가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추구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의 생명 체험과 성장 또한 다른 이들의 눈에 들어올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도 줄 것이다. 그럼 리더로서 가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하도록 이끌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길은 무엇이겠느냐? 지위와 명예, 이익을 추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과시하고 증거하며, 한 번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사람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들을 네 앞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아닌 패괴된 인간 앞으로, 사탄 앞으로 이끈 것이다. 사람을 진리 앞으로 인도해야 비로소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다. 리더 일꾼이 올바른 길을 걷든 잘못된 길을 걷든 하나님 선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하나님

선민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나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쁜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분별없이 누가 이끌든 남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선출해 리더를 맡기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저마다 어떤 길을 걷느냐는 리더가 걷는 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들 리더 일꾼의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이 방향에서 리더 일꾼의 본분 이행과 관계된 각 진리를 교제해 보자. 하나는 올바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길인데, 이 두 가지 중 먼저 어떤 것을 교제하는 게 좋겠느냐? (잘못된 길을 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먼저 올바른 길에 관해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먼저 잘못된 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 (먼저 잘못된 길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사실 모두 맞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먼저 잘못된 방식을 말한다면, 사람은 잘못된 방식에서 더 많은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과 인식을 많이 경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얻은 후에 올바른 길에 대해 말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것들을 더 깊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은 쓸 만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먼저 잘못된 방식부터 말해 보도록 하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

사람이 교회 리더나 일꾼으로 선발되어 자기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무슨 폼이라도 보이지 않겠느냐? 혹자는 "어떤 폼요? 구름을 타는 듯한 기세인가요? 아니면 비바람을 부리는 듯한 기세인가요?"라고 하는데, 전부 아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것도, 비바람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며 큰소리를 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패괴된 인류라면, 또 사탄의 패괴 성품과 본질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럴 때 마음 깊은 곳이 들썩이고, 웅대한 뜻을 품으며, 일을 성공시켜 자기 실력을 크게 과시하고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겠다는 기세를 보여 준다. 이런 기세가 옳은지 그른지는 일단 차치해 두자. 리더 일꾼으로 선발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무척 복잡해진다. 무척 복잡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길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지만, 타고난 본성으로 볼 때 그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그 영광스러운 책임과 중임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 흐뭇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 다행스럽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수십 명 가운데서 선발됐으니 꽤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 이해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으면서 적잖이 헌신하고 대가를 치렀어. 사실이 증명하잖아. 나는 교회 선도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입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줄 자격이 있어. 나보다 똑똑하고 학력 높고 말재주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가 뽑혔겠어? 내가 인성이 좋고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지.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것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 독백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덧붙인 것으로, 사실 그 앞에 한 말들이야말로 그의 진짜 생각, 진짜 인식이다. 그는

'나는 경쟁하지도, 빼앗지도 않았지만 리더로 뽑혔어. 그러니 어쩌겠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 크게 한번 일을 벌여야지!'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크게 한번 일을 벌이겠느냐? 리더가 된 첫날, 그는 각 팀 책임자를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며 일종의 폼과 기세를 보인다. 어떤 기세겠느냐? 우레처럼 매섭고 바람처럼 몰아치는 기세,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기세이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의욕이 대단하듯이, 그는 먼저 모두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 준 다음 사람들이 전임 리더를 분별하고 저버리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먼저 전임 리더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그가 사람들을 속박한 부분, 그의 사역에 허점이 있었던 부분, 직무를 소홀히 했던 부분 등 무엇이든 교제 가능합니다. 교제를 마치고 나면 전임 리더를 정확히 분별하고 저버려 미련을 갖지 않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식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오늘 예배는 전임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고발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교제한 적이 있다고, 전임 리더가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임을 분별해 냈으니 따로 고발할 게 없다고 해도 그는 동의하지 않고 이름을 지목하며 교제하게 한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교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전임 리더와 가장 사이가 좋던 형제자매에게 폭로하고 해부하라고 한다. 교제를 듣고 '이 사람도 전임 리더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버리지 못했구나. 아무래도 마음속에 아직 그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오늘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전임 리더를 철저히 폭로해야지.'라고 생각한 그는 또 전임 리더와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사람을 불러 폭로하게 한다. 그 사람이 폭로하고 나면 그는 만족해하며 그 사람을 양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양성하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기편, 자기 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이다. 이 한 차례 예배로 그의 목적이 이뤄지겠느냐? 그렇게 완벽하게, 또 그렇게 빨리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가장 종잡을 수가 없고, 가장 음흉해. 모두가 마음속으로 전임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과거와 실상을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나라는 사람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 줘야지. 하지만 제대로 된 방식과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해. 너무 노골적으로 굴지 말고 좀 숨겨야 한다고.' 그의 이런 생각과 사역 방식, 출발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사탄 본성에서 비롯되었다. 너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리더 일꾼으로 선발되는 날, 처음에는 너희도 잘못된 길을 가지 말자고,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말고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면 안 되고, 욕망에 기대 사역해서도 안 된다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다 보면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모든 언행의 목적이 분명하고, 움직였다 하면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려 한다. 또 누가 조금이라도 불복하거나 불만스러운 심기를 드러내면 그는 불쾌해한다. 대놓고 배척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 그 사람에게 큰 반감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반감을 드러내겠느냐? (상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무언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보이겠느냐? 예를 들어, 예배 때 그는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맞은편에 앉히고,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서 가장자리에 배치한다. 이것이 공격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행동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행동은 입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심각하다. 어째서 더 심각하다고 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생각과 뜻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행동하는 순간 사실이 된다. 행위가 된 것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이다. 리더로 선발된 사람은 모두 각자의 바람과 뜻, 이상을 품고 사역하고 해당 본분을 이행한다. 하지만 사탄의 패괴 성품이 있는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공통점은 어떤 것이겠느냐? 권력을 잡고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권력을 잡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찰한다. 누가 자기에게 잘 아첨하고 다가오는지 보는 것이다. 그 후 주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해 비위를 맞추든 작은 선심을 베풀든 해서 인맥을 만들고 친한 척 가장하며 자기와 관심사나 흥미, 야심, 또는 본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 같은 세력으로 만든다. 같은 세력으로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세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는 권력을 잡은 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옹호하고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 즉, 그가 틀린 말을 하고 잘못된 짓을 저질러도, 혹은 다른 이를 공격하고 제약해도 누군가는 따르고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언젠가 상부에서 그의 문제를 알아채 그를 교체하면, 온 힘을 다해 그를 대변해 주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의 명예를 지켜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일 처리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는 어떤 방식을 썼느냐? 사람의 마음을 구슬렸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방식으로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기 세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는 수법 중 하나이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쓰는 수법 중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린다는 것은 그에게 아첨하고 다가오고 그를 믿는 사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슬리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 그를 분별할 수 있고 그를 따르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원수나 눈엣가시로 대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과 배척의 수법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교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하거나 녹음을 하는데, 한 젊은 자매만 필기하거나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고 해 보자.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그녀는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 교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오면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물을 따라 주거나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나를 대한 적이 없어. 아무래도 나한테 불복하는 것 같아. 방법을 생각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혼쭐 내 줘야겠어! 어떤 기회가 좋을까? 그녀가 못 해낼 게 분명한 일을 처리하도록 안배하면 혼쭐 낼 핑계가 생기겠지. 이게 바로 그녀를 굴복시킬 최적의 기회야.' 곧이어 그는 그 자매를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역하도록 배치한다. 그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다. '교계의 늙은 목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자. 그 늙은 목사는 여자를 좋아하는 데다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야. 그한테 전도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만약 전도하지 못한다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 불복하면 쫓아 보낼 거야!' 그래서 그는 자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즘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자매님을 무척 높이 평가하더군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데다가

알고 있는 진리도 많죠. 교계의 목사가 한 명 있는데 성경 지식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매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목사를 만나러 갔다. 그러자 목사는 젊고 예쁜 자매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 집적거렸다. 돌아온 자매는 두 번 다시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매님을 안배했으니, 이는 자매님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자매님이 꼭 가야 해요!"라고 말했다. 자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그 리더는 남을 공격하고 보복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했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악인이다. 만약 그도 여성이라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가겠느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가지 않고, 누구보다도 멀리 피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괴롭히기 좋은 사람, 자신에게 불복하며 아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기회를 잡아 음해하고 복수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에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나쁜 짓이든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은 어떻게 생긴 것이겠느냐? 본성 본질이 너무 악독하고 못된 것이 한 측면의 주된 원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남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팔아넘기는 짓도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일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사람을 심각하게 해하고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심보가 몹시 악독하다. 적그리스도가 그 젊은 자매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그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괴롭히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자매는 왜 그런 대우를 받았겠느냐?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으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안중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런 대우를 받고 해를 입게 되었다. 분량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직속상관인 법이지. 지금 나는 그 사람 아래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해. 그가 가라고 하는 대로 따르자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식으로 대해 주는 거야. 무리에서 혼자 튀면 안 돼. 남들이 아부하면 나도 아부하자. 아예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제대로, 열심히 해야 이 리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리더는 정말 모시기 힘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결과는 적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수법은 사탄이 사람을 해하는 수법과 같지 않으냐?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행동은 사탄을 대변한다. 사람은 사탄의 전달 통로, 대변인이 되었고, 사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럼 이런 식의 본분 이행이 진정한 본분 이행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는 리더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런 자는 악인이고 사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를 믿고 신뢰하며 옹호하게 하는데, 지위가 공고해지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기 시작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대할 때,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실하고, 단호하고, 악독한 수법을 써서 상대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혼내고 괴롭힌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두 납작하게 눌러 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모든 적그리스도가 이렇다. 그들이 갖은 수법으로 사람을 구슬리고 억압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권력을 얻고 지위를 공고히 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의 속셈과 출발점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 이 본질은 패괴 성품보다 더욱 심각하며, 사탄의 야심과 간계가 오롯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패괴 성품의 표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조금 교만하고 독선적이거나 때때로 조금 간사하게 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저 패괴 성품의 표출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는 짓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며,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어떤 성질을 띠느냐?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는 사람의 마음과 선민들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독립 왕국을 세우려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땅히 누구의 자리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이와 상반된다.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 그의 리더 자리, 사탄의 자리가 생기게 한다. 누군가가 마음에 그의 자리가 없고, 그를 리더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는 강한 불만을 품으며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힌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둘러싸고 이뤄지며, 남에게 우러름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숭배받고 나아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일 처리할 때 내 눈치를 봐야 해. 누가 상부에 어떤 문제를 보고하려고 하든 다 나를 통과해야 한다고. 나한테 보고하는 것만 가능하지 바로 윗선과 통하는 건 안 돼.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두가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쩔쩔매게 하겠어. 또 내가 명령을 내리고 어떤 말을 확정하면 감히 아무도 나한테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르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모든 일에서 나에게 복종해야 해. 여기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어조이고 목소리이며,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군림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두 그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복종한다면, 그런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상부에서 내려온 사역지침은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까요. 옳고 그름은 제가 분석하고, 결과도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분량이 크지 않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리더이니 전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기고만장한 것 아니겠느냐? 정말 교만하여 이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독립 왕국을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영락없는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전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째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겠느냐? '적'이란 어떤 의미냐? 적대시하고 증오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진리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적대시란 무엇이냐? 맞은편에 서서 너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며, 마치 불구대천의 원한이 가득 찬 것처럼 너와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 진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겠느냐? 진리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는 전부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는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증오심이 생기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기라도 하면 눈에 불길이 일고 핏발이 선다. 마치 복음을 전할 때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는 느낌처럼 말이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대할 때 극도로 싫어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심지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거나 진리를 교제해 주기만 해도 증오심을 품고 상대를 원수처럼 대한다. 그는 다양한 측면의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모두 몹시 싫어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매사에 진리를 구하는 것 등 이 모든 진리에 대해 그가 조금이라도 주관적인 바람을 갖고 동경하거나 좋아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의 그런 본성 본질로 인해 그는 이미 진리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사람은 마음속으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아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 예를 들어,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또한 지위를 주장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의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올바른 실행법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는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그러고도 제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신이 서겠냐고요. 위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죠?"라고 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으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실행법일수록 더더욱 반발심을 갖는다. 그는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진리 실행은 무엇이겠느냐? 음모와 수법, 강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방식과 길은 다 사악하며,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을 완전히 대변한다. 그들이 자주 표출하는 속셈과 동기, 사상 관점은 모두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성품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그럼 진리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순종하라고? 내가 피조물인 건 맞아. 하지만 순종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지. 먼저 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득을 봐야 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지. 내 이익을 1 순위에 둬야 한다고. 상과 큰 복이 준비된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상도 종착지도 없다면 내가 왜 순종해야 하겠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순종하지 못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조건적으로 순종한다. 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적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는 바보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똑똑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리를 증오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본질은 그들이 걷는 길을 결정하며, 그들이 걷는 길은 또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본성 본질이 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며, 남을 혼내고 괴롭힌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목적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며, 독립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위가 생긴 후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도, 진리를 추구하지도 못하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에 속한다.

적그리스도는 리더의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어떤 짓을 하겠느냐? 우리는 방금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된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증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증오하는 것으로 그만이겠느냐? 갖은 방법을 동원해 배척하고 억압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데, 그 상대는 어리석고 아첨할 줄 모르며 처세 철학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비교적 열정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 밖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동이냐?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의 수법은 무엇이겠느냐?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여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할 때 보통 어떤 말을 하겠느냐? 하나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때 어떤 윗선 리더를 응대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을 응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꽤 좋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분명 온전케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목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상부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저를 좋게 봐 주셨죠. 열심히 추구하라는 당부도 하셨고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상부에서 그를 정말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무척 과장해서 말하며, 심지어는 없는 얘기를 날조하기도 한다. 만약 몇 명이 말을 맞춰 본다면 그는 안색이 변할 것이다. 어쩌면 상부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자질이 좋고 이해 능력이 있으니 체험 간증문 쓰기를 훈련해 보세요. 생명 체험이 생기면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의 함의는 무엇이겠느냐? 설령 그가 인재라고 할지라도 훈련하고 한동안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훈련하고 체험하기도 전에 뽐내고 거들먹거렸으니 이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교만하고 거만하여 이성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 설령 상부 형제가 그를 가리켜 자질이 있는 인재라고

말했을지라도 이는 그에 대한 격려나 평가에 불과하다. 그가 밖에서 이렇게 뽐내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는 '봐, 상부 형제님까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시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우러러보지 않는 거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해 주면 당신은 나를 우러러봐야 할 거야.'라는 뜻이다. 이것이 그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한때 리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구 리더, 지역 리더, 교회 리더를 역임하며 한 단계씩 내려왔다가 다시 한 단계씩 올라갔죠. 세 번의 등락을 겪은 후 마침내 제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지금은 또 윗선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상태에 빠진 적이 없답니다."라고 말한다. 그에게 왜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그는 "금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도출해 낸 결론이다. 이것이 진리 실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실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기론(奇論)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혹자는 "그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의 등락을 겪으면서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또 리더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금은 정말 빛을 발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는 언젠가 온전케 될 재목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루려는 목적 아니겠느냐? 그는 사실 이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전부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특정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함으로써 이루려는 목적이다. 그가 말하고 설교하고 교제하는 속셈이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것이라면, 이런 행동은 전부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방식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다 자신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결과를 얻는다. 이런 행동 방식은 많든 적든 거의 모든 리더 일꾼에게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지나친 지경에 이르러 자제나 억제가 안 된다면, 또 속셈과 목적이 특히 강렬하고 명확해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나 우상처럼 여기게 하여 사람을 속박하고 통제하는 목적, 남들에게 순종과 숭배를 받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이는 전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성질이자 적그리스도의 성질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은 무엇이냐? (밑천을 따지는 것입니다.) 밑천을 따지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믿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어떤 이는 한술 더 떠서 자기는 몇 번이나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나 형제자매를 팔아넘기지 않고 굳게 서서 증거했다는 등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밑천을 따지는 것에 속한다. 그들은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들고 자기 경영을 하며,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갖가지 방식과 방법, 수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심지어는 자신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한다. 특히 진리를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극력 배척하고 억압한다. 반면, 무지몽매하고 어리숙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분량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법을 쓰겠느냐? 미혹하고 회유하며 심지어는 위협한다. 이런 수법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이다.

교회에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상부로부터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어긋나는 일을 할 경우, 하나님의 선민은 이에 대해 보고할 권리가 있다.'라는 설교를 들은 후 자기 교회의 리더가 사역할 때 사역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는 보고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이 리더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리더는 '감히 나에 대해 보고하려는 사람이 있다니 말도 안 돼! 대체 누구야?'라고 생각한다. 그 후, 리더는 교회 사람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겠느냐? 모든 사람의 나이, 하나님을 믿은 기간, 예전에 어떤 본분을 이행했는지, 현재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상부와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모두 한 번씩 조사하며 큰 공을 들인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 사람 두세 명을 찾아낸 후 예배 때 집중적으로 이 일에 관해 설교한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배에서 교제해 주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얻었고, 복음 사역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두지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누구한테 고마워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한 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사람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서적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책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한데 모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가 어쩌다 한 번 잘못한 일이 있어도 꼬치꼬치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건 공연히 소란을 피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은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위에 보고해서 뭐 한답니까? 보고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분량이 작은 겁니다. 어떤 일이든 다 상부에 보고하는 게 적절한 처사입니까? 상부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시간이 어디 있답니까? 해결한대도 교회 리더가 해결해야죠. 무슨 일이든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굳이 상부에 보고하는 건 상부를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게 보고한다면, 책망 훈계 없이 화기애애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기나 하세요? 상부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자나 매와 같죠. 우리 정도의 분량으로 상부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상부에 문제를 보고한다면 좋을 게 없습니다. 크게 한 번 책망당하겠죠. 저도 여러 번이나 책망당했고요. 당신의 그 정도 분량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차했다간 믿음을 잃게 될 텐데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하겠다면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책망받아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도 저를 원망하지는 마시고요. 보고하고 싶다면 저도 막지 않을 겁니다. 보고하세요. 누가 보고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함부로 보고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는 못난 인간 아니겠느냐? 왜 그를 겁낸단 말이냐? 왜 그에게 겁을 먹는 것이냐? 지금 그가 너를 괴롭혀

죽이려고 할지라도 네 목숨은 그의 손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그의 협박 몇 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고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 그에게 처분을 내릴까? 만에 하나 처분이 내려오지 않으면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까? 다시는 보고하면 안 되겠어. 게다가 이건 나와는 무관한 일이잖아. 다들 보고하지 않는데 내가 뭘 보고해?'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보고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사정을 봐주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자기에 대해 보고하고 싶어 하며, 자신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순한 생각을 품고, 소란을 피우려고 하지. 또 시비를 걸거나 내 문제점을 보고하려고 하고. 감히 말이야! 당신은 기회를 봐서 상부와 접촉해 나를 고발할 거야. 지금은 위축되어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 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손봐 줄지 지켜보라고!' 그리하여 적그리스도는 핑계와 기회를 찾아 그 사람을 폄하하고,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반감을 갖게 한 다음, 갖은 방법을 동원해 그의 약점을 잡는다. 그리고 소란을 피워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 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글렀어.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보고했다가 괴롭힘 당했잖아. 앞으로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겠어. 절대 리더에게 원한을 사선 안 돼!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리더잖아. 리더가 동쪽이라고 하면 서쪽이라고 하지 말고, 리더가 하나라고 하면 둘이라고 하지 말자.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절대 상부에 연락해서 문제를 보고해선 안 돼. 그랬다간 큰일 날 테니까! 리더에게 괴롭힘 당했는데 상부에서는 모르잖아. 누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겠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건 직속상관이라고!' 그는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보고하고 싶어도 악인에게 겁을 먹고, 사악한 세력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며, 악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곳에서 악인에게 괴롭힘 당해 못난 인간이 되어 버린다. 원래는 그래도 정의감이 조금 있었고 취할 만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해 악인과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졌다. 모든 믿음이 사라질 정도로 무너진 그는 하나님에게 의지해 진리를 구하거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제 그는 적그리스도를 보면 무서워하고 겁을 먹는다. 어느 정도로 무서워하겠느냐? '이 세상은 악인이 권력을 잡고 있어. 그러니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온순하게 굴어야 해. 나는 그런 독기도 없고 간도 작잖아. 어디를 가든 기꺼이 모욕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며, 상대를 조상처럼 여겨야 한다고. 그 사람이 동쪽이라고 하면 서쪽이라고 해선 안 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누구의 문제든 보고하지 말자. 누구의 일이든 캐묻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는 일만 신경 쓰는 거야. 리더 일꾼한테 원망을 사지 말고, 진리 원칙을 고수하지도 말자. 빛을 동경해서도, 정의를 사랑해서도 안 돼. 이 세상에는 빛과 정의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참는 거야. 앞으로 어디를 가든 명심해야 해. 항상 평화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이 한마디 결론을 종합해 낸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쓰러진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쓰러진 사실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느냐? 억압당한 후로, 그는 간이 콩알만 해졌다. 어떤 일도 말하거나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진실한 믿음도,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도 사라졌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속 작은 불씨도 꺼져 버렸다. 적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쓰러진 것이다. 이런 자는 못난 인간 아니겠느냐? 겁쟁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를 어떻게 간파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에게 "당신 교회의 누구누구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훌륭합니다."라고 답한다. 또 "당신들이 새로 뽑은 교회 리더에 대해 잘 아나요?"라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요즘 그쪽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란하는 사람은 없나요?"라고 물으면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대답한다. 무엇을 물어보든 그의 답변은 위와 같다. 이는 겁을 먹은 것 아니겠느냐? 왜 이 정도까지 겁을 먹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사탄의 사악함과 잔혹함, 잔인함, 어둠을 간파하지 못했다. 또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그 의미를 몰라 겁을 먹은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무슨 질문을 받든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말만 하게 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교회의 실제 상황을 들을 수 없으며,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가 스스로를 꽁꽁 싸매고 있기에 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며, 리더 일꾼이 어떤지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한담을 나눌 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너에게 벽을 치고 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러하다. '내 어떤 정보도 알아내려고 하지 마. 내 어떤 정보나 실제 상황도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아. 내게 다가오지 마. 내 입에서 교회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게 화를 가져다주는 거야. 현재의 내 생활 환경과 생활 리듬, 생활 상태를 망치려는 거지. 내 삶의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마. 그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괴롭힘 당하고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교회의 어떤 문제도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을 보고 기뻐한다. 그는 상대를 괴롭혀서 다시는 그의 문제를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며, 그곳에서 교회를 단단히 통제하고 있다. 교회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통제당한 사람이 많지 않으냐? 너희는 다른 이가 문제를 보고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어쩌면 그런 일을 하고도 아직 의식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게 구슬려지고 통제되는 일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한다. "교회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른 적도 없고 섬긴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적그리스도에게 얼마간 속박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도통 들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문제라고 하십니까?" 한 측면으로는 사람을 구슬리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수법을 통해 그의 본성 본질이 사탄의 본질이며, 진리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겨루려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적그리스도의 이런 일 처리 수법과 방식은 분명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는 확실히

그들을 미혹하고, 단단히 통제하여 그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르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발을 묶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는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초래하는 영향이자 결과이다.

지금까지 리더 일꾼의 본분을 이행하는 각 측면의 진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리더 일꾼에게 존재하는 문제들도 폭로하고, 가장 심각한 부류의 모습에 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권력을 잡고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권력은 그들의 목숨이자 뿌리이며, 그들이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주제이자 방향, 목표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 부류의 모든 행동과 그들이 표출한 성품은 사람을 미혹하고 구슬리고 통제하는 사탄의 수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류 사람의 모든 행동은 영락없이 사탄의 전달 통로이자 화신, 선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습의 주된 목적은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통제하는 대상은 누구겠느냐? 그들이 이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권력 범위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수단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며 위협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모습은 전부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얻고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자 방식이다. 이는 큰 측면이다. 이제 이 몇 가지 큰 측면을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교제하도록 하겠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구슬리는지 해부하다

1)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첫 번째 수법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데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느냐?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 한 가지이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남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본분, 또는 득이 되고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본분이 있을 때 그런 본분을 자기가 구슬리려는 사람에게 배정하기도 한다. 작은 선심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혹자는 어떤 일이 닥쳐 연약해지고 본분 이행에 열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며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는 것, 진실한 순종이 없는 것임을 알고 가책을 느낀다. 그런데 어떤 리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건 분량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스스로에 대한 요구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또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은 사람이 가끔

좀 연약해지는 건 정상이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 뜻은 연약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속 연약한 상태로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다 정상적인 소극성이니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정에 속박받는다. 그러면 리더는 "분량이 작아 그런 것이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리더는 질책하지 않고, 늘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아부하고, 상대가 그를 좋게 보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마음속으로 '우리 리더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아. 정말 남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이라니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뜻은 그가 하나님의 선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하다. 즉, 사람들이 그 리더가 무척 훌륭하다고, 남의 마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남들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 리더는 형제자매가 건성으로 대충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해야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 입는 것을 보아도 신경 쓰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속셈과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를 좋게, 높게 평가하고 내게 찬성하고 나를 좋아할 거야.'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이 얼마나 손해를 보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피해를 입든, 교회 생활이 얼마나 크게 교란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사탄 철학을 지키며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한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가책도 없다. 누군가 방해하고 교란하면, 기껏해야 말로 어물쩍 넘어갈 뿐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제하는 법이 없다. 거짓 리더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지 폭로하거나 해부하는 법이 없고, 어떤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그릇된 행동 방식과 패괴 표출을 항상 눈감아 주며, 사람이 아무리 소극적이고 연약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저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고 격려의 말 몇 마디로 대충 넘어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뿐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해도 해결하지 못하며, 글귀와 도리, 관념과 상상 속에서 살면서 생명 진입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해 줘. 우리는 분량이 작아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우리는 리더의 요구에 맞출 수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만약 어느 날 상부에서 우리의 리더를 교체하겠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 리더가 교체되지 않도록 상부와 협상하고, 상부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해야지. 그러면 리더에게도 면목이 설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생기고 리더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며 마음에 리더에 대해 이러한 의지, 부러움, 숭배가 생기면, 갈수록 리더를 믿게 되고, 리더의 말을 듣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의 선민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 관계를 즐기며 하나님 선민이 응당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리더는 바울과 다를 바 없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분별력이 전혀 없다. 사실, 그 리더는 진리 실제가 없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글귀와 도리만 늘어놓으며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그는 외식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능하다. 또 그의 말과 일 처리는 사람의 관념에 맞으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는 진리를 교제할 줄 모르고, 스스로를 인식하지도 못하기에 사람들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없다. 그는 오직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만 사역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휘어잡을 줄만 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고 앙망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심각한 영향과 지장을 주었다.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혹자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에게 대조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걷는 길 역시 적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언제나 개인의 지위와 이미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여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얻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높이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마음속에 진실한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만약 적그리스도 본성이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말을 듣는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한다. 이는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로 회개할 줄 모른다는 증거이다. 그는 계속 지위를 점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선민들의 숭배와 앙망을 즐기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미혹된 사람은 모두 참도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람을 미혹하고 구슬린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을 이행해도 눈감아 주며, 게다가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숭배와 앙망을 즐기고, 심지어는 아무도 드러내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준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은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오직 지위와 명예,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사람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숭배하고 앙망하고 따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며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는데, 이런 사역 방식이 사악하지 않으냐? 그야말로 너무도 역겹다! 그들이 한동안 그런 식으로 일하여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며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 진입에 아무런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적 부모,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사람들 마음속의 하나님 지위를 그들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닥치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리더에게 물어보고 리더의 안내를 구하면서 점점 더 리더를 앙망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하는 게 진리와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치든 리더가 입을 열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이런 지경으로 끌고 간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왜 리더의 말을 살펴보거나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겠느냐? 왜 리더의 말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리더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신, 또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 리더의 말을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신 리더에게 의지해 일을 처리하며, 리더의 지지와 말과 결정에 의지한다. 이 소위 리더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휘어잡아 얻은 결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는 분량이 작아서 구할 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 자기는 자질이 없어서 큰 빛을 얻지 못한다고 하며,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또 설교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대단하고 깊어서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사람이 자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니 리더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가 "어째서 리더를 찾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라고 물으면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관념이 있는 데다가 자질도 떨어지죠. 아둔하며 무감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더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 줍니다. '1 더하기 1 은 2'라는 식으로 무척 직설적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읽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역시 모릅니다.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분량도 너무 작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어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리더에게 물어봐야 해요. 리더가 대신 결정해 주고, 답을 찾아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하고 순종적이죠." "단순하고 순종적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리더에게 정말 진리 실제가 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리더가 글귀와 도리만을 늘어놓을 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될까요?"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리더는 자질이 뛰어난 데다가 맞는 말만 합니다. 그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지요." 그의 말에 논리적 추리가 있지 않으냐? 전부 개인적인 느낌이다. 그는 자질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어 리더에게 정말 문제가 있어도 간파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무지몽매하고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은 잠시 차치하고, 리더 본인에 관해서만 말해 보자.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리더에게 이런 의존성과 견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리더의 수법이나 방식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있겠느냐? 리더의 사역 방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절대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100% 관계가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많은 리더가 주관적인 바람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다가 각종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행정 사무와 관련된 사역만 조금 할 줄 알고, 자신을 뽐내 우러름 받을 줄만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다. 또 자신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통제하며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통제하여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고 진리를 실행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측면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한다.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뿐 하나님에게는 진실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크게 넘어섰다. 본분 이행에 전혀 성과가 나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한다. 이런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리더 일꾼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에는 '정확한' 실행의 길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실행조차 없다. 아무도 이런 측면에서 교제하지 않고, 아무도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침식을 잊은 채 머리를 쥐어짜 가며 사역한다. 이는 명백히 리더 일꾼이 되어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패괴된 인류의 성품과 기호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길을 가리켜 주면 너는 흔쾌히 실행하고자 하지만, 이는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의 인성 안에는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없으며, 사람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진리와 상반되고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라고 하면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면 더없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수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금방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불러오고, 속셈과 관점이 들어간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으면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고 다르게 대한다. 이는 사람의 내면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는 길을 걷는다면, 네 모든 행동은 패괴된 인류 누구에게든 참도에 등을 돌리고 진리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게 하는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오직 이 결과, 이 결말뿐이다. 이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첫 번째 모습은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다. 작은 선심이란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말을 해 주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의 욕망과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듣기 좋은 말을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상대로 하여금 그 리더는 남을 헤아려 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즉, 충분한 포용과

사랑, 온기, 그리고 소위 이해심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의 이면의 야심을 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이 좋은 물건을 헌납할 경우 그는 자기와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 조금 나눠 준다. 이렇게 작은 선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인심을 사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 쉬운 일, 밖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체면을 세우는 일이 있으면 그는 자기와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킨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한 측면으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일 처리에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가 좋은 일을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 배정한 후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서 상대가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 수법은 작은 선물이나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속셈과 목적이 있다.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상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다. 만약 10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판단한다. '이 열 명 중 둘은 아부를 잘하지.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들은 내 비위를 맞출 거야. 또 둘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이익만 좀 안겨 주면 내 말을 들을 거야. 나머지 둘은 자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높은 설교를 하고, 대단한 말을 좀 하면 나한테 순종할 테고. 셋은 보아하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요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서 그걸 충족시켜 줘야겠어. 만약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면 결국 처단하고 제명해야지. 남은 한 명은 나한테 반대하기는 해도 큰 말썽은 부리지 못할 테니 대응하기 쉬울 거야.'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쓱 훑어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겠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정치와 철학 같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의 일 처리 원칙과 처세 방식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함께 지내는 것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나 공급을 주고 덕이 되는 것도, 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며, 진리 원칙으로 일을 처리하고 교류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는 이런 원칙이 아예 없다. 그의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공경하지만 그다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보통 남들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사람을 통제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 그에게 왜 이런 단계와 사상이 생기겠느냐? 권력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속에서 남들과 화목하게 지낼 경우,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성취감이 없고, 너무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를,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차지해야 하고, 평등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리더를 하면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권력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 하느냐? 먼저 네 마음을 읽고 파악하려 한다. 즉, 먼저 너를 포섭하여 네가 그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게 하고, 네 마음속 말을 끌어내서 그에 대한 네 솔직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파악한 후에는 상황에 맞춰 하나하나 손을 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마음이 자신과 맞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사실을 알면 손을 써서 상대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적그리스도의 출발점은 권력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가 권력을 얻는 방식과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은 무엇으로 통제되느냐? 마음과 본성으로 통제된다. 사람의 마음이 통제되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 뜻이 어떤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음이 통제되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통제된다.

2)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뽐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수법에는 방금 말한, 작은 선심을 베푸는 것이 있었다. 이것 외에 또 자주 보이거나 상투적인 수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리더가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인상으로 남아 있다고 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다지 재능은 없고 글귀와 도리만 말할 줄 안다고, 진리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결점과 문제점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말들을 하겠느냐? 솔직하게 털어놓는 척하는 것이 한 가지이다. 또 있느냐? (해명할 것입니다.) 해명 역시 숨기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 밖에, 자신의 강점과 남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숨긴다. 이는 자주 쓰는 수법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은데 왜 리더로 발탁됐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십여 명에 불과했던 직원들이 나중에는 이백 명까지 늘었죠. 이건 리더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가끔은 이 재능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다지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쇼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을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성적을 내면 그들은 말을 듣습니다. 저한테는 증거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제 회사는 지금 상장해 있거든요!"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그건 은사이고 이방인의 행동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일 처리에 확실히 수완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자 몇몇 사람들은 의혹을 품다가 믿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의 일 처리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그를 숭배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결점을 숨겼기에 사람들은 부지중에 그에게 회유되고 미혹되어 머리를 숙이고 굴종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수법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특기와 은사를 뽐내고, 능력과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역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기 위해서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외에도 상대가 마음속으로 그를 우러러보게 한다. 만약 그가 평범한 사람, 혹은 지식이 없는 무식꾼이라면 누가 그를 우러러보겠느냐? 그래서 그는 일부러 졸업장을 보여 줌으로써 자기가 가방끈이 길고 학력이 높다는 것을 알려 주는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은사와 특기, 능력을 뽐냄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받게 한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늘 그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나 생각이 들게 한다. 그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동

또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하나의 수법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두 가지 모습이다. 첫 번째는 작은 선심을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은사, 즉 자신의 우위를 뽐내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대중을 압도하고, 군계일학 같은 면모를 드러내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고 앙모하며 기꺼이 그의 앞에 나아가 그의 지휘를 따르고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하며, 심지어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한다. 이는 심리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탄의 수법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며,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얻는다. 그럼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는 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그들은 비정상적이고 사악한 수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앗아 가며,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지중에 그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앙모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수법에 관해서는 방금 두 가지를 교제했다. 이 밖에도 매우 대표적인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사람을 미혹하고 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수법과 행동 방식들을 겪어 본 적이 없다면, 자신에게 비춰 봐서 자기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아도 된다.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수시로 작은 선심을 베풀고 사람을 미혹하며 회유하지 않느냐? 또 언제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은사와 강점을 뽐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자기 약점과 결점이 폭로될 때, 나아가 책망 훈계를 받아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런 방식과 수법으로 보완하고 사람들 마음속의 자기 지위와 명망을 만회하는 이런 일을 너희는 하지 않느냐? (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길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각하느냐?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느냐? 보통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가책을 느끼지만 명예와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어쩔 수 없이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다면 가책을 느끼느냐? 아니면 아예 느낌이 없고, 일을 마친 후에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평소처럼 먹고 자고 하느냐? (가책을 느낍니다.) 가책을 느낀다면 그나마 괜찮다. 이는 너희가 그 정도까지 무감각하지는 않으며, 그래도 지각이 있다는 의미이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희망이 있지만, 지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인성이 없으니 위험하다.

3)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호감을 사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릴 때 자주 쓰는 수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바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상대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달갑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우며 본분에 열심인 것 같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의 그런 행동은 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다른 목적이 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얼마나 훌륭한지, 본분 이행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충성이라는 출발점이 아예 없다. 그가 이루려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의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그가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탄복을 금치 못하게 하여 기꺼이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용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위냐?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허상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좋은 행위, 표면적으로 볼 때 진리에 부합하는 것 같은 행동 방식이다. 진리에 부합하는 것 같은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호감을 사는 것, 이를 이런 행위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으로 얼마간 그를 존경하게 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일정한 지위를 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류는 본분 이행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하고, 일을 처리할 때 대부분 경험에 기대며, 기본적으로 큰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진리 원칙을 구하라고 교제하면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교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들은 다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정말로 일이 닥쳤을 때 그는 구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의 만류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더더욱 듣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뿐이다.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외관상으로 엄격하고 신속하여 어느 정도 권위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호감을 갖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눈에 띄게 진리를 어긴 부분이 없고, 일 처리 방식이 매우 노련하며, 본분 이행의 '충성' 정도와 경험은 탄복할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이 분야의 본분 이행에 경험이 있어. 노련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 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좋게 볼 때, 사람들 마음속 그들의 비중이 높겠느냐, 낮겠느냐? (높을 것입니다.) 비중이 높고 크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진리를 구해 본 적이 없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에 흥미가 없고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무엇이 진리 원칙인지 아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순전히 한때의 열정과 좋은 마음, 여러 해 동안의 경험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남들이 이 사실을 아는 걸 원치 않기에 극력 아첨하고 대가를 치른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사실, 혹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일 처리에 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눈치채면, 그들은 서둘러 성적을 내서 보여 주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지, 일 처리에 원칙이 없는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잖은 사람이 그에게 미혹되어 "그들은 본분 이행 경험이 있고 원칙을 이해합니다.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고요."라고 말한다.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고요."라는 한마디는 무엇을 드러냈느냐?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들의 외적인 좋은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정은 무슨 의미겠느냐? 그들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일종의 명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그 명망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겠느냐? 그들에 대한 앙망과 우러름, 심지어 의존을 가져다준다. 어떻게 의존하겠느냐? 일만 생겼다 하면 그를 찾는다. 만약 누군가가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 상부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리더한테 물어보면 되죠. 리더는 뭐든지 아니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리더 일꾼은 대부분 사역으로 바쁘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분명 진리를 깨닫는 사람일 것이고 일 처리에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장이 어떠하냐? 표면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겠느냐?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제한적이다. 만약 리더는 무엇이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리더에게 물어본다면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언제나 리더 말만 듣고 리더를 앙망한다면, 몇몇 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자칫 잘못했다간 교회 사역에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람을 숭배하고 앙망하면 옆길로 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생명에 해를 주고, 하나님 집과 교회 사역에 손해를 끼치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과 은사, 능력을 뽐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호감을 사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늘 남들이 모르는 길거리 소식을 폭로하거나 고금의 일을 논하고, 명인이니 고담준론이니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할머니가 립스틱을 바르는 것, 본때를 보여 준다."라는 익은말이 있다. 이렇게 늘 한 수 보여 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는데, 가끔 제대로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해 빈틈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온 힘을 다해 보완하려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양심과 진리에 어긋나고 본분 이행과 무관한 어떤 일을 하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법이 없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의식하기는커녕 머리를 쥐어짜고 고심해서 자기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수습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초조해하며, 심지어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사람들에게 심어 준 자신의 좋은 이미지가 일순간에 추락할까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글솜씨가 좋고 문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좋은 리더라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그 좋은 이미지가 사라지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대가를 치르며 머리를 쥐어짜 보완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걷는 잘못된 길과 진리에 어긋나는 갖가지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과 자책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 본 적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느낀 적이 없다. 그들은 갖가지 수법을 써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데,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교회 리더가 해야 할 사역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사탄 성품으로 살아가며, 악을 행하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걷는 길,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갖가지 모습에 근거하면, 그들은 리더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방해하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아니겠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사탄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들이 한 이런 일의 성질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선민을 놓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다. 본디 하나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얻어져야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양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쥔 채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고 따르게 한다. 바로 이런 성질이다.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겠느냐? (악한 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악한 종이라는 말이 딱이다. 적그리스도, 악한 종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냐? 이 사람들은 리더 본분을 이행한다는 기치를 들고 있지만, 리더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리더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탄을 대변하여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며,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여 참도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탄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진리와 하나님을 저버리며,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젠가 그들이 사람들을 철저히 미혹하고 통제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들은 교회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맡긴 사역과 리더 일꾼 본연의 사역을 하기는커녕 기어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수작을 부리며, 사람을 미혹하고 휘어잡고 통제하여 분명 하나님께 속한 양들을 자기 손에 움켜쥐려 한다. 이런 자는 강도나 도적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 아니겠느냐? 하나님 선민의 원수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선민의 원수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과거 중국 각지 교회에서 말하고 사역할 때 내 곁에서 녹음과 설교 원고 정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은사가 있어 머리가 좋고 반응이 빨랐지만 딱 한 가지, 상황에 맞춰 듣기 좋은 말을 잘했다. 네가 음식 맛이 좋다고 말하면 그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라고 말한다. 네가 오늘 날씨가 덥다고 말하면 그는 "정말 덥네요. 땀이 다 나요."라고 말하고, 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면 그는 또 "그러게요. 저는 털신까지 신었잖아요."라고 말한다. 그는 솔직하고 진솔한 말을 하기 힘들어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일이 생겨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면 숨어 버린다.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사람이었다. 혹자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겁니까?"라고 묻는데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반응이 빨라서 말만 하면 언제든 녹음을 했다. 그는 나를 따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설교와 녹음을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일을 좀 했지만, 내 앞에서 보여 주는 모습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 내 앞에서 그는 말을 잘 듣고 영리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도 그랬겠느냐? 상부와 접할 때는 그러했다. 그럼 하나님의 선민들 사이에 있을 때도 그랬겠느냐? 확신할 수 있겠느냐?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그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와 만나서 한동안 함께 지내봐야 한다. 그러면 그의 본성 본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는 지위와 허영을 매우 사랑해서 누구와 함께 있든 밑천을 논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자기한테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뽐냈다. 그는 늘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앞에서 보여 주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이 밖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데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자기가 하는 그 사역, 자기가 이행하는 그 본분을 밑천 삼아 여기저기에서 뽐냈다. 어느 정도로 뽐냈겠느냐? 모두가 그를 앙망하고 숭배하고 부러워하여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세요. 저희는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와 너무 큰 차이가 나죠!"라고 말할 정도였다. 모두가 입만 열었다 하면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람들의 인식과 사상,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마지막에 이 정도에 이르렀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는 많이도 말하고 일하지 않았겠느냐? 자기가 어떤 본분을 이행했는지 결코 한두 마디 말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자기 속셈과 목적까지 더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떠하냐? 내 곁에서 본분을 이행한 것은 처신하는 법을 배우는 측면에서든 진리를 얻는 측면에서든 그에게는 모두 좋은 일로, 온전케 될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랐고, 그것이 진리를 얻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이자 토대, 원천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반대로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목적을 이루려 했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가 이렇게 자기가 한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대하고 신임했는지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안에 내포된 자신의 속셈을 의식하지 못했겠느냐?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의식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그럼 그는 의식할 수 있었는데도 왜 자신의 악행을 단속하지 못했겠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권세와 지위만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패괴를 표출할 때,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 증거할 때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과 참소를 느꼈을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비열한 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 후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지면 조심하면서 그런 일을 끊어 냈을 것이다. 이는 무척 정상적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야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며, 책망과 훈계가 닥치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의 본성은 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팽창했겠느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지위를 좋아합니다.) 지위는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느냐? 사람들의 숭배와 우러름, 부러움을 가져다준다. 최종적으로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 대우를 누리고 그 지위가 가져다주는 명예와 행복,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니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그에게는 더욱 역겨운 일이 있다. 나중에 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스스로가 지위의 복을 누릴 자격이 더 커졌다고 생각했다. 이 사상에 지배되어 어떤 모습을 보였겠느냐? 사람들이 그에게 더 좋은 대우를 더 많이 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요구를 했겠느냐? 그 요구가 과하다고,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 그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많은 고난을 치렀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라고.

그러니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나를 돌봐 줘야 해.'라고 말이다. 그는 병에 걸린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어 달라고 하고 음식을 먹여 달라고 했다.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답답해지자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들고 그와 함께 밖에 나가 기분 풀자고 했다. 이는 정말 역겹지 않으냐? 정말 이 정도까지 아프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성이 없어도 심각하게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척 열정적으로 보인다. 교회의 일에 신경 쓰고 마음을 졸이며, 늘 앞장서서 뛰어다닌다. 그러니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모두를 실망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선민들에게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는커녕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위해 힘써 일하고, 늘 자신을 뽐내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 하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는지 떠들어 댄다. 결코 진리 추구와 생명 진입에 공을 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바쁘게 사역을 하고, 여러 장소에서 늘 자신을 뽐내며,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아 일부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지위를 공고히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그가 작은 선심을 베풀어 뇌물을 주든, 아니면 자기 은사와 능력을 뽐내든, 갖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사람 마음속에 지위를 차지하든 무엇을 잃게 되겠느냐? 그는 리더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보인 여러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마지막 결말을 위한 악행도 쌓이게 됐다. 지금 와서 보면,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매수하든 휘어잡든, 아니면 자신을 뽐내거나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실익을 얻은 것 같든, 얼마나 큰 만족을 얻은 것 같든지 간에 이 길은 바른길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분명히 아니다. 이런 방식과 수단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 결국, 모두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혐오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람의 야심으로,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와 본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자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악을 행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바로 사탄에게 넘기는 것이고 사탄의 집단 거주지로 보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죽는다. 즉, 사탄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은 과연 어떤 성질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본질이다. 더 심각한 본질은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질과 위치를 정한 것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다.

2019 년 1 월 22 일

제 2 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모습 중 제 1 조 '사람의 마음을 구슬린다'에 관해서는 교제를 마쳤다. 이제 제 2 조를 교제하도록 하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두 번째 수단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수단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람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는 것 같다. 또 비교적 완곡하고 모호해서 어떤 악의나 악독함, 피비린내, 분쟁의 소지도 발견할 수 없으며, 언제나 교활한 수단을 쓴다. 반면, 두 번째 수단인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비교적 눈에 띈다. '공격하고 배척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이다. 공격하고 배척하는 방식은 분명히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든 알아볼 수 있다. 막돼먹은 여자가 거리에서 욕지거리를 하는 것처럼 서로 단점을 까발리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말투를 쓰며,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격성을 띠고, 꾹 참는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공격한다.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까발릴 때는 타깃이 있다. 그가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대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성질은 악독하며, 그의 언어와 말하는 방식은 공격성을 띤다. 즉, 까발리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한 말로 중상모략하며,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해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흑백을 전도하고 시비를 뒤섞음으로써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체면을 떨어뜨리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어떤 심리에서 비롯되었겠느냐? 대부분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흉악한 성품 안에서 질투는 늘 강렬한 증오를 품고 있다.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적그리스도가 폭로당하고 고발당해 지위를 잃고 심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불복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며, 나아가 강렬한 복수심을 품을 것이다. 복수심은 일종의 심리 상태이자 패괴 성품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날 때나 다른 누구의 말, 건의가 자기보다 훌륭하고 좋아 모두가 동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자기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질투와 증오를 품고, 공격하고 복수하는 것이다. 복수할 때는 보통 선제공격으로 이뤄지는데, 주동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며, 상대가 제압당해야 분이 풀린다.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모습에는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 (상대를 폄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폄하하는 것도 그중 한 가지 모습이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는 너를 폄하하거나 정죄할 것이다. 그는 너를 폄하하고 정죄해서 소극적인 상태에 빠뜨리고 연약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기뻐할 것이고, 또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럼 이 '폄하' 안에 정죄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문제를 부풀린다. 예를 들어,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는 그 일을 문제로 삼아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약점을 잡으며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너를 정죄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여기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배척이란 무슨 의미냐? 그는 마음속으로 네 행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를 질투하고 증오하여 고의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네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자기 관점과 궤변으로 반박하는데,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리가 있어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말이 옳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동조하고, 그의 편에 서서 너를 반대하며, 그렇게 너를 공격해 네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려는 그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배척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변론할 때도 있고, 뒤에서 판단하고 이간질하며 비방하고 모함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배척할 때, 적그리스도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와 사이가 좋은지 알아본 다음 그 상대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그 사람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렇다 할 자질이 없고 이해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별로 원칙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논쟁을 벌였답니다. 저는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이런 이간질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된다. 또 적그리스도가 옆에서 끊임없이 부추긴 탓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와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 후에는 틈을 봐서 약점을 잡는데, 상대가 무너지고 체면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는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경쟁 상대 한 명을 쓰러뜨린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갖은 방법을 다해 상대를 고립시킨 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쫓을 수 없다면 계속 상대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그를 제압하고 사죄를 받아낸다. 적그리스도는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용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며, 교회에서 일을 망치는 짓을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 결국 교회를 여러 파벌로 분열시킨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파를 형성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파를 형성하며, 그 가운데에는 중도적 성향을 지닌 파가 있다. 그의 '슬기로운' 인도 아래에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며,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굴종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고립되어 찍소리도 내지 못한다. 또 그를 분별하거나 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그는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령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내 인도에 복종해야 해. 지금은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아래 있는 한, 당신이 용이라면 똬리를 틀어야 하고, 호랑이라면 납작 엎드려야 해. 당신한테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루라도 여기 있는 한 세력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마. 훼방할 생각일랑 하지 말란 말이야!' 그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교회와 하나님 선민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그와 다른 목소리가 전혀 없는 분위기, 그의 권력과 리더 지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누구든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설령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속으로 삭여야지 밖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는 갖은 방법을 다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혼내 줄 것이며,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없애 버리지 못해 안달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지키는 수법 중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건 괜찮지만 함부로 말해선 안 돼. 내 권력과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더욱 안 되고. 의견이 있으면 뒤에서 내게 말하는 건 괜찮지. 만약 모두의 앞에서 이를 말해 내 체면을 구기면 재미없을 줄 알아. 따끔한 맛을 보여 줄 거야!' 이는 어떤 성품이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불만이 있거나 어떤 일에 견해가 있어도 함부로 제기하면 안 되고, 그의 체면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체면을 봐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며 공격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는 어떤 본성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는 교회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교제하며 사람을 분별하게 두지 않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이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남들의 마음속 자신의 지위가 아무 흔들림 없이 계속 공고해지게 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리더 신분과 몸값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악독한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 주는 것 아니냐? 권력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공고히 하고 안정시켜 영원히 통치하려 한다. 그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통제하려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완전히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만약 그의 행동이 광명정대하고 진리에 부합한다면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그를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는 꿍꿍이를 품은 것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숱한 악을 행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남들에게 폭로되는 순간 지위를 보전하기 힘든 것은 물론, 제명되고 출교될 위험까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교제하고 분별을 논하는 것을 극력으로 통제하고 제약하고 가로막는 것이다. 특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 용기 있게 악인을 폭로하는 사람은 그의 눈엣가시이다. 그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모두 쓰러뜨리고 납작하게 눌러 주어야 더는 그를 폭로할 사람이 없다고, 더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전감을 느낀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일관성이 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손을 절대 풀지 않으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언제라도 긴장을 놓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말 한 마디, 일 처리 하나는 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가 나타났을 때, 뒤에서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거나 평가한 게 그의 귀에 들어가면,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하루를 굶는 한이 있어도 서둘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공을 들일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지위에 위기와 도전이 찾아왔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권력과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악행과 추문이 드러나면 지위와 권력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출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일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잠재적 위험을 없애려 한다. 그래야 그는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위는 목숨줄이다. 누군가 그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다. 내일 지위를 잃고 더 이상 지위가 가져다주는 우월감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더 이상 지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따르지 않게 될까 봐, 그들에게 아첨하거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제명되거나 출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위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과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상을 얻을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권력과 지위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점과 우월감을 잃는 순간, 그들의 호시절은 끝난다. 또한, 그들은 숱한 악행을 저질렀기에 재난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란 무슨 의미이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로 보느냐? 최소한 그라는 리더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즉 마음속으로 그를 우러러보거나 숭배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처럼 대하는 사람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로 생각한다. 이것이 그중 한 가지다. 이 밖에,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성품 변화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와 걷는 길이 다르며, 그의 눈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로 보인다. 또 있느냐? (늘 그에게 의견을 내놓고 과감하게 그를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과감히 그에게 의견을 내놓고 그를 폭로하는 사람, 또는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그에게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자질이나 능력을 견줄 만한 사람, 말재주나 일 처리 능력이 비슷한 사람, 혹은 그가 보기에 자신보다 대단하거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그는 커다란 문젯거리로 생각한다. 그는 이런 사람을 자신과 의견이 가장 크게 다른 이로 본다. 그는 이런 사람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고 조금도 경계를 풀지 못한다. 또 이런 사람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시시각각 경계하고 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을 피하려 한다. 특히 이런 사람이 그를 분별하고 폭로할 때, 그는 더욱 당황해하며 한시바삐 그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지 못해 조바심을 친다. 심지어는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흡족해한다. 그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며,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짓을 하겠느냐? 형제자매들을 원수로 여겨 대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무너뜨리고 제거하지 않겠느냐? 분명 그럴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머리를 쥐어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제압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제압이란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감히 더 말하지 못하며, 다른 의견을 내거나 나아가 그를 폭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대를 모함하고 정죄하며, 허상을 만들어 망신을 주는 한편, 상대를 책망하고 상대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큰 악행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짓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수단, 방식은 무척 많다. 공개적으로 겨루고 반박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회유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그의 말을 듣게 하는 가장

심각한 수법을 쓰기도 한다.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억누르고 제재하고 납작하게 만드는데, 이는 이방인이 정적을 대하는 수법과 같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하다. 하지만 어떨 때는 회유책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살핀 후 갖가지 비열한 수법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 앞에서 수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점을 줌으로써 상대를 만족시키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시켜 달래 주라고 한다. 그는 또 상대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는 척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둘이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더없이 적절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당신이 절반, 제가 절반을 맡게 되겠죠. 제가 리더지만, 당신이 어떤 의견을 내든 저는 당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당신한테 맞춰 주는 거죠." 만약 상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주 쉽게 그의 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간계가 많군.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이런 수를 쓰네. 강경책이 아니라 회유책을 쓰고 있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는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누구든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위협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면 무너뜨리고 제거해 버려 결국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결정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수단, 즉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이 행동 방식, 모습, 일하는 동기와 원천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야심과 욕망, 사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권력을 잡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 후 지위의 복을 누리려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리더'라는 단어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들은 리더가 권력과 지위를 지닌 사람,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회유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면 이 수법들을 그들의 사역에 적용하며, 이렇게 본분을 이행한다. 그럼 이런 식의 본분 이행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겠느냐? 분명히 말하건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선민, 사람의 마음,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여 모두에게 숭배받고 싶어 한다. 너희도 이런 속셈과 동기, 모습, 행위 방식을 자주 보이지 않느냐? 이러한 사탄 성품을 자주 표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탄 성품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표출하느냐?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느냐?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의식하고 조심하며 자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권력에 전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지위의 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사람은 모두 사탄에게 패괴되었고, 사탄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위와 권력을 좋아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기 좋아한다. 이는 사람의 공통점이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성품을 표출하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데 그치겠느냐?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먼저 인성 면의 차이에 관해 말해 보자. 적그리스도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는 인성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양심과 이성, 인성이 없습니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정도 양심과 이성이 있고,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차이점이다. 적그리스도가 회개할 줄 알겠느냐? (그럴 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벽에 부딪혀도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인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보통의 좋은 사람과 악인의 차이이다. 좋은 사람은 언행에 양심과 이성이 있지만, 악인은 양심과 이성이 없다. 악인은 나쁜 짓을 저질러서 폭로되면 마음속으로 불복한다. '흥, 모두가 알았으면 또 뭐 어쩔 건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누가 나를 폭로하고 질책하든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누가 나를 어쩔 수 있겠어?' 악인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른 후에 위장하려고 하고, 나쁜 일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다가 폭로되면 얼굴을 들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하아,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정말 염치도 없지!' 그는 몹시 후회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평생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염치를 안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인성이 있는 것이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악인에 속하는 사람은 염치를 모른다. 악인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든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심박수가 빨라지지도 않는다.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인 일로 바꿔 말하며,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둔갑시킨다. 이런 사람에게 염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가 나중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계속 해 오던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치가 없는 것이다. 염치가 없다는 것은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질러서 폭로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남 보기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성적으로 염치를 안다. 염치를 아는 것은 정상 인성의 최저 기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치조차 없는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염치가 없는 자에게 정상적인 사유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아서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사람은 "당신은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군요."라고 누가 폭로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교훈을 얻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는커녕 리더 일꾼으로 발탁될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계속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며, 계속 해 오던 대로 행동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이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에게 염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도, 염치도 없다. 정상 인성과 양심, 이성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군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어? 그건 너무 몰염치한 짓이라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이어야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 나중에 다시 비슷한 일이 닥치면 그 수치심이 그의 행위를 제약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 본질이 모두 사탄의 본성 본질이라고 해도 혹자는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춰 염치가 있고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진리를 깨달음에 따라 점점 더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 진리에 대한 순종 정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수치심은 일종의 마지노선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리에 제약받을 것이며, 점점 더 훌륭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적그리스도 부류가 진리를 추구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정상 인성의 이성이 없고, 무엇이 진리 추구인지 모르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진리 추구는 정상 인성의 필요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만이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할 수 있다. 정상 인성이 없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과 진짜 적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고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시종일관 놓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적그리스도 본성을 갖고 있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확정한다. 만약 네가 진실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혹은 악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염치와 수치심은 있는지 돌아보아라. 만약 없다면 위험한 것으로,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저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명리와 지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명리와 지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위가 있으면서 지위의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죠. 지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고집불통인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지 않으며, 이런 자는 사탄의 부류, 짐승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네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을 드러낼 때 내면에 지각이 있는지, 수치심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드러낸 대상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운지 살펴보아라. 네게 이런 염치와 지각이 있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저를 만신창이로 드러냈습니다. 남들을 볼 낯이 없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소극적 상태에 빠져서 살아갈 자격이 없으니 죽어서 모든 걸 끝내자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느냐, 아니면 나쁜 일이겠느냐?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라고 말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염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염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첫째,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무엇을 기초로 자신을 인식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떤 부류인지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의미이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길 수 있고, 너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는 단순히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한다'는 적그리스도의 수법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의 범주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주로 일을 바라보는 관점, 걷는 길이 적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눈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로 보이며, 모두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이다. 그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과 교회 생활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법이자 행위 방식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 선민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며,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년 1 월 22 일

제 3 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세 번째 수단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정의와 광명을 좋아하며, 진리 교제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구하는 형제자매들과 자주 교제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이들을 보노라면 화가 치민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모두 눈엣가시로 여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가 공격하고 배척하고 비난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수단으로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진리를 교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사람을 폭로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품은 속셈은 사람을 도와서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폭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순전히 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출발점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임을 눈 밝은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무엇에 걸림돌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이 사람들이 모두 분별할 줄 알고, 그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그를 폭로하고, 적발하고, 고발하여 그를 정죄하고, 버리고, 그를 교회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는 지위와 권력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복받을 가망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제외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겉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 외에도 비상한 수단으로 그들을 대하기도 한다. 비상한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그는 리더 일꾼의 일시적인 과오를 틀어쥐고, 그 배경이 무엇이든, 사람에게 인식이 있든 없든, 회개할 수 있든 없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확대 해석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여 사람을 제명해 버린다. 적그리스도는 화근은 철저히 없애야 한다며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모두 리더 일꾼의 약점을 잡는 데 능하다. 일단 약점을 잡으면 사람을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죄명이 아니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선민이 뽑은 사람인데 너는 어째서 늘 리더 일꾼의 약점만 잡는 것이냐? 약점을 잡는 네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그를 대신해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냐? 악인이 리더 일꾼에게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라는 죄명을 씌우고 실례를 들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여기게 만든다면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다. 그 리더 일꾼들은 아주 쉽게 교회에서

제명된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라는 죄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죄명이 성립되면 곧 정죄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끝이다. 이는 멀쩡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이냐! 또 적그리스도가 그 틈을 타서 리더로 선출되어 교회를 통제한다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지 않겠느냐?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또 다른 수단은 없느냐? 권력을 쥐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사역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새로 세운 교회에 처음 믿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모두가 기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들을 양육하고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 신자들은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깨달은 당신 같은 사람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한테 화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 버린다. 사실상 정말로 그가 교회를 이끌고 공급하도록 보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곳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곳이다. 그는 그 사람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 교회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가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길 간절히 바랐다. 그 사람이 잡혀간다면 자기 지위를 위협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그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수단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새 신자를 양육하는 데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파견 보냈다. 그리하여 그의 음험한 속셈을 아무도 알아챌 수가 없었다. 그가 이렇게 한 건 아주 교묘하지 않으냐? 그런데도 형제자매는 이렇게 안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방법은 겉보기에 정당해 보여서 누구도 사실 진상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은 미혹되었다.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사역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속셈을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척 사악하지 않으냐? 그는 위험한 곳이면 어디든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는 진리를 추구하잖아?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넌 항상 나를 분별하고 꼬투리를 잡잖아? 좋아, 이번 일로 널 보내 버리겠어. 네가 잡혀간다면 아주 좋지. 네가 영영 재기하지 못하도록 말이야!'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함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박해와 배척을 당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설교를 듣고 진리도 조금 깨달았어. 이들이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건 안 되지. 설교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된 거라 그들이 못 듣게 하려 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 하지만 설교를 듣게 하면 그중에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내용도 많은데, 자꾸 들어서 깨닫고 분별이 생기면 나한테 좋을 게 없잖아? 내가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시간문제가 아니겠어? 그럴 순 없지. 미리 손을 써야겠어.' 적그리스도는 이런 속셈이 생기면 곧 행동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이다. 어째서 적그리스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이겠느냐? 이 한 가지 원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바람도 조금 있었지만, 너무

나약한 데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분별력이 없고, 너무 어리석어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감히 폭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손을 써서 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결과와 결말을 마주하게 된 것이겠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느냐? 리더 일꾼을 대할 때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느냐? 그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다면 순종해도 되지만,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순종해선 안 된다. 그럴 때 너는 폭로해도 되고 반대해도 되며, 다른 의견을 내도 된다.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해 거짓 리더, 거짓 일꾼 또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날 경우 너는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달리 나약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억압하고 괴롭힐까 봐 원칙을 견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는 "리더가 저를 출교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저를 폭로하거나 저버리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제가 교회에서 출교되면 하나님도 저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괴롭히고 출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한 짓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교회와 모든 하나님 선민이 함께 결정한 경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완전히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명과 출교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네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출교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겠느냐? 그것은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한 일에 속하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지 결정할 자격은 없다. 이 일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출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다면 너는 왜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냐? 왜 윗선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는 네가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네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고,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보복을 두려워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네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게 분별력이 있고,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선민과 이 일에 대해 교제하지 못하느냐? 입이 있는데 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이는 네가 겁쟁이이자 못난이이며, 사탄의 앞잡이라는 의미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협박

앞에서 감히 윗선에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고, 네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와 한마음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탄을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선민이겠느냐?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와 한마음인 사람은 절대 좋은 작자일 리 없다.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에 속한다. 이런 자는 천성적으로 마귀의 앞잡이이고, 개만도 못한 사탄의 노예로, 구제 불능이다.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일어나 폭로하지 못하고,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두둔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아니겠느냐? 진리 원칙을 뻔히 알면서도 어긴다면, 심지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 패거리를 짓는다면 이는 사탄의 공모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마지막에 악인, 적그리스도와 한패로 취급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공모자,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빌붙어 그 결과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하고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는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네가 적그리스도를 네 주인이자 리더, 의지처로 여긴다면 이는 사탄에게 빌붙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며, 자기 방식대로만 행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고 옆길로 빠진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오른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겠느냐? 그를 폭로하고 그와 싸워야 한다. 한두 명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몇 명이 함께 그를 제명할 때까지 고발하고 폭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교구 몇 군데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힘을 모아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파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는 의사 결정팀의 팀장이었지만,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파면되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상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리 원칙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걸핏하면 형제자매를 괴롭히며 함부로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는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제때 처리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의사 결정팀에서 쫓겨났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제명되었는데, 매우 훌륭한 처사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하나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고 어느 정도 분량을 갖췄으며, 더 이상 사탄의 통제와 우롱을 당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나 사탄의 사악한 세력과 싸웠다. 이는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한다. 그랬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을 감독하고 분별하고 저버리는 사람이 나온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지위와 명망, 권력은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고 돌아보기 시작하고, 사람은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떤 모습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며, 몇 년간 이런 진리를 모색하며 체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얼마간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분량이 생기게 된다. 매사에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다. 어떤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못하면서 방해와 교란을 일삼고, 교회 생활이 평온하지 못하게 혼란을 일으키자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결국 그를 버렸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선출된 후, 처음에는 형제자매들이 "그를 리더로 뽑았으니 우리가 그의 사역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열정만 있을 뿐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치우쳤으며,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일이 생기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원칙을 따르지 않은 채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다 결국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바람에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계속 붙잡히고 교회 사역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치를 따지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사람들이 또 그를 파면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아주 옳다! 이 사람을 처리한 뒤에 곧바로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봤을 때 그 거짓 리더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이는 모두가 분별력이 생기고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 선민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이는 아주 정상이다.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모두가 분별력이 생겨 리더 일꾼을 뽑을 때는 뽑는 족족 제대로 된 사람, 그 자리에 굳게 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뛰어나며 은사가 있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뽑는다. 하지만 뽑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들이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게 된다. 그러면 리더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겠느냐?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요컨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라면 선출해서는 안 된다. 선출하는 순간 너 스스로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던 주제,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로 돌아와 보자. 이 주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다루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배척하고 공격하느냐? 그들은 늘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방식, 심지어는 진리로 변론하는 방식을 통해 남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정죄하고 미혹하려는 목적을 이룬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파트너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높은 설교와 영적인 이론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도록 미혹한다. 이를 통해 그의 파트너나 사역자를 깎아내리고 억압하여 사람들이 그의 파트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자질이나 재능은 그만 못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심지어 "우리 리더의 설교는 정말 대단해.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를 듣고 무척 흡족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나의 파트너야. 당신은 어느 정도 진리 실제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니었어? 그런데 왜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거야? 이번에는 철저히 망신을 당했겠지. 능력도 안되면서 감히 나와 겨루려고 하다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마음속 말이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갖은 방법을 동원해 다른 이를 억압하고 깎아내리며 뛰어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와 협력하는 사람을 그는 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중심에 두며,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숭배받으려 한다. 누가 그를 뛰어넘어도 안 된다. 누구든 그보다 훌륭하면 그에게 폄하되고 배척당하고 억압당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수단에는 속셈과 목적이 들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선민들 마음속 자기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런 행동 방식과 행위는 하나님 집 사역에 방해와 교란이 되며,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모습 중 가장 흔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행 외에 더 비열한 짓도 저지른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항상 궁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행을 저질렀거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약점을 잡아 상대를 공격한다. 또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을 모욕하고 폭로하고 비방하며,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본분 이행에 대한 열정에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회피하고 저버리게 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립시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더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도 않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고, 감히 그들을 고발하거나 폭로할 사람도 없어 적그리스도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가장 증오하는 자는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특히 정의감이 있어 용감히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보면 원한과 증오를 품을 뿐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들이 어떻게 연약해지고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든 적그리스도는 도와주거나 붙들어 주지 않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마음 한편으로 몰래 기뻐한다. 만약 누군가 한때 그를 질책하고 폭로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더 몰아붙이며, 갖가지 죄명을 덮어씌워 훈계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결국, 본분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상태에 빠뜨리면 적그리스도는 득의양양해하면서 남의 불행을 몰래 기뻐하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에 가장 능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설교를 들으면 언젠가 내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볼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폭로하고 대신하게 될 거야.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면 내 지위와 명망, 명예는 위협받겠지. 먼저 손을 써야 해. 틈을 봐서 약점을 잡아 그들을 교란하고 정죄해야지. 그렇게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고 본분을 이행할 마음을 없애 버리면 좋을 텐데! 또 리더 일꾼과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리더 일꾼이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하면서 다시는 중요하게 여기거나 발탁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럼 그들은 진리를 추구할 생각도, 본분을 이행할 생각도 들지 않겠지. 계속 소극적인 상태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적그리스도, 악인이 간계를 써서 너를 해하고 정죄하고 모욕할 때 너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사탄의 간계를 간파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 '그의 저 말은 언뜻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면 왜 소극적으로 변하고, 본분을 이행하기가 싫어지는 걸까? 왜 하나님께 의혹이 생기는 거지? 그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지? 나는 왜 그의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 오해와 관념이 생기고 순종하기 싫어지는 걸까? 예전의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왜 사라진 거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갑자기 의혹이 생기면서 이상(異象)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믿으면서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이 어두워져.' 이는 좀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왜 표면적으로 옳은 것 같은 말을 들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너는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느냐?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의혹이 생기겠느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그리스도가 한 그런 말은 모두 사람을 미혹하며, 뱀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지 공급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왔겠느냐? 사탄 마귀에게서 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말을 너희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생명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그에 따라 사람의 분량도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또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권세를 잡고 생명이 될 때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도래하며, 그러면 그들이 정죄되고 드러나 도태되고 철저히 버려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장 증오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보고, 공격하고 협박할 대상, 증오하고 저버리고 해치고 짓밟을 대상, 나아가 미혹할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농락할 방도가 없고, 자기 멋대로 또 공개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거나 공격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옳은 말, 듣기 좋은 말 등 회유책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갖가지 비열한 수법으로 그들을 배척하여 소극적이고 연약해지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이 더는 기꺼운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악행 중 하나이자 적그리스도 본성 본질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본성의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음험하고, 교활하며, 악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권세를 잡으려는 야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늘 미혹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수법을 씀으로써 차마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며 믿음이 식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해와 원망을 품으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도,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첫째, 아무도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이 올바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는 교회에서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박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여 하나님 선민들이 그를 따르고 옹호하고 그에게 굴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이 본분 이행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행위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고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고 가로막는다. 적그리스도는 누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증오한다. 어느 정도로 증오하겠느냐? 누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를 따르거나 숭배하지 않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그는 그 상대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억누르며, 없애 버리지 못해 안달한다. 이 정도로 증오한다. 요컨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가 리더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행동 방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공급해 진리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는 길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함으로써 이루려는 최종 목적이다.

하나님의 선민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반드시 분별하고, 폭로하고, 고발하고, 저버려야 한다. 그래야 확실히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여 리더 자리에 오르든 그는 네 리더가 아니다. 너는 그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의 인도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를 분별하고 저버려야 한다. 그는 네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없고, 붙들어 주거나 공급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는 네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어 줄 수 없기에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네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저버려야 한다. 그의 모든 행동은 너를 미혹하여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가 그의 패거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 사역을 망치고 교란하는 한편, 너를 끌어들여 그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너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만약 분별하지 못한 채 그가 리더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진리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고 싶다면 큰 붉은 용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큰 붉은 용을 분별하고 큰 붉은 용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고 큰 붉은 용을 철저히 저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관문 역시 통과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만이 아니라 하나님 선민의 원수이기도 하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면 쉽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회유되어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철저하게 실패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선 진리를 많이 깨달아야 하고,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 적그리스도의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실히 사람을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게 되고, 길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혹자는 "저는 지금 이런 측면의 진리를 갖추지 못했는데 어쩌죠?"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얼른 진리를 갖추고 사람과 일을 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일의 배후 음모와 수단, 속셈과 목적을 간파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으며, 평온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는 길을 착실히 걸어 나갈 수 있다. 적그리스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네가 매우 위험하고, 또 쉽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사로잡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너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걸림돌, 방해물, 원수일지도 모른다. 너희는 이를 인정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실제로 존재하고 늘 존재해 왔다. 그저 사람이 분별하지 못했을 뿐이다. 적그리스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당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할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네 그 작은 생명까지 얼마 안 가서 시들 것이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도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이 세상에는 정의나 광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없고. 일해서 돈이나 벌고 생계나 유지해야지!"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다. 네가 구원받을 희망이 철저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탄을 꿰뚫어 보고 간파해야 하는 것이며, 일어나 사탄을 폭로하고 버리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사탄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네 옆, 네 주변에 있으며, 어쩌면 네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네가 사탄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너도 사탄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영계의 사탄이나 악령은 네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의 사탄이나 살아 있는 마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모두 악인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 일꾼은 모두 거짓 리더이고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사탄, 살아 있는 마귀가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런 자들이 네가 숭배하고 앙망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너를 이끄는 사람일지도 모르며, 네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앙모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너에게 있어 그들은 네가 진리를 추구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방해물이며, 바로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너의 인생과 네가 걷는 길을 통제할 수 있으며, 네가 구원받을 기회를 망칠 수 있다. 네가 분별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언제든 미혹되고 사로잡힐 것이다. 그럼 너는 몹시 위험해질 것이다. 만약 이 위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사탄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어찌 되었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허풍 아니겠느냐? 만약 누가 봐도 분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빨을

드러내고 나쁜 인성을 보이며 악을 행한다면 당연히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무척 경건하고 말투가 온화하며 사람도 좋아 보이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적그리스도라면, 너는 그를 분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그에게 탄복하고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럼 그의 행위와 사상 관점, 행동 방식, 나아가 진리에 대한 이해 방법은 반드시 네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너는 그를 부러워하고 모방하고 본받고 따를 것인데, 이는 네 생명 진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진실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그는 네 우상이 되어 네 마음속에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정도로 미혹되면 네가 구원받을 희망은 막연해진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망가졌으며, 너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잃고 위험한 경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게 화겠느냐, 복이겠느냐? 당연히 재난이지 절대 복이 아니다. 일부 적그리스도가 사소한 일에서 너를 도와 약간의 이점을 안겨 주거나 글귀와 도리로 너를 지도해 줄 수는 있어도 네가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숭배하고 따르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진다. 너는 스스로를 망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사탄도, 악인도 아닙니다. 영적 인물 같아요.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공급해 줄 때 다음과 같은 영향과 이로움을 준다. 즉, 너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게 한다. 반면, 네가 적그리스도와 점점 더 친근한 관계가 되어 그의 모든 말이나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나쁜 길에 들어서고,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적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너를 그의 앞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네 마음속에는 우상이 생기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관념을 품거나 하나님 말씀이 네 우상을 드러낼 때, 너는 즉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하게는 대적하고 배반할 것이며, 네 우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교체되거나 출교되면 그의 졸개, 앞잡이들이 그를 위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쏟아 내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소극적으로 변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냐? 어째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겠느냐? 그는 "리더조차 교체되고 출교되었는데 평범하게 따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는 헛소리 아니겠느냐? 그의 말을 통해 그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혹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그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고, 그의 조상 같은 존재가 된다. 그의 조상이 출교되었는데 그가 어찌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는 오직 적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며,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적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을 옳게 보고,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며 순종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집의 누구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에서 출교되는 순간,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가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이다. 이 일은 적그리스도들이 사탄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러 온 존재임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간파당하고 폭로되고 버림받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애도 끝난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적그리스도의 말만 듣는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존재는 오직 적그리스도뿐이다. 이는 미혹당하고 통제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불평을 터뜨린다. 적그리스도가 폭로되고 드러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대신하여 초조해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변호한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해 불평을 터뜨리고 머리를 쥐어짤 뿐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느냐? 그들이 믿는 존재는 과연 누구겠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이루려는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순순히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게 해서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걸었던 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역한 후 마침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마음속 말을 했다. 그가 이 말을 한 목적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본받고 따르며,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적그리스도가 사역해서 정말 모두가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까 봐 걱정되지 않는다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까 봐 두렵지 않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헛소리이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면 부지중에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믿었어도 체험 간증이 전혀 없는 것,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른 것의 마지막 결과이다. 너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사실을 바꿀 수도 없다. 이는 사람이 감전됐을 때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다. "나는 믿지 않을 거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네가 믿고 안 믿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의 일이겠느냐? 일단 감전되면 '찌릿' 하고 전기 충격이 온다. 믿지 않아도 소용이 없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무책임한 소리다. 그러므로 네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명리와 지위에 골몰한다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조금씩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일이다.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사람들을 그들 앞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선민을 통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손아귀에 틀어쥐면 그는 암거래 브로커가 된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루겠느냐? 그들은 사람이 숭배하는 영적인 도리를 이용하고, 사시이비한 이론을 이용하며, 이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패괴된 심리를 이용하여 과장하고 사탕발림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요컨대, 그들이 한 말은 모두 글귀와 도리이고 텅 빈 이론이며, 사시이비한 것들과 진리에 어긋난 것들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미혹당하고 만다. 최소한 한동안 미혹당한 후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적그리스도의 본모습이 드러난 후로,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성령 역사를 잃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한쪽에 내버려둠으로써 그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쪽에 내버려두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하여 철저히 저버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자기 혼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여 그를 따르게 한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위와 권세를 도모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겨루며, 마지막에는 독립 왕국을 세워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이며, 하나님이 파멸해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통제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사람이 이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대하는 사람에 속한다. 그런 사람의 결말이 어떠할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 이 측면에 관해서는 거의 다 교제했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목적과 속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수단,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 지녀야 할 행동 방식 등 이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제했으나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앞으로의 교제에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측면의 진리를 더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교제할 때,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느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되, 딴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측면의 진리에는 다 구체적인 말과 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각 항목의 내용마다 서로 다른 각도와 방식으로 진리와 관련된 개념적인 것들,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와 실행해야 할 길을 설명하므로 묵상하고 교제하여 잘 이해해야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지금 이런 세부적인 교제를 통해 본분 이행과 관련된 진리 원칙은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가 정말 힘들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며, 진리 실행을 훈련할수록 실행 과정에서 길이 넓어지고, 더 정확하게 원칙을 파악하게 된다. 반면, 네가 이런 구체적인 교제를 듣지 않은 채 그 두루뭉술하고 개념적인 것들만 이해한다면, 진리를 실행할 때 속수무책이 될 것이며, 진리 원칙을 구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정의하고 규범화하고 범위를 축소하고 진리를 구체화하면, 나중에 실행할 때 훨씬 자유로워진다. 세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게 공책을 한 권 사오라고 시킬 때 내가 공책의 사이즈나 두께, 가격 등 간단한 조건만 말해 준다면, 너는 그 원칙을 파악하고 실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공책의 구체적인 색상, 치수, 장수, 구체적인 격식, 종이 품질 등 세부 내용을 모두 알려 준다면, 너는 더 구체적으로 원칙을 파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더 구체적으로, 네게 종이를 한 장 주고 그 종이의 품질과 두께, 색상, 칸 크기, 칸 수와 똑같은 것을 사 오라고 하거나 그 종이를 기준으로 각 규격의 차이가 얼마인지 등을 모두 자세히 정해 준다면, 공책을 구매할 때의 선택 범위가 더욱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실행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네 실행에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교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측면의 진리를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해 주었으며, 구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과 실행 방법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네가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얻고 온전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말했다. 기준에 맞는 본분 이행 측면의 진리를 본분 이행 인원에 따라 여섯 부류로 나누었다. 부류마다 다시 구체적인 범주로 나누고, 또다시 작게 분류해서 자세히 교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진리를 교제하면 너희가 진리를 더 잘 깨닫고 실행 과정에서 더욱 원칙이 생기겠느냐, 아니면 원칙을 찾기가 더 어렵겠느냐? (더욱 원칙이 생깁니다.)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며, 너희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 정말 자질이 좋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느끼겠지만, 자질이 떨어지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도달하지 못한 채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해집니다. 마치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라고 말한다. 생명 진입에 관해 너무 상세히 설명할 경우, 체험이 없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다. 상세히 설명할수록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쉽게 멍해진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한 가지 상황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 부류의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구체적인 내적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 방법 하나만 남아 있다. 즉,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히 알려 주는 것이다. 마치 로봇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 명령어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은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건 없다. 나는 지금 이 마지막 방법을 쓰고 있다. 즉,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네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할지 직접 알려 줘서 규례를 지키게 한다. 너에게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내적 상태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대동소이하다. 만약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돌볼 수 없다.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에 영적인 이해력이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가 가서 이 측면의 사역을 해야 한다. 나는 이미 사역을 할 만큼 했고,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과 말씀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고 닿을 수 있다. 정상 인성의 사유와 반응을 지닌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진 않으시나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일은 모두 실제적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 단계 사역을 한 것처럼 말이다. 처음 율법을 반포하여 인류의 삶을 이끈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한 것까지, 또 말세에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한 것까지 모든 단계는 실제적으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마주해서 말씀하고 사역했다. 여기에 이적은 없다. 가장 큰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이며, 게다가 어떤 방식을 쓰든 마지막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이다. 이 일은 시간문제일 뿐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적과 기사이다. 이것 외에,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사람 마음에 만들어 주지 않는다. 지금 이런 진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만약 네가 이해 능력을 지니고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마음을 쓰고 공을 들인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실행 원칙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영적인 이해력이 전혀 없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네가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진리 추구에 공을 들여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짧은 데다가 설교를 많이 못 듣고 체험도 적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은 햇수가 쌓여 감에 따라 진리도 점점 많이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인 분량 역시 점차 자랄 것이다.

어떤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든 한두 마디 말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모호하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도리이자 하나의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듣고 이해하며, 받아들인 후에 실행 과정에서 원칙으로 삼게 할 수 있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 주든 진리를 교제하든, 혹은 실행의 내용에 관해 다루든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이롭다. 그래서 나는 늘 머리를 쥐어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사례를 들어 더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의 사건에 실체화하며, 내가 교제하는 진리와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을 결합함으로써

너희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남게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자신에게는 그런 행위가 없었는지,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인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지, 그런 내적 상태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 비춰 보게 한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듣는 동시에 끊임없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마치 직접 그 상황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야기를 해 주고 사례를 드는 이유이다. 혹자는 이야기만 들었다 하면 지겨워하며 "또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저를 세 살배기 어린애로 아시는 건가요?"라고 하는데, 네가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는 아직 세 살도 안 됐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세 살도 안 된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며, 조금도 과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조차 너희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세 살배기 어린애는 어른에게서 가위는 날카로우니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원칙으로 기억해 두고 만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위와 비슷한 도구나 칼 등을 전부 만지지 않는다. 그 아이는 그것들이 다 날카로운 도구임을 알고 있고, 이 원칙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 사람은 몇 번의 연이은 실행과 체험 속에서 원칙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사하는 뜻과 너에 대한 요구,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 정상인의 지능을 갖췄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 측면으로는, 이는 지나치게 시끄러운 생활 환경과 관계가 있다. 사람은 번잡한 일,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 볼 마음이 안 생기고 진리에 공을 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한 측면의 원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너무 낮다. 만약 10 점을 만점으로 하면, 지금 너희가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기껏해야 3~5 점 정도일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마지막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스스로 공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는 정도가 부족하며, 약간의 흥미만 있을 뿐 좋아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세상에서 너무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어 살아갈 방도가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매일 진리를 교제하며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풍부하게 예비하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정도의 흥미가 있을 뿐이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겠느냐? 번잡한 일들에 잔뜩 얽매이고, 갖가지 감정 관계, 인간관계, 지위와 허영, 사회의 흐름 등 일들에 점령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입고 꾸미는 것, 육적인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이런 일들에 허비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무척 오랜 시간 사역했지만 사람은 진리를 얻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를 이토록 많이 선포하는 것을 보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고도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 도태된다.

2019 년 1 월 22 일

제 4 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

참고

포서기(捕鼠記)

최근에 나는 희한한 일을 하나 전해 들었다. 너희는 이 일이 사람의 행위, 성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아라. 일부 중국인이 미국에 오면 사회 환경과 풍조가 중국과 크게 다른 것 외에도 아주 재밌다고 느끼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국가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도 아주 자유롭고 그들을 해치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자유로운 것은 당연히 사회 제도 덕분이겠지만 동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은 어째서 자유로운 것이겠느냐? 사회 제도와 관련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 전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회 제도,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 있다. 여기에서는 곳곳에 야생 동물이 있어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는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기러기를 볼 수 있고, 공원과 잔디밭, 숲속에서는 사슴, 곰, 늑대, 혹은 칠면조나 꿩 같은 각종 조류 등의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대자연을 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자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여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유롭구나. 여기서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중국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낫겠어. 여기는 동물들이 다 자유롭고, 동물을 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런 것들을 늘 보다 보면 신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뒤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아무도 관리하거나 지켜보지 않는데, 잡아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먹을 순 없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어.' 자료를 찾아보니, 모든 야생 동물은 예외 없이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함부로 잡아 죽여선 안 된다고, 사냥하려면 국가가 정한 사냥 구역에 가야 할 뿐 아니라 허가증도 있어야 하고, 사냥한 동물에 대해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법적으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야생 동물 보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맛있는 야생 동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다니 너무 아쉽군! 중국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아. '신고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 마리 잡아먹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 국가에서는 그럴 수 없어. 법적 규정도 있는데다가 다른 나라에 와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하지만 이런 동물들이 다 야생 동물들인데 다 그림의 떡이라니 너무 아깝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야생 동물을 먹고도 들키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동물을 유인해 야생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은 다음, 아무도 없는 데서 잡아먹으면 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작은 동물은 국가에서 보호 동물도 아니고 법률상 구체적인 규정도 없잖아.

그러면 야생 동물도 먹을 수 있고 법을 위반할 일도 없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지." 그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뒤 우리를 만들어 사냥을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에 쥐 한 마리가 들어오자 그는 얼른 잡아먹고는 이것이 진정한 야생 동물 고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먹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느냐? '야생 동물은 정말 맛있군. 앞으로 다른 야생 동물 고기를 먹을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어.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가요?" 우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들려준 이 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도의에 어긋나느냐, 인성에 어긋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에 어긋나느냐? 우선, 이런 행위가 칭찬받을 행위인지, 비난받을 행위인지부터 말해 보아라. 너희는 어디에 찬성하느냐?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도의에 어긋나든 법률에 위배되든, 아니면 인성에 어긋나든 결국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속하겠느냐? 사람의 이런 성품이나 행위를 무슨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기준으로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각 무리에서 이런 행위가 많으냐, 적으냐? (많습니다.) 이는 아주 간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고 정상 인성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다. 그럼 그것은 대체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분류해 보아라. 이는 어떤 행위에 속하겠느냐? 권장할 만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장할 만하지도, 칭찬할 만하지도 않은 것으로, 비난하고 경멸해야 하는 일이다. 기왕 모든 무리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고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게다가 항상 누군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만큼,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능한 한 이런 행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럼 정의해 보자. 이는 어떤 행위이겠느냐? 교만함이겠느냐? 강퍅함이겠느냐? 간사함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사악함이겠느냐? (조금 사악합니다.) 어느 정도 근접했다. 너희가 배우고 이해한 단어 중에 이런 행위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느냐? ('비열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열하다는 뜻도 어느 정도 있다. '비열하다'는 이런 행위와 본질을 포함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요약하고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악독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쥐를 죽인 것을 악독하다고 한다면 쥐를 박멸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물이 되기 때문이다. 쥐를 박멸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사물이다. 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쥐를 박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쥐를 박멸하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한 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느냐? 이런 행위와 관련 있는 단어로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구질구질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격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인격이 떨어지고, 비열하고, 구질구질하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소 저속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겠느냐?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라는 단어로 이런 행위를 요약하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 왜 양아치라고 정의하겠느냐?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그저 양아치 같은 사람이 표출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양아치'라는 단어에는

비열하고 저질스럽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인 것, 도덕적이지 않은 것,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떳떳하지 못하거나 남몰래 행동하는 것, 부적절한 일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 같은 사람의 각종 행위와 모습이다. 예를 들어, 정상인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정당한 일은 거침없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면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 반면 양아치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률이 제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책이 있다. 법망을 피하고 백방으로 손을 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인륜과 도덕, 인성에 부합하는지, 결과가 어떤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이런 것을 '양아치'라고 한다. 양아치 같은 사람에게 인격이나 존엄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상하겠느냐, 아니면 저속하겠느냐? (저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속하겠느냐? (처신에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없습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처신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선도, 원칙도 없다.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법률과 도덕, 양심에 맞든 맞지 않든, 누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이득을 얻고 누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행동이 저속하고 생각이 비열한데,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라는 의미이다. '양아치'라는 단어를 전에 언급했던, 성품을 나타내는 몇 가지 모습으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 정말 대체하기 어렵다. '양아치'라는 단어가 꽤 특수하니 이런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겠느냐? 그렇지도 않다. 너희에게도 양아치 기질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수와 양치를 다하고 나서 세면대 위에 여기저기 물이 있어도 닦지 않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밥알과 국물이 식탁 위에 떨어져 있어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입던 옷이 더러워지면 개어 놓지도 않고 아무 데나 던져둡니다. 이것도 양아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이다.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진정한 양아치 기질이 아니다. 그것은 인성을 살아 내는 것과 관련 있다. 무리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교양과 예의가 없어 반감과 혐오를 일으키며, 어디에 가든 규칙과 제도를 지킬 줄 모르고, 그런 의식이 없다면 이것은 인성에 무언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이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존엄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존엄성도, 인격도, 교양도 없다. 이는 처신의 최소한의 선, 그리고 정상 인성을 살아 내는 것과 관련 있다. 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리 실행을 어떻게 논하겠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논하겠느냐?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논하겠느냐? 그러려면 한참 멀었다. 양심과 이성이 없는 이런 사람은 관리하기 쉽겠느냐? 변화하기 쉽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서로 감독하고 제약하고 지적해야 하고, 심각해지면 다 같이 일어나 질책해야 한다. 질책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가 제대로 처신하고 볼썽사납거나 저속한 취미의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아치 기질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주로 어떤 증상이나 모습을 보이겠느냐? 내가 정확히 요약했는지 너희가 살펴보아라. 양아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겠느냐? 길들여지지 않고 버릇도 없는 야생 동물과 같다. 가장 주된 모습은 바로 교만하고 거칠고 제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굴며 진리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관여해서도 안 되며 아무에게나 대들고 아무도 안중에 없다. 너희가 보기에 양아치 기질에 포함된 여러 모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교만하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함부로 구는 성품은 너무도 심각한 것이다. 설사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그의 교만한 성품으로 보아 그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다 패괴 성품의 표출이다. 이런 양아치 기질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면 사람은 토적이나 마귀가 되고, 토적이나 마귀는 영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파멸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룰 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람의 본성 본질이나 성품과 관련이 없지만 사람의 행위에 관련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아주 무관하지도 않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 우의적인 특징을 가진 제목으로 지어 보아라. ('포서기(捕鼠記)'가 좋겠습니다.) '포서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제목이다. '명분도 정당하고 이유도 타당하게' 쥐를 잡아 놓고 "어쩔 수 없었어요. 쥐가 제 발로 뛰어 들어온걸요. 너무 불쌍해요. 다쳐서 도망가도 어차피 죽을걸요. 죽으면 다른 동물이 먹을 텐데 그럴 바에야 제가 먹는 게 낫죠. 제가 먹는 게 명분도 정당하고 이유도 타당하지 않나요?"라고 말한다. 먹기 위해 갖은 핑계와 이유를 만든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다. 이게 바로 양아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겨우 이런 일 때문에 고생하고 애쓰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나 양아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정상인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인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겠느냐? 이는 인격과 관련 있다. 도둑 근성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늘 좀도둑질하며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다. 그의 집에 물건이 부족해서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그런 양아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도둑질로 그의 기호와 탐욕스러운 성품을 충족시키면 그는 마음이 위로받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 기질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지난번에 교제한 내용을 되새겨 보자. 하나님 선민의 본분 이행은 주로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관련 내용은 전부 다루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각급 리더 일꾼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 부류에 대해 다루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을 통해 적그리스도로 규정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과 성품을 분류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제 1 조 사람의 마음을 구슬린다. 제 2 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한다. 제 3 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제 4 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 제 5 조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한다.) 지난번에 제 5 조까지 정리했다. 이 다섯 가지는 너희가 다 적었을 테니 나머지는 이어서 적어라. 제 6 조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 제 11 조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제 12 조 복받을 희망이나 지위가 없으면 물러나려 한다. 제 13 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통제한다. 제 14 조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 총 열다섯 가지 조항으로, 모두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분석하고 폭로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각종 행위와 모습, 성품이 이 열다섯 가지 조항에 기본적으로 다 요약되어 있다. 일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 같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있다. 이 열다섯 가지는 표면적으로 보면 다 이해하기 쉽지 않으냐? 모두 통속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며, 그 밖에 각 조항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다 사람의 모습과 표출, 그리고 본질과 관련 있다. 각 조항은 일시적인 행위나 생각이 아닌 성품의 일종이다. 성품이란 무엇이냐? 성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디서든, 시간이나 지리적 위치가 변한다고 해도 그의 생각과 사상, 일 처리 원칙, 행동 방식, 추구하는 목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환경이 변하여 이런 행동 방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행위일 뿐 패괴 성품의 표출이라 할 수 없다. 사실 성품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어떤 조건에도 제약받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본질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 또는 외부 요소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도 정리한 적그리스도의 열다섯 가지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위를 추구하지도 않고, 천성적으로 야심도 별로 없어요. 그 밖에도 지금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도 않고 리더 일꾼도 아니고 나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죠. 그럼 저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관련이 없다면 이런 교제를 들을 필요도, 저 자신을 비춰 볼 필요도 없지 않나요?" 과연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이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교제한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이런 교제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인식한 다음 올바른 길을 찾아 원칙을 가지고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만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자신과 맞춰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경계이자 지적이요, 폭로이자 심판일 것이다. 대조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에게도 비슷한 내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너는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점차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높이고 증거하는지 해부하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4 조인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를 교제하겠다. 패괴된 인간은 모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뽐내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탄의 본성에 지배된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자, 패괴된 인류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사람은 보통 어떻게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느냐? 어떻게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증거한다. 자신의 밑천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높여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지위를 더 높게, 더 공고하게, 더 안정되게 만든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며, 심지어는 숭배하고 앙망하고 추종하게 한다.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냐? 그것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일로, 염치없는 것이다. 즉, 염치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증거하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어떤 은사나 재능, 특별한 기능, 어떤 경험이나 좋은 처세술, 남을 우롱하는 수단 등이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수단은 자신을 뽐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자신의 약점과 결점, 부족한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자신의 빛나는 일면만 보게 한다. 심지어는 소극적이 되어도 남들에게 알리거나 마음을 열고 교제하지 못하며, 일을 잘못해도 애써 포장하고 숨긴다.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사역에 끼친 손실은 입에도 올리는 법이 없지만, 아주 작은 기여나 성과만 있어도 즉시 끄집어내 자랑한다. 자신이 얼마나 재능 있고 자질이 좋은지, 자신이 얼마나 남다르고 일반인보다 뛰어난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 한스러워한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방식이 아니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이러한 행위가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성품을 드러내겠느냐? 교만함이다. 이는 가장 주된 성품 중 하나다. 그다음으로는 간사함이 있다.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려는 것이다. 말할 때 조금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다. 분명 속셈과 간계를 갖고 말을 하고 자신을 뽐내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결과는, 그가 남들보다 대단하고 아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의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 그 수단의 이면에는 어떤 성품이 있겠느냐? 여기에 사악한 성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성품이다. 그가 쓴 그런 수단은 간사한 성품에 지배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럼 어째서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그것이 사악함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말해 보아라, 그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목적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는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욕망을 위해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와 목적은 아주 은밀하다. 예를 들어, 그는 성동격서의 수단, 또는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은밀함에

괴이한 성질이 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 괴이함을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은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사함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그는 일부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 성품은 간사함이다. 하지만 그는 늘 남의 추종과 앙망, 숭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속의 야심과 욕망에 지배되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염치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사악함에 이른 것이다. 사악함은 웬만큼 옹졸하거나 간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패괴를 뛰어넘어 사악함에 이르렀다면 이는 더 심하게 패괴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악함의 정도를 너희가 한번 설명해 보아라. 뭐라고 하면 적절하겠느냐? 어째서 평범한 패괴를 뛰어넘어 사악함에 이르렀겠느냐? 너희는 이 일을 간파할 수 있겠느냐? 간사함과 사악함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사악함과 간사함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사악함은 간사함보다 더 심각하다. 사악함은 간사함의 극치이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사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통 간사한 게 아니다. 보통 간사한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이 그다지 정직하지 못한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악함은 간사함보다 심각하고 정도가 심하다. 성품이 사악한 사람은 간사함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더 심각하다. 일을 처리하는 수단과 방식, 생각이 더 교활하고 은밀하여 보통 사람은 꿰뚫어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보통 사람도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도록 늘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고, 또한 그런 성품과 내적 상태를 드러낸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는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느냐? 이는 분명히 해야 한다. 가끔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 범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느냐? 이를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 방식은 더욱 은밀합니다. 그는 아주 정당해 보이는 수단으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정당한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의식하기도 전에 그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증거합니다. 그의 방식이 비교적 은밀합니다.) 방식이 비교적 은밀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방식으로 구별한 것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보기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성질상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마음가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패괴 성품을 가진 보통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뽐내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과시하고 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든 내려다보든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의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은 그저 성품의 지배를 받은 것이고 성품의 표출일 뿐이다. 이런 성품이 쉽게 변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겪고 나면 점차 변화한다. 속도는 느리지만 갈수록 염치와 이성이 생겨 그런 행위가 점차 줄어든다. 그는 그런 행위를 정죄하고 언행을 삼가며 자신을 단속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성품은 같지만 성질은 다르다.

성질이 어떻게 다르겠느냐? 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 그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마다 일정한 속셈과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 사탄의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모습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패괴 성품의 표출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사람을 현혹하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의 의도는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앙망하여 추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그런 행동의 성질은 현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추종받고 숭배받기 위해 사람을 현혹시키고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는 말하고 행동할 때 일부 수단과 방식을 동원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반이 비교적 얕은 사람은 쉽게 현혹되고 오도될 수 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여 그를 앙망하고 우러러보며, 시간이 지나면 그를 숭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종하기까지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일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은 직후에는 꽤 이해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여도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해 결국 리더에게 물어 해결한다. 아편을 피우는 데 중독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피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일이 닥칠 때마다 리더를 찾아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은연중에 분량이 작고 분별력이 없으며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마약이 되어 버린다. 그들은 일이 닥치면 적그리스도를 찾아가 물어보고,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설사 여럿이 상의해 공감대를 형성한 일이라고 해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어 억압받을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 적그리스도가 말하고 나서야 행동하고, 심지어 분명 이미 진리 원칙을 깨달았음에도 결정을 내리지도,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한 채 그들이 앙망하는 그 주인이 결정을 내리기만을 기다린다.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든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는 중독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탔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중독되겠느냐? 그가 자주 자신을 분석하고 인식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 과오를 모두 털어놓았다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숭배했겠느냐? 그랬을 리 없다. 보아하니 그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꽤 공을 들인 듯한데, 그 덕에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게 바로 그가 원하는 성과이다. 사람들은 그를 떠나서는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 적절한지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간 동안 그가 독을 얼마나 많이 타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가 몇 마디 말만 하고 말았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휘둘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이 일에서 남들이 그를 숭배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그를 앙망하고 따르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도 많이 행하고,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말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가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그를 떠나서는 행할 길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 마치 그를 떠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돌아가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치와 의미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어 봤자 아무 소용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가 있으면 살아가는 데 희망이 좀

있지만 그가 죽으면 살아가는 데 희망조차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사탄에게 끌려간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가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추종하며 모든 면에서 그에게 휘둘리고 그에게 통제받는 것이냐? 게다가 어느 방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에게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알려 주기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구해야 하고 큰일의 경우 상부에 구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진리를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숭배하고 앙망하며 적그리스도의 말을 곧이들으니, 너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이는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공통적인 행위이자 모습이며 가장 흔한 모습이기도 하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 보이는 주된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보통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가 내면에 자신의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대 무의식적이지 않고 의도와 욕망, 야심을 품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사람을 현혹시키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예를 하나 들 테니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관련 있는 모습과 성품인지 너희가 살펴보아라. 전에 어떤 리더가 한곳에서 이삼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정착한 것이었다. 정착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알고 우러러볼 정도로 그 지역에서 꽤 인지도가 높다는 뜻이다. 그가 가기만 하면 다들 환영하고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들 리더인 그에게 꽤나 익숙해졌고 마음속으로도 그의 행동 방식을 비교적 인정하며 그의 인솔을 받아들였다. 그가 거기에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가 리더를 맡는다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었다. 한동안 지난 후 그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은 다들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죠. 교회 여러 면의 상황도 꽤 좋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괜찮다면 화창한 날에 넓은 공원에서 만 명 정도 모이는 대예배를 열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확성기를 켜 놓고 마이크로 진리를 방출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며 찬성했다. 너희가 보기에 "진리를 방출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라는 말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두 알아차리는데 그 지역의 그 멍청한 작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게다가 그 말에 아멘 하고 답하기까지 했다! 진리는 그가 방출할 수 있는 것이냐? 그가 누구냐? 그는 그저 평범한 리더일 뿐이다. 사역을 몇 년 했다고 안하무인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진리를 선포하려 하니 꽤 힘에 부쳤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자신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그가 평소 하는 사역과 말에 진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겠느냐? 분명 터무니없는 말과 마귀적인 말만 지껄여 교회에 공급하고 양육하는 성과를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 선포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한곳에서

이삼 년 사역했다고 자신에게 명망과 밑천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저 잘났다고 진리를 선포하려 한 것이다. 그의 이런 착각이 역겹지 않으냐? 이런 착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정신이 잘못된 것이겠느냐, 아니면 일시적 충동이겠느냐? 그가 사역을 좀 했고, 그 지역의 교회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에 그는 모든 것이 꽤 순조롭다고 느끼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사역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자신이 공을 세웠다는 느낌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나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니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태로 있는 건 너무 억울해. 외부 환경이 좋으면 내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다니 이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언행이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사역을 좀 하고 성과를 좀 이루었다고 갑자기 그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가 그런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내뱉은 것이 그의 성품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의 성품으로 보아 그가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려는 것이겠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겠느냐? 그랬을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존귀하기 그지없고 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런 행위와 그 성질에 익숙하지 않으냐? 애초에 사탄은 무엇 때문에 반 공중으로 쫓겨났느냐? (그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 했다. 사탄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날뛰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수도 몰랐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걷게 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려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반 공중으로 쫓겨났다. 적그리스도 역시 같은 행동을 하는데, 성질도 같고 그들의 출발점도 같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가끔 드러나는 것도, 즉흥적인 것도 아니며 사탄 본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자 사탄 성품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방금 언급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질입니다.) 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는 조항에서 이 모습을 다루겠느냐? 이 모습의 성질과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진리를 방출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라는 그의 말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왜 이 말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겠느냐?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뜻이다. 그의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주 품격이 넘치네. 저런 어투로 말할 수 있다니, 이는 하나님에게 있는 어투 아닌가? 저런 품격과 도량은 하나님이 갖추신 게 아닌가?' 이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느냐? 은연중에 남들에게 그를 추앙하고 숭배하고 앙모하는 마음이 들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추한 모습이다. 이는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모습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너희 모두 이 일에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너희도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양심과 이성의 단속을 받아 자신을 증거하는 낯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단속할 수 있다면 너는 이성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다르다는 뜻이다. 네가 이성을 갖추지 못했고 여전히 야심과 욕망을 가진 채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다. 너희 상황은 어떠냐? 행동할 때 단속을 받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수치심,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혐오를 받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면 너는 자신을 단속하여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감히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한두 번 단속하는 것에 성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속셈과 생각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런 생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이 경멸스럽고 역겹다고 느끼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과 욕망이 점점 줄어들며, 점차 행동을 삼가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그런 생각도 잘 들지 않게 된다. 네가 의식은 했지만 단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의도가 특히 강해 그저 남에게 숭배받고 싶어 하고, 아무도 너를 숭배하고 추종하지 않으면 언짢아지고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어 하며 서슴없이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면, 너는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어떤 상황이냐? (의식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기대어 단속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인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속받을 수 있다. 단속은 억제하거나 저지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성과이다. 이성과 인지로 단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 두려워 단속받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성으로도 단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자신을 증거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수법과 모습은 다양하다. 일부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고, 일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완곡한 표현이나 방식을 써서 변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한다. 이로써 다른 사람의 앙망, 숭배, 추종을 받고 나아가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이런 행위의 성질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성품은 성질이나 이룬 결과로 보든, 아니면 드러나는 방식과 방법, 속셈과 목적으로 보든 보통 사람의 이런 성품과는 다르다. 그 밖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단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만 말하고 말겠느냐? 자신의 단점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정말로 자신을 분석하고 인식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고 그 안에 불순물과 의도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 결점, 그리고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동시에 죄의 책임을 면하고자 자신을 위한 핑계와 이유를 찾는다는 점이다. 변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는 것이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는 다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작은 실수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저보다 훨씬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반성하고 분석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여러분보다 나아요. 더 이성적이고 인격적이죠." 사람들은 듣고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은 진리도 많이 깨달았고 분량도 있어.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을 반성하고 분석할 수 있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지 않았을 거야. 망신당하기 두려워 자신을 분석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 역시 당신이 우리보다 분량도 있고 더 용기도 있어."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남들에게 우러름 받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일부 적그리스도는 위장하고 속여 다른 사람에게 허상을 보여 주는 데 특히 능하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인식하는 얘기를 꺼내고 자신은 마귀요, 사탄이며 인성이 좋지 않아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당신은 스스로를 마귀 사탄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악행을 저질렀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별다른 일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귀예요. 마귀일 뿐 아니라 사탄이기도 하죠!"라고 답한다. 그에게 또 "당신이 스스로를 마귀 사탄이라고 했으니 당신이 어떤 마귀 사탄의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당신이 악행을 저지른 사실을 한번 말해 줄 수는 없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별다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니까요!"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별다른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신을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뭔가요?"라고 진지하게 따지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사실 그는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지만 절대 사실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큰소리치고 도리나 들먹이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공허하게 떠들 뿐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사람을 구슬리고 속였는지, 어떻게 정에 휘둘려 사람을 썼는지, 어떻게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어떻게 사역지침을 위배했는지, 어떻게 상부를 기만하고 형제자매를 속였는지, 하나님 집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이런 사실은 일절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스스로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인식하는 척 꾸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일종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수단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일부 리더는 교체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뽑히는데, 네가 이유를 물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 리더는 자질이 훌륭하고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없죠.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분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또 그를 뽑은 거예요."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이는 현혹된 것이다.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그가 인식했는데도 다들 그를 뽑았다면 그가 스스로 마귀 사탄이라고 한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불러온 것이겠느냐? (다른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게 했습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이 그를 더욱 우러러보게 했다. 이런 수단을 이방인은 "나아가기 위해 물러선다."라고 한다. 이는 남이 그를 더욱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가 자신을 털어놓고 인식할 수 있다고, 그는 깊이가 있고 높은 경지에 도달했으며 높은 이해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로 인해 다들 그를 더욱 숭배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를 더욱 숭배하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다음번 리더 선거에서도 그는 둘도 없는 적임자가 된다. 꽤 뛰어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인 상태로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교체되고 지위를 잃더니 소극적으로 변했네요. 전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변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 당신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군요. 우린 당신을 뽑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에 대한 분별력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를 리더로 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귀 사탄이에요. 제가 18 층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리더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리더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저희가 그를 리더로 뽑겠어요." 다들 그를 이 정도로 옹호하니 이는 사람을 현혹시킨 것 아니겠느냐? 그가 그런 말을 한 본심이 확증됐고 그가 그렇게 사람을 현혹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사탄은 사람을 현혹할 때 때로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완곡하게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모두 허상일 뿐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동정과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사람인 거죠."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를 숭배하고 추종한다. 그의 수단은 바로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변칙적으로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자리를 높여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 나아가 그의 잘못까지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다음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점차 잊어버리고, 결국 완전히 그를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한다. 이는 사탄이 일을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사탄은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 적그리스도 역시 남에게 숭배받고 추종받으려는 야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 결과는 사탄이 사람을 현혹하고 패괴시키는 결과와 같고 별 차이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은 엉망진창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자신은 사탄 마귀이니 저주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도태시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은 진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도 전혀 말하지 못하면서 그저 허상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하고, 자진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나아가기 위해 물러서는 방식과 수단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 남의 호감을 얻으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 너희가 이런 사람과 다시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 문제를 추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로 추궁해야 하겠느냐? 그가 "다시는 여러분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리더로 뽑는다고 해도 사양할게요."라며 용서를 빌 때까지 추궁해야 한다. 너는 "우리가 또 현혹되어 당신을 리더로 뽑는 일은 없을 테니 꿈도 꾸지 마세요!"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하냐?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과장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진실한 구석이 조금도 없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척하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남을 현혹하는 말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의 특징과 세세한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물을 보관하는 데 관한 맹세서를 쓰게 한다면 너희 생각에 맹세서의 첫마디를 뭐라고 써야 하겠느냐? 이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떻게 써야 하겠느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태도를

밝히려면 어떤 말투와 어휘를 사용해야 하겠느냐?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부류의 야심가들의 말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유의 말투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 누구누구가 만약 하나님의 제물을 조금이라도 횡령한다면 제 명에 못 죽고 밖에서 차에 치여 죽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투냐? '나'라는 글자로 아주 경망스럽게 운을 떼니 글자만 봐도 그의 말투와 어조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첫 글자가 아주 경망스럽고 건방지다. 이는 큰소리치며 맹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맹세를 두고 뭐라고 하겠느냐? 큰소리치는 것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맹세서 하나 쓰는데 이토록 건방을 떠는 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너는 지금 맹세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맹세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느냐? 낮은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에게 마음속의 말을 좀 털어놓아야지, 큰소리를 치거나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맹세할 때조차 이렇게 건방을 떠니 사탄의 성품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맹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는 이런 뜻이다. '당신이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탐하고 제물을 훔쳐 먹을까 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저를 쓰시면서도 믿지 못하고 맹세까지 하라고 하시다니요. 그럼 맹세해 드리지요. 제가 뭐 못할 줄 아시나요? 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태도이냐? 이는 건방을 떠는 것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며 맹세로 자신을 변명하고 남을 현혹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느냐? 조금도 경건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맹세할 때조차 건방짐이 묻어 나오니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런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느냐? 이들의 이런 모습과 표출, 성품을 너희는 분별할 줄 모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생각이 뚜렷하고 영적인 이해력도 있으며 정직한 데다 하나님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리석지 않으냐? 분별력이 없는 것 아니냐? 맹세서의 표면적인 뜻과 어휘 사용에서도 이렇게 악질적인 행동과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있겠느냐? 보아하니 너희가 깨달은 것은 모두 도리인 것 같다. 도리와 빈말만 떠들 줄 알지 구체적인 일과 문제는 분별할 줄 모른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마주하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인성도 갖추지 않은 짐승이다. 이런 맹세서를 본 적 있느냐? 너희는 이런 맹세서를 쓴 적 있느냐? (쓴 적 있습니다.) 이런 말투로 이렇게 첫머리를 쓰지 않았느냐? (그 사람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성질은 같지 않겠느냐? (같습니다.) 그 성질은 같은 것이다. 맹세는 의를 위해 용감히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사기(士氣)가 필요한 전쟁터 출전이 아니다. 맹세에는 사기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맹세할 때 너는 곰곰이 생각하여 네가 왜 맹세서를 써야 하는지, 누구에게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이지 사기가 아니다. 너의 그런 사기는 건방을 떠는 것이고, 대드는 것이고, 사탄의 교만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갖춰야 할 모습도 아니고, 피조물이 서야 할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영웅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와 관련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너무 심하게 중독되어 맹세 보증서를 쓰기만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 역대 명사를 떠올린다. 그런 사람은 다 사탄과 한패이다. 자신을 부각시키고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평판을 받아 훌륭한 명성을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후세 사람들은 그들이 어리석게 충성을 바쳤다고 평가하는데, 너는 그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이제 와서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느냐? 가장 간교하고 사악한 행동 방식이며 그 속에 개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음도, 충성도 아닌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하는 주제는 이미 적지 않게 교제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너희가 간파하지 못한 문제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신을 증거할 때 언어로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꽤 고상하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존귀하고 인격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항상 겉보기에 좋은 행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는데, 이것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남다른 고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말로 표현해서 남들이 그를 높이 보고 우러러보게 한다. 그러나 명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겉면의 행동으로 그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 방식은 심사숙고를 거친 것으로, 속셈과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으며 목적성이 강한 편이다. 포장과 가공을 거쳐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고상하며 경건하고 성도의 품위에 맞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와 행동 방식을 남에게 보여 준다. 이렇게 해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여 남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접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루는 이런 주제와 일이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느냐?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겠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겉으로는 몹시 바빠 보인다. 그는 굳이 남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계속 일하고 남들이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러 간다. 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남들이 그가 침식도 잊고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너희는 참 부담도 없네. 밥 먹고 잠자는 데 어쩜 저리도 적극적일까? 못난 것들! 나를 좀 봐. 나는 당신들이 밥 먹을 때나, 밤에 잠잘 때도 일하잖아. 당신들이라면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있겠어? 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 솔선수범하는 거라고.' 너희에게는 이런 행동과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어떤 행위겠느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려는 것이다. 남들과 달라지려 하고, 밤새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을 특별히 잘 견디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워하고 알아줄 것이고, 매일 온갖 일을 돌보느라 침식을 잊을 정도로 그가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들 그를 위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사정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좋은 행위와 행동 방식으로 남을 기만하여 동정과 찬사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그와 접하고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리더는 가장 자격 있는 리더입니다. 가장 잘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리더죠!" 이는 사람을 현혹하는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느냐? 언젠가 하나님 집에서 "너희 리더들은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바쁘고 엉망으로 일하는 데다가 제멋대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다. 교회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사역은 하지도 않았다. 복음 사역도, 영화 제작 사역도 하지 않았다. 교회 생활도 엉망으로 해서 형제자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 진입도 없어 간증 문장도 쓰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리더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거짓 리더이므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교체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가 모두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옹호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교체하면 형제자매는 항의할 것이고 상부에 그의 유임을 요구할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보기에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좋은 행위와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유하며 현혹했기 때문이다. 이런 허상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그의 편에 서서 말하고 그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얼마 하지 않았고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 진입이 있도록 이끌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따르며, 설사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에게 현혹되어 그를 숭배하고, 그가 아니라면 누가 와서 이끌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조차 원하지 않는다. 이는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하나님 집에서 이 사람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이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항의하며 들고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어느 지경까지 현혹한 것이란 말이냐! 만약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사람의 상황은 갈수록 좋아지고 진리도 더 많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에게 더욱 순종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도 점점 커질 뿐 아니라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방금 말한 상황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나 악령이 한동안 역사해야만 사람을 그 지경까지 현혹시킬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현혹되고 통제되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그의 자리만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겉면의 좋은 행위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여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이다.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겉면의 좋은 행위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현혹하고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이제 너희도 확실히 알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겉면의 좋은 행위로 사람을 현혹하는데, 이는 아주 교활하고 음험하지 않으냐? 너희도 때때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밤새워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졸음을 쫓으려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형제자매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닭곰탕을 끓여 주면 그는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제겐 그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닭곰탕을

먹었으니 더 효율적으로 본분을 이행해야겠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본분을 이행할 뿐 효율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는 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는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우러러보며 끝까지 그를 따르게 된다.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밤낮으로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들의 '좋은 리더'이자 '사랑하는 이'이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무척 사랑으로 대하고 말할 때도 화법에 신경 써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게 만든다. 누가 그에게 다가가고 접촉하든 그는 늘 만면에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원칙 없이 행동하여 교회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는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며 본분을 이행하라고 구슬리는데, 어르고 달래어 사람들을 그의 앞에 데려온다.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감동되어 그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한다. 결국 모두가 그를 숭배하며 무슨 일이든 그에게 교제해 달라고 하고 속마음을 전부 그에게 털어놓는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그에게 현혹된 것 아니겠느냐? 이 역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현혹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너희에게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 또는 속셈이 있다면 너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알아차리고 나면 네가 행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네가 자신의 행위와 행동 방식, 또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성찰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진실로 뉘우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돌아섰다는 뜻이다. 만약 의식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버려두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갈수록 깊이 빠져들어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돌아서지 않은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의도적으로 참도를 등지는 것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느냐?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겠느냐? 더욱 음험하고 간사한 방식으로,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추종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대놓고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 성질이 동일한 것이다. 네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든, 그것이 명확한 말로든 아니면 비교적 뚜렷한 좋은 행위로든, 그 성질은 모두 같다.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질이며 하나님 선민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과 다투는 성질이다. 네가 드러내는 형식이 무엇이고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네 의도가 변하지 않고, 초래되는 결과가 같다면 그 성질은 같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활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지만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사람을 현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어떤 사람은 괴상한 이야기와 추상적인 논조로 남들이 그가 지식과 학식을 갖추었고 깊이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목적을 달성한다. 무슨 일이든 그는 다 참여하며 의견을 내려 들고, 이미 결정된 일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 이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다들 이미 토론과

상의를 마쳐서 원칙도 찾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린 일이더라도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딴지를 걸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가 생각해 낸 그 부분은 괴상한 이야기이다. 그는 무의미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무의미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자신이 출중하고 남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뜻은 '너희들 수준이 다 이 정도 아닌가?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게 해 줘야겠어.'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대도 안 하지만 중요한 일이 닥치면 그는 나서서 훼방을 놓는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 트집쟁이고, 나쁜 놈이라고도 한다. 트집쟁이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느냐? 큰소리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네가 그에게 올바른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는 내놓지 못하고 정당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상한 일만 저지르며 늘 남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으냐? 할머니가 립스틱을 바르는 것, 본때를 보여 준다. 늘 한 수 보여 주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보이는지를 떠나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보다 한 수 위야. 너희는 글렀어. 다들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지. 내가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의견을 하나 내지.' 이는 훼방을 놓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일부러 훼방을 놓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위이겠느냐?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그의 뜻은 이렇다. '이 일에서 나의 출중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누구의 이익이 손해를 보든, 누구의 지불한 대가가 물거품이 되든 난 이 일을 망쳐 버리고 말 거야. 다들 내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난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지 않으냐? 너희는 이런 일을 한 적 있느냐? (있습니다. 때때로 남들이 어떤 일에 대해 의논을 마치고 방안도 적합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때 제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일부러 그 일에서 트집을 잡곤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할 때 너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명확히 알고 있었느냐? 그 문제의 성질이 심각하고 그것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느냐?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형제자매들의 엄한 책망과 훈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성질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그것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사탄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닥쳤을 때 행동 방식을 어느 정도 바꾸고 조금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생각이 다시 표출되면 그것은 사탄의 성품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옳지 않은 생각을 저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패괴 문제가 있으면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하고 자신을 구속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 남들이 너를 무시하고 우러러보지 않으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교란하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는 그것이 정상 인성이 아닌 사탄 성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대로 가다간 골치 아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너는 우선 단속하는 법을 배운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돌이켜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패괴 성품 안에서 살면 모든 행동이 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없으며 전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늘 명예와 이익만 추구하려 하며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마저 불사하는 것, 이 역시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네가 알아차리고 인정한 다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너의 행동 방식과 행위, 성품이 다 변화한다면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태도도 보일 리 없을 테고, 그럼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만약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고집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또 명예와 이익을 놓고 리더 일꾼과 다투거나 남보다 돋보이고 뛰어나려 하며 어느 무리에 있든 항상 남보다 우월해지려 한다면 이는 아주 골치 아프다! 네가 계속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고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이고 결국 징벌받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양심과 이성이 너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제 불능이 될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걸을 수 있는지는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고 나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지, 또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고 사람이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만약 네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기로 선택하고 공공연히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에게 대항한다면 너는 구제 불능인 것이다. 얼마나 큰 잘못과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든 무서운 줄 모르고, 죄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늘 변명만 늘어놓으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런 자는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자 마귀이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설 줄 알며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핵심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제 4 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행동 방식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수단, 방식, 방법 중 명확한 것은 이제 너희도 분별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은밀한 행위와 모습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명확하게 언어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경우, 너희 자신에게 이런 표출이 있고 남들에게도 이런 표출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별할 수 있다. 반면 언어 없이 행위적인 모습만 있다면 너희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 사람이 분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행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느냐? 분명 사람의 관념과 상상, 도덕, 양심, 감정에 부합할 것이다. 또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동조를 얻고 숭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얻고 숭배를 받는 것은 도달하게 되는 결과이다. 결과로 보면 확실히 현혹성이 있고, 행동의 성질로 보면 목적성이 특히 강하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우러름을 받고자 남을 현혹하려 한다면 그는 약을 먹을 때 남들 앞에서 먹겠느냐, 아니면 남몰래 먹겠느냐? (남들 앞에서 먹습니다.)

이는 의도적이지 않으냐? 그래서 그의 목적성이 특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가 그렇게 약을 먹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 일로 공을 인정받으려는 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알려 주는 것이다. "보세요. 저는 본분을 이행하다가 힘들어서 병이 났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병을 치료해야 하면 치료하지만, 약 먹고 치료받는 기간에도 저는 본분 이행을 견지할 수 있어요." 사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다가 힘들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그저 갖은 행위를 통해 자신이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하나 없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정도니 자신에게는 고생을 견디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은연중에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과 자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 또한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 이성이 있다면 그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고 남몰래 혼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다짐했을 것이다. 혹은 자신을 인식하거나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이런 표면적인 행위로 자신이 고생을 견디며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있고 자신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한다고 남에게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속셈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게 하고자 유독 눈에 띄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목적성이 강한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전달한 정보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효과에 이르는 것이다. 네게 충성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알 텐데 왜 굳이 남에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알리려는 것이냐? 남에게 알리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남이 우러러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그는 고의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남들도 그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면 목적성이 강하다면 그는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며 시간과 장소에 신경 쓰고 공들여 모두가 있을 때 약을 가져오게 하고 이 일을 대대적으로 퍼뜨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성이 아주 명확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그는 아무도 없을 때 약을 먹을 것이다. 네가 기꺼이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기에 굳이 드러내어 남에게 알게 할 필요는 없다. 남에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동정과 칭찬 외에 네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본분을 이행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좀 지불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네가 기꺼이 하는 일이기도 한데, 너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퍼뜨릴 게 뭐 있겠느냐? 퍼뜨리는 순간 역겨워지는데, 어떤 성질로 바뀌겠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 늘 머리를 긁는데,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열흘 넘게 머리를 안 감았어요. 복음 대상이 연달아 있었거든요. 그날 시간을 좀 내서 머리를 감으려고 했는데 복음 대상이 알아보러 오는 바람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지 뭐예요." 사실은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았으면서 남이 그가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쇼한다고 한다. 쇼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남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려는 것으로, 그 성질이 바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사소한 일조차 놓치지 않고 신경 쓰며 자신을 드러내고 야심과 욕망을 채워 남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이용하다니, 이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부끄럽고 역겹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된다. 그 안에는 가식, 간사함, 사악함, 그리고 야심이 담겨 있다. 그는 늘 자신의 체면과 지위, 명예를 염두에 두며 어떤 일도 놓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자신의 자본으로, 남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려 한다. 결국 목적을 이루고 나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일종의 허상으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축하하며 뿌듯해한다. 이는 더욱 역겹지 않으냐? 분명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 모두들 그를 우러러보고 앙망하며 따르고 추종하고 있지만 그는 겉으로는 지위를 좋아하지 않는 척하니, 더욱 가식적이다. 결국 다들 그에게 현혹되어 그가 천성적으로 야심이 없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실 소소한 실험 하나면 알 수 있다. 지위를 교체하는 순간 그가 곧장 본분 이행을 그만둘 것이다. 그의 야심은 이렇게 빨리, 작은 일 하나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패괴 성품 때문에 사람에게 생겨나는 행위와 행동 방식, 온갖 추태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이 지위를 좋아한다는 사실, 남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사람을 구슬려 남이 자신을 숭배하고 앙망하며 나아가 추종하게 함으로써 사람 마음속의 하나님 지위를 대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사탄 성품임을 증명한다. 패괴된 인류 가운데 지위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바보조차 관직에 오르려 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조차 남을 다스리려 든다. 모두가 지위를 좋아하고 지위를 위해 행동하며 하나님과 지위를 다툰다. 모두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 성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폭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행위와 모습은 정상 인성이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패괴 성품의 표출이자 부정적이고 증오할 만한 것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수단이 얼마나 뛰어나든, 네 행동이 얼마나 은밀하든 모두 정상 인성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것이기에 사람은 마땅히 이런 행동 방식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준 본능이 아니라 사탄의 패괴 성품의 가장 전형적인 표출이며, 더욱이 사탄의 패괴 본질의 가장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성품이자 행동 방식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제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여러 모습, 그것이 뚜렷한 것이든 비교적 은밀한 주장과 행동 방식이든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자신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적 상태와 모습, 표출 모두 너희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자신의 내적 상태와 대조해 보고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자신이 생존을 위해 기대고 의지하는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그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성품에 지배받아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에 지배받아 사람은 무엇을 살아 내는지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한 이런 구체적인 행위와 모습, 행동 방식, 그리고 성품으로 점차 자신을 분석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자신의 본질,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행동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하게 돌이키며 진리대로 실행하고 살아 내게 된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행동 방식인 이상, 제가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 네가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면 일부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털어놓는 것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냐?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사물이다. 만약 정말 스스로를 인식하여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식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역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털어놓는답시고 자신의 장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렀는지, 어떻게 굳게 서서 증거했는지를 떠들어 댄다면, 그 결과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게 된다면, 이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연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는지, 그 후 어떻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이 생기고 굳게 서서 증거하게 됐는지 이야기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주로 진실한 체험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또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는 의도와 목적을 보면 분별이 쉬워진다. 만약 간증할 때의 의도가 올바르다면, 설령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이가 나온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지를 분별하려면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로 그 사람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의도에 근거하여 분별해야 정확하다. 결과만 보고 분별한다면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기 쉽다. 특별히 진실하게 간증하여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간증한 사람을 두고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간증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가 말한 간증과 그가 이행한 본분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치우치게 이해하여 사람을 숭배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지를 분별할 때의 핵심은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속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의도가 모두에게 자신의 패괴 표출을 알게 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게 하며,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네가 하는 말은 진실하고 간절하며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올바른 것으로, 이는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게 진실한 체험과 변화, 진리 실제가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 주어 우러름과 숭배를 얻고자

한다면 그 의도는 그릇된 것으로, 이는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만약 네 체험 간증에 거짓과 과장이 있어 사람들을 기만하고 네 실제 내적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고, 네 의도와 패괴, 또는 연약함과 소극적인 것을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그런 말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으로, 거짓되게 간증하는 것에 속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행위이다. 이 몇 가지 내적 상태의 분명한 차이는 전부 의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 네가 남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남의 내적 상태를 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분별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도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설교를 이토록 많이 듣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분별하고 폭로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받아들여도 되지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를 버리고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가 리더라면 그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버려야 하며, 그의 인솔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증거하고 높이며 우리를 마비시키고 통제하기만 했어요. 우리는 현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당신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당신을 버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감독하며 서로 감독해야 한다. 너희는 남들 앞에서 자주 머리를 긁지 않느냐? 혹은 사실 몰래 간식을 많이 먹었지만 자신이 밥을 몇 끼 안 먹었는지 늘 말하고 다니지 않느냐? 가끔 환경이 여의치 않아 한 달 동안 씻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다. 또는 일이 너무 바빠 한 번 덜 씻고 머리 한 번 덜 감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별거 아니니 호들갑 떨지 마라. 만약 정말 누군가 이런 일로 호들갑 떨고 의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머리를 긁으며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는지 말한다면, 혹은 의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약을 먹거나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한 척한다면 모두 일어나 폭로하고 그에게 반감을 표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파렴치한을 억제할 수 있다. 그 자신은 외식하고 남에게 보여 주려 쇼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남이 그의 이런 행위를 높이 평가하며 부러움과 탄복, 칭찬이 담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남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행동 방식은 바리새인이 성경을 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한다는 말만 하면 그는 '그건 너무 창피한걸. 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일부러 남들 앞에서 약을 먹고 머리를 긁는 것이 같은 성질의 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마주치면 너희는 분별하고 폭로할 줄 알아야 한다. 외식하는 그의 모습을 전부 폭로하면 그는 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를 좀 압박하여 그런 행동 방식과 행위, 성품이 부끄럽고 남들이 혐오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사람도 그 정도로 혐오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혐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더욱 혐오할 것이다. 너는 본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가련한데 이렇게 가련한 상태에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기까지 한다면 사람을 역겹게 하지 않겠느냐? 너는 원래부터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고 일 처리에도 원칙이 없었으며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만 해도 이미 골치 아픈데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기까지 하면 더욱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요구에서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구원받는 기준에도 더욱 멀어지게 된다.

너희가 보기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대체 어떤 성질의 문제이겠느냐? 사탄이 인류를 이 정도로 패괴시켰으니 인성의 이성이 모두 비정상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본분을 이행할 때 아직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모습이 있느냐? 누가 한번 말해 보겠느냐? (저는 본분을 이행하느라 늦게까지 밤을 새울 때 예배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남들이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해 본 적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자주 봅니다.) 보아하니 그런 사람이 적지 않고 꽤 많은 것 같구나.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또 누가 말해 보겠느냐? (저는 교회 사역에 문제가 좀 있는 걸 발견하면 해결하겠다고 떠벌립니다. 겉으로는 마치 아주 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만 할 뿐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비효율적이라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인 겉모습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진상을 숨깁니다.) 그것은 빈말하고 큰소리치며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보기에는 진리를 실행하는 듯 열성적이지만 정작 일을 해야 할 때면 착실하게 하지 않는데, 그저 구호만 외치며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된다. 이런 모습에도 현혹하는 성질이 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닥치면 분별할 줄 알겠느냐? (이제 조금은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럼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닥치면 너는 두 단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자신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면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며, 행동에 옮길 때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너 스스로도 호흡을 맞추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완성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알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늘 빈말하고 큰소리치고 지키지도 못할 말만 하며 정작 일을 할 때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대충 형식만 거치고 조금도 착실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양아치 기질이다. 네가 교회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어쩌면 네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다만 내면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고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그저 구호만 외치는 데 집중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우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 일을 완수하고 제대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자 착실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더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사람을 배치해 처리하게 해야 한다. 우선 너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본분을 지킨 것이고 올바른 자리에 선 것이다. 문제를 발견한 뒤 해결은 못하지만 보고한다면 첫 번째 책임은 다한 것이다. 그 일이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본분이자 자신이 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구하고 먼저 원칙을 교제하고 방안을 확정한 뒤 다 같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책임이다. 이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짊어질 수 있다면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고 너는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이 두 가지일 뿐이다.

네가 본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짊어지고 본분을 잘 이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모습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요즘 본분을 이행하며 하루 종일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교회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우러러보고 제게 탄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에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하고 늘 속박받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겠느냐? 네가 본분을 이행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고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선민이 네게 탄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이는 네가 자신을 증거하여 초래된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빴을 뿐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너 자신이 고생한 체험을 떠벌리지도 않았다. 이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겉으로는 아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겠느냐? 분명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파악한 사람은 어쩌면 두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너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하고 스스로도 상당히 피로하고 크게 고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쓸데없이 바쁘고 공연히 바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역 효율이 너무도 떨어진다! 이 일에서는 진리 원칙을 구해야 한다. 때때로 할 일이 아주 많고 진짜로 바쁜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바쁨이다. 그러나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아주 바쁠 때가 있는데 이는 왜 그런 것이겠느냐? 한 가지 원인은 네가 사역 계획을 적절히 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는 핵심적인 본직 사역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안배하여 본분 이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바쁘고 공연히 바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일부러 남들이 네가 바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과 허상으로 남들을 속이는 것이다. 일부 리더 일꾼들은 예배할 때마다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계속 쓸데없이 의논만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데 한참을 얘기해도 핵심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효율과 진도를 따지지 않는 바쁨도 쓸데없는 바쁨이다. 쓸데없이 바쁜 것은 어떤 태도이냐?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사역하며 시간이나 때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든 난 양심에 찔리지만 않으면 돼. 어쨌든 내가 빈둥거리면서 공밥 먹는 건 아니니까.' 겉으로 보면 너는 빈둥거리지도, 공밥 먹지도 않았다.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본분을 이행하는데, 하는 일도 모두 교회 사역과 관련 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도 네가 하는 일들이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고 그저 형식만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너는 본분을 어떻게 이행한 것이냐? 너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고 무감각하며 강퍅한 것이다. 이렇게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시간을 끌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리 없다. 왜냐하면 너는 원칙도, 효율도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순전히 힘만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망하고 도와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고 일을 게을리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여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본분 이행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소용없고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는 기준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는 반성해 볼 만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이런 진리에 다 진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본분 이행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최소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효율을 끌어올리는 기초이자 핵심이다. 진리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본분을 이행하고 매일 얼마만큼 바쁘게 일하든 진실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심이 있는지 본다. 본분을 이행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사역 효율을 보고, 일 처리가 원칙적이고 진리에 부합하는지 본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진실한 체험 간증이 있는지, 생명 진입이 있는지 본다. 진리 실제가 조금도 없으면 힘쓰는 자일 뿐이다. 반면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본분을 이행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며, 본분 이행이 불합격이고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힘쓰는 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얼마간 모색하기만 하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할 수 있다. 자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요구에 달하기 아주 어렵고 그들의 본분 이행은 힘만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멍청이나 얼간이, 인성이 아주 나쁘거나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못되게 군다. 이런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따라서 본분 이행에 원칙이 없고 매일 쓸데없이 바쁘고 공연히 바쁘다면 서둘러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몇 시간 동안 바빴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매일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효율이 있고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자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현재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한결같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다. 그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함부로 굴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지만 작은 실수는 끊이지 않고, 특히 날마다 겉으로는 아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야 할 일을 얼마 하지 않고 그저 허송세월한다. 대충대충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하지 않겠느냐? 늘 이런 오만한 태도로 본분과 하나님의 부탁을 대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역해도 성과가 없어 본분이 교체된다.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경우에는 정리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긴다. 사탄에게 넘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이 돌보지도, 구원하지도 않아 사람이 비뚤어진 길을 걷기 시작하고 결국 징벌받는다는 뜻이다. 알겠느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는 때인데, 네가 잠시 바른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제 환경을 빌려 네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네게 반성하라고 준 시간이자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완고하게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할 것이다.

니느웨 성을 멸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멸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일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느냐? 우선 요나에게 일렀다. 요나에게 그 일의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리자 요나가 니느웨 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선포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욘 3:4) 요나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바로 성 안의 남녀노소, 온갖 직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나아가 그들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드러내고 징벌하고 대하는 방식에는 단계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곧장 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둔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알고 자신을 반성한 다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점차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그 일을 인식하려면 과정을 하나 거쳐야 한다. 그 사십 일은 사람이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남겨둔 시간이었다. 만약 사십 일 후 사람이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룬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럼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느냐? 그렇지 않다.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그 후 집집마다 그 일을 서로에게 알리고 함께 논의했다. 그들은 위기와 생사존망의 고비가 닥쳤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겠느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겠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반항해야 했겠느냐? 정말로 의심하고 반항한다면 사십 일 후 멸해지는 것이었고,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면 한 가닥 살아남을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하류층에서 상류층까지 여러 날을 논의한 끝에 백성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백성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태도를 보이고 무릎 꿇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바람직한 행위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성을 구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겠느냐? 바로 니느웨 왕이었다. 그는 국왕에서부터 가장 어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명했다. 그렇게 명령하자 성에서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자가 있었겠느냐? 왕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수중의 권력으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입게 된다. 그러나 그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좋은 일,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일을 한다면 그 성은 살아남게 되고, 온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며, 죄를 사함 받을 희망이 생기게 된다. 이는 그의 순간의 생각에 달린 일이 아니겠느냐? 그가 만약 "너희 중 누가 회개하려 하든 나는 회개하지 않을 테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어쨌든 나는 이 일을 믿지 않는다.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위도 높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내 지위를 없애실 수 있겠는가? 성은 사라지면 사라지라지 뭐. 너희 백성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가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겠느냐? 그럼 구원받는 백성의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고 어쩌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만 선택해

데리고 나왔을지도 모른다. 데리고 나온 뒤, 죽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성은 멸해졌을 것이다. 물론 그 왕도 포함해서 말이다. 반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에서 데리고 나온 뒤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니느웨 왕이 앞장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고위 관료에게든 미천한 사람에게든, 귀족에서부터 평민에게까지 성의 모든 백성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죄를 인정하라고, 돌아서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전하고 걷고 있던 악한 길을 떠나고 손으로 행하던 악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간청하라고 말한 것이었다. 니느웨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성의 모든 백성을 구했는데, 많은 사람이 덩달아 덕을 본 것이었다. 앞장서서 그렇게 행동했으니 그의 권력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 국왕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돌아선 일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교제했는데,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교제하고 예를 들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양한 방식과 어휘로 설명하고 정의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구제 불능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들을 다 듣고 나서 사람이 도리나 표면적인 뜻, 특정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실정, 그리고 사람의 본질과 생존, 생활과 관련된 일부 원칙과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실제 내적 상태나 생활 속 표출을 이런 표현이나 우리가 다룬 사례에 비춰 볼 수 있다면 너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다. 비춰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들고 한 가지 일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내적 상태에 비춰 볼 수 있고, 하나의 진리를 교제할 때마다 그 진리를 자신의 내적 상태, 표출에 비춰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네가 이렇게 결부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너는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것이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희망이 있는 것이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비춰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표출, 자신의 본성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에게 결부하지 못한다면 너는 정말 밀반죽 방망이로 불을 피우는 것, 앞뒤가 꽉 막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힘만 쓸 수밖에 없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진리 실제에 진입해야 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려면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와 줄거리, 여러 가지 일과 각종 표출, 다양한 사람의 본질과 내적 상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자신을 비춰 볼 수 있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는 닭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른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알을 낳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닭은 알을 안 낳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닭을 삼 년 기르는 동안 주인이 곡물도 먹이고 채소도 먹였는데 아무리 먹어도 알을 낳지 않는다면 이 닭은 알을 안 낳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경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또 듣고 나서 깨닫긴 하지만 실행하지도, 돌아서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끝장이다. 이러면 소돔 성의 백성처럼 반드시 멸해질 대상이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부류 사람인데,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의 이런 성품이 단지 강퍅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진리를 원수로 여기는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두고는 진리를 깨달았는지 아닌지 논할 수 없다. 그는 진리와 적이 되고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긍정적인 사물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진리로 듣지 않고 일종의 이론이나 학술, 도리로 듣는다. 다 듣고 나서는 나중에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이익과 지위, 명리를 얻는 데 쓰려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갖춘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다. 진리를 어떻게 교제하든, 어떤 사례를 들든 네가 그를 감화할 수도, 그의 의도를 바로잡을 수도, 그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도 없다면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듣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에 의해 바뀔 수 없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의 차이이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 자주 패괴 성품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다. 한동안 지나면 그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버리고 헌신하며 고생하고 대가도 지불하지만 그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네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면 그는 싫어하고 반항한다. 그는 예배할 때 설교를 들으면 졸려 하고 잠을 자며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설사 알아들었다 해도 실행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겉으로는 꽤 진지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과 이론으로 여겨 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몇 년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설교를 얼마나 듣든 결국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숭상하는 내면의 관점과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자가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만약 네가 그를 폭로하며 "당신의 행동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자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는 것이며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가 이런 정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어떻게 정죄하든, 당신이 뭐라고 하고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든 나는 이런 행동 방식과 바람,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네가 뭐라고 하든 그의 관점과 속셈, 의도, 야심, 욕망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로,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다. 진리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언어와 말을 사용하든 어떤 시간과 공간, 배경에서도 그를 바꿀 수는 없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주위 사람과 일, 사물이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든, 심지어 그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든 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의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권력을 쟁탈하려는 그의 야심과 욕망, 그가 처신하는 방식,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의 태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남이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여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그는 남이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는 더욱 교활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경영을 하여 스스로 권력을 잡고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그의 결말이 다가왔다고, 그는 저주받을 만하다고 말씀한다 해도 그의 본질을 바꿀 수 있겠느냐? 진리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지위와 명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꾸지 못한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을 정상 인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마귀와 인두겁을 쓰고 있어도 본질이 사탄인 사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인류에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겠느냐? 그는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든, 혹은 무슨 일을 했든 그의 의도는 변할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버릴 리도 없고, 사람과 지위를 놓고 하나님과 다투려는 그런 속셈과 욕망을 버릴 리는 더더욱 없다. 이런 자는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잠깐 어리석어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좀 나타내거나 징벌을 좀 내린다면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지 않지 않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체를 보지 못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지고 사탄에게 속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 본질은 일시적으로 속고 우매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과는 구별되고 완전히 다르다. 적그리스도는 천성적으로 사탄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다투는 사탄이자 인두겁을 쓴 살아 있는 사탄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본성 본질에 따라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데, 그럼 그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무너뜨리고 파괴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집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고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늑대가 전적으로 양을 잡아먹으려 양 떼에 침입하듯 그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등장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하나님 선민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맞서는지,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겠느냐? 사탄 마귀에 대해 말하면, 사람은 그것이 도대체 마귀인지 사탄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아주 추상적이고 공허하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탄이 어디 있나요?" "반 공중에 있어요." "그럼 사탄은 얼마나

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뛰어난 재주를 부리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나요? 그 본성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렇듯 사람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공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표출을 통해 그런 것들을 사탄의 행동, 본성 본질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구체화되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도, 공허하지도 않게 된다. 구체화되면 사람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의 행위를 볼 수 있으며 공을 들여 그의 본성 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사탄 마귀의 본질이 더욱 구체적이고 진실해 실제로 맞춰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순간적인 우매함으로 인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고 현혹되어 일 년쯤 떠나게 된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적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는 당당하게 "상부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따르고 말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옳다는 사실이 증명될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는 한동안 성령 역사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확증을 얻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와 방향도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다가 서서히 적그리스도를 더욱 잘 분별하게 된다. 과거에는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를 따라 믿으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치 진리를 깨달은 듯 말하지만 절대로 진리를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따랐지만 진리를 조금도 얻지 못했으니, 그는 적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적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려 한다. 하나님 집에서 그를 받아들인 뒤 그에게 그 체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현혹하는 데 아주 뛰어나요. 그때는 아무리 봐도 옳은 사람 같았는데 그를 일 년 넘게 따랐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 실제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만 허비했으니 손해가 막심하죠!" 이 실패한 체험이 그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 하나님 집에 돌아온 이후 그는 설교를 들을수록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마음속도 더욱 환해진다.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따라 걷던 그 길을 다시 떠올리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확인하고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분명하며 진리도 전혀 갖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따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다시 리더를 뽑을 때 그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투표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자칫하다간 내가 행사한 이 한 표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뽑힐지도 몰라. 내가 투표를 안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안 뽑힐 수도 있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원칙대로 평가해야 해.' 일 처리에 원칙과 기준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현혹되어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동의하겠느냐? 너는 동의하지 않고 기어코 따르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네가 따르도록 허락한 다음, 사실을 이용해 너에게 교훈할 수밖에 없다. 너는 한동안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갑자기 각성하여 자신의 생명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후회하며 적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

할 것이다. 다행히 하나님께 관용과 긍휼이 있어 너를 원하기에 망정이지, 만약 하나님이 너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완전히 끝장났을 것이고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본질이 적그리스도와 많은 부분에서 같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둘 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사탄과 한패가 되고 사탄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너 역시 패괴된 인간이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아직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그러나 너는 본질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부분이 많고, 행동 방식, 의도도 같다. 다만 너는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돌아설 수 있으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바로 이 점이 다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동시에 너도 자신을 비춰 보고 자신이 적그리스도와 어떤 점이 같은지, 적그리스도의 모습, 성품, 본질과 어떤 부분이 같은지 인식해야 한다. 이러면 자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늘 반항하며 자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며 마음속으로 적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비춰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사탄 성품이 있으면 너는 적그리스도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중 자신이 일부러 추구하여 적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종교계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자신의 본성 본질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는 않고 관념과 상상에 기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에 올라 일단 지위가 생기고 거기에다 은사와 지식까지 있다면 다들 너에게 탄복할 것이고, 사역 시간이 길어지면 너는 사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갈수록 사역도 커지면서 갈수록 이끄는 사람도 많아지며 자본도 생기면 영락없는 바울이 된다. 이게 네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 길로 갈 계획도 없던 네가 어째서 자신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느냐? 중요한 원인은 바로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너는 분명 지위와 명망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경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길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에 오른 사람이 제때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위가 생기는 순간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지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명예와 지위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명예와 지위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저 가끔씩 이런 표출이 있을 뿐이에요.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고요. 비록 적그리스도와 본질은 같지만 저는 적그리스도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야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 본분을 이행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며 진리를 구하면서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하거든요. 행위로 보면 저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그리스도가 될 리 없어요." 너는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담할 수 있겠느냐?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겠느냐? 길이 있느냐? 우선 너는 너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네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점은 무엇이겠느냐? 너와 적그리스도가 같은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네게 좋은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일 리 없다. 이것은 네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폭로하는 설교를 들을 때 너는 그런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럼 어떤 태도로 이런 사실과 모습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자신을 비춰 보고 자신에게도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의 모습, 표출 중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표출과 완전히 같은지 성찰해야 한다. 너는 우선 자신을 위장하지도 포장하지도 말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네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너를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하나님 집에서 너를 규정하지 않고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알겠느냐? 우선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구속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얼굴빛과 보호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는 한편으로는 행동할 때 양심과 이성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빛 비춤을 주고 너를 이끌며 동시에 너를 구속도 할 것이다. 그 밖에 성령도 역사하여 너를 인도하며 주위의 사람과 일, 사물을 안배해 너를 일깨워 주고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일깨워 주겠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한다. 때로 하나님은 구속을 받아야지 제멋대로 굴면 안 되며, 일단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망신을 당한다는 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명확히 느끼고 분명히 의식하게 한다. 그래서 너는 삼가게 된다. 이는 너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일종 방식이다. 때로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너를 꾸짖고 네게 명확한 말씀을 주어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것이며 하나님께 혐오받고 저주받을 만한 일이라고 네게 알려 주기도 한다. 즉, 네가 자신을 비춰 볼 수 있게 명확한 말씀으로 너를 꾸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네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너는 영향과 결과, 자신의 염치를 고려할 것이고 행동과 행동 방식에서도 어느 정도 조심할 것이다. 이런 체험이 많아지면 너는 이런 패괴 성품이 사람 안에 뿌리내려져 있더라도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패괴 성품의 본모습을 똑똑히 인식한다면 의식적으로 육을 저버릴 수 있으며, 사람이 진리를 실행해 내는 순간 사탄의 성품이 정결케 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사탄 성품은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해 낼 때 사탄 성품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대체된다. 진리 실행의 달콤함을 맛보면 너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과거의 난 너무 부끄러움을 몰랐어. 남의 숭배를 받기 위해 아무리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아무리 자신을 높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 후에는 아무런 느낌조차 들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창피하다고 생각해. 마치 많은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이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게 느낌을 주어 네가 자신을 꾸짖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면 너는 악을 행하거나 홀로 자기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행동 방식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너는 갈수록 삼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놓이며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빛 속에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이나 듣기 좋은 말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야 했다. 거짓말을 하나 할 때마다 이리저리 둘러대야 했고 들통날까 봐 두려워했다. 결국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갖은 애를 쓰고 머리를 쥐어짜며 거짓말을 둘러대야 했다.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는데, 너무 피곤하게 산 것이다! 너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바른말을 할 수 있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둘러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거짓말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고생도 훨씬 덜하고 갈수록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마음속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이러면 달콤함을 맛본 것이다. 달콤함을 맛보는 동시에 네 마음속 세상도 더 이상 간사하고 사악하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한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고 사람들과 상의하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너는 갈수록 과거의 행동 방식이 비열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진리와 이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대로 행동한다. 너의 행동 방식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진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지면 구원받는 길에 오른 것 아니겠느냐? 구원받는 길에 오르면 너는 자주 하나님 앞에 오고 너의 태도, 마음가짐, 관점, 살아가는 목표, 인생의 방향 모두 하나님과 적대되지 않으며 너는 긍정적인 사물과 공평함, 공정함,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때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네가 구원받는 길에 올랐을 때 그래도 네가 적그리스도가 될 리 있겠느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리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러면 위험에서 멀어진 것이다. 사람은 이런 내적 상태에 진입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여야만 사탄 본성과 적그리스도 본성의 괴롭힘, 통제, 교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인생길에 올랐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서 그러기 위해 노력해라.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오르지 못한다면 여전히 위험 속에 살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든 도태될 위험이 있다.

본분 이행 기간에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적그리스도 성품과 싸우는데, 명예와 지위, 돈과 이익을 위해 고단하게 싸우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다. 그럼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서서히 적그리스도 본성 본질의 통제와 결박에서 벗어나고 사탄 성품을 차차 약화시키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에게는 사탄의 권력에서 걸어 나올 희망이 생긴다. 너희는 이런 일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어째서 늘 변하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자신을 원망한 나머지 스스로 뺨을 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많으냐? 많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매우 무감각한 것 아니겠느냐? 그는 항상 자신에게 패괴가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스스로 제대로 사역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자질과 재능을 갖추었고 진리도 꽤 많이 깨달았으며 많은 일을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안심한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위험하다! 너희는 지금

자신이 분량이 너무도 작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려면 아직 멀었으며 여전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흐리멍덩한데, 정해진 틀에 맞춰 본분을 이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지만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자주 우쭐거리며, 스스로 나쁘지 않고 곧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적그리스도의 길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하는 기도로 너희가 이런 내적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평가할 수 있다. 너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매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제게 맡기신 부탁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당신을 흡족게 하고 당신께 온전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있든, 제가 얼마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는 무감각한 것이다. 각오만 밝히고 자신의 본성 본질은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열성적인 단계에 있는 것인데, 진리 실제를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 너희는 얼마 만에 한 번 진실로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속사정을 알려 마음속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느끼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두 달에 한 번이냐, 아니면 반년이나 일 년에 한 번이냐? 만약 늘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종교계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늘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각오만 밝히며 상투적인 말만 늘어놓는다면 너희는 갈 길이 너무 멀고 진리 실제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보통 하나님을 믿은 지 3~5 년 정도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어린애 같은 무지한 말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확실히 정했고 믿음도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과 뜻, 경륜,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 같은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환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로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하나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당신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에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제게 빛 비춤을 주세요." 그는 비교적 진실하고 진리 실제와 관련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열성이 넘치는 사람이 자주 하는 각오를 밝히는 말이나 구호는 사라진다. 왜 사라지겠느냐? 그는 그런 말을 해 봤자 소용없고,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리에 대한 필요와 생명 진입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형식만 차리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든, 열흘 중 며칠이나 빈말 또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느냐? 하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 일 동안에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본분이나 생명 진입과 관련 있다면 그나마 괜찮다. 그것은 너희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본분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지 무감각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다지 무감각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과 관련된 일, 여러 내적 상태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면 듣고 나서 무언가를 느끼고

의식하며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든 거의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것이다. 무감각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매일 그저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조금도 발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전부 상투적인 말뿐이다. 그는 생명 진입이라는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이해력도 없으며 아무 느낌도 없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모두 같은 말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더 할 말이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할지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최소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만약 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듣기 좋은 말이나 늘어놓고 구호와 도리나 좀 외치며 형식만 갖춘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아무리 여러 해 동안 굳게 맹세하더라도 실속 있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결국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분량이 없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요구, 자신의 성품 변화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여러 모습, 이런 행위의 성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보통 사람이 가진 패괴 성품의 모습은 다르지 않으냐? 정말로 일이 닥쳤을 때 너희는 비춰 볼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평범한 패괴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패괴된 사람의 모습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느냐? 이는 어떻게 분별해야겠느냐? 한 사람의 일관된 모습과 표출을 통해 그의 성품을 판단하고, 성품에서 그의 본질을 판단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자신만 높이고 증거한다. 이런 측면의 모습이 특히 뚜렷하고 두드러진데, 사탄 본성에 철저히 지배된 것이다. 비록 보통 사람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긴 하지만 네가 진리를 교제해 주면 그는 받아들인다. 그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인다. 다만 그리 빠르고 쉽게 변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의 차이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진리를 부정할 때 그가 바로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부정하길래 너는 그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는 궤변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네게 반박하는데, 네가 교제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가 교제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가 자신을 증거해 누군가 그를 폭로한다면, 폭로한 후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궤변을 늘어놓으며 설명하는 것이 하나이고, 사실의 진상을 숨기는 것도 있는데, 그 진상이 바로 그의 의도이다. 그의 의도는 남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는 네가 그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감언이설로 궤변을 늘어놓고 너를 속이며 헷갈리게 하면서 결국 네가 그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한다. 그러면 그는 목적을 이룬다. 그는 감언이설과 궤변을 늘어놓고 사람을 속이며 그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의 폭로와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규정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 이유를 찾아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저는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말을 몇 마디 하는 건 정상이고 별문제도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사역을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공로는 없어도 나름 고생했으니 저를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이토록 부끄러운 행위와 역겨운 행동을 두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이겠느냐? 그는 이런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인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격이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옹호하는 건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교회 사역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 집을 위해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얼마나 큰 위험을 부담했는데! 이런 내게 어느 정도의 상과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며?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응을 내리신다며? 그럼 지금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큰 위험을 부담하는 나를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 반드시 보수가 따라야 하며, 사람들에게 옹호받고 그가 누려야 할 추대, 명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최소한의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진리이겠느냐? 예를 들어,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고생하든 사람은 피조물이고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고생을 견뎌야 해요. 그 고생 중 하나가 바로 본분 이행이죠.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보수를 언급해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진리 아니겠느냐? 이는 피조물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그의 처세 철학과 사상 관점 안에 이런 내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 방면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도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가 없이는 본분을 이행할 수 없고, 위험을 부담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분 이행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로, 거기에는 보수라는 개념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는 멸시하고 반항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다니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진리겠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게 바로 진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사탄의 논리이자 그릇된 주장이요, 황당한 이론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람은 그에게 현혹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현혹되기 아주 쉽다! 연약하고 본분 이행에 관련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다가 자질과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그리 크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은 구미에 딱 맞는다. '그러게 말이야. 난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오늘 드디어 똑똑한 사람을 만났네.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일리 있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감정, 사고와 논리, 풍습이나 전통문화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전부 진리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분석할 필요 없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든 그르다고 생각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검증이 필요 없고 인간의 체험으로 확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도 합리적이셔야지! 하나님의 공의는 뭐겠어? 고생을 많이 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큰 상을 받고, 고생도 적게 하는데 능력도 하찮고 기여도 크지 않으면 작은 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본분 이행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무이고 본분 이행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으며 모두가 마땅히 진리 원칙대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그것이 피조물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보수를 언급했느냐? 상을 언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나 상은 언급한 적 없다. 이는 의무이다. 의무란 무엇이냐? 의무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본분을 많이 이행하면 나중에 큰 상을 받고, 본분을 적게 이행하거나 형편없이 이행한 사람은 작은 상을 받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은 본분 이행이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무이자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는 진리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해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의 방식대로, 그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 자신에게 이롭고 사람을 현혹하며 나아가 사람을 선동하고 유인할 수도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하는 방식대로 바꾸어 마치 그가 선포한 진리인 척한다.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는 그 말씀하는 방식과 원칙을 그의 방식대로 좀 바꿀 것이다. 그의 방식대로 바뀐 것이 여전히 진리이겠느냐? 그건 진리가 아니라 궤변이고 사설이다. 너희는 이 일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조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이토록 많이 들었으니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진리에 반대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속셈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남들에게 진리가 아니라 그의 궤변과 사설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사고와 논리, 이익과 관점, 관념에 따라 진리를 왜곡한다. 왜곡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그 자신에게 유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몽매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할 수도 있다. 그의 이런 말들은 얼핏 듣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사탄의 야심과 계략이 담겨 있다. 그의 야심과 계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겠느냐? 바로 자신이 이익을 얻고, 자신의 행동 방식과 행위가

자리를 잡아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인데, 그들의 나쁘고 악한 행위를 정당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와 행동 방식으로 바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다들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사람들을 현혹해 사람들이 그를 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말재주와 '똑똑한 머리'로 궤변과 사설을 생각해 내 진리를 왜곡하고, 그의 말이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려 한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느냐? 그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부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어쩌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만약 정말로 현혹되어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고 도태된 것으로, 그래도 싸다. 이런 것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 그는 죽어야 할 운명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다. 그는 교회에 섞여 들어와 힘을 좀 쓰고 은혜를 좀 누리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겨진다. 그는 마침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하나 듣고는 박수치며 찬동한 다음 사탄을 따라갔다. 이를 무엇이라 하겠느냐? 사탄을 이용해 봉사하게 한다고 한다.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이것이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잠시 부주의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갔겠느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겠느냐? 이런 걸 두고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동안 어울려 보면 너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비천하다! 그들의 인품과 진리를 추구하는 면을 보면 그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진리를 싫어하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얻지 못한다. 따라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세 어절로 요약하면 가장 정확하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모습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규정하면 아주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공허하지 않다. 그의 의도와 야심, 본질의 표출, 일관된 행동의 목적을 보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특유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번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한 적 없는 적그리스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없겠느냐? 그는 야심과 욕망이 너무도 커서 통제할 수 없다. 어느 무리에서 살아가든 아무도 그를 높이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삶에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여 목적을 달성하길 간절히 원한다. 살아 있는 한 그는 반드시 남들보다 뛰어나려 하고 그를 숭배하고 추종할 사람이 필요한데, 설사 '똥파리'나 '비렁뱅이 무리'라도 상관없다.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를 숭배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는 마음이 편안하다. 만약 유명 가수처럼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다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족하고 즐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어떤 사람이 추종하고 숭배하든 그가 보기에 다 좋다. 아무리 미천하고 역겨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사 짐승 같은 놈이 그를 따르더라도 그를 높이고 지위에 대한 그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럼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고 과시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다. 너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특정한 유형의 인간을 택하고 구원하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 염치를 가지고 있다. 좀 더 나은 경우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사랑하고 사악함을 증오한다. 정의롭지 않고 사악한 일을 보면 속으로 분개하고 설사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일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인성과 본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천편일률적인 공허한 이론과 겉치레하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데, 2 천 년 동안이나 그런 말을 해 왔음에도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포한 이토록 많은 진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심지어 정죄하고 모독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써 그들은 철저히 드러났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자 사탄과 한패라고, 그들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마귀 사탄, 개돼지 같은 짐승이라고 규정했다. 이 무리에 가서 이런 사람들 중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다들 분별력과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적그리스도는 재빨리 기회를 틈타 자신을 과시한다. 자신이 예전에 세계적인 명문대 두 곳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특히 우러러본다.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다가 네가 좋아하는 것과 너의 세계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너는 이런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말에 현혹되고 우롱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는데,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사람은 현혹되고 만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상당히 흡족해하지만 사실 그들은 한 무리 멍청한 자들이자 변변치 못한 자들이다.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현혹될 수 있다. 그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유독 마음에 들고 구미에 맞다고 생각하며 듣기 좋아한다. 그들은 그 말을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 분별하지도 않는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받아들이려 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된다.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버린다. 분별력이 없는 멍청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유식하고 자질이 뛰어나며 전도유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바라보고 일부 표면적인 현상에 현혹되며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탄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은 무지몽매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다. 적그리스도가 자주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여러 모습이나 다양한 행동 방식을 네가 분별할 수 있고 그가 말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래야만 재빨리 그를 버리고 저주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우며 마치 파리를 본 것처럼 역겨워 너는 서둘러 그를 쫓아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과 행위를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한 다음, 원칙대로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 선민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분량이 자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이 생긴다면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님 집에서 설 곳이 없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과시하고 증거하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탄복과 선망, 추앙의 시선을 보내기만 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기뻐한다. 그가 자신을 추종하고 숭배하며 앙망하는 사람에게 요구 기준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바보, 지적 장애인이든, 아니면 악인이나 불신파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심지어 제명하고 도태시켜야 할 사람까지 포함해 그를 추종하고 숭배하고 높이기만 한다면 그는 모두 받아들이고 몹시 좋아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을 자신 곁에 끌어들여 보호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을 자신의 양이나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며 그 누구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폭로하고 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아첨하고 알랑거리며 굽실거리든 어떤 역겹고 메스꺼운 말을 하든 적그리스도는 그저 즐거워하는데, 상대가 자신을 치켜세워 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적그리스도는 남이 그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추종하게 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 그는 곁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나쁜 일을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따져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이 아무리 음험하고 악독해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저 그를 추종하고 숭배하기만 하면 다 좋아하며, 그의 권력과 지위를 지킬 수만 있고, 그를 거역하거나 맞서지만 않으면 몹시 흡족해한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반면 늘 그를 폭로하며, 그가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고 그가 지닌 문제점의 본질을 간파하며 그를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즉시 분노하고, 경계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결국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분별하고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고립시킨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 그는 늘 그 사람이 거슬리고 눈엣가시 같다고 느낀다. 또 그 사람이 그를 분별하고 내치려 할 뿐 아니라 그를 폭로하고 그의 좋은 일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늘 그 사람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는 그 사람을 처리하기만 하면 그가 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 아무도 그를 폭로하고 방해하지 않아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 원칙이다. 그를 치켜세우고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에 부합하든 말든, 설사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는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도 듣고 싶어 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설사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숨기고 감싸주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이 곁에서 그를 추종하고 치켜세워 주기만 하면 그는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이다. 너희도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너희가 교회의 리더 일꾼으로서 하나님 선민 가운데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형제자매가 너를 우러러보고 치켜세우고 네게 아첨하면서 너는 설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며 그의 마음속 최고의 리더라고 자주 칭찬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너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의 속셈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버리고 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면 너는

몹시 위험하다. 자신이 외모도 보잘것없고 진리 실제를 교제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누가 이렇게 자신을 치켜세우는 걸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서 늘 그 사람을 가까이하고 발탁하려 하니, 이는 골치 아픈 일 아니겠느냐? 이는 위험한 일이다.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가끔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 덕에 진실한 체험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좇으며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사람은 모두 나름의 기호와 허영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동조하고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즐기기 마련이다. 이는 정상적인 느낌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치켜세우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중용한다면 이는 위험하다. 아첨하고 치켜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척 교활하고 간사한데, 정직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지위를 얻으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에 속하는데, 그 누구보다 일을 그르치는 데 능하다. 비교적 올곧은 사람들은 보통 남을 치켜세울 줄 모르고 마음속으로는 네게 동조해도 입으로 내뱉지는 않으며 너의 결점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솔직한 사람을 싫어해서 누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자신을 꾸짖으면 억누르고 배척하며 나아가 상대의 결점과 단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좋은 사람을 억누르고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가장 혐오한다.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에 속한다! 좋은 사람을 많이 박해한다면 그런 자는 바로 마귀이다. 리더 일꾼은 누구든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네게 아부하고 알랑거리며 늘 너를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가 이방인의 아첨하는 수법을 배우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반드시 그를 올바르게 대하고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 또 그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너의 입장과 관점을 밝혀야 한다. 네가 원칙을 고수하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한다면 이렇게 날뛰는 소인배와 사탄에 속하는 부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것이다.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더 일꾼은 모두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치켜세우고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할 줄만 알면 사람의 허영심과 지위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수작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몹시 혐오하고 역겨워한다. 거짓 리더나 이런 수작을 좋아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그를 치켜세우거나 칭찬하지 않지만 그를 치켜세우거나 칭찬해 주는 하나님 선민이 있으면 유독 흡족해하고 즐거워하며 결국 좀 위로를 받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수작을 더더욱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에게 접근해 그를 중심에 두는 걸 가장 좋아한다. 이는 골치 아픈 일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남이 자신을 칭찬하고 치켜세우고 숭배하고 추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비교적 올곧은 사람은 이런 수작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네게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네 문제점을 발견하면 용기 있게 너를 질책하고 폭로해 주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는 네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네 일 처리가 진리 원칙에 위배될 경우, 질책해야 하면 질책하고

폭로해야 하면 폭로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올곧은 사람이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폭로하고 질책하든 너에게는 다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너에게는 감독이자 채찍질일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곁에서 도와주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이다.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매일 곁에서 감독하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역을 잘해 내는 데 무척 큰 도움이 된다. 절대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을 너의 조력자로 삼지 마라. 그런 사람이 네 곁에 붙어 있는 것은 똥파리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데,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모른다! 그들은 너를 교란하고 네 사역에 영향을 주기 쉬우며, 네가 시험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고 재난과 화를 불러오게 한다. 그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데,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고, 불신파인 그들의 본질을 분별해 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올곧은 사람은 네게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네게 지위가 있든 없든, 네가 그를 어떻게 대하든, 설사 네가 그를 교체하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한다. 절대 이리저리 감추거나 얼버무리지 않는다. 곁에 이런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는 네 행동이 원칙에 어긋났을 때 너를 폭로할 수 있고, 네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네 문제나 결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네 체면을 봐주지도 않고, 심지어 많은 사람 앞에서 널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혼내 줄 것이냐, 다가갈 것이냐? (다가갈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이 맞다. 너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와 교제해야 한다.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허영심과 지위욕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리더 자리에 있었는데, 제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제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 행동은 확실히 원칙과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리더라는 지위를 갖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요? 그냥 본분일 뿐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본분을 이행하고 있고, 지위도 평등합니다. 저는 그냥 당신보다 책임을 좀 더 많이 지고 있을 뿐이고요. 앞으로 문제를 발견하면 생각한 걸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장벽 없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멀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올곧은 사람에게 주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며,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람, 네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솔직하게 말하고 지적해 주는 사람, 특히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너를 책망하고 훈계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네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좋은 사람을 배척하고 제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잃게 될 것이고, 조금씩 화가 닥칠 것이다. 좋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화를 멀리할 수 있다. 반면, 소인배, 몰염치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위험해진다. 사기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언제든 화가 닥칠 수도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네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네가 일을 잘못하거나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고 남을 미혹할 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네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은 옳은 길이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 네 체면이 깎이는 말을 했을 때 평생 앙심을 품고 "당신은 왜 저를

폭로하는 거죠? 제가 당신을 서운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왜 늘 저를 못살게 굴죠?"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거리감이 생긴다면, 언제나 '나는 리더야. 나한테는 신분도, 지위도 있다고.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선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떤 태도겠느냐? 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데, 말이 좀 안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위욕이 작간을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패괴 성품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뜻이다. 항상 지위욕이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각한 사람이다. 거기에다 악행까지 저지른다면 바로 드러나 도태될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늘 지위를 두고 다투려 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하는 것은 위험한 징조이다. 마음이 늘 지위에 속박받고 있는데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권력을 이용해 일을 한다면, 이는 영락없는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흔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든 다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전부 패괴 성품의 표출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진리는 우리가 교제한 내용에 다 언급되었다. 너희도 평소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착안해 진입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가 성품 측면에서 착수하지 않았거나 때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성품 문제인지 알지 못해 신경 쓰지 않았다면 성품 변화까지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패괴 성품에 지배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성격이나 태생적인 행동 방식, 또는 인지로 여겨 약화시킨다면, 그것을 패괴 성품이나 패괴 본질의 표출로 여기지 않는다면 너의 이 측면의 패괴 성품은 변화하기 어렵다.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성품과 관련된 것은, 그것이 행동 방식이든 내적 상태든, 표면적 행위이든 아니면 언어나 말이든, 사상 관점이든 어떤 일에 대한 이해든, 성품 본질과 관련만 있다면 사람의 본성 본질의 발현이나 표출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지위를 탐하거나 일종의 표현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등의 큰 측면뿐 아니라 작게는 구체적인 생각, 마음가짐, 크게는 논조나 주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방금 나는 사상 관점과 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 총 여섯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사상 관점은 의식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해는 이미 인식한, 구체적인 글과 말이 될 수 있는, 형체를 갖춘 것이다. 여기에 행동과 언어를 더하면 총 네 가지 측면이다. 이 밖에, 주장과 논조도 있다. 주장과 논조에 상대되는 개념은 무엇이겠느냐? (마음가짐과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비교적 모호한 것으로, 정말 옳은지 그른지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여길 뿐 내면에서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반면 입 밖으로 뱉어 낸 논조는 형체를 갖추고 있다. 총 세 부분과 여섯 가지 측면이 있다. 너희가 이 여섯 가지 측면을 패괴 성품의 본질을 해부해 성품 변화에 이르는 길로 삼고, 앞으로 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의 패괴 성품과 패괴 본질을 인식한다면 진실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교제한 이 내용들은 듣고 나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예배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빛 비춤을 교제해 내거나 자신을 비춰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으로, 가장 유익하다. 너희는 예배 때 교제하고 교류하며 체험과 체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전에 자주 언급했던 '묵상'은 쉽게 말해 '되새긴다'라고 하는데, 많이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으며 많이 생각하고 많이 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당시에 듣고 이해한 것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 그저 도리로 삼은 것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과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꺼내어 중점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되새긴다'라고 한다. 이러면 진리의 세세한 부분과 각 측면의 차이, 각 진리의 정의를 점점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 너희는 최근 몇 년간 깨닫고 실행한 여러 진리가 전에 비해 더 모호해진 것 같으냐, 아니면 더 뚜렷해진 것 같으냐? (더 뚜렷해졌습니다.) 요 몇 년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과 처신하는 방향, 본분 이행의 마음가짐과 동기, 출발점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를 체험한 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니 어느 정도 변화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생겼다는 건 옳고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설교를 이토록 많이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감명을 받지도 않았다. 즉, 예배하고 교제한 내용이 단 한 번도 그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우둔한 것이다! 이제 구원받는 길이 점점 더 뚜렷해졌을 것이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과 근본 취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패괴를 정결케 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네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흐리멍덩하게 믿은 것 아니겠느냐?

2019 년 3 월 20 일

제 5 조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한다

참고

다바오(大寶)와 샤오바오(小寶)의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 보도록 하자. 너희는 다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 속에서 한 측면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사람의 일부 본성 본질에 대해 인식하거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마땅히 실행하고 진입해야 하는 진리 실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야기를 하는 의의이다. 이는 심심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며,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사건만 이해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주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든 이야기 속의 사건들만 기억하거나 이야기한 사건들 속에서 약간의 규례만 얻을 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여러 진리는 듣고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이는 가장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중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듣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이런 사람에게 이해 능력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 속 사건을 통해 도움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든 없든, 너희는 방금 내가 말한 이야기를 듣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샤오바오(小寶)라는 아이가 있었다. 최근에 샤오바오네 집에 한 아저씨가 오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는 자주 샤오바오의 부모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곤 했다. 어느 날 샤오바오의 부모는 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집에는 아저씨와 샤오바오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샤오바오는 아저씨에 대해 별로 익숙하지 않았는데, 샤오바오가 놀고 있을 때 아저씨가 다가와 샤오바오를 알고 있고 샤오바오의 이름도 안다면서 친근하게 굴었다. 그러자 샤오바오는 굉장히 기뻐하며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어서 아저씨는 샤오바오에게 물었다. "샤오바오, 평소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아저씨 얘기하신 적 있니?" 샤오바오가 잠시 생각해 보고 모르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샤오바오는 정직한 아이야. 있는 그대로 말해야 착한 아이란다."라고 하더니, 이어서 또 "엄마 아빠가 아저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니?"라고 물었다. 샤오바오가 여전히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저씨는 또 이어서 "샤오바오는 착하지. 샤오바오가 솔직히 말해 주면 사탕을 주마."라고 했다. 이번에도 샤오바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른다고 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에게 솔직히 말하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샤오바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샤오바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아저씨도 하나님을 믿어. 아저씨는 네 엄마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란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샤오바오도 하나님을 믿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니?" 샤오바오는 잠깐 생각해 보고는 말했다. "몰라요." 그러자 아저씨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아이,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를 좋아하신단다.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아이가 바로 정직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좋아하셔.”라고 말했다. 샤오바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곧이어 아저씨가 또 “만약 샤오바오가 아저씨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샤오바오는 정직한 아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이란다.”라고 하자, 샤오바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럼 좋아요.”라고 했다. 아저씨가 “‘그럼 좋아요’라는 건 무슨 뜻이니?”라고 하자, 샤오바오는 “바로 엄마 아빠가 아저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저씨는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캐물었고, 또 재차 샤오바오에게 정직한 아이가 돼야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샤오바오는 “엄마 아빠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라고 했다. 아저씨는 또 “엄마 아빠가 또 무슨 말을 하셨니?”라고 묻자, 샤오바오는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고 하자, 샤오바오는 “엄마 아빠가 아저씨한테는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도 아저씨는 계속해서 캐물었고, 샤오바오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져 샤오바오에게 “샤오바오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이지. 왜냐하면 샤오바오가 정직한 사람이고 아저씨에게 모든 걸 말해 주기 때문이지.”라고 했다. 이때 샤오바오는 더 이상 처음처럼 그렇게 이 아저씨를 경계하지 않았고, 또한 더 이상 처음처럼 그렇게 뭘 물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모르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도록 아저씨가 물어보는 것이라면 다 알려 주고 싶었다. 아저씨도 샤오바오에게 털어놨다. “아저씨의 아명이 다바오(大寶)란다. 봐봐. 넌 샤오바오고, 난 다바오니까, 우리 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샤오바오는 “맞아요.”라고 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즐거워졌다. 샤오바오도 사탕을 먹고는 더 이상 아저씨를 경계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샤오바오에게 “앞으로 엄마 아빠가 또 아저씨에 관한 말을 하면, 아저씨에게 알려 줄 수 있을까?”라고 요구하자, 샤오바오는 “물론이죠. 우린 좋은 친구니까요.”라고 했다. 샤오바오는 더는 그 아저씨를 경계하지 않았고, 아저씨는 그런 샤오바오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그때부터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샤오바오의 엄마 아빠가 아저씨에 대해 말하면, 샤오바오는 곧바로 아저씨에게 알렸고, 아저씨 역시 샤오바오에게 약속했다. “난 절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앞으로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저씨가 꼭 사 줄게. 엄마 아빠한테 알게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아저씨가 비밀을 지켜 줄게.” 이렇게 샤오바오는 더욱 마음을 놓고 아저씨를 철석같이 믿으며 진심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렇게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게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많지 않으며, 주인공은 다바오와 샤오바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바오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샤오바오라는 아이를 미혹하고, 종용하고, 회유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아이가 털어놓게 했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와 대화이다. 이런 간단한 줄거리와 대화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인물의 특징을 주로 이야기하였느냐? 아이이냐, 아니면 어른이냐?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어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다들 알아들었느냐? (회유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회유했고, 옳은 말로 미혹했으며, 이익으로 유혹도 했다. 무엇을 이용해 유혹했느냐? 이익이다. 이익으로 유혹했다. 회유하고, 이익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이는 이익에 의한 유혹이기도 하고 미혹이기도 한데, 옳은 말로 유혹하는 것이고, 또한 위협하는 성질도 지닌다. 다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는 이 말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였느냐? (자신의 목적 달성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목적에 이용했다. 그가 쓴 수법을 거의 명확히 파악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성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방면의 사탄 패괴 성품이겠느냐? (사악함입니다.) 왜 간사함이 아닌 사악함이라고 하느냐? 사악함은 간사함보다 더 심각하다. 간사함보다 더 음험하고 비밀스러우며, 미혹하는 성질이 더 강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사악함 속에는 또 이익에 의한 유혹, 종용, 회유, 구슬림, 매수, 시험이 포함되며, 이런 행동과 모습은 간사함을 훨씬 뛰어넘은 사악함이며, 한치도 틀림이 없다. 그는 "말하지 않으면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일 거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수법을 쓰지 않았고 겉으로 보면 악독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건 악독함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게 바로 사악함이다. 왜 사악함이라고 하겠느냐? 간사함은 보통 사람이 그래도 간파할 수 있지만, 그의 수법은 더 괴이하다. 겉으로는 점잖게 말하고 인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더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행동 방식과 수법은 사람이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간사함보다 더 비밀스럽고 음험하며, 그 수법은 더 교묘하여 사기성과 미혹성이 더욱 강하다. 이게 바로 사악함이다.

너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사악한 성품과 모습을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간사한 사람은 약삭빠르기는 해도 일정 기간 접하다 보면 보통 사람은 여전히 간파할 수 있다. 하지만 성품이 사악한 사람을 간파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본질과 결과를 볼 줄 모른다면, 간파할 수 없다. 사악한 사람은 간사한 사람보다 더 음험해 그의 말 한두 마디만으로는 전혀 그를 간파할 수 없다. 성품이 사악한 사람의 경우, 일정한 시기나 짧은 기간에는 그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네가 꿰뚫어 보거나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날, 그가 철저히 폭로되고 완전히 드러나면 그제서야 다들 그것이 단지 간사함만이 아니라 사악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악한 성품을 분별하려면 일정 기간 체험해야 하고, 때로는 결과를 봐야만 분별해 낼 수 있다. 이는 단기간에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큰 붉은 용이 몇십 년 동안 인류를 미혹했는데, 지금에서야 소수의 사람만이 약간 분별한다. 큰 붉은 용은 항상 가장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말과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을 미혹하고,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배척하며, 무수히 많은 좋은 사람을 해친다. 그런데도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는 큰 붉은 용의 말과 행동이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들 큰 붉은 용이 한 모든 것이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고, 또한 인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몇십 년 동안 사람을 미혹했고, 큰 붉은 용이 완전히 폭로되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큰 붉은 용의 진정한 면모가 마귀임을, 그 본성 본질이 사악함을 알게 된다. 큰 붉은 용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미혹해서 사람의 내면에 큰 붉은 용의 독소가 생겨 다들 큰

붉은 용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가 큰 붉은 용이 했던 그런 짓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큰 붉은 용과 같아서 말은 정말 듣기 좋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척 음험하고 사악하다. 이런 부류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면 그게 누구라도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적절한 기회를 잡아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라는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지도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나서지도 않고 일을 처리한다. 이것이 사악함 아니겠느냐? 사악한 자가 일을 하는 원칙과 방식, 그리고 그의 속셈, 동기, 출발점은 모두 매우 은밀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다. 사악한 사람은 모두 간계를 써서 남을 해친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사람을 해치거나, 죄를 저지르도록 사람을 유혹하거나, 법률을 통하거나 각종 비열한 수단을 통해 사람을 괴롭힌다. 이는 모두 사악한 모습에 속하며, 공명정대한 수법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런 모습과 표출이 있느냐?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이것이 사악한 성품임을 의식할 수 있느냐? 간사함은 통상적으로 겉에서부터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빙빙 돌리거나 매우 번지르르하게 말해 아무도 그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사함이다. 그런데 사악함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더없이 듣기 좋게 말해 겉으로는 모두 옳은 것 같고 어떤 흠도 잡아낼 수 없으며,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을 할 때도 그가 어떤 수단을 취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허점과 빈틈이 전혀 없이 목적을 달성한다. 그는 매우 은밀하게 일을 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 이 부류의 일과 사람을 분별하기가 가장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늘 옳은 말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 사람의 인정에 맞는 이치와 주장, 또는 행동으로 남의 이목을 가리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차마 밝힐 수 없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모습을 간사함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사악함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 분석도 적은 편이다. 사실 사악함은 간사함보다 더 분별하기 어렵다. 사악함이 더 은밀하고, 수단이나 행동 방식도 좀 더 빼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내면에 간사한 성품이 있다면, 보통 이삼일만 접하면 다른 이들이 그가 간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그가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표출하는 것이 간사한 성품임을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악하다면 며칠 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시간 내 큰일이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의 말만 듣고서는 분별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죄다 옳은 말과 일만 하며, 도리도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그래서 며칠 접하고 나면 너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버리고 헌신할 줄 알며 영적인 이해력도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성과 양심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을 몇 번 처리하고 나면 그의 말과 일 처리에 불순물이 몹시 많으며, 꿍꿍이와 속내도 너무 많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이고,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늘 옳은 말, 진리에 부합하고 인정이 넘치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과 왕래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남들도 미혹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명성과 지위를 얻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미혹하는 능력이 대단해 일단 권력과 지위가 생기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해칠 것이다. 사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너무나 위험하다. 너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말과 행동에 털끝만큼의 진리 원칙도 없이

완전히 사악한 본성에 따라 일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미혹하려 하고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너를 꿰뚫어 보거나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인성과 지위를 숭배하고 앙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너희는 평소 이런 사악한 모습을 어쩌다 가끔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고,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냐? 어쩌다 가끔 이런 수단을 보인다면,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사람이고, 늘 약삭빠르고 간사하게 일을 하며, 항상 수단을 써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가장 교활한 마귀이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겠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속 다바오는 이러한 수단을 써 샤오바오가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도록 미혹했다. 이렇게 하라고 누가 다바오에게 가르쳤겠느냐?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얕은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성에서, 패괴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다. 어린아이마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니 이 얼마나 비열하냐! 솔직한 말을 듣고 싶으면 어른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면, 어쩌면 상대방이 솔직히 말해 줄지도 모른다. 이런 수단을 사용해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졸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 사악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말해 보아라.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마저 내버려두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라 만만하고 속이기 쉽다고 생각해 어린아이에게 꾀를 부린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가 정직하고 선량한 어른이라는 것을 알면, 그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내버려두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만약 자신과 비슷하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수단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상대방이 자신처럼 사악하다는 것을 알면, 경계하고 쉽게 뭔가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경계 외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툴 것입니다.) 바로 음으로 양으로 다툴 것이다. 딱 이 두 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 사악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타인과 음으로 양으로 다투기 좋아하며 어떤 기회도 그냥 놓치지 않는다. 그들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 네가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는 분명 성품이 사악한 사람이다. 어떤 명언이냐? 예를 들어, 네가 그에게 다른 사람과 협력해 본분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그가 "아이고, 난 그 사람과 다투면 못 이겨요!"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다툼'을 먼저 떠올린다.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 사역을 잘해 낼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명언이다. 그가 어떤 무리에 있든, 이방인이든 형제자매 사이에 있든, 또는 가족들 사이에 있든, 그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다투는 것이다. 드러내 놓고 다퉈 이기지 못하면 몰래 다툰다. 이런 성품이 바로 사악함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투고 있다. 각종 수단과 기교를 동원해 에둘러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다.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술책을 간파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간파했을 때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후이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음으로 양으로 다투는데, 각종 음모와 간계, 또는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무너뜨려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모두가 자신에게 승복하게 한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전체 인류의 역사는 모두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작게는 가정에까지,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난 투쟁이든 드러나지 않는 투쟁이든, 또는 글과 말로 하는 투쟁이든 무력 투쟁이든 투쟁으로 가득 차지 않은 무리는 하나도 없다. 중국 역사상 여러 민족 전쟁이 가장 빈발했던 시기는 바로 춘추전국시대이다. 유명한 병서들이 거의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손자병법≫의 계략들도 모두 그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삼십육계≫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계략을 기록해 전쟁에 응용했다. 일부 병법과 계략은 지금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모두 어떤 계책들이 있느냐? (고육계(苦肉計)가 있습니다.) (조호리산계(調虎離山計)가 있습니다.) (반간계(反間計), 공성계(空城計), 미인계(美人計)가 있습니다.) 무릇 이런 유명한 계략은 앞 글자가 미인이든, 공성이든, 아니면 조호리산이든, 뒤에는 다 '계' 자가 붙는다. '계'는 무슨 의미이냐? (계략과 음해를 의미합니다.) 음험하고, 간교하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계책이다. 이러한 '계'는 계획의 '계'가 아니라 음모이다. 이러한 '계'의 이면을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한 행동과 드러낸 모습, 전쟁을 할 때 응용한 이런 계책과 행동 방식들이 인성과 진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 방식은 누구를 대표하겠느냐? 사탄을 대표하고, 이 사악한 인류를 대표한다. 사악한 인류는 이런 계략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사탄에게서 얻었습니다.) 사탄에게서 얻었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왕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마왕은 누구이겠느냐? 바로 인간 세상에 환생해 나쁜 짓을 하고 인류를 해치는 마귀 사탄인데, 이들이 계략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공성계나 조호리산계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중 이런 '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경영 사역에 결코 이런 '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계략은 모든 사악한 인류가 사용하는 것이다. 크게는 국가나 왕조, 작게는 종족 혹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더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패괴된 인류가 있는 곳이라면 투쟁이 빠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냐? 바로 권력, 지위, 이익을 위해서인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이다. 국가 간의 다툼은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이며, 종족 간의 다툼 역시 세력 범위, 사람, 주권을 다투기 위해서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또한 우열을 가리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류가 있는 곳이라면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가 있는 곳이라면 사탄의 패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사탄에게 패괴되었기에 인간 세상이 투쟁과 살육으로 가득 차 있다. 패괴된 인류가 일을 할 때 사탄 성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인류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각의 모든 역사는 전부 인류의 사악한 투쟁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역사이다. 인류는 그래도 이를 명예로운 일로 생각한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삼십육계를 배우고 있다. 너희도 배우느냐?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 네가 일부러 이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있는 경험, 교훈, 수단, 방식, 방법을 받아들여 너의 머리를 채우고 네 생존 능력으로 삼는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점점 더 사탄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너라는 사람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나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폭로한다면, 어떤 성과를 얻겠느냐? 네가 사탄을 더 증오하게 되고, 자신을 더 잘 인식하고 증오하게 된다. 더 좋은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사탄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탄은 이러한 소위 전통문화와 몇천 년에 걸쳐 종합한 인류의 각종 지식과 이론을 이용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를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더 깊이 사람을 패괴시키고 통제한다. 만약 네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활용할 줄 알게 된다면, 너는 살아 있는 사탄이 되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도태된다.

예전에 예배에서 자기 인식에 관해 교제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교만한 성품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사람에게 가장 흔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패괴 성품이다. 비교적 흔한 패괴 성품으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간사함과 강퍅함이 있습니다.) 간사함, 강퍅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자주 접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악함을 비교적 적게 접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비교적 적다. 사악한 성품은 가장 인식하기 어려우며, 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교적 은밀한 패괴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데, 둘 다 진리를 싫어하고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는다고 해 보자. 겉으로는 두 사람이 매우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각종 패괴 성품이 존재하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째서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이 두 사람 모두 무척 간사해서 일 처리가 교활하고,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깨달은 진리가 적고 분량이 지나치게 작아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그럴 능력이 없다. 리더인 너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네가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면, 그가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기술과 업무를 약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집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다면, 형제자매로 대하고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그가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충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체면치레를 특히나 잘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놀면서 느릿느릿하게 하다가, 누가 오는 것을 보면 재빨리 한다. 게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가고 나면, 그는 한가해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질문도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널 놀린 거야. 난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라고 되뇐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체면치레만 하며, 자기 자신을 특히 잘 포장하고 남에게 허상을 꾸며 보여 주는 것에 능숙하다. 많은 사람이 그와 여러 해를 함께해도 그의 간사하고 교활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상황을 알아볼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잘해 주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없는 무골호인이에요. 누가 일을 잘못해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한결같이 권면하고 위로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과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적당히 분위기 맞춰 행동하기와 누구에게나 두루 곱게 보이도록 처세하기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너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패괴 성품이 표출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은 특히나 꽁꽁 포장해 아무도 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역사상 어떤 황제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후세 사람들은 그가 명군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째서 사람이 그를 이렇게 보는 것이냐? 그가 자신의 명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뭔가를 한 것 아니겠느냐? 그는 한편으로는 치적을 위해 선한 일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를 왜곡했으며 사실의 진상을 쓴 사람을 살해하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은폐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은폐해도 그가 저지른 짓은 분명 기록이 남는다. 그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짓들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밝혀졌고,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 폭로로 사람들은 전체 인류의 실제 사정을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 어떻게 인지하겠느냐? 군왕에서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류가 모두 악인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고,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다들 사악해졌는데, 악하거나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들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며, 다들 매우 사악하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 청렴한 관리가 한 두 명은 있는데, 그럼 그런 청렴한 관리도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네가 그런 청렴한 관리의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너를 잡아들이는지를 살펴보아라. 네가 청렴한 관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사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타남과 사역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며,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낸다. 일부 통치자와 관리들은 치적도 있고 좋은 일도 좀 하는데, 그것은 어떤 성질의 좋은 일이겠느냐? 누구에게 유리한 좋은 일이겠느냐? 통치 계급이 원하는 좋은 일이다. 그들이 하는 좋은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이겠느냐?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치적'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그들의 치적과 좋은 일은 모두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들이 한 알량한 좋은 일과 치적은 모두 속셈과 목적이 있는데,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는 아무리 많은 치적을 쌓아도, 이것이 그들이 마음이 선량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며, 더구나 그들이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사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느냐? 이런 일들을 통해 너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좋은 일을 좀 하면 남들이 다 알게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떠벌리거나 건방 떨면 안 된다고,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행동을 너희가 하느냐? 예를 들어, 네가 새로운 교회에 사역하러 갔는데, 남들이 네가 리더인 줄 모른다고 해 보자. 너는 남들이 네가 리더임을 알도록 온갖 방법을 생각할 것인데,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 드디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다. 어떤 방법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 예배할 때 "오늘 예배에서는 리더인 제가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교제하겠습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여러분이 폭로하고 파면시키시고, 기준에 맞는다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들 네가 리더임을 알게 된다. 이러면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 목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사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야심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언어, 수단, 방식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사악한 본성에 관한 이런 종류의 주제는 앞으로도 자주 다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 방면의 진리와 패괴 성품을 점점 더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어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저 대략적인 개념이나 어느 한 방면의 정의만을 교제한다면, 너희가 비교적 얕게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예를 가지고 교제한다면, 너희가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자. 한 아이가 "오늘 숙제했어?"라고 물었을 때, 다른 아이가 "안 했어."라고 대답하자, 첫 번째 아이가 "나도 안 했어."라고 했다. 아이들은 진실된 말을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틀렸다. 한 아이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느냐? '바보야. 내가 정말 안 했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숙제를 안 하면 벌을 받는데 안 할 수 있겠어? 일부러 네가 나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 거야. 그러면 너도 안 할 테고, 결국은 벌을 받겠지. 널 웃음거리로 삼으려 한 거야.' 나쁜 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느냐?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월요일에 등교할 때, 한 학생은 일요일인 어제 쇼핑을 했다 하고, 다른 학생은 일요일에 남의 집에 놀러 갔다고 했다. 사실 두 명 모두 집에서 공부를 했다. 중국인들은 특히 경쟁이 심한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게 함으로써 상대를 뛰어넘으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수단이라고 하며, 생활 속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고, 이러한 성품이 표출될 때가 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표출된다. 이러한 성품들이 표출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네가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무엇을 위해 관찰하느냐? 소재를 얻거나 한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키워 다른 사람이 한 일과 그들이 표출한 모습을 자신과 대조해 보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가 이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만, 너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때도 자신이 이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만약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너의 인식은 가짜이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혹은 네가 전혀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은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너희가 좀 얻는 것이 있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깊어질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더 깊이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체험과 진입의 깊이는 너의 인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네가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진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만큼 깊이 인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네 인식의 깊이 또한 네가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진입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진입하는 길이다. 진리에 진입해야 실제를 갖출 수 있다. 이 주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오늘 교제할 본론을 이야기하겠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하는지 해부하다

1.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해부하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4 조는 지난번 예배 때 다 교제하였다. 오늘은 제 5 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하는지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

측면에 있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4 개의 동사로 표현된다. 이 4 개의 동사를 통해, 그리고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동사는 '미혹한다'이다. 이 안에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바로 사악함이다. 그렇다면 '회유한다'는 어떤 것이냐? 통상적으로 사람을 회유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어떤 성품이 지배하는 것이냐? 사악함이다. 그렇다면 위협하고 통제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 지배하는 것이냐? (흉악함입니다.) 그렇다. 흉악함이다. 제 5 조에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악함과 흉악함입니다.) 사악함과 흉악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성품이 매우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우선 미혹하다에 대해 말해 보자. '미혹하다'는 단어는 대략 어떤 의미이냐? 여기에 정직한 모습이 있겠느냐? 진실된 말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진실된 말이 없고 전부 거짓이다. 허상, 거짓된 말, 속이는 말로 자기가 한 말이 옳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자신을 인정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미혹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진리를 얻었느냐, 아니면 바른길을 갔느냐? 모두 아니다. 미혹하는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미혹된 사람은 속아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진상과 실상, 실제 배경을 모른 채 잘못된 길과 방향을 선택했고, 잘못된 대상을 선택해 따랐다. 이것이 바로 미혹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효과이다. 마치 쇼핑몰의 광고가 매우 그럴싸해서 광고를 본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지만, 구매 후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속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는 어떤 방식, 어떤 말, 어떤 일로 사람을 미혹하느냐? 우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만약 그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공을 들이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회유하고 미혹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방인의 말 중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간파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인간 세상은 이렇게 사악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음해하고 해치는데, 이것이 바로 패괴된 인류의 삶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애써 에둘러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느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바로 권력을 쟁탈하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정치인의 행동 목적과 동일하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우선 네가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든다. 호감이 생기면 그를 경계하지 않고 신뢰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의 인도를 받아들여 기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시키든 너는 모두 기꺼이 따르려고 한다. 따르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바로 분별하지 않고 원칙 없이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적그리스도가 정죄하는 말이나 방식을 사용한다면, 사람을 미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는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효과를 거두느냐? 많은 경우 그는 사람의 관념, 인정과 이치에 부합하는 말을 사용하며, 때로는 진리에 부합하는 글귀와 도리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보자. 형제자매가 잘못을 저질러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혀 마음이 소극적이고 연약해졌을 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교제해 붙들어 주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늘 있는 일로, 정상입니다. 저도 자주 연약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지 아닌지 그가 알겠느냐? 모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을 제대로 못 했어도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집에서도 모르고 추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일을 제가 상부에 보고하지만 않으면, 윗선 리더가 알 리 없고, 상부는 더더욱 알 리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니, 이 일에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패괴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패괴가 있듯, 제게도 패괴가 있어요. 리더인 제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이니,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전부 제가 분량이 작아 여러분을 붙들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해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만약 제가 분량이 커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은 전부 제 책임이에요. 이 일이 비록 교회 사역에 손실을 입혔지만, 우리끼리 소화하면 됩니다. 누구도 추궁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맙시다. 그냥 당신과 저만 아는 겁니다. 제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말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는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러면 이 일은 흐지부지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됩니다. 리더인 저는 여러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데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게다가 하나님 또한 사람들의 이러한 생활 속 소소한 일들은 상관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을 보호하는 책임은 자연스럽게 리더인 제가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분량이 작으니, 실수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상부에서 이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나서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다행이다. 안 그래도 책임지는 게 두려웠는데. 이 사람 정말 괜찮은 리더군!' 미혹되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의 말 중 진리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원칙에 따라 일 처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모두 어떤 말이냐? 바로 인정, 이해, 관용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과 우정을 중시하며 그만큼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가 무척이나 사람의 마음을 잘 배려하고, 남들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칙과 진리가 없다. 표면적인 이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구슬리는 식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수단은 모두 어떤 것이냐? 구슬리고 속이고, 관계를 맺고,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구슬리고, 미혹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경계하며 그와 친근해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된 후에도 여전히 "제가 잘못을 저지른 후 그렇게 걱정이 되어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선 저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에게선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됐어요. 리더를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리더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우리 리더가 최고예요!"라고 말한다. 이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마음과 관점이 이미 적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었고, 사람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것이다. 어째서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이냐? 적그리스도에게서

안전감을 찾고 이해를 얻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감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미혹된 것이다.

예전에 상부에서는 어떤 교회에 인성이 나쁜 사람 하나가 방해와 교란을 일삼으며 회개할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현지 교회 리더에게 그 사람을 정리해 내보내라고 했다. 그 리더는 그 말을 듣고는 '그를 정리하라고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는 제 사람이니, 당신이 멋대로 정리하면 안 돼요. 제가 그를 책임져야 해요. 상부에서 실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정리한다면 큰일이네. 그럼 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라고 생각했다. 말로는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네 생각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을 어떻게 응대해야 아랫사람들이 나라는 리더에게 만족하고, 상부에서도 나에게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한 끝에 묘안을 떠올린 그는 예배를 소집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일까요? 상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 그를 정리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정리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 투표로 결정합시다." 투표 결과 80~90%의 사람이 정리하는 데 동의했지만, 몇 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 악인과 절친한 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리더가 말했다. "투표를 통해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해요. 보세요.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해야죠. 지금 몇몇 반대표가 있어 그 사람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형제자매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선민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선민이 있으면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의 이런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되는대로 지껄인 것이다. 나중에 상부에서 그 악인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빨리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알겠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무슨 의미였겠느냐? 바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정리하라고 하셔도 당장 정리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시간을 끌면 당신이 이 일을 잊어버리실지도 모르죠. 그럼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지요.'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중에 그는 또 예배를 소집해 투표했다. 다들 교제하면서 분별이 생겨서 그 사람을 정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반대표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표가 하나 있었다. 그는 또 "반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리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상부에서 정리하라고 했으니 정리해야지요. 상부에서 꿰뚫어 보지 못하겠어요? 실수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상부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지 못한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아직 반대표가 하나 있으니 정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해요. 이것이 최고 인권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상부에서 다시 이 일을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대충 둘러대며 계속 시간을 끌었다. 결국 상부에서는 그가 악인을 정리하지 않자 그를 교체하고 정리해 내보냈다. 상부에서 너를 리더로 임명했는데, 네가 상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부는 너를 임명할 권리도 있지만 교체할 권리도 있다. 이것이 행정 법령이다. 곧이어 그와 한패였던 사람도 모두 정리되어 내보내졌다. 상부가 안배한 일을 투표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째서이냐?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도 그 어리석은 리더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이러한 말들이 도리이냐, 실제이냐?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면 다 같이 투표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누구를 정리한다고 할 때, 그를 억울하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상부에서 그 악인을 정리해 내보내라고 했는데 리더가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슨 문제이겠느냐?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상부에서 악인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거짓 리더는 질질 끌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투표를 하고 민의를 알아봤다. 무슨 민의를 알아본다는 것이냐? 민의란 무엇이냐? 다수 사람들은 무엇이냐? 다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갖추고 있느냐? (아닙니다.) 다수 사람들은 분별도 없는데, 그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 민의를 알아봤다고 해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다수 사람들이 분별이 없고, 상부가 직접 점검해 악인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질질 끌면서 정리하지 않고, 악인을 비호하고 감싸서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교란하게 놔두었다. 악인이 있는 곳은 늘 혼란하고 무질서해서 하나님 선민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없고, 교회 사역 또한 정상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 악인을 제때 정리해 내보내야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자, 교란하고 방해하는 자,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본분을 이행하는 자들이 정리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이런 악인과 불신파를 비호하고 감싼다. 그가 내건 기치는 무엇이냐? '관료는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관료 노릇 하려고 하나님 집에 왔으며, 게다가 그런 자들의 주인이 되려 한다. 말해 보아라. 사람의 주인은 누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며, 진리만이 사람의 주인이다. 네까짓 게 무엇이란 말이냐! 게다가 너는 그런 자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려고 하면서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른다! 머저리 아니냐? 그는 이런 방식으로 남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또는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리더인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조상이나 하나님으로 여겨 따르고 받든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런 적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역겹고 반감이 든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통제하려 하는데, 꿈도 꾸지 말아요! 우리가 당신을 리더로 선출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지 당신에게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간계를 간파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주인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필요 등 다방면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느낀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며, 심지어

미혹된 후에는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해명한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해명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그들이 정말 미혹되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적대되는 세력 쪽에 서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원하겠느냐? 네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대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이 너를 혐오하여 버리지 않겠느냐? 이만한 도리도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가끔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일이다. 이것이 그들의 일관된 일 처리 원칙, 또는 그들의 일 처리 근거, 수단, 방식이고, 그들의 일관된 일 처리 스타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느냐? 첫째,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둘째, 그는 인성도 나쁘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승복하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앙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바로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게 만든다. 이런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영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고, 늘 옳은 말과 이론을 이야기하고, 형제자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허상을 보여 준다. 그런 다음 그런 허상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탄복하고 추앙하는 마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사람을 미혹해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이런 일들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비록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분명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사람을 미혹하는 본질을 통해 볼 때, 그는 자신이 하는 짓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티 나지 않게 한다. 만약 티가 난다면 사람들이 간파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가 하는 짓과 표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인 척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영적인 척하는 많은 행위, 행동 방식,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맞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행동 방식일 뿐, 진리 실행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손에 성경을 받쳐 들고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나의 주여...."라고 기도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아주 경건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부류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바리새인 앞에 붙는 수식어는 무엇이냐? '외식하는'이다. 사실 '외식한다'고 하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분명 좋은 단어가 아니라 '나쁜 놈'이나 '마귀'와 똑같은 말, 똑같은 뜻이다. 영적인 척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영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붙느냐? ('척한다'입니다.) 맞다. '척한다'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은 대부분은 사실 바로 영적인 척하는 모습이다. 영적인 척하는 말, 행동 방식, 행위들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경건하며, 진리에도 부합한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얼른 가서 붙들어 주고, 어느 집에 일이 생기면 자신의 개인사는 제쳐 놓고 얼른 가서 도와준다. 하지만 그의 도움이란 옳은 말이나 듣기 좋고 사려 깊은 말이나 좀 해주는 것일 뿐이라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그의 행위에 매우 감동해서 일이 닥쳤을 때 그와 같은 리더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로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종 행위로 사람을 미혹하여 그가 매우 영적이고 대단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소 공허한데, 우리 리더를 믿는 건 실제적이야. 매우 현실적이고 진실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이루어졌지만,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곤경에 빠져 고통을 겪게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일정 기간 미혹되고 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와도 기도할 줄도,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속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또한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아첨하고, 영적인 것처럼 가장하며, 서로를 미혹하고, 기만한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또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이 닥치면 다들 훌륭합니다.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간다 해도 모두 굳게 설 수 있으며, 유다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잡힌 후 대부분이 유다가 되었다. 이는 나쁜 놈들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빈말과 구호로 형제자매를 속이고, 미혹하고, 기만한다. 사람은 대부분 우매하고 무지하며 분별이 없어 그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둔다. 상부의 사역지침에서는 일찍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한 목적은 바로 모든 하나님 선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체포와 박해에 직면하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만약 하나님 선민이 모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을 완전히 잃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의 생명 진입에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할 텐데 생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겨우 찬양 가사만 약간 기억해 내서 매일 그 찬양 가사에 기대어 살아가는데, 저녁에 기도할 때도 마음속으로만 묵상하고 입술을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마음속에는 오로지 '배반하지 않아. 유다가 되지 않겠어. 굳게 서서 증거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어.'라는 생각만 있고, 다른 것은 모두 사라진다. 사람은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겠느냐? 그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고, 형제자매를 곤경에 빠뜨리면서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다! 상부의 사역지침에서는 사람이 안전한 전제하에 본분을 이행하고 최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함부로 소리치고 행동하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분별력이 없는 일부 우매한 사람들은 '상부에서는 왜 늘 안전을 언급하실까?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다니, 우매하지 않으냐? 네가 분량이 작아 이해가 안 되고 일을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원칙들을 준수하라고 안배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안전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면, 큰 붉은 용에게 잡히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찬양도 부를 수 없으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름만 걸어 놓은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상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생사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 같이 일어나 "환경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마구 외치게 한다. 우매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에 미혹된다. 사람은 누구나 막연하고 공허한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사고가 생겨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허한 말 아니냐? 적그리스도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형제자매는 모른다 해도 늘 사역지침에 대해 교제하는 리더인 네가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할 리 없다. 너는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해야지, 너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하려 하고, 또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할 기운이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그리스도는 아랫사람을 구슬리고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지휘에 따르게 하기 위해 안전한 상황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툭하면 사람들을 소집한다. 결국 이 사람들을 모두 망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허풍을 잘 떤다. 공허하고 영적인 척하는 이론과 근거를 이야기하여 사람을 미혹한다.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조종하는 대로 순종하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해 잡히고 만다. 왜 사고가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냐? 이 일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 네가 사역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실행하고, 환경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몇 명이 됐든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만약 네가 상부의 요구를 어기고 자기 뜻에 따라 멋대로 굴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바로 우매하고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사람을 감옥에 넣어 연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논리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규례를 끼워 맞추고 늘 하나님을 규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따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고, 아무도 상부의 안배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의 분량은 어떠하냐? 그들은 그저 열정이 좀 있고, 도리를 약간 깨달았으며, 구호를 좀 외칠 줄 알 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 인식,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가 약간 있을 뿐이다. 그들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증거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일단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하지 않으시지? 어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지? 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우리의 이렇게 큰 열정이 설마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만약 리더가 인도를 잘못했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거지?'라고 생각하며 원망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의 뜻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행사라고 모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진리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에는 숱한 고통을 겪으며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 알고 있던 약간의 도리와 그나마 갖고 있던 열정조차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유다가 된다. 출소 후에는 또 '이제 더 이상 환경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봐봐. 얼마나 좋아 보여. 밖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봐. 뭐 하러 숨어서 몰래 믿어? 나라에서 믿지 말라고 하면 믿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훗날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며, 너는 이미 네게 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희망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로이다. 희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행동해 영적인 척하는 이론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들이 겉으로만 영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초래되는 결과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망치는 것입니다.)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 보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 이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장래와 종착지는 기본적으로 망치게 된다.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멋대로 하지 않고 사역지침에 따랐다면, 상부의 요구대로 형제자매를 인도해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희망이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야심과 욕망이 지나치게 팽배해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삶이 재미없고 무료하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총알받이나 장난감처럼 다뤄서 이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든다. 그러면 스스로가 수완도 좋고 즐겁고 자기 인생이 살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른바 듣기 좋은 영적인 말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참도(道)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그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한다. 최종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들의 앞날과 종착지가 모두 사라지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겠느냐? 만약 또 영적인 누군가를 보게 되면, 너희는 또 부러워하겠느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어떠하냐? 공허하다. 사람은 육에 속하고 피조물이다. 만약 네가 정말로 영적이라면 네 육체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네가 영적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빈말 아니겠느냐? 그러니 '영적이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빈말이다. 다음에 누가 또 자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절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사람이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라고 말해라. 너희가 말해 보아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종교계의 유명인이나 성경 해석가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그들은 모두 외식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영적'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사람은 바로 이 공허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려는 것이며, 이 말을 만들어 낸 자가 바로 나쁜 놈이고 마귀이다. 이런 빈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있겠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에 속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 자체가 바로 피조물이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간이니, 만약 무언가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다. 물론, 육에 속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옳다. 만약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사람이 닿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추구해도 소용이 없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호일 뿐이며, 영적인 척하는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진리와 관계가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 실제이다.

적그리스도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가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도리이며,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자기 생각대로 가공해서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는 영적 도리로 바꾼 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매우 옳다고 생각해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결과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가 하는 소위 옳은 말들을 자세히 듣고 분별해 보면, 모두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는 공허한 이론이다. 물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들 이런 말들을 옳다고 여겨 쉽게 속는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실제 사례를 들 수 있느냐? 만약 너희가 실제 사례를 들 수 있다면, 글귀와 도리를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듣고 이해했으며 자신과 맞췄다는 증거이다. 반면, 만약 너희가 예를 들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과 맞추지 못했다는 증거이니, 글귀와 도리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분명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저에게도 이러한 내적 상태가 있습니다. 책망과 훈계, 채찍질과 징계에 맞닥뜨린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저에게 구하면, 사실 저도 그 문제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공허한 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책망과 훈계, 채찍질과 징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괴 성품을 겨냥해 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지닌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말해 주지 않았음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의 그런 행동 방식과 표출은 어떤 패괴 성품에 속하고 무슨 성질인지,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등과 같은 것들을 그에게 교제해 주지 않았지요. 그저 올바른 도리와 듣기 좋은 구호만 말해서는 분명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너 자신도 진리를 그다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선의로 남을 도와주지 않으며, 그의 속셈과 목적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때, 그가 구호를 외칠 때 어떤 모습과 성품을 표출하는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핵심이다.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고 진리를 밝히 알지 못해 사역 강도는 필연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미혹하거나 통제하려는 속셈과 목적은 없다. 그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지만, 단지 마음만큼 능력이 따라 주지 않을 뿐이다. 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해도, 사람들은 그의 본심이 옳다는 것을, 그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은 마음만큼 능력이 따라 주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마음만큼 능력이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다. 그저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명확하게 교제하지 못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말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자신의 속말이겠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된 말이다. 그는 왜 거짓된 말을 하겠느냐? 너를 속이고 미혹하려는 것이다. '리더로서 해야 할 사역은 이미 했고, 교제해야 할 것도 다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옳습니다. 만약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 탓이죠. 저를 탓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이다. 그는 진정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치레만 하는 것이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했다 해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부 적그리스도는 평소에 옳은 말을 배워서 하고, 다른 사람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교체되면 극도로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시종일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 오히려 형제자매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다. 그가 온종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귀와 도리는 자기 자신조차 돕지 못한다. 그럼 이런 말들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그의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은 글귀와 도리일 뿐, 그의 실제 분량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가 사역하여 남을 돕는 것은 순전히 표면적인 허상, 행동 방식, 좋은 행위를 통해 자신이 리더임을 남들이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는 과정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에게 승복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에게 승복하면, 그가 지위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의 지위가 공고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사역할 때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껏해야 분량이 작고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닐 뿐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역할 때 형제자매를 돕고 붙들어 줄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위와 이익만을 고려한다. 이것이 바로 이 둘의 차이점으로, 그들은 성품이 다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실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본심에 어긋나게 말하는데, 그저 겉으로 보기에 옳은 도리와 구호, 혹은 인정에 부합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타이르며 형식만 거칠 뿐이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형식을 거치겠느냐? 누군가 소극적이고 연약해진 것을 보고도 손 놓고 방관하면, 남들이 그에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리더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목적은 순수하게 본분을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나서서 형제자매를 돕고 공급해 주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그를 지지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그를 뽑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명실상부한 리더가 아닌 헛된 명성만 남게 될까 두려운 것이다. 헛된 명성만 남는 것을 그가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실질적인 권력과 지위를 원하며, 형제자매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그를 숭배하고, 지지하고,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매번 리더 선거 때마다 자신이 당선되도록 애를 쓴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다.

일부 소위 리더 일꾼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특히 열성적으로 곳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아마 적그리스도 부류일 것이다. 만약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비열하다!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셈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자연히 마음에 가책이 생긴다. 양심과 이성의 구속을 받아 자신이 예전에는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열성적인 것이 너무 티가 나서 자신도 역겨울 정도라 차라리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지언정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몇 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긴 얼마 안 되는 분량과 수치심 때문에, 결국 자신을 단속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단속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는 야심, 각종 속셈과 목적,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기어코 그렇게 하며, 매사에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고려한다.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매우 손해이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팔이 안으로 굽듯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그는 온 힘을 다해 각 지역 유세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뽑도록 미혹하고 회유한다. 또 나중에 투표할 때는 몰래 자신에게 두 표를 더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가 역겹지 않으냐? 만약 야심이 없다면, 그가 뭘 위해 그렇게 공을 들이겠느냐? 이는 야심 때문 아니겠느냐? 야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야심 때문에 한 일도 분명 역겹고 입에 올릴 수 없는 짓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되고 기만하는 짓만 하며,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진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리더가 요즘 참 애를 많이 썼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일했지. 무슨 일이든 다 앞장서서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어. 과로로 많이 여위고 흰머리도 늘었어.'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선거 때 그에게 투표한다. 적그리스도가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를 음모라 하고, 수단이라 하며, 사악함이라 한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말로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행위와 행동 방식도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순종적인지, 형제자매를 위해 생각하는지를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 그는 이처럼 좋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허상을 이용해 자신은 기준에 맞는 리더이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좋은 리더라고 사람들에게 거듭 알려 주고 강조한다. 이는 마치 민주 국가의 경선에서 후보자가 각지에서 연설과 유세를 하며 표를

끌어모으고, 심지어 투표할 때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배짱이 없으면 장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신봉하는데, 어떤 수단을 쓰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상 관점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의 들끓는 피와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모든 일들을 할 것이며, 게다가 머리를 쥐어짜며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분수를 지킬 리 없다. 그래서 권력과 지위를 향한 열의가 아주 큰 사람, 즉 야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부류의 사람이 결국 리더로 선출되면,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야심이 있느냐? 너희의 야심을 인성과 이성의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적그리스도가 되어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자신이 야심이 너무 커서 종종 지위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으며,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비열한 수단도 다 쓸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수치를 모르고 제어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낀다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네가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구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에서 벗어났겠느냐? 아직 아니다. 너에게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버릴 수 있거나, 하나님이 한 어떤 일이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린 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결국 하나님께 도태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표출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대표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성품의 표출이다. 왜 늘 성품 변화에 대해 언급하겠느냐?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적대시한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음을, 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자신의 본성 때문에 걷는 길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본질도 바꾸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의 행위의 본질은 바로 끊임없이 온갖 수법과 방식으로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켜 다른 이들을 미혹하고 우롱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숭배하게 만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인류를 두고 일부러 하나님과 다투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그들이 인류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더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설령 어느 날 자신들이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음을 의식하고는 조금 삼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만 찬성하고 승복해도 정당하게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컨대,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을 통제하고, 교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야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일을 하든,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나 자신들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이유로 권력과 지위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이든, 그들의 야심과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늘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들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고, 그들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좌우한다. 이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진리도 추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아무리 늘어놓을 수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권력과 지위에 대한 그의 야심과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포기했다는 이유로 권력과 지위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고난을 많이 겪었거나 진리를 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개과천선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된 적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지위와 권력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추구는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단 권력을 잡기만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들의 본성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지극히 정확하다. 이는 그들의 본성 본질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다. 혹자는 '적그리스도란 인류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때로는 그들이 꼭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그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인식, 이해, 욕구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를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도 때로는 허영심을 가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우려 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려 하고, 서열을 다툰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의 야심이다. 만약 리더였던 그가 교체되어 리더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도 괴로워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 변화나 분량의 성장, 그리고 진리 진입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야심은 조금씩 옅어질 것이다. 그가 걷는 길과 나아가는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위와 권력에 대한 추구가 조금씩 옅어지고 욕망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또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그의 야심과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야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보자. 어떤 교회의 리더일 때, 그는 마음속으로 늘 어떻게 교회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지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그를 다른 교회로 보내고 리더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가 달가운 마음으로 평범한 따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절대 그러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지위를 얻고, 모든 사람을 통제할지 궁리할 것이다. 그는 어디를 가든 늘 왕권을 잡으려 한다. 그를 사람이 없는 곳이나 양 떼 속에 둔다 해도, 그는 양 떼를 통솔하려 할 것이며, 개나 고양이와 함께 둔다면, 또 고양이와 개의 왕이 되어 동물들을 통치하려 할 것이다. 이는 야심으로 가득 찬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의 성품은 마귀의 성품

아니겠느냐? 사탄의 성품 아니겠느냐? 사탄이 바로 이런 존재이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으며, 땅에 내쳐진 후에는 늘 인류를 통제하여 인류가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원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사탄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 성품에 따라 살며, 이미 정상인의 이성 범주를 벗어났다. 이는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으냐? 이 비정상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의 모습이 정상 인성에 마땅히 갖춰져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무엇이 지배한 것이겠느냐? 이는 본성이 지배한 것이다. 그는 악령의 본질을 지니고 있어 정상적인 패괴된 인간과는 다르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적그리스도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데, 이는 그들의 본성 본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몰골이 바로 사탄 마귀의 본모습임을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 그들은 지위를 두고 사람들과 다투는 한편, 감히 하나님과도 지위를 다투는데, 하나님의 선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기 손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만족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교회나 집단 속에서도 늘 지위와 권력을 얻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 한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는 다 자기가 결정하려 하며, 남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겠느냐? 그를 뽑고 추천하겠느냐?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기가 결정하려 한다. 남들이 동의하든 말든,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일하려 하며, 남들 앞에 나서려 한다. 또한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데, 상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것이다. 이런 부류가 바로 진짜 적그리스도이다. 리더든 아니든,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언제나 사탄의 첩자처럼 이런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들은 어째서 늘 이런 일에 관심을 두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약간 이상하다고만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자신의 본분만으로도 매우 바쁘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저 자신의 본분 이행에 집중하고 진리 실행을 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성품이 변화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은 교회의 각종 일들을 알아보는 데 무척이나 열중한다. 리더를 만나기만 하면 "교회에서 모모 악인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라고 묻는다. 리더가 "어떻게 처리하든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 일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 사람 아십니까?"라고 반문하자, "그냥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집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집의 일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갖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리더가 "그 일을 캐묻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자, 그는 "그건 아니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한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자, 그는 어디에 가서 알아봐야 할지를 고민한다. 상급 리더가 그의 집에서 사역자 모임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할 명분이 약했던 그는 물을 따라 주러

들어간 척하며 그 악인이 출교되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남았는지를 알아본다. 남들이 말해 주지 않자 방에서 나간 후 문을 조금 열어 놓고 문 옆에 서서 몰래 듣는다. 이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미친 사람이다. 쉽게 말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런 자는 분명 야심이 있다. 그는 리더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자 쓸데없는 참견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는 한편,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 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를 리더로 뽑아 줄 수도 있다. 그는 리더가 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참여하고, 알아보고, 알려고 한다. 그는 날마다 이런 일에 참여하면 리더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총무 같은 사람은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진리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오로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만을 중시한다.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간다. 마치 악취가 나는 파리처럼 말이다. 이런 사람은 역겹지 않으냐?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꽤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본연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집에서 섬김 본분을 이행할 때, 부엌 바닥이 더러워도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큰일을 할 사람이니 바닥을 닦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실제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전혀 감당해 내지 못하고, 어떤 본분도 잘 이행하지 못하며, 진심으로 착실하게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교회 사역에 대해, 교회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의 큰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한다. 무슨 일이든 다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 볼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비이성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는데, 그가 꼭 지위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지위가 없어도 이리저리 마구 날뛰는데, 지위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얼마나 미쳐 날뛰겠느냐? 날뛰다 죽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면, 하나님 선민들이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일부 적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갖고 나서 적그리스도로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적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분량이 작기 때문에, 또는 일부 교회가 아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일을 계획할 줄 알며 다리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를 선출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제쳐 두고,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를 폭로하고 저버려야 한다. 만약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사람이 교체된다면, 그 후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하겠느냐?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면 더 이상 리더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그의 본성 본질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사탄을 위해 일하고, 그는 그저 사탄의 노예일 뿐으로, 절대 진리를 위해 어떠한 일이나 말도 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적대되고, 진리를 싫어하고, 버리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면, 그를 리더로 뽑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과거에 리더를 했다가 교체된 자가 나중에 또 리더가 된다면 변하겠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그리스도이다. 이는 그의 본성 본질로 결정되는 것이다.

2.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회유하는지 해부하다

방금 얘기한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이다. 미혹하는 것과 회유하는 것은 비슷한 뜻이다. 다만 성질과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혹하는 것은 허상으로 사람을 오도하여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이며, 회유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수단을 써서 남이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길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그 속셈이 아주 명확하다. 미혹하고 회유하는 것은 옳은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관념에 매우 부합하는 말과 사람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를 믿고 따르고, 그와 같은 전선에 서서 한패가 되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옳은 자들 무리에서 자기 진영으로 사람을 끌어들인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약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믿고 숭배하게 되며, 그런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일부 적그리스도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야기할 때 늘 수단을 써서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편 가르기가 일어나고 파벌과 무리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남방 사람이라고 하자. 그는 남방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 남방 사람입니다. 다들 같은 강의 물을 마시고 자랐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죠. 북방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비록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북방 사람들은 우리와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성격도 맞지 않아서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한 가족이니 하나로 뭉쳐야 해요."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저 어떤 관점을 표현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속셈과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며,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것뿐이다. 북방 사람을 만나면 적그리스도는 "북방이 좋죠. 북방이 공기가 좋아요. 저는 비록 남방에서 태어났지만, 북방의 물을 마시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로 맺어진 사이예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북방 사람은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와 교류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는 것에 능하다. 다양한 수단으로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 내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이 각기 다른 파벌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그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파벌과 무리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파벌과 세력 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선거할 때, 북방의 형제자매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중 암암리에 부정을 저질러 표를 바꾸고, 결국 교회 리더와 집사는 모두 남방 사람들이 당선된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거리낌 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여 편을 가르고 파벌을 나누며, 이런 수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통제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고, 하나님 선민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이는 교회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짓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발할 것인데,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모두

징벌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율법시대에 모세를 판단한 250 명의 족장은 바로 징벌을 받았다. 은혜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또한 바로 징벌을 받았는데, 모두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맞선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회유해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먼저, 적그리스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을 회유하여 일단 그들의 호감을 산 후, 친구가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넓힌다. 가난한 사람, 자질이 부족한 사람, 비교적 솔직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배척하기까지 한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돈이 있으면, 그는 방법을 강구해 이들을 자신의 손안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진심으로 헌신하지만 집이 가난한 사람,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별다른 세력이 없어 쉽게 괴롭힘당하는 형제자매는 교회 내 이등 국민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새 몇십 명이 있는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누가 한 짓이겠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짓을 할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좋은 리더는 교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진리로 해결하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거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제자매가 어디에서 왔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패괴 성품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돈이 있는 사람을 회유할 것이다. 어떻게 회유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꽤 유명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핍박도 꽤 심해 리더를 하기가 다소 위험합니다. 저는 안전을 확보해 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당신은 앞으로 큰 복을 받고 생명이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회유하고 유혹해 자신을 따르게 한다. 만약 그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쉽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본분을 안배해 주어 있는 힘껏 그를 치켜세운다.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집의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상관하지 않으며, 그저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자신에게 유용하기만 하면 회유한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아첨하고, 회유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한다. 돈, 권력,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의 두 번째 회유 방식은 바로 방임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서 항상 나쁜 짓을 저질러 형제자매의 적극성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교란해도, 적그리스도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이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방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 또한 회유하기 위함인데, 회유해서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적그리스도는 짐짓 그들에게 "비록 당신들이 저를 리더로 선출해서 제가 당신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저 혼자만의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도와야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들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말을 돈과 권력이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한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해 통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돈과 사회적 지위가 없고, 또 별다른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배척하고 공격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린다. 그의 무시는 어떤 의미이겠느냐? '우리끼리 하나로 뭉쳐 철옹성이 되면,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할 거야. 네가 얌전히 내 말을 듣는다면, 네가 따라서 믿게 내버려두겠지만, 만약 네가 늘 꼬투리를 잡으며 나에게 불만을 갖고 윗선에 나의 문제를 보고한다면, 내가 너를 혼내 주고 출교시키겠어!' 그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 두려워한다. '그들에게 밉보이면 안 돼. 그들이 파벌을 형성했으니 밉보일 수 없어. 우리는 지위가 낮아 말도 무시당해. 만약 말이라도 잘못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진짜로 출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없어질 거야.' 이들은 이렇게 겁에 질려 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회유하는 이런 행위 그 내면에는 사악하고, 악독하고, 흉악한 성품이 있다. 그가 사람을 회유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 또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패거리나 무리를 형성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여 그의 권력과 지위가 더 공고해지게 누군가가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접한 적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교회를 통제하면, 교회 내의 돈과 지위가 있고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권력을 잡고 무리를 형성한다. 4 명, 혹은 5~6 명이 패거리가 되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문제를 폭로하지 못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회유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이들을 자기편으로 회유해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어야 하며, 이래야 그의 지위가 공고해진다. 또한, 이들이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회유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도록 이들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회유하는 이 측면에 관해, 방금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다. 너희가 있는 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있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회유와 관련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회유하는 이런 성질에 속하는 모습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회유의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왜 사람을 회유하겠느냐? 그가 만약 사람을 회유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만 그가 지위를 갖게 되고 권력을 행사할 대상이 생기게 된다. 만약 적그리스도 곁에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지위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의 야심이 충족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회유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회유해야만 그가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배척하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 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청강생'으로 만든 경우가 있지 않으냐? 교회에서 하달한 설교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서적을 아예 그들에게 발급하지 않거나 긴 시간 동안 이들에게 예배를 통지하지 않는 것 말이다. 분명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적그리스도에게 공격과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명된 것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난 것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배척당하여 하나님 말씀 서적을 제때 얻지 못하고, 혹은 설교, 찬양, 교회에서 하달한 각종 사역지침을 제때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회유당하고, 그에게 항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하달한 각종 서적과 영상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우를 누린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와 행동으로 인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사분오열되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회유할 때 조건이 있지 않으냐? 그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회유하겠느냐? (회유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들 분별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회유하지 못하며, 그들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회유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지위가 있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에 능한 사람, 아첨과 아부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해서 출교당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매수하여 이들이 자신을 가까이하게 만든다. 적그리스도가 회유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릇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인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을 회유해 마치 어릿광대처럼 이들을 이끌면서 자신이 무슨 감투라도 쓴 듯, 무슨 지위라도 생긴 듯 느끼고 매우 만족해하는데,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을 회유하겠느냐? (인성이 비교적 악한 사람을 회유합니다.) 바로 악인이다. 적그리스도는 악인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악인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악인이 한 명 있다고 치자.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가 무척 나쁘다고, 그가 교회에 있기만 하면 아무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본분 이행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교란한다고,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게 하기만 하면 교회 사역이 손해를 입는다고 말해도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회유해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악인을 출교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호한다. 그는 오직 악인이 자신을 옹호하지 않고 분별할 때만 처리한다. 그에게 아첨하는 자나 그를 지지하는 자, 그를 반대하는 자만 아니라면, 그는 이들을 모두 회유하고 매수해 자신의 세력을 키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어떻게 지내겠느냐? 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아첨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왕래한다.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 악인들은 몰려드는데, 마치 똥파리처럼 늘 함께 모인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어도 결코 진리를 교제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다들 진리를 싫어하고, 그들 중에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방인의 말만 한다. 대부분이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고, 남들을 괴롭히는 짓을 상의한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집을 경계할지를 연구하고, 어떻게 상부와 대립할지를 상의한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문제를 보고하려 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미리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의한다. 이 악인 무리는 바로 이런 짓들을 상의한다. 그들은 함께 있어도 결코 본분 이행에 관해 교제하지 않으며, 결코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자매들이 나약하고 소극적이어서 본분을 이행할 의욕이 없는지, 어떻게 그들을 돕고 붙들어 줘야 하는지, 또는 교회의 어떤 방면의 사역이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과 같은 일들 말이다. 그들은 결코 이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상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어떻게 상부와 하나님 집을 속이면서 하나님 집에서 그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만을 의논한다. 일단 누군가가 상부와 연락하거나 그들의 상황을 보고한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당했고 자신들의 일을 망쳤다고 판단하고는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하여 미심쩍은 사람을 찾는다. 미심쩍은 사람을 찾은 다음에는 바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 격리시키고, 또 아무도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감히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 그들이 뒤에서 어떤 악을 저질러도 상부에서 알 수 없게 된다. 상부가 상황을 알고 그들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결국 그들을 모두 교체시키고 출교시킬 때까지 말이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악인 무리들은 단지 몇 달 만에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며, 형제자매들이 서로 시기하고, 훼방 놓고, 폭로하고, 공격하게 하여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통제한 결과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악인들을 회유해 교회를 통제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한다. 악인이 그의 말을 들으면 보호해 주지만, 악인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악인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귀순하고 회유될 수 있다면, 그는 악인을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어 자신이 나쁜 짓을 할 때의 조력자나 감시자가 되게 한다. 그러고는 이들을 형제자매들 사이에 침투시켜 누가 그에게 의견을 가졌는지, 누가 그가 한 일에 분별이 있는지, 그가 한 어떤 나쁜 짓들이 발견되었는지, 누가 늘 상부와 연락해 그의 문제를 보고하려 하는지를 알아보게 한다. 적그리스도와 악인은 바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데, 이런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들은 종종 함께 대책을 논의해 자신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들을 의심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대한다. 오늘은 핑곗거리를 찾아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내일은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을 괴롭히며, 심지어 이유와 핑계를 대고 이런 사람들을 제명하고 출교시키도록 하나님 선민을 선동하기도 한다. 적그리스도가 일단 리더 일꾼이 되면 바로 이런 짓들을 하는데, 몇 달 만에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다. 새 신자가 많은 교회라도 불처럼 타오르다가 그들이 끼얹은 물로 그 불이 꺼지고 만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선민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지나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곳과 악인이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교회 생활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진리를 교제하는 분위기도 없다. 오로지 아귀다툼과 못된 짓을 일삼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권력을 잡은 것이다. 마귀가 권력을 잡으면 결과가 좋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선민에게 재난을 가져올 뿐이다. 이는 틀림없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되면, 먼저 교회에서 누가 예전에 늘 상부에 문제를 보고했는지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려고 한다. 설령 이 사람의 집에서 그를 응대할 수 있어도 가지 않는다. 만약 누가 아부와 아첨을 잘하고, 늘 리더 주변을 맴돌 뿐만 아니라, 비위를 잘 맞춘다면, 그는 이런 사람의 집에 머물 궁리를 한다. 다른 사람이 "그의 집에서는 두 명의 자매를 응대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는 "안 됩니다. 자매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세요."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두 자매가 그곳에 묵는 게 적합해요. 마음대로 움직이면 본분 이행에 영향을 줄 겁니다."라고 하면, 그는 "제가 리더이니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해요!"라며 두 자매를 강제로 옮기게 한다. 그가 왜 꼭 그 집에서 지내려 하는 것이겠느냐?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온순하고 나약해서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 뒤에서 어떻게 방탕하게 굴든, 그 집 사람들은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런 곳을 찾아 머물려는 것이다.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는 악인도 불러들인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나쁜 짓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괴롭힐 방법을 궁리한다. 적그리스도와 악인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먼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한다. 그는 일단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지위에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일단 현재의 질서를 깨지 않고, 먼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한 후 적절한 조력자를 찾는다. 그다음은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을 괴롭히고 해결할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어떻게 괴롭히고 해결하겠느냐? 우선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 그에 대해 분별이 없는 사람, 그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을 회유한다. 아무리 해도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그에 대해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핑계와 이유를 대고 격리하거나 제명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는 어떤 성품을 표출한 것이겠느냐? (흉악한 성품입니다.) 그가 어디서 리더를 하든, 그곳은 난장판이 되며, 교회 생활의 질서가 모두 깨진다. 네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억압과 제한을 받고, 심지어 제명되고 출교된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불량배, 건달, 막돼먹은 여자 같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위를 얻고자 하며,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마구 휘둘러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려 한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미혹되고 통제당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회유하는 측면의 모습은 거의 다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매우 희한하게 들리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상상조차 안 돼서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아니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 번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위장된 것이고 허상이며,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본모습이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점잖은 척한다. 하지만 그가 뒤에서 하는 그런 짓들을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역겨워할 것이고, 그가 군자가 아니라 비열한 소인배라며 그와 어울리는 것조차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잘 지내지 못한다. 그의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이 나쁜 습관을 지닌 경우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이다. 그의 이런 성품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며 마귀이다. 네가 말해 보아라. 사람이 짐승과 상대하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마치 네가 돼지를 방안에 두고, 깨끗이 씻긴 다음 옷을 입혀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음 날, 너는 집안이 돼지우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돼지는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며, 위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때야 너는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돼지는 짐승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질과 교양이 있거나 과거 사회에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짐승처럼 양심과 이성조차 없다.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정상 인성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이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 형제자매가 이런 사람의 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혹되고 회유되는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귀이며, 이들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일부 사람에게는 사랑이 매우 많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 나약함, 감정적 욕구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의 지위와 명성에 위협이 된다면, 그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악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티끌만큼의 배려와 포용도 없이 말이다. 적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은 모두 허상이며, 결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구슬리는 목적은 바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남들의 숭배와 추종을 받기 위함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각종 방식을 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자신이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선민의 이익은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사전에는 이 두 가지를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애당초 이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직급의 리더가 되든, 그들은 하나님 집과 하나님 선민의 이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사상 관점으로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은 그들과 무관하며, 그들이 멸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지위와 이익만 고려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서만 일하며, 다른 사람의 사활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압하고 배척하여 죽도록 괴롭힌다. 때로는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고발을 당해 상부에서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위를 잃을 것 같아 대성통곡한다. 겉으로는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무엇 때문에 후회하겠느냐? 그들은 자기가 인심, 지위, 명망을 잃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들의 눈물에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어떻게 교훈을 얻어 재기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과오나 자신이 표출한 패괴 성품에 대해 전혀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참된 인식이나 회개는 더더욱 없다. 설령 그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반성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사람을 미혹하는 허상일 뿐인데,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진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드러나 도태되어도 그들에게 참된 회개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실패했음을, 제대로 연기하지 못했음을, 악행이 전부 드러났음을 인정할 뿐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바로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르면, 그들은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은 영원히 가짜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고 지위를 공고히 할 기회를 잡지 못해 인심을 잃었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다. 그들은 이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적그리스도도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느냐? 어떤 상황이겠느냐? 그들은 수많은 악행이 폭로되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님께 죄스러워 후회하고 통곡할 수 있다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저 웃음거리가 됐다고 느껴 의기소침해질 뿐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도 말 못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만 감정이 다 뒤섞여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않는다. 이것이 실상이다. 때로는 적그리스도도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한다. "저는 자질이 부족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을 좀 저질렀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고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리더로 뽑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이어 울기까지 한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동정심에 "울지 마세요. 앞으로도 당신을 뽑을게요."라고 하면,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그친다. 본모습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가 좋은 말을 몇 마디 하는 것도 인심을 매수하고, 사람을 미혹하며 속이기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속아 넘어간다. 적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린다면, 이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그를 숭배하는 사람이 그를 의심해 지위가 불안정해질 때, 그는 운다.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끊임없이 가족에게 "앞으로 리더를 안 하면 어떻게 살지?"라고 말한다. 가족들이 "예전에 지위가 없었을 때도 잘 살았잖아? 왜 못 산다고 하나?"라고 하면, "지위가 없으면, 이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어리석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지위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가족은 몇 명 안 되는 데 집에서는 내가 가족 몇 명밖에 관리할 수 없어. 그저 가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 나는 교회에서 감투를

써야만 해. 그래야 인생을 헛살지 않는 거야. 게다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지위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어?" 뒤에서 진실한 말을 했고, 야심이 모두 드러났다. 이는 뻔뻔한 사람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어쩌다가 범하는 과오가 아니다. 무의식중에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만약 어쩌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쁜 짓을 한 번 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본성의 지배를 받아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자기 손안에 통제하여 결국에는 권력을 얻는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고, 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다투려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패괴 표출이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며, 특수한 환경에서 핍박을 당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본성이 사악하고, 그의 야심과 야망이 너무 크며, 그의 성품이 음험하고, 간계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모두 그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 속셈과 계획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일단 리더가 되면 이런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기다렸던 것이다. 이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적그리스도 내면의 실제 내적 상태이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런 내용 속에서 너희는 자신이 진입해야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행위와 본성 본질이 있는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분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맞춰 봐야 하는데,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만약 자신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거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너희가 맞춰진다면,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성품이 표출되거나 유사한 행동 방식이 있을 때, 너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말한 사례들을 통해, 혹은 사례에서 기술한 세부 사항과 언행을 통해 여기에서 교제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해하거나, 여기에서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의 패괴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떤 입장에서 들었느냐? 만약 전적으로 방관자의 입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과 본질을 분별하고, 이러한 행위와 행동 방식을 대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입장에서 들어야 하겠느냐? (자신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신과 대조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진리를 갖춰야 합니다.) 맞다. 바로 내가 말한 각각의 사례를 통해 너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과 자질이 훌륭한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얻을 수 있다. 너희는 이야기나 사례에 담긴 진리를 요약해 낼 수 있겠느냐? 이야기나 사례를 교제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사정과 결합하여 실제 사정에서 구현된 각종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방면의 진리와 관련된 각종 모습과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 방면의 진리 및 본성 본질과 관련이 있을 때, 너는 하나의 사례와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이론과 글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실제적이며, 더 구체적이다. 만약 글만 있고 너의 체험이 없다면, 글에 대한 너의 이해 또한

어쩌면 글귀에만 머무르게 될 것이고, 늘 자신의 한정된 체험에 속박당해 이 범위 안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를 덧붙이고, 여기에 이야기, 화면, 구체적인 언행과 모습을 결합하면, 이 방면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역할이 달성되었다면, 네가 이미 이 방면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이다. 그럼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백 퍼센트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방면의 진리에 대한 이해, 정의, 개념, 그리고 인식은 이미 확고해져야 한다. 여기서 확고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겠느냐? 비교적 올바르고 순수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식, 관념, 상상, 억측이 뒤섞여 있지 않거나 비교적 적게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내가 말한 사례 속의 사람이나 일을 네가 알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사람을 접해 봤거나 이런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네가 이런 일을 접해 본 적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전체를 직접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네가 진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무슨 이점이 있겠느냐? 어쩌면 네가 예전에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 방면의 진리를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내가 말하는 그 일과 사람을 네가 알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세부 사항이나 그 안에서 교제한 진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설령 그 사람이 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미 그 안의 진리를 깨닫고 인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왜 이 점을 일깨우겠느냐? 바로 너희가 그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짓들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예로 들면, 너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비웃거나 경멸한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어떤 태도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편향되게 이해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생한 예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각각의 사람들이 사람의 패괴 성품의 표출이 어떤 것인지 실감 나게 경험하며, 사람의 패괴 성품과 사람의 본성 본질의 표출은 어떤 것인지, 사람의 본성 본질이란 무엇인지, 패괴 성품이란 무엇인지, 이런 패괴 성품을 지닌 사람과 이런 본성 본질을 지닌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희로애락은 어떠하며, 그의 처신, 그리고 인생관은 무엇인지, 그의 일 처리 원칙은 무엇인지, 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그가 어떤 태도로 진리를 대하는지를 실감 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실례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 실제의 일면을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본질적인 면과 더 잘 결합해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누구의 이야기를 하든, 어떤 부류 사람의 이야기를 하든, 그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네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 속에서 진리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성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 들으면 그저 그 안의 얕은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고, 글자의 표면적인 의미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분량이 끊임없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함에 따라 생명 또한 점차 성장하여 이러한 이야기 속의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의 본성 본질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과 관련된 진리에서 오는 것이지 이야기 그 자체에서 얻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처럼 단순히 이야기만 한다면, 듣고 나면 그만이다. 그것은 진리와 관련이 없으며, 그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고 얕은 것이다. 하지만 진리와 관련이 되면, 이 이야기의 깊이는 단지 이야기 표면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러한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패괴 성품 및 본성 본질과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대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듣는다면, 너희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확을 얻을 것이며, 매번 여러 방면의 진리에서 빛 비춤을 좀 더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원칙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생명 진입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고, 사회 환경이 변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변함에 따라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그러면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게 되고, 진리에 근거해 사람과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래야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이야기라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들어야 한다. 만약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제해도 된다. 만약 이 단계에서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어쩌면 너의 분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닿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들으면 된다. 자신의 분량에 맞춰 선택적으로 들으면 된다. 만약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는 아주 잘 이해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매우 심오하여 도달하기 좀 어렵고, 자신이 현재 단계에서 체험하는 일 및 생활 환경과 결합할 수 없다면, 이 이야기를 우선 마음속에 담아 놓고 인상을 남기도록 하여라. 네가 이런 일을 다시 접하게 될 때, 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아마 반응하게 될 것이다. 마치 네가 배웠던 어휘와 용어, 또는 뇌에 수집해 놓은 정보처럼 말이다. 너는 매일 그것들을 생각하느냐? 아닐 것이다. 네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정보, 어휘, 용어와 관련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일부 어휘들이 생각나게 된다. 사람은 기억이 있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너의 일상생활에서 네가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너에게 이로운 점이 좀 있다. 하지만 네가 일부러 그것을 사용해 억지로 규례에 맞추면 실수하기 쉽다. 너는 자신의 분량에 맞춰 자신이 체험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성장한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얻을 것이며,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적게 얻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중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진리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어째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상적인 이야기와 옳고 그름을 따지기만 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내가 설교할 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네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이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와 관련이 있겠느냐? (관련이 없습니다.) 진리와 관련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야기했다 하면 겉면의 일로 이야기가 샌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가 함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리를 구하고 깨달아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말이나 행동이 모두 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서히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3.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위협하는지 해부하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한 교제를 마쳤으니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수단들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 미혹이나 회유와 비교했을 때, 위협은 그 수단이 더 교묘해졌느냐, 아니면 더 졸렬해졌느냐? (졸렬해졌습니다.) 미혹과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위협을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위협하겠느냐? 왜 위협이라는 수단을 쓰려고 하겠느냐?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이다. 위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본색을 드러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아라. ('부끄러운 나머지 분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겠느냐? ('노발대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다. '노발대발하다'이다. 쉬운 말로 '눈에 쌍심지를 켠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뜻이다. '내가 좋게도 얘기하고 나쁘게도 얘기하고, 평소에 너희에게 섭섭하게 대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본때를 보여 주겠어. 위협이라는 수단을 써야겠군!' 또다시 수법을 바꾸는 것이다. 사탄은 많은 수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모두 비열한 수법이다. 보통 위협은 '이익을 내세운 유혹'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위협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내세워 유혹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사람을 위협하려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겠느냐?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무탈하게 잘 지내고, 각자의 길을 가며, 두 사람 사이에 이익 충돌이 없다면, 그가 위협을 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위협이라는 행위와 행동 방식이 생기는 것이겠느냐? 당연히 그의 이익이나 명성과 관련되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독한 방법을 쓴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여 주겠어.'라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본 위협하는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로 사람을 위협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누가 리더의 말을 듣지 않으면, 리더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그를 교체합니다.) 어쨌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다.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늘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니 반드시 순종해야 해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리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바로 도태되는 것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반성하게 격리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됩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럴듯하지만 황당한 논리로 그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한다. 또 다른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사람을 위협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교사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버리게 한다. 또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체하거나 그 사람의 본분을 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행할 본분이 없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해야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며,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난 너의 약점을 알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본분을 이행할 권리를 박탈해 네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겠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의 본분 이행이 불합격이거나 하나님 집 이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것이겠느냐? 바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해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협은 결코 진리 원칙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갈, 협박, 강요를 통해 사람들이 순순히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하며, 말썽을 일으켜 그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에게 불복하거나, 그를 중시하지 않거나,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이는 단지 그중의 일부 원인일 뿐이다. 또 다른 측면의 원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폭로하려 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려 할 때 상부가 알게 될까 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까 봐 어떻게든 이 일을 은폐하고 억눌러 절대 그 일이 폭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저주할 것이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숭배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의 지위와 권력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위협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 분별을 갖게 된 형제자매들이 다음 선거에서 그를 뽑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평범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신자가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이겠느냐? 그가 권력을 잃고, 아무도 그를 따르며 그의 추종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의 지위와 권력이 모두 박탈되고, 야심과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평범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평범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위협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계속해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사람을 통제하며 일부 사람들의 옹호를 받으려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지위를 중심에 둔다. 자신의 지위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방식이나 수단을 써 필사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지킨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부에서 그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 물어볼 때에도 그는 여전히 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상부에서 그에게 이번 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 몇 명을 얻었느냐고 물어보면, 분명 한 명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다섯 명을 얻었다고 말한다. 사정을 아는 형제자매가 "그 다섯

명도 그저 알아보는 중인데, 어째서 다섯 명을 얻었다고 말하나요? 상부에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하겠느냐? "왜 다섯 명을 얻은 게 아닌가요? 내가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인 거고, 당신이 말해 봤자 소용없어요. 한 명도 못 얻었다면 어떻게 상부에 설명합니까? 보고할 테면 하세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상부에서 당신을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모두 교체시킬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복음팀이 없어져서 당신은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그 일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얼이 빠져서 감히 보고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위협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위협이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협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정직한 사람이 되면 뒤탈이 있구나. 정직한 사람이 되면 이행할 본분이 없어지니, 상부에는 보고하지 말아야지. 꼭 다섯 명이라고 얘기해야 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며 "우리가 사람을 얻지 못한 건 얻지 못한 거지요. 상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순종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관점을 보이겠느냐? '순종이라고? 그것도 상황 봐 가면서 해야지. 지금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부에서 알기나 해? 상부에서 신경이나 쓰나?'라는 것이다. 상부에서 복음 전도 상황을 묻는 것은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다. 매달 최소 몇 명의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상부에서는 알고 있으며, 한 달 동안 사람을 얻지 못하면 복음팀을 해산시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지어낸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어낸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둘러대기 위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상부와 형제자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교체되지 않기 위해 그는 이렇게 마귀적인 말을 지어낸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를 폭로할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미혹되어 '맞아. 본분이 오는 것도 쉽지 않으니, 상부에 사실을 말하면 안 돼. 다섯 명이라고 하면 다섯 명이라고 하지 뭐. 이번 달에 다섯 명을 못 얻었어도 다음 달에 노력하지 뭐. 어쨌든 다음 달에 얻으면 거짓말은 아닌 거야.'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가 속인다고 그도 따라서 속이다니, 이는 사기꾼 무리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교회를 통제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원칙과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무리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질러도 형제자매가 폭로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가 상부에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위협한다. 어떻게 위협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아래에서 하는 사역은 난이도도 높고 큰 붉은 용에게 잡힐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 상부는 늘 사역지침에 따라 실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위험을 감수하는데요! 성과가 안 좋은데도 상부에 보고하려 하다니, 보고하면 상부에서 당신을 책망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리더인 제가 교체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행할 본분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행할 본분이 없어져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냐! 그는 또 말한다. "대체 누가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고하고 싶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상부에 말하지 않으면 상부에서는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부에 말하면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보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지금도 보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말투를 듣고는 '대체 보고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며 고민에 빠진다.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든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보고 생각한다. '그래도 보고하겠다는 거야? 죽고 싶은 거 아냐? 알았어. 기억해 두지.' 그 후, 그는 이 사람을 괴롭힐 기회를 찾는다. 그는 핑계를 대며 말한다. "요즘 당신의 본분 이행이 영 성과가 없어요. 본분을 이행한 지 3 개월이 되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본분 이행 권리를 박탈합니다. 만약 태도가 계속 안 좋으면 격리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하고 출교시킬 겁니다!" 이러면 네가 감히 보고할 수 있겠느냐? 멍청이, 못난 인간은 이 말을 듣고는 '날 위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보고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보고하고 나서 리더에게 공격과 보복을 당하고 형제자매도 나를 저버린다면, 교회에서 고립될 거야. 아무래도 리더의 말을 듣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내 생사를 신경이나 쓰시겠어?'라고 생각해 보고하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겁을 먹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께는 사랑, 긍휼, 관용, 인내가 있어서 쉽게 노를 발하시거나 저주와 징벌을 내리시지 않아. 하지만 리더에게 밉보이면 고생길이 훤하지. 문제를 보고해도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 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이는 줏대가 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불쌍하게 여길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 적그리스도에게 혼이 좀 나 봐야 한다. 그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 그는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믿음이 없으며, 의지와 의욕도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는 기운이 넘쳐 시키는 대로 하며 의욕이 넘친다. 적그리스도가 위협하고 겁을 주면, 그는 문제를 감히 보고하지도 못한다. 이는 못난 자가 아니냐? 쉬운 말로 뭐라고 하겠느냐? 겁쟁이다. 적그리스도만 만나면 겁을 먹는다. 교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위협하기만 하면 겁쟁이가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를 위협하고, 버리고, 격리하면, 그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믿지 않으며,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겁주고 협박하는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는 겁을 집어먹고 굴복하고, 감히 보고하지도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상부에 사역을 보고할 때 전혀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실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이를 듣다못해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려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엄하게 통제하고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단번에 알아차린다. 그는 심심하면 집중적으로 말과 표정을 살피며 사람을 관찰한다. 누가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에게 딴마음을 품고 있는지, 누가 그에게 불복하는지, 누가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지, 누가 그를 본체만체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자리에 앉을 때도 상석을 양보하지 않고 식사 때도 먼저 먹도록 양보해 주지 않는지 등을 살핀다. 이러면 골치가 아파진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일부 음험한 적그리스도는 우선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기회를 잡아 너를 처리한다. 정 안 되면 모진 말로 너를 위협해 너의 목숨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교회에 있을 수 있는지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고, 그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고 그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네가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통제에 복종하지 않으며,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게다가 늘 그의 문제를 보고하려고 한다면,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너를 괴롭힐 궁리를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가 상부에 자신의 문제를 보고하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고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는 그것을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고자질이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가 저지른 각종 진리를 위배한 짓과 악행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고, 또는 그가 남몰래 저지른 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는 바로 이것을 고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고자질한 것을 발견하면, 그는 바로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일부 어리석고 줏대가 없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이런 위협, 이런 기고만장하고 못된 분위기에 겁을 먹는다. 적그리스도가 누가 상부와 연락했는지 물으면, 그는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성급하게 대답한다. "저는 안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상부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죠?"라고 물으면, 잠시 고민 후 "저도 모릅니다."라고 답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괴롭힘에 늘 마음 졸이고 겁에 질려 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에서 출교시킬까 봐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이런 위협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참된 믿음이 없다. 이런 자는 줏대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이다.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겁을 먹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고, 적그리스도에게는 고분고분하게 복종한다. 타고난 사탄의 심부름꾼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방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일부 적그리스도는 옳은 도리, 듣기 좋은 도리를 말하는 데 능숙해서 그것으로 너를 속박하고 옭아맨다. 그는 말한다.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제가 리더이니까요. 제 말은 모두 진리에 부합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딴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의견을 갖거나 함부로 참견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진리예요." 네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마음속으로 너를 미워하거나 정죄한다. 뭐라고 정죄하겠느냐? 그는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제가 리더이고 제 말이 옳은데, 어째서 제 말을 듣지 않는 건가요?"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옳은 이론과 도리로 너를 통제하고 제약한다. 또한 일부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일을 맡기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지금 리더를 하느라고 개인적인 일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리더이니, 저의 일이 하나님 집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 집의 일이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 부러지게 나눌 수 없으니, 저희 집 일을 여러분이 좀 분담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보기, 집 짓기와 같은 일들, 그리고 집에 돈이 부족한 경우 등이죠. 원래 이런 일들은 저의 본분이지만, 제가 지금 리더를 맡고 있으니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분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늘 집안일을 걱정하느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산될 텐데, 그러면 제대로 리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말하는 게 뻔뻔스럽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당신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했네요. 정말 무심했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앞으로 당신 집의 일은 우리가 다 도맡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가정의 사적인 일과 생활 관련 일들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무엇으로 둔갑시켰느냐? 사람의 본분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니까 그는 남들이 그의 가정을 위해 힘을 들이는 것, 자기 집안의 노인과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돌보는 그런 일을 모두 하나님 집의 일로 둔갑시켰다. '하나님 집의 일이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리더가 시키는 것이 바로 너의 본분이다.'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지 않으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다 옳다고 생각한다. 리더는 바빠서 가정일을 돌볼 틈이 없고, 자신은 자질이 부족해서 어떤 본분도 이행할 수 없으니 리더 대신 집안일을 좀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리더의 집에 가서 안팎으로 바삐 움직이며 일을 한다. 이것을 본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는 그저 열정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사람을 배치해 도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본분 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느라 바빠서 자신의 집안일을 형제자매에게 시키면서 이 또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형제자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어 기꺼이 즐겁게 한다. 마지막에는 리더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기까지 한다. '리더가 우리를 위해 마음 졸이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우리도 참 못났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도 진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네가 하루 종일 리더를 위해 일을 하느라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목숨 걸고 아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라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옳은 주장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가공해서 옳은 말로 둔갑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진리라고, 사람이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사람은 이런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리더가 한 짓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자신이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을 바로 미혹이라 하며, 위협이라고도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옳은 이론과 주장으로 사람들을 통제한다. 어느 정도로 통제하겠느냐? 기꺼이 그를 대신해 힘을 들이고, 죽도록 일하며, 그를 대신해서 그의 모든 개인적인 일을 돌보게 된다.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몫의 일을 내버려두더라도, 자신이 영 생활을 하거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전부 쏟아부어 봉사하고 죽도록 일하려 한다.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죽도록 일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런 일들도 잘하지 못하는데, 무슨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어요?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집의 일원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신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집의 일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로 선출된 이상 제가 바로 이 교회의 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제명할 때도 제가 동의해야만 교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안배한 사역과 제가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집의 일원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위협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협한 것이겠느냐? (옳은 말로 위협한 것입니다.) 이는 옳은 말과 진리에 부합하는 듯한 말로 사람을 위협한 것인데, 이를 '개념 바꿔치기'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하지만 그 사람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겠느냐? 그는 자기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하고는, 본분 이행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자신을 위해 죽도록 일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그를 위해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고, 교회에서 제명되고 하나님 집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는 서둘러 리더의 집안일과 생활 전반의 일을 도맡고, 일을 끝내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심지어 뿌듯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본분을 제대로 이행했어. 게으름도 전혀 피우지 않고 리더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헤아렸지. 리더가 시킨 일뿐만 아니라, 리더의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야! 리더가 만족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거야. 이제 구원받을 희망이 생겼어!' 이것이 희망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에게 유괴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브로커가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사악하며, 사악함은 당연히 간사함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그는 어떤 말과 이론으로 사람을 구속해야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릴 수 있는지,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지는 모두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지, 결코 무심코 던진 말이나 한 일로 예상 밖의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죽도록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이런 말에 미혹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일종의 말에 위협받고 협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따옴표를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결코 진정한 본분 이행이 아니라, 어떤 이론, 옳고 듣기 좋으며 사람을 미혹하는 논조와 말에 미혹되어 생긴 결과이다. 본분을 이행하지 못할까 봐, 출교될까 봐, 또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맡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여 놓고는, 하나님을 위해 본분을 이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협한 일을 통해 사람은 그의 진면목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겠느냐? 위협하는 것은 경고하고 일깨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를 분별할 줄 아느냐? 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그 차이점을

찾아내면, 너희는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출발점과 의도에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위협이란 무엇이겠느냐? 위협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아주 듣기 좋고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자극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일깨우고 경고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먼 길을 돌아가거나 편향된 길을 걷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해 주며, 손실을 줄여 주거나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을 교제했다고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경고해야 하는데도 감히 경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고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경고하고 일깨우는 것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경고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 본분을 잘 이행하게 하고, 하나님 집 사역이 손실을 보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위협하는 목적은 정당하지 않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야심과 사심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 일을 시키는 경우, 그의 사심은 무엇이겠느냐?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집안의 더럽고 힘든 일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게다가 세끼 식사도 다른 사람이 차려 주기를 원한다. 그는 이제 지위가 생겼으니 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를 위해 일하라고 시키면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유를 만들어 낸다. "지금 제가 리더라 본분이 바쁘니 여러분이 부담과 인성이 있다면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좀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텃밭을 가꿀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제 일을 돕는 것 또한 본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리더이니 저의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에게 이런 부당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너는 리더의 말도 맞다고 생각하고는 그의 일을 해 준다. 이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전에 적당한 구실과 이론을 준비해 포석을 깐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를 위해 일을 하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고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는 교회에 얹혀사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다. 본인은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며, 육적인 편안함을 즐기고, 지위의 복을 누리며, 권모술수를 쓴다. 그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과 자신이 이해한 도리 중에서 합리적이고 사람이 비교적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고는, 이런 말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을 미혹하고 구속한다. 이로써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이루고 남들이 기꺼이 자신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리더의 말을 듣지 않거나 리더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곧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스럽다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으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어리석다.

적그리스도는 늘 위협적인 방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만 때로 적그리스도의 위협은 옳은 말과 부드러운 방식을 사용해 마치 뱀처럼 너를 휘감을 것이다. 너를 휘감고 나면 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위협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부드럽지 않으며, 딱딱하고 흉악하다. 마치 늑대가 양을 보고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의미는 남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라고 알려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카드는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의 종착지와 본분, 더 나아가 교회에서의 지위와 거취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다. 물론 더 많은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너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강경하고 악독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는 남들에게서 이익을 얻고,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고, 지위가 그에게 가져다주는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 또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들이 상부에 그의 상황을 보고하려 하거나, 누군가가 그를 분별하여 형제자매와 연합해 그를 버리고 파면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위협이라는 수단을 쓸 것이다. 이러한 위협의 목적은 지위가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협하는 목적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중심에는 지위가 있다. 그의 다양한 이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이 또한 지위에서 비롯된다. 어떤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제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를 분별한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위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해 반항할 것이다.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열정은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 이 열정은 마치 늑대가 양을 발견한 것과 같은데, 잡아먹기도 전에 벌써 침을 흘리고 눈에는 흉악한 빛을 뿜으며 잡아먹을 생각만 한다. 바로 이런 욕망이다. 이는 본성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욕망은 양에 대한 늑대의 욕망과 같다. 이는 그의 악독한 본성 내면에 존재하는 욕구이기에, 사람에 대한 위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4.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해부하다

사람을 통제하는 것, 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리더를 한 적은 없어도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종자이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어떤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 그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도, 각종 업무나 전문 분야에 관한 일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며, 그게 누구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바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본분 내의 일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야심이고 욕망이며 패괴 성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겠느냐? 예를 들어 보자. 리더로 선출되면 그는 첫날부터 '이 사람들은 식사하고, 일하고 쉬는 것조차 규칙적이지 않네. 할 일이 많구나. 리더인 나의 책임이 막중하고 짐이 무겁네!'라고 생각한다. 그는 방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두세 페이지의 내용을 쓴다. 어떤 내용이겠느냐? 첫째는 식사와 관련된 것이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을 먹어야 한다. 아침은 6 시 반, 점심은 12 시 반, 저녁은 6 시 반, 바로 이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해야 하고, 이보다 더 빠르거나 늦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비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식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는 일과 휴식 시간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침 6 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저녁에 아무리 늦게 잤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오후 1 시에는 식후 휴식을 해야 하며, 저녁 10 시 정각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식사와 취침 시간을 정한 것 외에도 많은 세부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해야 하며, 식사할 때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고, 또 각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등이다. 규정이 어찌나 세세한지,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 규정보다 훨씬 더 세세하다. 이러한 생활 속의 소소한 일들은 진리와는 관련이 없다. 일상생활과 식사가 규칙적이고 적절하며 건강에 나쁘지만 않다면, 이 원칙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겠느냐? 그는 말한다. "사람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이러한 세부 사항이 없으면 방만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해 사람다운 모습을 잃게 됩니다. 이제 제가 리더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구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흩어진 양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규정한 후, 그는 또 너에게 '비밀'을 알려 준다.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의 세부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 관련된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외에도 자기가 또 다른 각종 규정을 만든다. 마치 그것이 매우 세부적인 명문 규정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고는 이것으로 진리를 대체하고, 사람을 인도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을 배포한 후에는, 그의 이른바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다. 만약 누군가가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거나 무시하고 위배하면 책망하며, 책망한 후에는 또 그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한다. 그가 이런 것들로 진리를 대체하고, 사람을 인도하니, 사람이 어떤 길로 가겠느냐? 사람은 규례와 의식만을 지키게 되고, 형식만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인솔하에 사람은 관념으로 '외적인 규례와 형식을 잘 지키고,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식사 시간을 잘 지키면, 내가 진리를 실행한 것 아니겠어? 그럼 앞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라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진리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진리가 사람의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겠느냐?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성품 변화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냐? 공공질서나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각종 규례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고, 더

구체적이며, 더 실제적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든다. 실제로 그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사람의 행위를 철저히 통제한다. 그는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사람이 진리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고, 본분을 이행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인위적으로 각종 규례와 규정을 만들어 내어 사람들이 지키게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각종 규칙을 실행하고 지켜 그의 인도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는 사람의 행위를 구속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가 일을 하는 출발점을 놓고 보면, 드러내놓고 지위를 얻고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결과를 얻게 되며, 사람은 온전히 그가 정한 각종 규례대로 생활하고 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자리가 있겠느냐? 없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네가 그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그는 오늘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내일이 되면 저렇게 하라고 한다. 그는 전혀 진리 원칙을 교제할 줄 모르고, 오로지 규례만을 지키게 한다. 네가 지키기 힘들어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너를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게 놔두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할 때, 주로 무엇을 통제하겠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맞다. 주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한다. 그는 단지 사람의 견해와 행동 방식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리를 교제한다는 명분하에, 공허한 이론과 교묘한 궤변으로 너를 미혹하여 너의 생각을 통제하고 네가 그를 따르고 그가 정한 대로 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네가 그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마음속으로 마치 진리를 위배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이미 통제된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느끼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바로 양심과 인성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도,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으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오로지 그 혼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가 없을 때는 아무도 감히 판단을 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기도하고 구할 줄도 모르고, 또 다 같이 상의할 줄도 모른다. 마치 허수아비나 죽은 사람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늘 어떤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분명 다양한 주장과 수단들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몇몇 사람이 있는데, 자질이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고, 본분도 충성스럽게 이행하며, 거의 소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협력해 일정 기간 본분을 이행하면, 적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된다. 무슨 일이든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기 좋아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일단 이런 적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의 본분 이행은 제자리를 답보하고, 문제가 있어도 교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 그저 적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사람들의 자질과 두뇌, 경험과 경력을 놓고 봤을 때,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기 전에는 그들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후, 일단 적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도 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한 아무도 일을 처리하도록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생각은 마치 속박이라도 당한 듯 반 식물인간 같은 성질을 지닌다.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제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겠느냐? 분명 명확한 주장과 말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했을 것이며, 또 분명 주장과 관점, 또는 행동 방식이 사람들의 동조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결코 진리 실제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의 주장과 관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역시 사람을 미혹하려는 것이며, 그들에게 진리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감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확실히 어느 정도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이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진리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심지어 일부 영적인 유명 인사와 위인도 숭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어느 날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이론만 말할 줄 알 뿐 진리를 실행해 내지 못하며, 교회 사역을 수호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진정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아차리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버리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은사와 말재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보자. 네가 합리적인 건의를 하면, 다들 이 옳은 방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제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며, 본분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생각한다. '너의 그 방안을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는 마음속 깊이 이 방안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의 본성에 따르면, 그는 절대로 너의 옳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온갖 방법을 마련해 너의 방안을 부정하고 다른 방안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자신의 방안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역시 그의 방안이 좋다고, 역시 그를 떠날 수 없다고, 오직 그가 사역해야만 다들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사람이 그를 떠나면 쓸모없어져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 수법은 항상 새롭고 특별한 것과 이상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는 그것을 부정한다. 설령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정죄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그제서야 그만둔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중심에 두게 한다. 그는 자기 혼자만 빛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그의 들러리로만 남게 한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옳으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늘 새롭고도 기이한 관점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관점과 행동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방안을 교란하고 부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방법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는 이런 방식과 수법으로 끊임없이 너를 부정하고 공격하면서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네가 그에게 점점 더 복종하고, 점점 더 그를 우러러보고 앙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그에게 철저히 통제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수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한다. 그저 눈짓이나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을 통제하든, 아니면 어떤 인사권, 재무권, 발언권과 같은 어떤 한 분야의 권력을 통제하든, 그는 각기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 이는 결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며, 남들이 그에게 감탄하고 그를 선출할 때까지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그가 일정 기간 동안 경영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남들이 그를 이해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 집을 위해 했던 공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그는 "예전에 제가 복음 전도 방법을 좀 생각해 내서 복음 전도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들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사실 각지의 교회들은 많은 복음 전도 경험을 종합했는데,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했던 올바른 결정과 공로를 뽐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때까지 여러 곳에서 이를 알리고 강조하고 반복한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자신의 이미지와 명망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옹호하고 앙망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러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느냐? 대부분의 적그리스도는 모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미혹하고, 구슬리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 어떤 무리이든, 어떤 사역 장소이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숭배하고 앙모하게 된다. 어려움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할 때,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많은 사람이 은사가 있는 적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가 여기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만이 우리가 난관을 헤쳐 나갈 방도를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는 아이디어와 방법이 가장 많고, 경험이 가장 풍부해. 머리도 제일 잘 돌아가.'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이 정도로 숭배할 수 있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가 평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연출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가 말과 행동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일만 할 줄 아는 사람, 말수가 적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절대 자신을 떠벌리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사람을 미혹해 그를 중시하고 앙망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째서 비교적 정직한 사람들, 진리를 실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진리 실제가 없고 또 분별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들 은사가 있고, 말주변이 좋으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런 사람을 특히 부러워하고, 이들에게 특히 동조하며, 이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이 숭배하고 앙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통제하는 일련의 수단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자신들의 지위와 사람들

마음속의 자신의 이미지를 경영한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이 달성되기 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지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겠느냐? 단순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해 의도적으로 얻으려 한다. 그는 권력과 지위를 무척이나 중요시한다.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지위이며, 지위만 있으면 모든 혜택을 저절로 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은 애써 경영해 이루는 것이지 결코 어쩌다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목적과 속셈이 있으며, 모두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얻어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에게는 이것이 수확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성과이다. 그는 속셈, 목적, 의도를 가지고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며, 또한 애써 이를 경영한다. 그가 말하고 행동할 때 목적성과 의도성이 무척이나 강하며, 목표가 매우 분명하다. 예를 들어 보자. 그는 자신이 예전에 어떤 레벨의 리더 일꾼이었는지, 복음 전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는지, 어떤 주옥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뽐낸다. 사람들에게 그의 이런 경험과 자본을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뽐낼 때,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의 출발점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말들을 할지,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어떻게 섞어서 이야기해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목적을 지니고 있지 결코 단지 몇 마디 말로 자신을 치켜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에게는 무척이나 적절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며, 적정선을 매우 잘 지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경계하며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가 분별할까 봐 좀 얌전히 군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새 신자이거나 일반 신자라면,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모두 리더 일꾼이라면, 그는 리더 일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외부적인 일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영리하여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매우 분명히 구분한다. 즉,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행동할 때 모두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말할 때 어휘조차도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그가 일시적으로 패괴를 표출하거나, 또는 분량이 작거나, 우매하고 무지해서 어디에서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수단, 일 처리 방식, 말할 때의 어휘 선택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매우 기이하고 사악하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위해,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회만 생기면 자신을 드러내며, 어떠한 틈도 놓치지 않고,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내 앞에서 이런 모습을 표출하겠느냐? (표출합니다.) 어째서 표출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의 본성 본질이 바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저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겠느냐? 그는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겠느냐? 그는 지위를 얻으려는 것이며, 그 의미는 '넌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예전에 한 일을 봐봐. 이런 좋은 일은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집에 많은 공헌을 했지. 네가 알았으니 나한테 더 큰 사역을

맡겨야 하지 않겠어? 너도 나를 우러러봐야 하지 않을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이다. 이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 통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느냐? 조종과 우롱이며, 너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형제자매가 모두 어떤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면, 적그리스도는 즉시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만든다. 정말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늘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자신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는 만족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의 칭찬과 숭배를 받고 싶어 해 이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다.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권력을 위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설령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거나 수단이 서툴러 사람들의 경멸을 받을지라도 그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머리를 쥐어짜 계획을 세운다. 그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끊임없이 여기저기에 자랑하고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질투하고 미워한다. 게다가 생색을 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마련해 좋은 일은 자신이 한 것처럼 만들거나 자신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결코 일시적인 간사함이 아니며, 어쩌다가 한두 가지 일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많은 일과 말을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 방식은 미혹성이 있으며, 그들이 그런 말과 일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권위와 지위를 갖기 위함이다. 권위와 지위가 생기면, 그들은 지위가 주는 복과 지위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날씨가 더울 때 다른 사람은 에어컨이 없는 방에 살아도 그는 에어컨이 있는 방에 살 수 있으며,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은 반찬 하나만으로 밥을 먹어도 그는 고기와 국을 추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방에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 바닥에 앉아야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의자는 그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이런 특별 대우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것이며, 그들은 이런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기를 좋아한다. 물론 이런 이익과 즐거움은 그들의 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지위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지위가 그의 내면세계에 가져다주는 허영심, 만족감, 안전감도 필요로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회유되고, 통제된 사람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겠느냐? 그들은 서로 지위와 권력, 은사와 능력을 비교하고, 또 가정 환경과 출신, 누가 꼼수가 더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를 비교한다. 종교계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은 함께 있으면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지도 비교한다. 어떤 사람이 10 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20 분 기도하고, 예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마치 불당에서 사람이 경을 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지를 겨룬다. 이는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된 사람은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인도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면, 너는 그를 앙망하고 따르게 된다.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따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게 된다. 네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네가 사탄에게 통제되어 마음속에 사람의 지위와 사탄의 지위가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너를 버리게 된다. 너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기 좋아하지 않느냐? 그를 앙망하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의 통제와 지배를 받기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그것이 모두 진리라고 생각하면, 너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거라. 너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 어느 날 네가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거나 원망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이 방면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제하였다. 사람은 이제 통제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며, 본분도 이행하고 있고, 하나님 집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었느냐? 가장 주된 원인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고,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를 무척이나 숭배하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것이다. 통제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에 의해 좌우되고 속박되는 것이다. 비록 네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 원칙을 구할 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적그리스도의 주장과 관점이 너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이 옳고 진리에 부합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게 되고, 너 자신조차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싫어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지도 않게 된다. 너는 적그리스도의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할 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안심이 되지 않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게 미안한 짓이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주장과 관점에 완전히 속박된 것 아니겠느냐? 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구하고, 지키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할 용기도 없다. 어째서 할 줄 모르고 할 용기도 없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았고, 그가 너에게 결정이나 결론을 내려 주지 않았으며,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았고, 길을 알려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까 봐, 실수를 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것이 통제된 것 아니겠느냐? 너는 어째서 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네게 원칙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지 않았단 말이냐? 너는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냐? 이러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벽을 쌓으라고 했다고 해 보자. 얼마나 높고 길게 쌓아야 하는지,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를 모두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벽이 이 정도 높이인 것은 괜찮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네요.

쓰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 일단 쌓지 않을래요."라고 한다. 내가 가서 보고 "왜 쌓지 않는 것이냐?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쌓지 않았다니, 이는 일을 지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그는 "어떤 사람이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 걱정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또 바람에 쓰러질까 걱정이 되면, 기둥으로 지지대를 만들면 된다고 하자, 그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또 그를 교란하러 와서 "기둥 하나로 되겠습니까? 두 개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사용하라고 하셨지, 두 개를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라는 생각에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미혹되고 교란된 후에는, 내가 앞에서 한 말들이 전부 소용이 없어졌고, 그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 일을 할 때, 너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듣기 싫었느냐? 듣고 싶었지만, 네가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에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미혹되어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너의 행위와 생각이 그에게 속박되고 결박되어 있다면, 그것은 통제된 것이다. 결국 너는 본분도 이행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다. 이 결과는 누가 초래한 것이겠느냐? 너의 우매함이 만든 것이며, 또한 적그리스도의 미혹, 교란, 통제와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끼어든 것은 어떤 의미이겠느냐?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여기에 벽을 쌓으라고 하셨다고 무작정 따르는 거야? 네 생각은 어쩜 그렇게 단순해? 여기에 벽을 쌓으면,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말을 따르는 게 더 정확하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기분이 나빠지고 언짢아져.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지, 그럼 나를 어떤 위치에 두는 거야?'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일부러 이렇게 훼방을 놓았다. 훼방 놓은 후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그가 뛰어나 보이게 되었기에 그는 기뻐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벽을 쌓으라고 하였으면, 사람은 최대한 빨리 벽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벽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누가 초래한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교란되고, 통제된 것이다. 이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진리 아니겠느냐? 진리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저 네가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분석해서는 안 된다. 비록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정의를 마음속으로 알아야 한다. 즉, 이 진리를 네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관념에 부합하든 아니든, 네가 이해하든 못하든, 네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의 직책과 본분이다. 네가 이것을 확실히 하면, 사탄이 또다시 너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준칙이다. 사탄이 어떤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는데,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사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었다. 사탄은 그럴듯하고 모호한 마귀적인 말로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결과가 아니다. 뱀이 그 말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그 말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행위를 좌지우지하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된 후에는 뱀이 가리킨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해. 넌 이 열매를 먹어야 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사탄의 뜻은 먹으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통제한 것이다. 네가 적그리스도의 마귀적인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너의 행위와 생각이 그에게 좌지우지되고 통제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통제의 의미이다. 너희는 이런 상황에 부닥친 적이 있느냐? 일부 심사가 사나운 사람은 네가 어떤 일을 매우 순조롭게 잘해서 곧 성과가 나와 네가 돋보이게 될 때, 자신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네가 돋보이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듯한 관점이나 문제를 제시해 너를 미혹하고, 교란하고, 통제한다. 결국 너는 얼떨결에 그의 말도 옳다고 생각해 어찌할 바를 몰라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다. 어리석지 않으냐? 처음에 네가 미혹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꽤 냉철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교란하자 흐리멍덩해져 어떻게 해야 적합한지 모르게 된다. 이는 무슨 문제이겠느냐? (미혹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쉽게 미혹되고 통제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교제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일이 닥쳤을 때 각각의 진리와 대조해 자신의 언행과 본질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람, 일,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진리를 더 밝히 알고 다양한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을 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너희 중 대부분은 이제 막 각종 진리의 구체적인 내적 상태와 모습을 접했다. 어째서 이제 막 접했다고 하겠느냐? 바로 이제 막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시작해 진정한 진입과는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이해했다는 것은 단지 네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해졌고, 진리에 좀 더 부합하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는 네 개인의 진입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네가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인식했다고 해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또한 자기 주변의 사람, 일, 사물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이는 완전 별개의 일이다. 사람이 구원받고 성품 변화에 이르는 것은 각 방면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 또한 각각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너희가 각각의 진리에 대한 인식과 진입에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어 보라고 할 때, 너희는 즉시 자신의 모습, 또는 자신이 체험하고 본 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제하기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너희가 이미 체험했고,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현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당장 기억을 뒤져 찾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으면, 내가 자세히 말해 줘야 한다. 이런 일들의 중심과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다 이야기해서 너희가 각종 진리의 세부 사항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실행할 때 개념과 정의에 관한 것을 혼동하지 않게 되며, 개념 바꿔치기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지도 않게 된다. 각 항목별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교제하기 쉬워진다. 지금은 너희가 아직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자세히 얘기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에서 교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너희는 얼마나 되새기고 소화할 수 있느냐? 만약 10%밖에 안 된다면, 너희는 분량이 전혀 없는 것이다. 30%라면, 약간 이해한 것뿐이고, 50%에 이른다면, 너희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갖추었으며, 어느 정도 진입한 것이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진입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해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교제해 주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질이 너무 부족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에 보도록 하자!

2019 년 4 월 17 일

제 6 조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

참고

다밍(大明)과 샤오밍(小明)의 이야기

본 주제를 교제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기억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를 몇 개나 이야기하였느냐? (다바오(大寶)와 샤오바오(小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바오와 샤오바오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다. ('포서기(捕鼠記)'와 여성 리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느냐? 사실 좀 가볍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을 빌려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진리들을 교제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내가 한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가 각 방면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이는 너희가 정말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진리를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그저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이 방면 진리의 실제적인 면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다바오와 샤오바오의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 우리는 다밍과 샤오밍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너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면의 진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다밍(大明)과 샤오밍(小明)은 부자지간이다. 얼마 전, 다밍이 아들 샤오밍을 데리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였다. 이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좋은 일이다. 샤오밍이 어리고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아, 다밍은 매일 샤오밍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었으며, 샤오밍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얼마 후, 샤오밍은 처신의 도리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순종', '믿음', '정직', '간사함' 등과 같은 어휘들도 이해하게 되었다. 다밍은 아들의 성장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밍은 샤오밍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 줘도 샤오밍의 행위나 말에서 큰 성장이 없음을 발견했다. 다밍은 마음이 조급해졌고 부담을 느껴 '어떻게 하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좀 깨닫고 변하게 할 수 있으며, 남들이 인정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착한 아이라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역시 좋다고 칭찬하게 할 수 있을까? 이와 동시에 아이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담을 갖게 되자, 다밍은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샤오밍을 잘 교육해 샤오밍이 처신의 도리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할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 샤오밍이 착한 아이가 되어 사람들이 모두 샤오밍을 칭찬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때가 되면 내 마음속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밍이 갖게 된 이런 부담에 대해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합당하냐? 본연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출발점은 옳고,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으며, 본연의 일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밍이 샤오밍을 위해 선택한 길은 올바른 길이겠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이겠느냐? 좋은 것이겠느냐, 안 좋은 것이겠느냐?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다밍은 항상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여 결국 어느 날 '영감'이 생겼다. 어떤 '영감'이겠느냐? 이른바 따옴표가 붙은 '영감'이다. 이 '영감'에 따옴표가 붙었으니, 그렇다면 다밍이 가리키는 길은 어떻겠느냐? 너희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지 않느냐? 약간 미지수이다.

어느 날, 다밍이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준 후, 매우 엄숙하게 샤오밍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묻자, 샤오밍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들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재난을 당하지 않으며,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샤오밍의 말이 맞느냐? 아이의 어린 마음에, 샤오밍이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샤오밍의 인식은 매우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얕지만, 샤오밍의 입장에서는 이미 매우 심오한 것이다. 다밍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위안도 받았다. "잘했어. 샤오밍이 수확을 얻었구나. 보아하니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조금 생겼네. 아빠는 아주 기쁘고 위안도 받았단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일까?" 샤오밍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한 것이 이런 것들 아닌가요? 또 뭐가 있나요?" 아빠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들만이 아니란다.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형제자매가 와도 인사할 줄도 모르는구나. 앞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부르고, 젊은 사람을 만나면 삼촌이나 이모, 또는 형이나 누나라고 불러야 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아이여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단다. 앞으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내가 부르라는 대로 그대로 부르는 거야." 샤오밍은 아빠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아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어린 마음에 아빠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보다 많이 읽었고, 아는 것도 자기보다 많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분명 자기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아빠가 말한 것은 분명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샤오밍은 진리란 무엇인지, 도리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은 알고 있었다. 아빠가 말을 마친 후, 샤오밍 마음속에도 이 일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겼다. 그 후, 샤오밍은 매번 아빠와 외출할 때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아빠가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면 "이모, 안녕하세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삼촌."이라고 인사했다. 사람들이 다들 샤오밍을 착한 아이이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으며, 이와 동시에 또 다밍이 아이 교육을 잘한다고 칭찬했다. 샤오밍은 매우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빠가 가르쳐 준 게 정말 맞아. 다들 날 좋아해.' 샤오밍은 매우 흐뭇했고 자부심을 느꼈으며, 아빠가 알려 준 길이 정말 좋고 옳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샤오밍이 학교에서 막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옆집 장 노인이 이만큼 큰 물고기를 낚았는데..." 샤오밍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말했다. "샤오밍, '장 노인'이라니, 네가 그렇게 부르면 되겠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장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너한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니,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너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봐봐,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널 도와주고 일깨워 줄게. '장 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기억했니?" 샤오밍은 생각을 좀 하다가 "'장 씨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라고 하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옆집 장 씨 할아버지께서 이만큼 큰 물고기를 낚으셔서 장 노파가 무척 기뻐했어요!" "너 또 잊었구나? 너도 참, 아직도 철이 없네. 방금 너한테 말했잖아. '장 노인'이 아니라 '장 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장 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같은 항렬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까? '장 씨 할머니'라고 불러야 해. 앞으로 잘 기억해 둬. 다시는 장 노인이나 장 노파라고 불러서는 안 돼. 남들이 들으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니? 우리가 예의범절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고 사람들이 흉볼 거야.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원래 샤오밍은 신나서 아빠에게 장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결국에는 아빠에게 이렇게 혼나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고, 말도 하기 싫었다. 그래서 책가방을 메고는 고개를 돌려 가버렸고, 걸어가면서 중얼거렸다. "아빠만 뭐든 다 알지 뭐. 장 씨 할아버지, 장 씨 할머니라니. 우리랑 무슨 관계라고? 아빠만 영적이지 뭐!" 다밍이 말했다. "내가 영적인 것은 맞잖아! 보통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이든, 난 그 사람의 나이만 보고도 연배를 알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아.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전부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데, 넌 어째서 호칭조차 부르지 않는 거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걸 잊어선 안 돼. 위아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샤오밍은 꾸중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빠가 옳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하는 건 모두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했다. 그 이후로 샤오밍은 장 노인 부부를 만날 때면 장 씨 할아버지, 장 씨 할머니라고 불렀다. 샤오밍은 아빠가 가르치고 주입한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었다. 이것이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냐?

어느 날, 샤오밍은 아빠와 산책을 하다가 늙은 암퇘지 한 마리가 새끼 돼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무척이나 가까워 보였다. 샤오밍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모두 좋고, 돼지든 개든 모성애가 있으며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오밍은 이번에는 경솔하고 예의 없이 '늙은 암퇘지'라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아빠가 화를 낼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샤오밍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 어미 돼지는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새끼를 이렇게나 많이 낳았는데 제가 이 돼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다밍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 참 말하기 어렵구나." 아빠가 한참을 고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샤오밍은 아빠를 원망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셨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어째서 이것도 모르시나요?" 아빠는 샤오밍의 말에 조급해져 "외할머니라고 부르던지."라고 말했다. 샤오밍이 부르기도 전에 다밍은 약간 생각하더니 또 말했다. "외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외할머니라고 하면 네 외할머니와 같은 항렬이 되는 거잖아? '돼지 할머니'는 더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와 같은 항렬이 되니까. 이렇게나 많은 새끼를 낳았으니, 돼지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고 항렬도 맞게 '돼지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해."

샤오밍은 이 말을 듣고 돼지에게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하며 "돼지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늙은 암퇘지는 깜짝 놀랐고, 놀란 돼지들은 모두 뛰어 달아났다. 샤오밍은 이를 보고 잘못 부른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다밍은 "돼지는 분명 기쁘고 흥분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해.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은 돼지도 좋아한단다."라고 했다. 이 일을 통해 샤오밍은 또 하나를 배웠다. 무엇을 배웠겠느냐?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이 서로 존중하고, 예의와 항렬을 차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면, 만물이 모두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샤오밍은 이 도리를 이해했다.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샤오밍에게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때 이후로, 샤오밍은 더욱더 매너를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어디에서나 단정하고 예의 발랐기에 특별해 보였다. 이것이 '착한 아이' 아니겠느냐? 따옴표가 붙은 '착한 아이' 말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이 이야기는 어떠하냐? 꽤나 우습지 않으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겠느냐? 현실 생활 속 사람의 말과 행동, 사상 관점에서 추출해 이렇게 작은 이야기로 압축해 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문제를 말하느냐? 이야기 속에서 너희는 다밍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였느냐? 샤오밍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다밍에게 있는 문제의 본질은 또 무엇이냐? 우선,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다밍이 도출해 내고 행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행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관념과 상상입니다.) 그의 그 관념과 상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전통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 근원은 전통문화이다. 그것은 전통문화에 전염되고 물들고 교육받은 산물이다. 그는 전통문화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긍정적이며 정수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져와 포장한 후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로 둔갑시켜 아들에게 실행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편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아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밍의 문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공을 들이지 않은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의 전통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면의 그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찾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밍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관념과 상상입니다.) 관념과 상상에 의지한다는 것, 이는 공허한 말이다. 사실 그는 전통문화로 살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진리로 삼은 것이다. 그가 전통문화로 살고 있는 것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그가 왜 샤오밍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하라고 요구했겠느냐? (그는 겉으로는 그런 좋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아이 교육을 잘 시킨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다. 이것이 그의 의도이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그의 체면을 세워 주는 일을 하여 그의 개인적인 허영심을 만족시키게 했다. 이 또한 한 가지 측면의 문제이다. 늘 행위적인 면에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걷는 길에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다. 늘 행위를 포장하는 데 집중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받들며

칭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이는 외식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행동 방식이다. 표면적으로 좋은 행위를 보이는 것과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행위 면에서 공을 들이는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읽었고 공도 꽤 많이 들였는데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고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든지 간에, 내가 남들이 비교적 동조하고 칭찬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게 하는 말, 방법, 행위를 도출해 내고, 그다음 실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살아 내고 지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자지.'라고 생각한다.

너희에게는 다밍과 같은 문제가 없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눈에 띄게 규범을 지키고 항렬을 따지며, 노인 공경이나 아이 사랑, 장유유서를 강조하는 것 외에 이와 비슷한 행위나 사상 관점, 인식이 있지는 않으냐? 너희 스스로 그것을 파헤치고 해부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교회에 연장자, 혹은 하나님을 믿은 햇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너는 마음속으로 늘 그의 체면을 지켜 주고 싶어 한다. 말을 할 때 그가 먼저 말을 끝마치도록 해 주고,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해도 끊지 않으며,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책망과 훈계를 해야 할 때도 그의 체면을 지켜 주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무라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엉망으로 일을 해도 모두가 그를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는 또 늘 "어르신의 체면을 지켜 드려야죠. 그분들 체면이 깎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아랫사람이잖아요."라며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 '손아랫사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전통문화입니다.) 전통문화 사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또한, 교회에 나이가 좀 많은 형제자매를 만나면 '형', '누나', '이모' 또는 '연세 많은 형제'라고 부르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한 가족처럼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그들을 각별히 존중하여 어느새 사람 마음속에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것들은 중국인의 사상과 뼛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 교회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만연해 분위기를 형성한다. 사람은 늘 이러한 것들에 제약받고 통제받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며 열심히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친다. 전통문화는 진리가 아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통문화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그만이겠느냐? 전통문화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이다. 어째서 그것을 해부하려고 하겠느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전통문화를 해부하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측면의 이론과 사상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새롭게 인지할 수 있겠느냐? 먼저 전통문화가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그런 전통문화를 사람의 내면에 주입했겠느냐? 사탄은 매 시기마다 유명 인사나 위인을 통해 이러한 사상들을 전파하고, 이러한 이른바 견해와 이론을 전파한다. 그런 다음 점차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점점 사람의 생활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사람 사이에 퍼트려 이러한 사탄의 사상, 견해, 이론을 조금씩 사람의 사상 속에 주입한다. 이러한 것들이 주입되면, 사람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이런 사상과 이론들을 인류가

마땅히 실행하고 지켜야 하는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사람의 사상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인류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물들고 통제되며,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각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전통문화가 옳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누구도 이런 이른바 '좋은 것', '옳은 것'의 출처와 근원이 어디인지 해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도 이것들이 옳고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삼종사덕(三從四德)이나 인의예지신 등 소위 전통 사상과 전통문화를 버릴 수는 없어. 이것들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선조들은 성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선조들의 가르침을 어겨서는 안 돼. 옛 선조들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버려서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런 전통문화의 것들에 통제되며 결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20 여 세쯤 된 너를 보고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해 보자. 너는 무척 기쁘고 흐뭇할 것이다. 반면, 직접 네 이름을 불렀다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아이는 예의를 모른다느니, 교육을 받아야 한다느니 생각하며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사실, 너를 삼촌이라고 부르든 네 이름을 부르든, 네 인격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통문화에 지배되고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네 내면에 먼저 자리 잡아 네가 사람과 일을 대하고 모든 사물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었다. 기준이 틀렸을 때 네 행동의 성질이 옳을 리 있겠느냐? 분명 옳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로 판단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 부르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너를 욕하거나 모욕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이는 인성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만약 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는 하나님에게서 온 문화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네 이름을 부르든 아니면 너를 삼촌이나 형으로 부르든 너는 절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풍습을 따라도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누군가 너를 삼촌이라고 하면 그것이 너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방에 가면 그 호칭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네 이름을 부르면 아주 좋다고, 그것은 너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중국이라면, 너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이 네 이름을 부를 경우 기분이 나빠져서 위아래가 없다고, 큰 모욕을 당했다고 여길 것이다. 너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그 일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문제이다.

나라마다, 인종마다 각자의 전통문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전통문화를 비판해야겠느냐? 비판해서는 안 되는 문화가 하나 있다. 어떤 문화인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와 함께 지낼 때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맞다. 이름을 직접 불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별칭이자 호칭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별칭을 주었고, 바로 그 별칭으로 너를 불렀다. 이는 일종의 존중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가장 큰 존중이며, 가장 진리에 부합하고 가장 긍정적인 존중이다. 이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일종의 문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권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름과 별칭을 주고, 그 별칭으로 너를 대표하고 부른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녀의 이름을 짓게 했다. 아담은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렀느냐? 불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문화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의 별칭을 지어 주었다. 그 별칭을 부를 때 인류와 하나님 모두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알면 된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자 평등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가 예의를 아는지, 인성 안에 규범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정확합니다.) 이것이 정확하다. 성경에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든 혹은 어떤 가족의 족보를 기록하든 인물들마다 이름과 별칭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또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의 호칭은 없다는 것이다. 전부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정해 준 규율이든 법칙이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인류가 계승해 온 전통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항렬에 따른 존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삼촌, 큰이모, 작은이모, 큰고모, 작은고모 등과 같은 복잡한 호칭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늘 이런 항렬과 호칭을 따지니, 이는 어떤 의미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장 혐오하는데, 사탄에 속한 부류가 늘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전통문화만 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점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창조했기에, 한 사람 밑에 얼마나 많은 가족과 후손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항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단지 자손이 번성하라고, 가문이 흥성하라고 했을 뿐이니, 그저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면 된다. 각각의 세대가 얼마나 많은 후손을 두었는지, 그리고 그 후손이 또 얼마나 많은 후손을 두었는지 그것뿐이며 항렬이 필요 없다. 후손들도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사당이나 절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와 제사를 드렸다. 중국의 집집마다 사당이 있고, 사당 안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패로 가득 찬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발원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 장소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은 사탄과 악령에게 통제되었으며, 이런 불교 국가에서는 사탄에 속한 것이 특히나 성행했다. 사람들은 늘 조상에게 절을 해야 했으며, 모든 일을 가문에 물어봐야 했고, 조상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심지어 조상의 유골조차 남아 있지 않아도 향을 피우고 절을 해야 했다. 근대에 서양의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전통적인 가문의 속박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가문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가문에 의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느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가문의 어른들이 다 와서 간섭했으며,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 사탄이 사람에게 항렬을 따지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람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항렬이 있어요. 맨 위 항렬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죠. '조(祖)'자가 붙으면, 신을 대하듯이 무릎 꿇고 절해야 해요."라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문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물들며, 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린 마음에 어떤 한 가지가 주입되게 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가문을 떠나서는 안 되며, 가문을 떠나거나 가문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은 대역무도한 짓이라는 것이다. 대역무도가 암시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네가 가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자이며, 불효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중국인은 항렬, 그리고 삼종사덕, 삼강오상(三綱五常)과 같은 것들에 심각하게 물들고, 전염되고, 통제되었다. 젊은이가 나이가 약간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삼촌'이나 '이모',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항상 예의와 교양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네가 이 집단과 이 사회에서 저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네가 규범을 모르고, 교양도 없으며, 장래성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고 위장을 할 줄 알고, 말도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하며, 듣기 좋은 말도 잘하는데, 네가 '삼촌'이나 '이모'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면 남들에게 교양 없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를 가든 무시당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이런 사상을 주입받는다. 아이가 사람을 보고도 호칭을 부를 줄 모르면 부모에게 심하게 혼나거나 맞기도 한다. 어떤 부모는 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누가 너보고 예의 없이 굴래? 못난 데다가 교양도 없으니, 차라리 때려죽여 버리겠어! 너 때문에 망신만 당하잖아. 남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 아이가 사람을 보고 호칭을 부를 줄 모른다고 부모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지나치게 문제 삼아 아이를 심하게 때린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교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의식할 수 있겠느냐? 실생활 속에서 어떠한 현상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꿰뚫어 보고 인생의 방향과 네가 걷는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깨닫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옳은 것으로, 조금의 틀림도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 사람의 관념에 아무리 부합하고, 사람의 입맛에 아무리 맞으며,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의 생각을 트이게 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이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진리를 얻게 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의 사상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또는 국가와 사회 환경이 교육하고 영향을 주어 만들어 낸 사상 관점, 각종 인식과 대체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자신도 해부해 보아라. 오늘은 한 측면의 예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전통문화의 것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렬을 따지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또 항렬의 문제뿐 아니라 전통문화에 빠지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다. 부모님은 그대로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이며, 이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호칭이다. 마치 너의 부모가 너를 '아이' 또는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주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느냐? 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냐? (사람이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다. 자기가 함부로 지어내면 안 된다. 사람은 항상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 내려 한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일련의 주장과 이론을 만들어 내고, 또 일련의 행동 방식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 결과 몇 년간 실행하면서 성과가 있든 없든 그냥 그렇게 죽어라 고수하고는 자신이 매우 어질고, 의롭고, 선량하다고, 자신이 살아 낸 바가 매우 훌륭해 남들이 무척이나 칭찬하고 우러러본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점점 더 자기가 위대하다고 느끼게 된다.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했는지, 각각의 일을 할 때의 원칙은 무엇인지,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맡긴 것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결코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것만 궁리한다. 이것이 사악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무릇 겉으로는 매우 온화하고, 행동이 단정하며,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입만 열면 인의예지신을 이야기하고, 유식한 단어를 구사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관찰하여라. 만약 그가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외식하는 위선자이다. 바로 다밍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며,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좋은 행위에만 집중하고, 좋은 행위로 남을 속여 칭찬과 우러름을 얻어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이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실행할 수 없겠느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에 겉으로 좋아 보이는 행위와 사람이 좋게 보는 것들을 진리로 여겨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니다. 그가 아무리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몇 가지 분명한 일 처리 원칙은 그도 알지 않겠느냐? 그가 본분을 이행할 때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면, 그가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진리를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우리는 요즘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행위와 일 처리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는지 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아라. 네가 아무리 교제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설령 자신과 맞춰져도 고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없으며,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지 살펴보아라. 너희는 이런 사람을 발견하였느냐? 발견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어떤 사람은 리더 일꾼을 하다가 교체되었겠느냐? 바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도리를 다 알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아무리 진리 원칙을 교제해 주어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 자기의 견해만 고수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니, 이런 리더 일꾼은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체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는 그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만약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러면 골치가 아파진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일깨움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첫째, 사람에게는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상과 내면 깊은 곳이 결코 공백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은 자신이 좋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해 지키기 쉬우며, 성경 지식과 영적인 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실행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한 후, 너희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인식, 생각, 계획을 갖게 되었느냐? (앞으로 일을 할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와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 원칙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한 것이 진리 실행임을, 하나님을 믿으며 걷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을 들여야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 네가 생각해 낸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진리가 아니다. 설령 네가 행한 일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옳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끄집어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검증하거나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100% 틀림이 없겠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네가 진리 원칙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의 근원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어쩌면 실행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의 행동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진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긍정적인 사물도 아니다.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정죄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하나님께 혐오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정적인 사물이며,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천천히 체험해 보아라.

오늘 한 가지 일을 진지하게 비판하였는데, 무슨 일을 비판하였느냐? 늙은 암퇘지를 '아주머니'라고 부른 일이다. 그렇지 않으냐? 돼지를 '돼지 아주머니'라고 부르다니, 이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은 늘 존칭을 두고 싶어 하는데, 존칭의 '존'자는 어디에서 온 것이겠느냐? '존'자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항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항상 남들의 손윗사람이 되려 하고, 늘 항렬을 따지고 싶어 하는데, 이는 좋은 것이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항렬을 따지는 것이 어째서 좋지 않으냐? 항렬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 네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항렬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째서 함부로 항렬을 따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교양 있는

척하는군요. 당신은 본분을 이행할 때 전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니, 팔이 완전히 밖으로 굽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요. 그런데도 좋은 사람인 척하다니요!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됩니다.) 그럼 좀 더 엄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느냐?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신이 바로 어리석은 돼지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뭘 사칭하는 겁니까? 당신은 공부도 했고, 교양도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진리 실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러니 어리석은 돼지이자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교제하도록 하겠다.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1.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제 5 조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통제한다'는 것에 관해 교제했다. 오늘은 제 6 조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것이 제 5 조와 차이가 있겠느냐? 성품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일 처리할 때는 언제나 권력을 잡으려 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성품은 사악하고, 교만하고, 강퍅하고, 흉악하다. 성품은 동일하지만, 제 6 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두드러진 모습, 바로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일을 처리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기이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기이함'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이겠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이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기이한 일을 했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일 처리가 기이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느냐, 나쁜 사람이겠느냐? 사람들의 인상과 느낌에 일 처리가 기이한 사람은 별로 좋은 작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기이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일은 기뻐할 만한 일이겠느냐, 아니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겠느냐?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입니다.)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기이함'은 부정적 단어이다. 어떤 일을 묘사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일 처리 방식을 묘사하든 모두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기이함'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다. 어째서 '간사함'이 아닌 '기이함'이라고 하겠느냐? 여기에서 '기이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기이함'은 '간사함'보다 그 정도가 더 깊다.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사람을 간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매우 분명하다. 그럼 너희가 이해한 말로 '기이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아라. '기이하다'에서 '기(원문: 詭)'는 음험하고 간교함을 의미한다. '이(원문: 異)'는 이상하다는 뜻이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음험하고 간교하며 행위가 몹시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상하다는 것은 깊이 숨긴 채 드러내지 않아 일반인은 종잡을 수

없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 부류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동기 그리고 출발점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때로는 그 행위마저 수상쩍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기이함의 실제 모습과 상태를 형용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바로 어떤 일을 하려는 그의 속셈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알아차리거나 느꼈을 때 매우 두려운데 시간이 짧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동기나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없으면, 너는 부지중에 그의 일 처리가 매우 기이하다고 느낄 것이다. 어째서 그런 느낌을 받겠느냐? 그의 언행은 누구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는 항상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빗대어 말한다. 결국에는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체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늘 우롱당하고 농락당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이 부류 사람들의 일 처리에 투명성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명확히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그의 성품이 간사하고 음험하며 또 사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기이하다'는 단어는 매우 심오해 딱 들어도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왜 '투명성이 없다'는 단순한 말로 설명하려 하겠느냐? 투명성이 없다는 말에는 내포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네게 거짓 이미지를 보여 주어 그를 간파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 왼쪽 뺨을 때리려 한다면, 그는 네 오른쪽 뺨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오른쪽 뺨을 피하는 순간 그는 정확히 네 왼쪽 뺨을 치게 된다. 그렇게 그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기이함'인데, 전부 계략이다. 다시 말해, 그와 함께 지내고 왕래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 음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항상 남들을 음해하겠느냐? 남을 통제하고, 남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 외에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 밖에, 이런 사람에게서 사악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특히 다른 이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거나 자신의 장점으로 다른 이들의 단점을 놀리면서 이를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악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에게 꿍꿍이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꿍꿍이가 있지, 젊은 사람들은 경력이 많지 않은 데다가 처세 경험도 없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선천적으로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을 때는 이런 수단들을 써도 저급하고 서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빈틈이 없어진다. 늙은 마왕들처럼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서 대부분 사람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앞에서 '기이하다'는 단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 이제 '기이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와 모습을 보이는지 교제하겠다. 이것이 교제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교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겠느냐? 밝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100% 분별하지 못하고 밝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약아빠져 네가

어리석게 이용당할지도 모르니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들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과 표출하는 어떤 언행이 그들의 기이한 일 처리와 사악한 성품을 보여 주겠느냐? 이는 교제할 가치가 있다. '기이함'이라는 단어만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전만 좀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를 대충 알 수 있으니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사람의 어떤 행위와 성품이 이 단어와 연관이 있고 이 단어의 구체적인 모습과 상태인지에 관련해 이는 좀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먼저 너희가 보고 접한 사람들,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적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아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들의 일 처리 성질이 기이함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느냐? 또는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어떤 언행이 기이함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느냐? (예전에 저는 한 적그리스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위를 빼앗으려 하고 리더가 되려고 했지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어요. 거짓 리더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교회 사역을 지켜야 해요." 그는 교회 사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리더 일꾼의 약점을 잡고 이를 크게 부풀려 형제자매가 리더 일꾼을 고발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리더 일꾼을 끌어내려 자신이 리더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가 분별력이 없어 그에게 미혹되었으며, 또한 원칙에 따라 문제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리더 일꾼의 사소한 문제와 패괴 표출을 물고 늘어져서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고, 확대 해석했고, 그 결과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것이 기이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 어째서 기이하다고 하겠느냐? 정의의 깃발을 내걸고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이루며,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행하도록 하면 그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성과를 지켜볼 수 있다. 마지막에 일이 성사되면 더 좋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그가 깊이 숨어 있어 아무도 그를 간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기이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모습이다. 즉,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생각을 네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조금이라도 추측해 내면, 그는 얼른 온갖 핑계와 주장을 내세워 애써 은폐하고 변호할 것이다. 남들이 진상을 간파할까 봐 두려워 일부러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또 있느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적그리스도 무리가 나타나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사람을 보내 사역을 인수했지만, 그 적그리스도 무리는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리더가 있으니 외부에서 파견한 리더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희끼리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결국,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다들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고 상부에서 파견한 리더를 거부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은 또 상부에서 파견한 사람을 한 곳에 연금시켜 형제자매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 사역에 간여할 수 없었으며, 사역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은 매우 기이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숨겨진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교회를 통제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이함이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일 처리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나는 투명성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린다면, 그 일이 이뤄지겠느냐?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일 처리할 때 기이한 수단을 쓰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그렇게 일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그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은 교회나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한 교회나 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미혹하는 것은 비교적 큰일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평소에 작은 행위를 보이고 일을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 목적은 사람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힘을 들이게 하고, 그의 이익을 충족시키며, 그에게 부림을 당하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 적그리스도도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싶어 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가 너를 지배하고 싶다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네가 동의하겠느냐? 그가 너를 노예로 삼아 부리고 싶다고 말한다면 네가 동의하겠느냐? 너에게 그가 리더이니 네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네가 동의하겠느냐? 너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한 수단을 써서 네가 모르는 새에 이용당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예를 들어 보자. 큰 붉은 용은 일 처리가 특히나 기이해서 늘 정당한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싶을 때 큰 붉은 용은 어떻게 하겠느냐? 정책을 명문으로 규정해서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공유화한다고 하겠느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방식을 찾아 정정당당하게 지주와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유화한다. 그렇게 지주와 자본가들은 세력을 잃고, 국가는 부유해지며, 그들의 통치는 공고해진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토호를 때려잡고 농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토호를 때려잡고 농지를 나눠 갖자', '만인은 평등하다' 등 기치를 내세운 후 '백모녀(白毛女)'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 모든 지주와 자본가들을 모함하고 정죄했다. 여론 선전의 힘을 이용해 인민에게 이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을 주입시킨 후, 내막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지주와 자본가는 나쁘다고, 힘들게 일하는 서민들과 평등하지 않다고, 이제 인민들이 주인이 되었으니 국가는 인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소수의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니 마땅히 가져와 국유화하고 모두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이다. 이른바 좋고, 올바르며,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이런 사상과 이론의 선동 아래, 사람들은 모두 미혹되고 눈이 가려져, 토호를 때려잡고 지주 및 자본가와 투쟁하기 시작했다. 결국 결과가 어떠하였느냐? 지주와 자본가 중 일부는 맞아 죽거나 불구가 되었고, 일부는 외국으로 도망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후의 결과는 바로 큰 붉은 용의 뜻대로 되었다. 우매하고 무지한 대중이 이 같은 사기극 속에서 점차 인도되어 마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 또한 이와 유사한 기이한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리더를 할 때, 상대방이 정의감도 있고, 진리도 깨닫고,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속으로 불안해하며 '저자가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뒤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 것 아냐? 나는 왜 저 사람을 간파하지 못하겠지? 저 사람이 나와 한마음일까? 나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괴롭히지만, 기이한 부류의 사람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 그는 먼저 비교적 나약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일부 형제자매를 찾아가 물어보며 의견을 떠본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거의 10 년 동안 믿었으니 기초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가정과 일도 다 버렸어요. 저희보다 믿음이 더 큽니다. 그와 협력하면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기는 한데, 그는 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저희보다 진리를 더 잘 추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수다를 떨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배우는 데 사용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요."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동조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말꼬리를 돌린다. "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서 우리보다 체험이 많으니, 앞으로 그와 많이 접촉해야 해요. 그를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그다지 분별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대부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동조하여 자신의 속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그 후 그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아가 말한다. "여러분이 보기에 누구누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나요? 어째서 저는 그가 항상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겉으로 행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궁리한다.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보구나. 이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라는 거고, 그를 배척하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그는 쓸데없이 바빠요.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요. 어쩌다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졸더군요.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부터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에게까지 적그리스도가 한 말에는 어떤 성품이 들어 있느냐? 사악함이 들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의 일 처리 성질과 수단은 어떤 것이냐? 기이함이다. 첫 번째 무리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두 번째 무리 사람들은 낌새를 챘지만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는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이 그에게 동조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회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무리의 사람을 통해 그의 동역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기이하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은 그의 말 몇 마디에 미혹되고 회유되어 말한다. "그 사람은 교회 리더로서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음 리더 선거에서는 다들 그를 뽑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매우 교활해서, 이 말을 하고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살핀다. 적그리스도가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불공평해요. 여기는 하나님 집이지 사회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다음번에도 그에게 투표해야겠네요."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즉시 말한다. "투표도 안 됩니다." 보아라, 무슨 말을 해도 다 옳지 않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 이들을 자신의 길로 이끌려는 것이고, 함정을 파서 빠트리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계속 듣다가 의도를 알아내고 "그렇다면 공정하게 뽑읍시다. 어차피 그는 사람이 별로여서 결국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뻐한다. 보아라, 하나는 낭(狼), 하나는 패(狽), 낭과 패가 결탁하여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의 일 처리 원칙과 성질이다.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다. 그들이 "그럼 선거를 하죠. 어차피 그는 사람이 별로라서, 선거를 해도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겠느냐? 그들이 일을 꾸미지 않겠느냐?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낌새를 눈치챘지만, 누구도 직설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어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말하며 그 사람을 뽑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아랫사람들도 "우리는 그를 뽑지 않고 당신을 뽑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째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기이하지 않으냐? 이는 극도로 사악한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다들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들어도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결국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를 사탄의 대화라고 한다. 그들 중 '바보' 하나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대체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건지 뽑지 말라는 건지 물으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만약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말은 너무 노골적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협과 유도의 성질을 띤다. 사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에 사역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뽑아야 할 사람은 뽑고,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안 뽑아야지요."라고 말한다. 이 말이 애매하지 않으냐? 그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지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칙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지요."라는 그럴싸한 기치를 내세운다. 이에 그 '바보'는 "원칙대로 하면 뽑아야겠죠."라고 말한다. 그가 멍청해 자신들의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무리는 힘을 모아 그를 내치고 그가 자신들 사이에 있지 못하게 한다. 결국 그 '바보'는 대체 뽑으라는 건지, 뽑지 말라는 건지 또 물어본다. 누군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죠. 그 사람 하는 걸 봐서 결정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 규정이 있느냐? 정직한 성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체 무엇이 담겨 있겠느냐? 이 말 속에는 사악한 성품,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 속셈, 목적이 담겨 있다. 그 안에는 낭과 패가 계획한 음모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 무리는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 자신의 사악한 성품에 지배받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직속상관인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 사람을 뽑는다면, 적그리스도가 알게 되는 날에는 그들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그를 뽑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른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화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따라간다. 진리 원칙이라든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은 전부 내팽개쳐 버린다.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을 행하기만 하면 바로 일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한다. 혼자서 외롭게 일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도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일 처리 모습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기이함'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는 일을 처리할 때 그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너에게 알려 주지 않고, 네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네가 발견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은폐하고, 다양한 수단을 써서 너를 미혹함으로써 그에 대한 너의 견해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부분이다. 만약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드러내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며,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알게 한다면, 이는 기이한 것이겠느냐? 이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어리석음입니다.) 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만해서 이성을 잃은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일 처리가 기이한데, 어떤 부분이 기이하겠느냐? 바로 그는 항상 수단을 써서 일을 처리하고, 말에 빈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속셈과 목적을 추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부하나 청중이 자신의 뜻을 알아차리게 한다. 사람들은 그의 뜻을 이해한 후, 그의 의도와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그의 명령을 집행한다. 결국에 일이 성사되면 그는 당연히 기뻐하지만, 성사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의 약점을 잡을 수 없고, 또 그의 일 처리 동기, 속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꿰뚫어 볼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며, 주로 내면에 음모와 은밀한 목적을 숨기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기이한 일 처리의 본질이다. 기이함,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짐작할 수 없는 더 큰 속셈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기이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간사함일 뿐, 기이함이라고 할 수 없다. 기이함은 간사함보다 어떤 점에서 깊이가 있겠느냐? (사람이 짐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짐작하기 어렵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맞다. 주로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령 일부 사람이 그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가 대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악인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서도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미혹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잔꾀를 쓰기 좋아한다. 이는 단지 간사함일 뿐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인 간사한 사람보다 훨씬 음험하여, 마치 마왕처럼 아무도 그의 일 처리를 짐작할 수 없다. 그가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사람을 해쳐도 사람은 여전히 그의 공적과 덕을 찬양한다. 이것을 기이함이라고 한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리더가 상부와 접촉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부에서 그에게 하나님 집의 몇 가지 사역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사역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하달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가서 자랑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예배에서 엄숙하게 교제하다가 교제 중에 갑자기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말을 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에 이르러 각 단계가 완료되었고,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복음을 확장해야 하니, 우리가 복음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복음팀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저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 상부에서 사역지침을 내려 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선견지명이 있군!' 이는 그를 숭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즉시 달라졌다. 그는 그저 복음팀을 구성한다고만 말했을 뿐, 그 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그저 공허한

구호만 외쳤다. 물론 그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기에 공허한 구호를 외친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도록 자신을 과시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부의 사역지침이 내려왔고, 형제자매들은 이를 보고 매우 놀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선지자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당신은 정말 우리보다 진리를 더 깨달았고, 우리보다 분량이 크네요. 우리는 분량이 너무 작아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어 당신이 얘기했는데도 둔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보세요, 당신이 교제한 내용이 상부의 사역지침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 논의도 없었는데 일치하다니, 검증이 되었군요." 이 일을 통해 다들 그를 더 숭배하게 되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수준의 숭배가 아니라 무척 고분고분하여 거의 무릎 꿇고 절을 할 정도였다. 이 일은 일반인이 모른다. 만약 그가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일을 그는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만했다. 이런 행동 방식은 기이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속이겠느냐? 어째서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대체 어떤 생각을 한 것이겠느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부류로 보고,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기를 원했다. 이것이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일처리가 역겹고, 염치를 모른다. 이는 기이함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기이할 뿐만 아니라 조금은 역겹기도 하다.

적그리스도 중 어떤 부류의 경우, 아무도 그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모두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옳다고 여기고 동조한다. 그는 늘 미소를 띠고 보살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누구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릇된 일을 해도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포용한다. 교회에서 행정 법령을 거스르고, 방해하고 교란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어도 처분을 내리는 법이 없다.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겠느냐? 둘 다 아니다. 그는 볼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내보내 일단 교회가 평온해지면, 모두가 정직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니, 나를 분별하기도 쉬울 거야. 그럼 나는 아마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남겨 두어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며, 교란하는 자는 계속 교란하게 한다. 교회가 안정을 찾지 못할 정도로 교란하면 그의 지위는 지킬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출교하거나 처분을 내리거나 격리하거나 교체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점이나 패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실수하지 않겠어요?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형제자매들이 곰곰이 생각한 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오가 있거나 우매하고 무지해도 포용하겠지만, 악인을 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악인이니까요."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어째서 악인입니까? 어쩌다 한 번 모진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인이며 방화를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지요." 사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그가 악인이라고? 그가 나보다 악할까? 너는 내가 한 일을 보지 못했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해.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떻게든 나를 정리해 내보내려 하겠지? 그를 처리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할 거야. 누가 처분을 내리면, 내가 처분을 내린 사람에게 화를 내고 가만히 있지 않겠어! 누가 그를 처분하면 내가 처분을 내린 사람을 출교시킬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으로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먼저 상대를 달래고 상황을 진정시켜 자신에게 그 교회를 이끌고 여러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의 지위가 공고해지지 않겠느냐? 그의 지위가 공고해지면 그의 밥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이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이 부류의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고,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는다. 상부에서 뭔가를 시키면 대충 과정은 밟는다. 교부해야 하는 책이 있으면 교부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꼬박꼬박 예배도 드린다. 예배 시간에 교제할 때는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일도 없다. 표면적으로 매우 완벽하고 모난 데가 없어서 누구도 그의 허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즉, 그는 악인에게 처분을 내리는 법이 없고, 오히려 악인을 보호하고 일관되게 감싸 주며 지켜 준다는 것이다. 기이하지 않으냐? 여기에서 그의 기이한 모습은 무엇이며,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는 절대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거짓말로 하나님 집을 기만한다. 악인이 악행을 저질러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며, 인내와 포용을 이야기한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출발점은 무엇이겠느냐? 진짜로 사람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를 포용하게 하려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세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는 악인을 정리해 내보내면 다음에 정리될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래서 그는 악인을 남겨 두어야 한다. 악인을 남겨 두면 그의 지위를 지킬 수 있지만, 악인을 정리해 내보내면 그는 끝장이 난다. 악인은 그의 보호막이자 총알받이이다. 그러므로 누가 악인을 폭로하거나 악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그 사람은 아직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힘을 쓸 수 있어요!"라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악인을 위해 변호한다.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가 마음속으로 과연 어떤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분별해 내지 못한다.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여 너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그리스도가 또 있느냐? 누가 말해 보아라. (복음팀의 책임자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복음을 전해 매달 사람을 몇 명씩 얻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사역지침을 꺼내 앞뒤 내용은 다 잘라먹고 한 부분만 왜곡해서 설명하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종파 사람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부차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그것은 사역지침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는 또 <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이런 행위를 해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자매 같은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은 지 1~2 년 된 새 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분별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침을 어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성질의 문제라 여겨 그 자매를 교체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자매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해부되고 정죄된 후에는 자신은 적그리스도이니 분명 하나님에 의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해 무척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그 적그리스도는 상부의 설교 교제를 내려보내지 않아 저희가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상부의 교제는 매우 엄하기에 새 신자인 데다가 분량도 작은 저희가 그걸 들으면 관념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희를 잘 생각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상부의 설교를 듣고 그를 분별하게 되면 저희를 통제할 방도가 없어지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속여 사람들이 그의 일 처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하며, 전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은 기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일관된 행위는 다 같으며, 조금의 차이도 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의 속셈이나 목적 또한 동일하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곧 마귀이자 악령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 같은 마귀와 악령의 기이한 일 처리를 묘사하기에 매우 적절하며, 전혀 과하지 않다.

이러한 예를 든 후, 너희도 식견을 좀 키우고,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일 처리에 대해 조금은 분별이 생기지 않았느냐? 일 처리가 기이한 것에는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의도와 동기가 있다. 이는 정상인의 행동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의 행동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 그의 행동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그는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치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거나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다. 그는 그저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들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이자 사탄의 이익이다. 너희에게 다른 예는 없느냐? (2015 년, 상부에서 사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성자'의 글을 통해 교제하며 거짓 리더를 분별하고,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라는 것이었지요. 교회에서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한 리더가 저희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고 분량도 작아 상부의 사역지침을 너무 겉핥기 식으로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측량할 수 없고, 상부의 지침에도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측면의 진리는 예전에 상부에서 많이 교제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단순히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면, 또 사역지침을 내려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 후, 그는 또 과거 상부의 사역지침과 설교 중에서 일부만 왜곡 해석하고는, 이를 몇만 자의 자료로 정리해 형제자매들을 미혹하고, '각성자'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미혹되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서 그의 악행을 발견하고 그를 분별해 낼까 봐 일부러 저희가 '각성자'를 분별하도록 오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관심 돌리기이자 성동격서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 수법이 매우 익숙하지 않으냐?

큰 붉은 용은 통치가 위태로워지는 순간, 즉 정치 체계 내부에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파업이나 반란을 벌일 때, 바로 '시선 돌리기'라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큰 붉은 용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위기가 생기기만 하면, 큰 붉은 용은 전쟁의 공포를 조성해 사람들이 애국하게 만든다.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항전 영화, 애국 영화 같은 것들을 상영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려 민족 감정을 선동함으로써 시선을 돌린다. 큰 붉은 용이 이러한 짓들을 하는 데에는 다 의도가 있으며, 그 배후에는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목적이 있다. 이를 가리켜 행위가 기이하다고 한다. 적그리스도 배후의 조상은 누구겠느냐? 바로 큰 붉은 용과 마귀이다. 그들의 일 처리 성질은 마치 서로 미리 짜기라도 한 듯 완전히 똑같다. 적그리스도의 음모와 수법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느냐? 그의 조상인 마귀 사탄이 전수해 준 것이다. 그의 내면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이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건은 지진구(冀晉區)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략 2012 년 봄에 안(安) 아무개라는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는 각 교회에 숱한 궤변을 퍼트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써서 사사로이 각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난 후, 하나님 선민들이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말을 듣는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은 단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설교와 사역지침만 보면 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형제자매가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었지요. 적그리스도의 음험함은 바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을 증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포기하게 한 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기 전에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조차 다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우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되었지요.) 그는 왜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높였겠느냐?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또한 사람이다. 그가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높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다. 그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이 어떤 결과에 이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목적은 사실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며, 그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높이면 분명 모두가 불만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다들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높이게 되겠지만, 그가 직접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음험함이다. 적그리스도 안 아무개는 일 처리가 매우 기이하고, 매우 쉽게 사람을 미혹했다. 이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 사건이다. 하나님 선민은 이 적그리스도 사례에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점이 무엇인지, 그가 흔히 어떤

방식과 수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결과에 이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누가 또 예를 들어 보아라.

(하나님, 저도 적그리스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건은 허난(河南) 대교구에서 발생했습니다. 2011 년경, 적그리스도 위(餘) 아무개는 교체된 거짓 리더였는데, 약간의 은사와 사역 경험이 있었기에 교회에서 그녀에게 정리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상부에서는 사역지침을 하나 내려보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철저히 폭로하고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위를 좋아하는 위 아무개는 그 기회를 빌려 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역지침을 시행한다는 기치 아래, 성령 역사의 흐름을 따라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원칙은 교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더 일꾼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녀는 형제자매에게 리더 일꾼의 태도를 말하게 했고, 형제자매가 말한 후에는 리더 일꾼의 사역에 드러난 편차와 패괴 성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곧바로 그들을 거짓 리더로 규정하고 교체했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형제자매들에게 그녀가 그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증거하여 모두 그녀가 분별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리더 일꾼들을 제거함으로써 재기할 기회를 얻고, 계속해서 리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위 아무개에게 미혹되어 리더 일꾼의 패괴 표출과 사역 편차를 보고는 그들이 거짓 리더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각급 리더에게도 의심을 품게 되어 리더 일꾼의 사역에 정상적으로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분량이 작은 많은 리더 일꾼 또한 속박을 당하였으며, 소극적이고 경계하는 내적 상태로 살면서 본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해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였고, 십여 곳의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녀가 교회 사역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미혹된 형제자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교제와 도움으로, 일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구출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무리 교제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단호히 적그리스도를 따르려 해서 도태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되지 않았느냐? (다들 어느 정도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른 결말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해 교제했다. 이제 정리해 보자.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는 어떤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느냐?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사악함을 위주로 하는 성품이다. 그렇다면 성품이 사악한 사람은 언제나 일 처리가 기이하며, 일 처리가 기이한 사람의 성품은 모두 매우 사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추측한 것이겠느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추측한 것 같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성품이 사악한 사람은 보통 매우 기이하게 일을 처리한다.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본성 본질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히 마귀 사탄과 동일하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보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진짜 마귀 사탄, 큰 붉은

용의 일 처리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개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조차 이렇게 기이하고 수법이 고명하며 말에 빈틈이 없어 아무도 허점을 찾거나 약점을 잡지 못하는데, 마귀 사탄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 처리를 기이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일반적으로 만약 지위가 없는 사람이 평소에 남들과 소통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고, 일 처리에 투명성이 없으며,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남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을 아주 깊이 숨기고 단단히 포장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어느 정도 기이한 성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일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아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지위가 생겼을 때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간문제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한때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으며,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 보자. 그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여태까지 걷던 길을 포기할 수 있으며, 되돌아설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쉬워지며, 구원받을 희망도 생기게 된다. 이제까지 적그리스도의 기이한 일 처리 모습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음에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다루겠다.

2.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게다가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안배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남들과 교제하지 않으며, 남들과 합의하지 않고,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분 이행 시 실행해야 하는 원칙을 구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지도 않아 사람들은 흐리멍덩한 채 그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그에게 질문하려 하면, 그는 교제하기 싫어하고 설명하기도 싫어한다. 그는 이 일을 어떤 상태로 통제하고 싶어 하겠느냐? 아무도 내막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알 권리가 없으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이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참견할 권리가 없고, 그와 협력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오직 따르고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를 리더로 선출했으니 여러분은 제 소관 안에 있고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면 저를 뽑지 말아야 했어요. 저를 뽑았으니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볼 때, 형제자매와 그는 어떤 관계이겠느냐? 그는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형제자매는 옳고 그름을 분석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그를 질책하고 분별하거나 추궁하고 의혹을 품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하면 안 된다. 그가 방안, 의견, 방법을 제시하기만 하면, 모두가 손뼉 치며 찬성해야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강제성이 있지

않으냐? 이런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흉악한 성품입니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독단'은 바로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며,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바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판단과 결단을 한 후, 모두가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질문조차 해서도 안 된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일이 닥쳤을 때 그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남몰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의 파트너, 동역자, 윗선 리더조차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일관된 방식과 방법은 바로 어떤 일이 닥치든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그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째서 아무도 모르겠느냐? 그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말하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냐?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네가 알려 주지 않는 것이다. 그는 혼자서 일을 하려 하며, 그가 어떻게 할지는 자신만의 계산이 있다. 그는 무엇을 계산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이익, 지위, 명리, 명성과 같은 것들을 위주로 계산한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손상을 입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남들이 간파하지 못할지를 고민한다. 그중 핵심은 어떻게 해야 상부를 속여 결국에는 그에게 유리하고, 남들이 아무도 허점을 찾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만약 잠깐의 부주의로 말을 잘못해서 모두가 나를 꿰뚫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입을 놀려 상부에 이 일을 보고한다면, 상부에서 나를 교체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 또한,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내 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간파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간파해서 체면과 명예가 깎이는 것은 별것 아니다. 마치 이런 일들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고 별로 뚜렷한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정반대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각과 태도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가 그에게 속마음과 진실한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렵다. 심지어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어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에게 자신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말하게 하려면, 그건 더 어렵다. 그의 목숨을 빼앗아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떤 본성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두고 "강산은 쉽게 변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 지위, 체면, 그리고 그의 권력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중시한다. 네가 그와 교제하면서 "당신이 교회의 사역을 할 때, 외부의 일이든 아니면 내부의 행정 법령이나 인원 조정이든, 모든 일을 다 형제자매와 교제해야 해요.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바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교제는 잡담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 내면이 어떻게 소극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극적인 내적 상태와 거역하는 내적 상태를 분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원칙을 찾고 진리를 깨달을지를 교제하는 거예요."라고 아무리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도 그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그의 일 처리나 처신의 원칙과 방향조차 바꾸게 하지 못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가볍게 말하면 강퍅함이고, 심하게 말하면 흉악함이다. 사실 흉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 보아라. 늑대가 입에 양을 물고 있을 때는 맛있는 먹잇감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늑대에게 "토끼를 줄 테니 양을 놔주는 것에 동의하겠느냐?"라고 상의해 봤자, 늑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가 "소 한 마리를 줄 테니 동의하겠느냐?"라고 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늑대는 먼저 양을 먹고, 그다음에 소를 먹으려 할 것이다. 한 마리만 먹는 것으로는 안 되고, 늑대는 둘 다 먹으려 한다. 이는 무슨 성품이겠느냐? (탐욕스럽기 그지없고 흉악하기 그지없는 성품입니다.) 너무 흉악하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흉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는, 네가 진리를 교제하고, 책망과 훈계를 하고, 또는 타일러 이끌어도 다 소용이 없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지위에 대한 추구와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전혀 바꿀 수 없다. 네가 더 높은 지위와 이익으로 그를 매료시키지 않는 한, 그에게 있어 입에 들어온 기름진 먹잇감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바로 그가 일단 지위를 얻으면 그 기회를 통해 있는 힘껏 자신을 연기하고 과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엇을 과시하겠느냐? 자신의 다양한 특기와 은사, 자신의 출신, 학력, 신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이다. 자기가 얼마나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남을 우롱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얼마나 남을 잘 부릴 수 있는지를 떠벌리고 자랑한다. 진리와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신들이 그보다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기꺼이 그의 통제를 받는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특히 교활하다. 그들은 속내가 매우 깊으며, 최고의 사탄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쉽게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닥쳐도 쉽게 견해를 밝히지 않고,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저 각각의 사람들의 동태를 주목하고 관찰한다. 마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눈앞의 사람들을 모두 분명히 살펴보고 통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먼저 누가 자신의 사냥감이고 자신의 조수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자신이 경계해야 하는 대상인 '정적(政敵)'인지를 파악하려 한다. 그는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견해를 밝히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궁리하고 계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략에 능하고 쉽게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은 매우 음흉하지 않으냐? 그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그를 분별하겠느냐? 네가 쉽사리 그를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탄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기이하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만약 자신이 늘 말하기를 좋아하고, 늘 자신의 관점을 발표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를 깊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그의 고귀한 지위를 잃게

되어 그가 그다지도 하찮고, 무지하며,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늘 자기가 소극적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어제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오늘 또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리석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을 말하지 않으며, 마음속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말수가 적은 이유는 바로 자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단순해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말수가 적은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말하든 그는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어째서 관점을 밝히지 않는 것이겠느냐? 무엇보다 먼저 그가 분명 진리가 없어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남들이 자신을 꿰뚫어 보게 되어 자신을 무시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침묵하는 척하고, 깊이 있는 척하여 남들이 자신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뛰어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침착하고 차분한 겉모습을 보고 그를 우러러보게 되고, 전혀 그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이하고 사악한 점이다. 그는 자기 관점을 쉽게 밝히지 않는다. 그의 관점이 대부분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전부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며, 전혀 공개 석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킨다. 그도 마음속으로는 빛 비춤을 얻어 그것을 분출함으로써 남들의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없다. 그래서 진리를 교제할 때 그가 침묵하고 숨는 것이다. 마치 귀신처럼 어두운 구석에 숨어 기회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빛 비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방법을 마련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자랑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교활하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두각을 나타내고 남보다 뛰어나야 마음이 즐겁다. 만약 기회가 없다면 그는 우선 숨어 있으며,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설교를 한 편 내려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부의 교제 같다고 한다. 비교적 순진한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의견이 있어도 깊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관찰하려 한다. 어떤 주장이 많은지 보고 그 주장을 따라가려고 준비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렇게 약삭빠르고 간사한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참된 분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서도 깊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분별이 별로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을 꿰뚫어 볼까 두려워한다.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 일은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해요. 잘못 말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이다. 이것이 진실한 말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다른 사람이 자신을 꿰뚫어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주제를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비열한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역겹지 않으냐? 모두가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제가 함부로 규정할 수 없으니, 소수가 다수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그는 자신이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써서 위장하고 은폐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매우 지혜롭고 수단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며칠 후, 하나님 집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통지하면, 그는 즉시 "거봐요. 제가 뭐랬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 여러분이 나약해질까 봐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이 나약해지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리더인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정말 위장을 잘한다! 적그리스도의 말에는 모두 속셈과 목적이 있다.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자신을 자랑하려 하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려 하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좋은 일과 휘황찬란했던 과거를 과시하려 한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니,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숭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지나치게 음험하고 간사해 절대 자신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적그리스도는 일 처리와 행위가 은밀하고, 말이 애매모호하며 대부분 헛소리이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며,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한다. 더 가증스러운 점은 그가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하려 하고, 모든 일에 다 참여하려 하며, 모든 일을 다 결단 내리려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하며, 그의 주변 사람은 알 권리조차 없다는 점이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와 협력하는 사람, 그와 함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모두 그가 겉으로는 매우 충성을 다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와 여러 해를 함께 한 사람도 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또한 그가 대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일반 사람은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과 빈말이며, 모두 겉과 속이 다른 말이고,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 다 참여하고 싶어 하고, 다 결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결단을 내린 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고도 자신의 이유를 말한다. 즉, 그는 결단만 내리고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는, 자신은 또 다른 일을 참견하러 가 버린다. 그 일의 뒷부분을 누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형제자매가 이 일에 대해 분별이 있는지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니고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을 과시할 수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사역할 때 그는 단지 명령만 내려 사람들에게 규례를 지키게 하며, 자신은 권모술수만 부리고 사람을 가지고 놀기만 하면서도 스스로 득의양양해하며 자기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 선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있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라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의 본질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들의 성품이 사악하고 흉악하며, 사람에 대한 통제욕이 특히 강해서 정상인의 이성적인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이행하는 본분에 대한 그들의 인식, 견해,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진정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진정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일 처리를 할 때 원칙을 구한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이행하는 본분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가 본분을 이행할 때 표출하는 것은 어떤 성품과 본질이겠느냐? 그는 높은 위치에 서서 내려다보며 아랫사람을 대한다. 일단 리더로 선출되면 그는 자신이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본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지위를 얻은 후 그는 자신이 지위와 권력을 갖추고 신분이 남들과 다르니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명령을 내리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본분 이행하는 기회를 빌려 자신의 감투욕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강권 통치하고 이끌려는 욕망과 야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자기 말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는 모습인데, 저희 리더는 비록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표출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저희와 교제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냐? 적그리스도도 때로는 가장한다. 그는 모두와 교제를 한 후 각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아보고 파악하여 어떤 사람들이 자신과 한마음인지, 어떤 사람들이 자신과 한마음이 아닌지를 분류한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는 자기와 관계가 좋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과 한마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일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희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 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는 이런 행동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가끔 교제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제 후에는 여전히 네가 말한 대로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는 해도 사실 나는 일찌감치 생각을 정했어. 너와의 교제는 그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야. 내가 일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 주는 거지. 네 주제를 내가 모를 것 같아? 결국은 너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잖아?'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일찌감치 생각을 정했다. 그는 '난 말발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아무도 말로는 날 이기지 못해. 그러니 결국에는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만 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계산을 다 끝내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냐?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표출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성품이 내면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과 일 처리 형식을 보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성품과 일 처리 성질을 보면, 그가 바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 또한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일의 전말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는 말과 주장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종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모든 것이 다 그가 계획해 놓은 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음험한 부분이다. 이 또한 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드러운' 강요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네가 듣지 않잖아? 깨닫지 못하잖아? 내가 말해 줄게.'라고 생각한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리저리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며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돌려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모두 당신 말대로 실행해야 하고, 진지하게 굴 필요도 없어요."라고 하면, 그는 기뻐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말에 대한 분별이 없다. 너희는 분별이 있느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속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당장 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가 순종을 강요당했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관련된 원칙을 찾거나 상부에 구해도 되고, 그와 교제해도 된다.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그 일에 대해 토론하고 교제해도 된다.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네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제기하는 방안에, 또는 그들의 이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음모는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기도 한다. 모두 함께 교제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지만, 교제하지 않은 채 '이 일은 별로 큰 문제도 아닌걸.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자. 어쨌든 내가 주요 책임자도 아니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일이 터지면 그가 책임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떤 행위겠느냐? 이는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행위이다.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유다이다! 많은 사람이 권력 앞에서 결국 타협을 택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 이는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네가 적그리스도를 대하든, 아니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너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대하든 네가 선택하고 고수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느냐? 만약 자신이 한 것이 하나님 말씀 및 사역지침과 충돌하지 않고 괴리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이다. 하지만 사탄, 사악한 세력, 악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는 것은 배반 행위이며 악행이다. 이는 하나님이 증오하고 저주하는 행위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과 논쟁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반드시 제 말대로 해야 해요.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성품을 의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겠느냐? 그는 왜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려 하겠느냐? 그는 왜 일이 닥치면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냐? 왜 진리 실행 원칙을 확정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에게 진리가 없음을 증명한다. 너희는 이 말의 문제점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이다. 하지만 비교적 교활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분별할까 봐 두려워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듣기에 옳은 말을 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선민을 통제할지 고민한다.

적그리스도에겐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측면의 모습이 적지 않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행동 방식, 성품, 성질은 모든 패괴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적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 예를 들 수 있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단발이 예뻐요."라고 했는데, 네가 "단발이 뭐가 예뻐요. 저는 긴 머리가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고, 정상적인 인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싶어서 근시가 아닌데도 안경을 쓰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근시가 아닌데도 안경을 쓰네요. 그건 멋 부리는 거죠!"라고 논단하자, 그가 "멋 부리는 게 어때서요. 난 그냥 쓸 겁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이다. 기껏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일 뿐, 성품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어쩌면 며칠 쓰다가 재미없어져 안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주로 사람이 걷는 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일 처리 원칙 및 출발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생활하는데 남편이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해 보자. 집에 2 만 위안밖에 없는데,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20 만 위안짜리 차를 사서 즐기는 바람에 끼니를 때울 수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차를 산 것을 아내조차 몰랐다면, 이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느낌, 생각, 의견 또는 태도,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육적인 즐거움, 욕망, 사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본분과 관련해서는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자. 교회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옆에 길을 하나 만들어야 했다. 길의 폭이 얼마가 되어야 적절한지는 집과 마당의 크기를 봐야 했고, 미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했다. 이 집과 마당의 면적이 비교적 커서 최소 2 미터 폭의 길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책임자는 "이 일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1 미터 폭의 길을 만들죠."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매일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때로는 물건을 옮기기도 해야 하는데, 1 미터 폭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좁아요."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며 의논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결국 길을 다 만들고 나서 보니, 너무 좁아서 집과 마당과 어울리지 않았고 실용적이지도 않아 다시 길을 만들어야 했고 재공사를 했다. 다들 그 사람을 원망했다. 사실 길을 만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책임자가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며 자기 뜻대로 집행하도록 강요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는 왜 다른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겠느냐?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도 어째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바른 방식을 찾지 못하였느냐? 만약 의논할 사람이 없다면 혼자 결정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상의할 사람이 있고, 게다가 더 훌륭한 의견도 나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였느냐?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최소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어리석은 사람인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품이 지나치게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교만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간단한 일로도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하면 이성이 없어진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어떤 것들이 이성이 없겠느냐? 짐승은 이성이 없다. 사람이 이성이 없다면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판단력과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교만해 이지(理智)를 잃고 이성도 없다면, 짐승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이며, 사람의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성을 갖고 있겠느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더더욱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짐승만도 못하며, 그는 마귀이다.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매우 명확하다. 하나님은 어떤 정보를 말씀했느냐?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분명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 질문이다. "사탄"이라 했으니 호칭이 있으며, "너"가 주어이고, "어디서 왔느냐"는 문법이 정확하다. 하나님의 질문은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사탄은 뭐라고 대답하였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욥 1:7)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명언이다. 사탄의 말에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성이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자, 사탄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탄이 한 말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사탄의 말에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이성이 없다. 그렇다면 사탄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이렇게 간단한 질문조차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더더욱 알아듣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또한 이성이 없으며, 일 처리가 기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을 구해야 하고 사람들과 많이 교제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이해했다고, 알았다고 말해 놓고는 일을 할 때는 네가 그에게 했던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다! 이런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이성도 없다. 그들이 가장 이성이 없는 부분, 즉 가장 파렴치한 부분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인생의 바른길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이성이 없겠느냐? 그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사람을 택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주재할 수 있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사람이 당신께 순종하게 하고, 당신의 말을 듣게 하며, 당신이 행하실 때면 당신의 말을 듣도록 직접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의 것이냐? 사람이 너를 따르느냐?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너는 그저 작디작은 피조물 중의 하나일 뿐인데, 어째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는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 교회 리더로 선출되지만, 사실 그의 자질과 분량에 따르면 결코 그 수준에 걸맞지 않다. 이는 하나님이 높여 준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리더가 되었으니, 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높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분고분하게 굴며 엎드려 경배하지만, 난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난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지만 난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냐? 너 또한 육체를 가진 평범한 인간 아니냐? 네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다른 점은 바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는 염치와 이성이 없으니, 개만도 못하다. 너는 일할 때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다. 자신의 자질이 아무리 부족하고, 업무 효율이 아무리 낮아도 여전히 자신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고, 능력과 재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상의하여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자격이나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만해서 이성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기 전에는 꼬리를 감추고 처신하면서 자신에겐 재주와 능력이 있고, 일에 대한 야망도 있는데 기회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리더가 된 후에는 자신을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분리해 내고, 오만하게 굴기 시작한다. 꼬리가 치켜 올라가 여우 꼬리가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집은 사람을 잘못 뽑지 않았어. 난 내가 인재라고 생각해. 금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거든. 어때? 하나님 눈에 띄었잖아?'라고 생각한다.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너는 그저 평범한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큰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도 너의 패괴 성품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만약 네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네가 틀렸다. 이런 착각 때문에 네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들과 교제하거나 상의하지 않으며, 게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순종하고 네 말을 따르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점은 무엇이겠느냐? (잘못된 위치에 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늘 잘못된 위치에 서겠느냐? 너희가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인성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한 가지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는 늘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다. 즉, 그가 한 이 모든 일, 그가 표출하고 나타낸 이 모든 것들이 정상 인성의 범주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몰아세운 것이다. 왜 그의 일 처리가 기이하고, 그의 야심과 욕망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하겠느냐?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성과 염치를 뛰어넘어서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네가 아래로 누르면 잠시 내려가는 듯하지만, 손을 떼면 다시 튀어 오르는 스프링처럼 말이다. 이는 욕망의 불길이 마음을 불태우고, 사도에 빠진 것 아니겠느냐?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평온하고 즐거우며 모두가 발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암담한

기운이 감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며, 마치 뭔가 큰 화가 닥칠 것처럼 안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적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며,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오래 미혹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정상적이게 된다. 마치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밖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해지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즐거움과 해방을 얻지 못해 교회를 떠나 집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된다는 점이다.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두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노력한다. 그런 분위기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편이며, 초조한 데가 없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일만 했다 하면 초조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가 훼방 놓으면 파벌로 나뉘며,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헐뜯는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느냐?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첫째, 형제자매들이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며 경계하게 된다. 둘째, 남녀 간에 선이 없어져 점점 난잡하게 뒤엉키게 된다. 셋째, 사람의 마음속 이상(異象)이 모호해지며, 진리 실행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 알고 있던 도리도 전부 사라지고 생각이 혼탁해져서 적그리스도를 따라 함부로 행동하게 되며, 표면적으로 행하고 뛰어다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정말 길이 없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한다면 얼마나 누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단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의 내면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의욕을 잃게 된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수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도태되지 않겠느냐?

오늘 적그리스도의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해부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해부함으로써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일 처리할 때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이는 분명히 패괴 성품의 표출이다. 네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여러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도, 남들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진리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는 마땅히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왜 남들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네가 남들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지위를 밥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고,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너의 지위가 얼마나 높든, 너는 본분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며,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결코 지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가 남들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평범한 형제자매든 아니면 너와 협력하는 사람이든, 네가 그와 함께 구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너에게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너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본분 이행은 너의 직책이며, 사역을 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네가 내린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순종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너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을 수 있을지는 너의 일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본분 이행의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자신이 진리 원칙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모두와 교제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려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때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합의했는데, 너는 왜 방해하는 것이냐? 파괴하려는 것이냐? 네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모두가 분별하도록 할 수도 있다. 모두가 너의 의견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마라. 이 일을 대하는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옳은 것은 고수해야 하고, 그른 것은 남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사실,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과 행동 방식이 있기 전부터 이미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분명 올바른 일을 하거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과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도 사람들에게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옳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른바 적그리스도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원칙과 진리에 부합하지 않게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다, 무슨 일이 닥치든, 어떤 문제를 처리하든 그는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결단을 내린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게 하려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행동 방식이다.

막 복음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을 가지고 종교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 비밀에 관한 해석, 이상(異象)에 관한 교제, 그리고 생명 진입과 같은 측면의 말씀을 읽고는 다들 매우 좋다고 했고, 다만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일부 말씀 중 몇몇 단어가 지나치게 엄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사람을 욕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욕을 하실 수도 있나요? 이 말씀들은 기껏해야 어떤 높은 분이 쓴 거겠죠."라고 말했다. 복음 전도 책임자는 자기에게 해결법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사람의 관념과 상상,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 사람이 읽으면 관념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말씀을 모두 수정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폭로할 때 언급한 '음녀', '창녀', '나쁜 놈' 같은 단어들과 '지옥에 떨어진다', '유황불 못에 떨어진다'와 같은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요컨대, 사람이 쉽게 관념을 가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 말씀 중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할 때 선포한 말씀이겠느냐? 이 '노선생'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연단 측면에 관한 표현과 사람의 패괴 성품 폭로에 관한 표현 중 일부 매우 엄한 표현, 특히 봉사자 시련 그 시기의 말씀을 많이 삭제했다. 나중에 종교인이 보고는 "좋네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라며 받아들였다. 이 노선생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라! 하나님 말씀이 지나치게 엄한 것도 지혜롭지 못해. 그 사람들을 구슬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사람들이 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이것도 지혜롭지 못해! 내가 수정을 좀 했는데, 수정한 후에는 어떻게 됐지? 종교계의 목사들도 믿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어. 어때? 내가 지혜롭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 수정한 후 이런 성과를 거두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후, 그들이 본 하나님 말씀은 수정된 것이며, 교회의 하나님 말씀 원본 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문제를 보고했다. 이후 이 노선생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노선생이 한 일이 어떠하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말씀은 네가 한 말도 아니니 너에게는 수정할 권리가 없다. 설령 사람이 쓴 글이나 책이라도, 만약 네가 수정하려면 먼저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저자가 동의해야 네가 수정할 수 있고,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한 글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자를 존중하고 독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저자가 수정할 여력이 없어 너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당신이 수정해도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든 다 괜찮아요. 원문의 의미에 맞추어 효과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자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저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명분이 있고, 처사가 적절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만약 저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너도 저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서 마음대로 수정했다면, 이는 무엇이겠느냐? (제멋대로 구는 것입니다.) 이는 제멋대로 굴며,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이 노선생이 수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데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어떤 성과를 얻으려 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짐작하지도 못하면서 뭘 함부로 고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앞뒤 말에서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어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 안에 담긴 분위기, 마음, 정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 모든 것에는 견해와 규칙이 있다. 하나님은 생각과 지혜가 있다. 이 노선생은 무엇이라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본 것이다. 그는 '종교계에서 떡으로 배만 불리려는 이 사람들은 달래야 하고,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해. 그렇게 엄하게 말해서는 안 돼. 엄하게 말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그러면 복음을 확장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다. 설마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겠느냐?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늑대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폭로하고 몇 마디 욕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것이냐? 만약 네가 이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면, 너는 바로 악인이고 마귀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 또한 이런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달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욕하시더라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때리셔도 마땅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시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멍청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음녀라고 하시면, 제가 음녀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가장 단순한 믿음, 인정, 수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가장 단순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얻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나치게 엄하고 정곡을 찌르면, 자기가 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믿지 않으려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저는 믿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을 따르지 않겠어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빨리 꺼져라! 네가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의 피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믿지 않는다면 꺼져라.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믿는다면 구원받을 일말의 희망이 있다.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생이 이렇게 생각했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가 어리석지 않으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그는 하나님을 매우 작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두뇌의 사고력보다 크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여긴다. 평소에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며, 툭하면 이런 큰 도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일이 닥치면 이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하다고 생각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마침 복음을 전할 때라, 그는 이 기회를 빌려 재빨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그의 이런 행위를 내가 어떻게 규정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고쳤다고 규정했다. 고쳤다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멋대로 덧붙이거나 삭제하고 함부로 원래의 의미를 바꾸어 저자의 뜻을 모두 바꾸는 것이며, 저자의 초심과 의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쳤다고 한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주 간이 부었구나!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마귀나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말이라도 네가 멋대로 고쳐서는 안 되며, 저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네가 수정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저자에게 통지하고 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락을 받은 후에야 저자의 뜻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이 존중이다. 하나님께는 어떻겠느냐? 존중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잘못 인쇄해서 '의'라는 조사 하나만 빠져도 괜찮은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페이지를 다시 인쇄해야 한다. 이렇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 노선생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는 너무 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출교해야 한다.

얼마 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았다. 지난번에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지 않고, 멋대로 함부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상부에 물어보았다. "OO 민족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 어떤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책을 논의해 하나님 말씀 중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어휘와 표현 또는 어떤 말씀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에 그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정리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보아라, 정말 대담한 사람이 있구나. 이는 무슨 행위이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면, 어리석고 무지하며 나이가 어리다고 치부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성질을 규정한다면, 이는 사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수정한 것이다. 이를 무엇이라 하겠느냐? 이는 유다의 행위이며, 매국노이고 배신자이다. 이는 주님을 팔아 영화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이기 원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상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성질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 말씀의 성질이 이 때문에 바뀔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진리는 진리이다.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일부 복음 사역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수정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야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가장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가장하는 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고쳐 처리되고 출교되었다고 진작에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어떤 사람이 고치려 한다. 이는 무슨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겠느냐? 이는 주님을 팔아 영화를 누리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팔아 영화를 누리고 사탄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냐? 공개 석상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냐? 네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믿는 것이냐? 네가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어떤 말씀이 너의 관념과 부합하지 않든, 그는 하나님이고,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듣기 좋게 말해도,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아무리 자신을 선량하고 인자하다고 생각해도, 네가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너 역시 사람이며, 패괴된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쳐 사탄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어떠하냐? 사람들이 멸시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것이 어떤 성질인지를 교제했으니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감히 고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가 말해 보아라.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이냐? (경시합니다.) 정말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 거의 무게가 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수정하니까. 사람의 관념과 입맛에 맞게 수정하면 더 좋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은 방자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고치며,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다른 적그리스도와 성품이나 성질이 같다.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그들이 위험에 직면했거나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볼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 자신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전도의 효과를 위해 하는 것이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효과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이렇게 수정하니까 어때? 복음 전도의 효과가 괜찮지?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 거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잖아?'라고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침으로써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킨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질 아니겠느냐?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결코 형제자매들과 진리를 교제하지 않으며,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글귀와 도리만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훈계한다. 심지어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상부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들은 또 어떤 태도와 행동 방식을 취하겠느냐?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인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 전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결코 상부에 문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상부의 교제와 지도가 필요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굴며 뒤에서 몰래 한다. 이를 밀실 공작이라 한다.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결정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도 위장을 한다. 깨알같이 작은 일을 가져와 상부에 문의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척하여 상부에서 그가 모든 일에 진리를 구하는 줄 오해하게 한다. 정말이지 조금도 빈틈이 없다. 사실 그는 모든 큰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결정하며, 게다가 상부가 알지 못하게 한다.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는 더더욱 보고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력, 지위, 명성과 관련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 이런 행위의 주된 모습은 바로 개인 경영을 하고, 개인의 세력, 단체, 인맥을 육성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한다. 게다가 일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염원과 욕망이 특히 강하다. 그는 마치 사냥개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절대적으로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한 교회의 리더가 적그리스도인데, 만약 윗선 리더 일꾼이 이 교회의 사역을 알아보고 개입하려 한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를 어느 정도로 통제하겠느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고, 물 한 방울 샐 틈도 없이, 마치 철옹성처럼 다른 사람이 참여하거나 물어보지도 못하게 한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알아보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우리 교회의 실정을 모릅니다. 만약 그가 개입한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미혹한다. 리더 일꾼이 도착한 후, 그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형제자매들과 리더 일꾼이 접촉하는 것을 막고, 마음에 없는 친절로 리더 일꾼을 대접하며 그들을 한 곳에 안배해 숨긴다. 말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형제자매들과 만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리더 일꾼이 그에게 사역 상황을 물을 때, 적그리스도는 허위로 날조하고,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인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모두 과장된 것이다. 그는 각 측면의 사역을 모두 좋게 말해 리더 일꾼을 기만한다. 리더 일꾼이 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접촉을 요청하면, 그는 "안배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 알려 주지도 않았잖아요. 만약 알려 줬더라면 몇몇 형제자매들을 안배해서 만나게 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안전을 위해 형제자매들과 접촉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분별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알아챌 수 있다. '그가 리더 일꾼이 형제자매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야. 그가 한 사역의 허점과 편차가 모두 폭로될까 봐 두려운 거네.'라고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리더 일꾼이 책임감이 없다면 쉽게 적그리스도에게 기만당하고 속을 수 있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상부의 설교 교제와 하나님 말씀 서적이 제때 형제자매들 손에 전달되는지, 교회의 각종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편차와 문제는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리더 일꾼이 알 수 없게 되며, 하나님 집에 어떤 새로운 사역지침이 있어도 형제자매들 또한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한 윗선 리더 일꾼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실상을 알지 못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받게 된다. 사역을 점검하는 리더 일꾼들은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사역했다고 생각해 적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게 된다.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선민을 책임지라고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할 때, 리더 일꾼이 이를 분별할 줄 모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또 처리할 줄도 모른다면 이는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고 하나님 선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리더 일꾼은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교회는 리더 일꾼이 반드시 개입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또한, 적시에 적그리스도를 처리하고 처단해야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선민은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파면하고, 교체해야 하며, 훌륭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리더 일꾼은 어쩌면 자질이 부족하고 분별이 없어서 적그리스도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이런 어리석은 리더에게 또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또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선민을 계속 곤경에 빠뜨릴 뿐이다. 이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일 처리 원칙도 없는 비열한 소인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태시켜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일부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파면하고, 교체하고, 도태시켰다. 이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좋다. 이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이 성장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최고의 증거이다. 이는 사람이 약간의 분별과 분량이 생겼고,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 악마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반적인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 선민이 지위와 권력의 속박을 당하지 않고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할 용기를 갖게 되어 용감히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끊어내고 파면시켰다는 의미이다. 사실, 리더 일꾼이든 아니면 평범한 하나님 선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지위가 평등하다. 단지 본분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지위의 차이가 없으며, 그저 본분이 다르고 책임이 다를 뿐이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은 모두 이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제때 처리하여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출교해야 한다. 이는 모두의 동일한 책임이자 공동의 책임이다.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과 교제하는 법이 없고, 무슨 일이든 다 자신이 결정한다. 이 측면의 문제를 모두 분명히 볼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원칙을 구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거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과 길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맞다.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과 길이 있기 위해서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원칙을 깨달아야만 본분 이행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을 써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겠느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자질이 훌륭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찾아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럴 필요가 있다. 만약 자질이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과 이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아무리 많이 교제해도 성과를 얻지 못한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선민은 모두 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교회 사역 상황과 거기에 존재하는 문제를 알아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며 감추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선민은 이를 적발하고 고발하거나 윗선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이 또한 하나님 선민이 이행해야 하는 본분과 의무이다. 어떤 거짓 리더들은 교회에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선민을 통제한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행동 방식이다. 만약 하나님 선민이 적발하고 고발하지 않아서 그 결과 교회 사역이 지체되고 사역이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리더 일꾼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선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 선민이 손해를 입고 구원받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민은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적발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모두 유익하다. 어떤 리더 일꾼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의견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문제로 며칠 동안 논쟁을 해도 결과가 없지만, 그는 여전히 계속 기다렸다가 모두가 합의하고 나서야 사역을 한다. 이는 사역을 얼마나 지체하는 것이냐? 일을 너무나 지체하니, 이는 명백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리더 일꾼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교회 사역의 결정권은 리더 일꾼에게 있다. 형제자매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만, 최종 결단은 리더 일꾼이 내려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결단을 내릴 줄 모른다면, 그의 자질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이니 리더에 적합하지 않다. 설령 리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며,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할 수 없다. 일부 리더 일꾼은 어떤 일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논쟁을 해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런 행동에 원칙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리더란 말이냐?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만약 네가 "적그리스도는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될까 봐 두렵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들을 종합한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래선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되겠느냐? 만약 그 결과가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한들 성과가 나겠느냐? 하나님이 만족하겠느냐? 성과가 나지 않고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너는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책임감 있게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성으로 임하면서 사탄의 철학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로 의심을 받거나 판단을 당하지 않으려고 네가 짊어져야 할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절충'이라는 사탄 철학을 선택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해가 되었으며 교회 사역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는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네가 리더 일꾼이라면, 말과 행동에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본분 이행에 반드시 성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로운 방법으로,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물건 구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한다. 만약 원칙 없이 돈을 함부로 쓴다면, 하나님 집 이익과 하나님 제물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닥치면 너희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상부에 구합니다.) 상부에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게으름 피우지 마라.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물어보고, 세부 사항을 많이 알아보아라. 충분히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한다면, 결국에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이를 무엇이라 하겠느냐? 건성으로 대충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본분을

이행한다. 일 처리가 불투명하고, 사역을 보고할 때 반만 말하고 반은 숨긴다. 일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면 자신에게 골칫거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계속 자료를 찾아 보강하라고 할까 봐 아예 다른 사람이 실상과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바로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집이 비용을 내게 한다. 결국, 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와 재공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이는 하나님 집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유다의 행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유다의 행위는 일부러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일이 닥쳤을 때, 팔이 밖으로 굽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육만을 헤아린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교회 사역에 해를 끼치는 것을 즐긴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행위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다. 어떤 본분이 업무 지식이나 다른 분야의 것과 관련이 있어서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워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정보가 발달했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많이 찾아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너는 이 측면의 업무나 이 영역의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점차 이 측면의 업무 범위 내의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데이터나 전문적인 측면의 다양한 주장들에 기본적으로 익숙해지게 된다. 이 정도까지 하면, 네가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하고, 충성심을 다 하는 데에 더 이롭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분을 이행할 때 하는 이런 예비 사역은 대체 무엇을 위함이겠느냐? 자료를 찾고,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다시 교제와 논증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은 모두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하기 위해 하는 예비 사역이다. 제대로 된 예비 사역은 본분 이행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을 나타내며, 이와 동시에 건성으로 대충 하는 사람도 드러낸다. 불신파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겠느냐? 그들은 전부 건성으로 대충 한다. 교회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 자기 멋대로 함부로 돈을 쓰며, 전혀 상부에 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 집의 돈을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 이런 자는 집안 말아먹는 놈이고 재수 없는 놈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제물에 손해를 입혀 놓고도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 선민이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여 그를 제명하고 출교하기로 거수 표결할 때에야 그는 약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정말이지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간이고,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다. 그런데도 리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집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정말 돼지도 낯을 붉힐 정도로 뻔뻔하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신파이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어떠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면서 항상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이 되고 싶어 하고, 늘 권력을 잡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는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느냐? 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 불신파라고 하겠느냐? 바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전혀 실행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불신파이다.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아라. 다들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두

불신파이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말하거나 일 처리할 때 좀 더 믿음직해진다. 만약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짐승이고, 불신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3~5 년 만에 많은 일을 깨닫고, 말하거나 일 처리할 때 진리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허점이 생기거나 하나님 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모두 자신이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충성심이 없고, 게으르고, 육적 편안함을 즐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허점이 생기고, 이렇게 큰 손해를 초래했다고 생각해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이런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인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 항상 실수하고, 항상 하나님 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래 놓고도 뉘우치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런 사람은 인성이 전혀 없으며, 정말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러니 본분인들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건성으로 대충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며, 늘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냐! '우리 집'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집과 교회이다. 늘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말이겠느냐? 내가 듣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가 그 말에 어울리게 행동해야만 그 말이 적절한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분을 항상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며, 교회 사역을 전혀 수호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네가 여전히 말끝마다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다소 위선적이며 위장하는 느낌이 들어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혐오하게 된다. 만약 네가 정말로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사역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해도 괜찮다. 남들이 듣기에 진실되고 가식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것이며, 또 너를 형제자매로 여길 것이고, 너를 좋아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만약 네가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본분 이행 또한 무책임하다면,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또 교회 사역을 수호하여 하나님 선민이 너를 하나님 집의 사람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네가 다시 '우리 집'이라고 말해야 남들이 듣고 친밀감을 느껴 전혀 반감을 갖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게 되었고, 네가 정말로 책임감 있게 본분을 이행하고 교회 사역을 수호할 수 있게 되어 네가 '우리 집'이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에 걸맞고 거짓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 사역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본분이든 다 건성으로 대충 이행한다면, 심지어 기름병이 넘어져도 바로 세우지도 않고, 방이 더러워져도 청소조차 하지 않으며, 겨울에 눈이 와도 눈을 쓸거나 마당을 치우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집의 사람 같지 않고 외부 사람 같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가 바로 봉사자이고, 임시 직원이며, 생명이 없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항상 뻔뻔하게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한다. 말끝마다 매우 친밀하게 '우리 집'이라고 하고, 형제자매를 부를 때도 무척이나 친밀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며, 일만 했다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집에 해를 끼친다. 이는 외식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너무 부도덕하고, 일말의 양심과 이성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양심과 이성을 갖춰야 하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 양심과 이성조차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는 그저 임시 직원이며, 봉사자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기에 이런 사람은 악인에 속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문제를 발견해도 무시하고, 그가 책임져야 하는 일도 신경 쓰지 않으며, 형제자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멀리 도망가고,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 집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사역을 파괴해도 증오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옳고 그름과 관련된 일에 직면해도 지각이 없고, 하나님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모두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자이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최근 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소수에 불과하다. 우선 그들이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분량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본분이든 참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며,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교회에 책상이 필요한데, 사려면 600~700 위안이 필요했다. 그러자 몇몇 형제자매들이 "너무 비싸네요. 저희가 목재를 사서 직접 만들면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쓰기에는 다 똑같아요. 전혀 사는 것만 못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마음속으로 약간 감동했다. '이 사람들은 괜찮네.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절약할 줄 알아.'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은 제물을 낭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최소한 약간의 양심과 이성이 있으며, 인간미도 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 수백 위안, 수천 위안의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지각이 없고, 오히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전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 위안, 8 위안을 절약하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들여 살 필요 없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죠. 불필요한 돈을 쓰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며,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집과 한마음이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고려를 할 줄 모르는 것이겠느냐? 자기 살림을 할 때는 그도 무척이나 돈을 절약할 줄 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늘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을 사려

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며, 값을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으려 한다. 무척이나 세세하게 계산해서 척 보기만 해도 살림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집을 위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의 돈을 펑펑 쓰며, 어떻게 쓰든 다 상관없고,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품이 너무 나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하나님 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 그는 또 최소한의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 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 이렇게 큰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니, 이것은 바로 인품이 지나치게 나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충분히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요약해 보자.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두 가지 행위 모습은 적그리스도라면 다들 갖고 있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이다. 이 두 가지 행위 모습은 동등하고 동시에 나타난다. 이 모습에서 폭로된 적그리스도의 주요 성품 두 가지는 사악함과 흉악함이다. 사악하기도 하고 흉악하기도 하다. 때로 네가 그의 악한 면은 볼 수 없어도, 그의 사악한 면은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가 일 처리를 매우 부드럽게 해서 네가 그의 어떤 강제적이거나 야만적인 행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그다지 흉포하지 않고, 너에게 뭔가를 강요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매우 사악한 다른 방식으로 이리저리 우회해 가며 너를 끌어들여 그에게 부림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식으로 그에게 이용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함정에 빠져 기꺼이 그의 지배와 우롱에 따르게 된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늘 옳은 말과 논리로 너를 가르치고 교화하며 부추겨 어떤 일들을 하게 한다. 그의 말은 옳은 것이니 마땅히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꺼이 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최종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실행한들 진리를 깨닫게 되겠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겠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겠느냐?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원칙을 찾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를 헤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주로 리더의 붙들어 줌과 공급에 의지해 왔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리더가 교제해 주기만 하면 행할 길이 생겼어요. 역시 리더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면서 분량이 겨우 이 정도이고, 아직도 리더가 없으면 안 된다니, 매우 불쌍하지 않으냐? 이 말이 암시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앙망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리더가 붙들어 주어야만 이해할 수 있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을 리더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리더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리더의 말을 따르고, 리더가 말한 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대상은 대체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면 리더이겠느냐? 이는 종교인이 명목상으로는 주를 믿지만, 실제로는 목사를 믿고 따르며 목사의 말을 곧이듣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는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한 것 아니겠느냐? 네가 리더를 숭배하여 모든

일에서 리더의 말을 따른다면, 이것은 바로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사람에게 속박과 통제를 당한 것이다. 너는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모르면서 마귀 사탄이 몇 마디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느냐? 너는 무엇을 이해하였느냐? 때로는 규례와 도리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미혹된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일 처리가 기이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들의 주된 성품은 사악함과 흉악함이다. 사악함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기이한 일 처리로 나타난다. 흉악함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성 내면에는 흉악한 성품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한 후,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네가 이 측면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네가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냐? 너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으며,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네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고 사람을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서 결코 별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경고하고 위협하고 강요하여 네가 이를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너를 징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사람에게 공급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도 허락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부 사역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사람들이 점차 깨닫게 한다. 책망과 훈계, 채찍질과 징계, 그리고 권면이 바로 그 예이다. 때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면에서 너를 감동하게 하거나 너에게 빛 비춤과 깨우침을 주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요구는 대체 무엇인지, 사람이 서야 할 위치는 무엇인지, 사람이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하며, 그와 동시에 너에게 선택하게 한다. 만약 네가 "저는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저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결국 너의 종착지와 결말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즉, 너는 너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롭다. 네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니, 너의 종착지가 어디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니, 너의 종착지는 또 어디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를 일찌감치 정해 놓았기에 별도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너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징벌하여 네가 재앙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순종

측면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강요'라는 두 글자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이 측면의 진리를 실행하라고 할 때, 여기에 강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하든,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든, 사람을 인도하든,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하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전제 조건에 강요는 없으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점점 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네 상태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네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기 싫어한다면, 네가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는 양자 간 확연히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매우 공평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요하셨다면, 제가 실행해 내지 않았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강요해야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너는 어떤 존재냐? 네가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기초 위에서 양심과 이성에 따라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의 원래 의미이다. 여기에는 강요, 규제, 협박이 없으며, 결박과 통제의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일에서 심하게 결박과 속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행사가 아닐 것이다. 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사람의 사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어쩌면 네가 치우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누군가 너를 속박하고 있을 것이다. 규례와 옳은 말이나 이론으로 너를 속박하여 네 사상에 치우친 것들이 생기게 한 것이며, 이는 네 인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만약 네가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길 원한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진정한 인성, 양심과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회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느냐? 만약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지침대로 사역하지 않으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또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교체합니다.) 바로 교체하면 끝이다. 출교하겠느냐? (출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출교하지 않는다. 일반 형제자매의 경우, 만약 그에게 어떤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했는데 그가 가지 않는다면, 이는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강요하겠느냐?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진리 교제를 통해 그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는 강요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그 사람 개인이 동의하고 원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 본분을 이행하라고 안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청소를 안배하면, 그는 "저에게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강요한 것이겠느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그가 원하고 순종하는 상황에서 안배한 것이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또

시행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그 본분을 이행할 사람을 찾지 못해 네가 잠깐 대신하도록 안배해서 비록 원하지 않지만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 말이다.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너는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하나님 집의 밥을 먹고 있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놓고, 그 정도의 일에 육을 저버리지 못한단 말이냐? 이는 순종이니, 고난을 겪느니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저 잠시 잠깐의 일일 뿐, 너에게 장기적으로 이 본분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시킨 일이 더럽고 힘들다며 하기 싫어한다. 만약 그가 말을 꺼내면 빨리 교체해 주어라. 하지만 그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순종하고 고난을 겪기를 원한다면, 그가 계속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이 원칙이 옳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본분을 이행하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충성심이 없으며, 때로는 몰래 나쁜 짓들을 하기도 한다. 그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본분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모른다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 그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만약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요청한다면, 동의하겠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억지로 본분을 이행하며,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니, 그를 내보내면 된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본분 이행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를 긁으며 난처해하고 거부감을 느낀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내키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꾹꾹 참으며, '우선 여기서 때를 기다리며 아쉬운 대로 몇 년 버텨야지. 나중에 어디로 갈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은 본분 이행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가 다른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강제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어째서이겠느냐?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그가 불신파라고 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가 본분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니, 정리해야 한다. 만약 정리하지 않으면, 그가 교회에서 교란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선민을 곤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겠느냐?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일 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집의 이익과 사역을 수호하는 것이고, 불신파와 하나님 집에서 공짜 밥을 먹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다. 네가 공짜 밥을 먹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에서 되는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집은 양로원이 아니며, 놀고먹는 사람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알겠느냐?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어떤 일을 봐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많은 일에서 침묵을 지키고 듬직한 척하면서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처음 막 접할 때는 네가 그를 꿰뚫어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무게감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네가 반드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그가 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갖는지, 어떤 사람과 접촉하는지 등 몇

가지 측면을 관찰하면, 그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어떤 레벨의 리더 일꾼이든 너희가 그들이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은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진리 실제가 있어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앙망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여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무지몽매한 것으로, 결국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이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든 그 사람이 진리를 갖추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숭배하고 앙망하고 따르는 자는 결국 모두 도태되고 정죄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 어떤 레벨의 리더 일꾼이든 다 평범한 사람이다. 만약 네가 그를 네 직속상관으로 보고 그가 너보다 높다고, 너보다 능력 있다고, 마땅히 너를 이끌어야 한다고,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 이러한 착각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겠느냐? 한 측면으로는, 네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들로 네 리더를 판단하며 그에게 존재하는 문제와 부족함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너도 모르는 새에 그의 기질, 은사, 재능에 깊이 빠져들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를 숭배하게 되고, 그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가 너의 롤모델, 숭배의 대상에서 네가 따르는 대상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너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도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이미 사탄의 심부름꾼이나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갔는데도 모르고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이는 더없이 위험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측면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분별해야 하며,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해야 한다.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속박할 때 쓰는 통상적인 수법과 그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인식하고자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어떤 사람을 숭배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재난과 화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더 충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인생길이다. 어떤 이는 "제가 리더를 숭배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제 관념에 부합하는 리더를 숭배하게 되죠."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굳이 사람을 숭배하겠다는 것이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대체 누구냐? 진실로 너를 사랑하고 지켜 주는 이가 누구인지, 설마 똑똑히 보이지 않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누군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며 진리 원칙에 부합한다 해도 너는 진리에 순종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 너는 어찌 그리 천박하게 기어코 숭배할 사람을 찾아 따라야 하겠느냐? 어째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좋아하느냐? 어째서 진리의 종이 되지는 않는 것이냐? 사람에게 이성과 존엄이 있는지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마땅히 너 자신부터 행동해야 한다. 각 방면의 진리를 갖추어 각 종류의 일과 각 부류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부류 사람의 모습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품을 드러낸 것인지를 파악하여 각 부류 사람의 본질을 분별하고, 주변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너 자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네 리더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똑똑히 알게 되면 사람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고, 진리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형제자매라면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자매가 아니라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나 불신파라면 멀리하고 저버릴 것이다. 진리 실제를 갖춘 사람이라면 탄복할지라도 숭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의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이런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분량이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 도태되는 것을 보고 근심하며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악인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가 한 일을 분별해 보면 어쩜 그렇게 악한가요? 적그리스도는 정말 무척 기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질이 부족해서 만약 이런 적그리스도를 또 만난다면 분별해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하나요?" 너의 자질이 부족해도 미혹될까 봐 늘 걱정할 필요 없으며,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할 필요도 없다. 너는 그저 진리를 깨닫는 것에만 집중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시간 날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라. '그의 어떤 부분이 악했지?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었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분별한 거지? 나는 어떻게 분별했지?'라고 말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네가 늘 이런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다시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생긴다. 이는 많은 일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회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속으면 경험이 쌓이는 것과 같다. "좌절한 만큼 현명해진다."라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 그런 이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네가 깨달은 진리가 많을수록 네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네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같으며, 무엇을 평론하든 다 헛소리이고 터무니없는 말이다. 네가 일부 사람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라. 진리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생기게 된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며, 진리를 많이 묵상하기만 하여라. 언젠가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모습만 보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를 네가 마음속으로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고하는 것만 들어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상 관점을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 사람의 분량을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그다지 공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아 얻는 성과이다. 만약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상상에 기대 사람을 판단하고, 늘 사람을 숭배하고 의지하며, 또 사람에게 함부로 아첨하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누구나 다 너를 미혹할 수 있고, 너는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할 것이다. 가장 뚜렷한 적그리스도조차 네가 꿰뚫어 보지 못하여

그가 너를 정신없이 우롱해도 너는 그의 재능에 탄복하며 매일 그의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바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가 믿는 대상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며, 너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설교를 몇 번 듣고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저 분별하는 방식만 조금 알 뿐이다. 하지만 실제 체험이 부족해서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일에 직면하면 또 분별해 내지 못한다. 비록 설교를 듣고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지만, 그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 자신과 맞춰 보고는 자신이 점점 적그리스도 같다고 느껴 결국에는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분별하면 별로 착오가 없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세부 사항을 그가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그저 성질을 규정하는 원칙이 부족할 뿐이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니며, 그가 설교를 들은 게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직 분별해 내지 못했지만 자신을 분별해 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먼저 자신을 구원하여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마침내 성과를 얻은 것이다.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에는 세부 사항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미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분별해 내는 것은 좋은 일이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일단 악을 행하고 화근을 만들어 적그리스도로 규정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네가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네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성질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네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고,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뿐이며,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되돌아선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네가 되돌아서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이러면 위험해진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은 진짜로 분별할 줄 알게 되어 자신이 표출한 적그리스도 성품을 분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과이고, 이미 분별이 생겼다는 증거이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가진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완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머지않아 실현될 일이니 조급해할 필요 없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적그리스도 성품을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적그리스도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볼 수 있으며, 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사람이 진리에 닿도록 노력할 수 있는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설교도 적지 않게 들었지만, 그의 적그리스도 성품과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교제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그도 자신과 맞춰졌지만, 일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사람은 골치 아프고 위험하지 않겠느냐? 매우 위험하다! 내가 아무리 교제하고, 그 당시 그가 듣고 아무리 가책받고 괴로워했어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왜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발탁하고 양성하는지, 왜 원칙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설령 그가 악인이나 나쁜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않고 여전히 발탁해 쓰는지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섰는지는 더더욱 반성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으면서도 끝까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근래 들어, 예배에서 교제한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패괴 성품보다 더 숨겨져 있고, 더 사악하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결말과 말로는 무엇이겠느냐? 분명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였느냐?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진리를 적대하고, 하나님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하는 것, 이는 일반인의 일시적인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며, 또한 일시적으로 치우치게 이해해 그릇된 사상 관점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원수이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모든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멸시하고 증오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너희는 이 일을 분명히 이해했느냐? 여기에서 폭로한 것은 사악함, 흉악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증오이다. 이는 패괴 성품 중 가장 심각한 사탄 성품이고, 사탄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지, 일반적인 패괴된 인류가 표출하는 패괴 성품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일종으로, 그들은 교회를 교란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무너뜨리고 방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패괴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너희는 이 일을 가볍게 보지 마라.

악인이라면 모두 사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사악함은 흉악한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늘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비꼬고 조롱하며 놀림감으로 삼고 등쳐 먹지만, 악인을 보면 굽신거리며 아첨하고 머리 숙여 굴복하며, 약자를 만나면 머리 꼭대기에서 멋대로 전횡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크리스천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는 모두 사람의 탈을 쓴 마귀이며, 영혼이 없는 짐승이고, 악마가 환생한 것이다. 만약 악인 무리 속에 착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크리스천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만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방인 중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무엇이 다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주로 매우 강한 호전성으로 나타난다. 그는 감히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혼낸다. 매일매일 어떻게 남들을 괴롭힐지를 궁리한다. 만약 그가 어떤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부분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또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겠느냐? 바로 기이한 일 처리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좋은 사람, 학력과 지식이 좀 있는 사람, 사회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도 그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의 행동이 특히나 기이한데, 이는 일반적인 간사함이 아니라 사악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는 음모와 술수를 잘 쓰는데, 일반 사람보다 훨씬 고단수라서 일반 사람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그를 상대할 수조차 없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왜 일반 사람은 그를 상대할 수 없다고 하겠느냐? 바로 그가 지나치게 사악하고,

사람을 대단히 잘 미혹하기 때문이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며, 게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집에서 여러 차례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 성품, 본질을 교제하여 사람들이 분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어째서 늘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만 교제하나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지나치게 사람을 잘 미혹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전염되고, 전염 속도가 빠르며, 범위가 넓고, 전염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높다. 이런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 않으냐? 만약 너희에게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매우 어렵다. 일반 사람들은 교만한 성품을 표출할 때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만한 추태를 보일 뿐이다. 때로는 큰소리치고 허풍을 떨거나,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거나, 때로는 지위를 앞세워 남에게 훈계하기를 좋아하기도 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겠느냐? 겉으로는 그도 지위를 앞세우지 않고, 지위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위에 전혀 흥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지위에 대한 매우 강한 욕망이 있다. 마치 이방의 황제와 산적 두목들이 권력을 쟁취할 때는 자신의 형제들과 동고동락하며, 무척 수더분하고 별다른 야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왜 그런 고생을 감수했겠느냐? 욕망이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거대한 야심이 숨겨져 있다. 그는 언젠가 황위에 오르기 위해 어떤 고생이든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떤 모함과 비방, 거슬리는 말, 모욕도 다 참을 수 있다. 이것이 기이함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이런 야심을 아무에게나 다 알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꼭꼭 숨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 내고, 모두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견뎌 내며, 끈기 있고, 별다른 야심이 없으며, 무척이나 수더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황위에 올라 실권을 잡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남이 황위를 찬탈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그는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권력을 쟁취했던 공신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 진상이 드러나는 그날, 사람들은 비로소 이 사람의 속내가 무척 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는 그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어떤 야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음을 돌아볼 때 아주 사악한 그의 성품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의 이런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기이함이다. 적그리스도는 일할 때 이런 성품을 보인다. 적그리스도와 집권자인 마왕은 모두 같은 부류이다. 그들은 권력과 지위를 얻지 못하면 절대 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절대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참고 양보하며 평범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묵묵히 한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 그들은 절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위가 생긴 후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로 교체되어 '앞으로는 지위가 없으니 얌전히 보통 사람으로 살아야겠어. 할 수 있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말이야. 지위가 없어도 난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이겠느냐? 이는 한때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고 잠시 어리석어 길을 잘못 든 것일 뿐,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위가

없으면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게 함으로써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런 성품, 본질,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부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성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다. 평범한 형제자매들은 고사하고, 진리를 약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리더 일꾼들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자신하지 못하며, 몇 퍼센트나 자신할 수 있는지도 말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분량이 너무 작은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너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은 분별할 줄 몰라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미혹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양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다양한 행위와 말이 사람의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또한, 너희는 진리 실제란 무엇인지, 글귀와 도리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것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너희는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가 없다.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실제에 진입하는 길이 생길 수 있겠느냐? 일부 리더 일꾼은 글귀와 도리만을 이야기하며, 글귀와 도리를 이해하면 실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 편히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할수록 더 흥이 난다. 그 결과 시험에 직면해 넘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조차도 왜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지켜 주지 않으셨나요?"라고 말한다. 이는 수치스러운 실패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일부 리더 일꾼이 늘 글귀와 도리만 말한다면, 너희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분별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가 어떤 형제자매들의 보고를 들어 보면, 어떤 리더가 항상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해 리더로 적합하지 않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재선거를 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분별이 없어 선출된 리더 일꾼 역시 모두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실제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자 매우 난처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교제하는 이러한 말, 이러한 일들을 듣고 평범한 리더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차이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 아는 것이다. 만약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배웠어.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다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는 네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줄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암기할 줄만 알지,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대부분의 적그리스도는 모두 어느 정도의 은사와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을 미혹할 자본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성품이 사악하고 말과 행동을 할 때 수단을 써서 사람을 매우 잘 미혹한다. 너희가 글귀와 도리만 말할 줄 알 뿐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 분별할 줄 모른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쉽겠느냐?

2019 년 6 월 11 일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1)

참고　캐나다 적그리스도 사건을 처리하다

현재 캐나다 교회의 본분 이행 상황이 어떠냐? 너희는 적그리스도인 옌(嚴) 씨를 분별했느냐? 옌 씨의 언행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역을 잘 점검하지 않고 다른 측면도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사람이 계속 말해 보아라. (저는 옌 씨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2 년 전에 그와 몇 번 예배를 드렸을 뿐 그 후론 못 만났습니다.) 옌 씨는 너희 교회의 리더인데 왜 팀마다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냐? 지금 그에게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만나지 못한 것이냐? 옌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너희는 눈치챘느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눈이 너무 먼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계속 얘기해 보아라. (저는 옌 씨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땐 그가 좀 교만하고 독선적이라서 자기를 추켜세우고 과시하길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지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자를 밝히는 건 모르고 있었느냐? (몰랐습니다. 그가 평소에 문란한 남녀 관계는 옳지 않다고 정당하고 엄숙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자주 교제하곤 했기 때문에 남몰래 그러고 다닐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 보아라. (저는 옌 씨를 1 년 동안 만났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잘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사역에 관해 소통할 때만 접촉하고 그 외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그다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지 분별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어째서 그다지 분별하지 못한 것이냐?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제가 옳지 않은 길을 가는 데다가 은사가 있는 사람을 숭배하고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옌 씨는 말주변이 좋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부의 설교를 인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나서서 해결했거든요.) 그가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왜 캐나다 교회의 영화 제작팀에는 여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겠느냐? 그가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네 말은 헛소리가 아니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설교를 듣지 않느냐? 매주 예배도 드리지 않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내 설교는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옌 씨를 분별하게 되었느냐? 옌 씨가 저지른 일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적그리스도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적그리스도도 간파하지 못하다니 이는 어떤 문제이냐? 옌 씨가 리더를 맡은 2 년 5 개월간 그와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느 팀에 가장 오래 있었느냐? 그 팀에서 그를 분별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냐? 그리고 그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일어나 보고한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아무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옌 씨에게 꾀인 자매로부터 그녀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을 알아본 후에야 옌 씨의 이성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폭로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보고하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교제하고 해부하였는데 너희가 옌 씨에게서 다른 문제는 찾지 못했느냐? (적그리스도의 분별에 대한 교제를 통해 옌 씨가 이간질에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앞에서 일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저와 동역자 자매와의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자매가 무골호인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등 말을 들으니 그 자매에게 편견이 생겨 오랫동안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너희는 모두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무골호인이 되어 아무도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교회 사역을 그르칠지언정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또 그가 상부에서 안배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은 채 그 적그리스도를 비호하고 내버려두었다. 너희는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게 두려웠던 것이냐, 아니면 간파하지 못한 것이냐?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용건이 생겨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그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역이 바쁘다 하니 저희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가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는 없어도 당장 눈앞에서 하는 일은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는 행동이 있다. 또 그가 뒤에서만 일하는 것만은 아니니 눈앞에서 간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간파하지 못한다면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난다면 너희가 분별해 낼 수 있겠느냐? 옌 씨 같은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지 못한다고 하느냐? (사역 성과를 보면 교회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사역의 진척 속도도 무척 느립니다. 또 제작된 영화 역시 하나님 집의 요구에 못 미칩니다.) 옌 씨에게 처분을 내리기 전에 너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설교를 듣고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 너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늘 핑계를 대며 이렇게 말한다. "그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뒤에서 뭘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아나요? 평신도인 저희가 리더인 그 사람과 늘 붙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그를 간파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너희의 생각 아니냐? (맞습니다.) 이는 어떤 성질이냐? (책임 회피입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계속 그렇게 대하겠느냐?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글쎄다. 많은 교회에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캐나다 교회에는 없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고발자가 없었다. 아무도 고발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미국 영화 제작팀이 투서를 보내왔는데 근거가 갖춰지고 조리 있게 작성되었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정확하여 기본적으로 모두 사실이었다. 이는 각 교회마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사람이 얼마간 있다는 의미이니 좋은 일이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한동안 쇼를 해서 일부 문제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지 문제의 본질이나 진상은 간파하지 못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럴 때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분별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함께 구하고 교제하며 상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여 거짓 리더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알아내고 간파할 수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도 쉽게 알아내고 간파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하나님 선민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 사역을 그르치지 않게 된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 선민이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보장해 주는 핵심 사역이므로 모든 하나님 선민에게 책임이 있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라면 그게 누구든 하나님 선민은 폭로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보고한 문제가 정말 사실이고, 정말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안이라면 하나님 집에서는 즉각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적그리스도 옌 씨의 문제를 보고하였느냐? 보고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마귀에게 미혹되고 농락당하면서도 지각이 없는 것 같다. 주변에 그렇게 확실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오랜 시간 멋대로 설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다니 너희에게 정말 지각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냐? 너희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령 역사를 누릴 수 있겠느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확은 있느냐? 이런 일은 마땅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옌 씨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영화 제작 사역에 차질을 빚었고 교회 사역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지만 너희는 한 명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아하니 너희는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나 악령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너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너희는 마귀와 섞여 지내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도, 진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본분을 이행하면서 구원받는 것이니, 진리 실행이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니,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니 등 이런 일은 전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저 육적으로 방종하게 굴고 멋대로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 옛날 소돔 성 사람들처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놀기만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거나 고발하지 않아 오랫동안 교회에 성령 역사가 없는데도 너희는 개의치 않는다. 너희는 이미 타락하여 불신파나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너희는 몇 년간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기꺼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종일 아무 생각 없이 빈둥대고자 한다. 너희의 이런 모습은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둘째, 너희는 본분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다. 교회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형식만 취할 뿐이다. 적그리스도,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을 어떻게 교란하고 망치든 너희는 지각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난 후에야 자신에게 분별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면 "전 몰랐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라며 책임을 모조리 미룬다. 너희는 그러면 끝이라고,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 집에서 더는 추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너희는 하나님 집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양육받았고, 또 적지 않은 설교를 들었는데 결과가 어떠냐?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너희는

지각조차 없었다. 이는 너희가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으며, 무감각하고 우둔한 데다가 육적으로 방종하게 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 사람은 없고 온통 죽은 자뿐이라는 말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기껏해야 힘쓰는 자 몇 명뿐이다. 너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적그리스도와 섞여 함께 지내면서 전혀 폭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한패다. 너희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따르는 자이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비호했다.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거나 고발하기는커녕 말끝마다 적그리스도를 별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가 저지른 일을 잘 모른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놓고 사탄을 감싸는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마비시키며 교회 생활을 말도 못 하게 어지럽혔는데 적그리스도가 저지른 일을 몰랐다고 하니 너희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는 것을 직접 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작 이런 책임조차 다하지 못하는 너희는 양심과 이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여러 교회의 투서를 너희는 본 적 없느냐? 오직 캐나다 교회만 썩어 있다. 상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법이 없으니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죽은 자뿐이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끝장이고, 전부 도태될 것이다.

오늘은 2019 년 7 월 10 일이다. 오늘부터 캐나다 영화 제작팀은 공식적으로 1 년간 격리 반성에 들어간다. 영화 제작팀에 모두 몇 명이 있느냐? (하나님, 현재 영화 제작팀은 34 명입니다.) 리더는 몇 명이냐? (두 명입니다.) 알겠다. 그럼 너희 둘이 일어나 보아라. 너희 영화 제작팀은 7 월 10 일, 이날을 기억하여라. 오늘부터 캐나다 영화 제작팀은 공식적으로 1 년간 B조로 분류한다. 만약 너희가 회개한다면 다시 일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1 년 동안 너희 모습을 볼 것이다. 만약 너희가 계속 본분을 이행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의 교회 생활을 회복시켜 주겠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희의 본분은 바뀌지 않는다. 제명되거나 출교되기 싫은 자가 있다면 격리 반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족하느냐? (네.) 왜 너희에게 1 년의 시간을 주겠느냐?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1 년 후에도 여전히 그 꼴이고 사역 효율도 별로 좋지 않으며 본분 이행도 지지부진하여 예전처럼 엉망이라면, 또 업무나 생명 진입 측면에서도 아무런 발전이 없고 성과 하나 없다면 너희는 1 년씩 계속 격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해마다 연장될 것이다. 너희가 성장했을 때, 즉 체험 간증문을 쓸 수 있고 너희의 모습과 인식, 사역 성과가 확실히 합격점에 이르렀을 때 교회 생활을 회복할 것이다. 캐나다 교회의 다른 팀은 계속 교회 생활을 유지해도 된다. 앞으로 너희의 본분 이행 태도를 보아 너희가 여전히 그 꼴이라면 캐나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격리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처분 결과가 어떠하냐? (좋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좋은 척하는 것이냐? (진정으로 좋습니다.) 좋다. 너희가 매우 만족스럽다 하니 오늘 이 설교는 너희가 듣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다. 나의 원래 뜻에 따른다면 너희를 완전히 격리하고 도태시켜 설교를 들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헛들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더 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너희를 보니 가슴이 아프다! 모두가 하나같이 무감각하고 우둔한 모습이구나.

예전에 캐나다 교회의 한 자매와 대화하면서 그곳의 시시덕거리며 아주 제멋대로인 현장 상황을 들었다. 마치 시장 바닥에 있는 것처럼 타이핑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반감이 들어서 캐나다 교회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모두 불신파처럼 제멋대로 굴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중에 그들과 영화에 관해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척 무감각했다. 무엇을 가리켜 무감각하다고 하겠느냐?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반응조차 없고 무표정이었다. 마치 악령이 들린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면서 어떤 일에도 반응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역겹지 않겠느냐?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아 모든 팀이 별 볼 일 없고 엉망진창이었다. 특히 영화 제작팀에 음란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들의 말이 정확하겠느냐? 이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사실, 리더 일꾼은 적그리스도 옌 씨 사건을 이미 처리했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역겨웠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직접 관여해야만 했다. 내가 왜 관여해야 했겠느냐? 그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충 몇 마디 말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무감각하겠느냐? 그야말로 철면피라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 리더 일꾼이 책망과 훈계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그래서 내가 관여하여 너희의 '대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희는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속이 씁쓸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런 처분이 공평하지 않으냐? (공평합니다.) 어디가 공평하냐? 네게 사실을 알려 주겠다. 네가 바른길을 가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서 이방인처럼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간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어째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걷는 길, 인생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 마귀와 완전히 달라지는 데 있다. 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이다. 상반된 방향이란 무엇이냐? 너는 좋은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진리에 공을 들이는 것에 집중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된다. 네 믿음은 빈껍데기, 즉 남을 속이는 마귀적인 말이자 빈말일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묵상해 보아라. 이 말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인데 너희가 묵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만약 네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 저는 해야 할 일은 하고 제 생각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건 저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와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뭐 하러 믿는단 말이냐? 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느냐? 어떻게 믿으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느냐? 이런 것이 너와 상관없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네가 늘 자기 관념과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취향대로 일하며 제멋대로 굴고 육적으로 방종하게 군다면 네 사상 관점, 행동은 진리와 상관없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와 무관해진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 더는 믿을 필요가 없다. 설령 믿는다 해도 헛수고일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다룬 내용은 무척 무거운 주제였다. 이 일을 처리하면서 다들 괴로웠을 것이고 조금은 의외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엔 이렇게 처리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이어서 좀 더 가벼운 주제를 교제하겠다. 너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떤 이야기가 좋겠느냐? 어떤 주제를 듣고 싶으냐? 평서*를 듣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시사적, 정치적 담론이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일상에서의 여러 내적 상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참고

밑천을 따지다
— 그러거나 말거나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다쉐(大雪)라는 사람이 말했다. "전 대학을 다니던 몇 해 동안의 캠퍼스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캠퍼스 곳곳에 여러 초목이 심겨 있었고 봄, 가을만 되면 풍경이 참 예뻐서 마음이 상쾌해졌거든요. 더군다나 그땐 젊다 보니 꿈도 많았고, 순수해서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어요. 3 년 대학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죠. 10 년, 20 년을 되돌려 캠퍼스 생활로 돌아간다면 평생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다쉐라는 첫 번째 사람이다. 다쉐가 무슨 뜻이냐? 대학생이라는 뜻으로, 다쉐라는 이름은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아름답던 시절에 대한 다쉐의 추억과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장 샤오옌(小研)이 입을 열었다. "3 년제도 대학인가요? 그건 전문대죠. 대학 본과는 보통 4 년제에요. 그래야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4 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기간 취업 시장에 대학생이 널리고 널려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졸업하기 전부터 했어요. 아직까진 대학원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취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원 졸업 후 괜찮은 보수에 괜찮은 직장을 구해 잘살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대학원 진학의 결과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다쉐는 전문대 출신이고, 샤오옌은 대학원 출신의 고소득자로, 사회에서 지위와 명예, 위신을 가진 사람이다. 샤오옌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오가오(老高)가 이어서 말했다. "아직 풋내기군요!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대학원을 다니든, 박사 과정을 밟든 대학에서 좋은 전공을 택하는 것만 못 해요.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해 보니 크고 작은 기업마다 경영 인재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시장 경영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졸업하고서는 CEO라고도 하는 기업 경영자가 됐죠. 제가 졸업할 때가 마침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저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던 시기였고, 시장이 워낙 커서 한 번에

* 평서(評書): 중국 민간 문예의 일종

채용됐죠. 여러 회사들이 앞다투어 저를 원해서 결국 제 마음대로 제일 좋은 외국계 기업으로 골라 들어갔고, 금방 사장으로 취임했죠. 고소득이다 보니 3 년, 5 년만에 차도 뽑았어요.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이런 걸 바로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가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앞의 두 사람에게 오기가 생겼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임원에 식견도 넓으니 우리보다 밑천이 훨씬 나아. 오기가 생기지만 군말 없이 인정해야지.' 말을 마친 라오가오는 득의양양해서 이 청년들이 자기만큼 노련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곧이어 샤오관(小管)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샤오관은 앞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느릿느릿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주위를 둘러보고는 말했다. "요즘 널린 게 대학생인데 그깟 대학 누가 못 가나요? 대학만으로는 턱도 없어요.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임원이라고 해 봤자 철밥통도 아녀서 불안정하죠. 중요한 건 철밥통입니다! 그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요? 요새 누가 그런 걸 따져요. 그것도 옛말이라고요!"라고 하자 샤오관이 답했다. "옛말? 흣, 안목이랑 식견이 없으시네. 그러니 옛말 타령이나 하지! 철밥통이 생기면 말이죠, 소득은 좀 적을지 몰라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많은 일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제가 공무원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젊은데 왜 정부 기관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결국,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니 친척이고 친구고 취업이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다 저를 찾더군요. 대단한 권한이지 않나요? 소득은 적어도 관사에, 관용차에, 처우는 당신들보다 훨씬 좋죠. 이외에도 외식을 하거나 장을 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차비나 항공비도 무료라고요. 당신들은 안 되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당신들보단 제가 훨씬 낫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두 불쾌해하며 말했다. "당신들 대우는 좋을지 몰라도 평판은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등쳐 먹고 갑질하잖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못살게 굴고 나쁜 짓만 일삼죠." "실속이 있는데 평판 좀 나쁘면 어때요?"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말했다. "보시다시피 당신들은 대학생에, 대학원생에, 기업 임원에, 공직자인데 저는 여러분만큼 경력이 있지는 않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제가 '모(母)'에 찾아갔을 때는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모'라뇨?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공무원, 대학원을 준비하면 대학원생, 기업 임원에 오르면 CEO인데, '모'는 무슨 말이죠? 어떤 뜻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오고, 기업 임원, 공무원인 것은 괜찮고, 제가 모교를 찾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얼마나 초조했는지 보아라. 가방끈이 짧은 이 사람에게도 허영심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교를 찾아간다고 했으면 다 알아들었죠. '모'가 아니라 모교라고 했으면 됐잖아요."라고 말하고는 다들 그의 모교가 고등학교인지, 기술학교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 공무원을 준비해 본 적도 없어요. 초등학교 다닌 걸로는 안 되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을 마치고 난 그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기 약점이 드러나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는 감추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자신의 학력을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통난 것이다. 더는 낯을 들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가 나가자 남은 네 명은 영문을 몰라 약속이나 한 듯 말했다. "초졸이잖아. 왜 도망가? 초졸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엔 다섯 사람이 등장한다. 그들이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학력입니다.) 학력이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적 지위입니다.) 학력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려 하느냐? 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밝혀 이야깃거리로 삼겠느냐?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겠느냐? (학력 싸움입니다.) 제목을 '학력 싸움'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위 자랑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직접적이다. 함축적이지 않고 깊이도 없다. 만약 주 제목을 '밑천을 따지다'로 하고 부제를 '그러거나 말거나'로 한다면 어떻겠느냐? 풍자적인 의미가 있지 않으냐? '밑천을 따지다'는 각자가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자신의 밑천을 이야기한다는 말이다. 그럼 '그러거나 말거나'는 무슨 뜻이겠느냐?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다시 말해 어떤 성품이 그 안에 있어서 '대학원 다니는 게 대수야? 나보다 학력이 높아서 어쩌라고?'라며 아무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밑천을 따지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이런 대화를 자주 듣지 않느냐? 자기 집이 잘산다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족의 내력이 대단하다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제나 유명인이 자기 성씨 출신이라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대학을 언급하며 자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이야기한다. 심지어 뷰티샵에서 마사지하는 여종업원조차 이런 말을 한다. "저는 마사지 명장에게 마사지를 배워서 전문가의 지도와 자기 관리를 통해 결국 일급 프로 마사지사에 합격했어요. 2000 년대는 저의 가장 눈부신 시기였죠...." 여기에서 '눈부신'이라는 단어는 잘못 골랐다. 그렇지 않으냐? 서비스업종의 마사지사가 '가장 눈부신 시기'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이지 허풍이 심하다. 이 주제는 현실 생활 중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대화, 자주 보이는 행위, 사람이 표출하는 성품을 주로 다룬다. 사람은 왜 이런 밑천을 이야기하려 하느냐? 여기에 어떤 성품이나 동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명예로운 일인지 아닌지는 말할 나위가 못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라도 가져다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도 이야기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이야기하려 하느냐?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길 좋아하느냐? (이는 사람이 과시하는 밑천이기 때문입니다.) 과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길 원치 않는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조차 '모' 시절에 찾아가 보고 싶다고 법석을 떨고 이런 말로 남을 속이고 무디게 해서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어 한다.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남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한자리나 지위를 차지하며, 머리에는 후광이, 말에는 권위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명망을 가지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을 내버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겠느냐? 먼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 올바른 관점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사물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뜻에 합하는지, 어떤 태도가 정상 인성이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점이다. 그렇다면 보통의 평범한 정상인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지위, 사회적 밑천 혹은 출신 등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관점이겠느냐? 너희가 알고 있느냐? 만약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자기가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과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와 집단 속에서 사람의 지위와 자기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몹시 애지중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밑천과 눈부신 경력, 신분을 늘 과시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겠느냐? 분명히 아니다. 그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아니다. 밑천을 따지는 것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째서 신분을 애지중지하고 밑천을 따지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거나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밑천, 신분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사회적 지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출신 가정, 학력, 명성, 사회에서 거둔 실적, 개인의 재능 그리고 종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해야 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너희는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아라. '아, 아직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 대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일단 있는 그대로 말해 보아라.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글쓰기이다.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 너더러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일단 이론적인 측면부터 말해 보아라. (하나님은 사람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보지 않으시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하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지를 주로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식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은 좋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걷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멀리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 늘 그랬듯 도태될 것이고 하나님 집에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학력, 지위가 아니라 진리 추구의 여부입니다.) 아주 잘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겠느냐?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로 이런 주제와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르게 인식한 사람은 없느냐? 보충해서 말해 보아라. (만약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면 명예나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속박이자 족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명예와 이익, 지위가 사람에게 야기하는 위해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밑천으로 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엽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회적 지위, 명예를 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길 바라시는지, 사람이 이런 것을 추구하여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도 사실에 가깝지만 진리와 큰 관계가 있느냐?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가 다소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너희에게 설교를 시킨다면 그것은 권면의 설교가 될 것이다. 어째서 권면의 설교라고 하겠느냐? 권면의 설교는 사람에게 권하는 일련의 말일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들어 보면 전부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어 사람의 인정과 도리, 이성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진리와 큰 관계는 없다. 단지 사람의 얄팍하고

감성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만약 다른 사람과 이런 이야기에 관해 교제한다면 사람의 문제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권면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고충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못 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과 명예, 지위를 영원히 숭배할 것이며, 지식이나 명예, 지위의 통제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출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아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겠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신 가정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후천적인 학력과 그가 사회에서 쌓은 부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네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바라보는 네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 괴리가 있을 것이다. 그 괴리가 크지 않다면 작은 오차일 뿐이니 문제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된다면 진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지 절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힘들고 가난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겠느냐? 그가 신분이 낮은 사회 하층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설마 하나님 눈에도 그의 지위가 낮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그가 걷는 길, 그의 추구,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달려 있다.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고 가정 형편이 궁핍하며 학력도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그 사람의 신분이 높겠느냐, 아니면 낮겠느냐? 귀하겠느냐, 아니면 천하겠느냐? 귀하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은 무엇에 달려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너는 값지고 귀하므로 귀중한 그릇이겠지만,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너는 쓸모없고 귀하지 않을 테니 비천한 그릇일 것이다. 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네 신분은 높아질 수 없다. 설령 너를 옹호하고 추앙하며 숭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너는 천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사람을 이렇게 보겠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으며 심지어 위엄과 명망을 자랑하는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의 눈에는 비천해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째서 정반대인 것이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과 대립하겠느냐?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자 공의이지만 사람은 패괴된 인간이라 진리나 공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니 다르게 말해 보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진리,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가령 사회적 지위나 학력,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 있으며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감과 혐오, 증오를 품는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치를 떨면서 눈을 부라리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려 한다. 또 하나님이나 진리와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기만 하면 반감을 품고 적대시하며 야만성을 한껏 드러낸다. 그럼 이런 사람이 가치 있겠느냐? 하나님 눈에 그의 학력, 소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 푼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사람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마귀 사탄이고 그 누구보다 쓸모없는 천박한 자이다. 이젠 한 사람의 신분의 귀천을 정의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진리,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 먼저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태도를 알고 사람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알고 나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하며 가장 공평하다.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생겼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예컨대, 학력이 무척 좋아서 어딜 가도 환영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며 누구보다 전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눈에도 반드시 귀하게 여겨지겠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한 사람의 귀천은 사회적 지위나 학력을 근거로 하지 않고, 더욱이 종족을 근거로 하지도 않다. 물론 국적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야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너희가 어느 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너희의 신분이나 지위가 달라지더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도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멸망의 부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세속만 좇는 어떤 천박한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니 "당신 중국인들", "중국에서 온 당신들"이라고 한다. 대답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고귀하냐, 아니면 비천하냐? (비천합니다.) 너무나 비천하다! 미국 국적을 얻자마자 고귀해진 것처럼 구는데 너무 천박하지 않으냐? 너무나도 천박하다. 어떤 사람이 평정심을 가지고 명예와 이익, 사회적 지위, 부, 학력을 대할 수 있다면, 물론 여기서 평정심이란 이 일을 이미 경험해 봐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네게 판단 기준이 있어서 이런 일을 네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런 일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가치관이 이미 바뀌어 그 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입증하느냐? 네가 이른바 사회적 지위, 사람의 신분 등의 외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너희가 아직 이르지 못하겠지만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형제자매를 만났는데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과 귀티 나는 외모를 보고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저자세로 굽실거리며 아부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린다면 이는 천박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경우 그를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누님이라 부르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형님이라 부르면서 들러붙으려고만 하고 스스로를 추천하려고만 한다. 반면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면 태도가 돌변해서는

깔보고 상대하기도 싫어한다.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냐? 있다. 너희는 이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일부는 이미 이런 모습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풍조가 심각하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진리 실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너희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상당수 있다. 만약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점은 참도를 받아들이는 데 지장을 주진 않지만 사람의 생명 진입이나 본분 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닐 경우 교회에서 교란을 일으키기 쉽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런 일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즉,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어떻든, 어떤 가정 배경을 가졌든 네가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네 학력, 출신 가정이 네 인품을 변화시키거나 네 성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든, 그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태어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의 패괴 성품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다.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은 네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네가 패괴 성품을 지닌, 하나님을 적대하는 패괴된 인간이라는 사실 역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이는 바로 네가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들 네겐 패괴 성품이 있고, 네가 귀하든 천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너 역시 똑같은 패괴된 인간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두가 평등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대한다. 이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한 측면의 인식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류 전체 중 고귀한 종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아 패괴 성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없다. 사실 욥이나 아브라함, 여러 선지자와 옛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불가피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속에 살아왔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패괴를 거친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킬 때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가족사가 어떠하든, 성씨가 무엇이고 족보의 규모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 결국, 결과는 하나이다. 즉, 이 인류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사탄의 패괴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네 신분이나 학력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인식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를 깨닫고 나면 앞으로 자신의 은사나 밑천을 과시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보일 때 이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걸핏하면 "학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자랑해서 뭐 하시려고요? 또 이렇게 밑천을 이야기하시는데 본분은 제대로 이행하시겠어요?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사탄에게 패괴된 것 아닌가요?"라며 그를 얕잡아 보고 비꼬는 게 좋겠느냐? 이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대해야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그를 우러러보지 말고 깔보지도 마라.

이게 절충안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절충이 옳겠느냐? 옳지 않다. 올바로 대해야 한다. 네가 깨달은 진리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다면 이렇게 해라. 네가 리더로서 그가 이행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본분이 있다면 그 본분을 이행하게 하여라. 그가 고학력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흥, 학력 높은 게 대수야? 진리는 깨달았대? 난 학력은 낮아도 리더를 맡고 있다고. 자질이 훌륭하다는 거지. 네가 나보다 못하니 깔보고 모욕을 주겠어!' 이런 걸 악덕하고 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올바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리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를 우러러보거나 앙망하지 말고, 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그 앞에서 굽실거리지도 마라. 또 그에게 아첨하지도 말고 그를 짓밟지도, 깔보지도 마라. 그도 자기 신분이 그다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가 과시할 것이란 걱정에 그를 짓밟기만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악덕하고 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다. 사람을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일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어떤 리더에게 같이 있으면 사역을 논의하기 편할 테니 관련된 팀장과 팀원을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그가 데려간 몇몇 관계자들의 '경력'은 대단했다. 차를 따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을 씻겨 주고 등을 밀어 주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아첨꾼들이었다. 이 리더가 어느 정도로 역겨웠느냐?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에게 아부를 떨고 아첨하며 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었다. 그는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아첨을 받는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 한 것이다. 결국, 전염병을 앓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병이 도지는 바람에 그 리더 역시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니 진리를 깨달았든 그렇지 않았든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야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말며, 요행 심리를 갖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온 땅을 감찰하기 때문이다. 온 땅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머리를 굴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병과 전능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피조물이라 그 생명이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데 어찌 창조주의 위대함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만유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재하는 창조주의 전능과 지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무지한 짓이나 악한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는 날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테니 그때 가서 너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처신할 때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아직 너를 드러내기 전에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고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파헤쳐서 문제를 찾은 다음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일단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면 너는 수동적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미 과오가 형성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기 시작해서부터 네가 드러나기까지 네 신분, 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감찰하면서부터 네가 드러날 때까지 네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건 순간부터 마지막에 그 희망이 허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낙폭이

너무 크다. 이는 네게 어떤 결과를 야기하겠느냐? 가벼운 경우엔 너란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 한쪽에 방치될 것이다. 방치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말이다. 그럼 심각한 경우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자는 화근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다.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면 네 결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땐 네가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고개를 조아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이미 네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네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어떤 패괴 표출이 있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인식하거나 형제자매에게 지적해 달라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미리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한다면 이는 자기반성을 통해 거두는 성과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절대 하나님에게 드러나 도태되고 나서야 후회해서는 안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 만약 한 사람을 드러낸다면 그때 하나님은 크게 노하겠느냐, 아니면 널리 긍휼을 베풀겠느냐? 이는 단언하기 어렵고, 미지수다. 이에 대해 장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길은 너 스스로 가거라. 내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할 말을 빠짐없이 너희에게 전부 알려 주는 것이다. 문자의 방식이든, 대화의 방식이든, 아니면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쨌든 여러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진리를 전하고 아울러 내가 볼 수 있는 문제를 알려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경계하고 지적하고 권면하며 공급하고 도움을 주고, 너희를 붙들어 주며, 때로는 엄한 말도 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너 스스로의 일이다. 내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네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도 마라. 이런 건 모두 부질없다. 앞으로 네 결말이 어떨지는 나와 상관없다. 오로지 너 자신의 추구와 관계된 일이다. 오늘 나는 마음을 터놓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내가 말한 한 마디 한 마디,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말, 내가 해야 하는 말, 내가 했던 말을 너희는 잘 듣고 이해했느냐? 여기에 추상적이거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은 없다. 너희가 모두 알아들었다면 나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내가 말을 마친 후에도 너희를 지켜보면서 몸소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너희는 어른이지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리더가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내겐 내 사역의 범위가 있고 내 직책의 범위가 있다. 나는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재촉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내겐 그럴 의무가 없다.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는 나와 무관하다. 왜 나와 무관하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집에서 분수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 집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너희가 본분을 이행하고 대가를 치르며 진리를 받아들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하나님 집이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게 공급하며 먹여 살린다. 너희가 만약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 일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하나님 집은 문을 활짝 열어 환송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집에서 교란하고 악행이나 못된 짓을 한다면 하나님 집에는 행정 법령이 있고 사역지침이 있으니 누구든 악을 행하면 그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알겠느냐?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도 적잖이 읽었으며 예배 때 설교도 다년간 들었는데 어째서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느냐? 여러 해 동안 설교를 들어서 진리를 일부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본분도 대충 이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자는 위험인물이다. 너희에게 한 가지 실상을 알려 주겠다. 너희는 절대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돌봐 주기만을 바라지 마라. 내가 손수 가르쳐 주어야 실질적인 일을 좀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생기고, 너희를 챙겨 주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하여 사역 진전 속도가 느리다면 너희는 끝장이다. 이는 너희가 충성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본분을 이행하는 힘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 직분을 다하면 내가 너희를 돌볼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너희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해야 할 말도 다 했다. 또 내 직분을 지켰고 내 책임도 다 했다. 남은 것은 너희 각자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결같이 건성으로 하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징벌을 받고 도태되어 나와 무관하게 될 것이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출신 그리고 학력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교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하고 그 일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봐야 하는지에 관해 교제했다. 이런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 비록 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에 속박받지 않고 그것에 기대어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대학 시절이나 석박사 시절의 화려한 이력을 과시하는 이방인을 본다면 너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겠느냐? 만약 네가 "대학 본과를 나온 게 대수인가요? 전 대학원 졸업한 지 벌써 몇 년 됐다고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골치 아파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네 학력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글도 잘 못 써요." 그러면 그는 네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 너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니 잘된 일이 아니겠느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본분을 더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방인이나 불신파랑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눠서 무엇 하겠느냐? 네 학력이 낮고, 이렇다 할 사회적 지위도 없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한다면 어쩌겠느냐? 괘념치 말고 속박받지도 마라. 남들이야 입만 살아서 제멋대로 지껄이든 말든 상관없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 차질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사실 이것은 사소한 주제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람은 이런 밑천을 무척이나 중요시해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입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바른길을 택하는 데에도 지장을 준다. 좋다. 앞으로 이 주제를 다시 다루지는 않겠다. 이제 저번에 교제했던 주제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관해 교제하고 해부해 보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을 해부하다

1.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적그리스도의 여섯 번째 모습을 모두 해부하였다. 지금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인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을 해부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해부하고 폭로하려는 대상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사악하고 음험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나요? 사악한

성품이나 간사한 성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패괴 성품은 보통 사람들도 다 지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폭로하고 해부하면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과 보통 사람의 이 몇 가지 측면의 패괴 성품 표출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몇 가지 측면의 성품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우선 차이점에 대해 주로 교제한 다음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 등 몇 가지 성품의 실제 사례들과 구체적인 모습을 다뤄 보도록 하겠다.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이라는 이 몇몇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어려움은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와 일반인이 보이는 모습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별하고, 왜 이런 패괴 성품과 본질을 지닌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규정하는지, 적그리스도와 패괴된 보통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 먼저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대놓고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한다. 그들은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지위,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툰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마비시키는 일을 벌인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성질은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항하려 하고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도록 미혹하고 통제한다. 그런 다음 교회에서 각종 서적, 혹은 자료를 빼돌려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독립 왕국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는 그를 추종하는 무리 속에서 그들의 숭배와 추종을 즐기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교회에 얹혀살기 시작한다. 이런 행위는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명확한 특징을 근거로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게 억울한 일이겠느냐? 전혀 억울하지 않다. 너무나도 정확한 규정이다! 또 어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배척하며,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만 곁에 두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모두가 그의 말을 따르게 만든다. 이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상부에 어떤 사역지침이나 요구가 있든 그는 실행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그의 추종자를 이끌고 대놓고 상부에 대항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리더 일꾼은 언제든 교체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 일부 리더 일꾼은 비록 실질적인 사역은 못 해도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가 키운 사람이라 상부에서 그들을 교체하고 싶어도 적그리스도부터 교체하지 않는 이상 어림도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이 그에게 전달되면 도무지 진행이 안 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사역지침을 내려보낸 지 오래되어 교회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예를 들면 아무개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본분이 조정되었다거나 교체되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항상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조정하지 않는다. 늘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여 교회 사역에 심각하게 지장을 준 사람이

있어도 적그리스도는 조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부에서 직접 그 사람을 교체하라고 지시해도 오랫동안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상부에서 사역지침을 실행하라고 하거나 어떤 일을 물어봐도 그에게서 차단당해 교회 형제자매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상부에게서 떨어져 나가 교회가 그자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패거리를 만들어 독립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집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해친다. 사람들이 모두 성령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평안과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 본분 이행에도 힘이 빠지고 심지어 소극적으로 변하고 타락하기까지 하니 사람의 생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이는 모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초래되는 결과이다. 지금 중국의 모든 대교구가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들을 폭로하고 교체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었다. 그들에게는 모두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이 있었지만 적그리스도에 이르지는 않아서 교체되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횡을 일삼으며 어떤 일이든 혼자 결정하고 사역지침을 완전히 어기고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되고 출교되었다. 이렇게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처리하는 것은 무척 잘한 일이다! 나는 이런 투서들을 보고 무척 기뻤다. 이는 일부 하나님 선민이 설교를 몇 년 들어서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뒤, 삶 속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비춰 보고 적용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리 잘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사람과 일에 대한 분별이 생겨서 전횡을 일삼는 사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본분 이행에 건성으로 임하고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 대해 마음속에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생긴 것이다. 이는 성장한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장한 것이다. 분량이 생겼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조금이나마 분별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이는 좋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이 생겨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미혹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동안 미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수록 적그리스도의 결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여러 구체적인 모습을 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받을 경우 구원받기 매우 어렵다.

방금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런 부류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교제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 이 몇 가지 모습은 일반인의 패괴 성품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인식이 좀 생겼느냐?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분명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 이 측면과 관계가 있다. 성경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욥 1:7)라고 묻자 사탄이 뭐라 대답했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욥 1:7)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째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아직까지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여기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악한 성품이다. 이 말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분석해 보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고 나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이 땅에는 그처럼 완전하고 올발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더는 없음이라"(욥 1:8)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곧장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럽다!' 이런 부러움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정상 인성 속에 있는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갈망과 사랑, 동경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거지? 악에서 떠났다는 건 또 무슨 뜻이야? 지금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다면 그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갈망은 있겠느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겠느냐? 그런 바람이 있겠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도 있다. "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 그의 '완전함' 좀 보여 줘 보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류 사람의 생각과 모습이 이러한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인정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먼저 분명한 점 하나는, 그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지고지상의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데 설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슨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이다. 이 점 하나는 확실하다. 또 한 가지 있다. 이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대하고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의 태도 이면의 성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욥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럴 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다 역사적 유물이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 안 돼. 오직 간악하고 사악한 사람만이 살아가야 해. 욥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살아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것은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함이다. 현재의 인류 중에는 사탄의 사악한 성품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불복하고,

불평하고, 반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심지어 마음속에 저주까지 생기겠느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을 사탄의 부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엄정하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사탄에게 말했을 때 사탄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사탄은 이 사실을 의심했다. 한편으로는 사탄은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악하고, 사탄은 모든 것이 사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류 가운데 그토록 아름답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욥이 이토록 좋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 때 사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먼저, 가장 약하게는 질투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모든 인류를 패괴시켜 놓았을 텐데? 사람은 모두 나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 사람의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마음이다. 사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불가능' 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욥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존재하더라도 그를 멸해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탄의 사악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사악함이다. 사탄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지 않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함이다. 사탄의 사악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탄의 성품 본질이 사악하다는 것이다. 또 사탄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한다. 여기서 모든 긍정적인 사물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포함된다. 사탄이 욥을 적대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다. 사탄이 욥을 적대시한 동시에 하나님도 미워한 것이다. 사탄은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길 바랐다. 이것이 사탄에게 가장 기쁜 일이자 가장 큰 바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모든 사실은 사탄이 바라고 기대하며 염원했던 것과 정반대인 것이다. 이토록 좋은 일이 사탄의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탄의 사악함과 흉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또 한 번 전개된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나눈 다음의 대화인데, 원문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욥 1:9)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사탄의 이 말엔 함정이 있는데 "어찌 까닭 없이"라고 말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느냐? (아십니다.)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았고, 그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라고 하자마자 하나님은 사탄이 뭘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하나님은 사탄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보고 기회가 왔음을, 사탄을 이용해 욥에게 시련을 줄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모른다. 그저 '욥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 지금은 또 갑자기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말을 한 사탄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동기와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해부해 보자. 먼저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사실에

대해 사탄은 의심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의심하는 동시에 어떤 방식을 통해 부인하고자 하면서도 대놓고 부인하지는 못했다. 사탄의 사악함이 어디에 있느냐? 더 간사한 방식을 취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욥을 해하도록 당신이 허락하게 한 다음 그가 당신을 부인하도록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그의 생각에서 사탄이 표출한 성품은 무엇이냐? 사악함이 분명하다. 사탄의 이런 사악함과 보통의 패괴된 인류의 사악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탄은 직접 욥을 찾아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 욥이 사탄을 반격한다면 사탄은 창피만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와 이런 일을 한 수단과 수법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사탄을 너무 쉽게 봤다. 사탄의 사악함은 사람이 짐작할 수 없다. 인간 세상에서 모든 정의롭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사물은 사탄이 볼 때 아름답지 않다. 사탄은 이를 전부 사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꾸려 한다. 사탄과 패괴된 인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지혜와 권병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근원임을 뻔히 알면서도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 혐오, 증오를 품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저주한다는 것이다. 반면 패괴된 인류는 항상 사탄에게 미혹되어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요구인지는 더더욱 모른다는 것이다. 비록 패괴 성품을 약간 표출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악하고 간사한 패괴 성품은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기만과 우롱을 받는 상태에서 표출된다. 하지만 사탄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다. 어째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르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영계와 우주 전체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진리이며 전 인류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병을 펼치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든 사탄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 또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염치없이 인류를 마비시키고, 기만하고, 패괴시키며 온갖 방식으로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다. 방금 얘기한 사탄의 사악함의 주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사탄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맞서기만 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탄은 이것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역사를 기록하라고 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사실은 기록 외에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 사탄은 유인원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지어내었고, 유인원이 사족 보행에서 점점 두 발로 직립 보행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 그림까지 그려 놓았다. 사탄이 이런 엉터리 이론을 지어낸 결과 현재 진화론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의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함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였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적대하고 대항하려 한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한 점이다. 그 근원은 사탄의 본질이 사악하다는 데에 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과 하나님의 이 대화에서 사탄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관련이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되느냐? 왜 이 대화를 다루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은 모두가 늘 접하는 주제이자 사람이 자주 보게 되는 실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일례로 따로 끄집어내 해부하겠느냐? 방금 말한 사탄의 사악함은 사탄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맞서기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냐?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도가 좋다는 것을 알고 말씀도 잘 알아듣는다. 그 밖에 그는 자질도 조금 갖추어서 이해하고 나면 기억하려 애쓰고 그가 좋아하고 그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은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만의 설교 한 편으로 재가공하고 정리해 내는데, 다들 들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주된 모습은 아니다. 그의 주된 모습은 무엇이냐? 이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있다. 그는 바보가 아니다. 예컨대 그는 형제자매를 자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지 속으로 알고 있다. 누가 봉헌하고 버리며 충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일반적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쪽을 택할지 그는 속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속하느냐? 가령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고 자질이 나보다 나아도 발탁하지 않겠어. 널 발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널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냐.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우리는 한배를 타겠지만, 내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정직하고, 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원칙을 고집한다면, 내가 하려는 나쁜 짓을 분별하고 나를 꿰뚫어 보고는 나에게 진리를 교제하며 회개하라고 할 테니 그건 너무나 수치스러울 거야. 내 일에 참견하지 않으면 관두겠지만, 늘 내 일에 참견한다면 없애 버리겠어!' 그에게 이런 계획과 심산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무슨 성품이겠느냐? 흉악함과 사악함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모두 있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르거나 이 사람을 혼내기 전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그는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를 발탁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하지도 않으며 내심 그에게 경계심과 반감을 품는다. 이것이 무슨 성품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여기서 사악함이란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부정적인 사물인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는 무엇이 바른길인지 아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사악한 길만 택한다. 마치 양갓집 부녀가 되어 착실하게 살라고 해도 싫어하며 기어코 기생집에 들어가는 여자들처럼 말이다.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등 떠밀지 않는데 어째서 그녀는 기생집으로 향하겠느냐? 바로 사악함 때문이다. 그녀는 태생이 그런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부류다. 우리가 그를 해부하여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영원히 정상인의 정직함, 선량함으로 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와 정상인의 패괴 성품의 차이다.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행정 법령으로 그를 제재하든, 그것도 아니면 형제자매가 일어나 그에게 반대하고 그를 폭로하든 그가 일을 처리하는 것의 초심과 원칙은 바꿀 수 없다. 영원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고, 아무도 그가 그의 관점과 처신의 원칙을 포기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너는 그를 바꿀 수 없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사악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도 알고 있다. 그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거나 사역 상황을 보고할 때 그가 쓴 글이 워낙 그럴싸해서 네가 보면 이 사람의 자질이 뛰어나 보일 것이다. 그런데 결국 실제로 알아보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사역지침을 어긴 데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억압하기까지 해서 교회 사역을 교란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남긴 댓글들이 있는데 그들의 배경과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댓글만 보면 유창한 표현과 일목요연한 내용에 필력도 좋아 그의 자질이 뛰어나 보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수없이 악행을 저질러 3 년 전 교회에서 출교당한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하나님 집 홈페이지에 줄기차게 댓글을 남긴 것은 상부의 관심을 끌어 그들이 잘 발탁되고 만회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다.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복을 받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한다. 그는 죽음과 멸망을 두려워한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모습에는 주로 어떤 게 있느냐? 그가 무엇이 옳고 진리에 부합하는지 뻔히 알면서 일할 때는 언제나 원칙과 진리를 어기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지위만 충족시키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의 가장 주된 모습이다. 그가 글귀와 도리를 얼마나 이해했든, 설교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든, 남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 일할 때 그가 택하는 원칙과 방식은 오직 하나, 영락없이 진리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진리에 끝까지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택하는 일 처리의 원칙과 방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진리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식이지 결코 실행하려 하지는 않는다. 입으로만 떠들어서 하나님 선민의 우러름을 받고 이를 틈타 교회 리더직을 차지하여 하나님 선민을 장악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들이 도리를 전하는 것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진리를 경시하고 농락하며 유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그저 진리를 이용할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는 하나의 구호이자 훌륭한 이론에 그친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데에 쓸 수 있고,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사람의 갈망을 채워 줄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인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진리를 실행하고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통할 리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통할 수 있어야 진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 (그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측면이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현실

생활에서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이해한 그런 도리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를 말하는 것도 청산유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면 그의 행동은 치우쳐 버린다. 진리는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의 관념과 상상, 사람의 기준, 취향에는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냐? 적어도 사람들이 납득해야 그의 지위를 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그가 하는 일은 몹시 치우쳐 있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어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탄 철학에 따라 일하기를 좋아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만 한다. 처리하고 나서 남들이 수긍하고 자기 위신만 세워지면 그만인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의 실속 없는 이론을 들을 땐 귀를 곤두세우지만 진리 실제나 사람의 여러 가지 내적 상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서 마음에 찔리니 반감을 품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에게 요즘 내적 상태가 어떤지, 발전은 있었는지, 본분 이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제해 보라고 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네가 다시 이런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면 그는 졸아 버린다. 듣기 싫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와 사담을 나눌 땐 몸을 앞으로 바싹 기울이고 듣지만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구석에 숨어서 꾸벅꾸벅 존다. 진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좋게 말하면 흥미가 없는 것이고 힘쓰는 자가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며, 나쁘게 말하면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 강한 반감이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적그리스도이고, 일반적인 따르는 자가 된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싹이다. 겉으로는 머리도 좋고 은사도 있어 좋은 재목으로 보이는데 본성 본질을 보면 적그리스도이니 실상은 이런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근거로 한다. 이는 진리를 대하는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많은 경우 사람은 진리와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 진리에 관련되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떤 측면의 진리와 관련되는지 생각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이는 누구냐? 직접 대면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모습에서 그들의 사악한 성품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느냐?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진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의지하거나 맡기고 있느냐? 진실하게 경외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이지 절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이 말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사람의 모습에 관해 예를 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이 예배 때 주먹을 쥐고 맹세했다.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그렇게 소리친 후 하나님에게 헌신하려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도 해서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겠어.' 그러다가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지? 그럼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둬서 하나님 눈에 띄지 말아야겠어.' 이는 어떤 내적 상태이냐? (경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 경계 속에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사악함이다.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들통 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적 상태는 너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비록 그 역시 남들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폭로의 말씀만 들으면 도망가거나 재빨리 위장하며 덮어 감추려고 절충안을 찾고 은폐하려 애쓴다. 있는 힘껏 도망치고 경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들은 일할 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불평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더 많이 보여 주려 한다. 가식과 외식을 통해 모두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하나님은 이 부류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이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며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군지도 그는 잘 모른다. 전부 상상이고 판단이다. 하나님의 행사가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속으로 정죄하기까지 한다.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사악한 성품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행동하니 쉽게 말해 두고 보는 것이다. 두고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다. 가령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고 제 평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거나 더 큰 은혜를 주는지, 최소한 자기가 세상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해 주는지 지켜본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도와 봉헌이 무엇이겠느냐? (거래입니다.) 이 거래 속에 사악한 성품이 들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는 적은 밑천으로 큰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내려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국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큰 붉은 용의 체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려도 위험할 정도예요. 4 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위험하고요. 국내 여건상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정말 문제가 터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믿은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해외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예전에야 여건이 좋았으니 편하게 살려고 외국에 가기 싫었던 거지. 온 가족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아? 거기에 하나님을 믿어서 복도 받으면 일거양득이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 분위기도 안 좋고 재난도 닥쳤으니 빨리 해외로 떠나야겠어. 해외에서도 본분은 이행할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다 보면 복받을 기회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결국 해외로 도피하고 만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회주의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산을 하기 마련이고 거래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느냐? '세상에서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부모나 가족이 지켜 주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체포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장담 못 한다면 어쩌지? 부모님은 절대 지켜 줄 수 없을 텐데 말이야. 하나님을 믿어서 체포되면 일반인은 꺼내 줄 수 없어. 만에 하나 큰 붉은 용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유다가 되면 내 보잘것없는 목숨도 끝나는 거잖아? 아무래도 해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느냐?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다면

"저희를 모함하시는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너는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그는 긍정적인 사물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사설과 궤변,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물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측면의 모습이다. 예를 들면 "행복은 스스로 잡아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논리이다. 그는 권력이 생기면 아부하는 자, 뇌물을 바치는 자, 온갖 지위의 복과 즐거움이 찾아오고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끌려 다닐 필요 없이 자기가 남을 이끌 테니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심산은 어떠냐?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사탄 논리와 사설, 궤변으로 진리를 대신한다. 이것이 사악함의 한 측면이다. 먼저, 그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의 존재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물도 있고 부정적인 사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어떻게 대하고 진리의 존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여전히 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가 택한 삶과 하나님을 믿는 길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진리에 합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긴다. 긍정적인 사물이든, 부정적인 사물이든 자기 이익만 지킬 수 있다면 전부 옳은 것이고 지고지상한 것이다. 이것이 사악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또 한편으로, 사악한 본질을 지닌 이 부류의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함을 멸시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한다. 예를 들어, 너희가 봤을 때 나는 매우 평범하지 않으냐? 평범하다. 그런데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 스스로도 평범함을 인정한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비범하거나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 왔고 또한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초인이나 위인 따위가 되고 싶지 않다.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나란 평범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늘 관념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앞에 나아와 내 겉모습이 어떻든 어느 정도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와 대화할 땐 그래도 공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경멸한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을 보면 알 수 있다. 겉으로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뭐라고 하든 그는 아니라며 부인하기만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날씨가 몹시 덥다고 하면 그는 "아뇨, 어제가 훨씬 더웠죠."라고 한다. 부정하지 않았느냐? 네가 뭐라든 그는 아니라고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더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음식이 짜구나. 소금을 많이 쳤느냐, 아니면 간장을 많이 넣었느냐?"라고 물으면 그는 "모두 아닙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내가 뭐라든 그는 항상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고 공통분모도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한 나의 말을 들으면 "이쪽이 전문이시니 그럼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외부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외부적인 일은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가 상대하지 않으면 나야 좋다. 조용히 있고 싶으니 다른 사람이 상대해 주는 것 따위는 필요치 않다.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내게도 직책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의 이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가 보기에 내가 위인이나 능력자처럼 생기지 않고 언행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니 이렇게 생각한다. '어째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지? 날 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누구보다 어울렸을 텐데.' 하나님은 어울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울려야 한다고 네가 요구한 것뿐이다. 나는 내가 어울린다고 한 적이 없고 어울리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어딜 가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찮을 일이 없으니 차라리 모르는 게 좋다. 예수가 당시 유대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에게 어떤 패괴 성품이 있었든 예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를 오랫동안 따르던 일부 사람들도 항상 이런 태도를 취했다. 이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보통의 정상인으로서 항상 마주하는 일이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친절했고 헤어질 땐 엎드려 울기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지낼 때는 영 아니어서 내가 참아야 할 때가 많았다. 왜 참아야 했겠느냐?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교화되지 않는 자, 봉사하게 해야 하는 자, 말이 통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적대적인 성품을 지녀서 너무나도 역겹다. 어느 정도까지 적대하겠느냐? 예를 들면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내가 "이 녀석을 얼룩 고양이라고 부르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이 이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그저 이름일 뿐이니 내가 먼저 이름을 지어주면 따라 부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적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 부르지 않고 "얼룩 고양이라니 무슨 이름이 그래요? 얼룩 고양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 보네요! 이런 이름 말고 영어 이름으로 지어야죠."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난 영어 이름 지을 줄 잘 모르니 너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도록 해라.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한다. 내가 왜 양보하겠느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 양보하지 않고 기어이 다투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원칙인 것이다. 내가 너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다투지 않지만 속으로는 네가 불신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개와 교류할지언정 너 같은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교류할 사람은 생활 반경에서 꼭 교류해야 할 일부 사람들 외에는 형제자매, 하나님 집의 사람들뿐이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다. 이방인과는 한 사람도 교류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불신파인 네가 하나님 집에 우호적이라면 교회의 친구가 되어 교회에 도움을 주거나 힘을 내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은 괜찮다. 교회가 너를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느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너와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사역이 무척 바빠 그런 일까지 대응할 시간이 없다. 몇 년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야 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방인처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놈들을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태생이 마귀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다. 사탄 마귀에 속하는 자와 깊이 교류하면 화근이 되고 재앙만 있을 뿐이다.

너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네가 어느 사람들과 합류하든 너를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네가 그를 건드리거나 그의 미움을 산 적도 없는데 그가 네게 험담을

하고 너를 판단하며 헐뜯는다. 너는 영문을 모르는데 그는 너를 눈엣가시처럼 보고 너와 어울리지 않으며 괴롭힐 생각만 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이겠느냐? 너는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이유 없이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악인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적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너는 아직 그와 교류하지 않았는데 그가 너를 보고 눈에 거슬려서 너를 괴롭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앙숙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앙숙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같은 길을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럼 너는 이런 사람과 다투고 시비를 따지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따지지 않느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물, 올바른 것, 인류 중에 비교적 좋은 것, 다시 말해 인간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긍정적인 것을 싫어하고 이에 반감을 갖는다. 이런 자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성품이 바로 사악함이다. 그는 사악한 자이다. 예를 들어 여자 친구를 구하는 어떤 남자는 '외모가 어떻든 슬기롭고 착해서 잘 지낼 수만 있으면 돼. 특히 인성이랑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살든 못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혹은 병이 있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악한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너를 비웃을 것이다. "바보스럽네. 지금이 어느 시댄데 아직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나요? 우유 빛깔 금수저를 찾아야죠!" 일반인은 올바르고 슬기로운 여자를 찾아 결혼해서 한평생 착실하게 살아간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평생 청렴하게 사는 것이다. 사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친구를 열 명도 못 사귀어 보고 서너 명의 처첩도 못 거느리면 남자라고 할 수 있나요? 헛산 거죠!"라며 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올바르고 슬기롭고 착한 여자, 특히 인성과 신앙을 가진 여자를 찾는다는 네 말이 그에게 통하겠느냐? (통할 수 없습니다.) 너를 비웃기만 할 것이다. "정말 바보스럽기 짝이 없으시네! 요즘 세상에 남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뭘 하든 자기 마음이죠. 서양에 가봐요. 훨씬 자유롭다고요. 참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하러 그렇게 자기를 옭아매나요? 정말 바보스럽군요!" 그의 관점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그에게 긍정적인 사물, 즉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에 속하고 정의에 속하는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가 듣고 어떻게 느끼겠느냐? 그는 반감을 품고 속으로 너를 욕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속으로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다. 결이 다른 사람이니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그는 네가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 반감을 품는 것을 알고, 또한 너 같은 사람을 속으로 무시한다. 그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제멋대로여도 너와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서 바른길로 가라고 할까 두려워 심한 반감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마음속 깊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해 봤자 적그리스도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어째서 여기 앉아 설교를 듣겠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성령이 네게 역사하면 네 마음이 감동과 격려를 받게 되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기 위해 자기를 바치고 고통받으며 헌신하고자 하게 된다.

사악한 사람들은 남들이 정의, 진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말을 들으면 공허하다고 여기고, 말도 안 되는 구호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을 경시한다. 그러니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교제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니 멀리하면 그만이다. 내가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태도와 말투가 저렇다면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야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거들떠보거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가 상대한다고 그가 바뀌겠느냐? 너는 그를 바꿀 수 없다. 그저 그를 한쪽에 내버려두면 그만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첫째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로 긍정적인 사물에 반감을 가지며, 셋째로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사랑스러운 점을 마음속에서 가장 천대하고 멸시한다. 이로 인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가 솔직하든 간사하든 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성품에 사악한 부분이 있음을 결정한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곳의 교회 생활과 하나님 선민의 본분 이행 성과는 좋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도 가로막힌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해결하거나 출교하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선민이 곤경에 빠지겠느냐!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사무적 업무도 진척이 느리고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자질이 뛰어나고 진리를 추구하는 훌륭한 사람을 양성하여 쓰지도 못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위해 일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으며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한다.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파괴적인 일만 하니 사탄과 똑같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한 마음이 든다. 이 불쾌함은 어디서 비롯되겠느냐? 이들의 사악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즉, 그들의 본성 속에 있는,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악한 성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가방끈도 짧고 볼품없이 생겼는데 진리는 잘 추구하네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태도이냐?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자매는 특정 분야에 은사와 특기가 있어 해당 분야의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한다. 사실, 그의 여러 여건으로 봐도 적합한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네가 그 본분을 이행하려면 일단 나와 가까이 지내야 돼. 나와 한배를 타야 그 본분을 이행하는 걸 허락하겠어. 그러지 않을 거면 꿈도 꾸지 마!'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느 정도 정의감과 인성이 있고 잘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반감을 품겠느냐? 왜 이들에게 항상 대립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늘 소극적이지 않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을 보면 그는 불쾌해한다. 공정하게 일하고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며 진리를 깨달으면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성질을 부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혼내고 괴롭히려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적그리스도의 음험함과 사악함을 간파하여 그를 폭로하고 고발하려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운털이 박힌 눈엣가시 같은 그를 제거하고 이 사람을 저버리도록 형제자매를 선동할 것이다. 교회에서 아무 위신도 없고 지위도 없는 평범한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만 조금

가지고 있을 뿐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는데 적그리스도는 왜 항상 그를 꼴 보기 싫어하고 미운털이 박힌 눈엣가시로 대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무엇을 방해한다는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왜 이런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적그리스도 안에 사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길을 걷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바른길을 가려는 사람을 적으로 삼고 못살게 군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너를 제거하려 하고, 네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도록 억압하거나 네 약점을 잡아 사방에 소문내서 모두가 너를 저버리게 하려 한다. 그러면 그는 기뻐한다. 네가 그의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고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길을 가며 좋은 사람이 되면 그는 불안해하고, 네가 본분을 이행하면 괴로워하고 불쾌해한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네가 그에게 잘못이라도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네가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그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왜 너를 이렇게 대하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의 본성이 사악하고 선천적으로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 진리를 적대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네가 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 자신도 모른다. 그는 그냥 너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네가 동쪽으로 가자 하면 그는 기어이 서쪽을 향하고, 네가 저 사람은 별로라고 하면 그는 굳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네가 이런 복음 전도 방식이 아주 좋다고 하면 그는 한사코 안 좋다고 하고, 네가 믿은 지 1, 2 년밖에 안 되어서 소극적이고 연약해진 자매가 있으니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보다 강해요."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매사에 네 반대편에 서서 대립하는 것이다. 그가 너에게 대립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네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는 틀리다고 하고, 네가 틀리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는 기어코 옳다고 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에 진리 원칙이 있느냐? 진리 원칙은 전혀 없다. 그는 네게 망신을 주고, 네 민낯이 드러나게 하며, 너를 무너뜨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연약해지고 믿지 않게 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사악한 본질이다. 만약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거하면서 그를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가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질투할 것이다. 아무개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이다. 좀 옹졸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이들은 이렇게 체험과 간증이 있어서 다들 그를 지지하는구나. 이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내겐 왜 그런 인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한다. 속으로 부러워하고 탄복하는 것이다. 반면 적그리스도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안배예요.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요."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는 씁쓸해한다. "뭐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하시는지 보기라도 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배하시는지 느꼈나요? 그런데 왜 저는 모르겠죠?"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일을 대하는 것이 사탄과 같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었을 때 사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사탄의 성품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만약 진리를 깨닫고 그를 분별하게 되어 그를 따르지 않고 저버린다면

그는 당황한 나머지 성을 낸다. '이 사람을 내가 결코 얻지 못한다면 그냥 멸해 버리겠어!' 그래서 욥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라고 일러둔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사정을 봐주었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충성심을 가지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생명 체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형제자매와 늘 진리를 교제하는 사람들을 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질투하고 증오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엇에 의해 정해지느냐? 그들의 사악한 성품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억누르고 증오하며 아무 이유 없이 일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자주 볼 때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이며 태생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자신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들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적그리스도도 있는 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어떤 유형의 증거겠느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증거'가 과연 진실한 증거인지 잘 들어 보아라.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좋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버렸고, 나중에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 헌신하였다. 마음은 몹시 괴로웠지만 여하간 전부 버린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전혀 연약해지지 않으셨어요?"라고 묻자 그는 "조금 연약해지긴 했지만 제가 가정과 직장을 버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전 하루에 2, 3 천 위안은 벌어서 월 소득 몇만 위안에 재산이 상당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본분을 이행하려고 자산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라고 답했다.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몫이 없어지는 거 아녜요?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라고 묻자 그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라고 답했다. 이것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더 들어 볼 것도 없이 빈말이다. 그리고 그의 소득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하는 말은 허풍이 아니겠느냐?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증거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그는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렀고, 어떻게 헌신했으며, 얼마나 바쳤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으냐? 그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명백히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다니!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말을 듣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사람이 있느냐? 별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바쳤던 것, 자기가 들였던 시간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한다. 시간이 지나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자기를 증거한다.

그보다 뛰어나고, 진리의 빛 비춤을 그보다 더 잘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불쾌한 마음이 든다. 진리에 들인 그의 노력이 남에게 비할 바가 못 되다 보니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불쾌해하겠느냐? 아니다. 그는 남들이 그보다 뛰어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남들이 잘난 꼴을 보지 못한다. 남들보다 자기가 잘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남들이 너보다 뛰어나고 너보다 진리를 잘 깨닫는다면 남에게 배워야 한다. 이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따른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6 천 년 경영 사역 중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아니면 망신스러운 일이겠느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느냐? 어떤 관점을 지녀야겠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경축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미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좋은 일이다. 이토록 좋은 일을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품고 혐오하니 이는 비정상이 아니겠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비정상이다. 이는 사악한 성품으로 초래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사악하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 왕국을 세워 하나님과 대립하니 이것이 사악한 성품이다. 너희는 사악한 성품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마 많은 이가 분별하지 못할 테니 예를 들어 보겠다. 평소 별일 없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아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할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조는 사람, 귀찮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개중엔 내적 상태가 비정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자에 속하니 악령이 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은 간혹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안에는 악령이 있는 것이다. 그에게 왜 진리를 적대시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는 인정하지 않고 우기지만 사실 그도 속으로는 자기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그가 정상인처럼 남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그가 들으려 하지 않고 반감만 품는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악령 부류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본질을 폭로하였느냐, 아니면 그의 아픈 곳을 건드렸느냐? 모두 아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가 들으려 하지 않은 게 비정상이 아니냐? 비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 긍정적인 사람을 까닭 없이 적대시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기어코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그 자신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인 것이다. 쉽게 말해 이상하다는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듣기 싫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만 들으면 반감이 들어요. 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맞서고 싶고, 욕하고 싶고, 몰래 해치고 죽도록 괴롭히고 싶어요." 그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사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내면에는 결코 정상인의 영이 없고 정상적인 인성이 없다. 근본적으로 말해 이런 것이다. 만약 여러 측면의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정상인이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사악하고 음란하며 시비와 선악의 구분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진리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귀하고 얻기 힘든 일이야!' 어째서 귀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마음과 영이 있는 사람의 염원과 영감을 일깨운다. 어떤 영감이겠느냐? 그들은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갈망하며, 공평과 공의가 인간 세상에 있기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여 권세 잡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외침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갈망하겠느냐? (갈망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갈망하겠느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눈에 거슬리는 자들은 죄다 멸해 버리겠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인류의 주재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인류 최고의 생명 격언, 인류 생존의 토대라고 증거하는 꼴을 보면 반감과 미움이 생기고 듣기 싫어 죽겠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지 않겠느냐? 누가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며 따르기만 하면 똘똘 뭉쳐 한패가 된다. 늘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만 보면 그는 반감을 품고 멀리하며 심지어는 그를 공격하고 배척하며 혼내고 괴롭힌다. 이것이 사악함이다. 사악함을 언급하면 모두 사탄의 간계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 사악하고, 큰 붉은 용이 하는 일이 사악하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사악하다. 그것들이 사악하다는 말은 주로 그것들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오로지 진리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예전에 만나보고 알았던 적그리스도 중에 누가 이런 사악한 성품의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예전에 돼먹지 못한 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인성이 너무 악독했다. 하나님 집에서 대재난이 곧 닥칠 것이니 시간이 얼마 없다고 얘기하고, 형제자매가 어떻게 선행을 예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욕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세상 종말은 무슨! 당신한테나 세상 종말이지 내겐 세상의 종말이란 없어! 대재난이 온다고 해도 난 살아남을 거야. 죽는 건 당신들이겠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작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냐? 누구든 이런 측면의 진리를 얘기하면 그녀는 억지를 부리고 반감을 품는다. '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우리 집안은 형편도 넉넉해서 집도 차도 있는 데다가 벌이도 짭짤해서 아무나 못 건드리는 지역 유지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잘사는데 대재난이 오면 나만 손해 아닌가? 아직 제대로 살아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그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이 사악한 세상과 인류를 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그녀의 이익에 관련되고 그녀의 이익을 침해하기만 하면 그녀는 적대시하고 증오하며 동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며 곧장 하나님의 행사를 부인한다. 이외에도 그녀의 가장 사악한 부분은 공평과 공의가 권세 잡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든 설사 하나님이 권세를 잡아 공평과 공의가 세워지더라도 그녀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그녀의 이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신의 성질이 아니겠느냐? 이런 귀신의 성질이 한 번 발작하는 것은 악령이 들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성질과

똑같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 악령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듣기 싫다고 말한다. 이 돼먹지 못한 여자는 하나님의 날이 머지않았고,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형제자매의 교제를 듣기만 하면 미워하고 속으로 욕했다. 그녀가 왜 욕했겠느냐?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멸하면 그녀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익에 관련되면 그녀는 욕한다. 그러니 그녀가 하는 욕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악령의 성질이 같은 것이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진리를 이야기해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폭로하여 그들의 추악한 면과 사악함, 음험함을 폭로하면 속으로 미워하고 반발하며 저항하다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악령이다. 이 돼먹지 못한 여자는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저지르는 일의 성질은 그 귀신과 똑같다. 기회가 된다면 교회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도래해서 대재난이 닥친다면 당신의 재산이 모두 사라질 텐데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나요? 하나님께서 권세 잡고 공평과 공의가 권세 잡기를 바라나요? 하나님이 빨리 이 사악한 인류를 멸하시기를 바라나요? 당신을 멸하시더라도요? 그렇게 되길 원하나요?"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전 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은 논외로 한 오직 물질의 범위에 속하는 것, 즉 사람의 하찮은 재산, 자동차, 집, 돈 등 모든 것을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 손에 있는 모래알 하나보다 크겠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얻으면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얻으면 하나님에게 맞설 자격이라도 생긴 것처럼 생각해 "만약 제 재산을 앗아 간다면 당신을 미워하겠어요. 당신에게 대항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한다. 네가 인정해야 하나님이고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재산을 좀 가졌다고 네게 하나님에게 맞설 자격이 생긴 것이냐? 너도 참 무지하구나! 지구 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은 다이아몬드인데 보통 사람은 1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만 봐도 매우 놀란다.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라면 1, 2 만 달러는 되겠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무척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중에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행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다이아몬드인 행성이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너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면 매우 좋아하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성 전체가 하나의 다이아몬드인 행성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관점을 갖겠느냐?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점이 바로 바뀔 것이다. 다른 소식을 듣고 나니 네 시야가 갑자기 확장되어 더 이상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에만 급급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보량이 많아지자 사람의 식견이 예전과 달리 높아진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다양한 환경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사람의 시야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사람의 관점 역시 이와 함께 계속 새로워질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며,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차츰 발전하여 식견과 관점, 세계 전체에 대한 인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아, 이 지구 상에서 사람은 정말이지 무지하고 식견도 낮아 알고 있는 게 너무 적구나!'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우주 전체, 인류 전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과 모든 것에 대한 너의 견해와 식견은 아마도

네가 작은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행성을 비교하여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 지구 상에서 누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어떤 명성을 얻었든, 어떤 찬란한 업적을 세웠든 허풍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 한 푼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지구에 예비한 얼마 되지도 않는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뺏고 빼앗으면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진 행성이 하나님 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른다.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쌍하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하고, 심지어 진리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정죄하고 억압하며 배척한다. 반면 그들에게 동조해서 물든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한패가 되어 서로 보호하고 비호하며 치켜세운다.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악령과 더러운 귀신이 환생했기에 정상적인 인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이 진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든, 혹은 글귀와 도리를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든 막상 실행할 때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악한 부분이다. 그들의 가장 사악한 점이 무엇이냐? 진리를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진리를 증오한다. 그에게 이유를 물으면 그 자신도 분명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일만 하면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방식이 묻어 나오고, 일만 하면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한다. 이런 결과인 것이다. 너희 스스로 비춰 보고 주변 사람 중에,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고 접하고 있는 각급 리더 일꾼이나 보통의 형제자매 중에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을 아무 이유 없이 증오하고 늘 이들을 공격하며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들 자신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뒤에서는 돌변하여 마귀의 모습이 튀어나와 남들과 대립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가장 가증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항상 맞는 말로 하나님의 선민과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상부를 속이고 기만하며, 나아가서는 감언이설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하나님 집에서 날뛰며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려 한다. 어떻게 말하는 게 옳고 어떻게 말하는 게 그른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원칙이 아닌지, 무엇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그들도 안다. 이걸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원칙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든 일을 처리할 때는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다. 이로써 그들의 본성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하고 정죄한다. 큰 붉은 용이 왜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겠느냐? 전적으로 그것의 사탄 본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박해와 추적을 당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탄 마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큰 붉은 용의 박해를 받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하다. 너희가

들어 본 사례 중엔 어떤 게 있느냐? (큰 붉은 용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세뇌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뇌된 사람은 신화분자다."라는 큰 붉은 용의 말은 시비가 전도된 말이다. 분명히 그것이 사람을 패괴시키고 세뇌시켰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세뇌했다고 하다니, 너무나도 사악한 마귀들이다! 큰 붉은 용은 남이 한 좋은 일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그것이 저지른 나쁜 일은 남에게 뒤집어씌우는데 적그리스도 역시 이렇게 한다. 큰 붉은 용, 사탄의 수법과 똑같으니 진정한 사탄의 노예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의 모습에 대한 교제를 거의 마치지 않았느냐? 오늘 교제한 내용이 너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으냐? 더 진실하지 않으냐? 최근 몇 년간 하나님 집에서 찬양, 영화 등 많은 영상 작품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 중국에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이를 보고 말했다. "당신들이 해외에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도 중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는 사람을 동원해 무리를 지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두 잡혀 들어갔다.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그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었겠느냐?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따로 파벌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 집에서 합창을 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낸다면 하나의 파벌을 이룰 것이고, 내가 팔 한번 휘두르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았겠느냐? 결국, 큰 붉은 용에게 단속당해 그의 그럴듯한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나님 집에서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사역을 진행했지만 큰 붉은 용이 권력을 잡은 나라에서 그런 여건이 그에게 주어지겠느냐? 그런 여건이 아닌데도 그는 과시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문제가 터져 버렸다. 몇 년 전에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철 지난 노래에 소수민족 의상인 꽃무늬 치마까지 입고 율동을 했다. 너무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이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온통 교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종교인은 속사정을 모르니 정말 교회가 한 줄로 알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미련한 짓만 일삼으니 그는 사악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다. 그가 왜 어리석겠느냐? 사악한 정도가 너무 심해 어리석어진 것이겠느냐? 아니다. 사람은 자질이 어떻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일할 때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모르더라도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류의 사람은 이성이 없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숙고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숙고란 무엇을 말하겠느냐? 처음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예비하는지, 실제로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 프로그램을 왜 제작해야 하는지, 이 프로그램이 제작된 후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지, 부작용이나 폐해는 없을지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평가 과정을 숙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숙고할 줄 알겠느냐? (모릅니다.) 문제를 숙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데 진리를 깨닫겠느냐? 분명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으면 이성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건전해질

것이다.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 원칙이 어느 범주에 속할지 등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속에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더러 거리에 나가서 발가벗고 뛰라고 하면 나가겠느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때려도 안 나가겠느냐? 1 만 위안을 준다고 해도 안 나가겠느냐?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에서 생기는 하나의 생각이자 결론이며 태도이다. 다시 말해 네게 이런 이성이 있어야만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를 돈으로 유혹하든, 고문으로 괴롭히든 아무리 몰아세워도 나가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테고 이 일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 개념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사랑이 넘쳐서 사람을 동원해 합창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도 많이 들었고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중국의 환경은 해외처럼 좋지 않은데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고려하겠느냐? 그도 환경에 대해 조금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떤 효과에 도달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왜 모르겠느냐? 그에게 그런 이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 사람의 이성이 비로소 조금씩 분명해지고 건전해질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진리를 증오하고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하며 마음속 깊이 영원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정상 인성의 사고가 가능하겠느냐? 영원히 불가능하다. 정상 인성의 사고가 없는 사람에게 이성이 있겠느냐? 이성이 없다. 적그리스도의 언행과 관점, 그들이 하는 일은 마귀 악령이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 어째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느냐? 가령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늘 자기의 설교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남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는 말하고, 남들이 아무리 반감을 가져도 그는 눈치채지 못한다. 또 살펴보지도 않고, 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도 없으며, 그저 자기만을 만족시킬 뿐이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수치스럽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것은 사탄 악령이 들려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일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느냐? 겉으로는 발가벗고 미친 듯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 환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비이성적이다. 그에게 형제자매를 몇 명 양육하거나 복음을 전해 보라고 하면, 혹은 본분 하나를 이행해 보라고 하면 그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자기 맘대로 허튼 짓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20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얻지 못했는데 리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슨 일을 하든 형편없이 하면서도 리더가 되어 남들을 이끌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이 분명 많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그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이유로 그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의 자질과 이해 능력이 형편없어서겠느냐, 아니면 그의 인품이 나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겠느냐? (그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째서 본질과 관련이 있느냐? (그의 본질이 사악하여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도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이유다. 물론 객관적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이외에 주관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증오합니다.)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은 진리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대립 관계로 여깁니다.) 대립 관계, 이것도 한 측면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그들이 진리 실제의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 한 측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인 이유는 이 부류의 사람은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깨우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관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진리,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하여 어떤 긍정적인 사물도 그에게는 긍정적인 사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물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이 선동하는 사악하고 공허하며 막연한 것들이다. 그럼 이 부류의 사악한 사람,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부류의 사람에게 진리를 교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면 그가 듣겠느냐?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고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면 그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사람이 맞나요?"라며 답답해한다. 그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들어주기 힘든 말을 하고,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고 마귀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온 것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한다는 게 고작 이 정도야? 별거 아니네.' 말이 안 통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러면 소통할 수 없다. 아예 다른 부류이고 짐승이니 말이 통할 수 없다. 짐승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다.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애쓰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의 문제도 아니라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부류 사람의 내면엔 무엇이 있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엔 정직함, 강직함, 선량함과 같은 요소는 없고 오직 사악함만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다.

간사함이나 음험함은 사악한 성품에 비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얕은 편이다. 정도가 얕은데 어째서 여기에서 언급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언행이 간사하고 종잡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음험하고 간사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보통 사람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들의 언행은 간사하여 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이들을 농락하고 이용한다. 이들은 아예 영문도 모른 채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속아 넘어가며 심지어 이용당하기까지 한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위와 방식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의 사악한 성품이다. 이 사악한 성품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미혹과 통제, 억압이 더 심각한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동기가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속셈이

있다. 그들은 결코 까닭 없이 무언가를 바치거나 헌신하지 않으며 아무 이유나 대가 없이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 집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 언행의 이면에는 항상 동기가 있고 속셈이 있다. 그들의 속셈과 동기가 탄로 나거나 그들의 야심과 욕망이 무산되면 그들은 물러날 기회를 노린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바치고 헌신하는 건 너무도 가치가 없어. 밑지는 장사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어야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그들은 정상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양심과 이성,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 마땅히 갖춰야 할 선행을 어리석음, 미련함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악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의 삶을 돌보는 사역지침을 만들면 적그리스도가 중간에서 가로막는다. 그가 가로막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만약 이 일을 그가 제안했고 형제자매가 이를 알고 그에게 감지덕지한다면 그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누가 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집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면 그가 협력하겠느냐? 그는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로막혀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 사역을 더 잘 확장되게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 사역에 관련되는 큰일이다. 그렇다면 리더로서는 어떻게 협력해야겠느냐? 온 힘을 다해 협력하여 사역을 실행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떤 적그리스도가 중간에서 가로막는 바람에 2 년간 실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는 사탄의 방해이자 교란이다. 어떤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와 악인에게 교란되고 통제되어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가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일이랑 혜택은 나만 받으면 돼.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다 받게 할 수 있겠어?' 이것이 그의 일에 지장을 주기라도 했느냐? 아무 일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런 혜택을 그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방해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실행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고 네 책임이다. 한편으로는 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사역의 확장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 샘이 나느냐? 질투할 게 무엇이냐? 이런 자는 마귀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는 왜 실행시키지 않느냐?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가 이것이 복음 사역의 확장에 유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겠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익에 관련되었느냐? 그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가 실행시키지 않으니 이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자는 살아 있는 마귀이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집의 사역과 관련되고 본분을 이행하는 이토록 많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것을 악덕이라 하고, 사악함이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을 하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너희 역시 살아 있는 마귀이다. 너희는 절대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마라! 또 수시로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교회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악인이 있어도 내버려두는 적그리스도도 있다. 그에게 처리하라고 해도 핑계를 대서

거부하고 꾸물대면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형제자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의 위신에 손상만 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게 리더직을 맡겼으면 결정은 내가 해야지. 내게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가 있다고. 당신이 출교하라는 사람을 출교하면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잖아. 형제자매들한테 그들을 돌보는 건 나고, 모두 내 아랫사람이란 걸 알려 줘야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는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네 숨결조차 하나님이 주었거늘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다니 어리석지 않으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네 생명을 끝낼 수 있는데도 네가 여전히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다. 이는 사악한 짓이고, 이런 자는 살아 있는 마귀이다! 그래서 너희더러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편,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를 면밀히 살피다가 그가 나쁜 짓을 하려 하면 재빨리 저지하고 형제자매와 연합하여 고발하고 해부해야 하며 그를 저버리고 출교해야 한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어린 형제자매 여럿이 연합하여 한 거짓 리더를 파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보니 이 젊은이들이 성장한 것 같다. 그들은 사탄 철학에 기대 살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니 다른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낫다. 대부분 사람은 처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해악을 깊이 입어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거짓 리더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조금 깨달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좋은 일이다. 이는 생명이 성장한 것이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 측면의 본질과 그들의 다방면의 모습에 관해 교제하고 폭로함으로써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제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긴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떠냐? 네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없어도 네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표출, 살아 냄과 성품도 지니고 있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될 위험이 있다. 네게 지위와 권세가 생기고 거기에 밑천까지 생긴다면 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너희에게 경종을 울려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제때에 발견하여 돌아서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이 최선의 경우이니 그래도 구원의 희망은 남아 있다. 하지만 진리 추구의 길에 오르지 못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적그리스도로 규정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네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도 만회할 여지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일단 적그리스도가 되면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게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돌아서서 진리를 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권력이나 기회만 생기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질러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칫 네 결말과 종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일반인의 사악한 성품의 본질적인 구별을 분명하게 얘기했다. 확실히 알았느냐? 패괴된 인류는 모두 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악한 성품의 표출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사악한 성품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과는 다르다. 일반인에게도 사악한 성품은 있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갈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비록 그가 실행할 수 있는 진리는 한정적이지만 결국 일부는 실행할 수 있으므로 그의 패괴 성품이 차츰 정결해지고 진실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결국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펴보고 분별해 보아라. 교회 리더 일꾼이든 일반 형제자매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범위 안에서 실행해 내는지 지켜보아라. 예를 들어, 그가 진리 원칙을 하나 깨달았지만 실행해야 할 때 조금도 실행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이 사악함이니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그다지 깨닫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하고 진리에 부합할지 구하고자 한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를 어기지 않으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언행이 진리에 위배되고 잘못을 저지르며 나아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성질은 무엇이겠느냐? 이 성질이 악행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소치이다. 전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원칙에 이르지 못한 채 관념과 상상에 따라 적절한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니 하나님은 이 같은 성질을 우매하고 무지하며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규정하지 진리를 깨닫고도 일부러 진리를 어긴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늘 관념과 상상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항상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는 리더 일꾼은 반드시 감독하고 제재해야 하며, 진리를 많이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짓 리더에 준하여 면직해야 한다. 만약 진리를 깨닫고도 일부러 진리를 어긴다면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악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고 제명해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성질은 악인이나 거짓 리더의 성질보다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꿍꿍이를 가지고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마음속 깊이 반발하고 있다. 일할 때면 여전히 자기 입맛대로 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는 인간적인 말을 하고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일만 하면 마귀의 성질이 나오니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생기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적그리스도가 된다. 지위는 없지만 본성 본질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위만 생기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적그리스도이다.

너희 가운데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싹임을 자각하여 지위만 생기면 100 퍼센트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리더로 선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들이 너를 뽑지 않게 하여라. "기권하겠습니다. 절대 저를 뽑지 마세요. 제가 뽑히면 끝장입니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현명함이다. 지위가 없는 것이 네가 보호받는 것이다. 네가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된다면 큰 악을 행할 기회는 아마도 영원히 없을 것이고, 징벌받을 확률도 제로일 것이다. 하지만 지위가 생기면 네가 악을 저지를 확률은 100 퍼센트이고, 징벌받을 확률 역시 100 퍼센트일 것이니 그럼 너는 끝장이다. 구원받을 기회를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것이다. 네게 야심과 욕망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제해서 지위를 차지하지 마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늘 관직을 중시하고 지위를 차지하면서 본분 이행은 등한시한다면 이는 허세이고 눈속임이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본분을 받아들였으면 지위에 관한 일에 눈을 팔지 말고 오직 본분만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실재적이다. 네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면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너희에게 지위가 생기지 않게 항상 제한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선거만 하면 갖은 술수로 지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이들의 야심이 너무나도 크다. 사람의 야심이 큰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것이다. 관직에 앉고 싶어 하고 지위를 몹시 좋아하는 20 대의 많은 어린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은 리더로 뽑히지 않으면 삐쳐서 밥도 먹지 않는다.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기질을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점입가경으로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역사상 황제였던 여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 여자였으면 좋겠다면서 무척 부러워한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자신을 뽐낼 틈만 나면 바로 뿜어져 나온다. 그녀는 본분을 착실하게 잘 이행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거나, 마음을 쏟아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녀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본분을 이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골치 아픈 것이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음란에 빠진 여자를 보아라. 남편이 얼마나 잘해 주든, 얼마나 돈이 많든 그녀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다. 자녀를 여럿 두고도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도 있다.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단속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이런 사악한 기질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그녀의 본성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녀의 내면에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다. 더러운 귀신이 환생한 게 바로 그 여자다. 영계의 일은 복잡하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라보기만 하면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긴다. 이를 두고 영계를 꿰뚫는다고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일을 바라볼 때 예리하고 정확해지고, 생각은 민첩하고 분명해지며, 마음은 환해진다. 만약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속이 늘 흐리멍덩해서 무슨 일을 해도 별수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치 쓸데없는 걱정만 하는 멍청이처럼 말이다. 일을 많이 하자니 자기를 뽐내게 될까 걱정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늘 이런 내적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는 진리를 너무 적게 깨달은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 적으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느냐? 삶이 구질구질하고 구차하다.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하고 속아 넘어가 괴롭힘 당하다 뒤늦게 깨달은 날, 자기가 그때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위해 봉사하며 목숨을 내걸었고,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그 단어들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것이다. 너무 구차하지 않으냐? (구차합니다.) 왜 구차하냐?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생긴 일이다. 그래도 싸다! 네가 만약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를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그를 폭로하고 파면시켰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따랐겠느냐?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또 너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 집에서 다년간 양육받고 육성되었지만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며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라 가고 그의 공범이 되었다. 네가 보기에도 구차하지 않으냐? 이런 사람이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으냐?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유괴되었다. 몇 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형제자매를 볼 낯이 없으니 이런 삶이 얼마나 구차하냐! 아무리 괴로워도 쓸데없다. 누가 너더러 진리를 깨닫지 말라 하더냐? 남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총 일곱 가지 조항으로 나눠 교제했다. 각 조항마다 이야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모습과 해부한 본질 그리고 여러 사연은 모두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낸 게 아니다. 전부 근거가 있고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이다. 다만 한 가지, 너희가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전혀 비춰 보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첫째,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뜻이다. 설령 약간 이해할 때가 있더라도 그건 반쪽짜리 이해이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둘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다. 셋째, 자질이 형편없어서 이해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말을 그렇게나 많이 했건만 알아듣지 못한다. 그 당시에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가물가물하다면 그건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이다. 왜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는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이다. 내 말이 정확하지 않으냐?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 중에 설교를 10 년, 20 년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여기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여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해력은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흥미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만약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면 장님이 눈병에 걸린 격이니 가망이 없다. 내가 이 말을 교제하고 나서도 너희가 비춰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너희의 이해 능력이 어떻겠느냐? 형편없지 않으냐? 만약 너희가 계속 게으름을 피우고 안일함만 탐하는 데다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개인의 취향만 가지고 외부적인 일에 정신을 판다면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작아져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그들 인생의 방향과 생존관이 어떤지, 형제자매, 본분, 하나님 집의 이익, 하나님, 진리,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들의 행동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성질을 규정할 수 있는데 굳이 한동안 지켜보고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 적그리스도가 음란만을 행하거나 사람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탄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네가 이런 설교를 다 듣고도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혀 분별해 내지 못하고 그가 표출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임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네가 과연 알아들었겠느냐? 도리는 기억하면서 비춰 보지 못한다면 네 도리는 사실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이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 당시에 알아듣고, 나중에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고 늘 형제자매와 이 일에 대해 교제하며 마음을 기울여 그 진리를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네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안일하고 해이한 자세로 본분을 이행하고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으며 개인의 취향만 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데다가 진리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세상 흐름을 따르며 외부적인 일에 홀려 있다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교제했던 이런 진리는 네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글귀와 도리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헛되이 들었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이런 교제를 나중에 들어 보느냐? (듣습니다.) 몇 번이나 듣느냐? 한 번 들을 때마다 효과가 다르지 않으냐? 나중에 묵상하기도 하느냐? 묵상하고 나서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 이런 도가 네 삶에서 사람이나 일을 분별하는 실행 원칙과 준칙이 되느냐? (확실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모습은 저 자신에게 비춰 봅니다. 저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는 것이 분명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폭로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이런 행동의 성질은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분별하는 측면으로는 아직 미흡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비춰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자기를 똑똑히 보려면 눈앞에 거울이 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흙탕물이 있는 게 좋겠느냐?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떤 점이 좋겠느냐? 자기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만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남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람의 언행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원칙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 자신에게 유익하고, 원칙에 따라 사람을 올바로 대할 수 있으며, 본분 이행과 조화로운 협력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자신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저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진리를 실행해 내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과에 도달하기를 중시해야 한다. 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생명도 성장할 수 없다. 이는 글귀와 도리만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자기를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일,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의 모습에 대해 교제했는데 사악함이라는 측면의 성품에 대해 너희에게 어떤 깊고 새로운 인식이 생겼느냐?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여라. (하나님, 저는 오늘 만약 우리도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여 하나님 집의 사역을 일부러 방해하고 교란한다면 살아 있는 마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제 승부욕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저보다 나은 데가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항상 그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제 내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살아 있는 마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성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 안의 패괴 성품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인식했구나. 사람의 패괴 성품은 단순한 일시적 표출이 아니다. 그 안에는 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서 네가 무의식적으로 많은 패괴를 표출하도록 계속 너를 통제하고 있다. 사람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똑똑히 말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이 이런 패괴 성품을 똑똑히 인식한다면 이것은 한 측면의 발전이다. 이런 패괴 성품에 대해 만약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 연단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실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패괴 성품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것을 토대로 진리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너희 중 많은 사람이 패괴 성품을 표출할 때 자제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는 아직 진리를 실행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희가 이행한 그 정도의 본분은 대부분 흥미나 취향 심지어는 혈기에 따라 한 것으로, 성품의 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훌륭하다. 느낀 바가 있구나. 또 누가 얘기해 보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나서 무척 가슴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간사하게 말하고 직설적이지 않고 늘 위선을 떨면서 기만하는 것을 사악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악한 성품이 무엇인지 해부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서야 사악함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에 맞서고 대적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에 대적하고 맞선다면 이게 바로 사악한 성품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사악한 성품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나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1 년간 캐나다 영화 제작팀을 B조로 분류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 집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말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저희 팀원도 최근 비슷한 내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분을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을 때 본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본분을 대하는 자세가 해이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되는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발전하고자 하지 않으며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본분 이행 태도를 증오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분을 이행하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만약 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시는 기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내린다면 그땐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보아하니 너희에게 압박이 좀 필요한 것 같구나.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아주 좋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너희는 예배 때 이 문제를 교제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정리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마다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이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평생 삶의 가치가 사라진다. 네 삶의 가치가 사라지면 네 목숨 역시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하겠느냐? 네 삶이 산송장과 다를 게 없으니 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네가 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네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네게 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네게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도 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다. 단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사회를 교란시켜서 사람이 점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재난 속에 죽어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새 사역을 확장하는 한편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행복하고 행운인 일은 없었고, 그 어떤 일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것은 인생에서는 물론 인류사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네가 네 사명에서 벗어나고 그 본분과 책임을 멀리하면 네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네 삶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다. 네가 당장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네 여생을 다 살 수도 있겠지만 네 삶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을 것이다. 네가 말해 보아라. 여태껏 진리와 하나님의 도를 들어 본 적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지만 결국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바가 똑같겠느냐? (다릅니다.) 이방인이야 사명을 모르니 사명감이 없겠지만, 너는 사명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재자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이 세상을 맘 편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태평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람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와 자기의 체험 간증을 모두 바쳐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면 하나님은 흡족할 것이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뿐이다. 사람이 조금만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안락함을 덜 누린다면 이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의 결말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무게도 다를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하냐! 이 복은 하나님이 네게 준 것인데 네가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대역무도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믿는 길을 택하였으니 딴마음을 품지 말고 일념으로 마음을 다잡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라. 후회를 남기지 마라. 설령 당장은 베드로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욥의 의로운 행위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무엇을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느냐?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 원칙에 따라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하고, 요령을 피우거나 속내를 감추면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으냐? 이는 인성 범위에 속하는 일이니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이 있느냐?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2019 년 7 월 10 일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2)

참고　캐나다 모 교회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다

지난번 예배 때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었느냐?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이 생생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너희의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나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해 주고 원칙대로 그들을 처리한다.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일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럼 너희가 말해 보아라. 캐나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처리했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많이 놀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왜 놀란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토록 가혹하게 처리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어찌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나요? 이게 원칙에 부합하나요? 즉흥적으로 그러신 거 아녜요?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어떤가요? 그들이 한 일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현지에서 알아봤는데, 그들의 태도나 말, 그리고 현지에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렇게 가혹하게 처리하지 말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 건 그럴 만한 도리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생각이겠느냐? 이 일을 처리한 데에는 초심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들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합리적입니다.) 너희가 합리적이라고 하니 오늘은 일단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어디가 합리적인지, 너희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희 생각이 과연 옳은지, 틀리거나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너희가 언제나 참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아무런 입장도 내보이지 않고 늘 마음이 꼬인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칙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내린 이 결단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생각과 관념, 반발심을 품고 심지어 오해해서 의구심이나 다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만약 견해가 다르다면 우리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일단 놔두고 공통점부터 취하는 것은 어떠냐? 대충 타협하는 식으로 내가 한발 양보하고 너희도 한발 물러서는 것이 좋겠느냐? 분명히 안 된다. 이는 서로 합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일에 대한 인식과 결정을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공을 들이며 진리를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나는 이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도 마음속의 응어리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 일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어 이 일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일에서 무엇을 얻어야겠느냐? (진리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해 주었구나. 아주 훌륭하다. 더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깨닫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측면이다.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려면 발단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겠느냐? 먼저 이들이 출국한 시점부터 이야기하겠다. 너무 뒤로 간 셈이냐? 너희는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지난 일을 들추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내가 말해 주는 이 방면의 도리를 들어 보면 너희는 내가 왜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외국으로 온 모든 사람에게 부탁이나 사명, 책임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작은 측면부터 이야기하겠다. 모든 사람이 출국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네게 해외에 나가서 본분을 이행하겠다는 뜻이 생긴 것에서부터 외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람의 협력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사람이 순조롭게 출국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네게 어떤 연줄이 있는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수속이 완벽한지에 달린 것도 아니다. 외국에 온 모든 사람은 공통된 인식이나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다들 무엇을 체험했느냐? 사람이 순조롭게 출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재한 것이지 사람이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 이쪽 지방에서 저쪽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출국하는 것이며, 온갖 복잡한 수속이 요구된다. 특히 큰 붉은 용이 광적으로 탄압하고 체포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출국 수속은 그리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조롭게 해외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재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출국할 수 있는지,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고 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협력과 하나님의 주재가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네가 출국한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이 일을 누가 촉진해서 성사시켰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건 하나도 없으니 마땅히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마음 편히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여러모로 봤을 때 결국 네가 출국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네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대학원생에 영어도 8 급이라 토플(TOEFL) 시험은 문제없습니다. 출국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가령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투자 이민 수속을 밟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 이들의 출국에는 하나님의 주재나 허락이 없겠느냐? 여기에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인 경우는 접어 두고, 외국에 나가 생활하면서 앞으로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 얘기해 보자. 이 경우는 온전히 개인의 뜻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한편으로는 사명을 띠고 출국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로 출국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네가 출국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본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수속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대가를 얼마나 치렀든,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했든 아무튼 너는 출국해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네가 해외로 나온

일에는 사명이 있으며, 너는 책임과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네가 해외로 나온 그 목표는 아주 분명할 것이다. 첫째, 너는 삶을 즐기려고 해외로 이민 온 것이 아니다. 둘째, 너는 삶의 돌파구를 찾으러 외국에 온 것이 아니다. 셋째, 너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러 외국에 온 것이 아니다. 넷째, 너는 소소한 삶을 살기 위해 외국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너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해 봤을 때 네가 해외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느냐? (본분 이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집에 와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하나님 집의 안배대로 착실하고 분수에 맞게 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너는 누군가에게 협박당해 온 것도, 납치당해 온 것도 아니다. 네가 기꺼이 원해서 온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가 해외에 왔으면 네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게 맞지 않느냐? 사람에게 하는 이런 요구가 높으냐? (높지 않습니다.) 요구가 높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다.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본분을 어떻게 대하고 본분을 어떻게 이행해야만 하나님이 네게 한 부탁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제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내 어깨에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어떤 책임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부탁과 책임이지. 하나님이 나를 외국으로 인도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피조물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 그게 내 본분이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야.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저버리지 않게 될지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하겠느냐? 거짓된 생각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는 이성과 인성,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이 "막상 외국에 와서 보니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후회돼요."라고 한다면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자는 인성이 없고 신의를 저버리는 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외국에 와서도 본분에 몰두하고자 한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캐나다 교회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 가겠다. 캐나다 교회의 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캐나다에 간 것이 우연이겠느냐?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왜 필연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작에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연'에는 하나님의 주재가 있다. 하나님이 네가 어떤 나라에 가도록 주재해서 일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캐나다 교회의 그 사람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아래 외국에 온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캐나다라는 나라로 인도하였고, 교회에서는 그들 각자의 재능과 그들의 업무, 특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들을 각 사역의 직위로 배치해 자기 본분을 이행하게 했다. 처음 그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는 좀 경직되어 있었다. 여기서 '경직'이란 서툴다는 뜻의 경직이 아니라 비록 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러 왔지만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일이 생겨도 진리를 구하지 않고, 일할 때도 원칙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상부에서 무엇을 안배해 주거나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어도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본분을 이런 태도로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건성으로 하다 보니

본분을 이행하는 그들의 내적 상태도 난장판이 되고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들의 교회 생활과 생명 진입은 늘 변변찮았고, 본분 이행의 성과도 별로였다. 진리를 교제해도 실제가 없었으며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 즉,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 적그리스도 옌 씨가 나타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었다. 한패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느냐? 이 적그리스도는 26 살 청년으로 사역한 지는 2 년 반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자매를 꾀었는데 아마 열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에는 그의 맘에 드는 자매도 있었고, 눈에 안 차는 자매는 상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같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2 년 반 전, 캐나다 교회 사람들은 본분을 썩 잘 이행하지 못했고 모두들 의욕이 없는 상태였다. 상부에서 어떤 사역을 안배하든 그들은 건성으로 임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사역이 실행되기가 쉽지 않았다. 상부에서 책망하면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풀이 죽었다. 상부와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사역하는 태도도 무척 의기소침했다. 적그리스도 옌 씨가 리더가 되고 나서 그들의 상황은 날로 나빠져서 많은 사람이 허송세월하게 되었다. 어쩌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이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객관적인 원인은 리더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좋은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더조차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친목만 도모하며 나쁜 짓만 일삼았다. 그럼 주관적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전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무리 속에서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 불신파들 속에서 나쁜 짓을 일삼고 건성으로 임하며 상부에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내리막길을 가고 타락하여 이방인처럼 되는 일은 쉽지 않겠느냐? 너무나 쉽다. 그들이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었다. 본분 이행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집의 쌀을 축내고 하나님 집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부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속임수로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이토록 기만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했을 때 아무도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오직 한 여성만이 그 문제를 거짓 리더에게 보고했다. 결국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뜬장님이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리더 일꾼을 교체하는 원칙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모두 적그리스도를 따라 허송세월했다. 이들 불신파 중에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20 년이 넘었고 기간이 짧은 사람도 최소 5 년은 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 팀의 팀장과 부팀장이 모두 이 적그리스도와 내통한 것도 모자라 서로 질투하며 다퉜다는 것이다. 남녀가 연애하는 일은, 보통 성인이나 노인들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남녀 간의 일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일이어서 한눈에 알 수 있는데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무도 일어나 그들을 질책하거나 폭로하지 않았고, 그들을 분별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 무리라는 걸 알고, 속으로 '난 절대 너희를 따르지 않을 거야. 윗선에 보고해서 너희를 교체시키겠어. 아니면 정의감이 있는 형제자매를 모아서 너희를 파면시키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 사건이 폭로되기 직전까지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은 눈앞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지각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은 어떤 태도로 본분을 대했겠느냐? 밥을 얻어먹으려 빌붙은 것이 분명하다. 그저 하루하루 되는대로 산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집은 빌붙기 좋은 곳이니 문제를 보아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미움을 사지 말자고 생각했다. 괜히 '윗사람'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큰일이라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너는 남에게 미움을 살까 봐 미움받을 짓을 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노하게 할 짓은 하느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나쁜 결과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물론 그가 남에게 미움 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사악한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외에도 어리석은 짓을 적잖이 저질렀다. 캐나다 교회에 사람은 얼마 없었지만 그들의 야심은 결코 작지 않았다. 본분 이행에 별 성과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사역 범위를 확대하려 했고, 집 매물을 물색하다 결국 쓸데없이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지금은 그들 중 대부분이 격리되었다.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어떤 무리 같으냐? 짐승의 무리이고 얼간이의 무리가 아니냐? 분명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렇게 제물을 낭비했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나 정의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마귀 무리뿐이었다!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다!

캐나다 교회 인원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패거리를 짓고 허송세월하고 있었으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사역에 효율이 없고 진척도 없었다. 모두가 옥신각신하며 조화롭게 협력하지 않았다. 리더와 일부 사람은 나쁜 짓을 일삼는데 아무도 마음을 졸이거나 속을 끓이지 않았다. 괴로워하거나 이 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상부에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무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행하는 이 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인원수도, 각종 설비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부족함은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교회 사역에 부담을 느끼거나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지 않았다. 나서서 목소리를 내거나 분별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여 모두가 일어나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하게 하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 얼간이가 눈이 멀어 보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자질이 떨어지거나 나이 들어 노망이 든 것이냐? (아닙니다.) 그 어떤 원인도 아니다. 그럼 실상은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와 한패여서 서로 보호하고 아첨하며 아무도 누구를 폭로하지 않았다. 모두가 마귀의 소굴에서 뒹굴고 있었다. 본분이나 하나님의 부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느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는대로 살면서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 그들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본분과 진리,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책, 징계가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양심의 발견도 없었으며 나아가 깨우침과 빛 비춤,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런 것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무감각해졌고 마귀와 다를 바 없었다. 하나님 집에서 다년간 설교를 들으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말씀,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도 들었는데, 그동안 그들이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였느냐? 적그리스도를 분별했느냐?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해 토론을 벌였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정말 그랬더라면, 틀림없이 몇 명이나마 일어나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고발했을 것이고, 이 지경까지 엉망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한 무리의 바보, 못난이들이다! 그들의 실상과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들을 B조로 보내서 격리 반성을 하게 했다. 이것이 과한 처사였느냐? (아닙니다.) 하나도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떤 기회겠느냐? 그들이 정말 인성이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교회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개의 마음조차 없다면 평생 격리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제명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곧바로 제명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저희가 나쁜 짓 좀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격리시키시는군요. 그래도 지금껏 본분을 이행하면서 공로는 없다 해도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왜 이건 생각해 주지 않으시죠?"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들을 격리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용을 베푼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 따르면 제명당해 마땅하다.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먼저 그들을 격리시킨 다음, 격리 동안 그들의 상황과 각자의 태도를 참작해서 교회에 계속 머물게 하거나 제명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그들에게는 충분한 관용이 아니겠느냐?

그 캐나다 교회 사람들이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저질러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격리한 것은 너무나도 큰 관용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한 것에 이견을 갖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께서 이렇게 처리하신 것이 옳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녜요. 그 캐나다 교회 사람들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지만 당신께서 이렇게 처리하신 것은 일벌백계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처럼, 산을 두드려 범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일벌백계해야 해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는 이방인의 말이 아니냐? 이는 일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관점이다. 아마도 너희가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말을 하면 역겹지 않으냐? 너희가 이런 말로 이 일을 해석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처리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겠느냐? (원칙대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한 것은 맞다. 이 말이 실제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이는 그들의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외에 무엇보다 간단하게 두 어절로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이겠느냐? ('당해도 싸다'입니다.) 그렇다. 그들의 소행에 따르면 그들은 당해도 싸다. 자업자득인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 원칙에 합당하게 일하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준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응당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준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응보이고, 요즘 말로 하면 원칙대로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들의 일을 폭로한 것 중에 어떤 게 사실이 아니더냐? 그들의 그런 일에 대한 분석과 정의, 그들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 사실이 아니더냐? 전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모습과 모든 행동에 따라 그들에게 갚아 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산을 두드려 범을 놀라게 하는 것, 일벌백계,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 등이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일과 같은 성질이겠느냐? (다릅니다.) 그 일벌백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성질이냐? 일벌백계, 산을 두드려 범을 놀라게 하는 것,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이다. 과연 어떤 성질이겠느냐? 통치자나 권세자가 그가 생각하는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겁주려는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일벌백계라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남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고 제멋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통치자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 그의 동기는 바로 그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그의 권세를 지키는 것이니 그가 그 일을 구실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일을 하는 성질인 것이다. 캐나다 교회 사건은 이방인의 사탄 철학이 아닌 진리 원칙을 토대로 처리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여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니 그들의 이런 성질은 실로 악랄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이렇게 그럭저럭 지낼 바에 교회를 떠나 본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하나님 집의 자원은 낭비되지 않을 테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들의 양심에는 이런 지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집의 재산과 물질을 낭비하고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적그리스도와 한통속이 되어 함께 악행을 저질렀다. 이 얼마나 심각한 성질이냐!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그들이 자기를 반성하고 인식하게 하여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다. 만약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년 오늘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다행히 적절한 때에 그들을 격리하고 처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교회 사역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겠느냐, 아니면 도태겠느냐? (구원입니다.) 사실 구원이며,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들이 정신 차리게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는 침륜되고 멸망되고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 점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 것이고, 이조차 깨닫지 못해 계속 의기소침하고 타락하며 자포자기하면서 상부에 대항하고 소극적인 정서를 보이며 관념을 분출한다면 문제가 된다. 너희는 그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회개하길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이 나아지고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어떻겠느냐? 내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은 없는 게 낫다며 모두 정리해 내보내기를 바라겠느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다. 그들이 나아지고 회개하며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집에 돌아와 다시 본분을 이행해서 예전 모습과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으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욘 3:8) 만약 이런 성과에 이른다면 그들에게 이것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이자 흔치 않은 체험일 것이니 이는 잘된 일일 것이다. 이것은 그들 각자의 추구에 달려 있다.

캐나다 교회의 적그리스도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들은 몇 년간 본분을 이행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란한 일 때문에 격리당했어.' 그에게 위기감이 엄습한다. '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 적그리스도의 일당, 공범자, 추종자까지 봐주지 않으시니 정말 매정하시네! 평소엔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정말 사람이 견디기 버거울 정도로 화를 내시네!'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너희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설교를 들은 게 몇 년째냐? 최소 5 년 이상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많은 일에서, 특히 원칙성이 비교적 명확한 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무엇이냐? 일종의 이심전심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왜 그런 건지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를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사람이 설교를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아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가 많은 일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나의 관점과 생각, 일하는 원칙, 그리고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등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 내 관점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 준 다음 너희가 내 관점을 받아들이고 내 관점에 따라 사물, 본분, 신앙, 삶,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사이의 이심전심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심전심의 수준에 이르렀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심전심이 되겠느냐? '일벌백계',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 이런 게 이심전심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한 이 일이 이들 사이에 왜 이런 반응을 일으켰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들의 이런 관점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느냐?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느냐? 이런 말, 이런 관점, 이런 인식과 이해의 방식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나타나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뜻밖의 일이고 나의 예측과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니 내가 이 일로 수치를 느낀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는 침소봉대가 아닌가요?" 너희에게 이렇게 답해 주겠다. 이 일은 큰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며 네 주라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를 받아들이며 너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날부터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어떤 문제겠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구하거나 이해하지 않는다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시각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시든, 네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생각이든 이 위기가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람은 성립되지 않고 산산조각 나서 환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고, 이 위기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이겠느냐? 서로 합하는 관계이겠느냐? 가족의 관계이겠느냐, 아니면 동료의 관계이겠느냐? 과연 어떤 관계이겠느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위기가 존재하는 한 너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고 오해하여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항하고 그 일을 거부할 것이다. 이것이 위험이 아니겠느냐? 이 위험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면은 제쳐 두고 부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해 보자. 예를 들어, 네가 영원히 하나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군주요, 최고의 관료요, 이 땅 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자라고 생각한다면, 언제까지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를 바탕으로 너는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느냐? 몇 가지 예를 들어 주면 아마도 내가 말한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을 모심이 마치 호랑이 곁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또 방금 말한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세상의 군주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가 세상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자기 침상 곁에 어찌 남이 코를 골게 내버려두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군주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행동 방식을 묘사하는 말이다. 너희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을 알거나 접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희 역시 이런 말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말씀을 할 때 너는 그 말들을 결합하여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네가 그런 시선과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대립할 것이다. 네가 자기 마음속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앙모하고 두려워하든, 얼마나 순종하고 머리 숙여 복종하든, 또 네 태도가 어떻든 사실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대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상황이 이러하지 않으냐? 캐나다 교회의 적그리스도 사건을 내가 이렇게 처리한 후에 너희에게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 그리고 그들을 처리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 앞날과 운명을 걱정한 사람이 많았다. 이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인식이 하나님의 본질에 부합한다면, 가령 하나님의 공의와 권병, 지혜에 대한 네 인식이 진리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네가 그 안에 담긴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을 오해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내가 캐나다 교회의

일을 처리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를 겁주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겠느냐? 이 말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올바른 인식이냐?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하느냐? 내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다. 그의 이런 인식 방식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이 간단하지 않으냐?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리 어렵게 해석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누굴 겁주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본분 이행의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들은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했겠느냐? 아직 기준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하는 과정에 있기에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도 추궁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고 꾸물대는 사람들이 있으며, 혹은 도중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썩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본분을 이행하러 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고 고생해도, 아무리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 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 체험과 경험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또 누구를 경계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정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 위치를 올바로 찾아서 자기 본분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너희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

캐나다 교회에 일어난 적그리스도 교란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오늘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했느냐? 내가 그들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참아 왔다. 어느 정도로 참았겠느냐? 오랜 시간 그들은 완성된 작품을 만들지 못했고 사역에도 진전이 없었는데 다들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려 제멋대로 굴고 단속 없이 방탕하게 지냈으니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했다. 너희도 만약 제멋대로 굴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린다면 내가 너희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이 얼마나 체면이 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도 옳지 않다. 너희는 자꾸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이곳에 발을 붙여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제대로 이행할 수 있든 없든 도망치지 말고 최소한 마음을 다해 마지막에 온전한 답안지를 제출하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질이 떨어지고 가방끈도 짧아서 별 재능이 없어요. 성격에도 결함이 있고 본분 이행에도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못 해서 교체되면 어떡해요?" 뭐가 걱정이냐? 그 사역이 너 혼자 완수할 수 있는 일이냐? 너는 그중 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너더러 전부 도맡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저 네 몫만 맡으면 된다. 이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 왜 의심하기만 하느냐? 떨어지는 낙엽에 맞을까 걱정하며 발 뺄 궁리부터 하니 못나지 않았느냐? 무엇을 못나다고 하느냐? 현실에 안주하며 전력을 다하려 하지 않고 늘 대충 먹고 살 궁리만 하며 좋은 것을 누리려 하니 이런 사람이 바로 쓸모없는 자이다. 속이 너무 좁은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좀생이라고 합니다.) 좀생이인 사람은 모두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속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모두 그와 같이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 설사 하나님을 믿더라도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해하기에는 네가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도 미미하여 이것을 이해하는 데 미치지 못하니 네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심과 상상, 오해,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곤 죄다 이런 것들이라면 네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교체될지 몰라 늘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오셔서 시찰하실지 몰라.'라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안심해라. 너희가 하나님 집으로부터 받은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설사 너희가 진리 추구나 생명 진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추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예배 때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교회 생활은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등 일은 내가 감시하지 않고, 너희의 사역을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너희를 간섭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각 방면의 업무에 관해 너희가 나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사역 과정에서 너희의 경험이나 업무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일련의 방안을 도출해 냈을 것이다. 그것이 글이든 말이든 하나의 틀은 도출해 냈을 터이다. 너희의 사역 패턴이 어떤지 나는 모르니 너희의 사역 계획이나 사역 방식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 너희 나름의 스타일이나 규칙, 틀에 따라 손에 익은 방식, 쉬운 방식, 모두가 자유롭고 사역 효율이 높은 방식대로 하여라. 너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둘러볼 때도 있겠지만 너희 눈에 띄지 않게 돌아가면서 최대한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 모두가 업무가 익숙지 않아 배우면서 조금씩 익혀 가는 게 필요하다. 업무를 배우는 것이든 아니면 진리에 진입하는 것이든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진도와 효율이 있기 마련이다. 무리하게 강요해선 안 된다. 사람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다.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약간의 교훈을 얻은 다음 차츰 다방면으로 어느 정도 길을 도출해 내고 원칙을 파악하면 발전이 있게 된다. 너희에겐 너희 나름의 업무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 내가 간섭해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사역에 관한 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입장을 고려한 이유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내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너희에게 숨김없이 말하자면, 업무 측면이든 아니면 예술과 관련된 측면이든, 더 나아가 진리와 관련된 측면이든 너희가 볼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무척 낮은 것 같다. 내가 만약 알묘조장 식으로 너희를 대한다면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견뎌 내지 못한다. 내 뜻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일을 한다면 내 요구치가 지금 너희의 실제 업무 수준과 실제 생명 진입의 분량을 넘어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고생스럽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난감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니 이는 좋지 않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실제 상황이 바로 이렇다. 이 두 가지 원인, 즉 하나는 너희 자신의 원인,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너희의 점진적 성장에 적합하다. 생명 진입 측면으로는 하나님 말씀 책이 있고, 여러 예배와 설교가 있으며, 양육하고 붙들어 주는 리더 일꾼이 있으니 너희가 먹고 마시며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람의 생명 성장 과정은 마치 파종하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면 점점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은 매우 더딘 과정이다. 물론 이 더딘 정도는 낱알의 씨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과정보다 훨씬 느리다. 왜 그렇겠느냐? 사람의 내면에 많은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고 게을러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것이 무감각하고 둔하다. 또한,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에 진입하여 생명 진입에 이르는 것은 순전히 오르막길을 가고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대세를 따르고 그럭저럭 살며 세상을 추구하고 사회 흐름을 따르게 하는 것은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쉬울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며 정의감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가 자기의 주관적 바람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기분과 관념은 물론 게으름 등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버려야 한다. 자기 상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역 파트너, 환경을 마주하고 나아가 정곡을 찌르거나 듣기 거북한 말을 들으면 기도로 이겨 내야 하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 추구의 길을 가는 데에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의 심지가 깊고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한두 해를 체험한 후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자기 성미대로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면 그의 성장은 더디기만 할 것이다. 어쩌면 얼마 동안 특수하고 뜻깊은 일이 일어나 그가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 마음 깊은 곳에 엄청난 상처와 자극을 받아야만 그의 생명 진입에 자그마한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전환점으로 인해 그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아직 그럴 수 없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진리를 향해 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가 만약 이치만 떠들고 육적인 편안함만 탐하며 그다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그에게 있어 수박 겉핥기 식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진리를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 성장이 더딘 정도에 따라 내가 너희와 이런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없이 유익하다. 최소한 너희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종일 살피고 지켜보면서 24 시간 숨돌릴 틈 없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너희가 순리에 따르게 할 것이다. 순리에 따르는 것이 너희가 방종해도 된다는 뜻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안심하고 너희를 지켜보지 않겠느냐? 성령이 감찰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런 필요가 있고 그가 마음속 깊이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 하기에 네가 지켜보지 않아도 그는 진리를 추구할 것이다. 그가 바로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 그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가 지켜보고 있어 봤자 소용없다. 지켜보더라도 그는 겉으로만 반응할 뿐이고, 네가 잠깐이라도 한눈팔면 그는 구색만 맞추다 돌아서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진리 추구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희와 지내고 접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캐나다 교회의 일이 모두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일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계속 이것이 일벌백계이고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일이 없을 땐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미 합해져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자 네 보잘것없는 분량이 드러나고 말았다. 무슨 분량이겠느냐? 너는 네가 중임을 맡을 수 있다고, 고생할 수 있다고, 네 의지가 예전보다 강하고 믿음도 커져서 곧 온전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에 이런 착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떠냐? 아직 멀었다! 나란 사람을 보면 외모는 이렇게 생겨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내 성격은 시원시원하다고 할 수 있지 않으냐? 성격으로만 보면, 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몰래 그 일을 하고는 너희에게 내가 무슨 생각인지 맞춰 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나는 너희에게 똑똑히 말해 준다. 결국, 너희는 일련의 이론을 도출해 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 최고의 인식입니다."라고 말이다. 이 인식이 어떠냐?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가장 실패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을 수 있고, 내 외모를 너희가 볼 수 있으니 나는 너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겨우 이 정도의 일만 해도 너희는 짐작하지 못하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고, 고작 이 정도의 이심전심도 안 되는 것이다. 너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 너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아직 멀었다! 이것이 진실한 말이고, 실제 상황이다. 너는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래 믿어서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잘 들어라. 너는 아직 멀었다! 네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너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아직 멀었고 근처도 가지 못했다. 어떤 일이든 다 사람을 드러낼 수 있다. 캐나다 교회를 처리한 일의 경우에도 일부 사람들이 드러났다. 사람은 이런 다양한 환경과 사건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행사와 성품을 이해하고 사람의 패역,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을 통해 네 진실한 분량과 내적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번에 교훈을 좀 얻었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인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것이 이렇게나 오래 이야기할 일이었느냐? 그래선 안 될 일이었다. 왜 그래선 안 될 일이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글귀와 도리에 따라 이 정도의 일은 너희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생각해 본 다음 다 같이 교제해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상대적으로 순수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극단으로 치우쳤으니 내가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교제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교제로 모두의 마음이 환해지지 않았느냐? 이 일과 관련하여 다른 생각이 들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 교제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교제하도록 하겠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을 해부하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인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에 대해 교제하였는데 어떤 측면을 위주로 교제하였느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왜 그가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그의 본성 본질 속에 어떤 특수한 성품이 있고 어떤 특수한 모습이나

특징이 있길래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명확한 특징이 있어서 그의 사악함이 존재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들의 본성 본질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대놓고 진리를 어기는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뻔히 알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인물을 까닭 없이 적대시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 집에서 형제자매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마음에 그는 이 일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 교제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진리를 자기 지위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특히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내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교제할 때 들었던 사례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너희는 사례만 기억하지 내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교제하고 해부하며 했던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 본질을 교제하고 해부한 것과 관련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만약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떠올릴 수 있는 일은 너희가 이해한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들었을 땐 그 말씀이 옳다며 도리 그대로 기억하고, 아주 힘들게 기억했지만 한숨 자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고, 한 달이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냐? 네가 한 가지 일이나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네가 이방인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이방인의 방식으로 일을 바라보고 논한다면 이는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네가 몇 년간 설교를 듣고 교제해도 아무런 수확이 없고, 남들이 네게 진리를 교제하면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을 너희 중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한편으로는 시간이 오래되어 너희가 잊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 말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간파하고 폭로하는 핵심적인 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어떤 말이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그가 긍정적인 모든 사물과 진리와 관련된 모든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것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는 왜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겠느냐? 긍정적인 사물이 그에게 해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의 이익에 연관되느냐? 그럴 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왜 아무 이유 없이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겠느냐? (그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본성이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사악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말이 중요하지 않으냐? 너희는 이토록 중요한 말은 기억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말만 기억한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느냐? 너희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이해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너희는 역시나 지엽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얘기한 것을 모두 한담으로 치부했다. 나는 한담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으로 사람을 분별하는지 알려 주는 것이다. 내가 한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분별하는 최고의 진리 원칙이다. 네가 만약 이 말을 적용할 줄 모른다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분별하고 인식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는 저희를 참 잘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었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적그리스도로 규정하시나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겉으로는 남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일부러 하나님에게 맞선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음험하고 교활한 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분별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기며 심지어 이로 인해 하나님을 정죄하고 원망까지 한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머저리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농락하고 꼬드기며 아첨하는 등 그런 표면적인 일만 보고 적그리스도 본질의 사악한 면은 보지 못하며 적그리스도가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왜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며 늘 표면적인 현상에 미혹되기만 할 뿐 문제의 본질과 결과를 간파하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세상 물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갈등하며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 잘못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것은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늘 관념과 상상으로만 사람과 일을 바라보아서 생긴 결과이다.

2. 부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인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에 대한 교제를 이어 가겠다. 여기에서 중점은 사악함이다. 음험함과 간사함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사악함이고, 음험함과 간사함은 그다음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교제하고 폭로했다. 그땐 하나의 큰 틀, 개념을 정의하는 성격이 강한 내용을 교제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이런 측면의 본질을 폭로하는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교제해 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제에 교제할 만한 게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있다. 교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있다. 오늘은 방식과 관점을 바꿔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교제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의 주된 특징과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적그리스도라는 작자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적대시하고 혐오한다. 그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치 않다. 누가 종용한 것도 아니고 악령이 들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자신이 원래부터 싫어하고 적대시하며 혐오한 것이다. 즉, 그의 생명과 뼛속까지 긍정적인 사물을 보기만 하면 반감이 생기는 것이다. 네가 만약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교제한다면 그는 너를 증오하고 심지어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이 측면은 지난번에 교제하였으니 오늘은 그런 측면으로 교제하기보다는

다른 면을 이야기해 보겠다. 다른 면은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혐오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오늘은 이런 측면과 관점으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분석하고 해부하겠다.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너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이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적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기 좋아하는지, 그가 일하는 방식과 수단은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이런 관점과 측면으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부정적인 사물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부정적인 사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짓말, 기만이 부정적인 사물이 아니겠느냐? 거짓말, 기만은 부정적인 사물이다. 그럼 거짓말, 기만에 상대되는 긍정적인 사물은 무엇이냐? (정직함입니다.) 그렇다. 정직함이다. 사탄이 정직함을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만을 좋아한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 무엇이더냐?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느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럼 사탄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더냐? 거짓말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기만입니다.) 그렇다. 그는 기만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직함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정직함은 긍정적인 사물이라 사랑하지 않고 반감을 품고 증오하는 반면 기만과 거짓말은 좋아한다. 누군가 항상 적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사역을 하면서 지위를 좋아하고 때로는 게으름도 피워요."라고 정직한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종의 태도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겠느냐? 사실대로 말하는 이 사람에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반감을 품고 싫어한다. 어떤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에게 "제가 한동안 여러분을 이끌었는데 제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니 말해 줘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당신은 무슨 일이든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집에 당신 같은 리더가 몇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점이라면 진지하고 성실한 게 당신의 결점이겠죠. 만에 하나 당신이 지쳐서 아프거나 쓰러져서 사역할 수 없게 되면 저희는 끝 아닌가요? 누가 저희를 이끌겠어요?"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알랑방귀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바보로 여기고 농락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바보가 될지언정 이 말을 굳이 들추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들이 그의 흠이나 패괴 성품, 결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그를 칭찬하며 치켜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아부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후련해지고 산해진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느긋하게 만끽하고, 듣고 나면 으쓱거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 안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성품이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해요.

당신을 지켜 주는 사람은 잘해 주고, 당신을 멀리하거나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얕잡아 보고 무시하죠." 이는 바른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느냐? 언짢아서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해명할 수 있는 핑계나 이유를 찾고자 고민할 것이다. 앞에서 늘 자기를 떠받들고 감언이설을 통해 은근히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기만하는 게 확실한 말을 하는 사람조차 적그리스도는 전혀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요직에 두어 쓴다. 그것도 모자라 항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중용의 대상으로 삼고는 그들에게 중요하고 체면이 서는 본분을 이행하도록 배치한다. 반면 늘 사실대로 말하며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내 본분을 이행하게 해서 그들에게 윗선 리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든,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든 적그리스도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남을 잘 속이고 그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쓰고 하나님 집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기만과 거짓말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복음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등한시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성과가 형편없고, 사람도 많이 얻지 못한다. 그런데도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실상을 보고할까 두려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거짓말과 기만에 능해서 나쁜 일은 보고하지 않고 좋은 일만 보고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말을 듣기를 가장 좋아하겠느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모두 잘 증거해서 복음 전도 달인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니냐?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적그리스도가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네,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성과가 갈수록 좋아져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전문가입니다." 그저 이렇게 서로를 치켜세울 뿐 그는 굳이 들추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역한다. 아랫사람들이 그를 속여도 그는 기꺼이 속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실상을 알게 되어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열 명 중에 두 명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알아보는 걸 포기했고, 남은 여덟 명 중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작 세 명뿐이에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그 세 명을 전해 와야 합니다."라며 일어나 실상을 폭로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는 속으로 '난 모르는 일이야!'라고 생각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가 모르는 일의 실상을 솔직히 말했는데 그가 동의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리더인데도 교회 사역의 실상과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고 파악하지도 못해서 실제 상황을 아는 사람이 낱낱이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각 있는 사람과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분명하게 밝힐 때 그 말을 들은 그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느냐? 체면을 구기고 위신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에 따라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에게 증오심이 생길 것이다. '입방정은!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그렇게 말해서 모두가 알게 됐으니 다들 내가 아닌 너를 숭배할 거 아냐. 이러면 내가 무능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 나한테 찍혔어.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매사에 나한테 대들고 맞서면 큰코다치게

만들어 주겠어.' 봐라, 그가 진지하게 사역하고 정직한 말을 하며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에게 맞서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그는 얼른 협조하여 자기 사역에서의 실책을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사역에 태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사역을 열심히 책임지는 사람을 증오하며 심지어 그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려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성품이냐? 이것이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이렇게 드러난다. 정직한 사람,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원칙을 고수하고 진상을 추궁하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적그리스도는 반감을 품고 혐오한다. 그의 사악한 본성이 터져 나오고 표출되는 것이다. 반면 기만적으로 행동하거나 거짓을 꾸며 내기만 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 너희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읽어 보았느냐?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에 어느 정도 이런 성질이 있다. 그 임금이 벌거벗고 길을 걸어가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새 옷이 정말 아름다워요! 임금님은 너무 멋지세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임금님의 새 옷은 정말이지 신비롭네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임금이 알았느냐? 그렇게 벌거벗고는 어떻게 자기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을 모를 수 있느냐?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적그리스도는 음험하고 간사하지만 지혜롭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가 지혜롭지 않다고 하겠느냐? 그가 벌거벗은 임금처럼 그를 속이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며 추태를 보이니 어리석지 않으냐? 그러니 많은 경우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느냐? 바로 그의 어리석음이다.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만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직함을 싫어하며 진실을 증오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교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실행하고 기만이나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일수록 괴롭히고 밉게 본다. 반대로 그를 치켜세우고 그를 속이는 사람일수록 그의 총애와 환영을 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사악하지 않으냐? 너희 주변에 이렇게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냐? 본 적 없느냐?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거짓말로 그에게 맞춰 주는 말을 하면서 한패가 되면 그때는 너와 원수가 되지 않는다. 네가 만약 사실대로 말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를 고수한다면 언젠가 그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결국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삭이고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느냐? 네가 사실대로 말하여 문제를 보고하면 호되게 당하는 것이다. 교회마다 문제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으냐? 만약 사람이 거짓말로 교회를 속여 책망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괴롭힘이냐? (아닙니다.) 이는 정상적인 징계로, 괴롭힘과는 다르다. 그것은 네게 업무상 실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네 행동에 옳지 않은 속셈이 있었고 거짓말로 기만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과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말이 바로 임금을 모심이 마치 호랑이 곁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와

말할 때는 항상 눈치를 살펴야 한다. 그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안색이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 어떤 말이 그의 마음에 들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오늘 비가 오려나요?"라고 물어보면 너는 "오늘 일기 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한 건 본분을 이행하러 나가기 싫다는 얘기다. 네가 만약 "오늘 일기 예보는 맑을 거래요."라고 대답한다면 그가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재빨리 "아, 잘못 말했어요. 오늘 비 온대요."라고 말해야 한다. 이에 적그리스도가 "방금 전엔 비가 안 온다더니 지금은 왜 또 비가 온다고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너는 "지금 맑다고 계속 맑으란 법은 없죠. 옛말에 '하늘에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기 예보도 틀릴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는 눈은 당신이 정확하겠죠!" 적그리스도가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너보고 뭘 좀 안다며 칭찬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처신하겠느냐? 너희 역시 그러지 않겠느냐? 남들이 참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참말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등 적그리스도가 자주 하는 일을 너희는 하지 않느냐? 너희는 모두 궁정극을 보지 않았느냐? 조정에서 황제와 대신이 어떤 관계냐? 그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것은 황제가 모든 사람의 말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남의 말을 듣는 원칙이다. 모든 대신의 경우는,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황제가 왕정승이 오늘 한 가지 일을 얘기했다면서 뭐라 뭐라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대신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황제의 의도는 왕정승을 중용하겠다는 것이군. 그런데 황제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작당 모의이고 역모이니 대놓고 왕정승 쪽에 붙을 순 없지. 중립을 지키면서 왕정승을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말아야 해. 황제가 내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되 황제의 뜻에 반대하지는 말아야겠군.'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고심하며 구불구불 꼬는지 좀 보아라. 뱀이 지나간 길보다 더 굽었다. 그들이 하는 말의 요점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다 모호해서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경험으로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석하고, 그의 평소 언행을 바탕으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말 속엔 진실이 하나도 없다. 저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하는 말이든, 윗사람이 하는 말이든 그들의 대화는 각자의 역할과 말로서,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이 네가 듣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람의 언행에는 일정한 속셈과 목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말할 때 그 말의 속뜻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게 되고, 돌려 말하게 되며,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게 된다. 방식이 생기면 그것이 진실한 말이겠느냐?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허와 실이 혼재하여 실제도 있고, 허구도 있으며, 기만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부 진실한 말이 아닌 것이다. 방금 말한 왕정승의 예시처럼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왕정승을 반대하는 자의 그 반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짐작할 수 없다. 그러니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 다음 장면은 그가 왕정승 집의 밀실에서 술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 둘은 원래부터 한패였던 것이다. 그가 왕정승을 반대하는 장면만 보고서 어떻게 그 둘이 한패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겠느냐? 그가 왜 반대하겠느냐? 의심받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황제를 둔감하게 만들어 그 둘이 한패라는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테두리 안에 사는 이들은 진실한 말은 한마디도 못 하고 매일 거짓말을 하느라 피곤한데도 왜 벗어나지 않겠느냐? 적수가 죽으면 참배까지 하는 것은 어찌 된 영문이냐? 그는 남들과 싸우길 좋아한다. 싸우지 않으면 무료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낀다. 그의 대단한 음모와 계략을 선보일 곳이 없으면 적수를 찾아 그와 우열을 가려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적수가 죽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부류의 사람이 교화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이렇다. 매일 남들과 싸우며 리더 일꾼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과도 싸우려 한다. 날마다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니 당최 쉴 틈이 없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붉은 용처럼 하루라도 멸망시키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적그리스도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고, 기만과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지니겠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먼저, 그는 이 진리를 멸시한다.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한다는 점이 그의 문제를 잘 말해 주고, 그의 본성이 사악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도, 철저하지도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고하여 알리고, 무슨 일이든 형제자매에게 털어놔야 하는데 이래서 존엄성이 생기겠어요? 이러면 존엄성이나 자아는 고사하고 프라이버시도 없어질 텐데요. 이거 끔찍하군요. 이게 무슨 진리예요?" 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를 속으로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가 정죄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리 없다. 그는 절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거짓말하고 나서 시인하는 사람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는 이런 행동을 속으로 멸시하고 비웃는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이들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직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정의하는 것은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악함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이 되랬다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돼서 이런 일도 곧이곧대로 말하다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 그가 속으로 정직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가 이 진리를 정죄하고 혐오하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긍정적인 사물이 분명하고 처신할 때 갖춰야 할 정상 인성 측면의 살아 냄이 분명한데,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이를 정죄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교회에는 언제나 일부 문제를 상부에 보고했다거나 실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리더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받는 사람, 즉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때로 상부에서 교회 상황을 물으면 어떤 리더는 안 좋은 일은 빼고 좋은 일만 보고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실직고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한쪽으로 제쳐 둔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상부에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어. 상부에서 책망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하고는 상부에 실상을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실상을 말하자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왜 발칵 뒤집혔겠느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여 실상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동의하겠느냐? 그가 용인하겠느냐? 그는 문제를 보고한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곧 그 일로 회의를 소집해 함께 논의하게 해서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부화뇌동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 실상을 보고해서 리더가 지금 위험해졌어. 우리가 보고하지 않았으니 상부에서 리더를 처리하면 우리도 연루되는 거 아냐?' 따라서 이들은 그 리더를 지킬 궁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실상을 보고한 사람만 고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는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 사실을 감히 상부에 보고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그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싶어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실상을 알지만 적그리스도가 늘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니 그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타협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협박을 당한 게 아니겠느냐? 끝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 교체된다면 타협한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할 것입니다.) 그는 기쁘면서도 후회할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가 교체될 때까지 계속 그를 폭로하고 그의 문제를 보고할걸.' 하지만 너무 나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적그리스도가 기만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직함을 혐오하는 것은 그의 사악한 본성이 가장 먼저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때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또 어떨 때는 끝은 있으나 시작이 없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챌 수가 없으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할 때 대명사를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보고한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형제자매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았죠...." 한참을 얘기해도 확실한 게 없고 횡설수설한다. 온전한 문장 없이 전부 단어의 나열이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끝까지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답답하다. 사실, 그는 가방끈도 길고 문화적 소양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왜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성품 문제이다. 사람은 너무나도 교활하여 진실을 좀 얘기하는 것도 힘들다. 적그리스도는 하는 말마다 핵심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결론이 없고, 뱉은 말을 주워 담거나 늘 떠보는 식이다. 자신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게 해서 추측하게 하기 위함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채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는 너 스스로 추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추측한 게 곧 사실이라고 믿게 말이다. 어쨌든 그는 확실히 말하지 않았으니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밖에, 네 추측을 말하는 게 그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겠느냐? 네가 말한 추측은 바로 그가 이끌어 내고 싶었던 말이다. 네 말을 통해 그는 그 일에 대한 네 생각과 관점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너에게 말해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말할 것이며,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의 뒤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늘 뒷말을 잇는다면 그의 함정에 완전히 빠지게 될 것이다. 그가 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는 사악한 성품을 갖고 있어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건 너무도 손쉬운 일이다. 그가 왜 함정을 파 놓겠느냐? 그는 네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네가 그를 간파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네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하는 동시에 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며, 네 관점과 생각, 행동 방식을 끌어내려 든다. 만약 끌어낸다면 그가 꾸민 함정이 제 역할을 한 것이다. 혹자는 말할 때 '흠', '아'와 같은 간투사로 시간을 끌며 구체적인 관점을 말하지 않고, 또 혹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등의 단어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진실한 뜻을 숨기고 하려는 말을 대신한다. 말할 때마다 쓸데없는 조사나 부사, 보조동사가 특히 많다. 만약 그가 한 말들을 녹음해서 정리하면, 그 일에 대한 그의 관점과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 한마디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는 함정과 시험, 유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사악한 성품입니다.) 너무도 사악하다! 이는 기만 아니겠느냐? 함정을 파고 시험하고 유인하는 것은 전부 기만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지닌 이 부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 공통된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느냐? 좋은 일은 알리고 나쁜 일은 알리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늘 우물쭈물하면서 반은 숨기고 반만 드러낸다. 또 애매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말하며 남을 시험하려 든다. 이러한 것이 전부 함정이자 기만의 수단이다.

이런 모습, 이런 언행을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많은데, 너희가 만약 오랫동안 그들과 접촉한다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먼저 그가 정직한 사람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가 아무리 남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해도 너는 그가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추구하는지, 정직한 사람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가 정직한 사람에 대해 속으로 반감을 품고 혐오하고 업신여기는지, 아니면 속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단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어렵고 쉽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등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짧은 시간 안에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기만하는 수단이 교묘하다면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그의 정체는 탄로 날 수밖에 없다. 큰 붉은 용처럼 말이다. 늘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떠들지만 지금 아직도 그것이 국민의 당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이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진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으냐? 처음엔 서민들도 공산당 덕분에 신세를 고쳐 주인이 되었다고, 공산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종이라며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의 마귀적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의 종에서 공공의 적으로 바뀐 것이냐? 그것이 하는 짓들을 통해, 또 그것의 말에 대입해 보고 전부 사람을 속이는 허언이자 거짓말이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말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말만 번지르르하지 하는 짓은 최악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형제자매에게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더냐? 네가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조금만 내비쳐도 그는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분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면 사소한 이익도 필사적으로 다투며 양보하지 않는다. 그의 행동을 보고 나서 그의 말에 대입해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의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전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다툴 때 그가 취하는 행동이나 일 처리의 속셈과 방식, 방법은 모두 거짓이 아닌 진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과 기만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하느냐? 수단과 음모, 계략을 좋아한다. 그들은 사탄 철학을 따라 행동하고 진리는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거짓말과 기만에 의지하고, 음모와 계략만을 꾸민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확실하게 교제해도, 설사 그가 머리를 끄덕이며 인정한다 해도 그는 진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서 음모와 계략을 세워 행동한다. 네가 진리를 아무리 확실하게 교제해도 그는 마치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 그는 번지르르한 말로 자기의 진상과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며 기만한다. 남들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는 기뻐한다. 그의 야심과 욕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행동하는 한결같은 수단이자 방식이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소극성과 연약함, 패역한 내적 상태를 툭 터놓고 교제하며, 솔직하게 말하는 정직한 사람에게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반감을 품고 업신여긴다. 그는 자기처럼 간사하게 에둘러 말하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찾았다며 기뻐한다. 더 이상 남이 자기보다 낫거나 자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가 사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긍정적인 사물, 진리는 양심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면 모두 좋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선 이런 긍정적인 사물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려는 사람은 모두 그의 원수가 되고, 그에게 적대시된다. 이것은 사탄이 욥을 적대시한 것과 같은 성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질이다. 성품과 본질 역시 사탄과 똑같다. 그들의 본성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들과 사탄은 같은 부류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한패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과하냐? 하나도 과하지 않고 완전히 옳은 말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기만과 거짓말, 허상과 위장을 좋아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의 진상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복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욕지거리를 퍼부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그들의 진상을 폭로하는 사람은 그들을 격분시키고 노발대발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위장에 능한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동정할 줄 알고, 남들의 고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소극적이고 연약한 이들을 항상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아리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인데 네가 만약 그의 위장과 가식을 폭로하고 그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는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장하고 가식을 떨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바리새인이 성경을 들고 사거리에서 기도하며 남들에게 읽어 줄 때 네가 그의 이런 모습은 가식이며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한다면 그가 네 말에 수긍하겠느냐? 그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느냐? 그가 그 말을 듣고 반성하겠느냐? 자기가 그러는 것이 가식이고 기만이라고 인정하겠느냐?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네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 징벌받을 짓이에요."라고 한다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실이다. 그럼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는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말할 것이다. "뭐? 나보고 지옥에 떨어져 징벌받으라고? 말이 심하네! 내가 믿는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 그가 말만 이렇게 하고 끝이겠느냐?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네게 이런 말도 할 것이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고, 맺은 결실이 얼마고, 십자가를 진 게 얼마고, 감옥에 갇혀 고통받은 게 얼만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넌 엄마 뱃속에 있었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인내와 포용을 얘기하는 그가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 이런 일도 포용하지 못한단 말이냐? 왜 포용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실상을 말해서 그의 속내가 들통 났고 그의 종착지도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가 포용할 수 있겠느냐?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길은 가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식적인 모습도 있을 경우 네가 만약 그가 가식적이라고 폭로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곧바로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곧바로 반성할 것이라고 하면 다소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정상인이 이런 말을 들을 경우 먼저 가슴이 찔리는 느낌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가슴이 찔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가 마음에 새겨듣는다는 뜻이다. 그는 감히 자기 앞에서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고 사실대로 말하며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예상치 못했던 말이며 지금껏 들어 본 적도 없는 말이다. 또한, 그는 염치가 있고 체면을 차리다 보니 그가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한 다른 사람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렇게 성찰한 후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생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남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식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맞는다고, 또 이렇게 했다간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염치가 있다. 염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삼갈 줄도 알아서 다시는 악행이나 몰염치한 짓,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어느 정도 회개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개할 가능성은 있으니 적그리스도나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낫다. 어떤 점이 낫겠느냐? 그는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서 남들이 폭로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찔리는 느낌을 받는다. 비록 창피하고 존엄성이 손상되지만 최소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 설령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이미 인정하고 승복하며 받아들인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어째서 적그리스도가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그가 맞는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한다는 데 있다. 또한, 그는 자기 방식으로 구실과 핑계를 찾고, 온갖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한다. 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겠느냐? 부정적인 사물을 긍정적인 사물로, 긍정적인 사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말이 아무리 옳고 진리에 부합한다고 해도 내 언변을 당해 낼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내 말이 거짓말이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말을 부인하고 정죄하겠어.'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도 그 사람을 정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는 진리 추구나 정직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는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리 추구에 대해 반감을 품고, 증오하고, 적대시한다. 그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진리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말이든 남에게 얘기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에게 맡길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적그리스도가 믿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그가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겠느냐? 이 많은 물음표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는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부정하고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 내가 말한 국면 전환이 무슨 뜻이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아무리 정의로워 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거짓말도 천 번 하면 진리가 됩니다.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사탄의 사악함이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적그리스도는 가식과 기만에 능하다. 그들이 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뼛속 깊이 새겨졌다는 뜻이다.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들 본성 본질 안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칙이기도 하다. 그들은 "착한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천 년을 산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 등 말을 믿는다. 이 말 중에 인성에 부합하고 정상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말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이런 헛소리를 좋아하고 이런 말을 좌우명으로까지 삼는 것이냐? 이는 그들의 본성이 너무나도 사악하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내가 몇 번 접해 본 어떤 교회 리더가 있었는데 1 년가량 되는 기간에 만날 기회가 꽤 있었지만 대화한 적은 많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을 아끼기 때문이다. 말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에게 질문해도 그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지낼 때도 이렇겠느냐?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맘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니 섣불리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정리해 보니 그와 함께했던 기간에 그는 총 다섯 마디의 가장 '전형'적인 말만 했다. 말을 아끼는 그가 말만 했다 하면 '전형'적인 말이 되었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귀인'이 아니냐? 교회 리더 일꾼이 나와 만나 상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으냐?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했다. 그는 다섯 마디, 가장 전형적인 말 다섯 마디를 했다. 그 전형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정의된

것인지 너희가 한번 들어 보아라. 그의 말에는 모두 배경이 있고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그의 첫 번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들려주겠다.

이 리더의 소속 교회에는 나쁜 짓을 몇 번 저질러서 교회 사역을 교란한 악인이 있었다.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리고는 그에 관한 일을 교제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를 출교해 내쫓는다면 교회에 통보하여 그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왜 악인으로 규정되어 쫓겨나는지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그 악인이 저지른 나쁜 짓을 폭로하자 말을 아끼는 그 리더가 말했다. "그 사람도 선의로 그런 겁니다." 그 악인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교회 사역을 교란한 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선의'로 보인다. 그는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선의라면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의 성질이 좋든 나쁘든 혹은 그 결과가 어떻든 선의이기만 하면 방해하고 교란하더라도 진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도 선의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 리더에게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다. 너희는 악인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그가 선의로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느냐? 다들 이 말을 분별하느냐? 이 말에 미혹될 사람이 일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선의로 그랬다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의로 한 나쁜 짓은 고의적인 악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선동과 미혹을 통해 그의 편으로 기울어 악인을 동정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리더가 미혹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올바로 이해하여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면 출교하고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리더의 그런 선동과 미혹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그가 선의로 그런 건 맞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선의로 나쁜 짓을 저지르면 우리도 제명당하고 쫓겨나는 거 아냐?' 그래서 이 리더의 편으로 기우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자신을 위해 퇴로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리더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의구심을 품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 집의 일 처리 원칙을 의심하며 물음표를 찍는다. 그러고는 정죄한다.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악인을 내쫓는 것은 나쁜 짓을 한 번 한 것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집에서 내쫓을 때 그가 힘쓰는 일을 하든, 어떤 분야의 특수한 본분이나 업무 기술 분야에 관련된 본분을 이행하든 우연한 잘못을 이유로 쫓겨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부 교회 리더, 형제자매가 그의 일관된 모습을 종합해서 성질을 규정하여 처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을 해야 할 때 게으름만 피우거나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근거로 그를 내쫓는 게 합당하지 않으냐? (합당합니다.) 이는 합당하다. 예를 들어 네게 청소를 시켰는데 툭하면 해바라기씨를 까먹고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보며 껍질을 아무 데나 버린다면 직무 태만이 아니냐? 네가 청소는 하지 않고 환경을 더럽힌다면 직무 태만이다. 너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너를 내쫓는 것은 전적으로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니 너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 리더는 이 사람이 선의로 그런 것이라며 사람들을 미혹했다. 교회 리더의 이런 선동과 미혹을 통해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진리 원칙은 어디에 내팽개쳤느냐? 그들은 한 가족처럼 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집'이라고 말한다. '교회'와 '하나님 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 집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거나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교회가 이 멍청한 리더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형제자매, 바보들이 그와 한패가 되고, 친척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집' 밖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리더의 첫 번째 말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모두가 그에게 특히 동조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는 공정해.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며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도 내 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폭로하고 책망하시는데 우리 리더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 줘. 마치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말이야. 그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억울할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에게 감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리더의 첫 번째 말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어서 이 리더의 두 번째 말을 들려주겠다. 교회에는 외부와 관련된 일부 사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할 능력이 없거나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교회에 이름만 올려 둔 사람들 중에 외부 일을 잘 처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이 부류의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런 일을 맡긴다. 때로 돈을 더 주면 이들이 하나님 집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기도 한다.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이런 일에 200 위안 정도 더 쓴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200 위안 더 내서 하나님 집에서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고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들일 만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럴 만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 돈을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준다면 들인 보람이 없겠지만, 그에게 주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형제자매와 상의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느냐? (부합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권한이 상부에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회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자매 생각에 그 사람에게 200 위안을 더 주는 것은.... 제가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형제자매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측면의 진리를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 구하고자 합니다." 전부 에둘러대기만 한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말이다.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질문이라는 것이고, 그 뜻은 이런 것이다. '당신은 항상 원칙대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 일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형제자매에게 불만이 생기고 관념이 생겨서 제가 그들을 대신해 당신께 여쭤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일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제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분석해 보아라. 너희가 이런 일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 일을 통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의 말은 질문의 어감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 자신이 이 일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진짜 생각은 말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형제자매에게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리더로서 형제자매에게 관념이 생기면 형제자매에게 진리를 교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안에는 간사하고 사악한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 주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이미 그 자신의 내면에 관념이 생겼으면서 오히려 형제자매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니 구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 속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형제자매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더냐?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어째서 그들에게 생긴 그토록 큰 관념은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냐? 직무 태만이 아니냐? 직무 태만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형제자매의 관념을 가지고 상부에 따진다. 그럼 너는 뭐 하느냐? 왜 묻는 것이냐? 너도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도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00 위안을 네게 쓰지 않아서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200 위안을 내게 주셨어야지. 그는 불신파이니 그가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건 우린데 말야. 하나님 집 사람은 그가 아니라 우리라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녔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떠듬떠듬대면서 말했다. 여기까지 너희는 다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너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이만한 일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이토록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0 위안 더 쓴 게 눈에 들어오느냐? 게다가 네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네가 아까울 게 무엇이냐? 남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보면 샘이 나느냐?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내가 방금 말한 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안 되죠! 200 위안이 더 들어간 걸 우린 몰랐어요. 알 권리가 없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집의 제물을 낭비한 게 아닌가요?"라면서 말이다. 하나님 집이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제물은 무슨 개념이냐? 잘 들어라. 제물은 모두의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의 것도 아니다. 만약 하나님은 없고 형제자매만 있다면 하나님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 사역하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이다. 형제자매가 바치는 십일조는 하나님 집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돈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니 하나님의 사유재산인 것이다. 사유재산이 무얼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임의로 배분할 수 있고, 네게는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네가 이 일로 따지고 이 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잘 들어라. 네 이런 행동은 선을 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이는 너의 가식적인 행동이다! 네가 구하지 않은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그 악인은 처리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 사람이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서 형제자매들이 그를 싫어하는데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구하지 않느냐? 이런 일은 묻지 않고 악인을 일절 못 본 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리더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도 선의로 그런 겁니다."였습니다.) "그 사람도 선의로 그런 겁니다." 이 얼마나 '어진' 인물이냐? 이런 자가 바로 위선자다! 사악하고, 늘 인의도덕을 외치지만 표리부동하고, 인간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람에게 200 위안을 더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제가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여기에서의 원칙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하는지 구하고 싶습니다." 이는 내가 온전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고, 그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떠듬거렸다. 그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이것이 이 리더가 말한 두 번째 말이다.

너희가 이 리더의 세 번째 말을 더 들어 보아라. 다 같이 흙을 파면서 각자 한 광주리씩 파도록 일을 분담했다. 그중 작업 속도가 빨라 먼저 흙을 다 판 사람이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 목을 축이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서 쉬다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겠느냐? 세 번째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리더가 또 찾아와서 상부에 이렇게 물었다. "저희 중에 작업 속도가 빠르고 몸놀림도 민첩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가 작업을 마치면 다른 사람을 돕지는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만 있으니 다들 그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상부의 형제가 "평소에 일할 때 그가 게으름을 피워요?"라고 물으니 그 리더가 대답했다.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작업 속도가 빠를 뿐이죠.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도 돕지 않으니 형제자매가 그에게 사랑이 없다며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이렇게 말하니 그 리더가 마음 아파한 것이다. '아, 저 사람 참 매정하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하느라 힘들고 작업 속도도 더딘데 도와주지를 않네.' 모두가 속상해한다고 그도 속상해하니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것이냐! 그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보고한 것이다. 그는 첫 마디부터 "이런 사람을 혼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혼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냐, 속상하지 않으냐? (속상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줄곧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고 공평하게 남을 대하라고 교제하였는데 사람은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 그가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자매가 모두 고생했고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보고하니 리더로서 나는 이들을 어떻게 구슬리고, 달래며, 보호하고, 또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 첫 반응이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혼내서 사람들의 분노가 풀리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살며,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뭘 믿고 그렇게 빨리 작업하는 거지? 속도가 빠르면서 다른 사람은 왜 안 도와?'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일을 빨리하는 게 죄구나. 보아하니 앞으로는 절대 일을 빨리하면 안 되겠다. 이 리더 밑에선 좋을 게 없어. 일을 빨리해도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해도 안 돼. 느린 것도 정당하네!' 상부에서 그에게 "그럼 일을 느리게 하는 사람에겐 포상해 주나요?"라고 묻자 그는 당돌하게 말했다. "포상해 주지는 않지만 일을 빨리하는 그 사람은 혼내 줘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그를 혼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던 것이다. 이 말이 과연 형제자매를 대변하는 말이겠느냐, 아니면 그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제자매는 일단 논외로 하겠다. 그들 중에는 별의별 멍청이가 다 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 원칙 없이 말하는 사람,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 등 없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 그렇다면 교회 리더로서 너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네 책임은 세력이 큰 형제자매를 두둔해 말하고 못된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이겠느냐? 네 책임은 형제자매 가운데 치우치고 빗나간 문제가 있을 경우 진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사람의 내적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 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리더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책임을 다했느냐? 그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분위기를 부추기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자생하고 만연하도록 지키고 종용하며 용인했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상부에서 책망하고 폭로하면 속으로 승복하겠느냐?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할 리 없다. 상부에서 당부한 원칙대로 그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에서 그 고약한 심보를 알 수 있다. 나중에 나는 "일을 빨리한 사람이 혼나면 누가 일을 빨리할 엄두를 내겠느냐? 모두가 뜸만 들이다가 사흘 동안 강 근처에도 못 가는 느림보 거북이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 리더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 외에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하면서도 사람을 미혹하는 점은 형제자매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퍼뜨리든 그가 분별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눈감아 주고 감싸며 달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것이 그 리더가 했던 세 번째 말이다.

다음은 네 번째 말이다. 이 리더가 맡고 있는 교회를 내가 자주 가는데 그곳에서는 닭을 키우고 있었다. 내가 갈 때마다 닭을 한 마리씩 잡아 요리하는데 하루는 곰탕, 다음 날은 조림, 그다음 날은 훈제 요리다. 내가 매일같이 방문하면 그 닭들은 며칠 안에 씨가 마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닭 요리를 하면 나는 한 조각만 먹을 때도 있고, 식욕이 없어 한 조각도 먹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어 치운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한 번 올 때마다 한 마리씩 잡으면 닭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먹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닭을 잡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되었다. "닭을 잡지 못하게 하시면...."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일지 너는 모를 것이다. 결국, 그가 뱉은 말이 무엇이었겠느냐? "그럼 뭘 먹나요?"였다. 나는 "닭고기 말고는 먹을 게 없느냐? 텃밭에 채소가 가득하지 않으냐? 그걸 먹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의 뜻은 닭을 잡지 못하게 해도 고기는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다정'하지 않으냐? "고기는 무슨 고기냐! 채소가 있으면 고기는 됐다. 너더러 닭을 잡으라 한 적 없으니 잡지 말아라!" 이런 일 정도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고충이 되었다. 이렇게 닭을 잡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더없는 괴로움이라니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번에 닭을 먹지 못하자 다음에 내가 갔더니 그가 또 물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말이다. 듣고 있으면 모두 하나같이 웃긴 질문들이다. 어떤 질문이냐? 그는 이렇게 물었다. "닭을 못 잡게 하셔서 토끼도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 고기 좀 드시겠습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가 키우는 토끼는 너무 예쁘다. 빨간 눈에 털도 새하얀 게 놀기도 잘 노는데 넌 어찌 고기 먹을 생각밖에 하지 않느냐? 고기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방에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닭 다리며 갈비며 끊이지 않아서 고기를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토끼를 잡네 마네, 토끼 고기를 먹네 마네 묻는 것이냐? 나는 한 마디로 일축했다. "잡지 말아라! 잡긴 뭘 잡는다는 말이냐!"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는 책망받을까 봐

물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무슨 요리를 했느냐? 6, 7 월이 되자 텃밭에 잎채소며, 열매채소며 온갖 채소로 가득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요리로 한 상을 차렸는데 숙주나물 볶음, 콩나물국, 두부 생선찜, 완두콩 달걀 볶음, 목이버섯 볶음 등이 있었고 푸른 잎채소는 하나도 없었다. 보아하니 죄다 마른반찬이었다. 이런 계절에는 싱싱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가 차린 것들은 제철 음식이 아니었다. 나는 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텃밭에 없는 채소가 없을 텐데 어째서 잎채소는 쓰지 않은 것이냐? 결국, 나는 그를 당장 쫓아내라고 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하면 언제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늘 제철이 아닌 음식만 먹는 것이 정상적이냐?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다!

나는 이 리더가 물었던 몇 가지 질문과 그가 만든 요리를 통해 첫째, 그의 인품이 형편없고, 둘째, 그의 성품이 사악하고 음험하며, 셋째, 그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의외이고 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이 교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의 득표수가 가장 많았고 다시 선거를 치러도 그의 득표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선거에서 수차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찌 된 영문이냐? 양쪽에게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교회 리더가 사람을 미혹하는 데 능하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본 적이 없으며,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말한 몇 가지 일과 그가 한 다섯 마디 말을 통해 너희 생각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 같으냐? 그가 교회 리더를 맡기에 적합한 것 같으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자매들이 계속 그를 뽑는 것이냐? 그가 술수를 써서 이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얌전하고 착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술수를 쓴 것이 틀림없다. 그 후 나는 이 교회에 리더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니 사람을 따로 보내 리더를 맡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형제자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형제자매가 진리를 대변하느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거나 규칙, 견해, 논조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살피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형제자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본분을 이행하고 힘을 내서 일하고자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며 진리를 이해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매하고 무감각하고 미련하여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서 이기적이다.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희생하며 힘을 들이고자 해도 치명적인 게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이고, 젖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이다."라는 말을 신봉해서 자기에게 잘해 주는 사람, 자기한테 득이 되는 사람, 자기 대신 목소리를 내 주는 사람, 자기를 지켜 주는 사람을 뽑는다. 만약 이들 맘대로 리더를 뽑게 내버려둔다면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겠느냐? 좋은 리더를 뽑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 진입에 발전이 있겠느냐? 만약 상부에서 그들이 이렇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둔다면 그들에게 무책임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어도 상부는 어리석지 않으니 그들이 뽑은 리더를 교체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이다. 설령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미혹하는 그 거짓 리더보다는 훨씬 낫다. 비록 그들이 상부의 안배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사리를 분별하게 되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상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설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성질대로 뽑고 싶은 사람을 뽑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네가 반기를 들겠느냐? 네가 만약 악행을 저지르고 사탄의 졸개가 되려 한다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상부에서 그들을 대신해 결정하여 별도의 리더를 뽑아 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스스로 뽑은 그자가 리더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들은 어째서 그를 좋다고만 생각하느냐? 그의 어떤 점이 좋으냐? 어째서 그 사람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 거짓 리더에게 미혹되고 해를 입었는데도 알지 못하니 정말 머저리들이다. 이 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이 부류의 사람을 이 주제로 묶어 그 전형적인 사례로 삼아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필경 이 부류의 사람의 성품 속에 있는 사악함은 전형적일 터이다.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 중 사악함을 교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하여 분석하고 대조하니 좀 더 명확하지 않으냐? 방금 말한 이 사람이 앞으로 진리를 추구할지는 미지수라 단정하긴 어려우니 일단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성품이 사악하고 본질이 사악하며 본성이 사악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겠느냐? 그가 공평과 공의를 사랑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한 여러 진리를 사랑하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원칙적으로 행동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을 사랑하겠느냐?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100 퍼센트 확실하다. 이런 그의 몇 마디 말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의 내면 깊이, 뼛속 깊이 좋아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긍정적인 사물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지키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들이고, 본분 이행에는 전혀 충성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는 이런 사람을 보면 화를 내거나 증오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변명을 늘어놓고 해명하기까지 하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 같은 취향과 본질을 가지고 있어 서로 죽이 맞고 한통속이라는 뜻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에 늘 관념과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에게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거들떠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 본분을 충성심 없이 건성으로 이행하는 자,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교란과 파괴의 역할을 하는 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관념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겠느냐? 그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건 정상이야. 패괴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그의 나쁜 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실체를 숨기게 되고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이들이 한결같이 방해하고 교란해도 그는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그에게 정의감이 있느냐? 그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가 하나님 집을 어떤 곳으로 간주했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람들이 모두 정직한 사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며 분수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모두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이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것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모두가 인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지켜 주는 것, 그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의 과거도 폭로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지켜 주고 비호하는 것,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 등 모두가 한패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 남이 한 나쁜 짓이나 실상을 들추어내고 공개해서 모두에게 알리면 그는 이런 행동을 증오하고 혐오한다. 그는 나쁜 일이 가려지고 포장되는 것,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폭로하지 않는 것, 기만하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은 그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무엇이 되겠느냐? 헛된 말이 되어 실행되지 못하게 된다. 왜 실행될 수 없겠느냐? 그에게서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그가 벽이 되어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술수로, 음모와 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드러내는 사악한 성품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교회에 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무관하거나 상반된 사역만 하여 형제자매들이 다른 견해, 다른 논조를 갖게 하고, 교회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럼 거짓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라도 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랫사람들은 흩어진 모래알 같다. 체계를 잡아 주는 사람은 없고 다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아무 말도 없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사역지침을 지키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일련의 주장과 행동 방식을 만든다. 상부의 사역지침을 자신의 주장으로 가공해 실행하는 자도 있고, 상부의 사역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다른 수작을 부리는 자도 있다. 그가 상부의 사역지침을 보류하여 전달하지 않으니 아랫사람은 영문을 모른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련의 이론과 주장을 정리해서 아랫사람을 미혹하고 속인다. 그러니 너는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얼마나 버리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보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그의 이런 행동 방식은 제쳐 두고 그가 행한 그런 일의 본질을 보아라. 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한 것, 하나님이 형제자매에게 깨달으라고 한 것, 하부에 실행하라고 요구한 것 등 이 모든 일을 그는 반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은 게 반대한 건가요?"라고 묻는다. 그가 왜 실행하지 않겠느냐?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집보다 높으냐? 납득할 수 없다고

한들 그에게 묘책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어째서 납득할 수 없다며 감히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는 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 완벽하게 사역지침과 상부의 요구에 따라 실행한다면 그의 공로가 묻히고 두드러지지 못할 테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에게 재난이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늘 진리를 교제하며, 진리를 깨달아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일이 생겼을 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다면 그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의 역할이 사라져 장식품이 될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식품이 되는 것을 그가 수긍하겠느냐? 그는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국면을 되돌리려 할 것이다. 성품과 본질이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만약 형제자매가 모두 진리를 추구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겠느냐? 이토록 나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는 사악하고 간사하며 음험한 데다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만약 모두가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를 분별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이를 모르겠느냐? 그는 알고 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가 어떤 곳에서 악령을 만났는데 그 악령이 너를 눈에 거슬려 하고 너는 그가 역겨워 보여서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사실 그가 네게 잘못한 일이 없고 네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가 역겹게 보이고 그의 말은 더더욱 역겹게 들린다. 실제로 그는 너를 모르고 너도 그를 모르는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의 원수이다. 네가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런 느낌이나 지각이 없다면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니겠느냐? 그가 하나의 논조를 말하고, 어떤 관점을 제시하며, 어떤 태도로 행동할 때, 그가 두세 마디만 하고 말을 아끼면 너는 간파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네가 지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상부에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나서야 크게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확실한 적그리스도를 나는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정말 위험했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얼마나 둔하고 무감각한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말이든, 행동이든 네가 그의 속내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너와 대화할 때 이리저리 눈을 굴리지만 너는 그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알 수 없다. 그가 충성스럽고 무척 진지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줄곧 그를 간파하지 못하면 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사람은 음침하고 헤아릴 수 없으니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 말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것으로 이미 사악한 특질을 갖추었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미혹성이 몹시 강하다는 것이다. 이 미혹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해서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는 말,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한다는 데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분별해야 할 한 가지는 그의 그럴싸한 말들이 그에게서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도리를 전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법,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법을 알려 주지만 그에게 일이 생기면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전부 자기 뜻대로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면서 모두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의 일을 하게 한다. 그는

하나님에게 주인이 되어 달라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그가 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다.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가 일할 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살길만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간사함과 사악함의 단면이다.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면서 수고하고 대가를 치를 때도 있고, 심지어 침식을 잊을 때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며, 자기의 야심과 목적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중요한 사역은 건성으로 하고 조금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자기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에게는 다른 측면의 모습도 있다. 형제자매가 이견을 제시하면 에둘러 거부하고 빙빙 돌려 말함으로써 모두와 교제하고 상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말하다 보면 결국 그의 말을 따르게 된다. 그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정하고 남들이 자기 의견을 따르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진리 원칙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 아니다. 그럼 그가 사역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 누구보다 그의 말에 따르는 것이 낫다는 것, 그의 말이 최선이자 최고라는 것, 모두가 그의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가 곧 진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두 번째 특징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자기를 증거할 때 항상 자신의 공로, 자기가 했던 고생, 자기가 모두를 위해 처리했던 유익한 일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명심하게 하고 그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무척 영적인 말을 해서 그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착한 종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사실 그는 자기를 높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위가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지위는 이미 하나님의 지위를 훨씬 넘어섰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가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통제하는 교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지위가 가장 높고, 하나님의 지위는 그저 두세 번째에 머물 뿐이다. 만약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귀담아듣겠느냐? 속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힘을 쏟는지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죄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데 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수단은 너무 음험하지 않으냐? 너무 사악하지 않으냐? 앞에서 교제한 세 가지 특징을 토대로 하면 적그리스도를 손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는 사악한 성품의 주된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하나님의 선민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제하든, 그리고 어떻게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든 적그리스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면서 복을 받으려는 속셈과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를 위해 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하나님 집을 위해 어떤 공을 세웠는지, 형제자매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 주었는지 세어 보고, 이런 일을 가슴에 새겨 두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줄지 지켜본다. 과연 이렇게 한 보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편하게 말이다. 어째서 그는 속으로 늘 이런 일들을 따지는 것이냐? 그가 마음속 깊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설교를 몇 년을 들었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셨든, 도리를 얼마나 이해했든 그는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과 속셈은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분수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제가 추구할 바가 아니거든요. 제가 추구해야 하는 건 싸울 땐 싸우고, 힘쓸 땐 힘쓰고, 고생할 땐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면 하나님은 제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살아남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높은 위치에 서겠죠. 적어도 두세 개 고을은 맡기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의 속셈과 욕망은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자가 바로 바울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적나라한 거래 속에 사악하고도 흉악한 성품이 들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종교인들은 말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니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대가를 치렀으며 고배도 마셨습니다. 심지어 체포되고 수감되어 형을 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을 이렇게나 쌓았는데 언젠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너희는 이런 말을 들어 본 적 없느냐? 그들은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러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느냐? 듣기만 해도 두렵지 않으냐?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겠느냐? 그들이 믿는 예수가 이미 승천해서 다행이지 아직까지 땅에 있었으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은 경우, 이 말이 힘 있고 대단하게 느껴져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기개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어 온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사람이 천사장이 아니냐? 사탄이 아니냐? 네가 누구에게 이치를 따지든 하나님에게 따져선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복받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져선 안 된다. 전 우주,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너같이 미미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다니 어쩜 그리도 자기 분수를 모르느냐? 자기가 누군지 거울로 비춰 보지도 않고 감히 창조주에게 대들고 대항하니 제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니냐? "언젠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이는 대놓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말이다.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감히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에게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탈이자 반란'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신 이 일이 적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죠?" 관계가 대단히 깊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따지려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이고, 오직 적그리스도 같은 부류의 사람만이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가슴 깊이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가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단지 그가 감히 표출하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야심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타오른다. 왜 그렇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진리,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한다. 그럼 그가 무엇을 사랑하겠느냐? 그는 지위를 사랑하고 상에 관심을 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게 은사와 능력, 재주가 있고 교회를 위해 힘을 들였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셔야 해요!"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이는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직접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냐? 감히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창끝을 겨누는 것은 천사장이나 사탄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짓이다. 만약 정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심의 여지 없는 적그리스도이다. 감히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자는 이 땅에 오직 적그리스도밖에 없다. "저희가 본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난폭하고 건방지지 않던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처한 배경과 환경을 봐야 한다. 그가 완전히 득세하지 못해 조력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서슬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잠자코 때를 기다릴 줄 안다.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시퍼런 서슬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없을 땐 잘도 숨어 있어서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지위를 갖게 되어 조력자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사악함과 추함은 남김없이 드러난다. 마치 이런 경우와 같다. 진리 실제가 없는 사람들은 지위가 없을 땐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마지못해 순종하고 속으로도 승복하지만 리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명성이 좀 생기고 나서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며 대들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 본분을 무척 잘 이행하면서 전혀 불평을 가지지 않는데 암에 걸려 곧 죽을 처지가 되면 아마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며 따질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폭로되고 드러난 후에도 교회에서 기꺼이 힘쓰고, 나아가서는 말단 따르는 자 중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느냐?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 그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는 복받겠다는 속셈을 항상 내려놓지 않는다. 그의 뜻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과 끝장을 볼 거야.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성품이냐?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니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복받을 희망이 한 줄기라도 있으면 그는 하나님 집에 머물며 복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처럼 늘 외식하는데 그 안의 속셈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가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하게 행동하고 얼마나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든 그는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일할 때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오직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만 추구한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오직 그의 사탄 성품만을 대변할 뿐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모두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에게 열납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대드는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매사에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고생하며 치른 대가로 하나님에게 상과 면류관을 요구하고 좋은 종착지를 받아 내려 한다. 그의 타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는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고 인과응보인 것이다.

예전에 업무를 좀 파악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합창단의 형제자매에게 업무를 가르치도록 안배했다. 그 형제자매들은 모두 어려서 대부분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았고, 본분 이행을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을 뿐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 기반도 다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역하면서 그들이 성령 역사를 느끼게끔 인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하게 했다. 그저 느낌에만 매달리게 한 것이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진실한 체험도 없어서 이렇게 그의 관념과 상상으로만 사람을 미혹하고 오도했다. 상부에서 그에게 진리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단지 그에게 업무만 지도하라고, 업무만 확실히 설명해도 기준에 맞는 본분 이행이고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진리 교제'를 하여 사람들이 느낌을 찾고 느낌에 매달리게 하려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을 악령 역사의 초자연적인 느낌으로 이끌기 쉽지 않겠느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다! 한 번 악령이 사람에게 달라붙을 틈을 주면 그 사람은 끝장이다. 훈련 기간 그는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에게 땀이나 눈물이 나는지, 혹은 몸에서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지 살펴보게 했다. 그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사실 이런 것은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토록 많은 진리는 제쳐 둔 채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게 이끌지도 않았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형제자매에게 안무를 짜지 말고 무대에서 내키는 대로 춤추고 마음대로 발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걱정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미련한 짓만 일삼았다. 그 형제자매들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들도 '마음을 다해' 힘껏 기도했다. 기도하고 나서는 울기도 했다. 그다음엔 무대에 올라 즉흥적으로 한바탕 춤을 췄다. 다른 사람은 무대 밑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성령이 크게 역사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오니 마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같은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이 일을 모두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 내게 보여 주었다. 사진에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겨울인데도 얼굴 전체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사진을 보고 나서 문제가 되겠다, 그가 이들을 망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그들에게 업무만 지도하라고 했는데 그는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하면서 상상에만 의지해 엉망으로 한 것도 모자라 성령

역사의 느낌까지 찾으려 했다. 성령 역사가 느낌에 관한 일이더냐?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실제적이다. 느낌에만 매달리는 것은 공허하고 소용없다. 네가 느낌만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는 느낌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원칙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일이 생겼을 때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러면 차츰차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면 성령이 자연스레 역사한다. 설령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면 하나님도 너를 따르는 자로 인정할 것이다. 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한결같이 느낌을 찾거나 이적과 기사, 기이한 꿈 같은 것을 찾도록 사람을 선동했다. 이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문외한이 무지몽매한 아이들을 이끌면서 저지른 황당한 일이다. 사진 속의 사람이 울며 눈물을 흘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일이 어떤 성질이냐 하는 점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일들을 모두 사진으로 남기면서 '하나님 역사의 면면'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다. '면면'이 무엇이냐? 이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성령 역사의 느낌을 찾고 툭하면 즉흥적으로 춤추니 출 때마다 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면'이다. 이런 '면면'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성령 역사의 성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자 형제자매들은 마치 믿음과 분량이 단번에 훌쩍 성장하기라도 한 것처럼 흥분했다. 그가 왜 '면면'이라고 했겠느냐? '면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 역사의 면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면면이 무슨 뜻이더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이룬 성과다. 이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며 초자연적이지도, 막연하지도 않다. 네가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네게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말씀을 했으며 심혈을 기울여서 너라는 사람의 생존 방식, 일을 바라보는 관점, 일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등 다방면에서 바뀌게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역의 수확과 결실을 면면이라고 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가 한 일을 '면면'이라고 하였는데 일단 이 일이 어떤 성질인지는 차치하고 이 말만 분석해 보았을 때 너희는 무엇을 알아차렸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면면을 보라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굴도록 이끌어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면서 '면면'이라는 말을 썼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대등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렇다. 그의 '면면'이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흉내 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면면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는 것도 면면이지.'라는 뜻이다. '면면'의 수식어는 '하나님 역사'지만, 사실 그는 속으로 성령 역사의 면면의 성과를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나설 기회만 있으면, 실낱같은 기회만 있으면 그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려 한다. 어떤 사람을 두고 다투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대세에 편승하기를 좋아하며 겉으로만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초가 얕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일은 제때 제재를 받게 되었다. 제재하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저지른 그 어리석은 일들은 한번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모두가 교제하고 돌이켜 보면서 말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없었을 땐 저희의 찬양이 전문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찬양할 땐 마음에 와 닿아서 구절마다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 뒤로는 전문적인 이론을 얘기하다 보니 다들 딱딱한 느낌을 받아서 찬양하기 싫어졌어요.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음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나서기만 하면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들 파리처럼 대세를 따르기 좋아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목표는 필요 없다. 무리를 이끄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 떠들어대기만 한다. 이렇게 활기 넘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제한도 없으니 아무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기도하며 구할 필요도 없고, 경건할 필요도 없으며, 조용히 있을 필요도 없다. 머리가 있고 숨을 쉴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으냐? 패괴된 인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미혹을 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면 쉽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폭로된 후 모두 모여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의 말과 그런 일을 저지른 그의 수단을 해부해 보고는 그자가 사람을 미혹하는 데 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엉망으로 하면서도 마치 대단한 기운이 도는 것처럼,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말이다. 겉으로 보면 다들 열의가 대단하고 믿음과 분량이 갑자기 커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악령이 역사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상황이 나타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진리를 교제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되었고 내적 상태도 차츰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예전에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나와 소원했었다. 내가 말하면 이들은 낯선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려 하지 않아서 금방 서먹서먹해졌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말해야 순종했다. 적그리스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다 보니 적그리스도의 말이 그들을 대변하게 되어 그들에게 발언권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발언권이 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으며, 그에게 통제되었다. 악령, 적그리스도는 이런 짓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말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해부할 수 있는 사악한 것들도 있지만, 그 속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악령 역사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악한 것들도 있다. 이것은 오직 네 느낌이나 네가 깨달은 진리, 네 체험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 적그리스도를 신속하게 분별해서 해결하니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두가 이 일을 교제하면서 뒤늦게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정말 위험했어요! '면면'이라고 한 적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에게 끔찍한 해를 끼쳐서 하마터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망쳐 놓을 뻔했네요." 그래서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만약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너는 위험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지 모르고, 심지어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적그리스도를 따를지도 모른다. 그 당시 너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말도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너도 모르게 미혹되었다. 네가 미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소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일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류하고 교제하여 결국 구해 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돌아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고집을 부리며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말한다.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버리고 헌신했죠. 예전엔 본분도 무척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해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이 옳으냐? 진리에 부합하느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속내를 알 수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간파하지 못한다. 반드시 한동안 그 사람과 접촉해 보거나 지켜봐야 하고, 일이 닥쳐서 드러나야 그를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네가 선의로 그를 구해 내려고 하지만 아무리 교제해도 그가 뉘우치지 않으면 너는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른다. 사실 하나님이 진작 그를 꿰뚫어 보고 도태시킨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도태시켰겠느냐?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바로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악령이 분명해서 악령 역사가 있는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일정 기간 그를 따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흙같이 퍼져 버릴 정도로 연약해진다. 이는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탄을 증오한다. 그들이 사탄과 악령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악을 증오한다. 악령을 따랐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설사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사악을 증오한다'는 게 무엇이냐? '사악을 증오한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이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때부터 하나님이 진리, 공의, 지혜, 전능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까지 이런 것을 깨닫고, 어느 정도 체험이 생기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해는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동력이 된다. 그에게 체험이 생기고, 그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등의 분량을 갖추게 되면, 그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실제의 하나님은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른다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는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사악한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는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겠어. 나는 사탄을 사랑하고 기꺼이 사탄을 섬기며 따를 거야. 사탄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유린하고 짓밟고 패괴시키든 나는 마다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하든,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하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진리보단 명예와 지위가 좋고, 상과 면류관이

좋은걸. 가질 수 없다 해도 그런 것을 좋아해.' 그는 이렇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달아났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겠느냐? 절대 원할 리 없다. 하나님이 그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합리적이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도리적으로 알고 있다. 네가 이 도리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혐오하여 버리면 주저 없이 그 사람을 포기한다. 내 말이 실제 상황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포기하는 하나님을 매몰차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에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사탄이 누군지 알면서 한사코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탄을 따르고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악을 증오하는 요소도 있다. 즉, 피조물로서 네가 기꺼이 타락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하기 싫은 일을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진리를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타락을 자처한 건 네 선택이었으니 결국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네 몫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리하는 원칙은 변치 않는다. 네가 타락을 자처한다면 징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가 지금껏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든, 네가 타락을 자처한다면 하나님도 네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사탄을 따르며 사탄에게 미혹되고 유린당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무작정 호의를 베풀어 그를 돕지만 아무리 그를 권면해도 뉘우치지 않는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이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 이면의 이유다. 그런데 사람이 간파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떨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들려준 이런 세부 사항을 통해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중 하나의 측면으로, 하나님은 악령에 물들었던 자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사탄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원하겠느냐? 네가 사탄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감동을 주어 네가 돌아오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의 주된 모습, 즉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모든 진리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제하였다.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교제해 보겠다. 적그리스도는 긍정적인 사물과 상반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사물입니다.) 그렇다. 부정적인 사물이다. 다시 말해, 진리에 어긋나고 맞서며 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다. 적그리스도가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면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가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그는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음모와 계략, 술수를 좋아한다. 틈만 나면 ≪삼십육계≫를 보는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냐? 아마 있을 것이다. 내가 ≪삼십육계≫를

보더냐? 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 그걸 봐서 무슨 소용 있느냐? 보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삼십육계≫를 보고 나서 너희에게 어떤 느낌이 들더냐? 이 사악한 인류에 대한 염증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없었느냐? 보면 볼수록 역겹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다! 사소한 일도 계략을 세워야 하니 일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밥맛도 없고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싸울까 골머리를 앓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틈만 나면 삼십육계를 배워서 남들과 두뇌 싸움을 하고 하나님과 두뇌 싸움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 기만, 음모, 계략, 술수, 계책을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좋아하겠느냐? 공평과 공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사악함과 추함입니다.) 사악함과 추함이다. 그들은 추한 것들을 좋아한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정의롭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인데 적그리스도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보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생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해. 뭐 하러 진리나 정의를 위해 살아?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지!" 이게 그의 관점이다. 그런 그가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정의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그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겠느냐? 그는 나서기는커녕 남의 불행에 신이 나서 몰래 기뻐하니 이를 악질이라 한다. 그는 결코 하나님 집 사역에 관한 일로 마음을 졸이거나 하나님의 선민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악인이나 교회에서 제멋대로 구는 나쁜 사람을 보고도 남몰래 기뻐하고 하나님 집을 조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두 사악한 무리이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을 싸고도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적그리스도다.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지만 교회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서는 자기가 손해 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방금 적그리스도가 진리는 싫어하면서 불의하고 사악한 일은 좋아한다는 것에 관해 언급했다.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복받기를 추구해서 항상 복받으려는 속셈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하고 규정해야겠느냐? 만약 이익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약하다. 마치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속죄하기 위해 사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지막엔 공의의 면류관을 원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어떤 성질이냐? (흉악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흉악한 성품이다. 그런데 이 일의 성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 이득을 보려 하고 거래를 한다. 이방인의 말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적그리스도 역시 같은 논리다. '제가 당신을 위해 사역하는데 당신은 제게 무엇을 주시나요? 제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이 성질을 어떻게 결론지어야 하겠느냐?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익에 눈이 멀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이익과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약간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다. 복을 받고 상을 얻으려는 그의 속셈과 욕망이 너무 커서 단단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 즉 좋은 종착지를 얻기 위한 거야. 이는 지고지상의 원칙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만약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선 안 되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나 가치는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가 주입했기 때문이냐? 누가 가르치고 영향을 주기라도 했느냐? 전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본질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한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의 본성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본성이 사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품이 사악하여 대놓고 하나님에게 대들며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며 그의 실체이다. 하나님에게 대놓고 대들며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사악함이다. 어째서 사악함이라 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복받기 위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기 때문이다. 그가 왜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는 일종의 힘과 사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굴며 하나님에게 따지며 대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기도 전이고, 하나님이 그의 종착지를 빼앗아 간 것도 아닌데 "제게 면류관과 종착지를 주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당신께 따지겠어요!"라며 그의 내면에 있던 사악한 성품이 폭발한 것이다. 만약 사악한 성품이 없다면 이런 기세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일반인에게 이런 기세가 나오겠느냐? 어째서 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느냐? 복을 받겠다는 욕망을 왜 한사코 물고 늘어지겠느냐? 이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그의 야심과 욕망이 된 것이다. 그는 복을 받겠다는 의지만 대단하지,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려 하지 않고 진리도 싫어한다. 그는 그저 복과 상, 면류관을 받는 것만 추구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쟁탈하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무엇이냐? "제가 복과 상을 받지 못하면 당신께 따질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며 맞설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협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는 왕궁까지 쳐들어와 반란을 일으키는 꼴이 아니냐?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이것이 사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또 사탄의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행태와 하나님을 대하는 사탄의 태도가 다를 게 무엇이냐? 완전히 똑같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복과 상, 면류관을 빼앗으려 하니 이것이 어떤 성품이겠느냐?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짓을 하며 이렇게 빼앗으려 하느냐? 그가 어떻게 이런 기세를 부릴 수 있느냐? 이제는 그 이유를 결론지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과 면류관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이런 상을 빼앗으려 한다. 이는 제 무덤을 파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제 무덤을 파는 짓임을 그가 알겠느냐? (모릅니다.)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 역시 은근히 느낄 것이기에 "만약 복을 받지 못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라고 선수를 치는 것이다. 그 자신도 이미 복을 받지 못하리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사탄이 공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대항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딱 한 마디만 했다. "사역이 끝나면 너를 무저갱에 던져 버릴 것이다. 너는 무저갱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에게 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이는 사악한 생각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의 태생적 본질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그 자신도 영문을 모른 채 오로지 복과 면류관을 받는 데만 몰두한다. 진리와 관련되고 하나님과 관련되기만 하면 그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고 화가 미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정상인은 그의 마음속 느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도 죽을 맛이긴 하다. 그토록 야심이 크고 내면이 악질적이며 복을 받으려는 욕망까지 커서 욕심이 불타오른다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늘 진리를 교제하니 그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견디기 어렵겠느냐? 또 얼마나 스스로 억지춘향이 되고 가식을 떨어야 버틸 수 있겠느냐? 이는 사악한 힘이 아니겠느냐? 일반인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져 마음속에 반감이 생길 것이다. 그에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는 버틸 수 있겠느냐?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버티도록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 집에 숨어 들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사탄에게 미안해진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정해진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지위를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지위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그는 기회만 생기면 기어오른다. 그 방식이 아부가 되었든, 아니면 기만이 되었든, 혹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행이 되었든, 어쨌든 기회만 생기면 기어오른다. 그는 지위를 얻고 나면 그것을 더욱 애지중지한다. 정상인이 지위를 갖게 되면 자괴감이 들어 자중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을 맡는 것은 본분이지 지위나 관직이 아니다. 그것은 본분이다. 자기가 관직에 올랐다는 생각에 패괴 성품을 표출하여 자기를 과시할 때면 그는 이런 모습을 가끔 보이는 건 괜찮지만 자주 그러면 본인조차 역겹게 느껴지고 형제자매에게 들키면 낭패라며 걱정한다. 그에게는 존엄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 어느 정도 자중하는 것이다.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지위를 점점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사람이 본분 이행에 전념하게 된다. 자기가 지금 어떤 직무를 맡고 있든 그것을 본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왕 리더로 뽑혔다면 사람에게 리더는 일종의 부담이자 본분이기에 먼저 그 본분의 범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리더를 맡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리더를 맡고 나면 자기 본분 내의 일들을 어떻게 잘해야 할지, 어떻게 원칙과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따라 본분을 이행할지 고민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 지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다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지위에 열중하고, 지위를 추구하며, 지위를

애지중지하고, 지위를 경영한다. 그는 매사에 지위에 대해 생각한다. 그에게 지위는 목숨과도 같아서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거나 자기가 실언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사람 마음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사라질 테니 그는 지위 때문에 늘 안절부절못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한다. 네가 아무리 진리 추구를 교제한들 그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관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관직자다울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 가령 교회 리더가 형제자매 20 여 명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존엄성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앉겠느냐? 가장자리 구석에 앉는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보통 어디에 앉느냐? (가운데 앉습니다.) 그가 가운데 앉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바람이냐? (그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때로 모두가 그를 위해 가운데 자리를 남겨 두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면 그는 속으로 흐뭇해한다. '이것 좀 보라고, 모두가 나를 얼마나 옹호하는지. 이 자린 내가 앉아야 해. 이런 걸 보면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리더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는 기분이 좋고 즐겁다. 모두가 그를 위해 비워 둔 가운데 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그 자리에 앉겠느냐? 그가 그 순간 그 자리와 그 기분을 즐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게는 그 순간의 그런 느낌이 더없이 필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양하지 않는 것이다. 주변의 수십 명이 이 리더를 에워싸는데도 그가 정 가운데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남들과 같은 높이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리더로서의 내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겠어? 자리를 좀 더 높이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해. 그래야 눈에 띄지. 이게 자리를 보는 안목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사진을 보자마자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리더 아무개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사진은 못해도 몇 년은 보관될걸. 내가 안 보이면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힐 텐데 그럼 리더를 맡은 보람이 없지 않겠어?' 그는 지위를 이렇게나 애지중지하는 것이다.

한번은 상황을 알아보려고 어느 교회 사람들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화면을 띄우고 카메라 쪽을 보고 앉았는데 가운데 자리는 비워 두었다. 그게 의아했던 나는 화면이 작아서 얼굴이 잘려 보이면 어색하니 가운데로 모이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들은 중앙으로 아주 살짝 이동했고 가운데 한 자리는 여전히 비워 두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가운데는 아무도 안 앉지? 그 자리에 부처라도 있나. 왜 엄두도 못 내는 걸까?' 나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뚱뚱했다. 그가 '턱' 하니 가운데 앉는데 보아하니 둥글둥글한 게 정말이지 '부처' 같았다. 알고 보니 가운데 자리는 그를 위해 비워 둔 것이었다. 너희가 알아맞혀 보아라.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냐? (리더입니다.) 그렇다. 정중앙 자리는 신분의 상징이다. 이 마귀가 오더니 부처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은 양 끝 가장자리에 앉기를 자청하면서 그를 무척 아끼고 '잘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 '와, 드디어 오셨군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라고 아첨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 그 리더만 기다렸던 것이다. 그 '부처'를 모셔 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를 나눌 방법이 없었다. 어째서 그가 거기에 앉고 그토록 자연스럽게 앉는 것이냐? 이는 평소 좋아하는 것, 중요시하는 것,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평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너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아라. 그가 만약 예배를 진행하거나 모두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곳에 방문한다면 다들 그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조상이나 부처가 오기라도 한 것처럼 재빨리 상석으로 모시고 주인 석을 그에게 내줄 것이다.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되느냐? 1 초 동안 카메라에 담긴 장면을 보니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것이 하나의 규칙, 즉 불문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부처'가 오면 곧장 주인 석을 양보하고, '부처'가 오지 않아도 주인 석은 그를 위해 비워 두어야 하니 이를 지위라고 한다. 너희도 이렇게 지위를 그 무엇보다 높게 여기지 않느냐? 방금 언급한 이 장면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은 지위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위를 하나의 본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탁을 소중하게 여기며, 본분만 받아들이고 지위는 차지하지 않는다. 지위를 성가신 것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스트레스이고 속박이며 나아가서는 근심거리를 안겨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위를 숭상하는 사람은 지위를 관직으로 생각해서 항상 지위의 복을 누린다. 그들은 지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위가 생기고 나면 이를 위해 목숨과 체면은 물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는 몸까지 팔 정도로 말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악함이라고 한다. 그들 눈에 지위는 무엇이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나 수단이자 신분과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위상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들이 지위를 그토록 중시하는 것이다. 지위가 생기면 무슨 일이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며 그를 용인해 주고 그에게 알랑방귀를 뀐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역겨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끽한다. 그 리더가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서 보였던 자태처럼 유유히 만끽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지위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우월감과 우위를 무척 좋아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 애지중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다. 어째서 극도로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알랑방귀를 뀌고 감언이설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말을 하느냐? 전부 거짓말, 파렴치한 말, 낯간지러운 말, 역겨운 말, 사람을 기만하는 말이다. 심지어 듣기조차 민망한 말도 있다. 예를 들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원숭이처럼 못생겼다. 그렇다면 아첨하는 자들이 못생겼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 예쁘다'로 끝이겠느냐? 좀 더 낯간지럽게 말해야 한다. "미간이 넓고 턱이 둥글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관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들어 보면 흡족하니 이런 말을 즐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좋은 것이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자기한테 이런 가식적이고 아첨하는 말이나 그를 기만하는 말,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 주는 거짓말이나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극도로 사악한 것이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겨운데 그는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파리 떼처럼 자기 주위를 맴도는 것을 좋아하고 한없이 만끽한다. 그는 언변이 좋고 비위를 맞추며 아첨할 줄 알고 에둘러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중용한다. 이런 리더는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이런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끝장나지 않겠느냐?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어떤 먹성 좋은 리더가 있었는데 그가 지내는 곳의 형제자매가 음식을 잘하지 못해서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에게 알랑거리며 비위를 잘 맞춰 주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섬김 가정을 구했고, 거기서 매일같이 배 터지게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 설사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과 사악한 성품이 드러났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적그리스도인지는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의 성품 본질이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물은 싫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물을 속으로 경멸하고 정죄하며 거절한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부정적인 사물과 관련된 것들이다.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잠깐 쉬세요."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는 내가 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체할 필요도, 아양을 떨 필요도 없다. 나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혐오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일이 생기면 그 즉시 교제하고 내게 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네게 교제하여 네 어려움을 해결할 테니 너는 나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아부하며 잘 보일 궁리만 하지 마라. 역겹기 짝이 없다! 이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역겨우니 내 곁에서 떨어지거라. 내가 너를 똥파리, 빈대로 규정한다. 썩 물러가거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 곁에는 항상 시중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너는 내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대우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필요 없다.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나는 그런 것에 반감을 가지고 혐오한다. 네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 나를 생각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싶다면 정당한 방법이 굉장히 많다. 가령 내가 어떤 일을 네게 시켰다고 해 보자. 너는 착실하게 실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내게 말해도 된다. 다만 이방인이 관리에게 아첨하는 수법을 모방해 사탕발림 따위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키가 작은 게 분명한데도 굳이 "당신은 키가 크진 않지만 저희보다 크신 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듣기 싫으니 절대 내 앞에서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런 말은 다른 데 가서 해라.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예를 들어 보자. 그가 수하에 두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묻는다. "제가 뚱뚱해 보이나요?" 누군가 대답한다. "뚱뚱해도 저희보다 예쁘세요." "그럼 제가 말랐나요?" "당신은 말라도 예쁘세요. 어차피 옷걸이가 좋아서 뭘 입어도 잘 어울려요." 이 말을 들은 적그리스도는 흡족해서 그 사람을 자기와 한패로 생각한다.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역겹고 사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를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양심, 이성, 염치, 존엄, 그리고 선악과 흑백,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 등 정상 인성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중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가 염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존엄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가 좋아하는 자는 후안무치해서 아무리 낯간지러운 말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염치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는 네가 낯간지러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한다. 적그리스도의 취향, 여러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 성향 등으로 볼 때 그의 사악함은 끝이

없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 정의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런 수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직사회에서 관리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보아라. 목숨을 다해 아첨하지 않느냐! 관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 자기 부인마저 바칠 수 있으니 이것이 존엄성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관리는 동성애자인데 그에게 들러붙는 동성도 있다. 자기도 내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들에겐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 지각, 이성도 없다. 그러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대사로 만들어서 연기해 보라고 하면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광대보다도 더 낯간지럽게 해낸다. 무엇을 광대라 하느냐? 알몸으로 남들 앞에 서서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고, 낯빛 하나 붉히지 않는 강심장을 광대라 한다. 그렇다면 알랑방귀를 뀌고 아첨하며, 낯간지럽고 역겨운 말을 하고, 사악한 사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광대보다 더 심하다. 그들은 단지 몸을 팔 뿐이지만 이 사악한 적그리스도 무리는 무엇을 파느냐? 영혼을 판다. 이들은 악마의 무리이니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할 리가 없다. 그들은 지위를 이렇게 대한다. 지위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우월감과 쾌감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즐기면서 생기는 여러 느낌은 어떤 것이냐? 이는 긍정적인 사물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물이냐? 전부 부정적인 사물이다. 그들은 지위만 생기면 사람들의 알랑방귀와 아첨, 아부, 사탕발림 그리고 특별 대우를 누리려 한다. 음식이든, 집이든, 물건이든 모두 특별해야 하고 무엇이든 남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설마 네 몸뚱이가 남들과 다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생기면 자기가 존귀하고 대단하다고, 땅에 자기를 품을 수 있는 곳은 없을 테니 '연화보좌'에 앉아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정상인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겠느냐? 지위의 유무를 막론하고 정상인도 지위에 대한 동경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염치와 양심, 이성이 있고 게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애착은 줄어들고 무덤덤해진다. 또한, 지위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나 지위의 복에도 무덤덤해진다. 남들의 알랑방귀, 아첨 등에도 반감이 들어 멀리하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저버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위가 없어졌다고 "안 믿을래요. 살아서 뭐 해요? 죽고 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여기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에게 지위가 어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그에게 무난하게 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반드시 지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기어이 남들로부터 공경과 숭배, 추대를 받고, 남들이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입 발린 거짓말을 들으려 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한다.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걸 누리려고 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다. 적그리스도는 왜 이런 것들을 누리기 좋아하느냐? 내면에 사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부류만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요구를 한다. 정상인은 이런 것들을 한동안 즐기고 나면 싫증 나고 귀찮기만 해서 피하게 된다. 반면 죽어도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스타

배우들이 나이를 먹어도 영화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후광도 없이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서 밀려나 혼자 살면 재미없기 때문이다. 하늘도 더 이상 파랗지 않고, 인생의 방향도 사라지며, 삶의 의미와 가치도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니 그는 영화계로 돌아가 스타로서의 기분을 즐기려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이들의 성질이 똑같다. 그들은 똑같이 사악한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뽐내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까지 완장을 차고 가족들이 모두 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매우 애지중지하며, 몹시 떠들고 다니며 뽐내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자에게 염치가 있느냐? 없다. 지위만 생기면 신분은 물론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마저 변하니 이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딴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들이 이런 태도로 지위를 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악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지고지상하다. 하나님에게는 권병과 지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만물 가운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고 인류를 경영해 왔는데, 구체적 연한과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인류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공표하지 않겠느냐? 사탄은 분명 그 사실을 공표했을 것이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공을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본질에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측면이 있다. 낮춤과 감춤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교만함과 드러냄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그는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말해 주어 인식하게 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한다.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지는 마지막에 도달하는 객관적인 성과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런 것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냐? 사람이 이런 일들을 알게 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경영하고 주재하며 안배하는지 알게 한 후 더 이상 의미 없는 반항을 하거나 굽은 길을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사람은 훨씬 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네가 순리대로 살고, 하나님이 준 방식과 법칙,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준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면, 더는 사탄의 손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사탄에게 패괴되거나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세운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본래 의도이자 근본 취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하였음을 과시한 적 있느냐?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 사람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인류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설명하지 않으니 너는 그저 네가 알아야

할 것만 확실히 알면 된다. 앞으로 인류가 땅 위에서 정상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왔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나타난 것이다. 땅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무리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성과를 이루면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네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째서 설명하지 않겠느냐?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일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네가 인식하도록, 네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네게 어느 정도의 비밀들을 말해 주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현재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일이다. 네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의 토대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사탄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생기고 사탄을 저버릴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사탄을 추종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러면 된 것이다.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는 이 인류가 이해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네게 이를 드러낸다 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가 이를 접할 수 있다고 해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어째서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가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 언약의 증거임을 알아도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 비밀을 네게 말해 준다면 너는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다. 네게 말해 줘 봤자 너에게 짐이 되고, 너는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너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된다. 그래서 비밀 같은 일에 대해 하나님은 길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탄에 속한 자는 이를 알면 참고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차이다. 하나님이 이미 인류에게 드러낸 지 오래지만 사람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느냐? 초자연적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눈앞에 놓여 있지만 사람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에게 깨우쳐 줄 필요가 없다. 또한 사람에게 강요하여 사람의 부담이 되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에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보호와 배려,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잘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자 본래 의도이다. 반면, 사탄은 스스로를 뽐내면서 강제로 사람에게 들이밀며, 그다음에는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미혹되게 한다. 또 사람을 타락시켜 조금씩 살아 있는 마귀로 변하게 하여 멸망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얻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는 멸망의 결말이 아니다. 사탄은 사람이 잘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한다. 사탄은 사람의 생사를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과 통쾌함만을 고려한다.

사탄에게는 사랑도, 긍휼도 없으며 관용과 포용은 더더욱 없다. 사탄은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 긍정적인 사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추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량의 사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적 있느냐? 해명한 적 있느냐? 설명한 적 있느냐? 없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많은 말로 해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나이가 예순이든, 여든이든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 셈이다. 하나님은 네게 따지지 않는다. 너는 아직 철부지다. 어떤 사람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육은 늙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유치하고 천박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게 따지지 않는다. 네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겨우 그 정도 자질밖에 안 되는 변변찮은 인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네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조금만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를 몰라줄까 걱정한다. 적그리스도처럼 말이다. 그는 조금만 일을 하면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한다. 그 말을 들어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으면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내세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그런 말들을 하는 속셈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과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감추지만 사탄은 자신을 드러낸다. 이는 차이가 있지 않으냐? 드러냄과 낮춤과 감춤 중 어떤 것이 긍정적인 사물이냐? (낮춤과 감춤입니다.) '낮춤'이란 말이 사탄에게 쓰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사악한 본성 본질을 보면, 사탄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싸구려이다.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비정상이거늘, 무슨 낮춤을 말하겠느냐? 낮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고 존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감춤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히 행하고 있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공급받고, 양분을 얻으며, 인도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낮춤과 감춤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언급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사람과 이런 일들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낮춤인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네가 무슨 낮춤을 논하겠느냐? 그런 일들은 네가 한 일이 아님에도 한사코 공을 가로채려 하니, 이를 뻔뻔하다고 한다. 하나님은 인류를 이끌며 이렇게 큰 사역을 하였고, 온 우주를 주관한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그토록 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능력은 비범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인류가 양분과 공급을 얻도록 하고, 온 인류가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그리고 인류가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끊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이를 숨기고 이름 없는 영웅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교회에 있는 일부 적그리스도처럼 말이다. 그들은 다소 위험한 사역을 맡은 적이 있고, 버리고 고생한 적도 있으며, 심지어 옥살이한 적도 있다. 또한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에 공헌을 한 자도 있다. 그들은 그 일들을 늘 되새기며 잊지를 않고, 이를 평생의 공로이자 평생의 자본으로

삼는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말해 준다. 사람은 확실히 보잘것없고, 사탄은 염치가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지위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겠느냐? 이름난 음식을 먹고 명품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격식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떤 지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곳에 도착하면 평범한 형제자매의 가정이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설령 섬길 수 있다고 해도 거기서 지내지 않고 성급 호텔에서 묵어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격식을 따지지 않느냐? 지위가 그들에게 주는 영예와 즐거움, 그리고 허영 같은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여건만 된다면,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한 아름 움켜쥐고 누릴 것이다. 그들의 원칙은 무엇이냐? 지위만 생기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명품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것은 거부하고 명품만 찾는다. 넥타이, 양복, 셔츠, 커프스 단추, 금목걸이, 벨트 등 전부 명품이다. 이는 좋지 않은 징조다. 형제자매가 화를 입지 않겠느냐? 형제자매의 헌금이 적그리스도가 명품을 사는 데 들어간다. 이 적그리스도가 저지른 못된 짓이 크지 않으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냐? 그들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평범하게 입고 다녔다. 옷가지도 얼마 없고 그마저도 명품이나 고급 의류가 아니었다. 결국, 몇 년간 리더를 하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는데 떠날 때 보니 짐이 한 트럭은 되었고, 전부 명품 옷이나 가방 같은 귀한 것들이었다. 그는 리더를 하면서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났겠느냐? 바로 지위를 통해 얻은 것이다. 만약 그가 남들이 사다 주는 물건을 거절했다면 형제자매가 굳이 그에게 사 주었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가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사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가 강점하고 횡령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제자매에게서 갈취하기도 하고 자기가 나서서 사기도 했다. 또 형제자매에게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사오지 않으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풍작'을 거두어 부자가 됐다. 너희는 이런 리더가 부러우냐? 너희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냐? 잘 들어라. 이런 부는 쌓을 게 못 된다. 결과가 따른다!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걱정한다. 시험이 너무 커서 사람이 피하기 어렵고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시험에 빠져들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게 정상이지. 한자리 차지하고 이 정도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자리에는 왜 앉는 건데?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냐고!'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소리이니 위험하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30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뜯어낸 적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예쁜 액세서리가 탐이 나서 그에게 "이 액세서리는 나한테 주세요. 금이나 은 같은 액세서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차야지, 당신이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위가 없는 사람은 착용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형편이 넉넉한 형제자매가 무스탕 같은 것을 사 주어도 다 돌려보냈다. 옷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고민이 되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사다 준 사람이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물건들을 교회로 가져와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고, 귀중품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싼값에 사게 하면 된다. 이는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적절하다. 아무도 이 물건을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다. 필경 이것은 네게 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아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누구에게 주든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 분명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내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물건을 나한테 주었으면 그것은 내 것이니 내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 구매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니 네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게 물건을 사 주는 형제자매가 많은데 내가 사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니 그 마음은 받겠지만, 그 많은 물건은 받을 수 없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형제자매들이 내가 추위를 잘 타서 찬 음식을 못 먹는 것을 알고서 위냉증 약을 사다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몸에 탈이 나서 몸이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어떤 형제자매는 산삼이나 홍삼, 보약 등 건강식품을 사다 주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사 준 물건이나 그것의 출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많아도 먹고 나서 탈이 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면 자신에게 좋은 게 아닌 것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몸에 맞는 사람이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누구든 내게 줄 무언가를 사려고 지갑을 열 때 "절대 사지 마라."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체면 차리지 않고 직접 얘기하겠다. 알겠느냐? 너희가 가져온 물건을 보고 내가 필요 없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체면을 차리느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고 진짜다. 내 말에서 절대 다른 의도를 찾지 마라.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고, 쓸 수 없다면 쓸 수 없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쓰는지 안 쓰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쓰지 않으면 괜한 돈을 들인 것이 되지 않느냐? 네가 진심을 담아 내게 사 준 것이라면,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사지 마라. 만약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으로 내게 사다 준 것이라면 그건 괜찮다.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물건과 지위나 신분으로 받게 되는 물질적인 대우를 나는 이런 태도로 대한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틀림없이 본인에게 오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할 것이다. 누가 어떤 선물을 주든 다 괜찮은 것이다. 또 그들은 분명 갈취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지위를 통해 그들이 얻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과 관련해서 지난번과 오늘 나눈 교제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정의롭고 진리에 부합하는 일,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물로 여겨지는 것을 그는 정죄하고 증오하며 싫어한다. 반면, 모든 부정적인 사물, 양심과 이성, 정의감이 있는 사람에게 정죄되고 멸시받는 사물은 공교롭게도 적그리스도가 좋아하고 좇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이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증오하면서 하나님이 혐오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물은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이 사악함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그는 오로지 추하고 부정적인 사물만 좋아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진리에 부합하는 모든 사물은 혐오하고 적대시한다. 이것을 사악함이라 한다. 알겠느냐?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 교제하면서 일부 사례도 짚어 보았다. 이 사례에는 전형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지 전형적이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 본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목격하거나 깨달은 사악한 사물과 긍정적인 사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사물과 그가 혐오하는 긍정적인 사물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너희가 깨달았거나 목격하고 체험한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괴된 인류와 적그리스도는 모두 공통적인 성품과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것들은 심각성의 차이만 있을 뿐 성품의 본질은 똑같다. 걷고 있는 길,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출하는 수많은 패괴 성품의 본질은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다방면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은 패괴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별할 줄 안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를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2019 년 8 월 7 일

제 7 조　사악함과 음험함, 그리고 간사함(3)

참고

선물

본격적인 교제에 앞서 해 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이야기냐? 혹여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에 진입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측면에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그 이야기 자체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럼 오늘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잘 들어보아라. 개중엔 실화인 이야기도 있고 실화를 가공하여 꾸며 낸 이야기도 있는데 실화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다. 꾸며 낸 이야기이든, 정말 있었던 일이든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너희에게 들려주려고 하겠느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가 거기서 진리, 곧 실생활에서는 인식하기 아주 어려운 일부 진리를 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인식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과 오래 그리고 자주 접하다 보면 별의별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다 생긴다. 이야기는 올 봄에 있었던 일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날씨가 날로 따뜻해졌다. 땅 위에 여러 식물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햇볕을 쬐고 비를 맞으며 하루하루 자라났다. 이런 식물에는 자연산인 것도 있고 재배한 것도 있으며, 동물이 먹는 것, 사람이 먹는 것, 동물과 사람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봄날의 풍경이다. 온통 푸르고 생기 가득한 풍경 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어느 날 나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이겠느냐? 산나물 한 봉지다. 보낸 사람은 "이건 냉이라, 드셔도 돼요. 몸에 좋대요. 달걀에 볶아 드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전에 사 두었던 냉이와 비교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인지 짐작이 되느냐? 내가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떤 비밀이겠느냐? 해외의 냉이와 중국의 냉이가 다르게 생긴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같은 종이라면 똑같이 생겼어야 하는데 이제 보니 다르게 생긴 것이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이게 과연 냉이일까?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럼 선물한 사람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에게 물었다. "냉이라더니 확실한 것이냐?" 그는 생각해 보더니 "흠, 냉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라고 대답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냉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어찌 남에게 감히 줄 수 있겠느냐? 내가 함부로 먹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이틀 후 과연 진짜 냉이가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한 사람이 뭐라고 했겠느냐? 그는 "냉이가 아닌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긴가민가했거든요. 괜념치 마시고 그냥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런 걸 먹어도 되겠느냐? (먹으면 안 됩니다.) 먹어선 안 된다. 만약 내가 "네가 잘 모르긴 하지만 성의를 봐서 위험해도 한번 먹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성질이냐?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다행히 나는 먹지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기에 이 일은 유야무야되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들에는 여러 야생 식물들이 자라났다. 큰 것, 작은 것, 꽃 핀 것, 피지 않은 것 등 가지각색의 오색찬란한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갈수록 많아지고 무성해지며 형태를 갖춰 갔다. 어느 날 같은 사람에게서 선물을 또 한 봉지 받았는데 이번엔 냉이가 아니라 쑥이었다. 그가 또 한 번 크게 선심을 써서 한 봉지 선물한 것이다. 건네면서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 "드셔 보세요. 쑥인데 냉한 체질에 좋대요. 이것도 달걀에 볶아 드시면 돼요." 내가 살펴보니 호초(蒿草)가 아니겠느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는 쑥은 잎에서 독특한 향이 나는데 이자가 준 것에서는 향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쑥이라고 하는 것일까? 잎 모양은 비슷한데 정말 쑥일까? 선물해 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뜻밖에 그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모르겠다는 한 마디로 깔끔하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왜 아직 안 드셨어요? 쑥인지는 모르겠지만 드셔 보세요. 제가 먹어 보니 맛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자기도 모르는 걸 권하는데 내가 어떡하면 좋겠느냐? 억지로라도 먹어야겠느냐? (아닙니다.) 선물한 사람도 뭔지 모른다고 하니 절대 먹어선 안 된다. 맛만 보려고 모험을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먹어 본 사람이 괜찮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괜찮다는 것만 믿고 덮어놓고 먹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맹목적인 일을 하느냐? 덤벙대고 경솔한 사람이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는 '맞든 틀리든 비슷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며 정체불명의 식물을 먹어야 하느냐?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을 때는 모험을 하며 여러 산나물을 캐 먹어 볼 수도 있다. 이럴 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때이냐? (아닙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산나물을 캐 먹어야 하느냐? 전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상 속의 작은 유익을 위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내가 먹지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아서 이 일은 또 유야무야되었다.

한동안 지나 이 사람이 또 선물을 보내왔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 선물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것은 땅에서 자라는 것도,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새알 두 개가 쇼핑백에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거기엔 '하나님께 바치는 새알'이라고 적혀 있었다. 웃기지 않느냐? 쇼핑백을 열어 보니 새알 두 개의 껍데기 색이 예뻤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색이었다. 어떤 새가 낳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인터넷을 뒤져 보려고 했지만 단서가 잡히지 않았다. 같은 무늬에 같은 색깔인 새알이 많아서 크기와 색깔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너희 생각에 선물한 사람에게 무슨 알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짐작이 맞다. 이번에도 그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면 그의 체면이 깎일 것이고 '내 호의, 내 배려심을 의심하시는 것도 모자라 검색까지 하시다니. 뭘 찾아보고 그러시나, 드시라면 드실 것이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먹어야겠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겠느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준다면 먹겠느냐? (안 먹습니다.) 나도 먹지 않겠다. 새가 낳은 알은 전부 시간이 지나면

부화하여 번식하기 마련인데 먹어 버리면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알 사건도 그렇게 유야무야되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

하루는 어떤 곳에서 쑥같이 생긴 호초가 난간에 놓여 햇볕에 말려지고 있길래 한 자매에게 그것의 용도를 물었다. 그녀는 "저번에 그 사람이 당신께 보낸 쑥이잖아요? 쑥에는 제습과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효능이 있어요. 당신은 추위를 타시잖아요? 그가 햇볕에 말렸다가 물에 끓인 다음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드릴 거래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냐? 두 어절이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어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의 배려심이 너무 크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어이가 없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지각하지 못한 전례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드시라고 드렸는데 드시지 않으니 그럼 뜨거운 물에 족욕이라도 하시라고 말려 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라는 뜻이다. 이런 광경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당장 약국에 가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정도로 쑥은 충분하다고, 포장도 다양하고 생산지도 다양한 데다가 가공도 그가 보내온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다. 길가에 가서 뽑을 필요도, 난간에 놓고 햇볕에 말릴 필요도 없다. 이건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그가 다 말려서 나한테 주는 걸 내가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할 리 없다. 한동안 지나자 난간에서 호초가 사라졌다.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보내지 않은 까닭이다. 나중에 들에 들풀이 무성해져서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자 더 이상 아무도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이 기간에는 새알도 다 부화해서 건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알과 산나물을 더는 받지 못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야기에서 네 가지 사건을 언급했는데 모두 내게 물건을 선물한 내용이었다. 그중 두 번은 정체불명의 산나물을 보낸 일이고, 한 번은 알 수 없는 새알이고, 나머지 한 번은 말린 '한약'이었다. 이 이야기가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일 자체만 놓고 볼 때 너희는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이 속에 사람이 인식하고 배워야 하거나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없느냐? 너희는 듣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겠느냐? 결코 아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들려주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그저 한담이겠느냐? (아닙니다.) 너희에게 한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야기했겠는지 알겠느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가 이런 일을 한 성질은 무엇이고, 취지는 무엇이냐? 이 속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실제에 결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에 결부시켜 사람과 일 자체의 성질을 꿰뚫어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선의로 했겠느냐,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했겠느냐? (선의로 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선의였다. 그의 선의 속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느냐? 선의로 한 행동이라면 배려심이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거기에 패괴 성품의 불순물은 절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묻겠다. 네게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다면 어째서 부모에게는 이것들을 먹어 보라고 보내지 않느냐? 네가 만약 상사나 지도자를 아껴서 그들에게 마음을 쓴다면 어째서 그들에게는 이것들을 먹어 보라고 선물하지 않는 것이냐? 어째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네 부모나 지도자, 상사에게 해가 될까 봐 걱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건 걱정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심보냐? 네 선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기만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을 희롱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영체라면 네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육신이 정상 인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한 것이 진정한 배려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배려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희롱한 것이니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만약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먼저 맛을 보고 먹어 봐서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하나님에게 주지 않느냐? 네가 맛보지도 먹어 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잊어버리겠느냐? 너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먹어 보지도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감히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냐? 혹여 하나님에게 해가 되었다면 네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설사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허름한 물건을 이방의 지도자나 공직자에게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내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보내니 그 저의가 무엇이냐?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네가 만약 산나물 한 봉지를 네 사장에게 선물한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돈이나 명품을 주는데 이 사람은 풀때기를 주네?' 네가 그걸 내밀 수 있겠느냐? 분명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보낸다면 어떤 게 걱정되겠느냐? 너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사장님이 뭘 좋아하시지? 이게 필요하실까? 필요 없는데 드리면 날 난처하게 하지 않으실까? 회사에서 날 구박하고 괴롭히지 않으실까? 최악의 경우 구실을 찾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날 자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사장한테 잘 보이려면 일단 무엇을 선물해야 하느냐? (그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그가 지금 컵 한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가 2, 3 천원짜리 컵 하나를 사 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금이나 은 정도는 되어야 선물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자기도 사기 쉽지 않은 것을 왜 그에게 주느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이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최소한 그가 너를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 그는 수중의 권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그가 너를 곤란하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정체 모를 산나물 한 봉지를 그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사장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물을 보낸 그는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 그가 뒷일을 생각했겠느냐? 분명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당신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더냐? 내가 그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냐? 그런 것이냐? 그가 왜 감히 이런 선물을 했겠느냐? (그는 자신이 선의로 그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는 선의로 그의 추악하고 사악한 부분을 가렸다. '저는 당신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산더미만 한 나물 보이시죠? 누가 캐 드린 겁니까? 제가 캐 드린 게 아닙니까?'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태도냐? 이게 무슨 마음가짐이냐? 이 선의가 인성에 부합하느냐? 인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졌다! 이게 무슨 선의냐? 진정한 선의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의 선의냐? 어떤 불순물과 어떤 본질을 지닌 선의겠느냐? 세상물정 모르는 너희 같은 젊은이들도 직속상관에게 선물할 때는 흣일을 생각해서 아무거나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세상에 닳고 닳은 사, 오십대가 이따위 물건을 선물한 것은 무슨 성질인 것 같으냐?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성질이겠느냐? 그는 자기도 무엇인지 모르는 나물을 내게 먹으라며 주었다. 그러다 내가 그 산나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얼른 먹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나보고 먹으라며 다른 산나물을 보냈다. 내가 먹지 않으니 그가 뭐라 했느냐? "드셔 보세요. 제가 먹어 보니 맛있더라고요."라고 했다. 이게 무슨 태도냐?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렇다. 너희도 이런 태도가 느껴지느냐? (느껴집니다.) 이게 선의겠느냐? 여기엔 선의조차 없다! 돈도 들이지 않고 대충 물건을 구해 와서는 비닐 봉투에 담아 먹으라고 준 것이다. 풀을 뜯어 양이나 토끼를 먹이더라도 '먹고 중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느냐? 짐승을 먹일 때도 이런 모험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충 나물을 구해 나한테 먹으라고 주느냐? 이게 어떤 성품이냐? 어떤 성질의 문제겠느냐? 너희가 확실히 알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그의 부하, 그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느냐? 함부로 희롱할 것이다. 이게 어떤 성품이냐? 사악하고 흉악한 것이다. 이런 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몸과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내기 정도로 생각한다. 지나고 나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양심에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니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을 너희는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산나물은 사람이 먹는 게 있고, 짐승이 먹는 게 있으며, 사람과 짐승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다. 이는 '명언'이다. 이 말엔 유래가 있는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느냐? 여기엔 '사연'이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몇 가지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람은 재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옥수수를 재배했다. 어떤 종류겠느냐? 사람이 먹는 것, 짐승이 먹는 것, 사람과 짐승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다. 이 세 가지 옥수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데 들어보았느냐? 들어보지 못했구나. 나도 처음 들었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배를 맡은 사람이 무책임해 이 세 가지 옥수수가 섞이는 바람에 짐승한테 줄 것을 사람에게 나눠 주고, 사람에게 줄 것을 짐승에게 나눠 먹였다. 다들 먹어 보고는 곡식 맛이 아니라 여물 맛이 난다며 맛이 이상하다고 했다.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무책임하게 본분을 이행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는 것과 짐승이 먹는 것이 뒤섞여 아무도 알아볼 수 없으니 종자를 새로 사서 다시 심어야 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원칙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일할 때 진리를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하고, 이렇게 불손하고 무책임하게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진리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의 신분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들이 알겠느냐?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모르느냐? 이는 성품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입니다.) 사악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이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어떤 성질인지 의식하지 못한다. 전혀 묵상하지도 구하지도 않으며 행동한 뒤 성찰하지도 않는다.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선의만 있으면, 좋은 의도이기만 하면 그 누구의 감독이나 질책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미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당신께서 하신 이야기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지니십니까?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당신은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혐오하여 버리십니까? 반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십니까?" (증오하십니다.) 이런 일은 증오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만약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만약 선의를 가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네게 정체불명의 것을 선물하면서 "몸에 좋으니 드셔 보세요. 보양식이니 드셔 보세요. 먹으면 예뻐지고 기운도 나니 드셔 보세요. 정말이니까 제 말 들으세요."라며 끈질기게 권했는데 검증 결과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저라면 이런 부류의 사람과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진절머리가 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혐오감과 반감이 들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화를 내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해야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냐? "이 사람은 아마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과 사람 간에 구별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마치 다음의 경우처럼 말이다. 사람끼리 왕래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잇속을 차리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래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는 인성이 있어서 조금 손해 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반면 인성이 없어서 잇속만 차리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오로지 이득을 얻고 잇속만 차리기 위해 남들과 왕래한다. 그는 너에게서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으면 너에게 잘 보이려 하면서 관계를 다지지만 득 볼 일이 없으면 여지없이 내팽개치고 널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인성이 없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서 선물을 보낸 그런 부류의 사람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왜 선물을 보내느냐? 이게 우연이겠느냐? 몇 년에 한 번이라면 우연이겠지만 한 계절에 똑같은 일이 네 번이나 일어났는데 우연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그의 성품이 일시적으로 패괴를 표출하거나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행동의 성질이 무엇이겠느냐? 방금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 태도가 불손하고 무책임하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성품이 야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왜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는 주지 않고 나에게만 줬겠느냐? 내 신분, 지위가 달랐기에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물을 준 그의 속셈과 이런 행동의 성질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목적이 무엇이었겠느냐? (잘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가 잘 보이려 한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약다'이다. 환심을 사고, 잔머리로 이득을 보는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환심을 사서 그가 파 놓은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 그가 뭘 해도 좋게 느껴진다. 사실 그는 전혀 진정성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그는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떤 대가가 따를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지도 않는다. 그냥 거저 주운 것을 네게 주면서 그가 배려심이 넘친다는 생각에 미소로 화답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네가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니 이는 대놓고 너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돈 한 푼, 힘 한 번 쓰지 않고 성의 없이 선물 하나 보내서 날 기억하게 하고, 내게 호의, 배려심, 충성심이 있고, 내게 사랑이 있다고 여기게 만들겠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를 오해하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약다는 것이고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다. 아무 대가나 진정성도 없이 싸구려 호의로 이익이나 혜택은 최대한 취하려 하는 것은 약은 짓이다. 너희는 이럴 수 있느냐? 모두가 그럴 수 있다. 단지 너희가 그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뿐, 기회가 생기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과 왕래하면서 내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다. 즉,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주 약다는 것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득이 되고 복을 줄 수 있어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이 일은 이런 부류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폭로해서 그의 진상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순종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약빠르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복을 받으려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경외심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다. 내 말이 맞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크게 비난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그의 본질에 따라 말하면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소한 그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희롱했다.

두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어디가 무시무시하겠느냐? 어째서 사람의 마음이 무시무시하다고 하겠느냐? (이 사람은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드시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어떨지는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뒷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땐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꿍꿍이가 너무 무시무시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가족처럼만 대했어도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친구라면 이렇게 대하겠느냐? 역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친구는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알려 줄 것이다. 만약 이것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친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나한테조차 이러는데 너희에게는 더 그럴 것이다. 그의 무서운 점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의 속셈이 너무 교묘합니다. 그는 겉으로만 열심인 척하는 식으로 속내를 감추는데 사실 그는 싸구려 물건으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좋은 관점이다. 방금 그의 이기적인 면을 말했는데 이것이 그의 속셈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사람 내면 깊은 곳의 이런 인성에서 드러나는 것, 자기가 헤아릴 수 있거나 헤아릴 수 없는 것, 남들이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것, 혹은 해석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부모가 가르친 것이냐?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 물든 것이냐?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태생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태생적인 것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본성 본질과 관련된다. 그럼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의도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갑자기 든 생각이겠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겠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에게 어떤 암시를 준 것이겠느냐? 모두 아니다. 비록 이런 몇 가지 사소한 일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의 성질은 모두 평범하지 않다. 장본인인 그가 이런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의식할 수 있었겠느냐? 그는 의식하지 못했다. 왜 그는 의식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 네가 노점에서 싸구려 물건을 하나 사서 사장한테 선물한다면 선물을 줄 때 이런 예상을 하지 않겠느냐? '사장님이 노점에서 이걸 보시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찾아보지 않으실까? 이 물건의 가격을 알려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걸 보고 날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예상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런 예상부터 해 보고 나서 살 것이다. 만약 이 물건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래도 선물하겠느냐? 선물할 리 없다. 만약 그 물건을 선물하는 게 돈도 덜 들고 사장도 좋아하게 할 수 있다면 너는 분명히 선물할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이자는 이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그는 이래야만 그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분석을 통해 이제 이 일의 성질이 도출되었다. 그럼 이 일의 성질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람과 접촉하면서 사람에게서 보게 된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표출하는 패괴 성품이 의도적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든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무시무시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이냐? 무감각한 사람은 지각하지 못하는데 무감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매하기 때문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하겠느냐? 사람의 사악한 성품에 귀결되어야 한다. 사람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겠다.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 말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 하겠느냐?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이 말이 무섭지 않으냐?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끼치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껏 너희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패괴 성품이 있다고만 생각했을 뿐 마귀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고 하는지 고민해 보아라. 그리고 양심과 이성을 지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이냐? 친구이냐? 가족이냐? 과연 어떤 관계이냐? 너는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느냐? 네가 하나님과 접하고 함께 지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하느냐? (경외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경외심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네가 나를 서로 잘 모르고 그저 알고만 지내서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조화와 융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양심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야 한다.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상대방의 이름도 모를 만큼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상대방이 얌전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이 희롱하려 한다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존중도 하지 않는다면 인성이 있겠느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어떤 논쟁이나 갈등이 있든 적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존중은 처신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럼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지낼 때는 이것이 있느냐? 만약 네가 이것조차 도달하지 못한다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제삼자도 아닌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선물을 보낸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존중이 없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먹고 건강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술수를 써서 하나님을 속여 환심을 사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이 그의 속내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무시무시하지 않으냐? 정말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치른 대가를 마음 깊이 반성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맡긴 본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성찰하거나 구한 적이 있느냐? 사람은 대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냐? 사람의 여러 모습과 표출, 나아가 사람 내면 깊은 곳의 속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대하면서 표출하는 여러 성품을 통해 보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느냐? 자기에게 유익한 일에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쓰는 것 외에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쳤느냐? 전부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며, 방어적인 데다가 불손한 태도이다. 불손은 태도의 일종인데 이 태도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동사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농락이다.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 보았습니다.) 농락은 점잖은 단어인데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조롱, 희롱이다. 너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네가 우습게 보이고 얌전해 보이니 그는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농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성품이냐? 이런 성품을 가진 그의 마음속에 천사가 살고 있겠느냐, 마귀가 살고 있겠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살고 있다.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니 그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선물을 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직속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 환심을 사고, 기만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느냐? 아첨과 아부에 기대어 살아간다. 지도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가 왜 내게 이런 '배려심'과 '호의'를 보이겠느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는 알지 못한다. 정상인의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것이다. 그의 행동, 그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의하며 평가하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비위를 맞추면 목적을 달성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것이 어떤 인성이냐? 정말 양심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 정도 살았으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내게 잘 보일 필요 없다. 둘째, 내게 아무것도 바칠 필요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 네게 어떤 속셈이나 목적이 있든 네가 하는 일의 성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게서 정의되고 규정된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끝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어떤 속셈이었는지, 어떤 동기였는지 확실히 살펴볼 것이다. 나는 오직 네 성품만 본다.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혹하냐? 내가 보기엔 전혀 가혹하지 않다. 조금도 가혹하지 않기에 빈틈을 타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나를 접해 보고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어. 나랑 별반 차이 없잖아. 똑같이 삼시 세끼 드시고 권병이나 능력은 보이지도 않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아무 말씀도 없으시잖아. 날 어쩌시겠어?'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째서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생기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위가 존귀하며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해도, 또 그가 아무리 입으로는 감격했다면서 기꺼이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해도 막상 본분을 이행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며 일하기 시작한다. 말해 보아라. 하나님까지 속이고 농락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입니다.) 마귀이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예전에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대화에서 사탄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지 교제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욥 1:7)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적인 말이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니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말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 인성의 사고에 부합하고 완전한 말로서 문법에도 맞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대답하더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너희는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탄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어디를 두루 돌아다녔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정론이 있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다. 사탄은 왜 이런 말투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진지하게 대답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했느냐? 농락했다. 마치 네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라고 물었는데 "맞춰 보시죠."라고 답하니 "모르겠네요."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네가 맞추지 못할 걸 알면서 너더러 맞춰 보라고 하니 이는 너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바로 이런 태도를 우롱이라고 하고, 농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의가 없고 알려 주고 싶지 않으면서도 너를 희롱하며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데, 사탄의 성품이 바로 이렇다.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느냐? 만약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며 가끔씩 수고하고 대가를 조금 치르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런 사람 같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물음에도 바로 답하지 않고 뱀처럼 빙빙 돌려 답을 찾지 못하게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불손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왜 못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류 사람의 사악한 점이다. 그들의 사악한 점은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신실함, 낮춤 그리고 정상 실제 등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족한 점이고 사람에게 쉽게 관념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옥의 티이자 결점, 허물, 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그들이 이런 방식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들 자신에게는 어떠냐? 그들에게 득이 되었느냐? 이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모욕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성의 없이 먹을 것을 하나 선물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묻지 않고 바보처럼 그냥 집어 먹는다면 보통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인성에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 인성에 모자란 구석이 있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만약 이런 정상 인성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믿을 만하지 못하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인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성과 사고, 양심이 무엇보다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럼 판단력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판단력이 없고 부주의하며 상식이나 식견도 없어서 일이 닥쳤을 때 숙고할 줄 모른다면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는 결함이 있는 인성이지 정상 인성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 이런 육신을 택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 소위 성육신을 따를 가치가 있겠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이것은 내 관점에서 본 하나의 측면이다. 다시 너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그의

추종자가 되어 그를 이렇게 대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둔 것이냐? 이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도 그를 믿는다면 너는 무엇이란 말이냐? 멍청이가 아니냐? 너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는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를 정상 인성의 몇 가지 측면을 두루 갖춘,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맞는 말이지 않으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든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한다면 이는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반면 네가 그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데도 그를 따른다면 이는 모순이 아니냐? 이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냐? 사람은 어째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설마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겠느냐? 깊게 따져 볼 것도 없이 이런 사람은 자질 면에서 지능이 떨어지는 자이다. 여기서 지능이란 무엇을 뜻하겠느냐? 생각이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해득실을 따질 줄 모르며, 이런 일은 어떤 성질인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고민할 줄 모르니 이를 두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동물, 짐승이 그렇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안다. 사람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어리석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성이 건전하지 못한 자로, 속된 말로 '팔푼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그의 사심이 너무 크고 그의 음흉한 속내가 결코 작지 않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산다고 하는 까닭이다.

'선물' 사건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침소봉대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이 일을 대충 얘기한다면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성과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너희는 기껏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네!' 너희는 기껏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끝이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것들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어떤 진리를 얻었느냐? 먼저 너희에게 한 가지 알려 주어야 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겠느냐? 원칙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이야기 속 그자가 한 일과 성질이 같으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눈을 속이려 했다간 큰일 나. 그분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어. 만만한 분이 아니니 왕래하지도 말아야지! 잘못했다가는 괜히 크게 비난받고 뼈도 못 추릴 수도 있어. 그분께는 선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사실 너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까이 지낼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왕래하는 경우는 더더욱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너희와 접하는 날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비결을 하나 알려 주겠다. 나와 함께 지내든 남몰래 기도하며 구하든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절대 내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이다. 네가 만약 그런 부류라면 내게 얼씬도 하지 말거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자꾸만 잔머리를 굴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도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 말마다 과장과 허풍이 섞여서 그런 사람이 몇 마디 더 하게 되면 어떤 말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내게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왕래할 때 네가 지키고 준수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이겠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존중은 체면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환심을 사거나 아첨하는 것도, 아부하며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해야 할 한 측면이다. 나와 접촉할 때 내 말을 끊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눈을 감고 듣는다.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당신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뭘 아세요?' 이런 태도인 것이다. 내가 모르긴 하지만 원칙이 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본 것, 내가 이해한 것, 내가 아는 원칙을 알려 주면 네가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항상 흘끗거리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알아서 찾아보아라.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들을 때 내가 너희 관점을 밝히지 못하게 가로막더냐? 내가 막을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나면 나는 너희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누군가 질문하면 내가 바로 설명해 주고 그 문제가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 알려 준다. 어떨 때는 너희에게 원칙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알려 준다. 비록 내가 모르는 업무도 있지만 나만의 원칙이 있고 이런 일에 대한 나만의 관점과 처리 방식이 있다.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관점과 원칙으로 너희를 가르친다. 어째서 너희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다른 질문은 없는지 물어보고 질문이 더 나오면 바로 설명해 준다. 나는 내 말을 들으라고만 하지 않고 너에게도 발언권을 준다. 단, 너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시간을 뺏지 말고 합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내가 다급한 마음에 일부 사람들의 말을 끊을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겠느냐? 그가 중언부언하고 다섯 마디면 끝날 말을 열 마디나 할 때이다. 사실 나는 한 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으니 길게 말할 필요 없다. 간단명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지 말아라. 말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지 답을 알려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쭙잖게 이렇게 말한다. "안 됩니다. 당신도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 사이에서 존중은 상호적인 겁니다. 당신은 하실 말씀 다 하셨지만 제 관점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는 늘 자기 관점을 밝히려 하는데, 내가 그의 관점을 모르는 줄 안다. 사실 나는 그가 운만 떼어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가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두

마디로 끝날 일을 열 마디를 하고, 말을 끊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다들 알아듣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런데도 말을 계속하려 하니 이는 지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토록 이성과 지능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 역겹지 않으냐? 소름 끼치도록 역겹다.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진리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진리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일 텐데 어째서 이것을 언급하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니 지금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접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일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 내가 부탁한 일을 일일이 적어 놓은 메모를 보여 주면서 지금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만나면 실행 상황이 어떤지 보고하고, 구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설명했다. 중간의 세부 사항들도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때로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의 이런 태도를 통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책임과 본분,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와 달리 두 가지 일을 부탁했더니 당시에는 메모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생각나서 또 한 번 메모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 어째서 아직도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는 또다시 노트에 적었다. 그가 어디에 적었느냐?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 않느냐? 인간도 아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흘려듣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내가 맡기는 여러 가지 업무나 사무 쪽 일, 일부 교회 사역은 모두 사람의 역량 안에 있는 일이다.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리더 일꾼에게 일을 맡기면 다수가 모두 알겠다고만 하고 피드백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된다. 그야말로 감감무소식이다. 과연 이 사역을 안배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어떤 착오가 있는지, 결과는 어떤지 전혀 보고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한쪽에 미뤄 둔다. 그래서 결과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내가 부탁한 일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첨하고 기만하기까지 한다. "저희는 어제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했고 그저께는 어떤 일들을 했으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식과 둘러대기에 얼마나 능한지 잘 들어 보아라. 내가 특별히 부탁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이나 실컷 하면서 중요한 사역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과 기만뿐이다!

농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올해 어떤 채소가 괜찮던데 종자를 남겨 두었느냐?"라고 묻자 "남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저번에 채소를 모두 수확해서 남은 게 없다고 들었다."라고 하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다 거두지는 않아서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조금 남았다는 채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그가 말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우선 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종자를 남겼겠느냐? 남기지 않았다. 그의 말 중 처음에 "남겼습니다."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 거두지는 않아서 조금 남았습니다!"라고 한 두 번째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남겼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우선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 세 번째 말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의 거짓말에는 모두 단계가 있어서 점점 심해지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너희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왕래하고 싶으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과 함께 대화하거나 일할 때 기분이 어떠냐? 화나지 않느냐? 그 누구라도 감히 다 속이다니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이 속일 일이냐? 이렇게 속여서 네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태도로 일을 하고, 이런 태도로 너를 대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한 사람이 한담이든, 사역이나 올바른 일에 대한 이야기든 진리에 대한 교제든 하는 말의 99%가 전부 거짓말이면 이 사람은 구제 불능이다. 누구라도 속일 수 있다면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떤 이방인은 말만 하면 "제가 알기론", "양심적으로 말하면"이라는 이 전제와 함께 그래도 사실을 좀 말한다.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사실은 한 마디도 없고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마귀이냐? 남들이 역겨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많지 않으냐? 너희가 이런 자들이냐? 너희는 나와 접촉할 때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사고를 쳐서 출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심각하리라는 것을 알면 남들이 말만 꺼내도 거짓말로 무마한다. 이런 일에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일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바로 자기 체면을 세우고 남들에게 추앙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말했다가 교체당할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상부에 사역을 보고할 때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하는 척하면서 남들에게 거짓 이미지를 심어 준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다. 그는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아무 문제도 거론하지 않으면 상부에서 자신의 허점을 눈치채고 자기를 교체할까 봐 재빨리 뭔가 하는 체한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이 모두 이렇다.

방금 교제한, 사람과 하나님이 접촉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세 가지 중 어떤 원칙이 지키기 힘들고, 어떤 원칙이 지키기 쉬운지 생각해 보아라. 사실 진정으로 지킨다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마귀를 쫓아내야 지킬 수 있다. 너는 마음속에서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하며 그때마다 그것을 물리친다면 너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매번 패배하여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너는 지킬 수 없다. 그 어떤 원칙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지내고 왕래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형제자매와 접촉할 때도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을 해부하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인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에 대해 교제했다. 이 내용에 대해 두 차례 교제했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느냐? (진리를 적대시하고 혐오한다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며, 진리나 하나님과 합하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첫 번째 주된 모습이다. 첫 번째 교제 때는 적그리스도가 혐오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보통 사람은 부정적인 사물과 사악한 세력을 혐오하고, 불결하고 어둡고 사악한 사물들을 싫어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다. 그의 사악한 본성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가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물이 아닌 진리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악함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두 번째 교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을 보여 주는 두 번째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했다.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혐오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느냐? (부정적인 사물입니다.)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정의롭고, 선하며, 아름답고 인성과 관련된 사랑, 인내, 포용을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상식과 학문을 좋아한다. 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긍정적인 사물, 하나님이 정한 만물의 규율과 법칙, 하나님의 율법, 행정 법령,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와 생명의 도 등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은 이와 정반대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거짓말과 기만입니다.) 그렇다. 그는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음모와 계략, 여러 처세술, 아첨과 알랑방귀를 좋아하며, 싸움, 지위와 권세를 좋아한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에 위배되는 것들을 그는 다 사랑한다. 바로 이 점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입증한다. 이런 것이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비록 강력한 증거들이긴 하지만 두 가지 부분뿐이므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늘은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 이런 모습의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세 번째 부분은 분명 첫 번째 부분이나 두 번째 부분과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겠느냐? 모두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의 사악한 본성이 사랑하고 필요로 하며 혐오하는 것들이 앞선 두 부분에서 말한 것과 다소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 중에 긍정적인 사물도 있다거나 그가 부정적인 사물을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라는 말이다. 이 부분은 단지 그가 사랑하는 것이나 그에게 필요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사악한 세력이 숭상하는 것, 다시 말해, 숭배하거나 경모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숭상', '숭배', '경모'는 긍정적인 사물에 쓰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쓰십니까? 이 단어들을 쓰는 게 적절할까요?" 이 단어들은 좋은 뜻이라고도, 나쁜 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중립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여기에 써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으니 써도 무방하다.

3. 적그리스도가 숭배하고 경모하는 것을 해부하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숭배하고 경모하느냐? 일단 확실한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진리나 하나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느냐? 힌트를 주겠다. 종교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전락하였느냐? 어째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사역의 대상이 아닌 종교, 교파로 규정하느냐? 그들에겐 교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했던 사역과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해 교재로 만든 다음 학교를 세워 여러 신학자를 불러모으고 양성한다. 이 신학자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진리를 배우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신학 지식입니다.) 신학 지식과 이론을 배울 텐데 이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들은 신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니 그렇게 기독교나 천주교로 전락한 것이다. 종교에서 숭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령 네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을 몇 년이나 믿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답하면 그들은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성경을 끼고 들어가 "얼마 전에 모 신학원을 졸업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를 상석에 앉힐 것이다. 반면 네가 평신도라면 사회에서 어지간한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종교계가 다 이렇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분과 지위가 있으며 명망 높은 사람은 모두 신학원이 배출한 신학 지식과 신학론을 갖춘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지탱하는 주체이다.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한다. 그들은 이런 신학생과 설교하는 목사, 신학자 등의 인재가 있어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의 존재 가치, 존재의 밑천이 된 것이다. 만약 한 교회의 목사가 신학원을 나오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영적인 책도 좀 읽고 지식과 말주변이 좀 있다면 이 교회는 번창하여 그 명성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기독교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숭상하느냐? 지식이다. 신학 지식 말이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냐? 예부터 경문이 있었고, 그것이 대를 거듭하여 전해져 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읽고 배우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고 여러 버전으로 편집하여 사람이 깊이 파고들며 배우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비밀을 깊이 파고들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계시록의 어떤 예언과 맞아떨어지는지, 언제 대재난과 천년왕국이 임할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것만 연구한다. 그들이 연구하는 것이 진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일을 그들이 왜 연구하겠느냐? 그들은 연구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글귀와 도리를 많이 무장할수록 자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어서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산 사람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종교계의 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성경적 지식과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럼 그들이 교회에 숨어 있는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있느냐? 계속해서 그들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나아가 하나님 사역의 역사(歷史)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신도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신학과 하나님을 연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따르거나 증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歷史), 철학, 법률, 생물,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연구한다. 단지 그들은 과학이나 다른 학과는 싫어하고 유독 신학 연구를 좋아할 뿐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서 단서를 찾아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느냐? (알아내지 못합니다.) 어째서냐? 그들은 글귀 속에서 살고, 지식 속에서 살고, 철학 속에서 살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성령의 깨우침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느냐? 불신파로, 이방인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불신파와 이방인들은 소위 크리스천 공동체와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왜 그렇겠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당수의 사람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유를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성육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들, 특히 재난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이자, 그들의 소위 믿음의 실체이며 본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학문과 지식에 특히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무척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들은 순전히 신학을 연구하는 지식인 무리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역하러 오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새로운 사역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어떠하냐?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사역을 전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제거하려 든다. 이는 어떤 모습이냐?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들이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세 심판, 하나님의 성육신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적대시한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다. '당신이 육신을 입지 않은 영체라면 하나님이 맞겠죠. 그런데 성육신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네요. 인정 못 해요.'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러한 주장이 종교계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한 주장은 매우 힘 있게, 또한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성육신했다면 그는 가짜일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사람이 분명해. 그들은 미혹된 거야!" 이런 말을 내뱉는 그들이 2 천 년 전에 주 예수가 나타나 사역할 때 있었다면 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 예수'라는 세 글자를 믿고,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불신파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창세 사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한 사역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들이 연구하는 신학은 종교적 이론이나 학설의 하나로 완전한 사이비이자 사람을 미혹하는 엉터리 주장이다. 기독교의 소위 신학 지식인은 우리 교회 안의 적그리스도와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들의 여러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째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겠느냐? 일단 기독교인은 차치하고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이 숭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먼저 그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가 그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가 어떤 태도로 진리를 대하느냐? 그는 그 말씀들을 자신의 실행의 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장해야 할 하나의 이론으로 여기고 남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좋아하느냐? (이야기해 줄 하나의 이론으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의 이론으로 여기고는 배우고 분석하며 연구한다. 그러고 나서는 머리로 습득하고 기억해서 줄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여기저기서 으스댄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오래 이야기하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도리를 이야기하든, 얼마나 언변이 좋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그에게서 어떤 결과나 실행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를 뽐낼 도구로 여긴다. 가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본분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그는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어떤 태도이냐? "알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마음을 터놓고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본분도 얼렁뚱땅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 이행하고 말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여겨서 마음에 새긴다. 이런 이론이 그의 마음에 뿌리내린다고 한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기억하느냐? 그는 이런 말씀의 정확성을 좋아한다. 그 올바른 이론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남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것이다. 남들이 무엇을 우러러보느냐? 그가 유려하고 거창하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우러러본다. 이것이 그가 바라던 바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겠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실행하지 않느냐? 그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쉽네. 한 번만 말해도 난 기억해.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만 들어도 줄줄 외우겠어. 너희는 메모하면서 묵상까지 해야겠지만 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치부해서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속으로 묵상하지 않고 자기에게 비춰 보지도 않는다. 자신의 행실이 정직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기가 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성찰하지도 않는다. 또 이런 고민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인 거야.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흡족해하실까? 내가 한 일 중에 정직하지 않은 일은 없었나? 어떤 모습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가 이런 고민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고? 실행할 필요도 없이 거창한 말만 하면 되겠네.' 그는 왜 실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다. '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남에게 말하면 자기를 폭로하는 꼴이잖아? 스스로를 폭로해서 남들이 나를 간파하면 그러고도 나를 우러러보겠어? 내가 하는 말을 듣겠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되면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인데, 거짓말을 못 하면 마음속에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남들이 간파하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살면 바보 아냐?' 이것이 그의 관점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받아들일 때 그의 마음에 생각이 깃드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냐? 왜 그를 사악하다 하느냐? 먼저 그는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분석한다. 일단 그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실행할 순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나. 난 너희처럼 우매하고 단순하지 않거든! 언제든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 네게 천 가지 묘책이 있다면 내겐 하나의 원칙이 있어. 마음의 계략을 밝혀선 안 돼. 바보들이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교적 유명한 말들은 명심해 두었다가 남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더욱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도록 자기를 포장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속셈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진리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들은 진리에 흥미가 없으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 신선한 것, 비교적 고상한 이론적 지식이다. 이런 이론적 지식은 그들을 더 완벽하게, 더 그럴듯하게, 더 존엄 있게, 남들에게 더 숭배받을 수 있게 포장해 준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사악하냐? 어떤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든 그는 일련의 사이비 같은 이론이나 옳은 말로 교제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를 따르게 만드니 사탄과 마찬가지로 사악하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그의 사악한 계산과 모략, 그리고 일련의 계획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악함을 추동할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는데 이는 완전히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는 설교나 교제를 듣다가 신선하고 써먹을 만한 게 있으면 바로 메모해 두는데 그의 이런 모습을 우매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참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야. 설교만 들으면 메모하니 얼마나 영적인 이해력이 있겠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메모하네.' 그가 메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메모하는 것과 같으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메모한다. '이 말씀 참 좋다. 이해가 안 되니 적어놔야겠어. 내게 실행의 길과 원칙이 생기도록 나중에 실행하면서 적용해 봐야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난 오늘 너희는 들어보지도 못한 진리를 메모해 놓았어. 아무한테도 알려 주거나 교제해 주지 않을 거야. 난 얻었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게 언젠가 너희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지. 다들 엄지를 치켜세우게 말이야.' 그가 이렇게 메모하는 것을 보면 넌 그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아주 정확하게 메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메모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노트를 접으면 그만이다. 언젠가 그에게 설교를 시키면 그는 뭘 설교해야 할지 모를 때 재빨리 노트를

뒤적여 설교할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고는 보고, 적고, 외워 써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나서야 '안심'한다. 또 마침내 자신이 '진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딜 가든 큰소리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모두 공허한 도리, 논조, 틀에 박힌 것들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네게 구체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일련의 도리를 늘어놓으며 조리 있게 말하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묻는 말엔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흔히 진리를 하나의 주장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데,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꿰뚫어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으며 진리를 구할 줄도 모른다. 누군가 그들에게 교제해 줄 때, 그들은 '명언'을 빌려 대답하곤 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모든 것을 이해해. 난 당신이 걷기도 전에 설교했던 사람이야!" 이것이 그들의 '명언'이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서 일이 닥쳤을 때는 어찌 꼼짝도 못 하는 것이냐? 네가 이해한 대로라면 어찌 행하지 못하느냐? 이 일이 어찌 너를 얽매여 갈피를 못 잡게 하느냐? 네가 과연 진리를 이해했느냐? 네가 이해했다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이해했다면 왜 순종하지 않느냐?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순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아무도 저한테 교제하지 마세요. 남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요." 남들 도움이야 필요 없는 건 상관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연약해졌을 때 그가 이해한 도리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본분조차 이행하기 싫어지며 불신하는 나쁜 마음까지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 이론을 말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며 물러난다. 여기에 분량이 있느냐? (없습니다.) 분량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의미이다. 네게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사소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왜 그것을 이겨 낼 수 없겠느냐? 너는 말솜씨가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아라.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다면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진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의 패괴 성품도 해결할 수 있다. 왜 네가 이해한다는 '진리'가 너 자신의 어려움조차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해한 것은 대체 무엇이냐? 이치일 뿐이다.

적그리스도의 일곱 번째 모습은 사악함, 음험함, 간사함이다. 방금 이런 모습의 세 번째 부분인 지식과 학문을 숭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적그리스도가 지식과 학문을 숭상하는데 그중 어떤 일이 그들의 사악한 성품을 보여 주느냐? 어째서 그들이 지식과 학문을 숭상하는 것에 사악한 본질이 있다고 하겠느냐? 여기서는 꼭 사실을 말해야 한다. 공허한 말이나 이론만 얘기하면 사람은 이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것이다. 먼저 오래전 일부터 말해 볼 테니 너희는 들어보면서 적그리스도의 행실을 비춰 보고, 그들의 모습과 본질을 비춰 보아라. 먼저 2 천 년 전의 바리새인부터 얘기해 보자. 당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 사역할 때 바리새인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사력을 다해 주 예수를 정죄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의 다른 이름이 된 것이다. 바리새인은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다. 따라서 먼저 바리새인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해부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방금 적그리스도는 지식과 학문을 숭상한다고 했는데 지식과 학문이 어떤 사람들과 관련이 깊겠느냐? 어떤 부류 사람들의 대명사더냐? 석박사를 뜻하겠느냐? 아니다. 본론에서 벗어났다. 바리새인을 말한다. 바리새인이 외식하고 사악한 이유는 그들이 진리는 싫어하지만 지식은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 성경 지식만 추구하면서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거나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나님이 했던 말씀과 일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이론이나 학설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것이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들은 무엇을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현이 아니며 진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학문의 한 일종으로 보는데, 신학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지식과 학문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며, 그들은 항상 신학 지식을 이야기하며 전도한다.

바리새인의 사악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일단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하면 너희가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관해 말하자면 먼저 2 천 년 전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육신이 어떤 가정과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먼저 주 예수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그의 가족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의 양부인 요셉은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는 평신도였다.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는 주 예수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을 상징하므로 주 예수는 평민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평민이란 무엇이냐? 평범한 백성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하층민이다. 명문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지위와도 거리가 멀었으며 귀족은 더더욱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회적 지위나 가정의 배경도 없었으니 주 예수가 태어난 배경과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범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에는 주 예수가 받은 교육에 특별할 게 있었겠느냐? 신학원의 교육을 받았겠느냐? 대제사장의 훈련을 받았겠느냐? 바울처럼 많은 책을 읽었겠느냐? 유명 인사나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친분이나 교류가 있었겠느냐? 없었다. 주 예수가 태어난 가정의 사회적 지위만 봐도 주 예수가 유대교 상류층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접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유대인들 속에서 생활했고 가끔 교회에 가도 평민을 만나는 게 전부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주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정식으로 사역을 담당하기 전까지 그의 성장 배경은 늘 한결같았다는 말이다. 열두 살 이후에 집안이 흥해서 부유해지지도 않았고 사회 상류층이나 종교계의 상류층을 접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으며 자라면서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고 그럴 여건도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회 환경,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고, 특별한 면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가 한 설교나 일에 관해 듣고 나서 감히 일어나 대놓고 판단하고 모독하며 정죄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정죄한 근거가 무엇이냐? 의심의 여지 없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규례들이다. 먼저 주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안식일에도 계속 사역했다. 또 그는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성전에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죄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람에게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주 예수가 한 다방면의 일들은 바리새인의 종교 관념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증오했고 주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며 꼬투리를 잡고는 사력을 다해 주 예수를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만약 주 예수가 명문가에서 태어나 고등 교육을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가깝게 왕래했다면 그 당시 주 예수의 처지는 아마도 달랐을 것이니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평범했고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정죄한 근거가 무엇이더냐? 그들이 알고 있고 만고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규례와 율례들이다. 바리새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이론을 하나의 지식이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고, 심지어 그것을 예수께도 사용하고 예수를 정죄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할 때 그 사람의 본질에 근거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도가 진리인지의 여부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이 한 말의 근원에는 더더욱 근거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규례나 글귀, 도리로만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들이 속으로는 주 예수가 말씀하고 행한 것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정죄하려 했던 것은 주 예수가 선포한 진리와 행한 이적과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고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를 점점 더 증오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를 제거하기까지 하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를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주 예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주 예수의 행사가 진리에 부합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 예수가 참람한 말을 하고,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주 예수에게 이런 죄명을 씌운 것은 주 예수를 속으로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사력을 다해 부인했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거였으면 대단한 지위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야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훈련받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파고들어 성경 지식을 알아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갖춰야 '성육신'이라는 호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는 이런 지식을 갖추지 않았으니 그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정죄했던 것이다. "첫째, 당신은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이 이런 성경 지식을 쌓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테니 당신은 더더욱 하나님일 리 없습니다. 셋째, 사역할 때 성전을 나가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지금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고 항상 죄인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역은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당신은 더더욱 하나님일 리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정죄하는 근거는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람의 머리와 사람이 받은 신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관념과 상상,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옳은 것이고 진리이며 근거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하나님도 이를 어기며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 영체의 현현을 구한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의 관념과 상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성육신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념과 상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결과이자 그들의 사악한 점이다.

바리새인이 지식과 학문을 숭상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의 사악한 점은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부류 사람의 사악한 본성을 어떻게 파헤치고 해부하느냐? 이것은 다들 알 테니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표출하는 사악한 본성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런 부류 사람의 사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부하고 간파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해 보아라. (그들은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항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악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대항이란 것은 하나의 행동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대항하겠느냐? 이 대항에는 흉악한 성품이 좀 들어 있긴 하지만 아직 사악함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가 왜 대항하겠느냐? 여기에 그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느냐? 그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해. 그것도 셋째 하늘에 말야. 사람들이 모두 경모하고 이르지 못하며 짐작할 수도 없는 분,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 심지어 우주의 모든 생물이 우러러보는 분이어야 하나님이지!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목수의 집에 태어나 보통 사람을 부모로 두었어. 더구나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출생 배경이 평범한 것도 모자라, 보통이나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못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이렇게 오실 리가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모두 이렇게 규정한다. 사실 그들도 속으로는 주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가 하는 말이 모두 옳고, 사람이 예수를 판단했던 그 몇 가지 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주 예수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가 한 설교와 말씀에 흠이 없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위대하시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면 더 위대해야 하고 만인이 경모해야 마땅해. 명문가를 드나들며 말도 청산유수로 하고 인성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조금도 표출하지 말아야지. 또 그는 먼저 그의 지식과 학문, 그의 재능으로 성전의 성직자들을 납득시켜서 그들부터 얻어야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은 주 예수의 행사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성직자인 그들 모두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울 수 있으며 주 예수보다 더 그리스도에 걸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정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번에 성육신하여 선택한, 육신과 관련된 배경의

모든 면에 반항하고 경멸하고 있었다. 아직 바리새인의 사악한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이어서 교제해 보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유보다 높고 큰 형상이나 신분과 지위에서 자신을 낮춰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될 때 부유한 가문을 택하지 않았다. 그의 출생 배경은 평범하다 못해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기까지 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양심과 이성, 인성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이 경모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었다.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경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큰 신분에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된 사실에 대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찬미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는 패괴된 사람이나 사탄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겠느냐?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것, 이 현상, 이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말해 준다.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말이나 구호가 아니고 허상도 아니며 오히려 실제적이고 사실이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어 인류의 오해와 조롱, 비방, 모독을 견뎌 냈다. 자신을 낮추어 평범한 사람이 된 그는 겉으로는 높거나 크지 않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수준 높은 지식이나 학문은 더더욱 없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 목적은 바로 이런 신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성의 겉모습을 통해 그가 선택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이 모든 것은 그가 치른 대가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가를 사람이 치를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꾸미기를 좋아해서 항상 화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화장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맨얼굴로 외출하거나 무대에 서라고 하면 그녀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창피를 주지 않는데도 맨얼굴로 외출하지 못한다. 고작 그 정도의 체면과 육적인 이익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어 사회 하층민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버렸느냐? 그의 존엄을 버렸다. 그렇다면 이 존엄을 하나님은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출된다. 그렇다면 존엄을 잃어버린 것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존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육신을 입어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가요? 여전히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역도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무슨 존엄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세요?" 여기서 '존엄을 잃어버렸다'는 것에는 몇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의 취지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를 따르는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몰이해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해와 곡해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의 눈빛과 이상한 눈빛이 있다. 하나님은 영계에 있고, 만물 가운데 있으며, 모든 인류는 그의 발밑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과

동등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는 인류의 조롱과 비방, 오해와 비아냥, 그리고 관념과 적대, 판단에 직면해야 한다. 그는 이런 것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과 직면하는데도 너희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존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신분대로라면 이런 것을 겪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감내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감내해야 할 것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감내해야 할 것들로, 하나도 빠뜨려선 안 되는 것이다. 패괴된 인류는 하늘의 하나님에겐 온갖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성육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별 능력도 없는데? 보아하니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에겐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없다! 그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그의 체면에 관계되면 그 어떤 판단이나 정죄의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육신하면 비록 사람과 함께 지내고, 패괴된 인류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갖지만 사실상 그는 이와 동시에 그의 신분으로 인한 숱한 굴욕을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존엄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감내해야 할 것이다. 즉, 그에 대한 패괴된 인류의 모든 몰이해, 오해, 의심, 시험, 거역, 판단, 기만 등에 직면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전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잃어버린 존엄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육신과 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옳은 말이냐? (옳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육신은 영원히 영을 대신할 수 없는 한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육신은 수많은 기능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이나 기후,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소부재하지만 육신은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존엄은 어떻게 훼손되었느냐? 이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지만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 사역하는 기간에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조용히 그리고 고분고분이 육신의 사역을 지켜야 한다. 육신이 사역하는 동안 사람이 볼 수 있고, 사람의 관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신이다. 그럼 사람의 상상과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지혜, 나아가 하나님의 권병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제약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성육신하셔서 생깁니다.) 성육신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육신이 하나님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곤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그다지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곤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사람이 하나님과 진실하게 지내고 왕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육신과 왕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육신이 하는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들 평생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은 영원히 그 육신에게서 인식하고, 보고, 인지한 것에 머물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공평한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겠느냐? 오직 성육신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가장 좋은 성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길을 택한 것이다. 성육신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대면하며

생활하면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 주며 그의 성품은 물론 그의 성격과 희로애락까지 보여 준다. 사람이 이런 성품, 이런 희로애락을 보면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지장을 주며, 사람의 인식에 제약이 생기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해받을지언정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성과에 도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진실한 신분, 지위, 본질을 인식하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존엄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이다. 너희가 자세히 묵상해 보아라. 하나님이 희생하고 행한 여러 측면을 통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바리새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말한 이론이나 구호와 대등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존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존귀가 어떻게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위대하고 고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렇게나 존귀하시다." 이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면 지위가 대단해야 하고, 지식과 재능, 능력도 뛰어나야 하며, 언변이나 외모도 최고로 출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그런 존귀가 무엇이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존귀는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살펴본 다음, 사탄의 세상에서 날고 기는 엘리트들이 모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라. 이렇게 대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몹시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그들은 무척 지적으로 말하고 언변도 뛰어나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추앙받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점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다시 하나님 선민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은 없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명예와 이익,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기꺼이 이행하는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숭배하느냐? 다들 높은 수준의 지식인을 숭배하고, 지체가 높은 가문의 사람을 숭배한다. 은사나 특기, 가족의 지위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똑같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저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배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에겐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지식을 배울지 안배하는 모든 것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으십니다.) 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유하고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안배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점이자 하나님의 본질이 표출된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일을 간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나서 사람의 관념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든, 얼마나 큰 조롱과 비방을 받든, 또 그가 성육신한 후 그의 존엄을 얼마나 잃어버리든 신경 쓰겠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신경 쓰겠느냐? 너희가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신경 쓰겠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공을 들이고 대가를 치른 그 고심은 무엇이겠느냐?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 잘 접촉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이 이런 목표를 위해서냐? 그런 것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생스럽게 6 천 년 사역을 한 것이겠느냐?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을 따라 산 마귀처럼 살고 있는데,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겠느냐? (사탄입니다.) 피해자는 누구겠느냐?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괴롭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가장 괴롭느냐?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른다. 생긴 대로 논다고 그에게 진리를 실행하라고 해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한결같이 관념과 상상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니 가장 괴롭고 가슴 아픈 건 사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는데 인류가 지금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구보다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인데,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백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대로 번성하며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세상만사가 돌고 도는 것이다. 대대로 사람이 태어나 다양한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단지 사회 구조와 제도가 조금씩 변할 뿐이다. 그러다 어느덧 지금에 이르렀는데 사람이 지각하느냐? 지각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가장 잘 지각하겠느냐? (하나님입니다.) 이 일에 가장 마음을 쓰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나 깨나 자기가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의 삶이 어떤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입는지, 앞날은 어떨지,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뿐이다. 사람이 만약 매일 악한 생각만 하고 온통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바꾸고 어길까, 어떻게 하늘과 싸울까, 어떻게 세상의 사악한 조류를 따를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편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으로 끝나겠느냐? 그는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방법을 생각하여 사람이 제대로 살게 하고, 사람됨의 도리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모든 자연법칙,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안심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사 이들을 떠나더라도 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사탄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면 철저히 수치를 느끼며 실패하게 된다.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는 자, 본분 이행에 전념하지 않는 자, 늘 배우자를 찾아 자립할 생각만 하는 자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도태될 때까지 이들을 꾀어내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한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수록,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할수록,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할수록 그것은 더욱 기뻐한다.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느냐? 사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모두 이런 마음이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지식을 중시하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꾀어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공통 언어가 생기고, 함께 있으면 할 얘기가 많아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애가 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대가를 치른 원인은 무엇이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 보살핌, 염려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걱정하고 보살피며 염려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한 단계씩 생겨난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든, 혹은 하나님이 신실하든, 위대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의 대가가 가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상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가 속으로 염려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의 뜻에 따라, 그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더 이상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염려가 사라져 하나님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사람이 보기에 볼품이 있든 없든, 거론할 가치가 있든 없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 방식을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치른 그 모든 대가를 보면 하나님은 칭송할 만한 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대하냐, 아니면 미약하냐? (위대하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다! 인류 중에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인류 중에는 모성애가 가장 위대합니다." 모성애가 이것만큼 위대하냐? 일반적으로 자녀가 독립하여 자기 삶을 잘 이어 나가면 간섭하지 않는다. 사실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대하는 것은 어떠냐? 몇천 년을 참았느냐? 하나님은 6 천 년을 참았다.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토록 큰 대가가 바리새인이나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그들에게 정죄되고 판단되며 심지어 모독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사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행사, 사람에게 찬미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그들은 찬미하기는커녕 온갖 핑계와 이론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니 이들이 가증스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악하지 않으냐? 그들의 이런 사악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지식과 학문을 숭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으냐? 권세와 지위를 숭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일일수록, 사람이 칭송하고 기억하며 전파할 만한 일일수록 적그리스도는 정죄하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표출하는 사악한 본성의 일면이다.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패괴 성품을 지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바울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는 지식인 가정, 학문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의 출생 배경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도 신학을 배웠거나 대학을 나온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지식이나 학문이 일반인보다 높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볼 때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지식을 숭배했던 그는 주 예수의 지식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주 예수의 지식이 그에 못 미쳐서 알아보지 못했다면, 만약 정말 지식이 있었다면 그가 알아보았을 것이란 말인데, 이 말은 어찌 보면 반은 추론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지식을 숭배한다는 점만 다루겠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과 일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그의 관점을 보면 그가 지식과 학문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말이 논리적이고, 수준 높고 뛰어나고, 짐작하기 어렵고 추상적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가 좋아하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논리나 철학에 맞고 심지어 특정 학문에 부합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다. 주 예수는 성육신한 하나님이며, 그가 한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다. 지식과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진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이 너무 평범하고 얄팍해. 전부 하나님 믿는 거에 관한 사소한 것들이라 심오하지도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오묘함도 없는데 진리라고 하네. 진리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이 내 학식보다 높은지 어디 한 번 봅시다.' 그는 듣고 바로 비교해 본다. '계속 들어보니 당신은 초등학생 같아요. 전 대학생이니 저보다 못하네요!'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는다. '보니까 문법도 잘 모르고 가끔 단어 사용도 부적절한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다운지 겉모습만 살피고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선포한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지는 듣지 않는다.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특징도 있다. 그가 지식과 학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판단하는데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는 성육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어딜 봐도 사람인데 말이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은 구석은 찾아볼 수 없고, 아무리 들어봐도 어떤 말이 진리에 부합하고 어떤 말이 진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당신에게 신선한 뭔가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이론이나 밑천을 건질 수 있다면 우선 당신을 따르고 결과가 어떨지 두고 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 깊이 주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가 좋아하는 지식, 그가 무장한 지식, 그가 배운 지식이 그의 두 눈을 가리고 그의 판단력을 흐려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한 말씀이 확실히 진리이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분명하게 발현되어도 그는 알아보지 못한다. 어째서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의 지식과 학문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 규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접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이 한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그가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바울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였느냐?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다메섹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때 그가 주를 부르짖지 않았나요? 그가 인정했을 텐데 어째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스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는 사람이 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다. 바울이 이렇게 추구한 것을 보면 그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나 주로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이냐? 즉, 이런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작고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부탁을 하셔서 당신이 다른 사역을 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이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인식과 주 예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느냐? 바로 그의 지식과 상상으로 추측한 것이다. 어떻게 추측했겠느냐? 그가 어떤 말씀에서 그런 것을 보았겠느냐? 주 예수가 "내 아버지는 어떠어떠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떠어떠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네요? 당신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냐? 지식이 있는 자가 얻은 결론은 이랬다. '하늘의 하나님을 당신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형제겠군요. 당신이 장남, 저희가 차남인 셈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누가 상을 받을지, 누가 징벌을 받을지, 누구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이런 결론, 이런 엉터리 관점은 전부 한 사람이 신학과 지식을 배우고 나서 머리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바울은 지식을 생명줄이자 그의 밑천으로 삼았고, 나아가 그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다. 만약 바울이 지식을 숭배하지 않고 전에 배운 지식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주님으로, 따를 수 있는 대상,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주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지키고 실행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것은 당시 그가 두려웠던 탓도 있고,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인 주 예수가 잡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다. 한때 부인한 것이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며 그것이 사람의 결말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증거가 되지도 않는다. 사람의 결말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실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바울과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베드로는 연약했고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온전케 되었다. 반면 바울은 주를 위해 오랜 세월 사역하고 고생했으니 이치대로라면 그는 면류관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징벌받는 결말을 맞이했느냐? 그와 베드로의 결말이 왜 달랐느냐? 이는 한 사람의 본성 본질과 그가 추구하는 길에 달려 있다. 바울의 본성 본질은 무엇이냐? 적어도 사악함이 있다. 그는 지식과 지위, 상과 면류관을 미친 듯이 추구했다. 면류관을 위해 뛰어다니며 사역하고 대가를 치렀지만 진리는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역 과정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혀 증거하지 않았음은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 하나님이 입은 육신임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주 예수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이런 것을 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길을 간 것이냐? 그는 지식과 신학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진리에 맞서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자신의 은사와 지식으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경영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공고히 했다. 결국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느냐? 아마 표면적으로는 그가 생전에 징벌받거나 별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없겠지만 결국 그와 베드로의 결말은 달랐다. 이 '차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나는 사람의 본성 본질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 주 예수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관점을 보면 그의 대적과 보통 사람의 대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바울이 주를 부인하고 거부한 것은 베드로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주를 세 번 부인한 것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바울은 지식과 학문, 그리고 은사로 사역하면서 전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역하는 동안, 혹은 그의 서신에서 그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있느냐? 없지 않으냐? 그는 줄곧 사람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만 가르치고, 상과 면류관, 좋은 종착지를 추구하도록 부추겼다. 그에겐 진리 실행에 대한 체험적 인식과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행동했다. 그에겐 심오한 이론이나 저명한 서신이 없었다. 그저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과 실행이 조금 있었다. 평생을 살면서 연약함도 있고 패괴도 있었지만 몇 차례 시련을 겪은 뒤 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쌓았다. 바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바울은 사역은 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지 않았으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증거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주 말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인류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바울에게서 생겨난 말이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삼위일체'가 생겼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상상은 지나치게 '풍부하다'. 네가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함부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대하도록 해라. 즉, 그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사람이 된 하나님으로 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다.

처음에 이 단계 사역의 성육신이 여자라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기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역이야.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고, 이 사람이 성육신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 다만 성별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군.' 하지만 말씀이 모두 진리이니 억지로 받아들였다. 속으로 '우선은 따르면서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따르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자체가 남녀 두 가지 성별이니 하나님의 성육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이번 성육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너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가 만약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연구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라. 네가 구해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다. 네가 순종할 수 있다면 네게 이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 일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의 행사를 모두 부인한다면 이는 네게 이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열 가지 일이 모두 옳게 보이고, 관념에 부합하는데 단 한 가지가 네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 가지 일을 모두 뒤엎는다면 이는 어떤 인간이냐? 마귀가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교제하니 그가 말했다. "맞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교제하자마자 그는 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정말 좋은 자질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그가 또 물었다. "하나님께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남자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번의 성육신은 여자이니 그럼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 아들, 딸을 모두 갖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아들, 딸을 모두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겠느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느냐?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의 말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문제가 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 예수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번의 성육신은 여자이니 이렇게 보자면 딸입니다. 그럼 하나님껜 아들과 딸이 다 있는 셈이죠. 아들, 딸을 다 가지셨으니 성령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인 것이죠. 이 얼마나 보기 좋은 조화입니까! 딸이 없으면 어쨌든 완벽하지 않죠." 들어보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말해 보아라. 이것이 농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가 성육신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울과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 특히 하나님의 신분, 본질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만약 늘 자신의 잔재주나 상상과

관념으로 짐작하고 추측하거나 일부 관점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그때는 곤란하다.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느냐?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오묘하고 추상적이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 문제 이면의 본질과 근원이 대체 뭔지 간파하기 쉽지 않다. 만약 이 일이 진리와 그다지 상관없거나 너의 진리 추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일단 내려놓아라. 그것을 연구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 일은 네가 연구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생명 진입에만 집중하고 본분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 언젠가 이 일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연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골치가 아프다. 절대 연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 지위와 관련된 일은 사람이 절대 연구하는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 만약 계속해서 연구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심할 경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 본질과 관련된 일을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쉽게 말해, 그 일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가 선포하는 것은 진리라는 사실이다.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진리이며, 진리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것을 가장 숭배하느냐? 바로 고상하고 공허하며 추상적인 것, 이른바 신학 이론이다. 그들에게 이 신학 이론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들은 이것들을 애지중지하며,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얻으려 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 자신의 밑천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할 발판으로 삼는데, 이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신학 이론을 갖추길 좋아하며, 이런 것만 옳다는 선입견을 안고 이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들은 이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연구한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그들이 추종하는 신학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속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죄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루해. 어떤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고, 어떤 말씀은 문법에 맞지 않고, 어떤 말씀은 단어 사용도 부적절하다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갇혀 살면서 자기가 파악한 지식이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상상과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특정인의 종착지를 규정한 내용이나 하나님이 특정인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찾아내고, 그런 다음 성경의 말을 근거로 분석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한다. 이 분석과 정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분석하고 연구할 때, 사람에게 정죄 심리가 생길 때, 성령은 사람을 버리고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니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너희도 알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들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들이 반평생 무장한 신학 이론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사실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순수한 이해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는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완전히 사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신학적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 말고도 사람의 논리적 추리, 사람의 관념과 상상, 그리고 사람의 경험, 사람의 윤리도덕, 사람의 철학 사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때, 그들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니 성령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예전에 이런 측면의 체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땐 하나님을 연구하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휘 사용,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잘해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증오하시는지 등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 결국 마음이 어두워졌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웠던 마음도 사라져 버렸죠. 평안과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큰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너희는 이런 경험이 있느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전혀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빛 비춤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 가장 능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늘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 그들은 항상 지식으로 허풍을 떨고 평범한 형제자매를 업신여긴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너와 접촉하면서 네 낮은 학력을 알게 되면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네가 교회 리더나 팀장의 임명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너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사회에서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 보이면 눈여겨보았다가 그 사람을 쓸 것이다. 만약 그에게 사람을 선발하거나 쓰라고 하면 그는 죄다 언변이 좋고 고학력에 지식이 있으며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만 선발할 것이다. 설사 이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좋아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역시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글귀와 도리를 조금 이해하면 온갖 방법을 다해 설교 연습을 한다. 어느 정도로 연습하느냐?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강단에서 몇 시간이고 청산유수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한다. 그는 이것이 사역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자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교제하는 것, 즉 정상 인성, 사람의 양심과 이성, 정상인의 현실 생활에 관계된, 인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사람이 보기에 모두 자질구레한 일 같아도 사실은 전부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는 속으로 업신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속으로 이 일들을 정죄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네가 그에게 진리 실제를 아무리 교제해도,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되라고 아무리 교제해도 그의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언변이 좋고, 겉보기에 재주가 넘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방언이나 엄청난 속독 능력, 엄청난 기억력 등의 특이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재능까지 갖추면 그는 너무나도 흡족할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마음속 깊이 추구하고 숭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모두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보아라. 기억력이란 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도 기억력은 별로 좋지 않군요! 아무개는 영적인 사람이라 글도 한번에 열 줄씩 읽고 얼핏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한번에 몇 줄을 읽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겐 그런 특이한 능력이 없다. 한 구절을 읽어도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읽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니 그가 되묻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관념이 생긴 것이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을 속으로 어떻게 보느냐? '성육신 하나님은 평범하고 정상적이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기억력도 안 좋고 체격도 좋지 않고 어딜 봐도 하나님 같지 않아.'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 '영적인 사람 아무개나 유명 인사 아무개가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도무지 하나님 같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언행과 외모가 하나님다워야 하고 사람이 봤을 때 관념이 조금도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다. 왜 그런 것이냐? 그의 이런 생각 때문이다. '첫째, 당신에겐 특이한 능력이 없어요. 둘째, 당신에겐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셋째, 당신에겐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가 없어요. 당신은 어느 면에서도 특별하지 않은데 뭘 믿고 당신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뭘 믿고 당신을 존중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뭘 믿고 당신에게 순종하라는 건가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냐? 이는 어떤 성품이냐? 설령 진리는 깨닫지 못해도 정상인의 양심과 이성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에게 관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에게 관념이 생기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십상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함부로 정죄하고 대적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는 지식을 배운 후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권병과 전능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전면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고 나서는 그 상상에 그가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비춰 보려 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영원히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연구할수록 그들은 속으로 더욱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다.

너희가 성경이나 지금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은사나 학문, 지식을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학문을 해부한다. 하나님은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특이한 능력, 특별한 재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너희는 은사나 특이한 능력, 특별한 재능이 결코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느냐? 이런 것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나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식이나 학문을 전수해 주지 않으며 더욱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도록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럼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들은 은사와 학문,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은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추구하며 나아가 얻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특히 은사와 특이한 능력을 말이다.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특이한 능력을 얻게 되면 악령이 모여들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다!" 네가 "그럼 앞으로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지고 18 층 지옥에 떨어져 유황불 못에 빠질 겁니다."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열 가지 방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기를 드러내어 남들의 우러름을 받게 해 주면 그는 동의할 것이고 바라 마지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 인성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것 등의 사역 방식과 형식,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내용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긴다.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정상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느냐?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상 인성의 이성 범위 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색깔, 형태, 사람의 얼굴, 이름 등 어떤 것이든 한 번만 봐도 잊지 않고, 또 수백 페이지의 책을 읽고 모든 내용을 기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인간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말해 보아라. 종교계의 소위 복음 사역자, 설교자, 그리고 목사 등 바리새인으로 통칭되는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네 내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실제의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네 내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네 내면의 필요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접촉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바리새인과 접촉하면 거짓된 느낌이 들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 공허하고 거짓되어서 많이 듣다 보면 역겨워지고 접촉하기 싫어집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관점이 옳으냐, 아니면 터무니없느냐?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관점의 성질은 터무니없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실제적이냐, 아니면 공허하냐?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이 터무니없고 공허한 것과 상상과 관념의 것들을 들으면 혐오하느냐, 아니면 좋아하느냐? (혐오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한다. 그의 관점과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성품과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계속 듣고 싶겠느냐? 그를 가까이하고 그와 깊이 접하며 그에 대해 많이 알고 싶겠느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접촉하기 싫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너무 공허하고 이론이나 구호뿐이라는 것이다. 한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한다. 게다가 성품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가 겸손한 척, 인내하는 척, 배려심이 있는 척하고 오래 믿은 척하니 무척 '경건'하다. 하지만 그의 진상을 보게 되면 역겨울 것이다. 너희는 나와 그다지 깊게 접촉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리느냐? 바리새인의 말과 차이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 밖에 내가 말한 것들은 모두 너희의 실행과 체험,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과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다방면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와 동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내가 말한 모든 진리나 모든 일을 대하는 관점은 실제적이냐, 아니면 공허하냐? (실제적입니다.) 왜 실제적이라고 하느냐? 실생활과 괴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생활을 뛰어넘어 말하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다. 모두 사람의

현실 생활에서의 분별과 인식, 실행 그리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여러 일에 직면하면서 생기는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행하고 생활하는 것과 관련되고,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내적 상태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창세기나 이사야서는 물론, 계시록에 대해서도 헛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계시록을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냐? 어떤 재앙이 이루어질지 네게 알려 줘 봤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한들 네가 어쩌겠느냐? 너는 그래 봤자 네가 아니겠느냐? 네게 어떤 재앙이 이루어질지 알려 주면 네가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신통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면 사람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으며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굳게 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한결같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분을 기꺼이 이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드러나 도태될 것이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지만 한결같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니 늘 변화가 없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 싫증을 내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본분도 건성으로 이행하고 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다. 이들은 불신파이다.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파와 자주 접촉하고 함께 생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아무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네가 만약 바리새인과 접촉한다면 구구절절 조리 있고 조목조목 분명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진리 실제는 하나도 없고 죄다 공허한 이론뿐이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론 등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자들과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성육신과 주 예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결과적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왜 이런 것을 즐겨 듣고 즐겨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과 접촉하고자 하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들 내면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지식과 학문을 숭배하고 바리새인이 갖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남들의 우러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평범한 사람보다는 초인, 고위 인사, 지식이 있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초인은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하겠느냐? 속된 말로 공상가이다. 예를 들면 일반인은 기껏해야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이 전부가 아니지 않으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느냐?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 보겠어!' 그에겐 이런 의지가 있다. 너에겐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커다란 날개를 두 개 단다고 날 수 있겠느냐? 넌 그런 류가 아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늘 상상만 하면서 욕망을 추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현실에 집중하며 착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초인이나 고위 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 정신병자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접하면 이상한 질문을 한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으로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처음에 성육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계속 떠보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성경을 보시나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궁금하지 않은데 형제자매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많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자주 보시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지 않고도 성경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이건 이적과 기사이니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놓고 물었다. "하나님, 집에서 성경 보세요?"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보겠느냐, 보지 않겠느냐? 너희는 보느냐? 너희가 만약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면 안 보는 게 아주 정상이다. 그럼 믿었던 사람은 보겠느냐? (봅니다.) 믿었던 사람은 분명히 볼 것이다. 나도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찌 성경을 안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보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그 역시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정상이고, 읽지 않는 것도 물론 정상이다. 읽는지 안 읽는지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느냐? 지금 내가 만약 이런 신분이 아니라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뭘 읽든 묻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특별한 신분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이런 일에 대해 알아본다. "그분은 어렸을 때 성경 읽으셨대요?" 대체 그들이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읽었다면 어쩔 것이고 안 읽었다면 어쩔 것이냐? 이는 두 경우로 설명될 것이다. 만약 읽었다면 그들은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성경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결과를 원하고 이런 내막을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도 어린 나이에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고찰해 볼 만한 일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한다. 생각해 보아라. 성경을 숙독한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을 다 꿰뚫어 보았느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성경을 읽어 보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이것을 생각했겠느냐? 그가 생각했다면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신분,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면 결국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런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호기심만 조금 풀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실 나도 성경을 읽는다. 주를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느냐? 가볍게라도 읽어 본다. 적어도 신약의 사복음서는 읽어 보고 계시록, 창세기를 뒤적여 보거나 이사야서를 본다. 내가 가장 즐겨 보는 게 무엇일 것 같으냐? (욥기입니다.) 그렇다. 욥기의 이야기는 완전하고 구체적이라 이해하기 쉽다. 또 그 이야기는 가치가 있어서 현재의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현재 사실이 증명하듯 욥의 이야기는 확실히 후대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대 사람은 욥을 통해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태도, 그리고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도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도를 교제할 때 욥기를 배경으로 삼는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치 있다. 틈틈이 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면을 보고 나서도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일을 내려놓고 연구하지 않으며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 오로지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며,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제대로 하는 데에만 열중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고 연구하려 한다. 내가 이 일에 신경 써야 하겠느냐? 이 일을 거들떠봐야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구하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연구할 것이다. 여기서 연구란 무엇이냐? 연구는 바로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대적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였지만 성육신이 하는 말씀이나 사역에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상 인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내가 말할 때의 거동, 시선, 행동 원칙을 부지런히도 연구한다. 무엇으로 연구하느냐?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명인, 위인의 이미지나 기준으로 연구하고 판단한다. 심지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성육신입니다. 당신의 신분과 본질은 분명 일반인과 다를 테죠.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잘하시나요? 당신을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한 특별한 점이 뭐가 있나요?" 정말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상한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활자 매체를 속독하지도 못하며 보고 나서도 곧잘 잊어버린다. 음악은 조금 알지만 악보는 보지 못하고 남이 부른 노래를 두 번 들으면 얼추 따라 부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영어 실력이 10 급이 되거나 어떤 방언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것을 다 못 한다. 그럼 무엇을 잘하겠느냐? 음악, 미술, 춤, 문학, 영상, 디자인 등을 조금 알지만 수박 겉핥기 정도일 뿐이다. 전문가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죄다 비전문적인 이야기뿐이다. 그래도 보면 이해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건축 디자인의 경우 전공이나 업무상 데이터에 관해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색상이나 스타일이 어울리는지에 관해 얘기하면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이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것, 음악, 문학, 춤, 영상 등 우리 교회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배우면 피상적으로 조금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제 당신의 실상을 알겠네요. 당신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시는군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아마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내 특기일 것이다. 어떤 특기겠느냐? 바로 이 분야에 어떤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지 안다는 것이다. 이 예술은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의 범위와 원칙이 무엇인지 등 파악만 하면 복음 사역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파하는 성과에 이르도록 이 유용한 것들을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안다. 이것이 특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류에게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고 그다음 그에 관련된 진리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성과이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말하며, 말한 것이 모두 정상 인성의 사고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것, 그 모든 유용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특기를 갖추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게 한 가지 장기가 있는데 너희는 알아차렸느냐? (진리 교제에 능하십니다.) 진리 교제에 능한 것이 장기이냐? 그건 특기가 아니냐? 내 장기는 무엇이겠느냐? 나는 너희의 패괴 본질을 찾아내는 데에 능하다. 내가 이것에 능하지 않다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패괴 성품인지, 어떤 본성 본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역하겠느냐?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패괴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내 최고의 장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최고의 장기일 것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본성 본질을 찾아내는 데 가장 능하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 본질을 통해 그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간파하고 그다음 사람의 이런 모습과 행동, 본질을 통해 진리를 교제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거기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데 가장 능하다. 사실 이것은 장기가 아니라 직분이며 직분 안에 있는 사역이다. 너희는 이것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잘하느냐? (패괴를 잘 표출합니다.) 패괴 표출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진리를 듣고 나서 미온적인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면서 참답게 대하지 않는 데 능하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너희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적그리스도는 너희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못 한다. 왜 못 하겠느냐? 그들은 이것을 창피한 일, 부족한 인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속사정이자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속내를 어떻게 남한테 알려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체면이고, 존엄이고, 지위고 다 없어지는 거 아냐? 그러고 어떻게 살겠어?' 그의 말대로라면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내 사정을 들려주고 나서 내 말이나 행동이 너희의 믿음에 지장을 주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사 너희에게 이견이 조금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네게 이견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눈과 귀가 일으킨 착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우치게 이해하거나 오해하기 마련이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이탈하겠느냐? 혹은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지겠느냐? 그런데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관념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겠느냐? 아니다. 떠날 수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하고 이해하여 자기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으로 바꿔 나간다. 이것이 진리를 참되게 깨달은 것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요. 진리만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잖아요." 이는 어떤 말투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말투다. 너희는 그의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 말고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것이 불쌍한 것이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실제적인 사역 덕분에 패괴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덕을 봤으니 속으로 기뻐해야죠!" 너희는 이런 느낌이 드느냐? (네.) 하지만 이와는 사뭇 다른 사람도 있다. 그들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진 않지. 내가 얻은 게 뭔데? 하나님께 관념과 이견을 가지고 뒤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데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아. 나도 딱히 괴롭지 않고 징벌도 받지 않았어.' 점점 대담해지는 그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성육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의 도구인 셈이죠.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육신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들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 (모독적입니다.) 그렇다. 모독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고 그 성품이 흉악하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세련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말도 유창하지 않고 이론도 출중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생각까지 해 봐야 해요. 당신이 어떻게 성육신인 거죠? 어쩜 그리 복도 많고 운이 좋으세요? 왜 제가 아닌 거죠?' 그는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육신은 영의 출구, 즉 도구인 셈이죠."라고 말하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은 질투이다. 그리고 질투로부터 증오가 생겨난다. 이런 의미이다. '당신이 어떻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거죠? 어쩜 그리 운이 좋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덕을 보셨나요? 저는 왜 그런 덕을 보지 못했죠? 저보다 잘나신 게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말주변도 없으시고, 학력도 낮은 데다가 외모도 저보다 볼품없고 체구도 저보다 작으시잖아요. 어디가 저보다 잘나셨죠? 어떻게 성육신이 되신 거예요? 왜 저는 아닌가요? 당신이 성육신이라면 성육신이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가만있지 않을 거고요. 다들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도 별수 없죠. 그래도 전 당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말해야 한이 풀리겠어요!' 흉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지위를 손에 넣으려고 별말을 다 지껄이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누가 강요하더냐? 내가 강요했느냐? 강요한 적 없지 않으냐? 첫째, 나는 너더러 받아들이라고 애원한 적 없다. 둘째, 나는 비상수단으로 너더러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셋째, 하나님의 영도 너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벌할 테니 꼭 받아들이라고 한 적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그런 적 없다. 네겐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서 받아들였느냐? 그래도 복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냐? 복은 받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달갑지도 않다면 어떡해야 하느냐? 이런 악독한 말만 내뱉는다. 너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일부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일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 당신은 어렸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쓰시더니 나중에는 설교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당신은 더없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실상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내 실상이 무엇이냐?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것이 내 실체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데도 지금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달갑지 않은 것이냐? 달갑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고, 회피할 이유도 없고, 사람에게 해가 될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는 왜 이런 관점으로 나를 대하느냐? 달갑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나를 따르지 말고 기꺼이 믿어지는 사람을 믿어라. 내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따르느냐? 나의 집에 와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연구하느냐? "집에 안 돌아가세요? 지금 가정 형편은 어떠신가요? 가족들은 뭐 한대요? 다들 어디 갔죠?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 집에 이불이나 담요가 느는 것까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도 달갑지 않은 것이다! 왜 달갑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래선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해선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평범하고 일반적이면 안 돼.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인 걸 못 알아볼 정도야.'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네 눈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설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네게 알려 준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네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자격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네게 하나님이라고 똑똑히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은 어떠하냐? (사악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자들이 내 '식견'을 넓혀 준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나서부터 나는 지금의 신분과 지위로 사역하면서 일부 사람들과 접촉했다. 각양각색의 '인재'들을 만나면서 나는 사람의 패괴 성품이 '사'와 '악'이라는 두 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두 글자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왜 매일 나를 연구하느냐? 왜 나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달갑지 않으냐? 내가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 영체라면 그들이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감히 그렇게 연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약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 위인의 이미지와 외모를 갖춘 데다가 성품마저 악랄하고, 포악하며, 사납기까지 하다면 감히 내 집까지 찾아와 조사하거나 연구하겠느냐? 절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슬슬 피해 다니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숨기 바빠서 결코 연구할 생각도 못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느냐? 나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만만하게 본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띄고 있느냐? 너무 평범하다는 말이다. 평범하다는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 '당신은 사람이에요. 어딜 봐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학문, 은사, 재능,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디가 하나님답나요?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연구해야겠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당신이 분에 넘치는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가령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일류 성악가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면 적어도 일부 사람은 믿고 수긍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보통, 정상, 실제가 너무 평범한 것이 많은 사람을 드러내게 됐다. 무엇을 드러냈느냐?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냈다. 어느 정도로 사악했느냐? 그의 곁을 지나가면 뒷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지, 말에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지 하루 종일 연구할 것이다. 그는 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분 말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 배운 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공부하실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너무 커서 배운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이 말씀은 대체 어떻게 나온 말이지? 짐작이 안 되니 조심해야겠어.' 그는 항상 연구만 한다. 항상 연구만 하는 그들은 직접 나와 함께 지내지도 왕래하지도 대화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는 언제나 말에서 잘못을 찾거나 트집 잡을 궁리만 한다. 한 마디라도 그의 관념에 맞지 않으면 며칠이고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엄하게 얘기하면 관념을 갖는다.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왔겠느냐? 전부 사람의 머리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추측하는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도 남는다! 그럴 여유나 여력으로 진리를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진리든 네가 한동안 교제하거나 묵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진리를 평생 다 묵상하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그는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그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일에만 연연해하며 연구한다. 말만 하면 눈만 껌뻑거리며 네 눈빛이나 행동, 표정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추측한다. '이런 점을 하나님 같다고 할 수 있나? 말씀하시는 거나 시선이 그래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분을 측량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지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이 일은 어떻게 보시고 저 일은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정의하실까?' 마음속에 늘 이런 것이 있으니 사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러면 답이 없다. 너무나도 사악하다!

진정한 인류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성과 양심에 부합하고, 정상 인성의 사고와 현실 생활에 부합하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치우치거나 괴상하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공허하거나 초월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올바르게 대하며,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물로 간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현실 생활의 의식주나 행동과 됨됨이 등 다방면의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진리를 보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는 어떤 문제이냐? 이는 그 사람의 취향과 본성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이 원하고 행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이 하길 바라고, 사람이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일수록 그는 더더욱 의심하고 연구하며 반대하고 정죄한다. 이것이 사악하지 않으냐? 너무나도 사악하다! 적그리스도는 이방인 가운데서 인기가 대단하다. 내가 만약 이방인 가운데 있다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입은 육신 중에 어느 쪽이 이방인에게 더 받아들여지겠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째서냐? 이방인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사악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부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네가 사람들 속에서 술수로 여러 인간관계를 다룰 줄 모르고 술수로 여러 사람을 희롱하거나 조종할 줄 모른다면 그 무리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가 너무 바르고 모든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면, 많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여 네가 간파하고 깨달은 진리를 전부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이 세상에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는 절대 진실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다면 골치를 썩을 것이고, 화를 입을지 모른다. 정직한 사람이 되면 살길이 없으니 절대 정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경우는 어떠냐? 그들은

누구보다 거짓말과 위선, 자기 포장에 능한 자들이다. 남들이 숭배하게끔 자기를 위대하고 격조 높고 선량하며 정숙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그들은 이런 데 가장 능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공허한 지식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은사나 수단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회사나 사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학문의 수준이 아니다. 그것이 회사에서의 직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아닌 것이다. 그럼 주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느냐? (술수와 재능입니다.) 그렇다. 술수와 재능이다. 이것이 없으면 학문이 아무리 높아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네가 국내파들 간 게임의 룰을 전혀 모르는 유학파인데 해외 기업의 규정이나 처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너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술수를 가지고 충분히 사악해야 높은 자리를 도모할 수 있다. 남편이 돈을 벌어 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출세해서 명예와 이익, 지위를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첨하며, 필요하다면 '접대'도 마다하지 않는 여자처럼 말이다. 그녀는 아무런 미안함이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남편과 가족을 대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듣기만 해도 역겨우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들 속에서 어찌 높은 자리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 그것은 다 영혼을 팔고, 온갖 사악한 수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이런 방식이 좋으냐? (싫습니다.) 지금은 싫다고 하지만 언젠가 네가 궁지에 몰리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너를 괴롭히고 타박하며 곤란하게 만들면서 트집을 잡고 너를 쫓아내려 한다면 너는 네 밥벌이를 위해 육체를 팔아야 할 것이다. 그녀가 어떤 사악한 간계를 썼는지 보고 너도 배울 것인데, 결국 너는 그녀와 같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네가 "그런 건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살긴 싫어요. 전 그 정도로 사악하지 않습니다. 제 육체를 팔기도 싫고, 돈도 싫습니다. 그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해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사탄이 너를 패괴시키는 대로 생겨 먹은 사람일 뿐이다. 네가 스스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에 명예와 이익, 지위, 돈, 그리고 온갖 시험을 너는 결코 이겨 낼 수 없다. 만약 네가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 너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방인의 무대는 고기 분쇄기 같아서 사람이 일단 말려 들어가면 살아 나올 수 없다. 지금 네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의 괴롭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은 더없이 큰 복이다. 몰래 기뻐하여라! 네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책망과 훈계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 너는 큰 복을 받았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방인이 '고기 분쇄기'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겠느냐? 죽을 맛이다. 네가 하나님 집에서 고생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고생이다. 그렇게 큰 고통도 아닌데도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고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해도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방인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너무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들 목숨에 연연하는 것이다.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을 신봉해서 관만 보면 울며불며 통곡한다. 이방인들 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존엄하게 살고 싶고 능력껏 먹고살고 싶겠지만 어림도 없다.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악하고 악하며 독해야만 통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을

갖추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제가 좀 사악하긴 한데 충분히 악하진 않아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면 한 달도 안 돼서 악해질 것이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가 널 죽이려 들 것이다. 네가 그를 내버려둬도 그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와 싸울 수밖에 없다. 일단 악해지면 돌이킬 수 없고, 너도 마귀가 된다. 그렇게 사악해지는 것이다. 이방인의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사악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둡고 사악한 사탄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네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많은 일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행동 원칙의 한 면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명예와 이익을 좇거나 지위에서 오는 복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아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치스러운 욕망만 품으면 이성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도 네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에 관해 오늘은 주로 세 번째 모습인 적그리스도가 숭배하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숭배하느냐? (지식과 학문입니다.) 지식, 학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으니 은사이다. 지식과 학문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서 배운 책의 내용, 지식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사회에서 가르치는 윤리, 인성, 행위 등 다방면의 잡다한 규율과 속박이 있으며 그 밖에 각 분야의 과학적 지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람이 윤회한다는 말을 내내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무언가 빠져나가서 체중이 몇 그램 주는데 이것이 아마도 영혼의 무게일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다가 과학자가 체중으로 측정하니 믿는다. 그는 과학만 믿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 관련 자료나 학설, 유명인의 주장만 믿는 사람도 있다. 그는 이런 것만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고, 알리며,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유명인이 하는 말은 곧장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숭배하고 전파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매일 사람에게 만나를 내려 주되 오늘 거둔 것은 내일이 되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내려 주지 않으면 굶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비축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튿날 하나님이 또 내려 주면 계속해서 비축해 두었다. 다음 날도 내려 주면 또 비축했다. 하나님이 매일 같은 말씀을 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당부를 어기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은 것이다.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 "이 만나라는 것은 당일 다 먹지 않고 다음 날까지 두면 겉으로는 신선해 보여도 속에는 세균이 번식해서 먹으면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라고 하니 그때부터 다시는 비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과학자의 말 한 마디가 하나님의 열 마디 말씀보다 중요하니 사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바랐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려 주는 은혜와 축복, 보살핌과 보호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당부와

분부, 부탁은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식과 학문을 갖추고 또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나 엉터리 논리라면 덮어놓고 주저 없이 받아들인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 이것을 사악이라고 한다. 너무나도 사악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중독되기 쉬우니 고구마와 달걀을 같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다가 중독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나서 정상인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 달걀은 안 먹어야겠어. 최소한 두세 시간 안에는 달걀을 먹지 말아야지.' 그는 진지하게 듣고 두 번 다시 그렇게 먹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달걀이랑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중독된다고? 말도 안 돼. 중독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같이 먹어 주겠어!" 이는 어떤 사람이냐? (사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비정상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기어이 같이 먹겠다고 하니 비정상이 아니겠느냐? 바르고 옳으며 긍정적인 사물에만 맞서고 따지며 대항하는 것이 사악함이다. 패괴된 인류는 사악함과 권세를 숭상하고 사탄, 마귀가 어떤 엉터리 주장을 내세우든 주저 없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수많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많은 관념을 갖는다. 사례를 더 들어 보겠다. 미국의 많은 지방 도시는 원시림 지대라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혼자 다니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만일에 대비해 무리를 짓거나 호신용 무기를 챙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 그 조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네게 머리가 있고 마음과 영이 있는데 어째서 굳이 하나님에게 지켜 달라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만에 하나 네댓 명으로도 못 당할 포악한 야생 동물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이다. 어떤 사람이 확실히 늑대를 보고 늑대나 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야생 동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내가 저녁엔 야생 동물과 쉽게 마주칠 수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상상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조심해야겠어요. 만에 하나 야생 동물을 만날 수 있으니 앞으로 나갈 땐 일행을 구하거나 호신용 무기를 챙겨야겠어요." 이 말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믿고 받아들인 다음 내 말대로 실행한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저는 야생 동물을 본 적이 없을까요? 어디 있는데요? 올 테면 오라지요.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고요. 야생 동물이 뭐가 무서워요? 당신들은 소심하고 믿음이 작아요. 곰도 무섭지 않은 제 믿음을 보시라고요!" 그는 일부러 혼자 나간다. 툭하면 나가서 어슬렁거리고 밥을 먹고 나면 꼭 산책하는데 기어코 혼자 나가는 것이다. 남들이 일행을 붙여 주겠다고 해도 그는 "안 돼요. 무슨 일행을 찾고 그러세요? 일행이 있으면 얼마나 못나 보여요! 혼자 갈게요!"라고 한다. 기어이 그렇게 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야생 동물을 만났는지는 둘째 치고 이런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런 사람의 성품은 사악합니다.) 그에게 올바른 일에 대해 말해도 그는 농담으로 치부한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방금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지식, 학문, 은사, 그리고 특별한 재능에 몹시 민감하다고 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감탄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의 말에 탄복해 머리를 조아리며 고분고분해진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상식이나 식견, 진정한 학문, 정상 인성의 사고로 이해하는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것에는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업신여기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예배 때마다 말씀과 진리를 교제하면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귀나 턱을 만지면서 눈이 풀리고 넋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올바른 일에 대해 말할수록 흥미를 잃고, 진리를 교제할수록 꾸벅꾸벅 존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흥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신파들은 구제불능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방언 듣기를 좋아하고 기이한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신기한 일을 보면 이내 정신을 차린다.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이런 말을 즐겨 한다. "저는 대학 본과생인데 철학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그러자 내가 어떤 전공도 배운 적이 없고, 그저 글만 조금 알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 그가 말한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건 비교해 봤자 쓸데없으니 교제해 보자. 네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니 그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참나,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요? 어려움 따윈 없습니다. 본분 잘 이행하고 있다고요!" 그와 진리를 교제하면 그는 흥미를 잃고 귀신 들린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계속해서 그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면 그는 잔을 들고 가 버린다. 듣기 싫은 것이다. 그와 동등하게 지내면서 대화할수록 그는 더 무시하니 이것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운전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한 지 2 년 만에 차를 샀습니다." 나는 "차를 몬 지 꽤 오래되었구나. 나는 아직 운전을 할 줄 모른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상 인성에서의 대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은 그가 "어? 운전 못 하세요? 그럼 뭘 할 줄 아시나요?"라고 묻자 나는 "차를 탈 줄만 알지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저는 재무와 회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입니다. 대학 시절에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이과 쪽으로 제일 뛰어났어요. 청화대나 북경대 감이죠." 내가 말했다. "나는 수학을 가장 못한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 나는 단어 공부 같은 글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가 말했다. "그런 건 배워 봤자 쓸모없어요. 일반적으로 인문계에 진학한 사람들은 전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상 인성의 이성이 있는 것 같으냐? (없습니다.) 그와 이렇게 소탈하게 대화하고 함께 지내는데 그는 이것을 올바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 그가 만약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사뭇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지내고 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수다도 떨고, 왕래도 하고, 하나님과 친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말투도 바뀐다. 한번은 그에게 물었다.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가 집에 돌아갔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투냐? 변하지 않았느냐? 처음 만날 때는 잘 몰라서 일단 공손하고 겸손하게 꼬리를 내리며 처신하더니 이제 좀 친해졌다고 꼬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투냐? 대드는 뉘앙스로, 대수롭지 않고 귀찮다는 듯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대화한다. 이것이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이다. 이것이 정상 인성이겠느냐? (아닙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너와 정상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은 더없이 정상적인 일이다. 그가 만약 너를 괴롭히고 압박하며 얕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그가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정상 인성이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세상의 유명인이나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의 사장이나 상사를 만난다면 감히 이렇게 대하겠느냐? 그럴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그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신을 비직(卑職), 수하(屬下), 노재(奴才), 소인(小人), 천민(賤民), 초민(草民) 등과 같은 칭호로 지칭하며 그들과 대화하기를 바라 마지않을 것이다. 이방인 속에서는 계급이 깡패다. 누가 너 같은 소인배와 소탈하게 얘기하겠느냐? 간혹 기분 좋게 네게 몇 마디 했다고 해도 너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틈만 나면 공 다루듯 차고 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소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도 긍정적인 반응은커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얕보이며 업신여겨지고 조롱당하기만 하는 것은 내 방식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사람의 성품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데 어째서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냐?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이다. 말해 보아라.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 주제도 모르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또 한번은 내가 그에게 "얼마 전에 네게 부탁한 일은 어찌 되었느냐? 그것들을 잘 정리했느냐?"라고 물으니 그는 "뭐라고 하셨는데요?"라고 되물었다. "몇 가지 물건들 말이다. 잘 보관하고 있느냐? 정리했느냐?" 두 번이나 상기시키고 나서야 생각났다. "아, 그거요? 진작에 정리했죠." 맨 처음 '아'는 무슨 말투냐? 또다시 무시하는 말투다. 마귀의 본성이 또 튀어나왔다.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계속해서 어떻게 정리했냐고 묻자 그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는 그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끝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 내게 알 권리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에게 부탁한 일을 그가 수락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고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사람을 보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지만 역시 답을 듣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좋다. 널 기억해 두겠다. 너란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네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너란 사람은 너무나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는 어떤 마귀이냐? 이런 부류 사람의 성품은 어떠하냐? 사악하다. 그와 다정하게 상의도 하면서 동등하게 지냈는데 그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았느냐? 무능하고 연약하며 얕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보다 사악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사악한 사람은 자주 보이진 않아도 교회마다 있다. 이들은 마음이 강퍅하고 교만하며 진리를 싫어하고 성품이 흉악하다. 그들이 이런 모습과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사악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상 인성의 선함, 관용, 인내, 사랑 등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속으로 경시하고 업신여기니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이 어떻겠느냐? 사악해도 너무 사악하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모습에 관해 교제한 이런 내용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 교제한 두 가지 부분과 약간 다르다. 제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마음속 깊이 지식과 학문, 은사,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숭상한다. 그들이 속으로 이것들을 숭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도 변할 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돌봄을 무시한다. 또 무엇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무시하고 지식, 학문, 과학, 은사와 전혀 무관한 모든 진리는 더더욱 무시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느냐? 이는 특정 측면의 패괴 성품이 잠깐 표출된 것이 아니라 본성 본질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일시적인 취미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식, 학문, 은사, 특별한 재능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숭상하는 것이다. 숭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들을 따르고 얻으려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숭상의 뜻이다. 그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따르는 고통과 모든 대가를 불사하고서라도 얻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숭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뭘 시키든 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저한테 진리를 추구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차분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진리를 얻지는 않는다. 그들은 늘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식과 학문, 그 어떤 정보나 비밀, 자기가 속으로 동경하고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학문을 얻길 바란다. 그렇게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그런 학문을 얻고 나면 자랑하러 간다. 그 학문과 지식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포장하여 좀 더 품위 있고 충실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위신과 지위를 더 얻고 남들의 신뢰와 숭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망상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휘황찬란하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훌륭하고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자기를 능력자, 출중한 사람으로 치켜세워 줄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부지런히 떠벌리고 다닌다. 어딜 가든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은 이론들이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설사 진리를 조금 깨닫는다고 해도 절대 실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본질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사악한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점이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의 길을 가며, 진리와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에 대해 겪어 보았느냐?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왜 몇 차례의 예배 시간을 할애하여 이 주제를 다루겠느냐?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간사한 성품은 자주 언급하지만 사악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 이렇게 사악한 성품에 관해 교제하니 아무개의 성품이 사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너희가 정말 조금은 깨달은 것 같구나. 예전에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면서 늘 교만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교만함과 사악함 중 어느 성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사악함입니다.) 그렇다. 예전에는 사악함이라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 사악함이라는 성품과 본질은 교만보다 더 심각하다. 만약 성품과 본성 본질이 대단히 사악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절대 그와 접촉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이런 사람은 바른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사악한 사람과 왕래하거나 접촉해서 네게 득 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득이 되진 않지만 너에게 그의 사악함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다면 왕래해도 괜찮다. 그럴 자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런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사악함의 이면에 음험함과 간사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이나 식견도 없으면 미혹되기 쉬워서 그에게 굴복하고 결국 그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포로가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네가 졌다는 사실을 속으로는 승복하지 못하지만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에는 한 가지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온갖 방식과 주장, 술수, 계책, 방법, 궤변으로 네가 그의 말을 따르도록 설득하여 그가 옳고 바르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사 그가 악을 저질러 진리 원칙을 어기고 패괴 성품을 표출했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뒤집어 자신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대단한 능력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대단한 능력, 이것이 그의 사악함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숭상하는 것, 숭배하는 것들은 그들 마음속의 치우친 편견에 의해 생긴 것이다. 이 관점들이 그들에게 형성하는 일련의 이론들은 죄다 그럴듯한 궤변인데, 보통 사람은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못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네게 진리 실제가 없으면 그와 진리를 교제해도 그를 설득할 수 없으니 결과는 하나뿐이다. 그가 그의 공허한 이론으로 너를 반박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니 너는 조금씩 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사람의 사악함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능력이 대단한 데에 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분명한데도 어떤 본분이든 엉망으로 이행해 놓고 결국에는 일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고분고분 따르도록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서 시비를 전도시킨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은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남이 한 좋은 일은 자기 공으로 돌리니 시간이 지나면 너도 헛갈려서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너는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미혹된 게 아니겠느냐? 미혹되는 순간 너는 위험해진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은 너무 사악하지 않으냐? 누구든 그의

말을 들으면 미혹되고 교란당해서 한동안 헤어 나오지 못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에게 분별이 생겨서 그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를 폭로하고 저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혹되어 그를 싸고 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집이 그를 차별한다면 제가 그를 지키겠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그에게 미혹된 게 분명한데도 그를 변호하며 감싸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서 그를 숭배하고 특별히 그를 변호하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명확한 일조차 간파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미혹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답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게 만들며,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게 만드니 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너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네 마음을 얻어 네가 한결같이 그를 따른다면 이는 그가 이미 너를 하나님 집에서 가로채 갔음을 의미한다. 네가 일단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집에서 떠나면 그가 너를 마음대로 우롱하고 희롱할 것이다. 어느 날엔가 실컷 희롱한 다음에는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네가 계속 그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면 한동안 너를 곁에 둘 수도 있지만 네가 그에게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다면 너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걷어차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돌아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겠느냐? 네 처음 믿음이 사라졌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해친다. 그들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람이 숭배하는 지식과 학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한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들의 본성 본질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숭상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 모두 진리에 위배되고 진리와 무관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말해 보아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특징과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말해 보아라.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한다고 해서 그를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도 남을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그것은 패괴 성품일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의 여러 행적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특징과 상징을 볼 수 있느냐? (교만하고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지위를 사랑하는 것에도 그런 뜻이 조금은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내가 한 가지 말할 테니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늘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특출나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아마도 그의 관점이 그가 이렇게 겉치레식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정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다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야 해. 이해되지 않으면 우선은 순종해야 해."라고 한다면 이 관점이 옳으냐? (옳습니다.) 이 실행 원칙이 치우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의 특징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순종할 땐 순종하더라도

어찌 된 영문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매사에 참답게 대해야죠. 순종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아무렇게나 순종하라고 하신 건 아녜요." 이것은 하나의 논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해한 사람을 찾아가 교제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한 사람을 찾아가 교제할 수도 없으니 일단 순종합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관점을 보이느냐? '이 못난 놈들, 뭐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니, 내 말을 들어야지! 어째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고견을 들려주겠어!' 그는 큰소리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실행하거나 진리 원칙을 지키는 것에 반대한다. 늘 거드름을 피우고 까탈스럽게 굴면서 잔머리나 쓰고 큰소리쳐서 남들에게 주목받을 생각만 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의 한 가지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왜 옳지 않다는 것이냐? 어리석은 순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죄하겠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그는 뭘 믿고 여기에 끼어들어서 교란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속에서 화가 치미는 것이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가 득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순종을 얻지 못하고, 자기 말을 따르거나 자기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 원하지 않게 되고, 속으로 '당신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야? 진리에 순종한다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일은 연구해 봐야 해. 무엇이 진리일까? 순종하는 게 맞긴 한 걸까?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라고 반발한다. 이것이 그의 논조가 아니겠느냐?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겠느냐? 사태를 교란하고 사람을 미혹하려는 것이다. 무감각하고 미련하며 우매한 사람은 그의 말을 들으면 미혹되지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를 반박한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질투하고 샘을 내시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짢아하고 당신에게 순종하면 좋다는 건가요? 모두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고 당신 말대로 해야 맞는 건가요? 당신의 말이 진리에 부합하나요?" 이런 말을 들은 그는 생각한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도 있구나. 일단 기다려 보자.' 어찌 되었든 모두가 진리 원칙 대로 실행할 때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온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할수록,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사역지침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언짢아지고 불안해진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의 특징 중 하나이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하며 불안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읽고도 교제하지 않고 그의 말만 들으면 그는 기뻐한다. 이는 어떤 문제를 보여 주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교제하지 않는다. 모두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느라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리고 남들에게 숭배받지 못해 지위 보전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중간에 끼어들어 어지럽힌다. 사설과 궤변으로 너를 미혹하고 교란하여 방금 네가 한 말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게 만든다. 모두가 어렵사리 교제하여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가 마귀적인 말 몇 마디로 훼방을 놓으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이 사악한 성품은 어떤 모습과 맞아떨어지느냐? (진리를 적대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모두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는 더 괴로워하는데, 이것이 진리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들어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모두가 한 가지 일을 교제할 때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교제가 가닥을 잡아갈 때쯤 그가 튀어나와서는 난제 하나를 던져서 이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내가 한 수 가르쳐줄 테니 잘 보라고! 진리를 교제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 무관심하게 신경 쓰지도 않으면 너희에게 어려운 교제 거리를 던져 줘서 교란시키겠어!' 이는 마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이고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누군가 소극적으로 변했다거나 연약해졌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무척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교회 사역을 망쳐 놓는 나쁜 짓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 그는 축포라도 터뜨려 축하하고 싶을 만큼 더없이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이냐? 왜 남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사탄의 졸개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반성하고,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 강 건너 불구경하지는 않는지, 자기도 이런 길을 갈 수 있지 않은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좋은 점은 보기 싫어하고 자기보다 나빠야 좋아하고 기뻐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 책망받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오를 범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기뻐한다. '훗, 당신한테도 이런 날이 있네. 하나님께 헌신하더니 이를 어쩌나? 억울하지? 본전도 못 찾았지? 헌신하면 뭐 해! 항상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더니만 책망받았네? 꼴 좋다!' 그는 왜 이리 신났느냐? 이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냐? 정말이지 심보가 고약한 자가 아니냐? 그는 누군가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거나 하나님 집 사역이 손해 보는 것을 보면 기뻐한다. 그가 기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마침내 나처럼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군. 하나님 집 이익에 손해를 끼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그는 이 점을 기뻐하는 것이다. 사악하지 않으냐? (사악합니다.) 너무나도 사악하다!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평소엔 흥얼거리지 않다가 어떤 일을 하다 실수한 사람만 보면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며 아주 기뻐한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너무 기뻐서 밥 두 그릇 더 먹어야겠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그가 눈물 한 방울 흘리거나 단 1 초라도 슬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죄책감이나 괴로움,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고, 도리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고 후련해한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을 지닌 특징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역시 특징 중 하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일련의 도리를 정리하고는 여기저기서 허풍을 늘어놓으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자신의 은사와 언변을 마음껏 드러낸다고 한다. 이런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교제를 들으면 상부의 설교도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분 교제를 대신 들으면 돼요."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으냐?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척 위험하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사랑하고 적그리스도의 방종과 야만, 사악함을 사랑하며, 적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적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설파하는 지식과 학문, 도리, 온갖 신학 이론, 온갖 사설과 궤변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다. 어느 정도로 숭배하느냐? 잠꼬대를 할 때도 그런 말을 내뱉는다. 심각하지 않으냐? 이 정도로 숭배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교회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기회가 생겨서 자기가 숭배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가졌다는 특징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보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의 성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난다면 그들에 대해 속으로 긴가민가하겠느냐?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분별이 조금 생긴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과 정보들이다. 이들은 기회나 지위가 생기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미혹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그들의 표출과 사악한 본질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 실마리가 드러나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너희는 '누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지? 누구에게서 이런 특징이 드러나지? 없는 것 같아. 못 알아보겠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해 준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리더 일꾼도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가진 세 번째 특징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참도를 갈망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설교를 듣고 진리와 관련된 여러 지식과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신학적 이론과 지식을 무장하고 나서 이런 이론과 지식을 이용해 리더 일꾼과 설전을 벌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혹하며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들에게 이른바 공급, 도움, 양육이란 것을 행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설교해도, 말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무장하기만 할 뿐, 전혀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혀'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들이 진실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은 한 번도 되지 않았으며, 지위의 복을 내려놓기 위한 대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 말하고 행동하든, 늘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겉으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든 그들의 사악한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한 측면으로는 이들이 일하면서 진리 원칙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설사 진리 원칙과 실행의 길을 알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의 특징이다. 이들에게 지위가 있든 없든, 복음

전도의 본분을 이행하든, 리더 일꾼을 담당하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옳은 도리만 말할 줄 알지, 옳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도리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일은 누구보다 엉망으로 하는 것이 사악함 아니겠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가진 네 번째 특징이다. 주변에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한 번 비춰 보아라. 이렇게 구분했으니 너희가 가늠해 보아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으냐? 백 명 중에 몇 명꼴로 있느냐? 리더가 많으냐, 아니면 평신도가 많으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리더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관점이 변했느냐? 지위가 있어야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위가 없었을 때도 그는 이런 인간이었다. 단지 우연히 리더가 되었을 뿐 그가 가진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순식간에 폭로되었다. 마치 적절한 온도와 토양만 있으면 순식간에 발효되는 세균처럼 진상이 폭로되는 것이다. 만약 적절한 환경이 없다면 그의 본성 본질이 서서히 폭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서히 폭로된다고 해서 그에게 이런 본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본성을 지닌 자는 반드시 일을 저지를 것이고 표출할 것이다. 이렇게 표출되어 나온 행위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의 특징이자 상징이다. 이런 특징과 상징을 지녔다면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해 보아라.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하는 데 여러 핑계나 근거가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진심만 있으면 실행해 낼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지 않더냐? 예를 들어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원칙을 어겼을 때 남들이 바로잡아 준다면 그가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겠느냐? 그의 사악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설득할 구실을 찾아 그가 옳다고 여기게 만듭 니다.) 그는 네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는 말에,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에 부합하는 일련의 영적인 이론을 더해 너를 설득한다. 너를 설득해 그가 옳다고 여기도록 만듦으로써 사람을 미혹하고 조종하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악함이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원칙과 진리를 어기는 짓을 하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으면서 일련의 이론적 근거까지 만들어 내니 정말 이보다 더 사악할 수 없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말이다. 원래 양을 잡아먹는 건 이리의 본능이다. 양을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양은 그것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리가 잡아먹고 나서 온갖 구실을 갖다붙인다면 너는 이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느냐? '내 양을 잡아먹어 놓고 네가 잡아먹는 게 마땅하고, 합당하며, 적절하니 도리어 자기한테 고마워하라고?' 화가 나지 않겠느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 자식 너무 사악하네!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은 거지. 넌 원래 그런 놈이잖아. 내 양을 잡아먹은 건 둘째 치고, 핑계랑 구실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나더러 고마워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것이 사악함이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때 무슨 핑계를 대더냐? "어린 양아, 내가 오늘 꼭 널 잡아먹어야겠다. 작년에 네가 날 욕한 것에 대한 복수야."라고 이리가 말하자 억울한 양이 대답했다. "작년에 전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그 말을 들은 이리가 새끼 양의 나이를 세어 보지 않아 실수한 걸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없던 일로 하자. 그래도 널 잡아먹어야겠어. 저번에 내가 강가에서 물 먹을 때 물을 더럽혔잖아. 그 복수야." 새끼 양이

대답했다. "전 강 하류에 살고 당신은 상류에 사는데 제가 어떻게 상류 물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온갖 핑계 대지 말고 잡아먹을 거면 그냥 잡아먹으세요." 이것이 이리의 본성이다. 사악하지 않으냐? (사악합니다.) 이리의 사악함과 큰 붉은 용의 사악함이 같지 않으냐? (같습니다.) 이것이 큰 붉은 용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먼저 허상을 몇 개 만들고 유언비어를 날조한 후 세상에 알려서 온 세상이 너를 정죄하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회 치안 교란', '국가기밀 유출', '국가 정권 전복' 등의 몇 가지 누명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형사 사건을 저질렀다는 유언비어까지 날조해 퍼뜨리고 누명을 씌운다.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것이 네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겠느냐? 아니다. 이리가 기어코 양을 잡아먹고야 마는 것처럼 그것도 기어이 너를 체포하려 하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이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했다며 만들어 낸 허상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한 짓이다. 그것이 그 죄를 교회에 뒤집어씌운 것인데, 그것에게 따진다고 되겠느냐? (안 됩니다.) 어째서 그것에게 따지지 않느냐? 그것에게 확실히 따질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에게 따져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해 두면 너를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것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은 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찧고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귀다!" 그러고는 흠씬 두드려 팬다. 여기에 몇 날 며칠 동안 심문과 고문까지 더해지면 너는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야. 이게 바로 올가미로구나!' 큰 붉은 용이 너와 논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허상을 만들어 낸 것이 고의가 아닌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그가 몰래 음모를 꾸며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놓고 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조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들에게 확실히 알려 주면 별일 없을 거야.' 네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죄를 뒤집어씌웠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네게 누명을 씌울 때 네가 무고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느냐? 알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왜 너에게 뒤집어씌우느냐? 잡아야 할 사람이 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네게 누명을 씌워 놓고도 네가 억울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너를 억울하게 하고 체포하여 박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본질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실행할 마음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너는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교제해 주려고 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벽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사람을 잘못 찾았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니 그와 교제할 게 아니라 그를 훈계하고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당신은 본분을 이행한 지 얼마나 됐죠? 본분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당신 혼자만의 일인가요? 누구에게 맞서는 겁니까? 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하고 진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를 훈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와 진리를 교제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다. 왜 소용이 없겠느냐? 그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이리이다. 이리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느냐? 실행하지 못한다. 이리의 본성이 무엇이냐? (사악함입니다.) 양만 보면 군침을 흘리고 구미가

당기니 양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먹잇감이 된다. 이것이 본성이고 사악함이다. 네가 그것에게 "양이 얼마나 가엾고 온순하니. 절대 잡아먹지 마. 다른 사나운 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다. 이것이 본성이다. 어떤 이들은 진리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데 이것이 바로 본성이다. 이 본성은 무엇이냐? 사악함이다.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비열하고, 패역하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들은 체면을 지키려 한다. 진리를 어기더라도 허울 좋고 당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진리를 어기는 것이 긍정적인 사물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물이냐? (부정적인 사물입니다.) 부정적인 사물인데도 어찌 떳떳하고 당당하며 허울 좋게 행동하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이 한데 있으니 이상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을 가진 자의 행위와 모습이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성품을 지녔으며 이렇게 표출한다. 그들은 속으로 진리를 증오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 본질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이 모두 몇 가지였느냐? (네 가지입니다.) 총 네 가지이다. 이 네 가지 특징이면 너희가 분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냐? 사악함 자체에 음험함과 간사함이 있는데, 이 음험함과 간사함이 극에 달하면 사악한 성품으로 규정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악한 성품을 갖고 있다.

2019 년 9 월 3 일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1)

참고　설교를 정리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해부하다

듣자 하니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이 지난 설교 몇 편에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삭제하고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설교한 내용만 남겼다던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뒷부분 설교와 분리된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냐? ('다바오(大寶)와 샤오바오(小寶)의 이야기', '다밍(大明)과 샤오밍(小明)의 이야기', '밑천을 따지다 —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세 이야기가 설교 내용과 분리되었구나. 왜 분리되었겠느냐?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듣기로는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이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가 뒷부분의 설교 내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분리했다고 한다. 그게 이유가 되겠느냐? 이게 바로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이 한 일이다.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이게도 설교 내용 없이 이야기만 골라내서 따로 한 파트로 엮었다. 너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한 이야기가 꼭 뒷부분의 설교 내용과 어울리고 들어맞아야겠느냐? 반드시 그래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오해했겠느냐? 그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하신 이야기는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 하달할 때 따로 내려보낼게요. 앞에서 한 이야기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을 교란하지 않게 설교는 설교끼리 따로 연결해 놓을게요. 당신이 속으로 딱히 기준이 없으니 제가 대신 확인해 드려야죠.' 이건 선의가 아니냐? 그의 이런 선의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사람의 관념에서 비롯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생각해야겠느냐? 매번 꼭 뒷부분의 내용에 어울리는 이야기만 해야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건 규례이자 관념이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관념과 상상에 기대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이런 행위의 성질은 다소 제멋대로 구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일리는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설교를 정리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관점으로 하나님이 얘기한 각각의 일을 바라보겠느냐? 이야기든, 설교한 내용이든 그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한 일들을 바라보고 듣겠느냐? (지식과 교육 수준입니다.) 그렇다. 들려준 이야기와 설교 내용을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설교를 하면 어떤 말을 하든 반드시 순서대로 내용을 말해야 하고, 한마디 한마디 다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내용이 반드시 엄격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관념으로 평가한다.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지식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지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너는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예배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정리한 설교 내용을 다시 들었을 때 예배 당시에 했던 중요한

말이나 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 이런 현상이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 예배에서 꽤나 감동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설교 녹음을 들어 보니 그 부분이 삭제되고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느냐? 자세히 듣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있으니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어 보아라. 나는 녹음을 한 번 들어 보았다. 처음에 내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다루며 열다섯 가지 조항을 나열했는데 각 조항 중간에 했던 세세한 말이나 해석을 그들은 다 지워 버렸다. 그러고는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등으로 나열했다. 한 조항씩 얘기할 때는 속도가 유독 빨랐는데, 교사가 수업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랐다. 해당 설교를 들어 본 적 없는 보통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듣는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이다. 자세히 들으려면 잠시 멈춰서 한 문장을 다 듣고 서둘러 기록한 다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이어서 다음 문장을 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설교 녹음을 정리하는 사람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이다. 설교는 대화하고 말하는 것이다. 설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겠느냐? 여러 진리와 사람의 다양한 내적 상태를 다루는데, 모두 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럼 사람은 진리와 관련 있는 이런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과 머리를 거친 후에야 점차 반응하겠느냐?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과 머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속도를 유지해야겠느냐? 따발총처럼 말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교사가 수업하듯 말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연설하듯 말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 중간에 질문하고 답하며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하며, 사람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 정도 속도가 적절하다. 그들은 이 원칙도 모르고 설교를 정리했는데,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전에 들어 봤어요. 저는 한 번 들으면 대체로 다 기억할 수 있고 당신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도 알아요. 제 경험과 항상 설교 녹음을 정리하는 탁월한 기술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고 속도를 높였어요.' 속도를 높인 건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설교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글로 바뀌었다. 글로 바뀌니 현장에서 들을 때와 느낌이 다르다. 그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효과가 더 나아졌겠느냐, 아니면 떨어졌겠느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결정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기술도 뛰어난 데다 은사도 있고 머리도 좋다고 생각해 결국 비이성적인 일만 저지른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왜 가끔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느냐? "저희가 졸까 봐 그러시는 거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겠느냐? 왜 내가 가끔 외부의 일도 좀 언급하고 주제에서 벗어나 가볍고 유쾌한 일을 얘기하겠느냐? 바로 너희의 긴장을 풀어주고 너희에게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도 너희가 글귀, 문자의 표면적인 뜻, 도리, 문장의 문법 같은 것들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방면의 진리를 좀 더 넓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가끔 외부의 일도 좀 다루고, 분위기를 위해 농담도 좀 하지만, 사실은 주로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종교계의 목사가 설교할 때 그는 연단에 서서 사람의 현실 생활, 마음 상태, 문제점과는 전혀 관련 없는 틀에 박힌 주제들만 다룬다. 전부 죽은 글귀와 도리뿐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공허한 구호만 외치다 보니 듣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수확도 없다. 결국 위에서 목사가 떠들어도 아래에서는 모두 외면하는, 상호 작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무의미한 설교가 아니겠느냐? 목사는 밥벌이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신도의 필요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는, 종교 의식을 치르거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성과를 이루려면 여러 방면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관념, 상상, 내적 상태, 관점을 다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계층별 언어 수용 정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교육을 좀 받고 비교적 글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글말로 쓰인, 비교적 어법에 부합하고 논리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는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반면 평범한 사람이나 사회 하류층은 이런 글말을 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투리를 좀 써야 한다. 예전에 나는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 조금 배웠다. 가끔 헐후어(歇后語)를 사용하거나 농담을 할 때도 있다. 그러면 어느 계층의 사람이 들어도 내가 다룬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과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투리만 쓰면 설교 내용의 깊이가 부족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글말과 섞어서 일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사투리만 썼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같은 말이 너무 많이 섞여 진리를 표현하는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글말만 써서 반듯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어법과 논리적 추론에 맞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글을 읽고 본문을 낭독하듯 초고를 써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다르지 않게 문장 부호조차 그대로 읽는다면, 너희가 보기에 그래도 되겠느냐? 그건 너무 번거롭고, 나는 그럴 에너지가 없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다. 그 밖에도,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사람의 인성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런 인성의 모습은 현실 생활과도 관련 있다. 현실 생활은 또 일상 언어나 너의 생활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생활 환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일상생활 언어를 사용하고 나아가 일부 사투리도 섞어 쓴다. 여기에 문학적 수준의 일부 간단한 어휘도 첨가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포괄하고 포함하는 것이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며 무미건조하거나 닿을 수 없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제하고 설교할 때 고려해야 할, 각 방면에서의 사람의 필요이다. 설교에서 성과를 이루려면 말하는 속도, 어휘, 표현 방식 등 방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 어떤 일에 대한 주장을 표현하거나 어느 한 방면의 진리를 교제할 때 어디까지 말해야 철저하게 말한 것이고 어디까지 말해야 철저하게 말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방면들을 보충해야 하는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들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심히 부족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평면을 생각하면 너는 입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남보다 더 전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여러 방면의 문제를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하며, 관련된 진리 원칙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거나 표현해 내고 드러내는 모든 방면의 패괴 성품, 그리고 관련 있는 내적 상태는 기본적으로 다 포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도 이런 자질과 생각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는다면 설교의 대체적인 의미, 중심 생각, 각 단락의 대략적인 의미를 늘 자신이 배웠던 지식에만 기대 정리할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인이 중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과 같다. 교사는 우선 학생에게 본문 전체를 예습하고 숙독하게 한 다음 첫 공식 수업에서 첫 번째 단락의 대체적인 내용과 새 단어, 그 안에 등장하는 어법을 가르친다. 너는 모든 단락을 다 배운 뒤 외워야 하고 마지막에는 새로 나온 단어로 문장도 만들어 본 다음 다시 본문의 중심 생각, 작가가 글을 쓴 목적을 학습하여 글이 전하려는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배워서 알지만 설교를 정리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다. 내가 알려 주겠다. 글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글을 쓰는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설교를 정리하는 데 이런 생각과 이념,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실수이다. 그 밖에, 너는 이야기와 설교 내용, 이 두 가지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에게 무슨 설교를 정리할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으냐?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그 안에 추가하는 것이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뒷부분 내용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 내가 왜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는 알지 못한다. 너희도 모르지 않느냐? 모를 테니 내가 이유를 말해 주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거의 열 번 정도 다루었지만 전체 내용의 절반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이야기한다면 이 주제는 꽤 지루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매번 시작할 때마다 곧바로 우선 모두에게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돌이켜보라고 하고, 그런 다음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 너희는 서둘러 받아 적을 것이고 적다 보면 눈꺼풀이 감길 것이다. 설교를 마치고 너희에게 정리해 보라고 하면 다들 눈을 비비며 그날 교제한 대체적인 내용을 죽 한 번 훑어보며 읽을 것이다. 다들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억한 듯하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자. 다음번에 이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다들 조금 우려할 것이다.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만 다루시네. 항상 똑같은 스타일에다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지루해.' 그 밖에, 진리는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교제해야 하고 사람은 진리의 각 방면에서 동시에 자라야 한다. 사람의 생명 진입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식, 성품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신의 각종 내적 상태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인성과 식견 등 여러 부분에서 자라야 한다. 이런 게 모두 동시에 자라야 한다. 이 시기에 늘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분별하는 것만 다루면 사람은 다른 측면의 진리는 내버려둔 채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할 것이다.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러면 다른 방면의 진리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을 써야 설교 내용에 진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사람이 진리를 하나 더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궁리했는데,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다'라는 주제를 다루는 기간에 다른 방면의 내용들도 추가로 깨닫게 하기로 했다. 이러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사과도 하나 곁들여 먹으면 영양분을 한 가지 더 섭취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 생각에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필요 없다면 이야기를 뭐 하러 하겠느냐?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가볍고 유쾌한 주제를 다루면 사람이 다른 방면의 진리에서도 어느 정도 소득과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좋은 일이다. 가벼운 주제를 다 다루고 나서 다시 본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안배하는 게 적절하다. 이는 식사 전에 무엇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냐? (애피타이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애피타이저이다. 보통 애피타이저는 맛도 좋고 식욕도 돋우지 않느냐? 따라서 어떤 방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방면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식이나 이해를 심화할 수도 있으니 아주 바람직하다. 물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도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 속에 담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보지 못한다. 그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바오와 샤오바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다바오는 나쁘고 샤오바오는 멍청하다는 것과 그들의 이름만 기억할 뿐 이야기 속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패괴 성품을 드러냈는지, 어떤 성품을 드러냈는지, 그 성품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며 진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성품을 드러내느냐? 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만약 "저는 그러지 않아요."라고 말한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니 아주 골치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저도 그런 말을 하겠죠. 그건 특정한 내적 상태에서 드러내는 특정한 성품이니까요."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야기를 들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바오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조차 괴롭히고 속이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말만 그럴싸하게 할 뿐, 여기서 교제하려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비춰 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없는 것이다.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와 관련된 일에는 무조건 불신파의 관점을 드러내고, 진리만 언급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강퍅함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사악함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한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최소한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해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묻지도 않고 직접 이야기와 뒷부분의 내용을 분리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게 이 설교를 정리하라고 맡기셨으니까 제게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겠지요. 깔끔하게 이야기는 전부 없애 버리겠습니다. 제게 설교를 정리하라고 맡기셨으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저를 쓰지 마세요.'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으냐? 그는 진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건 하나도 모른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만 하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 녹음을 정리하라고 맡겼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내게 의논하지도 않았다. 이는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성질입니다.) 그런 성질이 묻어 있다.

나는 이야기를 하나 할 때 어느 한 가지 진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 뒷부분에서 다른 방면의 설교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는지 내가 고려하겠느냐? 물론 나도 우선적으로 그 점을 고려하긴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서로 어울리게 하지는 않는 것이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왜 이 일이 문제가 되었겠느냐?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뒷부분의 내용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가 이 일을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일을 자세히 고민해 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죠. 들었을 때 진리이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그날 들려준 이야기와 나중에 말한 구체적인 내용,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얘기를 다 하시고 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선, 너희가 보기에 내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이지 절대 흐리멍덩한 상태가 아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분명하다. 사람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구할 줄 모르며 아무렇게나 분석하고 분류하면서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 아니겠느냐?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이론만 듣기 좋아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설교는 듣기 싫어해서 결국 가장 얕은 진리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심각하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간이 아주 큰데 무슨 일이든 감히 판단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패괴된 인류는 이런 인간들인데, 이것이 바로 성품이다. 겁 없이 함부로 날뛰는 게 좋은 일이겠느냐, 아니면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간이 크든 작든 사실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이다. 앞으로 너희는 설교 녹음을 들을 때 그들이 정리한 설교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이 삭제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분별해 보고 살펴보아라.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일이 은연중에 교란과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 성품이 패괴 성품이 아니겠느냐? 여전히 패괴 성품이다. 이 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참고

샤오강(小崗)의 꿈

오늘도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너희는 이야기를 듣는 데 관심이 있느냐?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느냐? 이야기 속에서는 사건이 등장하고 사건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사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일부 내적 상태와 표출, 속셈과 패괴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모두와 관련 있다. 네가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영적인 이해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제게 영적인 이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네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일이다. 영적인 이해력은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알아듣는 데서 그칠 뿐 자신을 비춰 보거나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영적인 이해력도 있고 듣고 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입하고 변화할지 궁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럼 오늘도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주제는 다들 듣고 싶어 하는 가벼운 주제이다. 요 며칠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 수확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특정 방면의 진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실제와 대조하고 특정 방면의 진리에 진입하거나 특정 방면의 편차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봤다. 지난번 들려준 이야기에 제목을 붙이는 걸 깜빡했으니 오늘은 제목을 하나 붙여 주자. 뭐라고 하는 게 좋겠느냐?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은 빼고 그냥 '선물'이라고 하자.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집중될 수도 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다소 불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겠느냐?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샤오강(小崗)의 꿈'이다. '샤오'가 크기가 작다는 뜻이라는 건 다들 알 것이다. 그럼 '강'은 무슨 뜻이겠느냐?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제목을 들으면 너희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샤오강은 열정과 학구열이 넘치는 꽤 부지런하고 똑똑한 젊은이이다. 그는 학구열이 높아서 요즘 비교적 유행하는 컴퓨터 기술을 좀 익혔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는 당연히 그를 영상팀에 배정해 본분을 이행하게 했다. 영상팀에 막 왔을 때 샤오강은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젊고 어느 정도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상 사역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자 취미이며, 여기에서 본분을 이행하면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면서 이 방면의 업무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여기에서 접하는 사람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의 환경과 자신의 본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바쁘게 사역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샤오강은 매일 일찍 일어나 사역을 시작했고, 밤이 깊어서야 휴식을 취할 때도 있었다. 샤오강은 그의 본분을 위해 대가도 많이 지불하고 고생도 꽤 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지식도 많이 배웠다. 그는 매일매일이 보람차다고 생각했다. 샤오강은 형제자매와도 자주 교제하고 예배했는데, 여기 온 뒤 고향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며 사역을 하나 맡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흡족했다. 애초에 컴퓨터 기술을 배울 때부터 자신이 언젠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게 되길 바랐는데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으니 그는 이 기회를 몹시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샤오강의 사역과 자리는 그대로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책임, 본분을 굳게 지키며 전보다 더 성숙해진 듯했고 생명 진입 방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 예배에서 자주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다. 샤오강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자 그에게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컴퓨터 관련 사역을 하면서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렀지만 샤오강은 계속 같은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왜 그랬겠느냐? 그 영화에는 샤오강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가 등장했는데 샤오강은 그 젊은이가 영화에서 보여 준 모습과 연기, 언행이 부러웠고 살짝 질투도 났다. 다 보고 나서 그는 마음속으로 시도 때도 없이 상상했다. '내가 그 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런저런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고생해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런 수고를 누가 알아주겠어? 언젠가 나도 영화 속 그 젊은 사람처럼 스크린에 나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를 보여 주고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샤오강은 그 영화를, 특히 그 젊은이가 나오는 여러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그는 보면 볼수록 부러웠고 마음속으로 배우가 되길 갈망했다. 그렇게 샤오강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은 무엇이겠느냐? '나도 연기를 배워서 언젠가 제대로 된 배우로 스크린에 등장하겠어. 그 젊은 사람처럼 분위기 있게 변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할 거야.' 그 후 샤오강은 자신의 꿈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기면 샤오강은 인터넷에 접속해 연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찾아봤고,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자신도 배우가 될 기회가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졌다. 또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는 동안 샤오강은 계속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웠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드디어 그도 연기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모방도 할 줄 알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연기할 때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그가 거듭 요구한 끝에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젊은 배우가 필요했는데 감독은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샤오강의 외모와 분위기, 연기 기본기가 나름 합격점을 줄 만하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치면 주인공 역할을 맡기에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 소식을 들은 샤오강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어. 내 새로운 꿈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 후 샤오강은 영화 제작팀으로 조정되어 본분을 이행하게 됐다.

영화 제작팀으로 조정된 샤오강은 새로운 사역 환경에서 신선함과 활력을 느꼈다. 답답하고 단조롭고 제한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샤오강은 매일매일 행복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매일 접하는 많은 것들이 컴퓨터 사역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른 사역 영역, 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았다. 그렇게 샤오강은 영상 사역에 투입되어 매일 바쁘게 연기하고 대사를 외우며 감독의 연기 지도와 형제자매의 줄거리 분석에 귀를 기울였다. 배역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샤오강은 반복해서 대사를 외우고 자신의 배역을 사색했으며 어떻게 말하고 연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걷고 서고 앉아야 하는지 모두 새로 배워야 했다. 이렇게 번잡한 사역이 한동안 지속되고 나서야 샤오강은 배우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매일 같은 대사를 외워야 했고, 달달 외웠지만 실제로 연기할 때만 되면 늘 문제가 생겨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 한마디나 동작 하나 때문에 감독에게 한소리 들을 때도 많았고, 연속으로 몇 번 연기를 제대로 못 하면 책망과 훈계를 받아 체면을 구기면서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심지어 이상한 시선과 비웃음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일을 겪자 샤오강은 살짝 의기소침해졌다. '배우가 되어 스크린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 오지 않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어. 기왕 왔는데 영화를 다 찍기도 전에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건 내 꿈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내야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샤오강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샤오강은 매일의 사역과 생활에 간신히 대처해 나갔다. 생활은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지만 그는 그렇게 견디며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앞으로

샤오강의 삶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마지못해 대처하기 시작했고, 감독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냥 듣고 넘겼다. 나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전력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때 샤오강은 어떤 상태였겠느냐? 마지못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감독과 형제자매의 진지한 지도와 도움을 마음속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내 최선이야.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당신들은 지금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어쨌든 영화는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못 찍으면 마는 거지 뭐. 나야 다시 영상팀으로 돌아가서 본분을 이행하면 되니까.' 영상팀의 사역을 떠올려 보니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했던가! 자신의 전부, 자신의 세상이 모두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키보드 위에 있다. 특수 효과만 한번 적용하면 원하는 걸 다 만들 수 있는 가상 세계는 샤오강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그 순간 샤오강은 그의 과거, 영상팀에서 본분을 이행하던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졌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샤오강은 잠에 들지 못했다. 왜 잠에 들지 못했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배우가 될 만한 재목일까? 그럴 재목이 아니라면 얼른 영상팀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역시 영상팀의 본분이 수월했어. 컴퓨터 앞에 한 번 앉으면 한나절이 금방 지나가고, 식사도 직접 준비할 필요 없었잖아. 본분 이행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키보드만 치면 못하는 게 없었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어. 근데 배우가 된 지금은 매일 대사를 외워야 해. 외우고 또 외워도 촬영할 때는 통과가 안 돼서 감독한테 혼나고 형제자매에게 비난받기 일쑤지. 본분 이행이 너무 힘들어. 역시 영상팀의 사역이 좋아!'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움에 사무쳐 한밤중에 잠을 설치며 잠들지 못하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너무 졸려서 겨우 잠든다. 샤오강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한다. '가, 말아? 영상팀으로 돌아가, 말아? 여기에 남아 있으면 영화를 다 찍고 나서도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많이 고생할지도 몰라. 난 배우가 될 재목도 아니잖아! 그때 배우가 되려고 했던 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었어.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봐봐. 한 걸음 잘못 내디뎠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됐잖아. 이 고통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대로라면 좋은 배우가 되는 건 쉽지 않을 테니 일찌감치 그만두자. 괜히 그들의 일을 지체시키지 말고 얼른 감독한테 돌아가겠다고 말해야겠어.' 그렇게 샤오강은 용기를 내 감독에게 이 일을 말한다. "보세요. 배우가 될 재목도 아닌 저를 굳이 뽑으신 거잖아요. 그냥 저를 영상팀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자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안 돼요. 영화를 절반이나 찍었는데 이제 와서 배우를 바꾸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샤오강은 꿋꿋이 말한다. "그럼 어떡해요? 누구로 바꾸시든 그건 감독님의 사정이지 이제 저랑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를 꼭 보내 주셔야 해요. 안 보내 주시면 아무렇게나 연기할 거예요!" 감독은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샤오강을 보고 영화를 찍기는 글렀다고 생각해 결국 그를 돌려보낸다.

샤오강은 결국 영화 제작팀에서 다시 영상팀으로 돌아온다. 과거에 익숙했던 사역 장소로 돌아와 의자와 컴퓨터를 만져 보니 친숙했고 역시 여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자에 앉아 보니 푹신푹신했고 컴퓨터도 준비되어 있었다. '역시 영상 만드는 게 나아. 이 본분은 피곤하지 않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 실수해도 아무도 모르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서 재빨리 수정하면 그만이니까.' 샤오강은 드디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을 발견한다. 이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겠느냐? 그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기쁠 수가 없었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며 기뻐한다. 그 후 샤오강은 영상팀에서 매일 순서대로 정해진 일을 한다. 그러는 동안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샤오강도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영상을 만들던 샤오강은 갑자기 어느 댄스 프로그램에 나오는 젊은이의 출중하고 유머러스하며 분위기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춤을 잘 추지 못할까?' 그래서 샤오강은 또 마음이 흔들린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샤오강은 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반복해서 그 영상과 그 젊은이의 공연을 보고 어디에 가면 춤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배우는지, 가장 기본적인 춤은 무엇인지 수소문한다. 또, 일하면서 컴퓨터로 춤과 관련된 교재와 영상, 학습 자료를 자주 찾아본다. 물론 샤오강은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습하며 배우기도 했다. 춤을 배우기 위해 샤오강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자신이 할 줄 아는 체조 무용을 기반으로 정식으로 민족춤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상체를 뒤로 굽히기를 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샤오강은 육적인 고통을 많이 견디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결국 그의 춤 실력은 조금 나아진다. 샤오강은 드디어 자신에게도 무대에 올라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몸도 좀 유연해졌고 춤 동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데다 모방하고 학습하며 나름 음악에 맞춰 리듬도 탈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강은 교회에 본분 조정을 신청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다시 거듭된 요구 끝에 샤오강은 드디어 바라던 대로 무용팀의 무용수가 된다. 그 후 샤오강은 다른 무용수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 아침 훈련과 무대 연습을 했다. 정상적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공연을 분석하고 구상하기도 했다. 매일같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피곤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했다. 처음에는 샤오강도 춤에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무용수의 삶이나 이런저런 방면을 익히 알게 된 후 샤오강은 무용도 결국 별거 없고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며 때로는 발목이나 허리를 삐는 등 다칠 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춤을 계속 추던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에휴, 춤추는 일도 쉽지 않네. 매일 땀범벅이 될 정도로 힘들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영상 사역보다 더 어렵다고! 안 돼,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그는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드디어 무용 공연의 리허설까지 견뎠고, 공연은 심사를 위해 제출됐다. 심사에 들어가는 날 샤오강은 기분이 어땠겠느냐? 그는 감격에 겨웠고 자신의 노동이 얻을 성과에 기대를 가득 품은 채 점심도 걸렀다. 공을 아주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기분이 곤두박질친 샤오강은 의자에 턱 걸터앉아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춤을 췄는데 당신이 한마디로 그걸 다 부정해 버리신 건가요? 당신이 춤을 아세요? 저희는 원칙대로 춤을 추고 대가도 많이 치렀는데 당신이 그렇게 쉽게

부정해 버리시면 다예요?' 샤오강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 '결정권은 그들의 손에 있으니 그들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야지 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 어쩔 수 없어. 다시 하자.' 무용 공연이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날, 점심도 거른 샤오강은 마지못해 저녁은 몇 숟갈 들었다. 너희 생각에 그가 밤에 잠에 들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마음속이 복잡해 또 잠에 들지 못했다. '왜 나는 어디를 가나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춤을 두 달이나 췄는데 첫 번째 심사를 통과 못 했어. 두 번째 심사는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난 언제쯤 무대에 올라 정식으로 공연할 수 있을까? 보아하니 남 앞에 얼굴 내밀기는 글렀네!'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역시 영상 사역이 좋아.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만 한 번 두드리면 꽃이고 풀이고 나무고 다 튀어나오잖아. 새도 지저귀게 하고 말도 달리게 하고, 원하는 건 다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무용은 심사도 통과해야 하고 매일 땀범벅이 될 만큼 힘들어.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힘들 때도 있어. 근데 첫 번째 심사도 통과 못 하다니 이 본분도 참 이행하기 쉽지 않네. 다시 영상팀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느꼈다. 그는 생각다 못해 '나도 참 못났다. 왜 또 흔들리는 거지? 이런 생각은 그만하고 잠이나 자자!'라는 결론을 내리며 몽롱한 상태로 잠든다. 이튿날 눈을 뜬 그는 그 일은 거의 다 잊고 계속 춤을 추고 리허설을 한다. 두 번째 심사 날이 오자 샤오강은 또 긴장하며 이렇게 묻는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니 다시 수정해야죠. 언제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공연하고 영상을 찍게 되죠. 모든 걸 순리에 맡기고 이 일을 바르게 대해야죠." 그러자 샤오강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들은 바르게 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드디어 두 번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샤오강은 이렇게 말한다. "쳇, 그럴 줄 알았어요. 춤을 춰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어디 쉽겠냐고요! 우리는 젊고 외모도 출중하고 춤도 잘 추잖아요. 이게 특기 아니겠어요? 심사위원들은 춤을 못 추니까 우리를 질투해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아하니 앞으로도 통과 못 할 것 같네요. 춤추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돌아갈래요." 샤오강은 그날따라 유독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샤오강은 이번에도 결국 원하는 대로 영상팀으로 돌아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예전의 그 익숙했던 느낌을 회상하며 샤오강은 이렇게 생각했다. '난 천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할 재목인가 봐. 이름 없는 영웅밖에 될 수 없는 거지. 이번 생에는 무대나 유명해지는 것과는 연이 없는 것 같아. 착실하게 키보드나 두드리자. 이게 내 본분이니 이 사역이나 하는 거야.' 그는 고생 끝에 마음이 안정됐다. 그의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너희가 보기에 '부지런하고 학구열이 넘치는' 데다가 '열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샤오강에게 컴퓨터 앞에 앉아 따분하게 사역하는 일이 쉽게 내키는 일이겠느냐? 아마도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샤오강은 또 노래 부르는 데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또 무대를 못 떠나는 것이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 이번에 그는

본분을 바꿔 달라고 성급히 요구하지 않고, 매일 자료를 찾고 목소리 쓰는 법과 노래 부르는 법을 연습했다. 목이 쉴 정도로 자주 연습해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샤오강은 낙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는 실제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본분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꼭 조심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비웃을 테니까. 계속 본분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들 나를 깔보겠지. 이번에는 내가 봐도 가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 교회에 있는 가수들과 실력이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연습한 다음 찬양팀에 지원할 거야." 그는 매일같이 공들여 연습한다. 여유가 있을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귀찮아하지 않고 연습한다. 어느 날 샤오강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 갑자기 샤오강에게 이렇게 말한다. "샤오강, 이걸 일이라고 한 건가요? 계속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하면 이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자 샤오강은 "제가 언제요."라고 답한다. 곧이어 사람들이 달려들어 이렇게 말한다. "샤오강,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다니! 상부에서 그렇게 많이 바로잡아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매일 노래 연습하느라 영상 만드는 데 집중을 못하니까 실수만 저지르고 큰일을 그르치잖아요. 또 이렇게 실수하면 교회에서 당신을 출교시켜 버릴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고 우리도 당신을 버릴 거라고요!" 샤오강은 변명을 이어갔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조심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출교시키지 말아 주세요. 부탁이에요. 출교만은 안 돼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가 소리치는 와중에 커다란 손이 뒤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샤오강, 정신 차려요! 샤오강, 정신 차리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꾼 것이다. 샤오강이 눈을 감은 채 비몽사몽간에 허공에서 손을 허우적거리자 다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샤오강은 키보드 위에 엎드려 잠든 것이었다. 한 형제가 또 그를 툭툭 치고 몇 번 흔들자 샤오강은 드디어 깨어났다. 깨어난 그는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출교당할 뻔했네."라고 말했다. "무슨 일 때문에요?"라는 질문에 샤오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꿈일 뿐이었다. 꿈 때문에 놀라 깬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게 바로 '샤오강의 꿈'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느냐? 꿈과 현실은 자주 충돌한다. 많은 경우 사람은 자신의 꿈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꿈과 현실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꿈은 그저 너의 일방적인 소망이자 한순간의 흥미일 뿐이다. 사람의 기호와 야심, 욕망이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다 보니 사람의 꿈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꿈이 너무 많으면 보통 어떤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자신의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사역이나 현실을 소홀히 하고, 지금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 제대로 해야 할 사역,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밀쳐놓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자신의 꿈을 좇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주하게 노력하며 무의미한 일을 많이 저지른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사역을 그르치고 교란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그들은 본분 이행을 무엇으로 여기겠느냐? 일종의 일이나 취미, 흥미에 몰입하는 것으로 여길 뿐, 하나님이 맡긴 임무나 사명,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으로는 여기지 않으며, 더욱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본분을 잘 이행해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본분 이행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고생해도 싫어하고 도피하려 하고, 어려움에 조금 부닥치거나 좌절을 조금 겪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또 도피하려 한다. 그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등딱지 안으로 숨었다가 별일 없으면 다시 나오는 거북이처럼 그저 도피할 생각만 한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사역을 하나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충성을 다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본분을 잘 이행하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지, 책망받거나 책임지지 않을지,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지만 궁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퇴로와 자신의 기호나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만 고려하지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충성을 다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는 진리에 공을 들이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는 오늘은 이걸, 내일은 또 저걸 하려 하고 누구의 본분이든 다 자신의 본분보다는 좋고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진리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런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으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마음속으로 늘 자신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누가 남의 주목을 받는지, 누가 상부의 눈에 드는지, 누가 사역할 때 책망도 받지 않고 진급하는지만 신경 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 너희가 보기에 늘 이런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할 수 있겠느냐? 영영 그럴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우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도 사회에서 살 때처럼 복을 누리고 유명해지고 체면을 세우는 것만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본질을 놓고 보면 어떤 부류에 속하겠느냐? 바로 불신파이다. 불신파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도 사회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누가 발탁되는지, 누가 팀장이 되는지, 누가 교회 리더가 되는지, 누가 사역할 때 남들 눈에 들고 우러름을 받으며 지명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런 것들만 중시한다. 회사에서 누가 승진하는지, 누가 월급이 오르는지, 누가 상사의 눈에 드는지, 누가 상사와 친하게 지내는지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루 종일 이런 것들만 신경 쓴다면 이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느냐? 본질적으로 이방인이며 전형적인 불신파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는 힘만 쓰고 대충 이행하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도 조금의 변화도 없고 본분을 몇 년 이행하든 자신의 충성을 다하지도 못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도, 충성심도 없는 불신파이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회에서 그에게 사역을 하나 맡기면 그는 우선 그 사역을 할 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져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조건은 첫째, 한가해야 하고, 둘째, 바쁘거나 피곤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무엇을 하든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 그는 이런 본분만 받아들인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약삭빠르고 간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책임은 조금도 지려 하지 않고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머리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은 모두 사탄과 싸우는 일,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과 관련 있는데 책임이 따르지 않는 본분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보기에 리더를 맡으면 책임이 없겠느냐? 그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등 어떤 사역을 하든 진리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 책임이 있다. 본분 이행에 원칙이 없다면 하나님 집 사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책임지는 걸 두려워한다면 아무 본분도 이행하지 못한다.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연 간이 작은 것일까, 아니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일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간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벌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할 때, 그는 어찌 그렇게 간이 크단 말이냐?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나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할 때는 눈곱만큼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가장 간교한 사람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 대해 진심이 전혀 없고, 충성심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감하게 중임을 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 집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앞에 나서서 용감히 나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보면 용감하게 막중한 책임을 짊어질 줄 알고, 고생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정예병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것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정의감도 책임감도 없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전혀 안 받아들이는 자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얻으려면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 진리를 실행할 때는 숱한 장애물에 가로막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느 정도 버리고, 육적인 이익을 포기하며, 얼마간 고통을 견뎌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실행할 수 없다. 그러니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이 두렵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과 판단을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감히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사역에 부담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진리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몇 가지를 갖추지 않은 자는 본분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자는 본분 이행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본분을 선택한다. 교회 리더가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하면, 그는 먼저 그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어본다. 만약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면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또 힘든 일은 아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은 아닌지 본다. 마지못해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대충 건성으로 넘기려 든다. 한가하고 고생하지 않으며 육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리더에게 보고해서 처리하고 해결하게 하며 자신은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다. 리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책임만 지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식의 본분 이행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책임 전가이자 직무 태만이며, 농간을 부리는 것이고, 입만 살아 있고 실제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가 마지막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책임을 추궁하면 내가 처리되지 않겠어? 내가 첫 번째 책임자 아니겠냐고.'라고 한다. 바로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럼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경험이 없고 그와 비슷한 일을 처리해 본 적도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것조차 믿지 못한다면 이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으냐?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책임을 미룬다. 무슨 일이 닥치든 우선 직접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더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리더에게 통보하는 한편 직접 문제를 처리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더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며, 전화를 한 후에는 수동적으로 지시를 기다린다. 리더가 지시하는 것만큼만 움직이고, 리더가 말하는 만큼만 행동하는 것이다. 리더가 말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미루다가 꼭 누가 재촉하고 감독해야 일을 한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힘을 쓴다고 해도 충성심이 없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모습이 더 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표면적인 일, 단순한 일, 책임지지 않는 일만 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또 문제라도 생기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 교회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를 보고는 인내심 있게 도와주고 책망하고 훈계하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본분은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을 져야겠지. 여차하면 제명되거나 도태될 수도 있어. 그럼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태도겠느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면 어떻게 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 일을 그르칠 뿐이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일을 맡길 수도 없다. 그는 순전히 공밥 먹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는 도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 충성스럽게 힘쓰는 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없다. 어떤 사람은 바로 본분을 이행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도태된 것이다. 그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이유를 몰라 이렇게 불평할 것이다.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러 간 저를 왜 그렇게 냉정하게 내보내시죠?" 그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도태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평생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변명만 하며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건 본능이고 당연한 거야. 자신을 조금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를 조금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나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지 않나?' 일이 닥치면 늘 스스로를 지키고, 여지를 남기거나 자신을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데, 이것이 진리 실행이겠느냐? 이는 진리 실행이 아니라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 본분 이행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 원칙, 네가 실행해야 할 원칙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이방인들의 실행 원칙이요, 최고의 철학이다. 어떤 일이든 먼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1 순위에 두는 것,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니, 남들의 이익이니 하는 것은 전부 자신과는 무관하게 보는 것,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퇴로를 생각하는 것, 이런 자는 이방인 아니겠느냐? 이런 자가 바로 이방인이다. 이런 부류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이야기 속의 샤오강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본분을 지키지 않고 수고를 덜려 하며, 고생이나 좌절은 조금도 겪지 않으려 한다. 육적으로 편안해야 하고, 제때 밥 먹고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바람을 맞거나 햇볕에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에, 사역할 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이 하기 좋아하고 잘하며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기꺼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눈곱만큼도 순종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굴고 딴마음을 품으며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여지를 둔다. 고생하면 바로 뒷걸음질치려 할 뿐 아니라 책망받는 것, 조금이라도 높은 요구를 받는 것,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 흥미와 자신의 계획대로 하며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런 행동 방식과 패괴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진심은 있어야 한다. 너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진심이 있겠느냐? 실제로 행동해야 할 때 그들은 뒷걸음질치고 진심이 조금도 없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고 다루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꽤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교체되거나 책망받으면 상당히 억울해한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도 않으면 이렇게나 골치 아프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8 조인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를 교제하겠다. 너희는 이 조항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 조항의 어떤 모습에 비춰 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는 조항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내적 상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드러내는 갖가지 성품, 또는 갖가지 성품이 드러내는 다양한 행위가 담겨 있다. 이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일부 작은 측면에서부터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 문자적인 의미대로 이 조항을 해석한다면 글귀와 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그건 바로 무엇이든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거나 한마디라도 말할 때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그는 늘 남에게 명령하고 사역을 배정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해요." 문자적인 의미만 좀 다룬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라고 하고, 그가 하는 말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죠. 그는 자신을 진리이자 하나님으로 여겨서 남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 진리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 주제를 다룬다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보거나 직접 겪은 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먼저 어느 측면에서부터 이야기하겠느냐? 실제에 대해 얘기하니 다들 말이 없어지는구나. 그럼 너희는 평소에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도 말이 없느냐?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우선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행위로 나타나는지 한번 말해 보아라. 너희가 예전에 보거나 겪은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각나는 게 있느냐? (저는 본분을 이행할 때 강렬하게 드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로 그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훌륭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남이 의문을 제기해도 서둘러 정해야 하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강행합니다. 설사 남이 구하려고 해도 시간을 주려 하지 않고, 그저 남이 제 생각대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다. 또 누가 말해 보아라. (한번은 제가 어떤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을 형제자매와 교제했는데,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발탁할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상부에도 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형제자매는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 사람을 발탁하려는 것인지, 무슨 원칙과 진리에 따른 것인지 교제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형제자매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사람들이 제게 순종하게 하고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것은 같은 유형의 문제나 내적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 부합한다. 하지만 보아하니 너희는 진리의 문자적인 의미만 깨달은 것 같으니 아무래도 내가 교제를 해야겠다. 너희가 웬만큼 이해했으면 이 조항은 넘어가고 이어서 다음 조항을 교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계속 교제해야겠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8 조인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에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몇 가지 포함돼 있다. 그건 한 가지 일, 한마디 말, 한 가지 관점, 또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성품이다. 그럼 그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이게 행동 방식이겠느냐?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그렇다. 이는 성품의 표출이며, 그 성품의 본질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다. 두 번째,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지닌다. 이 또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동 방식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말한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너희가 말한 건 일이나 행동 방식이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두 번째 조항은 너희가 말한 것들보다 더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근본적인

원인을 짚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인계받든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각 본질 속에는 다양한 모습과 행동 방식이 있다. 이 본질 역시 제 8 조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느냐? 네 번째,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한다. 즉, 진리를 좀 교제할 줄 알면 자신이 진리 실제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를 진리를 갖춘 사람이자 진리를 실행하고 사랑하며 진리 실제를 갖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이 일의 성질은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이 조항은 제 8 조의 큰 주제에 부합하느냐? (부합합니다.) 부합한다. 제 8 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조항이 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읽어 보아라.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한다.) 조화롭다는 것은 협력할 줄 안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은 아예 그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하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첫 번째 조항의 특징은 바로 '독단'이다. 두 번째 조항.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지닌다.) 이는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항의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한 단어로 표현해 보아라. ('사악하다'입니다.) '사악하다'는 형용사로, 그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니 '통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통제는 일종의 행동, 바로 이런 성품에서 생겨난 그런 유형의 행동이다. 세 번째 조항. (어떤 일을 인계받든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만의 특징적인 성품이다. 이 조항을 요약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있겠느냐? '대항'이라는 단어가 있다. 누가 오든 저항하고, 형제자매나 보통 사람의 감독과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감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대항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한다.) 이 조항을 적절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사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칭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제 8 조의 큰 주제와 관련된 적그리스도의 네 가지 기본적, 특징적인 모습과 행동 방식, 성품이 모두 이 네 가지 조항에 담겨 있다. 첫 번째 조항의 특징은 '독단'이다. 그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 한다. 그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 모두가 그의 말만 따르고 남의 말은 따르지 못하게 하며,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항의 특징은 '통제'이다. 남을 통제하려 하며, 여러 방식으로 너, 너의 생각, 행동 방식, 마음, 관점을 통제할 것이다. 그는 너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지 않고, 네가 진리 원칙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지 않는다. 그는 네가 오직 그를 위해 쓰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힘쓰며 그를 높이고 증거하도록 통제하려 한다. 너를 통제해 그의 노예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한다. 세 번째 조항의 특징은 '대항'이다. 이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나 주장을 분별하고 감독하고,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네 번째 조항의 특징은 '사칭'이다. 무엇을 사칭하는 것이냐?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것이다. 바로 그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남에게 기억하게 하고 한술 더 떠서 노트에 받아 적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머리로 기억하면 다예요? 노트에 받아 적어야죠. 다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심오한 말이라고요!" 그는 자신의 말을 무엇으로 여긴 것이겠느냐? 진리로 여긴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교제해 보자.

1.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첫 번째,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성격이 맞든 맞지 않든, 상황이 어떻든 협력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패괴 표출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어떤 사람들과는 성격이 안 맞아서 협력하지 못해요."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괴 성품의 문제이다.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는 뜻이지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진리를 구할 수 있고, 진리에 부합하기만 하면 누가 한 말에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쉽게 협력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몹시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것이며, 진리에도,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 사람은 패괴 성품이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구원받기 쉽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는데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골치 아파진다. 구원받기 쉽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된 원인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늘 독단적이기 때문인데, 이는 패괴 성품의 표출이겠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겠느냐?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첫 번째 조항을 명확히 교제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누구와 협력하든 갈라서게 되며 심지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겉으로 볼 때 주변에 조력자와 파트너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이 닥칠 경우, 그는 다른 이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듣지도 않는다. 심지어 아예 참고하지도 않고 그 일에 관해 교제하거나 토론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다른 이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저 보여 주기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남이 말하는 것을 들을 뿐,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는 여전히 그가 결정권을 갖는다. 다른 이가 말해 봤자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하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다고 해 보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무슨 일이든 자기 혼자서 시작하고, 물어보고, 처리하고, 해결할 뿐, 대부분의 경우 파트너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자신의 파트너는 어떤 존재냐? 조수가 아니라 그저 장식품일 뿐이다.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그의 파트너가 전혀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는 생각해 보고 실행 가능하다 싶으면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통지한다. 다른 사람에겐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권리가 없다. 그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실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책임진다. 그의 파트너는 장식품이 되어 버린다. 그는 일할 때 늘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할 때 누구와도 소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는다. 항상 혼자 결정하고, 문제가

생겨도 혼자 처리한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은 그가 일을 다 끝내고 처리한 후에야 그 일에 대해 알게 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일이 생기면 우리와도 교제해야죠. 그 사람은 언제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한 거죠? 우린 왜 몰랐던 거죠?" 그는 설명해 주지도, 상대하지도 않는다. 그의 파트너는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이다. 그저 액세서리, 장식품에 불과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궁리해 본 후 결정을 내리고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의 곁에 사람이 몇이 있든 마치 아무도 없는 양 다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그에게 실제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저 형식적이고, 이름만 걸어 놓았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거죠?"라고 말하면 그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난 팀장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그만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또 "그럼 왜 당신 파트너와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라고 말하면 "얘기해 봤어요. 별 의견이 없더군요."라고 대답한다. 그는 상대가 '별 의견이 없다', '주관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덮어 버리곤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더 불가능하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 문제다.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해야 하겠느냐? (일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 있느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매우 적절하다.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더 있느냐? 일이 닥쳤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협력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너대로 교제하고 나는 나대로 교제한 다음 결국에는 내 말을 따른다면, 그런 형식은 갖추어서 무엇 하겠느냐? 그것은 협력하는 게 아니고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협력하는 성과도 거둘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너만 따발총처럼 끊임없이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만 다 말해 놓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상의하고 교제하는 것이겠느냐? 그건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협력하는 게 아니다. 그럼 협력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네가 너의 생각과 결정을 말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을 구하고, 그런 다음 다시 두 사람의 주장이나 관점을 꺼내 비교해 보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분별하고 원칙을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확한 실행 길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상의하고 교제하는 것이자 협력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리더를 맡으면서 일을 간파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제서야 남들과 상의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조화롭게 협력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해 보고 정할 테니 여러분도 의견을 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같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의해 보니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이 말이 진심이겠느냐? 이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 그는 그 일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 그의 이 말에서는 우러름을 받기 위해 남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그저 형식을 갖추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는 독단적이지 않거나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전혀 듣지도, 신경 쓰지도 않으며

진심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교제하고 토론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확정하고 나면 그는 자신의 뜻이 옳든 말든 남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사람들이 그의 방식이 옳고 모두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강제로 실행한다. 이것이 협력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겠느냐? 이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옳든 그르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그는 일이 닥쳤을 때 간파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게 하고,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관점을 정리한 다음 자신의 마음에 들고 적절해 보이는 방법을 찾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는 협력의 기치를 내건 것인데, 그 결과는 여전히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그 혼자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트집을 잡고 평가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 완전하고 정확한 주장으로 정리해서 결단을 내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 사실 그 결정은 사람들의 견해나 관점인데 단지 그가 정리해서 좀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말한 것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너무도 교활하지 않으냐? 남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 의견인 양 말하면서 결국에는 전부 자신의 의견대로 하게 한다면 이것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독단적인 것으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솔직하지 못한 것이자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아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는 저와 아주 잘 협력한다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무얼 하든 따라 하죠. 가라는 데로 가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든 다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이게 파트너겠느냐? 이는 파트너가 아니라 졸개이다. 졸개는 무엇이든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게 파트너겠느냐? 이는 노예임이 분명하다. 생각도, 관점도 없고 주관은 더더욱 없는 데다가 무골호인 성향까지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건성으로 형식만 갖추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지키지도 않는다. 이런 파트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와 협력하든 절대 복종하며, 노예처럼 말하는 대로 따르고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다. 협력이란 무엇이겠느냐? 일이 생기면 상의하고 관점이나 견해를 밝히며 서로 보완하고 감독하는 것, 그리고 서로 구하고 의논하고 일러 주는 것이야말로 조화로운 협력이다. 예를 들어, 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일은 잘못 처리했어요. 철저히 원칙을 위배했다고요. 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했죠?"라고 말하는 걸 듣고 네가 "그러게요. 당신이 일깨워 줘서 다행이에요. 일깨워 주지 않았다면 큰 화를 부를 뻔했어요!"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서로 일러 주는 것이다. 그럼 상호 감독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며 자신의 지위와 체면만 지키고 하나님 집의 이익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가 이런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너는 그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라고 그에게 일깨워 주면서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호 감독이다. 상호 감독하면 무슨 작용을 하겠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사람이 길에 잘못 들지 않게 할 수 있다. 협력의 작용은 서로 일러 주고 감독하는 것 외에 서로 의견을 묻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처리하려고 할 때는 너의 파트너와 이렇게 교제하고 의논해야 한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저는 이런 문제를 처리해 본 적 있어요. 당시 상황이 이 사람의 상황과는 조금 달라서 그때처럼 처리하면 약간 규례를 지키는 격이 되겠어요. 저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할 것이다. "제 생각이 괜찮은지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이 사람은 됨됨이만 놓고 보면 악인인 것 같지만 당분간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힘을 쓸 수 있으니 일단 힘쓰게 두고, 힘을 쓸 수 없고 계속 방해하고 교란하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라는 네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좋겠네요. 안전하고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다 사람을 억누르지도,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지도 않는 방법이네요. 그럼 일단 그렇게 처리하죠." 이렇게 두 사람이 상의를 거쳐 합의를 보면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반면 두 사람이 협력도, 상의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너에게 떠맡기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처리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실수하면 당신 책임이지 난 같이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가 책임지지 않으려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도 지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처리하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내게 처리하게 하네. 그럼 내가 처리하지. 그를 출교시킬 거야.'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 속마음을 숨긴 결과, 원칙을 위배하며 제멋대로 처리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함부로 제명해 버린다. 이것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겠느냐? 조화롭게 협력해야만 긍정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한 사람은 무책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제멋대로 군다면, 이는 협력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해서야 어떻게 기준에 달할 수 있겠느냐?

파트너 간에 일이 생기면 서로 의견을 묻고 상의해야 하는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 이 조항의 특징이 바로 '독단'이다. 어째서 '독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겠느냐? 일을 처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구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사역지침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며 남과 교제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사역자, 파트너와 상의하거나 구해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지 않고 혼자서 궁리하고 계획하며 생각하고 안배한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건성으로 한 번 읽고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무작정 사역을 안배한다.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는 이미 사역을 다 안배한 상태이다. 누구든 그의 입을 통해 그의 관점이나 주장을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사상 관점을 절대 어느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리더 일꾼은 다 파트너가 있지 않나요?" 명목상으로는 그도 누구와 파트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역할 때 그는 파트너 없이 늘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리더 일꾼은 파트너가 있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든 다 파트너가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보통 사람들보다 자질이 뛰어나 보통 사람들은 그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고 모두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혼자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과 상의하는 건 싫어한다.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면 자신이 못나고 무능력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관점이냐? 이는 어떤 성품이냐? 교만한 성품이 아니냐? 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상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물어보는 것을 남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구차한 짓으로, 그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무슨 일을 하든 투명하게 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이라고 여기고,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어떤 상황을 처리하는 것은 능력 없는 모습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한 심리와 그릇된 심리가 아니냐? 이는 패괴 성품이 아니냐? 여기에서 교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정상인의 이성을 상실한 것이며,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늘 자신은 능력이 있어 혼자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다른 이의 협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패괴 성품이 존재하기에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남과 협력하면 그의 권력이 흩어지고 나눠지니 남과 사역을 나누게 되면 자기 권력이 줄어들 것이고, 혼자서 전부 결정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별 실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그에게 있어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 차라리 실수할지언정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잘못할지언정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으며, 면직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역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 집의 이익으로 모험을 할지언정 자신의 권력을 다른 이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 그는 사역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뽐내고 남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권력을 행사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겠다고, 일이 닥치면 함께 상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권력과 지위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도리를 알고 자신이 해낼 수만 있다면 남과 협력할 필요 없이 혼자 일을 해내고 완수해야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관점이 올바르냐? 원칙을 어기면 그것은 본분 이행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도 없고, 그저 힘만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또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속셈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내면서 누구와 협력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남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한다. 이는 분명 권력 남용이고, 권력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권력을 사랑하며, 지위가 생기면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수중에 권력이 들어오기만 하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뽐내고 과시해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권력과 지위를 무척이나 중요시하며, 어느 때라도 이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느 방면의 업무와 관련 있든 그는 분명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척한다고 지적하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 배워도 당신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 좀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어떤 일이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감히 도맡는다. 그 결과 상부에서 사역을 검사하면서 그에게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거의 다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며 혼자서 결정한다. 그에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데 원칙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옳고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럴듯한 이론을 들이민다. 사실상 그의 생각은 모두 치우치고 잘못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정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 혼자서 결정을 내리면 보통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그처럼 이렇게 독선적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한 성품임이 분명하다. 그는 교만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독점하고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게 쓸데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고 누구도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도, 협력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혼자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고 그의 출중함을 드러내어 남들이 복종하고 숭배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적그리스도는 늘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려 한다. 그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물으면 그는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협력해야 할 때가 되면 그러지 못한다. 이런 게 바로 성품이다. 왜 그러지 못하겠느냐? 만약 적그리스도가 부팀장이고 다른 사람이 팀장이라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가진 그자는 부팀장을 팀장으로, 팀장을 도리어 부팀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는 어떻게 달성하겠느냐? 그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형제자매 앞에서 일을 처리할 때, 즉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많이 말하고 많이 행동하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게 하고 그가 그 팀장보다 훨씬 낫고 이미 그 팀장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게 한다. 시간이 흘러 형제자매가 팀장이 부팀장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이렇게 생각한다. '드디어 내가 그보다 낫다고 인정했어. 이러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팀장이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겠느냐? 팀장과 협력해 교회에서 안배한 사역을 이행하거나 수행하고, 팀장에게 지적해 주거나 팀장을 일깨우고 감독하면서 둘이서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팀장은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부팀장은 그를 보조하고 그와 협력해 각 사역을 잘 처리해야 한다.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팀장과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역을 잘 처리해야 한다. 팀장이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을 위배한다면 부팀장은 지적하고 도와주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팀장이 하는 올바르거나 잘 처리하는 일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일은 부팀장이 지지하고 협력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을 잘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를 발견하면 둘이서 상의해 해결해야 한다. 가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는 둘이 협의해서 일을 분담한 뒤 자신이 맡은 사역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협력이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사람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가 부팀장을 맡는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팀장과 지위가 바뀌게 할지, 팀장을 부팀장으로, 부팀장을 팀장으로 되게 하여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할지 궁리할 것이다. 그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팀장을 지휘하여 남들이 그를 팀장보다 훨씬 낫고 팀장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고 자연스레 팀장으로 뽑힌다. 그는 일부러 그 팀장이 추태를 보이고 체면을 구기게 하여 남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든 다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로 그를 폭로하고 비하한다. 조금씩 두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달라지다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팀장이 되고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이런 성품을 가진 그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혼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권력을 손에 쥔 채 독점하려 한다. 네 직함이 무엇이든, 정이든 부든, 크든 작든 그는 지위와 권력을 언젠가는 자신이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나아가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하든 그는 늘 독특하게 군다. 그는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명망이나 직함, 능력이나 평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누군가 그를 넘어서고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순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 예를 들어, 여럿이 한 가지 일을 상의하다가 마침 결론을 내리려 할 때 그는 곧장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은 뒤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이 그렇게 처리하기 어렵나요? 이렇게 상의까지 해야 할 일인가요? 여러분이 한 말은 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남다른 이론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관점을 부정한다. 부정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한다. "역시 대단해요. 왜 우리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린 너무 어리석어요. 안 되겠어요. 역시 당신이 방향을 잡아 줘야 해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효과를 원한다. 늘 큰소리치면서 독특한 존재로 인식되는 효과를 이루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고자 한다. 결국 다들 그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겠느냐? 그가 보통 사람은 닿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보다 대단하다는 인상을 갖는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느냐? 그가 오지 않으면 다들 확정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가 와서 한마디 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가 와서 한마디를 하면 듣자마자 감탄하고 그가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더라도 여전히 대단하다고 한다. 이는 사람을 현혹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왜 그를 두고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는 건 대등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산 하나에 호랑이가 두 마리나 있을 수 있겠어? 산이 하나면 산의 대왕도 하나여야지. 그 왕의 자리는 유능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나 같은 능력자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당신들은 머리도 안 좋고 자질도 떨어지고 겁도 많은 데다가 살면서 누구를 속이거나 곤경에 빠뜨려 보기는커녕 그저 남에게 속기만 했잖아. 그러니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만들어 버린다. 나쁜 일도 드러내어 떠벌리니 뻔뻔하지 않으냐? 그는 왜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가 그러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든 그는 리더가 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비하하고 조롱한 다음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다들 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이게 협력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겠느냐? 이는 우리가 말하는 제 8 조인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에 부합한다. 이는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 언어적으로나 행동 방식상으로나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지는 않으면서 그의 주장과 행동 방식에 협조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뿐이다. 그럼 그가 다른 사람의 제안은 따르겠느냐? 그럴 리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든 그는 아예 관심도 없고 세세한 부분이나 이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도 묻지 않으며 진리 원칙은 더더욱 구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내가 곁에 있어도 내게 묻지도 않는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다. 내가 혹시 질문이 있는지 물으면 그는 없다고 한다. 분명 방금 발생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면서 곁에 있는 내게 묻지 않는다. 이런 그가 누구와 협력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의 파트너가 될 자격은 없고 그의 노예나 졸개만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곁에 파트너는 있지만 그 파트너는 사실 그의 졸개이다.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그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며, 무엇을 알려 주면 그대로 믿고 알려 주지 않으면 감히 묻지도 못한다.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혼자서 결정해선 안 되고 당신과 협력하고 당신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당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역은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해요.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는 뭐라고 하겠느냐? "당신이 제 파트너를 교체한다고 해도 달리 제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걸요."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그런 졸개나 노예를 찾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그는 그런 노예나 졸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가 이런 어려움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너는 이렇게 말해라. "저런, 협력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 당신도 이 사역을 할 필요 없어요. 파트너가 있는 사람에게 시킬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누구도 너와 협력할 자격이 없고 협력하지도 못한다면 그럼 너는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너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사람의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협력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최소한 보통 사람과는 협력할 수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우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방이 지능이 낮거나 마귀라서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과도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이는 정상적인 이성의 표징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바로 권력을 혼자 차지하고 주무른다는 것이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 누가 어떤 올바른 관점과 고견을 제시하든, 혹은 어떤 적합한 방법을 내놓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그와 협력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가 하려는 일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는 인성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 그냥 인성이 좋지 않은

것이겠느냐? 이는 그야말로 사탄의 성품이다. 이런 성품은 너무도 흉악하다! 어째서 성품이 너무도 흉악하다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소유물과 교회의 재산을 자기 손에 넣어 사유재산으로 삼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지위, 체면뿐이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질이 있고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나 지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체험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교제해 하나님의 선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억누르고 배척하며 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매장하고 망가뜨리려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사람들이 줄곧 소극적이 되지 않은 채 본분을 이행하고 간증을 말하고 남들을 붙들어 준다면,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수단을 쓴다. 즉, 빌미를 잡아 정죄하거나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거나 거짓을 날조해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명되면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음험하고 악독한 면이다. 그가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한 체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가장 동조하고 옹호하는 이는 글귀와 도리를 공허하게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 간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진실한 체험 간증이 없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못한다. 기껏해야 좋은 일을 좀 해서 남의 기분을 맞춰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듣기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좋은 체험 간증 하나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이점과 도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 선민에 대한 공급과 양육 성과는 무엇보다 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체험 간증을 말하는 걸 보면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며 증오가 샘솟는다. 그는 간증을 말하는 사람이 더는 말하지 못하게 당장이라도 입을 막아 버리고 싶어 한다. 상대가 계속 말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명성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추악한 몰골이 철저히 드러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빌미를 잡아 간증을 말하는 사람을 교란하고 억누르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그들 자신이 글귀와 도리를 논해 사람을 미혹하는 것만 허용할 뿐, 하나님의 선민이 체험 간증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가장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누군가 사역을 잘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으면, 또 누군가 진실한 체험 간증을 말해 하나님의 선민에게 도움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그들을 붙들어 주며 모두의 동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질투와 증오에 휩싸여 배척하고 억누르려 하며 이들이 사역을 맡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빈궁함과 가련함, 추함, 사악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파트너나 사역자를 선택할 때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질투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로,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진리를 실행하는 이들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적그리스도는 죽을힘을 다해

그것을 은폐한다.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며 좋은 일에 대한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고 나쁜 일에 대한 과실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몹시 시기하며,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봐 온 힘을 다해 공격하고 배척한다. 또한, 형제자매들이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접하거나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사탄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또한 이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악한 역류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원흉임을 증명한다. 이 밖에도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을 깎아내리고 정죄한다. 이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 적그리스도는 갖가지 이유를 찾아 배척하고 억누르며, 이들을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이들은 모두 어느 정도 체험 간증이 있고 진리 실제를 갖춘 사람들이며, 인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양심과 이성이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일부 결점과 부족함이 있고, 가끔 패괴 성품을 드러내지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은 본분 이행에 적합하고, 본분 이행의 요구와 원칙에 맞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고? 너는 내 구역에 들어와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와 겨루려고 하겠지만, 그건 안 될 일이야. 꿈도 꾸지 마! 너는 나보다 지식도 많고 말솜씨도 뛰어나며 인맥도 좋은 데다 나보다 진리를 잘 추구하지. 너와 협력하라고? 네가 내 명성을 빼앗아 가면 어쩌라고?'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겠느냐?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지나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설령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질이 좋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양성하거나 발탁하지 않는다. 그가 발탁하는 자는 다 아첨꾼들, 사람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에게 동조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또한, 언행이 매끄럽고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여 자기 옆에 두고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하며, 자신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매일 자신의 주변을 맴돌게 한다. 그러면 그가 교회에서 세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게 되고,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양성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로, 대다수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그저 규례를 지키는 것밖에 모른다. 그들은 대세와 세력 따르기를 좋아하는데, 권력의 앞잡이, 바보들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으냐? 사내대장부의 노복이 되는 한이 있어도 무뢰한의 조상이 되지는 않겠다. 이와 정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들을 전적으로 양성해 자신을 거들게 하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권력을 잡을 때 늘 멍청하고 마구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조수로 삼는 한편, 자질 있으며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사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특히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은 배척하고 억누른다. 그렇게 교회에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된다. 한 부류는 인성이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멍청하고 마구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다. 이 두 진영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도태될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늘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맞서고 대항한다. 이는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자 걸림돌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 긍정적인 인물들이 일단 일어나 리더 일꾼이 되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자신의 적대 세력이 되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거나 시키는 대로 복종할 리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그의 지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이들을 보고 증오를 느낀다. 이들을 배척하고 망가뜨리고 매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대오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몇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한편,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각 분야의 사역을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게 된다. 이 사악한 세력이 과반수가 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고, 힘만 쓰는 자나 떡으로 배만 불리려는 불신파가 적어도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시종일관 이들을 미혹하고 회유한다면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그가 자연히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 집에서는 선거 때 반드시 진리를 밝히 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진리 교제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거나 물리치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리더로 선발되어 교회를 통제하고 점령할 수 있다. 이는 무척 위험한 일 아니겠느냐?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한둘 나타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형성하고 대세를 장악하면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대세를 장악하기 전에 반드시 그를 뿌리 뽑고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 이는 급선무이자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밖에, 교회의 불신파, 특히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 세력 좇기를 좋아하는 자, 마귀의 공모자나 앞잡이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 서로 결탁하고 패거리 짓는 것을 좋아하는 자 등 불신파와 마귀는 일찌감치 제명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오합지졸이 한데 뭉쳐 세력을 이루고, 교회를 교란하고 통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 선민이 반드시 똑똑히 알아야 하는 일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이 일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교회 사역에 부담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부류와 아첨하고 사람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그 졸개 마귀들을 간파해야 한다. 그 후 그들을 제약하거나 교회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행은 꼭 필요하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전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 바보, 못난이, 비열한 소인배들과 한데 뭉치고 이들을 구슬린다. 또 이 사람들과 매우 화기애애하며 조화롭고 친밀하게 '협력'을 한다. 이들이 어떤 존재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상부에서

그들의 '윗사람'을 교체하면, 아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자들은 싫어하면서 상부에서 일 처리를 불공평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한데 뭉쳐 적그리스도 대신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을 일망타진하고 전부 제명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악마 무리이니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단독 행동을 하는 일이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단체로 움직인다. 적어도 두세 명이 한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단독으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도 있다. 이는 능력이 없거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과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지위를 몹시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능력도, 배운 지식도 없다고 해서 지위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나 지위를 좋아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왜 멍청이, 쓰레기, 어중이떠중이들을 양성하여 자기에게 아첨하게 하겠느냐? 그들과 협력하려는 것이겠느냐? 그가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는 말의 '어떤 사람'은 주로 긍정적인 인물을 뜻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보면, 그는 작당한 자들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그럼 그는 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겠느냐? 부리기 쉽고 요리하기 쉬우며 주관이 없고 그가 뭘 말하든 다 듣는 멍청한 자들을 키워 함께 그들의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미약해 지위를 지키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바보 한 무리를 구슬려 매일 자기 주변을 맴돌며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선민을 미혹하면서 그 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고생하니 양성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와 상담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모두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들이 본분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일해 줄 사람, 자신의 앞잡이, 공모자가 될 자들을 찾아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는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것을 어렵게 느끼겠느냐?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양심,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 남과 협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남과 협력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혼자서 일을 성사시키기란 어렵고, 어떤 분야든, 무슨 일을 하든, 옆에서 지적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하튼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쉬운 것이다. 이 밖에도, 사람의 자질로 이를 수 있는 것,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아무도 모든 것에 능통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든 이런 이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너를 도와주고 지적해 준다거나, 참고할 만한 의견을 낸다거나, 너와 협력하며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수를 덜 하고,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된다. 이는 좋은 일이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사람은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다. 사탄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란 인간은 우둔하여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어렵사리 잡은 권력을 남과 나눌 수 있겠어? 권력을 남과 나누면 그 권력이 없어지잖아?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내 능력과 재주를 드러낼 수 있겠어?'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것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본분임을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권력과 지위만을 받아들이고, 본분은 한쪽에 제쳐 놓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하며,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의 선민을 통제하여 지위의 복을 누리려고 생각할 뿐이다. 이는 너무도 위험한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무릇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하며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불장난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갖고 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 지금 너는 교회의 리더 일꾼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너 스스로 밥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그 본분은 하나님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그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며, 신성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크든 작든 엄숙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엄숙하겠느냐? 작게 보면 너라는 사람이 평생 진리를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와 관련이 있다. 크게 보면 네 앞날과 운명, 그리고 결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정죄되고 징벌받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평가할지 하나님께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네가 본분을 이행할 때 보인 모든 모습으로 네 결말을 결정한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주 심각한 일이다! 네게 사역을 하나 맡긴다고 해서 그게 네 혼자만의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너 혼자 완성할 수는 없지만 네가 책임져야 한다. 네게 그 책임이 있고 네가 그 부탁을 완수해야 한다. 이는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협력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협력해 섬길지, 어떻게 협력해 본분을 이행할지, 어떻게 협력해 네게 맡겨 준 부탁을 완수할지, 어떻게 협력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 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최소한 다른 이가 말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게 해야 한다. 네게 정말 이성이 있다면 어떤 사역을 하든 먼저 진리 원칙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동적으로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해결하거나 처리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협력으로 이루게 되는 성과이다. 때로는 극히 사소한 일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역에 지장만 주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단, 핵심적인 일, 교회 사역과 관련된 큰일의 경우,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리더 일꾼인 네가 만약 늘 거들먹거리며 본분 이행을 무슨 벼슬로 삼아 누리고, 늘 지위의 복을 누리고,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늘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생각하고 누리려 하고, 늘 자신의 경영을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중요한 본분 이행을 벼슬로 삼아 누리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네가 늘 이렇게 행동하며 누구와도 협력하기 싫어하고, 네 권력을 남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돋보이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모든 것을 혼자 누리기를 바랄 뿐이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반면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육을 저버리며 자신의 속셈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동적으로 남들과 협력한다면,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남들에게 의견을 묻고 구하면서 다른 이의 말과 건의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누구의 건의든 옳고 진리에 부합하는 건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실행은 슬기롭고 올바른 것이다. 그 실행은 네가 그릇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줄 것인데, 너에게는 바로 보호이다. 너는 리더라는 감투와 지위가 주는 허세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남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본분 이행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본분을 감투나 지위, 월계관처럼 여기면서 모두가 너의 지위를 위해 힘쓰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너를 혐오하고 역겨워할 것이다. 네가 마음속으로 너 자신이 그저 다른 이보다 하나님의 부탁과 책임이 좀 더 있을 뿐 다른 이와 평등하다고 여기며,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법을 배운다면, 나아가 허리를 굽혀 다른 이의 의견을 묻고, 진지하고 세심하게, 마음을 다해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남들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너는 전에 자신에게 없었던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빛 비춤과 생명의 실제이다. 또한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관념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우둔하고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네게 이야기할 때, 너는 부지중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취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면 네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울 수도 있고, 너의 교만과 독선이 드러남으로써 잘난 체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탄복하는 내적 상태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네게는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남과 협력하면서 배워야 할 공과이자 얻어야 할 이점이다.

나는 사람과 접촉할 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주의해서 듣는다. 다양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들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너는 예전에 대다수의 사람이 교육을 좀 받고 지식이 좀 있을 뿐 업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이는 틀린 것이다. 그런 사람들, 나아가 일부 특수한 인물들과 접촉할 때 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네가 볼 수도, 알아차릴 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사상 관점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 사상 관점에는 치우친 것도 있고 비교적 정당한 것도 있다. 물론 그 '정당함'은 진리와 동떨어져 있거나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인성의 더 많은 측면을 알 수 있다. 이는 네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식견이라고 하며, 이는 식견을 늘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식견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것은 다양한 사람을 알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그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많은 사역을 하는 길이다. 영적인 척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라디오나 뉴스도 안 듣고 신문도 안 볼 거야. 바깥세상과 접촉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다 마귀야!' 그럼 너는 틀렸다. 네가 진리를 갖추었다면 마귀와 접촉하는 걸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은 영계에서 사탄을 상대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하겠느냐?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네가 사탄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리에 대해 마음속으로 올바른 이해나 관점을 가지지 못할까 봐, 수많은 관념과 상상을 가질까 봐, 너무 교조적일까 봐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네가 리더 일꾼이든 팀장이든, 어떤 사역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든 너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지 남들이 너를 따르게 하기 위해 큰소리치거나 늘 고상한 척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늘 큰소리만 치고 진리를 실행해 내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이는 추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너를 누가 상대해 주겠느냐? 바리새인은 어쩌다 무너졌겠느냐? 그들은 늘 신학 이론만 늘어놓고 큰소리만 쳤다. 계속 큰소리만 치다 보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사람의 관념이나 율법과 규칙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받쳐든 채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성경의 문구는 줄줄 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수많은 진리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까지 했다. 이러면 끝장난 것 아니겠느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마음속에 이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폐쇄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네가 보기에 내가 폐쇄적이냐? 나는 가끔 뉴스도 보고 게스트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도 본다. 형제자매와 몇 마디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눈다. 누구를 만나든 나는 이야기를 나눈다. 사역을 하나 맡았다거나 특기가 하나 있다고 해서, 나아가 특별한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잘못된 관점이 은연중에 너를 틀 안에 가두고 철통으로 겉을 감쌀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자신은 높은 위치에 서 있으니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이런 사람과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서도 안 된다고, 크게 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과인'이 됩니다.) '과인'이 된다. 고대 황제들을 보면 늘 "과인은 어쩌고저쩌고", "고는 어쩌고저쩌고", "과인 생각에는"이라고 말하며 항상 자신을 과인이라 칭한다. 너는 늘 자신을 과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몹시 위대해서 정말 천자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네가 천자이냐? 본질적으로 너는 보통 사람일 뿐이다. 네가 늘 자신이 위대하고 비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처신한다면 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방법, 원칙은 분명 변하고 말 것이다. 네가 늘 자신은 과인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서야 하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은 해선 안 되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너의 지위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는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 지위에 있는 내가 남들에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는 없지!', '이 정도 지위에 있는 내가 남들에게 패역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이 정도 신분을 가진 내가 남들에게 내 연약함이나 결함, 문제점, 부족한 교육 등 품위에 손상이 가는 말을 할 순 없지. 절대로 남들에게 알리지 않겠어!' 피곤하지 않겠느냐? (피곤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서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이겠느냐? 본분이나 지위를 대하는 관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네가 얼마나 높은 '관직'에 오르든, 어떤 직위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관리하든 사실 본분만 다를 뿐 너는 다른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 너는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한다. '본분이 다른 게 아니라 분명 신분상에 차이가 있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겠어? 다른 사람이 내게 협력한다면 모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협력할 순 없지!' 네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은 채 다른 사람의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쉽지 않다. 너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아는 게 있다면 형제자매가 그를 리더로 뽑았겠지. 그럼 왜 나를 뽑았겠어? 내가 그보다 낫기 때문이지. 난 저 사람과 상의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뛰어나지 않다는 뜻이니까. 내가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난 어떤 사람과도 상의할 수 없어. 나와 사역을 상의할 만한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종교적 신앙을 탄압해서 환경이 열악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 붙잡힐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리더 일꾼도 예배를 그리 자주 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사역자 모임을 갖는 것도 불가능한데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적절한 장소를 찾아 다시 모임을 가질 때도 있다. 그럼 사역은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사역지침이 있으면 인편으로 전달해야 한다. 한번은 근처의 형제를 통해 한 교구 리더에게 사역지침을 전달했다. 평신도였던 그 형제가 사역지침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을 때 그 교구 리더는 사역지침을 읽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칫, 예상대로네." 이는 그 형제를 앞에 두고 무엇을 과시한 것이겠느냐? 이는 허세를 부린 것으로, 그걸 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야, 정말 존엄하고 멋지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뒤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을 통해 내게 사역지침을 전달하다니, 너무 급이 안 맞네!" 이 말은 '내가 교구 리더면 그래도 큰 리더인데 어떻게 평신도를 통해 내게 전달할 수가 있지? 이건 위계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상부에서 나를 너무 무시하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구 리더이니 적어도 지역 리더 정도는 보내 줘야지. 근데 제일 급이 낮은 평신도를 보내다니, 급이 안 맞잖아!'라는 뜻이다. 이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그는 급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대체 지위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사소한 일을 저렇게 크게 부풀리니, 그는 마귀 같은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마귀 같은 인간이다. 너희가 보기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누가 무엇을 전달하거나 통지하러 오는 경우,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받겠느냐? 더군다나 중국 같은 환경에서는 형제자매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도중에 내내 상당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급이 맞지 않다며 그와 급이나 신분, 지위가 맞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 마귀 같은 인간은 실질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요구나 하고 지위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의 명언은 무엇이냐? '급이 안 맞다'이다. 누가 말을 걸면 그는 먼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리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소그룹 조장이라고요? 물러가세요. 급이 안 맞잖아요!" 상부의 형제가 예배를 열면 그는 늘 곁에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교회 리더 중에서 형제님이 제일 급이 높고 제가 그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형제님 바로 옆에 붙어 앉을게요. 등급 순으로 앉아야죠!" 그는 이렇게 명확히 구분한다. 파렴치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몹시 파렴치하고 분수를 모른다! 어느 정도로 파렴치하냐? 역겨울 정도다. 네게 리더라는 직함을 주어 봤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고 거드름을 피운다면 그나마 적절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셈이지만,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은 주제에 무슨 등급을 논한단 말이냐! 그럼 네 등급은 무엇이냐? 너는 교구 리더를 맡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별로 하지도 않았으니 너도 급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급을 따진다면 과연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 내가 사람과 접촉할 때 무슨 등급을 따지느냐? 따지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얘기를 좀 나누고 얘기할 겨를이 없으면 인사만 하고 만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신분과 지위, 몸값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심지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너희는 함께 본분을 이행할 때 등급을 따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 등급을 따지고, 걸핏하면 다른 사람이 위계를 무시한 채 사역하고 통지한다고 한다. 무슨 위계를 무시했다는 것이냐? 먼저 본분을 잘 이행해라. 너는 제대로 이행한 본분도 없고,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등급을 따지는 것이냐? 누가 네 등급을 따지더냐? 아직 등급을 따질 때가 아닌데 너는 분수를 모르고 너무 일찍 등급을 따지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을 찾는데, 적절한 사람을 찾을 때 등급을 따지겠느냐? 대체로 그렇지 않다. 네가 그 사역을 책임졌다면 너를 찾고 네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을 뿐, 네 등급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는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등급을 따지는 것은 분수도, 원칙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도 이방인처럼 지위와 등급, 직함을 세세히 따진다면 너는 몹시 비이성적인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몹시 부족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방금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진리를 구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인성을 갖췄고 양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인성을 갖추지 못했고 늘 지위를 독차지하려 하며 항상 자신의 존엄과 지위, 명예와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물론 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주된 모습 중 하나이다. 즉,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이 원칙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가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가 간파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는 못하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라고, 그라면 못하는 게 없이 다 할 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다고, 그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일깨움, 제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다.

그 밖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그와 접촉하면서 그가 하는 말 몇 마디를 통해 간파할 수 있는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교만함이다. 어느 정도로 교만하겠느냐? 정신병에 걸린 듯 비이성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물 한 모금 마시는 자태가 우아하다는 것까지 드러내서 과시하며 이렇게 말한다. "물 마시는 제 자태가 아주 우아하지 않나요?" 그는 특히 과시와 자랑을 많이 하는데, 특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인간이다. 그의 눈에는 누구도 그보다 못하며, 그는 특히 자랑을 많이 하고 분수를 모른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아주 못생겼지만 스스로는 잘생겼다고, 달걀형 얼굴에 동그란 눈, 가느다란 눈썹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정도로 분수를 모른다. 보통 사람은 삼사십 살까지 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비이성적이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의 교만한 성품이 정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로 교만한 것이겠느냐? 두꺼비처럼 생겨도 백조라고 말하니 이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것이자 앞뒤가 바뀐 셈이며, 염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것이자 자제력이 없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스스로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민망해하며, 자랑한 뒤에는 한참 동안 부끄러워하고 얼굴까지 붉힌다. 적그리스도는 얼굴도 붉히지 않고 자신이 어떤 좋은 일을 했었는지,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남보다 나은지 입만 열면 자신을 자랑한다. 평상시에 말을 하듯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없이 교만한 것이자 파렴치하고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모든 정상인, 특히 진리를 구하고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으며 그들보다 못한 데다가 그들만큼 특기나 장점도 없다. 그는 거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거나 상의하려 하지 않는다.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보거나 때로 다른 사람이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든, 그는 자신에게 패괴 표출이나 과오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라고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고 자질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무리 네가 책망해도 그는 자신은 자질이 뛰어나고 보통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구제 불능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구제 불능인 것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아무리 책망해도 그는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고 고개 숙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자신의 문제와 결점, 패괴를 인정하는 것은 정죄되거나 멸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남이 그의 결점을 보거나 그가 자신의 자질이 떨어지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이 빠지고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위가 없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다. 지위가 생기면 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제멋대로 못되게 군다. 벽에 부딪치거나 책망을 받으면 그는 다 내팽개치려 하고 소극적으로 변해 일을 게을리한다. 그가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한테 지위를 주고 혼자 하게 한다면 어떨까? 나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는 건 말도 안 되지! 나한테 파트너를 찾아 주지 마. 난 필요 없어. 아무도 나와 협력할 자격이 없다고.

아니면 나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든지!'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산 하나에 호랑이 두 마리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심리이자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는 구제 불능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못한다'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느냐?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않는 것과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설사 누가 그와 협력해 사역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진정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저 따르거나 거들어 주는 자, 심부름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자일 뿐이다. 이는 절대 협력하는 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럼 협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협력의 최종 목적은 진리 원칙을 깨닫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결정,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역 과정에서 실수를 줄임으로써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직 그에게만 순종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그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향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사역할 때는 진리나 하나님이 아닌 그가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원칙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르고 그를 진리이자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성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겠느냐?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처리할 때 더 다방면에서 묻고 구하며 다른 사람과 많이 상의하고 교제해서 손실이나 실수할 확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 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 하지도, 협력하지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누구의 제안도 참고하려 하지 않으며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을수록 진리를 더더욱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어떻게 오해하겠느냐? '형제자매가 나를 리더로 뽑았고 하나님이 내게 리더가 될 기회를 주셨으니 내 행동은 진리에 부합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다 옳아.' 이는 오해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왜 이렇게 오해하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이런 사람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누구와 함께 협력하든 늘 충돌과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이 청소를 담당해 매일 방만 정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성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구와 함께 지내고 일하든 그는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언제나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남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누구와 협력할 수 있겠느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다. 이것은 패괴 성품이 너무 심각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높은 위치에 서서 남을 가르치고 옭아매며,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자기 말에 순종하게 강요하려 한다. 이는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양심도 이성도 없는 것이다. 악인이 바로 그러한데,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성의 공통점이 있겠느냐? 어떤 것들이 서로 일치하겠느냐? 사람은 공통적으로 양심과 이성,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 이런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다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지만,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잘 지낼 수 없다. 둘 중 한 사람만 갖춘 경우에도 잘 지낼 수 없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인과 악인은 서로 잘 지낼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정상적으로 함께 지내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최소한 양심과 이성, 인내와 포용이 있어야 협력할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제대로 협력하려면 반드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며, 서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또 인내와 포용을 갖고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처신해야 한다. 그래야 화목하게 함께할 수 있다. 가끔 충돌과 분쟁이 생길지라도 최소한 적대하지 않고 계속 협력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처신에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없고 양심과 이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일을 처리할 때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늘 남의 덕을 보려 한다면 협력할 수 없다. 악인과 악인, 마왕과 마왕 사이가 바로 그러한데 서로 한도 끝도 없이 싸운다. 영계의 여러 악령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 때로 마귀도 동맹을 맺기는 하지만 모두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이용하는 것으로, 연맹을 맺어도 잠시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레 분열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인성이 없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다.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쉽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남을 포용하고 인내해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역할 때 신분을 내려놓고 남과 상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비록 패괴 성품도 있고, 언제나 남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속셈도 품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있고, 진리를 구하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속으로 가책을 받고 자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 처리 방식과 방법이 조금씩 바뀌며 남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람은 패괴 성품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악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제명한 모든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다 이러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과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해 결국 드러나 도태되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많이 겪고 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점차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패괴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든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며 계속 제멋대로 굴고 함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누가 그를 분별하거나 못마땅해하는 걸 보면 괴롭히고 혼내 주며, 배척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도 불사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을 훈련하는 데 있어 너희가 배워야 할 공과는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실행의 한 측면이자 표징이기도 하다. 이는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보이는 최소한의 모습이다. 너는 네가 양심적이고 존엄 있으며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한다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친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며, 함께 지내면 바로 사이가 틀어지고 함께 일하면 끝없이 다투다 결국 원수가 된다면, 늘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한다면 이는 몹시 위험하다. 이런 측면의 모습이 너의 모든 패괴 성품 중 한 가지 모습이거나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행위 중 한 가지 모습이라면, 한 가지 모습일 뿐이고 너 자신도 알고 있으며 끊임없이 구하고 변화하는 중이라면 아직 기회도 있고 만회할 여지도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 천성적으로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으며 스스로도 자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는 별로 큰일이 아니며 너의 정상적인 생활이자 네 패괴 성품의 주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라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적그리스도인 사람도 있다. 이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리에 부합하고 인성을 갖췄으며 이성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만약 아무 긍정적인 사역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적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본질만 드러낸다면, 행하는 사역과 이행하는 본분이 모두 그런 표출인 데다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일부 리더 일꾼도 과거에는 수시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독단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인성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책망과 훈계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통해, 또 조정되거나 교체되면서 한동안 소극적인 상태에 빠졌다가 마침내 예전에 자신이 드러낸 것들이 전부 패괴 성품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그는 '어찌 됐든 계속 본분을 이행하는 게 중요해. 내가 걷는 길이 적그리스도의 길이지만 적그리스도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니 제대로 믿고 추구해야 해. 진리를 추구하는 이 길은 틀리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조금씩 돌이키고 회개하여 좋은 태도를 갖게 된다.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도 진리 원칙을 구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변화된 것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실행하고 추구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과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적그리스도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염치가 없으며 성품이 흉악하고 사악하며 또한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다.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거나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본분 이행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만든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차이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진리에 부합하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의 이 본성은 무엇이겠느냐? 극도로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누가 진리를 교제하거나 체험 간증을 얘기하면 그는 극도로 반감을 가지고 진리를 교제하는 사람을 적대시한다. 교회에서 누군가 각종 터무니없고 사악한 논조를 퍼뜨리거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그는 특히 즐거워하며 재빨리 장단을 맞추고 그 사람과 한패가 되어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게 바로 유유상종이자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교제하거나 자신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체험 간증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격노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배척하고 공격할지 궁리한다. 아무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눈에는 다 거슬려서 그는 배척하고 적이 되려 한다. 누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그는 마치 지음(知音)이나 동반자라도 찾은 것처럼 유독 좋아하고 동조한다. 누가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로가 크고 큰 상과 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는 몹시 감격스럽고 심장이 끓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한층 뛰어나다고, 드디어 두각을 나타내서 자신을 뽐낼 기회가 생겼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한다. 이는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 하루 종일 '주여,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해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상이나 면류관을 구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들이 틀림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교제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그가 아멘 하며 이 말들을 받아들이겠느냐? 그의 첫 반응은 무엇이겠느냐? 마음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듣기 싫어 할 것이다. 그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당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난 그 말 못 믿겠어! 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바울처럼 하나님께 면류관을 구할 거라고. 나처럼 해야 복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어!'라는 뜻이다. 그는 여전히 바울의 관점을 고집하는데, 이는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본질을 폭로하고 분석하며 했던 수많은 말씀들은 구구절절 다 진리이지만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당신이 한 말이 왜 옳지? 무슨 근거로 옳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바울은 옳은 말과 옳은 행동만 했어. 잘못한 게 없다고. 면류관이나 상을 추구하는 건 내 능력이야! 당신이 막을 수 있겠어? 난 사역을 추구할 거야. 사역을 많이 해서 자본과 공로가 생기면 천국에 들어가고 상을 얻을 수 있어. 잘못된 게 없어!' 그는 이토록 고집스럽고, 조금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줘도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싫어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럼 너희는 진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으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 진리 실제에 닿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자질이 떨어지며 영적인 이해력도 없는 데다가 건성으로 대충 하고 사악하다고 느껴 소극적으로 변한다. 너희는 이런 내적 상태를 가지지 않았느냐? 반면 적그리스도는 절대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늘 기운이 넘치며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별로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바로 이렇다. 그는 권력을 잡는 순간 적그리스도로 변한다.

2.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지닌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이어서 다음 항목을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는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부류가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어떤 부류가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지니고 있겠느냐? 예를 들어 말해 보겠다. 유독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 아니겠느냐?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제압하면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고 따른다. 그리하여 그는 우러름과 존경, 숭배, 앙망을 받는다. 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 복종하지도, 동조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를 숭배할 리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래서 그는 지위를 가지고 나서도 남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진심으로 탄복하며, 감탄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한다. 이것이 한 가지 부류이다. 또 다른 부류로는 유독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교만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우선 상대를 제압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탄복하게 만든다. 그래야 그들은 만족한다. 유독 흉악한 사람도 남들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위주로 행동하게 하고 그를 위해 일을 처리하게 한다. 유독 교만한 사람이든 성품이 흉악한 사람이든 권력을 잡는 순간 모두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가 된다. 적그리스도는 늘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갖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남과 접촉할 때 늘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의 마음에 자기 자리가 있는지, 상대가 자기에게 탄복하고 숭배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몹시 기뻐하며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큰소리치면서 일부 규례와 방식, 도리, 관념을 주입시킨다. 또 상대가 이러한 것들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게 하면서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속으로는 모호해서 진리에 부합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말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진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인정사정없이 상대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위협하며 본때를 보여 준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철저히 제압당해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를 숭배하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게 된다. 또 부림 받는

느낌이 들 것인데, 마치 적그리스도의 인도와 지도, 질책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잃으면 마음에 안전감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치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때,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기분 나빠할까 봐 그의 안색을 살피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모두가 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사역할 때 글귀와 도리를 읊어대고,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게 가르치는 데 능하다. 사람이 지켜야 할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집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안배했는지, 어떤 사역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지, 주로 어떤 사역들을 잘해야 하는지 등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하거나 안배할 때 진리를 교제하는 법이 없다. 그 자신조차 진리 원칙을 모르기에 사람들에게 규례와 도리를 지키라고 가르칠 뿐이다. 누군가 그의 말이나 규례를 어기기라도 하면 그에게 혼나거나 야단맞는다. 적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집이라는 기치를 들고 사역하며,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을 질책하고 꾸짖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의 꾸짖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겠느냐?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이다. '노예화'를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면 '세뇌'이다.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했을 때 고문하는 것 외에 사용하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세뇌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다. 농민이든, 노동자든, 아니면 지식인이든 큰 붉은 용은 무신론, 진화론,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으로 사람을 세뇌시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역겨워하고 혐오해도 큰 붉은 용은 강제로 그런 것들을 주입한 다음 그런 사상과 이론으로 사람의 손발을 묶고 마음을 통제한다. 큰 붉은 용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해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각종 일을 처리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적그리스도의 글귀와 도리, 공허한 이론만 품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아진다. 즉,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의심의 여지 없이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진리는 추구하지 않거나 본분을 이행하긴 하지만 본연의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강요하느냐? 통제하느냐? 아니다. 통제와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십니다.) 그렇다. 자유 의지를 줌으로써 네가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에서 스스로 깨달아 자연스레 인식과 경험을 얻게 하고, 특정 측면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또다시 같은 환경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하며, 마음속 깊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게 해서 최종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한다. 하나님은 너를 통제하거나 네게 강요하지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미혹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교화시킨 다음 너를 그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왜 노예라고 하겠느냐? 노예란 무엇이냐? 상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또 감히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가 옳은지 그른지 너는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속이 혼탁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는 꼭두각시처럼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가만히 기다리며, 그가 입을 열지 않으면 행동할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그가 명령을 내리면 그제야 행동한다. 그렇게 너는 본능이 사라지고 자유 의지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너는 죽은 사람이 된다. 너는 심장이 있지만 생각할 줄 모르고 머리가 있지만 문제를 사고할 줄 모르며 시비도 가리지 못하는 데다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부정적인 사물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떻게 하는 게 그른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는 이렇듯 은연중에 너를 통제한다. 무엇을 통제하겠느냐? 네 머리를 통제하겠느냐, 아니면 네 마음을 통제하겠느냐? 그가 네 마음을 통제하면 네 머리는 자연스럽게 통제된다. 그가 네 손발을 꽁꽁 묶고 단단히 동여매니 너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한참을 망설이고 의심하다가 움츠린다. 또다시 한 발짝 내딛고 일을 좀 처리해 보고 싶다가도 다시 움츠러든다. 무슨 일을 하든 내면의 이상(異象)은 다 흐리고 불분명하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주로 어떤 수단으로 사람을 통제하겠느냐? 그는 사람의 관념과 상상, 인정, 도리에 부합하는 말만 한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나름 인성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 실제는 조금도 없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적그리스도 자체가 권모술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과연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따르는 추종자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적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고 권력을 독점해 횡포를 부리는데 따르는 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그에게 휘둘리고 통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명예와 이익, 체면, 밑천을 두고 다툰다.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 사람은 모두 마음이 흩어져 있고 서로 잘 맞지 않으며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신중하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는다. 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 사람과 사람 간에 정상적인 교류가 없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도 않고 정상적인 영 생활도 하지 않아 흩어진 모래알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에 속하는 속세의 무리와 판박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경계하고 옥신각신하며 궁지에 빠뜨리고 질투하는 데다가 서로를 판단하고 누가 더 무책임한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저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왜 저한테만 고려하라고 하죠? 저도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곳을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는 어떤 곳이겠느냐? 사탄의 진영이다. 이곳에서는 진리가 권세 잡고 있지 않은데, 성령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인도도 없다. 그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작은 마귀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듣기 좋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고 많이 헌금하는 데다가 본분을 이행할 때 기꺼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지 평가하라고 했을 때 당사자 앞에서와 뒤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형제자매가 거짓 리더의 손아귀에 떨어지면 본분을 이행할 때 흩어진 모래알 같아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성령 역사도 없으며, 대다수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칭할 수 없다. 그들은 완전히 사탄의 진영,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왜 적그리스도는 늘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도,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심을 갖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 명망만을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여 그들을 숭배하게 하면 그들의 야심과 욕망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에 관한 일, 교회 사역에 관한 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한 일에 대해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 집 어느 곳의 인사 배치가 부적절한지, 하나님 집의 재물이 어디에서 불합리하게 분배되고 많이 유실되었으며 재물을 헤프게 쓴 자가 누구인지, 사역할 때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가 누구인지, 사람을 부적절하게 쓰는 자가 누구인지, 건성으로 사역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문제를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아가 처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겠느냐? 어떤 일에 개입하겠느냐? (사소한 일에 개입합니다.) 사소한 일이란 어떤 일이냐? 자세히 얘기해 보아라. (어떤 리더는 일부 형제자매의 가정사를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누구와 누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같은 일상생활 속 일들 말입니다.) 그건 거짓 리더가 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이나 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관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누가 그를 못마땅해하는지 등 그의 체면과 지위에 관한 일만 신경 씁니다.) 그런 면도 있다. 실제로 있는 일이다. 그는 거북하고 거슬리거나 그에게 불손하고 그를 분별하는 사람을 보면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아 둔다. 그는 그런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있느냐? (어느 교회에서 뽑혀 온 사람이 그를 분별하고 그와 생각이 다르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 트집을 잡고 그 사람을 교체합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결점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떻게 방해하고 교란하든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결점만 찾아내 이유나 핑계를 들어 그들을 교체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할 때 보이는 주된 모습 중 또 다른 하나는 평범한 형제자매뿐 아니라 각종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늘 권력을 완전히 자신의 손안에 쥐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 주시하고 지켜보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 원칙은 전혀 교제해 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게 내버려두며 모두가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길 원한다. 그는 늘 권력이 분산되거나 남의 손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한다. 문제를 논의할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제하고 다 같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든 그에게 가면

모두 부정당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모두가 그를 따라야 일이 끝난다.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교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를 때까지 아무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한밤중까지 교제를 이어갈 때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이 사역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역을 책임지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겠느냐? (속셈이 다릅니다.) 사역을 열심히 책임지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 원칙을 명확히 교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틀어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관점에 모두 반박한다. 이 두 가지는 속셈이 다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겠느냐?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교제를 통해 사람에게 진리 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과 개인의 체면을 챙기는 것은 무엇이 다르겠느냐? (속셈이 다릅니다.) 물론 속셈이 다른 것도 확실하지만, 속셈만 다른 게 아니다. (그 두 가지 행동 방식은 하나님 집에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도 다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집에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도 그중 한 가지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는 면이다. 가장 주된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진정으로 진리를 교제하는 경우, 너는 듣자마자 개인을 위해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만 교제하며, 진리 원칙도 명확히 교제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실행의 길을 얻는다. 원칙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뿐 아니라 본분을 이행할 때 쉽게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되고 실행 목표도 더욱 정확해진다. 그 안에는 개인의 변명이나 설명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반면, 국면을 뒤집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어떤 말을 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생각과 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를 오해하지 않게 한다. 전부 설명일 뿐, 그 안에는 진리가 조금도 없다. 자세히 들어 보면 그가 교제하는 것 중에는 진리가 전혀 없다. 전부 사람의 주장, 핑계, 이유 같은 것들뿐이다. 그가 말을 마치면 사람들이 원칙을 깨닫겠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의 생각에 대해서만 많이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법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 떨어지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서둘러 예배를 소집해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려 한다. 어떻게 만회하겠느냐? 핑계나 이유를 대고 당시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오해를 풀려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이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거나 오명을 씻겨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진상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큰 붉은 용은 좋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나쁜 일을 한 후, 다시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통치가 위협받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는 진리를 위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더욱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전부 그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집을 위해 부지런히 사역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요.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느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이다. 지위가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다. 그에게 상을 주지 않거나 명리와 지위가 없었더라면 그는 일찍이 물러났을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알리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가 한 모든 것을 보고 그에게 마땅한 상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상이지 진리가 아니다. 너는 이 점을 간파해야 한다. 자신이 충분한 밑천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어떤 내용을 말하겠느냐? 첫 번째,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한다. '마음을 공략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가 하나님 집을 대신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공이 있고 위험을 감수한 적이 있으며 위험한 사역도 했었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떨고 밑천을 논하는 것이다. 두 번째, 터무니없는 이론을 막연하게 떠들어 알 듯 말 듯하게 하고, 꽤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추상적인 이론인 것처럼 들리게 해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과학 기술, 우주, 재무와 회계, 또는 사회나 정치 관련 일, 나아가 범죄 조직이나 사기 관련 일을 다시 한번 막연하게 떠들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이는 무엇이겠느냐?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목적 또한 마음을 공략하는 데 있다. 그가 어리석은 것이겠느냐? 그가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계속 말하겠느냐?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즉, 유세를 떨고 으스대고 자랑하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자주 취하겠느냐? 그는 어디에 가든 가장 같은 태도를 취하며 "다들 뭐 하느라 바쁘세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려움은 없나요? 맡긴 일은 서둘러 처리해 주세요! 건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집의 사역은 모두 중요한 일이니 그르치면 안 된다고요!"라고 말한다. 그는 마치 한 가정의 가장처럼 늘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한다. 가장이란 무엇이겠느냐? 가족 구성원 모두 실수하거나 길을 잘못 들 수 있으니 감시해야 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남들은 모두 바보이고 어린아이라서 자신이 신경을 쓰지 않고 한시라도 눈을 떼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길을 잘못 드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관점이겠느냐? 이는 가장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겠느냐? 그는 구체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역을 남이 하도록 안배하고 자신은 관직에 올라 고관 행세나 할 뿐이다. 남이 사역을 다 완성하면 그 사역은 그가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남의 공로를 모두 자신에게 돌린다. 그는 지위의 복만 누린다.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로운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며,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저 몇 마디 격려의 말로 위로나 좀 할 뿐 폭로하거나 제약을 가해 남에게 미움을 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남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때문에 저는 애간장이 타고 혀에는 굳은살이

박힌 데다가 힘들어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에요. 다들 제 속을 너무 썩이시네요!" 이런 말을 하다니 그는 뻔뻔하지 않으냐? 듣기에 역겹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늘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지닌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하나이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과 교제하겠느냐? 예를 들어,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저 아랫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교회 사역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건성으로 하는 데다가 하나님 집의 재물도 아무렇게나 막 써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짐승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이 무슨 말투란 말이냐? 그는 자신은 배제시켰다. 이는 "나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만 저들은 고려하지 않아요."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여긴 것이겠느냐? '홍보 대사'로 여긴 것이다. 홍보 대사란 무엇이냐?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홍보 대사가 되느냐? 미인 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외모가 아름답고 말솜씨가 뛰어난데, 모두 훈련을 거친 것이고 키 크고 부유하며 잘생긴 사람이나 고위 관료, 부유한 상인과 남몰래 내통하고 왕래하기 때문에 홍보 대사가 된 것이다. 그녀들은 어떻게 홍보 대사가 되었겠느냐? 단순히 용모와 몸매, 말솜씨가 뛰어나서 홍보 대사가 되었겠느냐? 주로 배후의 관계 덕분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 늘 지도자나 가장의 분위기를 풍기는 적그리스도는 늘 그런 분위기와 모습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 역시 어느 정도 홍보 대사의 '풍모'를 가진 것 아니겠느냐? 그는 뒷짐지고 서서는 형제자매가 그에게 굽실거리면 이렇게 말한다.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그는 자신을 어떤 위치에 놓은 것이냐? 나는 어디에 가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가끔은 "너희가 안심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이 기회는 흔치 않다! 너희는 악을 행하거나 교란하여 쫓겨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붙잡아 본분을 잘 이행해라."라고 말하긴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진심이다. 그러나 과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는 남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자신은 과연 열심히 하겠느냐? 그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는 남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며 힘쓰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공로는 그의 것이 된다. 그럼 지금 너희는 본분을 이행할 때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힘쓰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에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겠느냐?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정말 그렇다. 하지만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은 도저히 꺼낼 수 없다. 그저 하나님 집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너희가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겠느냐? (자신입니다.) 너희는 자신의 본분과 의무, 자신이 다해야 할 피조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절대 나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 마라. 난 필요 없다. 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난 사장도 아니고 회사의 총재도 아니다. 난 너희의 돈을 벌지 않고 너희도 내게 기대어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너희가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내가 교제해야 할 진리를 너희에게 교제해 주면 나는 마음이 놓이고, 그로써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쓰인다거나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라. 쓸모없고 역겹다. 네가 정말로 사역을 제대로 해내면 모두가 알게 되고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이렇게 이성적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책임을 좀 짊어지고 공로를 좀 세우고 예전에 일을 좀 처리했다면 그것을 자랑한다. 홍보 대사가 되려는 듯 그야말로 역겨울 정도로 자랑한다. 홍보 대사가 되려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좀 한다면 다들 너를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이다. 홍보 대사 같은 태도를 취하지만 세부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도 못해 무슨 사역을 하든 상부를 걱정시키고 상부에서 직접 지시하면서 뒤따라 감독하고 지도하게 한다면, 모든 사역은 다 상부에서 하는데도 자신에게 재능과 능력이 생겼으며 모든 사역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 정상인은 어떤 일들을 겪고 나면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나는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상부에서 신경 쓰고 감독하거나 일일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야말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이제야 나를 좀 인식할 수 있게 됐어. 내 주제를 알게 됐으니 앞으로 상부에서 또 책망하고 훈계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야겠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나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 내 사역을 하고 상부에서 분부하는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해 제대로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도, 하나님 집의 사역도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의 최대 이익은 무엇이겠느냐? 교회의 재산이겠느냐? 하나님의 제물이겠느냐? 아니다. 그럼 무엇이겠느냐? 모든 사람은 어떤 사역을 둘러싸고 본분을 이행하겠느냐?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최대 이익이다. 최대 이익은 각 팀과 여러 사역으로 분리되어 나온 뒤 다시 각자 이행하는 다양한 본분으로 세분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집의 이익이다. 알고 있었느냐? 알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언급하면 너희는 그것이 돈, 집, 차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이익이란 말이냐? 물질적인 것들일 뿐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익이 아니니 함부로 써 버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제물을 함부로 쓰는 것은 중죄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지닌 것 외에 또 무엇에 관심을 갖겠느냐? 기본적으로 없다. 다른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각자가 이행하는 본분이 적절한지, 인사 배치가 적절한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없는지, 교회의 여러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아직 생각지 못했는지, 어떤 사역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과 같은 일은 신경 쓰지도, 참견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에 절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세부적인 사역을 절대 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번역, 영상, 영화 제작, 문서, 그리고 복음 전도 등의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진지하게 체크하지 않는다. 그의 명예나 이익, 지위와 관련이 없다면 모두 그와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럼 그는 오로지 무엇만 하겠느냐? 사무적인 사역이나 좀 하고, 남들이 중시하거나 남들 눈에 띄는 표면적인 사역이나 좀 완수한 다음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떨고 지위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심을 갖겠느냐? 그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오직 그의 명예와 지위, 어떤 일들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남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신경 쓰거나 묻지 않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든 그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런 그에게 마음이 있긴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는 매일 무엇을 하길래 교회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긴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일부 사무적인 사역만 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역을 한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느라 분주하며 열성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이 일부 사람의 눈을 가렸지만 그는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양육하고 진리를 공급하는 사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절대로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사무적인 사역만 좀 할 수 있고 체면이 서는 일만 좀 하며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은 그저 건성으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데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든 전혀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고, 본분을 대할 때는 대강대강 한다. 그리고 표면적이고 사무적인 사역만 좀 하고는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하는 기간에 제멋대로 못되게 굴고 독단적이며, 교회 사역을 엉망진창에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기준에 맞거나 잘못되지 않는 사역은 하나도 없고, 어떤 사역이든 다 상부에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해야 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체되고 나서는 마음속에 원망을 가득 품고 불복하며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책임을 상급 리더 일꾼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있다. 어처구니없지 않으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진실한 태도를 볼 수 없다. 책망과 훈계가 닥쳐 교체될 때는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진실한 태도가 드러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틀렸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마주하며 진리를 받아들인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처분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겠느냐?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를 탓하시면 안 되죠. 제 의도는 좋았잖아요. 전 고생도 하고 대가도 치렀어요. 헌신도 했다고요. 제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집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게 적절하겠느냐?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든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숨길 수는 없다. 이는 사람의 본성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문제를 가장 잘 보여 준다. 일이 닥치든 닥치지 않든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네 본성 본질의 상징으로, 바로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네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방금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측면의 모습을 다뤘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었느냐?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통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맞다. 특히 교만하고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관심'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야심이며, 부정적인 것이자 나쁜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들은 왜 사람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겠느냐?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본성인데, 또 다른 측면의 원인이 있다. 바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지위, 명예와 이익, 허영, 그리고 권력에 특수한 갈망과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수한 갈망과 감정은 사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는 사탄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사탄은 하루 종일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할지 궁리한다. 매일같이 사람에게 일부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을 주입하는데, 주입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전통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며, 일부 과학이나 심오한 지식, 혹은 학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주입할수록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숭배한다. 사탄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주입하고 나면 사람은 사탄의 생각과 철학, 생존 방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탄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사탄이 살아가는 것이자 마귀가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 역시 이런 성질이 아니겠느냐? 그는 모든 사람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살아가고 쓰이며 일을 처리하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다 자신이 통제하려 한다. 사람의 생각, 하는 말, 말하는 방식, 사상 관점, 행동하는 관점이나 태도, 나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믿음,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려는 의지나 뜻까지 통제하려 한다.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겠느냐? 그는 우선 사람을 세뇌하고 교화한 다음 사람이 그와 똑같이 행동하게 한다. 그렇게 그는 '교부(教父)'가 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 미혹하고 주입하고 공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쓴다. 또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건 미혹에 해당한다. 또 있느냐?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어떻게 회유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제멋대로 못되게 구는데,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는 아주 잘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럼 그가 그것을 처리하느냐? 그는 처리하지 않는다. 그럼 그는 왜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는 그 일을 통해 사람을 회유하려 한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처리하지 않은 건 제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해 준 것이니 당신은 제게 감사해야 해요. 당신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걸 봤지만 난 보고하지도, 당신을 처리하지도 않고 당신의 사정을 봐 줬어요. 앞으로 제게 감지덕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은인으로 삼고, 둘은 한통속이 된다.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자, 뒤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뒤에서 훼방을 놓는 사람을 회유한다. 그는 이런 악인 무리를 옹호한다. 이는 일종의 통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서로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니 그것은 한통속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피차일반이야. 당신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듯 나도 하나님을 속여.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듯 나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을 회유한다. 이는 회유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를 보게 하는 것도 불사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이런 사람들이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하나님 집에서 대충대충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 마치 그가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라도 하듯 말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에게 감사한다. 하나님 집에서 이런 악인들을 처리할 때가 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에이, 그는 벌써 교체됐어. 그가 교체되지 않았더라면 며칠 더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보호해 주었다면 아무도 나를 처리할 수 없었을 거야.' 이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적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임을 알 수 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악행을 증오하지 않는 데다가 감싸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리더는 적그리스도를 비호하는데, 상부에서 그에게 교회에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나 제멋대로 못되게 구는 사람,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는 그의 본분 내 사역이 아니냐? 그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라는 말투로 네게 대충 답하고 넘어간 뒤 아무 소식도 없다. 그는 확인해 보지 않는다. 그가 그런 사람들의 미움을 살 리 없다! 네가 다시 그에게 "확인해 봤어요?"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확인해 봤는데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겠느냐? 그가 바로 가장 큰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장본인이다. 그 자신이 적그리스도인데 확인하긴 뭘 확인한다는 말이냐? 그가 있는 한 아랫사람들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는지, 어떻게 방해하고 교란하는지 아무도 확인해 보지 않는다. 그가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랫사람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 단절된다. 그럼 그로 인해 단절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는 악질 토호이자 도적, 지방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사람들을 통제한다. 이는 어떤 방식이겠느냐? 상부를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을 회유하고, 상부를 기만한다. 아래의 상황을 상부는 모르게 하고 상부에는 말하지도 않고 허상까지 만들어 낸다. 어떤 허상을 만들겠느냐? 그는 상부에 이렇게 말한다.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형제자매가 다들 그가 인성이 좋지 않고 아주 악랄한 데다가 본분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처리할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악인임이 틀림없고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처리해도 되죠. 처리를 했나요?" 그러자 그는 말한다. "저희가 지난달에 그를 처리해서 제명했어요."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겠느냐? 자세히 알아보니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그 사람이 그와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잘 맞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놈이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늘 형제자매 사이에서 편 가르기나 하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서 그를 분별한 그 사람이 그의 그런 문제점을 보고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보고했다는 사실이 그 수하의 한 패거리에게 발견되어 그 사람은 그에게 괴롭힘당하고 제명된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아래에서 물밑 작업을 다 벌인 뒤 다들 들고일어나 그 사람을 반대하고 버리게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을 제거하고 제명해 버렸다. 그런 다음 상부에 '희소식'을 알리기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지 않겠느냐? 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형제자매를, 그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사람을, 그들의 본성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억압할 뿐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들이 교란한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란하는 자는 누구겠느냐? 교회를 교란하고 통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순종하도록 할 때 어떤 수단을 쓰겠느냐? 그중 하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너를 통제하는 것이다. 바로 너의 생각과 행동 방식, 걷는 길을 통제하고, 나아가 수중의 권력으로 네가 이행할 수 있는 본분을 통제한다. 네가 그를 가까이하면 그는 네게 수월하고 체면이 서는 본분을 주는 반면, 네가 늘 그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그의 결점을 지적하고 그의 패괴 문제를 폭로하면 그는 네게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배한다. 예를 들어, 젊은 자매에게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킨다. 그를 가까이하고 그에게 아첨하며 늘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월하고 깨끗한 일을 안배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통제한다. 즉, 인사권이나 인사이동권, 누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 모두 그가 관리하고 그 홀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단지 야심과 욕망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는 마침 적그리스도의 여덟 번째 모습인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는 무슨 뜻이겠느냐? 이런 모습은 무엇이 잘못되었겠느냐? 어디가 잘못되었겠느냐? 그가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진리를 위배하는 것,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가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그 개인의 야심과 욕망, 기호, 취미, 관념이다. 이는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가진 본질의 한 모습이다. 이는 요점을 짚은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리더 일꾼은 정확하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했을 때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올바른 관점을 계속 관철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둘의 행동 방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적그리스도는 일부러 진리와 하나님 집의 사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집을 위해 본분을 이행한다거나 진리에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남들이 그를 따르게 한다. 이는 지나치고 황당할 정도로 잘못되었다. 반면 일부 리더 일꾼은 올바른 관점을 고집한다.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집해야 한다. 이는 교만하고 독선적이거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고집하는 것이다. 두 가지 행동 방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하나는 진리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모두 진리에 위배되고 진리를 적대하는 것으로, 전부 그 개인의 야심과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과 야심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려는 일을 눈에 띄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나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무리에 가든 그는 늘 감투라도 쓴 것처럼 사람을 지휘하려 한다. "당신은 가서 밥을 하세요!", "당신은 가서 누구누구에게 알리세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세요. 충성을 다하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투란 말이냐? 네가

누구길래 주인 행세를 한다는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감히 그렇게 말하다니, 이는 비이성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자는 멍청이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자는 보통의 멍청이가 아니라 특별한 멍청이다. 무엇이 특별하겠느냐? 그는 누구와 어떤 일을 논쟁하거나 상의할 때 결국에는 옳든 그르든 항상 우위를 점하려 하는데, 옳든 그르든 자기가 정하고 직접 결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려 한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의사 결정을 내리려 한다. 다른 사람이 올바른 의견을 내놓아 우위를 점하면 그는 화를 내면서 일에서 손을 떼고 할 일을 내팽개친다. 나자빠지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마음대로 떠들라고.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테니!" 그는 이런 야심과 욕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주인이나 책임자, 또는 리더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런 사람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가 된다.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냐?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는 얻지 못하고 되레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이는 큰 재앙이 닥친 것 아니겠느냐?

이방인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사람과 접촉할 때 그는 우선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을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는 늘 사람이 내면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만약 네 겉모습이나 생김새, 옷차림이 별로 좋지 않고 소양이나 지식도 뛰어나지 않으면 그는 너를 무시하고 너와 말할 때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나는 "그러고 싶으면 네가 다 말하거라."라고 말하고 아무 말 없이 참고 양보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내 말을 듣고 어디에 가든 다들 내 말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기회를 찾아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려 하는데, 다들 자신의 마음의 소리, 자신 내면의 어려움, 자신의 인식을 말하게 하려 한다. 듣다 보면 일부 오류와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나 결함, 사람이 걷는 길에 나타난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나는 교회 어느 측면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듣는다. 만약 한 가지 일을 논의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컵은 종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네가 한사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하며 너와 다투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 말씀이 맞는데 왜 다투지 않으시죠?' 그건 어떤 일인가에 따라 다르다. 만약 진리에 관련된 일이라면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 하지만 외부의 일이라면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나와 무관한 것이다. 그런 일을 다퉈 봤자 아무 소용없다. 또 어떤 사람이 나라에 관한 일을 논의하면 나는 "내가 알기로 그 일은 이렇다."라고 말한다. 앞에 "내가 알기로"를 덧붙인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 그 일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일부 특수한 상황은 나도 잘 모른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 그 일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아는 게 많다고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네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난 너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너를 억누르며 내가 아주 뛰어나다고, 난 모든 걸 알고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게 알도록 하려는 게 아니다. 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나와 채팅할 때 내가 그는 모르는 일을 좀 말하면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는 당신이 뭘 아세요?"라고 말한다. 그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다투고 나를 이기려 든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한다. "맞다. 난 두문불출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나는 그냥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는 것뿐이다.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다툴 일이겠느냐? 이건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외부의 일 하나를 가지고도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아세요? 왜 나는 모르죠? 당신은 그렇게 잘 얘기하시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할까요?" 예를 들어, 나는 "몇 년간 여기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곳 기후의 특징은 꽤 습하다는 거다."라고 말한다. 이는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보고 들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당신 말씀처럼 그런 건가요? 저는 습한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말한다. 네가 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넌 네 느낌을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매일 일기 예보가 아주 상세하게 날씨를 알려 주니 많이 보다 보면 이곳이 확실히 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상한 것도, 느낌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렇겠느냐? 담벼락 밑의 응달진 곳에 일년 내내 푸른 이끼가 끼어 있고 봄철에 어떤 곳은 너무 미끄러워서 걸을 수 없을 정도다. 이는 경험하고 겪은 것이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이며 몸소 체험하고 느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와 말할 때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내가 여기가 습하다고 해도 그는 한사코 습하지 않다고 우기는데, 이는 바보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말들은 터무니없이 상상한 게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왜 상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네가 사소한 부분을 낱낱이 명확하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 네가 한 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은 정확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말에 대해서도 늘 논쟁하고 나와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다투는 사람도 있다. 그는 무엇을 다투려는 것이겠느냐? 이판사판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는 누가 더 많이 아는지를 다투려는 것이다. 그는 그저 다투는 걸 좋아하는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건 일종의 성품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그를 폭로하고 그와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과 다투는 건 쓸데없다. 격이 떨어지니 그에게 양보하면 그만이다.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멍청이와 다퉈서 뭐 하겠느냐? 진리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해서 논쟁하고 토론한다면 괜찮겠지만 외부의 일 때문에 다툰다면 무지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다. 진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옳은 말,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이나 주장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구하고 네게 따지고 논쟁하려 든다. 이는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한 것이다. 그의 뜻은 이러하다. '당신은 진리를 좀 깨달은 것뿐이잖아요? 외부의 일은 모르실 테니 제 말을 들으시라고요! 화나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관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본연의 일이나 진리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신 말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외부 일에 대해선 얘기하지 마세요. 잠자코 있으시라고요! 당신도 이 일을 접해 보시지 않았으면서 뭘 아시겠어요? 당신은 제 말을 따르셔야 해요!' 그는 무슨 일이든 남들이 그를 따르게 하고 상대방이 누군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정복하려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울리기에 쉽겠느냐, 아니면 어렵겠느냐? (어울리기에 쉽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왜 어울리기에 쉽다고 하겠느냐? 내가 말해

볼 테니 내 '설명'이 옳은지, 정확한지 너희가 한번 살펴보거라. 첫 번째, 내 이성은 정상이다. 여기서 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을 바라보든 그 기준이나 각도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주장, 혹은 각종 일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정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정상이다. 최소한 정상 인성의 기준에는 부합한다. 두 번째, 진리로 자신을 단속한다. 이는 정상 이성이 최소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그 밖에 내가 어울리기에 쉬워 보이는 이유는 내가 각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나름의 척도를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리더나 평범한 형제자매, 노인이나 젊은이,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 등 각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각각의 척도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척도와 방식의 핵심은 무엇이겠느냐?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대학생이라면 우러러보고 농민이라면 무시한다면 이는 원칙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이런 원칙을 파악하겠느냐? 사람의 자질과 인성, 이행하는 본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를 대하는 태도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해 한 사람을 바라본다. 내가 어울리기에 쉬워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이 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지위가 있으신데 왜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당신은 겸손하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으셔.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우러러볼 텐데 어째서 직접 당신을 볼 때는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딱 맞고 심지어 내려다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어울리기 쉽다고 생각해 긴장을 푼다. 그렇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다고 느낀다. 너희가 보기에 내가 만약 모든 방면에서 너희를 억누르고 괜히 너희를 책망하며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너희를 비판하고 꾸짖는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너희는 '당신은 참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셔. 성격도 별나고 너무 변덕스러우셔!'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면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나의 모든 측면, 성격과 희로애락이 너희가 보기에 정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너희는 마음속으로는 신분과 지위가 높다면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도 평범하기 때문에 경계를 풀고 나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밖에, 너희가 보기에 내가 말할 때 관료적인 말투를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관료적인 말투를 쓰지 않는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돕지 너희를 비웃는 일은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겠느냐? 가끔은 몹시 화가 나 부득이하게 한두 마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약해질 것을 고려해 가급적 그런 말은 하지 않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인내한다. 너희를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가르칠 수 있으면 최대한 가르친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서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향락을 좇으며 세월을 보내거나 외모를 가꾸거나 게임을 하는 등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진리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만 하면 멍해진다.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강점, 은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얘기, 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작품을 만드는 얘기만 하면 바로 말이 없어진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가르치고 하나하나 지도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깨닫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할 줄 아는 것을 골라 가르쳐야 한다.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르친다. 자질이 부족해서 가르쳐 줘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된다. 모든 걸 순리에 맡겨라.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전문가인데 문외한에게 정복당했네요. 프로인데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문의한이 지도하고 도와주어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니, 정말 창피해요!"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일인데,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패괴된 인류 중 어느 누구도 선천적으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몸소 사역하고 온전케 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사탄의 부류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만이다. 내가 돕고 지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도울 것이고, 그럴 에너지가 없거나 다른 일 때문에 틈이 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된다. 이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수밖에 없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 봤자 소용없다. 그 일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울리기에 쉬워요. 당신의 요구는 충족하기 쉽고요. 저희는 당신이 알려 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가끔 책망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책망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올바르게 이해해 괜찮지만, 일부는 일을 팽개치고, 일부는 뒤에서 교란하면서 본분도 잘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교체된다. 하기 싫으면 내려가라. 반드시 너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 사람을 바꾸면 그만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으냐? 앞으로 그가 회개하고 변해서 잘할 수 있게 되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속 그렇게 방해하고 교란하면 영영 쓰지 않는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쓰는 게 낫지 그와 계속 얽혀서 뭐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면 그도 힘들고 나도 피곤하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도 원칙이 있고 사람과 어울리는 데도 원칙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과 어울릴 때 사람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경우,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할 수 있으면 다해라. 하지만 네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믿는지는 너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얻지 못한다 해도 너는 아무도 원망해선 안 된다. 사람을 대하는 내 원칙이 어떠냐? 약간 사람을 내버려두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건 분명 원칙에 부합한다. 어떤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너희도 바로 깨달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하는데, 사역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사역을 하겠다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그건 함부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하고 제대로 해내고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게 바로 내 본연의 사역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실에 불복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늘 자신을 드러내고 눈에 띄려

하거나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이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희 생각에 내가 이 일을 알고 있겠느냐? 아주 잘 알고 있다! 육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범위이다. 이 범위 외에 사람이 뒤에서 겪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 나아가 하나님이 준 이상(異象),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어떤 사람을 도태시킬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너희가 나와 가까이 접촉한다면 나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본다고 해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는 사람도, 접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인데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너는 이 일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보기에 나는 이 일을 명확히 알고 있느냐? 나는 명확히 알고 있다. 이는 정상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지 않다. 내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늘 뒤에서 일을 알아보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라고 당신을 험담했는지, 아니면 뒤에서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당신의 무엇을 연구했는지 묻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주겠다. 난 결코 그런 일들을 묻고 다니지 않는다. 그럼 그런 일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면 너는 이성이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위치에 선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마음속으로 이 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은 모두 이를 기반으로 한다. 난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내 능력 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신분과 지위, 권력을 가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더 높은 신분과 지위,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준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 전능은 작은 육신 하나로 대표할 수 없다. 이 일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네 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몹시 무지몽매한 것이다. 나는 많은 일을 물어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겠느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을 몇 년씩 믿었는지 알고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의 내적 상태를 알고 있으면 그만이다. 모든 사람이 무엇이 모자라는지, 생명 진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모든 사람이 어떤 진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을 어떤 진리로 양육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진리를 공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알면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 아니겠느냐? 해야 할 본연의 일, 즉 해야 할 말, 해야 할 사역을 알고 있다면 이성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성은 어떻게 생긴 것이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이 이 정도 이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사만물을 가늠하는 이 정도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진리를 얘기하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싸우고 지위를 다툰다면 큰일이 난 것 아니겠느냐?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걱정하며 말한다. "당신은 늘 뒤에서 저희에 대해 물어보고 연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추측하시나요?"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하겠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감찰 범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역하고 성육신은 더더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역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진리의 출구이자 선포이다. 이 단계에서 하는 사역은 이 단계를 대표할 뿐 전 단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성육신 하나님은 이 시기와 이 범위 내의 사역만 할 수 있다. 그럼 다음 단계의 사역은 대표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손을 길게 뻗지 않고 내 본연의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늘 거들먹거리며 "나는 전능하다! 나는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하려는 사역의 선포나 출구를 대표할 뿐 그가 사역하는 범위, 해야 할 사역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 네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전능해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아니면 틀리겠느냐? 반은 옳고 반은 틀리다.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지만 그리스도가 전능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표준적이고 정확하며 사실에 부합한다. 나는 어떤 이성을 갖춰야겠느냐? 남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내가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설사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력과 능력을 준다고 해도 나는 대표할 수 없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은연중에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육신은 제약이 크디크다!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는 그런 관점에서 다루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사 원칙을 가지고 있고, 매사를 처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일부 환상과 상상, 관념을 가진 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다가, 접촉하고 나서는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 두려워할 게 뭐 있어."라며 긴장을 풀고 간덩이가 커지며 제멋대로 못되게 군다. 이들을 뭐라고 하겠느냐? 불신파다. 만약 성육신만 믿고 하나님의 영은 믿지 않는다면 너는 불신파다. 하나님의 영만 믿고 성육신은 믿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불신파다. 성육신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고 일체이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분리되는 일은 더더욱 없으며 제각각도 아니다. 그 둘은 하나이다. 다만 성육신은 반드시 육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이는 육신의 일이고 너희와는 무관하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일이고 인류와는 무관하다. 너는 "당신도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다 사람이고 다 똑같겠네요."라고 말해선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꽤 어울리기 쉬운 사람 같네요. 그럼 그냥 편하게 지내요. 벗이나 친구처럼 대해요. 우리 지음(知音)이 됩시다. 벗이 되자고요." 이래도 되겠느냐? 이런 자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이자 불신파이다. 네가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수록, 진리나 사실, 진리 실제를 이야기할수록 그는

너를 무시하는데 이런 자는 불신파이다. 또, 네가 심오한 비밀이나 구호, 도리,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할수록,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과시할수록 그는 너를 우러러보는데 이런 자 역시 불신파이다. 행동에 원칙이 있고 분수를 아는 사람, 행동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대할 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분별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미워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런 자가 바로 불신파이다.

내가 사람과 접촉하고 사귈 때 누구와 얼마나 오래 사귀든 '그는 늘 나를 통제하려고 해. 그는 우리 집의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늘 나를 정복하려고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너를 정복하지 않는다! 너를 정복해서 뭐 하겠느냐?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사색하며 진입하면 된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네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 반면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말에 늘 불복하며 내 말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일을 처리할 때 늘 실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일은 너희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든 말든, 받아들이든 말든 성령은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상관하지 않겠느냐? (지지합니다.) 성령은 절대 훼방을 놓지 않고 틀림없이 지지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가 "알고 보니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당신이 예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그 말씀을 들을 당시 그 말씀이 상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든,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든, 아니면 지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든 언젠가 좀 체험하고 나면 너는 '그 말씀이 진리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깨닫게 되겠느냐?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네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네가 머리로 분석한 것이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건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행사한 것이다. 이방인도 평생을 살아가며 천지 만물의 일부 법칙을 어느 정도 인식하겠지만 그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다. 바로 그것이 부족한 것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평가하든,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대하든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행사를 통해 네 선택과 태도가 옳은지 그른지, 네 관점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사역을 지지한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지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는 지지하지 않겠느냐? 그건 바로 영과 육신은 하나이고, 그 근원도 같기 때문이다. 사실은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끝까지 체험해 보면 그 말씀이 성육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든, 아니면 네가 성령에게서 얻은 깨우침이든 모두 일치하고 절대 충돌하지 않으며 합치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확증이 있느냐?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겪어 보지 않아서 이런 확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건 사람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믿음이 아직 아주 작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일정한 정도까지 믿게 되면 이 평범한 육신이 내뱉은 평범한 한마디가 들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네 생명이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어떻게 네

생명이 되었겠느냐? 너는 행동할 때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이 네 삶의 지침이 된다. 네게 길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네 실제가 되고 네게 길을 알려 주는 목표가 된다. 네가 고통스러울 때 그 말씀은 네가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 그 말씀은 평범하지만 그 안에 무게와 생명이 담겨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 추구를 중시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정죄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일을 겪고 난 뒤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건 꽤 쉽네요. 성육신과도 꽤 어울리기 쉽고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어울려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겠느냐? 네가 그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네가 일상생활에서 그를 만나지 못할 때 성령이 네게 하는 역사와 같다. 이 '같음'이 네게 무엇을 가져다주겠느냐? 너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외모와 육신의 형상을 취하시어 사람은 그분의 본질을 몰라보았어요. 사람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의 일면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이 볼 수 있는 면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이지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네요!" 이 말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역을 할 때 만약 수많은 측면 중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분명 많은 이들은 관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이든 조금씩이라도 할 줄 안다면 사람들은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같으셔. 하나님 같으시다고 할 수밖에 없겠어. 성육신 하나님 같으셔. 그리스도 같으시다고. 아마 그리스도가 맞으실 거야.' 사람은 그저 이렇게 정의 내릴 뿐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저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할 뿐 어떤 사역도 실제로 지도하지 않거나 지도하지도 못한다면 이 육신에 대한 사람 안목의 비중,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육신은 마땅히 일정한 능력과 재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그게 재능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 여러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시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노래를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건 문외한이 전문가를 지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라고 물으면 나는 예외라고 말한다. 왜 그렇겠느냐? 너희가 잘하지 못하면 나는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너희가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아예 손을 떼고 신경 쓰지 않고 싶다. 나도 피곤하다. 너희가 잘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난 과시하는 것도, 큰소리치는 것도 아니다. 업무든 진리 원칙이든 난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너희가 다 배워서 알고 원칙을 파악하게 되면 나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 본연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본연의 사역도 아닌데 왜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너무도 모자라서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면 만들어 낸 작품은 아주 평범할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도 그저 그럴 것이다. 만약 대단한 몇 가지 작품을 내놓지 못하면 나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마음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내 에너지와 신체 상황에 따라 사역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그럴 만한 고려 사항들이 좀 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전 인류가 보고 소화할 때, 모든 사람의 안목과 관점, 이해 능력은 단지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나 체험, 자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진리를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한 진리 실제에 대한 체험이다. 이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의 관점에서 사역하거나 작품을 만들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겠느냐? 육신의 관점을 가져야겠느냐?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겠느냐? 나는 당연히 육신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의 관점에서 말하고 사역하고 이런 관점을 선포해야 한다. 인류 가운데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단 완성품이 되면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범한 작품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기왕 영원히, 오랫동안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측면에서 지도하든, 공급하고 도와주든 인류 전체에게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것이라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인류가 가질 수 없는 관점에서 말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느냐? 교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 출발점이 옳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교회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됩니다.) 촉진제 역할을 하겠느냐, 아니면 방해 역할을 하겠느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다. 분명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부 이방 단체나 종교 단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영화를 너무도 잘 찍었다는 생각에 놀라워하고, 늘 스크린 뒤의 감독을 만나고 싶어 한다.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만나서 뭐 하겠느냐? 그들이 영화를 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만 하면 그만이고, 참도를 알아보고 싶게 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다.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아무튼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면 인류가 그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류에게 남겨 두는 것은 좋은 일이겠느냐, 아니면 나쁜 일이겠느냐?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고 할 만한 일이다.

나는 너희와 이런 식으로 어울리며, 너희와는 너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 그럼 하나님과 너희는 어떤 관계인지 느낄 수 있겠느냐? 똑같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이시니까 어울리기 쉽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어울리기 어려워. 위엄이 있고 진노가 있으셔서 너무 무섭다고!'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나 방식으로 혹은 강제로 너를 정복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느꼈듯이 내가 너희와 어울리는 그런 방식처럼 말이다. 즉,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가르치고 너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깨닫게 하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 강제로 주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강제로 주입하지 않으신다면서 왜 항상 진리를 교제하시죠?" 그게 주입이겠느냐? 그건 공급이다. 그건 빨리 성장하도록 서두르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은 정당한 것이고 긍정적인 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너희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너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몹시 부족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정복할

때는 강제로 통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할 때는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에게 진리 원칙을 알려 주시고, 사람이 실행할 줄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사탄이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지만 진리를 갖추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사람을 정복하려는 것이겠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얻으려 하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정복하겠느냐? 사람을 정복하고 나서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사탄은 너를 패괴시킬 뿐이다. 그것은 너를 가지고 놀고 짓밟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너를 철저히 짓밟고 나면 지옥에 떨어뜨린다. 사탄의 이런 정복과 통제는 순전히 무엇에 해당하느냐? 해를 입히는 것이다. 사탄이 너를 통제하고 정복하는 목적은 네가 하나님이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에게 순종해야만 옳다. 네가 사탄에게 순종하고 그것에게 통제되거나 정복된다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리이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근원이자 진리의 근원이다. 그럼 사람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족속이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함으로써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며 사람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이는 모두 진리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복은 무엇이겠느냐? 얻음이자 구원으로, 이것은 긍정적인 사물이다.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는 사탄의 정복과 다르지 않으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나님은 진리이자 모든 긍정적 사물의 근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정복한다'는 말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 인류는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고 사탄에게 심하게 패괴되어 사탄의 족속이 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선포를 통해, 심판과 형벌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사탄인지 알게 하고, 사람이 주인에게 돌아와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그의 피조물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복의 의의다. 하나님에게 정복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했느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사탄에 의해 정복된 사람은 무엇을 얻었느냐? 아무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저버리며 하나님에게 관념까지 품고, 심지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역하고 욕하며 하나님의 주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에는 더더욱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이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복한 사람과 정반대이며 하나님이 인류를 정복한 성과와도 상반된다.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지위가 생겼는데 어디 갔을 때 남들이 그가 리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가 기분이 좋겠느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딜 가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저는 리더니까 음식 좀 만들어 줘요. 좋은 것 좀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지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나는 어디에 가면 가능한 한 함부로 알리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이른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내게 속마음도 좀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게 되는 순간 골치 아파진다. 나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면 내가 외롭지 않겠느냐? 가능한 한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나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고,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하게 한다.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하면 좀 좋으냐. 늘 사람들이 내 앞에서 깍듯하게 행동하도록 옭아매고 싶지 않다. 그럴 필요 없다. 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틀림없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 드릴게요.'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피한다. 늘 굽실거리는 사람을 보면 나는 서둘러 피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 까다롭고 몹시 골치 아프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길 바라고, 어디에 가든 특별 대우를 받길 바란다. 나아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가 이끄는 범위 내의 사람이 모두 그에게 절대복종하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는 '이것 봐. 내가 통솔하는 병사들, 내가 이끄는 팀이 어때? 다들 고분고분 내 말을 따르잖아.'라고 생각하며 커다란 성취감을 느낀다. 사람들을 마치 꼭두각시나 노예처럼 독립적인 생각도 없고 주견도 관점도 없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같이 무감각하고 우둔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고는 사역이 성과를 이루어서 자신의 욕망과 야심이 충족되었음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흡족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따르지? 내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내가 대단하다는 걸 모른다면 내 능력을 보여 줘야지! 난 대학원을 졸업했고 졸업 증명서도 매일 가지고 다니니까 한번 보여 주지. 영어는 8 급이고 학생회장도 했었다고. 다들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보여 주는 수밖에!' 사역을 의논할 때마다 그는 말한다. "다들 어떤 의견이든 얘기해 보세요. 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자기 관점을 밝히면 돼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한다. 사람들 얘기가 끝나면 대학원을 졸업한 '뛰어난 사람'이 나서서 말한다. "당신들 관점은 안 되겠어요. 너무 평범해요. 모두 일반 사람의 관점이라고요. 정말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보세요, 당신들은 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사실 저도 이 사역을 맡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에 없으면 당신들은 정말 이 책임을 짊어지지 못할 테니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이 일에 대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리해야 해요. 당신들이 얘기한 방법들은 다 소용없으니 제가 더 나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역지침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 규례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사역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집의 손실이 너무 클 거예요."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집에서 그 정도 돈을 아까워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말대로 처리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한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다. 이는 큰소리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큰소리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과시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와 훌륭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훌륭하냐? 평범한 사람은 짐작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그의 관점이 다른 사람과 같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부정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을 듣고 다들 "똑같은 말 아닌가요?"라고 하면 그는 "같아도 그건 제가 한 말이지 당신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말했다고요."라고 한다. 아무튼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제가 괜히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괜히 팀장이나 책임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제가 재능과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게 맡긴 거라니까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일이 발생했는데 그가 자리에 없을 때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내려선 안 되고, 그가 자리에 있을 때는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들 그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가 결정을 내리면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들 가슴을 졸인다. 그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가끔은 그도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지 말자. 너무 창피하잖아. 이건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 아닌가? 그럼 안 되지.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적그리스도라니, 상부에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가끔은 사역지침과 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고려하고 자신의 속셈을 품은 채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다. 이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성품에 지배된 나머지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고 제멋대로 못되게 군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한지 그가 마음속으로 정말 모르겠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원칙에 위배된다는 걸 그가 정말 모르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임을 그가 정말 모르겠느냐? 그는 알고 있고 이해한다.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뜻이다. 어떤 관점이든, 어떤 방식과 방법, 주장이든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는 모두 부정한다. 이는 야심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야심과 저의가 담겨 있다. 그 저의는 무엇이겠느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겠느냐? (남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신을 따른다는 이 좋은 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도, 남에게 돌아가서도 안 된다. 매번 그가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며 모든 사역의 성과도 그 혼자만의 것이어야 하고 그의 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 사람들은 일종의 타성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팀은 그가 있는 한 사역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이는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느냐? 그가 사람들을 통제하게 된 것이다. 통제하기 전 단계는 무엇이겠느냐? 철저히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바로 너를 괴롭혀 굴복하게 하고, 너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느 방면의 진리이든 그에게는 대입해 보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든 다 옳다고 인정하여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감히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된 결과이고 곧이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분명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과 저의, 그의 행동, 방식과 방법, 나아가 그가 하는 주장은 무엇에서 비롯되겠느냐? 그는 너를 무너뜨리고 굴복시켜 복종하게 하고, 누가 대장이고 앞장설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서는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알게 하고, 여기서는 진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자기 말고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 결정을 내리고 의사를 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진리를 언급하고 싶더라도 어림도 없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싶더라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함이다. 그는 사람을 정복하고 통제하려 한다. 적그리스도의 욕망과 야심으로 보든, 아니면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 보든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는 흉악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행동 방식, 표출, 모습, 그들의 그런 본질은 마침 우리가 교제하는 주제에 부합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에게만 순종하도록 하는데, 그 숨은 뜻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야 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는 이렇게 반박한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확하게 설명하면 인정하겠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당신 말을 따를게요." 이렇게 그는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느냐?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남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둔다. 그에게는 그런 수완이 없다. 한편으로는 말주변이 없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그리 독하지 않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에 사악한 성품을 지녀야 하고 흉악하고 독해야 한다. 그는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고 누가 불복하면 필사적으로 괴롭힌다.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괴롭히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지각하지도 못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안 그래도 불쌍한데 내 말을 듣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한번 봐주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것도 아니잖아. 진리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거지 뭐. 누구 말을 듣든 상관없어.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두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 앞에서는 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마치 늑대가 양을 문 것처럼 꽉 쥐고 놓지 않는다. 양을 먹지 말라고 늑대를 설득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왜 그렇겠느냐? 늑대의 성품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늑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배고파. 나는 양고기가 좋아. 그게 옳아. 내가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든 다 옳아.' 이게 바로 늑대의 철학이고 늑대가 행동하는 준칙이자 근원이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정복하고 통제할 때 '하나님도 아닌 내가 사람을 통제하다니 너무 염치없어. 남들이 분별해 내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그의 인성에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 염치와 이성, 양심이 결여되었다. 그의 인성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니다. 귀신일 수도, 산송장일 수도, 동물일 수도 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겠느냐? 마귀이다. 그중 일부는 악마이고 일부는 악령으로, 어쨌든 사람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상 인성의 이성과 양심, 염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 이를 보면 그의 본성 본질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지위를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지위나 사람을 다투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로써 그가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자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제 8 조까지 교제했다. 너희는 자신을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거나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맞춰 보고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을 것이다. 맞춰질 수 있으면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주위의 사람과 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일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한 측면이다. 주로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 내면의 적그리스도 성품과 걷는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치우친 길이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면 돌이키는 게 쉽겠느냐? 쉽지 않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다시 돌이키기 쉽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된 이유이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네가 진리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 선민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에게 끝까지 반항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길에 들어서면 골치 아프다. 너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인 의지가 이미 하나님과 대립하고, 네 사상 관점과 주견, 선택이 모두 하나님을 적대한다. 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대립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객관적인 모습, 성품, 본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이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늘 조심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네가 일단 적그리스도의 길이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에 들어서면 몹시 위험해진다.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방금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도 명확하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길에 들어서고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너는 위험해진다.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 길을 걷고 그렇게 선택한다면, 늘 자신의 원칙이나 과거의 오래된 방식대로 행동하며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네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너는 그런 길을 걸으며 계속 하나님을 적대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바울과 유사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치시려는 겁니까?" 그는 예수가 주님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반항했다. 이게 바로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지도, 높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잖아? 당신이 나를 치는 건 그럴 만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난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믿어. 성육신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평등해.' 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바울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런 관점을 가졌겠느냐? 그는 예수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그런 관점을 고수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써 그의 결말이 정해졌다. 계속 그런 관점을 고수했는데 그럼 그가 걷는 길이 바뀔 수 있었겠느냐? 사람이 걷는 길은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는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맞는 길을 걷게 된다. 반대로 걷는 길에 따라 그에 맞는 관점이 생기고, 그에 맞는 관점을 품게 되고, 그에 맞는 관점에 좌우되거나 조종된다. 네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관점이 네 내면에 생겨 뿌리내린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네가 기어코 끝까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자신의 잘못된 관점이나 인식, 태도를 고수하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맞설 것이라는 점이다. 조금도 돌아서지 않을 것인데, 누가 말려도, 성령이 깨우쳐 주고 형제자매가 타일러도, 심지어 하나님이 빛 비춤을 주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조금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네 선택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세 번이나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네가 얼마나 사역하고 대가를 치르든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은 무슨 결정을 내렸겠느냐? 너를 봉사하게 하고 이용한 다음 형벌과 징벌을 받게 어떤 곳에 두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사람의 순간적인 생각 때문이겠느냐? 사람의 순간적인 의견 때문이겠느냐?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존재하는 관점, 네가 오랫동안 진리를 대해 온 태도, 네가 가기로 결정한 길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말해도 소용없다. 너 스스로 그 이론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네 결말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일찍이 결정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모습을 근거로 하는데, 마지막에 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의 여러 모습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말이 정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악행보다 선행을 많이 했고, 부정적이거나 악을 행하는 태도보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 적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에 더해 그들의 여러 행위와 모습을 종합해서 평가한 뒤 마지막에 결말을 정한다. 하지만 걷는 길을 보고 바로 결말이 정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규정하기 전에 기회를 주겠느냐? 기회를 준다. 기회는 몇 번이겠느냐? 구체적인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의 본성 본질이나 추구하는 바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세 번 주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구제 불능에 몹시 우매하고 완고하고 강퍅한 데다가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기회를 세 번 주기도 전에 결말이 정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내적 상태에 따라 일부 환경을 마련해 준 다음 다시 그의 나이나 그가 겪은 일에 따라 어쩌면 기회를 다섯 번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 본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에 따라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정한다.

사람은 이런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걷기 쉽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이 사탄의 패괴 성품에 따라 살아가니 그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들 중 진리에 부합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왜 늘 설교를 듣겠느냐? 늘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 진리를 동경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남들과 교제하고 사역할 때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 매일 이런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등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세세한 실행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지켜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형식적이지 않나요?" 뭐가 형식적이라는 것이냐? 이는 단지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네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네게 지키라고 한들 며칠이나 지킬 수 있겠느냐? 넌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일부 리더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영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이는 무슨 뜻이겠느냐? 이는 진짜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로 믿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리더가 되었겠느냐? 적절한 사람이 없으면 아쉬운 대로 그런 자를 쓰는 곳도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리더로 선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예전처럼 사역할 수 있어. 다리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역이니까.' 이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살핀다.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리더로 선발되었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온전케 되는 건 따 놓은 당상이라고, 너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하는지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고 어떤 길을 걷는지를 살핀다. 너는 이 일에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나를 뽑은 걸 보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자질도 더 갖춘 데다가 더 훌륭한가 봐.'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무엇이 더 훌륭하단 말이냐? 훌륭하다고 해서 네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배해 행동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훌륭하다고 해서 네게 절대 영 생활도, 기도도 하지 않으며 행동할 때 진리를 구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것이냐? 네겐 그럴 자격이 없다. 그 어떤 지위나 직함도 네 밑천이 아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네 충성심, 네가 진리를 실행하고 추구하고 대하는 태도, 너의 순종 여부, 네가 본분과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살핀다.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힘을 많이 들이지만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데, 네가 그에게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 주면 그는 바로 반발하고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드러난다. 무엇이 드러난 것이냐?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불신파이다. 불신파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바쁘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겠느냐? 그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관직에 오를 기회가 있어. 관직에 오르면 교회에 얹혀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숭배받을 수 있지. 정말 좋은 곳이야! 밥벌이도 쉽게 할 수 있고 명예와 이익, 지위도 쉽게 얻을 수 있잖아. 참 할 만한 관직이군!' 그는 이번 생에 '관직'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그는 본모습을 드러내고 다시는 하나님 집을 위해 힘을 들이지 않는다. 이런 그가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로써 드러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가지면 전력을 다해 일하고 땀 흘리며 힘을 들이고 아무리 고생해도 불평하지 않다가,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곧장 소극적으로, 그것도 견디지 못할 만큼 소극적으로 변한다. 이러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느냐? 지위가 그를 드러냈는데 굳이 시련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2019 년 10 월 1 일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2)

참고　정상 인성의 세 가지 측면을 간단히 다루다

이번 교제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자주 언급되는 '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다루겠다. 이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자주 다루는 주제이자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며 매일 접하고 체험하는 주제이다. '인성이란 무엇인가'는 바로 그런 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포함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은 흔히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느냐? (인격과 존엄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느냐? 양심과 이성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다루는 것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평소에 인성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 없고 자주 다루지 않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겠느냐? 양심과 이성, 인격과 존엄 같은 것은 평소에 늘 다루는 주제이고 자주 접할 수 있다. 너희가 자주 다루는 양심과 이성, 인격과 존엄은 너희의 실생활과 얼마나 관련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너희의 실생활 속 실행과 진입에 어떻게 이롭고 도움이 되며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너희 정상 인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로는 또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몇 가지 측면을 말해 볼 테니 너희가 평소에 이런 주제를 접하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인성에 관한 내용은 일단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정상 인성인지 아니면 비정상 인성인지는 차치하고 방금 말한 그 몇 가지 측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는 인성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관련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 속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과 이성을 접할 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인성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두 인성과 관련 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지, 여러 원칙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내용은 제쳐두고 인성이라는 주제만 다루려고 한다.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은 인성과 관련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 너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거라. (첫 번째 측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일상생활 속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성을 접할 때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다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인성과 관련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인성과 연관되어 있고 관련 있다고 하겠느냐? 왜 이 세 가지 측면을 나열하겠느냐? 양심과 이성 같은 측면은 왜 다루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자주 다루는 그 몇 가지 측면은 내던지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다루겠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은 예전에 다루었던 인성과 관련된 측면인 양심과 이성, 인격과 존엄보다 수준이 더 높겠느냐, 아니면 낮겠느냐? (낮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폄하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너희의 이유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실 상황과

일상생활 속의 여러 모습에서 사람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를 찾았기 때문에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교제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생활과 정상 인성, 일상생활 속의 여러 모습은 제쳐두고 오로지 진리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등 심오한 진리만 추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하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실생활 속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겠느냐? (정상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 사람은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상 인성에는 양심, 이성, 인격, 존엄 이외에 방금 말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사람이 인성에 관한 이 세 가지 측면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정상에 이르지 못한 채 말로만 진리를 추구하거나 구한다면 아마 다소 공허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정상 인성을 갖춘 소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상 인성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상 인성이 일부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진리 추구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아마 이룰 수 없을 것이다.

1)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

우선 인성에 관련된 첫 번째 측면인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다. 그럼 인성과 관련 있는 사람과 일, 사물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정상 인성이라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정상 인성이라는 범위와 관련되며 정상 인성과 연관된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측면이다. 그 밖에 배워야 할 지식이나 업무, 일상생활 속 상식도 모두 정상 인성이 이해하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예를 들어, 목공이나 미장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나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기술이자 재주인데 그런 재주를 발휘할 줄 알면 그 재주에 관한 업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어느 기준에 이르러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검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어설프게 해서 결과물이 형편없고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는 이 기술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떤가와 관련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생각한다. '만들어 낸 물건은 그럭저럭 쓸 수만 있으면 돼. 3~5 년 대충 쓰다가 망가지면 다시 고치면 되지.' 이런 관점이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적당히 하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게 경솔하고 오만하며 무책임하게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은 패괴 성품에 속한다. 그것은 사람이 흔히 말하는 양아치 기질이다. 모든 일에서 "대충 맞는 것 같아.", "그 정도면 충분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아마도', '십중팔구' 식의 태도이다. 형식적으로 일을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고, 할 수 있는 한 일을 대충 해 나가는 수준에서 만족한다. 일을 진지하게 대하거나 세심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진리 원칙을 구하는 것은 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패괴 성품에 속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상 인성의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를 교만함이라 해도 옳고, 방종함이라 해도 아주 적합하지만, 가장 알맞게 표현하는 어휘는 '양아치'이다. 양아치 기질은 대다수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데, 그저 경중 정도가 다를 뿐이다. 모든 일에서 대충 건성으로 하려 하고, 기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요령을 피우며, 시간을 적게 들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발각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책임질 일이 없다면 얼렁뚱땅 넘어가면 돼. 일을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숙달하는 경지까지 배우는 일이 없으며 배우는 일에 전념하거나 고생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배워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때우려고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것이 좋은 태도겠느냐? 아니다. 한 마디로 묘사하면 '때우는 것'이다. 그러한 양아치 기질은 패괴된 인류에게 다 존재한다. 인성에 양아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어물쩍 때우면 된다는 관점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 사람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고 얼렁뚱땅 건성으로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운전을 배우면서 운전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지 경험 많은 운전자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운전을 시작한다. 그 결과 차를 망가뜨리고는 발로 차며 이렇게 말한다. "차가 뭐 이 따위야? 벤츠나 BMW를 몰아야지. 이런 고물차는 안 되겠어. 폐차해야 되겠군!" 이는 무슨 태도겠느냐? 물질적인 것을 대할 때 소중히 여기지도, 관리하지도 않는 데다가 일부러 부수고 망가뜨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칠칠치 못하고 부주의하게 생활하며,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든 신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거친 사람입니다.) 듣기 좋게 말하면 거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막돼먹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 말이 과하겠느냐? 사람의 귀천을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본분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봐야 한다. 즉, 일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과 존엄이 있는 사람들은 일할 때 세심하고 진지하며 마음을 쓰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 인격과 존엄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고 무성의하며 항상 속임수를 쓰려 하고 항상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든 마음을 다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며, 아무리 오래 배워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인격이 비천한 사람이다. 대다수 사람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데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양아치 기질입니다.) 양아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본분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는 본분을 대할 때 절대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건성으로 대충 이행한다. 이게 바로 정상 인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양아치 기질이 심한 사람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개를 기를 때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개가 물건을 함부로 물어뜯고 가구나 도구를 다 망가뜨린다. 이러면 손해이다. 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너는 개와 실랑이할 게 아니라 개를 관리해야 한다. 네가 관리를 잘 못해 동물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네 생활을 교란하게 둔다면 이는 네 인성 안에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다. 그럼 너는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과 별 차이가 없고 무능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개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개를 특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거나 우리에 가둬 놓고 기르고 매일 고정된 시간에 두세 번 풀어 주어 충분히 활동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제멋대로 물건을 물어뜯는 개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을 통해 개의 건강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개도 잘 관리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자신이 접하는 사물을 관리할 줄 모르고 올바른 태도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성 안에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상 인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볶음 요리를 할 때 보통 사람은 기름을 조금만 붓는데 어떤 여자는 유독 기름을 많이 붓는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기름을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기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때 실수로 기름을 많이 부으면 그냥 퍼서 땅에 버린다. 이는 낭비가 아니겠느냐?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하겠느냐? 먹을 걸 길에 뿌린다고 하고 욕하는 말로 '집안을 말아먹는 여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다 어디서 났겠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네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얼마나 얻을 수 있었겠느냐? 네 생명도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네게는 아무것도 없고 넌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네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보통 가정보다 더 많이 주었지만 그렇다고 네가 제멋대로 낭비한다면 그런 태도나 관점이 과연 옳겠느냐?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겠느냐? 이런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않다. 먹을 걸 길에 뿌리고 물건을 망가뜨리며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 인성이 없다. 하나님 집의 물건을 대할 때도 소중히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집의 물건이 비가 와서 젖을 것 같으면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비에 젖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물건도 아니니까 내 알 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가 버린다. 이게 대체 무슨 태도란 말이냐? 이기적인 것이다. 마음이 바른 것이겠느냐, 바르지 않은 것이겠느냐?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겠느냐? (비뚤어졌다고 합니다.) 바르지 않으면 비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위에는 '아닐 불(不)', 아래에는 '바를 정(正)'이 있으면 '기울 왜(歪)' 자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정상 인성을 갖추었겠느냐?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첫 번째 측면인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 중 총 몇 가지를 다루었느냐? 양아치 기질, 양아치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천함과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거나 분석할 때 이런 속된 말들을 쓰느냐?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다. 너희는 무슨 말을 쓰느냐? 거창한 말만 쓰지 이런 보잘것없는 말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무척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기술이나 업무 관련 지식, 학위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한다. '세상의 철밥통은 필요 없어. 난 빈둥빈둥 놀고먹으려고 하나님 집에 온 게 아니야. 나처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하나님 집에서 봉헌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을 견디며 이런 보통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며 함께 생활하다니, 이 얼마나 고귀한 인품인지!' 그는 자신의 인격이 특히 존귀하고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며 늘 이런 것들을 즐긴다. 사실 그의 인성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우쭐거린다. 게다가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자신의 인품이 보통 사람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그는 '정상 인성'의 정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과 거리가 멀다. 양심을 논하자니 양심이 없고, 인품을 논하자니 그것도 별로이고, 인격과 품성을 논하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다. 여럿이 같이 살면 일부 귀중한 물건은 감히 내놓지 못하는데, 왜 그러겠느냐? 남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람이 많으면 못 믿을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손버릇이 나빠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품이 나쁜 것이다. 밥 먹을 때 뒤에 아직 먹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든 상관하지 않고 일부러 제일 맛있는 음식만 끝까지 골라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너무도 이기적이지 않으냐?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는데, 이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겠느냐? 그 사람은 이성적이고 마음속으로 남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좀 덜 먹고 남을 위해 남겨 두는 것이 바로 인품이다. 하나님 집에는 인성을 갖춘 사람도 있고 정상 인성의 기준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인성이 나쁜 사람도 있다. 내가 말한 이런 모습들로 살펴보면 너희 가운데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너희는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의식할 수 있겠느냐? 네가 패괴 성품을 표출할 때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인성을 갖춘 것이다. 다만 정상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의식하지도 못한다면 인성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논할 수도 없다. 바로 인성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가 차려진 것을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계든 살코기든 가리지 않고 없어질 때까지 먹는다. 너희는 동물이 먹이를 빼앗는 것을 본 적 있느냐? (본 적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지만 그건 동물의 경우이다. 만약 사람이 그런다면 그렇게 빼앗는 것이 정상 인성에 속하겠느냐? (정상 인성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 인성이겠느냐?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상 인성이 가져야 할 생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 이런 생각을 통해 다시 일을 처리한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우선 네 생각이 올발라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은 돼지고기 볶음이 꽤 많네. 좀 더 먹고 싶은데 주변을 둘러보니 형제들만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 어떡하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그때 먹어야지. 여자가 너무 게걸스러워 보이면 창피하잖아!'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보통 부끄러움을 잘 탄다. 반면 남자는 대부분 '돼지고기 볶음이 참 맛있네.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젓가락을 뻗는다. 하지만 비교적 이성적인 남자는 한 입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다. '뒤에 아직 못 먹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 먹자. 다른 사람 것도 남겨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며 천성적으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황당하게 우기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지고기 볶음을 먹지 않길 바라신다면 저는 입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인성을 갖춘 거 아닌가요?"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내가 이런 예를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느냐?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든

사람은 올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올바른 태도는 인성의 이성과 양심, 인격과 존엄의 관점에 서서 생각을 거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네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행한다면 대체로 정상 인성에 부합할 것이다.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일상생활 속의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모습을 말한다. 그런 모습은 너의 본직 사역과 관련이 크지 않거나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며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업무나 기술을 대하든, 아니면 상식이나 지식을 대하든 사람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추어야겠느냐? 늘 되는대로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과연 옳겠느냐?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건성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관점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인품과도 관련 있다. 큰 붉은 용은 지난 몇 천 년간 중국을 통치하면서 운동이나 투쟁만 벌였지 경제는 발전시키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신경도 쓰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되는대로 살아가는 양아치 기질을 갖게 됐다. 무슨 일이든 대충 처리하고 관점도 수시로 바뀌며 무엇을 배우든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 늘 관점이 바뀌어서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생산해 일단 큰돈을 벌 생각부터 할 뿐 그것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거나 연구하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은 경공업과 중공업,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중국인은 "우리 중국은 5 천 년 역사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중국인은 선량하고 부지런하다"며 큰소리친다. 정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모조품만 만들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냐? 왜 글로벌 시장에 가져다 팔 만한 물건이 거의 없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중국에 첨단 제품이 있느냐? 물론 중국인에게도 '최첨단'의 것이 있긴 하다. 바로 모방하고 모조품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능하고 사기를 잘 치는 것이다. 이 안에는 양아치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묘사하죠? 우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냐? 중국인의 일부 행동을 보면 이런 묘사가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 보든 민간에서 보든 중국인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더냐?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설령 본연의 일을 좀 하다가도 사회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일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일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서 손을 놓아 버린다.

인성과 관련된 것들, 즉 사람이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드러내는 태도, 사상, 관점이 문제를 말해 준다. 어떤 문제를 말해 주느냐?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 주고, 그 사람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보여 준다. 단정하고 올바른 게 무엇이겠느냐? 전통이 단정하고 올바른 것이겠느냐? 소양을 갖추고 예의가 바르면 단정하고 올바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낡은 관습을 고수하면 단정하고 올바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단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럼 단정하고 올바른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단정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 흥미 범위 내에 있는 일이든 별 흥미가 없는 일이든, 기왕 내게 맡겨진 일이니 잘 해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부터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면 마지막에 어느 수준까지 해내든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갖춰야 할 최소한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착실히 하자'이다. 어떤 일을 맡은

순간부터 대충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자료를 찾지도 않고, 세심히 준비하지도 않고, 구하거나 묻지도 않는다면, 더 잘하기 위해, 그 분야의 기술이나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우려 하지 않고, 얕보는 태도, 되는대로 살자는 태도로 대한다면, 이것은 인성의 문제다. 이는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맡긴 본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한다.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였다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정상 인성이 마땅히 갖춰야 할 것이 아니냐? 이를 단정하고 올바르다고 말한다. 이 부분의 정상 인성은 최소한 마음을 쓰고, 진지하게 대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 그리고 착실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 충분하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패괴 성품을 드러내더라도 쉽게 바로잡을 수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성이 형편없다. 하나님이 맡긴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인성은 가치도 없고 귀중하지 않으며 비천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네게 맡긴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네게 맡긴 일이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다면 이것이 정상 인성이 가져야 할 태도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형제자매가 맡긴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고 잘 대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겠느냐? 신용이 없고 부도덕하며 인성에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구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대할 수 없다. 그 자신의 일도 속이고 건성으로 대한다면 이 사람은 몹시 비천하고 가치 없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에도 마음을 쓰고 책임을 다하며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일 때 큰 차이가 있겠느냐?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비슷할 것이다. 분명 양심 없고 부도덕한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품의 차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제게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을 돌보라고 한다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집의 큰일을 처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겠느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맡기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바르며 인품이 고귀하고 인격과 신용, 덕행을 가지고 있다면 귀중하고 특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의 덕행과 신용으로 대할 것이다. 덕과 신용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이 일을 맡기시면 전 분명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진실하겠느냐? 이는 다소 허풍 떨며 남을 속이는 것이다. 양심과 이성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직해질 수 있겠느냐? 이는 빈말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 집에서 기르는 집 지키는 개 두 마리를 어떤 사람에게 보살피도록 했는데 그는 자기 집 개처럼 보살피고 관리했다. 그도 개 기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개를 꽤 잘 보살폈다. 개가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해 주었고 씻겨 주었으며 제시간에 먹이도 주었다. 그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개를 보살피는 것을 하나의 부탁이자 책임으로 여기고 보살폈다. 이는 인성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그런 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 두 마리 개를 보살피게 됐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개가 불쌍할 정도로 말라 버렸다.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않았고 나쁜 기분이 식욕에도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개가 결국 그렇게 말라 버린 것이다. 그 사람은 개들을 그렇게 대했다. 두 사람이 다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겠느냐? (인성이 다릅니다.) 개를 잘 보살피던 그 사람이 진리를 많이 깨달았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잘 보살피지 않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짧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 그 둘은 왜 그렇게 많이 다르겠느냐? 인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용이 있어서 남에게 약속한 일은 자신이 좋든 싫든 결국 해내고 만다. 어떤 일을 넘겨받든 반드시 착실하게 완성하여 그에 대한 남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도 떳떳하다. 그는 양심이 있어서 모든 일을 양심으로 평가한다. 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약속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는 "상대방이 저를 믿어 줬으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잘해야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마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는 인성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과연 개를 잘 보살핀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는 지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골머리 빠지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 일 때문에 자주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짊어진 것이다. 부담을 짊어지려 하지 않은 그 사람은 같은 본분을 받았지만 받고 나서 짐이라고 생각했고 개가 짖기만 하면 그는 짜증이 나서 이렇게 꾸짖었다. "짖긴 뭘 짖어! 또 짖으면 발로 차서 죽여 버릴 거야!" 이는 인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차이가 상당히 크다. 어떤 사람은 네가 한 가지 일을 부탁하면 성가시고 귀찮은 데다가 그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일을 또 주다니, 나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변명한다. 그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인성이 나쁘다는 사실을 변명한다. 인성이 나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런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겠느냐? 그런 사람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는 정상 인성과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내면에 그런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 진리와 정상 인성은 어떤 관계이겠느냐?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진리를 실행하려면 인성 안에 무엇을 갖춰야겠느냐? 우선 양심과 이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사상 관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정상 인성이 있는 것이고, 정상 인성을 갖춰야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다.

2)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

두 번째 측면은 일상생활 속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이다. 이는 어느 측면의 정상 인성과 관련 있겠느냐? (생활 환경 측면과 관련 있습니다.) 생활 환경은 무엇을 포함하겠느냐? 주로 개인의 생활 범위 내의 생활 환경과 자주 접하는 공공 환경,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안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돼 있겠느냐? 생활 방식, 위생 관리, 환경 관리가 포함돼 있다. 생활 방식을 더 세분하면 무엇을 포함하겠느냐? 일과 휴식, 음식, 일상 보건, 생활 상식 등을

포함한다. 우선 첫 번째인 일과 휴식에 대해 얘기해 보자. 일과 휴식은 보통 규칙이나 시간을 따르면 된다. 밤을 새워 일해야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규칙이나 시간을 따르는 게 옳다. 밤을 새우는 것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밤에는 자지 않고 분주하게 일하다가 아침에 남들이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제야 잠을 자고, 밤에 남들이 잘 때 일어나서 일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늘 남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유별나게 구는 이런 사람은 이성이 그다지 건전하지 못하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들 대체로 보조를 맞춘다. 다음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 (음식입니다.)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상 인성의 요구는 충족하기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충족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은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배탈 날 일은 없으니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테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이는 다소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비정상이고,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일부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상식과 육을 좇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생활 속의 일부 상식에 주의하는 게 육을 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가 좋지 않아서 맵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보고 "그건 식욕이고 육을 좇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배반해야 해요. 어디에 갔는데 그런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해요. 안 먹어서야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도 육을 저버리기 위해 기어코 먹고는 매우 힘들어한다.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안 먹는다고 누가 정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는 "안 돼요. 먹어야 해요!"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는 먹고 나서 괴로워해도 싸다. 그건 자업자득이다. 자신이 정한 규례이니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럼 먹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특수한 질환이 있어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고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고추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데, 기어코 무작정 먹고는 육을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는 치우치게 이해한 것 아니겠느냐? 이는 치우친 것이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먹지 마라. 몸과 싸워서 뭐 하겠느냐? 무모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런 규례를 지킬 필요도, 그렇게 육을 저버릴 필요도 없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다. 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장이 좀 약한 사람도 있으며 시력이 좀 나쁜 사람도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땀이라고는 절대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 몸을 돌봐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한 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생활 상식을 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롭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로운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음식이 맛은 없지만 몸에 이롭다면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 반면 맛은 있지만 먹은 뒤 병이 도지는 음식이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상식이다. 그 밖에 보건 상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일 년 사계절 동안 시간과 기후, 계절별로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게 대원칙이다. 몸과

싸우지 않는 것이 정상 인성이 가져야 할 사고이자 이해이다. 장염에 걸려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요."라고 말하는데, 결국 먹고 나서 끊임없이 설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과 연단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사람이 아니냐?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식탐이 너무 강한 것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어떤 것이냐? 치우친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규례에 맞추는 것이다. 원래 장염이 있었는데도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결국 설사를 하고는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준 것이라고 말하니 이는 함부로 규례에 맞추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릇된 인간이 이런 헛소리를 내뱉다니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이 이런 그릇된 인간에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함부로 규례에 맞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시련을 주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럴 자격도 부족하고 분량도 부족한 네게 하나님이 시련을 줄 리 없다.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병이 도지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보이고 지능이 건전하지 않은 것이다. 지능과 이성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시련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는 비이성적인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안일과 누림만 탐내고 진리는 조금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특히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한약이나 몸에 좋은 식품을 접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먹는다. 어떤 여자는 피부 관리를 위한 미백 및 주름 개선 제품을 보면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얼굴에 바르지만, 매일 두 시간 동안 화장하고 세 시간 동안 화장을 지우다가 결국 보기 흉하게 피부를 망친다. 그러고는 "나이 들어 생기를 잃는 자연법칙을 그 누가 당해 낼 수 있겠어요. 이 피부 늙은 것 좀 보세요!"라고 말한다. 사실 그녀가 그렇게 함부로 손대지 않았으면 그다지 늙어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얼굴에 닥치는 대로 바르다 보니 오히려 늙어 보이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뭐라고 하겠느냐?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싸다! 정상 인성은 생활 측면의 상식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이 차면 허리가 쉽게 아프다는 것, 노안이 빨리 시작되면 어떻게 눈을 보호해야 하는지,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등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보건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되지 그런 보건 상식은 배워서 뭐 하죠?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보건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 봤자 소용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구해 주지 못하죠."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다소 터무니없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상투적인 글귀와 도리만 말할 줄 안다. 마치 꽤나 영적인 것처럼 굴지만 사실 조금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일이 닥치면 함부로 규례에 맞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진리는 조금도 실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들이 옥수수 미음을 자주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몸에 좋다고 말해도 귀 기울이지 않다가 누가 돼지고기 볶음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면 돼지고기 볶음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먹는다. 먹으면서 입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좀 먹어야겠네요. 이건 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라고 말한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다. 정상 인성 안에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어떤 나이에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정상 인성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 대 때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다. 추운 날에 얼음을 먹는 걸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겁에 질려서 먹지 말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타이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프긴 뭐가 아파요. 제 몸 튼튼한 거 안 보이세요?" 그 나이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가 40 대가 되었을 때 얼음을 먹으라고 주면 그가 먹을 수 있겠느냐? (먹지 않습니다.) 60 대가 되면 먹는 것은 고사하고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찬 기운이 너무 강해서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경험이라고 하고, 삶의 경력이라고 한다. 60 세가 넘도록 살고도 얼음을 많이 먹으면 위나 몸이 견디지 못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는 정상 인성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이는 견문이 부족한 것이다. 60 대인데도 허리에는 한기가 들면 안 되고 다리에 한기가 들면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도 모른다면 그는 60 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이겠느냐? 되는대로 산 것이다. 어떤 사람은 40 대가 되면 보건 상식 같은 생활 상식을 많이 알게 된다. 또한 물질과 금전, 일, 혈육, 세상사, 인생 등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 올바른 관점과 순수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젊은이보다 아는 게 많아진다. 이게 바로 양심의 지각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20 년을 더 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질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 실제에 훨씬 더 빨리 진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20 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을 얻었고, 그런 경력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 실제의 측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네 인성 안에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생활을 대하거나 지난 20 년 동안 발생한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올바른 관점이나 정상 인성의 사고, 더욱이 정상 인성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는 그 20 년을 헛산 것이다. 내가 예전에 몇 곳을 방문했을 때 나이 든 자매 여럿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못 만들어서 찌개로 끓여야 할 것을 볶고 볶아야 할 것을 찌개로 끓이는 것을 봤다. 계절마다 나는 채소가 다른데 식탁 위에는 늘 같은 채소 몇 가지만 올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이는 지능이 몹시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정상 인성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배추나 감자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여러 식재료조차 요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걸 보면 지난 오륙십 년을 얼마나 대충 살아온 것이겠느냐? 설마 마음속에 아무런 요구도 없는 것이겠느냐? 무슨 일을 해도 경험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을 쓰고 한동안 훈련하면 배울 수 있는데, 몇 년을 배웠는데도 할 줄 모른다면 지능과 자질이 너무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어서 위생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 말해 보겠다. 최근 나는 두 곳에 갔었는데 건물 주위가 아수라장이었다. 그곳은 원래 상당히 잘 계획돼 있었는데 어째서 결국 '돼지우리'로 변했겠느냐? 사람들이 관리할 줄 모르고 정상 인성의 위생 의식과 요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게으를 뿐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손이 가는 대로 물건을 방치한 것이다. 규율이나 제한도 없어서 한 곳을 정리해도 하루 이틀 동안만 유지되고 며칠 지나면 다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다. 이 대체 무슨 환경이란 말이냐? 이런 환경에서도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겠느냐? 돼지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위생이나 환경, 구도, 관리에 대해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리 더럽고 어수선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생활하며 별로 신경 쓰거나 요구하는 것도 없다. 어떤 곳은 위생이나 환경을 괜찮게 관리하길래 그곳 사람들이 위생을 중시하고 환경을 관리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고 없이 검사해 보니 일손을 불러 미리 정리한 것이었다. 갈 거라고 미리 알리면 분명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알리지 않고 가면 환경이 다를 것이다. 분명 더럽고 어수선할 것이다. 어떤 여자아이의 방에는 옷과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밖에서 쓰는 호미나 괭이 같은 작업 도구도 옷과 함께 쌓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 정도로 바쁘겠느냐? 한숨 돌릴 시간도 없느냐? 한숨 돌릴 시간도 없다면 그건 정말 바쁜 거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으냐? 환경을 관리하는 게 어째서 그렇게 어려우냐? 깨끗하고 말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어째서 그렇게 힘드냐? 이는 인성과 관련이 있지 않으냐? 사람은 왜 그렇게 '돼지우리' 안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런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런 환경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이냐?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무엇 때문에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내가 가끔 어디를 가기 전에 간다고 미리 알리면 그들은 깨끗하게 정리해 놓지만, 자주 가면 정리도 하지 않고 "자주 오시니까 편하게 대할게요. 저희는 원래 이래요. 항상 정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 빗을 시간도 없는걸요."라며 핑계를 댄다. 또 어떤 핑계를 대겠느냐? "이건 다 가건물이니까 너무 잘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그렇다. 모두 가건물이다. 하지만 설사 텐트에서 살더라도 관리는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상 인성이다. 만약 이 정도 정상 인성도 없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 집에는 지리적 환경이 꽤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산도 있고 물도 있으며 길도 잘 정비돼 있다. 강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정자도 하나 있으며 옆에는 조경석도 놓여 있어서 상당히 아름답다. 어느 날 멀리 보이는 깨끗한 오솔길 위에 노란색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걸어가 보니 귤껍질이었다. 누가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 원래는 깨끗했던 정자에도 누가 해바라기씨를 까먹었는지 바닥에 해바라기씨 껍질이 가득 버려져 있었다. 그 사람이 규율을 이해하겠느냐? 정상 인성 안에서 사람은 위생이나 환경에 대해 요구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요구 기준이 없다니요? 저는 매일 밤 발을 씻어요. 어떤 사람은 발도 씻지 않아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너는 발은 깨끗이 씻는구나. 그런데 왜 네가 사역하는 환경은 돼지우리 같은

것이냐? 네가 그 정도 깨끗한 것이 대수겠느냐? 기껏해야 네가 몹시 이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너는 만물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정원 하나를 주어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만물의 주인이 되겠느냐? 부끄러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은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위생도 관리하지 못하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한다. 이런 습관은 어떻게 생겼겠느냐? 아무 데나 과일 껍질을 버려 놓고도 거름을 만들려고 남겨 두었다고 핑계를 댄다. 그럼 왜 거름더미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 위와 정자에 버렸느냐? 정자가 거름을 만드는 곳이냐? 이는 규율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인성과 이성, 품성이 모자란 천한 사람이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느냐? 관리 감독하면 되겠느냐? 누가 감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써야 한다.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양아치 기질이 심해서 몇 번이나 타일러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낡은 종이 상자와 부서진 나무판자, 종이 쪼가리를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늘어놓고는 나중에 쓰려고 남겨 놨다고 말한다. 기왕 쓸모 있는 물건이라면 어째서 유형별로 정리하여 가지런히 놓아두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더 보기 좋고 공간도 덜 차지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관리를 할 줄 몰라서 생활하는 환경에 아무렇게나 물건을 쌓아 두고 늘어놓는 바람에 빈자리도 하나 없다. 쌓아 둘수록 어수선해지고 어수선해질수록 더러워져서 결국 누가 보기에도 불편한 쓰레기장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겠느냐?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질을 갖추었겠느냐? 그런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원래 위생 의식도 없고 환경을 관리할 줄도 모르며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활 환경이 어때야 하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관리자가 관리할 줄 모르는 것과 관련 있다. 관리자는 관리할 줄 모르고 관리받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해서 결국 모두가 이런 식으로 '협력'하다 보니 '돼지우리'가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문 곳에 가 보면 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여기는 왜 늘 깨끗하지 않고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이런 걸 보고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런 곳에 가면 기분이 좋겠느냐? (별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진실한 느낌이다. 내가 몇 군데를 골라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마치고 정리를 끝내자 다들 보면서 즐겼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아수라장이 되는 바람에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사람을 찾아 관리시켜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몹시 더럽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보기 흉하다. 어떤 사람은 채소를 뽑아 오고 나서 어디에서 씻어야 좋을지 모르고 반드시 깨끗한 곳에서 씻으려고 해서 결국 깨끗한 곳을 또 더럽혔다.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이는 짐승 무리가 아니겠느냐? 인성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위생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환경을 관리할 줄도 모르는 걸 보면 조급해지고 화가 치민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잘 꾸며 주어 봄에는 여러 꽃나무가 자라고 산과 물, 정자도 있으며 일하고 생활할 곳도 있고 각종 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도 않는 채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는 환경이 좀 낫네. 하지만 여전히 농촌과 별 차이가 없어. 땅에는 온통 잡초랑 진흙뿐이라고.' 그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환경을 함부로 망가뜨리고 관리할 줄도 모른다. 인성에 부족한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냐! 인성 안에 갖추어야 할 것조차 갖추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측면도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한다. 사람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도 어째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겠느냐? 어째서 그 환경을 잘 관리할 줄 모르는 것이겠느냐? 왜 그렇겠느냐? 본분을 이행하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왜 그런 것이겠느냐? 본분으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생활 환경이 좋지 않지만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남들은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고 마음속으로 탄복하고 우러러본다. 반면 너희의 생활 환경은 남들이 들어가 보지 않고 겉만 보고도 무시한다. 이는 너희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네 자신의 행동이 네가 생존하는 그 형편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남들이 네 생활 환경을 보는 것은 네 본질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남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비난해서야 되겠느냐? 사람의 고귀함과 비천함은 남들의 평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 내는 것이다. 정상 인성의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너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네 고귀한 인품을 드러낼 수 있으며 사람들도 자연스레 너를 중요시하고 우러러볼 것이다. 반면, 네가 정상 인성의 측면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위생 상식도 모르며 환경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매일 '돼지우리' 안에서 살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짐승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럼 너는 비천한 것이다. 그토록 비천한 사람, 그토록 비천한 인성은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하는 여러 사상과 관점, 요구, 추구 같은 것들은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 과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불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을 믿어 오면서 그런 세속적인 일들은 깨끗이 버린 지 오래예요. 저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질 같은 건 세속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그럼 네가 호흡하는 공기도 세속적이지 않겠느냐? 네가 입는 옷과 쓰는 물품도 전부 세속적이지 않겠느냐? 너는 어째서 야외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않고 실내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이런 사람은 터무니없지 않으냐?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어렵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려면 정상 인성을 먼저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을 벗어던지고 품위와 교양, 품성을 갖춘 생활 방식과 생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문제는 바로잡기 쉽겠느냐?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쁜 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느냐? 처벌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서로 감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감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핵심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이다. 내가 보기에 벌금을 물리는 방법은 상당히 훌륭하고 매우 유용하다. 벌금을 물리는 것과 관련되면 사람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갈까 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른다. 벌금을 물리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교제하면 왜 성과를 이룰 수 없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정상 인성도, 진리를 받아들일 조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교제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역 환경에서든 첫 번째로 분류하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로 말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세 번째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다음, 이에 더해 쓰레기를 치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상 인성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어떤 여자는 매일 머리를 빗고 나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고 집을 나선다.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겠느냐? 머리를 빗고 나면 서둘러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정리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한다. 환경을 잘 관리하고 싶다면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자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고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공 환경에 대해서도 공중도덕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럿이 생활하고 휴식하는 곳은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해야 한다. 바닥에 귤껍질 몇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일부 사역 장소에서는 일을 마치고 나면 나무 조각, 톱밥, 철근, 못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바람에 걸어가다가 실수로 못을 밟기 쉬워서 몹시 위험하다. 왜 일을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 무슨 나쁜 습관이란 말이냐?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역 현장이 그렇게 더럽고 어수선한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느냐?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일을 다하고 나서 깨끗이 정리해서 남들이 보기에 사람이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짐승은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마치 청소는 그의 일이 아니고 그와 무관하기라도 한 듯 청소를 하지 않는다. 이 무슨 논리란 말이냐? 난 일을 다 하고 나서 청소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많이 봤다. 난 그들에게 매일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을 안배해 쓰레기를 전부 치우도록 해야 한다고, 매일 청소해야 현장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생활 습관을 기르려면 먼저 특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환경에 적응한 다음에는 언젠가 그 환경이 변하면 깨끗하지 않은 곳을 보고 스스로도 불편해할 것이다. 마치 해외에서 3 년, 5 년 생활한 사람이 해외는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고향에 돌아오면 자신이 갑자기 고귀해진 것처럼 느끼고, 남들이 위생을 중시하지 않거나 누군가의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시하며 며칠 씻지 않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생활 환경 때문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위생이나 환경을 잘 관리해야만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역시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하는 측면이다. 나는 몇몇 곳에 방문했을 때 일부 여자아이들이 사는 방이 말끔하지 않고 아수라장인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말끔하게 하라는 건 꼭 군대 같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매일 침대와 방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매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습관이자 정상 상태,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면 이런 생활 습관을 기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네 요구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그 단계가 높아지면 너라는 사람 자체의 기질과 정신 면모, 격조와 인성, 존엄성도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돼지우리' 안에서 생활한다면, 짐승 우리처럼 사람이 머물 만하지 않은 곳에서 산다면 너는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 안과 바닥이 모두 깨끗한 걸 보고 문밖에서 계속 신발을 문지르는데, 그러고도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예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간다. 주인은 꽤나 깨끗하고 그를 존중하는 네 모습을 보고 너를 존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발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집에 들어가고 바닥에 진흙이

묻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은 천성적으로 규율을 모르는 네 모습을 보고 너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앞으로는 너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밖에서 기다리게 할 것이다. 이는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당신이 들어오면 이 집을 망치는 거야.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청소를 얼마나 오래 해야겠어?'라는 뜻이다. 그는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네게 사람다운 모습이 없는 걸 보고 그는 너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된다. 살다가 그 지경에 이르면 그게 과연 사람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반려동물만도 못하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정상 인성을 갖춰야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어디에서 생활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사람은 규율을 잘 지켜야 하고 환경과 위생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며 책임감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기준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마음을 쓰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본분을 이행하거나 처신할 때 남들은 네가 단정하고 올바른 좋은 사람인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탄복하며 자연스레 너를 존중할 것이다. 또한 너를 우러러보고 중요시하며 희롱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고, 너와 말할 때도 진지한 태도를 취하며 네 말을 비웃거나 멸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 나와 접촉하는 보통 사람 중 내게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진지해. 말과 행동이 모두 진지한 올바른 사람이야. 당신과 어울릴 때는 농담을 못 하겠어. 당신은 딱 봐도 농담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어떤 곳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귈 때 사람들은 네 인성과 품성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너는 스스로 알 것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매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과 접촉하는지에 대해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울리면 사람들은 네가 너무 엄숙하다고, 무슨 일을 처리하든 너무 진지하고 엄숙한 데다가 너무 원칙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느냐?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처신할 때 정상 인성 안에 갖춰야 할 이런 측면들을 갖췄다면, 사람들이 뒤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네가 올바르고 엄숙하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고 네 품성이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너와 접촉하고 사귀는 동안 그는 너를 칭찬하고 우러러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만약 한동안 접촉해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게걸스러우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능력은 없는데 눈만 높은 데다가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는 것, 위생도 중시하지 않고 환경을 관리할 줄도 모르며 무슨 일을 하든 요령을 찾아내지 못하는 데다가 자질도 몹시 떨어진다는 것, 신용도 없고 무슨 일을 맡기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사람 마음속에서 분량이 조금도 없게 되고 폐기 처분될 것이다. 사람 마음속에서 분량이 조금도 없는 것은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비천하고 가치 없으며 짐승처럼 마음과 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너는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너는 구원받으려면 멀었다! 인품이 불합격이고 말과 행동에 규율이 조금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언젠가 도태될 것이다.

3) 이성을 접할 때의 태도와 모습

세 번째 측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성을 접할 때의 태도와 모습이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인성의 어느 측면과 관련 있겠느냐? 존엄, 염치, 품행과 관련 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접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일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들거나 그릇된 정욕을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상 인성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냐? 정상 인성의 표징이냐? 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성과 만나 연애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해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지 않고 눈에 드는 상대를 보면 며칠 시시덕거리고, 마음에 들거나 마음이 맞는 이성을 보면 바로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과시하느냐? 추파를 던지거나 말할 때 말투를 바꾸거나 어떤 몸짓을 하거나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이것이 바로 과시다.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면 장담하건대 곁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품행이 좋지 않고, 남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자니,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경박하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중하지 않는 것이다. 경박한 사람은 자애를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본분을 이행하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를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 추구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됐지, 이 일에 대해 뭐 말할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인성의 염치, 그리고 존엄과 관련되어 있다. 인성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정상 인성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신용도 꽤 있고, 일도 꽤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네가 이성과 시시덕거리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피해가 되겠느냐? 만일 상대가 너를 사랑하게 되면, 넌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는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말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면서 시시덕거리다니 그건 사람을 농락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람을 해치는 짓이다! 이는 좀 부덕하다! 이런 사람은 인품이 나쁘다. 그 밖에, 연애할 생각도 아니고,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성에게 추파를 던지고 위트와 유머를 뽐내며 네 풍격과 멋,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을 과시하는 건 무슨 의미이냐?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뜻이 좀 있다. 유혹이라는 행위는 고상하냐, 악랄하냐? (악랄합니다.) 이러면 존엄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남을 유혹할 수 있겠느냐? 창녀, 음탕한 여인, 불량배 같은 사람은 염치를 모른다. 염치를 모른다는 건 어떤 것이겠느냐? 뻔뻔스러운 것이다. 명예와 절조, 수치, 영예, 존엄, 명성 같은 것들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과시하고 시시덕거리는데, 그는 한두 명과 시시덕거리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덟이나 열 명과 시시덕거려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천, 수만 명과 시시덕거릴 수 있어야 기뻐한다. 어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는데도 남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왜 남들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고 임자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남과 시시덕거리지 못하고 남을 꾀거나 유혹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뻔뻔스럽지 않으냐? 인성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상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상 인성이 아니다. 이 말은 네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네 정상 인성 안에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염치와 존엄이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성 곁에만 가면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정돈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치장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유혹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 인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면서도 아무 느낌 없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흔하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염치없는 것이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여자는 만 위안을 주고 나체로 길거리에서 한 바퀴 돌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한다. 이건 어떤 인간이겠느냐? 염치가 없는 인간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염치를 모르는 인간으로, 그녀가 보기에 명예와 절조, 인품, 염치, 존엄은 별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 그녀는 과시하고 유혹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이고, 더 많은 사람이 그녀를 주목하고 쫓아다녀야 즐거우며, 이는 여자의 최고 영예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존엄이나 염치, 인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좋은 인성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냐, 아니면 드무냐? 자신을 단속할 능력은 있느냐? 자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염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시적으로 충동을 느끼거나 제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창피하며 서둘러 뉘우쳐야 한다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단속할 수 있다. 네 인성 안에 이 정도 자기 구속력조차 없다면 네게 진리를 실행하라고 했을 때 네가 무엇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조금 괜찮아서 이성이 쫓아다닌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과시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느냐? (화를 보면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화이니 피해야 한다. 피하지 않으면 누가 네게 달라붙을지도 모른다. 네게 달라붙기 전에 피해야 하며, 이를 자기 단속이라 한다. 자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염치와 존엄이 있다. 자기 단속을 못 하는 사람은 누가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누가 쫓아다니면 걸려드는데 그럼 골치 아파지는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과시하고 치장하고, 입었을 때 훨씬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는 옷을 골라 일부러 매일 그것만 입고 다니는데, 이는 위험하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행위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유혹적이면, 너는 육을 저버리고 그런 옷을 포기해야 한다. 네게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만약 네게 그럴 의지가 없고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라면, 둘이서 정상적으로 사귀되 다른 사람은 유혹하지 마라. 네가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유혹하면, 그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너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다면 그럴 힘과 동력이 있으니 쉽게 지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단정한 사람인 데다 하나님을 믿은 후 진리를 추구하며 올바른 길을 걷느라 그럴 마음이 없어서 누가 유혹해도 상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너는 이성 교제라는 일을 올바르게 대하고,

다시 살펴보며, 이 일을 정상 인성의 존엄과 염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염치가 없는 것과 인성이 없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염치가 없는 것은 인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인성이 없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 사람이 인성을 갖추면 진리 추구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느냐? 염치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는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거나 진리를 위배했을 때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가 올바른 길에 오를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사람은 무감각해서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어때서요? 거짓말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염치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염치 있는 사람은 만약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남들에게 들키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반면 염치없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는 '무슨 정직한 사람이 되느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니, 남들 마음속에 내 가치와 분량이 어떠니, 그런 건 다 상관없어!'라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런 그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을 하고 난 그에게 마음이 평안한지, 참소가 있지는 않은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평안한 게 뭐예요? 참소가 뭐죠?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는 그런 지각이 없다. 이렇게 이성이 건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 진리와 진리에 위배되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고, 그것들 모두 똑같으며 어차피 모두가 힘을 들이고 본분을 이행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그거면 됐고 그런 일들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도,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더라도, 남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하더라도,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하더라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염치없는 것 아니겠느냐? 염치없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진리로 평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염치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거나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염치가 없는 것과 인성이 없는 것의 관계이다. 그럼 너희는 어째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진리와 큰 관련도 없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분명히 알고 있던 그런 일들을 당신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너희는 그런 것들이 진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진리 실제에 얼마나 진입했느냐? 너희는 정상 인성을 살아 냈느냐? 너희가 정말로 진리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느냐? 분량이 너무도 작아서 그런 일들을 명확히 분별하지도 못하는 너희에게 무슨 진리 실제가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10 가지 행정 법령 중 하나는 '사람에게는 패괴 성품은 물론, 감정까지 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며 섬길 때 남녀가 단둘이 함께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출교한다.'이다. 사람은 이 행정 법령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한 남자가 여자 30 여 명과 부당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듣자마자 놀라고 경악하며 "세상에, 그렇게나 많다니!

역겹지도 않나?"라고 할 것이다. 그 남자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처럼 대한다. 그에게 오늘 무엇을 먹었냐고 물으면 그는 "쌀밥이요."라고 답하고, 여자 몇 명과 놀아났냐고 물으면 "30 여 명이요."라고 답하는데 답하는 말투나 마음가짐이 완전히 똑같다. 이런 인성이 구제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더라도 구제될 수 없다.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다니 어쩜 그리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냐?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럼 그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에게 아직 염치가 있겠느냐? 없어졌다. 인성 안의 양심과 지각이 모두 무감각해졌다. 지각이 없어졌다. 이는 단지 타락의 문제가 아니다. 염치도, 존엄도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막상 일을 처리하면 엉망이다. 못하는 짓이 없고 염치를 모른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오늘 다룬 정상 인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냐? 정상 인성 안의 그런 것들이 진리 추구와 관련 있느냐, 없느냐? (관련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진리 추구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인성에 세심하고 책임감 있고 마음을 다하는 면이 없다면, 이런 인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요 몇 년간 다양한 측면의 진리를 적지 않게 교제했는데, 만약 사람이 마음을 다하지도,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대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진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런 도리나 용어만 기억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런 정상 인성을 갖추지 않고 네 인성 안에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물을 대할 때 진지하고 세밀하며 착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너에게 도리와 구호, 규례가 될 뿐이며 너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생활 환경, 규칙, 방식 같은 것들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네가 진리에 관한 여러 측면의 원칙과 가르침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진입할 수 없다. 그 밖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물을 대할 때는 사랑해야 하고 부정적이거나 사악한 사물을 대할 때는 마음속으로 혐오하거나 반감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일부 진리에 진입할 수 있다. 즉, 너는 진리를 추구할 때 올바른 태도와 단정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너는 올바르고 진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 사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마음속으로 무감각하고 지각이 없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진리가 네게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도 없다. 진리가 네게서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여 너를 구속하지도, 책망하지도, 주도하지도 못하며 네게 방향이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너는 곤란해진다. 염치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달으려면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민감해야 한다. 부정적이거나 사악한 사물을 듣거나 접촉하면 마음속에 반감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부끄럽고 불안해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리로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의 옳지 않은 내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는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기가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도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빈말이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정상 인성 안에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진리가 네 안에서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비로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네가 진리를 깨달으면 네 사상을 바꾸고 행동을 단속할 수 있으며 패괴된 생각도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변화이다.

너희는 오늘 다룬 정상 인성의 모습들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얼마나 부족하냐? 너희는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염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염치를 갖추고 있다니 좋은 일이다. 염치는 최소한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해 너희는 진지하고 세밀하게 대하는 심리와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 빈둥거리고 게으르고 꾸물거려서 너희가 처리한 일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민다. 너희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 마음속으로 걱정되지 않겠느냐? (걱정됩니다.) 어떤 식으로 걱정되었느냐? 말해 보아라. (방금 하나님의 교제를 다 듣고 나니 자신이 인성이 없고, 본분이나 생활 속의 일을 대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두렵습니다.) 인성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으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갖추고 있지 않으니 마음속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술은 좀 알지만 무엇을 만들든 촌스럽고 질이 낮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는 선진적이거나 기준에 맞는 방법은 살펴보지 않으니 생각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문을 설치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부분 문을 한 짝만 달아요." 네가 살던 그 작은 지역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도시의 상업건축이나 주택의 문은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제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문을 두 짝 달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비집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누가 "비집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문틀이 다 망가질 거예요. 우리 상의 좀 해 봐요. 이번에는 특별히 문을 두 짝 달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그는 "안 돼요! 문은 한 짝만 달아야 해요. 두 짝은 안 돼요. 기술을 제가 알지 당신이 알아요? 기술을 아는 건 저인데 왜 제 말을 듣지 않죠? 제 말을 따라야죠!"라고 한다. 상황에 맞게 만들라고 해도 그는 따르지 않고 기어코 문을 작게 달겠다고 하니 이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 안에 있는 방과 밖에 있는 방 사이에 빛이 통하면서도 공간이 작아지지 않게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리를 설치하다니요? 유리를 설치하면 보안상 위험하지 않겠어요? 유리는 설치하지 말고 이 여닫이문 하나만 달면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부 이런 문을 달아요." 그는 늘 '우리 지역', '제 고향', '저는 기술을 배웠어요'라는 것들로 남을 압박하는데, 그게 진리냐? (아닙니다.) 외부의 일을 이런 태도로 대하는 건 인성 안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이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성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하겠느냐? 견문이 부족하다. 그는 늘 자신이 살던 지역의 것이라면 뭐든 옳고 뭐든 가장 뛰어나며 뭐든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성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느냐?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어때야겠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몇 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본 게 많진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을 만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문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만들게요. 지역이 달라졌으니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죠." 이성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이성적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비이성적이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만들면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손실을 본다. 이런 일이 많지 않으냐? 많다. 이 사람은 심하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느 정도로 고집을 부리겠느냐?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내 말조차 따르지 않으며 내게 대들기까지 한다. 내가 "너는 반드시 바꿔야 해. 바꾸지 않으면 너를 쓰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는 감히 "저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크기로 만들 거예요!"라고 한다. 이는 무슨 성품이란 말이냐? 이게 정상 인성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정상 인성이 아니다. 그럼 무슨 인성이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짐승과 조금 비슷하다. 이는 마치 목마른 소가 수레에 물건이나 사람을 얼마나 싣고 있든 물웅덩이나 강을 보기만 하면 수레를 끌고 그대로 돌진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잡아당겨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동물은 이러한데, 사람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으면 그것은 정상 인성이 아니고 아주 위험하다. 그는 이유를 찾아 너의 것을 부정하고 네 말을 따르지 않는데, 특히 우완하다. 일상생활 속의 이런 사소한 일에서조차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다들 문을 두 짝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 이는 진리 실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올바른 제안일 뿐인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진리에 관한 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품을 갖추고 있으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곤란하다. 인성 안에 이 정도 이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데 무슨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매일 누구를 위해 그런 사소한 일을 바쁘게 처리하는 것이겠느냐? 모두 자신의 기호나 사욕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하루 종일 악만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속이 그토록 악한데, 하는 일은 어떻겠느냐? 생각이 전부 악한데 하는 일이 모두 진리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모순이다. 생각이 전부 악하고 출발점이 모두 악하다면 하는 일은 최소한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되지 못하는 일 중에는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도 있고 파괴적인 것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은 것도 있다. 진지하게 따진다면 정죄받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역겨운 느낌이 들게 한다. 은사나 특기, 혹은 솜씨나 재주가 좀 있거나 특수한 기술을 부릴 줄 아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가 옳으냐? 이런 관점은 어떠냐? 이게 정상 인성의 사유 속에 있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이는 어떤 생각이겠느냐? 이는 비이성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솜씨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하나님 집에서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낫다고. 나는 남자고 솜씨와 재주를 갖춘 데다가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집에서 출중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내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나를 지도하거나 지휘할 수 없어.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원칙은 고려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다 옳고 진리에 부합해.' 이런 관점은 어떠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이런 사람은 적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집에 와서 과시한다. 이들이 자신의 특기와 기술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괜찮지만 과시하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문제의 성질이 다르다. 왜 과시한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유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이는 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실제로 정말 그렇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라보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방인에게서 배우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큰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두 집안일이나 하는 남녀나 농민, 사회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궁지에 빠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능력이 좀 있고 업무를 좀 알고 한 분야의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자신이 하나님 집에서 인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집에는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업무를 좀 처리할 줄 아니 권력을 잡고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너희 곁에, 너희가 익숙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일부 사람은 특정 분야의 기술을 다룰 줄 알아서 그에게 팀장이나 책임자를 맡게 하면 그는 자신이 관직에 올랐고 하나님 집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큼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고 지키는 사람, 자신만큼 충성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려 하지만 제대로 관여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진리 원칙을 구하지도 않으며 내가 하는 말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들은 특정 분야의 기술을 다룰 줄 안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두에게 관여하려 하고 관직에 오르려 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행동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 관리 좀 해야겠어. 정말 꼴불견이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리를 교제해야 한다. 여기는 군사 관제를 실행해야 하는 군대가 아니다. 교회 안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여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책망 훈계하면 된다. 한사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만 관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책임자나 리더 일꾼이 되면 분명 자신도 진리 실제가 없으면서 늘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잡고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이런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그는 그저 업무 기술에 대해 좀 알 뿐, 진리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쓸모 있고 능력 있으며 하나님 집에서 보통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혼자서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그는 진리 원칙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기호대로 행동하려 한다.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추고 있겠느냐?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다. 정상 인성의 측면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3.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이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주제인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를 교제하겠다. 이 조항은 네 가지 소주제로 나뉘는데, 지난번 예배 때 두 가지를 다루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지닌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느냐? 어떤 사역을 맡든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역을 맡는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리더 일꾼이 책임지는 여러 사역과 각 팀의 책임자나 팀장이 책임지는 사역이 포함되고 업무적 사역이나 개인적 사역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사역을 맡는 사람은 리더 일꾼일 수도 있고 평범한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떤 내적 상태이겠느냐? 어떤 모습이 이 몇 가지와 관련 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제 8 조 가운데 또 한 측면의 모습이자 또 한 측면의 본질의 표출이다. 여러 가지 본분 가운데 업무 사역에 속하는 것도 있고 생명 진입과 직결된 것도 있다. 업무에는 기술과 지식, 학문, 인사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사역 하나를 맡고 나면 혼자 사역을 시작하고 다른 이와 상의하려 하지 않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설사 누가 견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우려 해도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다른 이가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는 어떤 성품에 지배받은 것이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업무도 알고 이 측면의 이론도 알아. 교회에서 이 측면의 사역을 내게 맡겼으니 난 혼자 행할 거야.' 그는 자신이 업무를 알고 업계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에게 사역에 관한 어떤 정보나 사역 진도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 사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잘못, 실수도 다른 이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누가 알아차려서 관여하고 참견하거나 알아보려 해도 그는 답하길 거부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 사역 범위 내의 일은 제 영역이니 당신에게는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당신이 아닌 제게 맡겼으니 저는 비밀을 지켜야 해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겠느냐? 이렇게 비밀을 지키는 게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겠느냐? 사역 상황, 사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문제, 사역의 계획이나 방향을 다른 이에게 교제하는 것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일부 세부 사항을 말하면 교회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비밀을 지켜도 된다. 하지만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의 사역 범위 내의 일을 다른 이에게 알리기를 거부한다면, 평범한 형제자매든 리더 일꾼이든 그들이 관여하고 자문하고 알아보는 것에 반발하거나 그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다른 이가 그에게 "그렇게 처리하면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을 입고 당신도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 말대로 처리하면 남들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럼 공로도 당신 게 되잖아? 안 돼. 내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당신 말대로 처리할 순 없어.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을 입든 말든 내 명예와 지위가 중요해. 내 위신이 중요하다고!' 그는 일을 잘못했을 때 잘못한 줄 알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이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이는 개인의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주로 하지 않으며 이런 원칙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대신 그 개인의 이익을 위주로 하고 그의 지위와 위신을 위주로 사역한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 하나님 집의 이익이 그 개인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는 순간 그의 지위와 이익이 위협받고 그의 결함과 부족함, 그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오류가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그 누구의 협력과 감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에 종사하든 상부에서 알아보고 질문할까 봐 두려워한다. 상부에서 사역 상황이나 인사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은 그저 얼버무리면서 피상적인 일들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부에서 알아도 되는, 알고 나서도 아무 뒤탈이 없을 일들만 말한다. 만약 나머지 일들에 대해 또 질문하면 그들은 자기의 본분이나 '내정'에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며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이고 감춘다. 이는 하나님 집의 감독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그들의 문제를 발견해 그들을 폭로하거나 상부에 보고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지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위협하기까지 한다. "당신이 말해서 상부에 책망받으면 그 책임은 당신이 질 거예요. 책망을 받아도 당신이 받을 거라고요!" 이는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질문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들의 사역 범위 내의 일에 대해서는 알 권리도, 자문할 권리도 없으며 제안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그들이 한 가지 사역에 개입하면 그 사역 범위 내의 일은 오로지 그 혼자만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으며 오직 그들만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다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누가 물어보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느냐? 얼버무리거나 숨긴다. 또 어떻게 하겠느냐? (속입니다.) 그렇다. 속인다. 심지어 허상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리더나 복음 집사는 분명 그가 책임지는 교회에서 한 달에 세 명밖에 얻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 훨씬 적어서 그 사실을 상부에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사역을 보고할 때 3 뒤에 0 을 하나 붙여 30 명을 얻었다고 말한다. 누가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건 속이는 거 아닌가요?"라고 따지면 그는 "속이다니요! 다음달에 30 명을 얻어서 보충하면 되잖아요?"라며 이유가 당당하다. 누가 이 일을 진지하게 여기고 상부에 실상을 보고하려 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을 귀찮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처리하며 못살게 군다. 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니겠느냐?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사역할 때 절대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그가 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어떤 나쁜 일을 하든 일을 하는 속셈이나 동기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엄격하게 비밀을 지킨다.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기밀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는 무엇이겠느냐?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요즘 뭐 해요? 본분 이행에 성과는 있나요? 사역 범위 내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없나요? 어떻게 처리했나요? 사역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있나요? 사역을 하며 내린 결정이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지는 않았나요? 합당하지 않은 리더들을 교체했나요? 자질이 뛰어나고 진리를 추구하는 편인 사람들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불복하는 사람을 억압한 적은 없나요? 자신의 패괴 성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그들은 이런 주제에 가장 민감하고 이런 주제를 가장 두려워해서 네가 묻기도 전에 서둘러 다른 주제를 찾아 감춘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너를 오도하여 네가 실상이 어떤지 알지 못하게 한다. 늘 너를 불분명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가 어느 정도까지 사역을 했는지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조금도 투명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사역을 보고하지도, 자신이 사역하다가 저지른 실수를 보고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사역하다가 마주한 어려움이나 곤혹스러움에 대해서도 절대 묻지도, 구하지도, 털어놓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감추고 가리고 속인다. 적그리스도는 사역할 때 조금도 투명하지 않고 상부에서 그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설명하라고 따져 물어야만 마지못해 조금 말한다. 자신의 명예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죽어도 말하지 않고 한 글자도 내뱉지 않으며 못 알아들은 척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쉽겠느냐? 상부에서 사역을 지도하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얼버무린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 노트나 컴퓨터에 계속 받아 적지만 다 적고 나서 그가 깨닫고 사역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여 주려고 폼을 잡고 즉흥적으로 연기하여 미혹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사역은 어차피 내게 맡긴 거니까 내게 결정권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도 간섭 못 해. 당신 지위가 높다고 해도 실권은 담당자에게 있어. 내게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내게 시키지 말고 나를 물러나게 하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아주 골치 아프다.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도, 자문하거나 알아봐서도 안 된다. 그는 유독 민감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상부에서 내 문제와 사역을 조사하려는 거 아니야? 누가 비밀을 누설했지?' 그는 당황해서 대체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지 계속 궁리하다가 결국 의심 가는 두 사람을 떠나보낸다.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느냐? 지위를 독점하고 사람을 통제한다. 그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그는 지위를 얻기만 하면 당당하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왜 당당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긴 것이고 형제자매가 그를 뽑아서 그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의 자본이 된 것이다. 이는 "당신들이 저를 뽑았잖아요? 저를

뽑았으면 저를 믿어야죠. 이방에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도 있잖아요."라는 뜻이다. 그는 여기서 사탄의 명언까지 들먹인다. 이 말이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그릇된 주장이자 황당한 이론이다. 그의 사역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이런 이론을 찾아낸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는 말처럼 저를 썼으면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저를 간파하지 못했다면 쓰지 마세요. 기왕 당신이 저를 썼으니 저는 이 지위에 서야 하고 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해요." 사역에서는 무슨 일이든 그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그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게 파트너를 찾아 주려 하면 안 되며 남이 감독하거나 지도해서도 안 된다. 누가 그의 사역을 캐물으면 그는 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위와 직권을 이용해 사람과 사역 현장, 교회 사역을 당연한 듯 통제한다. 이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은 그 사역을 하고 그 본분을 이행하도록 했지 여기서 권력을 잡아 독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집의 안배를 오해한 것 아니겠느냐? 그는 왜 늘 지위와 권력만 붙잡고 본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교회에서 그에게 사역을 안배하는데 그는 왜 오해하겠느냐? 그는 원래부터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본성 본질을 가졌으며 그런 작자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역을 안배하면 그는 자신에게 권력과 지위가 생겨서 자신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고 네가 그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리더 한 명에게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검사하도록 안배했다고 하자. 그와 적그리스도 모두 급이 같은 교회 리더라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도 교회 리더이고 저도 교회 리더예요. 우리는 급이 같으니까 당신은 제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을게요. 제게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상부에서 그러라고 지시했나요? 증거를 대세요." 그 리더가 "상부에서는 제게 말을 전하라고만 했어요.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당신은 무슨 근거로 제게 교제하고 저를 꾸짖는 거죠? 무슨 근거로 제 사역 범위 내의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이런 말들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행동 방식이겠느냐?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벼슬이 한 단계 높으면 사람을 눌러 죽인다."라는 말이 있다. 그들은 누가 더 관직이 높은지, 세력이 큰지, 능력이 뛰어난지 비교하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지 비교한다. 하나님 집에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그들은 이곳에 잘못 온 것 아니냐? 패괴 성품은 있지만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 급이 같은 교회 리더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표출은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람과 교제하지 절대 "당신이 제 사역에 대해 물어볼 자격이 있나요?"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자 부탁이고 우리의 본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이건 아무 관직도 아니라고. 교회 사역, 형제자매의 상황, 내 사역 경험 모두 당신에게 교제할 수 있어.' 하지만 적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을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지위와 권력에 대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교활하고 음험하다. 교활함과 음험함은 어디에서 드러나겠느냐?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직접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다 비밀이고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서 남을 경계하고 전부 싸매고 감추고 숨긴다. 그러니 그가 사람과 사귈 때 정상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겠느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네가 실제 사정을 알 수 없게 표면적이고 원칙적인 말, 듣기 좋은 말만 한다. 너는 그와 한동안 접촉하고 나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 같지 않은데 왜 늘 그의 마음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왜 그와 접촉하면 이렇게 어색하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느낌이야.'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경계한다. 왜 경계하겠느냐? 그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지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자칫하거나 까딱하면 다른 사람에게 실상이나 내막이 알려져 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그에게 사역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하는 상황과 개인적인 내적 상태를 물어보면 그는 숨길 수 있는 한 숨기고 포장할 수 있는 한 포장한다. 포장하지 못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원만히 해결하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무도 볼 수 없게 숨어 버린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괴이해서 한 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때 누구와도 정상적으로 왕래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는 매일 혼자 지내며 식사 때만 나타났다가 식사가 끝나면 다시 자취를 감춰 늘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는 왜 사람과 왕래하지 않겠느냐? 그는 가족에게는 무엇이든 말하면서 왜 형제자매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말을 신봉하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말이 진상을 드러내 자신의 약점을 폭로할지 모르고 어떤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상을 알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피한다. 그는 무심결에 이렇게 피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어떤 것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겠느냐? 어떤 것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광명정대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겠느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왕래하지 못한다. 때로는 그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만 그가 말하는 일들과 내용들은 다 무엇이겠느냐? 그는 글귀와 도리로 자신을 과시한다.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능력은 조금도 없다. 그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지, 교만한 성품은 없는지 물으면 그는 "패괴된 인류 중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한다. 보아라, 그는 교만함에도 근거를 댄다. 사람들을 모두 그 안에 포함시켜서 마치 그의 교만함이 정당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절대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사역에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며 그에게서 아무런 실상도 알아낼 수 없다. 그는 할 일이 없으면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말만 했다 하면 밑천을 뽐낸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어떤

패역과 사치스러운 욕망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는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었는지, 사역할 때 어떤 야심이 있는지는 절대 드러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언급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사역 범위에 관한 문제도 그저 건성건성으로 말할 뿐이다. 어쨌든 그와 접촉했던 사람은 접촉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인사이든 업무이든, 아니면 사역 진도이든 그의 본분 범위 내의 일을 파악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 어떤 각도에 서 있든, 빙빙 돌려 물어보든 직접적으로 묻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든 결과를 얻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정도로 힘들다. 이는 음험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실상을 좀 얻기가 왜 이렇게나 힘들겠느냐? 그는 왜 이토록 꽁꽁 포장하겠느냐?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가지고 있는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는 '간신히 이 지위를 얻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한순간의 부주의로 잘못을 저질러서 웃음거리가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하나님 집에서 알게 되면 나를 처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잖아.'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라고 한들 그가 귀 기울여 듣겠느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가 가진 신념은 오직 하나뿐이다.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아무 일이나 다 남에게 말하는 건 능력 없고 무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신념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이든 다른 이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감독하는 것은 더더욱 허락하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주로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것이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주된 목적이다. 리더 일꾼인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서 너희 사역을 물어보거나 감독할까 봐 두려우냐? 하나님 집에서 너희 사역의 허점과 편차를 발견하고 너희를 책망할까 봐 두려우냐? 상부에서 너희의 실제 자질과 실제 분량을 파악한 후 너희를 달리 보고 발탁하지 않을까 봐 두려우냐? 만약 네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는 너의 속셈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는 것임을 의미하며, 너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악을 너 역시 행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의 감독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부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알아보든 숨기는 것 없이 아는 그대로 착실하게 보고할 수 있다면, 네가 한 말이 옳든 옳지 않든, 네가 어떤 패괴를 드러냈든, 설령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을지라도 너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네가 자신의 적그리스도 성품을 인식하는지, 진리를 구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덮고 속이면서 책임을 미루려고 하며,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에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다. 어째서 네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참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상부에서 제 사역에 관해 물어보면 아는 만큼 대답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저지른 잘못이 탄로 나 상부에서 더 이상 저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지위를 잃게 된다고 해도 저는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 집에서 사역을 감독하고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진리보다 지위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느냐? 그 무엇보다 지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너는 왜 그렇게 지위를 소중히 여기느냐? 지위가 네게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주느냐? 만약 지위가 네게 재앙과 어려움, 난감함과 고통을 가져다준다면 그래도 지위를 소중히 여기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매우 많다. 다른 이의 선망과 존경, 우러름, 아첨 및 다른 이의 감탄과 경모의 눈빛 그리고 지위가 가져다주는 우월감과 우선권은 네 체면을 세워 주고 몸값을 높여 준다. 이 밖에도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위의 복과 특별 대우를 누릴 수 있는 것 등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네가 감히 상상조차 못 한 것이자 꿈에 그리던 것들이다. 너는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만약 실속 없는 지위일 뿐이고 어떤 실제적인 의미도 없고 그 지위를 지켜 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느냐? 네가 육적인 이익과 누림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명리와 지위는 너를 옭아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위를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겠느냐? 먼저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 악을 행하고 기만행위를 하며, 속이고 숨기고 하나님 집의 감독과 질문, 추궁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성질의 문제인지 꿰뚫어 봐야 한다. 이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하는 행위가 아니냐?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의 성질과 결과를 꿰뚫어 본다면 지위를 추구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사역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 파트너가 있느냐? 감독을 받아들이느냐? 다른 이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누가 질문하면 "당신이 뭔데 제 일에 개입하죠? 저는 당신보다 직위가 한 단계 높아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한다고요. 상부에서도 질문하지 않는데 당신이 뭘 믿고 제게 질문하죠?"라고 반발한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냐? 적그리스도의 주된 성품은 무엇이냐?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은 채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로운 일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행하고 속이며 형식만 갖춘다. 그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가 처리하는 일을 보면, 첫째로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둘째로는 효율이 떨어지며, 셋째로는 효과가 별로 좋지 않고 엉망진창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조금이라도 사역할 기회가 주어지면 권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으로, 그는 권력만 있으면 된다. 그는 업무에 관한 것이든, 외부의 일에 관한 것이든, 기술에 관한 여러 방면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사역도 투명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 그가 아무 의도 없이 불투명하게 사역하겠느냐? 아니다. 의도치 않은 것은 성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자질이 떨어지고 사역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왜 이 성품을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그는 의도적으로 그러기 때문이다. 그는 꿍꿍이를 품고 있다. 즉, 네가 늘 지적하며 관여하거나 실상을 너무 많이 알지 못하게, 네가 그의 본모습을 간파하지 못하게 의식적으로 네게 알리지 않고 너를 피하고 너와 만나지 않으며 너와 말도, 소통도, 교류도 적게 하고 그런 일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안에 속셈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속셈과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너를 속여 어물쩍 넘어가고 네가 실상을 알지 못하게 허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지위가 보전되면 그는 흐뭇해한다. 이런 성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데, 모두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다.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해야 하는 사역이 있겠느냐? 없지 않으냐? 밥 먹고 잘 시간도,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사역은 없다. 그 정도로 바쁘진 않다. 그런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럴 시간이 없겠느냐? 그는 너와 만나고 싶지 않고 네가 그의 사역에 관한 일을 그에게 질문하는 게 싫은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그가 바로 불신파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불신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자기가 차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권력의 통제 아래에 두는 일을 할 수 없다. 불신파가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하나의 구호일 뿐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고 감독하려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감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질문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감독하시겠다면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묶인다고요. 결정은 늘 당신이 하면서 저한테는 지시만 따르라고만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산 하나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이는 일종의 이론이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성품은 어떻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산 하나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상부에서 질문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상부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네 행동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단 말이냐? 질문하면 네가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말이냐? 상부에서 사역을 망치겠느냐? 상부에서 사역을 지도하거나 사역에 대해 질문하고 감독하는 것이 사역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겠느냐, 아니면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겠느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째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인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가 책임지는 사역에 대해 질문하면 그는 자신의 이익과 지위,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생각해서 언짢아하고 자신의 계획과 절차가 엉클어진다고 생각해서 불편해한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상부에서 그와 협력할 사람을 발탁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저 사람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상부에서는 저 사람이 좋다고 우기면서 발탁해 버렸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와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지? 상부에서 그를 쓴다면 난 때려치울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정말 실제로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맞서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역이 그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를 돋보이지 않게 하거나 방해한다면 그가 납득하겠느냐? 납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상부에서 한 사람을 발탁하거나 교체하면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 체면을 너무 안 세워 주네. 내 동의를 구하지도 않다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도 직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내게 미리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지?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잖아!'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게 네 사역이냐? 첫째, 그건 네 관할이 아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너를 따르는 게 아닌데 왜 굳이 너를 신경 써야 하느냐? 그게 진리에 부합하느냐? 어느 진리에 부합하느냐? 상부에서 사람을 발탁하거나 교체할 때는 원칙이 있다. 왜 사람을 발탁하겠느냐?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교체하겠느냐?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그 사역을 못 하기 때문이다. 네가 교체하지 않으면서 상부도 교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상부에서 한 사람을 교체한다면 제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교체할 테니 저한테 귀띔해 주세요. 그건 제 사역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교체해서 모두에게 제가 사람을 간파할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안다는 걸 보여 주면 얼마나 체면이 서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논리를 따지는데 그게 통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사역할 때 하나는 진리 원칙을 따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상황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지켰는지 따질 일이 없다. 특히 상부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교체하거나 특정 사역을 지도하고 지시할 때는 더더욱 위계질서를 따질 일이 없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이런 트집을 잡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사람의 머리와 세상의 절차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그의 주된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주도면밀해서 아랫사람이 그의 어떤 흠이나 결점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어느 정도로 포장하겠느냐? 그는 남들에게 아무런 패괴나 결점이 없고 흠잡을 데 없어서 상부에서 쓰거나 형제자매가 뽑기에 합당한,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그는 그러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방금 우리는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모습 중 한 가지를 교제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해 그의 사역을 체크하고 파악하며 감독하든 그는 온갖 방식으로 저지하고 거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 하나를 맡기면 세월아 네월아 조금도 진전이 없다. 도대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되고는 있는지, 사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는지 상부에 말하지도 않고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역은 지체 없이 급히 해야 하는데 그가 꾸물거리는 통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완수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상부에서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면 그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반발한다. '맡긴 지 열흘 남짓밖에 안 돼서 갈피도 못 잡은 사역에 대해 벌써 물어보다니, 상부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네!' 이렇듯, 한번 물어보면 그는 트집까지 잡는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상부에서 물어보는 건 아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한 측면으로는 사역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역하는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과연 문제를 해결해 사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상부에서는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냐? 상부에서는 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역을 하지 못할까 봐 질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반발심이나 반감을 품고 남이 질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누가 질문하면 그는 반발하고 의심하면서 '왜 늘 질문하고 알아보려 하지? 내가 못 미덥고 마음에 안 드나? 나를 못

믿겠으면 쓰지를 말든가!'라는 생각만 한다. 그는 상부에서 질문하고 감독하면 이해하기는커녕 반발심만 갖는다. 이런 사람이 이성적이겠느냐? 왜 상부에서 질문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왜 반발심을 갖고 반항하겠느냐? 무슨 문제겠느냐? 자신의 본분 이행에 성과가 있든 없든, 사역 진도에 지장을 주든 말든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역의 성과와 효율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본분을 이행할 때 나만의 방법과 전략이 있으니 내게 너무 구체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 난 본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건 질색이야.' 그는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질문하고 알아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순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책임감과 충성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충성심이 있다면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질문할 때 그가 배척하겠느냐?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그가 본분을 직업이나 밥벌이로 삼아 밑천을 챙길 뿐 아니라, 이행한 본분을 상을 받는 조건이나 카드로 여기면서 체면이 서는 일만 하고 상부를 건성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부탁을 결코 자신의 본분이나 의무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질문하거나 감독하면 그는 반감이나 반발심이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겠느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역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는 육적인 안락함과 편안함, 자신의 지위와 체면만 고려하고 사역 성과와 하나님 집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정말로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부의 질문과 감독을 이해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상부에서 질문해 줘서 다행이야. 그러지 않았다면 난 계속 내 뜻대로 행동하다가 사역 성과에 지장을 줬을 거야. 어쩌면 사역을 망칠 수도 있겠지. 상부에서 교제도 하고 검사도 하니까 실제 문제가 진짜로 해결됐어. 정말 잘됐어!' 이는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사역을 맡았다가 만에 하나 실수나 허점이 생겨서 하나님 집 사역에 메울 수 없는 손실을 입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책임감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책임감이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사역하면서 질문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이 사역은 내게 맡겼으니 내 일이야. 내 일은 내가 결정해. 남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는 혼자 생각하고 자기 성질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한다. 누구도 물어보거나 실상을 알려고 들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으면 그는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하고 "진행 상황은 어때요?"라고 다시 물으면 그는 "거의 다 됐어요."라고 답한다. 그는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한다. 짧게 한마디만 내뱉을 뿐 한 글자도 더 말하지 않으며 결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말하면 역겹지 않으냐? 대놓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더 물으면 그는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한다. "고작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면 꼭 제가 재목이 아니어서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남이 물어보는 걸 싫어한다. 계속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를 당나귀나 말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저를 못 믿겠으면

쓰지 마시고 쓰실 거면 절 믿으세요. 믿으실 거면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가 이 사역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아 이행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역을 본분으로 대하지 않고 복과 상을 받는 조건으로 여긴다. 그는 힘쓰는 데만 만족하면서 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성의한 태도로 사역한다. 그가 사역할 때 다른 이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존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는 그가 이행하는 본분과 사역이 모두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사역을 잘하면 공적을 명분으로 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이가 개입하면 공로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남에게 뺏길까 봐 걱정돼서 다른 이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자신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듯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든 못하든 다른 이가 개입하거나 동참하는 것을 싫어해서 잘하면 공로를 독차지한다. 다른 이가 그의 공로나 사역 성과에 한 다리 걸치지 못하도록 말이다. 아주 골치 아프지 않으냐?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이다. 사탄은 일할 때 누구도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다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누가 감독하고 질문하는 것도 안 된다. 누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일한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 남이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무리 밀실 공작을 해도 누구도 간섭할 권리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품이 너무 교만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이성적이기 때문이다. 순종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를 감독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검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것은 진정 정상인의 행동과 아주 다른 마귀의 행동이다. 누구든 사역할 때 파트너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조언, 협력이 필요하다. 누가 감독하고 관찰한다고 해도 이건 나쁜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다. 만에 하나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생겼을 때 제삼자가 알아차려 문제를 바로 해결함으로써 사역의 손실을 피하게 된다면, 이는 큰 도움이 아니냐?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일할 때 누가 감독하고 지켜보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에 하나 자기가 실수했을 때 누가 지적해 주어 제때 바로잡을 수 있으면, 이는 바라 마지않을 일이 아니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폐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만이 혼자 있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접하거나 소통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걸리면 비정상이 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이성도 사고도 모두 정상이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길 싫어하고, 뭘 하든 남들에게 숨기고 싶어서 몰래 하고, 뒤에서 하고, 밀실 공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전에 한 교회의 리더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 상황을 물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저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아무개 자매는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쁘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내가 또 "그 자매는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느냐?"라고 묻자 "그럭저럭요."라고 했고, "이 책상은 여기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라고

말하자 "생각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이 밭에 물 좀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얘기해 볼게요."라고 했고 "이 밭에 올해는 이 작물을 심었는데 내년에도 이걸 심는 거냐?"라고 묻자 "우리 의사 결정팀에서 계획이 있어요."라고 했다. 이게 그의 대답이다. 듣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무엇을 이해했느냐? 무슨 정보를 얻었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들어 보면 너를 무성의하게 대하고 바보나 제삼자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누가 제삼자인지 그는 모르고 있다. 이방인은 이런 것을 두고 주객전도나 주제 파악도 못 한다고 한다. 내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방 안에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야겠다. 너무 더우면 더위 먹기 쉬우니 말이다."라고 했더니 그는 "상의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을 말하든 그는 항상 상의해 보고 얘기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안배하고 무슨 말을 하든 그에게는 무의미하다. 내 말이 그에게는 안배도, 명령도 아니라서 그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는 내 말을 무엇으로 간주했겠느냐? (참고할 제안으로 간주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참고할 제안을 했느냐? 아니다. 나는 그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설마 그가 알아듣지 못했겠느냐?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는 얼간이이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무슨 본분을 이행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방 안에 에어컨도 없고 통풍도 되지 않는데 선풍기마저 달지 않다니, 지능이 어찌 그 모양이냐?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폐물이다. 하나님 집에 폐물은 필요 없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안해 보라며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나는 "그래. 네 생각대로 하여라. 어차피 나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놓은 것은 없으니 네 생각대로 하려무나."라고 한다. 이것이 정상 인성의 사유가 아니겠느냐? 어울린다는 건 이런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릴 때는 우열을 가리거나 누구의 위신이 서는지, 누가 누구 말을 따르는지 따지지 마라.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옳은 말,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야 만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다른 사람의 제안이면 안 된다.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다른 이가 한 제안이면 따르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제안해야만 만족한다. 고작 이런 일을 가지고도 누가 더 나은지 다투는 것은 무슨 성품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지위와 명망,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어느 정도로 중시하겠느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지위와 명망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무슨 사역을 하든 다른 사람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에도 몇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아예 "내 사역을 간섭하지도, 관여하지도, 감독하지도 마세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내가 책임져요. 나도 사리 분별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간섭 따위 필요 없어요!"라며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거절이다. 또 하나는 "좋아요, 사역을 어떻게 할지 우리 교제해 봅시다."라고 말하며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가 자기 사역에 관해 물으며 파악하려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려고 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다.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의 건의를 거부하고, 틀린 것은 옳다고, 옳은 것은 틀리다고 말하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억지고, 허풍이고, 이론이며, 상대가 말한 것만큼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틀리고 상대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상대의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자기의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어 계속 실행한다. 그런 자는 옳은 것,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자기 선에서 관철되고 실행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 사역을 어린애 장난이나 농담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관여와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사역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그렇다. 그는 겉으로는 꽤나 경건해 보이도록 수완을 발휘해서 "저희도 마침 도움이 필요했는데 기왕 오셨으니 저희에게 교제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윗선 리더는 그가 진심인 줄 알고 그에게 교제하며 실상을 말한다. 그는 듣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게 보는군. 당신과 논쟁을 벌여서 당신의 그런 견해를 반박하고 부정하겠어. 어디 창피 한번 당해 보시지.' 이게 받아들이는 태도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태도이냐? 이는 다른 이가 그가 하는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기왕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며 허상을 보여 주겠느냐?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그가 몹시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남이 그를 간파할까 봐 두려워한다. 특히 이제는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어서 그가 다른 이의 감독이나 도움을 직접적으로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체면과 지위를 잃게 되고 앞으로도 리더 일꾼으로 뽑히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윗선 리더가 사역을 검사할 때 그는 받아들이는 척하고 듣기 좋거나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모두가 '우리 리더는 정말 경건한 데다가 진리도 열심히 구한다니까! 우리의 생명과 교회 사역을 고려하고 본분도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를 뽑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뜻밖에도 윗선 리더가 가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또 이런 말을 한다. "사역을 검사하는 사람이 한 말은 다 옳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완전히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실제 상황에 맞게 그 사람 말을 참고해야지 무작정 규례에 맞춰서는 안 돼요!" 다들 듣고 나서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혹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다른 이의 감독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곧이어 내부에서 미혹하고 세뇌하는 일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는 수완이 좋지 않으냐? 수완이 매우 뛰어나다! 그는 겉으로는 듣기 좋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그가 꽤나 책임감 있게 사역을 한다고, 자세를 낮추고 지위를 내려놓을 줄 안다고,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상부나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아들일 줄 안다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그는 형제자매에게 이해관계나 여러 상황에 대해 '분명히 얘기'한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개입과 관여,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하는 원칙에 부합하기도 하니 리더로서 원칙을 지켰다고 여기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소수다. 대다수는 확실히 분별력이 없어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미혹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수한 이유로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샌다. 똑같이 잠을 못 이뤄도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 다른 두 모습을 보인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사실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낮에 황급히 기회를 엿봐 잠깐 눈을 붙인다. 그건 하나의 상황이자 실제 사정이고 거기에는 별다른 속셈이 없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식사 때 계속 졸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남들이 "왜 못 잤어요?"라고 물으면 그는 "온라인 예배 때 사역에 문제가 좀 있는 걸 발견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밤을 새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퍼뜨린다. 그가 마지못해 밤을 새웠느냐? 그는 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겠느냐? 그 설명 안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혹시라도 남들이 알지 못할까 봐 그 일을 만천하에 알리려 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했다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안일을 누리지 않는다고 알려서 형제자매의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는 이 정도 겉치레만으로도 인심을 사서 남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위신을 세울 수 있다. 일단 지위가 생기면 말에 권위가 생기는데, 말에 권위가 생기면 지위가 가져오는 특별한 대우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잘 잡지 않았느냐? 너희는 밤새 잠을 못 이루거나 밤을 새우면 남에게 말하느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말했느냐, 아니면 속셈을 품고 말했느냐? 몇몇 사람에게만 얼떨결에 말했느냐, 아니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널리 알렸느냐?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말하는 것에는 속셈이 없고 그것은 성품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 일부러 말하는 것과 무심결에 말하는 것은 분명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행동할 때 다른 이의 개입과 관여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절하든, 결국 방식이 어떻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는 무엇이겠느냐? 지위와 권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동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 가까스로 얻은 권력과 지위, 위신을 결코 아무렇게나 무심코 사라지게 할 수 없고, 누가 그의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여 그의 세력과 권력을 약화시키게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본분 하나를 이행하거나 사역 하나를 받아들이는 건 별다른 본분도 아니고 별다른 의무를 다할 필요도 없어. 그저 어느 정도 권력을 갖추고 수하에 사람을 좀 두는 거지. 권력이 있으면 누구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력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태도로 본분을 바라본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할 때 상부에서 문의하면 형식적으로 겉치레만 하고 건성으로 몇 가지 일만 물으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 척한다. 예를 들어, 누가 눈에 띄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행동을 하면 그는 그런 사람을 처리해야 하는지 상부에 묻는다. 이는 그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상부에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느냐? 허상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런 일조차도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빈둥거리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는 그저 허상을 만들어 미혹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실제 문제들이 있고, 어떤 원칙을 실행해야 할지 모르거나 사람을 처리하는 측면과 사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모두 간파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는 절대 묻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그가 마음속으로도 그런 일들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상부에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했으면서 무작정 하면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짊어질 수 없다. 그럼 그는 왜 묻지 않겠느냐? 그가 묻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상부에서 발견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고작 이런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물어보면 자질이 형편없는 거야. 그러면 상부에서 나를 간파하지 않겠어?' 또 다른 이유는 만약 물어봤을 때 상부의 결정이 그의 관점과 충돌하거나 다르면 취사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부를 따르지 않으면 상부에서 그가 사역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것이고, 상부를 따르면 그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묻지 않는다. 그가 묻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이다. 그가 묻는 것이든 묻지 않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든 그는 진리를 구해 원칙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상부에 질문하거나 알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상부에 전혀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범위를 정해서 두 부류로 나눠 놨다. 눈에 띄지 않고 그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건성건성 말하며 상부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그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상부에서 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몇 마디 말로 적당히 둘러댄다. "좋아요,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더 찾아볼게요...."라며 두말없이 동의하고 조금도 반항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는 꽤나 순종적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궁리를 하고 있다. 상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게 할 생각도, 상부의 의견을 구해 상부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상부에 어떤 길을 구할 생각도 없다. 그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상부에서 개입하거나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상부에서 알게 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지겠느냐? (지위가 위태로워집니다.) 지위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그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다. 그럼 그는 더 이상 당당하게 악을 행할 수 없게 되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에게 유리한지 그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그에게는 분명 생각과 계획이 있다. 너희도 이런 일들에 직면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리더를 맡고 나면 우쭐거리면서 남이 그를 우러러보도록 늘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그가 잘 아는 이방인이 그에게 돈을 빌리려고 자신에 대해 몹시 불쌍하게 말하면 그는 얼떨결에 흥분해서 동의한다. 동의하고 나서 마음 편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나는 교회 리더니까 교회의 돈에 대해서는 내게 결정권이 있어. 하나님 집의 것, 교회의 것, 제물 같은 것 모두 관직에 오른 내게 결정권이 있다고. 재무도, 인사도 다 내 소관이야. 전부 내게 결정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집의 돈을 이방인에게 빌려준다. 그는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조금 불안해서 상부에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한다. 상부에 말하면 그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꾸미고 핑계를 대며 상부를 속인다. 상부에서 그에게 진리 원칙을 교제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제물을 사사로이 유용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히 제물에 손댈 궁리를 했겠느냐? 고작 교회 리더가 제물을 관리할 권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제물이나 재무에 관한 일에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인성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제물에 관한 일은 상부에 보고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 상부에서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있다. 이는 네가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네가 갖춰야 할 이성이다. 재무 측면의 일은 크든 작든 상부에서 알 권리가 있다. 묻지 않는다면 모를까 묻는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답해야 하고 상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성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정상인의 차이다. 만약 상부에서 그 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100%이고,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이 들면 그는 상부에서 알지 못하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숨기고, 아래에서 하는 사역까지 다 처리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을 폭로하는 사람은 저를 못살게 구는 거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혼쭐을 낼 거라고요!" 이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 나면 아무도 감히 상부에 보고하지 못한다.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내 권력 범위 내의 일이야. 내 관할 안의 사람과 돈, 물질을 배치하고 분배할 권리는 내게 있어!' 그가 배치하고 분배하는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제멋대로 안배하고 남용하고 남발하며 아무 원칙 없이 임의로 헤프게 쓰고 낭비하며 누구에게도 간섭할 권리가 없고 모두 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론 입으로는 그리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 그렇게 생각한다. '관직에 뭐 하러 오르겠어? 돈 벌고 먹고 입으려고 오르는 거잖아! 이제 나도 관직에 올라 지위가 생겼는데 권력을 이용해 마음껏 해 먹지 않으면 바보 아니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 성품을 가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어떤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그 일을 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해야 적합한지, 원칙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 않는다. 그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누가 그의 이익을 보장할지만 고려한다. 적그리스도는 음험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어느 정도로 비열하겠느냐? 한 마디로 표현하면 뻔뻔하다! 사람도, 물건도 네 것이 아니고 재산은 더더욱 네 것이 아닌데 너는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지배하려 한다. 게다가 남들은 알 권리조차 없고 심지어 네가 마음대로 헤프게 쓰고 낭비해도 남들은 관여할 권리도 없으니 이는 어느 정도에 이른 것이겠느냐? 뻔뻔하다! 뻔뻔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재산에 관해 보통 사람 마음속에 있는,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제물이고, 제물은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니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유 재산이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속하지 공공이나 어느 개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집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여러 교회의 하나님 선민과 모든 교회 용품, 재물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절대 개인에게 속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점유할 권리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제물은 관리하는 사람 것이자 손에 넣을 기회가 있는 사람 것이며 리더에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줄곧 있는 힘을 다해 지위를 추구했고, 지위를 얻고 나서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다. 그는 왜 지위를 추구하겠느냐? 만약 그에게 착실하게 하나님 선민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하든 원칙을 지키되 교회의 재물과 하나님의 제물에는 손대지 말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위의 상승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흘러가는 대로 두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난 뽑히면 할 거야. 본분을 잘 이행할 거라고. 하지만 날 뽑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거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적그리스도는 리더가 되면 교회의 모든 재물을 지배하고 누릴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위를 얻고 지위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뻔뻔할 정도로 골머리 썩이며 지위의 상승에 매달린다. 뻔뻔한 건 무엇이겠느냐?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게 바로 뻔뻔한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파렴치해요!"라고 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속으로 생각한다. '뭐가 파렴치해. 지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지위를 가진 기분이 어떤지 당신이 알아? 돈을 통제하는 기분이 어떤지 당신이 알아?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당신이 알아? 그런 우월감을 당신이 알아? 직접 느껴 봤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마음속 지위에 대한 견해이다.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가지는 순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그는 하나님의 제물도 자신의 손에 쥐고 통제하려 하고 교회 사역의 어느 부분에 돈을 쓸지도 자신이 결정하려 한다. 그는 절대 상부에 문의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 재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집은 그의 집이 되어 그에게 결정하고 지배할 권리,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고 모든 지출을 지배할 권리가 생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대할 때 결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쓰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을 사사로이 유용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는 평범한 과오가 아니라 본성 본질의 문제이다. 그는 이방인과 접촉해 일을 처리할 때 끊임없이 과시하여 사람들이 그가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그는 거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다음 하나님 집을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큰 일은 마땅히 상부에 보고해 진상을 설명해야지 개인의 신용과 체면을 위해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응수해선 안 된다. 이성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접하면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느냐? 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제멋대로 굴며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린 데다가 하나님에게 조금도 진실로 순종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이익과 명리, 지위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속이는 방식으로 교회의 리더 일꾼을 미혹해서 돈을 이방인에게 빌려줬다. 그게 그의 돈이겠느냐? 그는 말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선물을 준 게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 그의 성품이 대담하고 제멋대로이며 특히 오만하고 상당히 음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몹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어서 자업자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출교시켜야 합니다.) 출교시키면 끝이겠느냐? 손실은 누가 메꾸겠느냐? 그에게 배상하게 한 다음 출교시켜야 한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적그리스도는 후안무치하지 않으냐? 이는 천사장과 뭐가

다르겠느냐? 천사장은 후안무치하게 "천지만물은 내가 만들었고 인류는 내 소관이야!"라고 말할 것이다. 천사장은 마음대로 인류를 짓밟고 패괴시킨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다 나를 믿고 따라야 해요. 내가 권력을 잡았고 내게 결정권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찾고 교회의 돈은 내게 가져오세요!" 누가 "왜 당신에게 줘야 하죠?"라고 물으면 그는 "내가 리더니까 내게 이 일을 관장할 권리가 있어요. 난 제물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해야 한다고요!"라고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려 한다. 그는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어떤 설교나 하나님 말씀 서적이 부족한지와 같은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돈이 누구 손안에 보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상부에서 교회의 재무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교회의 돈을 상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부에서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왜 상부에서 알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는 횡령하고 차지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물질과 돈, 지위에 몹시 강하게 흥미를 느낀다. 그는 절대 겉으로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 세상을 추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탐하지도 않아요."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왜 지위를 추구하고 지키려고 용을 쓰겠느냐? 그는 그가 관할하는 모든 것, 특히 돈과 물질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돈과 물질 같은 것을 지위의 복으로 여겨 누린다. 이는 진정한 천사장의 후예이자 명실상부한 사탄의 본성 본질이다. 지위를 추구하고 돈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은 성품 본질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는 야심이 크고 하나님 집의 돈을 통제하려 한다. 그에게 사역 하나를 책임지게 하면 그는 우선 다른 이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상부의 질문과 감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그는 어떤 사역의 책임자를 맡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드러내고 보호하고 추켜세운다. 늘 두각을 나타내어 남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더 높은 지위를 독점하고 쟁취하려 한다. 심지어 하나님 집의 모든 것, 특히 하나님 집의 재물을 통제하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특히 돈을 좋아해서 돈을 보면 눈이 반짝이고, 늘 돈에 대해 궁리하고 공들인다. 이는 모두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신호이다.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거나 형제자매의 내적 상태를 알아보고,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마다 본분 이행의 성과가 어떤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과 같은 문제를 물어봐도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제물과 관련된 경우, 재물의 수량과 보관자, 보관 장소, 비밀번호 등에 가장 관심을 갖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에 특히 정통하고 빠삭한데, 이 역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적그리스도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데 가장 능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제물을 누릴 생각을 한다. 적그리스도는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는 인성이 조금도 없는 전형적인 마귀이다. 적그리스도는 사역을 할 때 다른 이가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제 8 조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이다.

전에 어떤 나라의 교회에서 건물 하나를 새로 사서 수리를 해야 했는데 마침 그 나라의 교회 리더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적그리스도였다. 그 적그리스도는 건물을 수리하는 일에서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썼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대체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 악인이 빈틈을 파고드는 바람에 수리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돈을 많이 낭비했다. 그들은 그 건물 안에 원래 쓸 수 있던 설비까지 다 철거하고 새것으로 바꿨고, 철거한 낡은 설비는 다시 돈을 받고 팔았다. 사실 망가지지 않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이 돈을 벌어 이익을 챙기려고 다 새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돈이 더 들었다. 그런 일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알지 못했겠느냐? 알았다. 그럼 왜 그 악인이 그렇게 하도록 눈감아 주었겠느냐? 그 둘의 관계가 분명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알아차린 일부 사람들이 시공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진도를 살피고 검사하러 가려고 했다. 보러 간다고 하자 그 적그리스도는 걱정하고 초조해하며 "안 돼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아무도 보러 갈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민감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살짝 눈치채고 이렇게 상의했다. "안 되겠어요. 보러 가지 못하게 하는 걸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현장에 가 봐야겠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준공 때까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으냐? 그녀가 보러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서둘러 상부에 보고하거나 단체로 그녀를 파면해야 했다. 혹은 강제로 보러 가거나 검사하러 가야 했다. 그건 책임이다. 그 책임을 짊어지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자 멍청이다. 그 몇몇 멍청이는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 제집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결국 준공 이후 나는 영상을 통해 문제를 발견했다. 무슨 문제를 발견했겠느냐? 한 회의실 중간에 책상을 하나 놓고 주위에 고급 사무용 가죽 의자를 죽 늘어놓았다. 나도 평범한 의자에 앉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토록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런 설비를 설치해서 앉는 사람들은 상당히 흡족해했다. 문제를 발견한 뒤 나는 그 머저리를 불러다가 그 일을 캐내기 시작했다. 방마다 일일이 조사해 보니 하자가 너무 많았고 손실도 상당했다. 그는 아직 쓸 수 있는 기존 설비를 내다팔아 낡은 설비로 돈을 벌었고 고가의 새 설비를 사서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장치를 설치했다. 그 악인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알지 못했겠느냐? 그녀는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매일 시공 현장에 가서 봤으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그 악인이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도록 내버려두었으니 간덩이가 부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20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 꼴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인간도 아니다! 이방의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 이는 너무도 도덕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상부에서 공사에 관한 일을 물을 때마다 그녀가 얼버무리고 이리저리 숨기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녀를 출교시키고 일해서 돈을 벌어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면 지나친 것이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더라도 그 적그리스도가 한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느냐? 잘 살 수 있겠느냐? 아마 한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은 지 일이 년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 집의 규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충성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여러 해 동안 믿었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 힘을 좀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토록 큰 악을 저지르다니 그런 꼴이라면 도태되고 저주받아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역을 하든 다른 이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늘 숨기고 감추려 하는데, 마음속에 분명 꿍꿍이가 있다. 그의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행동이 광명정대하고 진리와 원칙에 부합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느냐? 말 못 할 게 뭐 있겠느냐? 왜 다른 이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는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분명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너무도 뻔하다! 적그리스도는 사역할 때 투명하지 않다. 나쁜 일을 저지르면 감추고 엄폐하려 하고, 허상을 만드는 데다가 노골적으로 속이기까지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한다. 사람은 비록 잠시 알지 못하고 한동안 미혹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더라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이 너를 드러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오직 적그리스도 같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얼간이와 천사장의 본성을 가진 얼간이들만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꼭꼭 숨기고 당신이 개입하지도 관여하지도 감독하지도 못하게 하기만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내가 이 교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이 왕권을 잡으면 국면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정말 그렇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늘 네가 악을 행한 것을 감찰하고도 너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네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 내일 네가 또 악을 행하고도 실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네게 기회를 주고 네가 회개하길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네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역겹게 여기고 혐오하며 마음속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너를 철저히 포기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네가 아무리 감추고 저지한들 전혀 소용없다. 네 손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두 눈을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전능한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 이 인류 가운데 큰 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에게 직접 대항한 사람은 모두 여러 가지 징벌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 모두 진심으로 탄복하고 보응이라고 인정한다.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을 더욱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이 짐작할 수 없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으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행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 신분 본질의 진실한 표출이다. 너는 억측할 필요도, 짐작할 필요도 없이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 채 "제가 보이시나요?"라고 말하는데 "난 네가 보일 뿐 아니라 네 마음과 네가 인간 세상에 몇 번 왔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저 일도 알지 못하셔. 형제자매도 보지 못했으니 아무도 몰라. 내 마음속에 나름의 타산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결국 그것은 잘못됐고 진리에 위배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오직 한 부류뿐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몹시 똑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진리에 부합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따질 때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말과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 일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이로우니까. 하지만 이런 속마음은 남에게 말하고 싶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는 스스로 따귀를 때리고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사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 본질을 모두 간파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일에서 너를 폭로하지 않겠느냐? 그 일을 폭로하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서서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먹고 마셨고 양심과 이성, 사상, 정상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자신이 어리석지는 않은지 천천히 생각하고 살펴보라고 네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는 며칠만 생각해 보면 성과를 얻어 자신이 어리석고 멍청하며 하나님에게 그 일을 감추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털어놓고 솔직히 임하는 것,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 유일한 양상이자 내적 상태이다. 네가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전부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네가 털어놓든 그렇지 않든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을 밝히 알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무엇이든 다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솔직하고 순수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늘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고 자신만의 작은 비밀을 간직하며 사생활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생각이 과연 옳겠느냐? 사람과 어울릴 때는 그래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인물도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 둬도 된다. 예를 들어, 네가 누구를 증오하여 뒤에서 그의 험담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그에게 말해도 되겠느냐? 말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나쁘고 내면이 더럽고 사악하며 남을 질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리를 쟁취하기 위해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기만 하니 얼마나 비열하냐! 너는 자신의 패괴를 인정하고 그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 자신의 본성이 사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뒤에서 사악하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어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이끌고 꾸짖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게 노력할게요.'라고 기도하면 된다. 사람과는 방식을 좀 따져도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단순히 털어놓는 게 제일 좋다. 네가 속셈을 품고 방식에 신경 쓰면 문제가 생긴다. 네가 늘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실까? 어떻게 말하는 게 적절한 거지? 좀 포장하고 돌려 말하자. 방식도 따지고. 그럼 하나님이 날 대단하게 보실지도 모르잖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것 같으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전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사는 게 홀가분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너라는 사람을 정직하고 순수하며 솔직한 마음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이는 더없이 값진 일이다! 솔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때로는 너무 지나쳐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오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꿍꿍이를 품고 마음속으로 늘 뭔가 생각하며 가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는 조금 다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할 희망과 기회가 있다. 만약 악을 많이 행해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 바로 제명되거나 출교된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만약 악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아직은 악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만약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줄기 희망이 있다. 하지만 한사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설사 악을 많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원받기 매우 어렵다. 왜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드러내고 털어놓아야 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하며 할 말을 솔직히 하고 간사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교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늘 정직한 사람이 되면 손해를 보고 진실을 말하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한사코 정직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만약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악을 얼마나 많이 행하든,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얼마나 많이 입히든 그는 시종일관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책망과 훈계가 임해도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악인이자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기껏해야 자신의 행동이 원칙에 위배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 인정할 뿐 그가 일부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잘못을 인정할 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또 여전히 악을 행하며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몇 년 믿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반면 보통 패괴된 인류도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다. 일부 사람은 심판하고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었구나. 이 일이 이렇게나 심각했구나! 내가 이런 내적 상태와 모습, 이런 측면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벗어 버리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확고히 의지를 다질 수 있다. 그는 사역하고 생활하면서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맡긴 일을 대하는 데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줄 알고 자신이 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지, 왜 늘 사탄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는지, 왜 육을 저버리고 사탄을 저버릴 수 없는지 반성할 줄 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그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똑같이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과 욕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한사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치명적인 부분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걸으려 할 때 그런 기도와 의지가 그의 생명 진입에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겠느냐? 최소한 그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로 문제를 해결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측면의 이로움이 있다. 그 밖에, 본분 이행을 훈련함으로써 그는 진리 추구의 길에 오를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진리를 구할 수 있는 데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을 중시해 점차 사탄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패괴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명리와 지위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사역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패괴 성품을 드러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후회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생명 진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몇 년을 체험하고 패괴를 얼마나 드러내든 결국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참도(道)에 뿌리내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쉽지 않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개의치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측면의 주제를 교제할 때 자신도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말은 꽤 잘하지만 진리를 실행할 때가 되면 여전히 진리 실행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행동한다.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마음속에 싸움이 있나요? 지위를 지키기 위해 말할 때 마음속으로 자책하나요?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인식하나요?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드나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변화하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분명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쉬울 리 없다.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초조하고 속이 타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탄 성품을 왜 벗어 버릴 수 없을까? 왜 늘 패괴 성품을 드러낼까? 패괴 성품은 왜 이렇게 완고하고 다루기 어려울까?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로써 그의 생명 체험이 매우 얕고 패괴 성품이 아직 별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이 닥칠 때 마음속의 싸움이 유독 격렬하고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는 사탄 성품을 벗어 버리려는 의지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사탄 성품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싸우는 내적 상태는 날로 심각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가 너무 깊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는 더욱 진리를 얻는 것을 갈망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자신과 패괴 성품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의 분량은 점차 자라게 되고, 그의 생명 성품도 진실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체험해 나가다 보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 육을 이기고 패괴를 벗어 버릴 수 있고, 자주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 생명 진입은 쉽지 않다! 그것은 다 죽어 가는 사람을 응급 구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다할 수 있는 책임은 진리를 교제하고 붙들어 주고 공급하거나 책망, 훈계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희망이 있다. 다행히 재난에서 벗어나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도태되고 나서 일이 년이 되어도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생명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원받을 희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너희는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그건 좋은 일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구원받으려면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비란 무엇이겠느냐? 끊임없이 패괴 성품과 싸우는 것,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의 패괴 성품과 싸우는 것이다. 패괴 성품은 너를 통제하려 하고 너는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며, 패괴 성품은 너를 미혹하려 하고 너는 그것을 버리려 한다. 너는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나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기도한다. 때로는 한참이 지나도 사탄 성품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체념하지 않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사람 내면의 반응은 점차 달라진다.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사상 관점과 행위, 행동 방식, 나아가 마음 깊은 곳의 속셈과 의견, 뜻, 생각이 모두 계속 바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런 행동 원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점 더 명확히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명확해진다. 그럼 이런 성과에 이르려면 무엇을

토대로 해야겠느냐? 진리를 깨달으면 실행하고 진입하는 것을 토대로 해야 한다. 왜 적그리스도는 절대 변화에 이를 수 없다고 하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겠느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들어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는 깨닫더라도 그저 도리로 깨닫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깟 도리와 규례를 과연 실행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조금도 실행해 내지 못한다. 그에게 강요하며 그를 몹시 피곤하게 하더라도 그는 실행해 낼 수 없다. 따라서 그에게는 진리에 진입하는 것이 영원히 비어 있다. 적그리스도는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아무리 말하고 애써도 정직한 말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기적이고 비열한 속셈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는 늘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좋거나 그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제게 주세요, 제 거예요!"라고 한다. 자신의 지위에 이롭게 말하고, 자신에게 이롭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올라 진리를 조금 깨달은 느낌이 들면 "저는 실행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을 흡족게 해야 해요!"라며 열성적으로 구호를 몇 마디 외친다. 하지만 진리를 실행해야 할 때가 되면 그가 과연 실행하겠느냐? 그는 실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진리와 실상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든, 사례를 얼마나 많이 들든 그는 감동받지 않고 그의 야심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자 표지이다. 그는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자 틀에 박힌 말이며 그에게는 역시 하나의 이론이다.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전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진리를 증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진리를 증오한다. 그는 자신의 사악함, 이기적인 것과 비열함, 교만함, 흉악함, 지위와 재물을 차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진리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지위가 생겨 사람을 통제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야심과 욕망도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에게 나무에 오르라고 하고 늑대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때때로 늑대가 양 무리에 섞여 들어와 양들과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울리는 척하면서 양을 잡아먹을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 늑대의 본성은 영영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 진리를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잡아먹는 본능을 버리고 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육식 동물인 늑대가 양과 여러 동물을 먹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만약 누가 "저는 제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리를 교제하는 걸 듣기만 하면 속이 끓고 증오심이 생겨요. 누가 저를 책망, 훈계하면 저는 그를 더욱 증오하죠."라고 말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닥치면 당신은 순종하고 진리를 구해야 해요."라고 하면 그는 "순종은 무슨! 잠자코 있어요!"라고 한다. 이건 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성격이 나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진리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조차 못하게 한다. 네가 진리를

교제하자마자 그의 본성이 폭발하고 드러났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하면 그는 듣기 싫어한다. 어느 정도로 듣기 싫어하겠느냐?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흥분해서 고상함이고 뭐고 진상이 드러나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증오한다. 그럼 그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악인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라고 요구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진,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극도로 적대시하는 사악한 자들은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몇 년 믿든, 설교를 얼마나 듣든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진리를 많이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모두 사탄에 속하는 부류라서 그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한 뒤 하나님이 천사장을 구원하려 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를 반공중으로 내친 뒤 그에게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했다. 그가 봉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 그를 멸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마디라도 더 말씀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소용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영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접촉할 때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어떤 리더들은 예전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 교체되었는데, 한동안 지난 후 형제자매가 그 사람이 아직 사역 능력이 좀 있고 그동안 회개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위와 태도가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인지, 비교적 자신의 역할을 지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기왕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일부 사역에 일손이 부족하기도 해서 그에게 사역을 하나 안배했다. 그 결과 두 달도 되지 않아 형제자매가 이렇게 보고했다. "얼른 그를 교체하세요. 그가 저희를 억압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를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는 본분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를 리더로 뽑더라도 그를 뽑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본성이 철저히 드러난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형제자매가 모두 그토록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전에는 그에게 미혹되어 상부에서 그를 처리했더니 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누군가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그를 발탁해 한동안 썼더니 그는 철저히 드러났다.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를 간파해 단체로 그를 파면하려 했다. 상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생긴 걸 보고는 그들을 양육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기왕 그를 쓰는 것에 다들 동의하지 않으니 그를 교체했다. 이런 분별력은 어디에서 비롯됐겠느냐? (진리를 깨달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렇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분별력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이 역시 진리와 하나님이 권세를 잡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제때 분별해서 그를 교체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그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그는 사람을 억눌러 몹시 괴롭게 했고 인성이 전혀 없었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는 데다가 형제자매를 밟고 올라서서 전횡을 일삼으니 누가 그를 쓰는 데 동의하겠느냐? 바보나 동의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교체되고 나면 느끼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지난번에는 상부에 의해 교체되고 이번에는 형제자매에 의해 파면되어 쫓겨났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원래 지위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지위도 얻지 못하고 일순간에 추락하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을 반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단지 패괴 성품이 몹시 심각할 뿐이라면 그 역시 반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어떻게 하든 옳다고 생각하며 사실도, 긍정적인 사물도,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반성할 줄 모르는데, 그는 무엇을 궁리하겠느냐? '흥, 언젠가 내가 재기해서 당신들이 내 손안에 떨어지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럴 기회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럴 기회는 없다. 형제자매가 점점 더 진리를 많이 깨닫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내적 상태,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이 생기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악을 행할 여지와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재기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부에서 분별에 관한 설교를 그만하고 더 이상 그를 분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그런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들으면 자신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재기할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폭로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 옳아. 모두 내 내적 상태야. 난 어떻게 변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끝장나지 않을까? 버려질 거라고. 천사장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적대해서 좋을 게 있나?' 그가 이렇게 고민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절대 자신을 반성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으며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그의 본성이다. 네가 진리를 어떻게 교제하든 그를 일깨워 회개하게 할 수는 없다. 회개하지 않는데 활로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외곬으로 파고들며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결정된다.

요즘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예배 시간이 죽을 맛이고 마음속에 반발심이 들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패괴 성품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른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깨달으려 하고,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변화되기를 추구한다.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언젠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걷잡을 수 없이 큰 악을 행할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 파멸에 이르게 될까 봐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다르다. 그는 그런 분별하는 설교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듣지 않길 바라고 다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 그에게 미혹되길 바란다. 그러면 그는 흡족해한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겠느냐? 권력을 잡는 것이다. 너희도 권력을 잡고 싶으냐? (잡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잡고 싶지 않겠지만 머리는 잡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 실은 잡고 싶은 것이다.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갈망하는 주관적인 바람이 있지만, 일이 닥치면 패괴 성품이 너를 좌우하고

부추겨서 너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킬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말해야 위신과 명망이 생기고 남들이 우러러볼지 머리를 쥐어짠다. 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무엇에 통제된 것이겠느냐? (패괴 성품에 통제된 것입니다.) 그렇다. 사탄의 패괴 성품에 통제된 것이다. 하루 종일 육적인 이익에 관한 일만 생각하고, 항상 남과 싸우고, 싸움 끝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육체와 사탄만을 위해 사니까 특히 괴로워한다. 그래서 본분을 잘 이행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의지를 다지지만 결국 일이 닥치면 또 지위와 이익을 다투고, 다툼 끝에는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새 수십년이 지났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일이십 년 믿었지만 진리를 얼마나 얻었겠느냐? 패괴 성품이 얼마나 변화했겠느냐? 매일 누구를 위해 살겠느냐? 무슨 일 때문에 바쁘겠느냐? 무슨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겠느냐?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다. "사람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직접 경험하고 자세히 음미해 보아라. 이 말이 생각날 때, 이 말을 체험할 때 너는 두렵지 않으냐? 너는 "속으로 좀 두려워요. 저는 겉으로는 하루 종일 노력하고, 버리고 헌신하고 고생해요. 육체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전부 악하고 진리에 위배돼요. 제가 하는 많은 일의 출발점이라든가 동기, 목적은 순전히 제가 생각하는 악을 행하려는 거죠."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야 하나님이 기억하겠느냐? "저는 하나님을 20 년 믿으면서 전부 다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않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스러울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진지하게 따진다면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자 긍휼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몹시 관대하다. 생각해 보아라, 그토록 거룩하고 공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악하고 진리에 위배되는 것만, 자신의 지위와 명리를 고려하는 일만 생각하는 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그를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사람은 그런 생각과 속셈, 동기의 지배를 받아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겠느냐? 진리를 공급하고 양육하고 일깨운다. 또한 깨우쳐 주고, 빛 비춰 주고, 인도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징계가 심할 때는 위로까지 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온갖 패괴 성품과 여러 표출, 행위, 생각이 모두 악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인내할 수 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인내도 진실하긴 하나 더는 참을 수 없게 되면 포기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끊기도 한다.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매일매일 인내할 정도로 크나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 인내 안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너에 대한 기대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성과와 수확을 보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그런 사랑이 있겠느냐? 없다. 사람은 지식이나 소양, 한 측면의 은사나 특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남보다 신분이 고귀하고 보통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런 꼴을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더럽기 그지없고 깊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굴을 맞댄 채 대화하고 붙들어 준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어서 다른 문제를 교제하겠다. 어떤 사람은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받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패괴 성품을 드러내지 않게 돼요." 이 말이 좋다고 느끼고 패괴를 드러내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포용과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의 인성과 양심, 이성과 같은 측면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의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는 없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공급해 사람의 패괴 성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선포하고 공급하며,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이다. 그는 행동이나 어떤 일을 통해 너를 감동시키거나 너의 추구 방향과 목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내한다고 하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다고 하든, 어떻게 말씀하든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듣고 나서 감동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렇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은 사람의 본성 본질이다. 그 본성 본질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토대이지 타이른다고 바뀌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 아니다. 혹은 사람이 기쁘다고 해서 또는 지식을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얻어야만 변화할 수 있고,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생명 성품의 변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면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도리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다.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깨닫고 영적 이론을 좀 이야기할 줄 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진리란 대체 무엇이냐?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주 말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진리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모두 옳고 전부 마음에 와닿아. 그건 우리의 공통어야.'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런 주장이 과연 옳겠느냐?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대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왜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우선 진리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진리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다. 그럼 그런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가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하든 원칙이 있고 어떻게 대할지 알며 실행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생활 속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사람이 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생활 속 자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길도 없고 진리와 결부시키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방금 한 말들 중 한마디가 정곡을 찔렀다.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사람이 실행의 길을 갖게 하고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며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 진리 원칙에 따라 비춰 보고 실행하면 그게 바로 길이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만약 도리만 깨닫고 일이 생겼을 때 운용할 줄 모르며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모든 일을 하는 원칙이자 준칙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도리만 알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원칙과 준칙이 무엇인지, 생긴 일 중 어떤 일이 그 측면의 진리와 관련 있는지, 어떤 내적 상태가 그 측면의 진리와 관련 있는지, 그 측면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다 모른다. 예를 들어, 너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묻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 측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인데, 교제하고 나면 깨닫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제하고 나서 조금 깨닫더라도 그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또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깨달은 게 아니다. 너는 그 측면의 진리의 원칙과 준칙을 알지도, 파악하지도 못한 것이다. 네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는 그 측면의 진리가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지, 어떤 내적 상태를 겨냥하는지 자신의 내적 상태와 비춰 볼 수 있느냐? 만약 비춰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의 진실한 내적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다. 한 측면의 진리나 원칙에 대해 말했을 때 어떤 일과 내적 상태가 그 측면의 진리와 관련 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 혹은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가 그 측면의 진리와 관련 있는지 알고 그 측면의 진리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교제하라고 했을 때는 원래 말을 그대로 옮길 뿐 내적 상태나 실제 상황을 활용해 말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겠느냐? 그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너희는 진리를 깨달았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너희는 대부분의 진리를 듣고 나서 도리나 깨닫고 규례만 지킬 뿐 유연하게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네가 깨달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도리조차 유용하게 쓰지 못하며 그것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다. 이게 깨달은 것이겠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한 것이겠느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계속 노력하고 공들여 고민해야 한다. 너의 인성 안에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할 때는 진지하고 꼼꼼하게 대해야 한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더라도 정상인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너는 영영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엉터리로 믿는 것이다. 네 자질의 높고 낮음은 보지 않고 네가 그런 인성을 갖추었는지만 본다. 네가 그런 인성을 갖추었다면 자질이 평범하더라도 얕은 진리는 깨달을 수 있으니 최소한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네 자질이 뛰어나다면 너는 진리의 심층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욱 깊이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자질과 관련 있다. 그러나 네 인성 안에 진지하고 꼼꼼하게 대하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늘 대충대충 되는대로 하며 흐릿한 상태로 있다면, 어떤 일을 대하든 흐릿하고 모호하고 건성으로 대한다면 진리는 네게 영원히 규례이자 도리이고, 너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진리 추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정도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네가 신경 쓰고 공들이면

그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고 너는 어느 정도 얻을 것이다. 반면 네가 진리에 전혀 공들이지 않고 그저 도리와 표면적인 행동 방식에만 공들인다면 너는 진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진리를 체계적으로 교제하니 너희는 요령을 좀 알아내지 않았느냐? 뭔가 깨닫지 않았느냐? 여러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대학에서 배운 그 어떤 지식보다도 더 세세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몹시 세세하다. 지식 같은 것들은 사람이 기억하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는 실습과 실천을 통해 몇 년 안에 숙달할 수 있다. 학문 하나를 배울 때도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좀 쓰기만 하면 서서히 숙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려면 단지 머리만 써서는 안 되고 마음을 써야 한다. 마음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영적인 이해력이 있고 착실하며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자질이 떨어지며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경솔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심한 사람이냐? (경솔한 사람입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심하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만해라. 시도도 안 해 보고 할 수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의지와 태도로 보면 기초적인 진리를 깨달을 희망은 있다. 그건 가능하다. 사람이 기꺼이 마음을 쓰고 대가를 지불하며 마음속으로 진리에 힘쓰면 성령은 역사하고 온전케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리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기억해라. 진리를 깨달으려면 주관적으로 공들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단지 절반의 성과만 이룰 수 있고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만 이룰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진리를 깨닫는 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것인데, 이는 성령 역사에 기대어 이룰 수밖에 없다. 지식이나 과학을 배우는 것은 사람이 공을 들이면 되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머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소용없고 마음을 쓰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여 이루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성령 역사이다. 그러나 성령 역사의 기초는 무엇이겠느냐? 생각은 상당히 섬세하고 마음은 충분히 조용하고 편안해야 하며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 역사는 아주 미묘하다. 겪어 본 사람은 안다. 진리 측면에 자주 공들이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깨우침을 느끼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실행의 길이 순조로우며 마음이 점점 더 환해진다. 반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늘 정확한 길을 보지 못하며 어떤 일을 대하든 모호하고 무엇이 바른길인지 모른다. 진리를 깨닫고 실행의 길을 분명히 아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 사람이 마음에 그 몇 가지 상태를 갖추면 성령은 역사한다. 그러나 네 마음이 그 몇 가지 상태에서 벗어나면 너는 성령 역사를 느낄 수 없다. 이는 추상적이지도, 막연하지도 않다. 네가 그 몇 가지 내적 상태 안에 있고 네 마음이 그 몇 가지 상태 안에 있는 채로 구하고 공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은 네게 역사한다. 그러나 네가 정신을 딴 데 팔고 늘 지위를 추구하고 명리를 다투며 항상 행동 방식에나 관심을 쏟고 공들인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 늘 피하고 숨기고 회피하고 거절하며,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며 꾸짖지도 않을 것이다. 성령의 꾸짖음조차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느냐? 때때로 성령이 너를 꾸짖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옳고

어떻게 하면 그른지 네게 알려 주려는 것이고, 네게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것이다. 결국 너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일을 한눈에 명확히 알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일에서 너는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란 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너를 그렇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런 일에서 영영 무지한 상태로 남아 명확히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이 닥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문을 몰라 마음은 항상 곤죽이 된 듯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조급하고 속이 끓는데 성령은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아마 네 내면의 어떤 내적 상태가 옳지 않고 네가 반항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으로 반항하겠느냐? 네가 그릇된 관점이나 관념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네가 그 관념이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제서야 성령은 그것을 토대로 역사한다. 성령은 역사할 때 단지 네가 의식적으로 옳고 그름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과 방향, 목표가 무엇인지, 네가 깨달은 것이 진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확히 알게 한다. 너희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냐?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십 년, 이십 년 믿었는데도 이런 세세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경솔한 사람이다. 상투적으로 입에 발린 도리나 구호만 외치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몇 가지 수법이나 간단한 방법만 쓴다면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고 영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성령도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솔한 사람은 진리에 조금도 닿지 못한다.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겠느냐? 사람의 자질이 몹시 떨어져서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해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그에게 알려 준들 그에게 이해할 능력이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런 경험이 있느냐? 진리는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네가 추구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너는 얻을 수 있다. 반면 네가 게으르고 안일을 탐하며 진리에 공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네가 누구든 얻을 수 없다. 알겠느냐? 너희는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추구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진리를 얻는 사람이 보배가 된다. 진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해도 소용없다.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진리를 추구할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해 역사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하나님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교제하며, 너를 지도하고 돕는다. 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겠느냐? 육신이 역사하고 말하면 네게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령 역사의 원칙과 규칙, 방식과 방법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네게 알려 주면 너는 스스로 모색할 필요 없이 지름길로 가서 곧장 이를 수 있다. 육신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역을 마치면 너는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누구도 이 육신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네게 명확히 알려 주지 못한다. 누구도 네게 알려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안 된다. 여기에는 실제 사례가 있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천 년을 믿고도 지금 일부는 다시 구약 성경을 보며 율법을 지키고, 일부는 십자가를 지고 집 안에 십계명을 걸어

놓은 채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성령도 역사하긴 하지만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사람은 계속 모색하고 있다.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사람이 모색하고 얻은 것에 결론이 없다는 뜻이다. 아무도 네게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틀리다고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없다. 아무도 네게 그렇게 알려 주지 않는다. 성령이 너를 깨우쳐 줘서 네가 옳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이 칭찬하겠느냐? 너도 불확실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2 천 년 전 주 예수가 남긴 말들은 성경에 기재됐다. 2 천 년이 지난 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 가지각색으로 해석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힘을 들인다. 이는 무슨 뜻이겠느냐? 애매모호하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로 해석하고 백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각자 이유와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해석이 정확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거나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람이 말해 봤자 소용없다. 네 파벌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세력을 보지 않는다. 설사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옳고 진리다. 이는 영원불변의 사실이다! 각 종파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도 결국에는 어떻겠느냐? 네가 해석해 봤자 소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부정한다. 네가 어떻게 해석한들 하나님이 너를 거들떠보겠느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들떠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따로 시작해 새 사역을 한 지 이제 삼십 년 가까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떠든다 한들 하나님이 거들떠보겠느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 종교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나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진작에 알아듣게 말했다. 종교계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고,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시작해야 할 곳에서 시작하며 택해야 할 자를 택하는데, 종교계의 영향을 받거나 종교계에 휘둘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패괴된 인류는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설명하려 하는데, 소용이 있겠느냐? 게다가 성경 속의 말을 물고 늘어져 제멋대로 해석하고 일부분만 취해 제멋대로 한 해석임이 틀림없어도 평생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와서 이루어 주길 기다리니, 꿈도 야무지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다면 그게 이성적인 것이겠느냐? 사람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느냐? 반항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겨루려는 것 아니겠느냐? 대재난이 내려서 사람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때 물어볼 걸 그랬어. 이제 묻지도 못하네. 그럼 기도나 하자. 성령도 역사하잖아. 다 똑같지 뭐.' 똑같겠느냐? (다릅니다.) 똑같다면 2 천 년 동안 주를 믿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십 몇 세기에 소위 성도들이 쓴 말들은 너무도 미숙하고 볼품없다! 지금 각 종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겠느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안에 진리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마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내치고 도태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겠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사랑이 아니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죄했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는 가장 불쌍한 일이다. 지금,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직접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추구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한다면 양심에 거리낌은 없고 최소한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느냐? 본분 이행을 진리 추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일종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 추구에 이를 수 있다거나 진리 추구에 미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건 그저 일종의 행위나 행동이며 진리를 추구할 태도를 갖춘 것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 추구에 미칠 수 있겠느냐? 우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어떤 일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고 본분도 엉터리로 이행하며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진리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바보다. 그럼 진리는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겠느냐? 우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는 게 힘들겠느냐? 힘들지 않다. 우선 자신이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이행하는 본분에서부터 시작해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고 훈련한다면 진리 추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우선 이런 원칙에서부터 시작해 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얻은 깨우침이야말로 네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이다. 우선 본분 이행에서부터 시작해 진리를 구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람과 일, 사물, 그리고 본분 범위 내의 일,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리 원칙을 깨달으면 생명 진입이 있을 수 있다.

2019 년 10 월 23 일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3)

참고　동서양의 전통문화를 해부하다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이냐? 예전에 이 주제를 교제한 적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 자신의 언어로 한번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이냐? (진리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평가하는 원칙이자 준칙입니다.) 좋다. 누가 또 말해 보아라. 다른 주장은 없느냐? 도리에 관한 어떤 말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써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언어나 실제 인식으로 대답해 보아라. 얕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줄만 알고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네게 그 말은 도리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말해 보자.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란 또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낸 준칙이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리한 경험과 배운 지식, 혹은 사회 문화나 사회적 배경하에 생겨난 전통문화가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스스로 정리해 낸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리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게 하려면, 사람들이 듣자마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규범화해야겠느냐? 어떻게 말해야 간결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을 주겠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모두 진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모두 진리이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더 정확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진리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자주 하던 이야기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가 전부 진리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또 뭐가 있느냐? (진리는 사람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준칙이자 길입니다.) 사람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준칙이자 길이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그럼 이 몇 가지 측면을 하나로 정리해 무엇이 진리인지 간결한 말로 정의해 보아라.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듣고 나면 그 정의가 공허하지 않고, 제법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정확하다고 느끼고, 아주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더 정확할지 너희가 다시 정리해 보아라.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이라고 상부에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간결하지 않으냐? (간결합니다.)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이다. 왜 준칙이라고 정의하겠느냐? '준칙'이라는 단어는 글자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정확한 원칙입니다.) 정확한 원칙이자 법칙이며,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준'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기준을 가리킵니다.) 기준이 되는 정확한 법칙이자 원칙이 바로 준칙이다.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에서 앞의 그 몇 가지 정의가 정확하다면 그 준칙은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준칙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앞에서 정의한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이 바로 진리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나서 '우리의 전통문화도 진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진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진행한 어떤 학술 연구의 결론은 진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와 체험, 좋은 도덕 기준도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로 진리를 정의할 수 없겠느냐? 왜 그 몇 가지 모두 진리와 무관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것들도 처신과 관련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들이 말하는 처신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그것들의 기준과 법칙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된 좋은 행동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상상과 관념,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도덕이나 행위에서 정리해 낸 일련의 처신에 관한 가르침이나 문화이지, 진리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중국인들은 전통문화 하나를 정리해 냈는데, 그 전통문화는 중국인에게만 적합하고 서양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양인들도 그들만의 민족 영웅과 민족 기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들의 문화를 동양에 가져오면 동양인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 그런 문화가 아무리 좋고 전통이 아무리 고상한들 진리와 관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동양의 전통문화에서는 부엉이를 길조로 여기지 않는다. 민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엉이 우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부엉이 웃는 게 무섭다. 부엉이 소리를 들으면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동양의 전통문화에서는 부엉이를 불길하고 재수 없는 동물로 여긴다. 그럼 그렇게 '재수 없는' 동물을 동양인이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동양의 전통문화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에 근거해 "부엉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집안에 반드시 초상이 난다."라고 말한다. 그건 정리해 낸 규칙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상상이나 우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부엉이가 나쁘다고, 누구도 부엉이를 받들면 안 된다고, 부엉이를 길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엉이만 보면 반가워하지 않고 내쫓기 바쁘다. 이건 일종의 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문화 역시 일종의 민간전승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문화를 특별히 인정한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부엉이는 좋은 동물도, 길조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서둘러 피한다. 반면 서양에서는 부엉이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엉이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며 각종 자수 작품과 토템에도 부엉이 도안이 있는 등 부엉이를 길조로 여긴다. 길조로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그 동물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그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것을 보면 불운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서양의 한 민간 전통문화다. 우리는 동서양의 이 두 가지 문화 중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만든 같은 동물에 대해 동서양의 생각과 관념이 다르며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인은 부엉이가 좋은 동물이 아니라고, 부엉이가 웃든 울든 모두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서양인은 부엉이가 울든 웃든 모두 길하고 부엉이를 보면 행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엉이를 길조로 대한다. 부엉이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길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생각이나 취급법 모두 전통문화에서 비롯된다. 지금 보면 어느 것이 진리에 부합하고 어느 것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둘 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냐? (두 관점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부엉이는 길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동양의 전통문화이다. 무엇이 길하고 무엇이 불길한지, 무엇이 사람에게 재앙을 불러오는지, 무엇이 재수 없고 무엇이 상서로운지 그는 전통문화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고 상상 관념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정리해 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서양인은 부엉이가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는 부엉이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취급법이나 생각보다는 좀 더 낫고 진보적이다. 부엉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니 최소한 부엉이를 보고 나서도 마음이 안정되고, 보고 나서 재수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 좀 더 기분이 좋다. 그러나 이런 인식법이 네게 무엇을 얻게 하겠느냐? 부엉이가 정말 네게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네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부엉이가 정말로 네 운수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런 생물이 불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든,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든 그건 사람의 생각과 관념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전통문화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 어떤 문화든 진리는 아니다. 부엉이를 어떻게 대해야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이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과 관련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준칙이란 무엇이겠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한다. 그런 생물이 너의 곁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울든 웃든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준칙과 관련 있다. 그럼 그 준칙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입니다.) 그 준칙이 바로 진리이다.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네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럼 그런 생물을 대하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너는 반드시 부엉이를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이 일에서는 치우쳐서도, 그것이 재수 없다고 말해서도, 그것이 네게 행운을 가져다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너는 부엉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부엉이를 대하는 네 관점이 준칙과 진리에 부합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리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각각의 기능과 사명, 존재 가치를 갖는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모두 좋은 것이고 존재 가치가 있으며 존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쓸데없을 리 없다. 여기서 '쓸데없지 않다'는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그것이 아무렇게나 사람에게 불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작은 부엉이 한 마리가 아무렇게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럼 너무도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인간과 부엉이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겠느냐? 만물의 관리자는 인류이다. 인류가 부엉이의 운명을 좌우하고 마음대로 멸종시킬 수는 있어도 부엉이가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런 생물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해야 한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 생물과 인류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했다. 부엉이도 하나의 생물이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관점에 따라 그것을 대해야 한다. 우선, 그것의 생존 규칙을 제멋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엉이의 습성과 특징은 낮에 잠자고 밤에 사냥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만약 다친 부엉이 한 마리를 좋은 마음에 거두어 키운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그것의 습성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 너는 그것의 생활 규칙을 지켜야 한다. 밤에 그것을 재우기 위해 자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먹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것이 밤에 계속 시끄럽게 울어 네 휴식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네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두면 되지 그것의 생활 규칙을 깨뜨리거나 생존 방식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올바른 취급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이런 관점으로 대해야 한다. 우선,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는 일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지녀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동하고 일을 처리할 때 이 올바른 관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이 진리에 부합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준칙이라고 한다. 준칙은 결국 정확한 법칙이나 규칙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으려고 하는데, 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해서 고양이에게 쥐를 잡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처리 방법은 어떠냐? (규칙을 위배했습니다.) 자연의 규칙을 위배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속의 물고기를 보고 생각한다. '다들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육지에서 살게 하겠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기는 죽어 버린다.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다고 한다. 부엉이에 관한 일을 다룸으로써 준칙이란 무엇이고 준칙의 근거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깨닫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준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너희는 앞으로 부엉이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만약 어느 날 밤 부엉이가 네 창가에 앉아 울면 너는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최소한 우리는 부엉이에게 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에게 울 권리를 줘야 한다. 만약 너무 시끄러우면 내쫓아도 되지만 내일 불운이 닥치지는 않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과 생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이 주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물에 편견이 생기기 쉽고 나아가 상상 관념이나 미신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일에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며 모든 일에서 사람이 갖춰야 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도 갖추지 못한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해 초래되는 것이다.

어떤 동양인은 서양인과 접촉할 때 서양인이 콧대도 높고 눈도 크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양한 등 특색 있게 생기고 유독 분위기가 있는 걸 보고는 은연중에 서양인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감정이 생긴다. 또,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양 문화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들과 같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모는 하나님이 정했으니 바꿀 수 없지만 만약 서양인의 생활 방식과 그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 그들의 말과 사고방식, 문화와 가까워지면 자신도 고귀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어떠냐?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동양인은 서양인을 모방하는 걸 좋아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모방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들은 동양인이 차를 마시는 게 너무 미천하다고 생각해서 서양인을 따라 커피를 마신다. 특히 일부 동양인은 많은 서양인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하게 된다. 때로는 바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모방이다. 사실 동양인은 그런 습관이 없지만 그들은 서양인의 습관이 좋다고, 존귀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습관은 없지만 배우고 모방하려 한다. 익히고 나서 그 습관대로 생활하면 서양인의 일원이 되고 서양인처럼 변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마음속으로 서양인을 숭배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어서 배워 보는 건 괜찮지만 그런 습관을 익혀서 남에게 보여 주며 허세를 부린다면 그건 모방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 준칙이 없고 머리 없는 파리처럼 목표 방향도 없이 서양인을 보고 따라 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걸 보고 따라 한다. 이방인이 그러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다면 그건 어떤 인간이겠느냐? (불신파입니다.) 그렇다. 그들의 행동에 기준이나 원칙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원칙이 없다. 왜 없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흐름이나 사악함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불신파다. 이런 사람은 그런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더라도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을 영영 찾지 못한다. 이 말은 이런 사람은 영영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커피 마시는 걸 모방하는 것은 사람의 기호와 걷는 길, 행동 원칙을 드러낸다. 차를 마시는 게 진리겠느냐,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게 진리겠느냐? (모두 진리와 무관합니다.) 맞는 말이다. 그럼 무엇이 진리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건 모두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게 음식을 먹는 게 신체에 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리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다.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이다. 그럼 처신하는 준칙은 무엇을 포함하겠느냐? 처신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진리를 포함한다. 일을 처리하는 준칙은 무엇이겠느냐?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안다. 준칙의 범위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모두 진리와 관련 있다. 누가 "왜 차 마시는 걸 싫어해요?"라고 물으면 "차 마시는 걸 싫어하는 게 진리에 부합하지 않나요?"라고 답하고, 누가 "서양에 왔으니 커피를 좀 마셔 보는 게 어때요? 커피를 안 마시다니 정말 품위가 없네요!"라고 말하면 "저를 정죄하려는 건가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죄를 짓는 건가요? 품위가 진리인가요? 품위가 그렇게 가치 있나요?"라고 답해라. 아무런 가치도 없지 않으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럼 이런 예시를 드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겠느냐? 그런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일들에서 사람이 깨닫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여러 사물을 대하는 준칙이다.

한 가지 전통문화나 민족 정서가 '준칙'이라는 단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준칙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준칙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여성은 정숙해야 해요.", "여성은 반드시 삼종사덕을 지켜야 해요."라고 하는데, 그게 준칙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은 아내를 한 명만 가질 수 있고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준칙이겠느냐? 진리에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옳은 행위이고 도덕이며 인성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진리에 미치지는 못한다. 정상 인성의 도덕과 행위 기준에 부합할 뿐이다. 그럼 준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준칙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진리를 가리킵니다.) 준칙은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에 미치지 못하면 준칙이 아니다. 알겠느냐? 방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문화의 요구를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남성에게 어떻게 요구하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땀 흘려 일해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남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남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게 바로 진리이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전통문화나 도덕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리 옳다 한들 진리는 아니다. 왜 진리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절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구와 무관한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동양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느냐? 동양인은 좋은 여성은 일단 상냥하고 어질며 온화하고 우아하며 사랑스러워야 하고, 결혼 후에는 온 가족을 잘 돌보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박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동양인이 만든 여성의 이미지이자 여성에 대한 동양인의 요구 기준이다. 이제 여성에 대한 서양인의 요구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들의 사상 관점에서 그들은 무엇을 교육하고 제창하겠느냐? 여성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몇 가지가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제창하는 여성의 권리이다. 이 여성의 권리에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요구, 여성의 생활 방식이나 외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 그 개념은 무엇이겠느냐? 여성은 순종적이거나 가련해서는 안 되고 구박덩이처럼 하루 종일 고분고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 좋지 않다고, 여성은 강인하고 호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양인의 마음속 여성에 대한 요구 기준이다. 그들은 여성이 꼭두각시처럼 매일 외부의 압박을 참고 견디며 남이 꾸짖거나 명령을 내리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성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패기 있어야 한다고 제창한다. 물론 우리가 이해한 것이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여성은 대체로 이런 차이를 보인다. 그럼 이 두 관점 중 어느 것이 올바르겠느냐? (올바른 게 없습니다.) 사실 이는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 동양의 사회적 배경에서 한 집단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반항하려 한들 가능하겠느냐? 한 가족 안에서 반항한다면 괴롭힘을 당해 죽을 수도 있다. 서양에 있다면 서양 여성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어떤 집단 안에서 살든 어떤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모두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도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진리에 위배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동양인은 여성에게 늘 고분고분하고 삼종사덕을 지키며 정숙하고 상냥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쉽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양의 전통문화에서 생겨난 일종의 암적인 사상이다. 그건 사실 사람을 해치고 결국 여성이 방향도, 주견도 없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떻게 하는 게 그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한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가족에 바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는

사람을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도 반항하지 않는다. 그녀는 왜 반항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반항은 옳지 않아요. 반항하면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누구누구와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더 고생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녀는 왜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전통문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통문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그녀를 해치는 것이다. 그럼 그녀는 왜 이런 해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녀는 그런 해가 자신을 아주 고통스럽고 무력하게 하며 마음에 크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받아들이겠느냐?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회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외부의 압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말하면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녀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존엄 있고 옳은지도 깨닫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든 준칙은 무엇이겠느냐? 전통문화다. 그녀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옳고, 그것을 위배하면 양심에 가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그녀의 '준칙'이다. 사실상 그 준칙이 옳겠느냐? 그 준칙에 인용 부호를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준칙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 관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수긍이 가고 호감을 주든 실제로 그것이 준칙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진리와 인성에 위배된다. 오랜 세월, 동양의 여성은 온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전부 혼자 처리해야 했다. 그게 공평하냐? (불공평합니다.) 그럼 그녀는 왜 견딜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사상 관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내할 수 있고, 최소한 마음속 깊이 80%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자신이 맹목적으로 참으면 전통문화의 기준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과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만약 그녀가 마음속 깊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인성에 부합하지 않고 인성과 진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낸다. 그녀는 그 집단을 떠나도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단을 떠난 뒤 짊어져야 할 오명이 얼마나 클지, 그렇게 하는 결과는 어떨지 가늠한 뒤 만약 그렇게 하면 동료들은 자신이 현모양처가 아니라고 비평할 것이고 사회도 그녀를 비난할 것이며 여론이 형성돼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이렇게 궁리한다. '그냥 참자. 안 그러면 비난에 숨 막혀 죽을지도 몰라.' 동양의 여성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 그 모든 좋은 행위의 이면에 사람은 무엇을 견디고 있겠느냐? 사람은 존엄도, 인권도 박탈당했다. 이런 사상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존엄도, 인권도 박탈당했고 인격도 사라졌으며 독립된 생활 공간이나 사상 공간도, 말할 권리도,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도 없이 하는 일은 전부 가족을 위해서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여성에 대한 전통문화의 요구 기준을 충족시켜 남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는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당하냐, 아니면 왜곡되었느냐? (왜곡됐습니다.)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어 사람이 그 자유 의지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느냐?

인성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느냐? 최소한 인성에 부합한다. 그 밖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해 정확한 생각과 인지를 가지게 했고 옳은 길을 선택해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생이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소위 전통문화나 도덕경에 속박되고 얽매이고 왜곡되어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전통문화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이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런 길을 걷기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그들과 싸울 거예요.", "당신들 뒷바라지는 그만둘 거예요. 제게도 인권과 독립된 인격이 있어요."라고 말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원칙대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형제자매로 대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방인으로 대해야 한다. 스스로를 서럽게 만들거나 자신의 인격을 왜곡할 필요도,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칠 필요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 세상에 네가 일생을 바칠 만한 존재는 단 하나뿐이다. 누구겠느냐?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생존하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준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처신하고 일을 처리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지막에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이루려는 성과이다.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주제는 몹시 방대하다. 우리는 예시 몇 가지만 들었을 뿐이다. 하나는 부엉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다. 또 무엇이 있었느냐? (동양인이 서양인처럼 커피 마시는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동서양 사람들의 요구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진 예시이다. 그럼 여러 사물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 중 어느 것이 준칙이냐? (모두 준칙이 아닙니다.) 모두 진리와 관련 없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모두 준칙이 아닌 그릇된 관점과 황당한 이론, 사탄이 사람을 해치는 수단이나 주장, 철학이다. 이런 일을 이렇게 교제하니 조금은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언젠가 서양인을 따라 커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으며 서양인을 모방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게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설사 매일같이 양식을 먹더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넌 여전히 처신하는 준칙이 없는 것이다. 핵심은 진리를 구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이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에게 이롭다. 이렇게 교제하니 너희는 마음속으로 진리나 준칙에 대해 조금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전통문화나 도덕 준칙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도덕경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나면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알려 주는 준칙은 무엇일까?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이런 일을 하는 정확한 원칙일까?'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참고

샤오자(小賈)의 하루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다음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다. 이야기의 내용은 전부 진리와 관련 있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과 관련 있다.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리나 사람의 행위 준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들어 보아라. 이야기의 내용은 샤오자(小賈)의 하루다. 주인공은 샤오자이다. 이야기 줄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다루느냐? (하루입니다.) 하루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나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달려 있다.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시비를 가린다면 이야기할 가치가 없겠지만 진리와 관련 있다면 하루가 아닌 일 분 동안 일어난 일이라 해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샤오자는 열성적으로 추구하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른 아침 기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 생활을 한 뒤 샤오자는 아침을 먹으러 갔다. 그는 죽을 한 그릇 담고, 채소도 좀 떠 담은 다음 달걀을 보며 생각했다. '두 개 가져가자. 하루에 달걀 두 개 먹으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셈이지.' 손을 뻗은 순간 그는 주저했다. '두 개 가져갈까, 아니면 한 개 가져갈까? 두 개 가져가면 보기에 얼마나 안 좋겠어. 너무 욕심부리는 거겠지. 남들이 게걸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역시 한 개만 가져가는 게 좋겠어.' 그는 손을 움츠렸다가 다시 뻗어 달걀 한 알을 집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달걀을 집으러 왔다. 그 사람이 달걀을 집는 순간 샤오자는 심장이 쿵쾅댔다. '아무래도 달걀은 안 먹는 게 좋겠어. 죽이랑 채소, 시리얼이면 아침 식사로 충분하지.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달걀은 먹어서 뭐 해. 남들이 얼마나 안 좋게 보겠어. 그건 안일을 탐하는 거잖아? 그냥 먹지 말자.'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달걀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몇 분 뒤 샤오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주하게 하던 일을 하나하나 완성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하러 갔고, 시계를 보니 12 시 40 분이었다. 샤오자는 생각했다. '좀 더 기다리자. 다들 밥 먹으러 가도 나는 서두르지 말아야지. 서둘러서 남들과 같이 먹으면 나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잖아. 게걸스러워 보일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리자.'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배가 말을 듣지 않아 꼬르륵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배를 감싸 쥐고 멍하니 컴퓨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배고파 죽겠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고기반찬은 없을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배는 여전히 꼬르륵대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누가 "샤오자, 왜 밥 먹으러 안 가요? 어서 가서 먹어요. 음식이 다 식겠어요."라고 말하자 샤오자는 "괜찮아요. 하던 일을 아직 못 끝냈어요. 다 끝내고 먹으러 갈게요."라고 했다. "밥 먹고 계속하면 좋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샤오자는 허기를 억지로 참으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사실 배가 고파서 더 일할 마음도 없었지만 허기를 참으며 계속 그렇게 일하는 척했다. 얼마 후 시계를 보니 한 시 반이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가 몸을 일으켜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그의 앞에 가져다주며 말했다. "이

시간까지 왜 식사하러 안 갔어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해야죠. 제때 밥을 안 먹어 버릇하면 위병에 걸려요." 그는 "괜찮아요. 일을 마치고 먹으러 갈게요."라고 말했다. "안 가도 돼요. 제가 밥 가져왔으니 얼른 먹어요." "뭘 그렇게 서둘러요. 저는 아직 배가 안 고파요." 바로 그 순간 배에서는 천둥 치듯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다. 샤오자가 배를 감싸 쥐고 민망하게 웃으며 그 자매에게 "앞으로는 밥 안 가져다주셔도 돼요."라고 하자 그 자매는 "가져다주지 않으면 음식이 식어서 다시 데워야 해요. 이것도 한 번 데운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샤오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샤오자는 군침을 삼키며 자매가 가져다준 음식을 받아들었다. 쟁반에 차려진 식사를 흘끗 보니 찐빵 두 개와 채소, 고기, 국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무척 기뻤다. 찐빵을 보고 다른 생각이 든 샤오자는 자매에게 말했다. "찐빵을 두 개나 먹진 못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별로거든요. 그러니 제게 찐빵을 두 개 가져다주면 낭비 아니겠어요? 하나는 도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다 못 먹으면 다시 가져가면 돼요." 자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샤오자는 생각했다. '얼른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는 국그릇을 들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조금은 민망해하며 가볍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뒤 고기를 보고 생각했다. '아이고, 아까부터 멀리서 돼지고기 조림 냄새가 나더라니. 하지만 바로 먹을 순 없어. 채소부터 먹어야 해. 채소를 배불리 먹고 고기는 조금 덜 먹어야 해. 안 그러면 그릇에 있는 고기를 절반이나 먹을 텐데, 얼마나 창피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했다. 그는 찐빵을 먹으면서 채소를 먹고 국물을 마셨다. 먹다 보니 고기도 한 입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친 김에 돼지고기 조림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고 눈을 감은 채 세세히 음미했다. '너무 맛있다! 역시 고기가 맛있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돼. 한 입이면 충분해. 채소를 많이 먹고 국물을 많이 마셔야지.' 뒤이어 그는 찐빵과 채소를 먹으면서 동시에 고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생각했다. '고기를 먹을까 말까? 저렇게 맛있는데 안 먹으면 얼마나 아까워.' 그는 또 군침을 삼키며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찐빵을 잘게 잘라서 고기 국물에 찍어 먹으면 고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남들은 내가 고기를 안 먹었다고 생각할 거고 나는 고기 맛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찐빵을 고기 국물에 적셨다. 찐빵을 집어 먹어 보니 너무 맛있어서 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어서 샤오자는 찐빵을 전부 쪼개서 고기 국물 안에 넣었다. 10 분도 되지 않아 그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국물도 다 마셨다. 찐빵은 하나만 먹고, 남은 찐빵 하나도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더 먹지 않았다. 모든 채소와 음식을 원래 계획대로 다 먹었더니 배도 70, 80% 정도 불러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때 샤오자는 생각했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청 배고팠던 것 같잖아. 정말로 배가 고프긴 했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좋지 않으니 천천히 먹었어야 했어. 하지만 벌써 다 먹어 버렸으니 어쩌지? 좋은 방법이 있어. 10 분 뒤에 가져다 놔야겠다.' 그는 움켜쥔 시계를 바라보고 '5 분, 10 분, 15 분, 음, 두 시네. 가져다 놓자. 좋았어!'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고 남은 돼지고기 조림과 찐빵을 가져다 놨다.

샤오자가 돌아왔을 때는 벌써 2 시가 넘었다. 다른 형제자매는 모두 낮잠을 자러 갔다. 할 일 없이 혼자 심심했던 그는 생각했다. '나도 가서 한잠 잘까? 배불리 먹고 나서 한잠 자는 것도 좋지. 안 돼. 남들이 잔다고 따라 자면 내가 뭐가 되겠어? 자면 안 돼. 버텨야 해. 어떻게 해야 안 잘 수 있지? 서 있으면 안 잘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서 있으면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이 놀랄 테니

서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자. 누가 보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줄 알 거야. 사실은 쉬고 있는데 말이지. 괜찮은 방법이네.' 그는 자연스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바라보며 멍을 때리다가 5 분도 되지 않아 키보드 위에 엎드려 잠든 뒤 코까지 골았다. 40 분 정도 지났을 때 자고 있던 샤오자는 갑자기 퍼뜩 잠에서 깨며 펄쩍 뛰어올랐다. '나 서 있지 않았나? 어쩌다 잠들었지?' 시간이 꽤 흐른 걸 본 그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세수하러 갔다. 화장실에 도착해 거울을 본 그는 '이런, 얼굴에 키보드 자국이 선명하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라고 생각하며 얼른 세수했다. 그는 얼굴을 문지르고 두드리며 한참 동안 화장실에 머물렀다. 다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있던 키보드 자국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속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다행이라 여긴 그는 머리를 한번 빗고 옷깃을 매만졌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연한 색 셔츠의 옷깃에 묻어 있는 기름때를 발견했다. 소맷부리도 조금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생각했다. '며칠째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었네. 안 씻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 더러우면 더러운 거지. 좀 더러우면 어때? 좀 더러우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는 아예 셔츠 깃과 소매를 겉으로 뒤집고 외투의 소매도 말아 올려 더러운 부분을 다 드러냈다. 만족스러웠던 그는 기운을 차리고 여유롭게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잠깐 사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와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분주해졌다. 샤오자는 다들 돌아온 걸 보고 말했다. "이렇게 빨리들 일어나셨군요. 다들 정말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시는군요! 저는 낮잠은 안 자고 살짝 눈만 감고 있다가 세수했어요. 세수를 안 하면 너무 기운이 없더라고요." 대꾸하는 이가 없자 그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다. 점심에 국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는 억지로 참으면서 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면 내가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하겠지? 게으름 피운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가지 말자.' 그는 그렇게 참고 견뎠다.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에 가자 그는 이때다 싶어 얼른 뒤따라 화장실에 갔다. 그는 생각했다. '대세를 따르니까 얼마나 좋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샤오자는 오후 내내 분주히 움직이며 사역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을 찾아가 교제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 질문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자신의 본분과 관련 있는 여러 사역을 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갔지만 거의 제시간에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이후가 샤오자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 시간에만 아무런 자책도, 지적도 받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겠느냐? 왜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아주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커피를 탈 때 그는 소리 없이 입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오늘도 야근해야겠네. 몇 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이 커피로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텨야지 뭐." 그는 타 놓은 커피를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마치 모두에게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는데 당신들이 어쩔 건데!"라고 말하는 듯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컵을 들어올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했다. '다들 커피가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네. 매일 마실 때마다 맛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 정말 좋다!' 그는 흐뭇해하며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밤에 해야 할 사역을 막연히 찾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의 목표가 없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해서 정말 피곤했지만 졸면 안 된다고, 남에게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사역이나 본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며 계속 힘겹게 버텼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컴퓨터 옆에 앉아 계속 사역했고 당연한 듯 커피를 연거푸 몇 잔이나 마셨다. 마실수록 정신이 들고 졸음이 오지 않았다. 샤오자는 이따금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새벽 1 시가 넘었네. 하지만 잘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는 3 시니까 2 시 50 분에도 자면 안 돼. 잔다면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께도 드릴 말씀이 없어. 이건 피조물이 지켜야 할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해. 3 시에 잔다고 했으면 3 시에 자야 해. 커피를 몇 잔 마시든 어쩔 수 없어.' 그는 커피를 마시며 간신히 졸음을 참았고 마음속으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통제했다. 3 시가 되자 샤오자는 중요한 임무를 집행해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하나 보냈다. '누구누구 자매님, 저 샤오자예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 시에 소그룹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지각하지 말고 꼭 출석해 주세요.' 맨 밑에는 발신인 이름 '샤오자'를 적었다. 문자를 보낸 뒤 안심이 된 샤오자는 생각했다. '보내긴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문자를 보냈다는 걸 알까? 자지 말고 답장을 하는지 기다려 보자.' 30 분을 기다렸지만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자 그는 생각했다. '벌써 잠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자지? 3 시에 자다니 형편없군.' 3 시 50 분까지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 자매가 답장했다. '내일 10 시 예배 잊지 않았어요. 당신도 잊지 말고 시간 맞춰 오세요.' 이를 본 샤오자는 생각했다.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보다도 더 늦게 자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커피는 그만 마셔야겠다. 더 마시다간 밤을 새우겠어. 5 시 30 분에 일어나야 하니까 얼른 가서 자야지. 늦어도 6 시에는 일어나야 해. 다른 형제자매보다 늦을 순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 줘야 하니까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일찍 자고 싶었는데 다 저 문자 때문이야. 여하튼 다른 사람이 내가 밤새운 걸 아니까 목적은 달성했어. 내일은 4 시에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샤오자는 저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방에 돌아가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진 그는 거의 반수면 상태였지만 억지로 버티며 자신을 다잡았다. '아침에는 달걀을 먹으면 안 돼. 점심에는 찐빵 하나만 먹고 돼지고기 조림은 먹으면 안 돼. 새벽 3 시에 자야 하고 문자도 보내야 하고....' 생각에 잠겨 있던 샤오자는 조용해지더니 졸음기와 피로, 몽상, 허망 속에서 잠들었다. 이게 바로 샤오자의 하루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샤오자는 늘 그렇게 위장하니 피곤하지 않겠느냐? (피곤합니다.) 로봇은 하루 종일 한 가지 동작을 끊임없이 해도 피곤하지 않다. 신경도, 지각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계속 그렇게 버티면 피곤하다. 그는 그토록 피곤해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겠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가 계산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남에게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남에게 보여 주면 무엇이 이롭겠느냐? (남이 우러러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우러러보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샤오자의 행동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 (바리새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바리새인은 좋은 행위,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행위나 행동 방식을 남들

앞에서 보여 주어 사람들이 그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한다. 바리새인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을 이룬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온갖 좋은 행위를 해서 남에게 보여 주는데, 거기에 담긴 주된 성질은 무엇이겠느냐? 위장하는 것과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하는 것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영적인 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샤오자가 하루 동안 한 일 중 몇 가지가 성품에 관한 일이자 모든 외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겠느냐? 달걀과 찐빵, 돼지고기 조림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모두 겉면의 일이다. 그 안에서 너는 그의 어떤 본질을 보았느냐? 위장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장하겠느냐? (고생하는 척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좋은 일이겠느냐, 아니면 나쁜 일이겠느냐? (좋은 일입니다.) 이는 모두가 지극히 추앙하는 좋은 행위이다. 사람들은 이런 좋은 행위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진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도 불사한 것이다. 고생하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밤을 새우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모두 위장하는 것이다. 진리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로부터 우러름과 숭배를 받기 위해, 자신이 훌륭한 명성과 높은 위신을 얻기 위해 고생하는 것이다. 그가 진리를 위해 고생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몇 가지 일 가운데 진리 원칙에 부합하고, 진리를 위해 자신을 저버리며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가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느냐?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겠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겠느냐?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자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고, 기만, 위장, 사칭, 미혹이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상상 관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하게 되는 행위이자 선택이며, 진리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그는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다. 진리와 조금도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 인성의 정상적인 요구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달걀을 먹는 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달걀을 먹는 것은 게걸스러운 것이다. 달걀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음식이다. 먹을 여건이 되어 먹는다면 그걸 게걸스럽다고 할 수 없다.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남의 것을 훔쳐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게걸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샤오자는 이 일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는 달걀을 먹는 건 게걸스러운 것이고 그걸 남에게 들키면 더더욱 게걸스러운 것이지만, 몰래 먹어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 그건 게걸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게걸스러운가를 가늠하느냐? 남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근거로 가늠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그 자신의 관점이다. 사실 달걀을 먹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순전히 그가 혼자서 만들어 낸 이론이다. 그는 아침으로 달걀을 먹는 것이 게걸스럽고 안일을 탐하며 육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달걀을 먹는 사람은 모두 안일을 탐하고 육을 챙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의 뜻은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달걀을 먹는 건 육을 챙기는 거야. 나는 육을 챙기지 않아. 난 억제할 수 있어. 난 안 먹는다고. 달걀이 눈앞에 있어도 들었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 난 그럴 의지도, 결심도 있어. 나는 이렇게나 진리를 사랑하는데 당신들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는 본인의 생각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이 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샤오자가 보인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식사하러 가지 않은 것이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시간을 끌었습니다.) 억지로 허기를 참으며 시간을 끌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끌었느냐?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남에게 보여 주려 했다. 그럼 그는 그 일에서 남에게 무엇을 보여 주려 했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려 했느냐? 남에게 자신이 고생을 잘 견디고 사역에도 아주 열심이고, 충성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 자신이 초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 그러면 그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는 그런 평가를 원했다. 그런 평가는 그에게 무엇이겠느냐? 그의 생명이자 명줄이다. 이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그는 쇼를 하는 것도 불사하고 음모와 계략을 써서 허상으로 남을 기만했다. 자신이 고생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남에게 보여 주고, 이로써 남의 입을 통해 이런 평가를 얻었다. "당신은 고생을 정말 잘 견디네요.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군요." 그는 허상을 이용하고 수단을 써서 진실을 숨겨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불사하는데, 이는 남에게서 듣기 좋은 말이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입니다.) 이는 사악함이다. 위장하고 쇼하고 수작 부리는 게 수준급이다! 단지 밥을 먹는 일일 뿐인데 당당하게 가서 먹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느냐? 제때 식사하는 게 죄악이냐?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게 죄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의 필요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정당한 필요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정죄했다. 그가 제창한 것이 무엇이냐? 무작정 자신을 극복하고 실상을 숨기며 남에게 허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신이 고생을 견디고 안일을 탐하지 않으며 사역을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는 모습, 시간과 에너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 주려 했다. 사실상 그가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허상으로 남을 미혹했다. 그게 바로 사악한 성품의 특징이다. 밥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다니 그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게 정상 인성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아니다. 이는 몹시 음험하다! 고작 이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쇼를 많이 하다니 보통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들으면 칭찬하겠느냐, 아니면 반감을 품겠느냐? (반감을 품습니다.) 그럼 너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의 심정은 꽤 견디기 힘들지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면 그는 힘들고 어렵게 느낀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하늘에 오르기보다도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 놓고 그 자신의 상상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지키라고 하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렇게 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샤오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는 몹시 졸렸지만 자러 가지 않았다. 사람이 졸릴 때 한잠 자고 휴식을 좀 취하면 더 좋은 체력으로 사역할 수 있으니 그건 정당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정당하다. 그럼 그가 한잠 잔다고 해서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샤오자는 어째서 그렇게 겁났겠느냐? 그는 대체 무엇이 두려웠겠느냐? (탄로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 그는 탄로 날 것이 두려웠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모두가 자신이 특히 고생을 잘 견디며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했다. 일단 자신의 실상이 폭로되어 다들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좋은 이미지는 전부 무너진다고 여겼다. 그는 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졸더라도 스스로를 억제하려 했고, 자신에 대한 요구도 그토록 엄격했던 것이다. 이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며 예배와 교제도 많이 하는데 어째서 진리를 중시하지 않느냐? 진리 원칙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 중 사람이 조는 일에 대한 정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정의하지 않았고 언급한 적도 없다. 정상 인성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졸려서 잠깐 조는 건 정당하다.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때 잠시 쉬는 것도 정당하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신체와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는 한잠 자야 한다. 이는 생활 습관이 아닌 신체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지각과 의식, 반응을 주어 네가 사역과 환경에 따라 일상적인 식사나 일하고 휴식하는 것과 같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으니 너는 자신을 해쳐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너는 푸짐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게걸스러워지니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러나 샤오자는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다. 또 사람이 일찍 자는 것은 안일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주관적 뜻대로 행동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밤을 새우기 위해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이나 마셨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하나님 집에서 사역하느라 본분을 이행하는 요 몇 년간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남이 "누가 커피를 마시라고 했나요? 당신이 스스로 마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는 생각한다. '내가 왜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 밤을 새우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살을 빼려고 마시는 거야. 몰랐어? 하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순 없어. 말하면 당신도 알게 되잖아? 당신이 나보다 마르면 내가 말라 보이겠어?' 이는 잔꾀를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 안에는 어떤 관점과 사상이 담겨 있겠느냐? 정상 인성의 이해와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 전부 머리싸움과 수작, 음모, 그리고 위장과 외식, 미혹 같은 것들뿐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잔꾀를 부리고 결코 자신의 진실한 관점이나 생각을 말해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모두에게 알리거나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개방적이고 솔직해. 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는 결코 이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지 않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가 충분히 위대하고 경건하고 영적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 한사코 감추고 위장한다.

샤오자는 왜 밤을 새우려고 했겠느냐? 대부분의 사역은 밤을 새울 필요가 없다. 밤 10 시가 넘으면 사람은 졸리기 마련이고 설사 계속 일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다. 사람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러나 샤오자는 늘 억제한다. 사실 그도 그렇게 해 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왜 자기 전에 문자를 보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새벽 3 시에 잤다는 것을 남에게 증명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밤새 한숨도 안 잔다 한들 결국 졸린 사람은 너 아니냐? 네가 자초한 일 아니냐? 어떤 사람은 새벽 3 시까지 밤을 새우고 남에게 문자를 보낸다. 상대방이 새벽 4 시에 답장을 하면 자신이 더 늦게 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벽 5 시까지 기다렸다가 답장한다. 그렇게 실랑이하고 서로를 곤란하게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밤을 지새운다. 이는 두 얼간이가 아니냐? 이는 어떤 행위겠느냐? 어리석은 행위다. 이런 행위는 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된다. 우선 이게 어느 측면의 패괴 성품인지는 차치하고 이 일이 황당한지, 황당하지 않은지 말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 중 아무것이나 한마디 찾아 실행하면 이런 황당한 행위와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다 너를 평온하고 착실하게, 더욱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냐? 그건 자업자득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든 헛고생하는 것이고 얼마나 큰 고생을 하든 스스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지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20 년 동안 리더를 맡았어요. 늘 밤을 새우고 잠을 안 자서 결국 신경 쇠약에 걸렸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신경 쇠약이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계속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사역하다가는 얼마 안 가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자업자득이다! 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역을 최대한 낮에 안배해서 사역 효율을 높여야 해요. 여럿이 모여 사역에 대해 소통할 때는 헛소리나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중요한 것과 핵심, 주제를 파악해 말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잔소리하거나 꾸물거리지 말고 서둘러 각자 할 일을 하고요."라고 해도 그는 듣지 않는다. 그는 말하는 수준이 떨어지면서도 경험을 정리하지 않고, 허튼소리나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 새벽 한두 시까지 시간을 때우며 잠도 안 자고 남도 못 자게 하니 이는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보셨죠. 저 새벽 3 시까지도 안 잤어요!' 하나님은 보았다. 하나님은 네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까지 보고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속마음이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쓸데없이 고생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억지로 참고 버티니 너는 고생해도 싸다!" 졸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감기는 건 사람의 본능이다. 너는 늘 본능과 자연법칙을 위배하니 고생해도 싸다! 하나님은 네가 무의미하고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고생, 원칙과 진리에 위배되는 고생을 견디게 하지 않는다. 네가 굳이 그런 고생을 견디고 싶다면 견뎌라.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3 시는 돼야 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한다. '나랑 똑같잖아? 그럼 난 앞으로 3 시 30 분에 자겠어.' 다음에 또 누가 3 시 30 분에 잔다고 들으면 그는 4 시에 자려고 한다. 이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누가 더 늦게 자나 비교하다니, 이는 정신이

비정상인 것이다. 정신이 비정상인 사람은 이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이 있으면 표면적인 행위나 위장, 외식 같은 일에 공들이고 머리 쓰고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에 공들여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패괴 본성과 사악한 성품, 사람의 불성실함을 어떻게 폭로하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사람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공들이고 비춰 보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폭로하는 모습이 몇 가지나 있는지, 자신이 자주 행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몇 가지나 있는지 반성해 보아라.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얼마나 좋으냐! 늘 달걀을 몇 알, 찐빵을 몇 개 먹는지에 공들이고, 고기 국물에 찍어 먹는 일에 공들인다면 그 얼마나 비열하냐! 그건 무엇이겠느냐? 잔꾀를 부리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머저리입니다.) 맞는 말이다. 달걀을 보고 늘 몇 알을 먹을지 연구하고, 밤에는 항상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식충이나 머저리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리석으냐? 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아무 가치 없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분명 가치가 없다. 그렇게 유치한 일을 너는 왜 하려는 것이냐? 네가 평생 달걀을 안 먹는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기 쉽겠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 사람은 참 자질이 뛰어나요. 설교를 능숙하게 잘하잖아요." 설교는 능숙하게 잘하는데 왜 일할 때만 되면 항상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왜 행동이 그토록 유치하고 가소로운 것이냐?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의 말은 도리상의 이해이고 그의 행동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도리를 마음속 깊이 수긍하거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진리임을, 그가 실행하고 지켜야 하는 준칙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 꿍꿍이와 관념, 외식하는 생각과 행동 방식,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준칙이자 실행의 길이다. 이런 사람이 만약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폐기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희망이 크지 않다.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을 쓰고 밀짚모자를 쓰는 일은 정당하지 않으냐? (정당합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면서 밀짚모자를 쓰지 않으면 금방 피부가 타서 벗겨지기 때문에 밀짚모자를 쓰고 일하는 건 정당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밀짚모자를 쓰라고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밀짚모자를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햇볕에 좀 타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좀 까매야 건강하죠."라고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더운 날 피부가 타고 벗겨질 게 두려워 밀짚모자를 쓰는군. 하지만 난 쓰지 않을 거야. 피부가 타고 벗겨지는 게 뭐가 두렵지? 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조금 간사하고 외식하는 것 같지 않으냐? 사실 그가 밀짚모자를 쓰지 않는 데는 속셈이 있다. 자신이 고생을 잘 견디고 정말로 영적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는 너무도 역겹다! 이렇게 위장에 능한 사람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 이행에서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피부가 검게 타고 벗겨지는 순간 그는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인 체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사람의 본질로 보면 그들은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르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 밖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든 그것을 진리로 생각해 듣거나 이해하지 않고 일종의 영적인 이론으로 대하고 전한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하려 하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체 어떤 과정이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받는 것이란 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진리를 그는 깨닫지 못한다. 만약 어느 교회에 어떤 외식하는 사람이 진리는 사랑하지 않고 외식하기만 좋아한다면 그가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그는 행위와 겉모습, 사람들 마음속의 평가를 중시하고,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듣든 실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어떤 도리든 말할 줄 알지만 실행해 내는 것은 그가 한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그와 손발이 잘 맞는다면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상 사유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런 실행법은 틀리지 않나? 왜 저렇게 이상하지? 밥 먹을 시간에는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그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남들과는 다르게, 치우친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모두 겉모습과 행위를 특히 중시하고, 남의 생각을 중시하며 남과 비교할 것이다. 마치 샤오자가 새벽 3 시에 문자를 하나 보내자 상대방이 새벽 4 시에 다시 샤오자에게 답장을 하며 서로 '나한테 3 시에 보냈으니 나는 당신에게 4 시에 답장할 거야.', '나한테 4 시에 답장했으니 나는 5 시에 보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재다 보면 다들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 어느 교회 리더가 그런 사람이고 형제자매도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위험해지고 언제든 미혹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표면적인 좋은 행위에 미혹되거나 좌우되기 쉽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관념 속에서 그런 행위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숭배 대상으로 삼으며 그 사람이 틀림없이 리더를 맡고 온전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런 행위를 인정하고 내심 그런 행위를 긍정한다. 그가 그렇게 긍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는 따르기 시작한다. 만약 그들이 모두 리더라면 서로 비교하게 된다. 한번은 각국 교회의 리더 일꾼이 온라인에서 예배할 때 접속해서 잠시 들어 봤다. 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설교를 하는 건가?' 알아본 뒤에야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궁금했다. 흉악하게 날뛰어서 무섭게 들렸다. 흉악하게 날뛰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었다. 주된 문제는 무엇이었겠느냐? 그들은 마치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언변이 더 좋은지, 누가 도리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지, 누가 이야기한 내용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지 경쟁하는 듯했다. 듣고 있으니 꼭 링 위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 시합을 벌이는 것 같았고, 아무리 들어 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끝장난 것 아니겠느냐? 폐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리더를 맡으면 아랫사람도 덩달아 얼마나 크게 고생하겠느냐! 그러면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한 사람당 최소한 20 분씩 열심히 기도했다. 상부에서 한 사람만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사람당 5 분에서 10 분씩 교제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규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슴없이 그토록 긴 시간을 점용해 기도했다. 나중에서야 나는 왜 수많은 예배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지 깨달았다. 그런 소위 리더들이 기도만 해도 계속 시간이 길어진다. 한 명 한 명 연달아 기도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덩달아 고생한다. 그 거짓 리더들은 설전을 벌이고 끊임없이 지껄인다.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하면서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잊은 채 남보다 더 길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저자는 왜 눈을 뜨고 있지? 눈을 뜬 채 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생각이 교란당하지 않나? 무엇보다 남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속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남보다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말하며 기도할 수 있지? 이성이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저건 전부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이 영적인 척하는 모습 아닌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보고했다. "아이고, 그거 아세요? 그 리더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치 경을 외우는 것처럼 한 가지 일만 끝없이 말해요. 예배할 때마다 그런 식이라서 듣다 보면 싫증 나요." 그런 예배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은 그런 짓들만 벌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진리를 교제해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나 진리 교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고 영적인 척하는 종교의 그런 수작만 부리는데, 이는 치우치게 길을 인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깨닫지 못한 채 종교의식만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만 한다! 더 심하게는 기도를 통해 남을 폭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며, 기도로 자신을 위해 해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전부 불신파가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리더들은 기도할 때 추태를 너무도 많이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께 기도해요. 저는 소극적이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을래요." 이런 말만 한다. 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가 설교를 더 많이 듣는지, 누가 찬양의 가사를 더 많이 기억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는지,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지, 누가 더 언변이 좋은지, 누가 기도 방식이 더 다양한지 경쟁하는 등 별의별 기도를 다 한다. 그게 기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이겠느냐? 그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이다! 그건 진리를 희롱하고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마귀와 불신파는 기도를 통해 어떤 말이든 당돌하게 하니 그들이 진실로 믿는 것이겠느냐? 조금이라도 경건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리더 지위를 교체하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으며 여기저기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거짓 리더라면서 저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도리를 완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가정도 일도 버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며 형제자매와 예배를 해요. 한 번 시작하면 3 일에서 5 일 동안 예배하죠. 그런 저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교체하죠?" 그는 여전히 불복하고 불평한다. 이런 논조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집에서는 리더를 맡으면 안 돼요. 리더로 뽑히면 재수 없거든요. 교체되는 순간 평신도가 될 기회조차 사라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터무니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복이자 불만,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공격이 담겨 있다. 그것은 평범한 판단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교체된 것이 제멋대로 못되게 굴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행사할 때 그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의 기분과 감정이입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원망한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방인과 같으니 진리 실제가 있을 리 없다!

너희는 예배할 때 보통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사람들의 시간을 너무 오래 점용하지는 않느냐? 사람들에게 지겹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는 않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기도해서 다들 듣다가 지겨워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영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얻은 수확이자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두 시간 기도해도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할 때 케케묵거나 시시콜콜한 일들만 말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글귀와 도리, 구호, 남에게서 들은 것, 자신이 상상한 것을 전부 한 번씩 말한다. 남들이 지겨워하든, 싫어하든 상관 않고 그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시간이 긴 게 옳겠느냐, 짧은 게 옳겠느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렇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규정할 수 없고 개인의 심리적 필요에 따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된다. 환경이나 일어난 일에 따라 기도에 의식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의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만약 이번 기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자신의 사적인 일은 뒤에서 따로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예배 중에 기도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점용하지 마라. 이런 것을 두고 이성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과 명성을 위해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그게 바로 무지하고 이성이 없는 것이다. 이성이 없는 사람이 염치가 있겠느냐? 그가 기도하는 걸 보고 모두 싫어해도 그는 느끼지 못한다. 이 정도 느낌이나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한 진리 원칙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교제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원칙이 있고 그 모든 게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을 다해 묵상하는지 여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 실행에 관한 원칙이 아주 많다. 다양한 일, 여러 상황과 배경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원칙과 길이 있다. 중요한 것은 네게 영적인 이해력과 이해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사람이 이런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런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세하게 말씀해도 규례로 이해할 뿐,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네게 스스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 다양한 체험, 교제를 통해, 나아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한 측면의 원칙과 한 측면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측면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세세하게 말해야 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저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에게 알려 줘야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원칙들은 소용없어진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 가지씩 가르치고 사람에게 규례를 알려 준다면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얻겠느냐? 행동 방식과 행위만 얻을 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영영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오직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깨닫겠느냐? 영적인 이해력과 이해 능력이 있고 진심으로 추구하며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나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질이나 이해의 문제, 혹은 시간문제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는 20 대에게 50 살이 갖추고 이르러야 할 깨달음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가 보기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는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자질과 관련 있습니다.) 자질과 관련 있다. 또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지와 관련 있습니다.) 사람의 추구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실 그의 깨닫는 능력과 두뇌 반응, 지능만으로도 충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진리에 아무 느낌이 없으며 그 측면에서 마음을 쓰지도 않는다. 그에게 진리는 영원히 모호하고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몇 년을 믿든 소용없다.

이야기를 마치겠다.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와 내용이 너희가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현실 생활 속 사람의 생활 상태와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 사람의 일부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면 들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들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생활 속에서 사람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현상과 사람이 자주 드러내는 일부 내적 상태로, 사람의 성품, 사람의 관점, 사상과 관련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저 이야기일 뿐이고 조금 우습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뿐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너희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너희는 그 속에서 진리를 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 너희의 행위, 특히 한 부류의 사물을 대하는 관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여 네가 치우친 이해 방법에서 돌아서고 그런 일을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패괴 성품이 유발한 그런 내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알아들었느냐? 이어서 본론을 교제하겠다.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4.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지난번에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제 8 조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를 교제했다. 제 8 조는 총 네 가지 소주제로 나뉘는데, 앞의 세 가지는 교제를

마쳤다. 네 번째 소주제는 무엇이냐?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8 조의 네 번째 소주제이다. 물론 네 번째 소주제 역시 이 주제의 한 측면의 모습에 관한 것이고 이 주제와 관련 있다. 주제가 무엇이냐? 그는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이 소주제를 조금씩 나누어 말해 보자. 경험과 지식, 교훈이라는 이 몇 가지는 각각 무엇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갖추고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기 좋아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진리는 중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만 중시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진리로 여길 수 있겠느냐? 우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자질이 어떻고 깨닫는 능력이 어떻든 그들은 지식을 아주 좋아하고 진리 실제보다 지식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소위 경험과 지식을 어느 정도 얻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포장해 자신을 더 품위 있고 격조 있고 교양 있게 만들고, 남들에게 더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려 한다. 그들은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 더 가치 있고 보람차며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지식과 신학에 관한 말, 여러 측면의 상식과 지식, 교훈에 관한 말로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갖추면 하나님 집과 그 무리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매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고 추종하는 것은 모두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과 관련 있다.

우선 지식과 경험,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이 몇 가지는 틀림없이 진리와 무관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진리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념 속에서는 옳은 것이고 긍정적인 사물이거나 아름답고 선한 사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보기에는 진리와 무관하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진리를 정죄하는 근원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갖게 되는 근원이자 원천이다. 경험과 지식, 교훈 같은 것을 갖춘 사람들 간에 나이나 성별의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이 한 가지 이론이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런 이론의 핵심이나 기본 개념을 이해한 뒤 빠른 두뇌 반응으로 그런 이론이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말로 바꿔 남에게 말하고 들려줄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는 듣고 나면 금세 기억하는데, 깨닫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고 기억력이 특히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일종의 특별한 은사이다. 이런 은사를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는 하나를 말하면 곧장 둘을 알고,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들은 주제를 잘 활용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외부의 일부 사물이나 이론과 같은 논리, 글에 관한 것에 아주 능하다. 즉, 언어유희에 아주 능하고, 이론으로 남을 구슬리고 굴복시키는 데 능하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일부 있는데, 말재주가 특히 좋고 생각과 반응이 아주 민첩하다. 그는 한 측면의 진리를 들으면 자신의 잔재주와 은사로 그 측면의 진리를 일종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해한다. 그런 다음 그런 학문을 이용해 남에게 교제하고 소위 양육하고 목양하는 사역을 한다. 이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실제적이지 않고 사람이 듣고 나서도 실행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전부 옳다고, 틀리거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은 한 마디도 없고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행할 때는 그 말이 공허하다고, 실행할 때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그것을 실행의 원칙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겠느냐? (도리입니다.) 도리이고 지식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매우 뚜렷하고 두드러진다. 그들은 진리를 지식이나 학술, 이론으로 여기고 늘 알 듯 말 듯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한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세히 말해 달라고 하면 명확히 말해 주지도 못하면서 반박까지 한다.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실행의 길이 생겼을 텐데 말이죠." 일부 어리석고 분별없는 사람은 듣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진리를 사랑했다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분별없는 사람은 그의 말이 옳다고,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우왕좌왕한다.

다시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자. 경험은 오랜 시간 겪은 것을 정리해 낸 일종의 행동 방식이다. 이틀 사역한 사람이 경험을 갖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0 년, 20 년 사역한 사람은 분명 경험을 갖췄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사역해서 경험을 갖췄으니,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리를 말해야 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느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그는 지난 20 년간 사역한 기록을 들춰 보며 궁리하다가 과거의 말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가 그렇게 적용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가 한 일이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보자마자 말한다. "저 사람은 제멋대로 사역하네요. 사역할 때 원칙이 없이 전부 경험에만 기대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고 하나님 집의 사람을 대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규례를 적용하는군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보통 사람은 사역한 기간이 짧으면 "저는 경험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만나 보지 못한 사람이나 처리해 보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말할 밑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한다. 설사 네가 많은 일을 처리해 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적지 않게 처리해 봤다 하더라도 네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진리 원칙에 맞게 행동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감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경험이나 공식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누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오랜 세월 사역해서 당신보다 경험이 더 풍부해요. 감히 다른 의견을 내다니, 집에 돌아가서 기도나 제대로 하세요!"라고 말한다. 그의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히 다른 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경험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저도 자신을 진리의 화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감히 누가 진리의 화신을 자처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죠.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네 행동 방식과 행위,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한 본질을 보면, 결국 네가

자신을 진리의 화신으로 여겼다고 규정할 수 있다. 왜 너는 네가 내놓은 제안에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순종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게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할 자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네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뿐이다. 네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 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 때이다. 하지만 설사 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평범한 사람이 진리의 화신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한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깨닫도록 요구한 진리를 모두 깨닫는다고 해서 진리의 화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건 아마 온전케 되지 않은 거겠죠. 베드로는 온전케 된 사람이니 진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온전케 되더라도 진리의 화신은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본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차이가 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우리는 사람이 진리의 화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봐야 한다. 왜 사람은 진리의 화신이 될 수 없다고 하겠느냐? 진리의 화신이 단지 본질의 문제겠느냐? 누군가 말한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피조물이고 하늘의 그분은 선천적으로 창조주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해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의 화신이시죠. 그럼 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갖추었기 때문에 진리의 화신일까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진리를 얻는다면 우리도 진리의 화신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는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본질은 교체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여기까지 이해한다. 그럼 이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없겠느냐? 내가 이 일을 교제하면 너희는 곧장 이해할 것이다. 진리의 화신을 언급해서 말인데, 그럼 화신이란 무엇이냐? 이 말은 조금 추상적이니 제일 간단한 말로 얘기해 보자. 하나님 자신은 바로 진리이고, 그는 모든 진리를 지니고 있다. 그는 진리의 원천이다.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는 만사 만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인류가 모르는 일이든 모두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다. 즉,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물의 준칙을 알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곧 진리의 화신이다. 즉, 그 자신이 진리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고 해도 진리의 화신과 관계가 있겠느냐? 없다. 이는 틀림없는 것이다. 사람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요구한 여러 방면의 기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실행 방법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닿을 수 없고 꿰뚫어 볼 수 없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직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일, 미지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얻어 진리 실제를 갖추고, 수많은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모든 사물을 통제하고 주관할 능력이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피조물은 영원히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진리를 얻을 뿐이다. 사람에게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진리이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을 뿐, 진리를 공급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너를 진리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진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진리의 화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공급하는 원천이요, 모든 사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원천이요, 또한 만사 만물을 판단하는 유일한 준칙이자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화신이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흔히 이 점에 불복한다. 그들은 지식은 힘이고 경험은 사람이 자신을 무장해 강하게 만드는 무기라고, 사람이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추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사람의 운명을 통제하고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거나 좌우하며 나아가 사람의 행위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생각이냐? (적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왜 인류의 운명을 주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점을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며 더욱이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는 사람과 지식, 사회에서 비롯된, 사악한 인류가 숭배하는 것들을 진리로 여기고 그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선민 사이에서 한자리 차지하려 한다.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갖추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에게 통제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에게 통제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한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지배를 받아 그의 도구이자 노예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관점과 소위 경험, 지식,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를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를 숭배하면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면 그가 사람들을 휘두르기 편해지지 않겠느냐? 그는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가로채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기뻐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사실, 그도 마음속 깊이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고 진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은사에서 비롯된 것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손아귀에 꽉 움켜쥐려 한다. 그런 경험과 지식, 교훈 중 일부는 분명히 사람을 속이는 마귀적인 말이고, 일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함정이 숨겨져 있고 계략과 묘책이 들어 있어서 간파하지 못하면 미혹된다. 미혹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사람의 지식과 경험, 교훈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제쳐 놓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해하면서 그런 지식과 경험은 유독 신경 쓰고 떠받들며 나아가 공들여 실행하고 이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이루려는 목적이다. 만약 그에게 사람을 휘두르고 통제하여 순종시키려는 야심이 없었다면 그가 그런 것들을 갖추었겠느냐? 그는 공들여 갖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목표가 있고 목적성이 아주 명확하다. 그의 명확한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가 한 무리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든, 일부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든 만약 이론적 기초가 없다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는 먼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가장 부합하고 사람의 구미에 가장 잘 맞는 사상과 이론을 찾아 무리 속에서 전력을 다해 퍼트려야 한다. 사람을 세뇌시키고 설득하며 끊임없이 주입하고 들려주고 숙지시켜 그런 사상 관점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사실 사람은 매우 수동적으로 주입되고 세뇌되며, 부지불식간에 그런 관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 안에는 옳고 그름과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사람은 그런 것들에 저항할 능력도, 항체도 없다. 사람은 그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금세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된다. 포로란 무엇이겠느냐? 그런 관점을 받아들인 뒤 그런 것들이 옳다고 점점 더 철저히 믿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함과 동시에 남을 설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미혹되고 통제되는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는 바로 이렇게 목적을 이룬다.

세상에서 일부 특수한 업무 기술을 배웠거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오고 나서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떤 생각이겠느냐? 그들은 자신이 사회에서는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엘리트란 무엇이냐? 무리에서 비교적 뛰어난 사람이다. 그들은 일부 특수한 고등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서 그들의 재능과 자질, 은사는 출중하다. 출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 무리 사람들 속에서 사고와 지능, 말재주가 뛰어나고 일부 사물이나 기술에 대해 특수한 이해력을 가진 것을 출중하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엘리트로 불린다. 모든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양성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국가를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각자의 직무에 뛰어들면 각 업계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겠느냐, 아니면 낮겠느냐? (높습니다.) 분명 평범한 지위는 아닐 것이다. 특수한 재능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일부 특수한 지식을 배웠으며, 특수한 교육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질과 재능, 학습한 지식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의 심리는 어떻겠느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먼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잣집은 망해도 삼 년을 간다잖아. 하나님을 믿은 뒤로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됐고 세상에서 환영도 못 받게 됐지만 내가 받은 특수한 교육과 학습한 지식, 갖춘 재능으로 보면 당신들 중에서는 내가 지도자가 돼야 해. 하나님 집에서 대들보나 기둥 역할을 해야 하고 리더나 인솔자가 돼야 한다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만약 그가 농민에 불과하다면 감히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감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감히 그러지 못하겠느냐? (그럴 밑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할 밑천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지식과 재능, 은사, 그리고 소위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 와서 생각한다. '나는 이제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너무 사악하니까. 이제 하나님 집에 와서 추구하자. 하나님 집에 오면 최소한 교회의 리더 일꾼

정도는 맡아야 해.' 그가 좋은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왜 좋은 마음을 품지 않겠느냐? 그가 학습한 것들과 그가 갖춘 사회적 지위가 그를 해치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그런 지위에서 내려올 수 없다. 그는 늘 자신이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는 평범한 피조물과 다르지 않다. 그는 늘 자신을 구름 위에 올려놓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떨어지는 순간 크게 다쳐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왜 자신이 당연히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당연히 숭배받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당연히 그 위주로 행동해야 한다고, 무슨 일이든 당연히 먼저 그의 의견을 묻고 경청해야 하며 당연히 그를 먼저 떠올리고 그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왜 '당연히'라는 생각을 그토록 많이 하겠느냐? 그가 자신이 갖춘 사회적 지위와 지식, 그리고 학습한 특수한 것들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한다. '진리를 아무리 많이, 대단하게 말한다 해도 내가 가진 것들은 여전히 가치 있어. 진리보다 가치 있고 진리가 대체할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사회에서 기업 총수로 수천 명을 관리했어. 내가 팔 한 번 휘두르면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했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으니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어! 하나님 집의 이런 보잘것없는 인물들 중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한 바퀴 돌아봐도 특별한 인물은 별로 없네. 내게 관리를 맡기면 식은 죽 먹기일 텐데. 별것도 아니라고!' 네가 그에게 "좋아요. 그런 야망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당신이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교회 리더로 추천할게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실행할 줄 알게 하고,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붙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는 "그거야 쉽죠. 저는 기업을 경영할 때 사람을 설득하는 일만 했거든요. 자신 있어요."라고 한다. 한 교회의 30 명 넘는 사람을 그의 손에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달도 되지 않아 그중 연약한 사람은 더 연약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은 더 소극적으로 변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예배만 하면 졸며 상부의 설교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누가 "당신은 꽤 능력 있지 않아요?"라고 하면, 그는 "맞아요. 저는 기업 총수니까 당연히 능력 있죠!"라고 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총수였다 한들 소용없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 사역에는 문외한이다. 그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면 표면적이고 소용없는 형식적인 일만 하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며, 한 교회의 몇십 명조차도 잘 양육하지 못한다.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에서 한때 기업 총수나 고위 임원이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 집에 와서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키지 않는 것도 한 측면이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내적 상태와 패괴 성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람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맹목적으로 행동한다. 그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비슷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정을 북돋우면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처세술을 활용해 상부를 매수하고 하부를 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모두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외부의 일은 진리와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하든 모두 진리와 성품 변화에 관련되는데, 세상에서 쓰던 수법을 쓴다고 통하겠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다. 사람의 내적 상태와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람이 패괴 성품을 드러낼 때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되는대로 규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누가 문외한이거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말을 한 마디 하면 그는 그 사람이 자질이 떨어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리저리 되는대로 규례를 적용해 사람이 길을 잃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도 기운이 빠지게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더 소극적으로 변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교회를 이끌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낫다고 말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그가 교회를 이끌면 사람들의 마음을 흩트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믿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원래 명확한 이상(異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며 사람을 휘저어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본래 사람은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도리만 깨달을 뿐인데, 그가 휘저으니 더욱 모호해지고, 성령 역사도 종잡을 수 없게 되며,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도 좀 헷갈리게 된다. 그럼 그는 어떤 행동 방식을 써서 사람을 그 지경으로 이끌었겠느냐? 예를 들어,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진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는 네가 진실로 깨달은 것과 인식한 것, 체험한 것으로 이 말을 논증해 형제자매가 그 말이 진리이고 옳다고 더 확고히 인정하게 하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확신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겪고 박해를 당해도 마음속에 힘이 생긴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1 억 년 전의 인간은 부족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가 이렇게 지식을 과시하며 역사(歷史) 얘기를 하자 다들 듣고 어리둥절해서 말한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을 들으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럼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닐까요?" 보아라, 그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이는 사람을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그의 지식을 자랑하고 역사나 철학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과 어떻게 왕래하고 서로 결탁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가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들으면 원래 분량이 작고 연약하며 믿음도 작은 일부 형제자매의 마음은 어디로 달아나겠느냐? (세상으로 달아납니다.) 그렇다. 이는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면 그가 망쳐 버린다는 뜻이다. 그는 분명 문외한이고, 생명 진입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본직 사역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생명과 영 안의 일이나 성품 변화에 관한 일은 더더욱 깨닫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사칭하고 목자가 되어 하나님 선민을 이끌려 한다. 황당하지 않으냐? 만약 네가 생명과 영 안의 일을 모른다면 리더로 뽑혔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문외한이고, 교회를 이끌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구해야 해요. 사역 지침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교제하거나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와 협력해야 해요."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사코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저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고 하는데, 누가 저만큼 자격이 있겠어요? 저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사회에서 상당히 명망이 높았어요. 누구든 절 보면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 줘야 했죠." 이렇게 허풍을 떨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그처럼 교회를 이끌면 형제자매가 진리 실제에 진입할 희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그에게 보고하게 한다. 이 마귀는 대학을 며칠 다니고 지식을 좀 갖추었다고 사회에서 공공연히 사기를 치고 어떤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다. 약간의 생존 수단이 있으면 하나님 집에 와서 명성을 쌓으려 하고, 지위를 얻어 가문을 빛내기 위해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면서 하나님 선민이 모두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하려 한다. 그에게는 이 '진리의 화신'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들은 제 생각, 행동 방식, 관점 하나하나 다 진리로 여기고 지켜야 해요. 규칙을 하나 정해 줄게요. 5 위안 이하의 영수증은 다 제게 보고하세요." 누가 "5 위안은 보고할 필요 없죠. 저희도 권한 범위가 있잖아요. 저희도 원칙대로 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리더니까 제게 결정권이 있다고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통제한다. 나쁜 짓이나 사람을 기만하는 짓은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다. 남을 속이고 해칠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슴도 두근거리지 않으며, 속으로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지위를 하나 주면 대담하게 차지하고, 일단 지위를 차지하면 내려오려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자신이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려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지는 않고 마지못해 본분을 이행한다. 그저 힘써서 복받을 생각만 하지 진리에 공을 들이려 하지는 않고,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저 성과를 조금 내서 제명되지 않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든 않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든 않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하나님은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고 해서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너를 감찰하면서 네가 과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실로 회개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살핀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러 올 때는 아무 진리도 깨닫지 못한 상태지만 자주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점차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마음도 점점 밝아져서 자신이 너무도 많이 부족하고 아무 진리도 갖추지 못했으며 본분을 이행할 때도 원칙 없이 그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좀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고는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뉘우치면서 진리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본분 이행도 점점 성과를 내게 된다. 이러면 그는 생명 진입이 있을 뿐 아니라 본분 이행도 점차 기준에 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진리를 점차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패괴 표출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패괴를 벗어 버리고 진리를 실행하며 진리 추구의 길을 걸으려 한다. 이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생명이 점차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어떤 사람은 유독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는 하나님 집에 와서 특히 본분을 이행한 뒤 그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는데, 두 손을 허리에 얹거나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에 불복하고 분개한다. 그는 왜 그렇게 교만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가정, 일을 모두 버렸어. 이 정도면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내게 어떤 보상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고려하면 하나님 집에서 최소한 내게 같은 대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제 나도 본분을 이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순 없나? 나는 특별한 인재이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하나님 집에서 지위를 가져야 해. 다른 사람이 리더를 맡을 수 있다면 나도 맡을 수 있어. 내 지위는 남보다 낮으면 안 되고 내가 누리는 대우도 보통 사람보다 좋아야 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 복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실 수 있는지야.' 그의 마음속 생각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거래하러 온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의 이성은 바울에 훨씬 못 미치고 아예 비교도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수년간 복음을 전하며 분명 많은 고생을 견뎠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의 성과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최소한 유럽 대부분에 발자취를 남겼고, 유럽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이 점에서 평범한 적그리스도는 바울만큼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바울만큼 힘쓰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금 언급했던 그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고 나서 안하무인이 되었으니 이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는 전혀 이성이 없다. 마치 도적처럼 일단 복받을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늘 닥치는 대로 하나님 집에서 사람들 앞에 나설 기회를 찾는다. 설사 팀장이나 책임자를 맡는 것일 뿐이더라도 말이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 집에 와서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내켜 하지 않는다. 누가 자신은 평범한 피조물이라고, 수많은 중생과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피조물일 뿐이라고 인정하든 말든, 그는 그런 관점을 영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절대 자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하나님 집에서 특별한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하면서 하나님 집이 그의 재능을 의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남이 그의 사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더더욱 허락하지 않으며, 그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이성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재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뛰어나다고 치켜세운다. 그럼 그가 말하는 재능이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큰소리치고 허튼소리 할 줄 아는 것, 보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고 속이는 기술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는 그게 재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으로 공공연히 사기를 치려 한다. 진정한 재능이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면서 각 부류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었다. 혹자는 문학에 재능이 있고, 혹자는 의학에 재능이 있으며, 혹자는 기술 연구에 재능이 있고, 또 혹자는 과학 연구에 재능이 있는 식이다. 사람이 지닌 이 재능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니 우쭐거릴 만한 것이 못 된다. 또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그것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리 실제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마땅히 그 재능을 본분 이행에 써야 하며, 이는 하나님이 열납하는 일이다. 만약 어떤 재능이 있다고 우쭐거리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성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는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그들은 평생 가는 철밥통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 기술을 밑천으로 삼는데, 이는 너무도 교만한 것이다! 그럼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봐야겠느냐? 그것들이 하나님 집에서 쓸모가 있다고 해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 은사와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기껏해야 사람의 재능에 불과하며, 진리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 네게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될 수 없으며, 진리 실제가 있다는 의미는 더더욱 될 수 없다. 만약 네가 은사와 재능을 본분 이행에 발휘해서 그 본분을 잘 이행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곳에 사용한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 은사와 재능을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독립 왕국을 세우는 데 쓴다면 그 죄는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흉이 된다. 하나님이 준 은사를 본분 이행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이는 너무도 양심과 이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빚을 지는 것이며, 대역무도한 행위이다! 하지만 네가 은사와 재능을 아무리 잘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실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일 처리에 원칙이 있어야 진리 실제를 갖춘 것이다. 은사와 재능은 영원히 은사와 재능일 뿐, 진리와는 무관하다. 네게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든, 네 명성과 지위가 얼마나 높든 영원히 네게 진리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은사와 재능은 영원히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진리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부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몹시 중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연기에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집에서 영화를 찍을 때 한 번 주연을 맡은 뒤로 거만을 떤다. 화장할 때는 세 명이 붙어 화장을 해 줘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배우의 본분을 이행하더니 거만을 떠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보기에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는 외모도 특별하지 않고 연기도 평범하다. 그런데 특정 역할에는 어울리기 때문에 그를 또 작품에 출연시킨 것이다. 이는 그를 높여 준 것 아니냐? 본분 이행의 기회를 줬더니 그는 거만을 떨었고, 연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고 물을 따르며 시중을 들게 하여 보고 있던 형제자매를 화나게 했다. 내가 "그를 정리해 내보내거라!"라고 하자 교회는 그를 정리해 내보냈다. 이런 사람은 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교회에서 영화를 찍을 때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감히 거만을 떤 것이다. 그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다. 이게 바로 본성이 부추긴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식과 재능, 학문과 경험을 사랑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몹시 중시하는 반면 가장 귀중한 것, 즉 진리는 소홀히 한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것,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지식과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고 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굳게 설 수 없으며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도태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정도 도리는 사람이 깨닫기 쉽지 않으냐? 하나님을 여러 해 믿고도 이 정도 일조차 간파하지 못한다면 그건 멍청이에다 분량도 전혀 없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사리에 밝다면 그토록 교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바로 마귀 사탄이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직접 짚어 주어 너희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도 이 일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명확히 짚어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를 제명할 수 있겠느냐? 다들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니 내가 직설적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가 깨달은 그깟 도리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늘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은 대학을 졸업했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이 풍부하며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학습한 영적 이론을 지극히 사랑하고 중시하며 나아가 그런 것들을 진리로 여겨 대한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으로 주위 사람을 지도하고 미혹하고 훈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자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로 남을 설득하거나 굴복시켜 남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다.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누군가 말한다. "저는 대학에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어요. 제 학생은 모두 석사나 박사였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의실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가 숭배하고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도 저는 긴장하지 않았죠.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저는 그런 재능과 배짱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14 살 때부터 차를 운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 년 넘게 차를 몰았어요. 운전 기술이 뛰어나죠." 그의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이런 뜻이다. '겨우 며칠 운전한 니들이 뭘 알겠어? 나는 평생 차를 운전한 숙련된 기사야.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고 내 말을 전부 따라야 해.'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능력이 좀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비화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남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장점이나 은사가 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남을 지도하려 한다. 누가 그에게 문제를 물어보면 그는 지위에 서서 남을 훈계하며, 훈계한 뒤에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질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사실은 그 자신이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지 못하는 걸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왜 또 못 고치죠? 다 알려 주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다니, 자질이 너무 떨어지네요. 매번 가르쳐도 못하잖아요." 남이 그에게 처리하게 하면 그는 한참을 보고도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면서 그가 못 고친다는 걸 남이 알지 못하게 숨긴다. 그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게 한 다음 혼자 몰래 궁리하고 연구하지만 여전히 고칠 줄 모르고, 결국 엉망으로 해체해 놓고는 다시 조립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누가 볼까 봐 두려워 물건들을 숨겨 놓는다. 어떤 일을 못 하는 게 창피한 것이냐? 못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일을 못 하는 건 창피한 것이 아니다. 넌 보통 사람이고 아무도 너를 우러러보거나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일 뿐이다. 못 하면 못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위장을 하느냐? 늘 위장하면 사람들을 역겹게 하고 언젠가는 결국 탄로 난다. 그때가 되면 네 존엄과 인격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늘 자신이 만능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줄 모르는 것이나 불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으냐? 그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이 분야의 기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험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직면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본분을 잘 이행하려면 업무 지식을 좀 배워야 해요. 업무 지식을 파악하면 본분 이행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걸 잘 이행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본분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업무 지식을 학습해야 해요." 이것이 진리 실행이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이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저를 우러러볼 필요 없어요. 저도 거만 떨 필요 없죠. 그럼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늘 외식하고 위장하면 너무 괴로워요. 우리 못 하는 건 같이 배우고 조화롭게 협력해서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해요.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억지를 쓰지도, 남에게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고 스스로 짊어진 채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행동하잖아. 좋은 사람이야. 사역이나 본분을 진지하게 책임지니까 믿을 만해. 하나님 집에서 이 중요한 사역을 그에게 맡긴 건 옳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구나!' 그가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기술도 향상되고 다들 그를 칭찬한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겠느냐? 첫 번째, 그는 본분을 대할 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녔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며 배우기 좋아하는 태도를 지녔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깨우침이 있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는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는 패괴 성품과 결점이 있고 할 줄 모르는 일도 많지만 그의 실행 길은 옳다. 그는 위장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본분을 대하며, 갈망하는 태도, 경건한 태도로 진리를 대한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영영 그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과 영원히 다르기 때문이다. 왜 다르겠느냐? 그의 내면에는 사탄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 성품에 기대 살면서 늘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잡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는 늘 여러 방식으로 음모와 계략을 쓰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을 미혹해 남들의 숭배와 추종을 받으려 한다. 따라서 그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위장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며 남을 속인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는 뭐든 옳고 뭐든 할 줄 알며 뭐든 가능하다고, 남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많이 안다고, 무슨 일에서든 남보다 낫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나아가 어떤 무리에서든 그는 출중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는 사칭하는 것을 배우고 다양한 행동 방식과 모습을 보인다.

생각해 보아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칭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는 어떤 사람으로 사칭하겠느냐? 그는 마귀나 부정적인 인물로 사칭하지 않고, 뛰어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하며

사람들이 숭배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사칭한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칭한다. 그가 무엇이든 알고 이해하는 척, 진리를 갖춘 척, 긍정적인 인물인 척, 진리 실제인 척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 그런 실제나 본질이 있겠느냐? 없다. 없기 때문에 사칭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가 진리 실제를 갖췄으니 진리의 화신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주장이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리 실제를 조금 갖췄다고 해도 결코 진리의 화신은 아니다. 따라서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사람은 모두 교만한 자이고 그릇된 존재이다! 사람이 진리 실제를 조금 갖췄다고 해서 감히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것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망망대해인 척하는 것과 같다. 이는 교만하기 그지없지 않으냐? 후안무치하지 않으냐? 사람이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려면 그런 척할 밑천이 있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사칭하느냐? 방금 말했던 지식, 경험, 교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칭한다. 그 안에는 사람이 배운 특별한 기술과 재능,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춘 은사가 포함된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갖춘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은사나 말재주를 갖춘 사람도 있으며 일부 특별한 업무 기술을 학습하고 숙달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춤에 특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음악에 특히 뛰어난 사람도 있으며 미술에 특히 뛰어난 사람도 있다. 언어나 문학에 특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 정치를 잘해서 유독 사람을 잘 휘두르고 외교에 능한 사람도 있다. 아무튼 각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다 포함된다. 이렇게 특수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나 고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옛날 얘기든 지금 얘기든 조리 있게 말하고 특히 말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집에 와서도 안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야심과 욕망을 품게 되며, 서서히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한다는 이 조항에서 방금 우리는 지식과 경험, 교훈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이냐?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핵심은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것이다. 지식과 경험, 교훈 같은 것들은 모두 진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리와 아무 관련도 없다. 심지어 그런 것들은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에게서는 정죄된다. 예를 들어, 지식의 경우, 역사를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어떤 국가나 민족의 역사, 현대사, 고대사, 나아가 일부 야사까지 이런 지식과 역사서는 모두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람이 썼습니다.) 그럼 사람이 쓴 그런 것들이 진실한 역사에 부합하겠느냐? 사람의 사상 관점은 하나님의 행사 원칙이나 방식, 방법과 배치되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이 하는 그런 말들이 진실한 역사와 관련이 있겠느냐?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다. 따라서 역사서에 아무리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돼 있더라도 그건 지식일 뿐이다. 역사학자들의 말재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역사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명확히 얘기해도 듣고 나면 결국 어떤 결론을 얻겠느냐? (그런 일들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일들을 알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단지 네게 한 가지 일을 알려 주려는 것뿐이겠느냐? 그는 일정한 사상을 네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그가 주입하는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해부해야 한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입하려는 것인지 예시를 들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결국 한마디 말을 정리해 낼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나 방법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상 상반되고 상호 위배되거나 저촉된다. 그럼 그가 네게 이것을 주입하는데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이방인이라면 너는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는 이 말을 어떻게 보겠느냐? 우선, 역사학자나 역사서는 그런 일들을 전부 열거하고 충분한 증거나 역사적 사건으로 이 말의 정확성을 증명한다. 너는 처음에는 아마 단지 책에서만 이 말을 배운 적이 있고 그저 이 말을 알고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런 일들을 알기 전에 너는 한 가지 차원이나 정도에서만 이 말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듣고 난 뒤에는 이 말을 더 깊이 인정하고 수긍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맞아요.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그렇게 발전했어요.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됐다고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일에 대해 그런 인지를 갖게 될 때, 너는 마음속으로 네 처신과 사업, 생활, 주위의 사람과 일, 사물을 어떤 관점과 태도로 대하겠느냐? 그런 인지는 네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 (바꿀 것입니다.) 일단 그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꾸겠느냐? 네 인생 방향과 처세 방식을 인도하고 바꾸지 않겠느냐? 아마 예전에 너는 '화합은 귀하고, 인내는 고귀하다.',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된다잖아. 벼슬길에 오르고 싶으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해. 그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를 발탁해야 하더라도 발탁하면 안 돼.' 이렇게 고민하면 네 태도는 달라지고 금세 바뀐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생기겠느냐? 네가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된다'는 사상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생긴다. 너는 수많은 사실을 듣고 나서 이런 관점이 인류의 현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더욱 확신하게 되고, 네가 행동하고 처신할 때 이런 관점을 이행하여 앞으로의 생활과 앞길을 추구해야겠다고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런 사상 관점이 너를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를 바꾸는 동시에 너를 패괴시킨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지식이 너를 바꾸고 패괴시킨다. 그럼 근본적으로 보면 아무리 사실과 일치하게 역사를 말하더라도 결국 그런 말을 정리해 내고 그런 사상을 네게 주입한다. 그럼 그 지식은 진리의 화신이겠느냐, 아니면 사탄의 논리겠느냐? (사탄의 논리입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충분히 세세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생을 두 번 더 살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살아갈수록 자신이 어리석고 충분히 모질지 못하다고 느끼고 좀 더 모질고 약아야 한다고, 좀 더 음험하고 나쁘고 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살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방화를 하겠어. 그가 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열 명을 죽이겠어. 그가 감쪽같이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사람을 해치고 나서도 그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가족이 삼대에 걸쳐 내게 감사하게 하겠어!' 이게 바로 사탄의 철학과 지식, 경험과 교훈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사실상 해를 입히고 패괴시킨다. 따라서 이 세상은 어떤 지식을 전파하고 퍼트리든, 그와 동시에 네게 일종의 사상 관점을 주입할 것이다. 만약 네가 분별할 줄 모른다면 해를 입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런 지식은 민간에서 비롯된 것이든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든, 소수의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든 절대다수의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든 모두 진리와 무관하다. 진리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다. 그것의 정확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아무도 그것을 바꾸거나 부인할 수 없다. 진리는 영원히 진리이다.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인도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님에게도 역사와 장부가 생겼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 주려는 것은 진리이지만, 인류가 일을 바라보며 내리는 평가나 정설은 모두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근거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냐? 인류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그럴싸하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론을 정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긍정적인 사물인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 예수가 사생아이며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모독한다. 사탄은 인류의 가장 더러운 말, 사람들이 증오하고 경멸하는 말을 주 예수의 출생에 사용한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행사이다. 하나님이 행한 행사가 어떤 형식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영원불변의 진리라는 점이다. 그럼 이토록 뚜렷한 사실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증거한 사실을 사탄은 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사탄은 왜 그 사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 예수를 사생아이며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겠느냐? (사탄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 일은 사탄이 가장 잘 안다. 그는 영계에서 분명히 봤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러겠느냐? 그가 그렇게 하는 동기와 속셈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왜 그런 말을 퍼트리겠느냐? 그는 일부러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깎아내리는 것이다. 깎아내리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예수가 사생아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예수를 믿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전부 당신을 믿지 않는데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진리는 영원히 진리이다. 당시에 인류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2 천 년 뒤에는 주 예수를 따르는 자, 칭송하는 자들이 널리고 널렸고, 도처에 십자가가 높이 걸리게 되었으니 사탄은 실패했다. 사탄의 그 말이 쓸모 있겠느냐? (쓸모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진리가 아니고 굳게 서지 못하며, 그가 하나님을 깎아내려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이 행사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든 않든, 인류의 전통문화나 주장, 혹은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든 않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신경 쓰지 않겠느냐? 이는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데 사탄의 그 헛소리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 일을 간파하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만물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장악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몇 글자로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겠지만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진리는 영원히 진리이다.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힘은 사탄을 포함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사탄은 아직까지도 그 말을 퍼트리지만 소용 있겠느냐? 소용없다. 은혜시대의 그 사역은 끝났고 주 예수의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두루 퍼졌다. 말세에 하는 심판의 새 사역이 시작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사탄은 진작 패배해서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노발대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다. 따라서 논조가 어떻고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든, 그 논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철되고 널리 퍼지든 다 소용없고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침없기 때문에 사탄도 막을 수 없다. 몇몇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 하다니, 헛된 망상이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를 접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논조를 받아들이며 자라났기 때문에 머릿속에 사탄의 논리와 철학, 지식이나 과학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사탄의 유언비어와 헛소리도 소용없다.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가로막지 못했다. 각국의 하나님 선민이 모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고 증거하고 있다. 사탄은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말한다. "내가 사람을 미혹하는 말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 왜 소용이 없지? 하나님 선민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해치는 일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 왜 별로 효과가 없지?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점점 늘어날까?" 사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철저하게 치욕을 당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패배자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사실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사탄과 모든 마왕은 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모두 봉사만 하는 존재이자 부각물이다. 이런 봉사만 하는 존재와 부각물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관련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그와는 관련이 없다. 그가 제왕이든, 도적이든 모두 사탄에 속하고 전부 멸해져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단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영원히 사탄을 저버리면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측면에 관해 예시를 하나 들었으니 아마 더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런 것들을 교제하겠느냐? 한 측면으로는 들려준 사실과 실례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측면의 적그리스도 성품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못되게 구는 일부 사람들을 제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본분을 이행할 때 경험에 의존하고 낡은 방식을 답습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바람에 하나님 집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해서 결국 처리된 사람들이 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낡은 방식과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요구하는지, 진리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낡은 방식을 끈질기게 고집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했어요."라는 황당한 논리를 근거로 댔다. 그는 왜 늘 이런 말을 강조했겠느냐? 이는 그가 새로운 사물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는 낡은 방식의 서툴고 낙후되고 황당한 부분을 간파하지 못했고, 새로운 방식도 있고, 그것이 더 선진적이고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늘 낡은 방식에 얽매이고 예전의 경험에 기대면서도 그것이 꽤나 선진적인 줄 알고,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릇된 인간이 아니겠느냐? '우리 고향에서 하는 방식',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 '우리가 계속 해 오던 방식'과 같은 낡은 방식, 구닥다리에 속하는 것이 진리

원칙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낡은 방식이 진리 실행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간파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고루하고 고집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 새로운 사물이든, 예전의 낡은 사물이든 너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일을 처리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만약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일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옳고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반드시 먼저 상대적으로 그런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고수를 찾기만 하면 길이 있다. 만약 고수를 찾지 못한다면 인터넷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를 찾아 완벽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를 실행 원칙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고 경험도 풍부해.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상도 탔다고. 나는 이런 밑천을 가지고 있어.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책임자고 내게 결정권이 있어.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모두가 내 지휘를 따르고 내게 복종해야 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거라면 다들 잠자코 있으라고!' 이 생각이 옳겠느냐? 옳을 리 없다. 네 태도, 네가 드러낸 성품에 문제가 있다. 너는 마음속으로 네가 이 부탁을 받아들이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네가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이는 마치 너는 파트너도 필요 없고 남들이 내는 의견도 필요 없고 무슨 일이든 네 말만 따라야 하고 너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너무도 교만하고 비이성적이지 않으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아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자질이 좀 더 좋고, 이해력이 좀 더 있으며, 그 일을 한 경험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점은 네가 갖춘 그 몇 가지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네가 자신이 자질도 좀 뛰어나고 이해력과 재능도 좀 있으며 지식도 약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진리로 여기고, 너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남들이 모두 네 지휘를 따르고 네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만약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네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가 네 은사를 진리로 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겠느냐? 네가 갖춘 자질과 이해력, 재능과 지식은 잘못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성품이다. 이런 요소 뒤에 네가 지니고 있는 패괴 성품, 즉 교만한 성품이나 독선적인 성품이다. 이런 은사들을 진리로 여겨서 이런 은사를 갖춘 것을 진리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은사로 진리를 대신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모두 자신의 사상, 자신의 학문과 은사, 재능을 진리로 대하고, 자신이 그런 은사를 갖추었으면 진리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지휘를 따르며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 네가 정말 진리를 갖추었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너는 진리를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교만하고 거만하며 독선적으로 굴고, 자신이 진리를 갖추었으니 남들이 모두 네게 순종하고 네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다양한 기술과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치우친 길로 간다. 그들은 그저 업무나 기술을 파고들 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그들은 은사에 집중하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심한 경우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러한 것들을 배운 다음 같은 기술과 업무를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들은 가장 우수하고 능숙하게 그것을 익혀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들은 그 무리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말에 따르게 하고 이것으로 진리 실행을 대체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단지 다양한 지식과 학문, 경험을 배우고 갖추려 하고, 또 자신의 자질과 재주, 은사에 의지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젠가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 이는 피할 수 없으며, 바로 바울의 길이다. 어떠한 영역이나 분야든, 네가 습득하게 된 경험이나 지식, 교훈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다고 해도 이것은 네가 진리를 깨달았거나 진리 실제에 진입했음을, 나아가 네가 진리를 얻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관련된 업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본분을 이행하는 원칙과 그런 본분 이행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업무에 관한 지식을 배우라고 하면 할수록 더 반감을 가진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왜 이방인의 기술과 지식을 배워야 하나요?" 그들은 배우기 싫어한다. 이것은 나태함이다. 그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행동한다. 그들은 또한 충성심이 없으며 이 작은 일에서조차 노력하길 원하지 않는다. 기술과 업무를 배우는 출발점은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전에 접하지 않은 많은 지식이나 상식적인 것을 습득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사람에게 맡기는 부탁이다.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집에서 설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이러한 관점은 틀렸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네가 그에게 준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 준 사역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에게 준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 위험해진다. 이러한 위험은 왜 생기는 것이냐? 당연히 인간에게 패괴 성품,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어 일을 할 때 방식만 구하고 과정만을 거칠 뿐 원칙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으며, 진리 원칙을 더 많이 이해하고 파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원칙을 구하지 않으며, 또한 본분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패괴를 드러내는지, 어떠한 그릇된 관점이 생겨나는지, 어떠한 그릇된 내적 상태에 빠지는지 성찰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표면적 방식만을 중시하고, 본분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파악하고 갖추는 것만을 중시한다. 그는 어느 직종, 어느 업무에서든 지식이 모든 것을 선도하며, 지식이 있으면 자신이 강해져 사람들 무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어떤 무리에서든 지식과 학력이 높은 사람이 지위도 높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병원장은 각 방면의 업무에 출중하고, 기술적인 업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라는 말에 위배된다. 그는 하나님의 집은 지식이 권세를 잡으므로 하나님 집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경력이 풍부하며, 충분한 밑천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모두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그릇된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추구하면 그는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어째서 벽에 부딪히겠느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지식을 갖추었고, 하나님 집을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공로도 좀 생기자 이것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켰겠느냐? 밑천으로 변화시켰다. 이 밑천은 그에게 무엇이냐? 진리를 실행한 기록이자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변한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사물로 여겨진다. 당연히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식을 진리로 잘못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을 그는 여전히 좋게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네가 되돌아오도록 잡아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네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고, 그의 내적 상태를 지적하고, 그를 폭로해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대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심각하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식, 경험, 교훈을 매우 자연스럽게 진리로 여긴다. 일단 이것들을 진리로 여기면 결국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가령 하나님이 한마디 하고 그도 한마디 하면, 관점이 틀림없이 다를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겠느냐?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이는 자신을 진리의 화신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치 불교도처럼 드디어 수련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고,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면의 지식이나 업무에 아주 정통한데 나는 그 방면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내가 업무에 관한 일들을 그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물으면 그는 으스대기 시작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에게 물어보는 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에게 물었겠느냐? 어떤 일들은 사역이나 업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그 밖에도 나는 그가 경험이 있고 그 일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나의 이런 본심과 방법은 옳지 않으냐? (옳습니다.) 여기에는 잘못이 없지 않으냐? 그럼 그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한 다음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한다. "아, 모르신다고요! 저희가 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그 일을

몰라요. 당신은 뭘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으스대기 시작한다. 으스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는 평소에는 꽤 점잖고 경건한데 왜 갑자기 으스대겠느냐? (지식을 좀 알고 경험이 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예전에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내가 물으면 그는 '당신은 진리잖아? 그럼 뭐든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지?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겠군.'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려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탄 성품이 폭발해서 갑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착각이 아니겠느냐? 이는 얼간이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다. 오직 얼간이만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업무를 좀 이해할 뿐이지 않으냐?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이 널렸으니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옷감에 대해 좀 알아서 만져만 봐도 어떤 소재인지 대충은 알 수 있다. 그에게 "옷감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하고 칭찬 한 마디만 하면 그는 "맞아요. 당신들은 배운 적이 없으니 모를 거예요. 저는 배워 봐서 당신네보다야 잘 알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도 좀 배우긴 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상당히 역겹지 않으냐?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며칠 하고 나면 밥과 반찬을 얼마나 할 줄 아는지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또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며칠간 돌팔이 의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잔병을 앓는 형제자매가 안마를 해 주거나 침을 놓고 부항을 떠 달라고 하면서 완치될 수 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그렇게 쉽게 낫겠어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 몸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도 비밀이 있으니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것도 상황을 봐야 해요." 사실 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병세가 어떤지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고칠 수 있는 병도 몇 가지 안 된다. 그러나 체면을 차리느라 거드름을 피우고 으스대며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 몇 사람의 모습을 보면 패괴된 인류는 모두 사탄 성품과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심한 경우는 끝까지 위장하고 행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든 말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음흉한 생각이 하나 있다. 어떤 생각이겠느냐? '나는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내 진짜 신분과 재능을 알리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그는 돌팔이 의사지만 늘 남들이 그를 명의라고 생각하게 하려 하고, 그가 돌팔이 의사라는 사실과 그가 진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영원히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을 어느 정도로 포장하겠느냐? 그는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결점도 없다고, 배운 것은 모두 할 줄 알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남들이 그에게 밥을 지을 줄 아는지 물으면 그는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산해진미를 한 상 차려 낼 수 있느냐고 하면 속으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채근하면 "할 수 있죠!"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시키면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자신은 뭐든 잘하고 뭐든 가능하며 뭐든 할 수 있다고 위장하는 것은 얼간이 아니냐? 얼간이든 아니면 자질이나 재능, 혹은 은사가 조금 있든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무엇이든 아는 척, 자신이 진리인 척 행세하려는 것이다. 비록 그는 자신이 진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인 척,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척 행세하려 한다. 그 뜻인즉슨 그가 진리의

화신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는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고, 자신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옳고 모두 진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상부에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처리하도록 안배하면 듣고 나서 생각한다. '이 일은 상부에서 분부했으니 내 권력이 커졌어. 내 재능과 권력을 보여 줄 기회가 생겼다고.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 주겠어.' 그는 형제자매와 접촉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가서 저 일을 처리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하면 혼날 줄 알아요! 이건 상부의 명령이에요. 일을 그르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상부에서 추궁하면 누가 이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형제자매가 "저희는 이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일을 하는 원칙을 구하려는 거예요. 흐지부지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든 다 원칙대로 처리해야죠. 무슨 일이든, 얼마나 조급하고 중요하든, 누가 맡긴 일이든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는 건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우리의 본분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원칙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구하고 명확히 알아봐야 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저희에게 반드시 명확히 말해 줘야 해요."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상부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겠어요? 빨리 하기나 하세요!" 형제자매가 "상부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 저희도 서둘러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명확히 말해 주면 안 되나요? 구체적인 규정이나 내용은 없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상부에서도 제게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스스로 고민해 보시라고요!"라고 답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나 원천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그의 이 성품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자. 그의 이런 행동 방식이 바람직하겠느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 방식을 보이겠느냐? 이런 행동 방식이 정상이겠느냐?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다. 이는 정신이 비정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느냐?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회를 엿보아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그는 권력을 '발휘'할 적절한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자 기회를 틈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네가 상부로부터 어떤 본분을 받아들였든 일하는 원칙은 바뀌면 안 된다. 상부에서 네게 한 가지 사역이나 임무를 맡겼을 때 그건 단지 네게 하는 한 가지 부탁이자 네가 이행해야 할 본분일 뿐이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짊어졌다고 해서 네가 전권 대사이고 진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게 타인을 지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것이냐? 자신의 성질이나 기호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겠느냐? 상부에서 직접 네게 일을 하나 맡기는 것과 네가 평소에 본분을 이행하며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가 없다. 모두 네 본분이다. 모두 네 본분이라면 일하는 원칙이 바뀌겠느냐?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네가 어떤 경로로 받아들인 본분이든 본분의 본질과 성질은 똑같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다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부에서 직접 네게 맡긴 일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해도 된다거나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옳다는 게 아니다. 설사 네게 능력이 좀 있다 한들 네가 진리 원칙을 구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는 여전히 패괴된 인류이고,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며, 특수한 부류도 아니다. 너는 여전히 너이고 영원히 사람이다. 성경에는 모세와 노아, 아브라함, 욥 등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적지 않게 기재돼 있고, 하나님과 대화해 본 사람도 꽤 많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이 특별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불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으며,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걸 들은 사람도 있다. 또 직접 하나님의 시련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럼 이 사람들 중 하나님이 보기에 정상적인 인류와는 다른 사람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이해하고 늘 자신을 특별한 인물로 여긴다면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는 너무도 끔찍하다! 설사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네게 권병을 주어 네가 권병을 지닌 이적을 행하거나 일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너는 영원히 사람일 뿐 진리의 화신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진리를 위배하거나 너 자신의 성질대로 행동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건 천사장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가끔 일부 특별한 방식이나 경로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나 사역을 맡기거나 특별한 사건이나 임무를 전달하는데, 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역을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뿐이다. 하나님이 친히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 봤다고 해서 그들이 보통 사람과 달라지는 것도, 평범한 피조물에서 특출난 사람이나 고급 피조물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다. 영영 그럴 일은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집에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신분, 지위, 경험, 교훈과 같은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는 진리의 화신으로 바뀔 리 없다. 만약 누가 제멋대로 사칭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반면 한결같이 그렇게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설사 드러나 도태되더라도 자신을 인식할 줄 모르며 진실로 뉘우치지도 않는다. 일부 리더 일꾼은 단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의 행동 원칙이나 그가 선택하는 길은 적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도 이성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대체 어떤 성질이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을 일부 사람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은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비록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과 훈계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진실로 뉘우치며 어느 정도 회개할 줄도 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다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 속한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가진 것과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것은 공통점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똑같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둘 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실로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 속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에 속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뉘우치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 속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부류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지 무턱대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어느 종류의 사람에 속하느냐? 만약 누가 "저는 왜 제가 적그리스도와 똑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한다면 그 느낌은 정확하다. 별로 명확한 차이가 없다. 만약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뉘우칠 수 있다면 이 점이 바로 유일한 차이이자 인성의 작은 차이이다. 적그리스도는 악인이지만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패괴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 패괴 성품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똑같고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하는 패괴된 인류의 여러 내적 상태는 모두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모두 공감하고 같은 인식을 가진다. 체험의 깊이나 정도만 다를 뿐 모두 자신이 교만하고 이성이 없다는 것,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너무도 많다는 것, 인류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됐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했지만 아직 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이 멀었고 무지하다는 것, 사탄이 인류를 너무도 깊이 패괴시켰고 인류의 패괴와 사악함의 근원은 바로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키고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킨 뒤 사람의 내면에는 사탄의 독소와 사탄 성품이 생겨났고 정상인의 이성과 양심, 이지(理智)는 사라졌으며 시비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도 없어졌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남을 때리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도둑질하거나 음란한 짓을 해도 옳은지 그른지 몰랐을 것이며, 오히려 정당하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반포한 뒤 사람은 그런 행동들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람의 이성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물론 이 이성은 가장 피상적인 수준이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레 깊어질 것이다. 이제 사람이 여러 진리를 더욱 깨닫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자질과 깨닫는 능력,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패괴된 인류의 여러 태도 중 대체 어떤 것들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지, 어떤 것들이 관념과 상상이고 어떤 것들이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의 이성은 더 정상화될 것이다. 따라서 오직 진리만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런 지식을 갖추고 그런 행동 방식을 중시하면서 늘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깟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며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네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얻지 못한다. 그건 망상이다. 너는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게 되니 이는 몹시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모두 진리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고 나서 다양한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이 생겼다. 비록 악인이나 나쁜 사람은 분별할 수 있게 됐지만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분별할 줄 모른다. 지금 하나님 집은 진리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모두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경지에 이르렀고 하나님 선민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늘 그들의 몸에서 일종의 '낌새'를 느꼈다. 어떤 낌새겠느냐? 마치 각종 야수나 사나운 동물의 낌새 같았다. 사람이 곁에 다가가기도 전에 털을 세우고 포효하는 동물처럼 사람도 어느 정도 동물과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사람의 사탄 패괴 성품에서 생겨난다. '낌새'란 무엇이겠느냐? 그의 눈 속에서 진실함을 보지 못하고 그의 눈빛이 아주 막막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다. 그는 너를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너는 그의 말에서도 솔직한 태도를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솔직함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어떤 사람과 접촉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계심은 그의 눈빛과 말투, 말하는 방식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낌새는 사람들에게 그가 설교를 그토록 많이 들었음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는 길에 오르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아무리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해도, 아무리 그를 진실하게 대하고 공급하고 목양하고 도와도 그에게서 진실한 태도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그럼 그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경계심과 의심이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것이다. 그 외에 사람의 자기 보호도 있고 늘 남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다. 따라서 그의 말과 눈빛, 표정이 드러내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다. 즉, 네가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 보는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사람이 겁이 많든 신중하든, 아니면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결국 그 솔직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 그럼 이를 어떻게 알아채겠느냐? 사람의 모습과 말하는 방식을 통해 알아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부 말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이미 생각해 놓은 것만 네게 교제한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호신술이다. 일이 닥칠 때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워 먼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과 재능, 능력, 잘못했던 일, 막막함, 나아가 자신의 기만과 위선까지 모두 그 가시 안에 숨긴 채 외부에 보여 주지 않는다. 그는 내게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며 지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이후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생겼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었고, 그들에게 어떤 나무에 달린 열매는 먹어도 되고 어떤 나무에 달린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지 알려 주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하나님을 마주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창조했으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 늘 솔직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도, 방호벽도 없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기만 하지 절대 그들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다.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탄에게 조금씩 유혹당해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탄의 독소가 그들의 내면에 들어갔다. 곧이어, 하나님이 오기도 전부터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하길 바랐다.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 거리는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그들의 내면에 다른 것이 생긴 것이다. 사탄이 그들에게 일종의 사상 관점과 생명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곧장 알아차렸다.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비웃지 않을까?' 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됐겠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준 가장 원시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들도 없었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한 뒤로 모든 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난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를 비웃으시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일련의 문제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들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게 됐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지? 하나님께서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둘러 피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시시각각 숨었을 것이다. 이는 패괴 성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패괴 성품이 생겨난 근원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계하고 피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경계와 의혹, 거리 두기, 공포, 의구심이 남아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몸을 지킬 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숨을 주었으니 쉽게 그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마음이 흐릿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눈빛에서 알 수 있으며, 지금껏 변한 적 없다. 그 진실함은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 의지도 사라졌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사탄의 패괴에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사탄의 패괴이다. 사탄이 사람을 해친 것이다! 사람은 사탄의 패괴를 겪지 않았을 때가 꽤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 그때의 내적 상태는 구원받은 뒤의 내적 상태만 못하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구원받은 뒤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무엇을 선택하든 적절하지 않고, 사람이 선택할 수도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다. 인류는 그런 운명이다. 사탄의 패괴를 겪지 않았을 때는 설사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있었다 한들 최초의 인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최소한 개념이 생겼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과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몰랐고 아주 단순했다. 하나님이 볼까 봐, 비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았다. 이 정도로 단순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인류에게 심원한 가치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모두 좋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상당히 슬프게 느껴지지 않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전에는 친밀했지만 이제 이렇게 소원해졌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지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피하고 멀리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적으로 보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다. 사탄이 사람을 몹시 고통스럽게 패괴시켰기 때문에 사탄을 증오해야 한다. 비록 사탄이 인류를 이렇게 패괴시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 사탄이 어떻게 교란하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자 하나님의 권병이다.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 교훈을 갖췄다고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소주제는 거의 다 교제를 마쳤다. 너희는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었느냐? 어떤 진리를 깨달았느냐? (지식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또 있느냐? (사람은 영원히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사칭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다. 진리는 사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면 너는 진리를 좀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은 진리의 화신까지 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면 성실하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지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완벽'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은 피조된 인류 사이에서는 영원히 성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다. 패괴로 가득한 인류가 어떻게 완벽하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완전무결한데, 이를 두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다. 바닷속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땅 위의 날짐승과 길짐승은 모두 완벽하다. 훌륭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모든 생물이 형성하는 먹이사슬은 또 얼마나 완벽하냐! 그러나 패괴된 인류는 파괴할 줄만 알고 그 완벽함을 깨뜨리며 결함과 결점을 만드니 너무도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훌륭하다. 나뭇잎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크고 작은 동물들도 다양한 체형과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빈틈없이 계획했다. 다만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만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짓밟아 하나님의 고심을 헛되게 만든 것이다. 인류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마구 파괴했다. 모든 자원을 극도로 낭비하고 파괴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느냐? 자업자득이다! 환경과 먹이사슬은 파괴됐고 공기와 물은 오염됐으며 천연 식품도 사라졌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완벽'이라는 말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 진리 추구를 명분으로 자신이 완벽하다거나 완벽을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그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패괴된 인류가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려 하다니! 나쁜 짓을 그토록 많이 저질러 놓고도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려 하다니, 이는 사탄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전혀 갖추지 않았으면서 진리의 화신으로 사칭하려 하니 사탄의 족속은 얼마나 후안무치하냐!

2019 년 11 월 20 일

부록 1

무엇이 진리인가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야 한다＞, 이 찬양을 불러 보자.

1.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하게 한다. 그는 만유를 주관하여 만유가 모두 자신의 수중에 있게 한다. 동물, 식물, 인류, 산천, 호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의 만물이든 땅의 만물이든 모두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며,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그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병이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여 만물이 다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며 각각 자기 위치에 있게 한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사람도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든 만물의 관리자든 관계없이, 또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작디작은 사람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말씀・1권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야 한다＞는 찬양에서 진리는 무엇이겠느냐? 어느 말이 진리겠느냐? (모두 진리입니다.)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작디작은 사람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 진리가 변할 수 있겠느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변화하겠느냐?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말해 보겠느냐?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 교제한 바 있다. 무엇이 준칙인지 다시 한번 말해 보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칙이다. (준칙은 기준이 되는 정확한 원칙과 법칙, 규율입니다. 준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또 이어서 말해 보아라. (준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정확한 원칙과 법칙, 규칙입니다.) 여기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는데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가장'을 덧붙이는 것과 '가장'을 덧붙이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이 있으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다.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니 어떠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유일한 기준인데 '가장'을 덧붙이는 순간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이 다른 것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냐? (정확합니다.) 그런대로 합리적이다. 너희가 '무엇이 진리인가'의 정의에 대해 정확한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일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과연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하는지, 덧붙이는 게 옳은지 아니면 덧붙이지 않는 게 옳은지, 덧붙이고 나면 무엇이 다른지, 덧붙이지 않으면 무슨 뜻이고 덧붙이면 무슨 뜻인지 등의 몇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가장'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게 확실해졌다. 이 단어를 덧붙인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는 하나님의 어느 측면을 형용하든 다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어느 말씀과 어느 진리에 위배되겠느냐?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데 '가장'을 덧붙이고 나면 마치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도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옳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어떤 말들로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앞에 덧붙이는 게 잘못됐음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등 상대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이 말도 맞다.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입니다. 법칙과 규율, 준칙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될 수 있고,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준칙과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규율을 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실제적이다. 또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의 본질은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진리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면 마치 진리가 유일무이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떠냐? (좋습니다.) 어디가 좋으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일무이'라는 단어를 잊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의 준칙과 사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인류 가운데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지식과 전통문화,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것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을 덧붙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기고, 높은 것과 낮은 것, 더 낮은 것이 구분되며, 1 급, 2 급, 3 급처럼 등급이 나뉜다.... 즉, 모든 옳은 것이 다 순서대로 준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에 '가장'을 덧붙이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변한다. 단지 피조된 인류 사이의 지식과 철학, 각종 옳은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뿐이다. 진리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등급으로 나누는 순간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 옳은 것도 진리로 변한다. 그런 것들도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는 준칙이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급이 좀 낮을 뿐이다. 예를 들어, 소양과 예의를 중시하는 것, 사람의 선량함,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춘 일부 좋은 것들이 모두 준칙으로 변한다. 모두 무엇으로 변한다는 뜻이겠느냐? (진리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변한다. 봐라,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자 이 준칙의 성질이 변했다. 준칙의 성질이 변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변하지 않겠느냐?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병, 능력, 본질이 유일무이하지 않게 되고, 그저 인류 가운데 능력과 권병이 있는 가장 높은 인물도, 인류 가운데 재능과 위신이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과 엇비슷해지고 비견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하나님만큼 높거나 크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1 인자이고 인류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물이나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 뒤를 이어 2 인자, 3 인자, 4 인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철저히 변한 것 아니겠느냐? '가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본질을 철저히 바꿨다. 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으면 이 말의 정확성은 어디에 있겠느냐? (한 가지 사실을 진술한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요, 원칙이고 기준이며 준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준칙을 만들어 낸 원천이라는 것이다. 패괴된 인류 가운데에는, 피조물 가운데에는 이런 준칙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준칙을 선포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본질을 갖추고 있다.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와 준칙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칙을 좀 알고, 준칙을 좀 알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진리의 원천이겠느냐? 모든 진리의 선포자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바로 본질의 차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주제를 두 번 다뤘는데도 너희의 대답에는 여전히 이런 커다란 실수가 등장하는구나. 하나님을 피조물의 일원으로 바꿨고, 피조물과 하나님이 대등해졌다. 이 둘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으니 이 문제의 성질이 변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류는 피조물이다. 이 둘은 같은 등급의 역할이 아닌데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자 어떻게 변했느냐? 본질과 등급이 같아졌다. 다만 높고 낮음과 위아래가 나뉘었을 뿐이다. 내가 자세히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우린 다 교양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하나 기억 못하겠어? 입만 열면 저절로 나오지. 필기를 볼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입을 열자 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몇 번이나 읽고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너희는 이 방면의 진리를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은 걸 보니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은가 보군. 나를 봐,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잖아. 역시 난 교양 있어. 대학을 나온 보람이 있다고!' '가장'이란 단어를 덧붙여도 너희 중 대다수는 듣고도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수는 듣기에 조금 어색하다고 여길 뿐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 너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듣고 그 설명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가 진리의 측면에서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교제하니 너희는 알아듣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로 인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니 너희는 알아듣지 않았느냐? 알아듣는데 어째서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제목의 글은 총 몇 편이 있느냐? 너희는 몇 번이나 봤느냐? 이 말을 정말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망신을 당한 것이고 이 한마디 말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교훈을 좀 얻지 않았느냐?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마주쳐도 이렇게 잘난 체할 수 있겠느냐? 감히 그러지 못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양과 지식이

뛰어나도 소용없다. 만약 네가 교양이 없고 이 말의 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아마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교양이 있고 일부 단어의 의도와 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하나님에게 썼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 이는 재주를 피우려다 일을 망친 것이다. 네가 만약 이를 사람에게 쓴다면 단지 개인을 숭배하고 치켜세우는 것이므로 기껏해야 조금 역겨울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쓴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말이 된다. 이게 바로 패괴된 인류가 진리를 갖추지 않아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부사나 형용사를 함부로 덧붙이면 안 된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의 신분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것은 모두 패괴된 인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자 패괴된 인류가 가장 얕고 적게 인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절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좀 신중한 게 좋다.

1.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해부하다

방금 몇몇 사람들이 진리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했다. 너희가 진리의 개념과 정의를 깨달았으니,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너희가 과연 정말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달은 척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어떻게 시험하겠느냐? 너희의 강점으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의 강점은 무엇이냐? 교양과 글귀, 단어, 그리고 사람이 각각의 무리 속에 살며 파악한 여러 측면의 철학과 처세술, 사람의 전통문화와 관념, 상상, 그 밖에 여러 인종과 집단, 국가의 사람이 의지해 생존하는 각종 법칙과 관념, 이런 것들에 너희는 익숙하다. 이는 너희의 강점이 아니겠느냐? 그중 일부는 비교적 고정된 성어이고 일부는 속어나 속담이다. 또 일부는 서민이 자주 말하고 줄줄 외우는 속된 말이다. 생각해 봐라, 사람은 보통 어떤 일에 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사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성어로 요약하겠느냐? 우선 일부 속담과 성어, 법칙, 그리고 사람의 처세술과 전통 관념을 분석해서 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 보겠다. 반대되는 측면에서부터 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서술해 보자.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럼 너희가 먼저 하나 말해 봐라.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우선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에서부터 교제를 시작하자. 너희가 한번 설명해 보아라,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쓸 때는 그를 믿어야 하고 그에게 경계심을 품어선 안 되며, 만약 그를 믿을 수 없다면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다. 너희가 먼저 말해 보아라, 세상에서 대다수 사람은 이 말을 인정하겠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이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은 사람을 쓰는 일에서 모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원칙으로 삼고 모두 이 원칙을 근거로 사람을 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에는 정확한 측면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 중 대다수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겠느냐? 그들의 출발점은 무엇이겠느냐? 왜 이 말을 하겠느냐? 누군가는 말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쓴다면 당신은 그를 의심하면 안 되고 그를 믿어야 해요.

그가 일을 잘 처리할 능력과 인품을 갖췄고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그를 의심한다면 아예 쓰지 마세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란 말처럼 말이죠. 이 말은 정확해요." 사실, 이 말은 순전히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적인 말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어떤 속셈과 음모가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지난번 교제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사역에 남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고 말한다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당신이 사역을 내게 맡겼고 나를 썼으니 당신은 내 사역에 개입하면 안 되고 내게 간섭하면 안 돼.'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품이다. 그럼 이런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발명한 사람은 사람을 쓰는 측이겠느냐, 아니면 쓰임을 당하는 측이겠느냐? 이 말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겠느냐? (쓰임을 당하는 측입니다.) 이 말은 쓰임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그가 만약 그를 쓰는 주인에게 계속 이 말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주입하는 성질을 좀 띤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누구를 쓴다면 그가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지 절대 의혹을 품어선 안 돼요. 의혹을 품으면 당신 자신에게 불리해요. 당신이 만약 늘 딴마음을 품은 채 다른 사람을 찾아 그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당신에 대한 그의 충성심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라고 알리는 것이다. 사람을 쓰는 측이 듣고 나면 이 말에 영향을 받거나 미혹되기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거나 미혹되고 나면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득을 보게 된다. 사람을 쓰는 측이 만약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쓰임을 당하는 사람에게 의혹이나 의심을 조금도 품지 않는다면, 그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이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감독하거나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인의 감독과 감시를 피할 수 있고 이후로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 수 있다. 너희 생각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그의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품을 갖췄겠느냐? 그를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공인된 사실은 바로 인류는 심하게 패괴되어 모두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교활하고 간사하며, 정직한 사람은 없고 바보조차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사람을 쓸 때 큰 어려움이 됐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은 더더욱 찾을 수 없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쓸 만한 사람을 몇 명 찾으면 괜찮은 정도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또 어떻게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는 실천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쓸 만한 사람은 어떻게 써야겠느냐? 감독하고 지도하며 쓸 수밖에 없다. 이방인은 그 사람 곁에 밀정이나 첩자를 배치해 그를 감독하는데,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자기기만이 된다. 이 말을 한 사람 자신도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실천하지 못한다. 만약 정말 실천한다면 그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바보 중의 바보이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의 가장 큰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 보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어떤 기반 위에 만들어졌겠느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전적으로 믿을 만하고 충성심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런 사람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어야만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찾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헛소리가 됐다. 만약 네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뽑고 나서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로 자신을 단속한다면 이는 자기기만이 아니겠느냐? 네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믿을 만해지고,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사실, 네가 의혹을 품든 않든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가 간사한 사람이면 간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가 착실한 사람이면 착실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는 사람이 의심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바뀌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네가 간사한 사람을 쓴다면 너는 마음속으로 그가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네가 "저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으니 마음 놓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세요."라고 말한다고, 설마 네가 의심을 품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착실한 사람이 되어 착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만약 네가 착실한 사람을 쓴다면 네가 그에게 의심을 품고 그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간사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순전히 바보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고 자기를 속이는 헛소리다. 인류는 어느 정도로 패괴됐느냐? 지위와 권력 때문에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틀어져 원수가 되거나 서로 잔인하게 죽일 수 있고, 모녀지간에도 서로 증오할 수 있으니,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없고 오로지 상대적으로 쓸 만한 사람만 있다. 어떤 사람을 쓰든 다 감독하고 감시해야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자 헛소리이며 황당한 이론으로,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세에 왜 진리를 선포하고 심판 사역을 해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려 하겠느냐? 인류가 심하게 패괴되어 진실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거듭 요구한다. 또한, 인류가 너무도 간사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두 사탄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저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어서 패괴된 인류 중에는 쓸 만한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없다. 인류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쓰는 건 너무도 어렵다! 첫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간파할 수도 없다. 셋째, 특수한 배경에서 사람은 더더욱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됐고 조금도 실용적이지 않다. 만약 사람을 뽑아 쓸 때 이 말을 근거로 하면 사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옳은 말이나 진리로 여기는 자는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로 사람을 쓰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과 남을 속이며 스스로를 우롱할 뿐이다.

여기까지 교제하고 나니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대체로 이해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의 철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감시를 뚫거나 벗어나려는 핑계이자 모든 악인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살포하는 연막탄이다. 이 말은 꿍꿍이를 품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내세우는 구실이자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도의와 양심의 감독이나 감시, 정죄에서 당당하게 벗어나려고 퍼뜨리는 일종의 황당한 이론이다. 지금도 여전히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실용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있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달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사상 관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교회에서 누가 이 말을 퍼뜨린다면 그는 속셈이 있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남들의 우려나 질의를 불식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 뜻인즉슨 남들이 그가 사역할 줄 알고 쓸 만한 사람이라고 믿게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런 속셈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그렇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늘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해. 어쩌면 언젠가 내 자그마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나를 교체해 버릴지도 몰라.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 따라서 그가 이런 관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 집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게 만들고, 자기가 마음 놓고 사역하게 내버려두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목적이 달성된다. 만약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에서 그의 사역을 감독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올바르게 대할 것이고, 그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집 사역을 책임지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 역시 패괴를 표출하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자신을 감찰하고 지켜 달라고 기도하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하나님에게 맹세할 수 있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왜 황당한 이론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냐? 일부 리더 일꾼은 하나님 선민의 감독이나 윗선 리더 일꾼이 사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늘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당신들은 왜 항상 나를 감독하는 거야? 나를 믿지도 못하면서 왜 쓰는 거지?' 만약 그에게 사역 상황이나 사역 진도를 물어보고 그 개인의 내적 상태를 물으면 그는 더더욱 불만을 갖는다. '이 사역은 내게 맡겼으니 내 권력 범위 안에 있는데 당신들은 왜 내 사역에 개입하는 거야?' 그는 감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한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의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는 너를 정죄하고 네게 낙인을 찍기까지 한다. 만약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의심이 많나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간사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해요." 이는 미혹된 것 아니겠느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이는 허튼소리다! 그 사악한 자는 음험하고 간사해서 속담을 진리로 여겨 이 멍청이를 미혹했고, 결국 그 멍청이는 그 말에 정말 미혹되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게, 저 사람한테 미안하게 됐네. 저 사람이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까지 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못 믿을까?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격려해 줘야 해. 그에게 사역에 관한 일은 캐물으면 안 돼. 저 사람을 쓰려면 믿어야 하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해. 저 사람을 속박하지 말고 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줘야 해. 저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어.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이게 다 무슨 논리란 말이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듣기에는 다 맞는 말이다. '사람을 속박하면 안 돼.', '사람은 뭘 할 수 없고 전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 우리는 의혹을 품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잖아.' 사실 이는 다 어떤 말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멍청이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이만한 일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그 말에 미혹됐다. 대다수 사람이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진리로 여겨 대하고 모두 이 말에 미혹되고 얽매이며, 사람을 뽑고 쓸 때도 이 말에 교란되고 영향받고 심지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파악하거나 사람을 발탁하고 골라 쓸 때 늘 어려움과 우려를 겪다가 결국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로 그저 자신을 위로하고 만다. 사역을 검사하고 따져 물을 때마다 그들은 생각한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라잖아. 형제자매를 믿어야 해. 게다가 성령이 감찰하고 계시잖아. 늘 사람을 의심하고 감독하면 못써.' 이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 말에 영향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첫째, 마음속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관점이 있으면 사람의 사역을 검사하고 지도하겠느냐? 사람의 사역을 감독하고 체크하겠느냐? 만약 누구를 쓰든 다 믿어서 검사하지도, 지도하지도, 감독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겠느냐?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부탁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겠느냐? 둘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네 본분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처세 철학,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진리로 여겨 준수하고 실행했다. 이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탄 철학에 기대 살아가는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너는 완전히 망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 놓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진리로 여겨 실행하다니, 이는 진리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집에서 사역하지만 네가 일을 처리하는 원칙은 처세 철학과 사탄의 논리이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성질은 무엇이냐? 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성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의 헛소리와 사탄의 처세 철학이 교회에서 횡행하게 했다. 너는 사탄의 공범자가 되어 사탄이 교회에서 일을 저지르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도록 도왔으니 문제의 성질이 아주 심각하지 않으냐?

지금 대다수 리더 일꾼은 마음속에 사탄의 독소가 있고 여전히 사탄의 철학에 기대 살아가며 마음속에 주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다. 수많은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사역을 안배한 뒤 절대 사역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도 속으로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무성의하게 대한다. 그러고는 내심 편안해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은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무적인 일만 형식적으로 좀 처리한다. 그 결과 교회 사역은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제물마저 도둑맞았다. 보다 못한 하나님 선민이 상부에 그 상황을 보고한다. 거짓 리더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재난이 닥쳐왔다고 생각해 어쩔 줄 몰라 한다. 상부에서 "왜 사역을 검사하지 않죠? 왜 사람을 잘못 쓴 거죠?"라고 추궁하면 그는 "저는 사람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원칙을 따랐는데, 사람을 잘못 써서 큰일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라고 답한다. 너희가 보기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관점이 옳겠느냐? 이 말이 진리겠느냐? 그는 왜 이 말을 하나님 집 사역과 본분 이행에 적용했겠느냐?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분명 이방인의 말이고 사탄에게서 비롯된 말인데 그는 왜 이 말을 진리로 여겨 대하겠느냐? 왜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분명 사람의 말이고 패괴된 인류의 말이지 결코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만약 네가 정말 분별력이 있다면 너는 어느 방면의 진리 원칙으로 이 말을 대체해 네 실행 원칙으로 삼아야겠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딴생각 없이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이는 네 책임이고 네 본분이니 잘 이행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책망 훈계가 필요하면 책망 훈계하고, 교체할 자는 교체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는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과는 정반대가 아니냐?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어떤 사람을 썼으면 의심해선 안 되고,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며, 만약 의심된다면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는 완전히 잘못됐다. 인류는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패괴되어 모두 사탄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할 수 있다.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사람이 굳게 맹세하더라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패괴 성품에 속박받아 자신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아들여야만 패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문제, 즉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함을 거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뿐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며 자주 진리를 교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계속 남겨 두고 쓸 수 있을지 간파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와 책망,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여 생명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쓸 만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쓸 만한 사람은 성령 역사를 증거로 한다.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은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고, 힘쓰는 자이자 임시 직원이다. 리더 일꾼을 선발하는 일에서 도태된 사람의 비율은 비교적 높다. 적어도 절반은 넘는다. 쓸 만하고 쓰임에 합당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이다. 일부 교회 리더는 절대로 사역을 감독하거나 검사하지 않고, 사역을 교제하고 안배하고 나면 신경 쓰지 않는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근거로 삼고 속으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두자.'라고 생각한다. 안일함을 누리기 시작하며 그 일에 대해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사역하면 건성으로 대충 하는 것 아니겠느냐?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본분을 이행할 때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야말로 진리이다. 리더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을 따라 사역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을 선발할 때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양심과 이성이 있는 좋은 사람, 자질이 뛰어나고 사역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느냐? 인류가 너무 깊이 패괴되어 쓸 만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양성하지 않으면 일 처리 효율이 형편없고 본분을 잘 이행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여러 차례 거친 뒤에야 쓰임에 합당해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은 다 훈련 과정에서 드러나고 도태되는데, 리더 일꾼의 도태율은 상당히 높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느냐? 인류가 사탄에 의해 너무 깊이 패괴되어 많은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의 기준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반드시 하나님을 몇 년 믿어 진리를 조금 깨달은 뒤에야 어느 정도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이게 패괴된 인류의 실정이다. 우리는 이 점을 근거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됐고 실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은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고 마귀적인 말이며 사탄 철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전적으로 적절하다. 하나님은 결코 "패괴된 인류는 믿을 만하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인류 전체에 정직한 사람은 몇 안 되고, 모두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간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밖에,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은 100%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쓰려면 여러 해 동안 책망과 훈계를 거쳐야 하고, 나아가 쓰는 동안 사람은 여러 해에 걸쳐 심판 형벌을 겪어야만 정결케 될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보기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사람은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이 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이 터무니없는지 일목요연하지 않으냐? 만약 누가 여전히 이 말에 옳은 측면이나 쓸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진리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고 몹쓸 인간이다. 오늘 너희가 이 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말을 황당한 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여 패괴된 인류의 본질을 어느 정도 명확히 알고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귀적인 말,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사역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너희도 사탄의 이 헛소리에 미혹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경전이나 좌우명으로 삼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너무도 불쌍하고 진리 실제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예전에 들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르다고 생각하면서 왜 현실 생활에서는 여전히 이 말의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런 일이 닥치면 이 관점이 바로 튀어나와서 어느 정도 교란당한다. 교란당하는 순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다. 너는 이 말이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르다고 규정하면서 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이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냐?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없어서 사탄의 처세 철학을 원칙이나 준칙으로 삼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다. 또 있느냐? (이 말이 사람의 육적인 이익에 비교적 부합해서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자연스레 이 말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리를 깨닫더라도 반드시 진리대로 실행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육적인 이익에 비교적 부합한다."라는 말은 맞다. 사람은 계략이나 사탄의 처세 철학을 준수해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지킬지언정 진리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도 근거가 있다. 어떤 근거겠느냐? 이 말은 대중이 공인한 맞는 말이라서 이 말대로 행동하더라도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립될 수 있고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이나 법률의 관점에서 보든, 아니면 전통 관념의 관점에서 보든, 이 말은 타당한 관점이고 행동 방식이다. 따라서 진리를 실행하기 싫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너는 차라리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진리를 어기고 도덕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고자 한다. 그곳은 어디겠느냐? 바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최저선이다. 이곳까지 물러나서 이 말대로 행동하면 너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편안해지겠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네 안에 "다수가 저지른 범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념이 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이 말대로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든 않든 어차피 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을 만질 수도 없잖아. 최소한 사람들은 내가 인간미도 있고 양심도 좀 있다고 생각하겠지.' 너는 이 '인간미'를 위해, 대중이 적대시하는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 진리를 배반하기로 한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네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너를 비난하지 않게 되면 너는 윤택하게 살아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가 바라는 건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 안에는 간사함이 있지 않겠느냐? 간사함이 있다. 너는 생각을 거쳐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이 옳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궁지에 몰렸을 때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문화에서 생겨난 철학적인 문구 하나를 선택해 지키는 것이냐? 너는 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사람의 복잡한 생각이 담겨 있다.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어떤 성품과 관련 있겠느냐? (사악함과 관련 있습니다.) 사악함 외에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 너는 이 말이 올바르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말을 준수할 수 있고 이 말에 좌우되고 통제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네가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 너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다. 사람은 행동할 때 많은 관점의 영향을 받는데,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이 관점들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준수할 수 있고 계속 고수할 수도 있다. 이는 한 가지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그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영향을 받고 좌우되고 지배당한다. 이게 바로 사악한 성품이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마약과 도박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남을 말리기도 한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부정적인 사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손을 뗄 수 있겠느냐? 끊어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영영 제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말한다. "도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도박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요." 이는 미화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직업은 무슨. 집 안에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전부 저당 잡혔고 다 잃었어. 도박하는 사람 중 결국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그는 왜 그렇게 말하겠느냐?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왜 끊지 못하겠느냐? 그의 본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있고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못한다. 이게 바로 본성이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에 관해 거의 다 교제했다. 사람이 이 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일시적 충동으로 이런 관점을 받아들였거나 일시적인 부주의로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 이런 관점이 주입된 후 이런 관점대로 행동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패괴 본성과 관련 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말을 이렇게 분석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할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의 처세 철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 정죄된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비롯됐다. 이 말은 진리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과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완전히 정죄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편이라서 너희가 그것이 올바른지 여부를 분별하기 쉽다.

2. '와신상담'에 대해 해부하다

또 다른 성어인 '와신상담'에 대해 말해 보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누가 한번 설명해 보겠느냐? (와신상담에서 '신'은 장작이고 '담'은 쓸개입니다.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장작더미에서 자고

매일 쓸개를 핥으며, 복수하여 원한을 풀고 재기해서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네가 설명한 것은 이 성어의 전고이다. 전고란 이 성어가 어떤 이야기에서 비롯됐는지를 말한다. 보통 성어를 설명할 때는 전고뿐 아니라 그 성어의 파생적 의미와 현대인이 이 성어로 무엇을 비유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몹시 애쓰고 분발하며 자신의 목적과 염원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과 '쓸개'는 어떻게 설명해야겠느냐? 너는 이 두 가지의 뜻은 설명하지 않았다. 단어 자체로 보면, '신'은 가시 돋은 장작을 가리킨다. 그는 가시 돋은 장작 위에 누워 잠을 자면서 항상 자신의 처지와 치욕, 자신이 짊어진 사명을 상기시켰다. 그 밖에, 그는 쓸개를 대들보에 걸어 놓고 매일 핥았다. 쓸개를 핥을 때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씁니다.) 몹시 쓰다! 그는 그런 맛으로 원한과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염원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의 염원은 무엇이었느냐? 나라를 재건하는 대업이었다. 와신상담은 보통 무엇을 비유하겠느냐? 보통 어떤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염원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염원과 이상, 사명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을 비유한다. 대략 이런 뜻이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겠느냐?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은 긍정적인 단어로 여겨지겠느냐? 이 말은 역경 속에서도 원한과 치욕을 잊지 말고 분발하여 강해지도록 사람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비교적 고무적인 성어이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단어이다. 만약 이 말대로 행한다면 사람의 행동과 출발점, 행동 방식, 지키는 원칙 모두 틀림없이 옳고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무엇을 분석하려는 것이겠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겠느냐? (이 말에서 진리와 위배되는 부분을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 말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그토록 '옳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가 '옳은지' 분석하고 증명한 다음 이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살펴볼 만하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성과이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사람이 일부 특수한 환경에서 지키는 생존 법칙이다. 우선 확실하게 말해 보자. 이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다. 그럼 이 말의 긍정적인 뜻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은 사람을 격려하여 사람이 포부를 갖고 분발하여 발전하며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포함하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원칙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냐? 이 말이 지키는 원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겠느냐? 진리 실행과 관련이 있겠느냐? 본분 이행과 관련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느냐? (관련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의를 내렸느냐? 관련이 없는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하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다. 네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라고 하세요. 저는 믿지 않을 테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말이다. 너는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네가 진지하게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이 말을 진실로 분별하게 되면 영원히 이 말을 진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게 이 말의 정확성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배경에서 진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말해 보아라. (와신상담은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는 역경이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시거나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지 역경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만회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데, 이런 말도 하나님 집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리더는 교체되고 나서 와신상담으로 자신을 격려하며 "월나라 왕 구천처럼 와신상담해서 언젠가 재기하고 다시 리더가 되고 말 테니 다들 두고 보세요! 지금은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고 평가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만회해서 제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에게 보여 줄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굴욕을 언젠가 반드시 씻어 낼 거라고요!"라고 말합니다.) 꽤 좋은 예시다. 너희는 깨우침을 좀 얻었느냐? 너희도 와신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냐? 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남에게 부정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와 어떤 일들을 소통하는데 형제자매가 제가 내놓은 관점에 대해 질의할 때면 속으로 오기를 부리고 언젠가 반드시 잘해서 보여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관련 업무를 열심히 익힙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하고 실행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기를 부리고 남에게 증명해 보이려는, 일종의 불복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는 이 인류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다. 끝까지 불복하는 것은 일종의 기질로, 패기 있는 것이다. 그럼 어째서 이게 진리 실행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가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 원칙, 출발점이 진리가 아니라 전통문화인 '와신상담'이라는 말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승부욕이 강하고 불복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진리 앞에서 그런 마음과 기질은 무엇이겠느냐? 보잘것없고 형편없으며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다. 누가 또 말해 보겠느냐? (한 가지 본분을 이행할 때 자신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남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남몰래 용기를 북돋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익혀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당신들에게 보여 주겠어.' 때때로 남들이 본분상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저는 공들여 고칠 뿐 아니라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업무를 익힙니다.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도 속으로 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할지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언젠가 남들에게 우러름과 존중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와신상담의 내적 상태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은 지 꽤 됐고 모두 가정과 직업을 버린 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수확은 아주 적다. 너희는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를 줄도 아는데 어째서 진리에서는 늘 자라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깨달은 진리가 어째서 그토록 적고 얕은 것이냐? 그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중시하지 않고, 늘 와신상담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와신상담은 '커다란 고름집'이다. 그게 무슨 좋은 것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와신상담은 결국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신은 훌륭하고 능력 있으며 남에게 뒤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그는 와신상담하려고 한다. 즉, "고생을 해 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다. 그럼 와신상담에는 몇 가지 모습이 있겠느냐? 첫 번째 모습은 불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습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남과 무엇을 논쟁하거나 남에게 무엇을 반박하거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더라도 남몰래 공을 들인다. 어떤 공을 들이겠느냐? 그건 아마 너희가 치르는 대가일 수도 있다. 밤을 새우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업무를 익히면서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이다. 이는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와신상담이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내면에 원대한 포부를 가지는 것이다.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루기로 한 목표를 지키고자 그런 투지를 유지한다. 그런 투지는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어, 네가 리더가 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다짐과 사명, 지향과 이상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이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초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것도 맞지만 조금 약하다. (마음속에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정확하고 간결하겠느냐? (투지와 포부입니다.) 완전한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배하지만 싸울수록 더 용감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체되는 일이 닥쳤다고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교체됐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넘어지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그런 투지를 가져야죠!"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투지는 그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는 사람이 지향과 이상, 투지를 갖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패괴 성품 중 교만한 성품이 만들어 내는 야심과 욕망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그는 와신상담하고 그런 고생을 하여 자신이 분투하는 목표,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당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는 일이며 분명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신상담의 모습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로 와신상담 안에 포함된 뜻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을 근거로 세세하게 교제해 보자.

1) 불복하다

먼저 와신상담의 첫 번째 모습인 불복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보자. 불복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이는 어떤 모습이 내면에 불복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느냐? 불복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하고 강퍅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퍅한 이 두 가지 측면의 성품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 또 있느냐?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게 성품이냐? 그건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성품이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한다면 분명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리더 일꾼이 네가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을 위배해 하나님 집 사역을 그르쳤다며 너를 교체하려고 하면 너는 생각한다. '흥,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교체할 테면 하라지. 못 하게 하면 나도 안 해. 순종한다고!' 이 순종 안에는 불복하는 태도도 있다. 이게 바로 성품이다. 이 성품 안에는 교만하고 강퍅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에게 맞서려는 성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한 것이다. 너희는 이토록 흉악한 성품도 알아보지 못한다. 왜 흉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맞서는 것을 흉악하다고 한다. 몹시 흉악하다! 만약 흉악하지 않다면 그는 진리에 맞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맞서거나 하나님과 겨루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흉악한 성품이다. 불복하는 것 안에는 교만한 것, 강퍅한 것, 진리를 싫어하는 것, 흉악한 것이 포함된다. 이는 관련된 몇 가지 뚜렷한 성품이다. 불복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어떤 마음가짐이 있겠느냐? 불복하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교체되는 일이 닥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표출하겠느냐? 가장 흔한 모습은 바로 그가 한 가지 본분을 이행할 때, 상부에서 보기에 그가 그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그를 교체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팔로는 허벅지를 비틀지 못하니 나는 다투지 않겠어. 난 재능이 있으니까. 금은 언젠가 빛나기 마련이야. 어디에 있든 난 인재라고! 상부에서 어떻게 안배하든 난 일단 참고 따를 거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 "하나님, 제가 불평을 늘어놓지 않게 지켜 주시고 제 입과 혀를 지켜 주세요. 제가 당신을 판단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어. 그게 제일 어려워.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는데 어떡하지? 상부에서 이렇게 안배했으니 어쩔 수 없지. 난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 집에서는 펼칠 수 없는 거지?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적게 읽었나 봐.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어!' 그는 오기를 부리며, 자신이 남에게 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좀 짧은 것이라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매일 찬양 하나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한 편 읽을 뿐 아니라 설교 연습도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다. 수많은 영적인 도리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예배 때 입을 열어 교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불복하는 기운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운이냐? (사악한 기운입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 됐다! 왜 이렇게 분석하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사악한 기운이라고 규정하느냐? 그건 좋은 일 아니냐? 영 생활이 정상적이고 세속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시비를 가리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 편 암송하고 찬양을 여러 곡 외워 부를 수 있으니 '뛰어난 자'인데, 왜 이를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느냐? (그는 작심하고 자신이 훌륭하고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복하는 것이다. 그가 불복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패괴와 교만한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불복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그는 자신이 훌륭하고 뛰어나며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결국 그를 교체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측면에 힘을 쓴다. 이는 불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복하는 태도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의 행동 방식을 만들어 냈다. 겉으로 보면 그는 꽤 공을 들였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알며 결국 목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좋아하지 않겠느냐? 왜 정죄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진리를 근거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행위와 속셈, 모습, 성품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전부 진리를 근거로 평가한다. 그럼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하겠느냐? 네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대가를 얼마나 많이 치렀든 결국 너는 진리에 힘쓰지 않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을 먹지 않았다. 스스로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너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집의 규정이나 처리가 잘못됐음을 증명했다. 이는 무슨 뜻이겠느냐? 너는 네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이자 패괴 성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집의 처리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도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네게 문제가 생기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고, 너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칭찬하겠느냐, 아니면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다.

사람의 이런 불복하는 태도가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불복하는 태도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진리와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다. 그것은 진리와 아예 관련이 없다. 이런 불복하는 태도는 세상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추앙받겠느냐, 아니면 정죄되겠느냐? (추앙받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추앙받겠느냐? (직장과 학교에서 추앙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60 점을 맞더니 "나는 불복해. 다음에는 90 점 맞을 거야!"라고 말하고 다음에 90 점을 맞자 또 100 점을 맞으려고 하며 결국 목표를 이루면, 학부모는 그 아이가 패기 있고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경기장에서 일어난다. 어떤 팀은 시합에서 져서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지만 그들은 불복한다. 이런 불복하는 정신과 태도로 인해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연습해 다음 시합에서 상대 팀을 이기고 그들에게 망신을 준다. 이 사회에서, 이 인류 가운데서 불복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이겠느냐? (마음을 지탱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사람이 계속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너지지도, 낙담하거나 움츠러들지도 않고 이상과 목표를 이루도록 지탱하는 동력이다. 이를 불복한다고 한다. 이는 불복하는 정신이다. 사람은 이런 정신이 없으면, 이런 '정신력과 체력'이 없으면 살아 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무엇에 기대 살아가겠느냐? 일종의 정신에 기대 살아간다. 그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겠느냐? 사람의 관념과 상상 속에서 비롯되고, 패괴 성품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실제적이지 않고 사람이 이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생물이 생존하는 법칙과 인류가 생존하는 법칙, 천지 만물과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 등 긍정적인 것이 너무도 많다. 인류의 생각과 소양의 수준에 따르면 인류는 그 속에서 한 가지 법칙을 찾아내어 준수하고 그것을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는 원칙과 동력, 혹은 근간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 올바른 측면에 공들이지 않고 어느 측면에 힘쓰느냐? 잘못된 측면에 힘쓴다. 즉, 사물이 발전하는 법칙과 만물이 순환하는 법칙을 위배하고 늘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자연법칙을 파괴하면서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행복을 창조하려 한다. 그는 행복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안의 비밀은 무엇인지, 근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그 근원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창조할 뿐 아니라 늘 기적을 만들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모든 정상적인 법칙을 바꾼 다음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목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비정상적이다.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 계속 쟁취하다 보니 결국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이 세상이 이제 파괴됐다. 파괴된 뒤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인류다. 사람은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짓밟아 놓고도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으니 이는 정신이 좀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느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아서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치명적인 재난을 불러왔다. 그건 단지 시합에서 한두 번 지고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앞길을 망치고 퇴로를 끊으며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불복하면 이런 말로를 맞이한다.

지금 분석하는 것은 사탄의 흉악한 성품과 교만한 성품의 전형적인 모습, 즉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이 인류 가운데서 그것을 정죄한다면 먹혀들겠느냐?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먹혀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을 떠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정신을 제창한다. 불복하거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이 없으면 너를 보고 나약하다고 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약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이 나약하지 않다뇨? 강단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말이겠느냐? 우선 한번 분석해 보자. 불복하는 것은 어떤 태도겠느냐? 정상적인 이성을 지닌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사실, 사람의 이성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현실을 마주해야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복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정신이 다소 비정상적이다. 그건 분명 잘못된 태도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복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복하는 것 자체에 교만한 성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다. 만약 네가 교만한 성품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면 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그 추구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얻는 것도 분명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상상한 일종의 '정신'일 것이다. 사람이 이런 정신을 진리로 여겨 대한다면 잘못된 길에 오르게 된다. 그럼 불복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말해야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지, 불복하는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 불복한다는 건 누구에게 불복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불복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실의 진상에, 잘못을 저질러 드러나게 된 것에, 자신이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복하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일로 반박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인류를 가장 난감하게 하느냐? 과학이다. 과학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인류가 가장 떠받들고 자랑스러워하는 과학이 인류에게 전례 없는 재난을 가져왔다. 이런 단서가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반박해야 그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느냐? 말해 보아라, 사탄에 속하는 부류를 부끄럽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늘 진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차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에게 어떻게

반박해야겠느냐?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당신에게 불복할 밑천이 어디 있어요? 뭘 믿고 불복하는 거죠? 과학자라고 한들 뭘 어쩔 수 있나요? 그들이 발전시키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뭘 어쩔 수 있죠? 지금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온 재난들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반박하면 된다.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반박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가 "인류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불복하는 거죠?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면서 왜 오만하게 구는 겁니까? 당신은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도 몰라보면서 왜 불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어코 사람은 짐승에서 변한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다니 당신은 정말 미천하다고요! 그토록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신의 창조주라고 하셔도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말 비천하다고요!"라고 하면 그는 뭐라고 반박하겠느냐? "사람은 원숭이에서 변했어요. 역시 고등 동물이죠." "그래 봤자 동물이고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을 사람으로 인정하셨는데 당신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어코 부인하면서 짐승이 되려고 하네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죠? 당신이 살아갈 자격이 있나요?" 이는 강단 있는 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박하면 된다. 그가 인정하든 말든, 받아들이든 말든 사실이 그렇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인류는 영원히 불복하면서 자신이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지혜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류는 대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 끊임없이 대자연과 싸우고 늘 대자연을 정복하려 하며 대자연의 법칙을 전혀 따를 줄 모른다. 결국, 인류는 대자연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전부 과학을 알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다스린 것 아니었느냐? 너는 불복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주재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었느냐? 인류는 대자연과 몇천 년 동안 어울려 지냈지만 대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모른 채 과도하게 개발하고 소모하며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이제 천연자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사람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 숨 쉬는 공기 중에는 독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태초에 대자연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생물과 음식, 공기와 물이 깨끗했고 독도 없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다스리게 한 뒤로 이런 것들은 전부 독성을 띠게 됐고, 사람 스스로도 그것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불복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고 관리하게 했는데 인류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관리할 줄이나 알았느냐? 인류는 세상을 짓밟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바닷물과 산, 토지, 땅, 공기, 나아가 하늘의 오존층까지 남김없이 파괴했다. 결국 이 모든 나쁜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겠느냐? (사람입니다.) 인류 자신이다. 사람은 모두 어리석기 그지없는데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불복한다! 왜 불복하는 것이냐? 만약 인류에게 계속 이렇게 다스리게 두면 이 대자연이 태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영영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인류가 불복하는 정신으로 다스릴수록 이 세상과 대자연은 점점 더 나빠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인류는 모두 스스로가 파괴한 이 환경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만약 인류가 능력이 된다면, 누가 나서서 이 세상의 현 상태를 바꿔야 하는데, 감히 이런 책임을 짊어질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불복하는 것이냐? 사람은 자신이 마실 물조차 보호하지 못한다. 이는 사자나 호랑이가 파괴한 것도 아니고, 새나 물고기, 벌레가 파괴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류 자신이 파괴하고 짓밟은 것이니 결국 사람이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제 와서 바꿀 방법이 있겠느냐? 바꿀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와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 전체가 생존하는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나빠질 뿐,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불복해서야 되겠느냐? 네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겠느냐? 네게 좋은 환경을 주면 너는 파괴할 줄만 알지 지킬 줄 모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먹이 사슬에 대해 인류가 알겠느냐? 모른다. 예를 들어, 늑대라는 동물은 흉악하다. 그런데 인류는 늑대를 모두 잡아 죽이면 대자연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결심과 사기(士氣), 도전 정신이 생기면 인류는 늑대를 대량으로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초원의 늑대를 거의 멸종시키고는 이 자연과 늑대라는 생물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집에는 늑대 가죽을 걸어 놓고 몸에는 늑대 가죽옷을 걸치고 늑대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쓴 채 총검에 어린 늑대의 가죽을 걸어 놓고 사진을 찍어 온 세상에 알린다. "우리는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생물인 늑대를 이겼다!" 우쭐해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늑대가 줄어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와 일부 생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인류는 이로 인해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떤 대가겠느냐? 대량으로 늑대를 잡아 죽인 결과, 늑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뒤이어 초원의 각종 토끼와 쥐, 늑대가 잡아먹는 여러 동물이 많이 번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동물들이 넘쳐나면 가장 먼저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풀이 사라집니다.) 풀이 점점 줄어든다. 풀이 줄어들면 땅 위의 식생도 점점 줄어든다. 이런 동물들이 넘쳐나면 풀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풀이 자라는 속도와 각종 초식 동물의 수가 비례하지 않게 된다. 비례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토양이 사막화됩니다.) 그렇다. 토양이 사막화된다. 땅이 식생으로 뒤덮이지 않으면 사막화가 시작되어 점차 모래땅이 된다. 많은 식물이 모래 위에서는 뿌리를 내리거나 번식하지 않아서 모래땅이 빠르게 확산되고 점점 넓어져 결국 초원 전체가 사막으로 변한다. 이어서 사막은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사람은 사막의 면적이 커진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황사가 불어오면 인류는 어떤 피해를 입겠느냐? 처음에는 흙먼지가 흩날리지만, 바람 부는 계절이 되면 모래가 날려 눈도 뜰 수 없게 되고, 온몸에 먼지가 묻고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찬다. 심각한 경우, 사막 근처의 집과 가축, 혹은 사람이 모두 모래에 파묻힐 수도 있다. 사람이 모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으니 이사를 하며 계속 내륙으로 물러나야 한다. 결국, 초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사막은 갈수록 넓어져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축소된다. 그럼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좋아지겠느냐, 아니면 나빠지겠느냐? (나빠집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이 결과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떤 일에서 야기됐느냐? (늑대를 죽인 것에서 야기됐습니다.) 늑대를 죽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이지만 사람이 그 법칙을 따르고 지킬 줄 모른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야기되겠느냐? 사람이 모래 속에서

파멸된다. 이는 치명적인 재난 아니겠느냐? 늑대를 죽이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성품이 담겨 있느냐? 그런 성품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그 행동의 출발점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대자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정복하려고 한다. 사람은 늑대가 인류의 천적이고 인류에게 위협이 되며, 늘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이렇게 늑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후, 그것을 정복하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멸종시켜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살며 아무 위협도 받지 않길 바란다. 이런 출발점을 기반으로 사람은 늑대를 죽이기 시작한다. 이는 무엇이 지시한 것이겠느냐? 불복하는 정신이 지시한 것이다. 인류는 늑대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범화할 줄은 모르고 늘 죽이고 멸종시키려 하며, 이 법칙을 뒤집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모래에 파묻힌다. 이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지구의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땅콩 알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는 이 구석에서 발생한 이토록 사소한 일조차 사람은 간파하지 못한 채 자연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며 불복하기까지 한다! 불복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멸망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결과가 발생하면 인류는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스릴 방법이 없다. 일부 공익 활동을 하는 선량한 사람이나 사회단체가 나서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의 출발점과 동기는 옳고 그들이 호소하는 일도 옳다. 하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정부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이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일이 발생한 원인을 알고도 구경이나 할 뿐이며, 늑대는 계속 죽인다. 누가 "계속 이렇게 죽인다면 언젠가 당신은 모래에 파묻힐 거예요."라고 하면 그는 "파묻히면 파묻히는 거죠. 저 혼자 파묻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렵겠어요!"라고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무감각하고 생각이 없으며 인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그는 왜 그토록 오만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큰 지구에는 사막 말고 산이나 숲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다 파괴되겠어? 아직 멀었어! 늑대 몇 마리 죽여서 일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한 걸 가지고 저렇게 놀라는 건가? 그래도 죽일 건 죽여야지.'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지 않으냐? 늑대를 좀 죽였더니 불과 20, 30 년 만에 푸르른 초원이 완전히 변해 버렸다. 만약 이 지역에 풀씨를 좀 뿌리거나 사막에서 자라기에 적합한 식물을 심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인류는 공로로 과오를 메우는 셈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은 모두 가장 좋고 적절한 것으로, 반드시 그 법칙을 따라야만 땅이 존재할 수 있고, 동물과 식물, 인류가 땅 위에서 생존해 갈 수 있다. 즉, 여러 생명체가 특별히 조화를 이루고 상생상극과 상호 의존을 통해 서로 존재할 수 있다. 일단 한 부분을 파괴한다면 10 년 안에는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 년 뒤에 정말로 결과를 느낄 때가 되면 아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는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무엇에서 기원하겠느냐? 인류가 떠받드는 불복의 정신, 즉 와신상담의 첫 번째 모습에서 기원한다. 사람이

보기에 와신상담은 몹시 '위대'하고 '신성'한 성어지만, 그것에서 비롯된 사상이 인류에게 미친 첫 번째 영향은 바로 이토록 커다란 나쁜 결과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이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지 않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법칙도 별거 아니야. 신성한 것은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파괴해 보겠어!'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이 나쁜 결과는 인류가 가장 원치 않던 것이다. 그 '어떻게 되는지'라는 결과가 이렇게 발생했고 이미 인류의 눈앞에 펼쳐져서 모두가 '종말의 날'의 광경을 보았다. 그래도 싸지 않으냐?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다.

와신상담의 첫 번째 모습은 불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치명적인 재난이다. 이는 자업자득으로, 속담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한다. 그래도 싸다! 이제 이 말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다. 만약 이방인이 또 "처신할 때는 정신력과 체력이 좀 있어야 하고 강단도 있어야 해요!"라고 하면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렇고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럼 너무 자주권이 없잖아? 너무 나약하지 않나? 정말 강단이라곤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만약 오늘 내가 말한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 인류는 구제 불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인류는 이미 말이 안 통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라고 말하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설사 반박할 적절한 말이 없거나 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너는 속으로 그의 관점이 절대 진리가 아님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긍정적일지라도, 이 세상의 인류가 아무리 제창하고 치켜세울지라도 너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멸시할 것이다. 와신상담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 교제를 마쳤다. 원래는 진리를 교제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또 본론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교제하는 이런 것에 대해 단지 하나의 정의나 개념에만 머무를 뿐이라면, 너는 영영 그것의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해하며 옳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다. 어느 부분이 그른지, 옳은지도 명확히 말하지 못하면서 수시로 이 '원칙'대로 실행할 것이고 네 내면은 항상 흐리멍덩할 것이다. 너는 간파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경배하고 준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적이지 않고 그저 상대적으로 가끔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다고 생각할 뿐이다. 도리상으로는 이렇게 지킬지라도 소위 지식이나 그럴싸한 말에 영향을 받고 교란을 받는다면, 네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상대적으로 옳을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것이다.

2)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와신상담의 두 번째 모습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역시 세상 사람들이 권장하는 일종의 사상과 정신이고 사물을 대하는 태도이다. 사회와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이고, 인류가 비교적 밝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석하려는 것이겠느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뭐가 나쁘겠느냐? 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진리와 아예 무관하다. 무관하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실행하려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요구 기준과 세칙대로 해야지 소위 사람의 뜻이 담긴 주장과 정신, 기개와 같은 방식과 방법, 일을 처리하는 태도나 관점을 섞어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이런 것과 무관하다. 그럼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왜 나쁘겠느냐?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이는 분석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선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해 보자.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나 중책, 혹은 이어받거나 받아들인 사명을 위해 모든 치욕과 고통, 굴욕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럴 것이다. 그럼 보통 어떤 상황이나 배경에서 이 말을 쓰겠느냐? 누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현재 처한 형편은 그의 사명을 완수하여 그가 이루려는 목표를 이룬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어떤 하찮은 사람이 지위나 후광은 아예 없고, 권세는 더더욱 없는 배경에 놓이고, 이런 배경 아래 자신의 책임과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까지 짊어지기 위해 기죽지도, 타협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역시 일종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겠느냐? '참는 것'과 '짊어지는 것'이다. '참는 것'은 인내하거나 견디는 것을 가리키는데, 참는 동시에 중책이나 책임을 담당하거나 짊어져야 하고, 뭇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부탁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려서도 안 된다. 이는 어떤 정신이겠느냐?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얕은 차원의 뜻이다. 또 어떤 게 있겠느냐? 우리 이렇게 분석해 보자. 수모를 참는 것에서 '수모'는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굴욕이나 치욕을 가리킵니다.) 주위 사람이 주는 치욕으로 인해 굴욕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람에게 치욕을 가져오고 굴욕당하는 느낌을 받게 하겠느냐? (조롱이나 비방,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렇다. 조롱이나 비방, 조소, 농락, 비아냥거림이 그렇다. 그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에서 '무거운 짐'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책임이나 부탁을 가리킵니다.) 책임이나 부탁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사명이나 중책이 있는데, 여기서 중책은 남이 맡긴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이루려고 분투하는 목표나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신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 맞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자신이 지향하는 것들로, 그런 목표를 이루고 실현하기 위해 그는 기존의 환경에서 주위 사람이 그에게 주는 굴욕이나 조롱, 비방, 비아냥거림, 심지어 심한 희롱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럼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동력은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대장군이 되기를 지향하는데, 그가 권력을 얻기 전 어느 날 지역의 불량배 한 무리가 그에게 치욕을 주며 "네가? 장군이 되겠다고? 지금 말 한 필도 없는 네가 어떻게 장군이 되겠다는 거야? 장군이 되려면 먼저 내 가랑이 아래로 기어가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껄껄거린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장군이 되려고 하는 게 잘못도 아닌데 저들은 왜 나를 희롱하고 비웃는 거지? 하지만 일단은 능력을 과시하면 안 돼. 오늘 이 상황을 보니 저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얻어맞고 말겠어. 자칫하면 목숨을 잃겠다고. 그러면 난 장군이 못 되잖아? 내 이상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아래로

기어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잖아?' 이렇게 생각한 그는 '쿵' 하고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땅에 대고 마치 개처럼 그 불량배의 가랑이 아래로 기어간다. 기어갈 때 그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원망으로 가득 찬다! 그는 속으로 '언젠가 내가 정말로 장군이 되면 네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참아야 한다. 그가 가랑이 아래로 지나가자 그 무리는 흡족해하며 그를 봐주고 발로 차 버린다. 그는 일어서서 몸에 묻은 흙을 털고 말한다. "잘 참았어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왜 그는 그렇게 하겠느냐?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건 언젠가 장군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야. 오늘 내가 이런 고생을 견디고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앞으로 난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해.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든, 얼마나 큰 고통과 굴욕을 당하든 반드시 장군이 되고야 말겠어! 장군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저놈을 죽여서 가랑이 아래서 당한 치욕을 씻는 거야!'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되든 말든, 당시에는 '참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안에는 계략이나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음모가 있다. 그는 부득이하게 참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 그러겠느냐? 언젠가 이 모든 굴욕을 씻기 위해서이다. 그가 참는 것에는 "푸른 산이 있는 한 땔나무 걱정은 없다.",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는 10 년 걸려도 늦지 않다."와 같은 계략이 가득하다. 이 몇 가지 계략이 그가 가랑이 아래서 당한 치욕을 견디게 한다. 그 이후로 장군이 되려는 그의 욕망은 더욱 커지고 강렬해져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된다. 그럼 그는 무엇을 위해 굴욕과 치욕을 견디겠느냐? 정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겠느냐, 아니면 진정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겠느냐?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이다. 그럼 이는 긍정적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겠느냐? (부정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참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욕망, 야심이 부추겨서 참는 것이다. 이렇게 '참는 것' 안에 진리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진리는 없다. 정상 인성은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것도, 올곧은 것도 아니고 결점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욕망과 음모, 음해로 가득하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악한 인류가 권장하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상과 정신은 기본적으로 방금 했던 이야기 속에서 말한 것과 같다. 즉, 한 사람이 큰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은 주로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이 사람에게 살아 내도록 하는 게 진실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겠느냐? (거짓된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야심과 이상을 위해 살아 내는 것과 하는 말, 드러내는 행위는 모두 위장한 것이고, 부득이한 것이며, 이 모든 욕망과 이익,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지향과 목표라는 전제하에 부추김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 내는 이런 것은 모두 임시방편일 뿐 정직하거나 진실한 것,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솔직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임시방편이다. 이는 모두 계략이 아니겠느냐? 임시방편은 바로 당분간 일단 이렇게 참고 잠시 아부하고 구슬리고 속이면서 자신의 진실한 신분과 마음, 생각, 관점, 심지어 증오까지 포장하여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하며 나약하고 겁이 많은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진실한 면을 전부 감추겠느냐? 언젠가 대업을 이루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을 실행해 내거나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거기에 정직한 태도가 있겠느냐?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나 뉘우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당신 주제에 장군이 되려는 거야?"라고 하면 그는 생각해 보고는 "저는 안 돼요. 저는 장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농담이에요."라고 말한다. 이게 참말이겠느냐, 아니면 거짓말이겠느냐? (거짓말입니다.)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 정도는 돼야 장군이 될 수 있지!' 그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겠느냐? 얻어맞지 않기 위해, 실력을 보존하기 위해 그는 말한다. "그건 농담이에요. 감히 정말로 장군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대장군 같네요. 당신은 미래의 대원수예요. 장군보다도 더 위라고요!" 이게 참말이겠느냐? (아닙니다.) 참말은 어디에 있겠느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마음속에 담아 두고 말하지 않는다. 왜 말하지 않겠느냐? 말하면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 말하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하여 자신의 실력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실력을 보존한다는 건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진실한 능력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싸매 탄로 나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와신상담의 진실한 함의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와신상담하고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목표와 욕망, 증오를 절대 잊어선 안 되고, 남들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과 실력을 절대 보여 줘선 안 된다. 일부 능력 있는 사람은 무리 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과묵하며, 설사 말을 하더라도 끝맺지 않아서 남들은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말을 왜 저렇게 심오하게 하지? 속마음을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어렵지?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실 그가 마음속에 생각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은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일을 처리할 때 늘 여지를 둔다. 늘 여지를 두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일부 능력자나 대단한 인물이 보고 나서 질투하여 그를 겨냥하고 해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무리 안에서 늘 남을 칭찬하고 남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누구든 자기보다는 낫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음험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도저히 그의 속내를 알 수 없다. 겉으로는 별말 안 하는 걸 보고 너는 그 사람이 야심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너는 틀렸다. 그런 사람 중 일부는 바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는 마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장면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자주 선행을 하고 해진 옷을 입으며 무리에서 늘 괴롭힘을 당한다. 이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집에 돌아온 뒤 그는 한 밀실에 들어가는데 밀실의 벽에는 지도가 한 장 걸려 있고 지도 위 지역의 80%는 이미 그가 보낸 하수인에 의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주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이런 야심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언젠가 지도 위의 모든 지역이 그에 의해 통제되어 그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한다. "알고 보니 마귀였어요. 저 녀석은 야심도 크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위장했는데 아무도 그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는 말한다. "나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참지도, 당신들의 경계심을 늦추지도 않고 무엇이든 당신들에게 알려 줬다면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었겠어?" 악인이나 지극히 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느냐? 한편으로, 그들의 인내력과 의지력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다. 그 밖에 그들의 음모도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이 그들과 어울리면 우롱당하기 일쑤다. 우롱이란 무엇이겠느냐? 아무도 그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가 표면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만 알 수밖에 없다.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의 행동과 말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게 바로 그에게 우롱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인내력과 의지력 자체는 긍정적인 말이지만 그의 음모가 그의 인내력과 의지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도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얻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 고생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 밖에, 누구와 싸워야 하든 다 드러내 놓고 싸우지 그런 음모는 없다. 반면 그 부류의 악인들은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있고 늘 음모와 계략을 쓰며, 언제까지나 그의 야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투쟁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교과서에도 월나라 왕 구천이 와신상담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한다. 일부 아이들은 듣고 나서 생각한다. '보통 사람이 되는 것도 꽤 좋은데 왜 꼭 그렇게 큰 야심이 있어야 하지? 와신상담하는 고생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 그건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생이 아니야.' 야심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고생을 견딜 의지가 있다. 거기에는 음모가 있다. 그러나 이 인류 가운데서는 이런 정신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큰 고생을 견디고 굴욕을 당하든, 처지가 얼마나 열악하든 사람은 절대 자신이 지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회는 와신상담하는 것이나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사상을 권장하여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목표를 위해 분투하도록 채근하고 격려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겠느냐? 인류 전체가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됐다. 인류 가운데 목표가 진리나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와신상담하고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수록 사탄 세력은 더욱 날뛰고, 이 인류의 투쟁과 학살은 더욱 많아지며, 인류는 점점 더 사악해지고, 사회도 갈수록 암담해진다. 반대로 만약 네가 하늘의 안배와 이 모든 자연법칙에 순응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순리에 맡기고 이 법칙을 존중하며 하늘의 안배를 기다린다면 너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고, 각성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밖에,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최소한 양심에 따를 줄 알아야 하고, 좀 더 뛰어나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제정한 법칙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사람이 가면을 쓰고 중책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제하고 나니 너희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대체 어떤 행위인지 깨닫지 않았느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의 목표는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겠느냐? (부정적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자,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여 상을 얻고자, 혹은 온전케 되고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완전히 사탄 철학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들어 보면 다 치우친 말이다. 그 사람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지 않겠느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네가 수모를 참는 것도,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겠느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지향, 염원, 추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과 추구 목표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 사람이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치하고 주재하는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속셈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부 졸업생이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 막 들어갔을 때 기존의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학부 졸업생은 입사 후 3 년간 차 심부름을 해야 해요." 그러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학사 학위밖에 없지만 당신들에게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감히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했고,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며 매일 고분고분하고 얌전한 태도로 굽실거려야 했다. 누가 트집을 잡아도 참아야 했다. 그는 무슨 목적으로 참았겠느냐? 언젠가 출세해서 기를 펴면, 매니저나 사장의 비서가 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밟아 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평생 수모를 당할 텐데 누가 그런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게다가 사람이 패기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인지상정이죠. 장군이 되려 하지 않는 병사는 훌륭한 병사가 아니라고요." 이런 말들이 좌우명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사탄의 논리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누구나 공손하게 대하며 참아야 했다. 어느 날 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지난 3 년간 실적이 나쁘지 않았군. 다음 주부터 영업 사원으로 일하게." 그는 듣자마자 기분이 상했다. '3 년을 버텼는데 겨우 영업 사원이나 하라니! 영업 총괄 책임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입으로는 발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 계속 참아야 했다. 그는 또다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스럽게 사장 뒤를 따라다니면서 술 상대를 해 주고 웃는 얼굴로 대했다. 그렇게 버티자 10 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목적을 이뤘다. 어느 날 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일을 잘하니 실무 책임자로 발탁하겠네." 그는 이 말을 듣고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며 기쁨에 겨워했다! 이는 어떤 결과이냐? 그가 보기에는 출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취할 만한 것도 없고 찬미하고 칭송할 만한 것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꼬리를 내리고 처신하는 이런 정신을 떠받든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받드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은 어떠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바람직하지 않으냐? 사람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다 자신만의 속셈과 동기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취할 만한 점이 조금도 없고, 전혀 칭송하고 칭찬할 만하지도 않으며, 기억될 만한 점은 더더욱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고대 황궁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자. 어떤 황제가 죽자 황후는 자기 아들이 아직 어리니 황위를 계승해도 결코 조정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진정으로 황제가 되어 집권할 수 있도록 황후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죽은 황제의 남동생과 결혼했고, 그 둘이서 함께 아들을 길렀다. 황후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아들의 황위를 위해서이다. 아들의 황위가 보장되면 그녀의 신분은 황태후가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어떤 수모를 겪었느냐?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선황이 죽자마자 시동생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평판이 나빠졌다. 사람들이 다 뒤에서 그녀를 욕하고 판단했고, 심지어 역사서에서도 그녀를 나쁘게 평가했다. 그녀가 그런 것을 신경 썼겠느냐? 사실 시동생에게 시집가기 전에 그녀는 그 일의 결과를 이미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겠느냐? 아들의 황위와 자신의 황태후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그런 오명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런 고생을 견딘 것이다. 이게 바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그 모든 굴욕을 견딤으로써 무엇을 얻었느냐? 더 큰 이익을 얻었다. 그게 바로 그녀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목적이다. 그녀가 더 큰 이익을 얻는 순간 그 모든 오명은 별것도 아니게 된다. 그녀는 그 오명으로써 자신과 아들의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의 행위만 본다면 그녀는 자신을 버릴 줄 알았고, 그녀가 겪은 굴욕과 고생은 그녀의 아들이 보기에는 사심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며 "너무도 위대한 어머니예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욕망과 야심, 진정한 목적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욕해야 하고, 그녀의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시련과 연단,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들인다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확실하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전혀 성립하지 않고 정죄된다. 이 말을 여기에 적용하면 왜 옳지 않겠느냐? 이런 행위를 여기에 적용하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단지 말로만, 도리적으로만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예전에 너는 하나님의 온전케 함이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신상담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월나라 왕 구천의 정신을 배워야 하며 실패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야말로 얼간이이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교제했으니 너는 '이 말은 형편없는데 난 예전에 늘 이 말을 썼어. 난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너는 이 말의 어느 부분이

옳지 않은지 깨달아야 한다. 어느 부분이 옳지 않은지 정말로 깨달으면 너는 이 말을 철저히 이해한 것이다. 네가 이 말을 절반만 간파한다면, 부정적인 그 절반만 간파하고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간파하지 못했다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내가 방금 교제한 것을 듣고 나니 너희는 나의 이 방식대로 이런 일들을 해부하고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집에서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행동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행동 방식과 정신은 하나님 집에서는 정죄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교체되거나 정죄되는 것은 결코 굴욕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고, 우리가 진리 추구의 바른길에 오르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옳으냐? (옳습니다.) 만약 심판과 형벌이라는 일을 간파하지 못하면 마음에 반발심과 불평이 생기고, 사탄 철학인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을 실행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해. 월나라 왕 구천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책상 위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을 새겨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물론 오늘 이렇게 교제하고 나면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또 다른 말을,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분석한 적 없는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지 않겠느냐? 이는 같은 성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사탄의 독소가 아니겠느냐? 모두 사탄의 독소이고, 사탄의 처세 철학에 속한다.

예전에 중국의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막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에 하나님 집에서 일부 형제자매에게 소양과 지식을 학습하도록 안배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비교적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아는 글자도 적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자질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등과 같은 고정적인 용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하나님 집에서 형제자매에게 여유 시간에 소양과 지식을 학습해도 된다고 알려 줬다. 최소한 일부 고정적인 구절이나 용어, 혹은 명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글자나 단어 자체의 뜻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겠느냐? 그 뒤로 형제자매는 공들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는 좋은 일이었지만 일부 치우친 사람은 빈틈을 파고들었다. 어떤 리더는 예배 시간에 소양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소양과 지식을 익히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이야기하고, 이런 이치에 대해 잔뜩 말했다.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니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들은 말만 하면 다들 이해할 수 있으니 예배 시간에

진리로 여겨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리더는 예배 시간을 많이 할애해 이런 것을 진리로 여겨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법까지 생각해 내어 일부러 비교적 생소한 글자들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시험하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의 소양이 뛰어나 보이지 않겠느냐? 그 기간에 일부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도 않고, 생명 체험이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소양을 쌓는 일에 대해서만 교제했다.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바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언급하겠느냐?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성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고 속으로 벼르며 준비를 시작한다. '알고 보니 진리 교제가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성어만 교제하면 되는 거였어. 당신이 성어를 교제하신다면 나는 속담이나 방언, 속어, 이언을 교제하겠어.' 이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이해력이 있겠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신은 여기에 앉아서 쓸데없는 한담이나 하고, 성어 두 개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 당신처럼 교제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아무렇게나 흉내 내는데, 이렇게 흉내 내는 리더는 교체돼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체돼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언급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듣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왜 이런 속어나 성어에 대해 얘기하겠느냐? 어떤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사람은 진리의 정의와 개념을 깨달은 것을 토대로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더 깊이 분석하더라도 닿을 수 없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고 어떤 일과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사성어를 좀 들려주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해 자신은 이미 대학교에 진학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이런 초등학교 수업 같은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이건 초등학교 수업이 아니라 대학교 수업인 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이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대단히 괜찮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느낌은 옳지 않다. 잘못된 느낌이다. 너희는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깨워 주겠다. 너희는 방금 말했던 그런 일을 절대 저질러선 안 된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착실하게 교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구 지껄이지 마라. 진리 교제는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는 게 아니다. 너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아무렇게나 흉내 내서도 안 된다. 내가 와신상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고 너는 월나라 왕 구천에 대해 얘기하거나 현대사, 고대사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들으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설사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건 진리가 아니다.

방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실행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그럼 이토록 '좋은'

말과 '위대한' 정신을 어째서 실행하면 안 되겠느냐? 대체 어디가 잘못됐겠느냐? 어째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정신을 갖춰선 안 되겠느냐? 도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준 행동 원칙도 아니다. 왜 이 말이 진리도, 실행 원칙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우선,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에서 '수모'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수모'는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굴욕이고 당하는 치욕이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치욕을 당하거나 굴욕을 견디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저는 마음속의 화나 분노, 원한, 언짢음을 억누르고 참으면서 잠자코 있어야 해요. 이런 것이 제게는 다 치욕이지만, 저는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진리 실행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행한 것이냐? 패역이고 허위이고 위장이다.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 위해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다. 너는 어떤 굴욕도 견딜 필요 없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네게 치욕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욕이 아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와 심판, 형벌, 시련이나 연단은 네게 치욕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패괴 성품의 표출을 폭로하는 동시에 네가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자 네가 그것을 벗어 버리고 저버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성과를 이루겠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기간에 네가 견뎌야 할 것들 중에 굴욕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주는 치욕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 예를 들어 하나님이 폭로하는 너의 교만함과 사악함, 간사함, 강퍅함, 혹은 흉악함 중 사실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너를 폭로하거나 네게 하는 말씀은 어떤 방식이든 전부 다 사실이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든 없든,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든 그런 것은 모두 사실이지 없는 사실을 꾸며 내거나 허풍을 치는 게 아니며 너를 모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 네게 치욕을 주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게 치욕을 주는 게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네게 일러 주는 것이다. 네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사탄을 따르지 않고 인생의 바른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으로, 네게 미치는 영향과 이루는 성과는 긍정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성질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진리에 부합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통이자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진정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통이다.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적극적으로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굴욕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다. 이런 고통은 치욕도, 풍자도, 비방도 아니고, 하나님의 희롱은 더더욱 아니며, 전부 사람이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났다. 그럼 이런 고통 안에 하나님이 일부러, 별도로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나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될 고통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적게 받으면 사람은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없다. 사람의 패역한 성품이 얼마나 심각하든, 하나님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든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사람이 받는 것도 굴욕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자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통이다. 사람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 왜 받아야 한다고 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몹시 심하게 거역하고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통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한 게 아니다. 이는 찬물을 마시면 배가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찬물을 원망하겠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누가 네게 가한 것이냐? (자신입니다.) 너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이 결과와 과정은 모두 사람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결코 굴욕이나 치욕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리더를 맡으라고 나를 발탁하길래 기뻐하면서 리더를 맡았는데 제대로 사역하지 않고 잘못을 범했다는 이유로 나를 다시 교체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 난 뭐가 된 거지? 내게 아직 인격이나 존엄이 있나? 내게 아직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있나? 내게 아직 자주권이 있나?' 그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권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건 바보이고 존엄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도 나약하고 억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이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면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 밑에서는 눈치를 살펴라."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보아라, 사탄 철학이 또 등장했다. 이 명언이 그를 굴복시켰다.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기꺼이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느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기꺼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어쩔 수 없음이 그에게는 일종의 치욕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진리 실행으로 여기기 때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순종을 진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이는 성질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비록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과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 모두 복종을 하긴 하지만, 모두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잘 듣고 행동이 올바르고 영리하지만 이 둘의 성질은 다르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자신의 직책, 본분과 의무, 천직, 진리로 여긴다.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겉으로는 반항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자신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진리다. 그는 수모를 참는 것을 진리 실행으로 여긴다. 순종을 무엇으로 여기겠느냐? 진리 실행이 아닌 치욕을 견디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뒤바뀐 것 아니겠느냐? 이를 뭐라고 하느냐? (본말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그는 진리를 처세 철학으로 여기고, 도리와 사람의 처세 철학을 진리로 여긴다. 이는 흑백이 전도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흑백이 전도된 것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받는 고통이 치욕도 아니고 누가 자신에게 치욕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 사람이 받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초래됐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에 초래됐습니다.) 그렇다. 만약 패괴 성품이 없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면 너는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런 수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고통과 수모 중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고통은 긍정적인 것이다. 만약 네가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기꺼이 받는다면 이 고통에 대해 너는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나는 당연히 이 고통을 받아야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옳아. 나는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이치를 따져선 안 돼.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내 잘못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어.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옳아. 나는 고통을 받아도 싸. 그러게 누가 패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래?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신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부추긴 거야. 그러니 이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해.' 그럼 사람이 이 고통을 받는 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다면 이 고통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저도 순종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순종하더라도 이치는 명확히 따져야겠어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야겠다고요. 이렇게 나약하게,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할 순 없어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죽을 거라고요."라고 말한다면, 늘 분명하고 알아듣게 이야기하여 일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말하려 한다면,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은 어떻게 대가를 치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자기 이치를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순종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냐? 굴욕을 견디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다고 칭찬하시도록 난 이 모든 굴욕을 견뎌야 해.' 그럼 이 '수모'는 과연 존재하겠느냐? 만약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왜 명확히, 알아듣게 이야기하여 이 '수모'에서 벗어나려 하겠느냐? 이는 진실한 순종이 아니다. 설사 네 행동의 마음가짐이 옳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려고 한다면 너는 변명할 필요도, 이치를 따질 필요도 없다. 욥이 너보다 잘하지 않았느냐? (잘했습니다.) 만약 시련이 닥쳤을 때 욥이 이치를 따지고 변명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었겠느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럼 욥은 하나님이 변명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지만 욥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정도 분량이 있었고 진실로 순종했다.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대했겠느냐? 그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다. '수모'라는 배경대로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굴욕을 당하게 해서도, 그를 사탄에게 넘겨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논리로 보면 욥은 고통을 받았고 큰 굴욕을 당했으며,

그가 그 시련을 받아들인 것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실행했느냐? 그는 그 시련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는 참을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네게 명과 숨을 주었다. 너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네가 가진 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준 것 아니겠느냐? 네가 큰소리칠 게 뭐가 있느냐? 모두 하나님이 준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려 한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이치를 따질 수 있겠느냐? 줄 때는 기뻐하면서 주지 않을 때는 언짢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다툰다. 주든 말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사람은 따질 수 있는 이치가 없다. 욥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했다. 그가 속으로 억울해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명하고 변명하며 하나님과 겨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명확히 알아듣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동작만 했을 뿐이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 일련의 동작으로 보아 욥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의 정의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아무 평가도 내리지 않고 그저 칭송하고 순종한다.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굴욕적인 일이에요."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그는 이런 표출이나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방인은 이를 두고 '자신을 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어떤 논리겠느냐? 정말 이런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자신을 잊는 것'은 정신이 병든 것이고 허튼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다. 욥은 아무리 큰일이 닥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순종할 뿐이었다. 그가 순종한 본뜻은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옳다고 믿었다.

어떤 팀장이나 책임자는 교체되면 계속 울고 억지를 쓰며 짜증을 부린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며, 형제자매가 그를 폭로하고 고발한 것은 그에게 잘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양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제가 그렇게 잘해 줬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하나님께서도 공의롭지 못하시네요. 제가 이렇게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 주지 않으시고 무참하게 교체하셨어요. 당신들도 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무시하시는군요!" 자신이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억지를 쓰기 시작한다. 네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 생각에는 쉽지 않다. 이러면 끝난 것 아니냐? 웬 억지를 부리느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집에서 나가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뭐가 억울하냐? 웬 억지를 쓰느냐? 여기는 하나님 집이다. 자신 있으면 사회에 가서

억지를 쓰든, 사탄 마왕을 찾아가 억지를 쓰든 할 것이지 하나님 집에서는 억지를 쓰지 마라. 팀장을 맡다가 교체된 건 별일도 아니다. 팀장을 맡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으냐? 팀장을 맡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냐? 욥은 그토록 큰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 1:21)라고 말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한 것이 상과 이익을 아주 많이 얻었기 때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그저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실행했다. 이는 인품과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저열해서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이 억울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자신에게 잘못했고 자신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인간이냐! '굴욕'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설명해야겠느냐? 이방인이 굴욕을 당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진리를 얻고자 고통을 받고 굴욕을 당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다. 책망과 훈계에 부닥치든, 아니면 교체되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지 그건 굴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굴욕을 당하는 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야말로 굴욕을 당한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다. 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다른 음식을 베풀어 주어야 했다. 그들은 또 며칠 지나 살 만해지면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왔다.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굴욕을 당했겠느냐? 시대에 의해 버림받은 성육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굴욕을 당했겠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한 진리를 이토록 많이 누리고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좀 받으면서도 특히나 억울해한다. 사람이 억울해할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강인하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형제자매가 그를 책망하거나 누가 그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 하면, 혹은 아무도 그를 옹호하거나 치켜세우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자신이 큰 고통을 받았고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한다. "다들 저를 무시하는군요.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태생적으로 모욕을 당할 운명인가 봐요!" 이 무슨 억지냐?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느냐? 이게 수모겠느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은 간파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설교를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엄청난 굴욕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니 이는 공연히 말썽을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런 굴욕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가끔 형제자매가 정말로 너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체험해야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곳에 50 위안이 놓여 있었는데 네가 그곳을 지나간 뒤 돈이 사라지자 다들 네가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속으로 억울하고 속상해서 "제가 가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염치는 있다고요. 남의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저보다 결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들은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를

먼저 의심하는군요. 하나님께서도 저 대신 해명해 주지 않으시는 걸 보니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라며 억지를 쓴다. 이게 치욕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닥치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가져갔다면 인정한 다음 앞으로 다시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네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제가 안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가져간 사람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면 된다. "당신들은 저를 무시해요. 저를 괴롭히려고 한다고요."라는 말은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 많이 말하는 게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네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한다. 다른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면 많이 말할 필요 없다. 속상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별일이라도 되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당하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네가 억울하다고 해서 명확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에게 끊임없이 변명하다가 올바른 일을 그르친다면 의미 없지 않겠느냐? 그에게 이치를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진리 실행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는데 사람이 받는 고통이 굴욕이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패괴 성품을 가진 것이 한 가지 이유다. 그 밖에, 네가 어느 측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소극적인 성분이 있는지 꺼내어 교제해도 된다. 억누를 필요 없다.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깨달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너는 억누를 필요도, 굴욕당할 필요도, 참으면서 "저는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제게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순종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해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해하지 못하면 교제해도 된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고 잘못된 게 아니다. 어떤 일은 알아듣게 교제하고 명확히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다. 너는 진리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진리는 깨닫지 못한 채 순종하는 훈련만 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네게 순종하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원칙도 없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네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성이다. 이것에 이르고 나서 천천히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고 보호받아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사람을 폭로하거나 정죄하는, 나아가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인내로 이 모든 것을 견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사람은 엄청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만 사탄의 패괴 본성이 대체 무엇인지, 사람의 패괴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근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왜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는지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구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알아듣게 말씀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욕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폭로일 뿐이야. 우리를 위한 거야.'라고 인식하더라도 그저 도리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한 진실한 함의나 하나님이 이루려는 성과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교제하고 나니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교체됨을 받아들이는 것,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사와 안배, 주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최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모두 옳다고,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선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이 모든 행사에 대해 사람은 강인한 인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즉, 이 모든 것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느냐? 받아들이고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방인이 말하는 '수모를 참는다'는 말은 듣기에 사람을 모욕하는 것만 같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해 너는 수모를 참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인내와 사랑하는 마음, 겸손을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대하고 털어놓고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다. 그럼 이방인이 말하는 이 논리는 무엇이겠느냐? 사탄 철학이고 사탄의 거짓말이다. 아무튼 수모를 참는 행동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원칙도, 진리도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모를 참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수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사랑이고 구원이며 보살핌이고 보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은 모두 긍정적인 것이고 진리이며, 사탄과 같은 부분은 하나도 없고 사탄의 방식과 방법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사탄이 말하는 수모를 참는 것은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해치고 파괴하고 유린하고 짓밟는 것으로, 결국 그것은 네게 화를 끼친다. 고통을 겪었든, 아니면 굴욕을 당했든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얻게 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고통이다. 사탄이 사람에게서 저지르는 짓은 온갖 치욕과 풍자, 그리고 유린과 패괴다. 그럼 사람에게서 이루는 것이나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기 뜻을 굽히게 하고, 심지어 마음이 비뚤어지게 한다. 사람은 갖은 수단과 방식으로 이 모든 것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알랑거리고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표출하거나 드러낼 때 사람은 마음속으로 달갑고 행복하고 평안하겠느냐, 아니면 분노하고 고통스럽겠느냐? (분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모를 참을수록 사람 마음속의 분노는 더 커지겠느냐, 아니면 더 작아지겠느냐? (커집니다.) 그럼 사람은 이 인류를 점점 더 적대시하겠느냐, 아니면 점점 더 사랑하겠느냐? (적대시합니다.) 사람은 이 인류를 점점 더 적대시하고, 누구를 보든 미워하게 된다. 사람이 젊을 때는 이 사회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을 보든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남을 특히 쉽게 믿지만, 서른 살쯤 되면 남을 잘 믿지 않게 되고, 마흔 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을 다 믿지

않으며, 쉰 살쯤 되면 마음속이 증오로 가득 차서 남을 해치려고까지 한다. 증오로 가득 차기 전까지 사람이 견디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전부 굴욕과 고통이다. 네가 남만큼 능력이 뛰어나거나 세력이 크지 않을 때는 남이 뭐라고 하면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야 하고, 뭐라고 욕하면 어찌할 수 없이 다 듣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언젠가 내게 세력이 생기면 직접 네놈을 죽이고 네놈의 조상 삼대를 멸하겠어!' 마음속의 증오는 점점 커진다. 이게 바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이 패괴된 인류에게 가져오는 결과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떠받들고 제창하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며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이자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결국에는 오히려 사람에게 분노와 증오를 가져오겠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말을 맺는 것이다. 사회나 세간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원한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굴욕을 당한 뒤 사람 마음속의 증오가 점점 더 커져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그렇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서 대를 이어 서로 잔인하게 죽이다가 인류가 재난에 의해 멸해져야 끝난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이 인류는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사탄의 철학과 논리에 기대어 살아가며 점차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소원해지고 신뢰를 잃고 각박해져 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하다. 과거에는 이웃끼리 서로 오가며 자주 교류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이 죽은 지 대여섯 날이 되도록 이웃이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겠느냐? 서로 증오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너는 남이 너를 적대시하지 않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남을 적대시한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고, 사탄의 법칙이 인류에게 가져온 나쁜 결과이자 재난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남에 대한 견해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사람은 점점 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며,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는 갈수록 커져서 결국 "차라리 아무도 살지 말고 다 죽는 게 나아요!"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이 다 이런 증오로 가득 차지 않았느냐? 이 세상이 얼른 멸망하길 바라며 "사람은 다 나쁘기 그지없으니 멸해져야 해요!"라고 말한다. 너는 남들이 나쁘기 그지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 자신은 어떠냐? 너 자신은 과연 정말로 변화했느냐? 구원에 이르렀느냐? 나쁘기 그지없다고 남들을 증오한다면 너 자신은 남들보다 훌륭해야 한다. 만약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쁘다면 너는 비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사람은 인류가 나쁘기 그지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진리를 추구해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 내어 하나님을 흡족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악한 인류를 멸할 때 너는 살아남게 된다.

너희는 이 사악한 인류를 증오하지 않느냐?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 아직 인성의 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좀 선량하며, 광명을 동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 잡고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을 동경하고, 사악한 것들과 불공평한 것들은 싫어한다. 그러니 이 인류에 대해 희망과 사랑, 포용이 가득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 인류를 증오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 저를 괴롭히셔도 저는 끽소리도 내지 않고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제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그때는 제가 그들을 괴롭히겠다고 결심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직장인 시절을 돌이켜보면 회사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성과를 내서 그들의 머리끝까지 기어올라 그들을 죽도록 괴롭히겠다고 생각했죠!" "장사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공급업체 사장님이 늘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힘겹게 살아간다. 다들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고, 마음속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며, 원수를 갚아 원한을 풀려고 한다.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됐다.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극도로 적대시하고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게 됐으며 화목함은 사라졌다. 이 세상은 곧 끝장날 것이다. 끝에 다다랐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피눈물 맺힌 과거가 있다. 예전에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어느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속고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이 인류 가운데는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사악함이 가득하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 정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여 사람은 이미 구제 불능이 됐다. 어느 누구도, 어떤 학설도, 어떤 이론도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언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끝나면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죠."라며 기대하기도 한다.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종교에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지금 각종 종교도 몰락해 가고 있고 곧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종교든 부패가 극에 달했고 평판이 몹시 나쁘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 인류의 마음속 증오와 흉악한 성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창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류는 서로 학살하다가 자멸하는 말로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사악한 인류를 피해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이나 인가가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려고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인류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아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 이번 세대를 마지막으로 멸종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 이 인류는 하나님을 몹시 심하게 대적하여 일찍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끝장날 것이다. 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겠느냐? 속을까 봐 두려워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고 혼인에 대해 적개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두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인류가 너무도 깊이 패괴된 것을 탓해야 하고 사탄 마귀를 탓해야 하며 사람이 스스로 기꺼이 패괴를 받아들이는 것을 탓해야 한다. 남을 증오하는 너는 남보다 잘났냐? 너는 진리를 갖추지 않았으니 남을 증오해도 소용없다. 사람이 진리를 갖추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막다른 길에 오르게 되고, 재난에 떨어져 멸해진다. 바로 이런 말로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패괴된 인류 중 아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수모'란 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모를 참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수모'가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겠느냐? 그럼 앞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가장 먼저 인내를 배워야 해요. 무슨 일이 있든 참아야 하고

마음속에서 억눌러야 해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그에게 얘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겠느냐? 이렇게 말하여라. "뭘 인내한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굴욕을 견딘다면 당신은 참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당신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런 굴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배치하신 모든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거예요. 이런 고통은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굴욕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라고요. 우리가 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 주셨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고통을 겪을 기회나 자격조차 없다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굴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굴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패괴된 사람이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해요. 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서 고통을 좀 겪어야 하잖아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겪는 고통을 굴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굴욕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심판과 형벌을 겪는 것은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 내며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제대로, 더 존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고, 진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요. 그걸 굴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 걸어야 하는 길로 여겨 받아들여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죠. 우리는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해요. 우리의 행동거지로 보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해져야 한다고요. 만약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굴욕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도 양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도리는 아주 얕으니 말하지 않아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깨우면 사람은 이런 일을 깨달아 마음이 좀 넓어지고, 일이 닥쳐도 억지를 쓰지는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진리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입으로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도 내뱉는다. 너희는 절대 이런 짓은 저지르지 마라. 무슨 일이 닥치든 진리를 향해 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리, 길, 생명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배치한 그 어떤 환경도 인위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배치한 모든 환경을 네 성품 변화의 기회이자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수모'의 뜻에 대해서는 교제를 마쳤으니 이어서 다음 부분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란 무슨 뜻인지 교제하겠다. 방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속의 욕망과 야심,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려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방금 말했듯이 '수모를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 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너는 수모를 참을 필요도, 자신이 몹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속으로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굴욕을 견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마치 네가 몹시 고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사람이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짊어져서 더 큰 축복과 더 좋은 종착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겠느냐?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규정해야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더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사람을 위해서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이겠느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이다. 최대 수혜자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와는 관련이 없고,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와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 너는 참을 필요도, 그런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질 필요도, 그렇게 버릴 필요도 없다. 사실 너는 무엇을 버리지도, 잃지도 않았다. 결국에는 오히려 사람이 얻는 게 가장 많다. 사람은 처신하는 여러 측면의 준칙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이 모든 규칙과 법칙에 순응하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비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보다 좋다. 그럼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욱 행복하고 진정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더욱 인류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겠느냐? (전자입니다.) 당연히 전자이다. 너는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동시에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을 토대로 어떻게 처신하는지 배웠으며, 네 인성 안에서 진리가 생명이 되었으니, 네게 값어치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원래 사람은 진리를 전혀 갖추지 않은 값어치 없는 싸구려이고, 개미만도 못하며 살아갈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 너는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시키든 다 따르고 그대로 이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안배하든 다 순종한다. 그런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누가 네게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지시한다면 네가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너를 미혹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산다. 그럼 이런 인류도 오늘날 사람이 겪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음속에 증오나 고통이 있겠느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지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탄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는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인류마저 멸하겠느냐? 이런 인류가 스스로 자신을 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건 오늘날의 이 패괴된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오늘날의 사람은 마음속에 증오와 고통이 가득해 언제 어디서든 자살하거나 싸우고 살인할 수도, 나쁜 일을 저질러 세상에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삼은 이 인류는 함께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고 싸우거나 증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한 방향을 향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너도 진리를 깨닫고 그도 진리를 깨달으며,

너희와 그들 모두 진리를 깨닫는다면 모두가 같이 있을 때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합하게 된다. 이런데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이 고통을 견딜 필요가 있겠느냐?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인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투거나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맡긴 만물을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화목하게 어울려 지냅니다.) 화목하게 어울려 지내는 한편, 하나님이 제정한 규칙과 법칙대로 관리한다. 이 모든 규칙과 법칙, 그리고 생물이 모두 인류에게 속하고 쓰이며 인류를 위해 복을 창조한다. 이런 인류는 얼마나 좋으냐! 그때가 되면 인류의 생존 환경을 모두 사람이 맡아 관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규칙과 법칙을 모두 사람에게 정해 주고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토끼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먹도록 허락해야 한다. 늑대에게 토끼를 먹지 않고 풀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겠느냐?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토끼는 풀을 먹고 늑대는 고기를 먹는다. 너는 그들의 천성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야 하지 인위적으로, 별도로 그들의 활동이나 생활에 참견할 필요가 없다.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았다. 어떤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기후가 적절하지 않으면 동물들은 이주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어째서 늘 비가 그렇게 많이 올까요? 동물들이 늘 이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우매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매하겠느냐? 그 기후는 하나님이 정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후를 정하여 그 동물들을 그 지대에 살게 했으니, 동물들이 이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정해 놓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막으려고 하느냐? 네가 괜히 웬 호의를 베푸느냐? 동물들이 이주하면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많은 동물이 한 곳에서 반년 동안 머물면서 풀을 다 먹어 치웠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동물들이 이주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비가 내리면 땅이 젖어 머물 수 없게 되고 풀도 빗물에 잠겨서 동물들은 떠나야 한다. 한 번 이주하면 동물들이 몸을 단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풀에게도 자랄 틈을 준다. 동물들이 다른 곳에서 풀을 거의 다 먹으면 그 지역에 또 눈이 내려 동물들을 '몰아내야' 하고 동물들은 서둘러 이주해야 한다. 떠나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풀도 자라서 또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계속 균형을 유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뿔말은 늘 사자에게 잡아먹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뿔말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괜히 웬 호의를 베푸느냐? 네가 착하다는 걸 보여 주려는 것이냐? 그건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이다. 뿔말이 교활해지면 사자는 굶주리게 된다. 사자가 굶주리는 것은 안쓰럽지 않으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자는 나빠요. 사슴과 얼룩말을 물잖아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잔인해요!" 네가 사자를 없애 버리면 얼룩말이나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풀을 다 먹어 버려서 초원은 사막이 된다.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데도 그 호의를 베풀겠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야 한다. 동물들 간의 관계는 그렇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법칙을 정해 놓았으니 너는 원하든 않든 받아들여야

하고, 법칙대로 해야 한다. 법칙을 위반하면 너는 생존할 수 없다. 이 모든 법칙을 이해하면 너는 이 모든 법칙을 존중할 것이고, 이 모든 법칙대로 이 사물들을 바라볼 것이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이 모든 법칙은 타고나는 것인데, 이 타고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해 놓았다. 인류는 과학과 생물, 다양한 학과를 연구했다. 이토록 오랜 세월 연구했지만 간단한 도리나 규칙만을 깨달았을 뿐, 누구도 그 도리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재와 지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왜 이 모든 생태와 먹이사슬이 그토록 정밀하고 기묘하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인류는 단지 어떤 현상을 규명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공표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정리해 내거나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연적으로 형성됐다는 말대로라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어째서 사람으로 변하는 원숭이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겠느냐? 이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느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법칙과 규칙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이 만약 운 좋게 살아남는다면 그때 사람은 이 모든 규칙과 법칙을 존중하고 지키고 관리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이 모든 규칙과 법칙 속에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하고 정해 놓은 것이고, 사람은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릴 뿐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라는 피조물만이 가장 복 있다. 사람은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큰 밑천을 주어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한 이 모든 규칙과 법칙은 사람이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규칙과 법칙을 연구하고 파괴하고 짓밟고 왜곡하기만 하는 인류는 멸절될 것이다. 사람은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아름다운 종착지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사람의 욕망과 야심일 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는 것과는 다르고,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다. 따라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의 뜻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종착지나 마음속의 야심과 욕망이 이루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큰 굴욕을 견뎠든, 결국 네가 갈망하는 종착지와 네가 욕망 속에서 이루려는 것,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려는지 등 그런 것은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네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사람이 굴욕을 견디며 실력을 보존한 다음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무엇이겠느냐? 사람 자신의 마음속 이상, 나아가 욕망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추구하고 이루려는 목표는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겠느냐? (긍정적인 것입니다.) 욕망과 관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 긍정적인 목표는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 더 잘 살아가는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욥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냐?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이 목표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욕망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목표는 정당한 추구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목표이자 길이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당한 추구 목표를 위해 겪는 고통은 수모를 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굴욕을 견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길에 오를 수 있겠느냐? 오를 수도 없고 이 목표를 이룰 수도 없다.

이제 와서 보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도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으려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옳지 않으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어떤 사람이 살인과 방화 등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 드디어 '국민이 추대하는 지도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다. 분명 사악한 길을 걸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인물이 되었으니 이는 모순적이다. 어떤 사람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 드디어 하나님과 합했다고, 드디어 시련 속에서 굳게 섰다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했다고 말한다면 이 중에서 어느 말이 옳겠느냐? (모두 옳지 않습니다.) 모두 옳지 않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의혹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옳을까? 이 말은 옳지 않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 말을 여기에 쓰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어째서 옳지 않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 이루는 성과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옳겠느냐? 이 말이 어째서 옳지 않은지 한번 분석해 보자.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얻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라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느냐? 우리가 오늘 교제한 모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말을 여기에 쓰는 건 옳지 않지만, 만약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도 대상에게 맞거나 욕을 먹고 집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연상한다면 그건 수모를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겠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렇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견뎌야 하는 고통이자 사람의 책임과 의무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부탁이다. 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몹시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건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엄마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너를

낳았단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그녀도 고통을 겪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건 그녀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다. 예를 들어, 늑대가 몇 시간을 쫓은 끝에 겨우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늑대가 "나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토끼를 먹기 위해서 늑대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토끼가 도망가지 않고 늑대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다릴 리 없다. 그렇게 쉬운 일이 있겠느냐? 무슨 일을 하든 다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을 철저히 무엇으로 구분했느냐?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탄의 논리나 사탄의 처세 철학으로 구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긍정적인 사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 누가 "저는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됐어요. 그야말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죠!"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건 네 책임이고, 네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지 않느냐? 그건 바로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고 정당한 것이다.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말은 하나님 집에서는 거의 근절되었다. 만약 누가 또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만약 누가 "저는 감옥에서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건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죠!"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겠느냐?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 얼마나 정의로운 말이고 정의로운 목표냐? 근데 어째서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다가 되는 게 정당한 것이냐? 유다가 되지 않은 것을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허튼소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고 피조물이 굳게 서야 하는 간증이자 입장이다. 사탄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람이 경배해야 하는 이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탄이 너를 굴복하도록 한다면 너는 응당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목숨을 내놓아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명확히 했으니 만약 또 누가 자신이 어떻게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지를 말한다면 너희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그에게 오늘 설교한 내용을 들려주면 깨달을 것이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3)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

와신상담의 세 번째 모습은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이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한 성품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실수하지도, 틀린 말을 하지도,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신에게 결함과 흠이 있다는 것, 자신도 실수하거나 틀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그릇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거나 그릇된 길을 걷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계속해 나가는 것,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정죄해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분투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면서 어떤 대가도 따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신이다. 이런 정신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으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보통 어떤 상황에 쓰이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이는데, 패괴된 인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말과 이런 정신이 존재한다. 그럼 사탄에 속하는 인류가 이런 말을 만들어 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영원히 자신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자신의 취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있고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면을 보게 하려는 것이며, 자신을 깔보지 않고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네가 그런 결심과 의지, 야심과 욕망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사람은 보잘것없지 않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네 마음의 크기가 네 무대의 크기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좋아한다. "어머, 그럼 제가 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벤츠 한 대를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크면 물건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황당한 이론이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지극히 오만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정반대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처신하라고 한다. 사람은 패괴 성품과 결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훈계하느냐? (착실하게 처신하라고 하십니다.) 착실하게 처신하고 성실하게 피조물의 본위를 지키라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패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그릇된 길을 걷거나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 인식하고 돌아서서 진리를 실행하라고 한다. 그런데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죽어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운명이란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고 안배하는지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고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려 한다. 그 밖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가늠하고 평가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착실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잘해 내라고 하지만, 사탄은 사람에게 교만한 성품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산하며 초인이나 위인, 심지어 초능력을 가진 사람,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철학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틀려도 틀린 게 아니고, 불복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염원과 목표도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 않겠느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그릇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외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식과 음모로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실현시킨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에 운명을 기다리고 운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운명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려 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느 길로 갈지, 복을 누릴지 아니면 어떻게 생활할지를 모두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심지어 평생을 준비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 기회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예비하지 않았다면 네가 아무리 준비한들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네게 줄 생각이 없고 네 운명에 없다면 네가 몇 년을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토록 오랜 세월 준비한 것을 봐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게 기회를 좀 내려 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네게 예비해 놓으면 네게 기회가 있고, 네게 예비하지 않으면 네게는 기회가 없는데, 네가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운명은 제 손에 달려 있다고요!" 독한 말을 내뱉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연달아 딸을 낳았고, 남들이 그녀의 운명에는 아들이 없다며 그만 낳으라고 말려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 열 번째에도 딸을 낳자 결국 그녀는 받아들이며 말했다. "보아하니, 저는 이번 생에 정말로 아들이 없는 운명인가 봐요." 이런데도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겠느냐? 여전히 자신이 있겠느냐? 이 여자가 감히 자식을 더 낳을 수 있겠느냐? 감히 그러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2 년 안에 50 만 위안을 벌려고 계획하고는 첫해의 상반기에 돈을 벌지 못하자 "괜찮아요. 상반기에 돈을 못 번 게 뭐 대수인가요. 하반기에는 분명 벌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1 년이 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벌었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어요. 기회는 널렸다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2 년이 되었을 때도 50 만 위안은커녕 5 만 위안도 벌지 못했다. 그는 기간이 너무 짧고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 년간 또 공부하러 갔다. 4 년이 지났지만 50 만 위안을 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본금조차 거의 다 잃었다. 그런데도 그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으며 "저는 재산이 많은 운명인데 어떻게 50 만 위안을 못 벌겠어요?"라고 말했다. 8~10 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50 만 위안을 벌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겠느냐? 그에게 올해 얼마를 벌 계획이냐고 물으면 그는 말한다. "아이고, 먹고살 수만 있으면 되죠." 이래도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겠느냐? 실패한 것이다. 왜 실패했겠느냐? 정한 액수가 너무 높아서 실패했겠느냐? 그런 것이겠느냐? 아니다. 사람의 재산과 자녀, 일생 동안 어떤 고통을 겪고 언제 어디에 갈지는 모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벼슬길에 오르고자 하지만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그의 몫은 없다. 그가 능력이 없는 탓이겠느냐? 그는 능력도 있고 계산도 밝으며 아첨도 잘하는데 관직에

오르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그가 얕보는 사람 중에서도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말솜씨도 좋고 재능과 학식도 갖춘 그는 벼슬길에 오르고 싶은데 왜 그토록 어렵겠느냐? 젊었을 때 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평사원으로 남은 그는 결국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요. 운명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고, 없는 건 애써도 얻을 수 없어요." 고분고분해지지 않았느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 사람은 사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욕망과 야심을 조장한다.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나 지도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영향이다. 사람은 원래 하늘 높고 땅 두꺼운 줄 모르고, 하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정신적 버팀목까지 얻게 되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최종적인 말로는 무엇이겠느냐? 한바탕 헛수고를 하고, 불필요한 일을 수없이 많이 한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체와 마음에 많은 손실과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명 많은 악을 행했을 것이다. 이 악이 사람의 내세에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징벌뿐이다. 패괴 성품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은 사람에게 야심과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심과 욕망이 사람을 지배해 하도록 하는 것 중에 정당한 게 있겠느냐? 진리에 부합하는 게 있겠느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겠느냐?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 악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남을 음해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해치고 속이는 것이다. 결국, 남에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다음 생에 환생하면 짐승이 될지도 모른다. 빚을 많이 지고 많이 속이고 곤경에 많이 빠뜨린 사람의 집에서 짐승이 되어 말도 못 하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설사 환생해서 사람이 되어도 평생 동안 끝없이 고통받으며 빚을 갚아야 한다. 바로 이런 나쁜 결말을 맺는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에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야심과 욕망은 조장되지 않았을 것이고, 2~3 년 안에 실현되지 못했다면 그는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자 그의 욕망은 갈수록 커졌고, 커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를 지배하여 사악한 길에 오르게 했다. 사악한 길에 오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며 어떤 나쁜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 보아라, 자식이 재산을 얻기 위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자기 손으로 가족과 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이익을 가지고 싸워야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신념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것이다.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해선 안 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번 생에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해요.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요. 누구든지 제 길을 가로막는다면 가차 없이 죽여 버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목표와 욕망은 실현하고 충족했을지 모르지만 악을 행하여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는 이번 생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참소를 당할 수도 있고, 아무런 지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런 지각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처리 방법이 있다. 그는

이번 생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뜻을 이뤘을 수도 있지만 다음 생에서는 이번 생에 했던 일 때문에, 어쩌면 한 가지 악행 때문에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한 번의 생에서, 두 번이나 세 번의 생에서, 아니면 영원히 그래야 할 수도 있으니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다!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신념이 그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를 얻으려 했고 불복할 수도, 포기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었다. 그가 이번 기회를 꽉 잡으려고 한 결과, 큰 화를 불러왔다. 큰 화를 불러온 뒤에 견뎌야 할 결과는 1~2 년 안에 갚거나 다 메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크지 않으냐? 사람은 한 생에 겨우 80~90 년을 살고, 적으면 50~60 년을 산다. 네가 얻은 이익이든, 지위든, 돈이든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도 기껏해야 20~30 년이다. 그러나 그 20~30 년 동안 누리기 위해 너는 영원히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 대가는 너무 크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개인적인 욕망과 일시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종의 관념이나 사탄의 논리에 지배당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고 영원히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은 이번 생의 20~30 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생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겉으로 봐도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도, 공개적으로 남을 모함하지도 않았을 수 있지만 남몰래 많은 수작을 부렸다. 이런 악이나 눈에 띄는 그런 악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성질이 같다. 성질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정죄하는 원칙은 같고, 같은 방식과 같은 진리로 정죄한다는 뜻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든, 하나님 집에서 했든 아니면 세상에서 했든 하나님에 의해 모조리 정죄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네게 주는 결말이 이방인과 다르겠느냐? 말해 보아라, 네가 예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위해 몇 년간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정을 봐주고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바꾸겠느냐? 너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행한 악도 악이고, 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행한 악도 악이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두 악이고, 악은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두 악이고, 하나님에게는 성질 면에서 차이가 없다. 똑같이 악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 똑같이 책임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네가 의심하든, 믿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의한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대상이야. 나는 많은 진리를 깨달았으니 악을 좀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고통받는다는 명분으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틀렸다. 하나님이 악을 정죄하는 원칙은 똑같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무리에서든 하나님은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한결같이 대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탄 성품의 지시를 받아 하는 말이고, 사탄 세상에서 창도하는 정신이다. 이런 정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자가 창도하는 일종의 생각이자 사람이 생활하고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원칙이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전혀 기죽지 않고 '청산에 단단히 자리 잡은 대나무'와 같은 원칙으로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야심이 정당한지 여부는 분석할 필요 없이 그런 정신만 있으면 제창할 만한 일이라고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한다. 만약 누군가 인류에게 이로운 것을 연구하면서 자신은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그 목적은 앞으로 인류가 더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는 그래도 취할 만한 점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것이겠느냐? 누가 그렇게 사심 없이 인류를 위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설사 누군가 겉으로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그 이면의 목적은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자신의 사업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 외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은 사람에게 또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겠느냐? 우선,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은 사람의 한계와 본능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체육 경기장에서 사람이 공중회전을 연달아 세 번 하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저는 한계에 도전할 거예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할 거라고요. 저는 공중회전을 연달아 열 번 할 거예요!" 결국 여덟 번째 공중회전을 할 때 숨이 끊어진다. 만약 이런 정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를 선동하지 않았다면 어땠겠느냐? (그는 능력껏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상 인성 안에 살도록 하고,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용납한다. 사람 육체의 본능과 오장육부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사람이 스스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공중회전을 연달아 열 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행동하고 한계에 도전한 결과 목숨을 잃었으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자기를 탓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실패를 입에 올리면 안 돼. 다섯 번 회전하고 나서 포기하는 건 너무 나약하잖아. 여덟 번은 해야지!"라고 사탄이 늘 그를 선동한 것이고, 그가 고민하다가 '여덟 번도 너무 적어. 열 번은 해야지!'라고 생각해 결국 여덟 번째 회전할 때 심장이 멈춰 숨이 끊어진 것이다. 이는 사탄에게 조롱당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는 예를 든 것뿐이다. 공중회전을 연달아 스무 번 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싸우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잃은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목숨만 잃었을 뿐 악은 행하지 않아서 내세에 사람으로 환생하여 다시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낄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큰 악을 행하고 큰 화를 초래하여 몇 번의 생애 동안 그 일 때문에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계속 빚을 갚으며 모든 생에서 다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번 생에 다 갚지 못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며, 몇 평생을 살아야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실패하면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람을 얻지 못해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실패해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거예요. 이기는 사내아이가 될 거라고요!" 사람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냐?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천사장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그렇게 증거하라고 했느냐? 네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얼간이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얼간이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다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원히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실패했지만,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신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방인은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싸우고 좌절할수록 용감해지는 이런 정신에 탄복한다. 만약 네가 예전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정신에 기대 분투하여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치욕이 아니겠느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주로 사람의 어느 측면의 패괴 성품을 표출하겠느냐? 사람의 어느 측면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고 죽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비이성적인 자 아니겠느냐? 사람이 이렇게나 교만한 데다가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치 목숨을 내던진 사람처럼 좀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젊고 혈기왕성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에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게 바로 젊은이를 대표하는 필사의 정신이다. 마치 "이 한 몸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황제를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성난 젊은이들처럼 말이다. 이게 바로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신이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런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가지고 있다. 관료 사회를 보면 대체로 다 어른이나 노인인데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 사람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패괴 성품에 기대 살아가며 다들 어느 정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는 별로 큰 관련이 없지만 성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런 정신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패괴 성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투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정당한 거야. 사람이 살면서 약간의 투지조차 없으면 되겠어? 투지가 없으면 삶에 활력이 없어지지. 그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일이든 꾹꾹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얼마나 유약하고 무능하겠냐고!' 사람은 모두 살아가면서 승부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욕구'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싸우다'라는 글자가 두드러진다. 어떤 일이 닥치든 싸워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싸우다'에 기원을 둔다. 무신론자가 가장 숭배하는 것이 바로 싸움 정신이다. 그들은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데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잘 싸우는 사람일수록 영웅이고 영웅은 투지가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이게 바로 싸움의 핵심이다. 사탄에 속하는 온갖 마귀는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은 무엇에 기대 살아가겠느냐? 사탄의 싸움 철학에 기대 살아간다. 그들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싸운다. 어떤 일을 하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승리를 통해 자신을 뽐내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승부욕을 드러내는데, 그런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대체 무엇을 두고 다투며 싸우겠느냐? 명리와 지위를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영웅 행세를 하고 호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죽어야 하고,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으며,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러야 싸움도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결말이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와 같은 정신을 더욱더 고양해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내쳐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정죄하고 내쳐야 한다. 이 말은 진리도 아니고 사람이 준수해야 할 준칙도 아니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게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를 가지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패괴 본질을 인식하라고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의 자질이 높은지 낮은지, 이해 능력이 어떤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라고 한다. 하나님은 네게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 자신의 분량과 자신이 갖춘 자질에 근거해 능력껏 행동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여기에 싸우라는 뜻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네가 싸울 필요 없다. 누군가 말한다. "자신의 패괴 성품과 싸우면 안 되나요?" 패괴 성품이 싸워서 없앨 수 있는 것이냐? 싸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탄의 사악한 세력과 싸우면 안 되나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면 안 되나요? 악인이나 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나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겠느냐? 싸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적그리스도와 싸워라.", "바리새인과 싸워라.", "외식하는 사람과 싸워라.", "너의 패괴 성품과 싸워라."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반면 사회의 사탄에 속하는 세상에서는 지주나 집권파, 혹은 지식인과 싸우고, 군중끼리도 싸우며, 닭과 개, 소 등과도 싸우는데, 어쨌든 다 좋은 일은 아니다. 싸움은 사탄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생물에게 화를 입히는 수단이다. 그것은 인류가 화목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 간에 갈등과 증오를 일으켜 서로 다투고 죽이게 하고는 옆에서 비웃으며 구경한다. 이런 행위는 사탄에 속하는 행위인데, 교회나 하나님 집에서 싸움과 관련된 행위나 현상, 일이 발생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지지하고 찬성하겠느냐, 아니면 제지하겠느냐? (제지할 것입니다.) 제지하고 그가 깨닫도록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 일을 처리할 때는 진리에 기대고 원칙에 따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그에게 알려 줘야 한다. 또한,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도 된다. 하지만 책망과 훈계, 지적, 나아가 징계는 모두 싸움이 아니다. 싸움이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싸움은 혈기에 기대 다른 사람과 시비를 다투고, 이치를 따지며 억지를 쓰고, 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는 것, 심지어

음모와 계략을 쓰거나 인간의 여러 수단과 방식, 방법을 동원하여 한 사람을 굴복시키고 쓰러뜨리고 괴롭혀서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게 싸움이다. 싸움은 순전히 혈기에 속하는 행위나 동작이고, 완전히 사탄에 속하는 행위이자 일 처리 방식과 방법으로, 진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선민이 떨치고 일어나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 바리새인, 그리고 악인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어째서 옳지 않죠? 싸워서 그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거나 쫓아내면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 집이 평온해지지 않나요? 형제자매가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옳겠느냐? 우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싸움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왜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고 정죄하는데, 사람이 그들과 싸우는 건 왜 문제가 되겠느냐? 그를 부끄럽게 하고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고 호되게 꾸짖는 것, 나아가 그를 바닥에 눌러 놓고 비난하고 그와 싸우는 건 어째서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행정 법령을 제정했는데, 행정 법령에는 싸움이라는 조항이 없다. 하나님은 행정 법령을 규정했을 뿐이다. 행정 법령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에 대한 처리 방식과 원칙이 있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출교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제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을 교체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양성해야 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쓰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지 알려 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칙을 알려 줄 뿐이다. 그럼 사람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전부 다 진리다. 무엇이 진리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을 대할 때, 설사 그가 악인이고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처리하지 절대 사탄이나 혈기에 속하는 방식으로 그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공평 안에 싸움이 있겠느냐? 없다. 이게 진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혈기나 사탄에 속하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시이자 정확한 원칙으로 삼아 그를 처리하지, 혈기에 기대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둘러싸고 공격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원칙이다.

동양에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라는 확실한 말이 있으면 서양에도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을 수 있다. 사탄의 패괴를 겪고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사탄 성품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성품이 부추기면 사람에게는 분명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이런 정신과 사상이 생겨난다. 인류가 퍼뜨리는 이런 사상과 정신을 사람들은 모두 정당하고 긍정적인 것, 인류가 계속 나아가고 살아가도록 지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이런 소위 정신과 사상을 얼마나 정당하게 바라보고 얼마나 정당하게 말하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인류 전체에서 어떤 인종에서든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지 않다. 그 인종에서 생겨난 사상과 전통문화, 그들이 받아들이는 교육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오래되고 신비롭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런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전통문화 속의 도덕관이나 시비, 잘잘못, 선악을 판단하는 관념은 진리와 비교적 비슷한 것 같아요." 견해가 비슷하다고 해서 뜻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패괴된 인류의 견해는 사탄에게서 비롯됐기에 영원히 진리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따라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리 비슷해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될 수도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비슷하다고 해도 그저 견해와 언어의 표현 방식이 비슷한 것이지, 사실상 그런 전통 관념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비록 일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근원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에게서 비롯됐고 전통문화의 그런 말이나 사상 관점은 사탄 마귀에게서 비롯됐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전통문화의 그런 사상 관점이나 명언은 인류가 공인하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설사 거짓말이나 허튼소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몇 백 년, 몇 천 년을 굳게 지킨다면 진리가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런 관점은 마치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처럼 황당하다. 전통문화는 영원히 진리가 될 수 없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고,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저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 생겨난 일종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진리나 준칙인 것은 아니고, 그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긍정적인 것의 이면에서 전통문화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겠느냐?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오는 영향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오늘은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속담을 분석했다. 이는 일종의 처세 철학이다. 전고가 있는 '와신상담'이라는 유명한 성어도 분석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너희가 인류의 전통문화와 처세 철학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통문화와 처세 철학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냐? 우선, 이런 것들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생겨났고 사탄에게서 비롯됐다.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냐? 미혹과 패괴, 결박과 속박을 가져다준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작용이다. 그럼 그것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닌데 인류는 그것을 진리로 받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겠느냐? 미혹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치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이런 말이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결국 관념 속에서 상대적으로 올바르고 훌륭하며 자기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상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선입견이 되었고,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몇 백 년, 몇 천 년 동안 계속 굳게 지켜 온 것이다. 이런 전통문화와 사탄 철학에 속하는 것들이 일찍이 사람 마음속에 뿌리내려 대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향을 끼쳤다.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그것에 미혹되고 영향받을 것이다. 오늘 교제하고 분석한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와 '와신상담'은 하나는 속담이고 하나는 성어인데, 이 두 가지 말을 통해 세상 전체에서 사탄에게 속하는 문화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을 미혹하고 패괴시키고 짓밟고 해치는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다. 인류가 사탄의 이런 철학을 받든다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패괴되고 사악해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끝없이 싸울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나쁜 결말로, 인류가 이런 사상이나 정신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도덕적 최저선에 도전하게 할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 징벌받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류 문화의 본질이다. 너희는 속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인류가 창도하는 진정한 사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상류층 사회의 비교적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걸 받들지 않아요." 그럼 방금 분석한 상류층 인사가 인정하는 '와신상담'이라는 성어는 고급스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 성어나 그런 사상과 정신은 확실히 여러 대학이나 인류 사회의 다양한 고위급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떠받들어지고 창도된다. 이게 바로 인류의 문화다. 인류는 이런 전통문화에 의해 영향받고 마비되고 패괴되고 있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인류가 전통문화에 의해 미혹되고 속박되고 얽매여 자연스레 학설이나 정신이 만들어지고, 인류는 그것을 창도하고 퍼뜨리고 널리 전파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한다.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두가 이런 사상과 정신을 인정하고 이런 사상에 의해 패괴되도록 한다. 일정한 수준까지 패괴되면 사람은 더 이상 시비를 구별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되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악함인지 분별하려 하지 않게 되며,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사물인지도 분별하려 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과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변태적인 사람도 많아진다. 이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인류는 노아 시대의 사람에 비해 어떻겠느냐? 더 사악하지 않겠느냐? 이미 사악하기 그지없다. 사악해서 어떤 일은 듣고 나면 역겨워서 도저히 들어 줄 수 없을 정도다. 사람들이 모두 일정 수준까지 변태스러워져서, 겉으로 보기에 육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변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100~200 년 전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 공평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동경하기도 하며 나아가 언젠가는 구세주가 강림하여 이 어둡고 사악한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인류를 구원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100~200 년이 지난 지금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설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격려를 받아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게 되고 광명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강림을 동경하게 되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사탄의 철학 법칙, 사탄의 사상과 소위 정신이 인류 전체를 다 미혹시키고 패괴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혹과 패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사람들이 모두 사탄의 황당한 이론과 헛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탄을 받들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창조주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다. 창조주가 어떤 말씀을 하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든, 얼마나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말씀하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해졌고 생각과 정신이

다 혼란스러워졌다. 왜 혼란스러워졌겠느냐? 사탄이 교란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철저히 패괴시킨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는 다양한 사상과 주의, 주장이 존재하는데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을 따른다. 아무도 참견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복 있는 일이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양심의 지각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강림을 갈망한다. 또한, 광명과 정의, 공평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나라에서 생활하길 간절히 바란다. 너희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얻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얻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고 성령이 네게 역사하여 너를 깨우쳤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 보아라, 오늘날 저 이방인들에게 사람다운 모습이 있느냐? 너도 지금은 깨달은 진리가 많지 않고, 많은 일에서 이방인과 관점이 완전히 같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비록 그들의 일부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너는 분별력이 없고 걸을 수 있는 다른 길도 없다. 언젠가 네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들의 관점이 잘못됐고 사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그들의 마귀 몰골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이 사람이 아닌 살아 있는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두겁을 쓰고 있지만 인간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디에서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외적으로 퍼뜨리는 말은 모두 특히나 듣기 좋고 사람을 잘 미혹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극도로 사악하고 추하며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굳건히 지키는 소위 사상이나 정신은 어찌나 사악하고 반동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와 배치되거나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들은 이런 억지 논리와 그릇된 주장을 진리로 여겨 멋대로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인류를 미혹하고 패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온갖 비열하고 파렴치한 죄행과 추악한 몰골을 가린다. 이를 통해 너는 그들이 모두 마귀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이자 더러운 귀신이므로 그들과 시비를 논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좋은 말이나 진실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언젠가 이 정도까지 꿰뚫어 본다면 너는 인류가 너무 깊이 패괴되었고, 자신도 남들과 똑같이 패괴됐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좀 깨달아 비로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것,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분별하고 증오하고 내칠 수 있게 됐다는 것,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고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어떤 악행이나 사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해 힘쓰고 공들이며 실행을 중시하고 진리를 자신의 실제로 만들고 있다.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살아 내어 진실한 체험 간증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생길 것이고, 마음가짐과 내적 상태는 점점 더 정상화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상화될 것이고, 생활도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늘 사탄 철학에 기대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한다면 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설사 네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수많은 글귀와 도리를 이해하고 이방인의

온갖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소용없다. 너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글귀와 도리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진리를 실행해 낼 수 없다. 네 마음속에는 선입견이 된 것들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어서 너는 그런 것들에 기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너는 저도 모르게 사탄 철학에 속하는 것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에서 사탄 철학과 같은 것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면 진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사탄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중간 길은 없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다음 선입견이 된 사탄에 속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진리에 기대 행동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진리가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잡으면 네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자연스레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사탄의 이러한 논리와 사상, 그리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이 정신적 지주들을 인류는 무엇이라 여기느냐? 마음의 양식? 영혼의 닭고기 수프? 사실 이것은 사람을 패괴시키는 것으로, 이를 '먹으면' 사람은 끝나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것들을 내면에 쌓아 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의 패괴 성품을 아직 벗어 버리지 못한 데다 또 사탄의 새로운 패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러면 끝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다. 너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그것에 기대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제 내면에 들어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런 억지 논리와 그릇된 주장에 대해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점차 이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네가 일하는 원칙이 되고, 네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지 알게 돼 자연스럽게 진리를 실천하게 되고, 이 방면의 패괴 성품에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게 어렵겠느냐? 이는 사실 어렵지 않다. 어려운 점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어려워.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날 난처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해야 하고, 이런 일을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오늘 사탄의 황당한 이론 몇 가지를 교제하고 분석하는 데만 해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사람 안에 고작 그 몇 가지만 존재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다! 앞으로 이 측면의 주제를 계속 이어서 교제하겠다. 예전에는 이런 측면을 교제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이런 측면의 주제에 대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너희가 진리에 공을 좀 들일 수 있다면 사탄의 이런 황당한 이론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런 주제를 교제하는 것이 갑작스러우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교제하는 것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교제하시는 거죠?"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은 모두 사탄의 패괴 성품과 관련이 있다. 그 밖에, 이런 일들은 사람이 사탄의 패괴 성품을 분별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고 더욱이 사람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데도 이롭다. 교제하고 나면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좋은 말이 알고 보니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와신상담'과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마라."라는 황당한 이론은 너의 마음속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곧장 제거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네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 옳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셨어. 난 이 말대로 행동해선 안 돼.'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이는 네게 이롭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분석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종일 "진리를 실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긍정적인 사물이에요. 모두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거라고요."라고 말한다. 어느 날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와신상담',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같은 말이 네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게 진리겠느냐? 그건 웃음거리가 된 것 아니겠느냐? 만약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모를 참아 가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신상담해야 해요.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투지와 정신도 있어야 하죠."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여겨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너를 정죄한다면 너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제게 교제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 성질은 꽤나 심각한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딱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최대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이해 정도와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에 근거해 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너희가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진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최대한 너희에게 알려 주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 줘야 한다. 네가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죄돼야 한다. 하나님이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고 너를 대하겠지만 네가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하나님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2019 년 12 월 19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1)

참고　무엇이 진리인가

오늘은 지난번 내용을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 교제했느냐? (와신상담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느냐? 여태까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진리라고, 적어도 그럭저럭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 사람들의 열정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사람은 그것을 그래도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에 가까운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와신상담'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축에 속하는 말이라고, 적어도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로, 사람의 삶과 처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교제를 통해 그 말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으며,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너희는 이 단어와 비슷하고 관련 있으며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럭저럭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이 상황에 적용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측면에 있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는 '와신상담'에 관해 교제하였다. 그럼 '와신상담'과 같은 유형의 다른 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갖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 방식으로 '와신상담'과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다. 모두 함께 교제한 후 새로운 인식을 얻어 그것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점을 꿰뚫어 본다면 그런 말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진리를 실행하고 추구하는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수 있다.

이제 지난 두 차례의 주제를 이어서 교제해 보자. 어떤 주제였느냐?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진리란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입니다.) 너희는 이론과 정의 면에서 이 말을 기억한 것 같구나. 그럼 두 번의 교제를 마친 지금, 너희 내면 깊은 곳 진리에 대한 정의와 인식, 이해는 예전과 달라졌느냐?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단기간에는 실제 체험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감성적인 인식은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체험하고 인식하고 이해한 대로 말해 보아라. (예전에도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근거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항상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혈기를 쉽게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혈기를 드러내는 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늘 그 근원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패괴를 드러내는 건

대부분 사탄의 사상에 지배되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혈기를 드러내는 건 제 내면에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으며, 만약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라는 사탄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여겼지요. 이런 사탄의 사상 관점에 영향받아 진리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탄의 그 논리들은 언뜻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달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한 것에 위배되며, 그릇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야 완전히 정확합니다.) 훌륭하다. 누가 더 보충해 보아라. (제가 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일이 닥치면 진리를 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는 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나서 진리가 무척 실제적이며, 삶의 다양한 면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 주신 것처럼 중국인이 서양 국가에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행동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사상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와 관계가 있고요.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속어나 성어들을 분석해 주신 것을 통해 언뜻 옳은 것처럼 보이는 제 행위와 행동 방식들, 그리고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속셈, 사상 관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기대 살아가면 무엇을 살아 내게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진리를 구하고 실행해야 할지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느낌입니다.) 두 번의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진리의 정의나 진리와 관련된 주제에 기본적인 인식이 생긴 것 같구나. 그리하여 마음속 깊이 자신의 행위가 정말 진리와 관계가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며 지키는 것, 듣는 것 중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진리가 맞는지,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다. 돌아본 후에 사람은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들이 진리이고 어떤 것들이 진리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어느 정도 수확을 거뒀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전부 진리라는 것을 말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진리와 무관한 말,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곤 한다. 혹자는 심지어 사람들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로 대한다. 특히 사탄에게서 비롯된, 언뜻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궤변과 마귀적인 말들을 분별하지 못해 마음에 받아들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것들을 긍정적인 사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 "명철보신이 살길이다.",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는다." 등 수많은 사탄의 철학을 진리로 여겨 지키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의기양양해한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야 사탄에게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 사실 진리가 아니며, 언뜻 옳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설이자 궤변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일부는 학교 교육에서 왔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다. 또 일부는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이고, 일부는 사회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요컨대, 전부 전통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탄의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와 관계가 있겠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진리로 여기니,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으냐? 사탄의 이러한 것들을 진리로 여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키면 정상 인성을 살아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키면 양심과 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양심과 이성의 기준에 이를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전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사람이 지키는 그것들이 과연 진리겠느냐? 그것들이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옳고 좋다고 여기는 처세 철학과 생존의 길, 생존 법칙, 심지어 전통문화 등 부정적인 것들을 진리로 여겨 지키는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인류는 그러한 것들을 몇천 년 동안 지켜 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느냐? 인류의 현재 모습에 조금이라도 개선된 바가 있느냐? 패괴된 인류는 여전히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각 단계 사역을 통해 적잖은 진리를 선포했고,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진리에 권병과 능력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인류는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는 인류가 사탄에게 너무 심하게 패괴되었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 패괴된 인류는 사탄 성품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할 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제의 근원은 인류가 사탄의 철학과 사탄의 지식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데 있다.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사탄의 각종 사상 관점이 침투하여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성품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편,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지고지상하지요. 또 진리는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진리 추구를 생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명언과 사탄의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한쪽에 치워 둔 채 사람의 그 신학 지식과 영적인 도리 같은 것들을 진리로 여겨 지키고 실행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 사람의 실제 상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계속 이대로 지키며 뿌리 깊게 박힌 사탄의 전통문화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해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분별하거나 꿰뚫어 보거나 버리지도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어도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입으로는 영적인 도리와 신학 이론, 아주 듣기 좋은 말, 진리에 부합하는 도리를 언급하지만, 사실 행동하고 살아 내는 모습은 오히려 영락없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에게 정죄받고 저주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으로, 영원히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자녀 교육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옛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을 대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말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은 없다. 그러니 그에게 진리 실제가 있겠느냐? 없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조금 이해했으니, 진리로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아버지가 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다.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듯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는 어떤 말이냐? 누구의 명언이냐? (사탄의 명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사탄에게서 왔고, 이 세상에서 왔다. 사람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진리를 '높이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사탄에 속하는 말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보십시오. 제가 진리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경모하면 입을 열자마자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하는데, 이는 기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는 어떤 말이냐?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철이 들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고,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착실하게 처신하는데도 아들은 양아치가 되고 딸은 창녀가 된다. 그럼 화가 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했어. 다 내가 그를 버릇없게 만들었어!"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만약 네가 이 말의 잘못된 점을 깨닫는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진리에 대한 해석과 정의를 들었으니,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옳지 않아. 이 말은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느낄 수 있다. 이는 네가 말하는 방식만 바꿔서 이 일에 대해 얘기했을 뿐,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너는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말해야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겠느냐? 먼저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옳은지 말해 보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이 생명으로 삼게 하였다. 그런데 자녀를 교육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이끌어 인생의 바른길에 오르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럼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느냐? (사람이 걷는 길은 그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밖에, 그가 이번 생에서 어떤 징벌을 받을지, 혹은 어떤 축복을 받을지는 그의 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바른길을 걷지 않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네 말대로라면 자식이 바른길을 걷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바른길을 걷게 한다. 하지만 사람은 사탄 본성이 있어 모두 자기만의 선택이 있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할 뿐,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만약 네 말이 진리에 부합한다면, 이 일을 분명히 해석하여 사람들을 승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에 관해 교제해 보도록 하자.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자녀가 바른길을 걷지 않는 것은 부모와 일정 부분 상관이 있다'는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걷는 길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걷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그 자신의 일이며, 예정된 것, 타고난 것으로, 본성과 관계가 있다. 그럼 부모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사람의 본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교육은 사람의 본성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냐? 일상생활 속 자녀의 단순한 행위들, 깊이가 얕은 사상과 처신의 도리들은 부모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책임은 바로 자녀가 바른길을 걷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인이 된 후 두각을 드러내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한편, 자식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연장자를 보면 인사하는 등 예의를 알려 줘야 한다. 이렇게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다해야 할 책임이다. 자녀의 생활을 돌보고, 자녀에게 기본적인 처신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는 성격이 굼떠서 무슨 일을 하든 느릿느릿하지만, 자식의 성격은 매우 급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는 열네다섯 살이 되면 사회에 나가 분투하며, 어떤 일이든 자기가 알아서 해서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매우 독립적이다. 이것이 부모가 가르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격과 성품, 나아가 그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 추후에 그가 선택할 길 등은 부모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게 어떻게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어떤 집은 학자 가문이나 세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그림을 배우면 다음 세대도 그림을 배우고, 그다음 세대도 그림을 공부하지요. 이는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반박하는데,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이 사례로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옳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일이기 때문이다. 세가가 영향을 주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의 기술뿐이다.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는 모두 똑같은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역시 똑같은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그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이 주재한 일 아니겠느냐? 부모에게는 자식을 성인으로 키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자식은 외적 행위나 생활 습관 등에서 부모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성인이 된 후 평생 추구하는 목표와 운명은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부모는 평범하고 성실한 농민인데 자녀가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큰 사업을 하기도 한다. 어떤 부모는 각각 변호사와 의사로 능력이 뛰어난데 자녀는 변변치

않아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부모가 교육한 것이겠느냐?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자식을 안 가르치고, 자식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어떤 아버지도 "저는 이만큼 성공했지만, 제 아들은 저처럼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냥 소나 키우면서 살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앞으로 자신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가르친 후에는 어떻게 됐겠느냐? 자식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의 운명 역시 그대로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자식이 걸어가는 길은 부모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만,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또 어떤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식은 믿는다. 그 자녀는 하나님을 믿은 후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이 부모가 교육한 결과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바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다. 교육으로 사람의 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평생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바이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류가 체험을 통해 종합해 낸 것이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 너는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면 사상이 생기고, 문제를 사고하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고위 관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등 각자 다른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갖는다. 누구도 "부모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될 거예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바보는 없다. 성인이 되면 사상이 활성화되고, 조금씩 성숙해지며, 눈앞에 놓인 길과 목표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럼 그가 어떤 부류이고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때, 모든 사람의 성격이 점차 명확해지고, 성품도 점차 분명해지며, 그가 추구하는 길이나 인생 방향, 그가 속하는 집단 역시 점차 확실해진다. 이는 다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느냐?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지,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느냐? 그럼 부모와 관계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생김새, 키, 유전자, 유전병 등이 부모와 약간 관계가 있다. 어째서 '약간'이라고 하겠느냐? 100%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가족은 모든 세대가 같은 병에 걸렸지만, 그의 세대에 이르러 그 병이 사라졌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혹자는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럼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정말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진리가 없으면 어떤 일도 밝히 알 수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탄에게서 비롯된 이 언뜻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관점들은 모두의 머릿속에 적잖이 존재한다. 내면에 도사리고 쌓여 있다가 일이 닥치면 표출하는 것이다.

혹자는 "훌륭한 남자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상한지 보십시오. 저는 사내대장부고, 당신은 연약하고 소심한 여자이니, 저는 당신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이 말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냐? (진리로 여깁니다.) 진리로 여기고 진리 실행의 원칙으로 여긴다. 또 혹자는 정인군자처럼 준수하게 생겼지만, 하는 짓은 영 수상한 데다가 늘 위장하며 남들과 함께할 때 무척 간사하고 음흉하게 굴어 많은 사람이 간파하지 못하는 이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선량하며 남에게 우호적인 사람, 남과 척을 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생각뿐입니다. '진짜 소인배가 될지언정 거짓 군자가 되지는 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떠하냐? '진짜 소인배가 될지언정 거짓 군자가 되지는 마라'는 말을 보아라. 사람에게 일이 닥치면 내면에 있던 속담이며 명언, 성어들이 튀어나오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진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셨군요."라고 한다. '진짜 소인배가 될지언정 거짓 군자가 되지는 마라'는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런데 어디가 옳지 않으냐? 거짓 군자의 잘못은 '거짓'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으로 꾸며 낸 군자는 되기 싫어하고 진짜 소인배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진짜 소인배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진실하기에 소인배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럼 너희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진짜 소인배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거짓 군자가 되고 싶으냐? (모두 원치 않습니다.) 어째서 이 두 부류가 되고 싶지 않으냐? (둘 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 군자가 되라거나 진짜 소인배가 되라고 한 적이 없다.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럼 정직한 사람과 진짜 소인배는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소인배'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진실한데, 어째서 좋지 않으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진짜 소인배와 거짓 군자 두 부류 모두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소인배란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소인배는 어떤 단어와 연결되느냐? (비열함과 연결됩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비열함'을 어떻게 형용하고 정의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비열함'을 긍정적인 단어로 정의하느냐, 부정적인 단어로 정의하느냐? (부정적인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단어로, 하나님에게 정죄되는 말이다. 일 처리와 관점이 비열한 사람은 모두 소인배다. 일반적으로 소인배의 성품과 본질의 또 다른 측면의 정의는 무엇이겠느냐? 이기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설령 그가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것, 진짜 성품일지라도 그는 역시 소인배다. 거짓 군자는 간사하고 사악해서 늘 스스로를 위장하고, 남들에게 허상을 보여 주며, 화려하고 우호적인 모습만을 보여 준다. 또 자신의 진짜 성품과 생각, 관점을 꼭꼭 숨겨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품을 지닌 것이냐? (간사하고 사악한 성품을 지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악한 무리이다. 그러니 군자든 소인배든 이 두 부류는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는 내면이 나쁘고, 다른 하나는 외면이 나쁘나 사실 그 성품은 동일하다. 둘 다 더없이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하다. 이렇게 사악하고 간사한 두 부류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추구하는 자들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두 부류 중 어떤

부류가 되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일 뿐,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말해 보아라. '진짜 소인배가 될지언정 거짓 군자가 되지는 마라'는 말이 진리겠느냐?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으로 볼 때, 이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군자를 공격하고 정죄함으로써 좋은 사람 행세를 하며 '진짜 소인배가 될지언정 거짓 군자가 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 소인배의 비열함이 꽤나 정의롭고 진실한 양, 정의의 힘이라도 지닌 양 말이다. 소인배 주제에 무슨 정의를 좇는단 말이냐? 너는 정죄되어 마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이 적잖이 존재한다. 또 많은 사람이 이런 관점을 지킨다. 전통문화든, 민간의 속담이든, 혹은 집안의 가훈이나 가규든, 한 나라의 법률 제도든 사람은 언제나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널리 퍼진 것들, 나아가 사회에서, 인류 가운데서 오랫동안 긍정적인 사물로 여겨져 전파되고 제창되던 것들을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 어떤 말들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실행의 원칙이나 생존의 원칙으로 삼는다. 또 어떤 말들은 사람이 그 관점에 동조만 할 뿐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든 그러지 않든, 네 내면 깊은 곳은 이런 말들을 처신의 실행 원칙으로 삼는다.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큰 방해가 되며, 백해무익하다. 현대인이 자주 언급하는 말을 예로 들어 보겠다. "생명은 고귀하고 사랑은 더욱 귀하나 자유를 위해서라면 둘 다 버리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유를 추구하고 봉건 전통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동서양의 지사들에게 제창되고 추앙받는 명언이다. 여기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중점은 무엇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둘 다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렇다. 자유다. 그럼 이 말이 진리겠느냐? 이 말의 뜻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생명도, 사랑도,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리고 아름다운 자유를 향해 달려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보았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전통을 부수는 것, 낡은 관습을 부수는 것, 봉건 군주제를 부수는 것을 자유라고 해석했다. 또 있느냐?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정치에 통제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이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는 자유와 같은 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관점을 지닌 자가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좋아.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하지. 관습이니 하는 것들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전통문화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되잖아. 관혼상제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모든 풍습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정말 자유로워!'라고 말이다. 정말 이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유란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자유로우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어느 정도의 자유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그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흑암 권세를 깨뜨리면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해부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스스로가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공간적, 물질적 자유와 해방이 아니다. 진리를 깨달은 후 마음속으로 각종 사람과 일, 사물, 세상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올바른 인생 방향과 목표를 추구하여 사탄의 권세와 사상 관점에 속박되지 않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어떤 이방인 젊은이는 자기가 자유를 좋아한다고, 한 마리의 새처럼 구속받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집안의 지긋지긋한 규칙이나 가르침들을 몹시 경멸했다. 그는 수시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아주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가족도 많고 집안 규율이며 전통도 무척 많아. 심지어 가족 사당도 있다니까? 거기 가 보면 세대마다 위패가 모셔져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전통들을 깨부수고 집안의 규율이나 가풍, 세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 어때? 나라는 사람은 전통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자 친구는 "그래 보여. 넌 전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여."라고 말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느냐? 그는 혀와 코에 피어싱을 하고, 귀도 4, 5 군데나 뚫고, 배꼽에도 피어싱을 했으며, 팔뚝에는 뱀 문신을 새겼다. 뱀은 중국인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동물인데 하필 그 동물을 새겨 넣어 보는 사람이 움찔할 정도였다. 이는 전통과 거리가 먼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전통과 무척 거리가 멀다. 또한, 그가 하는 말에는 전위적인 분위기가 드러났다. 누구든 그를 보고 "저 친구, 대단하네! 전통과는 거리가 멀어. 아주!"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과 거리가 먼 것을 이런 부분에서만 드러내면 안 되겠다고, 더 실질적이고 남들에게 자신이 전통적이지 않다는 걸 더욱 잘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보통 피부색이 노란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고 그는 굳이 백인 외국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더욱 그가 정말 전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모든 부분에서 여자 친구를 본받아 여자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 하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얼마 후 그의 생일날, 여자 친구는 그에게 커다란 상자에 담긴 신비한 선물을 내밀었고, 그는 신이 나서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 내자 초록색 모자가 나왔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녹색 모자(역자 주: 바람난 아내의 남편을 비유하는 표현)'가 상징하는 바를 알지 않느냐? 이 얼마나 전통적인 상징이냐? 모자를 본 그는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선물이야? 누구한테 하는 선물이야?"라고 말했다. 기뻐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화를 내자 여자친구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 "얼마나 힘들게 구한 모자인데 그래. 자기한테 잘 어울릴 거야."라고 말했다. "녹색 모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냥 모자잖아? 녹색 모자가 얼마나 예쁜데." 그녀는 계속 그에게 모자를 써 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권해도 쓰지 않았다. 서양인이 '녹색 모자'의 의미를 알겠느냐?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두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너희는 이 남자와 같다. 전통적이지 않고, 전통을 내려놓고 사탄의 전통문화 관념에서 벗어나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다는 기치를 들고 있지만, 녹색 모자 하나에 꽂혀 있다.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모자를 쓰라고 해도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이 모자를 꼭 씌우려고 하는데, 내가 이 모자를 쓰면 비웃음당한다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초점이자 근원이며,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 전통은 색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물건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암시와 관점에 있다. 녹색 모자는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이 색상의 모자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여 놓았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다.

왜 거부하겠느냐?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네 내면에 전통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전통 사상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 물질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와 종족이 그것을 은연중에 부정적인 사물로 변질시켰다. 예를 들어, 사람은 하얀색을 거룩함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검은색을 흑암과 사악함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붉은색은 경사스러운 일, 피비린내, 그리고 열정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과거, 중국인들은 결혼할 때 빨간 옷을 입었으며, 혼인을 경사라고 여겼다. 또 서양인들은 결혼할 때 예쁘고 깨끗한 흰색 옷을 입는데, 이는 거룩함을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서로 다르다. 한쪽은 빨간색으로 대표되고, 한쪽은 흰색으로 대표된다. 이 두 가지는 결혼이라는 일에 대한 축복의 태도를 의미한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같은 것을 가져다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그렇게 그들의 문화 배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문화 배경이 만들어지면 뒤이어 전통문화가 탄생한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회, 서로 다른 종족에 서로 다른 풍속이 생겨나고 그 풍속은 그 종족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중국인은 '녹색 모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입되어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모든 남성이 녹색 모자를 쓸 수 없게 되었고, 여성도 쓰지 않게 되었다. 여성이 녹색 모자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이 전통문화는 남성에게만 해당한다. 남성이 녹색 모자를 쓰는 것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지만, 여성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전통문화가 탄생하는 순간, 배경과 무관하게 해당 종족의 모두가 이 사물에 대해 차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차별이 생기면 그 대상은 은연중에 아무 잘못 없는 한 사물에서 부정적인 사물로 변질된다. 사실 그 사물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긍정과 부정의 구분도 없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물질, 색깔, 형태를 띤 물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통문화에 의해 이렇게 해석되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 무엇으로 변했느냐? (부정적인 사물로 변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물로 변했다. 부정적인 사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하거나 쓸 수 없게 되었다. 보아라, 중국의 시장에는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등 갖가지 색상의 모자가 있지만, 녹색 모자는 없다. 사람들이 이 전통 사상에 속박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문화 중 한 가지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와서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전통, 규범, 의식주 등 물질적인 측면을 접하고, 다른 나라의 법률, 상식에 익숙해져도 자기 나라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아주 힘들어한다. 설사 고향 땅을 떠나 다른 나라의 의식주, 심지어는 법률과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관점과 입장이 어떤 건지는 본인도 모른다. '난 서양에 있으니까 서양 사람 아닌가?' '난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우리는 초밥을 가장 좋아하고, 우동을 즐겨 먹습니다. 고상하지 않나요?"라고 말하고, 한국인은 "우리는 쌀밥과 김치를 즐겨 먹습니다. 우리 대한민족은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중국인은 당신들의 문화가 유구하다고, 우리보다 몇 천 년은 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효도를 잘할까요? 당신들한테는 우리 같은 전통이 있나요? 우리처럼 규범이 많나요? 지금 당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지 않고 다들 낙후되었어요.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전통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문화야말로 진정한 문화고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가 우수하다고 여기며, 앞다투어 더 많은 것들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경쟁은 어떻게 된 것이겠느냐? 각 국가와 종족, 소수민족들은 모두 자신의 조상들이 남긴 것, 규범, 전통, 풍속, 풍조를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이라고 믿고, 이 인류에게 전파시킬 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사상 관점은 곧 이러한 것들이 진리이자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이며, 이 인류가 계승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럼 이 계승해야 할 것들이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방금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는 집안에서의 속박을 깨부수고, 온몸에 피어싱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여기저기 문신을 새기고, 외국인 여자친구까지 사귀었다. 표면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그는 집안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전통도 벗어 버린 것 같으며, 형식과 행위에서 볼 때, 나아가 그의 주관적인 바람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가족과 전통, 풍속 같은 것에서 벗어난 듯하다. 하지만 생일 선물 하나가 그를 드러냈으며,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의 생각을 부정하고 정죄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전통적이냐, 아니면 전통과는 거리가 멀겠느냐? (전통적입니다.) 전통은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에, 네가 스스로를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든, 네가 어떤 종족이든, 소위 고상한 종족이든 평범한 종족이든 네 내면의 사상은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고 숭상해도, 전통적인 세력과 전통적인 가풍을 깨부수겠다는 다짐, 바람, 뜻이 아무리 위대해도, 네 실제 행동이 아무리 고무적이고 강력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사탄이 주입한 학설과 궤변 속에서 맴돌 뿐,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상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신분과 지위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무슨 '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을 예로 들어 보자. 공산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무산 계급에서 시작해 공산주의 선언과 이론을 받아들이고 전통과 봉건 군주제, 낡은 관습을 깨부순 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후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제약받고 있느냐?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돌아선 것이 곧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낡은 것에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돌아서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영원히 사탄의 올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나 특정 사업을 위해 몸 바치고, 어떤 사람은 한 마디 맹세를 위해 몸 바치며, 어떤 사람은 한 마디 이론을 위해 몸 바친다. 또 어떤 사람은 "벗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말을 신봉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통문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뜻 보기에 무척 긍정적이고 정당한 것 같고, 인류 가운데서 무척 숭고하고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고 사람을 제약하며,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인류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인류 가운데서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받아들여 본인의 생존의 길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소위 '전통문화', 세상 사람들이 그럭저럭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또 받아들인 후에는 자기 삶에 밑천과 저력,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식과 학력에 대해 이 사회와 인류가 내린 정의를 받아들였다고 해 보자. 그 정의는 무엇이냐?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쓸모없고, 오직 공부만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동조한다.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동시에, 이 사회에서 오래 고생할수록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지식으로 살아가며, 지식과 학력이 없으면 사람은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한 종족과 사람들 사이에서 네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며, 네가 남들로부터 받는 존중과 대우 등도 점점 높아지고 좋아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력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대학교수 칠팔 명이 베이징에 연수하러 갔다. 당시에는 특별 배정 차량이나 전용 차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이징에서 버스를 타야 했다. 사실 이런 교수들은 베이징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서민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또 여기에서 일이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겠느냐? 그 교수들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마음이 급해져 버스가 도착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벌 떼처럼 밀고 올라탔다. 서로 밀고 소리치며 현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하던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 때 버스 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군요. 우리는 대학교수이니 국민들의 실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지식인으로서 서민들과 똑같은 식견을 보여 줄 수는 없지요. 레이펑(雷鋒) 정신을 발휘해 저들 먼저 타라고 합시다. 밀고 올라타지 말고요."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그들은 다음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버스도 그만큼 사람이 많았고, 다들 난리를 치며 승차했다. 그들은 당황해서 만원 버스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 밀고 올라타지 않았다. 그들 몇 명은 다시 상의하며 말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는 수준 높은 지식인 아닙니까? 서민들과 다투며 버스에 오를 수는 없죠. 마음을 느긋하게 먹자고요. 다음 버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버스가 오자 그들 몇 명은 조금 조급해졌다. 일부는 주먹을 쥐며 "이 버스도 사람이 많으면 안 탈 겁니까? 이번에 안 타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버스에도 못 탈 겁니다. 그냥 밀고 올라갑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어떤 교수들은 "수준 있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밀고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미지를 깎아 먹는 일이죠! 우리,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 버스에 밀고 올라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체면이 떨어지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상의하는 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많아졌다. 그러자 그들은 잔뜩 긴장한 채 더 이상 상의하지 않았다. 다음 버스가 와서 차 문이 열리자 지난번 버스 때 교훈을 얻은 그들은 하차하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힘껏 밀고 올라갔다. 몇 명은 밀고 올라탔고, 몇몇 우아한 지식인, 즉 유학자들은 패기와 열정이 없어서 밀치고 올라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말해 보아라, 이것은 실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원 버스에 밀고 올라타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은 정말 위장을 잘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의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먼저 이 지식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남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들이 받은 교육과 갖춘 지식은 일반인의

수준보다 높았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교사나 교관이 되어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수준 높은 지식인들의 사상 관점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럼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 일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그들은 많은 지식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의 사상은 경직되어 있겠느냐, 자유롭겠느냐? (경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그들은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고 자처했다. 이 말에는 문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이 말에는 문제가 있다. 그 후, 그들은 "우리는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니 다른 사람들을 밀면서 버스에 올라타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이 "우리, 수준 높은 지식인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도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너희가 이 문제를 확실히 파악했다면, 첫째로 너희는 수준 높은 지식인들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너희는 수준 높은 지식인이니 뭐니 하는 게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자처'라는 단어에는 문제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고 칭했다. 그럼 '스스로를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고 한 말에는 문제가 없느냐? 사실, 대학 교수는 사회에서 수준 높은 지식인에 속한다. 이것이 사실인데 왜 이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는 지식을 배운 후에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데는 분명 한 가지 성품이 있다. (그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 많은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부만 맞았다. 그러나 확실히 이야기하지는 못했구나. 누가 더 말해 보아라. (하나님, 그들은 스스로 고결하다고 자처한 것 아닙니까?) 맞게 말했지만, 본질을 분명히 말하지는 못했다. 더 자세히 말해 보아라. (그들은 지식을 배운 후 자신들이 남보다 고상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버스에 밀고 올라타는 것은 실생활의 환경으로 인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무척 고귀하고 고상하게 여겼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정상인의 행동이 그들의 신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비정상적이다. 그들은 수준 높은 지식인을 자처하는데, 그 안의 함의가 비정상적이었다. 즉, 그들의 인성 안에는 왜곡된 것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고상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수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하고, 누구를 만나도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고,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식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사람으로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도덕의 준칙으로 보았다. 그들은 지식이 있으면 인격과 인품, 신분이 고상해진다고, 귀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인즉슨, 수준 높은 지식인은 곧 성인(聖人)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 높다'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버스에 밀고 올라타지 못하는

것이다. 왜 밀고 올라타지 않겠느냐? 무엇에 지배되었겠느냐? 무엇에 제약받고 속박받았겠느냐? 그들은 버스에 밀고 올라타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신분과 이미지는 다 지식이 준 거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니 그가 한 말이 역겹지 않으냐? 매우 역겹다. 그는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수준 높은 지식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그저 지식인이고, 궁상맞은 꼴을 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몹시 고상하다고 여기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신이 무척 고상하고, 자기 신분이 매우 고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긴다. 이러한 관점은 그들에게 일종의 속박 아니겠느냐? 지식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무엇이냐? 지식이 있으면 인격이 높아지며, 사람이 존귀해지고 고상해지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행위가 그들에게는 경멸받고 정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인은 재채기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며 급히 사과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재채기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사실 살면서 트림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무척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지식인들 눈에는 그것이 저속하고 비천한 행위로 보인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경멸하고 멸시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 예의 없는 무지렁이들 좀 보십시오. 재채기하는 모습도 보기 흉하군요. 앉으나 서나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버스가 오면 밀고 올라탈 줄만 알고요. 양보라고는 전혀 모르죠!" 지식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지식은 신분의 상징이다. 지식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신분과 몸값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수준 높은 지식인은 사람들을 밀면서 버스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밀면서 버스에 올라타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밀면서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한 가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행이 우아해야 하고, 신분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는 가벼워야 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다정하고 친절해서 존중할 만하다는 느낌을 줘야 하며, 언행은 반드시 우아해야지 평범한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신분의 존귀함과 비범함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스에 밀고 올라타는 일 등에서 그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건 사회 하층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심오한 지식이나 고급 지식인과 같은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럼 이 수준 높은 지식인들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강단에서 도를 전수하고, 지식을 가르치며, 의문을 풀어 준다. 이것이 그들의 직책이고 신분, 이미지이며, 직업의 상징이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만 할 줄 알 뿐, 서민들의 잡스러운 일 같은 건 아는 바가 없다. 그들은 이 '저급 취향'의 부류에서 벗어났다. 서민들의 잡스러운 일, 버스에 밀고 올라타는 것 같은 행위를 그들은 뭐라고 정의했느냐? (저속한 짓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 저속하고 비천하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그들보다 수준이 낮은 평범한 서민들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제 세 번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 수준 높은 지식인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도 됩니다."라는 건 어떤 정신이냐? 이는 전통문화 중 공융양리(孔融讓梨)의 정신 아니겠느냐?

지식인들은 전통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전통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많은 사상 관점을 마음속에 수용해 긍정적인 사물로 대하며, 심지어는 몇몇 유명한 말을 좌우명으로 삼는다. 이렇게 인생의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유가 학설을 대표로 한다. 유가 학설은 일련의 사상과 이론으로, 주로 전통 도덕 문화를 널리 퍼뜨리며, 역대 통치 계급으로부터 숭배받았다. 공자와 맹자 등은 그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유가 학설은 처신할 때 인의예지신을 지켜야 한다고, 어떤 일이 닥치든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참고 인내하며 할 말이 있으면 찬찬히 해야 한다고,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 모두에게 존중받아야 품격 있게 처신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이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남들 위에 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인내하고 양보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지식의 '역할'이 무척 크지 않으냐! 이 부류는 거짓 군자와 매우 비슷하지 않으냐? 사람이 배운 지식이 많아지면 거짓 군자가 된다. 이 기품 있는 선비들을 한마디로 형용하면 '우아한 품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품 있는 선비들이 함께 어울릴 때의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처세술은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어, 평범한 서민들은 리(李) 씨 성을 가진 남성을 부를 때 '라오리(老李)' 혹은 '샤오리(小李)'라고 부른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부르더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을 만나면 'OO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신사처럼 매우 공손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신사들의 우아한 품격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 한다. 함께 말하고 어떤 일을 상의할 때 그들은 어떤 말투와 방식을 취하겠느냐? 표정은 더없이 온화하고, 말은 우아하고 함축적이며, 모두 자기 관점만을 이야기할 뿐, 다른 이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상대를 상처 주지 않는데, 솜과 솜이 부딪히는 것처럼 말투가 더없이 온화하며 뜨뜻미지근해서 듣는 사람이 다 역겹고 초조하고 화가 날 정도다. 사실 그들은 아무도 명확한 관점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상대에게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위장에 매우 능해서 이렇게 작은 일까지 위장하고 포장하며,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서민들 앞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이미지를 꾸며 내겠느냐? 서민들 눈에 그들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군자로 보이려 한다. 군자란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일반인보다 높은 식견을 갖고 있고,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이 잘된다고 생각하기에 다들 일이 생기면 그들을 찾아가 물어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로,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이다.

방금 해부한 세 가지 문제로 볼 때, 그 교수들이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후 사상이 더 자유로워졌겠느냐, 아니면 더 속박되었겠느냐? (더 속박되었을 것입니다.) 속박되었을 것이다. 무엇에 속박되었겠느냐? (지식에 속박되었습니다.) 지식은 그들 업계의 것으로,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속박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그들을 속박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지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지식이 그들의 사상에 초래한 영향과 주입한 관점들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 신분과 지위가 남들과 달라졌다고, 자신이 고상하고 위대해졌다고 생각하며, 이와 동시에 사상 역시 점점 더 속박된다. 그럼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이 자유를 얻었겠느냐, 아니면 자유를 잃었겠느냐? (자유를 잃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를 잃었다. 지식은 사람의 사상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처신할 때 마땅히 지녀야 할 원칙과 방향, 목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을 추구하면 할수록, 지식을 깊이 습득하면 할수록 결국 정상 인성이 지녀야 할 사상 관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수많은 지식과 교육을 받은 이 지식인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상식조차 모른다. 무슨 상식 말이겠느냐? 사람이 많을 때 밀면서 버스에 올라탄다. 밀지 않으면 영원히 버스에 타지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기 그지없는 도리조차 그들은 모른다. 그러니 그들이 똑똑해졌겠느냐, 아니면 어리석어졌겠느냐? (어리석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부 바보들이다. 서민들은 그들과 같은 고급 지식과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고 지위도 없지만, 그 이치를 알기에 "버스에 탈 때 사람이 많으면 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힘껏 밀어야 하죠. 힘을 덜 주고 좀 주저하면 뒤로 밀려나서 다음 버스를 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최소한의 생활 상식이다. 하지만 그 지식인들은 이것을 모른 채 다음 버스, 또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그들은 무엇에 제약받았겠느냐? "우리는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는 말에 단단히 얽매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실생활의 문제조차 어떻게 직면하고 처리해야 할지 모르니, 그야말로 한 무리의 바보들이다! 지식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세속적인 것을 초탈하게 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했다. 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문제를 그들은 대단한 이론으로 처리하지만, 그렇게 처리한 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모를 것이며, 또 어쩌면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후광이 없어질 것이고,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는 명예도 한평생 그럭저럭 누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에 타다가 곤란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자기가 그렇게 고상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을 것이다. 또 문득 '우아함이 밥 먹여 주나? 나도 서민들처럼 하루 세끼 밥을 먹잖아?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이가 들면 나도 구부정하게 걷지 않나? 또 나 역시 위험한 일이 닥치면 무서워하고 떨고 겁을 먹잖아? 가족이 죽으면 괴로워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않나? 이런 게 서민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남다르지 않다고!'라고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소위 '긍정적인' 말과 관점을 받아들이면 드러내는 갖가지 추태이다. 사람은 그런 관점이 옳은지 그릇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늘 그런 관점과 말을 진리로 여겨 지키고 적용한다. 적용할 때는 갖가지 결과를 맞이하며, 또 갖가지 추태를 보이게 된다. 이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이쪽 소용돌이 속에서 저쪽 소용돌이로 휘말리며, 하나의 결박에서 또 다른 결박에 빠진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기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네가 지키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든 전통문화든, 어떤 규칙이나 제도, 이론이든,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낙후된 것이든 전위적이고 세련된 것이든 영원히 진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든, 얼마나 잘 적용하든 결국 이것들은 네가 진리를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도(道)와 진리의 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네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이 소위 '긍정적인' 것, 이론, 거짓 진리를 내려놓으면 진리에 진입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이른바 '전통문화'나 거짓 진리로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실행 원칙으로 삼지 않게 되며, 추태도 점점 줄어들고 해결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이나 국가의 전통문화에서 벗어나 외래, 이민족에게서 비롯된 전통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진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낡은 전통문화와 사상 관점을 벗어 버리고 비교적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진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보면 그 생각이 맞느냐, 틀렸느냐?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다. 사람은 낡은 것을 벗어 버리기만 하면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의 함의는 무엇이냐? 진리를 얻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진정한 삶의 방법을 얻은 것, 사람은 이런 것이 참도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겠느냐? 이것이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 인류가 아무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도 그것들은 결국 다 전통문화로,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전통문화는 어디까지나 전통문화다. 전통문화가 세월의 흐름과 현실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떠받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전통문화일 뿐이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왜 진리가 아니겠느냐? 근본을 따져보면, 그것들은 인류가 사탄에게 패괴된 후에 생겨난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사람의 상상과 관념이 섞여 있다. 더욱이 그것은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켜 초래한 결과이다. 사탄은 패괴된 인류의 사상 관점, 각종 가르침, 논조를 이용해 사람의 사상을 속박하고 패괴시킨다. 만약 사탄이 눈에 띄게 황당하고 그릇되며 잘못된 것들로 사람을 미혹한다면, 사람은 분별할 것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분별력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학설은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는 것,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상과 이론으로 사람을 물들이는 한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주입하기에 사람은 아주 쉽게 그것에 미혹되며, 그 가르침은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고 전파된다.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악비(岳飛)나 양가장(楊家將) 등 중국 영웅들의 이야기, 문천상(文天祥)의 애국 이야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상이 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겠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대 어느 시기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나 통치자들이 항상 이런 사례와 인물들의 사상, 정신을 통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을 지도했다. 그리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이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했으며, 이 사상들을 통해 매우 수월하게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을 통치하는 한편, 자신들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악비와 양가장의 우국충정 이야기, 문천상과 굴원의 애국정신 등을 들어 피통치자인 민중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한 가지 도리를 알게 했다. 바로 사람이라면 충성해야 하며, 이는 인품이 고상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 말이다. 어느 수준까지 충성해야겠느냐? '임금이 신하에게 죽으라고 하면 신하는 죽어야만 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충성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떠받드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또 애국지사들을 떠받든다. '애국'이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국가의 대변인이다. 만약 네가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제 고향, 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 같은 통치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애국이란 마음속 깊이 통치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받아들이고 네 그런 '사랑'에 동의할 것이다. 만약 네가 사랑하는 것이 그가 아니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역대의 통치자들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사탄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사탄을 대표하며, 사탄과 한 패거리로, 마귀에 속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가르칠 리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뿐더러 백성들에게 통치자는 천자(天子)라고 알려 준다. 천자란 무슨 의미냐? 하늘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내려 준 것으로, 그 사람을 '천자'라고 부르며, 그에게는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릴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주입한, 일종의 사상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일로, 하늘의 뜻이 그에게 있는 것이니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통치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사람에게 주입한 것은 이런 사상으로, 네가 하늘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천자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가 천자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늘, 하나님,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는 하늘의 뜻이 있기에 천자로 태어난 것이니, 백성들은 마땅히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입하는 것은 전부 이런 사상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오늘날까지 생겨난 이 사상의 배후에는 해부하는 것이 유래가 있는 단어나 성어든, 아예 유래가 없는 민간의 속담이나 속어든 다 인류에 대한 사탄의 결박과 미혹이 있으며, 패괴된 인류가 이런 사건 자체에 내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정의가 있다. 이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정의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느냐?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겠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와신상담',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큰일을 위해 치욕을 참는다',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잔도를 만드는 척하면서 몰래 진창으로 진군해 기습한다' 등의 말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었느냐? 사람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받아들인 후 한 세대 또 한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의 경륜 사역과도 점점 멀어졌다. 인류는 전통문화의 잘못된 관점들을 받아들인 후 점점 더 사람의 운명은 자기 손안에 있는 거라고, 행복은 자신의 두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회는 준비된 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재를 부정하고,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것들은 사실 2 천 년 전 사람들이 즐겨 말하던 사상과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현대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주재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수록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한다.

예를 들어, 옛사람들이 말하던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절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모두가 이 말을 무척 귀하게 여기며, 특히 애국지사들은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는다. 너희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중국에 뭔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일이 너희와 관계가 있겠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째서 관계가 없다고 하겠느냐? 어떤 이는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합니다.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정당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공산당은 사탄 마귀이며 전체주의 정당으로,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박해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합니다."라고 말한다. 언젠가 중국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도 너는 아무 느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점령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난민이 된 것 같고 유랑민처럼 집이 없어진 것 같아 괴로울 것이며,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 역시 하나의 전통 사상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네 고향, 너를 낳고 길러 준 그 땅이 이민족에게 침략당했고, 네가 매일 등하교하던 그 길, 네 집과 논밭이 모두 이민족에게 점령당해 네 몫이 없어졌으며, 네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 작은 땅, 너와 가장 가까운 그 땅, 그곳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어찌 집이 있을까! 이제 나는 정말 난민이 되었구나. 정말 돌아갈 집을 잃고 유랑민이 된 거야.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맞았어!'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는 변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왜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배경과 전제가 있다. 이 나라가 너를 박해하고, 네게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너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나라를 증오하는 것이다. 사실 네가 진정으로 증오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너를 박해한 사탄 정권이다. 너는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알 게 뭐야!"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너를 낳고 길러 준 그 땅이 더 이상 네게 속하지 않게 되면, 고향을 잃게 되면, 너는 자신이 유랑민, 무국적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진정으로 국가를 잃은 것이며, 그때는 가슴이 아플 것이다. 왜 가슴이 아프겠느냐? 지금은 깊이 와닿지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겠느냐? 나라가 망해서 네가 망국의 노예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느냐? 망국의 노예가 되어 남들에게 괴롭힘과 욕설, 차별과 유린을 당하고, 마음 편히 살 곳이 없어지면 그때 '나라가 있다는 건 너무도 소중한 일이구나. 나라가 없으면 진정한 집도 없는 거야. 사람이 집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나라가 있어야 해. 그래서 옛말에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서 '책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기 집의 안녕을 위한 것,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이민족 사이에서나 타향에서 차별받을 때, 소속할 곳이 필요할 때, 국가가 뒤에서 네 존엄과 체면, 신분, 지위를 지켜 줬으면 할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이국 타향에 있을 때 뒤에서 강력하게 받쳐 주는 건 위대한 조국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과 심경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너는 단순히 한때의 분노 때문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든 너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분량을 갖춰야겠느냐? 이 세상에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강력한 조국이 뒤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이국 타향에서 분명 차별당하고 멸시당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것을 느낄 때, 너는 첫 번째로 어떤 요구를 하겠느냐? 혹자는 "만약 제가 유대인이나 일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히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할 테고, 어느 나라를 가도 존중받겠죠. 저는 왜 중국에서 태어났을까요? 나라가 무능하니 중국인은 어디를 가도 괴롭힘 당하잖아요."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이런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고, 어떤 것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체험적 인식을 갖추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말이 자신의 분량이 되겠느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사상과 인식, 실제 체험을 갖춰야 연약해지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네게 침을 뱉고 망국의 노예라고 욕을 해도 괴롭지 않으려면, 어떤 분량을 갖추어야겠느냐? 어떤 분량을 갖추어야 괴롭지 않고 그런 것들에 속박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는 이런 분량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갖출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어떤 진리들을 갖추어야겠느냐? 어떤 진리들을 깨달아야겠느냐? 지금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해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말이 도리가 돼 버릴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 잡힌 일에 속박되어 본분을 이행할 의욕을 잃는다. 만약 가족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지도 모른다. 고향 땅이 파괴되고 그곳 사람들이 전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국가, 집, 고향, 조국 등 전통적인 것들, 그리고 이 단어들과 관련된 전통 사상과 문화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네 생명 속에서 네 모든 행동과 사상, 행위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만약 네 마음이 여전히 국가, 종족, 민족, 가족, 고향, 땅 등 너와 관련된 이 모든 전통적인 것들에 점유되어 있다면, 또 이것들이 네 마음속에서 일정 부분 전통문화의 색채를 띠고 있다면, 네가 들은 설교와 네가 이해한 진리는 전부 도리에 그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분리되어야 할 것들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올바로 대하지 못한다면, 네가 이해하는 진리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많은 중국인이 서양에 가면, 자신의 전통문화나 자신이 옳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서양인들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서양인들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문화 역시 역사가 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나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는 전부 '고대'라는 말이 앞에 오며, 그들의 문화는 전부 3 천 년이 넘는다. 이러한 숫자로 미루어 볼 때, 그 속에는 분명 문화적 깊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화적 깊이에서 생겨난 것들을 두고 거기에는 전 인류의 삶의 정수가 들어 있다고, 그것은 인류의 삶과 생존, 처신을 종합한 최고의 정수라고 여길 것이다. 이 '최고의 정수'는 사람들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뭐라고 불리겠느냐? '전통문화'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 전통문화를 계승해 내려왔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게 됐다. 현재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각 종족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고지상한 것, 진리로 여긴다. 그렇기에 모든 종족의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종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두고 서로 토론하고 비교하며 심지어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우리 중국의 백주는 최고죠. 도수도 높고요!"라고 말하면, 서양인은 "백주가 뭐 대단할 게 있습니까? 도수가 너무 높아서 좀만 마셔도 취하잖아요. 간 손상도 심하고요. 우리 서양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도수도 낮고 간에 무리를 주지도 않는답니다.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라고 말한다. 그럼 중국인은 "우리 백주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마시기만 하면 취기가

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당신들의 포도주는 한참 부족해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술에는 음주 문화가, 차에는 차 문화가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그럼 서양인은 또 "우리도 차 문화와 커피 문화, 음주 문화가 있어요. 요즘에는 패스트푸드 문화도 있죠."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교한다.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며,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의 것이 진리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들은 전부 진리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인 지 20~30 년 된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그럼 그것이 진리와 관계있다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까?"라고 하는데, 관계있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진리와 어떤 연관성도, 관계도 없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로, 완전히 다른 부류이다. 구리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도금하고 맨질맨질하게 닦아 놓아도 그것은 구리일 뿐이며, 금은 문지르지 않고 빛내지 않아도, 광택이 없어도 금인 것처럼 말이다. 그것들은 같은 부류가 아니다.

혹자는 "비교적 좋은 전통문화 교육을 받고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일이다. 그래 봤자 생활 방식이 좀 다를 뿐,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각종 사상 관점 그리고 전체 인류가 패괴된 정도는 모두 동일하다. 하나님이 말세에 이 단계의 사역을 행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한 배경과 대상은 중국인이다. 30 년이 지나 이 말씀들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 유럽, 아메리카 등 각 종족에게 퍼져 나가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갈색 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모두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의 패괴 성품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들은 당신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인의 패괴 성품을 다루고 있군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말을 한다. 예전에 한국인들도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국인이 민주 자유 사회제도 아래 살고 있고, 기독교 문화와 수천 년 한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 그들 민족이 중국인보다 존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 어디를 가든 위생 관념 없이 살았으며, 시끄러웠고, 소매치기, 형사 사건 등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한국의 형제자매들은 '중국인은 큰 붉은 용의 자손이고 모압의 후손이야. 우리 한국인은 큰 붉은 용에게 패괴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우리는 큰 붉은 용에게 패괴되지 않았으니 중국인만큼 패괴가 심하지 않아. 중국인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패괴되었지. 반면 우리는 중국인보다 나아.'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들의 말 중 이 '낫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겠느냐? (행위가 비교적 좋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행위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마음속 깊이 유사 이래 대한민족이 만들고 받아들인 전통문화는 고상하다고, 중화민족의 문화와 전통보다 고상하고, 이런 전통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종족은 중국 전통문화에 영향받은 사람들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희 이 천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한 대목을 보면, 그 대상이 중국인이라고 여긴다.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인류를 지칭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함의에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 그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각도는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 민족과 전통문화라는 배경 아래에서 문제를 바라볼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떻게 보든, 그 결과는 모두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 출발점은 항상 '우리, 대한민족은 뭐든 맞아. 뭐든 표준적이고 뭐든 옳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각도와 출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그 결과가 옳겠느냐, 그릇되겠느냐? (그릇됩니다.) 분명 그릇될 것이다. 그럼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느냐?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준이다. 그들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들은 잘못된 각도와 관점으로 만사와 만물을 판단하니, 그 결과는 분명히 틀렸을 것이며, 공정하거나 올바르지도, 나아가 객관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서 온 사물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것이며, 사상이 더없이 극단적이고 보수적이고 편협한 데다가 혈기대로 하는 것이다. 그들의 혈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무엇을 말하든 다 '우리, 대한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꼭 '대(大)' 자를 붙였다. '대' 자를 붙이는 것은 무슨 의도겠느냐? 이 '대' 자는 교만함을 의미하지 않느냐?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봤을 때, 혹은 지도에서 한국이 얼마나 큰지 봤을 때,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면 '대' 자를 붙일 만할 것이며,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의 평범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다. 그런데 왜 '대' 자를 붙이는 것이겠느냐? 이 밖에, 한 나라가 크든 작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규범과 전통문화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결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상은 사탄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사탄에게서 생겨난 모든 사상 관점, 전통문화 같은 것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미혹과 패괴, 결박, 속박을 가져다주었고, 패괴된 인류의 사상을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편적이고 편파적이며, 나아가 그릇되고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킨 결과이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 심지어 일부 종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국에서 성육신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느냐? 딱 한마디,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겠느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이다. 사람은 규례에 끼워 맞추고 관념을 지키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역한 곳이니 하나님은 마땅히 이스라엘, 혹은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강력한 제국, 아니면 그들의 관념과 상상 속의 어떤 고대 문명국가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중국에서 성육신했다고 증거하면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번에 구원받을 기회를 잃기에 충분하다. 이는 누가 초래한 일이겠느냐? (그들 자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런 관념이 있고 패역이 생겼는데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법이 없기에 결국 스스로를 망친 것이고,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수많은 상상과 관념, 심지어 숭배 대상은 하나같이 매우 그릇되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미국을 좋아하는 한 한국 여성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인을 만나 상대로부터 "곧 새해네요. 중국인은 새해에 뭘 먹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럼 한국인은 새해를 기념하지 않나요?"라고 하면 "우리, 한국인은 설을 쇠지 않아요."라고 하고, 또 "저는 한국인도 중국인처럼 새해를 기념하는 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발끈해서 말한다. "우리는 중국인과 달라요! 당신은 우리가 설을 쇤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게 맞겠어요? 그건 우리 한국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말이에요!"라고 한다. 한국인이 정말 설을 쇠지 않느냐? (쇱니다.) 사실 한국인도 설을 쇤다. 그럼 그녀는 왜 한국인이 설을 쇠지 않는다고 했겠느냐? 이 일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도대체 설을 쇠는 게 맞느냐, 안 쇠는 게 맞느냐? 너희는 이 일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외국인에게 있어 설날을 축하하는 것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삶 속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식이다. 전통문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설을 쇠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설을 쇤다고 인정하지 못했겠느냐? 설을 쇤다고 인정하는 순간, 서양과는 거리가 생기며 아주 전통적인 동양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양의 전통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상대가 그녀를 동양의 전통이 없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동양의 전통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으면 한다.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며, 파란색 렌즈를 끼고, 서양인과 같은 복장을 한 채 서양 여성처럼 그렇게 쿨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식견 있어 보이려 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봐 주기를 원한다. 이 사상에 지배되어 일이 닥쳤을 때 일 처리 방식이 이 사상을 따르게 된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한국인은 설을 쇠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우리, 한국인은 설을 쇠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주변에서 누가 "우리는 설을 쇠는데 왜 아니라고 한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뭐라고 하겠느냐? "바보 같군요. 설을 쇤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전통적인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봐 주기를 바란다. 만약 네가 그녀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태어났군요. 그럼 당신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몇 대째 살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그녀는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라고 답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거짓말도 불사하고, 들킬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떤 사상이냐? 이것이 거짓말할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사소한 일 한 가지에서 사람의 사상 관점이 드러난다. 어떤 사상 관점이 드러나겠느냐? 한 중국 여자아이는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굳이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파마를 하며 색색깔의 렌즈를 끼고는 외국인인 척하는데, 보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런 사람들은 왜 굳이 외국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외모를 그렇게 꾸미면 혈통이 달라지겠느냐? 혈통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백인종으로 태어나거나 존중받는 종족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너희는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사람이 꼭 폼이 나야 하고 기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민족이나 종족의 일원인 척 가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느냐? 그것은 한 가지 사상에 지배된 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상에 지배되어 있겠느냐? 그 한국 여성은

미국인이 탁구를 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탁구가 뭔가요? 탁구는 중국인이나 치는 거죠. 우리는 테니스나 골프를 친답니다." 처신하고 말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위장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무엇이든 위장하니 삶이 너무도 피곤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처신하지 않느냐? 어떤 중국인은 서양에서 수십 년간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면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 이는 일을 망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혹자는 "사람으로서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근본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곧 사람의 근본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 모든 상황에서 구할 만한 진리가 있지만,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지키는 것은 전통문화뿐이다. 이는 어찌 된 일이냐? 혹자는 "우리는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스스로가 중국인임을 인정하지요.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근본을 잊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 모든 문제는 첫째로 인류에 대한 소위 '전통문화'의 영향과 교육이 너무 심해서 생겨났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자세히 묵상하거나 구하기는커녕 늘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미 배운 것, 먼저 주입되어 머릿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문화나 낡은 것들로 진리를 사칭한다. 이것이 두 번째 측면이다. 세 번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은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시선, 사람이 관념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위 '일 처리 원칙'이나 소위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등은 늘 몇몇 옳은 지식과 속담, 속어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잘못을 저질러 교회 리더나 형제자매에게 책망받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흥,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도 있잖아. 이 정도의 단점은 나조차도 웃으면서 참고 받아들이는데, 당신은 왜 끝없이 까발리는 거지?' 겉으로 보면 순순히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전통 관념으로 반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등의 말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렇게 각박하게, 끝없이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앞에서 교제한 내용을 통해, 너희는 진리에 대해 좀 더 깊은 인식이 생겼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행 과정에서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문화나 지식, 관념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지배되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럼 저희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희에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면 진리를 구하는 것도,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예전에 너는 입만 열었다 하면 사탄의 철학이며 문화, 지식을 내뱉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자가 걸출한 인물이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다." 등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것들은 다 옳지 않아. 전부 부정당하고 정죄된 것들이라고.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얼른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근거를 찾자.'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입만 열었다 하면 이러한 속어나 속담, 그리고 전통문화가 가져온 것들, 관점들을 말한다. 일이 닥쳤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 입에서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이 속담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과연 무엇이 네 마음속을 채우고 있겠느냐?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다. 어떤 사람은 팀장이 그의 사역을 검토할 때 이렇게 말한다. "뭘 검토합니까? 사람을 쓸 때는 의심하면 안 되고, 의심할 거라면 사람을 써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항상 저를 의심하면서 왜 저를 쓰시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그를 감독하고 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원칙을 구하지 않아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하다가 결국 교체되었다. 게다가 크게 책망받고, 정죄하는 말을 듣자 불복하는 마음이 들었다. '옛말에 '공로는 없어도 노고는 있고, 노고는 없어도 피로는 있다'고 하잖아? 이 정도 일쯤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그 속어가 먼저 주입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사상을 지배하며 영향을 주었기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내적 상태가 생겨나자 그는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 집의 처분에 반항하고 불복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반항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거부하는데, 이것이 진실한 순종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일 뿐, 진실한 순종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치를 따지고 소극적으로 굴고 대항하는 것만 있을 뿐, 순종은 없다. 그럼 이치를 따지고 소극적으로 굴고 대항하는 태도는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바로 "공로는 없어도 노고는 있고, 노고는 없어도 피로는 있다."라는 말에서 생겨났다. 이 말로 인해 그에게 어떤 성품이 생겼느냐? 불복과 강퍅함, 대항, 이치를 따지는 성품이 생겼다. 이렇게 교제하니, 너희는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인식이 생기느냐? 이 부정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해부하고 분별하며, 마음속에서 파헤친다면, 일이 닥칠 때 진리를 구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낡은 것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그것에 기대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는다. 또한, 그것들은 더 이상 네 처신의 원칙도, 본분 이행 때 지켜야 할 원칙도 아니며, 이미 비판받고 정죄받았다. 네가 다시 그것을 가져다 쓴다면, 네 내면 깊은 곳이 어떻겠느냐? 똑같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똑같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겠느냐?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네 내면에서 제거되었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원칙인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주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쳐 죽어도 공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은 옳으냐? 절대 옳지 않다. 어느 부분이 옳지 않으냐? '일을 할 때 주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이라는 구절에서 '주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고용인, 사장, 상사를 뜻한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 하나님은 네 고용인이 아니고 네 사장도 아니며, 네 상급자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상급자, 사장, 상사는 모두 사람과 같은 부류로, 동등하고 본질이 같다. 즉, 모두가 패괴된 인류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서 돈을 받으며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는 네가 일한 만큼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지쳐 죽어도 공이 없다'는 구절에서 '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로를 의미합니다.) 공로, 보수이다. 네가 일을 하는 출발점은 보수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충성심이나 순종도, 진리를 구하고 경배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일종의 거래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며 진리를 추구할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다. 만약 네가 '일을 할 때 주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쳐 죽어도 공이 없다'는 말을 진리로 삼는다면 이는 단단히 틀린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면 그는 반응이 뒤처지고 영민하지 못하게 군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한두 가지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한두 마디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민간에서 전해지는 즉흥시나 속어, 속담 등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은 무척 빨리 받아들인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무척 빨리 받아들인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네가 어떤 종족이든, 네 피부색이 어떻든 결국 모두 사람으로, 모두가 같은 부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과 다른 부류일 뿐,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전 인류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인류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모두의 관념에 맞는다면 다들 아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의 사상 관점, 사유 방식, 이해 정도와 경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누군가가 관념적인 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하면 무척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를 사칭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이런 것들 중 너희 마음속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당장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지식에 속하지 않으며, 책을 넘기는 것처럼 뒤적여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그것들이 네 생명이 되어 뼛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는 뜻이다. 네게 생각해 내라고 하면 생각해 내지 못하지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일이 닥쳤을 때 그 치우친 관점이 튀어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다. 천천히 체험해 보아라. 지금부터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예전에, 큰 붉은 용의 독소와 사탄의 처세 철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들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분별하기가 쉽다. 그것이 확실히 진리가 아니라 큰 붉은 용의 독소이고, 안에 간계가 들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분별하기가 쉽기에, 너희에게 해부해 보라고 하면 그럭저럭 해부할 것이다. 너는 명백히 사탄에 속하는 것들은 버렸지만, 네 내면에는 여전히 "큰일을 위해 치욕을 참는다.", "와신상담",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도에 맞으면 돕는 이가 많고, 도에 어긋나면 도움을 얻기가 힘들다.", "군자는 무례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너희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을 것이다. '정말 귀한 말들이야. 평생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엄은 이 말들 속에 다 들어 있어.'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아직 파헤치지 못했다.

이것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면 앞으로 전통문화에 속하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 그것이 자연적인 반응이든, 아니면 객관적인 조건 반사든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며 결코 진리가 아님을 바로 깨달을 것이다. 그때, 진리에 대한 네 인지와 인정 정도는 지금보다 높아진다. 지금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어느 정도 분량을 갖추고, 분별력이 커지며, 진리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이 지금보다 깊어지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너는 '사탄에게서 온 것들, 이 세상 모든 종족의 문화 배경에서 나타난 각종 전통문화는 다 옳지 않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옳지 않은지, 어디가 옳지 않은지는 아직 모를 것이다. 그러니 하나씩 해부하고 인식한 다음 그것을 내려놓고 정죄하며, 철저히 그것과 단절하여 그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너희는 그저 주관적인 의지로 이 속어와 속담, 명언, 흔히 설파되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며, 진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 뿐이다. 하지만 일이 닥치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이 말들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제약하며, 자신의 행위를 이끌 것이다. 그 말들이 네 사상 관점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텐데 그러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며, 네 진리 진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언젠가 사탄에게서 비롯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나타나기는 해도 네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정으로 분량이 생긴 것이다. 지금 네게는 이러한 분량이 있느냐? 아직 없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모두 맞다고 공인하는 말이 있고, 표현 방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면 너는 그 말도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고 착각할 것이다. 네가 이러한 일을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의 말을 지키며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네 진리 진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며, 진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교제하고 있다. 이건 너희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다양한 사상 관점, 좋은 행위, 좋은 마음, 사람이 기대 살아가는 옳은 가르침, 상식에 맞는 행동 방식, 그리고 전통문화의 사상 관점들을 모두 가져와 해부하고 분별하여 그것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지, 진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네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만약 네가 사탄의 이론과 학설에 근거하여 그것을 진리로 규정했다면, 너는 사탄에게 속하는 존재다. 또 이러한 것들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이니,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부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 가운데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구전되는 숱한 가르침과 관점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 사람은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도대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인류에게는 소위 도덕 윤리에 부합하고, 인성에 부합하고, 세상 물정에 부합하는 관점과 가르침, 사람이 의지해 살아가는 사상 관점,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구할 만한 진리가 있다. 적어도 한 가지,

사람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상 관점, 가르침은 패괴된 인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패괴된 인류가 종합한 것이고,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한다. 그것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더더욱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으로 정의되고 정죄받으며, 결코 진리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와 진리 선포는 이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패괴된 인류의 처세술, 사람의 전통문화, 사상 관점, 좋은 행위, 도덕과 존엄성,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정의와 어떤 관계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 선포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발현한 것이지, 인류가 종합한, 사람이 생각하는 각종 긍정적인 사물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며, 인류가 의지해 생존해야 할 유일의 법칙이자 토대이다. 반면, 이른바 사람의 각종 '신조'에서 비롯된 것들은 전부 그릇되고 황당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정죄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원천이나 근거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성품과 본질을 발현한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므로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바라보고 인식하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며, 이 사실은 언제까지고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되든, 이 패괴되고 사악한 인류에게 어떻게 정죄받고 버림받든 한 가지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며, 사람은 그 사실을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류는 모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사람이 추앙하는 전통문화와 과학 지식은 영원히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인류의 전통문화와 생존의 길은 시간이 바뀌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진리로 변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 말씀 역시 인류가 정죄하고 망각했다고 해서 사람의 말이 되지는 않는다. 진리는 영원히 진리이며, 이 본질은 언제까지고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사람이 종합한 그 속담들의 기원은 사탄이고 사람의 상상과 관념이며, 혹은 사람의 혈기와 패괴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긍정적인 사물과 어떤 관계도 없다. 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본질의 발현이자 하나님 신분의 발현이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들을 선포했겠느냐? 왜 이 말씀들을 진리라고 하겠느냐? 만물의 모든 법칙과 규율, 근원, 본질, 본모습, 비밀은 다 하나님이 주재하며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그 모든 규율과 본모습, 사실,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근원을 알고 있고, 그 근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만물에 대해 내린 정의만이 가장 정확하다. 또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류가 살아가는 기준이자 원칙이며, 인류가 의지해 생존하는 진리이자 법칙이다. 반면, 인류가 사탄에게 패괴된 후 의존해 살아가는 사탄의 법칙과 이론들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위배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법칙과 규율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사탄에 속하는, 사람의 각종 이론은 다 사람의 관념과 상상 속에서 생겨난 것이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먼저, 사탄은 진리를 사칭한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을 교란하고 파괴하고 짓밟는다. 그렇기에, 사탄에게서 온 것들은 사탄의

본질과 너무도 어울리며, 사탄의 사악한 속셈과 위선, 위장, 영원불변한 야심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패괴된 인류가 사탄에게서 비롯된 그 철학과 이론을 분별하든 못 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떠받들고 퍼뜨리고 추종하든, 패괴된 인류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추앙하고 숭배하고 전해 왔든 그것이 진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것의 본질과 근원, 원천은 사탄이고, 하나님과 진리에 적대하는 사탄이기에 영원히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부정적인 사물이다. 진리와 대조해 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사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리로 폭로하고 해부하면, 그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굳게 설 수 없고, 아주 빨리 정죄되고 버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하나님이 지은 인류의 정상 인성의 필요에 부합하지만,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것들은 인류의 정상 인성의 필요에 위배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며, 과격하고, 편협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강퍅하고, 흉악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안하무인이 되는데, 그게 심각해지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며,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초인이나 비범한 사람, 고급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사람의 인성과 본능을 왜곡한 것이다. 진리는 사람이 더 본능적으로 정상 인성의 규율과 법칙,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한 모든 규율대로 생존하고 살아가게 한다. 하지만 그 이른바 속어나 사람을 미혹하는 가르침들은 사람의 본능에 위배되며, 하나님이 예정하고 제정한 법칙에서 벗어나게 한다. 심지어는 사람이 정상 인성의 궤도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일, 정상인이 행해서도,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이 사탄의 법칙들은 사람의 인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상 인성과 정상 인성의 본능을 상실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탄의 법칙은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행복은 자신의 두 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재와 사람의 본능에 위배된다. 사람의 몸과 본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혹은 운명이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이 사탄의 법칙들에 기대면 버텨 낼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끼며 한계를 뛰어넘고,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 결국 어떤 사람은 정신이 분열된다. 지금 대입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무거운 압박감을 견디고 있다. 사람의 신체적 상황과 심리적 자질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응하지 못해서 끝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이 분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신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등 온갖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초래되었겠느냐?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명예와 이익을 좇게 하고, 사람을 망가뜨린 것이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제정한 규율을 따라 순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정해 놓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면, 정신 이상이 생기겠느냐? 그렇게 큰 압박감을 받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게 한다. 그럼 사람은 압박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오직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 인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한 그 규율들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지만, 사탄은 그러지 못한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위배하게 하고, 초인이나 능력자가 되라고 한다. 이는 사람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사람은 모두 정상적이고 평범한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초인이나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는 사람을 능욕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네 야심과 욕망이 아무리 커도 초인이나 비범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네가 스스로를 아무리 엉망으로 망가뜨려도 초인이나 비범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사람이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일이다. 네가 하나님이 제정한 법칙과 규율대로 생존하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허튼소리를 택해 초인이나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시달림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사탄의 능욕과 유린, 패괴를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한다면 네가 감내해야 할 것은 자업자득이고, 그래도 싸다. 그것은 네가 원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입 시험을 볼 때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세 번 더 보지만 계속 합격하지 못해서 미쳐 버리고 만다. 이는 자기가 자초한 일 아니겠느냐? 너는 왜 대입 시험을 보려고 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겠다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버려라.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올바른 목표로 바꾸면 압박감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네가 사탄의 패괴를 받아들이고 그 사상 관점을 전부 수용한다면, 네 몸은 갖가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도 싸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이 결과는 너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너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게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명확하게 밝혀 주었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몸과 의지력, 심리적 자질이 감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데, 어떻게 운명을 손에 쥘 수 있겠느냐? 사탄은 이렇듯 갖가지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과 사설, 궤변으로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 그 긍정적 에너지를 전부 받아들여야 해.' 이는 전부 마귀적인 말이다. 이방의 마귀 세계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가 있겠느냐? 전부 부정적인 에너지이자 악성 종양, 시한폭탄이다. 네가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른 안 좋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사탄에게 시달림 받고 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네가 사탄을 따르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리 있겠느냐? 사탄은 너를 해치고 네게 독소를 주입할 뿐이다. 하나님은 너를 구하고, 사탄은 너를 해친다. 하나님은 네 병을 치료하고, 사탄은 네게 독을 주입해 병들게 한다. 네가 사탄의 독소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이제 다른 주제를 교제해 보자.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다

1. 무엇이 하나님의 이익이고 무엇이 사람의 이익인가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에 관해 교제하도록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을 강조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매사에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는데 무척 이기적이다. 게다가 그들은 일을 처리할 때 늘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자기 이익을 지키며, 심지어는 말을 빙빙 돌려 하나님 집에 뭔가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사욕을 채운다. 여기에서 중심 단어는 무엇이냐? 무엇에 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익입니다.) 그럼 이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익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사람에게 이익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지위, 명예,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남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이 밖에, 물질적인 측면도 있다. 일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과 이점을 취하고, 하나님 집의 물품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들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이익만을 취하려고 한다. 그것이 정신적인 측면의 이익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측면의 이익이든 끝없이 탐내며, 전부 독차지하려고 든다. 이익과 관련된 일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며, 이익은 모든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매일 접하는 모든 일은 다 이익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일에 관해 논할 때 어떤 이익과 관계가 있겠느냐? 두 사람이 어떤 일에 관해 논하는 것은 누구의 말재간이 좋고 누구는 말재간이 좋지 않은지, 누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누구는 무시당하는지 등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말하는 방식에 따라 그로 인한 결과도 달라지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이익과 연관된 것 아니겠느냐? 그럼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온 힘을 다해 뽐내고, 머리를 쥐어짜 할 말을 잘 생각해서 명확히 이야기함으로써 더 조리 있는 말로 듣는 이가 기분 좋게 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느낌을 줘서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말재간과 머리,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일종의 이익이다.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또 어떤 부분과 관계가 있겠느냐? 일을 처리할 때 사람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궁리하며,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롭고 어떻게 하면 이롭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더 큰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이익을 잃지 않게 될지, 어떻게 해야 최고의 명예와 물질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한다. 이는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쟁취하려는 두 가지 측면의 이익이다. 사람이 얻으려는 이익은 다음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둘 뿐이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감탄을 자아내며 마음을 얻는 것이다. 때로는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물질적인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어쨌든 사람의 명망, 지위, 명예,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사람의 이익이라는 범주에 속하며, 사람이 추구하는 이익이다.

이러한 이익 추구의 성질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왜 이런 것을 추구하겠느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정당하겠느냐? 합리적이겠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겠느냐? 그것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의 지위와 명망, 손안의 권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모든 대가를 불사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네게 지위를 준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치욕이 아니라 네 명예가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너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피조물에게 어떻게 요구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익을 어떻게 대하라고 요구하겠느냐?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익을 버리라고 한다. 이는 무척 개괄적인 말이다. 이 밖에, 하나님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에게 적절한 실행의 길을 주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인지, 물질과 명리를 대할 때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 주었다.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이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지만, 그 행간에는 패괴된 인류의 이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착실히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에 관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저희, 사람의 이익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저희, 사람의 이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저희도 인권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작은 이익 정도는 주셔야죠. 왜 저희에게는 조금도 남겨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도 이기적이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은 너무도 패역적이며 대역무도하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말로,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마귀만이 어떤 패역한 말도 다 내뱉을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고 싶어 일을 좀 하고 성취를 거둬 모두의 숭배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야심이라고 하시지요. 또 사람이 좀 이익을 얻고 좋은 것을 먹고 호시절을 보내고 육적인 안일을 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폼 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 이익을 충족하는 거라며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부 내려놓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의 요구에 반발하며, 이런 일에서 항상 하나님과 충돌한다. 이는 다음 상황과 같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느라 반평생 고생하면서, 병에 걸려 몸이 망가지면 자식이 기댈 곳이 없을까 봐 영양제를 사 먹으니 철없는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새 옷을 못 산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엄마 아빠는 왜 영양제를 사는 거죠? 돈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 갈 때 써야죠."라고 말한다. 이 말은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느냐?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육적인 안일을 누리기 위한 것도, 좀 더 편하게 오래 살면서 훗날 자식 복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부모가 위하는 것은 자식이다. 그런데 자식은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를 책망하니, 이는 대역무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와 충돌하며, 심지어는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이는 진리를 깨닫는 것과 연관이 있다. 사람이 자기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는 행동이 왜 하나님에게 정죄되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이기적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가난하고 불쌍하게 만들기 위해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와서 사역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위함이고,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이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게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사탄에게 깊이 패괴되어 모두 패괴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숱한 고난을 겪어야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모두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호시절을 보내고 육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고만 하면서 진리 추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정결케 되어 구원받을 수도 없다. 구원받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재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이 육적인 누림을 탐할 때겠느냐? 그렇지 않다. 진리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적인 이익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이며,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이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이 일단 진리를 얻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언제든 임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복은 사람이 상상하는 육적인 누림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크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모두 눈먼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왜 늘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라고 하겠느냐? 누가 이 일에 관해 설명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사탄에게 패괴되었고, 사람의 이익은 모두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이런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줄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실제적인 부분이 좀 있구나. (제가 조금 보충해 보겠습니다. 저는 명리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무척 컸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으니 책임자로 발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떨어지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바람조차 이뤄 주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그 후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했고, 제가 많은 경우에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면서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켜 형제자매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 생명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사역에도 손실을 가져다주었지요. 저는 명리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관이나 추구 목표가 아니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주입한 잘못된 관점임을, 이런 식의 추구는 무척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척 위험한 길이고, 그런 식의 추구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무척 위험하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위험'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겠느냐? 그것은 어떤 길이겠느냐?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추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위와 명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네 바람과 포부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추구도 아니다. 하나님은 네게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고집을 부리면서 네 멋대로 군다면, 마지막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럼 무엇이 위험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편,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또 보충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 제가 보충해 보겠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게 하는가?'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두 번 성육신하여 하신 이 모든 사역과 현재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사역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사실 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며 본분을 이행하면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박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켜서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훌륭하다. 너희가 교제한 내용의 대략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옳다. 자신의 소소한 체험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이론적인 각도에서 말한 사람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익은 정당하고, 사람의 이익은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이익이야말로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람의 이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의 이익'이라는 단어와 주장, 이 사실을 사람이 누려서는 안 된다. 반면 하나님의 이익은 지고지상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데 치우쳐 있다. 사람이 이해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해야 하지만, 사람의 이익은 무시당하고 박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익은 그리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에게는 패괴 성품이라는 근본 원인이 있고, 또 내면에 패괴 성품이 섞여 있기에 사람의 모든 이익은 어떤 각도에서 보든, 형태가 있든 없든 전부 정당하지 않은 범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내려놓을 수 있든 없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익을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는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이익인지 교제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이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본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나님 집'과 '교회'는 어떠하냐? 하나님 집은 범주가 꽤 큰 편이며, 교회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에 등호를 붙여도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 교회의 행정 법령, 하나님이 반포한 행정 법령은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두 같다. 이런 각도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이익에는 등호를 붙여도 된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 있기에 하나님 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의 선민들이 있기에 교회가 생긴 것이다. 교회는 비교적 구체화된, 하나님 집의 '하부 기관'이다. 하나님 집은 꽤 넓은 의미를 지니며, 교회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느냐? 말해 보아라. 등호를 붙여야겠느냐? 모르겠느냐? 그럼 일단 등호를 붙이고 분석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익이다. 만약 이를 하나님 집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나님 집은 하나의 명칭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대표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역시 안 된다. 교회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형제자매의 영광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면 큰일이다. 사람은 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집과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에 등호를 붙이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부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일부 사역, 교회의 일부 사역 이 세 가지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느냐? 예컨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이다. 이 부탁이 하나님 집으로 하달되었을 때, 이 사역과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부탁 또한 하나님 사역의 일부이다. 이 구체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에는 등호를 붙일 수 있다. 이 부탁이 다시 교회로 하달된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 중 하나는 하나님 본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집, 교회에 등호를 붙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탁,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등호를 붙일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증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 하나님 집, 교회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집과 교회는 그런 증거와 영광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 등호를 붙일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역이나 부탁과 관련된 것에는 등호를 붙일 수 있다. 일전에 우리는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에 관해 교제하며 적잖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이익에 속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교제하겠다. 명사여도 괜찮고, 말이어도 괜찮으며, 하나님의 본질이나 신분과 관련된 것이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확실히 맞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은 증거이니 말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지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키려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겠느냐? 과연 무엇이겠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려는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은 하나님이 6 천 년이라는 기간에 하려는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음 받은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익에 대해 사람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마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이다. 이제 하나님 집의 이익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하나님 집의 이익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증거를 지키는 것이 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맡긴 부탁 중에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맡긴 가장 큰 부탁은 하나님 집의 가장 큰 이익이다. 그럼 그 이익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이 인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루어짐에는 당연히 여러 측면이 포함된다. 그럼 어떤 것이 포함되겠느냐? 교회가 세워지고 형성되는 것, 교회의 각급 리더 일꾼이 등장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의 여러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확장 사역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교회의 이익과 연관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집, 교회의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막힘없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사람 가운데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널리 확장되고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의 근본 취지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 시대와 각 단계에 하는 사역이 막힘없이 펼쳐지고 확장될지, 인류 가운데에서 순조롭게 전개되며 진행될 수 있을지와 관련이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과 교회의 이익이 확보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거 또한 확보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집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막힘없이 펼쳐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과 교회의 이익은 분명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집과 교회의 이익이 큰 피해를 입거나 제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분명 큰 장애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익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익인지 교제를 마쳤으니, 이제 무엇이 사람의 이익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의 이익에 관해서는 방금 어느 정도 다루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이익이라는 정의 측면에서 그 성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성질을 규정해 보자.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사람의 이익을 내려놓으라고 하겠느냐? 설마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는 것이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이겠느냐?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겠느냐? 그런 것이겠느냐? 방금 이야기한 사람의 이익 몇 가지를 통해 볼 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모호한 말이다. 자기 자신이란 누구냐? (사탄입니다.) 만약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살아가고, 성품 변화를 이뤄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합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변화되고 구원받기 전까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육과 관련된 갖가지 측면과 명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진리를 적대시하고 맞서며 진리와 어긋나고 반대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추구 목표의 본질이 두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 자신을 과시하여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것,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의 본분 이행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추구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것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느냐?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든 채 개인적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을 하며, 자신의 작은 집단과 소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파괴하는 것이다. 그들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우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다. 또한,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하나님 선민을 곁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선민을 해치고 망치게 된다. 그럼 결국 교회 사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교란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여 초래하게 되는 결과이다. 그들의 그런 본분 이행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면 결코 진리를 추구할 수 없고, 절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수도 없다. 그저 명리와 지위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명리와 지위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와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갖가지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걷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며, 사탄과 협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성질이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잘못은 추구하는 목표가 사탄에 속하는 것,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데 있다. 사람이 명리와 지위,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이자 출구, 나아가 사탄의 화신 노릇을 하게 된다. 교회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사역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하나님 선민들의 정상적인 추구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릴 수 있다. 또 본분 이행 과정에서 늘 교회 사역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형제자매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편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며, 하나님이 영광과 증거를 얻게 한다. 이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의 추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을 얻게 되고, 그의 추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추구는 하나님 눈에 긍정적인 것, 빛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구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크나큰 이익을 가져다주며, 교회 사역에도 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추진 작용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 그리고 교회의 이익에 관해 교제하겠다. 일단 이 세 가지 사이에 공통된 점을 감당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이익에 대해 말할 때 이 세 가지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는 차치하자. 먼저 하나님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방금 하나님의 이익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사역의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는 하나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과 좀 거리가 있으니 잠시 차치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성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느냐? 인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이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주제,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 즉,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사탄에게 깊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사탄에게 패괴되어 사람다운 모습이 없는 자들, 사탄의 패괴 성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으로 점철된 자들을 구원하여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사물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 낼 수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람이 서야 할 자리인지 깨닫고 알게 한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사역의 기본 내용으로, 너희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이 사람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구원해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의 갖가지 패괴된 내적 상태를 폭로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편차와 관념을 바로잡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 내도록 인도하는 일이 이미 하나님 선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한 성품을 폭로하고, 초인이나 위인이 되는 것을 막으며, 진정한 피조물,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한다. 또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본질을 폭로하여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몰골을 보게 하며,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실제로 이끌어 들어간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전통문화의 황당무계한 점과 사람에 대한 속박, 해악을 폭로함으로써 사람이 전통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귀결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사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이끌어 세심하게 지도하는 한편,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리하여 사람이 진정한 처신의 원칙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탄의 사악한 흐름과 각종 사탄의 철학, 사탄의 독소가 가져다주는 해악에서 벗어나게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측면의 사역을 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해서부터 오늘날 말세 심판 사역을 하기까지, 이 세 단계의 사역을 너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6 천 년 경륜 사역을 하는 성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정해야겠느냐? (그것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사업입니다.) 그렇다.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이 사역의 기간은 6 천 년에 달한다. 이 6 천 년 동안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했으며,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줄곧 이끌었다. 하나님이 한 이 사역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성질을 볼 때, 하나님의 이익은 가장 정의롭고 정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익이 보장받는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류는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 내며, 하나님이 제정한 만물의 법칙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을 누릴 것이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경영 사역의 가장 큰 이익은 마지막에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사업 아니겠느냐? 이는 부정할 여지도, 의심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주고 하나님 사역의 확장을 가로막는 것을 불사한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는 분명히 사악한 무리이자 마귀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공급만 해 줄 뿐 바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이로운 사역을 하고, 또 가장 정의로운 사업을 하지만 사람은 호의를 받아들이지도, 감사히 여기지도 않으며 보답할 줄도 모른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파괴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자는 일말의 양심도, 이성도 없는데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자는 영락없는 마귀 사탄이다! 하나님의 이런 행사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겠느냐?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으면 양심도 없다. 이런 사람은 양심도, 지각도 없는 존재다. 인성 안에 양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마귀, 사탄이다. 이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불사하며, 지치지도 않고 사역한다. 사람이 아무리 오해하고 의심을 품어도 줄곧 참으면서 사람에게 공급하는 한편, 갖가지 측면의 진리를 몇 번이고 이야기하여 사람이 조금씩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한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받고 몇 방울 눈물을 흘려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언제나처럼 자기 이익과 복받기를 추구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은 양심도, 이성도 없는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양심과 이성, 인성이다. 하나님은 극도의 인내로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늘 하나님과 겨루고,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또 언제나 폼 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에게 조금이라도 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외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건 내가 한 사역이 낸 성과야. 나는 힘도 쓰고 대가도 치렀다고. 그런데 왜 나를 증거하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를 나눠 가지려 한다. 사람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영광'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창조주에게만 돌릴 수 있다. 그것은 지음 받은 인류와 상관이 없다. 설령 사람이 힘을 들이고 협력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 역사의 인도하에서 이뤄진 일일 뿐이다. 성령 역사가 없었다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증거'라는 두 글자도 역시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증거'가

명사든 동사든, 이 두 글자는 원래부터 지음 받은 인류와 관계가 없다. 오직 창조주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사람의 증거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이기에 하나님은 얻을 자격이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것은 전부 성령이 깨우치고 이끌고 인도해 준 결과이다. 사람의 본성을 놓고 보면, 진리를 좀 깨닫고 사역을 좀 하는 순간 교만해진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약간의 은사와 특기, 익힌 업무 기술, 잔재주가 있으면 안하무인 격으로 굴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를 나눠 가지려 든다. 이는 비이성적이지 않으냐? 너무도 비이성적이다. 이는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부류, 초인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본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 낮은 것은 낮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은 원래 낮으며 비천하다. 반면 하나님의 낮음은 자신을 낮춘 것이다. 사람한테 낮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나마 높여 준 편이다. 사실 사람은 비천하다. 사람은 늘 명리와 지위, 하나님의 선민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데, 이는 사탄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사탄의 본성이다. 이런 자는 조금의 차이도 없이 진짜 사탄의 후예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병과 능력을 주어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전부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사탄, 천사장의 능력이 사람보다 부족하겠느냐? 그것이 늘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어떠하냐? 마지막에는 무저갱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정의의 화신이고, 사탄, 마귀, 천사장은 영원히 사악함의 화신이자 사악한 힘의 대표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정의롭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비범하고 초월적인 일면이다.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얻는다고 해도 그저 작디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인류와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제정한 이 모든 규율과 법칙 속에서 질서 있게 생존할 뿐이며, 또한 이 모든 규율과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할 뿐이다. 사람은 그 어떤 생물을 창조할 수도, 나아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권병과 재능을 주든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이 지나도, 몇 세대가 지나도, 인류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 아래에서 생존할 뿐이다. 이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교제를 듣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능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성숙해지고, 많은 문제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얼마간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강해졌다고, 하나님의 주재가 필요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신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런 생각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어째서 좋지 않으냐?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럼 좋은

현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살면서 점점 더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야. 개미만도 못하지. 아무리 강해져도, 아무리 존엄성을 갖추고 있어도, 많은 도리를 이해하고 생각이 성숙해져도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를 뛰어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살면서 점점 더 하나님 권병의 위대함과 하나님 권병의 전능을 느끼는 한편, 사람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정상이다. 지금 너희는 이런 내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 아직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는 여전히 발버둥 치고, 이익의 언저리에서 배회하며,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작은 신호를 보낼 때도 있다. '하나님의 이익은 왜 나에게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게 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증거하게 해 주지 않으실까? 나도 대가를 치르고 공을 세웠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상을 주실까?' 그러면서 늘 자기만족과 우쭐거리는 심리 상태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적 상태는 비정상적이며, 이는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겠느냐? 패괴 성품이 또 팽창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얌전하고 겸손하지만, 큰일을 좀 해서 공을 세우면 밑천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왜 내 공로를 보고하지 않는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은 증거하면서 왜 나를 소개하지 않는 거지?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개는 해도 되잖아. 나, 모 자매는 하나님을 25 년 동안 믿었어. 마흔다섯인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면서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교회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중국 공산당 정부에 수배되어 쫓겨 다니고 각지에서 숨어 다녔어. 10 개 이상의 성(省)을 떠돌다가 해외를 전전했지.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집에서 중요 사역을 맡아서 책임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에 많은 건설적 건의와 아이디어, 구상을 제시했어. 교회 사역의 추진과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에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어. 왜 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게 재능을 발휘할 환경과 장소를 마련해서 모두가 나를 이해하고 알게 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늘 우리를 억압하시는 걸까? 하나님 집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도, 그렇게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유쾌하지도 않아!' 그녀는 편안하고, 해방되고, 유쾌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해방되고, 유쾌할 수 있겠느냐? 너를 1 위에 올리면 되겠느냐? 그런 다음 "이 사람은 세계적 명의로, 국가 명의 1 등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명의 대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지요. 하나님 집에 와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인재고요. 최근에는 윗선 리더가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면 그녀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나는 인재야. 예전에는 유명인이었고, 하나님 집에 온 후에도 여전히 유명하지. 원래 금은 어디를 가도 빛나는 법 아니겠어?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내 재능은 감출 수가 없는걸! 하나님은 증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사실들이 나를 힘 있게 증거했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어떠냐? 사람이 명리를 추구하면서 하루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명리와 지위에 결박되어 진정한 해방감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네가 명리라는 족쇄에 결박되고 제약되고 얽혀 있는 한, 네 진리 추구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 것이다. 혹자는 "퇴보하지는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것이다. 이는 네 본성 본질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시종일관 성장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악을 행한다면 단언컨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고, 지위가 생기는 순간 야심이 튀어나온다. 사실 그런 환경이나 지위가 없으면 그에게 야심이 없겠느냐? 그래도 있다. 그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본질을 지니고 있기에 야심을 숨길 수 없다. 적당한 환경이 갖춰진 순간 바로 '폭발'할 것이다. 자제하려고 해도 자제되지 않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며, 마귀의 추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이는 드러난 것이다. '드러나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훈련의 기회를 주었지만 네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 드러나도 싸지 않으냐? 이는 네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너를 드러내고 도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네 속셈과 야심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사람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라는 이 측면의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교제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의 이익이란 무엇이냐? 명리와 지위, 복받으려는 야심과 욕망, 그리고 허영과 체면, 가정, 가족, 물질적인 이익 등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이익의 본질은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사탄에 속하며,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파괴한다. 반면, 하나님의 이익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며, 그것은 정의로운 사업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정당하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이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익을 지켜야만 그 과정에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제정한 이 모든 규율과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준 만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인류는 그래야 행복을 얻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한 이 모든 것은 정의로운 사업 아니겠느냐? 더없이 정의롭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과 경영, 인류 구원과 관계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 예컨대 복음 전도, 영화 촬영, 간증문 작성, 동영상 제작, 하나님 말씀 번역, 정상적인 교회 생활 질서 유지 등 이런 사역은 모두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하나님 선민의 삶을 보장하는 사역 분야도 있다. 이는 후방 지원 사역처럼 가장 기초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집의 주요 사역과 큰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무척 중요하며, 반드시 여기에서 다뤄야 한다. 정상적인 의식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자 정상 인성 안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가장 정당한 육의 필요이다. 이 필요를 하나님은 박탈하지 않고 지키려 한다. 하나님이 지키려는 것에 대해 만약 네가 늘 교란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관념과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대립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무너뜨리고 파괴하려 하거나 그 속에서 이익을 얻고 속임수를 쓰고 횡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네게 노하지 않겠느냐?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징벌받게 됩니다.) 그건 확실하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한 것은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짓,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에 반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는

크나큰 악이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짓,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짓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네게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기도 모르게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질투하고 싸우고, 고의로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파괴하는 짓을 저지른다면, 이는 뻔히 알면서 죄를 지은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은 6 천 년 경륜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모든 심혈을 쏟아부었다. 만약 네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고의로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또 하나님 집에 해를 끼치는 것을 대가로 개인의 이익과 명망, 지위를 추구한다면, 이를 위해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불사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가로막고 파괴한다면, 심지어 하나님 집의 물질과 재물에 크나큰 손실을 끼친다면 이런 사람을 용서해야겠느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모두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류의 사람에게 노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노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을 구원하며, 이렇게 큰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 모든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은 이 가장 정의로운 사업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심혈을 자신이 구원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전부 쏟아부었고, 자신의 모든 기대를 이 사람들에게 걸었다. 그의 6 천 년 경륜이 마지막에 얻으려는 성과와 영광은 전부 이 사람들에게서 실현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고 교란하며 이 일의 결과를 파괴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것 아니겠느냐? 너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따르며 구원받기를 추구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감찰과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순종하겠노라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의 각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다. 네 방해와 교란, 파괴 때문에, 네 실수나 책임 소홀 때문에, 혹은 네 사욕 때문에, 네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 등 여러 부분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사역이 심각하게 교란되고 파괴된다면 하나님이 네 생명록에서 네 결말을 어떻게 저울질하겠느냐? 너를 어떻게 규정하겠느냐? 공정하게 말하면 징벌받아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인과응보라고 한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람의 이익이란 무엇이냐? (사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익은 사실 사람의 사치스러운 욕망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부 시험이고 허상이며, 사람을 시험하는 사탄의 미끼이다. 명리와 지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에게 협력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 다양한 환경을 일으켜 사람을 시험하고 교란하고 미혹하는 한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협력하고 사탄을 따르면서 고의로 하나님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게 된다. 또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책망과 훈계를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해서 교회의 각종 사역의 진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크나큰 해를 끼친다. 이 죄악은 너무도 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지금 너희의 마음속에서는 교회의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경륜의 확장과 관계가 있느냐?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사역은 큰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에게는 사역이고, 사람에게는 본분이다. 복음 사역 외에도 영화 제작 사역, 번역 사역, 찬양 및 각종 문서 사역이 있다. 지금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많은 사람이 다 이 사역들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사역들 중 어떤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혹자는 "음악은 음을 다루는 일이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곡조가 없어도 똑같이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으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맞지 않겠느냐? 다양한 영상 작품에 음악이 없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것 외에도 모든 영화, 뮤직비디오, 합창, 뮤지컬, 하나님 말씀 낭송 영상 등에 다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이 겉으로 보기에는 음을 다루는 일 같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면 하나님 말씀 전파 성과가 더욱 좋아지며, 복음의 확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고 해도 배경 음악이 있으면 효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본분은 무척 중요하다. 또 혹자는 "그럼 영상 사역은 중요한가요?"라고 말하는데, 영상 사역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 효과 기술로 제작한 일부 대형 장면은 어떤 소재로도 대체가 불가능하고, 촬영해 낼 수도 없다. 이는 현대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현대 예술을 논하다니, 이는 시대에 발맞추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하는데, 뭐가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냐? 이는 사탄을 이용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형제자매를 이용해 힘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과 예술 측면의 업무를 익히고 이러한 업무 지식을 복음 확장과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에 쓴다면, 네가 배운 것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네가 그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복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본분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문서 사역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저희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얼마 안 되고요. 저희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을 밝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너를 볼 수 있는지, 너희에 관해 언급했는지가 중요하냐? 너희에게 어떤 진리를 공급해 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빠진 설교 교제가 어떤 것이 있더냐? 사실, 문서 사역은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업무 측면에서도 그리 강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써낼 수 없다. 너는 글쓰기 지식을 갖추고, 말을 규범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으며, 한 작품의 구조와 맥락을 써낼 수 있겠지만, 구조가 그 자체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 내용으로 과연 무엇을 쓸지, 과연 어떻게 써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등은 너희가 진입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을 전파하는 기초에만 머무른다면, 너희의 분량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증거하고 사람의 관념을 깨부술 수 있다면,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 외에도 생명 진입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고, 사실과 이야기,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된 상황 설명으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각종 내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패괴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는지 등을 인식하게 한다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희의 본분 이행은 더없이 가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난관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의 생명 진입은 하루 이틀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일이 처음 말할 때부터 의식을 가질 때까지 1~2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모호하게 의식할 때부터 분명하게 의식할 때까지 2~3 년, 3~5 년의 시간이 걸리며, 분명하게 의식할 때부터 그 일의 성질을 의식하게 될 때까지 2~3 년이 걸린다.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데까지는 2~3 년이 더 걸린다. 무감각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자질이 좀 좋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 주동적으로 구하는 데 또 2~3 년이 걸린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생이 지나가는 것이다. 생명 진입은 이렇게 느리다!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속도는 진리를 체험하고 인식하는 속도를 크게 뛰어넘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체험과 인식은 영원히 느리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머리만 쓰면 된다. 기억력과 이해력이 좋고 자질이 좀 있으며, 지식적인 기초가 갖춰져 있으면 아주 빨리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한 후에 바로 인식이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해했다고 해도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데 머무를 뿐, 일을 할 때는 여전히 잘되지 않는다. 왜 그렇겠느냐? 대부분의 경우, 네가 아는 도리는 일이 닥쳤을 때 쓸 수도, 연관 지을 수도 없다. 그 결과, 몇 번 실패하고, 적잖은 손해를 보며, 여러 번 길을 잘못 들기도 한다. 많은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갖가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몇 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네 얼굴은 주름으로 덮일 것이다. 이것이 무척 느린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생명 성장은 무척 느린 일이다. 사람이 깨닫는 진리는 사람의 본성 본질, 사람의 생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등과 연관되며, 이는 또 성품 변화나 생명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네 생명이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그리 쉬울 리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사람이 주동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게다가 외부 환경의 시련을 겪어야 하고, 개인적인 추구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충분한 자질과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너를 깨우치고 인도해 주며, 형벌과 심판, 책망과 훈계를 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들의 질책이 있어야 하고, 너 역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탄에 속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진리에 속하는 긍정적인 사물들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다. 혹자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 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갖춘 것은 아니며, 진리가 네 생명이 된 것도 아니다. 네가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게 네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겠느냐? 어쩌면 한 달 후, 네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너는 처음 듣는 것 같다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러한 생명의 분량을 갖추었다면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 반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항상 들어야 한다. 듣지 않는다면 네가 이해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며, 서서히 불신자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늘 듣고 보아야지, 적게 보고 들으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느낀 바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가끔은 2~3 일만 찬양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밖에 나가 산책하며 기분을 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분을 풀수록 마음이 더 흩어지기만 하고,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진리를 교제하면 생소하게 느껴지며, 교회 사역에 대해 말해도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2~3 일만 지나도 이렇게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너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네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진리를 네 생명으로 삼았다고,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또한, 간증문을 하나 쓰고 그런 체험이 생겼다는 이유로 네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 그것은 그저 네 기나긴 생명 체험 중 하나의 편린일 뿐이다. 그 편린도 한때의 기분이나 느낌, 바람, 포부에 그쳤을 수도 있다. 어느 날 네가 연약해질 때, 지난날의 간증과 서약, 인식을 돌이켜보면 낯선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저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큰 분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죠?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너는 네 생명이 아직 변하지 않았음을 느낄 것이다. 생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아직 성품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간증을 할 당시에는 너 자신에게 큰 분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성품 변화가 너무도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진리가 사람 내면에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삼으면 복을 얻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지금처럼 그렇게 수시로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심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며, 철저히 변화하게 된다.

인류가 너무 깊이 패괴되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는 너무도 귀하기에 하나님이 진리를 사람 내면에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진리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진리의 다양한 측면은 사람에게 너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지만 인류는 사탄에게 너무 깊이 패괴되었고, 내면에 사탄에 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진리를 사람 내면에 만들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사람 내면에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진리는 사람 내면에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올바른 태도와 관점을 지녀야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지난 두 단계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고,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으며,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온전케 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리는 사람 내면에 만들 수 있다.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람의 진리 추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겠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 말씀 한 대목을 묵상하는 한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교제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에게 가르쳐 주려는 관점과 가르침,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으면, 갖가지 일이 닥쳤을 때 너도 모르게 올바른 사상 관점, 실행 원칙을 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욥이 무엇을 했는지 보았느냐? 그의 자식들이 잔치를 열 때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식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즉,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은 피해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말은 하지 마라.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네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의혹을 싹트게 하는 것은 보지 말고 피해라. 너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사람, 네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 거리감이 생기게 하는 사람은 접하지 말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해라. 접했을 때 네게 유익과 도움, 공급을 주는 사람이라면 가까이해라. 네가 진리에 반감, 염증을 갖거나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너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저 그렇게 살 때까지 살면 되지. 모든 건 다 순리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자.'라고 생각하며 맹목적으로 그럭저럭 살지 마라. 하나님은 네게 환경을 안배해 놓고, 네게 자유 의지를 주어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네가 협력하지 않고, 늘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육체를 방종하고, 본분에 충성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접하며 그런 사람과 어울린다면, 최종 결과와 그 말로는 무엇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한가할 때면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구설수를 부르는 말을 한다.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멀리하지 않고 그런 일에 골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위험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시험을 마주할 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시험을 보면 멀리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그럴 분량이 없어 듣지 않을 거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저런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저들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차분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어.' 이런 모든 원칙, 근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라. 둘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인지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진리에서 빛 비춤과 깨우침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 본분에 있어서 네가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인도하여 늘 옳게 하고 원칙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보호받는 것이 최대 목표,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네가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에서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원칙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생명과 분량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만약 네가 늘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고 생명 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네 생명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생명 진입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본분 이행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생명도 성장하지 못한다. 혹자는 남들이 잡담하는 것을 보면 끼어들고 알아보려고 하며, 늘 수다쟁이 역할을 맡고 시비를 논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마음을 평온히 하고 무엇을 하느냐? 나무 인형이 되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또, 어떤 방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경우 그 방면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구하고, 어떤 방면의 사역에서 난제를 만난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해결되기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때 배워야 할 공과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한가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제 마음속에 계시고, 저와 함께하세요.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같은 도착 보고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한다면 이런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하느냐?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늘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고, 진심이 전혀 없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려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도착 보고를 하고 인사를 마치고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네게 맡겼음에도 종국에 너는 하나님과 무관하고 진리와 무관해진다. 이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를 깨우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너희는 진리를 추구하고 깨닫는 길을 알아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평온히 한 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평온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평온해진다는 것은 머리를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자신의 본분과 사역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평온히 할 때 네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교제했다. 특히 복음 전도 사역, 업무와 관련된 각 사역은 복음 확장 사역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 확장 사역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복음 확장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신이 이행하는 본분과 다른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대하는 것이겠느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적어도 고의로 파괴하고 교란하는 행위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일부러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끝끝내 고집하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면 이는 악을 행하는 것, 죽음을 자초하는 것으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빨리 분별하게 한 후, 악인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만약 악을 행한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가르치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형제자매들이 함께 질책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당장은 대체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계속 그에게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모두 함께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높여 주심 덕분에 이 본분을 이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교란하며 본분을 내팽개친다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당신은 본분 이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다. 이러면 어떻겠느냐? 만약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떠나보내라. 너희는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대다수는 감히 그러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교회 사역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서 정의를 지키는 것을 겁낸다. 이는 진리를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겁쟁이가 되어 교회 사역이 교란되고 방해받는 것을 보고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한다. 마치 자기와 무관한 듯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질책하거나 경멸하고 무시하면, 짜증을 내며 생각한다. '당신이 뭔데? 무슨 근거로 나를 질책하는 거야? 뭘 근거로 나를 무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보자고.' 그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 두고 눈에 새겨 두며, 거기에 대해 말을 하거나 태도를 밝히지 않고는 못 배긴다. 교회 사역이 가로막히고 교란되고 파괴되는데 그는 느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른 척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기적이고 비열할 뿐이겠느냐? 이 문제는 너무도 심각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인성이 없다고,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동하며, 거짓 리더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이익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고, 교회 사역이 가로막혀도 보지 못한다. 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여 엉망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그는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대충 뜨뜻미지근하게 한마디 하거나 좀 타이르고는 끝이다.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정의감이 있겠느냐?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자는 배은망덕한 것으로, 변절자이고 파렴치한이다!

방금 우리는 사람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이익의 본질은 무엇인지, 사람은 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익의 성질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의 이익은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마땅히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지키기 위한 것만도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진도와 성과, 정의로운 사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장 정의롭고 정당한 행위이자 행동 방식이다. 하나님에게는 행사이다. 지음 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에 어떤 관념도 가져서는 안 되며, 나아가 어떤 질책이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이익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측면의 진리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기초로 성립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편파성이 없으며 정당하다.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이익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이런 성질을 띤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절대'란 무슨 의미겠느냐?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겠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얻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의 이익은 지고지상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의 이익이 아무리 사악해도, 아무리 정당하지 않고 부정적이어도 그는 쟁취하려 한다. 누구를 희생시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는 자기 이익을 얻어 내고 쟁취하려고 한다. 이는 어떤 행위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행위이다. 사탄은 이렇게 행동한다. 사탄은 이 인류, 한 국가, 한 종족을 통치하면서 몇 명의 목숨이든 희생시켜 통치를 공고히 한다. 사탄의 이익은 무엇이겠느냐? 권세와 통치의 지위이다. 그럼 사탄은 통치 지위를 어떻게 얻고, 그 통치를 어떻게 공고히 하겠느냐? (모든 대가를 불사합니다.) 모든 대가를 불사한다. 즉, 이런 행동 방식과 수법이 외부에 정당하게 보이든, 정당하지 않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고 학살, 탄압, 당근과 채찍, 협박과 회유 등 모든 수법을 쓰고, 어떤 사람의 목숨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든 희생시켜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행위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행동한다.

오늘 교제한 이 말씀들이 너희 입맛에 맞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해부를 듣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지식인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말을 그리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님께서 지식에 대해 해부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자신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며, 사람과 일을 바라볼 때 지식의 관점에서 살피고 분석하여 치우치게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었지요. 지금은 지식인의 본질에 대해 어느 정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식인에 관해 한 이야기는 절대 어느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자신과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방향을 바로잡고 진입할 희망이 생길 테니 말이다. 열심히 추구해 보아라. 진리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데서, 조금씩 간단하고 단편적이며 얕은 진리를 깨닫고, 또 글귀와 도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점차 영적인 이해력이 생길 것이다. 진리와 실제를 깊이 생각하면 차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언제나 도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논리와 머리로 분석하면 도리와 이론만을 이해하게 될 뿐이다. 그것은 영원히 진리가 될 수 없고, 네게서 영원히 도리의 기초에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혹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은 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문법이나 문장 구조로 판단하면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지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지금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인류가 탄생한 후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 단락은 언어일 뿐 문장이 아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글을 쓰고 보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냐?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화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글이란 무엇이고 말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 글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와 관련된 지식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할 때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그가 말하려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되고, 사람이 진리를 듣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심지어는 문장 부호조차 필요하지 않다. 인류는 문장 부호와 글, 문법, 글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명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지식 범주에 속하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언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긍정적인 사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모두 옳으며, 문법적인 문제를 파고들거나 대조해 보고 해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 한 편, 한 단락,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진리 원칙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준 실행의 길은 무엇인지 이해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사할 때는 사람이 만든 틀이나 지식에 속하는 규범, 순수한 지식적인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전부 진리이다.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부 진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은 묵상하고 구하고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을 한다.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한다. '말씀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풀면 '한담하다',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려는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바로 이런 내용이다. 말씀의 성질은 대화의 방식으로 마음과 얼굴을 마주하고 명료하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입말이나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학적인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글을 쓰면 첫 번째 단락에 발단을 쓰고, 중간에 사건의 전개와 경위를 쓰며,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와 결말을 써야 한다. 완벽하게 이 형식에 맞춰 써야 글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이 첨삭하면서 상, 중, 하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 한 편은 내용이 좋고 수준 높은 문법을 활용했으며 신적인 언어를 쓴 데다가 문장 구조가 완벽합니다. 반면 이 말씀 한 편은 별로네요. 산만한 감이 있고 구조도 그리 안 좋습니다. 어떤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고, 심지어 몇몇 단어는 사람이 봤을 때 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는 치우치게 바라본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영원히 진리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행간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너는 이러한 것조차 보지 못한 채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연설문 같아야죠. 하나님은 입만 열어도 멋진 글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다. 너희가 듣기에도 피곤하고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말씀, 욥에게 한 말씀, 베드로에게 한 말씀, 모세와 요나에게 한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 말씀이 간단명료하지 않더냐? 그렇게 비범하고 추상적이고 위대하며 엄격한 어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을 보아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욥 2:6)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정제되어 있으며, 더없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질이다. 하나님은 교활한 술수를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범함, 존귀함, 권병, 능력은 꾸며 낸 것이 아니다. 어째서 꾸며 낸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는 누군가와 말할 때 거드름을 부리지 않고, 대단한 형상을 꾸며 내지 않으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탄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이상 네가 알아듣게 한다. 네가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할 것이고, 네가 노인이라면 노인들의 말로 이야기할 것이다. 네가 남성이라면 남성들이 자주 쓰는 말로 이야기할 것이고, 네가 패괴된 인류라면 패괴된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식과 구조로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유머가 들어가 있고, 때로는 반어법을 사용하며, 때로는 풍자하고, 때로는 해부한다. 또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온화하며, 때로는 네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책망한 후 위로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며, 진리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도 된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전부 진리이며,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없다. 늘 하나님의 말씀 방식과 구조 등에 관념을 갖고 연구하고 의혹을 품고 씁쓸해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 왜 저러시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네. 그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누구를 믿어야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불신파입니다.) 이는 불신파다. 불신파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연구한다.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알아내지 못한 채 '참도라면, 이렇게 믿어서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겠어?'라고 속 좁은 생각을 한다. 그는 '다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진리지? 나는 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더 살펴보고 들어봐야겠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듣고 이해한다'. '이 말씀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 실제 상황이야. 이 말씀들은 진리라고. 언어가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대중적이라서 지식계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가장 평범한 말로 취급당하는 거지. 어떤 말씀은 너무 수수하기도 하고. 지식계의 유명한 지식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 불가사의하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늘 이렇게 연구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너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믿고 높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반발하는 것이다. 반발하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당신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당신을 멸시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석하여 모두가 당신을 믿지 않게 되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찾아 믿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이런 자를 불신파라고 한다. 불신파는 대부분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런 가장 평범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도 얻지도 못한다. 그는 그저 연구할 뿐이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다가 진리를 얻기는커녕 구원받는 큰일에 지장을 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도태시키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

2020 년 1 월 17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2)

2. 적그리스도의 이익

오늘은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제 9 조에 대해 교제하겠다. 그것은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항목 중 일부를 교제했지만 그것은 서두에 불과하다. 먼저 첫 번째로 이익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교제했고, 두 번째로 사람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이익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관해 교제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이익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관해 교제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지난번에 교제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진리로, 각 측면의 이익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사람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 제 9 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을 두드러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교제하겠다. 주로 자신과 관계된 각종 이익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와 모습을 해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 성품은 과연 어떤 것인지 파악하게 하겠다. 이러한 각도에서 해부할 것이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의 이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제해 보자.

적그리스도의 눈에 하나님, 하나님 집, 교회는 그저 하나의 호칭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실제적인 존재 가치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을 멸시의 눈으로 보고, 개의치 않으며,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 자신의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늘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익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상세히 해부함으로써 이익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관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겠다. 먼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든, 악인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진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든 그들은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 또한 육체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인성 생활의 필요를 똑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 집이나 교회에서 사는데, 그들의 이익은 자신의 안위와도 연관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익인 자신의 안위이다.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익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이다. 이는 그의 권력과 연관된다.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익은 혜택이다. 이 세 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이익에 관해 해부하면 틀에 박히고

직설적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이 세 가지에 근거하여 교제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있느냐? 어느 정도 인식을 교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와 혜택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할 듯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교제할 때 너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보충하여라. 너희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교제하겠다. 어떠하냐? (좋습니다.)

1) 자신의 안위

먼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익인 자신의 안위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것의 의미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신변 안전이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가 매일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고 판결받고 잔혹하게 핍박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었지만, 큰 붉은 용은 종교계와 손을 잡고 줄곧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들을 극력으로 진압하고 박해하기에, 적그리스도도 자연히 이러한 거시적 환경에 처해 있어 체포될 상황이 오면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역시 수시로 자신의 안전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안전 문제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와 연관된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자신의 안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에 관해 교제하겠다. 그럼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해. 다른 누가 잡혀가도 나는 잡혀선 안 돼.' 또 그는 이 일을 대함에 있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구한다. 어찌 됐든 자신이 교회 리더의 사역을 하니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잡혀가지 않기 위해, 모든 박해에서 벗어나 자신이 안전한 환경에 처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수시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안위가 걸린 일에서만 하나님에게 진실로 의지하고 그 일을 진실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 일에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진실하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데 신경 쓸 뿐, 교회 사역이나 자신의 본분은 신경 쓸 겨를도 없다. 그들의 사역 원칙은 자신의 안전을 1 순위에 두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안전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역한다. 겉으로는 무척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것 같고, 엄청난 '책임감'과 '충성심'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역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쉽게 문제가 생기거나 큰 붉은 용에게 들킬 수 있다면, 그들은 핑계를 대며 그 일을 거절하고 기회를 봐서 도망친다. 위험하거나 위험한 조짐이 있기만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을 빼려 한다. 본분을 내팽개치고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한다. 그들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위험이 보이는 순간 교회 사역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어떤 해를 입든 신경 쓰지 않고, 또한 형제자매들의 안위 역시 개의치 않으며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바로 내팽개칠 준비 말이다. 그들은 자신이 도망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들은

마음속으로 '가장 좋은' 계획, 스스로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바로 위험이 닥치거나 체포되면 자기가 아는 것들을 전부 털어놓고 깨끗하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체포되고 고문받고 형을 선고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오래전에 사탄과 타협했다. 그들은 사탄 정권의 세력을 몹시도 두려워하며, 혹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일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은 더더욱 두려워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자신의 안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도 없어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열정과 '충성'을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언제든 체포될 수 있고, 공직에서 파면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몹시 조심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는다. 주변에 약간의 변화라도 있으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하나님 말씀 책,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된 물건들을 급히 교회에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체포되면 유다가 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위험해 언제든 유다가 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혹자는 말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큰 붉은 용의 나라, 중국이라는 사회적 배경에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는 박해받고 체포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주제를 꼭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수시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국가 정권이나 이방인, 종교계가 하나님 집에 대해 어떻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치를 취하는지 언급하면, 마음속 깊이 강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더욱이 그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얼마나 자유로웠을지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내심 중도에 그만두자고 생각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부류는 시시각각 자신의 안위를 신경 쓰며, 자신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목숨과 안위는 그들이 마음 깊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과 온 인류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정죄할 때, 이 부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정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며, 그때 하나님이나 하나님 집, 교회와 선을 긋지 못해 안달이 난다. 심지어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집, 교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럴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나아가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수시로 핍박받고 체포될 위험에 놓이며, 자신의 안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여전히 비슷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종교계의 비방과 정죄를 마주하게 되며, 나아가 교회에 대한 각국 정부의 냉대나 몰이해의 말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게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실한지 의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늘 자신의 안위를 고려하기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집에서 착실하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들이 정말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해외에 나오면 큰 붉은 용의 마수에서 벗어난다는 것 아니었나? 해외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었나? 모든 게 자유롭고 편한 것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해외에서 본분을 이행하게 되었는데, 왜 똑같이 열악한 환경을 마주해야 하는 거지? 왜 해외에서도 이런 공과를 배우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야?'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발하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정말 참도(道)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왜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안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런 몰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으로 변한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한다. 위험을 좀 감수해야 하는 본분을 안배하기라도 하면 "저는 이 본분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 고향은 중국이에요. 만약 큰 붉은 용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핑계를 댄다. 그들은 그런 본분을 거부한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 자기 목숨을 지키고 퇴로를 마련해 두는 것이지,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면서 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안위와 관계될 때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혹자는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 늘 이에 대해 기도한다. 또 혹자는 수시로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서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한데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겁을 먹고 걱정하는 것이다. 더 심한 사람의 경우, 자기가 체포되어 일이 생기면 교회나 하나님 집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정말 일이 터지면 아무도 도움이 안 될 테니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 나서서 위험이 따르는 본분을 맡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숨어 버리는데 누가 불러도 꿈쩍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둥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집에서 맡긴 중요한 본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중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원입니다. 모두 참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조금만 기미가 안 좋아도, 자신의 안위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열정이 사그라들고 '충성심'과 '믿음'도 사라진다. 그저 이리저리 숨어다니며 눈에 안 띄는 일과 주목받지 않는 사역이나 하면서 얼굴을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 본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는 순간, 광대가 날뛰는 것처럼 다시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스스로를 뽐내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열정을 보게 하며, 그 순간의 충성심을 하나님에게 알게 하는 한편, 여태까지의 행동 때문에 벌충하고 한시바삐 만회하려고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기미가 안 좋아도,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며, 다시 숨어 버린다.

복음 사역이 갓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복음 전도는 무척 어려웠다. 그때는 복음 사역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들이 깨달은 진리도 얕아서 사람들의 종교 관념에 대해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가 무척 어려운 데다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껏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었다. 그가 너를 때리거나 욕하는 일은 없었고, 관계를 유지해 두면 앞으로 그를 얻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는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악인이나 각 종교 각 교파의 목사, 장로들을 만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만약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를 흠씬 두들겨 팰지도 모르며, 더 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너를 경찰서로 보낼 수도 있었다. 너는 언제라도 감옥에 수감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다. 어떤 교회 리더는 이러한 일에 속박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해야 할 때는 이행했고, 또 어떤 리더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반면, 일부 소위 '리더', 외식하는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리더는 복음 대상이 어떤 교파의 수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골똘히 궁리했지만, 당장 적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가는 게 그나마 적절해 보였지만 위험해질까 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18~19 세의 어린 자매를 보냈다. 말해 보아라. 그 어린 자매를 보내야 했겠느냐? (보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복음 대상이 한 교파의 수장으로, 많은 종교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매는 분량이 작고 깨달은 진리도 얕아서 진리 교제로 복음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까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된 어린 자매가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있겠느냐?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그녀가 한 교파의 수장을 얻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나이에는 분명 복음 전도 경험도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그녀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 경험이 없다. 그런 그녀가 성인들에게 어떤 관념과 생각, 어려움이 있는지 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간파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이에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결코 성인의 생각에 이르지 못한다. 말해 보아라. 그저 나이만 볼 때, 어린 자매가 최적의 인선이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적의 인선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리더는 그 어린 자매를 보냈다. 그 심보가 올바르겠느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심보가 비뚤어졌다. 그 어린 자매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얼마 후, 어린 자매는 그 교계의 수장을 만나자마자 상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리더에게 보고했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가는 게 겁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리더는 어린 자매를 난처하게 하고 압박하며 말했다. "안 돼요. 이건 당신의 본분이라고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압박을 받은 자매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제 본분이니 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리더는 고집을 부리며 계속 말했다. "못하더라도 가야 해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가야 한다고요!" 이는 어떤 리더냐? 그녀는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놀라서 계속 우는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런 자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형제자매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꾼다. 이는 도박꾼 부모가 돈을 다 잃자 빚을 갚는 대신 딸을 내놓는 것과 같은데, 난관을 해결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놓고 자신의 행복과 맞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런 자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이 부류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혹자는 "그가 그렇게 한 건 교회 사역과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뜻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해 보아라. 이 일은 과연 어떤 성질의 문제냐? (그 리더는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셈을 품고 다른 이를 불구덩이로 떠민 것이지요. 그녀의 인성은 더없이 악독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 리더는 어린 자매가 그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렇게 안배한 것이었다. 동시에, 자신의 본분 이행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익과 안위를 희생함으로써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속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그 복음 대상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이 사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최적의 인선을 찾지도 않았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본분을 위한 것도, 충성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이의 이익을 희생하고, 나아가 남을 해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남을 해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본질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리더의 행동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적당한 사람이 없고, 그 어린 자매도 없어서 그녀에게 직접 그 교파 수장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갔겠느냐?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건 제 직책이고 본분이니까요."라고 말했겠느냐? 그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억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하여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녀는 정말로 성과를 내고, 복음 대상을 얻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형식만 취하며 어린 자매를 보낸 거고요. 그 어린 자매가 없었다 해도 복음 상대를 얻기 위해 자기가 직접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런 것이다. 주변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안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린 자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갔을 것이다. 그녀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설명해 주느냐? (그녀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지키려고 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

바로 그런 것이다. 만약 그녀가 본분에 충성심이 있었다면 직접 그 중임을 짊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보냈다.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냄으로써 자기는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목적을 이루려 했다. 이것이 그녀의 속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는 사람을 안배하는 측면에 관한 것이다.

큰 붉은 용은 중국 대륙에서 줄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체포하며 박해해 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위험한 환경에 직면해 왔다. 일례로, 정부는 갖가지 명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한다.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냈을 때 적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그는 교회의 사역을 타당하게 안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교회가 탄압당하고 신자들이 체포될 때, 적그리스도는 뒷수습을 하는 법이 없다. 교회의 중요한 물자나 인력을 안배하지도 않고 그저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만 안전한 곳에 가서 정착하면 그만이다. 그 자신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면, 교회의 사역, 인원, 물자 등 배치에 기본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안배하지도 않는다. 결국 적시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지 못한 교회 물자와 돈이 큰 붉은 용에게 대거 갈취당하고 강탈당해 교회에 크나큰 손실이 생기고, 더 많은 형제자매가 체포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사역에 책임을 지지 않아 생긴 일이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은 곳 1 순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다. 이는 그가 시시각각 스스로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일깨우는 문제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일이 생겨선 안 돼. 다른 사람 누가 잡혀가도 나는 잡히면 안 된다고. 나는 편히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잡혀가면 유다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다 끝장이야. 결말은 없어지고 징벌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그는 어떤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먼저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한지, 어느 집이 세력이 있는지, 어디에 머물면 정부의 수색과 체포를 피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집이 매끼 고기를 먹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히터를 켤 수 있는 좋은 생활 여건을 갖추었는지 알아본다. 이 밖에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 데 비교적 열정적이며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일이 터졌을 때 누가 그를 지켜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그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 다 알아보고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을 정한 뒤에는 어느 정도 표면적인 사역을 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말로 어떤 소식이나 사역지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네가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사역할 줄 아느냐?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렇게 세심하고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사역을 할 줄 알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심보가 곱지 못하고 오직 이익만을 꾀하며 진리를 싫어하기에 설령 자신의 행동이 진리에 어긋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며 막무가내로 행동하려 한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후, 자신에게 일이 생기거나 위협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으로 얼마간 표면적인 일을 한다. 적그리스도는 몹시 세밀하게 일을 처리하고 안배하지만, 그것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일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처리하지만, 교회 사역이나 그의 본분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무책임한데,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자질을 논하자면, 그는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고 세심하게, 또 구체적으로 고려하니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좀 굴러갈 것이다. 하나님 집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겠느냐? 이는 그의 본질에 따라 보아야 하는데,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자기가 머무는 환경,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전 문제는 더없이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만, 하나님 집 사역과 관계되면 사람이 180 도 달라져서 매우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굴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이런 자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사역이나 상부의 사역지침을 대할 때는 그저 거른다. 자기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 자신의 안위와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는 것 등은 꼼꼼하게 따지며 거른다. 그 후 좀 쉽고 위험하지 않은 사역을 하면서 그가 놀고먹는 것만 좋아하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부에서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또 적그리스도는 사역을 안배한 후 구체적으로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거나 감독하는 법이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는 재물이나 각종 물자를 어떻게 안배할지, 어디에 둘지, 어떻게 보관할지, 어떤 사람들에게 보관하게 할지 등에 대해 다 구체적인 원칙과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입으로 말하기만 할 뿐, 안배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환경이 적당한지 신경 쓰지 않고,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법도 없이 입으로 몇 마디 하기만 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집의 그 물자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안배되었는지 속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으며, 관심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리더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서적이 악인들에게 압류되기도 하고,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가 슬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서적이나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안배하지 않으며, 나아가 물어보거나 알아보지도 않는다. 그저 안배하면 끝이고, 몇 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형식만 취할 뿐 성과를 내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충성심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보이지 않는다. 교회의 각 물자 안배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관여하는 법이 없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안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느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도 형식적으로 안배는 한다. 그래야 누가 상부에 그를 고발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법이 없다. 구체적인 사역이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 물건들을 어디에 놓을지, 안전할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쥐가 파먹지는 않을지,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지, 도둑맞지는 않을지, 보관하는 사람이 적합한지 등에 관한 사역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에 관해 물어보거나 알아보거나 걱정하는 법이 없다. 그는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지.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른 사람 거고 하나님 집 소유니까 나랑은 무관해. 그러니 마음을 졸이지도 않을 거야. 걱정하고 싶은 사람한테 걱정하라고 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라고 생각하며 안배를 마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아예 안배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런 사역은 잘해도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해도 추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겨우 이 정도 일로 상부에 보고하겠어? 하나님이 이 정도 일로 나를 징벌하시겠냐고.'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대할 때 그저 형식만 따르고 대충 넘어가는 관점과 태도를 취할 뿐이다. 이런 것들이 자기 지위와 안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관리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물건이 분실되거나 적어지거나 망가져도 그와는 무관하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집의 물자는 공공재에 속하니 그것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리더 자리에 있는 동안 직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의 누림만 생각할 뿐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법이 없기에 하나님 집의 각종 물자가 큰 붉은 용에게 점유되고 약탈당하거나 악인에게 강점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혹자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렇게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은 문제가 생긴 것이냐? 단언컨대, 사람이 책임과 충성을 다했다면 물자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며, 분명 손해를 줄이고 사역 성과는 훨씬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기만을 바란다. 그 외에, 하나님 집이나 하나님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신경 쓰는 법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는데, 하나님 집의 사역이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내버려두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리더로 있는 동안 자기 사역 범위 안에 있는 제물의 상당 부분을 큰 붉은 용에게 약탈당하기도 했는데, 그 액수는 정말 놀랄 만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저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이런 상황은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며, 많은 변명으로 스스로를 변호했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런 사람은 출교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저주받고 징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 만약 정상적인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홀함 때문에 하나님 집의 재물을 큰 붉은 용에게 빼앗긴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후회하고 자책하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후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벌충하려 할 것이며, 마음속 깊이 죄스러워하고 후회할 것이다. 또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지도 않으며, 자기가 소홀히 했다고, 자신의 과오라고 인정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전부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자신을 출교시키면 그는 왜 원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 집 사역에 그렇게 큰 손실을 안겨 주고, 자신이 직무를 소홀히 한 탓에 숱한 사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많은 제물을 큰 붉은 용에게 약탈당했는데도 그는 전혀 자책하지 않고 죄스럽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게다가 스스로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하나님 집의 처분에 불복하여 여기저기 헛소리까지 퍼뜨리고

다닌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게 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런 행동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뼛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 본질은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그는 인성이 없으며, 살아 있는 마귀이자 사탄이며, 인두겁을 쓴 짐승이다. 인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일을 그르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마음속으로 자책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마귀,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책은커녕 궤변을 늘어놓으니, 그에게 진리란 무엇이겠느냐? 그가 마음속으로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는 이 사실을 그가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신이 진리이고 하나님이다.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는 마귀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마귀, 전형적인 마귀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물자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안배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 귀중품이 있을 때, 그가 잘 보관하는지 보아라. 밤에 잠꼬대를 하면서도 한 글자도 발설하지 않고, 누가 때려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보관한다. 반면, 하나님 집의 물자에 대해서는 다르다. 사실 이런 태도다. '알 게 뭐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잘 보관한다 해도 누가 갖게 될지 모르잖아!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는 이 일을 자기 본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인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인성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느냐?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너에게 맡겼고, 네가 이행해야 할 본분을 주었으니, 이는 네 본분 내의 일이다. 너는 마땅히 이 일들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와 원칙,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한편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그러면 네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인성이 없는 것이다. 인성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신용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어떤 일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인사 문제에 있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분 이행에 성과가 있는지, 방해하고 교란하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형제자매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안배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각 방면의 인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의 소개서를 쓱 한번 훑어볼 뿐, 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살펴보지 않는다. 예컨대, 하나님을 믿는 데 토대가 있는지, 인성은 어떤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들이 갖춘 특기와 업무 기술이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중요한 본분을 맡도록 양성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에서 형식만 취하고 흉내만 내며, 소개서만 한번 쓱 훑어보면 끝이다. 제공할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는 일은 결코 없고, 자세하게 깊이 알아보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 결과, 그가 선발한 사람은 대부분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되고 만다.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어떻게 보겠느냐? '어쨌든 나를 발탁해서 본분을 이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니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 누가 가든 다를 게 없잖아? 내가 결정하고 통과시켜 사람을 제공했으니 나는 사역을 한 거야. 게다가 그렇게 발탁된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진 거고. 그들이 양성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바 아니지.' 적그리스도가 부적합한 사람들을 제공한 탓에 하나님 집 사역에 지장을 주었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너무도 크다. 그런 마귀 같은 것들은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어떤 곳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인과 접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한단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런 일을 처리하는 데는 방식과 길이 있다. 사람이 책임을 지는지, 마음을 다하는지에 달렸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네가 충성심과 책임을 다했다면 그 일의 결과가 그리 좋지 않더라도 네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알 것이다. 반면, 네가 충성심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고 뒤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감찰한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은 같지 않으며, 하나님은 구분하여 대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제공하는 일에서도 수작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속셈을 품으며, 충성심이 없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계산이 있다. 이 밖에, 세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나서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적그리스도는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본성을 드러낸다. 어떤 본성을 드러내느냐?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안전하지 않으니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접하지 않는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거기에서 지내는데, 숨어서 간단한 사역만 할 뿐이다. 다른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란하는 사람은 없는지, 사역지침과 각종 하나님 말씀 서적, 설교 녹음은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안배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거나 나서거나 사고가 나야 충성심이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말해 보아라. (그는 처음 그 사역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기가 제공한 사람들이 적합한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혀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성질은 다르다. 똑같이 위험한 일이 임했을 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며, 지혜를 발휘하고 방법을 써서 사역지침을 시행한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세부 사역을 하지 않으며, 그에게서 사역지침은 시행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적그리스도는 말로는 교회 상황과 각 사역 등에 대해 물어보겠지만, 그마저도 형식만 취하고 사역하는 시늉만 할 뿐, 전혀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세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적어 두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역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된 부분은 누가 담당했는지, 어느 교회의 리더가 부적합한지, 어느 지역의 사역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만 취할 뿐인데, 문제가 발견되어도 해결하지 않는다. 몇몇 소위 '리더'라고 하는 자들은 그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며 상황을 알아보고, 사역을 분석하고 연구하기만 할 뿐이다. 세부 사역과 관계되어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러야 하면, 또 자신의 안위에 관계된 일이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손을 뗀다. 일은 거기까지만 하고 자신을 보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구체적으로 안배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잘 알려져서 잡혀갈 위험에 직면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서 사역하도록 안배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안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그러니 이 부류가 드러내는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충성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언제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이 시행되었는지, 하나님 집 사역의 진전 상황이 어떠한지 관여하는 법이 없고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충성을 다하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대충 형식만 취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억지로 어느 정도 하지만, 위험이 크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의 내면에서는 자기 이익만 보장되면 누구든 팔아넘길 수 있다. 그의 이익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이익은 지고무상하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본분을 받아들이면 충성심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충성심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럼 그들이 형제자매의 목숨이나 신변 안전을 위해 고려하겠느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관계가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오직 자신만 보전할 뿐, 형제자매는 불구덩이로 밀어 넣어 그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안위 말고 또 무엇을 고려하느냐? 그들은 말한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얼굴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줄입시다. 그러면 쉽게 잡히지 않을 테고 교회 사역도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체포되지 않으면 유다가 될 일도 없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형제자매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냐?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죽음이 두려워 구차하게 삶을 이어 가면서도 명예와 지위는 좋아해서 리더가 되고자 한다. '리더 사역은 감당하기 어려워. 큰 붉은 용에게 들키면 이름이 알려지고 수배령이 떨어지겠지. 체포되는 순간 목숨이 위협받을 테고.' 그는 비록 그걸 알면서도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쓴다. 그가 리더가 되면 육적인 즐거움만 누릴 뿐,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 좀 교류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한 곳에 숨어 누구도 만나지 않으며 스스로를 꼭꼭 숨긴다. 이에 형제자매들은 리더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 정도로 두려워한다. 그럼 그가 이 리더를 맡은 일이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숨는 것만 생각한다. 누가 그에게 "리더가 되니 어떤가요?"라고 물으면 그는 "리더는 정말 바쁘답니다. 안전 때문에 항상 이사를 다녀야 하고요. 이런 환경에 교란받아 사역할 기분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한다. 그는 늘 수많은 눈동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어디 숨어야 안전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매일 변장하고 여기저기 숨고 도처로 이사를 다니는 것 외에는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이런 리더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칙을 신봉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고 하죠. 천적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굴을 세 개 준비해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험에 직면해 도망치려고 할 때 숨을 곳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토끼한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은 모두 이러한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죠. 사람도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요." 그는 리더가 된 이후

이 이치를 깨닫고,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어떤 리더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머물다가 신고를 당했다거나, 수시로 나가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 큰 붉은 용의 염탐꾼에게 감시당하다가 붙잡혀서 판결을 받았다거나 하는 말을 들으면 그는 겁을 먹는다. '아이고, 다음번에는 내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교훈을 얻어야 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지 말자고. 교회 사역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얼굴도 가급적 드러내지 말자. 사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되도록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자. 내가 리더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챙기겠어? 살아남을 수만 있어도 족하지!' 그는 리더가 된 후 가방을 들고 피신하는 것 외에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체포되고 옥살이를 할까 봐 온종일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다. 누군가 알려 준다. "체포되면 죽은 목숨이랍니다! 당신이 리더가 아니라 일반 신자라면 체포되어도 벌금만 좀 내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리더라면 장담 못 해요. 너무 위험해요! 어떤 리더 일꾼은 체포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경찰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그는 더더욱 겁을 먹고, 사역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는 매일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체포되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감시당하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을지만 궁리한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느라 자기 본분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충성심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간이 작을 뿐이라고, 이 한 가지 모습으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어떤 성질을 띠느냐? 이런 모습의 본질은 불신파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스스로를 바치는 것이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사탄과 사악한 정당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존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부를 바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는 이런 것은 알지 못한다. 그는 오직 무엇만을 믿느냐? 큰 붉은 용의 손안에 떨어지면 좋은 결말이 없다는 것,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만을 믿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안전만을 고려할 뿐, 교회 사역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이 말을 믿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본분을 이행하라고만 하면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몸을 숨기고만 싶을 것이다. 그는 이 정도로 두려워한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기댈 곳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지 않고, 정말 일이 생기고 체포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 사람은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런 마음, 이런 인식, 이런 준비가 없다. 이런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의 본질은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부류는 무척 겁이 많고, 놀라서 간이 콩알만 하고, 자기한테 일이 생길까 봐, 육적으로

고생할까 봐 두려워한다. 고두리에 놀란 새가 되어 사역을 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 부류는 아예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전하는데,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이 두 부류는 똑같이 불신파이다. 첫 번째 부류는 교활하고 간사하며, 고생하고 힘든 것을 두려워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류는 겁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사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어 박해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두 부류는 차이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측면에 대해 너희가 아는 사례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함부로 날뛰는 바람에 리더, 집사와 형제자매 몇 명이 전부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적그리스도는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뒷일을 안배해 두지 않은 채 한 외진 지역에 가서 숨었지요. 심지어 섬김 가정에서 지낼 엄두를 못 내고 기어이 제물을 가지고 셋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속 사역을 제대로 안배하지 않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탓에, 결국 형제자매 몇 명이 또 잡혔습니다. 교회 사역도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고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 이익만을 지킬 뿐, 하나님의 이익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심하게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고, 충성심은 더더욱 없다. 일이 닥쳤을 때 자신만 보호하고, 자신만 지킨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보든 상관없다고, 자기가 살아 있고 붙잡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기적이다. 그들은 형제자매, 교회 사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행동과 어떤 다른 점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임했을 때 온갖 방법을 생각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손실되지 않게 보호하고,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들을 잘 안배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체포에 직면할 때 교회 사역에 손실을 안겨 줍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제물을 포기한 채 신경 쓰지 않으며, 사람을 안배해 뒤처리를 하지도 않는다. 이는 큰 붉은 용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선민을 잡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이는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선민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대로 뒤처리를 해서 하나님 집의 손실을 최소화한 후에 몸을 빼는데, 그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큰 붉은 용의 사악한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어떤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다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본분 이행은 하나님의 부탁이니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간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과 복음 확장을 일 순위에 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네게 맡긴 부탁을 완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일 순위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둔다. 그는 다른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사고가 나든 개의치 않고, 자신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는 편안해한다. 그에게는 조금의 충성심도 없는데,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일이 생기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신중한 사람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신중해야 하는데,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면 좀 나을 것이다. 일이 생겼을 때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일이 생겼을 때 손실이 무척 클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으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신중한 것이 좋으며,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주도면밀하고 전반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 그는 속으로 이 일들을 가능한 한 잘 안배해서 일이 생겼을 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일을 자기 책임이자 본분으로 여기지 않고, 일이 생겨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충성심이 없는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전혀 충성심이 없다. 그에게 사역을 안배하면 흔쾌히 받아들이며 좋은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누구보다 빨리 달아난다. 그는 가장 먼저 달아나고 가장 먼저 도망친다. 여기에서, 그가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책임감도 충성심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이 닥치면 도망치고 숨을 줄만 알고, 스스로를 보전하려고만 하며, 자기 책임과 본분은 생각하는 법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어디에서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과 자신의 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은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방금 교제한 항목은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 중 제 9 조의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육적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집 사역과 자기 본분을 대충 건성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위만 차지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사역,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안위를 얻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서 해부한 모습들은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질을 충분히 드러낸다. 여기에서 주로 교제한 것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일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전혀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진리 실제가 있겠느냐? 이는 양심과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성이 없는 것이다!

2) 자신의 명예와 지위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인 적그리스도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항목, 적그리스도 자신의 안위, 명예와 지위, 혜택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이익과 관계된다. 그럼 하나님 집 사역과도 관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교회 사역을 망치고 교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 사역에 해를 끼치는 것을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으로 볼 때, 이 부류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 외에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는 명예와 지위를 무척 좋아한다. 명예와 지위는 그들의 목숨줄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 힘이 없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명예와 지위 두 가지는 그의 실질적인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의 치명적 약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지위와 명예를 중심으로 하며, 이 두 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들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가 있든 없든, 그가 분투하는 목표와 노력하는 방향은 이 두 가지, 바로 명예와 지위를 위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중국이라는 독재 통치하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나님 집 이익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는 한편으로는 온 힘을 다해 지위를 추구하면서 권력을 단단히 손에 쥐고 교회를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종일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말하고 사역하며 바쁘게 뛰어다닌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과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법이 없다. 그가 대가를 치를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어떤 사건을 두고 극력 논쟁할 때, 그가 왜 논쟁을 벌이는지 보아라. 그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에게 어떤 속셈과 목적이 있는지 보아라. 그가 어떤 일 때문에 분노를 터뜨릴 때,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지 보아라.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내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 언행의 본질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느냐? 진리로 판단한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무척 정당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표출이자 모습, 본질로 규정하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출발점과 동기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는 출발점과 동기를 감찰한 결과, 그들의 모든 행동이 본분 이행을 위한 것이나 나아가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그리스도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 그렇기에 그의 말과 사역도 분명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무엇보다 높이 생각한다. 그의 주변에 자질이 좋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는다면, 팀장으로 발탁되어 형제자매들 모두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동조받는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언짢아하고 질투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질투심을

품었다면 네 생각에 그가 그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그 사람을 질투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계산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질이 좋고 업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나보다 뛰어나지. 이건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로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 그가 내 지위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언젠가 정말 나를 대체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 선제공격을 해야 해. 너무 커 버리면 손쓰기 힘들 거야. 미리미리 손을 써 두자. 한발 늦어서 그가 나를 폭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손을 쓸까? 구실을 만들고 기회를 찾아야 해.'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겠다고 생각한다면, 구실을 만들고 기회를 찾아내는 건 무척 쉬운 일 아니겠느냐? 마귀의 간계 중 하나가 무엇이더냐? ("죄를 씌우려고 한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 "죄를 씌우려고 한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사탄의 세상에는 이런 논리,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 속한 자로, 그런 일을 벌이는 데 능하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죄를 씌우려고 한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죄명을 갖다 붙이고 기회를 봐서 너를 손봐 줄 거야. 네 기세를 꺾어 놓고, 형제자매들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고 다음번에는 너를 팀장으로 뽑지 않게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겠지? 후환을, 경쟁자를 제거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 겉모습은 평온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봤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가슴에 묻어 둔 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 내서 행동에 옮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면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며 모든 것을 제쳐 놓고 고민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도, 교회 사역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지 여부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 권세를 지키는 것만 고려할 뿐이다. 그는 그 경쟁자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잡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의 동의 없이, 줄곧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해 온 사람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기회가 왔다고, 마침내 경쟁자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마침 모두가 모여 계시니 이 일을 해부해 보도록 하죠. 자신의 파트너나 사역자와 의논하지 않고 사사로이 인원을 교체하는 건 독재를 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요?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책망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형제자매들이 저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부풀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인다. 사실 그 일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 한 팀원의 본분을 교체하고 조정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사후에 보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물고 늘어지며 부풀렸고, 목적을 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한편 스스로를 높였다. 이는 사람을 괴롭히고 혼내 주는 행동 아니겠느냐? 그는 정면으로 자기 경쟁자를 한바탕 책망했는데, 상대에게 커다란 꼬리표만 달아 놓았다. 형제자매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이상하네. 저 사람 말도 실제에 부합하지가 않잖아! 본분이 조정된 그 사람이 책임감 없이 본분을 이행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야. 그를 교체한 건 교회 사역을 지키는 일이지. 이런 식의 본분 이행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는

거고, 충성심 있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독재를 했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이건 정말 '죄를 씌우려고 한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딱 봐도 적그리스도가 위세를 부리며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게 어디 사역에 책임을 지는 것이겠느냐? 그게 어디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사건을 부풀리는 것은 순전히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공격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뜻과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사역과 본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다. 적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히 자기 속셈을 드러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면이 여기에 있다. 그는 지위를 지키고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는 데 누구보다 능하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은 더더욱 능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간파할 수 있어. 당신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간파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간파할 수 있어. 내가 한 몇 마디에 불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다 간파할 수 있다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 그는 듣기 좋은 말과 표현으로 모두가 승복하게 하고, 그의 훈계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게 한다. 그가 어떤 말을 쓰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당신을 책망하는 것은 사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 사사로운 원한 같은 건 없죠. 당신이 함부로 한 사람의 본분을 중단시켜 하나님 집의 이익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일에 관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당신이 하는 대로 둔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는 것은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겨냥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형제자매들이 지적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음 선거 때 기권하겠습니다." 혹자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어리둥절해진다. '아무래도 내가 그를 오해한 모양이야. 선거 때 기권하겠다니, 이건 지위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 교회 사역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니까 잘못된 게 없어.' 적그리스도는 또 일부 사람을 미혹했다. 적그리스도가 교활하지 않으냐? (교활합니다.) 너무도 교활하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짜고 온갖 생각을 해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 수법을 쓰지 않겠느냐? 그는 너를 공격한 후에 다시 듣기 좋은 말로 달래고 권유하여 네가 그에게는 포용과 인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그에게 동조하면서 "보십시오. 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딱 봐도 리더십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부끄러울 뿐입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다. 말에 빈틈이 없고 누구보다 위장에 능하다. 그는 일단 꼬리가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되는 순간 극력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법을 생각해 상황을 해결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체면과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매일 오직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며,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이런 일들뿐이다. 가끔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전부 명예와 지위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잡고 복을 누리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은 후로 늘 고심하며 경영하는 큰일이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언젠가 악을 행한 것이 폭로되면 그는 큰 화가 닥친 양 두렵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도 멍해진다. 남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면 거짓말을 지어내 "어제 너무 바빠서 밤을 새웠더니 매우 피곤하네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줄곧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났어. 이제 내 명예와 지위를 어떻게 회복하지? 어떤 방식으로 만회해야 할까? 모두에게 어떤 말투로 이 일을 해명하지?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나를 간파하지 못할까?'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우울해진 것이다. 때로 두 눈은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는 그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온갖 궁리를 하며,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는 양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복음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복음 전도 성과는 어떻죠? 형제자매들은 생명 진입이 있나요?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가 이렇게 교회 사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정말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의 이런 질문은 그가 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만약 누군가 교회의 문제를 보고하며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꾸미고 싶어도 꾸미지 못하는 데다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 인생 최대의 난제이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뜨거운 가마 속의 개미 같고, 때로 고개를 젓는데 마치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 같다. 그 후에는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두드리는데, 그 의미인즉슨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어떻게 이런 일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탄만 한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분투하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고통을 겪고 대가를 치르며,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폭로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진다는 말이 적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위장에 능하고 말재간이 뛰어나며 사람을 잘 미혹하기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선민들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꼭꼭 숨기고 많은 악을 행한다고 해도 100% 분별해 낼 수 있다. "불의를 많이 행하면 반드시 자기 무덤을 파게 되어 있다.", "불장난하는 자는 제 불에 타 죽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물이 발전하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교회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는 해도 성과가 한참 떨어지고, 일부 중요한 사역이 악인에게 통제되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도 실행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각자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없고, 각 사역은 진작에 마비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이 문제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곳이라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설령 팀 단위일지라도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일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영향이 간다. 적그리스도가 한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면,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뜻은 모두 가로막힌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이 왜 일부 교회에서 시행되지 못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며 본분을 이행할 때는 형식만 취하고 대충 흉내만 낸다. 리더 일꾼이 된다 해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할 뿐, 교회 사역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매일 무엇을 하느라 바쁘겠느냐? 매일 자신을 연기하고 스스로를 뽐내느라 정신이 없다. 그는 자신의 명리나 지위에 관련된 일, 남을 미혹하고 우롱하는 일로 바쁘다. 그러다가 충분히 역량을 갖추면 더 많은 교회를 통제하려고 든다. 그에게는 왕권을 잡고 교회를 독립 왕국으로 만들 생각, 대단한 리더가 되어 혼자 권력을 잡고 더 많은 교회를 통제할 생각뿐이다. 그것 외에 다른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사역도,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가 언제 홀로 권력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엄청나냐!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보기에 무척 고생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는 자신의 사업,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 바쁘고, 자신의 명리나 지위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신의 본연의 사역과 그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올바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마귀 사탄이다.

예전에 한 리더가 재임하는 동안 내가 다섯 가지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두 달 후, 그 다섯 가지 일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놀지 않고 무척 바쁘고 힘들었으며, 온종일 얼굴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 그는 무엇 때문에 바빴겠느냐? 내가 맡긴 일들을 왜 처리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은 그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기 본분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였다. 또 어떤 일은 그에게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쪽에 팽개치고 일부러 처리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일은 난이도가 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귀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는 하지 않았다. 이 몇 가지 상황 때문에 그는 두 달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도 시행하지 못했다. "그 일들이 두 달 내에 끝낼 수 없는 것 아니었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두 달 내에 전부 끝낼 수 있는 일들이었고, 게다가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리더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아 하자 일주일 만에 다섯 가지 일을 전부 끝냈다. 말해 보아라. 그 리더는 교체되어야 마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보인다면, 상부에서 맡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무척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는 바로 거짓 리더이다. 이런 사람은 한시바삐 교체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이 원칙이 어떠하냐?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정적이고 온종일 바삐 보내지만 사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잡다한 일로 쓸데없이 바삐 보낼 뿐이다. 그는 무엇을

하겠느냐? 몇 가지 일만 한다. 그중 한 가지는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안전하고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그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고, 상부와 접촉할 필요도 없어서 실수가 생기거나 책망을 듣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비교적 잘하는 일, 쉽사리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제명되고 출교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이런 일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으니 대응이 가능하다.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다. 만약 이런 일을 하면서 남들 앞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하겠느냐? 만약 그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그가 하겠느냐? 그는 분명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좋아하느냐? 비교적 쉽고 간단한 일, 조금 고생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 이 밖에, 그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자기 관념에 부합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기억하려 한다. 이해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가 사역 때문에 바쁘며, 그는 리더라는 사실, 그에게 그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이런 일을 선택한다. 만약 그가 하려는 사역이 비교적 복잡해서 감당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그보다 뛰어나다면, 제대로 못 할 경우 추태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다면,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고생하는 것도 힘든 것도 싫어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또 그는 무척 게을러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만나면 멀리 도망간다. 그저 체면이 좀 사는 일, 여유 있는 일을 하면서 대충 형식만 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며, 상부에 속내를 간파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는 다 적그리스도의 뼛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본분을 선택적으로 이행하는데, 자신의 선택과 계산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계략까지 있다. 그들은 절대 순순히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이 있다. 상부의 일부 안배에 대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다. 그 일은 그에게서 완전히 막혀 버리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그 일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만약 상부의 안배를 시행하다가 누군가와 충돌이 일어나고 원망을 살 수 있다면, 그가 시행하겠느냐? 이때도 그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상부에서 이런 일을 시켰지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설사 하더라도 상부를 내세워서 위에서 시킨 거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사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교활하지 않으냐?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으로 8~10 번씩, 심지어는 더 많이 계산한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 가운데서 발붙이고 서는 방법, 뛰어난 명성과 명망을 얻는 방법, 상부에 잘 보이는 방법, 형제자매들의 옹호와 추대를 받는 방법 등인데, 그들은 그 방법대로 행동한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 하나님 집의 사역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갖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일들은 나와 무관해.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잖아.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살아야 해.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바보야. 나한테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이로운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해.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제명되거나 복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면 순종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늘 뜻을 굽혀 보전을 꾀한다.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위해 어떤 고통이든 감내하며, 뛰어난 명성을 위해 어떤 대가든 지불한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대장부는 굽힐 줄도 펼 줄도 안다."라는 것이다. 이는 사탄의 논리 아니겠느냐? 이는 사탄의 처세 철학이자 생존 법칙으로, 역겹기 그지없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자들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흉악하다. 자기 지위가 흔들리거나, 사람들 마음속 그의 지위를 이미 잃었고, 남들의 옹호나 추대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을 앙망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고,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즉시 태도가 돌변할 것이다. 일단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대충 하고, 무엇을 해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건 그래도 최악의 모습은 아니다. 최악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자들은 일단 지위를 잃고 누구 하나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면, 마음속에 증오와 질투, 복수심이 생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눈곱만큼의 순종도 없다. 또한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집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리더 일꾼을 증오한다.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비 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며,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려 한다. 그 외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미워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아주 흉악하지 않으냐? 딱 봐도 악인이 자명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악인이다. 그는 온라인 예배를 할 때조차 인터넷 신호가 좋은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저주한다. '끊겨라! 끊겨! 아무도 설교를 듣지 못하면 좋을 텐데!' 이는 어떤 인간이냐? (마귀입니다.) 이는 마귀이다! 이런 자는 절대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귀, 악인은 어느 교회에 가든 이렇게 교란하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폭로하고 제약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한순간의 소홀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으니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든 승복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보복하고자 한다. 자기가 불편하면 그는 형제자매들도 잘 지내기를 원치 않으며,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몰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집 사역에 일이 생기라고 저주한다. 그러다가 하나님 집 어딘가에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몰래 기뻐하고 좋아한다. '흥! 드디어 일이 생겼군. 나를 교체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잘못되면 좋지!' 누가 연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 그는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흡족해하며, 조롱하고 비꼬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기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소극성과 사망의 말을 유포하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 과로로 몸이 망가지면 누가 우리를 부양해 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소극적인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뻐한다. 이는 음흉하고 음험하며 악독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보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런 자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어째서 옳지 않으냐? (그의 마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찰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언행과 생각,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기에 두려움이 없고, 제멋대로 그런 마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늘도 눈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지켜본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신파의 이런 마귀적인 말을 함부로 지껄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 성질이 심각하지 않겠느냐? 너무도 심각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작의 여지 없는 마귀이고,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악인이라는 뜻이다. 오직 마귀, 적그리스도만이 감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 하나님 집의 이익은 하나님의 이익을 의미하며, 하나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 인솔하에 있고, 하나님의 경영 사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저주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집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두 체포되어 교회 사역이 철저히 마비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나기를 바라는 자, 그렇게 되면 기뻐하는 자,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마귀입니다.) 이는 마귀이자 악마의 환생이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패괴 성품을 갖고 있고, 때때로 패역을 드러낸다.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질 때는 약간의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그는 그렇게까지 못되지 않고, 그렇게까지 사악하고 악독한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 오직 적그리스도와 마귀만이 이런 본질을 갖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의심하겠느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의심하지 않겠느냐? (그는 자기 생각과 말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성이다. 사탄이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느냐? 언제 하나님을 진리라고 생각했느냐?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마귀도 이러하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분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말이 맞다고 여기며, 서슴없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다. 반면, 패괴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할 때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에게는 양심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지각이 있다. 사람의 양심과 지각, 그리고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내면에서 작용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질 때면, 옳고 그름, 시(是)와 비(非), 정의와

사악함이 맞붙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사악한 세력 편에 선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사탄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그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 집을 웃음거리로 삼으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 형제자매를 저주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는 내면에 양심의 참소를 받지도 않고 전혀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탄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한 몰골이 철저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영락없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태생이 마귀로, 절대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고, 절대 보통의 패괴된 인간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환생으로, 날 때부터 악마이다. 바로 이런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는 명예와 지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며 온갖 궁리를 다 하고 모든 대가를 불사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경영한다. 이 두 가지는 그에게 있어 목숨줄이자 전부이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지위와 명예, 자신의 이익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 적그리스도 부류와 진리, 인성, 정의,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 교제하는 것이 소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소용없다. 이는 음녀에게 양갓집 규수나 현모양처가 되라는 것과 같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거슬려 할 것이며, 또 싫어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겠느냐? 마음속으로 너를 욕하는 한편, 기회를 잡아 너를 조롱하고 비꼬고 공격하고 배척할 것이다. 현재 교회에는 진리를 교제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 등의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극도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지 관찰해 보아라.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고 교제하기만 하면 큰 반감을 보이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만 늘어놓고 있네. 뭐든 다 하나님의 안배고, 사람은 하나도 선택할 수가 없네!'라고 생각한다.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조화롭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교제하기만 하면, 그는 큰 반감을 품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억지로 들을지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만약 정말 가만히 앉아 있다면 분명히 잠들었을 것이다. 원칙에 따른 일 처리와 진리에 대해 교제하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지만, 한동안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책망과 훈계도 없으면 힘이 나서 제멋대로 굴고 혼자서 결정한다. 또 한 손에는 명예를, 다른 한 손에는 지위를 쥐고 누구보다 기뻐 날뛰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다. 이런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언제든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무릇 적그리스도 본성을 지닌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정의 내려야 하며, 그들이 제멋대로 결정하려 할 때는 제약하고 제지해야 한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제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한마디로 그를 제지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 주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대놓고 말해라. "당신이 제멋대로 굴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신이 결정권을 갖지도 않으면 죽기라도 합니까?" 이 말이 어떠하냐? (좋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만약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정말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뼛속까지 그런 사람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못 살 겁니다.) 그렇다. 그는 뼛속까지 그런 사람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그럼 그가 정상인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포기하면 되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나도 더 수월할 텐데!' 정상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떠하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괴로워한다. 마음속에 마귀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한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가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교란하여 견딜 수 없게, 살 수 없게 하여 마치 죽을 것만 같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이다. 적그리스도와 악인, 그리고 마귀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할 때, 위와 같은 한마디를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 악인, 마귀 등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는 부류에게 유용하다.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면 효과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말은 몇 년이나 해 왔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는 한 가지 사실만을 설명해 준다. 즉,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그는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머리와 심장은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렇게 강렬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그를 지배한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망쳐서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떤 존재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일을 하는 존재는 오직 마귀 사탄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진정한 피조물은 속셈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오직 마귀 사탄만이 속셈을 품고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을 기억했느냐? (기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자!

2020 년 2 월 29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3)

2. 적그리스도의 이익

2) 자신의 명예와 지위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9 조에 관해 교제하였다. 간단히 돌아보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익이라는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해부했느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자신의 명예와 지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혜택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이익은 자신의 안위, 지위 그리고 개인적인 혜택 세 가지와 연관이 있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안위'는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다. 이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한 환경이나 적그리스도 부류와 직결된 이익인 신변 안전과 관계가 있다.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교제를 마쳤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으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모습을 교제하였으나 비교적 개괄적으로 다뤘으므로 너희가 개념적인 이해와 인식만 얻었을 거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지닌 이 측면의 본질과 모습을 도리상이나 문자적으로만 좀 이해할 뿐, 이 측면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표출이나 모습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교제할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가 떠먹여 주는 것만 좋아하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복습하느냐? 너무 자세히 교제한다면 지나치게 자잘하고 장황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저희 지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의 자질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한두 가지 예만 들어 주셔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해부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지위와 권력을 좋아하는 방면에 관한 내용만 해도 꽤 많이 교제했는데, 왜 적그리스도의 이익이라는 이 항목까지 이 주제에 포함하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중복되고 자질구레한 것 아닐까요? 굳이 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중복이 좀 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여러 각도에서 교제하면, 적그리스도가 지닌 이 측면의 본질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 또한, 진리를 교제할 때는 중복을 겁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랜 세월 교제했음에도 진입하지 못한 진리가 있다. 늘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스타일과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사람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람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다양한 면과 패괴 성품,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 갖가지 사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 각도에서 진리를 교제하고, 서로 다른 내용과 본질을 해부하는 것은 사람의 진리 진입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두 번째 항목,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관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교제했다. 오늘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교제하도록 하겠다. 물론, 내 교제를 기초로 새로운 인식이 생겼거나 깨우침, 빛비춤을 얻었거나 체험과 삶 속에서 이러한 실례를 본 적이 있다면 교제에 참여해도 좋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익이라는 각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내는지,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본성 본질을 나타내는지 해부하도록 하겠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반인을 뛰어넘는다. 이는 그의 성품 본질 안에 있는 것으로, 한때의 취미도 아니고 한순간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 속에, 뼛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그의 본질이라고 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다른 게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의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외지물(身外之物)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한 것이자 뼛속, 핏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와 명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의 매일의 삶과 상태, 매일의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 기호를 그려 넣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앙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실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받들어 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그들은 왜 늘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런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인식이나 분별이 생기지 않은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그들의 관념이나 사상 관점을 바꿔 놓지 못한 것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전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그들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방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일종의 도구를 얻어서, 즉, 일종의 유리한 무기를 얻어서 그 덕분에 지위를 얻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교제하고 훈련하면서 차츰 많은 글귀와 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또 잊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도리를 파악한 후, 마치 생명의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또 방향을 찾고 서광을 본 것처럼 느낀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실행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도(道)를 준행하기 위한 것도,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이론, 또는 고차원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도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지위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는 하나의 통로이자 사다리, 도구가 된다. 그렇기에 어떤 측면에서 보든 적그리스도 부류에게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지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지라도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건 바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속셈과 내면의 꿍꿍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따르는 자나 피조물이 되어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런 것들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얼마나 옳고 대단하고 영적이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든 그들 개인적인 실행과 진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지위와 명예는 그들에게서 점점 더 '성과'를 낸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부류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가 고심하여 경영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할 때의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와 원천은 전부 그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위, 명예와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좋은 자질과 은사를 지니고 있어도, 혹은 아무리 경건하고 영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는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선민을 통제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갖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명예와 지위만을 추구한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의 일 처리가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의 모든 행동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분명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결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든 마지막에는 다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긴 것이겠느냐? 주요 원인은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다. 책망과 훈계든, 심판과 형벌이든 적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속셈과 목적이 있으며, 자기가 세워 놓은 계획대로 행동한다. 하나님 집의 안배와 사역에 대한 그의 태도는 '네게 수많은 묘책이 있어도 내게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적그리스도가 마음가짐을 바꿔 진리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상부에서 직접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면 드러나고 교체되는 상황에서만 그는 얼마간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며, 진리 실행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즉, 진리 실행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의 우러름을 받고 동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는 분명히 호응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할 것이다. 진리를 실행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고 윗선 리더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면 그럴 때 그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실행할 때 장소와 배경을 구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지도 따져 보고, 이익이 큰지 적은지도 따져 보는 등 이런 것들을 매우 민첩하게 파악하고 임기응변도 한다. 그는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고려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명리와 지위,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자기가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에게 진리 실행은 이렇게 곤란하다. 애만 쓰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해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조금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직접 안배한 사역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도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만약 그의 지위에 도움이 되고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 잘 해낼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일거양득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그의 명리나 지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대로 못 할 경우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어떻게든 이유나 핑계를 대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적그리스도의 원칙은 한 가지이다. 바로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이익을 얻어야 하며, 조금도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생하거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 그의 명성과 지위에 이로운 것,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다. 정리하자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생각이 정리되면 행동한다. 그는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 절대적으로, 완전히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이고 조건적으로 군다. 그 조건은 무엇이겠느냐? 그의 지위와 명예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선결 조건하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진리 원칙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 집의 사역을 대함에 있어, 또는 닥친 일을 대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의 지위와 명예가 영향을 받지 않을지, 그의 명성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것이다.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할 경우 교회 사역에 유익이 되고 형제자매 역시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의 개인적 명예가 손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그의 실제 분량, 본성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하여 더 많은 사람의 우러름과 앙망, 탄복을 받고, 더 큰 명성을 얻게 되거나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는 그렇게 하는 걸 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의 이익을 생각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지위와 명예는 절대적인 것으로, 누구도 그와 다투어선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상대에게 숭배받을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행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동조를 얻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릴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진리와 실제 체험이 없기에 그는 머리를 쥐어짜 사람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련의 이론을 생각해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우러름을 받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의 자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된다. 만약 자기 인식에 대한 주제로 더 많은 사람의 신임과 앙망, 우러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수시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해부할 것이다. 자신은 마귀라고, 사람이 아니며 이성이 없다고, 자신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부할 것이다. 그럴싸하기만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화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이의 동조와 앙망을 얻는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행동한다. 체험 간증을 말하는 특정 방법이 사람들로부터 동조와 탄복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방법을 쓰며, 그 방법에 관심을 쏟고 공을 들이고 머리를 쥐어짠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와 동기는 지위와 명예 두 가지를 둘러싼 것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상 관점, 추구하는 방법도 모두 명예와 지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방식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타격을 받고 박탈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는 자신이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사실, 자신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있다는 사실로 괴로워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위를 얻고 더 높은 명망을 얻기 위해 늘 온갖 궁리를 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목숨으로 여기고, 인생의 추구 목표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지위를 너무 좋아해서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지위와 명예를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또 아무리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해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런 지각도 자책감도 없고, 더욱이 아무런 불안감도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명예와 지위는 다 사람이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고, 명예와 지위를 얻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절대적 권력과 지위를 얻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기꺼이 피조물의 지위에 서서 정상인의 모습을 살아 낸다면,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못난 거야. 아무도 우러러봐 주지 않아. 사람의 지위와 명망, 행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쟁취하고 빼앗아야 얻을 수 있지, 남이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라고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렇게 궁리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탄의 본성 본질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증오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 설령 그곳이 까마득히 멀고 구석진 곳이라 해도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그의 야심은 영원히 바뀌지 않으며,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가 가는 길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혹자는 "일부 적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맞겠느냐? 만약 정말 바뀔 수 있다면, 그들이 여전히 적그리스도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만 변화가 생긴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는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여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었지만, 교체된 후에 진실로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여 한동안 반성하고 인식하고 회개한 후 정말 어느 정도 바뀐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것에 불과하며, 진리를 추구하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 제명되고 출교된 사람은, 소수의 예외는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진실로 회개하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그럼 그 몇몇 예외는 잘못 규정된 것입니까?"라고 묻는데 그렇지는 않다. 어쨌든 악을 행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다. 다만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며 회개했다는 진실된 간증이 있다면, 교회에서 받아 줄 수 있다. 적그리스도로 정의된 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갖가지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게 정확하고 꼭 맞는 일이다. 만약 그가 당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했다면 교회에서 어찌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했겠느냐?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실로 회개하는지 등의 여부에 근거하여 적그리스도에 속하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날까지 힘쓰기를 바란다면, 이는 정말 회개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없다. 진짜 적그리스도들이 정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기는커녕 싫어하기에 그의 인생과 밀접하게 관계된 명예와 지위를 영원히 내려놓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다.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존엄을 갖춘 사람이자 진정한 피조물이며, 지위가 있어야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위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는 지위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지위를 진리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위를 중요시하는 자는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며,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지위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것은 처신의 목표와 기준이 아니라 그저 과정, 완전히 하나님께 보여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그릇되다! 오직 진리를 증오하는 그릇된 놈만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떤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든 적그리스도 부류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다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측면의 진리를 갖추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이 내적 상태를 나와 맞춰졌어. 교제를 들으니 왜 이렇게 후회되고 하나님께 죄스러울까? 나는 진리 추구에서 아직 갈 길이 멀고, 진실한 순종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두려워. 이건 나에 대한 경고야. 나는 그동안 스스로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었어. 앞으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빛 비춤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겠어. 내 길을 가면 안 돼. 나는 이 부분의 진리에서 아직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성장의 여지도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진심과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사람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 행동 방식에도 허점과 빈틈이 있었고. 몇 명이나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 하나님 말씀은 무척 명확한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신 걸까? 그럼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셨다면, 그걸 눈치챈 사람은 없을까? 만약 누군가가 눈치챘다면 더 큰일이야.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은 모른다면 그나마 괜찮아. 만약 사람을 폭로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고 나한테 대입해서 적용한다면, 내 명성에 좋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어떻게 만회하지?' 적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교제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보나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할걸.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겠어? 정직한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뭐든 남들이 알고 파악하게 하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은 상대적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선택적으로 실행하자. 어떤 일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 비밀이나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 말하면 무시당하는 일 등 더 많은 것들은 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뭐가 좋아?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해부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서 자기 패괴 성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잖아. 책망받아야 할 때는 똑같이 책망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높여 주시는 것도 없지.' 그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가라고 하자.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처신할 수 있겠어?' 어떤 측면의 진리를 듣든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겠느냐?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 깊이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획하며 관찰한다. 그럼 최종적인 대응책은 무엇이겠느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며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감쪽같이 처세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그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절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 외에도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심지어는 진리 실행에 편차가 있어서,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책망과 훈계를 받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옆에서 우스갯거리로 삼는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방식에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말이라고, 일종의 언사나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늘 남몰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행이야. 나는 뭐든 가져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다행이야. 내 마음속 깊은 곳 더럽고 추악한 내막은 털어놓지 않았잖아. 다행이야. 그래도 지위와 명예를 붙잡고 죽을힘을 다해 추구해서, 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분투해서 말이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분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겠어?' 적그리스도 부류는 간사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진리를 싫어하며 성품이 흉악하다. 패괴된 인류가 드러내는 갖가지 패괴 성품이 적그리스도에게서는 한층 더 증명되고 '승화'한다. 인류의 패괴 성품을 보고 싶다면 적그리스도를 한 명 찾아 해부하고 그와 함께 지내면 된다. 그것은 문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방법이고, 패괴된 인류의 패괴 본질과 사탄의 몰골을 무엇보다 분명히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적그리스도를 한 명 데려다가 본보기로 삼아 해부하고 인식한다면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위와 명예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추구와 욕망은 일반인을 뛰어넘는다. 평범한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그렇게 큰 욕망이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욕망은 몹시 크며 매우 눈에 띈다. 그와 함께 지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순간, 그의 본성 본질이 네 앞에 드러날 것이며, 너는 단번에 그를 간파하게 될 것이다. 그의 욕망은 이 정도로 크다. 그러다가 그와 깊이 교제한다면 너는 그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그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너는 그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정죄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며, 지위와 명예를 위해 어떤 나쁜 짓도 저지를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일에서든 위장하고 모방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는가 하면, 지위와 명예를 위해 자기 뜻을 굽히고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부류의 영혼과 본질은 더럽고

역겨움을 자아낸다. 그들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긍정적인 사물을 이용하고, 옳은 말과 옳은 도리를 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미혹함으로써 명망과 지위를 얻어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충족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모습이자 본질이다. 너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탄이 어떻게 처세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어떤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눈에 과연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어려움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를 한 명 관찰하고 해부하는 순간, 너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의 본성 본질과 추악한 몰골, 사악함과 흉악함을 전부 알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살아 있는 사탄이자 마귀이다.

(1)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심과 욕망이 엄청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겨움과 혐오를 느끼게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한지를 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먼저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자.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합니다.) 어떻게 증오하느냐? 자세히 말해 보아라. (어떤 적그리스도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형제자매들이 그의 모습을 폭로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몹시 강퍅해 후회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태도는 바로 죽어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집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아무리 큰 손해를 끼쳐도 마음속으로 조금도 후회하거나 죄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적그리스도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그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입힌 여러 해악과 교회 사역에 가져다준 피해를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 밝히 보았으며, 적그리스도가 악행이 많다는 사실을 보았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끝까지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싫어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고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군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러 온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오직 명예와 지위뿐이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테고, 그러면 그의 명예와 지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대항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폭로하고 해부해도 그는 기를 쓰고 부인한다. 그가 고의로 부정하든,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든 여하튼 이런 모습에서 한 측면으로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 이익을 몹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교회의 사역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이겠느냐? 무책임하고 경시하는 태도이다. 그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가 책임을 미루는 데서 이런 문제들을 보여 주지 않느냐? 책임을 미루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의 본성 본질을 보여 주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이 그의 교란과 악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든 그는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어떤 존재겠느냐?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정도의 인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존재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의 본질은 바로 마귀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이 그로 인해 아무리 큰 손해를 입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조금의 괴로움과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죄스러운 마음은 더더욱 없다. 이는 결코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자가 바로 마귀이다. 마귀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는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든 인정하는 법이 없다.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미라고 그는 생각한다.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나한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내 인격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어? 설사 그 일이 나와 관련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건 아니야. 내가 주요 책임자도 아니고. 책임 소재를 묻고 싶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란 말이야. 어쨌든 나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고!'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 정죄받을 것이며, 사형을 판결받아 지옥으로, 유황불 못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진실로 회개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 주든, 그는 마음속 깊이 언제나 반발하고 힘겨루기를 하며 반항한다. 교체된 후에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10 년 후에 그 일에 관해 언급해도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20 년이 지나 그 일에 대해 언급해도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변호까지 한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30 년이 지나도 그 일에 관해 말하면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변호하면서 "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30 년이 지났는데도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내린 처분에 반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난 30 년을 어떻게 지내 왔겠느냐? 설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지도 않았겠느냐? 설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도 않았겠느냐? 설마 설교 교제를 듣지 않았겠느냐? 설마 생각도, 정상 인성의 사유도 없겠느냐? 그가 지난 30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30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원한이 가득 차서 자신이 형제자매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박하게 대하고 괴롭히며 일부러 애먹이고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의 마음은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적의와 반항, 대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이 그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여 인격을 깎아내렸다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않았다. 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현재 그는 여전히 불복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원통한 태도로 하나님께 해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그 일을 밝혀 달라고, 그 일에서 대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판가름해 달라고 한다.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 잡고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책망과 훈계가 임하면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책망과 훈계를 인식하기는 하겠느냐? 책망과 훈계 측면의 진리를 교제할 때,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책망과 훈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더욱 잘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책망과 훈계가 임할 때, 사람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싶다면 먼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시니 모두가 그렇게 체험해야 하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최고의 실행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리더든 평범한 신자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책망과 훈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란 사람이 분량이 없는 어린아이임을 의미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성숙한 사람, 생명을 갖춘 사람,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마디 한마디 철퇴(鐵槌)처럼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창한 말들은 정말 좋은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이 말들은 다 무엇이냐? 거기에 진리가 한마디라도 있느냐? 너희는 분별할 수 있느냐? 너희도 수시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 말들은 다 무엇이냐? (도리입니다.) 사람이 흔히 쓰는 말로 요약하고 정의해 보아라. 도리란 무엇이냐? (구호입니다.)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탁상공론입니다.) 또 더 말할 게 있느냐? (전부 허언이자 헛소리입니다.) 그렇다. 단순명료하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용어구나. 이것을 가리켜 생활 용어라고 한다. 즉, 전부 헛소리라는 것이다. 헛소리의 함의는 무엇이냐? 빈말이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의 성질을 어떻게 정의 내리겠느냐? 글귀와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글귀와 도리뿐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에 대해 늘 이런 도리를 늘어놓는데, 이것이 그가 책망과 훈계를 진실로 인식하고 이해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느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책망과 훈계를 진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헛소리를 한가득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라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만약 정말 책망과 훈계가 임한다면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적대하고 거부하며, 절대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이는 그에게 있어 인격과 존엄에 대한 모욕이다.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례를 알고 있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행간에 교활한 궤변이 들어 있고, 사람을 미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을 그르쳐 놓고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이니 모두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리더 일꾼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선 안 됩니다. 리더 일꾼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해선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를 미혹하여 그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모습이다. 그는 틀린 말을 맞는 말로 만들고 흑백을 전도하며, 다른 이에게 허점을 들키는 게 두려워 서둘러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갖가지 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상대의 마음을 교란하고 시선을 어지럽힌다. 그리하여 상대가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인식도, 분별도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방금 말한,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와 같다. 또 어떤 예가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복수하고 공격하지요.) 공격하고 복수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모습이다. 이것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그는 왜 상대를 공격하고 복수하겠느냐? (그를 책망하고 훈계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악행과 사실의 진상을 폭로하여 그의 지위와 명예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 마음속 그의 이미지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는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한 상대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난처하게 했으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들 마음속 자기 지위를 급전직하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것이다. 이 일에서 그는 명예와 지위에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원한을 풀고 마음속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 기회를 잡아 자신을 폭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한 자를 공격하고 복수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정말 교활합니다. 다른 사람이 책망하고 훈계할 때 겉으로는 반항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악을 저지릅니다. 진실한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또한 한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푸른 산이 있는 한 땔나무 걱정은 없는 법이지. 일단 꾹 참고 나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자. 내가 대놓고 부딪히면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런 소문이 나면 내 명성에 해가 될 거야. 형제자매들이 알게 되면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인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먼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 책망과 훈계가 임할 때, 누가 내 잘못이나 과오를 폭로할 때 꾹 참고 받아들이는 척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이 빈틈을 보지 못하게,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말이야. 그다음에 다시 거짓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눈물을 좀 흘리고 하나님께 죄스러워하는 말을 좀 해서 일단 이 일을 대충 넘기자고. 그러면 형제자매들은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지. 그럼 나는 당당하게 계속 리더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럼 내

명예와 지위는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 그의 행동은 전부 허상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를 간파하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를 간파하려면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접촉해서 일이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지,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실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가 표면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일 뿐, 마음속 진실한 생각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본성 본질을 그렇게까지 꼭꼭 숨길 수 있겠느냐? 평생 숨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사악하고 교활해도 그의 일 처리가 진리에 어긋나고 속셈과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면, 언젠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 의해 분별되고 간파된다. 이 부류의 적그리스도는 가장 교활해서 겉으로는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싫어한다. 이 부류는 말재간이 있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들을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다. 또 다른 예가 있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사역자가 자기보다 자질이 좋고 사역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뒤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사역자나 파트너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유하여 자기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역자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여러 사역에서 성과가 나지 않게 되었지요. 또 그는 악행이 폭로되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피해를 줘도, 하나님 집 사역에 아무리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초래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며, 괴로워하거나 자책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성과 이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누구의 희생도 불사한다. 모든 사람을 짓밟아 자기 지위를 지킨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사역과 교회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그에게 그런 것들은 고려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이런 행동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라 섞여 들어온 이방인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집은 그의 집이 아니므로 하나님 집의 모든 이익은 그와 무관하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잡고 사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개인적인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려고 할 뿐이다. 이런 본성 본질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절대 책망과 훈계도, 어떤 측면의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방금 말한 예를 통해 적그리스도 부류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야심과 욕망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타고난 부류이고, 그 부류의 본성 본질을 지닌다. 그것은 절대 후천적으로 학습되거나 환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병을 얻은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환자와 같은데, 그런 종류의 병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선천적으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야심가로, 마왕의 환생이나 다름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책망과 훈계가 임하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평범한 형제자매가 책망한다면 그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신은 나를 책망할 자격이 없어. 그럴

주제가 못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지 며칠이나 됐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리더가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는 형제자매의 책망과 훈계에 이런 태도를 보이며, 자격과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이유로 거부한다. 그럼 상부의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의 본성 본질을 보면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설령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갖고 거부할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말 상부의 책망과 훈계가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가장 흔히 보이는 모습은 바로 온 힘을 다해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아 책임을 전가하려 하며, 나아가 모두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상부의 책망과 훈계를 피하기 위해 늘 모두를 속이고 기만하는 수법을 쓴다. 예를 들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존재해도 상부에 보고하는 법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보고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보고하는 사람은 그에게 억압당하고 배척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와 무관한 일은 관심을 갖지 않으며 무골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철통같이 봉쇄하고, 상부의 개입이나 관여를 용납하지 않는다. 상부의 사역지침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보류해 둘 뿐, 아래로 전달하여 실행하지 않는다. 상부에서 안배한 사역이 그의 개인적인 명예나 지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좀 설명을 하고 형식을 취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그의 명예나 지위에 위협이 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면 그는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할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 언제 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주판알을 굴릴 것이다.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는 상부에서 그 문제를 알면 책망과 훈계가 임하거나 나아가 그를 교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덮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집의 사역에 어떤 영향과 해악을 미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사역이 어떤 손실을 입을지 역시 관심이 없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만 생각하고, 상부에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지,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만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을 바라보는 방법이자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대표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나 사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절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 사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 어떻게 선택하고 처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일이 닥치면, 상부로부터 자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을까 봐, 상부에서 그의 실상을 알게 될까 봐, 제때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과 훈계를 받을까 봐 걱정하며 전부 숨기고 덮는다. 적그리스도는 상부의 책망과 훈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의 사역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자신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고 상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교회 사역과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한다. 그는 교회 사역의 진전에 지장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생각하겠느냐? 더더욱 안중에도 없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 그들의 생명 진입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적그리스도는 해결해 주지 못하며, 상부에 문의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문제를 덮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 교회 사역의 진전에

지장과 영향을 주며,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그는 보고하는 법이 없으며, 온 힘을 다해 덮고 봉쇄한다. 만약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눈치채고 투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다면, 그는 더더욱 극력으로 보류하고 봉쇄할 것이다. 그가 보류하고 봉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명예와 명성을 지키며, 현재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에게 있어 교체되는 것이나 상부로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사형을 판결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믿는 길의 끝에 다다른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상부에 문의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 그의 사역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덮음으로써 상부에서 알지 못하게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무척 비열하지 않으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 눈에, 그리고 상부의 눈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해.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하고 어떤 사역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또 좋은 리더는 절대 어렵다는 소리를 하거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상부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 흠집 하나 없는 사람, 상부에서 책망과 훈계를 하지 않아도 사역을 잘 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상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며, 상부에서 그를 사역을 감당하고 맡을 수 있는 사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 그래서 직접 체크하거나 지도할 필요가 없고 책망과 훈계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역시 그를 믿는다고, 어떤 일이든 그에게 맡긴다고, 그에게 중임을 맡기고 크게 신뢰한다고, 심지어 아끼는 마음에 책망과 훈계를 하지도 못한다고, 그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나태해져서 사역에 지장을 주게 될까 봐 걱정한다고 오해하게 한다. 또 그는 형제자매들이 그를 하나님 집과 교회의 인기인, 하나님 집의 중요 인물이라고 여기게 한다. 그가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착각과 허상을 심어 놓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존경과 숭배를 받기 위함이며, 교회에서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고, 높은 지위와 좋은 대우를 받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그는 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아래로 와서 이런 사역을 하지도 않으실 테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 이렇게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지도해 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세부 사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리더 일꾼인 우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온 힘을 다해 자기 지위를 지키는 한편, 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어떤 의혹도 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를 믿고 신임하게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어떤 성질이냐? 모두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수법의 대단한 점이다.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미혹되고 이용당할 뿐이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대놓고 사람을 미혹하면서 "상부에서는 저를 믿고, 무엇이든 제 말을 듣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도 얼마간 경각심을 갖고 분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이 상부에서 그를 믿고 신임하기에 리더 사역을 맡긴 거라고 오해하게 한다. 분별력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바보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 그를 따르며, 일이 생겨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그에게 해결법을 알려 달라고, 길을 선택해 달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을 처리하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만약 교회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몇 명 없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많은 이가 적그리스도를 믿고 숭배하고 따를 것이며, 그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적그리스도에게 3~5 년간 미혹되고 통제되면 생명에 큰 해를 입으며, 8~10 년이 되면 철저히 망치게 될 것인데, 만회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적그리스도는 늘 자기가 하나님 집에서 인기인이고 하나님이 중용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남들을 미혹하고 구슬리고 통제함으로써 영원히 지위를 누리고 발언권을 얻으려는 목적을 이룬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지위를 잃고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형제자매들로부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질이 떨어지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른다는 말을 들을까 봐 겁낸다. 그들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말과 정의를 들을 때, 적그리스도는 당황하고 분노하며, 심지어는 행패를 부린다. "저는 자질이 떨어지니 쓰고 싶은 사람을 쓰시죠. 어쨌든 저는 못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당신들을 위해 많은 것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왜 공정한 말 한마디 못 해 주는 겁니까?" 그는 명예니, 지위니 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장하고 위장하기도 때려치운 채 추악한 몰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또 분노를 발산한 후에는 눈물을 훔치며 생각한다. '큰일이야. 추태를 부렸잖아. 재기해야 해!' 그는 계속 위장하며, 좋은 구호와 도리를 배우는 한편, 계속 듣고 읽고 말하고 남들을 미혹한다. 명예와 지위를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선거 때 형제자매들이 다시 그를 떠올리기를, 그의 좋은 점과 그가 치른 대가, 그가 한 말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이는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옛 습성을 못 고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왜 변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며 그는 변하지 못한다. 그는 이런 인간이다. 자신의 야심과 욕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때 그는 행패를 부리는데, 그러고 나면 한결 점잖아진다. 얼마 전, 한 사람의 근황에 대해 알아봤더니 몇몇 형제자매는 그가 요즘 들어 많이 온순해졌다고 했다. '온순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최근 들어 많이 점잖아지고, 예전보다 태도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남을 공격하지도 않으며, 지위를 두고 경쟁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또 옳은 말로 남들을 도와주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변했겠느냐? 변하지 않았다. 그럼 이 행동들은 무엇이겠느냐? (겉면의 좋은 행위입니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서 모든 악행이 폭로된 후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내적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날 제가 저지른 일들을 깊이 뉘우치고 있죠. 형제자매들에게 피해를 준 일을 잊을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어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자발적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해 달라고도 한다. "제가 연약해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릇된 부분이 있으면 책망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형제자매의 책망과 훈계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거기에 반감을 품고 반항하고, 자신을 위해 변호하고 해명하고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던 데서 자발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태도의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으냐? 이것이 회개했음을 의미하겠느냐? 그의 태도를 보면 돌이킨 것 같으니 너는 그를 책망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요즘 당신의 태도가 무척 좋은 것 같으니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려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개의치 마십시오. 하지만 제 말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 의도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거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으로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자고요. 당신은 예전에 리더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거만했고,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시간이 흐른 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지난번 일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일이 터졌고, 하나님 집의 재산에 매우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형제자매가 끌려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였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당신이 잘못을 인정해도 하나님은 기껏해야 당신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실 테니, 앞으로의 진리 추구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도 올바르게 대하면서 당신을 하나님 집 사람으로 여길 거고요. 당신을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혐오를 사서 버림받게 되죠. 그러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난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일 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과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다해야 할 책임이자 본분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는 진실한 말 아니겠느냐? 여기에 사람을 조롱하고 속이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사람을 비꼬고 비웃는 어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는 담담하게 마음속 말을 한 것으로, 다른 이를 도와 이로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실행의 길과 구할 진리가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진리로 여겨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아직도 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당신들은 항상 뭘 그렇게 추궁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겠다느니, 도와주겠다느니 운운하는데,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이건 그냥 옛일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결국 저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 혼자만의 책임입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책임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요. 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왜 힌트를

주지 않으셨답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탓할 수 있습니까?" 이는 마음속 말이 튀어나온 것 아니겠느냐?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 그는 뉘우치고 겸손해진 것 같으며, 예전보다 한결 점잖아진 것 같다.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과 차분히 앉아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알 수 있느냐? (그가 보여 준 모습은 그저 재기를 위한 허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느냐? (그는 결코 진정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도 아니고요. 그의 행동은 그저 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문제를 교제할 때, 그는 여전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적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잃었을 때, '푸른 산이 있는 한 땔나무 걱정은 없다'는 삶의 태도를 보이며 시시각각 재기할 준비를 한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걸어온 잘못된 길과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결코 반성하지 않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더욱이 악행을 저지른 사실 속에서 자기 본질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진리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종합해 내지도 못한다. 교체되어 지위를 잃었을 때, 그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하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책망과 훈계를 당하고 교체될지라도 그는 그 일로 뉘우치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실행의 길을 찾거나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든,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든 그는 죽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실패를 통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구하는 일도 없다. 그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자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굴릴 뿐이다. 바로 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위를 잃은 후의 생활 상태로, 시시각각 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예전에 자신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에서 예전에 자신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이 밖에도 그는 절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에 하나님 집에 가져다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없는 것도 한 부분이다. 그는 결코 어떻게 해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본성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위장에 몹시 능하며,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의 본질은 바로 변화에 능한 것이다. 또한, 지위와 야심, 욕망에 대한 내면 깊은 곳의 추구 상태는 시종일관 느슨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부류의 본성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형제자매겠느냐? 진정한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들을 형제자매로 여긴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본질의 표출이다. 지위를 잃은 그는 이런 생활 상태를 보이며, 그가 계산하는 것, 드러내는 것,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과오와 진리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 태도는 이런 것이다. 그의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옳고 긍정적인 실행의 길을 어떻게 말해 주든

그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대항하며, 심지어는 '지금 나는 지위를 잃어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들까지 나를 우습게 보고 가르치려고 드는군. 당신한테 나를 가르칠 자격이 있나? 당신이 그럴 주제나 돼? 내가 리더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은 걸음마도 못 뗐다고! 당신이 지금 할 줄 아는 그 말들도 다 나한테서 배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로 나를 가르치려고 들다니, 하늘 높은 줄 모르네!'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 자신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에게 자격과 경력을 논하니, 이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나 이런 말을 하지, 정상인 혹은 염치와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설교해 주고, 차분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내면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느냐? 예를 들어, 너는 하나님을 10 년 동안 믿었는데도 리더가 되지 못했는데, 다른 누구는 하나님을 믿은 지 2 년 만에 너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 보자. 너는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또 너는 하나님을 20 년간 믿어서 겨우 지역 리더가 되었는데, 다른 누구는 하나님을 믿은 지 5 년 만에 교구 리더가 되어 너를 '지도'한다면 속으로 불복할 것이다. 만약 그가 너를 책망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며, 설령 그 책망이 옳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런 태도나 모습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너는 적그리스도 성품이 오직 적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척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성품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교제하고 해부할 때는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부류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이 소수겠느냐, 다수겠느냐, 아니면 전부겠느냐? (전부입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 성품은 사탄의 성품이며, 패괴된 인간은 누구나 사탄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항목에 관해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교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몇몇 실제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너희가 예배 때 교제하도록 남겨 두겠다. 늘 다른 사람이 어떤지에 관해서만 교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교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교제해야 한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서 적그리스도 성품과 관련된 모습이나 표출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도움과 이로움이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 성품을 벗어 버리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성품의 각종 모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일전에 교제한 바 있다. 지금 너희는 그것에 맞춰 볼 수 있느냐? 얼마간 인식할 수 있느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측면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든 전부 진리를 깨닫고 맞춰 본 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패괴 성품의 각종 모습을 분별하고 해부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통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이 점을 깨달았느냐?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늘 이렇게 사소한 주제와 사소한 일만 교제하시고,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심오한 비밀을 밝혀 주지는 않으시네.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런 일을 교제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큰 복을 받고 온전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줄곧 알지 못하며, 듣다 보면 종국에는 졸아 버린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각각의 진리와 관련된 사람의 각종 내적 상태나 각 항목 진리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에 세부적으로 교제할수록 멍해지고, 새겨듣지 못해 늘 졸음이 오는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아무리 재미없고 반복적인 규례와 의식을 지켜도 졸지 않지만, 진리나 각종 내적 상태를 교제하기만 하면 졸아 버린다. 늘 조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이겠느냐? 이는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생명 진입 측면의 이 각종 진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잘 알게 된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멍해지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들어도 똑같다고 여기면서 어떤 길도 얻지 못한다. 그는 생명 진입의 일이 복잡하지 않으며, 그렇게 많이 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수많은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길에서 각 항목의 진리에 공을 들여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며 실행의 길을 찾지 않는다면 절대 어떤 진리에도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은 무엇이냐? 각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각 항목의 진리는 한 가지 논조도 아니고, 하나의 지식이나 철학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이나 생존 상태, 매일의 내적 상태와 생각, 그리고 사람이 패괴된 본질에 지배되어 생겨난 갖가지 생각, 뜻, 속셈,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이 주제들을 분명히 하고 맞춰 볼 수 있으며 실행의 원칙을 찾고 자신의 갖가지 성품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내적 상태와 관점을 깨달으면 그것들과 관계된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정확히 진리 원칙대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 피상적인 글귀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폭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기적이고 비열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공평무사하지. 나는 크나큰 사랑과 포용심을 지니고 있어. 나는 학자 가문에서 태어나 고등 교육을 받았고, 명인이며 명작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겠느냐?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겠느냐? 분명히 너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이 진리 안에 내포된 갖가지 내적 상태 또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네가 한 가지 진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폭로한 갖가지 내적 상태를 알았을 때, 자신과 맞춰 볼 수 있고, 정확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진리 실행의 길에 오르고 진리 실제에 진입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도리만을 깨달은 것일 뿐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방금 말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지 하는 항목처럼 말이다. 우리가 교제한 갖가지 내적 상태와 모습, 표출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 그리고 성품과 관계가 있었다. 너희는 이에 대해 얼마나 인식했느냐? 얼마나 맞춰 보았느냐? 네가 이해한 그 속의 말과 세부 내용, 내적 상태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있다고 여겼느냐, 아니면 너 자신과 관계있다고 여겼느냐? 너는 이러한 내적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정말 맞춰졌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이냐? 이는 너의 이해와 진리에 대한 네 태도에 달려 있다. 맞춰졌다는 것은 진리 실행을 위한 하나의 선결 조건일 뿐, 이미 진리를 실행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맞추지도 못한다면, 너는 진리 실행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들은 것이겠느냐? 대충 흉내만 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지도 못하니, 너는 문외한, 봉사만 하는 존재, 부각물이다. 어떻게 맞춰 볼지, 이 말과 관련된 각종 내적 상태를 어떻게 해부할지 등은 너희 스스로의 인식에 달려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 말씀들을 알려 주고 공급해 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너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퍅하여 늘 위장하고 자기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데, 자신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해부한다. 그 결과, 남들은 거기에서 유익을 얻어도 그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듣고 자신이 얻기 위해 듣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진리,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 생명을 얻음으로써 성품 변화를 이루는 것이 다른 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씀들은 너와 관계가 있다. 네가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이 말씀들은 너를 변화시키고, 네 실제가 되며, 네가 성품 변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조에서 우리는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주제에 관해 교제하면서 한 측면에서는 이 일에서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태도와 본성 본질의 표출에 관해 인식하게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희에게 긍정적인 인도를 해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남은 문제는 너희 스스로 교제하여 해결하여라. 이는 너희 자신의 일이다.

(2) 적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책망과 훈계 측면에서만 그 본성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가 직면하는 환경과 사건들은 그것 말고도 무척 많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가에 관해 교제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내는 모습 중 어떤 것이 그가 늘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 주겠느냐? 이 주제는 명확하지 않으냐? 범위가 넓지 않으냐? 대표성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려는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해서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느냐? 먼저, 그는 지위가 없어도 적그리스도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며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지위가 없는 일반인은 적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범위는 사실 무척 넓다. 무릇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부류는 지위가 있든 없든, 리더든 평범한 신자든 모두 적그리스도다. 이는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이 평범하게 따르는 자일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가 드러내는 어떤 본성 본질이 그런 부류가 곧 적그리스도임을 방증하겠느냐? 먼저,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한다. 우리는 그의 의식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방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교제해야 한다. 평범한 신자라고 해도 그는 항상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 그런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며, 그런 일을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한 걸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지위가 있든 없든, 언제 어디에 있든 그의 성품과 본질은 표출되고 나타나며, 그 어떤 공간이나 지리, 사람과 일, 사물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든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든 두각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뽐내려 하며, 남을 구속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언제나 남들을 지휘하며 자기가 결정권을 잡으려 들며,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어 많은 찬사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갈 때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졌든 먼저 눈으로 한 번 쓱 훑어보며 누가 기질이 있고 뛰어난지, 누가 말을 잘하고 대단한지, 누가 자격이 있고 명망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누구를 이길 수 있고 누구를 이길 수 없는지, 누가 자신보다 낫고 못한지 먼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한다. 빠르게 평가를 마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한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우선 한쪽에 제쳐 놓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먼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정도 명망과 지위, 은사,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골라 그들과 겨룬다. 만약 이 사람들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오래 믿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질투의 대상이 되며, 또 당연히 경쟁 상대가 된다.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몰래 비교한다. 명망과 지위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 사람과 스스로를 견주어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일부 사람들이 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리저리 관찰한 후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정통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모두가 그 사람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고, 체험 간증을 얼마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을 '사냥감', 경쟁 상대로 정한 뒤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작업이겠느냐? 자신이 상대보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열을 올린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 능력이 상대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면,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각종 자료를 많이 찾아보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구하는 한편,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각종 사역에 참여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자신의 세력도 키워 나간다. 자신에게 상대와 겨룰 만한 밑천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수시로 일어나 '고론'을 펼치며 고의로 상대를 부정하고 깎아내려 상대가 망신을 당하고 체면을 잃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뛰어나고 남다른 면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며 경쟁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알아챈다. 오직 우매하고 무지하며 분별력이 없는 사람만 알아채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열정과 추구, 그가 치른 고통과 대가, 그의 표면적인 좋은 행위만 보지만, 사실 진상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그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겠느냐? 지위를 빼앗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이 모든 일, 그가 기울인 이 모든 노력, 그가 지불한 이 모든 대가의 한가운데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보다 숭상하는 지위와 권력이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교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사람들의 신임과 우러름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복과 앙망, 숭배를 받음으로써 교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다. 그들의 경쟁 상대는 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교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 형제자매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경쟁 상대가 된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경쟁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조금의 연민도 없이 경쟁한다. 그의 마음은 투쟁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사람이 경쟁하고 다투지 않으면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경쟁하고 다퉈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위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1 등이 되기 위해 그는 어느 누구와도 모든 대가를 불사하고 경쟁하며,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든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이다. 말재간이 좋은 사람, 말하는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조리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의 대상이자 모방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경쟁 상대가 된다.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이 있으며 형제자매들이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사람 역시 그의 경쟁 상대이다. 또 업무에 정통해 형제자매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역시 그의 경쟁 상대이다. 사역에서 성과를 내 상부의 눈에 든 사람은 더더욱 그의 경쟁 상대가 된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상관없이 적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명언은 무엇이겠느냐? 말해 보아라. ("남들과 겨루니 더없이 즐겁고, 하늘과 겨루니 더없이 즐겁다."입니다.) 이는 미친 것 아니겠느냐? 이미 미쳐 있는 것이다. 또 있느냐? (하나님,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서 누구와 함께 있든 상대를 능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이념이다. 또 있느냐? (하나님, 저도 한 마디 떠오릅니다. 바로 '승자는 왕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 생각에 그는 어디를 가든 군계일학,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최고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너희는 대부분 한 가지 이념을 말했는데, 한 가지 행위로 그를 묘사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부류가 어디를 가든 꼭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의 행동을 조종하는 하나의 성품,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다.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경쟁할 거야! 경쟁! 경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들어갔다. 어째서 한 번이 아니냐? ('경쟁'은 그의 생명이 되었으며, 그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성품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누구도 못 말리는 성품을 타고났다. 바로 "이 몸이 천하제일이고, 유아독존이다."라는 것이다. 극도로 교만한 이 성품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는 동안 계속 다투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두고 다투겠느냐? 무엇을 두고 경쟁하겠느냐? 당연히 명리와 지위, 체면, 이익을 두고 경쟁한다. 어떤 수법을 쓰든 모두가 그에게 무릎 꿇고, 그가 이득과 지위를 얻기만 하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의 이런 경쟁은 한때의 재미가 아니라 사탄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성품이며, '하늘과 다투고 땅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는' 큰 붉은 용의 성품과 동일하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명예를 쟁취하고 지위를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위를 쟁취해 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두가 네 말을 듣고 너를 우러러보고 숭배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자신조차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하는 것과 그를 보면 아첨하고 떠받들어 주는 것을 누리길 즐긴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갈 때마다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다. 권력과 지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 지위를 지키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철학은 바로 '살아 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이다. 교회에 이런 악인이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교란받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해서 분위기도 화목하고 다들 기분도 좋은데, 이때 심사가 뒤틀린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교제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해 상대를 공격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화목한 분위기가 교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악인은 사람들을 교란하고 역겹게 하러 온 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이다. 때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경쟁하거나 누구를 억누르는 것이 꼭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손에 넣고 사람들로부터 탄복을 자아내기만 하면 그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는 경쟁 과정에서 뚜렷한 사탄 성품을 드러낸다. 어떤 성품이겠느냐? 어떤 교회에 나타나든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며, 명리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교회를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신이 지위를 얻고 모두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그제야 그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경쟁하고 다툼으로써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적그리스도가 받드는 명언은 무엇이겠느냐? "나는 경쟁할 거야! 경쟁! 경쟁!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어디를 가든 경쟁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그는 사탄의 심부름꾼이요,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존재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렇다. 즉, 교회에서 우선 먼저 누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밑천이 있는지, 누가 은사나 특기가 있는지, 누가 생명 진입 측면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누가 명망이 높고 관록이 많은지, 누가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누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두 그가 경쟁하고 다툴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 무리에 가든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 한다. 바로 지위를 손에 넣고,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을 손에 넣으려 한다. 그는 이런 것을 손에 넣으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손에 넣으면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 그럴 수 없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다. '당신이 승복하든 말든 신경 안 써. 밑천을 따지자면 내가 최고지. 언변 능력도 내가 최고고 은사나 재능도 내가 가장 많아.' 그는 어떤 면에서든 1 등이 되려고 한다. 형제자매들이 그를 책임자로 뽑으면, 그는 발언권, 결정권을 두고 파트너와 경쟁한다. 만약 교회에서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 그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할지 혼자 결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한 말과 결정한 일들을 모두 성공시켜 현실로 바꾸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그냥 넘어가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해진다. 네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너에게 본때를 보여 줘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오만 방자하고 혐오스러우며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양심도 이성도 없고, 진리도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에게는 정상인의 이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진리를 교제해 줘도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네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즐겨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숭상하는 명예와 지위이다. 그는 지위의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만족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사람들이 그의 '빛'과 '열', 특기, 남다름을 알게 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일반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추대와 찬사, 앙망과 숭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뻔뻔스럽지 않으냐? 교회에 이런 자가 존재하면 아주 곤란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상식대로라면 누가 옳은 말을 하면 그의 말을 듣고, 누가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그의 말에 순종하며, 누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 그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말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의 말을 따르거나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교회의 사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고려 범위가 아니다. 그가 유일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내 건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얼마나 체면이 떨어질까? 그러니 경쟁해야 해. 내가 제안한 건의가 채택되게 해야지.' 일이 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자신의 그런 행동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돌아보는 법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이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주로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겠느냐? 그는 스스로 은사와 능력이 있고 자질이 뛰어나니 남들로부터 숭배와 옹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집에서는 자신을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그는 자기가 제안한 건의와 구상을 하나님 집에서 채택하고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그러지 않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하나님 집을 적대시하고 독립 왕국을 세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성품과 본질의 표출이 교회에서 방해와 교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막대한 방해와 교란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리더 지위를 다투고 하나님 선민 가운데 명망을 얻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이를 공격하고 자신을 높인다. 그는 하나님 집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만 신경을 쓴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 선민 가운데서 마귀, 악인,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자신의 속셈과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는 법이 없고, 자신의 속셈과 목적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반성하는 법이 없다. 또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지 구하는 법도 없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리더 일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 리더 일꾼과 겨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고 통제해서 그리스도가 실권을 잃게 하지? 어떻게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입지를 굳히고 지위를 손에 넣고, 또 실패 없이 성공만 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해서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밤낮없이 이러한 것들만 생각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고 어떤 본성이냐? 예를 들어, 평범한 형제자매는 간증문을 쓸 때 마음속으로 자신의 체험과 인식을 어떻게 사실대로 써낼지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진리에 있어 그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주기를, 자신이 진리를 더 많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간증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알고 칭찬할지,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한다. 그는 이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소한 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런 기회조차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체험 간증문을 쓰는 것을 보면 지위, 명성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상대보다 더 뛰어난 체험 간증문을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거짓을 날조하고 남의 글을 베끼는 등, 거짓 간증과 같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낯부끄러운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나아가 널리 이름을 알리고 지위를 얻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러름을 받고 주목받을 기회라면 그 어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원하는 결과와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라는 사람이 평범하지 않고 남들보다 고귀하며 남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남기며, 나아가 사람들이 점점 더 그를 부러워하고 경탄하고 앙망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과거의 길을 계속 걷기를 고수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위장을 하든 고생을 하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치고 지위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가 표출하고 드러내는 본질치고 경쟁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과 지위와 체면,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데, 가장 흔히 보이는 모습은 바로 높은 명성과 평가, 사람들 마음속 지위를 두고 경쟁하여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며 그 위주로 돌고, 그를 중심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걷는 길이다. 적그리스도가 경쟁하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해부하든 그들은 진리도,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한 것들을 내려놓지도 않는다. 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교활해져서 더 은밀하고 노련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착각하게 한다. 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면 할수록 머리를 쥐어짜 더 기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며, 듣기 좋은 말로 자기 속셈과 목적을 덮는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폭로와 심판에 더더욱 불만을 품으며, 심지어는 적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기고 덮으며 사람들이 눈치채거나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낯이 폭로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무의식중에 그 야심과 욕망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들의 본질과 본모습을 간파할까 봐 더더욱 걱정한다. 그래서 숨기며 극력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다. 숨기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기 지위와 명예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힘을 보존해 다음 싸움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처신하는 목적과 방향, 인생 목표, 일 처리 원칙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위를 추구하는 욕망과 야심, 목표 또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목적을 이루고자 분투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교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교묘하게 사람들이 간파하고 분별할 만한, 눈에 띄는 행위와 모습을 회피하고, 방식을 바꿔 슬피 울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여 많은 사람의 동정을 산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변화했다고 착각하게 하며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기가 더욱 어렵게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좀 기이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이하다면 바로 마귀이다. 마귀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지위를 추구하는 야심과 욕망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마귀는 죽을지언정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곳에서 싸움에 져 형제자매들에게 폭로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계속 또 싸우려고 한다. 끊임없이 지위와 체면, 발언권, 결정권 등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그들이 일관되게 신봉하는 원칙은 '경쟁'이다. '오직 나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나를 이끌 주제가 못 된다고!' 그는 결코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 남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명예와 지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지 않으냐?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일을 처리하면서 늘 스스로를 뽐내고 남다른 생각을 하며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부류 아니겠느냐? 이들은 종종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두 다른 누군가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 줍니다.) 이는 스스로를 뽐내는 것이다. 그는 다른 이의 관점을 부정한 후, 남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사실 그 스스로도 그 관점이 비현실적이고 성립하지도 않는 구호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남들에게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 주고, 모두가 자기 말을 따르게 한다. 그는 언제나 독창성과 남다른 생각을 보여 주려고 하고,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도 그는 반대표를 던지며,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남의 관점을 부정한다. 이것이 바로 남다른 생각을 잘하고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방식이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무리 옳고 적절해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또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적절하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마치 그에게 시키면 상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뒤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부류는 누구를 보든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늘 자기는 어떤 측면에서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면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볼 때면 어떤 측면이든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설령 자기가 일을 그르쳐서 책망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불복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핑계를 한 보따리 내밀어 사람들이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고 잘못 여기게 한다. 남다른 생각을 잘하고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사실 이 부류는 제대로 된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무슨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 엉망이 되지만, 주제를 모른 채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감히 끼어들고 개입하면서 한껏 거들먹거리는 한편,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말을 듣게 하려 한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남들이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만 하고, 그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의 말을 따르는 일은 없다.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이성이 없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은 것 같지만 실은 그릇된 도리이다. 다른 사람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는 억지를 부리고 감언이설을 해서 상대에게 그가 옳다는 생각을 심어 준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는 말재간을 부려 옳지 않은 것으로 만들며, 모두가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부류로, 사람을 미혹하는 데 무척 능하다. 그는 사람들을 얼떨떨해지고 혼란을 겪게 하며 무엇을 따라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결국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미혹되고 사로잡힌다. 많은 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진리를 교제하거나 체험 간증을 이야기할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일어나서 자기 관점을 발표한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이의 체험적 인식을 지적하고 제멋대로 지껄임으로써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목적을 이룬다. 적그리스도는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는 것에 가장 능하다. 그는 진실한 체험 간증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도 없다. 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 부풀릴 뿐이다. 적그리스도에게서는 허심탄회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모습도, 주동적으로 자신의 패괴 성품을 교제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잘못되고 그릇된 어떤 관점을 어떻게 뉘우쳤는지 교제하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등등을 인정하는 일 역시 절대 없다. 사람들은 그와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지내도 그는 패괴가 없는 것 같고, 완전한 사람, 성인(聖人)으로 태어났으며, 모두 그를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정말 이성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우러름 받고 숭배받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누가 자신을 존경하고 숭배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자신이 패괴된 인간이고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 실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주제를 알기에 자신이 어떤 패괴를

드러내든, 어떤 잘못된 관점을 갖든 모두 진솔하게 교제하여 남들이 알게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게 홀가분하고 마음 편하며 무척 즐겁다고 생각하고, 전혀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 설령 남들이 그를 판단하고 무시할지라도, 바보 같다고 하거나 깔볼지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올바르게 대한다. 사람은 패괴성품이 있기에 당연히 패괴를 표출할 수 있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다. 스스로 깨달았다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사람들에게 숭배받거나 우러름 받을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진리를 깨닫고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솔직하게 자기 인식을 교제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는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식을 말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고 모두에게 동조를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눈엣가시가 된다. 적그리스도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대의 옳은 실행과 긍정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그것이 잘못되고 치우친 이해라고 말한다.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되는 일을 했어도 그에게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는 큰일을 축소하고 과소평가하며 한 푼 값어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 절하한다. 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부풀리고 확대하여 모두에게 보여 주고,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고 자기 공로임을 모두에게 알려 형제자매들이 그를 다시 보게 하고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의 좋은 점을 기억하게 한다. 모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며,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사람 또한 이렇게 행동한다.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서 가장 흔히 보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로 일을 처리하느냐? 좋은 일은 남들 앞에서 하고 나쁜 일은 남들 뒤에서 한다. 좋은 일이면 모두가 알게 하고 나쁜 일이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기는데, 바람 한 점 새지 않게 극력으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이 역겹지 않으냐? 그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겉에서 볼 때, 그는 지위를 놓고 다투지 않는 것 같고, 지위를 위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지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높은 명망과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때로는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를 다투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누군가를 추천을 해도, 즉 그가 해야 할 일을 좀 할 때도 그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그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자기가 추천해 준 덕분에 상대가 본분 이행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일조차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는 '내가 당신을 추천했다고는 하지만, 당신 또한 내가 이끌어 줄 대상이야. 당신이 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라고 생각한다. 지위와 명예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지위를 다투고 지키기 위해 그는 누구의 눈빛 하나,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나아가 구석에서 생긴 어떤 일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큰일이며 작은 일이며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시야 안에

있으며, 사람들이 전해 준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한 번 또 한 번 스쳐 지나간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시비 가리기를 좋아해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지킬 길과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때의 실수나 부주의 때문에 자기 지위나 명성에 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지위를 위해 모든 것을 '통찰'하는 법을 배운다. 어떤 형제자매의 입에서 그에게 무례한 말, 그와 다른 의견이 나오든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며 자세히 연구하고 심각하게 분석한다. 그 후 상응하는 대책을 찾아 대응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한다. 명성이 깎이거나 명성에 불리한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급히 그 근원을 찾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와 변명거리를 대며 만회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들이 리더 일꾼이든 아니든 그들이 바쁘게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하는 모든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다 지위를 위한 것이며,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과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예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고 망치는 마귀 사탄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집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도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오늘 교제한 내용에 마음에 와닿은 바가 있느냐? 어떤 항목이 마음에 와닿았느냐? (마지막 항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경쟁'이라는 본성을 해부하신 내용이 그랬습니다.) 늘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적그리스도나 멸망과 관련이 있으니 좋은 길이 아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겠느냐? 이는 현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문제이자 매일 직면하는 문제이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경쟁하지 않을 수 있을지, 경쟁한 후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문제이다. 사람은 패괴 성품이 있기에 모두 명예와 이익, 체면을 두고 다투는데, 경쟁하지 않기가 무척 어렵다. 그럼 경쟁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벗어 버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성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일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위를 다투려는 생각이 표출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자매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식적으로 그 그릇된 생각을 저버려야 합니다. 이 밖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징계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명예와 지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실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리 추구에 달려 있다.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공허함과 인류의 패괴 진상을 밝히 알 수 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해야 명예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진리가 없고 부족한 점과 표출하는 패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리 추구에 공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꾸미고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은 뭐든 잘한다고 착각하게 한다면, 이는 무척 위험하다. 언젠가 벽에 부딪히고 넘어질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네게 연약함과 패괴 표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지 초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때, 일단 그 말이 듣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반감을 갖거나 너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로 그런 말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느냐?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괴와 문제점으로 점철되어 있지.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의 말에 비방과 조롱 말고도 사실이 있지 않을까?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해.' 네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지위와 명예 그리고 너에 대한 다른 이의 평가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한다. 특히 은사와 자질이 좀 있거나 얼마간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기 힘들어한다. 말로는 가끔 내려놓았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 마음으로는 내려놓지 못하는데, 환경이 허락하고 기회가 생기면 여전히 예전처럼 명예와 이익, 지위를 놓고 다툰다. 패괴된 인간은 누구나 다 명예와 이익, 지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위를 추구하려는 욕망이 작을 뿐이다. 지식과 재능, 잘생긴 외모, 특별한 밑천이 있는 사람은 명예욕과 지위욕이 매우 강렬하며, 심지어는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그들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들이다. 지위가 없을 때 그들의 욕망은 싹이 트려는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지위가 생기고 하나님 집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 특히 사역을 몇 년씩 해서 충분한 경험과 밑천이 생기면 그 욕망은 더 이상 싹이 트려는 상태에 있지 않고 일찍이 그 상태를 벗어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곧 열매를 맺으려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늘 큰일을 해 명인이나 위인이 되려는 야심과 욕망을 품게 되는데, 그러다 큰 악행을 저질러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끝장나고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환경에 놓이든 너는 진리를 구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실행해야 하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네 마음에 항상 지위를 다투려는 생각이나 욕망이 있을 때 너는 그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서둘러 진리를 구해 지위를 다투려는 욕망을 싹이 트려는 상태에서 사그라들게 하고, 그런 다음, 진리 실행으로 대체해야 한다. 네가 진리를 실행할 때 지위를 다투려는 야심과 욕망은 약해져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면 너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의 욕망과 야심이 꽃피고 열매 맺어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싹을 틔우려 할 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큰 화가 닥친 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만약 육을 저버리려는 다짐조차 없다면 진리 추구의 길을 걷기가 몹시 힘들 것이다.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위험하다.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관련하여 한두 번 실패하고 쓰러지면 명예와 이익, 지위에는 어떤 가치도 없음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되고, 영원히 지위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겠노라고, 언제나처럼 체험 간증을 말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된다. 설령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이 될지라도 끝까지 따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바란다. 이런 자가 바로 진실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도태시켰다. 일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실패한 말로를 보고는 적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또한,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 오로지 진리 추구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만 매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그를 봉사자나 미천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눈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는 따르는 자일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증오한다. 혹자는 명예와 지위를 너무 사랑하여 도통 놓지 못하고 포기하기 힘들어하면서 명예와 지위가 없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재미도, 희망도 없다고, 평생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아가야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작은 명성일지라도 계속 그것을 위해 분투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만약 네가 이런 사상 관점을 갖고 있고, 마음속이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 올바른 방향과 목표가 없을 것이며, 자기 인식을 추구하여 패괴를 벗어 버리고 사람답게 살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면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책임감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악을 행하거나 교란하거나 제명되지 않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일할 때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악행이 아니고 교란이 되지 않는 한 내 속셈이 좀 옳지 않더라도 아무도 모를 테고 나를 정죄할 수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실행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도 알지 못한다. 혹자는 이런 일을 간파하지 못하고 '내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야. 내 행동이 교회 사역에 교란과 방해가 되지는 않았고, 나아가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지. 나는 그저 지위를 좋아하고 내 지위를 지킬 뿐이야. 이건 악행이라고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추구는 언뜻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바른길이 아니며, 진리 추구와 완전히 상반된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네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내려놓기 아주 어렵다면 생명 진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위가 네 마음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네 인생 방향과 추구하는 목표를 완전히

통제하고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가 무척 힘들어질 것이며, 성품 변화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언제나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다.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 성품이자 그릇된 길이며, 사탄의 패괴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결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혐오한다. 그런데도 네가 목을 곧게 세워 지위를 두고 다투고, 언제나 그것을 아끼고 지키면서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위를 예정해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와 길,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준에 맞는 피조물, 작디작은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지 지위 있고 명망 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든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네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위를 추구하든 그 길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 네가 지위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네게 주지 않으면 너는 쟁취할 수 없다. 만약 네가 끝끝내 쟁취하려 든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 드러나 도태되는 죽음의 길뿐이다. 알겠느냐?

2020 년 3 월 7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4)

2. 적그리스도의 이익

오늘은 지난번 예배 내용을 이어서 교제하겠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각종 모습 중 아홉 번째 항목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이익과 관련된 제 2 조를 교제하였다. 제 2 조에서 교제한 것은 적그리스도 자신의 명예와 지위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자신의 명예와 지위라는 항목에서 나는 중점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교제하였느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교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책망 훈계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순종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어떻게 지키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교제하겠다. 지난번에 너희에게 준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너희에게 추후 무엇을 묵상하고 교제하라고 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해부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저희 자신에게 어떤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적그리스도 본성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비춰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주제였다. 소주제는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이었느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경쟁의 본성을 지니는지 보고, 저희가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표출하는지, 명예와 지위를 위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어떤 언행을 보이는지, 저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명리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지 비춰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충할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만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비춰 보라고, 적그리스도 같은 성품과 표출 중 과연 자신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그 정도였다. 또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처리할 때 떠받드는 최고의 명언에 대해 교제하였다. 무엇이었느냐? 인상이 남아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떠받드는 최고의 명언은 바로 '나는 경쟁할 거야! 경쟁! 경쟁!'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구나. 왜 이것은 기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최고의 명언인 '나는 경쟁할 거야! 경쟁! 경쟁!'은 평소 제 모습이며, 제가 수시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어조 또한 생동감이 있었고, 이 말의 표현 방식이 바로 제 마음속 상태였기에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과 본성 본질을 교제하고 해부할 때 가끔은 생활용어를 쓰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강한 인상을 받는 어조와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실생활과 가까운 사례를 든다. 이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너희가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데 이롭고, 이런 적그리스도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더더욱 이롭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앞에서 너희는 지난 시간을 대략적으로 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을 것이다. 교제를 들은 후에는 반드시 정리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교제가 끝날 때마다 다시 예배드리면서 몇 번을 들은 후, 모두가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난 교제 내용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을 들으니 무척 생소해 보이고, 마치 1~2 년은 지난 것처럼 인상이 없어 보인다. 하나의 편린이나 한두 마디 말, 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과 인상이 있겠지만,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더 많은 본질적 인식이나 해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개념도, 이렇다 할 인상도 없는 듯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내용을 많이 반추하고 교제해라. 들은 후에 한쪽에 치워 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진리 진입은 무척 느릴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설교에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 너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 내용을 교제하느냐? 혹은 최근의 설교 교제를 몇 번 다시 듣고, 많은 사람이 최근의 그 내용에 인상을 받고 깊은 인식을 갖게 한 후,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매주 예배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최근 교제를 먹고 마십니다.) 교회 리더와 설교자, 그리고 교회 생활을 책임지는 의사 결정팀 인원은 모두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3)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한다

(1)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세 번째, 혜택에 관해 교제하겠다. 혜택이란 무엇이냐? (복과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한 해석이구나.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이다. 더 보충해 보아라. 혜택이란 무엇이냐? (본분을 이행하거나 세상에서 일하면서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이나 이점, 편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맞다. 혜택이란 사람이 받는 보수 이외의 좋은 대우이다. 거기에는 일용품, 음식, 또는 할인권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그 본분이 가져다주는 편리한 조건이나 물질적, 비물질적 대우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것들이 전부 혜택이다. 이 단어의 뜻을 해석했는데, 너희는 이 항목에서 어떤 범위와 어떤 실사례, 모습을 교제하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의 머릿속에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떠오르지 않느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났느냐?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에 얹혀사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한 부류이다. 이 부류도 본분을 이행한다. 어떤 이는 지위를 지닌 각급 리더 일꾼이나 책임자이고, 어떤 이는 평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와 가정, 누림을 위해 일련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 그들이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대가를 치르면서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은 바로 그 일을 하거나 그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조건과 혜택, 대우가 무엇인지 계산하고 또 셈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대가를 불사하며, 나아가 그 이익과 편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일에서 그들은 인정사정없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자신의 인격과 존엄은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이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대우를 생각하고 계산할 뿐이다. 그래서 이 부류는 표면적으로 볼 때 꼭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생각과 논점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은 하나님 집이야.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지. 본분은 사람의 직책이야. 본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사람은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해. 만약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테니 사양하거나 억지로 겸손하게 굴 필요도, 나아가 겸양할 필요도 없어. 그저 순종하는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얻어내고, 손을 뻗어 가지면 되는 거야.'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마땅히 가져야 할 일종의 대우로 여긴다. 마치 사람이 일을 하면서 시간과 수고를 들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급여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가지며, 혜택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들은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얻어내며, 나아가 당연하게 매일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할 때의 일반적인 상태이자 본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적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상태이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느냐?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데 뭐라도 좀 가져야지. 내가 가정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위해 내 노동력과 에너지, 시간을 쓰는 이상, 내가 누려야 할 모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자신의 혜택을 위해 분투하며, 이러한 혜택 중 어떤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자기 몫이 적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상태이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속셈, 의도, 목적의 마지막 귀결점은 무엇이겠느냐? 스스로를 위해 모든 혜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바보이고,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도,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무리 폭로해도, 그는 자신의 이러한 속셈과 추구를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혜택을 얻고자 경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데, 교회나 형제자매들이 그 섬김 가정에 음식, 도구 등을 사다 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었다고 해 보자. 만약 적그리스도 부류가 섬김 본분을 이행한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얻는 이득은 성냥 한 개, 티스푼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한 본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집에서는 당연히 모든 물건과 돈을 제공해야지요. 저는 집을 제공하고 당신들에게 밥을 해 주며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외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에서 교제하려는 것은,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적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표면적으로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에게는 계략이 있다. 그는 "저는 섬김 본분을 이행하니 뭔가 얻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먹을 것, 쓸 것들을 우리 가족들도 같이 먹고 마음대로 써야지요. 제 집이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집도 제 집인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분 이행 태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 본분을 이행하게 된 후,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며, 늘 섬김용 물건이나 재물에 눈독을 들인다. 자세히 추궁하는 사람이 없다면, 적그리스도 부류가 혜택을 얻을 기회가 온다. 어떤 기회겠느냐? 그들은 마음속으로 계산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쓰니까 남은 돈은 교회에 주지 말고 내가 챙기자. 그건 최소한의 수고비야. 아무도 질책하지 못할걸. 이건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돈이라고!' 그는 남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또 어떤 적그리스도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형제자매들이 기증하거나 하나님 집에서 제공한 물건을 자기가 갖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형제자매들이 다시 갔을 때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가 사라져 있고, 고기나 채소도 없어져 있다. 누가 물어보면 그는 "너무 오래되면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탐욕스러운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제공한 물건에 형제자매들이 섬김 가정에 사 놓은 물건들까지, 그의 집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의 소유가 된다. 그는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먹으며, 심지어는 아예 자기가 갖고 숨기기까지 한다. 형제자매들이 다시 그곳에 가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서 또 그의 집이 필요해지면 다시 돈을 들여 구매해야 하고, 형제자매들은 다시 그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최고야. 뭘 하든 이것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는 없고, 이것보다 더 쉽게 뭔가를 얻을 수는 없을걸. 게다가 교회에서 이 물건들을 잃어버렸는데, 누구 하나 감히 고발하지 못하잖아.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고발할 거야! 그러니 당신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겠지. 이 물건을 내가 갖고 먹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어쩔 수 있겠어?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집을 제공해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건 내 공로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라고. 그런데 욕심 좀 낸다고 해서 뭐가 두렵겠어?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 내가 좀 먹는다고 해서 뭐가 두렵겠어? 당신들이 먹는 걸 나라고 못 먹을까? 당신들이 하나님 집 사람이듯 나 역시 하나님 집 사람 아닌가? 나는 옆에서 덕만 보는 게 아니라 혼자 특혜를 누릴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본분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며, 이것들을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말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현실적인 은혜는 없고, 이 축복보다 진실하고 실리적인 것도 없지요. 얼마나 좋은가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번 생에는 백 배를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축복을 미리 맛보았다고요.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집 물건을 차지하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 집의 재물을 무엇으로 여기겠느냐? 이방인들의 공공재로 여기며 탐욕을 품고, 하나님 집의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면서도 그것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누려 마땅한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이로 인해 후회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법이 없고, 자기 인격의 비천함이나 스스로의 사악함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욕망과 야망이 더 커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비교한다. '어떤 섬김 가정은 뭘 받았다던데, 만약 내가 섬김 본분을 이행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되었겠지. 또 어떤 섬김 가정은 우리 집보다 잘살고 더 좋은 것들을 먹던데 왜 나는 그런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들은 이런 일에서 계산하고 경쟁하며,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작게는 신발 밑창부터 크게는 하나님 집에서 구매한 기계까지 전부 눈독을 들이고 차지하며, 본분 이행을 기회 삼아 갖가지 핑계와 방식으로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 집 재산을 횡령한다. 또 염치도 없이 그런 행동은 하나님 집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며, 그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적그리스도도 겉으로는 탐내거나 점유하지 않고 돈은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형제자매를 섬긴다. 그런데 값어치 없는 물건을 보면 얼른 가져다가 잘 보관하지만, 하나님 집의 귀중품을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 푼짜리 물건은 상부로 넘길지 몰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 더 비싼 물건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 차지한다. 하나님 집의 재물을 보관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닥쳐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외지로 도망가거나 체포되어 그가 재물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 본분을 지키며, 재물을 횡령하려는 뜻이나 생각을 전혀 품지 않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 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남몰래 기뻐하고, 심지어는 좋아 날뛰면서 바로 그 재물들을 자기가 갖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질책이나 죄책감은 더더욱 느끼지 않는다. 그 돈을 자기 집의 생활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으로 곧장 자기 가족들이 사고 싶어 하던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그 돈을 즉시 은행에 넣어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 형제자매가 재물을 가지러 가면 그들이 인정하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은 이득을 얻기 위함이다. 그 이득에는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 집의 재산, 나아가 형제자매 각자의 물품들까지 포함된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탐욕과 욕망, 개인의 야심을 품고 본분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형벌,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이득과 편의, 그리고 재물을 위해 온 것이다. 이들은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나님 집의 재물에 둔다. 그래서 그들은 섬김 본분을 이행할 때, 하나님 집에서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사 주었는지, 하나님 집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는지, 누가 섬김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로부터 얼마나 큰 편의를 제공받고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 등에 집중하며, 이런 것들을 살핀다. 만약 평범한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어 어떤 이점도 얻지 못한다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본분을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윗선 리더를 섬긴다고 하면 태도가 180 도 바뀌어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 '큰 인물'을 한시바삐 자기 집으로 초대해 하나님처럼 모시지 못해 안달이 난다. 그는 그 기회를 돈줄, 화수분으로 보며, 만약 그 기회를 놓치면 부자가 될 기회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그는 탐욕과 욕망을 품고,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겠다는 동기와 속셈을 가진 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본분을 받아들인다.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형제자매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겠느냐? 충성을 바치기 위한 것이겠느냐?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겠느냐? 모두 아니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 이득을 보려 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섬기지 않겠지만, 지위가 있는 리더 일꾼이라고 하면 얼른 섬긴다. 또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집에서 갖가지 생활용품이나 가사용품을 구매하게 한다. 그러고는 "리더가 왔는데 너무 열악한 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요. 섬김 본분을 더 잘하려면 미리 물건을 좀 사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는 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누린다고 할지라도 떡고물이나 좀 떨어지는 거겠죠. 이 밖에, 리더가 왔을 때 저희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할 일이 무척 많은 사람인데 몸이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우리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 아닐까요? 그러니 리더의 하루 세 끼는 교회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유며 빵, 계란, 각종 채소, 과일, 고기, 영양제까지 모두 준비해야죠."라고 말한다. 참 용의주도하게도 생각하지 않느냐?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사람의 말을 한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리더를 위해 생각하겠느냐? 뒤에 숨겨진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목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좋은 것을 먹어 보지도, 접해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식견을 넓히고 부자의 삶,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아 보려는 것이다. 또 이 기회에 몸보신도 좀 하고, 평범한 사람은 먹지 못하는 음식도 좀 먹고, 일반인이 누리지 못하는 대우를 누려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드러냈다. 그 용의주도함 뒤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는 스스로를 위해 계획하며, 이러한 것들을 얻고 가지려 한다. 스스로를 위해 계획하기에 용의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리더를 섬긴 이후, 그 적그리스도는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그러자 그는 또 생각했다.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이 물건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니잖아. 언제 이것들이 내 것이 될까? 리더를 쫓아내자니 이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쫓아내지 않자니 좋은 마음으로 섬길 수도 없겠어. 이런 이득들이 없다면 나는 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걸. 이 본분을 이행하는 건 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제공받는 편의와 누림은 아직 부족해. 리더가 계속 이곳에 머물면 어쩌지? 아무래도 뭔가 방법을 생각해서 그를 내쫓아야겠어. 그럼 우리 집도 한결 조용해지겠지.'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 진정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아무리 큰 이득과 편의를 얻어도 그의 탐욕과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며, 그는 만족할 줄 모른 채 이렇다 하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쓸데없는 희생이자 대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큰 편의를 제공받더라도 그는 자기가 손해라고,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이 자기에게 잇속을 차리고 있다고,

자기는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는 그 이득들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성을 지녔겠느냐? 그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인성이 없는 사람에게 양심이 있겠느냐? 그들에게 진정으로 본분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들이 겸허하고 진솔하며 진실하게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겠느냐? 돈 한 푼 넘보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어떤 상도 원하지 않은 채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없겠느냐? 그에게는 양심과 지각이 없다. 그는 아무리 큰 편의를 제공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상인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태도는 몰염치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염치도 양심도 없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염치가 없느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염치가 없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염치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이 쳐다봐도 자각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는 옷을 걸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옷을 입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처럼 옷을 벗고 맨몸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면 얼마나 자유롭고 멋진데요!" 이는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치가 없는 것이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양심도 지각도 전혀 없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잇속을 차리고 누구의 물건이든 다 탐을 낸다. 그의 탐욕과 욕망은 이미 정상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어 자제하기 어렵고 양심과 지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절대 진리를 얻지 못한다. 그는 오직 명리와 지위,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뿐, 진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천국에 그의 몫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도, 온전케 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가증스럽고 역겹고 혐오스러우며, 사람들에게 경멸받는다. 이런 사람은 인격이 비열하고 저열하며, 존엄도 염치도 없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야심,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들은 본분 이행의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만 할 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이득과 이익,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는지 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겪은 고생과 희생을 대가로 하나님과 흥정을 함으로써 축복과 상을 받아 내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대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려는 것은 원망과 불복, 불만, 억울함, 원한,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을 좋아하겠느냐, 아니면 혐오하겠느냐? (혐오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약간의 대가라도 치르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공치사를 하며, 자신이 각종 본분을 이행하고 여러 사역을 할 때 희생하고 바친 것에 관해 하소연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봐, 그들이 치른 대가를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보이고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치른 대가를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자기 소원 중 받고 싶은 것을

말할 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자기가 원하는 상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너 같은 자는 내 앞에 올 자격이 없다. 나는 네가 역겹고 증오스럽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이미 주었고, 너는 이번 생에 얻을 것의 백배를 이미 얻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려는 것은 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대신 인류에게 진리를 주어 그 속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공공연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며, 진리를 구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본분 이행의 기회를 통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언제나 빈틈을 보고 잇속을 차리려고 한다. 또 늘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잇속을 많이 차리지 못했다고, 자기가 희생하고 바친 것이 너무 많아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언제나 자기가 희생한 것을 후회하면서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뒷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늘 자기가 희생한 후 바로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잔뜩 원망한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었나?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 분 아니었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었냐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모든 봉헌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것 아니었나?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가정을 버리고 대가도 치렀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지?' 탐욕과 욕망이 단기간 내에 채워지지 못하면, 그들은 소극적으로 변해 원망한다. 만약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이 잔뜩 쌓일 것이다. 이렇게 원망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을 의심한다. 원망이 오랫동안 쌓이면 이러한 것들은 독소가 되어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특히 연약하고 소극적인 데다가 분량이 작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수시로 이 소극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퍼뜨리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모독을 퍼뜨린다. 심지어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본질에 의심을 품도록 오도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 아니겠느냐? 그들은 자신의 야심과 욕망, 추구와 속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사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이 자기 몫의 일이고 피조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여겨 하나님이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왕 기억하는 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축복하고, 약속을 주고, 물질적인 혜택을 주어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특별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는 만족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본분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도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해 하나님의 상을 얻어 낼 수 있는 카드이자 자기 야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들의 뒷걱정을 없애

줘야만 안심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얻어야 해. 이건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 생각이 바로 이렇다. 이런 생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관점이고, 적그리스도의 좌우명이며, 이는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대변한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 이행에 관한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자기 관점을 고수하며 본분을 대할 것이다. 이 측면의 모습을 가리키는 명사가 있다. 무엇이겠느냐? '물질 지상주의'이다. 즉, 무엇이든 자기 손에 넣어야 진짜고,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모습의 본질은 유물론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유물론은 바로 무신론이다. 무엇이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볼 수 없으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인식과 이해는 진리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방인의 관점과 완전히 같다고, 확실히 불신파에 속한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진리이자 참도(道)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명리와 지위만이 실재적인 것이며, 사람의 노력과 투쟁, 스스로 치른 대가를 통해서만 자기가 추구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행복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관점과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며 본분을 잘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했을 때 창조주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진실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 그는 그저 '나는 본분을 이행했으니 하나님 집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려야 해. 하나님 집에서는 내게 모든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해. 이래야 현실적이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자 관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으며, 진리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 또한 믿지 않는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결코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더욱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일이고, 사람이 이 과정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약속이다.' 네가 하나님이 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준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불신파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림의 떡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고 사상이 단순한 바보들을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봉사를 다 한 후에는 그들을 뻥 차 버릴 것이라고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진리를 얻는 게 다 뭐야? 진리가 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만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그걸 얻었지?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이야. 명리를 얻고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현실적이지. 스스로 명리를 손에 넣고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진실하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 주신 약속과 사람에게 공급하신 진리에 대해 오랫동안 들어 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어. 또 그건 내가 존귀하게 지위를 갖고 살게 해 주지도 않았지. 진리를 얻어 변화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평범해. 모두 일반인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는 손안에 꽉 움켜쥔 것, 자기가 얻은 것만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불신파의 관점 아니겠느냐?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에 들어온 후 의심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대하며, 마음속으로 늘 어디에서 이득을 좀 볼 수 있을지, 어떤 기회를 통해 잇속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리한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다. 그들은 명리와 지위를 얻어야만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를 추구하기를 선택하고, 일념으로 명리와 지위를 꾀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지라도 그것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네가 언제라도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명리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전부 버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혜택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그에게 이러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의 피부를 벗기고 힘줄을 뽑아 버리는 것과 같다. 또 그에게 있어 이러한 것을 잃는 것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 영혼을 잃는 것과 같다. 그는 이런 야심과 욕망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희망이 없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눈에 본분 이행을 위해 헌신하고 바치고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혜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로 보인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신봉하는 처세의 원칙은 바로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해? 자신의 혜택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게 가능하겠냐고.'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물질생활에서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돌아갈 집이 없어진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늘 이런 자들을 비웃으며 말한다. '당신들 꼴을 좀 봐, 하나님을 믿느라 집까지 잃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잖아. 삶도 여유롭지 못하고. 당신들은 정말 바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뭘 하든 처세 원칙 한 가지는 지켜야 해. 바로 절대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해. 확실한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신들은 너무 멍청해. 나를 봐, 하나님을 믿으면서 명리와 지위까지 추구하잖아. 하나님 집의 모든 대우를 누리면서 말이야. 나중에는 복도 받겠지. 나는 고생하지 않고도 당신들보다 큰 복을 받을걸. 나는 당신들 같지 않아. 당신들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가정과 일을 버리고,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잖아.' 이는 어떤 존재겠느냐? 그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참되게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또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가정과 일을 포기하고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마다 존재한다.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아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자신이 진리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적인 혜택을 생각한다. 육과 관련된 모든 혜택은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높고 지고지상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든, 어떻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라고 요구하든, 그는 무감각하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고 어떤 말씀을 하든 그를 움직일 수 없고, 그가 미리 준비해 둔 계략을 바꾸고 탐욕과 욕망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다. 이 부류는 적그리스도 가운데서도 명실상부한 유물론자이며, 불신파이다. 그럼 이 부류를 적그리스도 군단의 인간 말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위를 위해 얼마간 힘을 쓰는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이 부류는 힘쓰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 이 부류는 혜택을 원한다. 그가 온종일 눈으로 지켜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혜택뿐이며, 모든 것이 혜택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어떤 이는 섬김 본분을 이행하면서 집에 계란이나 쌀, 밀가루가 떨어지면 바로 교회에 말해 사 오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사지 않는다. 마치 섬김 본분을 이행하기 전에 그의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본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들을 샀지만, 본분을 이행한 후에는 핑계가 생겨 의기양양하게 군다. 빚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 집의 채권자가 되어 마치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뭔가를 빚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작자가 아니다.

나는 중국의 한 섬김 가정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때, 어떤 형제자매는 인성이 꽤 괜찮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지 2~3 년밖에 되지 않았고, 알고 있는 진리도 많지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섬김 본분을 이행했다. 하나님 집에서 돈을 줘도 받지 않았고, 형제자매들이 뭔가 물건을 가져다주면 돈을 냈다. 또 하나님 집의 물건을 정성껏 보관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에서 사다 준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 하나님 집에 주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일부 사람들은 기꺼이 섬김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 집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집이 유복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집에서 돈을 주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교회든 형제자매들이든 그의 집에 뭔가 물건을 보내면 그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횡령하는 일이 없다. 이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는 인품 문제이다. 이 밖에, 더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그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좋은 인품까지 더해져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여러 섬김 가정에 가 본 적이 있다. 그중 어떤 집 사람들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이불과 담요를 가져다가 주었는데, 내가 "이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것이로구나. 쓰지 말고 다시 개 두거라."라고 말해도 기어코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또 어떤 섬김 가정은 사용할 물건들을 전부 새것으로 준비해 두었다. 내가 "새것을 사지 말거라. 돈 낭비 아니냐. 지금 있는 것을 쓰면 되지, 돈 쓸 것 없다. 나는 어디를 가든 이것저것 사야 한다고, 무엇이든 새것으로 써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기어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어떤 섬김 가정은 식사 때 반찬을 몇 개나 했다. 어떤 것이 입맛에 맞을지 몰라 잔뜩 준비한 다음에 고르게 한 것이다. 반찬 가짓수가 몇 개 없으면 잘 먹지 못할까 봐 말이다. 이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섬김 가정은 달랐다. 내가 도착하자 그는 대충 생활용품들을 가져다가 주었고, 식재료는 전부 형제자매들이 가져온 것들을 썼다. 또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오면 나에게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했다. 또 어떤 섬김 가정의 경우, 내가 물건 몇 개를 그의 집에 보관한 후, 한동안 찾지 않자 그들은 억지로 서랍을 열었고, 몇몇 물건이 사라졌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크지 않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일부는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겠느냐? 이는 강도나 비적, 악당, 불량배가 하는 일이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네 물건을 보관할 때, 네가 아무리 오래 떠나 있어도, 8~10 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아도, 절대 그 물건을 건드리거나 보거나 들추지 않고 잘 보관한다. 하지만 어떤 섬김 가정은 네가 그의 집에 물건을 두고 떠나는 순간, 바로 그것을 들춰 본다. 어떤 물건을 들춰 보겠느냐? 네 가방 속에 액세서리, 핸드폰 등 돈 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돈은 없는지 들춰 본다. 그는 이런 것들을 들춰 본다. 또 어떤 여성은 주로 무엇을 보느냐? 좋은 옷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는 "오, 이 옷 괜찮네. 입어 봐야겠다."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실제로 겪은 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한다. 겨울을 앞둔 시점이었다. 나는 한 섬김 가정에 옷가지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옷들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섬김 가정의 안주인은 코트를 입어 보고 있었다. 그렇게 공교롭게도 나와 마주친 것이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말하자 그녀는 순간 멍해졌다. 그렇게 공교롭게 나와 마주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 무척 민망해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말했다. "아, 이 코트 저한테 딱 맞지 않나요?" "그건 내 옷이다. 네가 입으면 나는 못 입겠지." "그럼 드릴게요. 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왜 입어 보았느냐? 저 옷장은 잠겨 있는 것 아니었느냐?" "마침 오늘따라 할 일이 없길래 꺼내서 구경 좀 한 거예요." "그 물건들은 네 것이 아니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녀가 무슨 속셈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해 보아라.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집의 사람으로 여겨야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는 사탄과 동류로, 염치도 양심도 이성도 없으며 일말의 인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무뢰한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겠느냐? 그는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조차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진리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 생명은 이런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집 밖의 불신파이고 마귀에 속하는 존재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본성 본질을 지녔으며, 또한 그들 본연의 인성과 인품은 극도로 천박하고 비열하다. 이런 부류는 역겨우며,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혐오받는다.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진실로 헌신하지 않으며 진심이

없고, 계산과 탐욕, 욕망을 지녔음을, 진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혜택을 좇아서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든, 이 부류의 인성은 하나님에게 불합격으로 보인다. 말해 보아라. 이 부류의 인성이 너희에게는 기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이런 부류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혹자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나눠 받고 싶어 하고, 형제자매가 옷을 기부한 것을 보면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 하든 그렇지 않든 다 가지려고 하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 해야 할 사역이 있다거나 좀 더럽고 힘든 일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간사하고 교활하며 인격이 저열해서 사람들의 경멸과 혐오를 사고, 너무나 역겹다!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는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자신의 혜택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불신파, 유물론자로 보인다는 것을, 인격이 비열하고 비천해서 혐오스러우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해부했다. 이 부류에 대한 정의는 진리를 싫어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그들의 인성과 인품을 통해 간파할 수 있으니, 진리의 차원까지 끌어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부류는 하나님 집에 있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가장 인격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다. 물론 하나님 집에서 진리로 가늠한다면, 이 부류는 더더욱 비천해 보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대해, 너희가 겪은 바는 없느냐? (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서적 인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위조 장부를 만들어 하나님 집의 제물을 수십만 위안 횡령했지요. 그 후, 조사를 거쳐 그가 처음 그 본분을 이행할 때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그 본분을 이행한 후 집도 사고 차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장부에서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의 가족들도 하나같이 악독해서 제물을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리더 일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조사할 때, 당시 사역을 책임지던 리더 일꾼이 그 적그리스도의 장부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굴어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들에게는 분명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록부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일부는 제명되고 출교되었고, 일부는 그 제물들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분이다. 리더 일꾼은 이 일에서 직무를 유기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특히 인선에 있어 잘못된 사람을 썼고, 지켜보지도 감독하지도 않았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 집의 재산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 이 직접적인 담당자들에게는 모두 책임이 있으니 행적이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부적절한 인선이 스스로에게 초래한 나쁜 결과이자 하나님 집에 야기한 손해로, 결국 하나님의 제물을 대가로 삼게 되었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탐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보고 생겨나는 것이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와 교제하고 왕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오롯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사람을 분별하지 않으며, 간파하지 못하고, 함부로 쓴 결과이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이 막중하고, 출교되어야 마땅하다.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본질, 성품 그리고 그들이 걷는 길 등 몇 가지 큰 방향을 중점적으로 교제하였다. 오늘 교제하고 해부할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인성 범주 속 모습으로, 실생활과 관계가 있다. 이는 작은 측면이지만 사람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모습을 식별하게 해 주며, 또한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명확한 특징이자 표지, 상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명리, 권세를 좋아하며, 무척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흉악한 데다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그의 인성과 인격, 인품은 어떻겠느냐? 혹자는 "어떤 적그리스도는 명예와 지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인격이 아주 고귀하고 고상하며 양심과 이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먼저,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 본질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 그의 인성과 인품을 볼 때, 그는 분명 좋은 사람도, 존엄과 양심,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도 아니며,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인성을 지닌 사람이 바른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의 인성과 인품 자체에 바른길을 걷는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류는 진리를 좋아할 수 없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분 이행 속셈과 태도를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과 인성은 사람들에게 혐오와 미움을 사며, 나아가 하나님에게 내쳐질 법하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상과 재물, 이익을 요구하는 이 부류가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느냐? 이 부류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부류를 과연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겠느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은혜시대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는 늘 돈궤에서 돈을 훔쳐 쓰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 한 번 힘을 쓰게 했다. 즉, 예수를 팔아넘기게 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다는 주와 벗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맡아 마지막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훔치는 부류는 하나님 눈에 전부 유다로 보인다. 이 말의 함의인즉슨, 하나님은 이 부류를 유다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 유다로 정죄된 이 부류의 적그리스도들이 유다처럼 주와 벗을 팔아넘기는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본성 본질은 동일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느냐? 직무의 편의와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 집의 재물을 훔치고 횡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류는 하나님에게 유다로 불리며, 주와 벗을 팔아넘긴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하나님 집 재물을 횡령하고 점한 이 부류의 적그리스도는 주와 벗을 팔아넘긴 유다와 같다. 그러니 이 부류의 결말이 어떠할지는 자명할 것이다.

(2) 형제자매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도록 이용한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할 때 도모하는 혜택은 앞에서 말한 금전, 물질, 먹는 것, 쓰는 것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주는 무척 넓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어떤 본분을 이행할 때 본분 이행을 명목으로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며 그의 명령을 듣도록 이용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도모하는 혜택 중 한 가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되기 전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직접 했고, 이렇다 할 야심도, 나쁜 심보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교회 리더로 선발되어 지위가 생긴 후에도 그가 매사에 그렇게 직접 나섰겠느냐? 그는

지위가 생겼으니 달라졌다고, 하나님 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군중의 힘'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공동으로 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모든 집안일은 교회 범주 안의 일이 되었고, 그는 자기 집안일과 일상의 잡다한 일들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를 들어, 집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했다. "요 며칠간 교회 사역 때문에 바쁘네요. 저를 도와 일 좀 해 주실 분 누구 없나요?" 3~5 명이 나서자 그 일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많으니 정말 효율적이네. 역시 리더가 좋아. 말만 하면 시키는 대로 척척이네. 앞으로 집에 일이 생기면 형제자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교회 리더 본연의 사역은 얼마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집안일을 하도록 안배하는 일은 많이 하고 일정까지 짰다. 교회 리더가 정말 '바쁘구나'! 리더가 되기 전까지 그의 집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리더가 되고 나니 오히려 집안일이 많아졌다. 형제자매들은 그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채소를 심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했으며, 채소를 팔아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채소를 판 돈은 고스란히 그에게 갖다주고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 교회 리더가 된 후로 그의 집은 살림이 펴졌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군가 지원하고 도와주었고, 그가 몇 마디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다. 기쁘기도 하고 흡족하기도 했던 그는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회 리더라는 감투는 참 좋구나. 지위가 있으니까 정말 좋아. 집에 먹을 게 떨어졌을 때 한 마디만 하면 누가 갖다주잖아. 돈도 안 받고 말이야. 삶이 참 편하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축복받아. 이건 크게 복받은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께 감사드려!' 누가 그를 위해 봉사해 주고, 그의 지시를 들으면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보잘것없는 교회 리더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떤다. 너희라면 그러겠느냐? 너희도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왜 리더가 되려고 경쟁하겠느냐? 왜 지위를 두고 경쟁하겠느냐? 만약 이점이 없다면 누가 경쟁하겠느냐? 만약 지위가 생긴 뒤 황소처럼 일만 해야 한다면 아무도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지위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이 너무 많기에 격렬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교회 리더가 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이익이 생기고, 자기 삶에 이렇게 큰 편의와 이렇게 많은 이점이 생겼다. 이는 어떤 부류의 행위겠느냐? 이런 부류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인성과 양심을 갖춘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집을 위해 교회 리더가 되어 준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본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교회 리더는 어떤 사역을 하든 자기 가정생활을 희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형제자매들이 그가 치른 대가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가 농사일을 할 시간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이 자기네 밭에 나타나서 당연히 자기 대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가 교회 리더가 되면서 무엇을 버렸든, 형제자매들은 곱절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할 때,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봉사하도록 이용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 형제자매들이 일하도록 부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리더가 된 후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절대 이 이점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시간을 이용하고 모든 기회를 붙잡아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 힘쓰게 하고,

그의 우마가 되게 한다. 그는 형제자매들의 어리석음과 정직함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고 대가를 치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가짐을 이용해 그 개인에게 봉사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진리를 사칭하는 일부 견해로 형제자매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리를 알려 준다. 즉, 리더도 사람이고 리더에게도 집이 있으며, 삶을 꾸려 나가야 하기에 만약 리더가 바빠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은 마땅히 그것을 자기 본분으로 여겨 리더가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리더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가 이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지위를 움켜쥐고 달성하려는 목적이며, 또한 적그리스도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하려는 일 중 하나로, 그 가운데서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 바른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지르며, 아주 작은 감투라도 쓰면 이런 짓을 한다. 이런 부류가 가엾지 않으냐? 이들의 인품이 어떠하냐? 이들에게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어떤 교회의 한 형제자매는 평소에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리더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녀는 왜 리더의 집에 상주하겠느냐? 그 리더는 '리더'라는 직위를 얻은 뒤 자기 집에 상주하는 가정부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되어 리더 집 전용 가정부가 된 것이다. 가정부가 되었으니, 그 자매의 본분은 무엇이 되었겠느냐? 그녀는 자기 본연의 사역, 교회와 관련된 사역은 하지 않고 오히려 리더 집안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거들어 주었고, 정당한 명분으로 리더의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 아무런 원망도 관념도 품지 않았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겠느냐? 교회 리더가 할 일이 얼마나 되든, 몇 명을 이끌고 있든, 정말 그렇게 바쁘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활이 안 되겠느냐? 제대로 생활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너 자신의 일이지,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만약 형제자매들이 게으르게 군다면 그는 상대에게 눈치를 주고 그 일을 통해 '진리를 교제할' 것이며, 형제자매는 그 일 때문에 책망 훈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의 집 이불이 더러우면 형제자매가 빨아 주고, 집안이 엉망이면 형제자매가 청소해 주며, 때가 되면 형제자매가 가서 밥을 해 준다. 그는 한가하게 남이 해 준 밥을 먹으며,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한다. 이런 모습, 이런 인성을 보이는 부류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이런 사람은 인성이 너무 부족하고 비열하며, 진리에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흥미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되었겠느냐? (그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스스로를 뽐내려고 교회 리더가 된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 않으냐? 형제자매가 자신을 위해 힘쓰고 봉사하도록 이용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특징 아니겠느냐? 그는 매사에 자신의 혜택만 얻으려 하고, 자신의 득실에만 관심 있을 뿐,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인성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형제자매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득실, 자기가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걷는 길이고,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이다. 이는 지위가 있는 부류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없고 평범한 본분을 이행하는데, 조금만 자격이 생겨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 한다. 혹자는 조금만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본분을 이행해도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자기한테 봉사시키려고 하고, 또 혹자는 조금 특수한 본분을 이행하면서 본분을 형제자매들을 부려서 봉사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 카드나 밑천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수한 업무를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그 업무를 배운 적도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본분을 이행하게 된 후 자기가 특별해졌다고, 하나님 집에서 크게 쓰임받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특별히 자기 몸값이 몇 배나 뛰었고 존귀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는 등의 집안일은 직접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시켜 무상으로 봉사하게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자기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일 외에, 남에게 시키고 지시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남에게 맡겼다. 어째서 그랬겠느냐? 그의 생각은 이랬다. '나한테는 밑천이 있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야. 나는 특수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집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대상이라고. 당신들은 모두 나보다 못하고 급이 낮지. 나는 하나님 집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못 할 테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나한테 봉사해야 해.' 이는 또 하나의 몰염치한 요구 아니겠느냐? 이러한 요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다. 당연히 적그리스도 부류는 더더욱 가차없이, 몰염치하게 이런 요구를 하며,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포기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 있다.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거나 기여를 하면 자기가 특별 대우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이며 양말을 자기가 직접 빨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불합리하고 인성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는데, 정말 너무도 비이성적이다!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요구는 이성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먼저 낮은 차원에서 말하자면 인성과 양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높은 차원에서 말하자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전부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위해 혜택을 얻으려고 꾀하는 범주로 귀결된다. 패괴 성품을 지닌 모든 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감히 이렇게 행동한다. 재능과 밑천이 좀 있고 기여를 좀 한 사람은 남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본분 이행을 기회로 혜택을 얻으려고 꾀하고 싶어 하며, 다 차려진 밥상만 받으려 하고, 타인이 자기를 위해 봉사해 주는 기쁨과 대우를 누리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정과 일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하는데, 그러는 동안 작은 병이라도 나면 감정적이 되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다고 원망한다. 네 본분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너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인데 남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사람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을 의무는 없다. 이것은 진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인내와 포용으로 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네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너를 포용과 인내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요구해서 형제자매들이 너를 위해 봉사하고 억지로 네 지시를 따르며 네게 이용당한다면, 혹은 기본적으로 네게 속아서 너를 위해 봉사한다면 이는 네 문제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해 수시로 핑계를 대며 부유한 형제자매들에게 재물을 강요하고, 그들이 이것저것 사 오게 하는 등 자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 일례로, 옷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에게 말했다. "옷을 만들 줄 알죠? 가서 제 옷 한 벌 만들어 오세요." "돈을 내세요. 옷감을 사 오면 만들어 드리죠." 하지만 그는 돈을 내지도 않고 상대를 압박해 사 오게 했다. 여기에는 기만의 성질이 있지 않으냐? 형제자매라는 관계를 이용하고, 자신의 밑천을 이용하고,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형제자매에게 갖가지 봉사와 대우를 요구하는 한편, 형제자매가 자신을 위해 힘쓰게 명령하는 것 등은 전부 적그리스도 부류의 비천한 인격을 보여 준다. 이런 부류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교제를 듣고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고 의식하여 조금은 자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제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겠느냐? 자제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과 허영심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렇게 해부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은 마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형제자매가 분별한다면 폭로되고 버림받을 테니 말이다. 여기까지만 의식할 뿐, 그들의 욕망과 탐욕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 집을 위해 힘을 쓰고, 하나님 집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 그러니 내가 필요로 할 때,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집은 당연히 도움의 손을 내밀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해. 언제라도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이는 수치스러운 생각 아니냐? 비천한 인격의 모습이 아니냐? 예를 들어,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린 후에도 떠벌리고 다니는 법 없이 해야 할 본분을 원래대로 이행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지만, 그는 뒤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본분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병에 걸린 척 마님이나 귀족이 되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게끔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병이 없는데도 병이 난 척하니, 정말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더더욱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생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주변에서 시중을 들어 줘야 할지 모른다. 그가 병에 걸린 것은 모든 사람의 불행이다. 어떤 사람은 닭을 고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마를 해 주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여 주고 걷도록 부축해 줘야 한다. 고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사실 흔히들 앓는 자질구레한 병이지만, 굳이 큰 병인 척, 죽을병인 척한다. 왜 그렇게 위장하겠느냐? 형제자매들을 속여 자신을 위해 힘쓰고 시중들고 봉사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수치스럽지 않으냐?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으냐? 너희는 모두 이런 사람 아니냐?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위, 마음과 생각, 본성 본질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조금 피곤하기만 해도, 밤에 조금만 잠을 못 이뤄도 난리를 치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푸념을 한다. "지난밤에는 한숨도 못 잤어. 요즘 본분 때문에 너무 바빠.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잘 지경이야. 얼른 안마 좀 해 달라고 해야겠어!"라고 말이다. 사실 그는 6 시간이나 잤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본분 핑계를 댄다. 피곤하고 힘들거나 병이 나서 몸이 안 좋아도 본분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득을 보기 위해서이다. 모두의 동정을 산 후 당당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시중들게 하려는 것이다. 늘 마님이나 황제가 되어 남을 부려먹으려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냐? 이런 사람은 인격이 너무 비천하고 역겹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가끔 밥을 못 넘겨도 난리가 나서 호들갑을 떨고 얼른 누군가한테 안마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조금만 아프게 안마하면 크게 고함을 질러 대는데, 이런 뜻이다. '안마받는 것도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내리지 않고 나를 온전케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손해가 클 거야!' 조금이라도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면 천하에 떠벌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한다. 네 본분 이행은 너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 아니냐? 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말이냐? 너무 천박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는 인격이 비천하고 정말 역겹다! 이런 부류는 또 어디가 천박하겠느냐? 그는 특이한 습관과 기호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남다름과 고귀함을 알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입맛이 별로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면, 그도 바로 배를 부여잡고 자기도 위가 안 좋지만 아직도 본분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얼른 위장약을 가져오라고 시킨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는 식사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가 차서 찬 음식에 예민해요."라고 했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위가 차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왜 위가 찬가요?"라고 물었더니 "저는 추우면 배가 아픕니다. 위가 차서 그렇죠."라고 답하면서 바나나를 하나 까서 몇 입 만에 꿀꺽 삼켰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위가 찬데도 대단하군요. 바나나 한 개를 몇 입 만에 삼키다니 말입니다. 정말 위가 찬 게 맞습니까?" 이 부류는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이지 않으냐? 정상 인성 안에 이성과 염치가 결여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은 진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 인성의 인격과 존엄성, 양심, 이성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염치와 존엄성이 없기에 조금만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해도 온 천하에 알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를 다시 봐 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 주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바로 누군가가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하며, 언제든 부르면 와야 한다. 목이 마르면 차를 따라 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 주는 등 언제나 누가 봉사해 줘야 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마치 그의 육은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나서 날 때부터 누가 시중들어 줘야 하고, 만약 누가 시중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거동을 못 하는 폐인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하루라도 남을 부려먹지 않으면, 남이 자신을 위해 힘쓰고 봉사하도록 부리지 않으면 마음속이 외롭고 공허해지면서 살아가는 의미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기회를 잡고 핑계를 대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봉사하고 시중들게 하면 그는 만족스러워하고 흐뭇해한다. 구름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아름답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미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본분을 누군가 남이 봉사해 주고, 또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힘을 쓰고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분이다. 그들은 본분은 공짜가 아니라고, 언제나 뭔가 얻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만약 재물을 도모할 수 없다면 육적인 누림이나 복이라도 도모해야 하며, 최소한 육적으로 기분 좋고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본분 이행도 힘이 나고 충성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치우치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인격이 비천하여 아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느냐? (인격이 비천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영락없는 불신파이고 적그리스도의 자손이자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다.

하나님 집에는 연기 인원이 있다. 그들은 속세에 있을 때 공연하는 것을 좋아하고 연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나님 집에 와서 마침내 꿈을 이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기회를 준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그 후, 그중 한 사람이 운 좋게 한 번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자기는 신분이 생겼다고, 몸값이 있는 사람이니 자신의 몸값과 신분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속세의 스타나 유명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 생활 방식을 보이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 하고 모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품위 있고 고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연을 맡아 '유명인'이 된 후로 거들먹거리게 되었다. 어느 정도로 거들먹거렸겠느냐? 한 가지 사소한 일화가 그 문제를 설명해 준다. 제작진이 촬영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는 눈썹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제작진이 기다리면서 그를 둘러싸고 시중을 들게 했다. 10 분, 20 분이 지났는데도 그는 눈썹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며 지우고 다시 그리게 했다. 1 시간이 지났고, 모든 연기자가 그 '유명인'의 눈썹이 잘 그려지기를 기다렸다. 그래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가 정상인이겠느냐? 인성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는 사탄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 유명인이 있느냐? 하나님 집에는 유명인이 없다. 오직 형제자매만 있을 뿐이다. 또 서로의 본분이 다를 뿐 신분 고하와 귀천의 차이는 없다. 그럼 그는 자기가 뭐라고 형제자매들을 기다리게 했겠느냐?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다고, 자기가 이행하는 본분의 비중이 크다고, 자기가 없으면 그 영화를 찍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행하는 본분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러니 모두가 원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기다리면서 대가를 치르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부류는 인성이 없다. 이 외에, 그런 행동의 원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탄 진영에서 온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 주는 행동과 모습이 무척 가증스럽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들은 늘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며,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분명 자신을 모든 사람 위에 두는 것이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누가 하는 짓이겠느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 이행을 요구하는 진리 중에 본분을 이행할 때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라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이는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탄 본성이다. 사람은 사탄이고, 날 때부터 이런 본성을 지닌다. 배울 필요도,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그는 이러한 것들을 놓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올라 공연하기 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는 시간 맞춰 무대에 오르지 않았고,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유명인, 간판 배우로 여기면서 모두가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쓰게 했으며, 그를 위해 봉사하게 했다. 이것이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모습이겠느냐? 이런 행동은 어떤 성질을 띠느냐? 이는 거드름 피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무책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누구의 본분도 그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모두가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 두 가닥이 하루 종일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해. 이틀 동안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평생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하나님 집의 사역이니 하나님 집의 이익이니 하는 게 다 뭐라고. 내 이익이 가장 먼저야! 머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서면 추해 보이고 체면도 떨어지지 않겠어?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집의 이익이 다 뭐라고!'라고 말이다. 이는 어떤 존재겠느냐? 이런 사람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며 모든 것을 버립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전부 거짓말 아니겠느냐? 머리 스타일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네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무엇을 버리든 전부 거짓이다! 이 부류는 이성이랄 게 없고, 양심도 없으며, 인격이 비천하다. 진리를 좋아하니 마니 하는 건 더더욱 언급할 가치도 없다. 네가 인성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도 너와 진리를 논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네 인성과 인품은 통과될 수 없다. 이렇게 비열한 인성을 지닌 너와 진리를 논하는 것은 개돼지와 진리를 논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네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사람의 말을 좀 하게 됐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지금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부류는 사람들 사이에 적잖이, 꽤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느냐? 아직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자기의 자질과 재능이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밑천을 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하며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본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이고, 인성이 없는 것은 인성이 없는 것이다. 네가 위장한다고 해서 혹은 재능이 없고 자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성이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길뿐이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책망 훈계를 받아들이면 인성과 인품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직면하고 올바르게 대한 후 수시로 자신의 행위와 내면을 성찰하고 점검하면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고 얼마간 자제할 수도 있다. 얼마간 자제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체면이 상하는 일이 줄어들고, 명성이 높아지며, 모두가 역겨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혐오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이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이성 아니겠느냐? 양심과 이성을 지닌 사람은 이렇게 실행하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내가 이 부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너희는 들으면서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너희 중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겠느냐? 말해 두겠는데,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한 관문 한 관문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간과하지 마라. 네가 인성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형제자매들에게 역겨움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온전케 하거나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람이 인성과 이성, 양심을 갖추고 염치를 아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준다.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 양심과 이성, 염치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설사 네가 설교를 듣고 도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해도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에 영원히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희망이 0 에 가깝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네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 본질만을 지녔을 뿐, 하나님이 요구한 정상 인성의 모습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면 위험하다.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본질, 그들의 행동과 표출을 폭로한 것에 대해 네가 하나하나 자신과 맞춰지고, 너에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다면, 무척 위험하다. 만약 계속 진리를 추구하지 않다가 적그리스도로 규정된다면 철저히 끝나 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 중 어떤 것이 죽을병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죽을병입니다.) 그러하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다시 대답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 모두 죽을병입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진리 추구를 중시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인성의 이성조차 없다면 이런 사람은 진리를 얻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죽을병입니다.) 누가 더 말해 보아라.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죽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병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잘 말했구나.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으니,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부류는 결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불신파이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면 무엇보다 위험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이 부류는 오직 지위만을 추구할 뿐, 결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이고, 적그리스도이자 사탄의 화신이며, 날 때부터 마귀로 인성이 없다. 또한, 유물론자이고 전형적인 불신파이다. 그런 부류는 진리를 싫어한다.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에게 진리 추구의 기회를 준다고 한들 그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히 진리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을병이다. 한편,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모든 이는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과 성품 면에서 동일한 면이 있다. 같은 모습, 같은 표출을 보이며, 심지어는 드러내는 방식과 표출하는 방식, 사유의 형태,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까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부류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한 그 적그리스도 성품은 죽을병이 된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부류 가운데 일부는 인성과 이성, 양심, 염치를 지니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며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여 성품 변화를 이루고 패괴 성품과 적그리스도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다. 이때, 이 부류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은 죽을병이 아니며, 고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적그리스도 성품을 죽을병이라고 하겠느냐?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데다가 본분도 이행하지만 딱 한 가지, 결코 진리를 실행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 성품은 그들의 치명적인 부분이 되며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게 된다. 반면,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부류는 진리를 좋아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들은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한다. 이해가 되었느냐? (네.) 이해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원수로서 절대 진리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성품은 그에게 죽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사람의 경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성의 이성, 양심, 염치를 지니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그 후 진리 추구를 통해 성품 변화를 이룬다면, 그가 걷는 길은 옳은 길이며, 적그리스도 성품은 그에게 죽을병이 아닙니다. 이는 전부 이 부류의 본질과 가는 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 본질이 있는 부류는 영원히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모두 힘쓰는 자에 속한다. 일부 충성심이 있는 힘쓰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은 왜 구원받을 수 없겠느냐? 이 부류는 진리도,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류는 긍정적인 사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악한 사물, 부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 그는 모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물의 화신이자 선포자기에,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하고 증오한다. 이런 본질이 있는데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에게 진리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동물에게 다른 동물이 되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 고양이한테 개나 쥐가 되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쥐는 영원히 쥐로, 언제나 쥐구멍에 숨어 떳떳하게 해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고양이는 영원히 쥐의 천적으로, 변할 수 없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닌 부류 중 일부는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추구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자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실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추구한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 이 부류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니, 너무도 가엾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똑같이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온전케 되는 길에 오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아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성품은 그들의 치명적인 것이 되어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도리를 조금

이해하고 표면적인 행동과 좋은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성품에 대해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진리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 방식과 뜻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여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다. 하나님 눈에 그 부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부류도 아니며, 그저 사탄의 패괴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하든 그들은 진리에 공을 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구원받는 길을 걷지도 않았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고, 그러다가 결국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무척 안타깝지 않으냐? 너무도 안타깝다! 이런 사람은 더없이 가엾다. 어떤 점이 가엾겠느냐? 그들은 얼마간 글귀와 도리를 이해하고서 진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또 본분을 이행하면서 대가를 좀 치르고 좋은 행위를 갖추자 진리를 실행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재능과 자질, 은사를 좀 갖추고, 글귀와 도리를 말할 줄 알며, 사역을 좀 할 줄 알고, 특수한 본분을 이행하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얼마간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고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전부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겉면의 좋은 행위와 은사, 그리고 그들이 갖춘 글귀와 도리로 진리 실행을 대신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이자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구원받는 길을 걷고 있다고, 이미 분량과 생명을 갖췄다고 착각하게 한다. 어쨌든, 이 부류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진리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며, 기꺼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은 것이니 말이다.

지금 30 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공허한 이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을 늘어놓고, 무의미한 구호를 외치며,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는지 말하고 밑천을 논하는데, 스스로를 인식하는 법이 없고, 자신이 어떻게 책망 훈계를 받았는지 말하는 법도 없으며, 자기가 어떻게 패괴 성품을 표출하고 어떻게 명리를 다투었는지, 어떤 적그리스도 성품을 표출했는지 이야기하는 법도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공로만 말할 뿐 과오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무척 위험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20 년, 30 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인지 모른다. 나는 이 부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들은 30 년 동안 설교를 들어 스스로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위가 없어지면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뒤에서 훌쩍거리고 원망을 늘어놓으며 본분을 팽개치기도 한다. 또 30 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교체되는 상황에 놓이면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 놓고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는 헛되이 믿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게 믿는 것이다!

2020 년 3 월 14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5)

2. 적그리스도의 이익

3)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9 조, 적그리스도의 이익 측면에 관해 이어서 교제하겠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세 번째, 혜택에 관해 교제하며 이 항목 안에서 또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하는 한편, 적그리스도의 행동과 사상 관점 및 그들이 이런 사상 관점에 지배되어 행하는 각종 일에 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지난번에는 두 가지 측면을 교제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자매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도록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이 교제를 들은 후 너희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에 인식이 생겼느냐?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과 관련하여, 그것이 성품 측면이든 아니면 본성 본질 측면이든, 사실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저 대동소이하고, 인성 선악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은 모두 같지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증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모독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해 교회 사역을 교란할 수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보통의 패괴된 인류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악을 행해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없다. 패괴된 인류의 사상 관점, 패괴 성품은 동일하고 비슷하지만, 만약 사람의 인성 본질이 악인이 아니라면, 이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많은 사람이 이 차이점을 보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논하며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을 해하기 쉽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도 큰 방해가 될 것이다. 네 패괴 성품이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또 네가 걷는 길이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는 너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여길 것이며, 네 행동과 사상 관점이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 스스로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너는 어느 정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며, 자포자기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 인식은 어느 정도 치우친 감이 있다. 그럼 자신의 적그리스도 성품을 인식할 필요가 없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교제하고 해부하는 것은 너희가 자신과 대조하여 진실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자신에게 일반적인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만 알 뿐 네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한다면 너 자신에 대한 인식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은 적이 없어. 나는 적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나한테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없는걸. 그러니 내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이런 화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든 없든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이 측면의 진리와 말에 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할 때, 자신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의 사상 관점, 성품은 적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하고 찍어 낸 듯 똑같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인식할 때 오직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인성이 그다지 좋지 않고 진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의 얕은 수준까지만 인식할 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준다. 사실, 그의 모습과 표출이 바로 적그리스도 성품이며, 그가 걷는 길이 적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적그리스도 성품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사실, 자신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한다. 설령 인식했다고 해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한마디라도 했다간 저주받고 정죄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네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네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꾸지 못한다. 네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네 이해가 너무 얕고,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인식이 없다는 의미이다.

(3)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다른 것(이점)도 사취한다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하는 세 번째 모습,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다른 것(이점)도 사취한다'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물론,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다른 것(이점)도 사취하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희는 여태까지 이 모습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혐오스럽고 역겹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 부류의 사람을 경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그들의 인성은 어떠하냐? 그들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르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무엇이겠느냐?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겠느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들은 가정과 직업을 버렸으며, 얼마간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또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속임수로 먹고 마신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겠느냐? 너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어째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느냐? 혹자는 "이런 사람은 사회에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집에 몇 명 있다고 해도 별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너는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행동과 생각, 뜻,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 모습을 진리와 결부시켜 본 적이 없고,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의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한 진리가 네게 가치와 의미가 있겠느냐? 없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들은 온종일 규례적인 것들을 죽어라 지키고 글귀와 도리를 좀 늘어놓는 것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창밖의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현의 글을 읽는 데만 열중한' 그 옛날 서생들처럼 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자기와는 무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사람을 분별하고 일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러하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는 공책에 적고, 마음속에 담아 두고, 도리나 규례로 여겨 지키면 끝이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각종 행위나 모습이 이러한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숙고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의 영적 생활이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진리 진입이 무척 느리고 얕으며, 영적 생활이 매우 단조롭고, 규례만을 지킬 뿐 일 처리에 원칙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영적 생활이 실생활과 따로 놀고 공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행위, 모습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개념도 없고, 나아가 정의를 내리지도 않으며, 어떤 생각이나 분별도 없는 것이다.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개인 혜택을 도모하는 행위, 모습, 주장을 적잖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어떤 부류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얻을 수 있을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등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묵상해 본 적이 없다.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일을 할 때는 형식만 취할 뿐, 진리를 얻고 진리 실제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하나님 집에서 갖가지 이점을 사취한다. 물론, 이 갖가지 이점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적인 누림 등이 포함된다. 이 부류 사람의 본질은 전에 말한 적그리스도의 유물론 본질과 동일하다. 이는 같은 부류 사람의 인품이다. 그들은 오직 각종 좋은 물질적 대우를 누리기만 바랄 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선행을 예비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저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표면적으로 형식만 좀 취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오매불망 그리는, 잘 먹고 마시며 좋은 대우를 받는 등의 육적인 누림이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 아마 각 교회에 한두 명, 심지어는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모습과 행위, 본질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먼저 대표적인 세부 사례를 이야기하여 모두가 듣고 식견을 키우게 하며, 이 부류 사람이 우리가 교제하는 항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든 채 속임수로 먹고 마시며 돈,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한편, 이 부류의 사람을 분별하게 하겠다. 그다음에는 너희도 너희가 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아라. 너희가 보기에는 예를 드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개괄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드는 것은 어떤 점이 좋으냐? 먼저,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나 실제 사례를 듣고 싶어 한다. 거기에는 인물과 스토리가 있어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낀다. 네가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네가 그것을 글로 쓰면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 훑어보고 끝이지만, 그것을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면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측면의 진리, 혹은 관련된 사람과 일, 사물을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게 하며,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사람이 더 정확하게 각 측면의 진리와 맞추고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례 1. 사역을 핑계 삼아 먹고 마시다

먼저 하나님 선민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을 사례로 들어 보자. 어떤 리더 일꾼은 새로운 사역 장소에 도착해서 여러 형제자매를 접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 물건 좋네. 나는 왜 없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아니겠느냐? 그의 탐욕이 튀어나온 것이다. 탐욕이 튀어나올 때 이 비열하고 몰염치한 소인배 부류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그 일대에서의 사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가 떠나지 않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언젠가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이익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손에 넣지 않으면 밤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 그는 다른 곳에 갔다가 그 이익을 다른 사람이 먼저 손에 넣어 자기한테 기회가 없어질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핑계를 대며 그 일대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그 이점을 생각하고, 또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일대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많은 형제자매가 그에게 호감을 갖고, 그가 설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을 꺼냈다. 어떻게 해서든 그쪽으로 화제를 이끌려고 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어떻게 말을 해서 그걸 얻어 내지? 내가 그걸 좋아하고 원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그가 공짜로 주게 해야 한다고. 또 내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원해서 준 거라고, 그건 내가 받아도 당연한 거라고 여기게 해야 해.'라고 궁리한다. 곧이어 그는 형제자매에게 물었다. "요즘 생명 진입은 어떤가요?" 그러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온 후로 저희의 교회 생활도 좋아졌습니다. 모두 힘을 내고 있고요." "힘이 생겼다는 건 영 안의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앞으로는 더더욱 잘될 겁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화제를 유도했다. 그러자 형제자매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떠날 때 좀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원칙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당연히 가져가야 한대도 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형제자매가 정말 그것을 주지 않을까 봐 돌려서 말을 했다. 그가 잘해 준 것에 대해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이와 동시에 다시 한번 주동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가 잊지 않고 그에게 그것을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형제자매는 알아채고 말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말죠. 당신이 가실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 말을 들은 그는 무척 흡족했다. '다행이다.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군!'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 바로 떠난다면 내가 그것을 바랐다는 게 너무 눈에 띌 테니까 이삼일 있다가 가자.' 그리고 드디어 사흘째가 되었다. 그가 떠날 때가 되자 형제자매는 그에게 묵직한 가방을 하나 건넸다. 그는 단번에 자기가 원하던 물건임을 알아챘지만 못 본 척하면서 사양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마디도 없이 물건을 갖고 떠났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가 바로 사역을 빌미로 삼고 노동력을 팔아 이득을 꾀하며 형제자매들에게 재물을 강탈하는 사람이다. 이는 일종의 사기 아니겠느냐? 그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득이 있는 곳,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며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좋은 것이든 다 집으로 가져가려 한다. 리더 일꾼으로 있는 몇 년간, 집에 있는 많은 물건은 전부 형제자매들에게서 얻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에게서 가문의 비법이나 보물을 얻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지 특산품을 받아 오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뜻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형제자매들에게서 얻어 낸 이익이 무척 많다.

어떤 지역의 교회에 가게 된 한 리더는 그곳 대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대추를 좋아해. 이곳에서 산다면 매일 대추를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며칠만 머물고 떠나야 하잖아. 지금은 대추가 아직 익지 않았어.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 핑계를 대고 대추가 익을 때까지 머물면 대추를 먹을 수 있지 않겠어?' 그 후 그는 많은 형제자매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고, 사역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각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 떠나겠다고 핑계를 댔다. 사실 그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추가 익어서 가져갈 수 있을 때 떠나야지.'라고 궁리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기에 그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고, 그 일대에서 머물게 된 것이다. 그 기간에 그는 글귀와 도리를 읊어 대고 겉으로 보이는 일들을 좀 했지만, 사역을 그리 잘 해내지는 못했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대추가 익자 그는 신이 났다. '드디어 대추를 먹을 수 있겠군.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날이 온 거야!' 대추가 익자 그는 먹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매일 먹기만 해서는 안 돼. 대추를 먹기 위해서 머무는 건 안 된다고. 형제자매들이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좀 얻어 가야겠어. 만약 안 준다면 쟁취해야지.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말해야겠다.' 그곳 형제자매들은 그가 대추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떠날 때 좀 싸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분이 좋았지만 입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대상으로 잇속을 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져갈 수는 없으니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했다. 먹을 만큼 먹고 떠날 때가 되자 그는 속으로 걱정이 됐다. '그들이 나한테 대추를 안 주거나 질 떨어지는 대추를 주지는 않겠지? 나는 크고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말이야.' 떠나기 전 이틀 동안 그는 수시로 말했다. "이제 곧 대추 수확이 끝나겠네요? 내년에는 언제쯤 익을까요?" 이 말의 속뜻인즉슨, 자기한테 대추를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형제자매한테 상기시키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알아챘다. '아무래도 저 사람이 떠날 때 꼭 대추를 들려 보내야겠어. 그것도 좋은 걸로. 안 그랬다간 누군가를 못살게 굴지도 몰라.'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이 되자 형제자매들은 대추 세 상자를 주었다. 그는 혼자서 들고 가지 못할 것 같아 자기 파트너한테 좀 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고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대추를 먹었는데, 너무 먹어서 열이 올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나면 앞으로는 먹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그는 떠날 때도 무척 아쉬워했다. '이번에는 본전치기는 했어.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오자. 너무 일찍 오거나 늦게 올 필요는 없겠지. 대추가 익을 때쯤 맞춰서 오자고. 그럼 갓 딴 대추도, 말린 뒤엔 말린 대추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떠날 때는 좀 얻어 갈 수도 있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냐? 그는 마음속으로 오직 이런 일만을 생각하며, 잇속을 차리고 이득을 꾀하고 형제자매들에게서 이익을 얻어 낼 궁리만 했다. 뭐든 마음에 든 좋은 것을 그는 놓치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든 이상 그 물건은 마지막에 반드시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행위 아니겠느냐? 이 부류 사람의 인성과 인격은 너무 저속하지 않으냐? 표면적으로 아무리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 가정과 직업을 버릴 수 있더라도, 이 부류 사람을 가리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속임수로 먹고 마시는 부류이다.

어떤 사람들은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후 집에 돌아올 때 현지의 서로 다른 특산품을 가지고 온다. 심지어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물건을 강탈하기도 하는데, 명품 옷이든 전자 제품이든, 자기 마음에 든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얻어 낸다. 만약 주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망 훈계하여 상대가 무엇 때문에 책망 훈계를 받는지 깨닫게 한다. 결국, 상대는 그가 원하는 물건을 주어야 풀려날 수 있다. 이들은 본분을 이행한다는 기치를 들고 각종 이득을 얻어 내며,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이 가끔 뭔가를 주었을 때, 값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넘쳐나니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거절하며, 속임수로 형제자매들의 호감과 우러름을 얻어 낸다. 하지만 형제자매들이 주는 것이 꿈에 그리던 것, 필요한 것, 원하던 것이라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형제자매들에게 화장품, 좋은 옷, 좋은 신발을 받아 내고, 어떤 남성들은 형제자매들에게서 전자 제품, 오토바이, 전자 기기를 얻어 낸다. 그들은 어떤 이득이든 전부 점한다.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좋은 물건이 있든, 그들 마음에 든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손에 넣는 것이다. 이 밖에, 이들은 또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고 갖가지 핑계를 대서 회식을 하며 진탕 먹고 마신다. 어느 수준까지 그러겠느냐? 그는 어떤 지역에 갈 때마다 돈이 있는 집, 잘 먹을 수 있는 집에 머무르며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는 교묘하게 갖가지 구실을 대며 사역자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한다. 회식 때마다 개막사처럼 어떤 말을 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나라의 모임이고, 이 음식은 하나님나라 잔치 음식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럼 알랑거리는 자들은 얼른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소위 리더 일꾼이라는 자들이 각지에 가서 한껏 먹고 마시며 끼니마다 보양식을 원하고 생선이나 고기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매주 반찬이 겹치면 안 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좋은 차를 마셔야

한다. 그러면서 "차는 꼭 마셔야 합니다. 매일 사역량이 많아서 밤을 새워야 하거든요. 차를 좀 마셔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답니다."라고 핑계를 댄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금 나는 아주 어렵게 이 지위를 손에 넣었어. 그러니 기품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나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꿈꿔 왔다고. 그러니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누려야 하지 않겠어? '권력은 있을 때 써라.'라는 말도 있잖아. 열심히 먹고 마셔야 해. 언젠가 이 지위를 잃게 되면 이것들을 누릴 수 없을 테고, 이런 기회도 사라진다고. 그럼 평생 헛되게 산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이 부류의 사람은 사역한다는 기치를 들고 이렇게 속임수로 먹고 마시며, 얼마간 사역을 하고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으면서 이점을 취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 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현지 형제자매들은 그를 위해 매일 닭을 한 마리씩 잡아야 했다. 그렇게 그는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 매일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역겹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닭을 키우는 것은 계란을 얻기 위해서이며, 보통은 닭이 늙어야 잡는다. 그자가 온 후로 알을 낳는 닭까지 잡아야 해서 결국 닭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형제자매들은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교체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의 집 자매에게 매일 닭을 잡아 달라고 했다. 만약 닭을 잡아 주지 않으면 자매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는 어떤 작자이냐? 그는 닭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매일 끼니마다 먹었으며, 교체되어서도 여전히 먹어야 했다. 아예 인이 박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가 좋은 작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든 채 본분 이행의 기회를 틈타 형제자매의 재물을 강탈하고, 가는 곳마다 속임수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좋은 작자가 아니며, 그들의 본질은 적그리스도이다.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들은 먼저 돈이 좀 있고 생활 여건이 좋은 섬김 가정을 골라 자신을 섬기게 한다. 그들이 그런 곳을 찾아간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잘 먹고 잘 지내는 등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이다. 어떤 지역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런 생각과 탐욕을 버리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는 다시 그런 지역을 찾아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외지에서 몇 년 사역한 후 사람이 180 도 달라지며, 고향으로 돌아오면 형제자매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얼굴이 커지고 배가 나오며 좋은 옷을 입고 태가 나고 풍채가 좋아졌다. 그럼 그의 생명 성장은 어떻겠느냐? 생명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것을 먹고 입으며 살집이 붙었고, 호의호식해서 피둥피둥 살이 쪘을 뿐이다. 중국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불안에 떨게 된다. 설사 가끔 좋은 것을 먹고 부유한 섬김 가정을 만난다고 해도 살집이 붙을 수는 없다. 그럼 피둥피둥 살이 찌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느냐? (지위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삼시 세끼 뭘 먹고 마실지, 뭘 누릴지만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한 끼라도 잘 먹지 않으면 사역을 하고 본분을 이행할 마음이 사라지고, 배 속이 든든하지 않으면 평정심을 잃는다. '오늘은 제대로 못 먹었어. 고기도 없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차를 따라 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교회 사역에 관해 교제해도 입을 다문 채 복수할 거라고. 그러게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걸 주지 않으래? 그런 음식을 내놓고도 내가 당신들한테 교제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꿈 깨시지!'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소리 내서 말하지는 않는다. 그저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오후에는 눈 좀 붙여야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이는 대단한 거짓말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는 오후 4~5 시까지 잠을 잤고,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만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과 냄새를 맡고는 먹지 못할까 봐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본분을 이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 속셈과 목적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그들이 이번 생에 추구하는 목표이며, 호의호식하고 좋은 대우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이번 생에 하나님을 믿으며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으면, 또 형제자매들에게 지지받고 그런 것들을 사취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품팔이해도 그다지 많은 돈을 벌 수 없고, 장사로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이런 것들을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입만 좀 놀리고 발품만 좀 팔며 리스크만 좀 감당하면 호의호식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시중을 들어 주고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삶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믿어서 큰 복을 누리게 됐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형제자매들 앞에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바람을 뛰어넘었죠." 그의 말은 맞지만 그 개인의 추구나 그의 인품, 그리고 그의 생각, 속셈,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한 말은 전부 남을 속이는 것이며, 그가 표면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하는 것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의 내면의 계산과 속셈, 탐욕이야말로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의 인품이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이 물질적인 누림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영원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잊지도 못한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교제해도 그들은 계속 이런 욕망과 탐욕을 죽어라 끌어안고, 이런 속셈과 목적을 가진 채 본분을 이행한다. 지위가 있든 없든 그들의 속셈은 변하지 않는다.

사례 2.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고 원한을 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다. 우리와 함께 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 리더는 무척 기뻐했다. '드디어 빛 볼 날이 왔어.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 큰 복을 누리게 된 거라고!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고생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보상을 받게 됐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적어도 나는 리더 일꾼이고, 숱한 환난을 겪었잖아. 그러니 이 좋은 일에 당연히 내 몫이 있어야지. 나는 이 이득을 누려야 한다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한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그는 언행에 원칙이 없고 인성도 좋지 않으며 복받으려는 속셈과 욕망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끔은 그를 책망해야 했다. 몇 번 책망받은 그는 '이제 끝이야. 상부에서 나를 완전히 간파했다고. 출국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잖아. 아무래도 해외에 나갈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줄곧 마음속으로 이 일에 관해 궁리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해외에 가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령 출국할지라도

이렇다 할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기에 그에게 그 일에 관해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해외에 나갈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밖으로 나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말이다. "저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 왔고, 사역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출국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따라갈 자격이 없네요. 앞으로 저는 제 문제를 보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혐오하시니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저를 보고 혐오하시지 않게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의 말은 언뜻 사람의 말 같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적었다. "저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이용당하기만 했죠. 같이 고생하는 건 해도 같이 복을 누리는 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다. 특히 이 말, "저는 누구와 함께하든 같이 고생하는 건 해도 같이 복을 누리는 건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저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그렇게나 고생하고 그렇게나 많은 위험을 감당했지만, 함께 복을 누릴 때가 되니 여러분은 저를 원치 않으시는군요."라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원망으로, 그 일 때문에 원한이 생긴 것이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혐오하시니,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지 않도록 말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은 복을 누리러 해외에 나가면서 나는 내팽개치려고 하네!'라고 원망했다. 정말 그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겠느냐? 그는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내팽개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언행에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저는 당신과 함께 고생했으니 당신과 함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저를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하고, 저를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당신은 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겼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바울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며 면류관을 받아 내려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본질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것은 면류관과 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으며,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님과 거래를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거래에 실패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분노하고 자포자기하며 원한을 품었다. 이것이 그의 말에서 표출된 것들이다. 그 후 그는 어떻게 됐겠느냐? 얼마 후, 그는 장사를 하러 갔고, 주변에 어린 아가씨 몇 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다. 책망 훈계가 좀 임했다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포기하고 장사하러 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잔뜩 화가 난 그의 모습은 그전까지 보여 주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 다른 사람 같았다. 이는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숨기고 위장하고 자제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 닥치든 먼저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 밖에, 정말 얼마간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성 없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수작을 부릴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패역한 일이며, 또한 그런 자는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자는 불신파이다. 이런 사람은 복받겠다는 욕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가 추구하는 것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구원받는 것은 그에게 장식품이자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 그가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것은 상, 면류관, 이득이며, 이번 생에 백배를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도 아니다. 또 그가 추구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나아가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과 똑같이 큰 복을 받고 큰 권력을 쥐며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야심이자 욕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혜택이나 뭔가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손에 넣으려고 하며, 자격과 서열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나한테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반드시 그걸 쟁취해야 해.'라고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집의 앞쪽 서열에 둔 후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집의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출국 일만 해도 그는 먼저 자기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람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자기만큼 많이 고생하고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또 자기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고 리더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갖가지 구실을 갖다 대고 갖가지 판단 방식으로 자신의 서열을 매겼는데, 어떻게 하든 자신을 앞쪽에 두고, 자격을 갖춘 이들의 반열에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그 대우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불가능해지는 순간, 복과 이득을 얻으려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는 순종하여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벌이려 하며, 잔뜩 화를 내고,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의 마음은 그가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추구하는 것들은 진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분 알 수 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의 목적과 속셈은 다름 아닌 바울처럼 면류관을 얻으려는 데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하고 폭로하고 해부해도 그는 복받으려는 속셈을 한사코 끌어안은 채 놓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복받으려는 욕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소극적으로 변해 물러나며 본분을 포기하고 멀리 도망갔다. 하나님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는 진실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힘을 쓰지도 않았다. 이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며, 진실한 체험 간증도 전혀 없었음을, 그저 양의 가죽을 쓴 늑대 한 마리가 양 떼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임을 완전히 드러낸다. 결국 철두철미한 불신파는 이렇게 철저히 드러나고 도태되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의 생애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는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런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 나가는 문제에서 쓰러지고 드러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 아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례는 남성의 일화였지만, 여성 사례도 있다. 처음에는 그 사람도 함께 해외에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무척 기뻐하며 출국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후 여러 이유로 그녀는 출국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그녀에게 알리지 못했고, 그녀는 사역자 모임에서 그 결과를 알게 되었다. 너희가 한번 분석해 보아라,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느냐? (정상인의 사유 방식대로라면, 그 소식을 듣고 큰 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위험해서 출국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대했겠지요. 하지만 그 여성이라면 그 소식을 듣고 잔뜩 화를 내며 하나님께 이치를 따졌을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이 부류 사람의 인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구나. 이 부류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일에서든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잇속을 차려야 한다. 어떤 일이든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잘해야 하며, 남들 앞에 나서야 하고, 어떤 이득이든 다 얻어야지, 자기 몫이 없어선 안 된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고 뒹구는 등 귀신의 몰골을 드러냈고, 사역자들을 훈계하며 그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녀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겉으로는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이겠느냐?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럼 그녀가 분노한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녀는 이득을 얻지 못했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잇속을 차리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빼앗겼다. 그녀의 몫은 없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난 그녀는 더 이상 위장하지 못하고 마음속 불만과 원망을 전부 발설한 것이다. 그전까지 상부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녀는 먼저 알아야 했다. 또 그녀는 늘 상부와 접촉하고 싶어 했지, 형제자매들과 소통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늘 자신을 평범한 일원이 아닌 고위 인물로 여겼기에 이번 출국에도 당연히 자기 몫이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반드시 가야 하며 첫 번째 인선이어야 한다고, 그 대우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 진실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몇 년간의 고생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으며, 애써 경영해 온 지위와 자기가 원하는 대우가 전부 사라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뜻밖에도 그 큰 이득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자기가 떨어지자 그녀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자기 지위가 높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방어선이 철저히 무너져 더는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남들의 말과 시선은 안중에도 없이 분노와 불만을 쏟아 내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후, 그녀는 한 팀에 보내져 본분을 이행하게 됐는데,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결국 그 팀 형제자매들이 연명으로 편지를 보내 그녀의 출교를 요구했다. 출교의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형제자매들이 보고한 그녀의 악행을 보면, 너무 많아서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즉, 그녀가 행한 악은 너무 많고 그 성질이 너무 심각하여 한두 마디 말로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며, 한두 가지 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행한 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모두의 공분을 샀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녀를 출교한 것이다. 그녀는 출국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 일 이후에 악을 행하게 되었겠느냐? 출국 일이 그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녀가 행한 악과 그녀가 드러낸 추태는 전부 그 이득을 얻지 못한 데 대한 보복이자 발산임을 알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녀와 같은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런 것들을 표출하겠느냐? 얼마간 인성과 양심,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자제할 것이다. 마음은 기쁘지 않고 불만스러우며 좀 슬프더라도 '나 역시 평범한 사람이니까 쟁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마땅히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해야 한다고. 사람이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은 피조물이고 별로 대단할 게 없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괴로움도 며칠 지나면 사라지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하며, 그 일 때문에 악을 행하고 보복하거나 분노를 발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인품이 몹시 악질인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서 여태까지 보여 준 적 없는 악행을 많이도 드러낸다. 이는 문제를 설명해 준다. 즉, 이 부류 사람의 인성 본질을 설명해 주고, 또 이 부류의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바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이 일이 드러남에 따라 그의 민낯도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먼저, 그들은 100%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진리를 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구원받는 대상으로 여겨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한 적도 없다.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지위와 누림, 좋은 대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따라서 누리고자 한다. 또 그래야 헛되이 따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는 이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이자 본모습이고, 그들의 내면세계이다. 이 일 때문에 20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을 믿은 그의 생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지금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에 있겠느냐? (이방인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 무엇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냐? (그들은 불신파이며,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굳게 서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는데 왜 사라졌겠느냐? 너는 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봐야 한다. 내면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일에서 그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했기에 그런 길을 선택했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숱한 고생을 했어. 언젠가 볕 들 날이 오기만을, 상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기만을 기다려 왔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겼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을 믿어 면류관을 얻는 것과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큰 이익에 내 몫이 없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할 줄이야.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것 같아. 해외에 나가는 것 같은 좋은 일에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니, 앞으로 면류관은 더더욱 얻기 힘들겠지? 그건 누구한테 돌아갈지 몰라.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려고 했겠느냐? 그는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겠느냐? 모두 그 희망을 위해서였고, 마음속에 들어 있는 그 생각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생각도 사라졌으니 계속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 편히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는 야심과 욕망이 너무도 크다. 그는 자신이 치른 희생과 대가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을 절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가 꿈에 그리는 것은 자기가 치른 대가와 희생으로 면류관과 이득을 얻는 것이다. 즉, 하나님 집에 어떤 이득이 있든 그의 몫이 있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의 몫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의 몫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심과 탐욕이 이렇게 큰 사람이 무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혹자는 "그에게 진리를 추구하라고 하십시오. 그가 들은 진리가 많아지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또 혹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벌하고 심판하시면 바뀌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도태시키려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 말과 방금 너희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희가 말한 것이 그의 진실한 심리 동향이냐? 이 부류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희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 (느낌이자 공허한 이론입니다.) 너희의 말에는 분석과 판단의 성질이 들어 있다. 너희는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의했다. 그것은 그 본인의 진실한 생각과 표출이 아니고, 그의 진실한 관점도 아니다. 이는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이 부류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이다. 이득이 있는데 얻지 못하고, 혜택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며, 잇속을 차리지 못하면 머리 끝까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할 믿음을 잃는다. 또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고 도망가고자 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한다. 나쁜 짓을 함으로써 분노를 발산하고 보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발산하려는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계속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려야겠느냐? (출교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파입니다. 그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야심과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그런 사람에게는 진실한 믿음이니 거짓된 믿음이니 운운할 것도 없다. 그는 인품이 너무도 저열하다!

사례 3. 시골집으로 돌아가자 적응하지 못하다

시골에서 태어나 집안 사정이 여유롭지 않고, 간단한 가재도구만 갖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집 안에 딱딱한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외에 다른 가구는 없고, 바닥은 벽돌 바닥이나 흙바닥으로, 시멘트조차 깔려 있지 않아 무척 누추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 복음 전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잘사는 지역에 가게 되었다. 그곳 형제자매 집에는 대부분 널마루 아니면 타일이 깔려 있었고, 벽은 도배가 되어 있고, 무척 깨끗했다. 또 매일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집 안에는 가구도 많았다. TV장에 커다란 옷장, 소파와 에어컨까지 있었고, 침실에는 시몬스 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 등 갖가지 가전이 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이 외에도 이런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그곳에서 시야를 넓힌 그녀는 한동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왜 그랬겠느냐? 그녀는 생각했다. '고향의 그 토담집은 여기보다

나은 데가 하나도 없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곳 사람들은 왜 우리 집보다 훨씬 잘사는 거지? 여기 사람들은 천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어. 이곳 사람들보다 너무 뒤처진다고!' 이렇게 비교하자 마음이 괴로워졌고, 그 지역에 더더욱 미련이 생겨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 집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 토담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동안 대도시에 머물면서 도시인들처럼 먹고 입고 즐길 줄 알게 됐고, 도시인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자 그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고, 사람은 돈이 있어야 좋은 거고 가난하면 못난 거라고, 그런 사람은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무시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어 돌아가야만 했다. 고향에 돌아간 그녀는 마음이 복잡하고 몹시 괴로웠다. 집에 들어서자 흙바닥이 보였다. 방구들에 앉으니 엉덩이가 배겼고, 벽은 만지기만 해도 흙이 묻어났다.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저녁에는 샤워를 하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못 됐다. 그녀는 그런 삶이 너무 비천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고, 늘 부모에게 성질을 냈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딴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식구들을 봐도 눈에 거슬리고 집 안 어디를 봐도 눈에 거슬렸다. 정말이지 너무 촌스러워서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답답해서 죽어 버릴 것 같았다. 먼 곳에 나갔다 와서 식견을 키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해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당시 그녀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 형편이 분명 지금보다 좋았겠지. 시몬스 침대에서 자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좋은 걸 먹고,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 수 있었을 거야.'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해진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없고 호의호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한때 몇 개 성(省)을 호령하던 이 '여장부', '여걸'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 채 맨날 나른해져 있었다. 아침이면 간신히 일어나 가장 먼저 단장하고 화장한 후 도시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고는 어두운 얼굴로 언제쯤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 도시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녀가 전에 했던 설교, 예전에 세운 다짐은 전부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다. 식견이 좀 쌓이고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좀 달라진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드러난 것이다.

전에 그녀가 각지에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녀는 어떤 부류인지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했다. 도시에 다녀온 경험은 그녀의 생활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풍족한 생활에 대한 잠깐의 체험이 그녀의 인생 방향을 철저히 변화시켰다. 그 원인은 대관절 무엇이겠느냐? 누가 그녀를 바꿔 놓은 것이겠느냐? 설마 하나님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환경이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걷는 길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가 걸은 길은 어떤 길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길도, 베드로의 길도,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사람의 길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추구하는 길도 아닌 적그리스도의 길이다. 이 적그리스도의 길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예와 지위, 물질적인 누림을 추구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의 본질이다. 만약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사소한 환경의 변화에 그녀가 드러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기껏해야 마음속이 좀 연약해지고 얼마간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거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데 그칠 뿐, 이렇게 만신창이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추구하는 바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방인과 동일하고, 이 세상에서 명리와 사악한 흐름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 그들은 이방인의 세련된 차림새를 좋아하고, 사악한 흐름에 대한 이방인의 추종을 좋아하며, 나아가 육적으로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이방인의 미련을 좋아한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자 그녀의 인생관, 이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가 철저히 달라진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육과 삶을 누리고 시대의 흐름을 추구해야 한다고, 사회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걸출한 인물들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환경과 각 부류 사람을 접해 식견을 키운 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고로 이 사악한 흐름과 인류를 더 분명히 간파하게 된다. 또 마음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더더욱 혐오하고 분별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고자 추구하게 된다. 반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들은 일단 식견이 높아지고 다른 환경을 접하면, 야심과 욕망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팽창되고 커진다. 그런 후에는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삶을 더더욱 부러워하는 한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음속 깊이 경멸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며, 돈도 지위도 세력도 식견도 없다고, 이방인들만큼 분위기가 있지도 않고 삶을 즐길 줄도 모르는 데다가 허세도 부릴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마음속 깊이 반발심과 적의를 느낀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많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너는 그가 과연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 간파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 적당한 환경이 갖춰지면 그가 드러날 것이다. 과거에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착실하고 성실했으며, 하나님 집에서 뭘 시키든 따랐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알았다. 의무감을 갖고 바른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품위를 지닌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의 본질과 걷는 길은 세월과 환경의 시련을 버티지 못한다.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었든, 하나님을 믿는 데 얼마나 토대가 있든 만약 그가 적그리스도 본질을 갖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질적인 누림과 사치스러운 삶, 높은 물질적 대우를 추구할 것이며, 나아가 갖가지 이득을 얻고자 추구하는 한편, 세상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부러워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다가 적당한 환경과 배경이 갖춰지는 순간, 그 욕망은 팽창하고 발작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그 순간이 바로 드러나는 때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다. 반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토대로 삼은 사람은 이러한 시험과 환경이 닥쳤을 때 올바르게 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시험이 닥쳤을 때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쫓아다녀도 받아 주지 않는 여성처럼 말이다. 어째서 받아 주지 않겠느냐? 상대의 인품이 별로이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은 짝을 찾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돈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돈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2 만 위안짜리 명품 스커트를 선물하면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또 10 만 위안짜리 밍크코트나 커다란 다이아, 크고 멋진 집이나 차를 선물하면 당장 그 사람에게 시집갈 것이다. 그럼 예전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그 말은 진심이겠느냐, 거짓이겠느냐? 그것은 남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자신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장래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의 앞에 놓인 시험이 없고,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 닥치는 순간, 그는 그 속에 깊이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사례처럼 말이다. 그 사람은 헤어 나오지 못했다. 도시에서의 삶을 한동안 누리고 나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다. 만약 그녀를 황궁에 데려다 놓았다면, 그녀는 자기 부모한테 자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자살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누림과 명예, 사치스러운 생활,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어떤 어리석은 일이든 다 저지를 수 있으며, 가치도 없고 인격도 비천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진리를 추구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녀의 설교는 어디에서 왔겠느냐? 그녀가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녀가 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도리이다. 그녀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으스대며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많이 설교한 그녀가 왜 자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그녀는 자신이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느냐? 꿰뚫어 보았겠느냐? 그녀는 그렇게 많이 설교했지만, 한동안 도시 생활을 하고 나자 그 시험을 이겨 내지 못했고 굳게 서지 못했다. 그럼 그녀가 한 것이 설교겠느냐? 분명히 아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례다.

사례 4. 사취한 제물로 자신의 빚을 갚다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사역자 모임을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우리는 한 섬김 가정을 찾았다. 그 집 사람들은 섬기고자 했고, 보안에 일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집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모양이야. 예배는 우리 집 아니면 안 되는데, 콩고물 얻어먹을 이 기회를 그냥 놓치면 내가 바보지.' 한번은 사역자 모임 때, 아직 예배 참석 인원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와 거실에 앉더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섬김 가정은 그가 빚쟁이라고 했다. 몇 년 전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 못 갚았다는 것이었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된 일 같으냐? 그 빚쟁이는 조금 일찍도 아니고, 조금 늦게도 아니고 하필 그 시간에 와서 빚을 독촉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느냐, 아니면 누가 뒤에서 고의로 계획한 것이겠느냐? 그 안에 교활한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 계략이 무엇이겠느냐? 그 집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빚쟁이를 불러들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어서

저자를 내보내라."라고 말하자 그는 "돈을 안 주면 안 갈 겁니다."라고 했다. 내가 또 "왜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자 그는 웅얼웅얼했는데, 돈이 있어도 주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빚쟁이는 계속 버티면서 사역자가 올 때가 됐는데도 가지 않았다. 그 섬김 가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느냐? 미리 계략을 세운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잠시 후, 나는 사람을 불러 섬김 가정에 돈을 주고 얼른 그 빚쟁이를 내보내라고 했다. 돈을 준 지 30 분도 채 되지 않아 그자는 집에서 나갔다. 상식대로라면 그 빚쟁이가 다시 올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한 달 후, 또 한 번 사역자 모임 직전에 그 빚쟁이가 다시 찾아왔다. 섬김 가정의 말에 따르면, 지난번에 갚은 돈은 일부일 뿐 빚을 전부 청산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한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또 대신 빚을 갚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도 지난번처럼 그에게 돈을 주고 나서 그 빚쟁이가 나갔다. 그 후로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빚쟁이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두 번에 걸쳐 대신 빚을 전부 상환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에 많은 돈을 요구하면 안 줄까 봐 두 번에 걸쳐 받아 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 돈을 어떻게 간주해야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빌려준 것으로 봐야겠느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 집에서 억지로 받아 낸 것으로 봐야겠느냐? (그가 하나님 집에서 억지로 받아 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사기 친 것이다. 그럼 왜 그에게 그 돈을 주었겠느냐?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사역자 모임을 열 수 없었다. 그럼 어떤 명목으로 그에게 돈을 주었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에게 장소를 대여한 비용으로 생각했다. 만약 호텔이나 체육관 등을 빌리면 돈을 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곳을 빌린다면 예배도 불가능하고 안전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그가 보안에 일조하고, 안전이 보장되니, 하나님 집에서 돈을 내서 대신 빚을 갚아 준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단지 그 돈을 쓴 것이 명분이 정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큰 붉은 용의 나라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인성이 악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섬김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으려면 그가 잇속을 차리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잇속을 차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누구든 속이고, 누구에게든 잇속을 차린다. 본분을 좀 이행하고 선행을 좀 예비했다고 언제나 이득을 보려고 하고, 누구에게든 '잇속을 차리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이민다. 그는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한다. 그럼 그의 그 '선행'은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가 개인적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돈을 내고 사 온 것이다. 그는 선행을 예비하지 않았다. 그는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님 집에서는 돈을 냈으니 빌린 것과 같다. 이는 선행과 무관하며, 그의 선행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집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형제자매를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 집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어떤 행위이냐? 이런 사람의 인품은 어떻겠느냐? 그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기억되겠느냐? 그의 인품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 등급이겠느냐? 네가 선행을 예비하는 것은 너 개인이 해야 할 일이자 네 종착지를 위한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 이미 보수를 받았고, 얻어야 할

이득을 전부 얻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네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지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며, 나아가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할 리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는 그 정도의 선행을 예비하고, 그 정도의 의무와 본분을 이행하고는 하나님 집에 손을 벌려 보수를 요구했다. 그것도 마치 장사라도 하는 양 하나하나 따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럼 그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으로 변질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을 권리를 없애고 박탈한다. 그 섬김 가정은 하나님 집에서 대신 빚을 갚게 했다. 거기에는 사기성이 없겠느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떳떳하지 않으며, 사기성을 띤다. 기회를 틈타 갈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물을 갈취하는 자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구원해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집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지요. 그는 영락없는 불신파입니다.) 불신파가 회개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의 불신파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며,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악을 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회개한단 말이냐? 회개란 인성과 양심, 이성을 지니고 자신의 패괴를 분명히 보고 그 패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람은 본분을 약간 이행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그 기회조차 놓치지 않았다. 순 사기꾼이었다. 이것이 네 번째 사례다.

사례 5. 하나님 집을 위해 한 일에 보수를 요구하다

중국에서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사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머리도 좋고 조건도 몇 가지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당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 하나를 안배했다. 그랬더니 그가 사역을 하면서 내세운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역을 하면 매일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집에서 생활비를 주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그 사역을 맡았다. 그런데 사역하는 수준은 보통이었다. 얼마 후, 그의 집 경제 사정은 괜찮아졌다. 하지만 다른 일이 또 생기자 그는 바로 하나님 집에 이야기했고, 하나님 집에서는 그에게 생활비를 좀 더 주면서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해 계속 그 사역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역 성과가 어땠겠느냐?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그는 자기가 내키면 일을 좀 하고 내키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게 사역을 그르쳐서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히고 거기다 다른 사람이 보완하게 하였다. 나중에 하나님 집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 열심히 사역에 임하라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집에서 계속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형제자매 몇 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한테 부족한 게 생활비겠습니까? 그 돈 몇 푼으로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 커다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집에서도 저를 위해 큰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요. 지금 아들의 학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깟 푼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불평할 때 드러난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계속 그를 써야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느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그 사람의 인품과 본질이 이미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그의 집 생활비는 물론, 자식 학비까지 책임져 달라고 했고, 그 후에는 또 아내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내 달라고 했다. 욕심이 점점 커지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 집을 위해 그 정도 일을 하고는 큰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 집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직장에 다녔다면 자녀 대학 학비를 댈 수 있었겠느냐? 아내의 병원비를 댈 수 있었겠느냐? 장담할 수 없다. 그럼 그는 왜 하나님 집에서 겨우 그 정도의 사역을 하고는 끝도 없이 하나님 집에 돈을 요구하겠느냐?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 어떤 관점을 지닌 것이냐? 그는 하나님 집에 자기 말고는 아무도 그 사역을 할 사람이 없으니 이 기회에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 집에 돈을 많이 요구해야겠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뜻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나님 집에서 한몫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뜯어갈 게 없으니 사역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일부 빈곤 지역 사람들은 섬김 본분을 이행할 때 형제자매가 가면 밥 지을 쌀도 없어서 남에게 빌려 오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라도 했다면 하나님 집에서 주지 않았겠느냐? (주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필요한 물건들은 하나님 집에서 부담해도 된다. 그런데 그는 왜 말하지 않았겠느냐? 준다고 해도 그는 받지 않는다. 밖에서 빌려 온 후에는 스스로 조금씩 갚는다. 하나님 집의 것은 받지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정반대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내걸고 손을 내밀어 요구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또 '당당하게' 손을 내민단 말이냐? 참으로 염치없는 부류가 아니냐? 돈을 한 번 받고 나면 또 요구한다. 토끼를 보지 않으면 매를 풀어놓지 않는다는 말처럼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돈 받은 만큼 일할 겁니다. 돈도 안 주면서 일 시킬 생각은 마십시오. 저는 일을 하는 거니까, 실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본분을 이행하는 거니까, 잇속을 차리고 본전치기는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받아 낸다. 그것도 핑계를 대고, 머리를 쥐어짜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한다.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주지 않으면 손을 털고 가 버리니, 역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이 밖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고발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하나님 집에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를 써야 하고, 그러려면 돈을 줘야 한다. 여기에는 사기성과 화재 난 데 도둑질하는 성질이 들어 있지 않으냐? 이런 부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 집 밖의 불신파로, 교우조차 될 수 없다. 교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 해 주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얼마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순전히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득을 얻지 못하면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어떤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전혀 헌신하는 게 없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안배하면 그는 먼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물어보며, 이득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이방인 세계의 그 사기꾼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들이 인격이 저속하고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런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느냐?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지르겠느냐? 마지노선이 있느냐? 어떤 정도를 심각하다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속으로 자책이 들고 양심의 참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한 일을 폭로할까 봐 겁이 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더는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인품은 너무도 중요하다. 염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자는 그야말로 악인이며, 무슨 일을 하든 마지노선이 없고, 양심에 기대지도 않는다. 인성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자겠느냐? 짐승이자 마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속임수로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는 자, 하나님 집에 보수를 요구하는 자들은 모두 좋은 작자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집이 속여먹기 쉽다고, 하나님 집의 물건은 특정인이 관리하지도 않고, 특정인 소유도 아니니 마음대로 점유하고 사기 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잇속을 차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잇속이 그렇게 챙기기 쉬운 것이냐? 비록 큰 잇속도 아니지만 챙겼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네 목숨이 없어질 것이다.

만약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인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할 수 있다면, 이는 어떤 작자겠느냐? 이런 자가 사람이겠느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건 마귀밖에 없다. 짐승도 이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개를 보아라. 주인이 키워 주면 개는 주인 대신 집을 지킨다. 나쁜 사람이 오면 짖고 공격하며, 누가 주인 물건을 가져가면 쫓아간다. 주인집 닭이나 오리, 거위가 도망가면 찾아오기도 하고, 주인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싸우면 싸움을 말리기도 한다. 녀석은 주인이 자기한테 돼지를 지키라고 시킨 것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한다. 개가 주인에게 이치를 따지면서 "저는 당신을 위해 돼지를 지켰는데, 당신은 왜 저한테 닭고기 같은 걸 주지 않죠?"라고 하지는 않는다. 녀석은 그런 것을 따지는 법이 없다. 개조차 주인을 위해 집을 지키고, 무상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사람들은 동물만도 못해서 의무를 좀 이행하고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조금 책임을 지면서 힘을 들이고는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며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은 너를 지켜 주고 인도해 주며 네게 이렇게 많은 진리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추궁하지 않았다. 너는 얼마간 의무를 이행하고는 하나님에게 와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갈취하려 들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준 것이 적으냐? 사람의 모습으로 보자면,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사람이 오늘 누리는 것, 지니고 있는 것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얻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게 베풀어 준 것이고 축복해 준 것이다. 너는 이미 많은 덕을 보았다. 하나님은 네게 생명과 진리,

길을 값 없이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했느냐? 자기 의무와 본분을 좀 이행하고는 괴로워하고, 손해 봤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네가 합당한 대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들은 언젠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사람들은 영원히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언젠가 결말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공개될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겠느냐? 만물의 결말이 다가오고 만물은 없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진리를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존하고, 진리와 공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이자 위력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부류는 영원히 이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위해 각종 혜택을 도모하며, 심지어는 졸렬한 사기 수법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취하고 횡령하고 강점한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록부에 기록된다. 언젠가 결말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기록에 근거하여 각자의 결말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 일들은 전부 진실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례이다. 이 사례의 등장인물이 어떠냐? 인격이 고상하냐, 아니면 미천하냐?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이며, 그를 줄여서 '천한 자'라고 부른다.

사례 6. 먹고살기 위해 관직에 오르려 애쓰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 늘 지위를 추구하고,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기를 추구하며, 하나님 집에서 뛰어난 인물, 선두자가 되고자 한다. 또 그것을 위해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다가 마침내 원하던 대로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 후, 이들의 삶은 정말 달라진다. 여태까지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벼슬아치의 이미지와 풍모가 그의 차림새와 언행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관료 같은 말투를 익히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며, 남에게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법을 익힌다. 한마디로, 벼슬아치가 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지역에 가서 리더가 되면, 그곳에서 관료 노릇을 한다. 관료 노릇을 한다는 말의 함의는 무엇이겠느냐? "먹고살기 위해 관직에 오르려 애쓰다."라는 말은 육적으로 누리는 일과 관계가 있다. 리더가 된 후, 이들은 예전과 어떤 면에서 달라졌겠느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두 달라졌다. 밥을 먹을 때는 풍부한 영양과 맛을 중시하게 됐고, 옷을 입을 때는 브랜드와 품위를 중시하게 됐다. 그는 한 지역에서 1 년 동안 리더를 한 후, 잘 먹어서 피부가 뽀얘지고 살이 올랐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게 됐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가전용품 등도 모두 브랜드 제품을 쓰게 됐다. 리더가 아니었을 때 그가 그런 것들을 갖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리더가 된 후에도 돈을 벌지 않는데,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샀겠느냐? 형제자매들이 준 것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집에서 나눠 준 것이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 준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고생하며 일해서 그것들을 얻은 게 아니다. 지위가 생겨 '관직'에 오른 후 지위의 복을 누리며 강탈한 것이고, 사기 치고 횡령한 것이다. 각지 교회에서 너희가 접한 각급 리더 일꾼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처음 리더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브랜드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생겼다.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된 후 수준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출할 때는 자가용을 타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고급스러운 것을 써야 하며, 브랜드 제품이어야 하고, 유행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하나님 집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적이 없고, 형제자매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 리더들이 누리는 것들은 어떻게 얻은 것이겠느냐? 한 측면은 그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들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강탈한 것으로, 돈 많은 사람에게 사 오게 한 것이다. 이 밖에, 제물을 유용하고 훔쳐서 산 것도 있다. 이는 속임수로 먹고 마신 사기꾼 아니겠느냐? 이들이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례 속 인물들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지위의 편리를 이용해 제물을 착복하고 강탈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사역을 하는데, 리더 일꾼이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과 나눠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까?"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들에게 자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해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사도 된다는 하나님 집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규정된 범위 안에서 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어디에서 알았느냐? (만약 정말 사역에 필요했다면, 쓸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추구한 것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제품이었고, 그가 쓴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만약 사역상의 필요로 인한 것이었다면, 쓸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는 왜 그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것을 쓰려고 했겠느냐? 이 밖에, 그가 이러한 것들을 살 때, 타인의 의사 결정과 동의를 거쳤겠느냐? 이것은 문제 아니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했다면, 그가 그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사용하는 데 모두가 동의할 리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단언컨대, 그가 그 물건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을 훔쳤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이다. 이 밖에, 하나님 집에는 규정이 있다. 각 교회가 제물을 보관하든, 아니면 협력하여 사역을 하든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 멋대로 제물을 유용하고 쓴단 말이냐?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의 이런 성질은 제물을 훔쳐 먹은 것에 속하지 않겠느냐? 리더나 사역자의 동의와 허락 없이,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런 것들을 사고 손에 넣었다. 이는 도둑질의 성질을 띠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리켜 제물을 훔쳐 먹는 것이라고 한다. 훔쳐 먹는 것은 곧 속이는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들고 그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사서 손에 넣었다. 이런 행위는 사기, 기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과하냐? 지나친 확대 해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소위 '리더'라는 자들은 한동안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형제자매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지

낱낱이 파악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 중에 누가 병원에서 일하는지, 누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지, 누가 은행에서 일하는지, 누가 기업가인지, 누가 가게를 운영하는지, 누구 집에 차가 있는지, 누구 집이 큰지 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것이 그의 사역 범위 내의 일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뭘 한단 말이냐? 그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고, 세상에서 특수한 직무를 하는 형제자매들을 이용해서 그를 위해 힘쓰고 봉사하게 하며, 편의를 제공하게 하려 한다. 너는 그가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선민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진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겠느냐? 그의 그런 행동에는 속셈과 목적이 있다. 진정한 리더 일꾼은 사역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사역을 잘 해내는 데 집중하며, 교회 사역과 무관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오직 교회에서 누가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지, 누구의 본분 이행 성과가 좋은지, 누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지, 누가 본분 이행에 충성심을 보이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 후 이런 사람들을 발탁한다. 또한, 교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조사하여 원칙대로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실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리더 일꾼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득과 이익을 손에 넣기 위해 일을 하고 포석을 깔아 둔다. 교회 사역은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그가 어떤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형제자매들 중 누가 그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병이 났을 때 그 사람이 무료로 약과 수입 영양제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예금과 출금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등 그는 이러한 일을 무척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들의 인성이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그를 따르며 그의 조력자나 졸개 역할을 하겠다고 원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이점을 제공해 주며, 그들을 곁에 두고 키우면서 보호함으로써 교회에서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의 세력을 지키는 데 힘쓰게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를 보려면 그에게 현지 형제자매들의 실제 상황과 교회 사역의 진척 상황을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형제자매들 가정사나 생활 환경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누가 제약 공장에서 일하는지, 누구 집이 가게를 운영하는지, 누구 집에 차가 있는지, 누구 집이 크게 장사를 하는지, 누가 현지 어떤 부처에서 일해 형제자매들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면 그는 정확하게 대답한다. 만약 그에게 누가 진리를 추구하는지, 누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사람을 속박하는지, 누구의 복음 전도 성과가 좋은지, 현지의 복음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으면 하나도 모른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의 인맥을 이용하고 결합하여 작은 사회단체로 만든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에 의해 그렇게 사회단체로 변질된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큰 성취를 이뤘는지, 누가 사회에서 유명인인지, 누가 사회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리더에게 특별히 편한 서비스와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의 마음속에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느냐? 이는 교회를 허물고 파괴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독립 왕국을 세우고 사적 단체를 운영하고 당파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나는 너희와 오랜 세월 접해 왔다. 하지만 너희 집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 집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더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알아보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본들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은 사회가 아니니, 친한 척하고 연줄을 댈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집을 사회로 변질시키지 마라. 네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상관이 없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지난날 사회에서의 지위가 아무리 높았다 한들 쓸모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정 환경을 물어본 적이 없다. 만약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한다면 들어 주겠지만, 내가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여겨 알아보는 일은 없으며, 나아가 그 속에서 뭔가 정보를 얻어 사람을 이용할 생각도 없다. 반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한담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누구 집이 건강 보조 식품 사업을 해서 영양제를 도매가로 줄 수 있다면, 그는 그 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또는 누구의 친구를 통해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그것도 기억해 둔다. 그는 이런 '관계자'들, 그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인재들을 모두 자신의 기록부에 올려 두었다가 중요한 때 그들을 이용한다. 그는 이들이 모두 인재이고 크게 쓰일 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명이나 진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리더는 누가 사회에 있을 때 평범한 노동자였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상대해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면, 누가 고위 공무원으로, 가정생활이 유복하고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바로 알랑거린다. 이런 자가 좋은 리더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런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느냐? 이런 대우를 받은 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더냐? 하나님 집에도 사랑과 온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대표하느냐? 그는 하나님 집이 아니라 사탄을 대표한다. 그의 모든 행위와 본질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는 오직 그 자신을 대표할 뿐이다. 또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현지에서 그 '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연락한 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이용하며,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말해 보아라, 이런 일이 있지 않더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너무도 잘한다. 양심과 염치가 없는 사람,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으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도덕과 양심에 위배되는 모든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가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 혜택을 얻는 등의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더없이 정상적인 일로, 공개 석상에 가져와 분별하고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관직에 오르려 애쓰다."라는 이방인들의 말처럼 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하며, 어떤 자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한 듯 손안의

권력과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형제자매를 협박하고, 그들에게 원칙에 맞지 않는 갖가지 행동 방식과 요구를 제시한다.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에게 이용당하고 부림을 당한다. 심지어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그의 일을 해 주고도 말하지 못한 채 그것이 본분 이행이고 선행을 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말해 두겠는데, 사실 네가 틀렸다. 그것은 선행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도와 악행을 하는 것이고, 악인의 위세를 조장하는 짓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 그런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으며, 그것은 본분 이행이 아니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개인적인 혜택을 얻게 해 주고 있고, 그 개인을 위해 사적인 일을 처리해 주고 있다. 이는 네 본분도, 네 본연의 일도 아니며, 하나님이 네게 맡긴 부탁도, 하나님 집의 사역도 아니다. 그것은 사탄을 시중들며 사탄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사탄을 위해 힘쓰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느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경에 예수의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네가 지극히 작은 형제자매에게 한 일은 분명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를 따른 행동일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지위 고하를 보고 한 일이 아니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해 주고 힘을 쓰고 봉사하며, 그들을 앞뒤에서 옹호해 준다. 반면, 지위가 없는 사람이 일을 시키면 그는 그것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이나 책임일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그가 처리한 일은 어떻게 규정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섯 번째 사례이다. 너희는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적그리스도가 저희 지역에서 리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의 편의를 이용해 형제자매들이 봉헌한 맛있는 음식과 좋은 물건, 화장품 등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한이 지났는데도 형제자매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이 밖에, 그녀가 다운 점퍼를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한 자매가 산 점퍼의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을 보고는 머리를 쓰고 혀를 놀려 옷을 빼앗은 후 자매가 웃돈을 내고 자기 옷을 사게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같이 악인으로, 인성과 양심이 없고 인격이 몹시 비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언젠가 드러나고 도태될 것이다.

예전에 일가족 세 명이 해외에서 본분을 이행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해외에 도착한 후, 매일 형제자매들에게 물건을 사러 데리고 나가 달라곤 했는데, 다운 점퍼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신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챙겨 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그만한 돈이 없다면 안 사면 될 텐데, 그들은 그래도 사려고 했고, 그나마도 평범한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것으로 원했다. 이에, 형제자매들은 도와주려고 돈을 냈다. 그 일가족 세 명이 한동안 본분을 이행하면서 보여 준 모습은 하나같이 꼴불견이었다. 그들이 먹고 쓰는 것, 머무는 곳은 너무도 사치스러웠다! 그 집 남자는 형제자매들에게 우유를 사 오게 했는데, 목이 마르면 우유를 물처럼 마셨다. 우유를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느냐? 어떤 급의 인물이어야 그럴 수 있겠느냐? 그 후에는 또 형제자매들에게 귤이며 오렌지를 사 오게 했는데, 큰 봉지를 사 오면 이틀 만에 먹어 치웠다. 얼마 후에는 또

비타민을 보충해야겠다며 체리를 사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체리를 사다 드려야죠!"라고 내 핑계를 댔다. 나는 "지금은 겨울철이니 체리가 나오는 계절이 아니다. 나는 먹지 않을 테니 사 오지 말거라."라고 했지만, 그는 "그래도 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한 번에 한 상자를 사 와서 온 가족이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 나는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과일을 밥처럼 먹고 우유를 물처럼 마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식사 때 생선이 나오면 게걸스럽게 먹었는데,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였다. 마치 굶어 죽은 귀신이 처음 좋은 음식을 접한 듯한 형상이었다. 그 좋은 음식들을 안 먹으면 아깝다고 생각한 그는 경쟁적으로 먹어 댔다. 그러다 결국 그 집 아이는 탈이 나고 말았다. 나중에 그 아이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만약 제가 하나님 대신 그 생선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말이다. 그 아이가 먹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먹어 놓고 왜 나를 탓한단 말이냐? 그 아이는 이렇게 나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제명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작자냐? (마귀 사탄입니다.) 이런 자는 마귀에 속한다. 당시 나는 현지 교회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제명하고 쫓아내라. 영원히 보고 싶지 않으니 아주 멀리!"

나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적잖은 형제자매와 접하며 다양한 불량자, 악인을 보았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적은 편이었다. 대부분은 정말 접하기 힘들었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 그들은 억지와 궤변만을 늘어놓고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짐승이자 마귀, 사탄으로, 인성의 이성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이런 사람이 각 교회에서 최소 1/3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전부 한시바삐 도태되어야 할 존재였다. 내가 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좀 정직하고 마음속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에게 어떤 패괴 표출이 있고 어떤 치우친 부분이 있든 진리 교제를 원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함께 지낼 수 있다. 나는 간사한 사람,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서 늘 스스로를 뽐내며 내가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언제나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나를 속이는데, 그런 자가 바로 마귀이다. 나는 영원히 그를 보고 싶지 않으니 아주 멀리 보내 버려라. 사람에게 연약함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붙들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다. 네게 패괴 성품이 있으면 내가 진리를 교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마귀와는 왕래하지 않으며, 마귀의 말은 듣지 않는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 일부는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언행을 보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교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해서 떼를 쓰며 내게 대들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나는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정을 봐줘서 뭐 한단 말이냐? 사정을 봐 준다는 것은 포용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대상은 어리석은 사람, 패괴된 보통 사람이지, 원수나 마귀가 아니다. 만약 마귀나 원수가 거짓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너를 포섭하고 속이고 잠시 네 기분을 좋게 해 준다면, 너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냐?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네가 꿰뚫어 보았고, 그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정직하지 않으며, 그의 진리 교제는 모두 위장하고 사칭한 것이다. 또 그가 하는 말은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면 그를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해야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혹자는 "왜 그에게 여지를 남겨 주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는데, 이 부류의 사람은 회개의 여지가 없고, 회개할 리도 없다. 마치 사탄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지혜로워도 사탄의 눈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지녀야 할 본질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자신의 간계가 지혜이고 자신의 본성 본질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영락없는 사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적대할 운명이다. 그렇기에 악인에 속하는 부류는 진리를 좋아할 수 없고 진리를 추구할 수도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제명하고 하나님 집에서 출교한다. 이는 무엇보다 올바른 결정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오늘 교제하고 해부한 이 적그리스도들은 영원히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이익에 맞춰 모든 것을 추구하고,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쥐어짜 내며 하나님 집에서 속임수로 먹고 마신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법이 없다. 그저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이익과 좋은 대우를 편취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라고, 감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본성 본질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적그리스도 부류로 규정될 운명이다. 이 부류는 하나님이 도태시킬 대상이자 하나님 집에서 발견되면 마땅히 출교해야 할 대상이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을 너희가 발견했을 때부터 그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련의 일을 저지를 때까지, 또 그가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그날까지,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가 변화할 수 없음을,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집에서 출교되고 하나님에게 도태되는 것이며, 그들은 바뀔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속임수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지요.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합니다. 저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알아 두는 것이 저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범한 형제자매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과 표출이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행위와 행동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지 알려 준다. 또한 교회의 각급 리더 일꾼에게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근거가 된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판별한 후 적절한 때에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그리하여 교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가 적그리스도들에게 교란되고 방해받고 망쳐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마귀 사탄에게 교란받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진리는 사실이나 모습을 통해 보든, 아니면 진리 원칙에 근거해 분별하든 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다 도움이 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이해해야 할 내용이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흉악하고 몰염치하며 도덕의 최저선이 전혀 없는 행위이자 행동 방식,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너희 주변에서 분명 발생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과 모습은 너희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모두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행동 방식을 얼마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당신은 늘 그런 사례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희가 진리에 진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본분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받아 적기도, 듣기도 싫습니다. 진리에 진입할 때는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가 깨달은 진리가 적으면 네 진입이 얕고 서투를 것이며, 네가 깨달은 진리가 모호하면 네가 체험한 세부 내용 역시 적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결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하므로 사람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너희를 참답게 대해야지, 절대 모호하고 흐리멍덩하게 '적당히 하면 된다', '대강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대강'이나 '거의', '어쩌면', '아마도'와 같은 단어가 없다. 너는 구원받고 싶다면, 구원받는 길을 걷고 싶다면, 이러한 진리의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부터 진리의 세부적인 부분에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 만약 네가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이 닥쳤을 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만족한다면 영원히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각각의 진리에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무척 많다. 사람이 이 세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답게 대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본분 이행에서든, 사람의 순종 면에서든, 인간관계 측면에서든, 아니면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일에서든, 나아가 현재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적그리스도 성품을 벗어 버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든,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남김없이 파악해야 한다. 간단하고 공허한 도리만 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부 내용들을 분별하게 된다면, 진리 실제에 진입한 것이다. 진리 실제에 진입한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기회와 희망이 생긴다. 글귀와 도리만 읊는 것은 힘쓰는 것이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싶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영원히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0 년 4 월 4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6)

2. 적그리스도의 이익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에 관해 교제하였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익을 또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였으며, 세 번째는 혜택이었다. '혜택'에는 몇 개 조항이 있느냐? (첫 번째 조항은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한다'였고, 두 번째 조항은 '형제자매가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도록 이용한다'였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속임수로 먹고 마시고 다른 것도 사취한다'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에는 특별 대우, 사적인 일 처리 등이 포함되었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 아래에서 소주제를 분류하고, 소주제 아래에서 또 몇 가지 측면을 분류하여 교제하니 아리송하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면 할수록 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익에서 세 가지 항목을 교제했는데, 이것들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네 번째 항목인 '앞날과 운명'이다. 앞날과 운명은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이자 그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최대의 꿈이며, 마음속 깊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사람에게는 앞날과 운명이라는 화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래, 혹은 다음 세대 사람들의 종착지나 거처, 나아갈 길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한 사람의 훗날의 종착지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앞날과 운명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이익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앞날과 운명, 그러니까 종착지일 것이다.

4) 앞날과 운명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앞날과 운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 다양한 측면에서 교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명확해진다. 예전에 교제한, 적그리스도의 각종 이익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안위와 명예, 지위 등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형태가 없고 정신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물질적인 이익에는 재물, 먹고 마시는 것, 특별 대우, 물질적인 누림 등이 있다. 그럼 오늘 교제하는 앞날과 운명은 어떤 측면과 관계되겠느냐? 사람의 관념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형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정신세계, 관념과 상상,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의탁하는 것이며, 또한 사람이 평생의 에너지를 바쳐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사람의 사상과 행위, 속셈, 추구 방향을 좌우한다. 그래서 앞날과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추구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추구와 그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대체 어떤 부분이 확연히 다르겠느냐? 그 차이점이 대체 어떤 측면에서 드러나기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추구 방식이고 특징임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는 토론하고 교제할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지닌 모습은 진정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점이 매우 많다. 하지만 같은 모습, 같은 성품이어도 그 본질은 같지 않다. 각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네 번째 항목인 '앞날과 운명'에 대해 교제하도록 하자.

앞날과 운명을 과연 어떻게 해부해야 하겠느냐? 어떤 방식과 어떤 사례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하나인 앞날과 운명이 진리에 합하지 않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본질의 표출이라고 해부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 측면에서 해부해야겠느냐? 이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몇 가지 대분류로 나누어 보자. 첫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이고, 두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이며, 세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네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이고, 다섯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어째서 이 다섯 가지겠느냐? 너희가 각각의 항목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각각에 상응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성품을 찾을 수 있는지 묵상해 보아라.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기초로 도대체 무엇을 해부해야겠느냐?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주된 특징과 성품은 무엇이고, 정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패괴된 보통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와 패괴된 보통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다른 점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각자 선택한 길은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겠느냐? 너희는 이 몇 가지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주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근거하여 일을 바라보지 않고, 늘 자신의 관념과 상상으로 어떤 일의 표면적인 현상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며, 자신에게 과연 앞날과 운명이 있을지 가늠합니다. 예를 들어, 본분을 대하는 측면을 본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욕망과 허영, 체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앞날과 운명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망과 훈계가 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낙담하고 실망하며, 마음속으로 소극적이고 대항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어느 정도 빛 비춤이 있는 요약이다. 이 안의 진리를 조금 헤아렸구나. 너희가 말한 대체적인 의미를 볼 때, 너희는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하나씩 교제하도록 하겠다.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첫 번째 항목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역시 설교를 들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정상적인 영 생활도 한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삶의 일부이다. 그는 또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다르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먼저,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특이한 시선과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든다. 어째서 깊이 파고든다고 하겠느냐? 먼저,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역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기초로 그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그는 왜 계속 읽겠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며, 정신세계 속에서 그가 의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앞날,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종착지, 결말, 인류가 앞으로 가게 될 길 등과 관련된 말씀을 찾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두고 깊이 파고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읽으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의 어조를 보니 이 부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이 부류 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부류에게 주신 종착지가 어떤 건지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류를 단번에 무저갱으로 차 버리겠다고 한 말씀을 보면 그는 '큰일이다. 무저갱으로 차 버리신다면, 끝장 아닐까? 이 부류한테는 앞날과 좋은 종착지가 없구나. 어쩌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이 은근히 아프고, 불안하고, 편치 않다. '설마 하나님이 정말 이 부류를 이렇게 대하실까? 아니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또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너는 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을 보면 그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야.' 그는 또 하나님 말씀에서 '장자'라든가 '왕권을 잡다'라는 말을 보면 마음속으로 '정말 다행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희망도 생기고, 좋은 점도 있구나. 이 길을 선택한 건 잘한 거야. 내 베팅이 적중했다니까. 반드시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리저리 보다가 그는 또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다. 이 말씀을 본 적그리스도는 마치 구명줄을 잡은 기분이다.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상전벽해가 일어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좋은 결말,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 내 앞날과 운명은 보장되는 것 아니겠냐고. 정말 잘됐어. 반드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이렇게

뒤적거리며 찾고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구명줄을 찾고, 가장 큰 '비밀'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한다. '더는 도태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유황불 못이나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드디어 내 종착지를 찾았고, 마침내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인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또 <종착지에 관하여>라는 하나님 말씀을 본다. '이 말씀은 어떻게 종착지를 다루고 있지? 하나님이 각 부류의 종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초조해하지 말고 더 보자.' 이어서 그는 또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한다. '좋은 종착지를 얻으려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으니 일이 쉬워졌어. 헛수고나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할지 알게 됐어.' 적그리스도는 교제를 통해 무엇이 선행인지 알았고, '길'을 찾았고, 방법이 생겼다. '알고 보니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베풀고 봉헌하는 것,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얻는 것, 형제자매를 많이 붙들어 주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베푸는 것 등이 전부 선행이었어. 나는 종착지를 위해 목숨을 걸 거야.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 되겠어. 만약 내가 돈이나 물질을 전부 바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어.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나는지,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언제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지 본 다음에 생각하자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무엇으로 선행을 예비하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는 건 쉬운 일이야.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 그는 선행을 예비하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예비한 선행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에게 좋은 종착지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다. '나는 이렇게 많은 선행을 예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쩌지? 안 되겠어. 앞날과 운명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지 봐야겠어.'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리저리 찾아본다. 그러다가 자신의 앞날과 운명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앞날과 운명에 저촉되는 말씀을 보면 괴로워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 해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기뻐하고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내적 상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든 그는 종착지나 앞날과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에 대한 규정과 설명을 찾는다. 요컨대, 하나님 말씀에 들일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와 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종착지, 인류의 종착지를 찾을 수 있고, 지옥에 떨어져 종착지를 잃는 상황을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 무엇을 얻겠느냐? 그는 옳은 도리나 옳은 영적 이론을 많이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전혀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아예 맞추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서 비밀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고 찾으며, 또 늘 하나님 말씀에서 참신한 단어와 사물, 설명을 찾는다. 심지어는 무화과란 무엇인지, 14 만 4 천의 남자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긴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그 어떤 영적 인물,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 또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연구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한 말이나 단어를 찾기도 한다. 그는 이런 일에 무척 공을 들이며, 이런 말씀에 사람의 종착지와 관련된 말이 없는지, 사람의 종착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지 끊임없이 찾고 연구한다. 하지만 어떻게 찾든 결국에는 헛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대세를 따르는 동시에, 마음속 깊이 계속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주 묻곤 한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앞날과 운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중에 하나님나라에 내 분깃이 있을까? 내 종착지가 임했을 때, 나는 두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될까, 아니면 내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게 될까? 내 종착지는 대체 무엇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줄곧 이렇게 자문하는 한편, 조용히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진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제 이런 추구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훗날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내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태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제가 안심하도록 이 일에서 제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대세를 따르며 마지못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생각 아니겠느냐? 한시도 잊지 못하고 죽어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한, 자신의 앞날과 운명에 대한 태도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서 종착지를 찾고 비밀을 연구하는 것 외에, 더더욱 흥미를 갖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날지, 언제 그의 직분을 완수할지, 하나님의 대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 큰 복을 받을지, 언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지 등이다. 하나님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 또한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대업을 이루는 그날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언제 땅에서 떠날지, 땅에서 떠날 때 어떤 광경일지, 자기가 지금 몇 살인데 10~20 년 후면 그 때를 맞이할 수 있을지, 만약 그 때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고, 맞이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며,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계산하고 있다. 혹자는 곰곰이 생각한다. '내가 벌써 육십인데, 만약 10 년 후에도 내가 살아 있다면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10 년 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이미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큰 일을 맞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예정하셨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 큰 복 같은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기분이 언짢아지고 이 일에 불만을 품는다. 어느 정도로 불만을 품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아직 안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은 왜 아직 안 끝나는 거야? 복음 전파가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의 사역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대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재난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 얼른 사탄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개인의 뜻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그의 그런 뜻 안에는 그 개인의 이익이 들어 있지 않겠느냐? 개인의 이익이 들어 있기에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기를, 재난이 빨리 임하기를,

하나님이 한시바삐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착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를,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꿍꿍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자신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과 종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종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비열하고 몰염치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모든 일에서 드러내는 본질은 무엇이냐? 그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지고지상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비롯한 어떤 일도 그의 이익과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사역을 마칠지, 하나님의 대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얻을지, 언제 이 인류를 멸할지 등은 전부 그의 이익과 종착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그의 종착지와 연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욕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가장 주된 모습은 바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부정할 여지 없이 불신파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다. 어떤 내용을 깊이 파고들겠느냐? 그가 깊이 파고드는 것은 진리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인류를 폭로하거나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자신의 앞날과 운명이다. 어떤 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읽든 만약 그가 가장 관심 갖는, 그의 앞날과 운명에 관한 말씀이 있다면 그는 자세하게 깊이 파고들며, 중요한 부분에는 표시를 해 놓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류에 대해 폭로하고 해부한 말씀, 그와 같은 부류에 대한 규정과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깊이 파고들며,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본다.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의 원칙을 찾을 수 있을지 보려는 것이겠느냐?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을지 보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행간 속에서 그 뒤에 숨겨진, 그와 같은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연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어조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후의 뜻까지 연구하려고 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부류의 종착지와 관련된 말씀을 다방면으로 종합하고, 하나님이 그런 부류에 대해 혐오하고 구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바로 80~90% 식어 버리고, 즉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의 태도는 180 도 달라진다. 어느 정도로 달라지겠느냐? 원래 어떤 본분을 이행하려고 계획했지만 이제는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무엇을 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버리지 않으려 하며, 원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전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지 않으니 가족들도 믿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원래의 계획을 전부 철회하고 버린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태도 아니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 실행의 원칙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류의 결말과 종착지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찾으려는 것이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얻는 순간, 그는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으며, 그 일말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태도를 크게 바꾼다. 하지만 복받으려는 희망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나면 태도가

또 크게 바뀌어 믿지 않고 배반하게 되며,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의 혜택을 도모한다. 어떤 혜택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한편,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규율이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 훈계할 때는 어떤 어조인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 방식으로 사람을 폭로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는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지, 어떤 지혜가 있는지 등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방식을 전적으로 배우고 모방한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자주 하는 말을 응용하여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한편,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 각종 진리의 글귀를 갖추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그 말씀들을 이용해 사역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한다. 여기에서 자본이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예를 들어, 예배에서 옳은 말, 옳은 도리를 많이 언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부류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의 앞날, 운명과 연결 짓는다. 그는 절대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명망을 높이며, 구원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예비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나 사람이 마땅히 준행해야 할 도(道)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하나님 말씀 낭송을 듣기는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때마다 그는 진심이 없다. 그가 꾀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앞날과 운명뿐이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사랑하고 갈망하는 양 위장하지만, 사실 그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축적하는 목적은 구원받을 조건에 이르기 위해서이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호감을 얻어 내기 위해서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본다고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에서 위장하고 기만하고 간사한 짓을 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시지 못하잖아. 사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든 진정한 피조물이 되려는 게 아니야. 만약 앞날과 운명이 걸려 있지 않다면, 이런 고생 안 할 거고, 이런 억울함을 참지는 않을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될 수 없고 사람이 살아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령 다른 사람들이 조금 살아 낸다고 할지라도 모두 그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방인들 말처럼 말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러겠어? 그 한 가지 목적 때문 아니겠냐고. 모두가 알다시피, 앞날과 운명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세상을 추구할 금쪽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겠어?'라고 생각한다. 이 일에서 그가 부정한 것은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성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겠느냐? 그는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 그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구원했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왜 그 일이 믿기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부정한다. 그는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종착지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성과를 부정하고, 진리가 사람에게서 이루는 성과를 부정하며, 진리가 사람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한 진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 앞날과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충성심을 품게 하며,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집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처럼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논조나 주장으로 여기는 한편,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되다고, 다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지막에 그들 마음속에는 딱 두 단어, '앞날과 운명'만 남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에게 좋은 앞날과 운명, 종착지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진실하며, 이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지고지상한 진리이다. 만약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 첫째,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는 이렇게 몸을 굽혀 하나님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그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고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만약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그는 진작 속세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속세와 명리, 재물, 사악한 흐름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가 지금 잠시 하나님 집에 머무는 이유는 앞날,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날과 운명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와 동시에 요행 심리를 품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큰 복을 누리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어떤 마음가짐이겠느냐? 하나님에게 이익을 요구해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주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좀 비정상적인 데가 있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태도를 놓고 본다면 그는 불신파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그는 전형적인 불신파이고, 부정할 여지 없는 불신파이다. 그럼 그는 왜 하나님 집에서 얼마간 겉으로 보이는 일을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은 채 따르는 것이겠느냐? 왜 아무리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이고, 젖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논리냐? 이 논리 안에는 사탄의 처세 철학이 가득하지 않으냐? 그는 바로 이런 사탄 철학에 지배된

채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당신이 어떤 경천동지할 사역을 하시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어떤 성품과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신지도 상관이 없지요. 오직 제게 복을 주고, 좋은 종착지와 미래를 주며, 큰 복을 얻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당신을 따르고 잠시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한 믿음의 성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에서 그를 적그리스도, 불신파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태도로 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여기겠느냐? 비밀 백과? 천일야화? 글자가 없는 천서(天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의 절실한 마음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가 감동을 받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죠?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은 종착지가 있나요? 큰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관두겠습니다. 헤아릴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종착지를 얻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헤아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아리라는 거죠?" 말해 보아라,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이 한 가지를 언급했다. 네가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니 큰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앞서갔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못 해. 관두자. 이 방법은 안 통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라고 생각하고는 다른 측면에 공을 들인다. 다른 측면에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공을 들이지만, 이리저리 분석 끝에 얻는 것은 글귀와 도리뿐이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앞날, 운명을 평생의 추구 목표로 여기기에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입에 발린 말로 보인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령의 인도에 대해 그들은 어떤 누림도 느끼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빛 비춤이 없고 깨우침과 공급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는 것이라고는 글귀와 도리, 비밀이나 종착지와 관련된 폭로, 말뿐이다. 이러한 말과 도리를 밑천으로 삼을 때, 그들은 자신의 종착지를 손에 넣고 자신의 종착지를 얻은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폭로와 심판, 형벌 속에서, 혹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각 단계 요구 속에서 그들은 또 종착지를 잃은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시종일관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하고, 좋은 종착지를 얻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수시로 사상적 싸움을 벌인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고뇌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소극적이 되며, 또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기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든, 구명줄을 잡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일부 적그리스도는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 자신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앞날과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고 느낀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회개하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처럼 손으로 행하는 악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자신이 생존하는 근간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오랜 세월 추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든 후, 자기 같은 사람은 전혀 복을 받을 수 없고, 아예 희망도 없으며, 자기 같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의 맹세를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는 영적인 말이 있다. 이 말은 너무도 '위대하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인류의 언어가 '위대하다'고 깊이 느꼈다. 인류는 자신의 맹세를 이렇게나 귀하고 순결하고 무결하게 보며, 사랑의 봉헌을 이렇게나 순결하고 신성하게 본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사랑의 맹세를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바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후 제 생각이 통하지 않고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다시금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되새기는 거죠. 이것이 뉘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못 하겠느냐? '사랑의 맹세를 되새기는 것'은 인류 최고의 명언 아니냐?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순결한 사랑 아니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허울뿐이고, 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자기가 도모할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등을 돌려 떠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적그리스도는 큰일을 그르쳤다고, 자기가 베팅을 잘못했다고 느끼며, 정신을 차린다. 일종의 구호와 이론으로 정신세계를 지탱하려는 것이다. 어떤 구호겠느냐? '사랑의 맹세를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바치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끝이 난 거라고.'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면서 매일 말씀하는데, 매번 하는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모두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모두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어떻게 진리 원칙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전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왜 종착지나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지? 그럼 사람의 앞날과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건 전부 헛된 것 아니겠어?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 이 일에 대해서는 통 언급이 없으시네. 사람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언급된 게 없으면 사람의 방법을 써야지. 사랑의 맹세를 되새기는 거야!' 지난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그렇게 큰 열정과 사랑, 믿음을 지녔겠느냐?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이번 생은 언제 어디서나 원망도, 후회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날이 궂어도 날이 좋아도, 병고와 환난이 닥쳐도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저는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며, 좋은 종착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맹세했다. 지금 그 맹세의 말들은 왜 사라진 것이냐? 그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그 믿음과 사랑도 전부 마모되었다고 생각한다. '안 되겠어. 정신을 차려야 해. 처음처럼 그렇게 새롭고 활기차야 한다고. 그렇게 큰 믿음과 열정을 갖고, 내 꿈과

종착지, 복을 얻으려는 욕망을 되찾아야 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지난날처럼 커지지 않겠어?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봉헌이 지난날과 같지 않겠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고뇌해도,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아무리 되새긴다 해도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 상황은 어떤 것이겠느냐? 앞날과 운명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때, 복받으려는 욕망이 거의 무너져 갈 때, 그 모든 좋은 생각과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이 계속 버티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이렇게 버틸 때 사람의 마음은 무척 고통스럽고,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상태와 마음이 수시로 생겨나며,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쯤 끝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 늘 기대하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빨리 끝나고 대재난이 임했으면 좋겠어. 하늘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말이야. 내가 복을 받지 못하니 당신들도 복받을 생각을 버리라고!'라고 희망하기도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이 마지막에 영광을 얻지 못하기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이긴 자를 얻어 인류를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하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는다. 반대로, 복받으려는 모든 욕망이 무너질 때,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역을 저주하고 싫어하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깨닫고, 마음이 밝아지며,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반감을 갖는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추한 몰골을 보이고, 하나님이 또 진리를 교제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들으면 반발심을 품는다. 이 밖에도 강렬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러겠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욕을 한다. 하나님을 욕하고 진리를 욕하며 교회의 리더 일꾼을 욕하고 꽤 추구하는 사람들을 욕한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공격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마음속으로 욕을 하는데, 욕하다가 지치면 졸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제를 들으면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제를 듣거나 누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빛 비춤을 얻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마음이 흐려지며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음이 답답해 숨을 잘 못 쉬게 되어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날과 운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 비밀 등의 일을 교제하면, 그는 실내가 아무리 좁아도, 공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나가서 바람을 쐬지 않고, 졸지도 않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아무리 오래 말해도 상관없다. 자지 않고 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일부 새 신자들이 나와 접할 때, 내가 사람의 내적 상태와 진리 추구법을 교제해 줬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내게 비밀을 말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내가 "비밀을 듣고 싶으냐? 그럼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해 주마. 언제나 비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일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작자가 아니다. 그들은 전부 불신파이고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눈이 둥그레진 채 민망해서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또 틈을 봐서 물어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해 줬다. 말해 보아라,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떠냐? (좋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니까요.) 그가 반성하겠느냐? 그는 반성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에게 알려 주어라. "비밀은 생명도, 진리도 아닙니다. 당신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비밀을 이해한다고 해서 천당에 가고 좋은 종착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은 확실하지 않으냐? 영적인 이해력이 있으며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저는 비밀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비밀은 생명이 아니군요. 그럼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뭔가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간 깨달은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 부류가 이 말을 듣고 도움을 얻겠느냐? 변화하겠느냐? 변화하지 못한다. 그는 이 말 가운데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이 말은 이렇다 할 축복이 없고, 그의 앞날이나 운명과 관계되지도 않는다고, 그의 앞날이나 운명과 상관도 관련성도 없으니 이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을 교제해야 그의 앞날이나 운명과 관계되겠느냐?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이상(異象)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달이 4 개가 떴고, 블러드문이 몇 번이나 나타났죠. 기이한 천체 현상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전염병과 재난이 나타났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식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형세를 볼 때 계시록에 예언된, 대접 몇 개니 재앙 몇 개니 하는 때가 이미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바로 눈을 반짝이고 귀를 쫑긋 세우며 기뻐할 것이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 나는 정말 똑똑하다니까! 나는 속세를 추구하지 않고 속세에서의 진로와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을 따랐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하나님의 날이 눈앞에 있잖아. 형세를 보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거야. 정말 잘됐어!' 그는 마음속으로 남몰래 기뻐한다.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문을 찾은 것, 대가를 치른 것, 지금까지 따르면서 포기하지 않은 것, 아직 하나님 집에 있는 것,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출교되거나 제명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는 진리를 실행하겠느냐, 아니면 여태까지의 바람을 이어 나가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말씀을 찾고는 보물을 얻은 양 자기는 행운아라고, 옳은 길을 선택했고 옳은 문에 들어섰으며 자기가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한다. '그때 일자리를 포기해서 다행이야. 내 선택은 옳았어. 나는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지난날, 한순간 방심했다면 지금 이 복을 얻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지. 내 앞날과 운명을 위해 평생 노력하는 거야.' 이 일에서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을 보았느냐? 이 사람들은 투기꾼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조금도 없다. 그들은 투기꾼이고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부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항상 머릿수만 채우며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따랐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큰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한다. 온종일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계산하는데,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가장 중요한,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은 빠뜨린다. 그들은 오직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곧 투기이다. 언제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어떤 사람의 체험적 인식도 그들의 투기하는

태도를 바꿔 놓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위해서 어떤 관점도,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목표, 처신의 원칙도 바꾸지 않는다. 또한, 앞날과 운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한 구절도 실행하지 않는다. 혹자는 "그들도 가끔은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있지요."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실행하든 전부 앞날과 운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어떤 진리를 실행하든 불순물이 섞여 있고, 속셈과 목적이 들어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한 실행과는 다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종착지와 비밀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이 언제쯤 끝날지, 재난이 언제 임할지 등의 내용을 찾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대재난이 임할 때, 자신이 한 일과 치른 대가, 버린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고 재난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자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모든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든 그가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일은 바로 자신의 앞날과 운명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주안점과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내용은 다 특별한 징조나 특징 등이다. 보통 하나님을 믿은 지 반년에서 1 년 정도 된 새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화제를 찾는다. 하지만 반년이나 1 년이 지나면, 일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부 읽은 후 더 이상 연구해도 의미가 없으며 이런 내용은 사람이 진리에 진입하게 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진리 진입에 지장과 교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읽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 읽어도 마음속으로 깨달으면 그만이다.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진리에 진입할 수 있을까? 사람을 폭로한 하나님 말씀은 무척 많아. 사람의 간사함과 패역, 교만한 성품을 폭로하고, 사람의 갖가지 종교 관념과 하나님을 대하는 갖가지 태도를 폭로하고 있지. 나아가 사람의 각종 비정상적인 인성의 모습도 폭로했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 실행해야 할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고 묵상한다.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에 공을 들인다. 그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행하고 실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 이방인이나 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럼 저희의 삶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처신 측면에서 언행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며,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할까요?" 등 현실에서 깨닫고 진입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10 년, 20 년, 30 년을 믿어도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복받을 희망과 종착지를 찾는데, 20~30 년 동안 찾아도 싫증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급히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의 종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자기가 지금처럼 계속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평가한다. 그들은 주기별로, 시기별로 자신의 종착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역 방식을 바꾼다거나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절대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20~30 년 동안 믿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비밀과 하나님이 언급한, 사람의 운명, 종착지와 관련된 화제에 공을 들인다고 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줄 아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앞뒤로 계속 비교해 보면서 최고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봄에 땅을 떠나실 겁니다."라고 말한다. 말해 보아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겠느냐? 기뻤겠느냐, 아니면 슬펐겠느냐?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우스울 따름이었다. 정말 이런 데 공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구체적인 계절까지 안다니, 만약 더 연구해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분초까지 맞춘다면 그자는 그야말로 '기재'일 것이다! 나 자신조차 모르는 일을 이런 '기재'가 연구해 내다니, 정말 우습고도 화나는 일이다. 무엇이 우습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탄조차 몰랐다. 사탄조차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알게 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업이 이뤄지는 날, 하나님의 육신이 땅에서 행하는 사역이 끝나 땅을 떠나는 시간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알려 주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려 하지 않는 일에 대해 흘릴 리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땅을 떠나는 시간을 찾았다고 하며 또 그것이 봄일 거라고 한다. 이는 기괴한 일 아니겠느냐? 우스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하나님이 봄에 무엇을 한다고 한 말은 다른 일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정말 그 일을 지칭한 것이겠느냐? 너는 왜 그 일에 갖다 붙이는 것이냐? 네게 알려 줄 일은 명문으로 알려 주며, 네게 알려 주지 않는 일은 네가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안다고, 연구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헛소리 아니겠느냐? 이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교란하는 것이며, 사람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깨우침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게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며, 네가 그것을 안다 해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으려는 일을 절대 무의식중에 흘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습다고 한 이유이다. 그럼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그 말씀들을 통해 자신의 패괴된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얻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종착지와 비밀을 연구합니다.) 그것 또한 좀 화가 나는 일이다.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어 한 부자가 자식을 위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 보자. 그의 자식은 아직 어리고 그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모든 생활 여건을 그에게 의지한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얼른 죽기를 바라겠느냐? 점쟁이를 찾아가 부모가 도대체 언제쯤 죽을지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는 화가 나는 일이다. 이 부류는 너무도 증오스럽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이 100 살까지 살지라도, 100 년 동안 사역할지라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제한적이다. 보아라, 예수의 성육신부터 지금의 이 단계 사역까지 2 천 년 동안 이 인류는 진리를 얼마나 얻었느냐? 기본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 단계 사역은 30 년 동안 이뤄졌고, 하나님은 30 년 가까이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은 이미 30 년 가까이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척 제한적이다. 또 사람이 진리에 진입하는 속도는 느리다. 진리를 사람 내면의 생명으로 삼는 것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무척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린데,

‘하나님이 언제 땅에서 떠나실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 끝날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네게 어떤 이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떠나는 날, 너는 죽은 목숨이며 사형 판결을 받게 될 텐데 무엇이 기쁘단 말이냐? 이는 어떤 사람이냐? 품행이 나쁜 사람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를 불효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런 부류를 불신파,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런 자는 좋은 존재가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라는 책의 내용이 선포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성육신은 사역을 하고 몇 개의 사역 단계를 펼칠 뿐이야. 몇 가지 사역 방식과 말씀 방식이 다라고. 그러면 사역은 끝나는 거야. 사역이 끝나면 육신은 쓸모가 없어지고, 더 이상은 말씀할 필요도 없겠지. 우리는 뭔가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모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할 수도 있으니 종착지를 얻고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 나중에 나는 또 많은 말씀을 교제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에 관하여’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이 기간에 교제한 말씀도 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한 권 아니었어? 왜 또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왜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 앞으로는 비밀이나 하늘에서의 일, 사람이 나중에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등에 관해 말씀하셔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신이 날까!’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진리에 조금도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따랐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안다고. 하나님의 사역에 몇 단계가 있는지 직접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 방식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보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자이자 복받을 자격이 가장 많은 세대야.’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몇 개의 사역 단계를 체험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후, 하나님의 사역이 부단히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이 단계 사역을 따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택하였다. 하나님 사역의 중점 대상은 끊임없이 확충되고, 또 끊임없이 옮겨갔다. 처음에 하나님을 따른 사람 중 일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갖가지 관념과 오해를 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불복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점차 도태되었다. 이들을 도태시키는 데는 주관적,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 주관적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도리로 여겨 여기저기서 전하지만, 지금까지도 죽은 사람처럼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 객관적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최초 체험자지만, 인품과 추구하는 바, 자질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절차에 따라 빠르게 도태되고 버림받았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에 관하여’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 한동안,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몰래 기뻐했다. ‘내가 예전에 대적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할 말을 다 했네. 그의 사역 단계가 드디어 끝났어. 예전에 나는 그에게 관념과 불복, 불만의 마음을 품고, 그를 정죄하며 대적했지. 역시 내가 맞았어. 그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아니었다고.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든 문제 될 건 없겠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의 전달자, 대변인에 불과하다고.' 더 심한 자는 "그 육신은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영인데, 그건 그 육신과 관계가 없지."라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날뛰며 정죄하고 모독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제 2 권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에 관하여'라는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지난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모독했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관념을 품고 있었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과 힘겨루기를 했으며, 그 사람에게 불복과 불만의 마음을 품었고, 심지어 그를 정죄하고 모독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2013 년 이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드러나 있었다. 그 비밀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토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믿음을 굳건히 해 주는 역할을 했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소하며 확신을 안겨 주었다. 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한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모독한 사람들은 한 방 맞은 것처럼 더더욱 불안해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하나님께 도태됐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치 않으셔.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늘 그분을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역 단계가 끝나면 그분이 하실 일도 없어질 거라고, 그분은 봉사를 다 하신 거라고 생각했지. 그다음부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늘의 하나님만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땅에 계신 하나님께는 관념을 품은 채 불복하고 무시했어.' 2013 년에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 이 사람들의 오만함은 한풀 꺾였다. 그전까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반감을 보이고 모독했으며, 심지어는 믿지 않기도 했다. 무엇 때문이었겠느냐? 관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육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볼 때,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불신파입니다.) 불신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첫째, 투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의 이익을 찾은 후 그것을 물고 늘어지며 그 가운데서 이익을 도모한다. 둘째,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관념을 품을 수 있다. 또 자신의 관념에 안 맞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녔으며, 적그리스도에 속한다. 그들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진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얻은 것은 그들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그들이며, 직접 하나님의 사역 단계와 사역 방식을 체험한 것 또한 그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벌써 30 여 년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고, 어떤 체험도 말하지 못하며, 어디를 가나 죽은 글귀와 도리만을 늘어놓는다.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30 년 동안 믿었지만 성품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며, 뒤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판단하고, 트집을 잡아 하나님을 정죄한다. 두려움이나 경외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며, 또한 진리를 대적한다. 성육신과 관련해 그들은 어떤 말이든 내뱉고, 어떤 일이든 평가하고 판단하며, 관념이 생기면 개의치 않고 유포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증스럽지 않으냐?

(가증스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을 30 년 동안 믿었지만 실제가 전혀 없고 성품 변화도 전혀 이루지 못했으니, 이는 죽은 사람 아니겠느냐? 정말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 정상 인성을 갖추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3 년만 믿어도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30 년 동안 믿은 사람이 전혀 체험이 없다. 네가 체험을 말해 보라고 하면 그들은 도리와 구호, 사람을 가르치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다. 그럼 그들은 그 30 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무슨 공을 들인 것이겠느냐? 무엇을 얻은 것이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축복과 약속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와 인류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 한 구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도태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태되면 억울하겠느냐?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했다. 사람은 모두 그것을 체험했으며, 또한 하나님 사역의 각 단계를 직접 목도하였다. 어떤 각도에서 보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사람이 의구심을 품어서도 안 된다. 성육신이 아무리 평범하고 정상적이어도,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여야 한다. 혹자는 "성육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평범한 데다가 전혀 위대하지 않은데 저희가 어떻게 탄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육신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는 게 없으니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요."라고 말하고, 또 혹자는 "당신의 어떤 행사는 경탄스럽지 않고, 어떤 행사는 우리가 관념을 갖게 하며, 어떤 행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신 일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끝까지 대항할 겁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기어코 우리는 전하지 않을 것이고, 본분을 이행하라고 하면 기어코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기어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끝까지 대항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을지 지켜보죠!"라고 말한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부정할 천 가지,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대더라도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네가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진리로 여겨 실행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건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천국의 문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 진리들을,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도리를 깨닫고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할지라도 진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그런 너는 폐물이다.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을 믿든, 어떤 목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네가 어떤 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의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또 감히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와

힘겨루기를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결말과 종착지가 어떻게 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구는데, 이게 제정신이겠느냐? 이 행실이 나쁜 자들은 너무도 사악하다! 하나같이 악인이고 불신파이며 투기꾼이고 몰염치한 작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방금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교제하였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실행의 원칙이나 진리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道)에 이를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종착지와 각종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득에는 이번 생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은혜를 받을지, 내세에 백 배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으려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든 적그리스도 부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인류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복과 종착지를 얻으며, 하나님 말씀을 도약대 삼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얻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걸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들은 한 무리 불신파이고 투기꾼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이득이나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앞날과 운명,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못하면 실망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들은 가차 없이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그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충족하려고 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질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결말과 종착지, 재난에 관한 내용, 비밀과 인류 발전에 대해 밝힌 내용,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내막 등을 찾는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늘 패괴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멸시하고 거부하며, 나아가 패괴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를 싫어한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단어 사용이나 말씀하는 어조를 트집 잡으며 따지고 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류를 '음녀'나 '기생'이라고 드러내면 그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사람을 헤아려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또 사람의 관념과 어법, 패괴된 인류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그렇게나 지고하고 위대하며 심오해서 헤아릴 수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어긋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이 높이 보고 숭배하고 우러러보아야 해. 심오해서 가늠할 수 없어야 하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갖은 관념을 갖고 있고, 갖가지 규정을 하며, 나아가 각종 요구를 한다. 그들의 요구와 규정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사탄의 본질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 거부하고 판단하거나 트집 잡고 따지는 태도로 대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전혀 공을 들이지 않고, 순종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실행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사탄과 악령의 본질인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며,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대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대표한다. 이 말씀들이 육신을 통해 선포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선포되었든, 어떤 내용을 선포했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거기에 관념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는 것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적그리스도들은 이런 본질을 갖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고 평범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사는 늘 제게 관념이 생기게 하고, 제 상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행사를 통해 아무리 많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같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사탄을 대표하지 않느냐?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도 없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하려고 한다. 그것이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그것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위가 없다. 한편, 적그리스도의 언행은 사탄과 완전히 똑같다. 그들의 본질은 같다. 그저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인두겁을 둘러쓴 사탄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약 사탄이 아니라면 그는 그런 일,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탄은 늘 사람을 기만하며,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하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말씀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적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보태고, 자기 뜻을 더해 함부로 해석한다. 더 심각한 경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들보다 대단하지 않고 레벨이나 수준이 떨어진다고, 패괴된 인류를 정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방식과 어조, 내용을 일부 사람들 사이로 가져와 분석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동시에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앞날과 운명을 얻고자 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종착지를 얻고자 기다린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그렇게 하겠느냐? 이는 자기 뺨을 때리는 짓 아니겠느냐?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며, 행사 또한 너무 일반적으로 보인다. 이런 하나님은 그들이 우러러보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상상 속 존재도 아니며, 그들과 맞지 않는다. 만약 이런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들의 종착지와 앞날, 운명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극력으로 반대하며,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교란하고

파괴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도 달성된다. 혹자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의 종착지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이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경영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 그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다. 안심하고 대담하게 속세로, 사악한 흐름 속으로, 그들의 소위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재난이나 연단도 겪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은 더더욱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에 그리는 일이다. 그자들이 악하지 않으냐? 그들이 악한 근원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 악마들은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자신들 같은 부류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증오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성과 본성 본질을 혐오한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 해도 마지막 결과는 그들의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실도 바꿔 놓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한다. 그럼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이겠느냐? 모두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좋은 복받을 기회를 선뜻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도박을 하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걸면 어쩌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얼렁뚱땅 빠져나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는 새에 천국의 문에 슬쩍 들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이 몇 개의 '어쩌면'이라는 요행 심리를 품고 하나님 집에서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그의 관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겨우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이라면 심오해야지. 점점 더 고매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사람이 이를 수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높은 요구 기준이 필요해. 평범해서 공개 석상에 내놓을 수 없는 낮은 기준의 요구는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진리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언짢아진다. 하지만 교제와 체험, 한동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어째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은 사탄에게 깊이 패괴되어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온 세상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매일 거짓말을 거듭하며, 말에는 사탄의 거짓말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가장 간단명료한 요구를 한 것이다. 사람이 한동안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깨닫는 바가 생긴다.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모든 구절이 사람이 깨닫고 진입해야 하는 내용이며 의미 없는 말은 없다고,

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꿰뚫어 보고 있으며 사람의 패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인의 체험 과정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한 말씀을 볼 때부터 무시와 조롱, 비웃음, 심지어는 반항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요구를 바라본다. 이 말씀에 대해 편견이 생긴 후,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뇌리 한편에 치워 두고 하나님을 더더욱 멸시하며, 경멸의 태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깊이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이 어떻게 간사한 성품을 드러내고 어떻게 회개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등의 체험을 얘기하면, 그는 속으로 반발심과 반감, 멸시하는 마음을 품는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교제한 체험적 인식에 맞서고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많이 교제하고 잘 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증오하고 멸시한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은 왜 안 듣는 거지? 나를 봐, 지금까지 내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꿍꿍이가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고. 나는 당신들과 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한테 그런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있겠어?'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서고 정죄한다. 이것이 불신파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는 전형적인 불신파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죄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리지도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예배 때 교제도 하지만,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혐오하고 거부하고 저버린다. 즉, 하나님 말씀에 관념을 가졌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혹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저버리지 않은 겁니까?"라고 말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저버리지 않았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가 하나님에게 품고 있는 숱한 상상과 관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모하게 하며, 위인으로 여기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철저히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나 평범한 거였다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나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이해하기도 쉬운 거였어. 그럼 나도 말할 수 있겠네. 모두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위대하고 지고지상하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낮고 보잘것없는 요구를 하셔서는 안 돼!"라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은 깊이가 없다고, 사람의 관념과 하나님의 위대한 이미지,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에 관념을 갖는다. 관념이 생긴 후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혐오하게 되며,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관념의 둑이 완전히 무너진다. 둑이 무너진 후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 마음속 깊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방관자가 되어 관망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미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교제할 때 그도 옆에서 관망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일이 없다. 때로는 남들을 비웃기도 한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얻은 게 뭐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꼭 당신을 구원하는 건 아니고 100% 복을 받는 것도 아니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요. 만약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들도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본성 본질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체험이 생길 리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럼 그가 말하는 개인의 인식은 무엇이겠느냐? 전부 상상이나 추측이고, 도리이자 이론이며, 심지어는 부화뇌동하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각종 태도 때문에, 또 본성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10 년, 20 년, 혹은 더 오랜 세월 믿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찾아볼 수도, 들어볼 수도 없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말투에서 너는 그가 하나님에게 관념이나 오해를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폭로를 통해 깨우침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관념이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그에게는 이러한 체험도, 인식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아무리 공을 들여도 진리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체험이나 인식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는 그저 형제자매들이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유명한 단락을 그대로 따라 하며 읽고 외우며, 형식만 취하고 대세를 따를 뿐이다. 그 후에는 마음속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리 큰 갈등과 문제가 생겨도 그는 해결하지 않으며, 이런 관념과 문제는 늘 그의 곁에 머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은 원한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도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야기되겠느냐? 이 쌓인 원한과 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앞날과 운명, 복받으려는 속셈을 내려놓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폭발할 것입니다.) '폭발'이라는 단어는 무척 직설적이구나. 어떻게 폭발하겠느냐? 몇 가지 방식이 있겠느냐? (예전에 본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심지어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착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험상궂은 망나니로 돌변하기도 한다.』(<말씀・1 권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망나니가 되겠느냐? 복받으려는 욕망이 물거품이 되면, 그는 안면몰수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잘 지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도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다면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마음속 말을 전부 내뱉으면서도 정죄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정죄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째서 안면몰수하고 폭발하는 것이겠느냐? 더는 믿고 싶지 않으며 떠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줄곧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고난과 굴욕을 견뎌 왔다. 이 말을 실행하고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복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아예 안면몰수한 채 대놓고 할 말을 다 하게 되었다. "저는 불신파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사악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런 게 왜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왜 체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무엇을 변화시켰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실리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뿐이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만약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말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추악한 몰골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는 그동안 쌓여 온 관념과 원한이 폭발한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가정과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그럼 저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진리를 공급해 주었고,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그 많은 대적과 패역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보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든 가지려고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러 왔는데 그는 승산이 있다고, 수지가 맞다고 생각했다. 속세와 앞날을 버렸으니 장차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가 대가로 얻으려는 것은 그가 버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는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자신에게 더 실리적인 것이어야 교환한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폭발하면서 내뱉은 말들이 한때의 분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오랫동안 참아 왔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폭발한 후, 그가 생각했던 것, 그동안 그가 추구하던 것들이 전부 드러났으며, 그동안 그가 꾸며 왔던 겉모습도 전부 까발려졌다. 그가 한 말의 중점은 무엇이겠느냐? "지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제가 무엇을 얻었습니까?"라는 것이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는 진리나 생명, 성품 변화,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얻으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세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다. 즉,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최고의 복을 얻으려 한다. 그러다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될 때 그가 거기에서 그만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 중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란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이겠느냐? 표면적으로 육적인 관계나 혈연관계를 보면, 그 가족은 너무도 가깝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십여 년간 믿었지만, 누구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났고, 누구는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며, 누구는 평범하게 진리를 추구하는데, 사람의 본성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자는 적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집에서 출교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이 가족이겠느냐? 진정한 가족이 이렇겠느냐? 그들은 같은 부류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마귀와 살면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내려놓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뭐가 가족이란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본모습이 드러난 후 어떤 악행이든 저지를 수 있다. 심지어 가족들 중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 자기 가족을 사악한 정부에 넘기기도 한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팔아먹는 등 적그리스도는 관계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해도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가족들 중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팔아먹고 박해할 수 있으니 이것은 원수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한두 명 나타나면 형제자매들이 위험해진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안면몰수하며, 다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교란할지 골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분량이 작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보여 주고는 선동하고 말을 덧붙여 해석한다. 그럼 그들은 교란되고 미혹되며 망쳐진다. 물론, 분별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알아챈다. 공개적으로 그를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를 격리시키는 데서 그칠 뿐, 적그리스도에게 교란되거나 해를 입지는 않는다. 사탄을 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적그리스도는 앞날과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들은 복받으려는 욕망과 자신들만의 야심을 갖고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전하며, 또 앞날과 운명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몸을 굽히고, 고난과 굴욕을 견뎌 낸다. 그들은 오랫동안 관망하다가 희망이 물거품이 되면, 앞날과 운명 때문에,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와 하나님 집을 떠난다. 이런 부류의 결말은 무엇이겠느냐? 도태되는 것이다. 그럼 그는 왜 도태되겠느냐? 그가 하나님 집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겠느냐?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 올 때, 밀 속의 가라지처럼 섞여 들어온 것이다. 혹자는 "그럼 하나님은 모르셨던 겁니까?"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 이 부류는 변화하지 못한다. 설령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밝힌 비밀과 사람의 종착지, 사람의 각종 패괴 성품을 폭로한 말씀을 모두 읽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결코 얻지 못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도 변화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네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한다고 해도 그는 얻지 못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익과 앞날, 운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돼지한테 나무를 타라고 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눈앞의 이익을 보고, 미래의 영원한 이익도 본다. 만약 그중 어느 이익도 얻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는 금세 태도를 바꾸고 멋대로 떠나 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말씀의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조와 억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추측함으로써 그들이 원하고 관심을 갖는 갖가지 이익을 가늠한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말하든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립하는,

불구대천의 존재인 것이다. 혹자는 "그 사람은 여태까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난 뒤 그는 이해했다고 하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데, 내가 사실대로 말해 주겠다. 그는 지금만 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하지 못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양을 잡아먹지 못한 늑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쩌다 한두 입 풀을 뜯거나 물을 마셔 허기를 채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늑대의 본성이 변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한동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변화했고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엄한 책망과 훈계가 임해 그의 권력이나 지위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은 희망이 없고 도태될 거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누가 이런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고, 오직 사실로 그들을 드러내고 도태시킬 뿐이다. 그러니 이 사탄의 종들은 모두가 분별하고 버려야 할 대상이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악인과 사탄을 분별하는 것과 같고,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해부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해부하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언행과 모습 또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들의 뜻을 가늠할 수도 있다. 영계의 사탄 마귀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에 너에게는 영원히 하나의 개념이자 호칭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살아 있는 마귀 사탄으로, 형태가 있으며 뼈와 살로 이루어진 마귀 사탄이다. 이 마귀, 사탄은 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버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싫어한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저버리며, 심지어는 늘 멸시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자기 머리로 가공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믿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진실하고 신실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 몇 가지 면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 아니겠느냐? 그들은 진리의 원수로 타고난 것 아니겠느냐? 이 부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진리를 싫어한다. 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거나 지키지 않는다. 이 부류는 그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각종 모습,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갖가지 태도 때문에 결국 전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정죄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익인 앞날과 운명을 그들이 얻을 수 있겠느냐?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에 대한 약속과 축복, 사람을 위해 예비한 종착지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느냐?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몫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에게 주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진리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기꾼의 거짓말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2020 년 4 월 11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7)

2. 적그리스도의 이익

4) 앞날과 운명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이익 중 네 번째, '앞날과 운명'을 교제하면서 이 항목을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이 다섯 가지를 복습해 보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였으며, 세 번째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였고, 네 번째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항목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해 교제하였다. 우리는 먼저 '깊이 파고들다'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태도를 폭로했다. '깊이 파고들다'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로 보이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道)로 여겨 받아들이거나 대하지 않는다.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의 욕망과 야심, 앞날과 운명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종착지, 앞날과 운명을 찾는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된 태도는 항상 자신의 앞날, 운명과 연결 짓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로 볼 때, 이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축복과 이득을 찾고 크게 잇속을 차리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것 같으냐?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다. 그럼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읽겠느냐? 그들의 본성 본질, 속셈, 욕망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얻고, 성품 변화의 길을 얻어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을 찾겠느냐? 비밀과 천기(天機), 대단한 도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지식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부류의 태도와 본성 본질로 볼 때, 그들은 부정할 여지 없는 불신파임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좋은 종착지, 앞날과 운명뿐임을,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갖가지 기회와 길을 찾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복받으려는 욕망과 야심을 충족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거나 그들이 지켜야 하는 도로 여기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에 관해 교제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본분 이행 측면에서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지 폭로하도록 하겠다.

(2)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 중 인류에게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라고 요구한 항목도 당연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맡긴 본분을 거부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받을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일종의 거래가 생성된다. 어떤 거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으며,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앞으로 천국에서의 복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복받을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교제와 설교를 통해 이런 정보를 얻은 후, 마음속 깊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심을 갖는다. 이런 욕망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을 볼 때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느냐?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장부가 하나씩 있을 것이고, 그 장부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마음속 장부에 어떻게 계산해 놓겠느냐? 그들은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제대로, 열심히 계산한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장부가 아니다.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은 먼저 이렇게 계산한다. '지금 내가 본분을 이행하려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누리는 즐거움을 버려야 해. 속세에서의 앞날과 일자리도 버려야 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분을 이행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루실 거야. 이 밖에도 하나님은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든 뒤, 그는 그 말씀 중 말세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들을 적잖이 분석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상상과 그 말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생긴 관념이 더해져 본분 이행에 깊은 관심과 충동을 느낀다. 그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겠노라고, 이 생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노라고, 모든 육적인 즐거움과 앞날을 내려놓겠노라고 철석같이 맹세하고 다짐한다. 이렇게 기도했고 말만 봐서는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오직 그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의 다짐과 기도한 말을 들으면 불순물이 없는 것 같고, 오직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려는 생각뿐인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본분 이행을 통해 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자기가 치른 대가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치른 대가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그가 원하는 앞날과 복을 줄지 계산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앞날이나 복받는 것, 좋은 종착지, 나아가 면류관에 대해 마음속 깊이 한껏 기대를 품고, 큰 믿음을 갖는다. 또 그들은 이런 속셈과 포부를 갖고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한다. 그러니 그들이 이행하는 그 본분에 하나님이 바라는 진심과 참된 믿음, 충성심이 있겠느냐? 이때는 참된 충성심이나 믿음, 진심을 찾아볼 수 없다. 본분을 이행하기 전 사람은 거래하겠다는 생각뿐, 이익에 이끌리고 야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상황에서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은 무엇이겠느냐? 거래와 교환을 하려는 것이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전제 조건은 '본분을 이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류에게 예비된 모든 복과 이점들을 다 얻어야 한다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속셈과 야심, 욕망을 품고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하는데, 얼마간 진심이 있는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이제 막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믿음과 충성심이 없다. 그저 그 정도의 열정이 있을 뿐, 진심을 이야기할 것은 못 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본분 이행 태도를 통해 볼 때, 그의 내면은 거래 심리로 점철되어 있으며,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는 등 이점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교되기 전까지 본분을 이행한다. 심지어는 그들이 버린 것, 고생한 것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을 때도 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치른 대가, 그들이 뛰어다닌 길은 바울보다 부족하지 않다. 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의 행위나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다짐에 관해 논한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표면적인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 그 사람이 표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의 성질과 본질에 근거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거나 대할 때, 상대의 표면적인 행위와 상대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근거하여 그를 규정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이러했다. 그들은 야심과 욕망, 거래 심리를 품고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한다. 이는 그들이 본분 이행 전에 마음속 깊이 계산하고 계획한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계산한 핵심과 중점은 무엇이겠느냐? 복받는 것과 좋은 종착지에 목적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의 속셈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행의 길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정결케 하여 성품 변화를 이루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은 도무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든 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약속을 준다는 것뿐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찾은 후, 그들은 구명줄을 찾은 것 같고, 또 자기가 큰 복을 받을 것 같아 스스로 이 시대의 가장 복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몰래 기뻐한다. '나는 때를 잘 맞춰

태어났어. 역대의 사도나 선지자들도 말세 그리스도를 뵙지는 못했잖아. 하지만 지금 나는 말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나는 큰 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건 상을 받고 면류관을 얻을 기회라고! 이방인들한테는 이런 복이 없어. 그들이 이번 생에 아무리 잘 누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대재난이 닥치면 모두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속세의 육적인 누림을 내려놓아야 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 누려 봤자 잠깐이고, 뜬구름 같은 거니까. 멀리 보자고. 앞으로 더 큰 축복과 상, 면류관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경고한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닐지라도, 설령 감옥살이를 하거나 고문을 받을지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반드시 버티고 버티고 버텨야 해! 낙담하지 말자. 큰일을 위해 치욕을 참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면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질 거야.'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믿는 모든 견해와 생각 중에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진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전부 개인의 앞날과 운명을 위해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인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요구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반감과 거부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관념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마음속으로 반발하고 괴로워하다가 보지 않고 넘겨 버린다. 또 인류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드러내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겨워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 말씀들이 너무 거짓되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시련 사역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반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회피한다. 그들은 오로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과 관련된 말씀에만 큰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는 그것을 수시로 들고 다니며 읽으면서 한시바삐 복받으려는 욕망을 만족시키고, 지금 당장 천국으로 들림 받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을 품으며 '믿음'이 흔들리는데, 의지가 약해져서 움츠러들려고 할 때면 이 말씀들을 꺼내 읽으면서 본분 이행의 동력으로 삼는다. 어떤 편, 어떤 단락의 말씀이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 진리를 묵상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으며, 나아가 인류의 패괴 본질을 폭로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깊이 패괴된 인류의 진상을 꿰뚫어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요구, 권면을 모두 흘려들으면서 개의치 않고, 경시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대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행사는 형식에 불과해.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야. 사람이 본분 이행을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이 가장 실질적이지. 그 무엇도 이것만큼 실질적이지는 않다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리저리 찾다가 그 길을 찾은 후, 본분 이행을 복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가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이자 목적이며, 그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내용이다. 그럼 그들의 본분 이행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과 표출을 통해 이 부류의 본질이

부정할 여지 없는 적그리스도 본질임을 알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만의 속셈과 목적, 복받으려는 욕망을 갖고 본분을 이행한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들의 목적과 태도는 당연히 그들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복받는 것, 좋은 종착지, 좋은 앞날과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사하는 상인과 딱 세 마디만 해 봐도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든 다 명리나 지위와 연관되며, 복받는 것, 앞날, 운명과 관계가 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이다. 그들이 이런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도태되는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각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각 부류의 본분과 사역에도 요구와 명확한 가르침이 있다. 이러한 말씀은 전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이 요구들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 실행하고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요구에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들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겠느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겠느냐?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집의 안배대로 본분을 잘 이행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분 이행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하나님 집의 규정은 무엇인지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그 본분을 이행하면서 복과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복과 상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들은 그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설령 이행할지라도 대충 건성으로 임한다. 적그리스도는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얼마간 본분을 이행한다. 또 그 본분을 이행하면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부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신경 쓰는 것은 전부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먼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 두려고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행복할 수 있을지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패괴 성품을 해결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구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복을 받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위를 얻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만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결코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는 데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그들은 늘 교회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여 무엇이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어 남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 한다. 그래야 만족한다. 너희들이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오직 이런 것뿐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진심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감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나는 세상에 있을 때부터 승부욕이 강했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첫 번째가 될 거라고. 나는 두 번째를 원하지 않아. 누구든 나를 부하가 되게 하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대장이 되고 싶어. 뭐든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나를 리더로 뽑게 할 거야. 지위가 생기면 뭐든 내가 결정할 거야. 모두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야 할 거고. 모두 내가 통제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높은 지위와 첫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될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다. 그가 가장 열중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명령을 내리고 훈계하여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 본분을 이행하는 일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여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각을 나타내 리더에게 우러름을 받고 발탁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쥐어짜며 궁리한다. 리더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그가 종일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다. 그는 남의 지도를 받거나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묵묵히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람들 위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변하고 태만해진다. 아무도 그를 칭찬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더더욱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본분을 더더욱 이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본분을 이행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뭐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기운이 넘치고 어떤 고생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개인의 속셈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부욕과 자신의 욕망, 야심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며 매사에 자신을 내세우고 남들 앞에 나서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한다. 이 밖에도 어떻게 해야 지금의 지위와 명예, 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의 지위나 명망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며, 심지어는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 이행에 충성심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을 비열한 수단으로 억누른다. 본분 이행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형제자매들한테는 질투와 증오를 가득 품는다. 특히 형제자매들의 옹호와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증오한다. 그는 이들이 자기의 추구와 명예, 지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맹세한다. '네가 있는 한 내가 없고, 내가 있는 한 네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 맹세컨대 너를 쓰러뜨리고 제거하지 못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자신을 폭로하거나 자기 지위에 위협이 되는 형제자매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의 약점을 잡아 판단하고 정죄하여 철저히 꺾어 놓고 쓰러뜨린 후에야 손을 멈춘다. 누구를 대하든 그들은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기만 하면 상대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려 한다. 그들에게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사람은 다 그들의 골수 지지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든,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든 그들은 전부 감싸고 보호해 준다.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늘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경영하고, 자신의 독립 왕국을 경영한다. 적그리스도의 본분 이행의 본질은 자신의 독립 왕국, 앞날과 운명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한 팀에서 십여 명을 이끌고, 어떤 적그리스도는 한 교회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끌든, 그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을

통제하며, 그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정죄하고 혐오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손안의 권력을 단단히 움켜쥐고 자기 수하의 통제 가능한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 신경 쓸 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이나 동기를 통해, 그들의 본질이 흉악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성품을 표출하느냐? 마찬가지로 흉악한 성품을 표출한다. 이 흉악한 성품은 어떻게 규정된 것이냐?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행하는 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역지침을 전혀 실시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 집이 각 사역에 정해 놓은 원칙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들의 개인적인 기호와 권력욕,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들의 개인적 바람을 충족시킬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버리고 헌신하기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실 거야!'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고 인류에게 거듭 제시하는 요구와 원칙에 대해 그들은 신경 쓰는 법도, 중요하게 여기는 법도 없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하나의 수식어로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질 뿐이다. '당신이 어떻게 요구하시든 저는 제 권력이나 제가 추구하는 바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제 소원이나 야심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본분을 이행할 맛이 나겠습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할 때 보이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상부에서 각 유형의 사역에 어떤 요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든, 적그리스도는 듣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또 상부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해도, 그 부분의 사역에 대해 아무리 엄격하게 요구해도, 그는 듣지 못한 척, 못 알아들은 척하며, 아래에서 여전히 제멋대로 굴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며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나 상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면 자신의 지위가 없어질 것이고, 손에 쥔 권력도 내려놓게 될 거고, 권력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것은 은연중에 자신의 권력을 공격하고 박탈하는 것이며 자신의 명성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만약 내가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사람이 무능하고 리더십이 부족해 보이지 않겠어? 만약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내 말을 듣겠어? 위신이 서겠어? 상부의 요구대로 행동한다면 나를 뽐낼 기회가 사라지겠지.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나를 숭배할까? 내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본분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나? 이 사역은 또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내 권위가 사라지고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거야.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면, 나라는 리더는 실권을 잃게 되지 않겠어?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냐고. 그럼 내가 일할 맛이 나겠어? 나라는 리더가 실권을 잃고 뭘 하든 의미가 없다면 그런 나한테 앞날이 있을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모두의 위에 서서 훗날의 면류관과 상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선민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 남들의 지도자가 되기만 하면 훗날의 면류관과 큰 복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든 손안의 권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칫 잘못했다가 자신의 손에 쥔 권력을 빼앗기거나 권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 능력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틈타 자신이 곧 얻으리라 생각하는 면류관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설사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집의 요구를 규례로 여겨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일부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늘 권력을 잡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며,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꾸짖고 호령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그리스도도 있다.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앞에 나서다 잘못하면 화를 입는 법이야. 나는 그런 멍청이가 될 수 없어. 내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3 할만 보여 주는 거야. 나머지 7 할은 뒷일을 위해 남겨 두자고. 하나님 집에서 뭐라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겉으로는 다 그러겠노라 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누가 이끌든 따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찬성하는 거야. 상부에서 준 규례를 지키면서 거스르지 않으면 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본분은 힘만 좀 쓰고 어지간하게만 이행하면 되지. 바보가 되지는 말자고. 무슨 일을 하든 여지를 남겨 둬야 아무것도 못 얻고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신세를 면할 수 있지.' 이런 부류의 적그리스도는 책임감 있게 본분을 이행하고 늘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자기는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경영하면 언젠가는 폭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리를 실행하려면 대가를 치르고 공을 들여야 하며 진심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럼 많은 고생을 해야 하기에 그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절충안을 찾아 앞에 나서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중용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생각한다. '하라는 대로 하자. 형식적으로만 하면 그만이지. 더 잘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야. 더 잘 하려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자료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추가로 상을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추가로 상을 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쉬엄쉬엄 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향해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건성으로 임하거나 소극적으로 태만하게 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먼저,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책망과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만약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왜 본분을 이행하려 하겠느냐?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는 전적으로 '금생에 백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말에 따라 본분을 이행한다. 이것은 하나의 거래가 아니겠느냐? 이는 전적으로 거래이다. 거래의 성질을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사악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의 어떤 점이 사악하냐? 누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수많은 진리를 들어도 추구하는 법이 없으며, 지위를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개인의 이익을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 말도 맞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구나. 만약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잘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는 심산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본분 이행을 통해 상과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서 본분 이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정확히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 먼저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기 위해 사역한다. 물론 하나님은 인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들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를 통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류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은 가장 정당한 일이다. 이는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이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창조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권세하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므로 마땅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정의롭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일이다. 인류 가운데 어떤 일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으며, 지음 받은 사람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없다. 땅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조류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인솔과 인도에 순종하며, 오로지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가 선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이는 가장 진실되고 힘 있는 증거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훌륭한 증거다. 한 피조물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를 만족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인류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할 일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피조물은 마땅히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인류에게 행복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는 무엇보다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일로, 긍정적인 사물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는 창조주의 일로, 피조된 인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뭔가를 주면 너는 뭔가를 얻는 것이고,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할 말은 없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창조주에게 협력하여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능력을 다하는 것은 본래 거래가 아니고 교환도 아니다. 사람은 태도나 행위,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약속이나 축복도 맞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본분과 부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거래가 있느냐? (없습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너희 각자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피조된 인류 입장에서 보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 본분을 받아들여 이생에 다해야 할 의무와 살아 내야 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거래는 없다. 이것은 등가 교환이 아니며, 어떤 상이나 사람이 상상하는 다른 설명과는 더더욱 무관하다. 그것은 절대 교환이 아니며, 본분 이행을 위해 바친 대가나 노동력으로 무언가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사람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는 인류에게 부탁을 맡기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이 준 부탁을 받아들인 후 자기 본분을 이행한다. 이 일, 이 과정에는 거래가 없으며, 이는 그저 단순하고 아주 정당한 일이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 무조건 불평 없이 키울 뿐, 자녀가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는 자녀를 낳은 그날부터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낳은 후 "저는 이 아이가 커서 저를 보살피고 효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나중에 효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목을 졸라 죽여 버릴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부모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녀가 효도할 수 있든 없든 부모는 그렇게 계속 자녀를 키운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며 자녀가 잘되기만 바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는 조건도, 거래도 없다. 이 점은 경험 있는 사람은 모두 이해할 것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효도 여부에 대해 어떤 요구 기준이 없다. 자녀가 효도하면 기뻐하며 말년을 조금 즐겁게 보내고, 자녀가 효도하지 않아도 그냥 흐름에 맡긴다. 비교적 생각이 트인 부모라면 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든 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소임 안에 있는 일이다. 물론, 피조물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것은 작은 일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비교적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피조물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왔으면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올바른 일이며, 사람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창조주는 피조물이 본분을 이행하는 이런 전제하에 인류 가운데서 더 큰 사역을 하고, 사람에게 한층 더 깊은 사역을 했다. 그것은 어떤 사역이겠느냐? 바로 인류에게 진리를 공급하여 인류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인생의 바른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더는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완전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본분을 이행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성과이다. 그러므로 본분 이행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 일만 꿰뚫어 보거나 일부 진리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여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아 마지막에는 창조주의 얼굴빛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얼굴빛'에는 많은 파생 의미와 파생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이런 사람에게 약속을 주고 축복을 주며 그들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할 텐데, 이는 아주 먼 일이다. 현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이자 생명이며, 그것은 모두 인류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인류 가운데 아무

피조물이나 쉽게 창조주의 손에서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 적그리스도 부류에 의해 왜곡되어 거래로 변했고,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면류관을 받아 내고 상을 받아 내는 거래로 변했다. 이런 거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의로운 일을 가장 추하고 가장 사악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한 짓이 아니냐? 이런 점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사악하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너무 사악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악함 중 한 측면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육신을 입고 사역하며 수많은 진리를 선포해 인류에게 하나님 경륜의 모든 비밀을 밝혔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진입해야 할 모든 진리도 공급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배와 같다. 진리는 패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자 인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요구, 뜻은 인류가 알고 파악해야 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얻어야 할 진리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말씀을 이론이나 구호, 심지어는 마이동풍으로 여기며, 더 심하게는 멸시하고 부정한다. 그들은 인류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사기꾼의 거짓말로 여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름다운 것이나 이익은 뭐든 다 사람의 손으로 쟁취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빼앗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야심과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마음속으로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이론이나 구호로만 치부하면서 권력, 이익, 야심, 욕망 등은 정의로운 사업으로 여겨 경영하고 추구한다. 또 은사를 통해 힘쓰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과 거래하며 천국에 들어가고 면류관을 얻어 더 큰 복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이 사악함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하고 고난을 겪은 자,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자가 윗자리에 앉게 되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자, 말재간이 좋은 자, 강도와 같은 정신으로 폭력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보세요. 마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라는 바울의 말처럼 말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신봉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가르침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싸워야 할 싸움을 마치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면 마지막에 면류관을 얻는 거야. 이건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뜻도 이런 것 아니겠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설교도 하셨지만, 결국 그 뜻은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싸우고 강탈하고 빼앗아야 한다고 인류에게 알려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논리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역을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을 이렇게 해석한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사악하지 않으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왜곡한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의 적나라한 거래로 여기며, 창조주가 인류에게 이행하라고 요구한 본분 역시 하나의 적나라한 박탈, 침략, 기만, 거래로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래의 수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악한 논리 아니겠느냐? 사탄의 논리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마음 깊은 곳에 늘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너무도 사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다!

방금 교제한 몇 가지 내용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을 간파할 수 있겠느냐? (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을 거래로 여겨 종착지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시며, 아무리 많은 진리를 선포하셔도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심산으로 본분을 이행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을 거래로 여긴다. 그는 거래하고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분을 이행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본분 이행이라는 긍정적인 것을 왜곡하고, 피조물의 본분 이행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며, 피조물의 본분 이행의 정당성을 비방한다. 또 그는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거래로 변질시킨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악함이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긍정적인 사물이 있다는 것,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사악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디가 사악하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인데 적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구호나 이론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왜곡한다. 여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며,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정결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자 진리이다. 하지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적그리스도는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구원받는다고요? 정결케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정결케 되면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꼭 그러리란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의 가르침, 도리로 여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지난날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자'라고 정의한 말씀은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보고 이를 근거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하루 이틀 살핀 것이 아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을 하루 이틀 보인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런 모습을 한두 가지 일에서만 보인 것도 아니다. 그럼 사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의심하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사탄은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다. 사탄의 그 말을 까놓고 말하면 "당신은 욥에게 더없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소와 양, 수많은 재산을 주셨지요. 그가 당신을 경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욥을 완전한 자라고 하시지만, 그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리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으며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합니다."라는 것이다. 사탄은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자이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틀렸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당신에게서 이득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축복과 이득을 모두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물음표나 가위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모든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定義)와 가르침을 부정한다. 이는 사탄이 진리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실상은 이런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인류를 폭로하고 형벌하고 심판하며 인류에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인정하고 '아멘'을 외치겠느냐? 준행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대놓고 '틀렸어! 그렇게 된 거라고? 왜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거지? 내가 보기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내 생각은 달라. 당신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만약 나한테 말하라고 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지키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사악한 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여 인류가 사탄의 패괴 성품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 경륜의 취지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들의 성품을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거래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그냥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누구와 누구의 게임이겠느냐? 전설 속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고뇌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사이의 게임이자 거래이다. 한쪽은 때리려고 하고 한쪽은 맞으려고 하며, 한쪽은 주려고 하고 한쪽은 받으려고 하는 게임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바라본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이 표출된 것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마음에 가득 찬 야심과 종착지를 얻고 복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인류 중 가장 아름다운 사업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하나의 게임이나 거래로 왜곡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이다. 이 밖에, 적그리스도에게는 가소롭고 웃기게 들리는 모습이 하나 더 있다. 무엇이 웃기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거래에 박차를 가해 성사시키고자 한다. 웃기지 않느냐? 물론,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점이 아니라 어리석은 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을 왜곡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의 존재를 믿지 않고, 더욱이 이 모든 사실의 진실성도 믿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이득을 얻고 덕을 보려고 하고, 기회를 틈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웃기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니, 어리석기 그지없다.

방금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을 해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충하였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심각하게 어리석어 보는 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첫째,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을 거래로 여깁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긍정적인 사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론이나 구호로 여깁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하나의 적나라한 거래나 게임으로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우습고 심각하게 어리석습니다.) 무척 구체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부류는 이성과 정신이 좀 비정상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디가 비정상이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앞날과 운명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은 모순적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부정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이성이 비정상적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 인성에 결핍된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계산이 제뺨을 때리는 것임을 모른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이 없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그릇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그릇된 길임을 알겠느냐? 분명 모를 것이다. 만약 안다면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잇속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고. 당신들은 모두 간파하지 못했으니 바보야. 왜 그렇게 우직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뤄진다는 법은 없다고! 내가 얼마나 영민한지 보란 말이야. 나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열 걸음을 내다보는데, 당신들은 한 걸음도 계산하지 않잖아.' 그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3 년간 본분을 이행한 후 생각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본분을 이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뭔가 이적을 보거나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예전처럼 지금도 하루에 세끼 밥을 먹고,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프지. 밤에 한두 시간 덜 자면 다음 날 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야! 모두들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존재라고, 본분을 이행하면 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몇 년이나 본분을 이행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똑같잖아? 수시로 연약해지고 소극적 상태에 빠지고 원망하지. 또 모두들 진리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마음속으로 늘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속세에서 살던 날들이 그립기까지 해. 그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체 무슨 사역을 하신 걸까? 나는 뭘 얻은 거지? 모두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얻으면 얻어진다고 하는데 얻어졌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지금 나는 점점 나이를 먹고 있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 얼굴의 주름도 많아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젊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왜 젊어지기는커녕 늙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지가 않으니 나 자신을 위해 따져 봐야겠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옛날과 뭔가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그는 골똘히 생각한다. '지금 나는 본분을 이행하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도 재난 속에서 죽었잖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지켜 주시는 걸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간증 글은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골똘히 생각하던 그는 본분 이행에 힘과 열정을 잃고 적극적인 모습이 사라진다. 늘 뒤로 물러서면서 대충 건성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만약 복을 얻지 못하고 늘 이래야 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해. 이 본분을 이행할지 말지,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다시 계획하자고.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굴 수는 없지.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앞날과 운명,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면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예전이 더 나아. 일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만 내세우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언제쯤 사역이 끝날지, 언제쯤 사람에게 상을 주실지, 언제쯤 본분 이행이 끝날지, 언제쯤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현현하실지 계속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항상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속세에 돌아가 돈을 벌고 인간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게 낫지. 그럼 적어도 이번 삶은 헛산 게 아니잖아. 내세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그건 다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먼저 이번 생을 잘 보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계산한다.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그릇된 길을 택하는데, 그가 수중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혹자는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지위를 주면 하나님 집에 남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지위를 필요로 하겠느냐? 이때 지위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한마디를 해 주는 것이다. 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떠날 것이다. 먼저, 만약 그가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계속 중용되지 못한다면 그는 앞날이 막연하고 암담하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계속 그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강림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현현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나고 대재난은 언제 내릴지 분명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명확한 말로 그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 깊은 곳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착실히 본분을 이행하거나 이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결과이며, 하나님이 정확한 말 한마디로 그가 원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다. 만약 계속 기다려도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할 것이다. 어떤 계산이겠느냐? 누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과 복을 줄 수 있을지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세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 세상, 이 인류가 그에게 이번 생의 복을 주고 육적인 안락함과 즐거움, 명예와 지위를 줄 수 있다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호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산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본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수중의 사역을 내팽개치고 속세의 기쁨과 앞날을 추구하러 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과 미래를 얻기 위해 형제자매와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가 본분 이행 과정에서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아무리 승부욕이 강해도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본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집을 떠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유다가 되어 하나님 집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한다면 반드시 본분 이행을 빌미로 단기간 안에 복받으려는 욕망을 충족하려고 할 것이며, 적어도 먼저 지위의 복을 얻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그 후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들의 본분 이행 기한은 3 년일 수도 있고, 5 년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10 년, 20 년일 수도 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 준 기한이자, 스스로 정한 본분 이행의 최장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른다. 그가 복받으려는 욕망과 아름다운 종착지, 면류관, 상을 위해 몸을 굽히고, 하나님 집에서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 앞날과 운명, 개인에 대한 야심과 욕망은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히거나 내려놓아지거나 나아가 변하거나 옅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통해 그들은 부정할 여지 없는 불신파이며, 긍정적인 사물은 싫어하고 부정적인 사물만을 좋아하는 부정할 여지 없는 투기꾼임을, 하나님 집에서 속여서 넘어가려는 인간 말종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치스럽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하는 주된 속셈과 태도는 바로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앞날을 포기한 채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데 당연히 뭔가 얻고 받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공평하고 합리적인 거야. 만약 본분을 이행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진리를 좀 얻었다고 할지라도 수지가 맞지 않아. 성품 변화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실속은 없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 이런 불신파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본체만체하고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으며,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본분을 대하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태도와 속셈을 볼 때, 그들은 분명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파, 투기꾼이며, 사탄에 속하는 존재이다. 너희는 사탄이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한다면, 그 본분에는 따옴표가 붙어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배치되고 이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적그리스도 본질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이 사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본분을 무상으로, 무조건 이행하지 않고, 또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이런 본성과 본분을 대하는 이런 태도, 그리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내는 갖가지 모습을 보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본분을 소홀히 대하며, 본분 이행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악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본분 이행 기간에 보이는 두드러지고 주된 모습은 무엇이냐?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뒷일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본분 이행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할지만 궁리한다. 또, 자신들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상과 면류관을 요구할 밑천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알려 줄 생각뿐이다. 자신들의 야심과 욕망, 그리고 복받으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위해 계산한다. 여태까지 자기가 몇 년 동안 본분을 이행하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버리고 대가를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몇 해의 청춘을 바쳤는지, 이제 상과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 지난 몇 년간 본분을 이행했는데 밑천을 충분히 쌓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든 총아라고 할 수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상과 면류관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등을 계산한다. 그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늠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에 대한 형제자매의 평가와 말을 관찰한다. 물론,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상부에서 그라는 사람의 존재를 아는지, 그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등이다. 이 밖에, 그가 더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에 대한 상부의 시선과 말, 평가이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의 '고심'에 대해 상부에서 이해하는지, 그가 오랜 세월 따르면서 겪은 고통과 환난에 대해 모두 알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다. 그들은 수중의 본분을 바쁘게 이행하는 한편,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며, 이와 동시에 자신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의 그 면류관과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어 가늠한다. 이는 그들이 마음속 깊이 늘 계산하는 것이자, 매일 매 순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진리 가운데서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이 진실한 성품 변화를 이뤘는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동에 진심이 있는지, 불순물은 없는지, 거래하고 요구하는 마음은 없는지,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패괴를 드러냈는지, 매일 이행하는 모든 본분과 하는 사역이 진리 원칙을 따른 것인지, 본분 이행이 기준에 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했는지 등을 묵상하거나 돌아보는 법이 전혀 없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종착지를 맞이할지만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과 득실만 계산할 뿐, 진리와 성품 변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데에는 어떤 에너지나 공도 들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패괴 성품과 자신이 걷는 그릇된 길을 결코 반성하거나 인식하거나 해부하지 않으며, 또 어떻게 자신의 그릇된 관점을 바꿀지 고민하는 일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위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숱한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증오를 느끼지 않고, 패괴 성품으로 사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증오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지난날 걸었던 잘못된 길과 행했던 방해와 교란 때문에 후회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결점과 연약한 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 패괴 성품을 극력으로 감추는 것 외에,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과시함으로써 두각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선민들에게 그의 재능과 은사, 능력을 보여 준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는 면류관과 상을 얻을 수 있는 밑천과 자신이 있다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이성은 건전하지 않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아무리 분명하게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길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사악한 성품과 본성, 그리고 이 부류의 본성 본질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 깊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인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해 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죽어라 붙잡고, 이러한 것들을 진리로,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가장 정의로운 사업으로 여긴다. 그들은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은 어떤 것인지 모른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자질이나 은사, 재능, 밑천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실행하고 얻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로, 적그리스도는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어리석은 면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분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들은 본분 이행을 하나의 거래로 여긴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집을 위해 큰 기여를 하며, 하나님 집에서 오래 고생한 사람은 마지막에 복과 면류관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논리이다. 이 논리가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로잡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전혀 구하지 않으며, 그릇된 길을 걷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의 관점은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지 않는다. 그는 불신파이고, 복을 받으려고 투기하는 자이다. 불신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는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과 거래하여 복을 얻어 내려고 하니, 더더욱 황당한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복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은 누가 압박해서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잘못 이끌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진리도 베풀어 주고 많은 요구도 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상 인성의 이성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복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동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지, 바울의 길을 걸어선 안 돼. 사람이 바울의 길을 걷는다면 철저히 끝난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과 축복, 앞날, 운명과 관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사람과 무관한 거라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지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사탄이고 마귀이며, 정상 인성의 이성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는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한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에 따라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늑대더러 양처럼 풀을 뜯어 먹으라는 것과 같다. 늑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먹잇감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일 때 어쩔 수 없이 한두 입 풀을 뜯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잇감이 생기는 순간 늑대의 첫 번째 선택지는 분명 고기가 될 것이다. 이는 늑대의 본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익에 휘둘려 일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르며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익에 대한 추구와 욕망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본분 이행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분 이행을 복받는 밑천으로 삼는 방법이다. 일단 그 희망이 사라지고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본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 네가 그에게 본분 이행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말해도 그가 듣겠느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정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떠나지 마세요. 본분을 이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괴롭힘과 고통만 받게 되고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지고요."라고 권유한다. 이 말에 그는 떠날 뿐만 아니라 난처함에 울기까지 했다. 왜 울겠느냐? (억울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럼 무엇이 억울하겠느냐? (자기가 무척 많이 고생하고 무척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도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역을 행했는데도 그는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본 적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권유를 듣고 울기 시작한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말하지 않겠느냐? 똑바로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울겠느냐?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의 생각은 입에 올리기 민망하며, 그 자신조차도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 그가 하나님에게 한 맹세는 경천동지할 정도로 대단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그때 그러지 말걸.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는 건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고 하니까 믿었지. 게다가 가정과 일자리까지 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어. 핍박받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몇 년간 본분을 이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그는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사기당하고 기만당했다고, 속아 넘어갔다고 말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한시바삐 내보내야 합니다.) 더 권유해야겠느냐? (아닙니다.) 더 권유했다간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며 행패를 부릴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권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집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고, 깨끗한 땅이다. 사람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의 심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 인도와 축복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고 목양하니 사람이 대가를 좀 치르고 고생을 좀 한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 이 사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품 변화를 이루고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볼 때, 만약 복과 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면류관과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행위이자 속아넘어간 모습이다. 지난날 얼마나 큰 다짐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맹세를 했든 전부 무효이며,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본분을 이행하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이 '분쟁의 땅'을 떠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부득이한 일, 밑천을 얻어내고 면류관과 상을 받아 낼 조건으로 여긴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힘을 써도 끝까지 쓰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이 부류의 본성 본질 때문에 그들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만 저지른다. 그럼 그들이 이행하는 본분은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 심지어 끝없는 악행이다. 이런 결과에는 근본 원인이 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을 뽐내고, 권력을 잡으며,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을 통제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제해 이용할 기회를 찾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 부류 중 일부는 숱한 악행을 저질러 출교되었지만, 비교적 간사하고 위장에 능한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들이 하나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느냐? 이들은 눈에 띄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는 자기 분수를 지키며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때우고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거라고, 마지막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부류겠느냐? 이는 투기꾼이지,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집 행정 법령에 따라 제명되거나 출교될 정도는 아니다. 그들은 계속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출교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출교되지 않은 이들 중 일부는 적그리스도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 그 본성 본질을 볼 때 지위와 권력이 생기는 순간 바로 수많은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하나님 집에서 제명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이행하는 본분은 항상 득보다 실이 많다. 그들은 수시로 나쁜 짓, 하나님 집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짓을 저지른다. 이 사실은 그들 자신도 알고 있지만, 결코 뉘우치지 않고, 자신이 틀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후회하는 건 고사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내적 상태가 생기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출교시키지 않는 한 나는 여기 눌어붙어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되는대로 살아가야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을 거야. 나한테 뭘 시키든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기분이 좋으면 좀 더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적게 해야지. 그리고 남들의 발목을 잡고, 소극적인 것과 관념, 판단하는 말을 유포할 거야. 언젠가 내가 제명되거나 출교되어 복을 받을 수 없더라도 희생양 몇 명을 찾아서 물고 늘어져야지.' 이는 악인 아니겠느냐? 그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수시로 연약해지고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는 사람,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 이방인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뒤에서 소극적인 것을 퍼뜨린다. 이런 행동이 어떤 성질인지 그가 모르겠느냐?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본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물귀신 작전을 펴서 다른 사람들과 동귀어진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악독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날이 길지 않음을, 언젠가는 제명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손으로 행하는 악을 내려놓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해져서 더 많은 악인을 끌어들여 그와 함께 악을 행하게 한다. 심지어는 소극적인 것과 관념을 유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본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한다. 이것은 복수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 의미인즉슨,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언젠가 하나님 집에서 제명될 거야. 그러니 당신들만 잘 살게 둘 수는 없지. 하나님 집이 잘되게 둘 수도 없고!'라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 대한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는 먼저 선수를 치기 시작한다. 이는 악인이 하는 짓 아니겠느냐? 그는 '나는 복받으려는 희망을 잃었어. 예전에 내가 한 일들에 대해 당신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출교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포기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며 현명한 처사라고 여긴다. 그는 "제가 복을 받게 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복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소극적인 것과 관념, 궤변을 퍼뜨릴 거예요. 제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도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악독하지 않으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집에서 이용당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라는 말을 퍼뜨리기도 한다.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자 소극적이거나 어리석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만 찾아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란하는 성질이 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집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며 언젠가 제명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손으로 행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거나 진심으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메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하나님 집에서 소극적인 것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파괴하고 교란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처럼 악을 행하고 소극적으로 변해 물러나며 본분 이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복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는 악인이 하는 짓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지상의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늘 막연한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에는 그가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겨 순종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막연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그 막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를 다음 시대로 이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그에게 상과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상에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지가 않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참하나님이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이 실제의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믿을 만한 대상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런 하나님을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기면서 어려움이 생겨난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약속을 주는 것

말고 또 뭘 할 수 있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지가 않단 말이야. 또 아무리 봐도 사람에게 뭔가 이득이나 이익을 가져다줄 것 같지가 않고.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도 있지. 하지만 만약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과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겠어? 사람의 기대와 의지가 그에게서 이루어질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가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의 앞에서 나는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악인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더없이 위대하고 신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을 상상한다. 하지만 지상의 하나님을 볼 때, 그의 상상과 관념은 무너진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한다. 그리고 그 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존중마저 사라진다. 그러니 두려움이나 경외심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면 간이 커진다. 악인의 마음속 방어선, 경계심까지 사라지니, 어떤 일이든 다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적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는 쉬워도 땅의 하나님을 믿기는 무척 힘들다. 바울이 그 생생한 예이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추구한 목표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변했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자 했다. 또 지상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과 복을 얻고자 했다. 그 적그리스도들은 바울과 완전히 똑같다. 그들은 지상의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기는 한편, 하늘의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은 기만해도 되는 존재, 함부로 우롱하고 해석하고 관념을 갖고 대적해도 되는, 마음속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불신파,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과 지상의 하나님을 대하는 차이이다. 그들은 지상의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기에 본분을 대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이 모습에는 그들이 지상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본분 이행의 흥미가 점점 줄어들고,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염원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흥미를 잃고, 소극적인 생각과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마지막에 굳게 서지 못한다. 교회에서 그들을 제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떠날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적그리스도는 무척 제멋대로였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며 참답게 대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지도 않으며 매우 게으르게 굴었지요.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고요. 매일 먹는 것, 입는 것만 신경 쓰고, 음란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출교될 때,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후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분 이행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의 본분을 존중하지도, 아끼지도 않은 채 대충 건성으로 일하고 시간만 때운다. 그럼 그에게 그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교제해 준 사람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교제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말해 보아라. (예전에 계속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촬영한 장면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교란하고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B조로 보내진 그는 본분을 이행하지는 않고 매일 일해서 돈을 버느라 바빴고 이방인들과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명되었지요.

사실, 교회에서 그를 제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알아서 나갔을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굳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들의 성품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야심과 욕망이 무척 크고, 본분을 놀이처럼 대하면서 건성으로 임한다. 또 행동이나 품행이 부정하고 바르지 않으며 본성이 사악하고 흉악하다. 그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영락없는 불신파이자 이방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질이다. 그로 하여금 이방인처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그는 매일 형벌이라도 받는 양 괴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 집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느니 속세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그런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득이한 결정이다. 그것은 복받으려는 속셈에 지배된 것이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본성 본질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할 여지 없는 불신파이자 투기꾼이다. 그들이 어디 본분을 이행하러 온 자들이겠느냐. 그들은 악을 행하고 교란하며 거래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롭겠느냐, 아니면 해롭겠느냐? (해롭습니다.)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이 약간의 은사와 재능을 갖추고, 하나님 집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착실히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만약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당신같이 예전에 악을 저지른 사람은 향후 반드시 앞날과 운명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가 화복을 따지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런 인성을 지녔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은 흉악하다. 그는 '나한테 이득과 약속, 허락을 주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힘을 쓸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성품이다.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본분과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를 대할 때의 종합적인 모습이다.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주셔서 이 은사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저를 이용하고 싶나요? 제 은사와 재능이 마음에 들었겠죠. 당신이 저에게서 잇속을 차리겠다면 저한테 이득 되는 것을 줘야 합니다. 저를 이용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높여 줌이고 하나님이 준 기회이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는 거라고 여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방해하고 교란하며 나쁜 일을 좀 저지른 후 격리되어 반성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한동안 반성한 후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는 법,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법을 배우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교회에서 본분을 안배하면 그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 다시금 본분 이행의 기회를 얻은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얼마간 변화를 이룬다. 비록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소극적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지며 본분을 팽개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볼 때, 그는 이미 변화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증오하고, 그 일에서 얼마간 인식을 얻었으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 순종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에서 다시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반항하지 않고, 더욱이 안 좋은 말을 하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기회가 다시 생겼으니 소중히 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는 태도 면에서 이미 큰 변화를 이뤘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한다. 그는 권력과 이익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한다. 만약 권력과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 후 하나님 집에서 교체되고 격리되거나 제명되면 그가 진실로 회개하겠느냐? 그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저를 이용하려고 회개하라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으면 끌어들이고, 이용할 수 없으면 차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차 버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집에서 네게 처분을 내리겠느냐? 네가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했다면 하나님 집에서 함부로 네게 처분을 내리겠느냐? 방해하고 교란하며 악을 행해 교회 사역에 손실을 주었기에 하나님 집에서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거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식하기는커녕 원한을 가득 품은 채 자기는 인기가 없고 권력을 얻지도 못했다고, 괴롭힘당하고 학대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본분 이행의 기회를 주면, 그는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는 고사하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는커녕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차 버렸다고, 학대했다고 여기며 원한으로 가득 차 더는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더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는 모두가 하나님 집에서 이용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릇된 말이냐! 여기에 진리와 인성, 이성에 부합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혈기와 흉악함, 원망, 거래, 나아가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내리는 모든 처분과 하나님이 그에게 배치한 모든 환경에 대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혈기로 대한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태도로, 또 사탄의 방식과 논리로 이 모든 것을 대하기에 마지막에 진리를 얻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체되거나 본분이 조정되고, 심지어 격리되거나 제명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진정으로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행을 통한하지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찬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원망과 비방, 판단, 정죄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의 근원으로, 그들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이번 생에는 하나님 집에서 제명될 테고 내세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을 간파할 수 있겠느냐?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내가 한 말에 근거하여 비춰 볼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들은 진리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분명 사탄에 속하는 자, 멸망의 대상이다.

너희는 내가 폭로한 적그리스도의 각종 표출, 모습, 행동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아야 한다. 본분 이행 과정에서 너희 또한 당연히 이런 모습이나 표출, 행동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적그리스도와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너희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귀한 점이다. 너희는 길을 잘못 가고, 그릇된 일, 어리석은 일을 했을 때,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점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점을 갖추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만이 이런 점을 갖추고 있다. 어떤 점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첫째,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적그리스도는 갖추지 못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는 여기에서부터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되, 논쟁하거나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다섯째, 거역하거나 과오를 저지른 후 회개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항목은 약간의 난이도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과오를 저지른 후 한동안 반성하고 구하며, 괴로워하고 소극적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진 후에 자신의 패괴 성품을 조금씩 인식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1~2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신복해야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점을 갖추지 못했다. 악행을 저지르고 3~5 년, 10~20 년이 지난 후 옛날 일을 들먹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있더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네가 그를 만난 이후로 그는 항상 자신의 논리를 펼 것이다. 그는 늘 자신의 악행을 인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전혀 뉘우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패괴된 보통 사람의 차이이다. 적그리스도는 왜 뉘우치지 못하겠느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지 않기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는 구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을 해부하는 것을 듣고 '끝장이야.

나한테도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잖아. 그럼 나도 적그리스도인 것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별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너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적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너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너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 너에게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너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벗어 버리고 패괴 성품이 정결케 되어 구원받게 한다. 이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희망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체험 간증문을 쓰면서 무척 힘들어하고, 제대로 써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체험한 후에야 체험 간증문 한 편을 써내고, 어떤 사람은 10~20 년간 믿은 후에야 체험 간증문 한 편을 써내는데, 그것도 그간 겪은 일들의 정수를 종합한다. 한편, 하나님을 30 년 동안 믿고도 어떤 진실한 체험적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나는 입이 닳도록 여러 번 말하고 이야기하고 되풀이해야 하고,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내 교제를 많이 들어야 한다. 열심히 듣고 분별력을 키우며, 각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적그리스도 본질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실행의 길이 생길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자신의 패괴 성품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 본질을 분별할 수 있으면, 적그리스도 부류를 만났을 때 바로 분별하여 폭로하는 한편, 함부로 구는 행위와 행동을 제지하고 제약할 수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악행이 교회 사역에 주는 손실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다면, 진리를 참답게 대하지 않고 늘 도리만 이해할 뿐 사람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주변의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리더로 여겨 따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자세히 따져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하나님 집에 가져다준 것은 이익이 크냐, 아니면 피해가 크냐? 자세히 따져 보면, 그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집에서 일하면서 표면적으로 몇 가지 좋은 일도 했겠지만, 전부 피해가 이익보다 많고 득보다 실이 크다. 그들이 한 좋은 일은 사실 더 큰 우환으로 이어지며, 이는 교회 사역에 득보다 실이 된다. 이들은 하나님 집에서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는다.

2020 년 4 월 25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8)

2. 적그리스도의 이익

4) 앞날과 운명

먼저 지난번 예배 때 교제한 내용을 돌아보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태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가'에 관해 교제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하는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류를 인도해 주시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자 인류 가운데 가장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의 거래로 여기며, 본분 이행을 통해 앞날과 종착지를 얻어 내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역 기간에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거나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갖추고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날과 종착지, 명예,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얻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역으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시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의 거래이자 게임으로 여깁니다. 그는 반드시 사람의 노력과 거래가 있어야만 천국의 복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로 볼 때, 그들의 성품은 사악합니다.) 또 보충할 내용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을 복받기 위한 유일한 길로 여깁니다. 복받으려는 욕망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바로 본분을 포기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는 복받으려는 욕망이 무너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해하고 교란하며 악을 행해 교체되거나 출교된 후, 하나님 집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어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원망하고 판단하며 "내가 필요하면 나를 찾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차 버리잖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몇 가지 측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저 서로 다른 사물을 대할 때 똑같은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대할 때 드러내는 본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다 교제하였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둘째, 하나님 말씀 교제를 통해 진리를 듣고 이해했을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다. 넷째, 영원히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보이는 모든 모습의 본질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지난번에 교제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 알지 못했다. 적그리스도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본질은 언제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본분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럼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또 어떤 모습들이 그가 위에서 말한 그런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가 바로 하나님과 진리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임을 실증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교제하려는 세 번째 태도,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이는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 중 세 번째 소주제이다. 보아라, 각종 진리를 교제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만 말한다면, 너는 각종 진리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자, 지난번에 교제한 내용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3 조에 관해 교제해 보자.

(3)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책망과 훈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본분 이행 과정에서 겪는 책망과 훈계가 많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책망과 훈계의 의미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고, 책망과 훈계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척 많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올바르게 책망과 훈계를 대한다. 물론, 누구든 본분을 이행하기만 하면,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책망과 훈계를 겪을 기회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책망과 훈계가 닥칠 때마다 올바르게 대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성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자주 보이는 태도이자 관점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도 책망과 훈계를 이렇게 대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책망과 훈계를 받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된 이유는 책망과 훈계가 닥칠 때 망신을 당했다고, 명예와 지위, 존엄을 잃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작용하기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것이다. 그는 누가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 사람은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심리 상태이다. 사실, 책망과 훈계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진실한 순종이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싫어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준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체면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투와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말투가 엄하고 태도가 날카롭다면 반발하고 반항하며 수치심에 분노한다. 그는 폭로한 것이 옳은지, 사실인지 개의치 않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반성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허영과 체면에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만 신경 쓸 뿐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사람에 대한 도움이자 사랑이자 구원이며 이로움임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이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는 사리 분별이 되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어떤 성품을 드러내겠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 그리고 교만하고 강퍅한 성품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가장 두려워하며, 책망과 훈계가 닥치는 순간 그의 추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럼 적그리스도에게 책망과 훈계가 닥칠 때, 그의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이고 그는 패괴된 보통 사람과 다르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 본질과 차이가 있다고 확실히 알게 하겠느냐? 내가 예를 들어 볼 테니 너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보충해도 좋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먼저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궁리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거지? 왜 나를 책망하려는 걸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한 어떤 말에 기분이 상했나? 내가 뭔가 좋은 걸 주지 않아서 복수하고, 그걸 빌미로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는 거 아냐?' 그는 결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표출한 패괴 성품을 인식하지도 않으며, 그저 책망과 훈계를 받은 그 일에서 단서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 안에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책망과 훈계를 대한다. 여기에 진실한 받아들임이 있겠느냐? 진실한 인식과 반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책망과 훈계가 닥치는 이유로는 패괴 성품을 표출한 것, 어리석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 대충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 집 사역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이 있다. 가장 증오스러운 행동은 공공연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원칙을 어기며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주로 이 몇 가지 상황 때문에 책망과 훈계가 닥친다. 어떤 상황에서든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사람이 무엇보다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너를 책망하는지, 왜 책망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또한 그의 말이 듣기 거북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의 어조나 어휘 선택이 어떤지도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받아들여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고,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냈는지, 그 일을 할 때 진리 원칙대로 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가져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런 태도를 갖췄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언제나 반발심과 반감을 표출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며 겸허히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먼저 온 힘을 다해 해명하고 변명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표출한 패괴 성품에 대해 변호하고 해명하면서 사람들의 이해와 관용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드러내는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나는 죄짓지 않았어. 잘못한 게 없다고.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거기엔 이유가 있어. 잘못해도 고의가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는 이런 주장과 말을 고집하며 놓지 않는다.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표출한 패괴 성품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속셈과 목적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무리 눈에 띄어도, 초래된 손실이 아무리 커도 그는 본체만체하면서 전혀 괴로움이나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양심에 어떤 가책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극력 변명하며 설전을 벌인다. 그는 '이건

말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일리가 있는 거라고. 말재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내 해명과 변명이 많은 사람 앞에서 통과된다면 내가 이긴 거야. 그럼 당신이 말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게 되고, 당신이 말한 사실도 성립하지 않는 거지. 나를 정죄하려고? 꿈 깨시지!'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반발하고 반감을 가지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의 패괴 성품이 어떻게 사실로 드러났든 그는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한사코 반항하고 반발한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는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누가 말로 이기나 보자. 누구의 입심이 센지 보자고.'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 중 하나이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드러난다. 적그리스도는 글귀와 도리를 말할 때는 무척 분명하지만,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계속 반발하고 이치를 따지고 반항하면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그는 평소에 읊어 대던 글귀와 도리를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흉악하고 극도로 교만하다. 진리 앞에서, 사실 앞에서 그는 언제나 강퍅한 태도, 반발하고 반감을 품는 태도를 보인다.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위해 극력 해명하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 외에도 가장 큰 신념 하나를 갖고 있다. 바로 '내가 믿는 존재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든 내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 설령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어쩔 수 있겠어?'라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불복한다.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고 진리에 부합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발하신 것만이 진리라고.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책망하고 훈계해도 공의롭지 않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공의롭다고!'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땅의 하나님 말이 아무리 옳고 진리에 부합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만이 진리고 가장 위대하지. 땅의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에게 비할 수는 없어.'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지 땅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진리에 부합해도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셔. 또 하늘의 하나님은 내 운명을 결정하시지만, 땅의 하나님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땅의 하나님이 한 말이 아무리 진리에 부합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하늘의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나는 항상 순종할 거라고.' 이런 말은 다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내는 말이자 그의 마음속 말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속 말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대표하며,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드러낸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드러낼 때면 그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자 진정한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굽히지 않고

비굴하거나 거만하게 굴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은 진리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진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 속으로 물러나 그 신념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 존재감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불신파의 본질이 완전히 폭로된 것이다. 그는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라는 말로 모든 사람에게 반박하고 그들을 물리치며, 이 말로 진리를 부인하고 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편, 이 말로 자신의 죄를 덮고 거기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패괴 성품과 본성 본질을 숨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념과 이론으로 스스로의 악행을 덮는 한편, 스스로를 위로하고 비호한다.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괜찮아. 땅에 있는 사람이 말한 건 이뤄지지 않아.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에 부합하지도 않는 거야. 그럼 어떤 잘못이나 나쁜 일을 저지르든, 어떤 과오를 범하든 책임질 필요는 없어. 여태까지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들먹거리고 고집을 부려도 된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몰염치하게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끝까지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민낯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드러난다. 그때 그의 본성 본질은 가장 쉽게 폭로된다. 첫째, 그가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겠느냐? 둘째, 그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인식하겠느냐? 셋째,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겠느냐? 이 세 가지에 근거하여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알 수 있다.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순종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패괴 표출과 패괴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짓을 벌인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반하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책망과 훈계를 한 사람을 정죄한다.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책망과 훈계가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책망과 훈계는 다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들은 모두 정죄받아야 해요!"라고 말한다. 이는 적반하장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이라야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일을 하겠느냐? 생트집을 잡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마귀 사탄 부류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반하장을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고 마귀이다. 적그리스도가 적반하장격으로 자주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바로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책망과 훈계가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 훈계하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사람이 책망 훈계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라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보면 그 어조에는 악독한 속내가 들어 있다. 두 번째 말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 두 가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느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책망 훈계와 징계는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 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위해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그는 이 말,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다르다. 그는 책망과 훈계가 닥친 상황에서 이런 말투로, 이런 속셈을 품고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어떤 의미겠느냐?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책망과 훈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부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한다. 그럼 그는 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분명 이 말과 표면적으로 옳게 보이는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군 사람, 자기를 책망 훈계하고 자기의 패괴 성품을 폭로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다. 이는 악인의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자가 바로 악인이다. 악인은 중요한 시기에도 옳은 말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대항하며, 자신의 이익과 이미지, 체면, 명예를 지킨다. 이는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잠 21:29)라는 말이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서 입증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또 다른 말로는 "제가 믿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 있다. 표면적으로 듣기에 이 말에 문제가 있어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옳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점잖고 올바르냐. 어떤 문제도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옳은 말을 이용해 곤경에서 벗어나고 변명한다. 그가 이 말을 한 이면에는 어떤 속셈이 있겠느냐?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그의 어떤 측면의 본질을 증명하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가 공개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옳아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모두가 그를 분별하고 저버릴 것이며, 그는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매우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간사한 점, 사악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만약 내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반발하고 대들고 대항한다면, 당신은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겠지. 그러니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간파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나 자신을 지킬 거라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제가 믿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가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해부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그의 이 말은 개념을 혼동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럴 때 그는 개념을 혼동시키고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이상, 사람이 되실 수는 없지요. 만약 사람이 된다면 진리가 없을 것이고,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대로 상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바울과 비슷한 데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바울은 땅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인정했느냐?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역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형제자매이고, 서열을 따지면 그와 동등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또한 그를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제가 믿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적그리스도의 말에서 무엇을 해부할 수 있느냐? 그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적그리스도와 바울이 똑같다. 그의 뜻인즉슨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을 믿는 것은 소용이 없어. 사람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없거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늘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해. 반면, 땅의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지? 진리나 좀 선포하고 옳은 말이나 좀 할 수 있지.'라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그의 본질을 해부하고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책망과 훈계가 닥칠 때, 좌절할 때, 누군가에게 폭로당할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지키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폭로와 책망 훈계를 부정한다. 어찌 됐든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그의 주된 태도는 반항하고 반발하며 거부하고 극력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밝혀 주실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패괴된 인류인 그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하나님 집 사역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든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도 않는다. 만약 이 사실이 폭로된다면 그는 자기가 그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밝혀 달라고 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위해 봉사하는 양,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 줘야 하는 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양 말이다. 그는 진리와 책망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를 위해 변명하고 해명해 달라고 한다. 이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이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모두 극도로 몰염치하고 사악한 자들이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가 수시로 하는 말 두 가지는 무엇이냐? ("제가 믿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주 쓰는 두 가지 말이다. 다른 생억지는 하나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감히 말하지도 못하지만, 이 두 가지 옳은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스스로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잘못된 일을 옳은 일로, 사악한 일을 정의로운 일로, 그가 저지른 잘못과 그가 초래한 손실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자 시도한다. 그는 이 두 가지 말로 이 모든 것을 일소하고 무효로 하며, 없던 일 취급한 후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회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일면, 진리를 싫어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흉악한 모습을 드러낸다. 교만함은 누가 그를 책망 훈계할 때 '당신은 사람이니, 나는 두렵지 않아!'라며 상대를 멸시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는 교만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악함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느냐? (적반하장에서 드러납니다.) 적반하장이 한 측면이다. 다른 한 측면은 옳은 말로 스스로를 위해 해명하고 변명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어떤 성품이 있겠느냐? 적반하장 역시 흉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그의 본질을 폭로한다면 그는 자신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을 보이면서 옳은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과 말은 음험하고 사악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입을 막을 때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더는 말하지 못하고 그를 어찌하지도 못하게 될지를 알고 있다. 이것이 사악함이다. 그의 이런 방식과 행동은 부정할 여지 없이 흉악한 성품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책망과 훈계가 닥친 일에서 해부해 낸, 적그리스도의 몇 가지 성품이다. 적그리스도의 이 몇 가지 성품과 표출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네 가지와 대입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네 가지였는지 말해 보겠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 교제를 통해 진리를 듣고 이해했을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영원히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부정'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대표한다. 적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본성 안에서 표출된 것들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명언이나 명문장들이 꼭 같지는 않다.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저런 말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그 특징과 본질은 모두 같다. 그 말들의 본질은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어떤 말이겠느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겠느냐? 사람의 말, 윤리에 부합하는 말이겠느냐? 아니면 양심과 이성에 부합하는 말이겠느냐? (마귀적인 말입니다.) 그렇다. 그것을 빈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 정의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마귀적인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를 설명해 준다.

책망과 훈계를 직면했을 때, 형제자매의 질책과 폭로를 마주했을 때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말들을 하겠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적인 말을 한다.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보고 질책하고 책망하며 그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폭로하면, 그는 겉으로는

반항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한다. 마치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나만큼 지식이 많아? 당신이 나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러지? 나는 당신처럼 천박하게 굴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리더 일꾼이 책망할 때 그는 교활한 태도를 보이면서 표면적으로 응대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불만과 불복의 마음을 품으며 보복할 기회를 노린다. 만약 평범한 형제자매가 책망한다면,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얌전히 있지 않고, 노발대발할 것이며 반박하고 보복할 것이다. 그는 반박하고 보복할 때 늘 이런 말을 한다. "나를 책망하기에 당신은 아직 멀었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은 보통 이방인, 양아치 기질이 심각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무리이며, 이 특수한 무리는 특수한 기질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기질은 어떤 점이 특수하겠느냐? 이 부류는 교회에서 늘 자격을 따지고 서열을 정한다. 누구를 보든 자신보다 못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며, 괴롭히고 우롱하고 싶어 한다. 그는 설령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그와 협력할 자격을 지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 그를 형제자매로 여겨 마음을 터놓고 속내를 이야기하며, 그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고, 그가 표출한 진리에 어긋나는 언행을 책망할 때, 그의 이 교만한 말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집을 사회로, 자신의 근거지로 여기며,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모두 졸개로 여긴다. 또 형제자매들은 사회에서의 일을 아는 게 적고 인식이 얕으며 사회에서 하층민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우롱당하고 유린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는 형제자매들은 다 괴롭히기 쉽고 우롱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누가 그를 책망하거나 폭로할 때, 그는 상대가 자기를 괴롭히고 폄하하고 배척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미리 경계한다. '나를 혼내 주고 괴롭히려고? 꿈도 꾸지 마! 당신은 아직 멀었어!'라는 것이다. 이는 '영웅의 기개'를 지닌 사람이 하는 말 아니겠느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가 아무리 기개와 기골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혐오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정죄당하고 버림받으며, 그런 말을 진리로 여겨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다시 살펴보자. 이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나이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본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를 뿐, 자격 유무를 나누지는 않는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겸허한 마음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이자 태도이다. 그렇다면 "나를 책망하기에 당신은 아직 멀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회적 풍조와 흐름, 사회적 양아치 기질로 점철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을 사회로 여기고, 하나님 집의 형제자매들을 사회 하층의 취약 계층으로 여긴다. 또 자기 자신은 강호의 거물로 생각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거나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만약 누가 자기를 폭로하고 책망한다면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여긴다. 그는 하나님 집을 사회와 똑같이 생각한다. 당당한 사람, 기가 센 사람이 자리를 잡고, 모질고 사납고 악한 사람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능력이 없는 못난이라고,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도 폭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경골한이라고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반드시 권력과 세력을 지니고 아주 모질고 악해야 남들이 괴롭히거나 함부로 우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이 수완이고 재주라고 여기며, 그 수완을 통해 지위와 명예를 얻고, 마지막에 좋은 종착지를 얻고자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하고 사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임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보지 못한다. 설령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전부 위장하고 자제한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는 그것을 위해 자제하거나 분을 참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에, "나를 혼내 주고 괴롭히려고? 꿈꾸지 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아니겠느냐? 그의 이런 생각과 관점은 사악하다. 그가 이런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흉악한 성품이 표출된 것이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를 폭로하고, 그의 문제점과 결점, 패괴 표출을 이야기하면 그는 상대가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얕본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나를 책망하기에 당신은 아직 멀었어!"라고 말한다. 그는 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든 마음속으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럴 리가!'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책망과 훈계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약점을 잡아 사람을 혼내 주고 괴롭히는 거라고, 사람이 너무 온순해서 잘못을 좀 저질렀다고 괴롭힘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책망과 훈계가 사랑이고 남을 돕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야만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늘 이렇게 말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하고는 끝장을 볼 거야. 나를 괴롭히겠다고? 어림도 없어!' 어떤 부류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하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흉악한 성품을 지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지닌 사람이며, 사탄의 부류에 속한다.

책망과 훈계를 마주할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또 다른 말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라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그것을 해부해 보도록 하자. 그들이 이런 말을 한 데는 반드시 그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로 무척 큰 변화를 얻은 것 같고, 감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고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라는 사람은 안하무인이었을 겁니다."라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해부해 보면 문제가 무척 크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지닌 것이겠느냐? (교만하고 흉악한 성품입니다.) 이는 무뢰한, 흉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큰 악인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안중에 없다는 것이고, 모두를 발아래로 본다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사람, 좋은 사람도 그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누구도 눈에 차지 않아 하며, 누구도 돌봐 주지 않는다. 그에게 어떤 사람을 돌봐 주라고 한다면 그의 존엄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에게 돌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면 딱 한 분, 하늘의 하나님뿐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과 표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고, 하나님 집에 와서 억지로 몸을 낮추며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한다. 정상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왕래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그의 성품을 다시금 폭발시켜 이 말이 나오게 한다. 원래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았고, 그와 왕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은 후, 하나님 집의 형제자매들 중 그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정상 인성과 정상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그렇게 처신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을 한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너보다 뛰어나고 좋은 자, 네 스승이 될 자, 너를 도와줄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무뢰한이 그 말의 정확성을 인정하겠느냐?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과 평등하게 지내겠느냐? 이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 중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 까다로운 사람이고 악질이다. 누구도 그를 어쩌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그를 상대하거나 자극하거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가 바로 악질이다! 네가 그를 자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악귀를 자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회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런 사람을 자극하지 못한다. 그의 성품과 일 처리 원칙을 보면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건다. 아무도 그를 자극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하며, 오직 그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그럼 그가 하나님 집에 와서 변할 수 있겠느냐? 변했겠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겠느냐? 누가 그의 결점을 지적하고, 말로 그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그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이 말을 내뱉는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감히 나한테 덤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이는 어떤 성품이냐? 그의 이 말 앞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처음 그대로 마귀 사탄인 것 아니겠느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후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변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일말의 양심이나 이성도 없으면서 감히 공개적으로 떠들어 대고, 사람들에게 "나는 양아치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어!"라고 대놓고 알리는 것이다. 악당, 악질, 양아치가 뭐 뽐낼 게 있단 말이냐? 뭐 자랑할 게 있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자랑한다. 지난날 악질이던 과거를 영광스러운 역사로 여겨 하나님 집에 와서 자랑한다. 하나님 집은 어떤 곳이냐?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성결한 곳이다. 그러니 어찌 네 그 마귀적인 말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염치가 없는 적그리스도는 그것이 마귀적인 말임을 모른 채 좋은 말, 진리로 여겨 자랑하는데, 그야말로 수치도 모르는 몰염치한 작자들이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다! 이런 부류가 마귀적인 말을 할 때, 너희에게 그것을 반박할 적절한 말이 있느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지요. 그가 그런 말을 하며 저를 질책할 때, 저는 분별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구나. 네 그 대응은 틀렸고 증거도 될 수 없다. 너는 그를 지적하여 부끄럽게 해야 한다. 그의 마귀적인 말에 수그러들어서도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되며, 그를 폭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려면 마귀 사탄을 부끄럽게 해야 하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을 해서 그가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할 말이 없게 해야 하며, 고분고분하게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류를 위협하면 되겠느냐? 정죄하면 되겠느냐? 그와 상의하고 그를 달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만약 누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패를 부리려는 겁니까? 당신이 정상적으로 형제자매들의 진리 교제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행패를 부릴 거라면 나가십시오. 하나님 집은 당신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말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무척 대단한 말이다. 하지만 그 부류는 모두 악질이고 악당들이다. 그들이 이런 말을 무서워하겠느냐?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 주겠다. 예전에 내가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요리사였다. 한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세상에서 요리사로 있을 때, 거물급 유명인이며 정계 인사들이 술을 마시러 와도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줄 요리를 할 때면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짝다리를 짚은 채 한 손으로만 요리를 했죠." 그는 손짓을 하며 말했는데, 딱 봐도 아무에게도 승복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 뜻인즉슨, '이방인 중 누구도 내 상대가 될 수 없어. 나는 아무에게도 승복하지 않아.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올바른 기개를 지니고 있지. 보통은 정계 인사들도 거들떠보지 않아!'라는 것이다. 그는 손짓을 하며 말했는데, 무척 득의양양했고 손짓하는 동작은 매우 여유로워 보였다. 그 동작, 그 자세는 딱 봐도 무척 능숙한 것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내 눈에 그는 뽐내려는 의도로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예전 '찬란했던 역사'를 뽐내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려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너라는 사람의 성품은 좋지 않은 것이다." 미소를 띠고 이 한마디만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동작도 즉시 움츠러들었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너라는 사람의 성품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의 본성 본질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했고요.) 그렇다. 그를 화내게 했느냐? 그와 논쟁을 벌였느냐? 그의 존엄을 손상시켰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혈기로 그를 대하며 "썩 물러나십시오! 뭐 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한테 당신의 잘나가던 시절을 이야기하다니, 아직 멀었군요!"라고 말했느냐? 이런 방식을 썼느냐? (아닙니다.) 그런 뜻은 없었다. 그저 "너라는 사람의 성품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한결 조심할 것이다. 이 방식이 어떠하냐? (좋습니다.) 그에게 눈을 부릅뜨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기 싫어한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성품은 더더욱 좋지 않은 것이고,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해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아라. 이것이 바로 정곡을 찌른다는 것이다. 악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겠느냐? 그는 씁쓸해하며 생각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했다고 생각했어. 또 이런 말로 자격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믿기 전의 내 찬란한 역사를 뽐내려고 했지. 그런데 이 일의 실체를 폭로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이건 성품이 좋지 않은 거였어.' 성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듣기 좋게 말하자면 인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까놓고 말하자면 좋은 작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작자가 아니겠느냐? (불량배, 건달, 악질, 악당들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들이다. '좋은 작자가 아니다', '성품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알아듣고, 불량배, 건달, 악질, 악당이라는 단어나 이런 부류를 떠올렸을 것이다. 자기가 이런 부류의 범주 안에 든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서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실체를 폭로한 것이다. "처음부터 당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 뽐내는군요. 부정적인 사물을 긍정적인 사물로 삼아 뽐내다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쭐거릴 생각일랑 버리세요. 여기는 당신이 우쭐거릴 곳이 아닙니다. 우쭐거리고 싶다면 나가세요.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이지, 당신이 위세를 부리는 곳도, 당신의 그런 악행을 떠벌리는 곳도 아닙니다.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물로 하나님 집에서 뽐내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당신에게서 성과를 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악행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 말로 누구를 속이려고요? 세 살배기 어린애를 속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형제자매들에게 공갈을 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를 폭로한 것이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그 말을 듣고 네게 그에 대한 악의가 없음을 느꼈다. 둘째, 네가 한 말이 그의 정곡을 찔렀다. 셋째, 너는 그를 지목하지 않았다. 넷째, 그 말은 사실이었다. 네 말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기에 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수그러들었다. 어째서 수그러들었겠느냐? 네 말이 그를 민망하게 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네 앞에 올 때는 쑥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말한다고 할지라도 장소와 상대를 가릴 것이다. 어쨌든 네 앞에서는 감히 또다시 말하지 못할 테니, 이는 그를 제압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용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류를 대할 때는 방법이 있다. 혈기로 대할 필요도, 사납게 대할 필요도 없이 미소를 띠고 그를 제압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사탄을 폭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굳게 서는 것이라고 한다. 네가 그를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를 간파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부정적인 인물의 대열에 속하며, 너는 그와 반대편에 있다. 그는 네 앞에 오면 너보다 못하다고 느낄 것인데, 네가 그보다 뛰어나고 올바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치고, 가끔 형제자매들에게 폭로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 가지 말을 한다. 어떤 것이었느냐? ("나를 책망하기에 당신은 아직 멀었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 아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느냐? 깡패와 양아치 기질, 사탄이 날뛰는 기세와 사악한 성품을 띠고 있다. 이는 분명 정상인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흉악한 성품을 지닌 부류이며, 이 부류는 악인이자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악한 세력과 폭력, 사탄의 흉악한 세력과 성품을 숭상한다. 이 몇 가지 본질은 그들의 두 가지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성품과 본질이 드러난다.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작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설사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몰염치하고 흉악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시해도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것이고, 인성 안에 올바른 일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수시로 입에 달고 다니며 일 처리와 처신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과 한패인 적그리스도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말의 잘잘못을 알지 못했고, 어릴 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든 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젊고 무지할 때, 막 사회와 사람들을 접했을 때는 이런 말을 좋은 말, 기개 있는 말로 여긴다. 너무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양심과 이성을 좀 갖춘 것이다. 이 양심과 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이 사람은 그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시비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알며, 언행과 일 처리, 처신에 선택과 마지노선이 있다. 이런 자는 사탄도, 악인도, 짐승도 아니다. 처신에 준칙과 원칙이 있으니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최고 명언과 인생 격언, 자주 하는 말 등이 모두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이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라 사람들이 점점 더 분명히 간파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가끔, 혹은 자주 듣는 그런 말들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말로 간주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그 성질을 규정할 수도 없다. 성질을 규정하지 못하는데 네가 이해하는 진리와 네가 아는 시비, 옳고 그름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들이 네 입장에 영향을 주겠느냐? 네 관점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 정상적인 패괴 표출이고 무엇이 적그리스도 본질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없다. 이러한 본질을 분명히 분별하고, 정확하게 성질을 규정하고 구분하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등 각 측면의 모습과 표출, 성품, 본질을 모두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사람과 일을 더욱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평범한 패괴나 정상적인 표출로 착각할 것이며, 가끔은 평범한 패괴 표출을 적그리스도 본질이 드러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는 혼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리더이고 네 담당 범위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네가 그는 남기고 패괴 표출이 있는 평범한 형제자매를 출교한다면, 이는 잘못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별에 관해 아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책망과 훈계를 마주할 때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모습은 결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들은 절대 한두 마디 듣기 거북한 말을 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조금 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저지르고 더 듣기 거북한 말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악한 일, 하나님 집 사역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 몇 마디를 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일들을 저질러 그들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의 행동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행동이고, 그들의 성품 또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지 지금 너희가 교제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더 큰 교란을 일으키기 전에 형제자매들이 분별해 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형제자매들이 생명 진입에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집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미리 발견하여 해결하고 피하고 만회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교제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마주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건의를 하든 그의 지위나 체면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는 교회에서 그 상대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흑백을 전도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도 하지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한 악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만약 누가 그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 그 상대를 죽도록 괴롭힐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했지요.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저희가 그의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고하려고 하면 보고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당시 저희는 진리를 갖추지 못해서 감히 반박하지도, 제때 보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사역에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 출교당했습니다.) 이 일에서 너희는 굳게 서서 증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 집 사역에 손해를 입혔으니 책임이 있다. 지금 보면, 그 사람을 출교한 것은 옳은 일이며, 그에게 억울한 일은 아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류를 만나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번 하나님 교제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측면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왜 적그리스도를 출교하느냐? 남겨 두어 봉사하게 하면 안 되느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가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추구할 리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구나. 적그리스도는 악인이고 사탄에 속하는 자이다. 그는 회개할 리 없기에 출교하는 것이다. 사람을 출교하는 것은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참고 또 참으며, 그들에게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지를 남겨 준다. 좋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경솔한 출교 조치로 한 사람을 망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은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을 완전히 간파하기 전까지, 그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 집에서는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푼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사탄의 종 역할을 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망가뜨린다. 그에게 은사나 재능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본분을 이행할 리 없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리 없다. 설사 적그리스도에게 쓸 만한 구석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긍정적인 공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방해, 교란, 파괴 외에 다른 좋은 일은 안 한다. 네가 그를 남겨 두고 관찰하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그가 회개할 리 없으니 결국 그에 대해 취할 해결 방법은 출교다. 출교하기 전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죽어도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진리를 적대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출교하는 것이다. 만약 좋은 사람이라면 출교하겠느냐? 만약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를 출교하겠느냐? 기껏해야 본분을 교체하고, 영적 생활을 하며 반성하게 하지 출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 집에서 출교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집에 남으면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일은 하지 않고 늘 교란하고 방해하며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할 것이다. 그가 어느 교회에 있든 그의 교란으로 흩어진 모래알처럼 단결력이 떨어져 사역은 정체되고, 대다수 사람은 매우 의기소침해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며, 심지어는 믿기 싫어져 더 이상 본분을 이행 못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교란이 원인이다. 적그리스도를 해결하고 제명하고 출교해야만 그 교회에 희망이 생기고 교회 생활이 정상이 되며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지요."라고 말하는데 듣기에는 참 좋은 소리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느냐? 너희가 유심히 살펴보아라. 출교된 적그리스도, 악인 중에 나중에 자신을 인식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자가 있더냐? 회개한 자가 있더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 몇 년이 흘러 다시 만나도 여전히 그 모양이다. 게다가 그때의 일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며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해명한다. 성품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그를 다시 받아들여 교회 생활로 복귀시키고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그는 여전히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할 것이다. 바울처럼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지난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는 진리 추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원래 가던 길, 적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출교하는 근거이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사악한 본성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승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리더 일꾼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리더 일꾼을 거짓 리더, 거짓 일꾼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마치 그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말이다. 그는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관점을 고집한다. 누군가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서 그를 진심으로 승복하게 할 수 없다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책망 훈계가 소용없다고 진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관점이다. 그는 늘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기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와 동시에 그를 책망 훈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어떤 성품을 표출하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 안에 있는 주된 한 가지 성품은 흉악함이다. 흉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악랄하다는 뜻이다. 그는 순종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책망 훈계하는 사람을 정죄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라고, 늘 책망과 훈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농락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 그를 책망 훈계하면 상대에게 반항하고, 상대를 못살게 굴려고 한다. 또 누가 그의 결점이나 패괴를 지적하고, 진리와 하나님 뜻을 교제해 그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면 그는 상대가 자신을 못살게 굴고 못마땅해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속 깊이 상대를 미워하고, 복수로 상대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하려는,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신을 책망하고 폭로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럼 어떤 부류가 이런 흉악한 성품을 지녔겠느냐? 악인이 그러하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악인이다. 그래서 오직 악인과 적그리스도만이 이런 흉악한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 것이다. 흉악한 사람은 선의에서 비롯된 그 어떤 사람의 격려, 질책, 가르침이나 도움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치심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극단적으로 상대를 적대시하고 증오한다. 심지어는 복수심도 생긴다.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를 책망하고 폭로하며 "당신은 그동안 제멋대로 본분을 이행했습니다.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뽐내기만 했으며, 지위를 위해 사역했죠. 본분도 엉망으로 이행했고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겁니까? 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겁니까? 형제자매들이 진리를 교제해 주면 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계속 당신 뜻대로 하는 거죠?"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 몇 개의 '왜'와 자신의 패괴 표출을 폭로하는 몇 마디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왜냐고? 왜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랬지! 무슨 근거로 나를 책망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가 멋대로 행동하면 당신이 날 어쩔 건데! 이 나이가 되도록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누가 감히 나를 훈계해? 나를 훈계할 만한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당신 따위가 나를 훈계하겠다고?' 그는 증오심을 품고, 상대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으려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주판을 굴린다. '나를 책망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세력이 있나?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그를 편들어 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그를 혼내고 괴롭히면 교회에서 나한테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방법이 있어. 그 사람한테 직접 복수하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벌이는 거야. 그 가족한테 손을 써서 그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해 주자. 그래야 내 분이 좀 풀릴 것 같아. 복수해야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나는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괴롭힘 당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는 말도 있잖아. 체면을 세우려면 분발해야 해. 감히 나를 폭로하다니, 이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인물로

취급을 안 하니 본때를 보여 주지. 끝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어.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더 독한지 겨뤄 보자고!' 보아라, 단순한 폭로의 말 몇 마디가 적그리스도를 격노케 해서 이렇게 큰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이토록 대대적으로 복수를 하게 했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그가 누군가를 증오하여 복수하게 된 것은 그들 사이에 원래부터 원한이나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상대가 그의 잘못을 폭로했기에 원한을 품은 것이다. 이는 누구든, 예전에 그와 어떤 사이였든 그를 폭로하는 순간 그의 원한을 사고 그의 복수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게 누구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리더 일꾼이든 평범한 하나님의 선민이든 그를 폭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한다. 심지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다. "누가 나를 책망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거나 내 과거를 폭로하여 내가 하나님 집에서 출교되거나 복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끝장을 볼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감히 나를 건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이렇게 지독한 말을 한다. 그들이 하는 이 독한 말은 상대를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해 보는 소리도 아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폭로하거나 처리할 엄두를 못 낸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는 점입가경이 되어 더더욱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계속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게 된다. 재앙은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형제자매가 그의 악행을 폭로하거나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복수를 하려고 형제자매를 큰 붉은 용, 사탄 정권에 넘기기도 한다. 이는 흉악한 성품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흉악하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사탄의 종으로, 교회를 교란하러 온 자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악마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쳐 놓기만 하는 자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선민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적그리스도 악마를 형제자매로 대한다면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오직 눈먼 자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만약 적그리스도 부류를 형제자매로 여겨 양육하고 붙들어 주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겨 발탁하고 중용한다면, 그 리더 일꾼은 큰 악을 행한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악에 동참하는 것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그런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의 공범자로, 적그리스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 제명하고 출교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반항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증오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누구든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 자신의 실체를 까발리고 자기 실상을 폭로하는 사람을 마음속 깊이 증오한다. 어느 정도로 증오하겠느냐? 이가 갈리고, 눈앞에서 없애 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한다.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할 정도로 말이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는 자신을 폭로하는 대상이 누구든, 자신을 폭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존재라면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며, 자신을 책망한 상대를 눈앞에서 없애 버리지 못해 안달이 난다. 그는 상대가 잘되는 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한다. 만약

그 사람이 죽거나 화를 입는다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으면 마음이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언짢아할 것이다. 손을 써서 상대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몰래 저주한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징벌하고 응보를 내려 달라고, 자기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한다. 증오심을 품은 적그리스도는 일련의 행동을 한다. 그 행동에는 복수와 저주가 포함되며, 당연히 증오에서 비롯된 누명 씌우기나 중상모략, 정죄 등도 포함된다. 누가 그를 책망하면, 그는 뒤에서 상대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한 말이 옳아도 그는 틀렸다고 할 것이고, 네가 한 긍정적인 일은 부정적인 일로 왜곡할 것이다. 그리고 배후에서 이를 퍼뜨리며 교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어리석고 일을 밝히 알지 못하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여 자기편에 세우고 자기를 위해 입을 열게 할 것이다. 그를 책망한 사람은 분명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 나쁜 짓을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오해하게 한 다음, 함께 그 사람을 저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 생활과 사람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한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기를 책망한 상대가 잘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모두가 그 사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적그리스도도 있다. "당신이 나를 책망해서 곤란하게 했으니, 나도 당신을 편하게 해 줄 수는 없지. 다른 사람에게 책망당하고 버림받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 주겠어. 당신이 나를 대한 방식 그대로 돌려줄 거야. 나를 곤란하게 한 이상, 당신도 발 뻗고 잘 생각은 하지 마!"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했을 때 리더 일꾼이 그를 찾아가 대화하며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면서 도와주고 붙들어 주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다고 날조한다. 사실 리더가 방금 한 게 그런 사역이었지만, 그는 돌아서자마자 그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중상모략한다. 이것이 흉악함 아니겠느냐? 이런 악인, 적그리스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 잘못, 사악하고 악독한 일을 긍정적인 사물,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 사역에 아무리 큰 손실을 끼쳐도 인정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얘기가 나오면 그저 대충 몇 마디 언급만 하고 넘어갈 뿐이다. 반대로 그의 눈에는 그 일로 그를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흑백이 전도된 것 아니겠느냐?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리더 일꾼에게 책망받을 때 이렇게 반박하기도 한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우매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리더 일꾼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잘해서 바로 일깨워 주고 관리했다면, 하나님 집의 손실도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리더 일꾼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겠죠." 이는 또 적반하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적반하장이 바로 흑백을 전도한 것이고, 복수의 일종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인성이 너무도 흉악하다. 만약 네가 그를 책망하거나 폭로해서 그가 너를 증오하기라도 한다면 그는 독사처럼 너를 물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떨쳐 내려 해도 떨쳐 낼 수 없고, 뿌리치려 해도 뿌리칠 수 없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마주하면 두렵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책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독하기가 마치 독사 같아서 저를 감싸면 저는 끝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은 분량이 매우 작은 못난이이지,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도 없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가 너를 협박하고 네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두렵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바로 형제자매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쫓아낼 때까지 폭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가 악인의 몰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면, 그가 악을 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를 잡은 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동적인 행동으로, 이미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악인의 몰골, 그 음험하고 악독한 성품을 드러낼 때, 그가 막 일을 벌이려고 할 때 처리하여 해결하고 제명하거나 출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적그리스도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그를 폭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네가 적그리스도에게 약점을 잡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설마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임을 모르는 것이냐? 설령 적그리스도가 정말 네 패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트집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언제나 진리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과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사람이 한순간의 패괴 표출이나 가끔 저지른 과오를 이유로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처리하는 대상은 늘 교란하고 악을 행하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법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설령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처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집에서 시정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정의감을 갖춘 좋은 사람을 절대 제명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사람은 늘 적그리스도에게 약점을 잡혀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버림받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냐? 너는 적그리스도에게 약점을 잡혀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째서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한 증거를 잡아 그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너에게 동조하고 너를 옹호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네 선행과 정의로운 행동을 기억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의 부탁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이다. 그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기는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사탄 악마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체험 간증이자 이기는 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진리 실제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진리를 베풀어 주고, 너를 이토록 오랜 기간 인도하고 네게 이토록 많이 공급한 것은 네가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라는 뜻이었는데, 결국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 너는 간이 작아 움츠러든 채 머리를 감싸고 도망쳤다. 그러니 너는 못난이이다. 너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은 너를 혐오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너는

일어나서 사탄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폭로하며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정리하여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탄을 이겼다고, 사탄의 운명을 끝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자이다.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보복이 무서워 타협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다. 봉사자보다도 못한 못난이다. "적그리스도는 몹시 지독해서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복수하면 저는 어떡합니까?"라고 말하는 겁쟁이가 있는데, 그것은 헛소리이다. 적그리스도의 보복이 두렵다면,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이냐? 네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 덕분 아니더냐?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가 너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단결하여 그를 폭로하고 처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냐? 어째서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은 못난이로,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자식이나 끌어안고 살아라.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들을 해칠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어떻게 마주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굳게 서서 증거해야겠느냐? 어떻게 사탄,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야겠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관자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인지는 적그리스도가 교란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중도파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보인다.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괴롭힘이 무서워 마음속으로 연신 '어쩌지?'를 되뇌는데, 이 말은 네가 해야 할 질문이 아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 본분을 이행하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모두 폭로하여 형제자매가 분별할 줄 알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기 안위에 관한 것은 자신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 가족이 말려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저하지 말고 자기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느라 자기 본분과 자신이 굳게 서서 해야 할 증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맞다. 우선 너는 굳게 서서 증거하며 적그리스도, 악인과 끝까지 싸워 하나님 집에서 그가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 그가 힘쓰길 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얌전히 힘쓰게 하고, 그가 힘쓰길 원하지 않으면 다 같이 손잡고 그를 출교해 하나님 집에서 교회 사역을 교란하거나 방해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굳게 서서 해야 할 증거이다. 그 밖에 가족과 네 목숨은 모두 하나님 손에 있고 사탄은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인류는 어떠하겠느냐?" 너는 이 말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 악인과 싸우는 이 일에서 네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진실한 믿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믿으며 그저 막연하고 공허하게 믿을 뿐이라면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너는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악을 행하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도록 내버려둔다.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타협하고 용서를 빌면서 감히 나서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다. 너는 탈영병이 되었고, 무골호인, 방관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은 물음표이니 너무나 보잘것없다! 너는 적그리스도와 악인이 하나님 집에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 모든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 선민의 이익을 팔아넘기면 너는 배신자이자 유다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가 늘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는 것에 관해 교제하고, 분별과 인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진리를 분명히 교제하여 사람들이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폭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은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교란당하지 않게 되고,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처세 철학이 있고,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않으며, 무골호인 역할이나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거나 선을 긋지 않는다. 또한, 두루뭉술하게 중용의 길을 걸으며 자기 이익을 지키고, 악인과 적그리스도라는 이 마귀들을 하나님 집에 남겨 두어 후환을 키우면서 그 마귀들이 함부로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보호막이자 적그리스도의 공범자에 속한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너는 적그리스도의 악행에 동참한 것이니 정죄받을 것이다. 너는 그를 방임하고 비호했으며, 그가 네 곁에서 마음대로 날뛰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악에 동참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부 거짓 리더, 무골호인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공범자라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을 보고도 폭로하거나 선을 긋지 않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이자 공범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탄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보호하며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런 자는 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항상 극도의 반발심을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감언이설로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한다. 이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진리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사탄 본성을 완벽히 드러낸다. 그들은 순전히 사탄의 부류에 속한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든 그의 성품과 본질은 오롯이 드러난다. 특히 하나님 집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에게 정죄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속한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이자 악마라는 사실을 십분 증명한다. 그래서 그는 책망과 훈계 앞에서 절대 심복하지 않고, 달갑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 외에 책망과 훈계를 증오하며, 그를 책망 훈계한 사람을 증오하고, 그의 본성 본질과 악행을 폭로한 사람을 증오한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폭로하는 것은 곧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을 폭로한 사람과 힘을

겨루고 싸운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책망, 훈계하는 어떤 사람도 절대 좋게 대하지 않으며, 관용이나 포용을 보이지도 않고, 나아가 고마워하거나 칭찬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누군가 그를 책망 훈계해서 그의 존엄과 체면을 잃게 된다면 그는 상대에게 증오심을 품고 기회를 만들어 복수하려 든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증오가 얼마나 크냐! 그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오늘 네가 나를 책망 훈계했어. 좋아. 이제 우리는 원수가 된 거야. 앞으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이 원한을 갚지 않으면 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빈다면 용서해 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끝장을 보겠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선의의 책망과 훈계, 진심 어린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을 모욕의 상징,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여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성품이다. 너희가 접한 사람 중에 책망과 훈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보복하는 악인, 적그리스도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복하더냐? 보복의 수법이 악랄하지 않더냐? (악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교회 리더에게 그의 모습이 폭로되자 그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글귀와 도리만 읊어 댄다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간다고 교회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가 그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러 가자, 처음에는 위장하던 그가 계속 폭로당하니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 집에 오죠." 그의 뜻인즉슨, 저희가 계속 그를 폭로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악한 몰골이 드러난 거였죠.) (저도 적그리스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서신으로 그를 고발했는데, 그가 그 서신을 보았을 때 마침 그 자매의 주거지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의 주요 사역자들을 모두 소집해 놓고 말했지요. "왜 그 자매가 투서를 쓴 후 주거지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드러내실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는 또 선동의 말을 늘어놓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그 자매에게 칼끝을 돌렸습니다. 그 자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결국, 그 자매는 교체되어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그 투서는 방치된 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앞뒤로 맞춰 보고 그가 저희 각자에게 한 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몹시 음험하고 간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결국, 모두가 교제를 통해 마침내 그를 분별하고, 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겠구나.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은 전부 악인이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란하는 것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나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쁘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에 잠입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못한 탓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섞여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가 분별력이 생기고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간파하는 법을 배워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이 정말

사악하고, 흉악하고, 악독하다고, 또 사탄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고 하는데, 네가 볼 수 있느냐? 사탄이 영계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로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사탄의 사악한 점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사탄이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싫어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너에게는 그것이 그저 말뿐이고, 진정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 너무나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아서 대입해 볼 수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를 접촉한 사람은 사탄의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 진리를 싫어하는 본질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사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투철하고 실제적이 된다. 사람이 접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물이나 사례가 없다면, 사람의 소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저 막연하고,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사람은 실제로 적그리스도, 악인을 접촉할 때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알 수 있고, 사탄의 본성 본질을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탄이 환생한 것이고, 바로 살아 있는 사탄, 살아 있는 마귀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악인을 접촉하면 이런 효과에 이를 수 있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로 환생한 사탄의 육체적 기능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나쁜 일과 악업을 행할 수 있으며, 그의 모든 행위는 그렇게나 사악하고 음험하다. 그러니 영계의 사탄이 행하는 악은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악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악보다 백배, 천배 많다. 그렇기에 사람이 이 악인, 적그리스도들을 접하면서 배운 공과는 분별력을 키워 사탄의 몰골을 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사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황당무계한 논리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악함인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증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버리고 도태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문제들을 도리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용없다. 반드시 많은 일을 체험해야 한다. 특히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미혹, 교란을 체험하고, 진실한 분별력을 갖춰야 이 수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얻으려는 것에 관해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진리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임을 더 확신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우게 하며, 당연히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와 동시에 각 부류 사람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마주하면 감히 폭로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한 채 독사라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숨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자들은 너무 못나서 공과를 배울 방법이 없고, 분별력을 키울 수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는 않고 전부 혈기로 대하며,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분별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숱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싫어하지만,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마구 우롱당한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참고 견디며 당하기만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해도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사람의 책임과 본분을 잃은 것이다. 요컨대, 악인,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제멋대로 굴 때, 각 부류의 사람 또한

드러난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분별력과 식견을 키우고 교훈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겠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부류를 구원하지 않으며, 그저 적그리스도를 이용해 봉사하게 하고, 봉사가 끝나면 드러내고 도태시키며 마지막에는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그들이 악인이고 사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패괴 성품이 있기는 해도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과오가 있어도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폭로와 지적을 올바로 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전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공과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며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사람이다.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나중에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아도 좋다. 그들의 본질에 근거하여 해부하고 교제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이 분별력을 키우게 하여라. 분별력을 키우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더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한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벌이는 악행을 가로막고 제약하며, 그들이 교회나 본분 이행의 중요한 장소에서 방해하고 교란하여 교회 사역에 어떤 손실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결박한다고 한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아도 암암리에 적잖은 악을 행한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한편, 리더 일꾼이 진리를 교제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로막고 교란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함부로 판단한다. 심지어는 리더 일꾼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고, 교회 사역에 교란을 주며,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 성과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는 큰 악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악이야말로 큰 악임을, 극악무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결박당하고 제약받아야 할 대상이다.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출교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만약 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굴고 함부로 어떤 구호나 논조를 대면서 형제자매들을 통제하고 협박하거나 미혹하고 오도하는데도 리더 일꾼이 방임한 채 행동하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미움을 살까 두려워 그를 폭로하고 제약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제멋대로 우롱당하고 교란된다면, 그 교회의 리더는 무골호인이자 폐물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반면, 한 교회의 리더가 적그리스도, 악인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들이 일어서서 적그리스도, 악인을 폭로하게 하고, 마귀들을 전부 제명해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킨다면, 이는 마귀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교회의 리더는 기준에 맞는 리더, 진리 실제를 갖춘 리더이다. 만약 한 교회에서 교란하던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들에게 분별되어 버림받은 후,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미친 듯이 복수하고 억압하고 정죄하는데도 교회 리더가 행동하지 않고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면, 그런 리더는 거짓 리더, 폐물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교회 리더가 돼서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거나 제약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며,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마음껏 활개 치고 나쁜 짓을 저지르게 둔다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지켜 주지도 못하며, 나아가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키지도 못한다면, 그런 리더는 폐물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만약 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흉악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데도 리더가 겁을 먹고 폭로하거나 책망하거나 제약하거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며 불량배 짓을 하고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둔 바람에 교회의 숱한 사역을 마비 상태, 정체 상태로 만든다면 그 교회의 리더 또한 폐물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만약 한 교회의 리더가 보복이 두려워 한 번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제약하지도 않는다면, 그리하여 형제자매들의 교회 생활과 생명 진입이 심각하게 가로막히고 교란되고 해를 입는다면, 그 교회의 리더 역시 폐물이니 도태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계속 리더를 하도록 옹호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너희는 이런 리더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아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하며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왕권을 잡는데 그를 제약할 수 있습니까? 그를 폭로할 용기가 있나요? 처분을 내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고 당장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지키면서 적그리스도가 두렵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을 적그리스도, 악인에게 넘긴다면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며,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폐물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짓 리더는 폭로하고 교체해야 한다. 이런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인 앞에서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굴복하고 타협하고 용서를 빌면서 구차하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폐물이고 배신자이니 버림받아야 한다.

이어서 좀 더 교제해 보자. 적그리스도에게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앞날과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가 드러난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 집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결심한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자고, 절대 일을 그르치지 말자고, 절대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상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절대 리더에게 들키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일만 보여 주자고 말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도 그의 출발점과 걷는 길이 옳지 않고 그가 명리와 지위를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할 뿐 진리를 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늘 원칙을 어기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심지어 늘 숱한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늘 원칙을 어기면서 일하고 과오를 남기는 것은 이 부류에게 가장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다. 물론, 그들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책망과 훈계이다. 그들은 일부 적그리스도들이 엄한 책망과 훈계를 받아 드러나고 도태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런 일을 보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드러나고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조심해야 해. '조심해서 몰아야 배를 오래 몬다.',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다.'라는 말도 있잖아. 반드시 이런 원칙대로 행해야 해. 잘못을 범하거나 사고를 치지 않도록 시시각각 주의해야 한다고. 패괴와 속셈을 통제하여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말자. 일을 그르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얻은 거라고!'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무시키고 격려한다. 그들은 일을 그르치면 훗날 복받을 확률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의 계산과 생각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이런 생각과 계산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 이 한

가지에 근거한다면 그가 책망과 훈계 앞에서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앞날과 운명입니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앞날, 운명과 연관시키는데, 이는 그의 사악한 본성과 관계가 있다. 그는 생각한다. '이렇게 나를 책망하는 건 나를 도태시키고 버리려는 것 아닐까? 하나님 집에서 나한테 이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냐? 나를 못 믿는 것 아닐까? 나를 대신할 만한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아냐? 만약 도태된다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하는 어조를 봐서는 나한테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면서 순순히 말을 들어야겠어.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지.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해. 매일 일을 처리할 때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긴장을 풀지 말고 경계하자. 이번에는 실수로 빈틈을 보여 책망과 훈계를 받았지만, 말투가 심각한 건 아니잖아. 보아하니 문제가 크지 않으니, 아직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나를 교체하겠다는 것도, 도태시키거나 출교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냐? 진심으로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냐? 정말로 개과천선하려는 것이냐? 정말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결심이 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느냐?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다. 그 희망이 남아 있는 한, 빈틈을 보여서도,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서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일을 알려서도 안 된다. 자기 내면의 원한을 남들이 알면 안 되니 숨기고 꽁무니를 사리며 처신해야지 사람들에게 간파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에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 그럼 그의 일 처리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며,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주변 모두가 그를 완벽한 사람, 문제나 결점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는 법도 없는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장한다. 위장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데,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십중팔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늘 원칙에 어긋나기에, 뜻밖에 다시 책망을 받게 된다. 이번 책망에 그는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크게 고생하는데 왜 나를 책망하는 거야? 복받는 이런 좋은 일이 왜 아직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아직도 이렇게 요원한 거냐고. 이 고생이 언제쯤 끝날까?' 다시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그는 '만약 내가 또 건성으로 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한다면 도태되고 출교되겠지. 그럼 앞날과 운명을 잃는 것 아니겠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는 거듭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마음속으로 '참자! 참아! 참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고생과 억울함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 더 버텨야 해. 마지막까지 버티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테니까! 누가 어떤 듣기 힘든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것으로 치고,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또 아무리 들어 봐도 자기는 종착지가 사라진 것 같다고, 이번 책망과 훈계는 정죄된 거라고, 희망이 없어졌고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일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악인, 적그리스도들이 더 참을 수 있겠느냐? (참지 못합니다. 그는 복받으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단순히 참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겠느냐?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 (일을 벌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벌이겠느냐? (소극적인 것을 퍼뜨리고, 분별력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자기편에서 자기를 위해 불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일을 벌이려고 한다.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양성하거나 중용하지 않고 도태시켜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도 복을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여기에서는 나를 받아 주지 않아도 어딘가 나를 받아 줄 곳이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희생양 두 명은 끌고 가겠어. 당신이 모질게 굴면 나는 불의로 대응할 거야! 당신은 나를 도태시키려고 했잖아? 당신이 한 말에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체면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진리를 증오하는 본성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열정, 헌신, 버림,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도 복받으려는 희망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라진다.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그의 열정과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부 거짓이고 기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교체되고 도태되는 순간, 체면을 집어던지고 원망을 퍼부으며, 그의 귀신 몰골을 드러낸다. 어떤 귀신 몰골이겠느냐? 지금까지 그의 본분 이행은 결코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진실을 말하면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목적이 아니었다면, 훗날 복을 받고 큰 영광을 얻으려는 게 아니었다면, 내가 분토보다 못한 당신들과 함께 지냈겠어? 당신들이 나와 함께 지낼 주제나 되나? 당신들이 나를 양성하거나 발탁하기는커녕 도태시키려 들다니, 나를 도태시키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알게 해 주겠어. 나를 도태시키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보여 주겠다고!"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이런 마귀적인 말을 내뱉는다. 체면을 집어던지는 순간, 그의 악독한 본성과 흉악한 성품이 드러난다. 그는 관념을 유포하는 한편,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분량이 작아 분별력이 없으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수시로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지는 사람들,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유한다. "당신이 나를 도태시키면, 희생양 몇 명을 끌고 가야겠어!"라는 자기 말처럼 말이다. 이는 사탄의 본성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정상인이 이렇게 행동하겠느냐? 보통 패괴 성품을 지닌 사람은 교체될 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지만, 양심이 있기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잖아.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행동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어떻게 규정하실지는 하나님 일이니,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는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는 것 아니겠어? 길을 잘못 들었다면 마땅히 징계받고 처벌받아야지. 이건 뭐라 할 게 아니야. 지금 괴로운 건 내 자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하고, 진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패괴 성품에 따라 제멋대로 굴었다는 거야. 그러니 도태되어도 마땅하지. 그저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걷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려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한다. 물론 그 안에는 진리 실행의 성분이 많지 않지만, 양심을 갖췄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흉악한 본성이 있어서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자신의 앞날과 운명이 위협받거나 박탈당할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관념을 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며, 그와 같은 불신파를 회유하여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기를 선택한다. 심지어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나 과오, 그리고 하나님 집 사역과 재물에 초래한 손실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처분을 내리고 도태시킬 때, 그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을 한다. 어떤 말이겠느냐? ("여기에서는 나를 받아 주지 않아도 어딘가 나를 받아 줄 곳이 분명 있을 거야."라는 말입니다.) 이는 또 하나의 마귀적인 말 아니겠느냐? 그것은 정상 인성을 지니고 염치를 알며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마귀적인 말이라고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힘들고 지위와 명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특히 자신의 앞날과 운명이 박탈당할 것 같다고 느낄 때 표출하는 갖가지 흉악한 성품의 모습이며, 동시에 적그리스도 불신파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책망, 훈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제멋대로 굴면서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과연 그것이 도태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는 어떤 책망과 훈계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든, 리더 일꾼에게서 온 것이든 아니면 형제자매에게서 온 것이든 전부 악의가 없고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굴면서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할 때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긍정적인 사물이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반면, 과오를 저질러 책망과 훈계가 닥쳤는데도 받아들이기는커녕 반항하며, 증오와 복수심을 품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중 누가 책망과 훈계를 겪어 보지 않았겠느냐? 책망과 훈계가 닥쳐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반항하며, 심지어는 죽느니 사느니 소란을 피우고,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기며 본분을 팽개치고 행패를 부리고 남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 오직 악인만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고, 오직 악인만이 책망과 훈계를 혈기가 있는 사람이 그를 대하는 그릇된 방식으로 여긴다. 물론, 하나님 집에서 말하는 책망과 훈계는 모두 정당하며, 전부 교회 사역과 개인의 생명 진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 긍정적인 사물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부합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늘 자신의 명예와 지위, 존엄을 지키는 한편, 그것을 자신의 이익, 특히 그의 앞날이나 운명과 연관 짓는다. 만약 책망과 훈계가 그의 명예, 지위, 존엄에 불리하면 그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또 책망과 훈계가 심해서 그의 명예, 지위, 존엄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앞날과 운명까지 위협한다면 그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누가 책망하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하며, 책망과 훈계 속에서 공과를 배워 진실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반발하면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이며, 진리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대표하기도 한다.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일에서 사람이 최소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책망과 훈계는 사람이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날마다 마주하고 늘 겪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떠날 수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책망과 훈계가 그 사람의 앞날과 운명에 관련되느냐?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책망하고 훈계하겠느냐?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맞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이다. 한 사람에 대한 책망과 훈계는 일종의 징계이자 채찍질이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도움과 구원이기도 하다. 책망과 훈계는 너의 잘못된 추구 방향을 제때 바로잡게 해 줄 수 있고, 현재 네게 존재하는 문제와 네가 표출하는 패괴 성품을 제때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다. 어쨌든 책망과 훈계는 네가 잘못을 인식하여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네가 치우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제때 너를 구해 줌으로써 네가 큰 화를 초래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자 구원 아니겠느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망과 훈계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그는 책망과 훈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누가 책망하고 훈계하든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혼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거부한다. 그들은 책망과 훈계 속에서 공과를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거나 진리를 구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것임을 실증한다.

2020 년 5 월 2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9)

2. 적그리스도의 이익

4) 앞날과 운명

(4)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은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각종 모습 중 제 9 조인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 항목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익을 해부하는 것을 주요 교제 주제로 삼았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익 제 4 조 중 네 번째 주제인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해 교제하고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해부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봉사자'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이 호칭을 마음속으로 거의 받아들였고, 주관적인 바람 면에서도 이미 이 호칭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봉사자라고 말하면, 대부분 달가워하지 않고 원치 않으며 억울해하고, 이런 호칭으로 불리거나 봉사자가 되는 것을 그리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비록 사람이 주관적으로는 '봉사자'가 뭔가 나쁜 호칭이 아님을 인정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을 보면 봉사자라는 호칭을 차별하고 적대시하며, 심지어는 달가워하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봉사자라는 호칭을 어떻게 보든,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봉사자가 되든, 아니면 그 안에는 숱한 불순물과 바람이 있든 오늘은 먼저 과연 봉사자란 무엇인지, 하나님 눈에 봉사자라는 호칭은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봉사자는 어떤 본질을 갖는지, 하나님은 '봉사자'라는 세 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의 시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교제함으로써 모두가 마음속으로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개념을 갖게 하겠다.

① '봉사자'의 정의와 유래

'봉사자'라는 세 글자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란 것이다. 이 호칭을 지위로 판단하자면, 잠시 이용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약 한 사람이 봉사자로 간주되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계에 종사한다면, 그가 그 업계나 일에 종사하는 것은 잠시일 뿐, 길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임시로 그에게 힘을 좀 쓰게 하고, 그 업계나 일에 봉사하게 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앞날도 미래도 없고, 어떤 혜택도 없다. 또 아무 책임도 질 필요 없이 그저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배정된 일을 마치면 더는 필요가 없으니 보수를 받고 떠나면 된다. 어쨌든 이는 임시직으로,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의 문자적 의미이다.

'봉사자'라는 세 글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봉사자는 다른 말로 '계약직', '임시직'으로 불리며, 어떤 일이나 업계에서 임시로 봉사하고 힘을 쓰는 대상이다. 그는 그 일에 그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만 관계가 있을 뿐, 그 기간이 지나면 그의 가치는 사라진다. 그가 필요하지 않고, 그의 사용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가치는 그 기간에 이미 다 발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봉사자'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의미이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가운데 진리에 부합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느냐? 정상 인성과 이성에 부합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피조물로서 인식해야 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호칭을 대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곤혹스러워하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너희 중에는 대학생, 대학원생도 있고, 박사나 교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 일에 관해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진리의 차이이다.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봉사자'라는 세 글자를 인식하며, 이 세 글자가 한 단어, 한 부류, 한 집단이 될 때 그 부류의 본질과 모습, 그리고 그 부류가 전 인류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리의 관점, 한 피조물의 관점으로 이 세 글자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의 이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네가 이해한 이 세 글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패괴된 인류와 이 사회, 인류의 지식으로 이 세 글자를 이해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지식이 진리와 일치하느냐, 아니면 적대하느냐? (적대합니다.) 그럼 네가 이 세 글자를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할 때, 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합하는 편에 서 있겠느냐? 틀림없이 네 지식과 머리로 이 세 글자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너는 부지중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네 지식으로 이 세 글자를 이해할 때, 네가 이해한 것은 어느새 너로 하여금 이 세 글자에 거부감과 반감, 혐오, 심지어는 증오심까지 품게 한다. 거기에 순종이 있겠느냐? 참된 수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단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이 안 좋은 단어를 뭘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예를 들어 면류관이나 상, 복을 받고 천국이나 천당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징벌받지 않는 것, 장자가 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단어라면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인지상정이며,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바죠. 하지만 악인, 적그리스도, 징벌받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봉사자'라는 단어가 중성적이라고는 하나,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옳지 않습니다.) 언제 옳지 않음을 알았느냐? 방금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너는 조금 전에야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럼 그전까지 네가 표면적으로 봉사자라는 호칭을 받아들인 것 같고, 주관적으로 이미 받아들였다고 한 것은 진실이겠느냐, 거짓이겠느냐? (거짓입니다.) 그것은 분명 진실이 아니고, 너는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았다. 거기에는 거짓과 위장, 어쩔 수 없는 마음, 일종의 부득이한 마음이 들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진실한 반응과 모습에 관해 교제했다. 이는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관점, 이해를 100% 대표하며, 사람들이 이 호칭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차별하고 반감을 가지며 마음속 깊이 거부한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사람은 모두 봉사자가 되는 것을 멸시하고, '봉사자'라는 세 글자를 멸시하며, 봉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호칭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이자 태도이다. 그럼 이제 봉사자가 하나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봉사자'라는 세 글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호칭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유래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인류의 언어로 이해했을 때, '봉사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임시직'이란 것으로, 잠시 어떤 업계나 일에 봉사하는 사람, 임시로 필요한 사람이란 의미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에서, 또 하나님 집에서 봉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 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집과 하나님의 사역 장소에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이나 경륜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이방인이다. 하나님 눈에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패괴 성품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본성 본질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부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만큼 따라가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 아는 정도에 그친다. 또 그저 알기만 할 뿐, 결코 이해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모두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한 각각의 사역에 협력한다. 이것은 주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전히 수동적인 행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동적'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네게 그 사역을 시키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모르며,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집에 오면 기계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의 어떤 부분이겠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여 심판하시는 대상이자, 말씀하시는 대상입니다.) 이는 그중의 한 항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은사는 포함되느냐? (그렇습니다.) 정상 인성의 사유도 포함되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정상 인성의 사유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 만약 양심과 이성이 없다면, 봉사자가 될 자격도 없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의 기술과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은사에 포함되며, 그중 한 항목, 그러니까 사람이 갖춘 각종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협력하려는 의지입니다.) 그것 또한 한 가지 항목으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바람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사랑하려는 일종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바람은 곧 하나님에게 협력하려는 의지이다.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겠느냐?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다. 바람은 좀 더 거시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의지라고 하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게다가 바람은 의지보다 상대적으로 정도가 낮다. 즉, 너에게 바람이 있어야 조금씩 각종 의지가 생겨난다. 의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바람은 좀 더 광범위하다. 창조주가 패괴된 인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몇 가지 것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이 하나님 집에 오면 기계와 같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인 진리와는 기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한 이 몇 가지뿐이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갖춘 갖가지 은사이다. 셋째, 사람이 정상 인성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람이 지닌 각종 기능이다. 다섯째, 이 또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바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몇 가지는 다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이 몇 가지를 갖추면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위해 힘을 쓰게 되며, 정식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 즉, 정식으로 하나님 집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경외심도 갖기 전까지 맡는 역할은 오직 봉사자일 뿐, 다른 것은 없다. 즉, 네가 원해도 봉사자이고 원치 않아도 봉사자라는 것이다. 너는 이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혹자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봉사자란 말씀입니까?"라고 하는데, 이 질문이 어떠하냐? 이 질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너는 마땅히 너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 지금 내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힘을 쓰는 걸까, 아니면 진리를 실행하는 걸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깨닫는 길을 걷고 있을까? 진리 실제에 진입했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이 몇 가지 기준에 모두 도달했다면,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굳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면 당연히 너는 봉사자가 아니다. 반면, 이 몇 가지 기준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면 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전히 봉사자이다. 이는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30 여 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햇수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이 이번에 육신을 입고 현현하시어 사역하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따랐지요.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이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줄곧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체포되고 박해받으며 숱한 위험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점점 커져 하나님께 어떤 의문도 갖지 않게 됐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봉사자란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묻는 것이냐? 질문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너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는데 네가 봉사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수 있단 말이냐? 만약 모르겠다면, 왜 스스로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는지 묻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사역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했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깨닫고 진입했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시련과 연단은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굳게 서서 증거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네게 욥과 같은 시련이 임하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은 얼마나 되느냐? 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냐?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라. 만약

이 질문에 하나도 답하지 못하겠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너는 부화뇌동하는 자이니 봉사자라는 호칭조차 어울리지 않는다. 봉사자라는 호칭을 그런 태도로 대하며 마음속이 흐리멍덩한 사람은 너무도 가련하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니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분명하고 명확하다.

우리는 방금 '봉사자'라는 세 글자에 대한 하나님의 본뜻이 과연 무엇인지 교제하였다. 사람이 하나님 집에 들어와 처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바람이나 협력하려는 의지만 지니고 있을 때, 그 기간에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봉사자뿐이다. 물론 '봉사'라는 말이 그리 듣기 좋지는 않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 힘쓰는 것이고, 힘을 보태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며, 인류를 구원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갖가지 구체적인 사역, 진리와 관계된 각 사역에 전혀 힘을 바치지 못하고, 어떤 협력도 하지 못한다. 그저 기술을 좀 알고 은사가 좀 있어 일부 사무 사역에서 힘을 좀 쓰고 말을 좀 하고, 외부에서 보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는 사역의 본질이 이렇다면, 그저 봉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것은 이 호칭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 사람이 힘을 쓸 때 타고난 능력과 은사, 머리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든다.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 징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한 그 몇 가지뿐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되는 것, 자신이 지닌 특정한 은사가 하나님 집에서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 것, 정상 인성의 사유를 지녀 어떤 사역을 맡으면 이해하고 행하는 것, 특정 기술을 지녀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바람이다.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을 보탤 때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으며, 온 힘을 다해 악행은 줄이고 선행은 늘리도록 자제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내적 상태이자 상황 아니겠느냐? 물론 너희 중 극소수는 이미 이런 상태, 이런 범위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추었겠느냐?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가 있으며, 일이 닥쳤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들의 바람은 의지 수준에 그치지 않으며, 주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동한다. 또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특히 책망과 훈계가 임해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거부감을 갖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본질을 마음속 깊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봉사자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첫째, 진리를 깨달았다. 둘째, 일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 넷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바람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주관적인 태도가 되어 진실로 순종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은 이미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진입, 진리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집에서 단순히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임시로 불려 와 얼마간 일을 하는 임시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한때의 보수를 위해 온 것도, 임시로 불려 와 잠깐 쓰임 받는 것도, 쓰임 받는 동안 장기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지 평가받는 것도 아니며, 진리를 실행하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미 봉사자라는 이름, 호칭에서 벗어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겠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일단 다루지 않겠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희 앞에 놓인 길은 무엇인지,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등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보면 봉사자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로 붙여 준 것이냐? 하나님이 이 호칭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분류하고 사람의 등급을 나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호칭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호칭은 아무렇게나 지어 준 별명이 아니고, 겉모습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도 아니다. 그 호칭은 하나의 호칭만이 아니다. 사람이 짓는 이름은 하나의 별칭이나 호칭일 뿐,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기 딸이 똑똑하고 예쁘기를 바라며 '려(麗)' 자를 넣어 이름을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희망일 뿐, 그녀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어쩌면 그녀는 무척 멍청할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려' 자를 넣어 부르는 게 소용이 있겠느냐? 또 어떤 남성의 경우 '성룡(成龍)'이니 '성호(成虎)'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겠느냐? 그는 겁쟁이나 못난이일 수도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일종의 희망에 불과하다. 자식에게 지어 준 그런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호칭에는 사람의 상상과 좋은 바람이 담겨 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호칭이나 별칭일 뿐, 그 사람의 본질에 근거하여 지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호칭이나 명칭을 정의할 때 절대 사람의 겉모습에 근거하지 않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바람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봉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겠느냐? (바라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만인이 봉사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 지난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하나의 바람이다. 하지만 봉사자라는 호칭은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무나 풀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다. 나무는 거대한 존재로, 나무를 언급하면 모두가 그것이 크고 높다는 것을 안다. 또 풀을 언급하면 모두가 그것이 작고 낮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럼 봉사자라는 호칭은 어떠하냐? 이 호칭은 사람의 본질과 모습에 근거한 것이자,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점차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이 호칭은 자연히 바뀔 것이다. 그렇기에 설사 네가 봉사자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거나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더더욱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부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도 실행하지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마음속으로 늘 진리에 반감을 가지고 진리를 싫어하는 부류이다. 그는 진리를 싫어하면서 왜 계속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이다. 그는 요행 심리를 품은 채 하나님 집에서 힘을 좀 쓰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자신이 치른 대가와 육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또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득과 맞바꾸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걸어가는 길 때문에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영원히 봉사자로 규정된다. 이 부류 중 일부는 하나님 집에서 마지막까지 봉사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러지 못한다. 마지막까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과 인성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사역이 지속되는 이 단계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얼마간 힘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성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선량하고 어질다. 그들은 봉사하는 기간에 악을 행하거나 교란하지 않고, 교회에서 제명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봉사할 수 있으며, 이런 자가 바로 영원한 봉사자이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인성이 악하고 인품과 인격이 비천하여 봉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하나님 집의 여러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며, 하나님 집의 많은 사역에 손해를 끼친다. 거듭되는 책망과 훈계가 닥치거나 격리되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옛 병이 도진다. 진리를 전혀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런 사람은 도태된다. 도태되는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사람은 봉사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힘을 좀 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을 쓰는 동시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니, 그를 쓰면 득보다 실이 많다. 재차 반성할 기회를 주어도 결국에는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자격조차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니 제명되는 것이다.

이제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봉사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붙여 준 차별적인 호칭이겠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이 호칭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이 호칭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시련을 주려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이 호칭으로 사람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에게 이런 뜻이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뜻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드러내려는 뜻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려는 뜻도, 봉사자라는 호칭으로 사람에게 시련을 주려는 뜻도 없다. 유일한 한 가지 뜻은 바로 '봉사자'란 하나님이 인류의 모습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이 단계에서 사람이 맡는 역할, 아울러 사람이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바에 근거하고 규정하여 생겨난 호칭이라는 것이다. 이 뜻으로 볼 때, 하나님 집의 모든 일원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고, 한때 봉사자라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호칭으로 사람의 열정에 타격을 주려는 것도,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려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게 만들거나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신분과 지위인지 알게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욱이 봉사자라는 호칭으로 피조물의 본분 이행이라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호칭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드러낸 갖가지 패괴 성품과 실제 내적 상태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호칭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끝난 후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명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 어떤 종착지를 맞이할지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호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 사역의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며,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서 보이는 하나의 진실한 상태이다. 사람이 봉사자로서 하나님 집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의 기계처럼 쓰임 받는 이 상태가 마지막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개선될지는 사람의 추구에 달려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여 성품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철저히 벗어난다.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된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네가 힘을 쓰고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는 데만 만족할 뿐, 진리를 추구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패괴 성품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행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봉사자라는 이 호칭, 이 '월계관'은 네 머리에 쓰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맞을 것이며, 너는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여전히 그런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성품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나라 백성'이라는 호칭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영원히 봉사자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단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고, 행하려는 사역이 완전히 성과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거나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인류에게 어떤 구원 사역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고, 모든 사람이 걸어온, 하나님을 믿는 길도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이 말은 무슨 의미겠느냐? 하나님이 일단 그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 끝났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형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는 진행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권면의 말씀,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도 간곡하게 거듭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만물의 결말이 드러나고 인류의 결말도 정해지며,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뜻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봉사자라는 호칭, 이 이름, 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그는 더 이상 문외한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사람, 하나님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집의 사람, 하나님나라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사람이 이 호칭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으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본분을 잘 이행하여 어느 정도 성품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 된다. 그럼 너는 욥이나 베드로처럼 더 이상 사탄에게 해를 입거나 패괴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이상 패괴 성품과 싸울 필요도 없게 된다. 너는 하나님 눈에 진정한 피조물이자 진정한 사람이 된다. 이는 기쁘고 축하할 일 아니겠느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의 힘들었던 날들이 완전히 끝나고, 기쁘고 평안한 날, 행복한 날이 와서 창조주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쁘고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마지막까지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는 머리 위의 봉사자라는 그 호칭, 그 '월계관'을 벗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여전히 문외한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도태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의 분깃이 없다. 그럼 그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으며, 백성 이외의 무리에 속한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봉사자라고 불린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집 사람이 되지 못했으며,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기회도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런 기회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그 순간은 축하할 만하겠느냐, 아니면 슬퍼할 만하겠느냐? 슬퍼할 만하다. 그들이 하나님 집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봉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나중 일이다. 어쨌든 봉사자는 하나님나라의 백성들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그 지위나 대우 등 여러 측면에서 다 차이가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진리를 얻지 못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가엾지 않으냐? 너무도 가엾다! 이는 봉사자라는 호칭과 관련된 말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봉사자라는 말을 언급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봉사자가 되라고 하면 싫고 기분이 나쁘고요. 만약 제게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가리켜 봉사자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죠. 저는 평생 다른 것을 추구하는 바가 없고, 다른 꿈도 없습니다. 그저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높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떠하냐?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태도냐?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봉사자라는 호칭을 대할 때, 너는 그것을 벗어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호칭은 사람의 생명 성장 정도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이지, 네 바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 길과 성품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네 목표가 그저 봉사자라는 호칭을 벗어 버리는 데 있다면, 내가 사실대로 말해 주겠다. 너는 평생 그 호칭을 벗어 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리 추구에 집중하여 성품 변화를 이룬다면 그 호칭은 조금씩 바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봉사자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로 붙여 준

것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로 붙여 준 호칭도, 별칭도 아니며, 사람의 생명 성장 정도에 따른 것이다. 네 생명 성장과 성품 변화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네가 지닌 봉사자의 성분도 줄어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봉사자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진리를 대하는 태도, 걸어가는 길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봉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말하는데,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정할 때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며, 절충안은 없다. 네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는다면 기쁜 일이지만,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중간 길은 없다. 하나님이 한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만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준칙이자 진리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과 이 인류, 만물이 모두 변하고 사라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 단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전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와 만물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규정되고 드러난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바꿔 놓을 수는 없으며 이 일을 두고 의논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주재하고 규정하는 일을 두고 사람이 요행 심리를 품는다면 그는 심각한 바보이다. 이 일에서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은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다. 너는 이방 세계에서는 사람이 돈을 좀 쓰고 인맥을 좀 동원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어라. 하나님에게 네 그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②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교제할 주제는 '봉사자'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해부하는 것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의 정의에 대해 교제를 마친 후, 많은 사람이 이 호칭을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 호칭을 대할 때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적그리스도 부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높은 지위와 명망, 절대적인 권력이다. 그들은 비교적 서민적이고 일반적이며 수준 낮은 호칭, 굴욕감이 드는 호칭에 대해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맞서고 또 그것을 차별한다. 특히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그렇다. 하나님이 봉사자들을 어떤 관용과 인내로 대하든, 봉사자라는 호칭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든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이 호칭을 무시한다. 그들은 이 호칭이 너무 비천하다고, 만약 자신이 봉사자라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라고, 일단 이런 호칭이 붙는 순간, 자신의 인격과 체면, 명망은 모두 도전받고 깎아내려질 것이며 가치가 폭락할 거라고, 자신이라는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라는 호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은 너무 비천합니다. 어쨌든 저는 봉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봉사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왜 가정과 일자리를 버리고 세상에서의 앞날을 포기했겠습니까? 저는 봉사자가 되려고 온 것도, 당신을 위해 힘쓰고 봉사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저더러 봉사자가 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봉사자가 되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또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부탁이나 임무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먼저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 사역을 맡으면 저는 리더나 팀장이 됩니까? 아니면 졸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힘쓰게 됩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 그는 먼저 일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눈으로, 귀로 기민하게 살피며 다방면으로 소식을 알아본다. 자기가 과연 그곳에서 잠깐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건지, 양성될 대상인지 아니면 임시로 불려 와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인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의 공로와 지위,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거라면 그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그의 본분 이행을 필요로 하든 말든, 그가 이행하는 그 본분이 하나님 집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곳에서 자신은 봉사하는 존재로 발언권이 없고, 의사 결정권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대충 건성으로 임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나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심지어는 언제든 본분을 팽개치고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 집의 사역과 자신의 본분을 어린애 장난처럼 여긴다. 그들의 인생 격언에는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는 '나는 관리가 될 재목으로 태어났어. 발언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고 태어난 거야. 만약 이 두 가지를 잃는다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을 믿는 건 또 무슨 의의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겠어? 내가 작은 이익을 포기한 건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니었나? 만약 이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좌우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건 안 될 말이야. 오직 나만이 다른 사람을 밟을 수 있어. 논공행상을 한다면 나는 1 등상을 받아야 해. 그래야 힘이 나고 전력을 다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최선을 다하게 할 생각은 버려. 나한테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일하라고 하지만 마지막 논공행상 때 나를 빼놓겠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힘을 쓰고 일조하고 봉사하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는 실제로 적그리스도 성품이 표출되고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의도적으로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품 본질로 볼 때 그들은 줄곧 이 호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스스로를 내세울 기회를 준다면, 그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하고 최종 결정권을 준다면, 리더가 되고 지위와 권세, 명망을 지니며 수하에 사람들을 거느리게 한다면, 그는 더없이 좋아할 것이다. 만약 언젠가 누가 그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그를 책망하며 "당신은 많은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본분 이행이 아니라 순전히 봉사하는 것에 속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그 문제를 변명하고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둘째, 그의 행위는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 그는 즉시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자지도 먹지도 못했죠. 그런데 저보고 봉사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겨우 봉사자란 호칭, 이런 정의라면, 더 무슨 기대를 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원동력이 생길까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말겠어요!" 그는 그렇게 힘을 잃는다. 책망받은 후,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고, 더욱이 오해를 품는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역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어떻게 하든 나는 봉사자잖아. 사역을 할 때 여지를 남겨두고 퇴로를 만들어 둬야지, 전력을 다하면 안 되겠어. 모두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는데, 난 왜 모르겠지? 하나님이 뭐가 공의로워? 내가 어떻게 하든 봉사자일 뿐이라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꿔야겠어. 봉사하라면 봉사하지 뭐.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든 칭찬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다면, 좋아. 나는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바꾸겠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고 싶은 사람보고 말하라고 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만 인정할 거야. 누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해도 말하지 않을 거고, 누가 일을 하면서 원칙을 알지 못할 때, 나는 알고 있어도 알려 주지 않을 거야. 그가 웃음거리가 되게 두고, 잘못을 저지르게 하겠어. 그 역시 나처럼 책망받고, 봉사자라고 규정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 주겠다고.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도 당신들을 견디기 힘들게 해 줄 거야. 잘 지내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책망과 훈계, 꾸짖음을 좀 받았다고 이렇게 큰 감정과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어때서 그러느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네 존엄에 해가 되느냐? 하나님은 네가 그를 위해 봉사해 줄 자격이 없는 존재냐? 그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뭔가를 해 줄 자격이 있느냐? 어째서 이 단어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냐? 창조주가 몸을 낮춰 인간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모든 패괴된 인간, 그를 대적하고 저버리는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데, 사람은 왜 반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어느 정도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부끄러울 게 있느냐? 입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에 비하면 사람은 영원히 비열하고 추하다. 그렇지 않으냐?

진리를 추구하는 패괴된 사람은 이제 봉사자라는 호칭을 들어도 그저 잠깐 괴로워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그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고무시킨다. 그는 하나님이 준 이 호칭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호칭을 언제나 트집 잡고 신경 쓴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그의 이익에 어긋나고, 그를 상처 입힐 수 있다. 복 받으려는 그의 속셈과 욕망을 거스를 때,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는다. 자존심과 존엄이 상처 입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버리고 배반하려

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욕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 틀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말, 이런 정서, 이런 성품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전혀 없을뿐더러 하나님의 각종 말씀에 대해 트집을 잡고, 하나님의 각종 요구를 본체만체하며 개의치 않는다.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하며, 받아들일 생각도, 순종할 생각도,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생각도 없다. 그저 한결같이 봉사자라는 이름과 신분, 명의, 지위를 벗어 버리려고 추구할 뿐, 어떻게 하나님에게 협력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성품 변화를 이루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지 구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경우, 그가 봉사자라고 폭로될 때, 마음속 분노와 혈기가 한순간에 치솟아 폭발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겠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공개 석상에서 몰래 하나님을 욕하고 뒤에서는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게 나아요!"라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대항한다. '봉사자'라는 호칭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사악한 몰골은 '봉사자'라는 말 앞에서 남김없이 폭로되고 철저히 드러났다. 무엇이 드러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진리이고 만물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 몸을 굽히고 하나님 집에 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수법과 노력, 분투, 발버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복을 받으려고 하며, 좀 더 잘되면 내세에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망상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봉사자'를 영원히 비천하고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단어로 보며, 언제까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야. 이건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언제까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야말로 헛소리네요! 복이 어디 있죠? 기쁨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봉사하면 돈이나 금덩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답니까? 아니면 집과 차를 얻을 수 있답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모두 도태됩니다. 봉사하는 사람 중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한다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교제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사람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부감과 반감을 갖는다. 그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한 공직자, 지위와 명망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 힘쓰고 일조하고 시중을 들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런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원망과 반항, 감정으로 가득 찬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이겠느냐? 이는 분명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적 모습이다. 그에게 속세에서 어떤 시장이나 성장(省長), 유명한 정치가를 시중들라고 하면 그는 그것이 조상을 빛내는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더없이 기뻐 걷는 것도 날아오를 듯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저는 시장님을 시중들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가장 가까운 고용인이자 경호원이죠!", "저는 대통령 각하의 일상생활을 시중들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영광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 일이 좋다고, 온 가족이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밤에 꿈을 꾸다가도 신나서 깨어나고, 어디를 가든 자기 일을 숨기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그 일이 영광스럽다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후광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면 그는 원치 않고 거부감을 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배반하고 부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해 볼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그는 바로 사탄과 한패이다. 그는 사탄을 어떻게 시중들든, 하는 일이 어떻게 더럽고 힘들고 비천하든 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무리 유의미하고 가치 있으며 고상하고 높여 주는 것이어도 하찮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말해 줘도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이유는 딱 하나다.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한패이고, 사탄에 속하고 살아 있는 사탄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면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또 '봉사자'와 관련된 일에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이 사실이나 진리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대하는 태도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을 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 사실을 대할 때, 적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온 힘을 다해 벗어나고 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봉사자라는 호칭을 받아들인 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는다. '봉사자'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부류이며 사탄이라는 적대 세력에 속한다고, 하나님과 진리,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라는 호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감을 품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호칭이 누구에게서 나왔든 그는 한결같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저 봉사자가 되는 것이 비천한 일이라고, 누구의 봉사자가 되든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는 '봉사자'란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준 일종의 정의가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멸시라고 생각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칙이나 진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그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반항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표현 하나하나는 그들에게 있어 연구해야 할 대상이며, '봉사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봉사자'라는 세 글자를 공을 들여 연구하고 따져본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봉사자'는 하나님 눈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비천하고 값어치 없으며 하류로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배경과 이유가 있으며, 사람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를 아무리 혐오하고 증오해도 인류에 대한 구원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인류를 구원하는 경륜 사역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깨닫지도 못한다. 그는 오직 각 부류 사람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 특히,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데, 봉사자가 되거나 하나님에게 봉사자로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고, 봉사자라는 호칭을 지닌 채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집에 온 후 자신이 봉사자인지 아닌지 여기저기에서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말에서 자기가 과연 봉사자인지 아닌지 솔직한 말을 듣고 실상을 알아내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봉사자라면 그는 즉시, 곧바로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나 하나님 집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봉사자라는 호칭에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서 신분, 지위, 그리고 앞날, 운명, 종착지는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영원히 추구해야 할 화제이자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눈에 봉사자는 하나님이 규정한, 사람의 가장 낮은 등급이다. 네가 어떻게 말해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 이 호칭을 받아들여도 적그리스도 부류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중심으로 하라고만 요구할 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상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향을 물어보며 진리 원칙을 찾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는 '만약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상의하고, 일을 처리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한다면 그건 자신을 낮추고 자주권이 없는 거야. 그건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 남 좋은 일만 해 주는 것 아니겠냐고. 남을 시중들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는 오직 남들에게 그를 시중들고 그에게 수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알아주고 높이고 매사에 그의 체면을 세워 주고 그의 자리를 남겨 주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라고 요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그의 행동에 따라 적절한 상과 면류관을 달라고 요구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어떻게 몸을 낮추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줬는지 등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이런 사실을 봐도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당연히 인류를 위해 그 모든 행사를 하셔야 해. 당연히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축복과 은총,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고,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치셔야 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의무야. 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상과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해. 이것이 공정한 거래고 등가 교환 아니겠어?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지? 하나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 나는 왜 하나님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 주면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냐? 사람도 대가를 치렀으니 말이야!' 그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행한 그 모든 것이 인류에게

최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보답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지불한 대가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으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복 받으려는 바람과 그 모든 속셈을 갖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니 어떤 각도에서 보든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봉사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인격과 존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지니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면 그건 너무 큰 굴욕이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눈에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반면, 그가 행한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가져다가 무한대로 확대하고, 복받는 밑천으로 삼는다.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과 재능, 아이디어, 제안이 형제자매들에게 채택되지 않으면 본분을 팽개치고 손을 놓고 떠나려고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한다. 그에게 어느 누군가와 협력하라고 해도 그러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자기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그러지 않는다. 그는 그저 명령만 내리고 남들이 그의 말을 듣게 하고 그를 시중들게 해서 자기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할 뿐,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못 받게 되기만 하면, 남들이 그를 모시고 그를 위해 힘쓰며 그의 명령에 청종하는 이런 대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기만 하면 손을 놓고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형제자매들을 증오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는 누구와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평등하게 지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그의 규칙은 오직 그만이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남들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하는 모습,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과 구호를 청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와 협력할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그와 대등하게 지낼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만약 누가 그를 친한 친구나 평범한 형제자매로 대하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말하며 사역에 대해 상의하고 인식을 교제한다면, 이는 그에게 엄청난 모욕이며, 그의 인격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기회를 보다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를 홀대한 사람에게 보복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드러내는 존비귀천의 관점이다. 물론, 이는 봉사자라는 호칭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시선이나 태도와 관계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호칭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정죄와 폭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봉사자라는 호칭과 그 본질을 적대시하고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부지런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시중들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조직한다. 비열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의 본질이 사악하다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 자신은 분명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집의 폐물이다. 그는 정상 인성이 없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지내지도 못하며, 나아가 정상적인 이성도 없다. 진리를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고작해야 약간의 업무를 할 줄 알거나 기술을 알고 있을 뿐, 어떤 분야의 본분이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얌전히

있지 않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며, 그러지 못하면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한 일들은 봉사한 게 분명해. 봉사하는 거라면 안 하고 말지. 아직 힘을 많이 안 써서 그렇게 손해 본 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떠나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는 늘 이런 결심, 이런 결정을 한다. 언제라도 믿지 않고 떠날 수 있으며, 언제든 본분을 팽개치고 도망쳐 사탄의 품으로 돌아가 사탄과 한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그는 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좀 있다. 하지만 그 분야의 업무를 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진리 원칙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또 한 가지 분야의 지식이나 은사는 좀 갖추고 있지만, 본분을 이행할 때 파악해야 할 진리 원칙에 대해서는 역시 하나도 아는 게 없고, 게다가 치우치게 이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할 때도 공통 화제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떤 일에 적합하겠느냐? 만약 그가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옳은 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 전부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며, 육을 저버릴 것이다. 늘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들을 이끌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남들 위에 서려고만 하는 야심과 욕망을 버리고 기꺼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며, 봉사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니 평범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착실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굳게 설 수 있다. 만약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거나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토호나 악질분자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이런 자는 틀림없이 악인이다. 가장 작은 사람, 묵묵히 행동하고 남들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적그리스도이며 구제 불능이니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 만약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주제를 알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여 자신을 적절한 위치에 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더 이상 위장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집에서 항상 횡포를 부리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민들뿐이니, 네가 아무리 지독하고 사납고 악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집은 콜로세움이 아니다. 싸우고 싶다면 세상의 콜로세움으로 가라. 하나님 집에는 아무도 너와 싸우기를 원치 않고,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며, 한가하게 너와 싸울 시간이 없다. 하나님 집은 진리를 중요시하는 곳이며,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게 하는 곳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곤란한데, 이는 네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늘 싸우려고 하고 사납고 난폭하게 굴려고 하며 횡포를 부리려고 한다면, 교회는 네가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생명을 얻고자 할 뿐, 마귀와 암투를 벌이며 계속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여기저기서 싸우고 권력과 이익을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다.

신분, 지위, 명의 등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히 봉사자라는 호칭에 극도의 거부감과 반감을 보이며,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부류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봉사자라는 호칭도 싫어한다. 봉사자가 싫다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면,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기에, 영원히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길을 걷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사역에서 영원히 봉사자라는 역할을 맡는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봉사자의 역할이라도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조주의 행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자, 창조주가 선포하는 진리와 인류를 향해 밝히는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이고, 창조주의 지혜와 전능한 행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에게 있어 창조주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적그리스도와 사탄 부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패괴된 인간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전반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모든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일말의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든 말든,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자가 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결론적으로 그들이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높여 준 것이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도 높여 주시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 그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면 안 되느냐?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 트집을 잡기보다는 위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일에서 한때 얼마간 힘을 바쳤다. 그가 기꺼이 원한 것이었든 아니든, 자발적이었든 수동적이었든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 준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반항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그의 조상, 사탄을 저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창조주에게 순종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선민의 영광이기도 하니 기뻐해야 한다. 이는 좋은 일이다. 이 사실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만약 적그리스도가 뉘우치고 회개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럼 왜 하나님 선민들의 영광이라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가 기꺼이 봉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집에는 화근이 하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가운데 마귀가 하나 줄어들고, 교란하고 풍파를 일으키는 자가 줄어든다면, 너희의 나날은 한결 평온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가 기꺼이 봉사하고자 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너희는 그를 격려하고 도와줘야지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선의로 그를 남겨 봉사하게 했는데 득보다 실이 크고 우환만 생긴다면, 그때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언급할 만한 부류가 하나 더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때로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거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 추구의 길을 걷고자 한다. 상부나 교회에서 무엇을 안배하든 전부 순종하고, 제때 임무를 완수한다. 또 하나님 집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도 하지 않으며, 그들이 하는 사역과 맡은 본분 역시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점을 가져다준다. 겉으로 보면, 그는 악을 행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도 않으며, 악인 같지 않지만 한 가지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 그것은 바로 이 부류가 세력을 키우고 독립 왕국을 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사역을 하나 맡겨서 그가 그 사역의 책임자가 되기만 하면, 독립 왕국을 세우고, 부지중에 자기 세력권 안에서 자신의 세력과 인맥을 키울 것이다. 그의 세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복하며, 그의 모든 언행과 그가 치른 대가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탄복을 금치 못한다. 그는 자기가 경영하는 범위를 하나님 집 안의 작은 집으로 삼는다. 겉으로는 그가 대가를 치르고 고생도 하며, 책임도 지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는다. 자신의 명망과 파벌, 교회에서의 절대적인 지위, 존엄, 권세를 지키기 위해 그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사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설령 하나님 집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는 사람,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나 몰라라 하고 개의치 않으며 내버려둔다. 자기 지위를 위협하지 않고, 그의 세력권 안에서 그에게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최고 기준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란하든 그는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으며,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처분은 더더욱 내리지 않는다. 이런 자는 위험인물이다. 평범한 사람은 이런 부류를 분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보니, 그에게 지위가 없다면 너는 그를 간파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위만 생기면, 그의 본성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무엇이 드러나겠느냐? 그가 치르는 대가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도, 진실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으려 하고, 주의를 끌려 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우러름과 탄복, 찬사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봉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집과 한마음이 아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 선민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는 스스로를 위해, 또 사탄을 위해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갖가지 모습을 통해 볼 때 그가 이행하는 본분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전력을 다해 스스로를 과시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집과 하나님의 경륜 사역에서 얼마간 봉사할 수 있으며, 어쩌면 어느 단계에서는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걷는 길, 그가 선택한 목표와 방향, 지위와 권세에 대한 욕망, 명예와 이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는 영원히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도 알지 못한다. 또 진리 실제에 진입하거나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한다. 이런 자는 위험인물에 속한다. 이런 부류는 아주 뛰어난 처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처신과 처세 수법이 무척 고명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화법과 어휘 선택에 신경 쓰며, 사람들과 지낼 때도 처세술을 중시한다. 겉보기엔 그렇게 간사하고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은 사악한 생각과 사상, 관점, 심지어 진리에 대한 관념과 오해,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어디가 악한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는 본성이 너무나 사악하고, 시종일관 진리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며,

진리 추구의 길을 걸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순종에 이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봉사자라는 호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 부류는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분명한 사람보다 수법과 미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겉으로는 그들이 봉사자라는 호칭에 대해 별생각이 없고, 별다른 태도도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아무런 거부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속셈과 목적이 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류는 마음이 사악하고 간교하여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순간에만 그들의 본성 본질과 사상 관점,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드러날 뿐이다. 이런 부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추구 방식과 이런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할 경우, 구원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 집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혜택을 도모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며,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 마지막에 그들은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저지른 숱한 악행으로 인해 드러나게 될 뿐이다. 그들이 드러날 때 이런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너는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부류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각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를 들은 후에도 변함없이 처세의 원칙과 수법, 방식으로 본분을 이행한다면, 마지막 결말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륜 사역에서 봉사자 역할을 맡다가 결국 드러나고 도태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너희는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서 제명될 때 대중들의 신뢰를 잃는다.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고 심각하기에 모든 형제자매가 그에게 반감을 품고 그를 버리는 것이다. 또 어떤 부류는 드러나고 교회에서 정죄되고 버림받을 때, 많은 조력자와 졸개들이 그를 대변해 주고, 그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해 주며, 일어나 하나님에게 대든다. 이런 부류는 미혹하는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는 더 위험한 부류이다.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뒤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③ 적그리스도는 왜 봉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가

적그리스도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기꺼이 봉사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봉사자가 되면 크나큰 모욕과 차별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들은 과연 무엇이 되고 싶겠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집에 왔을 때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겠느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었겠느냐? 기꺼이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겠느냐? 기꺼이 베드로나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기꺼이 하나님 손안의 노리개가 되려는 사람이 있느냐? 더더욱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점과 복, 상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집에 온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심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속셈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일단 복을 받고 면류관과 상을 얻으려는 욕망, 이 모든 이점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 보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속으로 몰래 기뻐하며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괴와 추악한 민낯,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셨어. 그건 전부 사실이야. 다행히 나는 조급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복과 은혜, 축복을 요구하지 않았지. 먼저 내려놓아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내려놓지 않았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람의 본성,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벗어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에 협력해야 한다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길을 걷게 되면, 구원받을 희망이 생기고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 여기까지 깨달으면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마음속 아름다운 바람과 미래에 대한 동경, 기대가 그리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어떻게 해야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만족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닫고 굳게 설 수 있을지 등의 일이 그런 바람이나 이상 같은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시점에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며, 진리를 얻고, 자신의 시간과 청춘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의 본분 이행을 위해 가정과 일자리, 세상에서의 앞날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람의 이 다양한 모습과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사물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태도이자 말을 듣는 태도이다. 또한, 이런 태도가 바로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마지막에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집에 와서 본분을 이행하기 전에 보이는 갖가지 모습이자 생각이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부단히 달라지고 있다. 또 인간이 지난날 갖고 있던 욕망과 야심은 계속 무너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인간은 조금씩 주동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게 협력하고 순종하려는 인간의 바람이 마지막에 맺은 좋은 결실로,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고 좋은 결과이다. 부단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복 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거의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많은 이가 예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여러 약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다지 민감하게 굴지 않고,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정상인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사람이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놓치게 되고, 그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가장 간단한 도리를 마음속으로 알아야 한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이 이미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였지만,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럼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겠느냐? 하나님 집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체, 장자, 아들들, 백성, 봉사자 등 갖가지 호칭과 신분을 보고는 눈에서 빛을 냈다. 그의 욕망과 야심이 빠르게 충족된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아들은 너무 평범해. 많은 사람이 아들이라고. 또 백성은 평민, 민초들이잖아. 아무 권력도 세력도 없는 서민들이지. 봉사자는? 나한테 봉사자가 되라고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건 평생 나와는 무관해. 나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의 두 눈은 하나님의 본체와 장자라는 두 호칭에 고정된다. 그는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 두 가지는 권세가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왕권을 잡고 인류와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절대적인 권력과 발언권, 지도권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은 너무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를 봉사자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장자나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거나 리더 일꾼 자리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행동하며,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며 열심히 뛰어다닌다. 또 이 기간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숭배받고 앙망받는지, 교회를 이끌 때 형제자매들이 문제에 부딪힐 경우 다른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그를 찾는지, 자기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계산한다. 그가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산하며 셈하고 관찰하는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하나님 집에서 왕권을 잡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좀 깨달은 후 정상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이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고, 자기는 고귀하고 특별한 부류라고, 하나님 집에서 반드시 대단한 호칭으로 불려야 한다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크게 높임을 받고 대장이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하나님의 기록부에 자신의 공로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자격이 충분한지 계산하고 셈한다. 그러므로 일부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근원과 출발점, 동기는 바로 하나님 집에서 왕권을 잡는 것이다. 그들은 평범하고 가장 작은 존재,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 야심과 욕망이 수포가 되는 순간, 그들은 태도를 바꿀 것이며,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 몇 년간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성이 악랄하고 인격이 비열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성품까지 흉악하고 사악한 데다가 진리를 싫어하여 마지막에 형제자매들에게 버림받는다. 복 받겠다는 욕망이 수포가 되고, 하나님 집에서 왕권을 잡고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뒤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찬양을 듣지 않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무시하며, 심지어는 예배 때도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일깨워 줘야 한다. 그중 일부는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으며, 누가 말하든 반감을 품고 듣지 않으려 한다.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 그들도 따라서 눈을 감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할 말도 없다. 또 일부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는 형제자매들이 진리를 교제할 때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하거나 뉴스를 보며,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고, 심지어 어떤 이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도 한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집에서 환영받거나 중시받지 못한다면, 또 아무도 옹위해 주지 않고, 중임을 맡을 수도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는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자신이 복 받는 것과 연결 짓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그는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며, 진리도 없다고 여긴다. 그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며, 나중에는 왕권을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탄의 논리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며, 마음속으로 오직 사탄의 철학과 지식, 명리, 지위만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기에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게임을 하며 간식을 먹고 잡담을 나누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해한다.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 없다고 여길 때, 그들은 교회, 즉 형제자매들의 예배 장소를 레저 장소로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자신의 여가 시간쯤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예배와 설교 듣기는 억압적이고 지루하며 따분한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듣는 설교와 진리를 그들은 무엇으로 여기겠느냐? 구호나 터무니없는 말로 여기며, 형제자매들의 예배 시간을 소비할 가치도 없는 시간으로 여긴다. 이런 자들은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야심과 욕망, 환상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는 그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위해 봉사할 자격조차 없음을 결정하는 신호이다. 그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을 멸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경륜 사역이라는 사실의 존재마저 부정한다.

적그리스도들, 즉 진리를 싫어하는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마귀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여자들은 집에서 귀신처럼 화장하고, 외부에서 유행하거나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옷이라면 무엇이든 입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몰래 마작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다. 이런 자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역겹다. 그들은 위장한 채 하나님의 집에 왔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견디지 못하지 않느냐?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드러낼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며, 성품이 흉악하면 필연적으로 진리를 적대시하고,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도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눈에 악취 풍기는 벌레로 보이며, 봉사자가 될 자격조차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예배와 교회 생활, 본분을 이렇듯 소홀히 대하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거나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징계의 사역도 하지 않기에 그들은 그토록 형편없고 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유로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느라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가정과 직장을 버려야겠지만, 나는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지내며 육적인 것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는

자신이 행복과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겠느냐?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상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눈에 악취 풍기는 벌레로 보일 뿐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 상대해 줄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과 관계가 있겠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무척 편하고 자유롭고 얽매인 것 없이 매일 즐거운 것 같다. 그런데 너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살아 내고 걸어가는 길을 보면 그들은 끝장났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취 풍기는 벌레인 그들이 얼마나 악취를 풍기겠느냐! 이런 부류를 하나님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내세에 왕권을 잡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극력으로 노력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완고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이 부류는 바울과 같아서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반발하고 강요하는 마음을 가진 채 마지못해 사역하며 헌신하거나 고생하며 대가를 치른다. 면류관을 얻고 내세에 왕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들으면 적그리스도가 무척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냐? 사실 전혀 불쌍하지 않다.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째서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간단한 도리를 어째서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설령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해도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 요구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진리를 어기지 않으며, 그의 뜻을 바꾸지도 않는다. 네가 이 점을 안다면 고집스럽게 네 욕망과 야심을 붙들고 있겠느냐? 오직 바보나 이성이 없는 자만이 그것을 죽어라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이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마땅히 추구하고, 도달하고, 진입해야 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알아야겠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 또한, 하나님은 이번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본체, 장자, 아들들, 백성 등을 언급하며 인류를 여러 등급과 호칭으로 구분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람은 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왕권을 잡는 것, 하나님이 준 약속을 목표로 삼아 추구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겠느냐? 그것은 분명 올바르지 않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뜻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며, 그 길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혹자는 "당신께서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온 인류에게 공개하셨는데 어째서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는데, 이는 진리와 관계가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측면의 진리와 관계가 있겠느냐? 이 일은 이렇게 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었기에, 사람은 왕권을 잡는 것, 하나님

본체, 장자, 아들들 등 여러 호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호칭일 뿐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어떤 호칭에 속하는지는 사람이 추구하고 보여 주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창조주가 네게 뭔가를 주면 너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일 뿐,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 약속은 인류의 바람 가운데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목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며,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일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겠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네게 준다고 하면 너는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겠다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도 저는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겠느냐? 이는 큰 금기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혹자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권을 잡는다고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이성이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왕권을 잡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봉사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자 추구했느냐? 기준에 맞는 봉사자가 되고자 추구했느냐?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는데, 너는 스스로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느냐?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피조물이 되라고 요구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구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왕권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약속이며, 이 약속에는 전제와 배경이 있다. 바로 너는 제대로 된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며, 봉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권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성이 없어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다니 잘됐네! 그런데 그건 언제 이뤄질까? 어떻게 왕권을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누구의 왕이 되고,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 걸까?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설령 이 말씀이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류에게 들려주는 것이며, 인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너는 너 자신을 가늠해 봐야 한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인류가 그와 함께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왜 하나님에게 "저희가 그 약속을 받기 전에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이뤄야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지 않는 것이냐? 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요구하니, 비이성적인 것 아니겠느냐? 인류는 이런 이성이 부족하다. 인간은 강도 같아 이익만 보면 손을 내밀어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돌변하고 욕을 한다. 사람은 이런 존재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천한 점이다.

인류에게 이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패괴 성품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이런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사탄의 마귀적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사탄의 패괴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약속에 대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고, 자기 주제도 모른 채 바로 요구한다. 요구한 바를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리한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얻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바꿀 수 없으면 화를 내고 속으로 증오하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 만약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이 사탄을 빨리 파멸시키고, 이 인류를 빨리 끝내고, 재난을 빨리 내리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전부 진리를 싫어하고 흉악한 그런 성품을 드러낸다. 지금 보면 교만함, 간사함, 가끔 드러내는 강퍅함은 사람의 모든 패괴 성품 중에서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가벼운 축에 속한다. 인류의 패괴 성품 중 더 많고 더 심각하며 더 깊은 것은 사악함, 진리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흉악함이다. 이는 인류의 패괴 성품 중 치명적인 것들이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 몇 가지 성품이 더욱 심각하다. 드러나도 개의치 않고,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스럽다고 느끼지도 않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며, 회개는 더더욱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환경과 배경에서든 그들은 여전히 왕권을 잡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한 가장 높고 좋은 약속을 자신의 추구 목표로 삼는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기를 고집하니 이는 구제 불능이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끔찍하다! 이런 사람들이 표출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성품과 본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진리를 수천수만 번 교제했고, 이성이 있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지위나 앞날, 운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말씀의 폭로 아래에서 회개하고자 하며, 복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바람을 보면, 그들의 추구 목표가 기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고, 진정한 피조물이 되고자 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지,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 집에서 시간을 때우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부류만이 영원히 왕권을 잡으려고 할 뿐, 대다수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앞날과 복받는 것, 왕권을 잡는 것에 대한 추구를 하나님을 믿는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믿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여긴다. 네가 뭐라고 해도 그는 내려놓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는다.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는 도태되고 징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결과이다.

교제를 통해 왕권 잡기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 이해가 됐느냐? 너희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느냐? 왕권 잡기를 추구하는 길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이 일에서 사람의 본질을 인식하려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느냐? 한 사람의 본질과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겠느냐? 진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는 사람의 염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사람의 취향과 상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 일의 최종 결정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일에서 사람이 협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즉,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결국 좋은 결과와 좋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 그 사람의 앞날과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이 인류의 결말에 관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엇을 예비했는지 보지 마라. 이는 너와 무관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네가 빼앗아 가질 수도 없고, 원한다고 얻어 낼 수도 없고, 뭔가와 바꿀 수도 없다. 피조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너의 본분을 이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 앞날과 운명에 관한 일, 앞으로 인류 종착지에 관한 일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주재하고 안배하는 것이지 그 어떤 피조물과도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알려 주시는 겁니까?" 너희와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얘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인류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면 안 되느냐? 너는 네 앞날과 운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앞날과 운명을 좇는데, 이는 틀렸다. 하나님은 네게 그것을 추구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저 네게 알려 줬을 뿐이다. 이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추구할 목표로 삼으라 한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네가 너무 비이성적인 것이고, 네가 정상 인성의 사고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네가 알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너는 어떤 약속이든, 좋은 약속이든 일반적인 약속이든, 사람이 좋아하는 약속이든 혹은 별로 관심 없는 약속이든 창조주가 주재하고 안배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피조물은 오로지 창조주가 정한 올바른 방향과 길을 따라 걷고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의 본분이자 의무이다. 마지막에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네 몫이 있는지는 네가 추구하는 바, 네가 가는 길, 그리고 창조주의 주재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느냐? (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너희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바른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바른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인성의 이성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성이 없이 늘 복받는 것과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의욕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 않겠느냐? 진리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길에서 늘 돌아가고 실수를 저지르며 손해를 볼 것이다. 또 끝까지 믿어도 진리 실제가 전혀 없을 것이며, 부정할 여지 없는 봉사자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봉사자라는 역할만 한다면 결국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수 없을 테니, 이는 몹시 슬픈 일이다.

2020 년 5 월 9 일

제 9 조　두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할 뿐,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10)

2. 적그리스도의 이익

4) 앞날과 운명

지난 예배에서 교제한 주제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제하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봉사자라는 칭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교제하시고, 봉사자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과 봉사자의 차이점을 교제하셨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대하는 관점과 추구를 해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이느냐?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대하는 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반감을 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든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봉사자가 되는 것은 수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봉사자가 하나님이 인류의 본질에 근거해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명언 중에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기만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봉사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집에서 봉사를 계속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대비책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의 본질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를 적대시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냐?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입니다.) 맞다,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이다.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동기와 속셈은 무엇이냐? 그는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그의 야심과 욕망은 무엇이냐? 봉사자가 되려고 온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어 바른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 온 것이냐? 정확히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권을 잡으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으려는 것이고, 높고 큰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봉사자라고 할 때 이는 복을 받고 왕권을 잡으려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야심, 욕망과 전혀 맞지 않고 완전히 위배되며 그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이 사실을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겠느냐?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야심과 성품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를 봉사자라고 하고 복을 받으려는 그의 속셈과 욕망을 박탈할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굳게 설 수 없다. 그가

실정을 알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봉사자라는 것을 알면 그는 자포자기하고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본인이 봉사자인 이런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봉사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바꾸고 진리 추구의 길을 가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배하든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으로 봉사자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려 하고, 어떻게든 이런 신분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뼛속 깊이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생각과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적대시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방금 너희가 한 대답을 보면 매번 교제한 주제 내용을 종합하지 않고, 나중에 기도하며 읽어보지도 않고 되새겨 보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번에는 주로 세 가지 방면을 교제했다. 첫 번째로 봉사자란 무엇인지 정의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봉사자가 되기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봉사자가 되기 싫어하는데, 그럼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 그는 과연 무엇이 되고 싶어 하고, 그의 야심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교제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적그리스도는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주제를 교제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적그리스도가 봉사자라는 칭호를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 행위, 그리고 그의 사상 관점을 해부해 보았다. 매번 교제를 들은 다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들은 내용을 잠깐은 기억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기억하고 있던 이 내용들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얻으려면 마음속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항상 기도하며 읽고, 묵상하고, 속으로 간직해야 한다. 네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담아 두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속으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얻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저와는 거리가 멀죠. 저는 적그리스도가 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랍니다. 저는 착실하게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제게 주어진 일만 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약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성품은 천천히 바꾸면 되죠. 전부 평범한 패괴 성품이고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옳은 관점이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사람이 성품 변화에 이르려면 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이 다양한 환경에서 생기는 내적 상태와 사상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걸 파악해야 자신의 패괴 성품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위배하는지,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런 다음 이런 문제와 패괴 성품을 해결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네가 만약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패괴 성품과 그 상황에서 생기는 내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와 대치되는 부분이 어딘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적 상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네 패괴 성품과 내적 상태가 비로소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 보아하니 너희는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패괴 성품을 해결해서 성품 변화에 이르는 이 일에 대해 여전히 밝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다.

(5)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교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이익에 관한 마지막 주제인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교회에서의 지위를 대할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할 때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 성품 본질은 무엇인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해부해 보기로 하자. 그중 첫 번째는 '위장한다', 두 번째는 '사칭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이다. 세 항목 모두 글자 수가 많지 않은 정제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항목에 담긴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행동, 모습, 말, 그리고 그의 태도와 성품은 무척 많다. 우선 내가 왜 이 세 가지를 정의함으로써 오늘의 주제를 교제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조항을 보고, 속으로 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대부분은 분명 머릿속으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높은 위치에 서고, 사람들을 구슬리고, 권력을 쥐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즉, 언제나 감투를 쓰려 하고, 높은 위치에 서려 하고, 권력을 잡으려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등의 모습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항상 드러내는 비교적 명확한 몇 가지 면이다. 이런 모습 이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회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지위와 높은 명망을 얻고, 심지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더 많이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닌, 더욱 미혹되기 쉬운 음험하고 은밀한 수법과 수단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들은 모르는 생각, 혹은 숨겨진 속셈과 목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제 그것을 하나씩 교제해 보자.

① 위장한다

첫째, 위장한다. '위장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의 어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에 능하다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 위장하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겉치레에 불과한 행동과 말을 한다고 하면 이런 행동과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분명 매우 간사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 아닌 심리 공략에 능하고 아주 음험하고, 기만에 능한 사람이다. 이것이 '위장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적그리스도의 행위,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가 하는 어떤 일이 그에게 위장하는 본질이 있음을 의미하느냐? 그가 위장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그의 속셈은 과연 무엇이냐? 그는 왜 위장하려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교제하려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분부와 지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명망 있는 사람,

남들이 우러러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호령을 내리며 남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누구나 가지고 놀아도 되고, 누구나 일을 시켜도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바람이 자신의 명망과 권세, 수중의 권력을 통해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서 추구하고 바라는 바이다. 사람들 가운데서의 지위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민감하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에게 시간과 자리를 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높은지 보통인지, 많은 이들 눈에 자신이 높게 보이는지 보통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많은 이들의 눈에 하나님을 믿은 경력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말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즉 자신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귀를 기울이고 속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본인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 고생을 감내하려는 의지, 버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집에 대한 공헌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하나님 집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서열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큰일들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속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이런 일들이다. 적그리스도는 늘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매긴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은사가 높은지,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말을 잘하고 입담이 좋은지, 누가 업무를 잘하고 기술에 가장 정통한지, 이런 것들을 늘 비교한다. 비교하는 동시에 그는 각각의 업무를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각각의 업무에 정통하고 이를 잘 파악하려고 애쓴다. 적그리스도는 주로 설교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설해서 본인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지에 공을 들인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할지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보여 줄지 궁리하고, 자신이 꽤나 재간이 있고 보통내기가 아니고, 자기는 뛰어나고 일반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게 하려고 궁리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생각과 속셈,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그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이런 추구와 야심을 갖고 있기에 그에게서는 크고 작은 온갖 다양한 좋은 행위, 옳은 말, 좋은 행동 방식이 저절로 나온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 좋은 행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을 보면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심지어 모방하고 추종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목적을 달성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속셈과 야심을 가지고 또 어떤 행위를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제하려는 내용이자 교제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인식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결코 진리 원칙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명예와

지위, 복과 상을 얻는 것 외에, 육적인 편안함과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추구, 그의 행위와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방식과 행위가 절대 아님을 보여 준다. 바울과 같은 적그리스도들을 예로 들어 보자. 그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침식을 잊은 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사역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 몸이 불편하고 병이 나도 모두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냐? 자신이 하나님의 부탁을 대함에 있어 자신을 잊고 오직 본분만을 생각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다. 그는 이런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심지어 일부러 사역 시간을 연장하기까지 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잔다. 적그리스도가 이렇듯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보내면 그 사역 효율과 본분 이행 효과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그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여 자신이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자신을 잊은 채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싶은 것뿐이다. 그가 이행하는 본분과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겉면의 이런 자신의 좋은 행위를 모든 사람이 봤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지만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그 인상으로 인해 모두가 속으로 그에 대해 감탄하고 인정하는지, 심지어 뒤에서 은근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 사람은 정말 고생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야. 고생을 감수하는 정신과 범상치 않은 끈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자 고생하며 중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기둥이지."라고 칭찬하는지만 따진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만족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위장한 건 너무 똑똑한 것이었어. 이렇게 하다니 난 정말 지혜로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볼 줄 알았어. 사람들은 이런 좋은 행위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마음속 깊이 내게 감탄하고, 나를 다시 보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얕보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고. 언젠가 상부에서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교체하려고 하면, 분명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울고, 나를 붙잡으려 하고, 나를 대변해 주려고 할 거야.' 그는 속으로 자기 위장 행위를 은근히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게 어떤 본질이냐? (사악함입니다.) 맞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본질이다. 이런 사악한 본질의 지배 아래 생겨난,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내적 상태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몰래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한다. 겉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육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부담을 진실로 헤아리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속으로 몰래 하나님과 겨루는데 그 뜻은 이런 것이다. '당신은 저에게 진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독립 왕국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보여 드리지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형제자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드리지요. 제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 드리지요. 언젠가 당신이 정말 저를 내쫓으려 하고 정죄하려 할 때 당신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룬다. 그는 이런 좋은 행위로 진리 추구를 대신하려 했고, 이로써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을 이끌어 진리를 실행해서 성품 변화에 이르도록 하는 이 실제적인 성과를 부정하려 했다. 그가 한 이 말은 본질적으로 심판과 형벌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사상 관점은 사악하고 음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명확히 정죄하기 전부터 그는 속으로 하나님과 겨루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폭로하고 정죄하기 전부터 그는 위장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구슬리기 시작했고, 이로써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또한 진리를 추구해야만 성품이 변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사악하지 않으냐? 그가 고생하는 이면에는 이런 야심과 불순물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을 혐오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본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우매한 부분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좋은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한다. 그리하여 남들이 볼 때 그가 고생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가 보통 사람은 못 견디는 고생을 견디고,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또한 남들이 볼 때 자신은 끈기가 있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고, 자신의 육적인 이익과 즐거움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한다. 심지어 간혹 일부러 더러워진 옷도 씻지 않고 계속 입고, 몸에서 냄새가 나도 씻지 않는다. 남들에게 숭배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그렇게 한다. 남들 앞일수록 그는 극구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크고, 고생을 견디려는 의지도 보통 사람보다 크고, 고생을 견디려는 끈기도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행동하며,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숭배와 우러름을 받으려는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깊이 숨어 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부러움의 시선과 감탄의 시선, 칭찬의 시선을 받을 때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기쁘고 만족스럽다.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좋은 행위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충성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도가 다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원칙을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 성과와 사역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건 단지 남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으려는 것일 뿐, 사역의 효율과 성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다, 말하고 행동하는 의도와 동기, 근원에서 차이가 있다. 절대 같지 않은 것이다. 똑같이 고생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구한다. 원칙을 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 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람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고생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고, 남에게 보여 주려고 시늉만 할 뿐 진리 원칙은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며 그는 이런 행위와 모습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매수하려 한다. 이것이 차이가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행위 본질에서 볼 때 그가 고생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고생하는 행위와 모습이 단지 형식만 갖추고 남에게 보여 주려고 시늉만 하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적그리스도 부류는 위장과 기만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늘 교활한 수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기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숭배받으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며 뼛속에 새겨진 것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교활하고 쉽게 변하는 본질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과 얘기하고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싹싹하고 겸손하다. 얘기할 때는 남의 흠을 들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지를 주며 또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이 소극적이고 연약해져 있을 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 때문에 마음씨가 곱고 따뜻한,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남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말로써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써서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 금전과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겉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매우 훌륭하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가까이하며 사귀고 싶은 부류다.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어떤 위협과 방해도 되지 않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물질적인 도움, 사상 방면의 도움, 심지어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 이론에 관한 도움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겉보기에 이런 부류 사람은 별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교란이나 방해도 일으키지 않고, 그가 속한 그룹은 무척 화기애애하게 보인다. 그의 활동과 중재 아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 보이고, 사람들 사이도 무척 화목하고 다툼도 갈등도 없다. 그가 있으면 다들 사람들이 아주 사이 좋고 친밀하다고 느낀다. 그가 없을 때 함께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고, 따돌리고, 시기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던 사람들도 그가 중간에서 중재하면 모두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그가 사역을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즉, 그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 다들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고, 높은 위치에 서서 남을 야단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법을 배우고, 교활하고 간사해져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하는 법을 배운다. 다들 무골호인이 되어 겉으로는 무척 화기애애하게 보인다. 그가 교회를 무엇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종교 단체로 바꾸어 놓았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철학에 기대어 살아가느라 아무도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생명 진입이 없고, 성령 역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형제자매를 모해하고, 망쳐 놓는다. 그는 그래도 자기가 아주 큰 공을 세우고 형제자매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형제자매에게 커다란 복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 그는 늘 형제자매에게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형제자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말을 점잖게 해서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또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도 가르친다. 그가 형제자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법도 아니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법도 아니다. 그는 사람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지낼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거나 진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골호인의 처세 철학으로 어울린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서로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는 일도 없고,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패괴와 패역을 교제하는 일도, 자신의 부족함과 과오를 교제하는 일도 없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누가 고생하며 대가를 치렀다든가, 누가 본분 이행에 충성한다든가, 누가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든가, 누가 하나님 집에서 큰 공을 세웠다든가, 누가 복음을 전하다 잡히거나 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들만 할 뿐이다. 적그리스도는 겉보기에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 남을 포용하고 도와주는 좋은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이런 좋은 행위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남들도 본받게 만들려고 한다. 그의 이런 좋은 행위 이면에 숨은 목적은 남들에게 주목받고 높이 평가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선민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부할 때 그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패괴를 전혀 해부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들끼리 패괴 표출을 폭로하고 책망할 때 그는 오직 혼자만 겸손과 인내를 실행하며 모두를 포용하느라 누구의 패괴 표출도 폭로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형제자매에게 모두 좋은 행위가 있고 다들 변화했다고 치켜세우고 칭찬하면서 무골호인 노릇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위로하는 적그리스도의 자세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위장과 기만에 능하고 남을 미혹하는 데 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보면 하는 말이 매우 온화하고 우아하며 품위가 있다. 그는 누가 원칙을 어겨도, 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도 폭로하거나 질책하는 법이 없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게끔 못 본 척한다. 사람이 어떤 패괴를 드러내고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그는 관대하게 넘어가며 포용할 뿐, 성내거나 화내지도 않는다. 또 그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해서 성내고 화를 내거나 상대를 질책하지도 않는다. 누가 악행을 저질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든 마치 그 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양 거들떠보지 않고, 그 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도 없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얼마나 많은 이가 자신을 우러러보는지,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찬사를 보내는지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헛되이 고난을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남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살피고 사랑으로 대하든 그는 남들 앞에서 행동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의 행동이나 처신, 인품에 찬사를 보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런 겉면의 좋은 행위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연약해진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다들

이기적이어서 남을 잘 돕지 않고 따뜻한 마음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는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 '좋은 사람'을 떠올린다. 어떤 사람은 사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른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데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 '좋은 사람'을 떠올린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기가 싫고, 세상을 추구하며 출세해서 돈도 벌고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연약해졌는데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그 역시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 '좋은 사람'을 떠올린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일이 닥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그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 '좋은 사람'에게만 의지해 도움을 받으려 한다. 그들은 이 무골호인에게만 마음을 터놓고 속마음을 얘기하며 그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른다.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 교회에서의 그의 지위가 일반 사람보다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가 교회에서 서열 1 순위가 되어 우두머리가 되면 만족하겠느냐? 아니다. 그가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속으로 자신에게 찬성하고,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기를 바란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자리가 생기고,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바란다. 이는 교회에서 서열 1 순위가 되어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떤 점이 심각하냐? (그는 사람 마음속에서의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직접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겉면의 좋은 행위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지도 않고, 진리를 교제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에게 의지하고 앙망하며 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말을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이런 수단이 더욱 음험하고 악독합니다.) 그렇다. 잘 이해하고 요점을 얘기했구나. 바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책이 너무 두껍고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찾으면 즉시 답이 나오죠. 편하기도 하고 실용적입니다." 보아라. 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숭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의 자리도 남겨 두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그의 그런 행동은 이미 초기 성과를 거뒀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찾지 않으면 그는 속으로 언짢아한다.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떠올리지? 어째서 난 안 보이고 나를 떠올리지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인내심 있고, 버리고 헌신할 수 있고, 베풀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날 찾지 않지?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지?' 그는 불쾌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속으로 화가 난다. 사람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난다. 자신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위장한다. 계속해서 베풀고, 인내하고, 포용한다. 겸손한 겉모습에다

말할 때도 선의를 보이며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식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 "저는 패역합니다. 저는 마귀 사탄이에요." 상대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문제니까 자신을 그렇게 형편없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낮잡아 보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셨으니 우린 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경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제가 당신보다 더 패괴되었죠. 당신이 마귀라면, 저는 사악한 마귀이고, 당신이 사악한 마귀라면, 저는 지옥에 떨어져서 몰락해야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돕는다. 자기가 하나님 집과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혀서 그 정도 굽은 길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저는 당신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혔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굽은 길을 걸었죠. 이제부터 고치면 돼요. 괜찮아요. 만약 당신이 양심에 걸린다면 저한테 돈이 좀 있으니까 제가 대신 메울 테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도울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의협심'까지 발휘하는 목적이 사실은 무엇이냐? 정말 너를 돕는 것이냐? 그는 너를 해하고 있다. 너를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 너는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 그가 너에게 구덩이를 파자 너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함정에 빠지고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망쳐져도 알지 못한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냐! 사탄,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미혹하고, 모해한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하나님 집 이익을 좀 생각하면 되고, 앞으로 좀 조심하면 괜찮아요. 이 일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린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패괴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당신보다 더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서로 권면하자고요. 게다가 하나님 집이 손해를 좀 입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우신데요. 우리 사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욱 너그럽게 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과오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아무 과오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의 편에서 얼렁뚱땅 가볍게 웃어넘기고, 그러면 그는 무척이나 마음이 넓고, 매우 어질고, 위대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인다.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폭로하기만 하고, 언제나 사람의 패괴 성품을 문제 삼고, 언제나 사람에게 시시콜콜 따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사람에게 과오가 있고 패역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하고, 형벌해 하나님은 사람 뜻에 맞지 않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에게 너그럽고,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보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냐? 또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재산 많고 가업이 잘 되는 집안은 좀 낭비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축복도 풍성하고요. 낭비 좀 한 게 대수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낭비한 게 어디 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포용하셨잖아요? 사람이 연약함과 패괴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징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인내와 긍휼이 있으시다는 증거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럴싸한 말, 사람의 관념에 맞는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사람의

시선을 교란하고 잘못 이끈 탓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오해를 품고,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마저 사라져 버리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부추김과 미혹, 오도로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약간의 양심도 사라지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위장을 잘한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겉보기에 무척 너그럽고, 인내심 있고, 겸손하고, 온화해서 누구에게든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보일 수가 없다. 문제를 처리할 때 그는 늘 높은 지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극히 관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언제나 도량이 있고, 넓은 아량을 베풀고, 시시콜콜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그는 무척이나 위대하고 인자하게 비춰진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본질을 갖추었느냐? 그는 선의로 남을 대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언제나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행위의 이면에 숨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 마음을 구슬리고 매수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감춰진 민낯이 정말 그렇겠느냐? 정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는 겸손하고, 인내심 있고,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이겠느냐? 그에게 이런 본질, 이런 성품이 있느냐? 그에게 이런 인품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위장한 것이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 마음을 매수해서 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도움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온갖 궁리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며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한다. 말을 꺼내기 전에 속으로 몇 번을 걸러 내고 가공하는지 모른다. 어휘나 표현, 어조와 목소리, 심지어 시선과 말투를 위해 온갖 궁리를 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한다.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지,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지, 자기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지, 자기와 성격이 맞는지, 상대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교회에서나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어떤지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열심히 생각한다. 그러고 나면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생겨난다.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떠나 어쨌든 그가 도달하려는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말할 때 더 많은 이가 그를 부러워하며 우러러보고, 그가 일할 때 더 많은 이가 그를 옹호하고 추종하고, 그가 잘못했을 때 더 많은 이가 그의 책임을 벗겨 주며 그를 위해 변호하고, 그가 드러나 버림받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그의 편을 들고 그를 위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를 위해 일어나 하나님에게 따지고 대항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무너질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 보호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온갖 궁리를 해서 교회에서 경영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았다는 뜻이다. 그의 '고심'은 헛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위, 사람들 사이에서의 명망, 명예, 권위를 경영하고 다루는 데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다. 느슨하게 대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고, 소홀히 하는 법은 더욱 없다. 그는 사람들 각각의 눈빛을 관찰하고, 각각의 성격, 생활 규칙을 관찰하고, 각각의 추구, 긍정적 사물과 부정적 사물을 대하는 각각의 태도도 관찰한다. 나아가 각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성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각각의 태도 등을 관찰한다. 이런 일에 그는 무척 공을 들인다. 따라서 그의 이런 태도에 기반할 때,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을 때는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성격이 비교적 나약하고 늘 소극적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또 우매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과시한다. 마치 서커스를 하듯 계속해서 모든 기회를 잡아 공연을 펼친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그에게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에게 아무런 분별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 그는 공연을 한다. 기회만 생기면 교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력을 교제하고 과거 자신의 '휘황찬란한 역사'를 교제하고, 자신이 하나님 집에서 세운 공로를 교제하고, 심지어 상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중시했고 어떻게 자기를 직접 책망하고 훈계했는지 등을 교제하는데, 이런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어떤 무리 속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는 일은 단 하나, 바로 공연하는 것이다. 즉, 군중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인 진리를 싫어하는 것, 사악함, 뻔뻔함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공연을 하느냐? 아마 너희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연하고 있고, 뽐내고 있고, 사람 마음을 구슬리고 있고, 기회를 잡아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으려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비웃는데도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신경 쓰는 건, 이번 공연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담력 있고, 지도자다운 면모, 지도자로서의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주눅이 들지 않는 배짱이 있고, 더욱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그는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기회만 있으면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과시한다. 거침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과시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내가 예배 때 정식 주제만 교제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다가 졸기도 한다. 혹은 정식 주제를 교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다른 곳에 있어 내 말이 마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잡담을 좀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일, 이런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특정 패괴 성품 및 내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 즉, 이야기나 우스갯소리를 이용해서 좀 더 분명히 알고 더 잘 깨닫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예배에서 설교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네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당신보다 못하지 않다고요. 내가 그냥 아재 개그 하나를 툭 던지면 다들 배꼽 빠지게 웃고 좋아할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예배 드리는 대신 이야기를 들으려 할 거야.' 그는 이런 걸 비교한다. 이걸 비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느냐? 왜 잡담을 좀 하겠느냐? 잡담이나 이야기 중에는 들으면 거기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볍게 진리를 깨닫는 데 더 유리하다. 이것이 내 목적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것으로 트집을 잡는다. "예배 시간은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간인데 당신은 잡담이나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도 잡담을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잡담이냐?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들은 진리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의 잡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야기나 우스갯소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은 진리를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진지한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이건 어떤 부류가 하는 짓이냐? 적그리스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짓을 쉽게 저지른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위장 행위는 형제자매 눈으로도, 더 많은 사람의 눈으로도 거의 문제를 잡아낼 수 없다. 왜 잡아낼 수 없느냐? 네 눈에 띄지 않도록 그가 문제를 가리고 숨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악한 면, 방탕한 면, 나쁜 면을 이면에 숨긴다. 이면이란 어디를 말하느냐? 네 눈에 안 보이는 곳이다. 즉, 그의 집, 사회, 직장, 그의 친한 친구들 앞이다. 이와 같은 범위들은 네가 볼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다. 네가 보고 접할 수 있는 그의 언행은 모두 그가 위장해 낸 면이고, 모두 그가 가공해 낸 것이다. 네가 볼 수 없는 그 면이 바로 그의 진정한 본질이자 진면목이다. 그의 진면목은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있을 때 그는 어떤 나쁜 말도 가리지 않는다. 원망의 말, 증오의 말, 사람을 적대시하는 말,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나님 집이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하는 말을 모조리 내뱉는다.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혀 삼가지도 않는다.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과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남의 집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이방인의 모든 세속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심지어 관혼상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방인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헐뜯는 등 이런 말을 그는 다 한다. 이방인 사이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눈을 속이고, 몰래 빼앗고, 기만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남을 공격하고, 일터에서 사람을 모함하고, 고자질하고, 남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등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이방인과 있을 때는 인내하지도 않고, 포용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하나님 집에서 그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이고, 이방인들과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철저하게 늑대의 얼굴을 내보인다. 이방인과 이익을 다투고, 말 한마디, 주장 하나를 다투고, 약간의 이익을 위해 얼굴을 붉히며 끊임없이 다툰다. 하나님 집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책망을 받으면 집에 가서 억지를 쓰며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는데, 가족들이 겁낼 정도로 난리를 친다. 이방인들과 있을 때 그에게는 크리스천의 품위는 눈곱만큼도 없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야 할 간증도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늑대이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 그리고 형제자매 앞에서 그는 약속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방인들 사이에 가면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믿는다. 심지어 이방인들처럼 스타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 매일 스타의 차림새를 따라 하느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녀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이 안 된다. 매일 세련된 옷을 입고 유행을 좇으면서도 사는 게 즐겁기만 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 마음속에서 명망과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쏟는 것이고, 남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숭배받기 위해 들이는 것이다. 이런 행위와 행동 방법,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가 이면에서 살아 내는 것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가 이면에서 하는 행동은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확연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그가 형제자매 사이에서 한 모든 것, 그 사이에서 드러낸 모든 것이 진실되고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닌 위장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위장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절대 이렇게 자기 뜻을 굽혀 가며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면에서 한 일, 이면에서 드러낸 성품, 그리고 그 본인의 추구를 근거로 볼 때,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단정하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더욱 좋아하지 않고,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보여 주는 이 모든 좋은 행위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도, 진심으로 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본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남에게 보여 주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위를 맞추고 남의 마음을 매수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남의 마음을 매수하면 그에게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다. 그에게는 이 이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면 누구나 그를 알고, 누구나 엄지를 치켜올려 주고, 누구나 칭찬하고, 누구나 숭배하고, 일이 생기면 그를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에게는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주위를 맴돌면 그는 속으로 어떤 기분이겠느냐? 자기가 비범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우쭐해지고, 구름 속에서 사는 기분일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치켜세우고, 칭찬하고, 마치 달 하나를 별들이 에워싸듯 모두가 한 사람을 받드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 얼마나 황홀한 기분이겠느냐.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도 남들이 모른다면, 대다수의 마음에 자신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다른 특징이나 장점, 뛰어난 부분도 별로 없고, 남들이 감복하거나 존경할 만한 부분도 없고, 남들 입에 오르내릴 칭찬 거리도 없다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를 불쾌하고 떨떠름하게 느낀다. 신선이 된 기분도, 우쭐한 기분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편치 않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가치 없게 느껴진다. 그는 생각한다. '평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본분이나 좀 이행하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이런 삶이 무슨 재미가 있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일이 어쩜 이렇게 시시할 수 있지? 그 기준이 너무 낮으니 높여야겠어. 어떻게 높일까? 인지도를 높여 사람들에게 앙망받고 높이 평가받으면 사는 게 자랑스러울 거야.' 그러니 그는 기도할 때는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문법에 맞게, 논리와 순서에 맞게, 조리 있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려줘서 모두에게 자기가 말주변이 좋고, 생각도 분명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집에서 혼자 읽지 않고 먼저 집에서 준비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자기가 읽는 말씀은 다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뒤에서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제대로 준비한 다음, 남들에게 보여 줄 때 체면이 서고 수긍할 수 있어야 남 앞에 내놓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예습하고 준비한 다음 남 앞에 내놓는다. 남들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가공을 거친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관점, 패괴 성품과 계략, 수단을 거쳐 가공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와 인지도를 얻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대가를 아낌없이

치러 가며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이런 일은 전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진정한 표출이냐?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실행이냐? (아닙니다.) 이런 건 모두 위장해 낸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위장은 역겹기 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교제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초고를 쓴다. 뒤에서 초고를 다 쓰고 여러 번 수정하고 가공과 윤색을 거쳐 준비가 다 된 후에야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교제한다. "다들 형제자매니까 예배드릴 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속으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누군가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저를 얕잡아 볼 거예요." 보아라. 그는 무의식중에 본심을 드러낼 때도 있다. 그는 어디서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 사회에서 엘리트나 교수, 대학생, 박사생인 사람도 있고, 또 과학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항상 행위를 위장하고 가공해서 사람들과 사귄다. 즉,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상대는 그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연약함이 있는지, 그가 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고, 그의 사생활, 처신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고, 언제나 궁금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깊이 위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가 너에게 위장하면 너도 그에게 위장하는 건 어떠냐? 예를 들어, 그가 너에게 계속 빈말을 늘어놓고 너도 그에게 계속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울리는 게 적절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그를 폭로하고 그에게 그런 성품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속셈에 지배받은 것인지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폭로해야 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그를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지금의 너희 분량이라면, 기본적으로 확실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조금 간파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재주가 좋고 위장도 할 수 있고 깊이 숨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간파할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그가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한다면,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수도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면, 너는 가끔 어떤 일에서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데 그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설령 소극적이게 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고 얼른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너는 안 된다면, 네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찬성하고 숭배하며 그를 따라 하고 그를 따라갈 것이다. 분별할 줄 모른다면 미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위장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몇 가지 방면을 교제했느냐? 하나는 수고를 이용해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다. 속으로는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일에 반발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억지로 수고하고 버리고 대가를 치른다. 수고한 다음에도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떠들어대면서 사정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알린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알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면 그는 목적을 이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사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표방한다. 또한 이런 사람의 이미지와 신분,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상대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서게 만들려고 한다. 그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이 평가받고, 이로써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법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위장 행위, 위장하는 본질 이면에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은 어떤 게 있는지 폭로하고 해부해 보았다. 이 항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② 사칭한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을 교제해 보자.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얻기 위해 늘 외식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의 관념에 맞는 말을 하고, 겉보기에 남들이 찬성하고 감탄하는 일을 해서 자신의 지명도를 올린다. 이 역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한 방식이다. 사칭과 위장은 차이가 있느냐? 위장하는 것과 사칭하는 것은 표면적인 행위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일종의 내적 상태이고, 서로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따로 교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욱 잘 이해하고, 더욱 뚜렷이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칭[假冒]'이라는 어휘는 '가짜[假]'가 아니라 '속이다[冒]'에 중점이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사칭하겠느냐? 물론 사칭에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사칭은 지위와 명망을 얻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사칭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미련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사람이 늘 사칭하는 짓을 저지른다면 자연히 남들에게 역겨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호된 질책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바로 그는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며 진작에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마음에서 지위를 얻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고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는 사람의 관념상 좋다고 생각하는 행위와 모습을 위장해 내는 것 말고도 명인이나 위인의 분위기를 흉내 내고, 명인이나 위인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해서 사람들에게서 높은 평가와 앙망을 이끌어 낸다. 이런 식으로 그는 교회에서 어느새 일부 사람들로부터 숭배와 치켜세움, 옹호를 받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적인 사람, 명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흠모와 우러름을 받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분별력이 전혀 없어 본인이 속으로 좋아하고 감탄하는 사람이면 숭배하고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주로 어떤 사람을 사칭하느냐? 영적인 사람을 사칭한다. 대다수가 영적인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유대교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영적인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거짓된 경건함 때문에 그들을 숭배했고, 그들이 보이는 일부 좋은 행위 때문에 그들을 숭배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아주 형통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지금 교회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숭배한다.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은 햇수가 많고, 소위 영적인 체험과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적 있고, 큰 이상(異象)을 본 적이 있고,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잘 떠벌리고 말을 잘해서 남들로부터 숭배와 흠모를 받는 사람, 일하는 방식과 방법, 원칙이 비교적 교회 규정에 맞고 표면적인 행위가

비교적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사칭하느냐? 그는 이들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람들 눈에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내면에서 우러난 것이냐? 아니다. 그는 겉으로 흉내 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단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이 닥치면 얼른 기도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늉만 할 뿐이다.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정말 크다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병이 나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가서 치료받지도 않고, 먹어야 하는 약도 먹지 않는다. "그 병은 약을 안 먹으면 악화될 텐데요. 약을 먹어야 할 때는 약을 먹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믿음에 기대어 본분만 내려놓지 않으면 돼요."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는 대답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겉으로는 억지로 침착하고 두렵지 않은 척하고, 믿음이 가득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죽을 만큼 겁을 낸다.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얼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들이 모르게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병원에 가고 약 먹는 일을 들키기라도 하면 그는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쉬쉬한다. 그는 또 늘 이런 말을 한다.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련하시는 겁니다. 병 속에서 살면 병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병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 이 병은 사라질 거예요." 그는 겉으로는 늘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지만 정작 본인은 뒤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고, 자신은 병에 걸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두려워한다. 병을 얻어 입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은 더 두려워하는데, 참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저는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나에게 닥쳤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걸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드러내시고 이 본분을 못 이행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시는 게 아닐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신다면 나는 봉사자라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봉사하도록 이용하시는 건가? 나는 앞으로 결말이 있을까?' 입으로는 감히 원망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하는 일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체하면서 남들에게는 자신이 질병에 걸려도 얽매이지 않고 의연하게 본분을 이행하고 의연하게 순종과 충성심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이 위장하고 사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믿음, 순종은 모두 거짓이고 충성심도 거짓이다. 여기에는 참된 순종도, 참된 믿음도 없다. 참된 의지와 맡김은 더더욱 없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패괴 성품도 성찰하지 않고, 진리를 구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육적인 이익, 결말과 종착지이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 추측뿐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영적인 모습을 가장하면서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으니 원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 입으로는 원망하지 않지만 정작 마음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 의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친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본분에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본분을 포기했다. 이것이 사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사칭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칭한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는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잡담하지 마세요, 예배 중이잖아요! 여기가 어떤 자린데 그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군요. 좀 엄숙하게 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좀 쉬는데 이를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또 대충 때우고 싶어졌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형제자매가 업무에 대해서 토론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부터 한 다음에 토론하고 얘기 나누세요." 예배 시작 전,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규정하고, 뭐라고 한다. 본인은 언제나 아주 영적이고, 착실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본분에도 책임감이 있다는 걸 보여 준다. 또 매일 시간 맞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 생활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꼬박꼬박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 잡담이나 일상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머리가 길었으니 좀 자르세요. 날씨도 더운데 짧게 자르면 시원하잖아요."라는 누군가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꾸한다. "길어도 괜찮아요. 사역이 중요하죠. 한 이틀 늦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옷이 해졌군요. 계속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웃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남들 비웃음 따위를 겁내나요? 우리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큰 붉은 용에게 박해받는 고통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옷이 해졌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게 뭐 대수인가요? 하나님만 열납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좋으냐? (영적인 체하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 질문을 해서 다 같이 교제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한 마디로 종합해 낸다. "이번에 저는 새로운 빛 비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드셔도 헛되이 드시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는 배추를 먹더라도 헛되이 먹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먹어도 헛되이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한 그의 말은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설교를 해 주셨으니 그건 밥값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교제도 못 했으니 배추를 먹어도 헛되이 먹는 것입니다.' 일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리로 여기고 여기저기 퍼트린다. 그들은 자기 인식을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 등과 같은, 누구나 늘 얘기하는 대중적인 주제는 영적이지도 않고, 고차원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빛 비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한 말이야말로 새로운 빛 비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고차원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듣기에는 옳은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역겹고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건 바로 영적인 이해력도 없으면서 영적인 체하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체하고, 진리를 깨달은 체하는 사람들이 발명해 낸 말이다. 그런 말은 헛소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글귀와 도리를 읊어 대는 거창한 말, 빈말만 전문적으로 따라 할 뿐 진리를 실행해서 실제에 진입하는

일은 중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영적이고 도리에 맞는 말을 전문적으로 따라 하는 데만 열중하고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는 해부해 보지 않는다. 이런 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제일 혐오한다.

이른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고담준론만 나눈다. 비밀이나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고차원적인 얘기만 해서 듣고 있노라면 도무지 지상에서 하는 말 같지 않다.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겉돌기만 한다. 겉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얘기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는 말이다. 서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었는지, 어느 편 말씀을 누가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지, 누가 얘기하는 것이 남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깊이 있고, 빛 비춤이 있는지를 겨룬다. 그들은 이런 것만 겨루는데 이를 영적인 것을 겨룬다고 한다. 가끔 다 같이 모여 요즘 근황이나 바깥일을 얘기하는데 그런 자리에 '영적인 사람'이 오면 다 같이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구석진 곳에 가서 읽는다. 딱 봐도 이 사람은 사교성이 없고 아주 이상하지 않으냐? 내가 일부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교제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면서 바깥일에 대해 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런 뜻이다. '당신이 진리를 교제하면 듣겠지만 잡담을 할 거라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느냐? 기도할 곳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접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 앞에 조용히 있으면서 바깥세상의 일에 끌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영적인 것이냐? 그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요즘 내적 상태에 대해 얘기하면 그는 네가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한 마디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 버린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위선적인 행위다. 정말 위선적이다! 그가 사칭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영적인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말에도 빛 비춤이 있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바깥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정에 얽매이지 않는 등 육적인 이런 요구가 없고, 정상인들과 달리 이미 세속에서 벗어나고 저속한 취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몇 마디 나누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못됐어요.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일에 끼어들었다 하면 내면이 교란을 받아요. 얼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점유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피하고 말을 섞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류도 없으니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런 것이다. "이방인은 다 마귀이니 저들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혐오하시니 우리가 마귀와 사귀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과 말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는 속으로 불만을 가진다. '그래도 하나님을 오래 믿은 신자인데 이방인을 봐도 피하지도 않고 저렇게 가깝게 지내다니, 딱 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일이 닥치면 틀림없이 유다가 되겠군.'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다. 부모가 믿지는 않지만 자녀가 믿는 것을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녀가 돼서 가끔 부모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부모가 아프면 집에 가서 시중들고 돌보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도 이렇게 보느냐? 그는 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 "당신은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잘만 떠들더니,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정에 더 휘둘리는 것 같군요. 부모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들을 버려야죠." 상대가 대답한다. "우리 부모님은 안 믿어도 대적하지 않고 저를 꽤 지지해 주세요." "지지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마귀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밥을 해 줄 수 있나요?" "이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부모님께 밥 몇 끼 차려 드리면서 좀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왜 정죄하시죠?" "이런 사소한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스스로 입장이 있고 굳게 서서 증거해야 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도 분별력도 없고, 분량도 없고, 마귀에게도 잘해 주다니 정에 너무 휘둘리는군요!" 그는 이런 일도 정죄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남에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어서 본인은 분량이 있고 추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준다. 하지만 결국 자기 가족이 죽자 그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나고 싶어진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했다. "영적인 사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좀 연약해지는 것도 안 됩니까?" 이건 교활한 변명이 아니냐? 영적인 체하는 사람은 위장에 능한데 이것을 두고 사칭한다고 한다. 연약함도 없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믿음과 충성심이 있고, 맹세를 지킬 수 있고, 고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부적절하고 이상적이지 못한 행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칭한다.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칭찬하고 흠을 잡을 수가 없다. 크리스천의 품위와 기본적으로 맞물리고 심지어 소극성도 없고 연약함도 없다. 누군가 연약함과 소극성을 띠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늘 날카롭게 꾸짖는다. "이까짓 일에도 연약해지는 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쩜 아직도 연약해지나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우며 순종해야죠.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육적인 것을 좇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은 듣기에 어느 한 마디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구구절절 빈말에 불과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게다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의 연약함과 관계가 있느냐? 사람의 패역과 관계가 있느냐? 사람은 패괴 성품이 있고 육으로 살기에 어느 때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패역이 있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 형제자매들 중 뛰어난 자, 진리를 깨달은 동시에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싶어 한다. 그가 이런 역할을 맡으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그들은 자신이 이미 육을 초월하고 세속을 초월했다고 생각하고, 정상 인성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정상 인성의 육적 요구에서 벗어났다고 믿는다. 본인은 하나님 집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입으로 약속한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으스댄다. 따라서 그들은 늘 우쭐대면서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가 기억할 수 있고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글귀를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꾸짖고 정죄하고, 규정한다. 또한 언제나 자신의 관념 속에서 상상하는 방법과 주장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고 자신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지킨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도리를 얘기하거나 세련된 구호를 외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고, 앞에 나서서 사역을 맡길 원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사람인 체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으스대는 동시에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인 체한다. 예를 들어, 그에게 타자를 할 줄 아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알죠. 저에게 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계 고칠 줄 아세요?" "모든 기계는 원리가 다 같아요. 고칠 수 있죠." "트랙터도 고칠 수 있나요?" "그런 구식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것이 기계 고칠 줄 아는 거라 할 수 있겠어요?" "밥할 줄 아세요?" "먹을 줄 알면 할 줄도 아는 거죠!" "비행기 조종할 줄 아세요?" "배운 적은 없지만 배우면 가능하죠. 기장이 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그는 자기가 뭐든 할 줄 알고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해 달라고 했다. 그는 말로는 쉽게 고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고칠 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두 번 세 번 고치다가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몽땅 날려 버렸다. "도대체 고칠 줄 아는 거 맞아요?" 수리를 맡긴 사람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에 고쳐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정말 위장에 능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가 바로 천사장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다.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못 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결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할 줄 모르는 일, 본 적 없는 일이라도 이유를 지어내고 말을 지어내서 자기는 뭐든 잘하고, 뭐든 할 줄 알고,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초인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하고 빛의 천사인 체하려는, 이런 인간이 아니냐? 적그리스도 부류는 언제나 뭐든 잘하는 체하려 하기 때문에 네가 그에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고,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라고 하면 그는 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협력해 줄 필요도 없고 조수도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협조해 주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뭐든 할 줄 알고 뭐든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것도 없고 도달하지 못 하는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당신들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설령 어떤 것을 할 줄 안다 해도 정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만 배웠지만 무엇이든 다 할 줄 압니다. 한 가지를 터득하면 만사가 통하는 법이죠. 글쓰기면 글쓰기, 외국어면 외국어 다 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외국어를 전혀 못하지만 배운다면 5 개국어도 문제없습니다." 남들이 연기를 할 줄 아는지, 노래와 춤을 할 줄 아는지 물으면 그는 다 할 줄 안다고 대답한다. 허풍을 잘 치는 게 아니냐? 자기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할 줄 아는 체하다니,

정말 천사장의 본성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 믿는 동안 연약해진 적이 없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연약해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연약해지면 안 되죠. 연약해지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잖아요. 우리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집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집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집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말에 그는 대답한다.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집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마귀, 사탄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믿는 동안 굽은 길을 간 적은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굽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 모두 엉터리에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굽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본인이 뭐든 잘하고 뭐든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다들 배때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한다. 정말 그런 것이냐? 어떤 연약함과 소극성은 정상적이고, 어떤 건 원인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배때기가 불렀다'는 말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적인 척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척, 결함과 연약함이 없는 척한다. 나아가 자신은 패역도 없고 한 번도 과오를 저지른 적 없는 척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항상 연약함 없이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전혀 소극적이지 않은 자세를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분량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 사실 그가 정말 속으로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정말 자신에게 연약함이나 소극성이 없고, 패괴 표출이 없다고 생각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위장과 은폐에 능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한 면과 자랑스러운 면을 보여 주기 좋아하고, 연약하고 진실한 면은 보여 주기 싫어한다. 이 목적은 분명한데, 바로 자신의 허영과 체면을 지키고,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극성과 연약함을 내보이고 자신의 패역이나 패괴된 면을 공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도 연약함과 패역,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죽어도 말하지 않는다. 설령 어느 날 모두에게 자신의 연약하고 패역한 면이 보여지더라도, 그가 패괴된 사람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위장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패괴 성품을 지닌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사라지게 되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숭배와 앙망을 잃게 되며, 그러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과 지위를 순순히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대신 안간힘을 다해 쟁취하려 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다가 문제가 생겨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둘러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만약 자기가 잘 아는 일을 만나면 잽싸게 남들에게 솜씨를 보여 주며 기회를 잡아 남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에게 은사와 특기가 있다는 걸 보여 줘서 자신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만든다. 또 어떤 큰일이 닥쳐 누군가

그에게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쉽게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에게 먼저 말하라고 한다. 그가 쉽게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 관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관점이 틀릴까 봐, 말했다가 반박당하고 망신당할까 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관점이 없고 그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해 함부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 말했다가 비웃음을 살까 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가 자기 관점을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본모습이 드러날까 봐, 자신이 빈곤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서다. 그렇기에 모두가 자신의 관점과 생각, 인식을 교제한 후, 그는 고매한 말, 상대적으로 근거 있는 말을 가져다가 자기 관점과 인식인 양 종합한 뒤 모두에게 교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활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관점을 발표해야 하는 때가 오면 그는 자신의 실제 내적 상태를 모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자신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자질이 어떠한지, 인성은 어떠한지, 이해 능력은 어떠한지, 진리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는지 등을 알게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허풍과 큰소리를 치며 영적인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인 척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과 실제 분량을 애써 숨긴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형제자매들에게 드러낸 적도 없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극력 숨겨 왔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의혹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까?"라고 하면 그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몸이 아플 때 괴롭고 집이 그립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립지 않습니다."라고 답한다.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더없이 굳세고 의지력이 강하며, 버리고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단점과 문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어떤 패괴나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형제자매로 여겨 평등하게 대하고 마음을 열고 교제한다면 그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애써 변호하고 변명하여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문제가 없고, 그를 완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는 거짓으로 꾸미는 것 아니겠느냐? 자신이 완전무결하거나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패괴된 인류 가운데 완전무결한 사람이 있느냐? 진정으로 성결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되었고, 천성적으로 진리도 갖추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무결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패괴된 인류는 다 더러운 것이다. 만약 누군가 성결한 척하며 자신이 완전무결하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마귀이자 사탄이고 천사장이다.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완전무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알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그럼 그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교제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교제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류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맞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그것도 문제를 부풀려서 자신이 사탄이니, 마귀니 하며 스스로에게 커다란 낙인을 몇 개 찍고는 아주 깊이 인식한 것처럼

가장한다. 이것은 영적인 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외식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스스로를 참되게 인식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한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실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빈말이나 도리만 얘기하는데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이 인식하는 것 같지만 뉘우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이겠느냐? 참된 뉘우침이 전혀 없는데 스스로를 증오하는 성과에 이르렀겠느냐? 뉘우치지 않고 자신을 증오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인식할 때는 모두가 공인하거나 모두의 눈에 보이는 일에서만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해 궤변과 해명을 늘어놓는다. 이로써 남들이 그를 아무 잘못도 없는 데다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우러러보게 한다. 사람들은 그가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스스로를 더 잘 인식하게 될 거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지!' 그런 그의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패괴 성품을 진실되게 해부하고 인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을 교제함으로써 남들이 자신을 더욱 우러러보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자신을 증거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게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지 어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냐? 이는 철두철미한 기만이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영적이고 자신을 인식할 줄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비열하고 추잡한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 기술적인 사역을 맡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어이 끼려고 한다. 자기가 관련 업무를 배운 적이 있으니 그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그것에 정통하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그런 사역을 맡으려 하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도 협력도 하지 않는 데다가 진리 원칙은 더욱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깨달았고 안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다면 업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정통한 것이 진리 원칙을 깨닫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업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정통한 것이 곧 진리 원칙을 깨달은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업무를 이해한 것이 곧 진리 원칙을 깨달은 것이니 대담하게 거리낌 없이 일을 해도 된다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집의 규정에 따라 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기 일이니 다른 사람은 개입해서도 물어봐서도 안 된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냐?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냐? 업무만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본분 이행이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교회 사역을 교란합니다.) 단지 교란할 뿐이겠느냐? 교만하고 거만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본분을 이행하면서 거두려는 성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네가 이행하는 본분을 빌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그 업무는 그저 이 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업무는 진리를 상징하지 않는다. 네가 업무에 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네가 진리 원칙대로 일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맞서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나님 집에 왔고,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에 정통하니 하나님 집에서는 마땅히 저를 중용하고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제게 면박을 주어서도 안 되고 제 업무 범위 내에서는 어떤 일에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강의해 주는 게 맞죠. 하나님 집에서는 업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을 저와 협력하게 해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저와 협력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옳겠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와 협력할 자격이 없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 너와 협력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이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온전케 되었느냐? 너는 이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높여 주어서 너는 이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다. 이 본분을 이행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업무는 단지 봉사하는 데 사용되며 이 본분을 위해 이바지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네가 이행하는 본분에 얼마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든 반드시 전부 진리 원칙이 중심이 돼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성과에 이르지 못하고 네가 이행하는 본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네 기술이 소용이 있겠느냐? 가치가 있겠느냐? 아무런 가치도 없다. 따라서 네가 가진 그만한 업무나 기술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사람이 귀하게 여길 가치가 없다. 하나님 집에서 너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지 않으면 너의 그깟 업무와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진리와 비교하면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

적그리스도의 사칭은 적그리스도 부류가 사람들 마음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칭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오도한다. 이런 자들이 사칭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영적인 사람을 상상해 낸 다음 사칭과 위장을 통해 이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자 정죄하는 대상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만약 이런 사람이 되려 하고, 또 늘 이렇게 사칭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다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게는 연약함이 있고, 소극성이 있고, 패괴 성품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으며 모르는 일도 많고 못 하는 일도 많습니다. 종종 연약해지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일에서는 기껏해야 한두 가지밖에 잘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까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업무 기술밖에 모르고, 이 정도 특기밖에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자질도 높지 않고 깨닫는 능력도

보통입니다. 진리에 관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신 만큼만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 주시지 않은 것이나 명확히 얘기하시지 않은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질이 보통밖에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저를 리더나 팀장으로 뽑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지, 절대 제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 속으로 언제나 스스로를 아주 위대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남다르고,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어느 무리에 있든 보통이 아니고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무리에 있든 한두 달만 있으면 자신의 특기와 재능, 자질, 깨닫는 능력을 남들이 다 알게 되며 그것들이 다 보통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속으로 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한다면 너란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골치 아프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고, 완전한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그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힘쓰는 일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등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진리와는 무관하지만 늘 너에게 착각을 심어 주어서 네가 자기는 남다르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자신은 남다르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겠느냐? 바로 네가 잘하는 그 일들, 소위 남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우수한 조건을 지녔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는 이 일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처음 말씀하고 사역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는데, 패괴된 인류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되어 나서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증거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한 명도 없다! 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사탄의 패괴 성품이 있다는 얘기는 잠시 접어 두더라도, 모든 인류의 자질과 두뇌, 깨닫는 능력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희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째서 지금은 진리를 조금 깨달은 겁니까?" 그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말해 더는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도 지겹다. 매번 너희에게 말하거나 교제할 때마다 대주제와 중주제, 소주제로 나누어야 하고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자질이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네가 교만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볼 때 너희 대다수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각종 기술적인 사역을 몇 년이나 했는데도, 너희 중에 지금 정말 진리 원칙을 깨닫고, 진리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진리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어떤 사역이든 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부 상부에서 직접 지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체크하고 지도하지 않는 사역은 꼭 문제가 생긴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이 무슨 내세울 게 있느냐?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나 완전한 사람인 척하고 영적이고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척한다. 이는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정말 골치가 아프다! 어떤 주제를 교제하든 자세히 알려 줘야 하고, 자세히 말할수록 좋다.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도 안 된다. 사람은 그저 이 정도 자질, 이 정도 깨닫는 능력밖에 없어서 어찌나 가련한지 모른다. 그런데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은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③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이어서 세 번째 조항인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를 교제해 보자.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자 하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며, 이런 자는 바로 진짜 적그리스도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사탄과 천사장의 본질을 지닌 적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 평범한 나날을 보내라고 한다면 그는 속으로 달가워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며 계속 몸부림치려 한다. 왜 몸부림치느냐? 티를 좀 내고 수작을 좀 부려서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세상에 자신과 같은 이런 일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을 날려서 자기가 이방인들이 말하는 남 밑에서 일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남 밑에서 일할 자가 아닌 존재는 어떤 것들이냐? 악령, 더러운 귀신, 천사장, 사탄, 마귀이다. 적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자족하는 생활, 평범한 사람의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용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평범한 사람으로 착실히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될 마음이 없다. 따라서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그는 속으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어떤 일이냐?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며 고생을 좀 하고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신임 관리가 의욕이 대단하다'는 말처럼 적그리스도는 리더가 된 후 기적 같은 일을 좀 하고 '치적'을 좀 세워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비록 그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또 본분을 이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본분을 이행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을 잘하느냐고 구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 집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진리 원칙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 사역에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형제자매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교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사역에 확실히 구멍이 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조사해 보지 않는다. 그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일을 담아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알아보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건 바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남다름, 자신의 리더다운 풍모를 드러내서 남들에게 자신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 교회는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것,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의 각종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가 일하는 동기와 근원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을 어느 위치에 놓았느냐?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누구에게도 불복하고 늘 자기가 결정하고 남들이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복하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있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진리 원칙도 구할 필요가 없고, 교회 규정과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내가 한 마디 해도 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가 따르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한다는 이런 원칙과 출발점에 입각해서 자신의 사업을 한다. 교회에서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고, 위엄과 명망을 세우고, 발언권을 잡을 수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로써 그의 소위 본분 이행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건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일하는 과정에서 먼저 입지를 굳혀서 어느 정도 명망을 얻고, 명성이 높아지고, 발언권과 결정권을 손에 넣으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세력 범위 내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을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만든다. 이를 가리켜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아니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적그리스도는 본분 이행을 기회로 이용해 자신의 은사와 재능, 자신의 남다른 생각과 행동 방법을 충분히 나타낸다. 이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은 다음, 교회에서 발언권과 의사 결정권을 손에 넣고 통제권도 손에 넣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일을 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곳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

만약 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는다면 그 교회의 형제자매는 모두 어떤 내적 상태를 보이느냐? 적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어떤 일을 하든 규례만 지킬 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아무리 많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 진입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런 교회는 설령 내가 가더라도 버림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들 사이에서 명분은 리더이지만 사실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적그리스도가 어느 교회를 통제하면 그 교회에서는 진리와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다. 심각하지 않으냐? 적그리스도가 한 교회의 사람들을 통제한다면, 타인이 사역하러 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주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느냐? 그들은 통일적인 지휘 아래 있고 통일적으로 행동하며 누구도 함부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주인이 한 번 눈치를 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대로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물어보면 그들은 자기네 사투리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 뜻은 나를 모르게 하고 회피하겠다는 뜻이고,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회피하는 것은 무슨 성질이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그는 교회를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절대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이익은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디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본분 이행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주관적인 바람상 본인이 지위를 좋아하고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일하거나 손을 댔다 하면 적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고, 마귀적인 성품이 드러나고, 독립 왕국을 세우려 한다. 그는 일만 했다 하면 자기 경영을 하려 하고, 일만 했다 하면 자기 방식과 방법을 따르려 한다. 상부에서 어떤 일을 안배했을 때 그에게 가면 이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따져보고, 교제한다.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일이 통과될지, 가능할지 다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일은 모두 진리이지만 그에게만 가면 바뀌는데 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는 그걸 가져다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한 다음 최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와 하나님의 안배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관할하는 범위에서는 당신이 결정하려 해도 어림없습니다! 내가 실세이니 내 말을 들어야죠. 나는 절대적인 발언권이 있고, 절대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고, 당신은 여기서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역 범위와 세력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내가 결정합니다. 설령 당신이 진리를 깨달았고 당신이 하는 말이 모두 진리라고 해도 나한테는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마귀가 아니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권에서는 교회의 사역지침, 상부의 요구, 진리 원칙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리더 일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집에서 너를 어쩌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너를 쓸 수 있다면 너를 처리할 수도 있다. 너는 이곳이 세상인 줄 아느냐? 네가 세력이 있고 제멋대로 날뛴다면, 네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흉악하면 사람은 다 너를 어쩌지 못할 줄 아느냐? 잘못 보았다! 여기는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은 곳이고, 사람에 대해서 원칙이 있다. 하나님 집에서는 너를 쓸 수도 있고, 너를 쓰지 않고 도태시킬 수도 있다. 너를 쓰고 말고는 하나님 말씀 한 마디에 달린 일이다. 네가 만약 여기서 교란하고 방해한다면 최후의 결과는 도태되는 것이다. 네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분수를 지키고 얌전히 지낸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네가 남아서 봉사하게 하고 네 봉사의 결과가 어떤지를 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독립 왕국을 세우는 본질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교회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과 하나님 집이라는 칭호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또한 형제자매라는 집단을 위해서만 봉사할 뿐 결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며, 그 본질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질은 정죄받는 것이냐, 아니면 칭찬받는 것이냐? (정죄받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서 버림받아 마땅하다. 일부 멍청한 인간들이나 우매한 자들, 눈 먼 자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추종하고, 치켜세우고, 추앙하고, 숭배하고, 심지어 엎드려서 절까지 하려고 한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는 널 어디로 이끌

수 있느냐? 그가 너를 이끈다면 그건 큰 붉은 용이 너를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어이 수렁으로 이끌고 무저갱으로 이끌고야 말 것이다. 그는 너를 해하고 망가뜨린 다음에는 차 버릴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허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눈이 멀어 이런 부류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런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너희는 우매하기 짝이 없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위장하고, 사칭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진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 규정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은 모두가 일어나 책망하고 버려야 한다. 그가 만약 얌전히 하나님 집에서 힘쓸 수 있다면, 힘쓰도록 남겨 두어라. 그가 만약 얌전히 있지 않고 늘 방해한다면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을 집행해서 그를 정리해야 한다.

2020 년 5 월 23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1)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하나 들어 보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갑이 말했다. "제가 책망을 받으면 형제자매들이 다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을이 말했다.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대수인가요? 제가 교체되면 형제자매들이 모두 의기소침하고 연약해질 겁니다." 갑은 을이 자기보다 앞선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그곳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저와 함께 떠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을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보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제가 제명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당신보다 더 대단하지요?" 대화 내용을 알아들었느냐? 두 사람이 겨루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더 사람 마음을 구슬릴 수 있는지, 누가 더 독립 왕국을 세울 수 있는지, 누구의 재주가 더 뛰어난지 겨루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주가 더 뛰어난지,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 누구의 수완이 좋은지, 그리고 누가 사람을 더 많이 구슬렸는지 겨루고 있다. 그들이 누가 진리 실제가 더 있는지 겨루고 있느냐? 누가 인성이 더 뛰어난지 겨루고 있느냐? 누가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는지 겨루고 있느냐? (아닙니다. 교체되거나 제명된 다음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두둔하는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방면의 수완을 겨루는 것이냐? 그들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속박하고, 미혹하는 능력을 겨루고 있다. 너희가 알아맞혀 보아라, 갑과 을은 어떤 사람이냐? (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은 어떤 인간이냐? 한 쌍의 악인이자 악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명백한 한 쌍의 악인이다. 그들은 누가 악행을 저지르는 능력이 더 큰지, 누가 사람을 더 잘 미혹하고 통제하는지, 누가 사람을 더 잘 구슬리는지,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선민을 놓고 더 잘 다투는지를 대놓고 겨루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걸 두고 겨루고 있다. 너희가 볼 때 이렇게 겨루는 적그리스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겨루느냐, 아니면 암암리에 힘겨루기를 하느냐? (암암리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고, 진실하지 않으냐? (실제로 있는 것이고 진실합니다.) 그들이 암암리에 힘겨루기를 할 때 대놓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절대다수의 적그리스도는 교활하고 사악하다. 그는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공개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실히 그렇게 행하기도 한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위장해도 그의 적그리스도 본성과 악독한 본성은 가릴 수가 없다. 그것은 틀림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록 그는 말을 내뱉지 않아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린 명확한 말은 없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남모르게 하지도 않고, 타협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사람들을 속박하고, 미혹하고, 통제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는 그의 행위와 방법은 전혀 모호하거나 허술하지 않다. 그는 대놓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미혹한다. 그는 자기가 책망을 받으면 많은 형제자매가 자기를 두둔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집에 대항하며 사역에 소극적이고 태만해져 본분을 이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매우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다. 만약 그가 교체된다면 그는 많은 이가 소극적이 되어 뒤에서 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를 위해 변명하고 설명해 주고, 자신의 공덕을 헤아려 주고, 자신의 타당성을 지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심지어 하나님 집의 안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몰래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모두 진리이고 긍정적 사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서 믿지 않고, 모두가 그를 따라 떠나고 그의 추종자가 되어 하나님이 진리임을 부인하는 한편, 그에게 진리가 있고 그가 하는 일은 다 옳고 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가 만약 악을 행하여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출교된다면, 그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불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풀릴 것이다. 그런 사탄 성품의 표출, 그런 모습, 그런 본질,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생각과 사상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자매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정확하지 않으냐? 진리가 아니냐? (정확하고, 진리입니다.) 100% 그렇다. 이 말은 진리이고,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야심과 욕망에 지배되고, 적그리스도의 본성에도 지배되고 부추김을 받는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진리에 적대적이다. 그의 눈에 누가 그의 이익을 해치든, 누가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의 욕망과 야심을 박탈하고, 복을 받으려는 그의 소망을 박탈하든 그 사람이 한 일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그는 일어나 대항하고 그 사람을 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아무리 잘못과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리 하나님 집 원칙에 어긋나고 하나님 집 사역지침에 어긋난 일을 저질러도 누구도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구도 자신을 폭로하고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일단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는 순종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되려 적반하장으로 남을 비난하고, 자기 체면을 만회하려고 온갖 궁리를 한다. 또 갖은 수를 써서 자기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털끝만큼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더 나아가 그의 최대 바람은 꾐에 빠지고 미혹된 누군가가 그의 악행을 변명해 주고 그 책임을 벗겨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 자기를 위해 입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자. 너희들이 잘 알아맞혔듯이, 그 두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맞다. 적그리스도만이 그런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다. 정상적인, 패괴된 사람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하고 기도하며 서서히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교체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순종하는 태도와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적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패괴 성품이 있는 보통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속 욕망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구슬리고 미혹하려는 야심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야심과 욕망이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팽창된다. 이것이 바로 본성 본질에서 적그리스도가 평범한, 패괴된 사람과 전혀 다른 점이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9 조에 대한 교제를 마치고, 이번에는 제 10 조인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를 교제하기로 하자. 진리를 멸시하는 것,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는 것,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심각한 것이고, 모두 일반적인, 패괴 성품의 표출이 아니다. 이 중 어느 것을 보아도 여기에 요약된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은 흉악함과 사악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하고도 심각하다. 여기에 교만함, 강퍅함, 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단어들로는 이 방면의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흉악함과 사악함이라는 두 가지 성품으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요약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진리를 멸시하는 것에서 멸시하다의 뜻은 무엇이냐?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얕보고, 업신여기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얘기한 그 말들은 뜻이 다 비슷하다. 멸시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안중에 없고, 경시하고, 얕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반발하고, 반감을 품고, 혐오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정죄하고,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말한 그 정도에 비해 어떠하냐? (세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너희가 말한 것은 대부분 멸시의 동의어이다. 내가 말한 것들은 '멸시하다'라는 동작과 행위에 대한 본질을 세분화한 것으로, 진리를 멸시하는 이 행위와 본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다. 즉, 어떤 사람이 진리를 멸시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리와 관계되고 긍정적인 사물과 관계된 일에 대해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품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진리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곧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귀찮아하며, 심지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멸시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모습이자 표출이다. 이것은 진리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행동의 면면을 포함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즉, 그가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 반감을 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면면을 말이다.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말하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무슨 또 하나님 말씀이니, 진리니 그러세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대신하는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배운 것이 다 헛수고란 말입니까? 사람은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스스로 문제를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다면 너무

교조적인 것 아닌가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너의 말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긴 뭘 읽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우리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진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줄 아나 본데, 말씀이 무슨 백과사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모든 걸 다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처리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죠. 아니면 인터넷에서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물어 자문을 구해보기라도 해야죠. 우리 교회에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중에 대학생도 많고요. 우리 모두를 다 합치면 진리를 못 당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그는 속으로 너를 무시하고 그렇게 실행하기 싫어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실행하면 너무 위신이 떨어지고, 창피하고,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종의 멸시가 아니냐? 이것이 진리를 멸시하는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행위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비록 그들이 설교도 자주 듣고, 손에는 하나님 말씀 서적도 들고 있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도 이행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길 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말에 대해서는 가소롭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반감을 품는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같이 주장한다. "구체적인 일은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 다 관여하실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어떤 일은 하나님도 관여하실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사적인 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진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자유를 간섭하시면 안 되고, 우리 사생활에도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 전혀 방법이 없을 때 꺼내 읽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멸시한다는 것이 아우를 수 있는 범위는 좀 넓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멸시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린 세 가지로 나누어 해부해 보자. 그러면 너희가 조금은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은 진리를 대표하지 않느냐? (대표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한 사역은 진리가 아니냐? (진리입니다.) 그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몇 가지를 각각 해부해 보기로 하자.

1.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한다

우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이는 그가 이 방면에서 진리를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이다. 하나님 자신의 신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적그리스도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매일 부딪히는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일을 따질 줄밖에 모르고,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그것을 대합니다.)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대한다는 것이냐? 네가 말한 앞부분은 맞다. 즉, 적그리스도는 일이 생기면 오로지 그 일을 따질 줄밖에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그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그것을 대한다고 했는데, 그건 보통의 패괴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고 폭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멸시하는 점이다. 네가 그런 증거를 찾으려면 적그리스도의 그런 방식과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막상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받아들이겠느냐? 입으로는 아주 듣기 좋고 옳게 말을 내뱉지만, 일이 생기면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취하는 방법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한 말은 구호이지 진실한 인식이 아님이 드러난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의 어떤 관점과 생각, 어떤 말과 태도가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음을 보여 주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좋든 나쁘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에게 있느냐? 분명히 그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다. 일이 생기면 그는 자신의 이익과 지위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런 다음 거기서 벗어나고 출구를 찾고 회피할 궁리만 하고, 책임을 짊어지기 싫어한다. 게다가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며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자기 머리로 그 일을 분석하고 대한다. 심지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 사람이 틀렸다느니,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다느니 하며 원망하고, 애초에 자기가 부주의했다느니, 소홀히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후회까지 한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환경,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에 대해 명백히 반발하고, 회피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닥친 이 환경에 저항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무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난관을 넘기려 하고, 심지어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감추고,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입힌 손해를 감추려 하는 것이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악행을 덮고 감추고, 자신이 한 나쁜 짓이 어떤 성질이고, 어떤 진리 원칙을 위배했는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누구도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 기만하고 숨기려 하고, 사실과 진상을 덮으려 한다. 그리고 발생한 일을 축소하거나 없는 일로 만들어 상부 리더나 하나님이 모르게 하려 시도한다. 자신에게 닥친 일을 마주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가 외치는 구호와 일치하느냐? 그가 외치는 구호와 일을 마주하는 태도 중에 어느 것이 그의 본성 본질의 표출이겠느냐? (일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순종하는 태도가 있느냐? 겸허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느냐?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분임을 진실로 믿는 태도, 그런 진실한 모습이 있느냐?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다. 그렇다면 그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의 태도는 명백히 거절하고, 감추고, 기만하고, 끝까지 대항해서 하나님이 행사하거나 주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무마할 재주와 능력이 있으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사역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데 빈 껍데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 그의 믿음은 무엇이냐? 막연하고 텅 빈 것이고, 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때는 적그리스도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배우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주재를 믿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남에게 가르친다.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요." 구호를 높이 외치는 그의 태도는 매우 확고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이 닥쳤을 때 사실의 진상, 그에게서 진실로 표출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그의 실제 분량과 그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점은 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가 창조주의 신분과 본질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고하게 대항한다는 점이다. 일이 생기면 그는 이것저것 원망만 한다. 착실하게 고분고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분고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주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고분고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는 사람의 수단과 음모, 사람의 방법을 이용해 그 일을 무마하려 한다. 즉, 그 일을 덮어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일을 무마하기만 하면 그 일이 다 끝난 셈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무마해 자신의 잘못과 패괴 성품이 가려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 이상 추궁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적을 이룬 것이고, 그로 인해 편안해질 것이다.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적그리스도의 모든 언행, 일거수일투족, 그의 행위와 모습의 본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재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대항하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이 책망과 훈계를 하거나 환경을

마련하여 징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일단 폭로되거나 일이 드러나면 그는 당황하고 몹시 허둥댄다. 심지어는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똑같이 일이 닥쳤을 때 왜 다른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드러내고, 똑같이 일이 닥쳤을 때 왜 다른 사람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징계하느냐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니 저는 사람의 방법,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는 자신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되고, 자기를 감싸 주고, 곳곳에서 자기를 위해 길을 내주고, 편의를 봐주고,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인해 주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를 드러내고, 일이 닥쳤을 때 그에게 특별한 은총과 이상(異象)을 주거나 그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의 운명을 주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봉사해야 하고, 항상 도움을 주어야 하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 자신이 드러낸 패괴와 패역이나 대적에 대해 질책이나 징계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행위와 모습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 이른바 그의 그 진실한 믿음이란 이익을 얻고 덕을 보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고, 길을 내주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그는 패괴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크나큰 은덕이니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고 마땅히 자기를 보호하고, 무조건 축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모두 용서하고 사정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그야말로 악인이고,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이 닥치면 노골적으로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드러나거나 남에게 약점을 보이면 지위와 명성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입에만 머물 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진정한 순종도 없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대함에 있어 적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보면,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반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주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그는 누가 주재하기를 바라느냐? 그는 자신이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곧 사탄이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고, 패괴 성품과 사탄의 패괴된 본질이 생명이 되어 그의 내면에서 왕권을 잡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면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에 포함된 이 몇 가지 방면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의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사사건건 관념을 품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때로는 상상과 사람의 지식과 두뇌로 이 방면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일부 어리석은 자들은 또 자기의 해석이 매우 뛰어나고, 영적이고, 정당하고, 실제적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더 역겹다.

1)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대할 때 늘 관념과 의문, 반발심을 품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건 이론에 불과해. 이 세상에 정말 공의가 있을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발견하지 못했고, 본 적도 없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사악한 데다가 악인이나 마귀들은 하나같이 잘나가고 득의양양하게 잘만 살잖아. 벌 받는 것도 못 봤어.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워. 본 사람이 누가 있지? 본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이것이 그의 속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줄곧 의심하고, 판단하고, 관념을 가득 품으며, 끝까지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늘 의심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역시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는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결코 믿지 않는다. 언제나 예수를 의심하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도, 하나님의 큰 능력도 믿지 않은 도마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는 다 믿지 않고 속으로 줄곧 의심을 내려놓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보면, 그는 늘 눈으로 본 것만 믿기에 유물론자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리요, 하나님이 이미 이룬 사실임을 믿지 않는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참된 믿음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따로 있다. 그는 마구 소란을 피우는 자로, 사탄의 심부름꾼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든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가 진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류를 주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결코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는 연구하는 시선으로, 의심하는 시선으로, 또 의심하는 태도로 관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속으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거기에 의문을 품는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느냐? 여러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의 책임이 크든 작든, 어떤 결과가 초래됐든 관계없이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얼른 발뺌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옳은 소리나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하고, 가식을 떨어 사실의 진상을 은폐한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그를 간파하지 못하지만, 그에게 일이 생기면 적그리스도의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의 가시를 세워 악착같이 자신을 보호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이는 어떤 태도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냐? 그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 '내가 날 보호하지 못하면 날 지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날 지켜 주시지 못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대해 주실까? 불가능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을 때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날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함을 보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유일한 방법은 역시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괴롭힘과 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건 하나님 집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이 생기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는다. 우선 그는 안간힘을 써서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위장하여 누구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또 하나는 어디서나 사탄의 철학과 생존 법칙을 받드는 것이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 "명철보신이 살길이다.", "분위기를 잘 맞춰라.", "능란한 처세술을 갖춰라.",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는다.", "화합은 귀하고, 인내는 고귀하다.",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라, 고지식하면 미움을 받는다.",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자가 걸출한 인물이다." 등의 사탄 철학이 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사탄 철학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런 사탄 철학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만 늘어놓으며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서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할 뿐, 교회 사역은 전혀 지키지 않으며, 누가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혀도 폭로도 고발도 하지 않고 못 본 체한다. 그가 일을 처리하는 원칙,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조금도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 집은 진리와 공의가 권세를 잡는다고 증거하는 많은 이를 보면서 그는 속으로 반발하고 판단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큰 붉은 용은 그렇게 하나님 선민들을 박해하는데 어째서 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이방인 중의 악인들은 하나님 선민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판단해도 벌도 받지 않고 잘만 살던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대하든 공의롭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행동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믿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제 눈에는 왜 안 보입니까? 당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누구를 보십시오. 그는 진리를 잘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행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붉은 용에게 추적당해 집이 있어도 못 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이들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설마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까? 또 누구는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으면서 반죽음이 됐습니다. 그때 어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있었습니까? 굳게 서서 증거했고, 유다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도, 지켜 주지도 않으신 겁니까? 왜 큰 붉은 용에게 맞아서 반죽음이 되도록 내버려두신 겁니까? 저희 교회의 한 리더는 교회 사역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수년간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 악행을 조금 저질러서 교회 사역을 교란했다는 이유로 정죄되고 제명됐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고생을 참고 견디는데, 잘못을 저지르거나 원칙을 위배하면 책망과 훈계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제명되고 도태될까 봐 두려워 서럽게 우는데 아무도 달래 주지 않더군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왜 안 보이는 건가요? 그리고 저를 놓고 보면 본분을 이행할 때 건성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고, 가끔 패괴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왜 저를 발탁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적그리스도는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볼 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려와 의혹, 생각과 관념으로 가득하며, 마음속에는 수많은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런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원망으로 점철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한 정죄와 모독으로 점철된다. 답답해진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착실한 사람이 왜 책망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사람이 패괴를 좀 드러내는 걸 왜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 본분을 이행하느라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맞아 죽기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현상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는 늘 속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인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그분은 어디 계시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박해받을 때 그분은 뭘 하고 계셨지? 그분이 과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왜 사탄을 멸하지 않으시지? 큰 붉은 용은 왜 멸하지 않으실까? 왜 사악한 인류를 징벌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나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함을 보여 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를 대신해 분노를 발산하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는 마귀 사탄을 미워하고, 악인을 증오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원수를 갚아 주지 않으시는 거야?' 적그리스도 마음속에서는 이 '왜'라는 물음이 속사포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서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 이런 문제가 점차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만약 네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그러지 못하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으며,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못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다. 시험에 직면하면 마음에 꽉 들어찬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그는 속으로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게 내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저희,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저희처럼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고 큰 붉은 용의 손아귀에서 죽게 내버려두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한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게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를 징계하고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희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포용하고 저희의 모든 소극성과 연약함을 이해하며, 저희의 모든 과오를 관대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 하신다면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속마음이다. 하나님에게 관념이 가득한데도 그는 전혀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니 드러나는 날 그 관념이 전부 폭발해 나올 게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추악한 마음가짐이고 진짜 민낯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속으로 커다란 물음표를 그린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일이 발생하고 온갖 일이 끊임없이 나타남에 따라 그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서서히 가위표로 변한다. 이 가위표는 무슨 뜻이냐? 바로 그가 속으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의미다. 가위표가 그려질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부인할 때 그의 모든 환상과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은 무슨 일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부 사역이 자기의 관념과 상상에 어긋나면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고 생각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런 관념이 생긴 후에도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아서 제때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념이 갈수록 많이 쌓이다 보니 최후에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과 관점을 지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물론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로 결정된다. 이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인데 일단 접어두자.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진리를 사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근본 원인이 있다. 즉, 그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럼 그가 어떤 문제든 진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무슨 일이 닥치든, 그것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든 그는 간파하지 못한다.

사람도, 일도 간파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어떤 일들이 그가 말한 것과 같아 보여도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다.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그 안에 관련된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면 그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지식, 사람의 머리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진리에 부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욥의 이야기를 알 것이다.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욥을 칭찬하고 감탄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시련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보낸 찬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마음으로 찬성하고 감탄하는 한편, 욥이 맞닥뜨린 온갖 환난과 고통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욥이라는 인물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 된다. 모두 그를 본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바탕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결국 동경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생활 속에서 추구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인정과 믿음이 있겠느냐? 그에게는 없다. 욥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임을 알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의의가 있다는 사실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일에서 그는 어떤 것을 보았느냐? 그에게는 욥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 산을 가득 메운 소와 양,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녀가 눈에 들어온다. 나중에 욥이 그토록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또다시 욥을 축복한 일에서 그는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그는 말한다. "그것은 사람이 거래한 것인데, 사람이 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 전체를 놓고 볼 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입장에 서서 바라본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입장은 단 하나, 바로 불신파의 입장이다. 그는 그 입장에서 일 전체를 바라본다. 불신파는 이익을 얻었는지 덕을 보았는지 손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덕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덕을 못 보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 보고 고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치가 없고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것이 불신파의 관점이다. 불신파가 일을 바라보고, 일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이런 방식, 이런 성질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대하는 태도이다.

2) 하나님의 전능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전능을 적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보느냐? '전능'이란 단어는 적그리스도에게는 느낌을 주는 단어이자 그의 야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 자신이 무척이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전능하고,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되는 것, 만약 사람이 이런 재주를 얻어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위를 손에 넣어 남을 다스리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남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이며,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 그리고 그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단어에 대해 각종 상상과 호기심, 관념이 가득하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해서 시야를 넓히고 식견을 늘리고 호기심을 채우려 한다. 셋째, 자기도 무소불능한 사람이 되어 만인에게 숭배받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그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차지하고자 추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면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진실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 면에서와 마찬가지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관념이 가득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막연하고 헛된 상상을 잔뜩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전능? 이 세상에 전능한 사람이 어딨어?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한 사람이 어딨냐고? 천만에! 세상에 위인이나 유명 인사도 많고, 예언가나 온갖 점성가, 예언 해석가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 그들도 무소불능하지는 않아. 하나님의 전능에 역시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군. 잘 연구해 봐야겠어.'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본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이런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재주,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거야.'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그리고 형제자매에게서 발생한 일은 그의 연구 대상과 범위가 된다. 그가 연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번 일이 생길 때, 어떤 하나의 일이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이적과 기사가 있는지,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미처 이르지 못한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 있는지 연구한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체험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예상 밖의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연구한다. 예를 들어, 가장 배고픈 순간 우렁각시가 그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준다든가, 돈이 없을 때 집에 갑자기 금이 나타난다든가, 쫓기고 있던 순간 자기를 추적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천사가 내려와 "얘야, 내가 널 도우러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한다든가, 형제자매가 무자비한 고문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큰 빛이 내려와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눈을 찔러 멀게 하자 그들이 바닥을 구르며 연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감히 때리지 못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형제자매 대신 억울함을 풀어 준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막 잠이 들려 하는데 몽롱한 가운데 한 형체가 나타나서 "잠들지 마라. 깨어나라. 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한다든가, 일이 생겨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내면의 강렬한 꾸짖음과 징계 덕분에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또렷하게 의식한다든가 하는 일 말이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체험할 수도, 해낼 수도 없는 일들이 만약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집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 발생한다고 해도 근거 없는 소문일 뿐, 그 진실성이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면,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과연 정말 사실인지, 하나님은 과연 전능이라는 본질을 지녔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생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는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동안,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 특별한 능력을 부단히 추구하고, 비현실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일을 추구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고, 진리와도, 사람의 성품 변화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해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요구한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을 저에게 보여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제가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재하시다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제 병을 없애고 제가 마주한 상황을 없애 주시어 위태로운 제 상태를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제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하룻밤 사이에 영리해지고 재능과 은사를 갖게 하시어 업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잘 파악하고 정통하게 해 주시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헐뜯고 비웃는 그자들을 징벌하고 보응 받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멀고, 귀먹고, 머리에 종기가 나고, 발바닥에 고름이 흐르게 해 주시고, 그들이 제명에 못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제가 당신의 전능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적그리스도는 못 본 체하고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각 단계의 중요한 사역을 속으로 전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구하고, 남다른 능력을 보여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해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 주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임을 증명해 달라고 구한다. 더 웃긴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기도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으니 믿음이 작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좋으니 당신의 전능을 제게 보이시어 제가 당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당신의 존재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믿을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추가로 기상천외한 일을 해서 자신을 튼튼하게 해 주고 자신에게 믿음을 심어 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지만 아무리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또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이 당장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얘기해도 적그리스도는 아무 관심이 없고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할수록, 구체적으로 사역할수록 그는 속으로 더욱 반감을 품고, 초조해하고, 반발심을 품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기도 한다. "당신의 전능함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모르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전능하지 않으신 겁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진리 교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품이 변화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되고 당신의 사자가 되게 해 주신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적그리스도 본성이 조금씩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드러난다. 게다가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맞서는 본질도 낱낱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신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멸시하는 그들의 이런 적그리스도 성품, 적그리스도 본질 역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사역이 부단히 진전됨에 따라 조금씩 드러나고 밝혀진다. 적그리스도는 막연함을 추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실제에 맞지 않는 야심, 욕망의 지배를 받아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그들의 본성이 빛 속에 드러난다. 반대로 진정으로 실제와 진리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본다. 그들이 본 것, 얻은 것, 인식한 것은 공교롭게도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으려면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적과 기사가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만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어 성품 변화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일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끈질기게 속으로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남다른 능력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숨은 뜻은 하나님의 전능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논리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정죄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동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반발하고 싫어한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긍정적 사물의 실제도 아니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온전케 되는 이런 결과도 아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 남다른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 남다른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식견을 키워 주고, 그들을 특별한 사람, 초인으로 만들어 주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통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패괴된 사람과 같은 호칭, 이런 신분과 지위를 벗어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어떤 관념과 문제가 존재하든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품 변화에도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한다. 적그리스도의 눈에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실제적인 사역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 정죄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이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런 정의로 인해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본질의 존재를 철저하게 정죄하고, 모략하고, 모독하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 주고, 원수를 갚아 주고, 그들이 미워하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주고, 그들의 욕망과

야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런 기반하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에게 아주 불리하고 그들 입장에서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일을 체험하고 난 뒤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심해져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집을 떠나 세상을 추구하고 사악한 조류를 따르며 사탄의 품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말로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두 가지 방면에 대해 보이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은 영락없는 불신파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눈곱만큼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 눈곱만큼의 순종과 받아들임도 없다. 그들은 긍정적 사물, 진리에 대해 반감을 품고 반발한다.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적그리스도의 불신파라는 본질은 진실로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크게 부풀린 것도 아니다. 이 본질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드러내는 일체의 관점과 방법에 입각해서 정의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눈이 먼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은 교회 사역에서도, 하나님 선민에게도,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자주 드러나서 사람은 언제나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수년간 하나님을 따른 후 명언을 한 마디 내뱉는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난 뭘 얻었지?" 보아하니 그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모두 쏟아부었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참으로 가련하지 않으냐? 너무나 가련하다! 적그리스도의 이 말은 문제를 너무 잘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지금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얻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진리를 깨닫고 얻어서 사람답고 존엄성을 갖추고 살게 되었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저희가 받은 그 정도 고통은 정말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와는 정반대다. "하나님이 몇 년간 사역하셨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얻었지? 다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고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들이 밥 먹여 주나? 그깟 체험들이 뭐라도 되나?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나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도 아무것도 못 얻은 기분이야. 내가 받은 고통,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한 것에 비하면 내가 얻은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어! 진리는 주장이나 논조 아닌가? 일부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도 나한테 어떤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군! 첫째, 나는 일을 생각할 때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아. 또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예전만큼 못하고, 흰머리도 생기고 얼굴에 주름도 늘고, 심지어 이가 빠져도 새로 나지 않아.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은

신선하고 활발한 어린아이 모습 같다고 하셨는데 난 이제 늙은 몸이야. 영락없는 노인 얼굴이고 아이로 바뀌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백발노인도 머리가 새카만 소년으로 바뀔 수 있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환골탈태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난 환골탈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도 않았어. 난 여전히 나야. 어떤 일을 만나면 여전히 내가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육적인 어려움도 점점 많아지고 자주 연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게다가 요 몇 년은 기억력도 떨어졌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은 내 기억력이 좋아지게 해 주시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특별한 기능을 내려 주셔서 사람 몸이 노화되지 않게 해 주실 수 없나? 내 생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을 정말 환골탈태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볼 때 진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만약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빛의 사자처럼 생겨서 육체를 이탈할 수 있고, 벽을 뚫고 빠져나갈 수 있고, 박해와 위험이 닥쳤을 때는 주문을 외우는 순간 사라져서 절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머리도 하얗게 세지 않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지 않고, 이가 빠져도 다시 새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환골탈태지! 하나님이 만약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한 치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얘기하시면 내 믿음은 곧 바닥나서 더는 믿지 못하게 될 거야. 지금 이행하는 본분도 할 마음이 사라져서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늘 속으로 하나님에게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다. 그들의 관념속에는 각양각색의 의문과 무리한 요구가 자꾸만 생겨나고, 환경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각양각색의 이상한 생각이 생겨난다. 유독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더욱 인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계속 믿다 보면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정서가 생기고, 물러나고 포기하려는 정서와 생각이 들어선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고사하고, 계속 믿다 보면 그걸 신경 쓸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과 주재라고, 사람은 마땅히 여기에 순종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교제하면,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어떤 관점도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반감을 품으며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형제자매가 열을 올려 자신의 체험 간증을 얘기할 때 그는 뭘 하느냐? 차 마시거나 잡지를 뒤적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잡담을 한다. 그는 이런 무언의 행동을 통해 항의하고 반발하고, 또한 자신의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한 일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단지 말을 앞뒤로 맞추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도 진리도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인류가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의 눈에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보이고, 아무 생각 없고, 거짓말에 속은 자들이다. 그는 운명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니며, 생각이 있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사고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도 손에 쥐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고 하등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이 장악하게 두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자, 불신파이고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자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밥숟가락을 얹는 자요, 잠입해 들어온 악한 자다.

3)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이함을 멸시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성품 본질에 담긴 공의와 전능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인식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이함을 믿고, 인정하고, 인식하기란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착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피조물이 되라고 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의견이 생기고, 일종의 태도와 정서가 생겨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 아닌가? 최고로 높으신 분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시는 요구도 당연히 고차원적이고 대범하고 품위가 있어야지. 난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신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겨우 그만한 요구를 하실 줄은 몰랐네.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나? 너무 간단한 요구잖아! 하나님 요구는 좀 더 높아야지. 사람은 초인이나 위인,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일까? 사칭하는 건 아닐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진리에 반감을 품는 동시에 진리를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건 진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는 하나님이 제시한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태도로 이를 정의하고 대한다. 이를 보면 적그리스도는 성품 본질이 추악해서 진실되고 아름답고 실제적인 사물이나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되고 실제적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한 요구는 사람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말한 '고차원적이고 대범하고 품위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짓되고, 허황되고,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패괴시키고,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 신실하고 사랑스럽고 실제적인 것이다. 한동안 하나님 말씀을 겪고 체험한 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사탄,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고차원적이고 대범하고 품위가 있는 것'에 관한 논조와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실, 실제와는 어긋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이런 본질을 바탕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각 방면의 패괴 성품과 패괴 본질, 사람의 강퍅함, 교만함, 사람의 간사함, 사악함, 진리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흉악한 성품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호된 질책,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하나님이 얘기한 그 말씀들을 싫어하고 반발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폭로하는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는 속으로 미워하며 욕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 그를 교만한 사람, 강퍅한 사람이라고 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조상을 욕한다. 누군가 그의 패괴 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정죄하면 마치 목숨을 빼앗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본질과 이런 패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고 드러난다. 종종 그의 야심과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증오하고, 또 '하나님 집은 진리가 다스린다'는 이 말씀을 더욱 증오한다. 네가 만약 이 말씀을 내뱉는다면 그는 너에게 필사적으로 덤빌 것이고, 너를 죽도록 괴롭히고 혼내 주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겠느냐? 너무나 옳은 말이다! 누군가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겠느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그 말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이 되려는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이 될 권리가 사라지면, 그 희망이 파멸을 맞이하면 그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를 폭로하면, 그래서 그가 지위도 명예도 다 잃고 아무도 숭배해 주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을 구슬릴 수 없고, 지위도 사라지면, 그는 너를 향해 악독한 마수를 뻗치며 너를 괴롭히고 혼낼 것이다. 교회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리더가 적그리스도라면 보고하도록 내버려두겠느냐? 그라는 관문을 너는 통과할 수 없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보고했다가 일이 터지면 결과는 당신 책임이야! 상부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교회 사람을 제명한다면 난 당신한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고 모두가 당신을 버리게 만들겠어. 그때 가서 제명당하는 기분을 맛보게 해 주지!" 보고하려는 사람이 겁박과 위협을 당한 게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 아닌가? 좋아, 나도 유일무이한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겠어. 당신이 뭘 하고 싶으면 무조건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나한테 허락받고 싶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내가 다스리고 나한테 결정권이 있어. 내가 바로 진리이고 내가 바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이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건 마귀 모습을 드러내고, 마귀적인 말도 내뱉은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대하는 일에서 적그리스도는 불신하고 의혹을 품고, 관망하고, 심지어 시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판단하고 모독한다. 이런 행위는 그들을 점점 곤경에 빠뜨리고, 무한한 심연에 빠뜨린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양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든다. 그들은 하나님 본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본질의 면면에 대해 각양각색의 관념과 상상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또한 이런 관념과 상상을 이용해 주변 사람,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목적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 본질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희생양을 끌어들인다. 혼자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자기와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할 사람들을 찾으려 한다. 하나님 본질의 면면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관념과 상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낱낱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시험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암암리에 하나님과 맞서려 한다. "당신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두십니까? 당신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적대 세력도 당신의 사역 장소를 침입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 내리깎는 말을 하고, 소극적인 말, 판단하는 말을 한다.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며 대항하고, 하나님에게 이래라저래라 요구한다. 특히 하나님 집에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적그리스도는 쾌재를 부른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 너무 좋아 날뛰는 순간이다. 그는 하나님 집 이익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며 웃음거리로 삼는가 하면, 하나님 집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선민들이 잡혀가고 해산되어 하나님 집 사역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마치 설이라도 맞이한 듯 기뻐할 것이다. 매번 하나님 집에서 발생한 일이 잠잠해지고 해결되면서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공과를 배울 때, 그때가 곧 적그리스도에게는 '형을 선고받는' 순간이자, 가장 의기소침하고 힘든 순간, 가장 낙담하는 순간이다. 그는 형제자매가 잘되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충만한 신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꼴을 못 보고, 형제자매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 아래 성품이 변화하여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사역이 점점 나아지는 꼴을 못 본다. 그는 교회의 흥성을 차마 못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 차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꼴을 못 본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찬미하는 일은 더욱 증오하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지배에 맡기는 일은 더욱 혐오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밥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집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집을 웃음거리로 삼으려 하고,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집 사역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호하지도 않고, 방법을 생각해 해결하지도 않는다. 최선을 다해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모두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잘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지도 않는다. 대신 옆에 서서 웃음거리로 삼고, 괴상한 주장이나 하고, 무너뜨리고 교란하는가 하면, 심지어 중요한 순간에 밖으로 팔이 굽어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고의로 교란하고 파괴한다.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중요한 때일수록 그의 마귀 같은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요한 때일수록, 일이 있을 때일수록 그의 마귀 같은 모습은 더욱 유감없이 드러난다. 중요한 때일수록 그의 팔은 밖으로 굽는다. 이건 어떤 인간이냐? 이런 자를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는 멸망의 가증한 짓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이자 사탄이요, 악인이자 적그리스도이다. 형제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다. 만약 정말 형제자매이고,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형제자매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직면하고 함께 처리할 것이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고소해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만이 방관자가 되어 고소해하고, 또 하나님 집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모든 일에서 드러나서 조금도 감출 수 없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에서든 그들이 드러내는 관점과 성품은 사람에게도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게도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교란하고, 고소해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이나 수단을 이용해 하나님 뜻을 시험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하다. 욥의 일에서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사탄은 처음에 만약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모두 앗아 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만약 욥의 뼈와 살을 다치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화를 욥에게 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냐? 그 정의가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참소다. 사탄이 한 말은 이런 뜻이다. '당신은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좋은 것을 그토록 많이 주셨는데, 그가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그것들을 빼앗아도 그가 여전히 당신을 경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참소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시험이냐? 사탄이 강도를 시켜 욥의 재산을 약탈하고 강탈한 일이 욥의 입장에서는 시험이다. 왜 시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의 것을 앗아 간 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보겠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생각해서 다투거나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예수에게 닥쳤던 몇 가지 일도 있다. 사탄은 그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 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시험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뻔히 알고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미칠 수 있는지 보려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악행을 저지를 때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다. 즉, 한번 떠보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엄과 진노가 있지 않나? 그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과연 알까? 속으로도 괴롭지 않고 육적으로도 달리 징벌받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모른다는 뜻이야.' 그는 몇몇 작은 일로 솜씨를 부려 보고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지, 하나님이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는지 테스트하려 한다. 이런 걸 바로 시험이라고 한다. 그는 이 일의 진실성을 검증하려 하고, 하나님이 과연 행사할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시험이다.

전에 중국 본토에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는 하나님 집이 해외에서 합창단을 꾸려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당신들이 해외에서 합창단을 꾸릴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는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어 찬양을 하고, 또 많은

관중들을 불러들여서 꽤 큰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는 독립 왕국을 세우려 한 건데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또 하나, 그는 이런 마음이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도 있어. 비록 지금은 큰 붉은 용이 박해하고 살벌하게 감시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보호해 주실지 말지, 이 사람들이 과연 큰일이 나서 잡혀갈지 말지를 보여 주자.' 이건 어떠한 마음가짐이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험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는다는 기치와 구호를 내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검증하려 했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 이것이 시험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먹었다간 배탈이 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먹을래요! 하나님이 제가 배탈나게 하시는지 보죠."라고 했다. 결국 그는 그걸 먹고 정말 배탈이 났다. 그는 생각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 주지 않으셨지? 다른 사람이 먹고 탈이 났다면 그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남들처럼 배탈이 났지?' 그의 이런 행위는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본질의 존재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량, 자신의 상상을 믿고 행동한다. 그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는 그의 행위, 그의 일시적인 생각과 충동을 이용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전능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과연 그를 지켜 줄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 그의 검증이 성공하면 그의 믿음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그의 검증이 성공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하나님은 사람을 염려해 주시지도 않잖아. 다들 하나님은 사람의 피난처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이 말씀을 대할 때 앞으로는 뒷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안 되겠어.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 그는 시험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가 어떠냐? 사람이 만약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런 결과를 얻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성과와 수확을 거둘 것이다. 즉,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본능을 내려 주었고, 사람에게 이미 원칙을 주었으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인솔을 받으며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 어떤 일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마땅히 사람을 지켜 줘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마땅히'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 이 '마땅히'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가끔 너를 지켜 주지 않음으로써 너를 드러내고, 네가 어떤 길을 택하는지 본다. 때로는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어느 한 방면에서의 네 인식을 온전케 하고, 네가 그 방면에서 진리를 얻고 변화하게 함으로써 너를 굳건하게 만들고 성장시킨다. 요컨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과 도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목표와 취지가 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진리로 생각해서 이를 고수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잘못된 입장,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말하자면, 네가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너는 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것이 패괴 성품이고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얻어야 할 진리와 인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지금 네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 방면의 진리이다. 네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분량을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준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감을 품고 반발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보통의 패괴된 사람과의 차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질을 부인하는 방면에 관한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따로 질문할 게 있느냐?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며 바울이 말한 기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질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부정하는 주된 이유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바울의 말에 깊이 수긍한다. 그는 이 관점이 성립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왕권을 잡고 사람을 통제할 희망이 있지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가 왕권을 잡고 하나님이 될 희망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늘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듯 적그리스도 또한 이런 본질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로 사람에게서 얻게 되는 성과를 증거한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찬미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를 찬미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또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남들의 추대와 아첨, 존경, 나아가 찬미를 누리고 싶어 한다. 더 심할 경우 어떤 염치없는 생각까지 하겠느냐? 그는 사람이 다 그를 믿고, 무슨 일이든 그를 의지하게 하고 싶어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진실한 것이라면, 매우 기뻐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동시에, 그의 공로까지 기리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과 그가 한 모든 것을 널리 알린다면 그는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보면, 네가 하나님께는 권병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며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본질을 지니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표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어떤 사람도 이 본질을 지니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야심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말씀으로 된 육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다고 말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반감을 갖고 맞설 것이다. '그건 틀렸어. 나도 공의로운걸!' 네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그는 또 "그건 틀렸습니다. 저도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바울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보혈을 바치고 속죄 제물이 되어 전 인류를 구원했다고, 전 인류를 죄에서 구속했다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인정했겠느냐? 이 모든 것을 행한 이가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했겠느냐?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했겠느냐? 그는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다면 사람도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혈을 바치실 수 있었다면 사람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지식이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 역시 그리스도라고 불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알린다면, 저의 몫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 불릴 자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라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요컨대 그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 측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스도나 하나님, 이런 건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통해 단련해 낼 수 있어. 권력은 자기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어 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일궈 내는 거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관직에 오르고 결정권을 가지잖아.' 그는 바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등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문외한이며 풋내기이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모르는 소리만 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말만 하는 것이다. 만약 몇 년간 사역을 해서 자신이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큰소리를 치면서 도리를 말하고 외식하며 남들을 미혹시켜 일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당연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또 질문이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교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해 항상 하나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에게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 병은 제가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한참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자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주시는군. 그럼 내가 약을 먹고 하나님이 말리는지

봐야지. 약 먹을 때 목에 걸리거나 물이 쏟아지면 그건 아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막는 거겠지." 이런 게 시험이다. 예를 들어,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분에 어떤 게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 다 같이 교제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다음, 해야 할 때 가서 하면 된다. 만약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재다. 하나님이 만약 너를 막을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고 치자. "하나님,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제가 외출하는 것이 당신 뜻에 맞습니까? 오늘 복음 대상이 받아들일지 말지, 당신이 과연 어떻게 주재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안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너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말한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주시지? 아마 내가 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적어서 보여 줄 수가 없으신가 보군. 그렇다면 얼른 나가자. 만약 나갔다가 넘어지면 그건 아마도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나가서 모든 게 순조롭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그건 아마도 전도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바로 시험이다. 왜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사역은 실제적이다.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과 본인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안배할지는, 정상 인성의 생활이라면 원칙을 따르면 된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끌지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가서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면서 더 생각하지 마라. 옳은 일이 분명하다면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그날 하루를 이끌어 주고 그날 이행할 본분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은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면 된다. 예를 들어,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감전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고민한다.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 주실 테니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하나님이 지켜 주실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보자.' 그러고는 너는 전기에 손을 대는데, 결국 전기가 통하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옳지 않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피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요염하게 꾸미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 그럼 내가 그렇게 꾸민 다음 하나님이 내면에서 꾸짖으시면 어떤 기분일지 볼 거야." 이렇게 해서 화장을 끝낸 다음 거울을 본다. "세상에, 정말 살아 있는 귀신 같네! 그런데 거울 속 내 모습을 눈뜨고 보기가 좀 민망하고 역겹긴 해도 다른 느낌은 없는걸.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느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즉시 임해서 날 치고 심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행위가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너는 가끔 본분을 대충 이행할 때가 있고, 속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너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네 양심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양심이 있다면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고 그 행위를 거둬들여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기도는 시험이 된다. 진지한 일이 웃음거리가 되고 시험이 된다. 하나님은 이를 혐오한다. 사람은 일을 만나서 속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요구, 방식에서 자주 시험을 하게 된다. 이런 시험은 주로 무엇을

뜻하느냐? 그건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 한다거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 한다는 말이다. 너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고, 하나님이 했던 어떤 말씀이 맞는지, 정확한지, 들어맞는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 한다. 그런 게 다 시험이다. 그런 행동은 너희에게서 자주 나타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네가 그 일에서 한 행동이 시험인지 아니면 긍정적 행동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네가 겸허하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떠냐? 이는 진리를 구하는 태도이고, 그 안에는 시험의 요소가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네가 "이 일은 우리가 다 같이 교제한 다음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물었다. "이 일을 누가 맡고 있나요? 이 일을 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너는 대답했다. "우리 다같이 했습니다." 너의 속셈은 이것이다. '만약 저 사람이 일을 원칙에 맞게 처리했다고 하면 내가 한 일이라고 하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 일을 누가 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알려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책임을 추궁해도 내가 당하지는 않을 거고, 창피를 당해도 나만 당하지는 않을 거야.' 네가 이런 속셈을 품고 말했다면 그게 바로 시험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속을 따르는 것을 혐오하셔. 인류의 기념일, 축제 같은 걸 혐오하셔." 그걸 알고 있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그런 일을 피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일부러 어떤 축제 기간에 세속을 따르느라 행사를 챙기고, 그럴 때 이런 속셈을 품는다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또 나를 상대해 주시는지 볼 거야. 하나님이 날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혐오하신다고, 또 거룩하신 분이고 사악을 증오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과연 어떻게 사악을 증오하시는지, 또 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봐야지. 만약 하나님이 내가 행사를 치를 때 구토나 설사, 현기증이 생겨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혐오하시는 거야. 말씀으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로 일어나게 하신 거야.' 네가 늘 이런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건 어떤 행위이며, 어떤 속셈이냐? 그게 바로 시험이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네게서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제가 정성을 다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이런 사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네게서 모습을 감추고 너를 깨우쳐 주지 않을 것이며 너를 한쪽에 내버려둘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고 방해와 교란을 일삼다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마주하게 될 결과다.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본분에 늘 가볍고 데면데면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지적하고 책망해 주면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기침 시럽 약을 몰래 마신 형제의 사례도 교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다가 그가 약을 다 훔쳐 마신 뒤 도태시키셨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를 대하듯 저를 대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일종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제와 연관을 지어 보니, 제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할 때의 일시적인 태도가 어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생활의 사소한 일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좋지 않은 습관들,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자기가 이행하는 핵심적인 본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다할 수만 있으면 된다. 만약 네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이런 기자재 종류의 관리에 대해 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는 관리에 능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네가 그 사역을 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네가 이 사역에 언젠가 큰 화를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너를 대신하게 하고, 그런 다음 너는 네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일을 하고, 네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본분을 충성 다해 이행하는 것이 낫다. 또한 사람이 만약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존엄성 있게 살면서 남들에게 혐오받지 않고 존중받고 싶다면,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약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한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사람이 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사람을 한 방면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는 길,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이 일생에서 선택하는 목표 및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냐? 사람이 자기도 방법이 없기에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겠느냐? 먼저 의지가 있고, 이런 바람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내가 늘 제대로 하지 못했어. 형제자매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해. 그렇지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한 가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때, 하나님이 너를 꾸짖을 때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내면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의 패괴된 사람은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 주관적인 바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다. 그의 주관적인 바람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아닌 반발하는 것이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통의 패괴된 사람의 나은 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긍정적 사물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사물을 좋아한다. 다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끔 어쩔 수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르지 못해 속으로 늘 소극적이고 연약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원치 않고 혐오한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은 좋은 것이냐? 이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네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 사람이 만약 이런 느낌도 없다면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희망이 아주 희박하다. 바로 네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너는 아직 양심이 있고 존엄성과 인격이 있고, 또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약 이런 것도 없으면 너는 정말 적그리스도, 불신파이다. 지금 너는 단지 불신파의 모습이 있고, 불신파의 몇 가지 표출과 성품만 지니고 있을 뿐, 불신파는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그를 믿는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추구와 관점에서, 개인 생활의 면면에서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다. 네가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진리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한다는 이런 기본 조건만 갖춘다면, 이런 문제들은 전부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채찍질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두 번째 관문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제를 듣고, 형제자매의 체험 간증을 듣고, 너 역시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법, 자신에게 일이 닥칠 때마다 생기는 각종 내적 상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내적 상태,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에게 얘기하며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채찍질과 징계, 심지어 너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냄과 태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마음은 하나님에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한다. 네 마음이 열려 있는 한, 네 양심과 이성이 발휘될 수 있고, 진리가 네 내면에 들어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며,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별로 큰 문제도 아니다. 사람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흔한 일로, 모든 패괴된 인류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태다. 하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무슨 일이든 무성의하거나 건성으로 하며 책임지지 않고, 빈둥거리는 내적 상태나 빈둥거리는 상태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패괴된 인류의 정상적 상태다. 그런 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훨씬 가볍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점들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에게 시시콜콜 따지고 든다면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전에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젊고 혈기 왕성해서 일할 때 덤벙대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도태되는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결말을 규정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일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성품이 변화해서 구원받는 과정에서 사람의 그런 정상적 상태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나님은 네게 긍정적인 추구가 있는지, 네가 진리와 긍정적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본다.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는지, 네가 향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본다. 네가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증오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에게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희망이 있고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모두 빈말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태도가 있을 것이다. 이 태도는 가장 실제적이며, 조금도 공허하지 않다.

최근에 얘기한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알고 분별해서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그를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누구나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만이 도태되고 버림받는 대상이고,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대상이지 도태시키려는 대상이 아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 적그리스도의 여러 성품을 교제하는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길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패괴 성품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고, 또한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사람이 과연 어떤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적과 패역을 드러내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정죄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 어리게 거듭 충고하는지, 또 얼마나 애쓰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그걸 안다 해도 단지 속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생길 뿐, 패괴 성품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 어리게 거듭 충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공을 들이고 다짐했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류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은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방면의 진리든 하나님은 한 측면, 한 각도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언어로 정도를 달리하며 사람에게 알려 준다. 이로써 사람이 사람의 패괴 성품과 자신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깨닫고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한편, 사람이 사탄의 패괴 성품을 포기하거나 바꾸고,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처세술, 생존의 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 준 방식과 방법, 방향과 목표에 따라 살도록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고심을 알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기가 무척 쉽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너는 이런 걸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는 말씀 중에서 자신이 실행해야 할 것을 찾아내고, 진리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그런 다음 진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긴 부탁을 완수해서 구원에 이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족할 것이고, 사람이 구원받는 일도 철저하게 성공을 거둘 것이고, 사람은 거기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가끔 말에 도리가 많고, 행동이 너무나 가벼우며, 항상 건성으로 임하고, 양아치 기질이 너무 심각한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늦잠을 자거나 조금 비합리적이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경우, 그런 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고치도록 해라. 네가 진리를 추구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으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네 부모라 해도 널 바꿀 수 없다.

오늘날 네가 하나님 집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네가 이 시대, 이 사악한 조류 속에서도 이곳에 와서 착실하게 설교를 듣고, 돈 한 푼 벌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냐? 그건 바로 네게 조금이나마 정의감이 있고 또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사악한 조류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나라의 강림을 바라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진리가 다스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네게 그런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너의 그런 면들을 좋게 보았기에 너를 하나님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그 나쁜 버릇이나 나쁜 습관들을 못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문제점들은 하나님 눈으로 다 보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내버려두느냐?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은 사람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악하고 패괴되고, 징계에도 불복하고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일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도 마라. 아무도 너에게 그런 걸로 흠을 잡거나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보지 않는다. 만약 이런 지엽적인, 생활의 사소한 일 때문에 생겨난 나쁜 습관이나 버릇, 혹은 양아치 기질 때문에 네가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교란을 받는다면 손해가 아니냐?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런 내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무슨 일을 해도 너무 허술하고, 배우기를 싫어한다고, 또 나쁜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밤에는 자기 싫어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때로는 말을 옮기거나 우스갯소리를 하기 좋아한다고 한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념과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 너는 어째서 구해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점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꾸미기를 좋아해서 늘 자제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고기를 좋아하고 식탐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문제다. 그런 버릇이나 성격, 혹은 생활 습관은 기껏해야 인성의 작은 결점일 뿐 패괴 성품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패괴 성품이다. 작은 것에 집중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반성하고 분별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너의 그 사소한 결점들은

서서히 고쳐져서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는 걸 좋아하는 일부 젊은 사람들은 본연의 일을 제대로 완수하면 조금 놀아도 된다. 젊은 여성들은 예쁜 걸 좋아하고, 꾸미고 화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된다. 요란하고 괴상한 옷차림이라든가 야하고 짙은 화장처럼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너는 그런 생활 습관, 삶의 질에 대한 요구, 그리고 성격상의 사소한 문제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진리를 위배하게 되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건 네 패괴 성품이다. 사람이 패괴 성품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증오하고, 또 사람이 진리 원칙에 따라 실행하려는 이런 주관적인 바람이 있을 때, 그런 사소한 결점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네 패괴 성품이 해결되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문제도 해결되는데 너의 그 사소한 결점들이 문제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쉬고, 본분을 어떻게 이행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와 같은 이런 작은 일들에 조금씩 원칙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패괴 성품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사람답고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남들은 너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고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네 표면적인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패괴 성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좋은 행위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패괴 성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는 밝은색 옷이 좋은데 하나님 집에서 그런 옷을 좋아하지 않으니 난 저버릴 거야." 저버릴 필요 없이 입고 싶으면 입도록 해라. 이런 사람도 있다. "나는 화장하는 게 좋아. 매일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 "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 매운 것도 좋고 신 것도 좋아." 조건이 되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런 욕구를 채워도 좋다. 그런 욕구를 채우지 않고 자제하고 저버리더라도 네 패괴 성품은 해결될 수 없다. 네가 자제한다고 뭘 어쩔 수 있겠느냐? 네 육이 크게 고통받지만 너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럼 추가로 너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너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진리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옷을 우아하고 단정하고 수수하게 입어서 형제자매 같아지고, 또 착실해지더라도, 너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할 때 진리 원칙도 못 찾고, 심지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소한 문제나 표면적인 행위에 공을 들이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속으로 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항상 그 일을 크게 생각해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결국 패괴 성품은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패괴 성품이 있는지는 너 자신도 모르고, 눈곱만큼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자신의 패괴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소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네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진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그런 작은 문제들은 자연히 점점 사라질 것이다. 급하거나 느긋한 성격, 말이 많거나 적은 성격 등은 모두 문제가 아니다. 그건 성격 문제다. 말이 또박또박한 사람도 있고,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있고, 대범해서 사람 많은 자리에서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소심해서 사람이 많으면 감히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다. 이런 건 모두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게 문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성품,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패괴 성품의 근원이다. 네가 패괴 성품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질문이 있느냐?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생활은 정상적이지만 속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스스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고 느낄 때는 한 이틀 열심히 추구하다가 며칠 지나면 속으로 다시 느슨해지는, 이런 내적 상태가 늘 반복되는데, 스스로도 이것이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이라고 인식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 진입이 원래 그런 것이다. 너는 지금 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들이 남편을 찾을 때 그녀들의 기준은, 외모는 보통이어도 괜찮은데, 반드시 낭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이 처음 만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자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등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날짜는 모조리 기억해야 하고, 또 가끔 "자기야, 사랑해!"라고 해 줘야 하고, 가끔 선물도 사 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이런 것도 확인할 것이다. "우리 처음 사귄 날짜가 언제지? 밸런타인데이는 언제게?" 이렇게 항상 낭만과 자극을 찾는 것이다. 생활이 좀 평범해지면 그게 싫어서 남편을 원망한다. "사람이 둔하긴, 낭만도 모르고 말이에요. 당신이랑 사는 건 정말 재미없어요! 이번 생은 당신 옆에서 썩고 있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누구 남편은 낭만적이라서 여자를 잘 달래 주고 아내를 공주처럼 아낀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못내 부럽고, 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오지 못하는 걸 한스러워하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거부감을 갖는다. 너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자극적인 대목이 없고, 하나님 역시 너에게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는 느낌이 필요하지 않다.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한동안 내가 가는 길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내가 이행하는 본분에 무슨 구멍은 없는지, 사람의 실수로 무슨 손해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고, 그 한동안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일에서 내가 갖추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 인식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치우치게 이해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닿지 못한 부분이나 체험하지 못한 부분, 혹은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교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길과 목표, 방향만 모두 정상이고 옳으면 된 것이다. 큰 방향만 옳으면 된다. 자극을 찾지 말고, 서프라이즈를 찾지 마라. 아무도 너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정상인이 일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평범하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무엇도

초자연적이지 않으며 실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평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생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그래도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너는 끊임없이 자신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거나 바꾸고, 끊임없이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고, 네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차이다. 이는 이미 상당히 큰 차이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뭘 더 바라느냐?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이 그래도 적으냐?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발생한 일들은 사람이 세어 보기에 충분하다. 세월은 정말 빨리 흐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 년, 20 년이 흐르고, 또 순식간에 30 년, 50 년이 흘러간다. 그러면 사람의 일생이 거의 다 되는데 무슨 자극을 찾느냐?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자극적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너로 하여금 남다른 것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모두 너에게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바람직하다. 평범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냐? (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자극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정상 인성으로 살고 이 물질세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극을 찾으려 하지 마라. 자극을 찾고 느낌을 찾는 것은 할 일 없어 하는 짓이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는 매일 새로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저는 왜 못 배웠나요?" 그렇다면 아마 네가 진도가 좀 늦은 것이다. 네게 매달 배워야 할 공과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하다. 네가 발전하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면 수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제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어느 말씀으로 해결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저의 추구 관점이 실제적이지 않고, 추구 방법도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극을 추구하려 하고, 느낌을 추구하려 하고, 그저 관념과 상상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는 존경하면서도 멀리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명 진입 과정에서 연약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성장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하는 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대로 추구해야 한다. 자극을 찾거나 느낌을 찾지 말고, 예민하게 굴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지도 마라. "오늘 기분이 왜 이러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구나. 얼른 기도하자!"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그 사소한 일까지 따지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말해라. "며칠째 하나님께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는 속으로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이쿠, 본분 이행하느라 바빠서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네가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소홀히 하긴 했지만,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는 많은 문제를 발견했고, 몇 가지 패괴 성품을 드러냈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교제하는 것을 듣고 커다란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것이 실제적인 수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꼭 그 방식과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 년 5 월 30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2)

오늘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0 조인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를 멸시하는 측면에 대해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교제했는데 우선 그것부터 다시 짚어 보자. 지난번에 너희는 '멸시'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저희는 그것을 눈길도 주지 않고, 얕보고, 업신여기고, 또 오만불손하게 대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 너희는 실제적인 말로써 분명하게 그 본질을 해석했느냐? (저희의 해석은 그저 '멸시'의 동의어를 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해석이었지요. 진리를 멸시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리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와 모습은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까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너희의 그런 해석은 어떤 성질에 해당하느냐? 어떤 범주에 해당하느냐? (글귀와 도리입니다.) 또 있느냐? 지식에는 해당하지 않느냐? (해당합니다.) 그 지식은 어떻게 얻은 것이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서, 사전에서, 책에서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해석과 너희의 해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제하신 것은 진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 내면 깊은 곳에서 반발하고, 반감을 품고, 혐오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정죄하고, 또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본질 측면에서 해석하신 것이지요.) 각종 본질적인 행위, 방법, 태도, 관점의 각도에서 이 '멸시'라는 단어의 본질을 해석했다. 과연 어떤 해석이 진리겠느냐? (하나님의 해석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해석은 어디가 부족하겠느냐? (저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물을 볼 때 표면만 보고, 문자적인 의미만 해석하고, 지식과 도리에만 의존해 문제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파악한 지식을 근거로 자신이 이해한 문자적 의미에 따라 이 단어를 해석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의 본성 본질, 패괴 성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 도리와 진리의 차이다. 너희는 평소에 이런 방식,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교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여다봐도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많은 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진리 실제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늘 얘기하는 이유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 제 10 조인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 교제하겠다. 지난번 예배 때는 진리를 멸시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첫째,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한다', '둘째,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라는 주제를 해부해 보자. 첫째 조항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거의 다 교제했지만, 하나님의 본질 측면의 거룩함과 유일무이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교제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너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교제하도록 생각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 조항인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 교제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가'라는 주제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다.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에게 갖는 생각과 관점,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의 구체적인 모습과 본질적인 표출이 어느 정도 들어 있다. 사람의 일부 구체적인 모습이나 어떤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펼쳐 놓고 교제한다면, 들으면서도 뚜렷한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 테니 몇 조항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겠다. 이 몇 조항을 통해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인식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를 멸시하는지 증명하고 해부할 것이다. 첫째,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한다. 둘째,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 셋째,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 넷째,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각 조항의 내용, 또 문자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 관점과 모습을 볼 때, 각 조항이 긍정적인 것이냐? 그나마 올바르고 긍정적인 조항이 있느냐? 올바르고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최소한 인성과 이성을 갖춘 것이다. 이것들을 순종하는 태도, 피조물이 갖춰야 할 태도 및 입장을 갖춘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 없이, 단순히 인성의 이성으로 가늠할 때, 어느 조항이 이에 닿을 수 있겠느냐?

먼저 첫 번째인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한다'를 살펴보자. 여기 등장하는 세 단어가 인류의 언어에서 좋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세 단어는 어떤 부류의 언행을 묘사할 때 쓰이느냐? (간사한 사람, 매국노, 소인배, 아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매국노, 소인배, 그리고 반역자는 간사함과 비열함, 사악함과 관계된 부류다. 이런 자들은 하는 짓이 사람의 눈에 대부분 지저분하고 비열하게 보이며, 남을 대할 때 진정성이 없고, 마음씨도 곱지 않다. 또 늘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데, 권세와 지위가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춘다. 이런 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통상적으로 부정적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다음 두 번째인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를 살펴보자. 이 말에 쓰인 단어들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냐? 어째서 그것을 부정적인 단어로 정의하는지 설명해 보아라. 만약 배경이 없다면 이 단어들은 중립적일 것인데, 긍정적이라고도,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연구한다든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 분석한다든가, 어떤 일들을 무척 궁금해하는 등의 몇 가지 모습은 기본적으로 긍정, 부정을 논할 수 없고, 비교적 중립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바로 사람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 대상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명백하다. 이 배경이라는 것이 추가된다면, 이 부류 사람들이 하는 이 몇 가지 일,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행위에 근거하여, 이 단어들은 여기에서 부정적 의미로 바뀐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육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겠느냐? 마음속으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겠느냐? 당연히 의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으며,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말고도 속으로 무척 궁금해한다. 과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겠느냐? 그런 모습과 본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교제하겠다.

이어서 세 번째인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를 살펴보자. 이 조항에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으므로 그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류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방면의 모습과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사실을 의미하겠느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그가 사람들에게 공정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휘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느냐? ('기분에 따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처리에도,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데도 원칙이 없으며,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없고, 양심과 이성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완전히 기분을 따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보통 사람을 기분에 따라 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제멋대로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행동에 원칙이 없고 그저 기분대로, 기호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감정만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을 대하는 경우를 놓고 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기분에 따라 대하는 대상은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 그리스도이다. 네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네 번째인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를 살펴보자. 이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단어로 무슨 뜻인지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 이는 그저 한 가지 모습이고,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평소 상태이자 구체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다. 이런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면의 진정한 태도와 같겠느냐? (같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온순하고 듣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복의 정서와 태도가 있고, 동시에 저항의 정서와 태도가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사실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하는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또 이행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맞서고 대항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과 접하고 교류하면서 상대의 말에 이런 내적 상태와 관점, 태도를 보인다면, 명확히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상대가 알아채든 그렇지 않든, 이 부류의 성품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 인성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긍정적인 인물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 분명 그렇지 않다. '듣기만 한다', '따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볼 때, 이런 부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어느 정도로 오만하겠느냐? 눈에 뵈는 게 없고, 이성을

잃고 극도로 미쳐 날뛰며,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접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나는 당신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지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가 하는 말도 내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고, 어느 누가 하는 말도 내 행동의 원칙과 지침이 될 수는 없어.' 그는 마음속에 본인 생각밖에 없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인다. 옳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어떤 말과 원칙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속으로 반발한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지 않으냐? 이런 부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느냐, 아니면 이성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느냐? 긍정적인 인물로 정의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로 정의되느냐? (부정적인 인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 부류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대다수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대부분이 이런 사람과 접하고 사귀기를 바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다수가 이런 사람과 맞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어째서 다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반감을 갖겠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 두 개 있다. 첫째, 이 부류는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결정권을 쥐려 하며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그는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한다. 이 두 문장이 이 부류 사람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그의 본질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성품을 볼 때, 그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결정권을 쥐려 하고,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남과 협력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없고, 진리도, 교회 원칙도 없다. 이것이 이 부류가 지닌 적그리스도 성품이다. 이 밖에도 그는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맞지 않는다. 설령 억지로 하려 해도 막상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할 때가 되면 그러지 못한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여기에는 일종의 내적 상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원칙에 부합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면 상대가 그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조화로운 협력이냐? 이것은 협력이 아니다. 이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혼자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런 성품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 이건 해부할 만하지 않으냐? 이 문제는 심각하며, 해부할 만하다! 이어서 각 조항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지 얘기해 보자.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모습을 통해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인식해 보겠다. 우선 첫 번째 모습부터 해부해 보자.

1)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한다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것, 표면적으로 본다면 누구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흔히 접할 수 있다. 남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건 대부분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듣거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이는 아부하는 사람이 가장 흔히 보이는 말하기

방식이다. 패괴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탄 철학에 속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설마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겠느냐?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한다면, 사람이 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행위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만약 성육신 하나님에게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는 은연중에 한 가지 문제를 보여 준다. 즉, 그는 성육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패괴된 인류 중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뼈와 살이 있고 사람의 생김새를 하고 있다. 이는 사람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대하는 논리와 사유로 그리스도를 대한다. 사람을 대하는 논리와 사고방식대로라면, 통상적으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서 순조롭게 이익을 얻거나 앞으로 발탁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함에 있어서 듣기 좋고 완곡한 말로 귀에 거슬리지 않고 기분 좋게 해 주는 것이고,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야 한다. 험상궂은 얼굴을 해서는 안 되고, 언어적으로도 격렬하거나 악의적이거나 듣기 거북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과 언사를 보여야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의 역겨움을 유발하지 않게 된다. 듣기 좋은 말,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인 듯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노력하여 말 속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더욱이 어떤 무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을 정상적인 패괴 성품이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더 나은 행동 방식이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속으로 경외심, 존중, 진심과 성의를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듣기 좋은 말, 완곡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 심지어 거짓 이미지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성육신 하나님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하려 한다. 그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방법이 먹힌다고 믿으며, 성육신 하나님도 사람이고, 사람이면 그 수법이 통하고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대할 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처세 철학으로, 또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가지고 노는 수법으로 성육신 하나님을 대한다. 이런 행위 본질의 이면이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패괴된 인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한다. 그리스도를 보면 호감을 사고 싶어서 그저 계속 환심을 사는 말,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고 눈치를 살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 "멀리서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사롭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는 후광이 없는데 당신 머리 위에는 후광이 있어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집에 일반인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보는 순간 틀림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이건 헛소리가 아니냐? 나는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생겼다. 어느 무리에 있어도 내가 뭘 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아마 1, 2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무리에 있어도 항상 평범한 일원이어서 아무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말하면 너희는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상대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고, 미지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은 한눈에도 하나님 같아요. 저는 계속 그분이 범상치 않고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어요." 어째서 다르냐? 내가 머리가 셋이고 팔이 여섯 개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째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은 전에 "나는 일부러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의 말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건 명백히 굽실대고 말할 때 무게가 전혀 없는, 비열한 소인의 헛소리다. 성육신의 외양은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의 육안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신분 본질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당신은 성육신 하나님이시고 한눈에 봐도 남달랐습니다."라거나 "처음부터 당신은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봤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무엇이냐? 헛소리다! 하나님이 증거하기 전에는 왜 아무리 봐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증거한 뒤 내가 사역을 시작하자 그때는 어떻게 한눈에 알아본 것이냐? 그건 분명 남을 속이는 말이고, 망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거나 접할 때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한다. 그는 생각한다. '어렵사리 성육신 하나님을 만났어.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니까 잘 보여야 해.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룬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번 사역을 받아들인 뒤 세운 훌륭한 업적들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이 아시게 해야지.' 나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발탁될 기회를 얻고 싶은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였다면 그는 평생 얼굴을 내밀 기회도, 발탁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뽑아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얘기해야 남들에게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할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뽐내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할지 고민했다. 그러려면 조금은 완곡하고, 기교도 조금 섞고, 음모와 계략도 약간 꾸미고, 잔머리도 좀 굴려야 했다. 그가 말한다. "하나님, 저희가 몇 년 동안 당신을 믿으면서 좋은 것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들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 말씀이 너무 좋고, 당신이 하신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모두 본분을 이행하며 당신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좋은 것도 별로 못 얻었구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운 빛 비춤과 깨달음, 인식을 많이 얻었고, 형제자매들도 다들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변한 사람은 없느냐?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없느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은 정말 좋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모두 하나님 사랑하길 추구하고,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좋아서 저희는 다들 격려받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은혜를 구하고 떡으로 배만 불리려는

식으로 믿을 순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서 인식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았습니다. 구구절절 저희 정곡을 찌르고, 저희 본성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자신을 인식하는 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커다란 빛 비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 가족과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어디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람 모두가 당신을 뵙고 싶어서 매일 꿈속에서 당신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당신과 매일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 말 중에 마음을 나누는 본질적이고 진실한 말이 한 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건 다 어떤 말이냐? 가식적인 말이자 빈말, 쓸데없는 말이다. 네가 그에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인 뒤로 저는 제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인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성이 없느냐?" "행동에 원칙이 없어서죠." "어떤 행동에서 원칙이 없었느냐?"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접할 때도 원칙이 없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도 원칙이 없고요. 저는 마귀 사탄이고, 사탄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사탄에게 너무 깊이 패괴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맞서고 대항하죠." 듣기에는 썩 나쁘지 않은 말이다. 내가 계속해서 묻는다. "너희 교회의 아무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한다.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전에 교회 리더를 하다가 교체되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형제자매들이 또다시 뽑아 줬지요." "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지요." "그 사람은 겉보기에 무척 열심이긴 한데, 자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지냐고요? 좀 떨어지긴 하죠. 안 그랬으면 지난번 형제자매들이 왜 그를 교체시켰겠어요!" "그런데 자질이 떨어지면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교회 리더라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는 내 말을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말한다. "감당할 수 없긴 하지요. 형제자매들이 그를 뽑은 것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서 고른 것입니다. 썩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그를 뽑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그가 자질은 보통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질이 떨어진다면 제 생각에 다음번에는 형제자매들이 그를 뽑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자매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일은 현지 교회 형제자매들의 분량을 봐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면, 이 절차는 옳다. 하지만 일부 우매한 사람들이 사람과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을 잘못 뽑기도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단지 실제 사정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 사람을 교체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민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체하라는 뜻을 내비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어떤 생각인지 좀 더 알아보자. 이 사람을 교체할 경우, 누가 교회 리더를 하고 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말이야.' 적그리스도는 안중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도 없다. 그는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마주한다. 즉, 말할 때 언제나 눈치를 보고 말투를 살피며 임기응변하고, 진실한 말, 진심이 담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빈말이나 도리밖에 말할 줄 모르면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 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는 하나님과도 마음속 말, 바른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뱀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한다. 또 그가 말하는 방식과 방향은 덩굴줄기와도 비슷해서 지지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네가 그에게 누군가에 대해 말하며 그 사람은 자질이 괜찮으니 발탁해도 되겠다고 하면 그는 얼른 그 사람이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모습, 어떤 표출이 있다고 말한다. 네가 그에게 누군가가 별로라고 하면 그는 또 얼른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쁘고 악한지, 교회에서 어떻게 교란하고 방해하는지 이야기한다. 실상을 물어보면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우물거리며 네가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네 의도에 따라 말하려고 네 말투를 듣는다. 그가 하는 말에는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비위를 맞추는 말밖에 없으며, 그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식이다. 그는 이렇게나 간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나와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고, 어떤 일에 대해 듣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수를 낸다. 내게 들려줄 화젯거리를 찾으며 그는 생각한다. '당신은 아마 이런 화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얘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으시겠지만, 미안해서 못 물어보실 테니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죠.' 나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말한다. "요사이 저희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치안도 좋지 않아서 좀도둑도 많아졌죠. 밖에 나가면 물건을 도둑맞거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유괴되는 아이들도 많아서 인심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다들 사회가 너무 어지럽고 정상이 아니라고들 해요. 종교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세가 왔다고, 하나님이 곧 강림하시고 큰 재난이 닥칠 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 "얼마 전 어떤 지역에서는 달이 세 개가 떠서 그걸 촬영한 사람들도 꽤 된대요. 민간 역술가들은 하늘에 큰 이상(異象)이 나타나고,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죠." 이런 혼란한 사회 현상이나 재난, 특이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예사롭지 않은 천문 현상이 발생하면 그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수집한다. 나를 만날 때면 나와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이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셔. 그분이 여느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신다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 평화를 바라고, 화목하게 함께 지내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라지만, 성육신한 그리스도만큼은 정상인들과는 다르실 거야. 그분은 세상이 큰 혼란에 휩싸이고, 이상이 나타나고, 큰 재난이 내려서 하나님의 대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빨리 마무리되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겠지. 이것이 그분이 관심 갖고 흥미를 느끼는 화제야. 그러니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기분이 좋으시면 아마 나를 발탁하실 수도 있고, 난 그분 곁에 더 오래 있게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전에 나는 한 아가씨를 만난 적 있는데, 그녀의 특징은 달콤한 말을 잘하는 것이었다. 말주변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서 만나는 상대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하고, 임기응변과 처세에 능했으며,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무척 처신을 잘했다.

나와 접했을 때 그녀는 날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모 지역에 조직 폭력배가 기승을 부리는데, 경찰국 내부에도 조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의 보스가 현지에서 심심치 않게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하루는 길에서 큰 악마인 고위 관리와 마주쳤대요. 그의 차가 그 악마의 차를 추월했죠. 악마가 경호원에게 말했대요. '저게 누구 차지?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 그는 바로 제거되었대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하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중심 화제로 생각해서 나를 만나면 바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소용이 있느냐? 그건 내가 관심 갖거나 듣고자 하는 화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모르고 내가 이런 스릴 있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너희가 볼 때 재난과 이상, 천재(天災)와 인재(人災) 같은 일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하는 화제이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시간을 때우려고 듣기에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틀렸다. 나는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얘기하면 당신은 들으십니까?" 나는 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다거나 그런 소식, 그런 얘기를 수집하려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속으로 그런 일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은 속으로 큰 붉은 용을 아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큰 붉은 용을 미워한다면 제가 당신에게 큰 붉은 용이 징벌받은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리죠. 큰 붉은 용 내부에서 고위층 사이에 내부 투쟁이 벌어졌는데, 여러 파벌끼리 싸우는 와중에 하마터면 악마인 아무개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악마들은 몇 차례 암살 사건을 겪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 얘기를 들으니 기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이 일을 듣고 기쁘냐? 너희가 기쁘면 기뻐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다. 이는 나와는 관계없다. 어쨌든 이런 일들, 어느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했고, 이 전염병이 어떻게 왔고, 몇 명이 죽었고, 어느 나라에 대재난이 발생했고, 어느 나라 정권이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의 고위층 내부 투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사회에 어떤 폭동이 있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그냥 듣는다. 하지만 그 일들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정보를 조사하거나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그 일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며 지금껏 그렇게 해 본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장악되어 있고, 이런 일은 전부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이치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를 주재한다. 어느 시대든 재앙과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큰일이나 작은 일이 발생하든 안 하든 한 시대가 바뀔 때가 되면 설령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조차 변하지 않더라도 그 시대는 지나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재하는 일이다. 만약 한 시대가 끝나지 않도록 정해진 것이라면, 설령 천문 현상 혹은 지상의 만물에 어떤 큰 변화가 있더라도 그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은 끼어들 수도, 거들 수도 없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런 일들은 네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인식하면 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강요하지 마라.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이 모든 일, 즉 시대를 바꾸고, 세상의 구도를 바꾸고, 한 인종의 운명을 바꾸고, 한 정권의 통치 방식과 지위를 바꾸는 것 등과 같은 일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두 하나님의 주재다. 사람은 그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비밀을 많이 알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밀을 좀 많이 아는 것을 마치 최신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당히 분량이 있고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네 관점은 틀렸다. 그런 일들은 무슨 큰일이 아니다. 진정한 큰일,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 경륜의 핵심인 인류 구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경륜 사역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일이다. 네가 이 일에 관계된 진리, 이상을 잘 깨닫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일, 너에게 공급하는 진리, 너에게 하는 모든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을 네가 다 받아들인다면 그건 네가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 비밀이나 재난, 정치를 연구하는 일보다 훨씬 값지다.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뽐내기 좋아하는 한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육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진리가 있으셔. 그분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그 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정치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것이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틀렸다! 내가 제일 반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이고, 두 번째로 반감을 느끼는 것이 역사다. 네가 역사 얘기를 할 때 유머러스한 것이나 줄거리가 약간 있는 것이나 혹은 잡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때우는 건 좋다. 하지만 그런 얘기나 그런 일을 진지한 일로 생각해서 나에게 얘기하면서 환심을 사고 줄을 대려 한다면 너는 틀렸다. 나는 그런 건 전혀 듣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한다. '당신이 진리를 교제하고 사람들과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사실 당신이 속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세상의 대혼란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잠잠할까 걱정이시겠지요. 재난이 닥치면 뒤에서 뛸 듯이 기뻐하시고,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하실지도 모르죠!'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 설령 큰 붉은 용이 멸망하고 무너졌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큰 붉은 용이 무너지는 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큰 붉은 용이 멸망하고 징벌받으면 당신은 폭죽을 터뜨려야 하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열어 하나님 선민들과 같이 축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그래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하는 게 진리에 부합하느냐? 사람들은 말한다.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토록 박해했고, 하나님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축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축하하겠다면 허락하마. 너희도 너희 기분이 있을 테니 말이다. 너희가 기뻐서 3 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 공의를 찬미한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큰 붉은 용이라는 원수를 멸하고 발아래 두었으니 하나님 선민들도 다시는 그들에게 박해와 고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집을 놔두고 바깥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한다면 너희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축하하고 긴장을 푼다면 나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어쩜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사람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피 끓는 감정도 없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 당신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축하하겠습니까?" 축하하는 일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교제해야 할 게 하나 있다. 큰 붉은 용이 징벌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다면, 전부터 하나님 선민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봉사하던 마왕이 멸망하고 제거되었다면 하나님 선민의 분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진리를 얼마나 깨닫게 되었겠느냐? 만약 너희가 모두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고, 모두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면, 모두가 욥과 베드로의 분량을 갖추게 되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때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순간이니 축하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큰 붉은 용이 무너졌는데, 너희의 분량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경외심이 없고, 악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욥과 베드로의 분량에도 한참 못 미치고, 하나님의 주재에 여전히 진실된 순종이 없어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면, 너희가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헛된 즐거움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축하하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큰 붉은 용이 그토록 저희를 박해했는데 저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괜찮겠죠? 저희가 그들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괜찮겠죠? 저들이 그토록 저희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제거될 때 우리가 기뻐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뻐해도 되고, 기분을 표현해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큰 붉은 용이 멸망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고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큰 붉은 용이 멸망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때이자 너희가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원수인 큰 붉은 용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일이며, 너희가 성품 변화를 추구하고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큰 붉은 용은 봉사하는 존재이자 부각물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배치한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봉사하게 하는지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 네가 그들의 운명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네 마음이 끌린다면 큰일이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는데, 여기에는 큰 붉은 용, 일체의 마귀 사탄도 포함된다. 따라서 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생명 진입, 성품 변화와 눈곱만큼도 관계가 없다. 너와 관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흉악한 본질은 네가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 본질은 네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너와 관계가 없고, 네가 알아도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알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지를 알 수 없고,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도 너는 꿰뚫어 볼 수 없다. 이 주제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적그리스도가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모습은 보통의 패괴된 인간에게도 당연히 표출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보통의 패괴된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그의 행위에는 존중과 진심이 없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을 농락하고,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이 보통 사람을 농락하고 그리스도를 속이려 한다. 그럼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패괴 성품이 있고, 어떤 인격이 있고, 어떤 본질이 있는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간파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속이려 하고 기만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느냐? 한 마디도 없다. 적그리스도의 속셈과 목적은 기만하고 속이고 농락하려는 것이다. 이 방법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멸시하는 한 가지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남들이 아첨하며 자기 앞에서 굽실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는 존재감이 생기고, 또 자기 지위가 남보다 존귀하고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 앞에서 무척 굽실거리면서 인격도 존엄성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을 에둘러서 하고, 늘 속이려 하고 사실을 숨기려 하고, 꾸며 내고 거짓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그리스도는 네 체면을 세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너를 싫어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너무 역겹다고, 솔직한 말은 한 마디 없이 그저 어떻게 아첨할지만 궁리한다고, 그런 자는 좋지 못한 인간이고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다는 건 이런 사람에게 내리는 정의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마디로 정의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얻지 못해서 구원받기 힘들다. 진리를 얻지 못해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겠느냐? 만약 그가 방해하지 않고 교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집에서 그저 큰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부각물, 봉사하는 존재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임시적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것이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수레가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끄는 것처럼 말이다. 어째서 그에게 역할을 맡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진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진리를 희롱하고 농락한다. 그렇다면 그의 말로는 분명 바울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임시적인 봉사자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자라고 인식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자신은 하나님 집에서 힘닿는 만큼 일하면서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외출했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쳤다.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너무 뵙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매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찾았답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나 싶었다. '내가 보자고 했나? 여기서 매일 날 기다렸다고? 이왕 만났으니 본론을 얘기해야지.' 내가 물었다. "요즘 어떠하냐?" 그녀가 말했다. "말도 마세요. 지난번 만난 뒤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언젠가 당신을 볼 수 있기만 바랐죠." 내가 말했다. "본론부터 얘기해라. 요즘 내적 상태는 어떠냐?"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너희 교회는 선거를 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그 리더이냐?" "아니요, 아무개가 선출됐어요." "그 형제는 어떠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럼 원래 교회 리더는 왜 교체되었느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좀 자세히 말해 보아라. 그 리더가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이냐?" "제가 볼 땐 괜찮았어요." "그럼 새로 선출된 리더는 인성이 어떠하냐? 진리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 구체적인 사역은 할 수 있느냐?" "괜찮아요." 뭘 물어보든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니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이야기는 어떠하냐? 이야기 제목을 뭐라고 하겠느냐? ('괜찮아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괜찮다'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접하는데, 그중 인성의 이성을 갖추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 험한 말, 틀린 말, 주제를 모르는 말만 떠들지 진실된 말은 한 마디도 없다. 나는 네가 내뱉는 모든 말이 다 진리에 부합하고, 진리 실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사람이 할 말을 하라는 것이다. 조금은 진심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 것조차 없다면 대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 너는 늘 빈말이나 거짓말만 늘어놓고, 일이 닥치면 온갖 거친 말, 틀린 말, 욕설, 주제넘은 말을 내뱉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말을 해 댄다. 그러면 함께 지낼 수 없고 교류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들은 오직 천상의 하나님과 관계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고, 오직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어야 충분히 심오하고, 진리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이 평범한 분, 눈에 보이고, 말씀하는 음성도 들리는 이 사람은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사람 눈에 보이고,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고 사람의 마음과 육안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신비하고 알 수 없는 호기심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기에 형상이 있고 음성을 발하고 말씀할 수 있는 평범한 이 사람은 헤아리고 꿰뚫어 보기가 너무 쉽다. 심지어 사람은 그를 한눈에 간파하고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여느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한다. 이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위 있고 권세 있는 패괴된 인간과 같이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은 지위 있고 권세 있는 패괴된 인간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면 이익을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패괴된 인간은 모두 이런 걸 좋아해서 남들이 자신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아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본인은 신분이 고귀하고 남들보다 한층 높은 사람 같아 보이고, 자신의 지위와 권세의 존재가 더욱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 본질이 있는 그리스도는 정작 그와 반대다. 사람이 지위와 명망이 있는 것은 사람이 고귀한 본질, 고귀한 인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갖가지 수단을 써서 남들로부터 숭배와 아첨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신의 명망과 지위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본질을 갖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피조물의 본질과 지위보다도 높다. 그의 신분과 본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어떤 피조물이 치켜세워서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이 환심을 사고 아첨해서 그의 신분과 본질, 그리고 그의 존귀한 지위를 드러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다는 사실은 생래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이 더해 준 것도

아니고, 인류 가운데서 오랫동안 체험을 쌓은 뒤 손에 넣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은 반드시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치켜세우고 무조건 따르고 잘 보여서 그의 기호에 영합해야 하고, 그의 의사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아마 자기 신분과 지위의 존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커다란 착각이다! 누구든 패괴된 인류 중에 명망 있고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그 명망과 권세를 어떻게 쟁취한 것이냐? (환심을 사고 아부해서 얻어 낸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또한 주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쟁취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조작하여 얻어 낸 것이고, 또한 몇 가지 수단을 통해 얻어 내고, 빼앗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명망에 불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높은 지위, 높은 서열에 불과하다. 이 높은 명망과 높은 서열, 높은 지위 덕분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출중한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결정권이 있는 결정권자가 된다. 하지만 이 지위와 명망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 그의 신분과 본질은 그 어떤 평범한 패괴된 인간과도 다르지 않다. 모두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사탄에 의해 패괴된 한 평범한 피조물로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배반할 수 있고,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의 진상을 위배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늘을 어기고 하늘에 악담을 퍼부을 수 있다. 그의 진정한 신분과 본질은 바로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명망, 지위는 그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지독하고 흉포하고 악독한 사람들, 지위와 명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는다. 또한 수를 쓸 줄 알고, 수단이 있고, 음모를 꾸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패괴된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흉포하고 사악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중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오직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고 아부하는 것,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서의 게임의 룰과 처세 철학을 하나님 집으로 들여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일에 응용한다. 그리스도가 입지를 굳히려 한다면 그건 분명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은연중에 성육신 하나님을 패괴된 인류 중의 일원으로 여기고 그를 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방식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일에서 나타내는 성품이 사악함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성품이 사악하고, 사람의 생각을 넘겨짚고 추측하기를 좋아하고, 눈치를 살피기 좋아하고, 여러 수단이나 세인들이 사용하는 게임의 룰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일에 적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성육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뻐하며 말한다. '좋았어. 그럼 내가 당신을 보통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근거가 생겼군.' 하나님이 성육신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어디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 어떤 표출이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나는 지위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보이고 아첨하지. 남의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야. 언제까지라도 입지를 굳힐 수 있고, 언제나 진심을 말하는 것보다 나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탄 철학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한테 잘 보이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독 하나님만 그런 부류 사람들을 안 좋아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사를 부리지 말아야죠.) 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집을 향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행해야 할 몇 가지를 얘기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사람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진리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어떤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겠느냐? 서로 진솔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신봉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첨하고 맞춰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솔하게 대하면 된다. 진솔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포장하지도 감추지도, 숨기지도 가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마음을 열어야 하며, 거리낌이 없고 그릇된 심보나 심술도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 진솔하게 대하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바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네가 한 말이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고려할 필요도 없다.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하되 속셈을 갖지 말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불순물이 너무 많으며 말을 할 때 늘 잔머리를 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일은 말하고, 어떤 일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골라서 말해야지. 나한테 유리하고, 내 결점을 가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겠어.' 이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는 온통 나쁜 생각뿐이며, 하고 싶은 말을 몇 번이나 가공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순수하지도, 조금도 진실하지도 않으며, 개인의 속셈과 사탄의 간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꿍꿍이나 불량한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말을 할 때 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데, 안색이 좋아 보이면 계속 말을 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면 참고 말하지 않는다. 상대의 눈빛이 좋지 않아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럼 당신이 관심을 보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야겠다. 나한테 호감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악행을 저지르고

교란하는 것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데, 그의 마음은 이렇다. '이 일을 내가 미리 보고하면 아마 미움을 살 거야. 만일 잘못 보고했다가는 책망도 받아야 해. 다른 사람이 먼저 보고하고 나서 나도 사람들을 따라 같이 보고하면 설사 잘못 보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여럿이 잘못하면 죄가 아니잖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모난 돌이 될 수는 없지. 바보나 기를 쓰고 앞으로 나서는 거야.' 이것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냐? 분명 아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교활하다. 그가 만약 교회 리더나 책임자를 맡는다면 교회 사역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분명 그럴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느냐? 가령 어떤 리더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했지만 다들 아무도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상부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 혼자만 그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너는 사실대로 문제를 상부에 보고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너는 이 일을 숨긴 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다 이 리더는 악행을 많이 저질러 사역을 망가뜨리고 다들 그를 폭로하고 처리한다. 너는 그제서야 일어나서 입을 연다. "저는 일찍부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걸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제가 만약 얘기했더라면 다들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가 나쁜 짓을 해서 모두들 분별이 생겼으니 제가 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매번 누구의 문제를 폭로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하든 항상 대세를 따르고 끝에 가서 일어나 폭로하고 보고한다면 그것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냐? 그건 전혀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네 눈에 거슬리거나 혹은 네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 있는데, 네가 보기에도 악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속이 좁아서 그를 미워하게 된 너는 보복하고 싶고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에 온갖 방법을 짜내고 기회를 찾아서 상부에 그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 너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 그 사람을 정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 속셈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즉, 상부의 손을 빌려서, 혹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게 해서 그를 처리하려는 생각이었다. 너는 상부에 문제를 보고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분명 개인의 사심, 불순물이 들어 있고, 진솔하게 대하는 것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만약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네가 교회 사역을 지키기 위해 상부에 문제를 보고했다면, 더군다나 보고한 문제가 완전히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는 사탄 철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그건 정의감과 책임감이 있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에 해당하는데, 그게 바로 진솔하게 대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맞장구칠 필요도 없다. 그저 진솔하게 대하고 마음이 진실하며 마음속에 숨기고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으면 된다. 즉,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혹은 미리 무언가를 예비하거나 미리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울리면 된다. 설령 잘못된 말을 좀 하거나 언어 사용이 부적절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일례로 내가 어떤 곳에 갔는데 밥 짓는 사람이 물었다. "식사하실 때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어떤 건 드시고 어떤 건 안 드시나요? 뭘 해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말했다. "너무 짜게 하지 말고 맵게도 하지 마라. 또 너무 기름지게 하지 마라.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것을 하지 마라. 주식은 밥이나 면 다 괜찮다." 이 말이 심오하냐? (아닙니다.) 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추측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세히 알려 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에 따라 만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간단한 일도 못 한다. 패괴 성품이 있고 사심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기름지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음식을 만들 때 채소 한 움큼을 기름 한 국자를 넣고 볶았다. 채소를 거의 튀겨 내다시피 해서 한입만 먹어도 느끼했다. 너무 짜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넣는 둥 마는 둥 해서 간이 거의 안 됐다. 기름은 잔뜩 넣고 간은 안 됐는데 식욕이 생기겠느냐? 그만한 일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뜻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 진리여서 사람이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실행하기 쉽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실행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사심이 너무 커서 늘 자신의 생각과 불순물을 가지고 있다. 늘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고, 무엇이든 자기 입맛대로 하려 한다. 나는 말했다. "음식을 할 때, 맵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나는 따로 안 맵게 해 주거라." 그는 음식을 할 때 기어이 매운 걸 만들어서 자기가 맛있게 먹었다. 내가 말했다. "음식은 맵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맵게 했느냐?" "이건 맵게 해야 해요. 안 매우면 맛도 없고 밍밍해요." 이건 어떤 인간이냐? 좋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했다. "네가 고기를 좋아하면 네 건 고기를 많이 넣어서 만들어라. 내 건 고기를 좀 덜 넣거나 아니면 아예 채소만 넣고 볶아도 된다." 그는 내 말에 흔쾌히 알았다고 해 놓고서는 정작 음식을 할 때는 손이 말을 안 들었는지 큼직큼직한 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거기다 고추까지 넣는다. 안 그래도 기름진 고기를 튀기기까지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강한 맛으로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수발드는 것도 쉽지 않군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다들 먹는데, 왜 혼자만 안 드세요? 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많이 드셔야 몸에도 좋고 기운도 나죠. 건강해야 설교도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당신을 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배려한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냐? 어떤 일에든 욕망이 너무 크고 어떤 일이든 자기주장과 생각이 있다. 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 최소한의 인성조차 없다. 이것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나에게 물어볼 때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음식을 만들라고 하면 당연히 잘할 것 같았다. 막상 밥상을 한번 받아 보면, 그가 말을 좋게 해서 너한테 아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천성적으로 생각이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녀는 같이 있을 때 내가 약을 마시려고 하면 약을 꺼내자마자 물을 떠 온다. 내가 외출하려 하면 얼른 가방을 가져오고, 바깥 날씨가 추울 것 같으면 목도리와 장갑을 가져온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동작은 참 빠릿빠릿한데 어째서 어색한 느낌일까? 내가 외출을 하든 집에 들어오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려고 하면 항상 나보다 손이 빠르다.' 너희 생각에 내가 어떤 기분이겠느냐? 기분이 좋겠느냐, 아니면 싫겠느냐? (싫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런 짓을 싫어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도 싫어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겠느냐? (싫어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짓을 해 놓고 속으로 좋아하고 흡족해하며 말한다. "직장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은 저만 좋아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건 알랑거리며 아부를 잘하고, 환심을 사고 아첨을 잘한다는 말이다. 둔하지도, 무디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손발이 민첩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말은 나 역시도 좋아할 거라는 뜻이다. 내가 좋아하겠느냐? 짜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폭력 조직의 보스나 악질 두목이 차를 탈 때 경호원이나 부하들이 굽실대며 문을 열어 주거나 손으로 머리를 막아 주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짓을 한다. 내가 차에 타기 전에 얼른 손을 뻗어 문을 열어 주고, 문을 연 다음에는 손으로 머리를 막아 주는데, 마치 이방인들이 수장을 대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진다.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인성이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또 염치가 없다. 네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심을 사고 아첨을 하며 계속해서 굽실거리면 올곧은 사람들은 이에 반감을 가지며, 이런 사람들을 멸시한다. 네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면 나는 더욱 반감이 든다.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역겹기만 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너의 그 환심 사고 아첨하고 굽실대는 행동이 아니라, 네가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다. 만나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인식과 체험,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패괴를 얘기하고, 체험하면서 자신이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구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토론할 수 있다. 어떤 주제를 교제하고 어떤 화제로 대화를 나누든 진솔하게 대해야 하고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환심을 사고 굽실거리고 아첨하고 알랑거려서 호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망신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할 때 진솔하게 대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사람을 대할 때 진솔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너의 실제 내막을 알고 너를 해할까 두렵고, 사람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속일까 두렵고,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거나 비웃고 멸시할까 두렵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진솔하게 마주할 때 너는 무엇이 두려우냐? 만약 네가 속으로 두렵다면 이것은 문제다. 만약 네가 진솔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너의 문제다. 이것은 네가 진리를 추구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다. 만약 네가 속으로 네 앞의 이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따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한다면,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방식으로 그와 함께 지낼 게 아니라 진솔하게 대하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실제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할 때 꾸미거나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수단을 부리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너희는 할 수 있겠느냐? 진솔하게 대하는 것과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긍정적이냐? (진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물이지만,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물이다. 만약 진솔하게 대하는 이런 긍정적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패괴 성품이 있다는 뜻이다. 나의 이런 요구가 과하냐? 과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고 진솔하게 대하는 이런 방식과 태도로 함께 지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면 내 말대로 실행하도록 해라. 이 항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2)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

계속해서 두 번째인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에 대해 교제해 보자. 이 조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일,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 또 그의 모든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기호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겉면의 이런 표출들을 모두 육신의 정상적인 일면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로 듣고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실행의 원칙을 깨닫고 실행의 길을 얻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대신 연구를 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어떻게 말씀해 내는 거지? 말씀이 끊이지 않는데 속으로 생각해 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계시해 준 것일까? 이 말씀들은 공부한 것일까, 아니면 미리 준비해 둔 것일까? 난 왜 모르겠지? 어떤 말씀들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고 다 통속적인 말이야. 보기에 하나님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정상적이고 평범하다고? 연구해도 모르겠으니 그분이 뒤에서 뭘 하나 좀 관찰해 봐야겠어. 신문은 보는지, 명작은 읽었는지, 문법은 배웠는지,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이랑 접촉하는지 말이야.' 그는 진리에 순종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흡사 학자가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로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내용과 방식, 그 말씀의 대상을 연구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의 모든 태도와 목적을 연구한다.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의 귀에 들어오는 것,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가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은 모조리 그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씀,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가 처리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언행과 눈빛, 얼굴 표정, 심지어 생활 습관과 생활 규칙,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까지 연구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모조리 연구한다. 연구 끝에 적그리스도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봐도 정상 인성을 갖춘 것 같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데가 없고 지극히 평범하구나. 이런 분이 성육신이라고?' 아무리 연구해도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자신이 속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연구해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 그리고 권병을 갖춘 일면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는 꿰뚫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누군가가 말한다. "당신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에 구할 만한 진리가 있는 법이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볼 때는 구할 만한 진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깊이 연구해 볼 만해요." 그는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 결론을 얻는다. '이 그리스도는 단지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구나. 그분은 특별한 은사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갖추지 않았어. 말씀하는 내용도 죄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 결과는 분석하고 연구해 봐야 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내면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적그리스도가 볼 때,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비범한 능력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기적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병을 보여 주고 집행하는 그런 본질과 재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눈앞의 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더군다나 말할 때 유창하고 조리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많은 일들을 묘사할 때 사람의 관념에는 맞지 않는 구어를 사용하며 대학 교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태도와 방식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리스도라는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었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이 평범한 사람을 가장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꿰뚫어 볼 수 없는 많은 일과 말씀, 현상이다. 이것이 그가 연구하고 분석해 볼 만한 점이고, 그가 이 사람을 따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가 연구하고 분석할 만한 내용과 항목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런 생명 진입의 말씀이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정말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정말 없으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뿐이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는 도무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본질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세하게 상대에게 대입해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적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 일을 대입해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한다. 무엇을 분석하느냐? '당신이 이 사람에 관한 걸 어떻게 압니까? 그에게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무슨 근거로 그를 규정합니까? 당신은 별로 접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습니까? 그를 오랜 시간 접한 저희는 어째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당신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제가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반드시 정확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맞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접할 때 일이나 업무를 지도하곤 하는데, 그들은 내가 지도하는 방식과 방법이 만약 자기들이 파악한 업무 지식과 맞으면 만족하고 억지로라도 집행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으면 속으로 반발하며 생각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 업무와 서로 어긋나지 않나요? 제가 왜 당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 말씀이 옳지 않으면 그대로 따를 수 없죠. 저는 제 방식을 따를 겁니다. 당신이 옳다면 당신 말씀이 어째서 옳은지,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배운 겁니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압니까? 안 배웠으면 몰라야 정상이고 알면 비정상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 준 겁니까, 아니면

혼자 몰래 공부한 겁니까?' 그는 속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처리하는 모든 일은 적그리스도에게서 걸러져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받아들이지만,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발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가장 큰 비밀이다. 그게 과연 어찌 된 일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이 육신 안에 실체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배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이 모든 사역에서 사람은 큰 이상(異象)도 보지 못했고, 이 육신에게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 하나님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영광을 동방으로 가져왔다. 이 사람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시작되고 구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누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 인성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면 무얼 하겠느냐?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느냐? 아니다. 그는 이런 말씀들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모든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따라서 이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이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 모든 말씀과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연구하고 속으로 반발한다. 무엇에 반발하느냐? '당신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커다란 사역을 해도 관계없고, 당신의 근원이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말씀하는 방식이 내 관념에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겉모습이 충분히 높고 크지 않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연구 대상이고, 나는 당신을 내 주님,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동안 적그리스도는 관념과 패역,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념이 갈수록 커지고 점점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한 교회의 리더가 적그리스도로 드러났는데, 그는 그 교회를 교란하고 무너뜨렸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그리스도는 맨 처음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아십니까? 이 교회의 리더는 누가 안배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전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아셨나요?" 나는 몰랐다고, 나도 방금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럼 안 되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왜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아셨어야죠." 나는 그리스도이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교회에는 교회의 행정 법령이 있고 사람을 처리하는 원칙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교회의 원칙에 따라 제명시키거나 출교시키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진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다 알 필요가 없다. 만약 교회가 교회의 행정 법령과 사람을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가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원칙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진리가 다스리는 곳은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정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관념을 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이 품은 관념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정죄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일이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맞지 않고 예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할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의 면면을 연구한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신분이 있다고 정의할 수 없어.'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만약 일이 생기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 그리스도의 신분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연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의 연구와 분석은 진리를 더 잘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고 트집을 잡아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면에 감춰진 속셈과 목적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소위 따르는 자가 되는 한편, 연구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지니고 결국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억지로, 내키지도 않으면서 따르고, 또 하나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느냐? 한 가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야심이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호기심이 있다. 어떤 호기심이냐? 바로 기이한 소문이나 이상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세간의 모든 기이한 소문과 괴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일을 적그리스도는 무척 궁금해한다. 그들은 수많은 일에 대해 일종의 욕망을 품고 있고, 끝까지 파헤치고 싶어 한다. 끝까지 파헤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너무 교만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 자세히 알려고 하고, 내막을 알고 싶어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척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그는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고, 그 내막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제일'이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도 그에게는 빠뜨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야. 가장 큰 비밀, 가장 기묘한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일이 보통 사람의 예상을 벗어나고, 그 육신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면, 그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 식견을 좀 넓혀야지." 식견을 좀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이다. '난 세계 각국을 다 다녀 보고, 온갖 명소를 다 구경하고, 온갖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 봤는데, 다들 속세 사람들이었지. 유독 그리스도만큼은 못 만나고 접견해 보지 못했어. 그 그리스도라는 분은 대체 어떤 본질을 갖고 있을까? 어디 한번 알아봐야지.' 그는 대체 무엇을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실 수 있다고 들었어.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그분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었지? 하나 생각나는 일이 있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가 죽어 버렸지.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 한번 알아봐야지. 기회가 된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 봐야지. 성육신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병이 있어서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자를 고쳐 주신다지. 그건 신기하고 신선한 일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특이한 재주야.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그 외에 그가 속으로 염려하는 가장 큰 일이 하나 더 있다. '인간 세상의 전생과 현생, 윤회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일반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기왕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이 모든 걸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시간 날 때 그분한테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한번 좀 알아봐야겠어. 내 관상이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내가 전생에 동물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봐 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알면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초인이고 그리스도일 거야. 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 성육신은 하나님 처소가 어디에 있고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까? 천국은 황금으로 길이 깔리고 황금 벽돌로 지어져 휘황찬란하다고 하던데 이 성육신이 만약 우리를 데리고 한 바퀴 둘러본다면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지 않겠어? 믿은 보람이 있지! 또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 없이 배고플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마디면 돌이 음식으로 변하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면 5 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크게 덕을 보지 않겠어? 또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던데 생명수는 어디에 있지?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흐르지? 이런 건 다 탐구해 볼 만한 일이야. 하나하나가 다 신선해. 만약 그중 하나라도 직접 본다면 나는 평생 식견을 갖춘 사람이 되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건 호기심의 농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유가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어서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대뜸 이런 질문을 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은 무슨 뜻입니까? 백마는 무슨 뜻입니까? 3 년 반의 재앙은 지금 왔습니까?" 내가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계시록은 무엇이냐?" 그가 말했다. "계시록도 몰라요? 다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땐 꼭 그런 것 같지 않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밀에 관한 일을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대답했다. "늘 비밀만 묻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앞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늘 비밀만 찾는 사람은 모두 좋은 인간이 아니니 그런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다. 본인이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그 질문들의 대답이 궁금한 것이다. 그는 누가 그런 걸 물어보는지 내가 모를 것이라고, 내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생각했다. '나보고 좋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군. 그러면 물어보지 말아야지.' 이런 방법이 어떠냐? 그의 입을 막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대답해 주었더라면 그건 바로 그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는 식으로 끝도 없이 물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그런 일을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네가 알면 어쩔 수 있느냐? 알아도 너한테 알려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너에게 알려 줘야 하느냐? 내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냐? 너는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느냐? 네가 와서 날 연구하면 나는 마음을 열고 네가 연구하게 놔두는 게 맞느냐? 네가

와서 나를 시험하면 나는 또 네가 시험하도록 두는 게 맞느냐?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러 온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따져 묻는 태도를 가지고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무슨 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진리에 관계된 일, 교회 사역에 관계된 일이라 해도 상황을 봐야 한다.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도 네가 짐짓 모르는 체하고, 또 겸손하게 물어보는 체한다면 나는 대답해 주지 않고 너를 한바탕 책망할 것이다. 한바탕 책망하면 너는 깨달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태도,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연구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는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모두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이런 일로 시간을 때운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학자가 어떤 업무나 지식을 배우는 것과 같고, 마치 불신파가 신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빛 비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지금껏 접해 보지 못한 사역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역들도 있다. 내가 이런 사역들을 지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겸허하게 듣는다. 그리고 거기서 해당 본분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 실행하고 진입해야 할 진리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속으로 연구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업무들은 당신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배울 수 있습니까? 뭐든 잘 알고 뭐든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뭘 믿고 우리를 지도합니까? 우리가 왜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당신이 지도할 때 하는 말씀이 정말 이치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난 배우지 않으면 모르겠던데요. 궁리해 봐야겠어요. 어떻게든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들을 겁니다. 당신한테 지도받지 않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역시 보면서 조금씩 배우고,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그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본 것이다. 그가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원칙이 있고, 어떤 사역을 지도하든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곧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역이 이뤄야 할 효과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지식, 문화, 식견, 경력은 특출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의 식견, 지식, 경력, 경험이 풍부하고 말고를 떠나, 언급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지금 사역하는 근원은 겉으로 드러난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의 본질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네가 이 육신의 외양, 키와 생김새, 말할 때의 음성과 말투, 또한 말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너는 그가 왜 이 사역들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다. 너는 짐작할 방법이 없다. 짐작할 수 없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느냐? 아니다. 이 일은 해결할 수 있다. 너는 짐작할 필요 없이 이 한 가지만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며,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원칙과 입장, 태도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혹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만약 네가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궁극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를 분석하고 연구하게 두지 않는다. 네가 연구하고 분석할수록 하나님은 네게서 모습을 감출 것이다. 하나님이 모습을 감출 때 사람이 받는 느낌은 어떤 것이냐? 바로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진리에 대한 개념, 네가 가야 할 길 등, 이 모든 것이 모호해진다. 네 앞에 벽이 가로놓인 것처럼 너는 앞으로의 방향을 볼 수 없고 흐릿해진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지, 이런 문제들은 마치 시커먼 벽처럼 네 앞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네게서 모습을 감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상들이 너에게 모두 모호해지고 사라지면 네 마음은 흑암에 빠질 것이다. 마음이 흑암에 빠진다면 네 앞에 길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느냐? 모를 것이다. 원래의 네 방향과 목표가 아무리 뚜렷해도 네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순간 그것은 모호하고 어둡게 변한다. 사람이 이런 상황, 이런 내적 상태에 빠지는 순간 사람은 위험해진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은 모두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내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앞은 칠흑같이 어두워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히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에게 성육신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다. 그가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의 눈을 가린 것이다. 그가 비록 크고 빛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그래 봤자 소경은 여전히 소경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모습을 감추면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칠흑같이 어둡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뿐이고, 그 안에서 길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더욱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대할 때 분석하고 연구에 기대려 한다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분석하고 연구하는 내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소극적인 길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길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역임을 인정하고, 평범한 이 사람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육신에게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사람의 상상 관념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의 관념,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여기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제대로 서야 한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놓고 여전히 그를 연구하려 하고 그의 행동과 말을 분석하고 탐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네 자리,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위치를 잘못 섰을 때, 네가 모든 일을 바라본 결과도 달라질 것이며, 이것은 네가 추구하는 길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말씀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말고는 단지 당장의 문제일 뿐,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이 인류에 대한 공헌과 가치, 인류의 생명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주장과 논조, 그 어떤 조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가치다. 아마 눈앞의 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씀과 일이 아직 네 호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없고, 너를 완전히 납득시키거나 진심으로 탄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오늘날 하는 이 모든 말씀,

그가 이 시대와 이 시기에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모든 인류, 전체 시대,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대해 기여한 바는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이는 사실이다. 따라서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20 년, 30 년 전에 나는 이 평범한 사람이 했던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잘못 이해하고, 반발하고, 심지어 판단하고 정죄했어. 20 년, 30 년 후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보니까 온통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뿐이구나." 패괴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요, 영원히 갓난 아기에 불과하고 입에 올릴 가치도 없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역하든, 하나님이 그 어떤 시기나 배경에서 했던 말씀 하나하나가 인류 전체에 공헌한 것과 비교하면 그건 천지 차이다! 따라서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의문을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은 시간을 때우려는 것도, 시간을 소모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가 구원하려는 것은 한 시대의 인류이자 모든 인류이며, 그가 이루려는 이 사역의 성과는 영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로써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는 천고의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다.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네가 만약 인성을 갖추고 진리를 깨달은, 진리 실제가 있는 한 사람을 연구한다면 그것도 아주 역겨운 일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연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적의를 품고 비방하며, 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호기심만 채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이런 말을 한다. "진리를 더 교제해 주세요. 삼층천의 언어를 좀 더 교제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걸 좀 더 교제해 주세요." 너는 이 사람을 뭐라고 여긴 것이냐? 네 궁금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쯤으로 여긴 것이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규정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사람에 초점을 두면 이런 게 바로 야유요 희롱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이런 게 바로 모독이다.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는 내용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악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싫어함이다. 그는 그 어떤 긍정적인 사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며, 멸시하고, 경멸의 태도로 대한다. 성육신 하나님도 그냥 놔두지 않고 무슨 일에서든 호기심을 채우려 한다. 무슨 일이든 연구해 보려 하고, 결론을 얻고자 하고, 결과를 알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내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가 좋은지 보여 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괴 성품이다. 무엇을 연구하든 연구가 습관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행동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다. 그가 맞이하는 것은 침륜이고 멸망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에 대한 규정이다. 적그리스도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을 대할 때 한 번도 따르는 자,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받아들이고 대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학자,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한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아주 분명하다.

2020 년 6 월 6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3)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해당 항목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멸시한다', 두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로,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제 10 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해부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교제를 마쳤다. 두 번째,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네 가지로 나누어 교제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한다. 둘째, 연구하고 분석하며 호기심을 갖는다. 셋째,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 넷째,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입니다.) 지난번에는 처음 두 가지를 교제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을 교제할 차례다.

3)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

세 번째는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이다. 이 간단한 말로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너희의 기억, 혹은 너희가 보고 체험한 일 중에 이 방면에 관한 실제 사례가 있지 않으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보지는 못하고 설교만 들었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실제로 체험한 것도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 행동을 보인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와 관련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항목에 맞춰 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항목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의 여러 태도와 모습에 관계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 모습과 태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 모습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와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 본질이 있는 하나님 자신을 대할 때, 그 태도는 과연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순종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다양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여러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네가 이 평범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할 때 관념이 있는지,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는 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대할 때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말해 준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의 태도와 관점, 사람이 가진 생각은 막연한 것이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태도는 볼 수 없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질 수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성육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진짜 태도가 모조리 드러난다. 사람이 하는 말,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 속으로 규정하고 간직한 관점,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 등은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지, 어떻게 규정할지, 순종할지 말지 등과 관련하여 사람에게는 사실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옳은지,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가 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든 모습과 태도에 판단 기준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특히 믿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은 위대하고 지극히 높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의 진실된 분량이냐, 아니면 단지 일종의 기분이냐? 그건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든 그 안에는 늘 막연하고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섞여 있고, 사람의 공허한 상상이 담겨 있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접할 때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 특히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더는 평범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 육신, 이 평범한 사람은 각자에게 시련이 되었고, 각자의 믿음, 각자의 참된 분량을 드러냈다.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육신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을 보았을 때 너는 속으로 관념을 가득 품게 될 것이다. 이때 네가 믿는 그리스도, 이 평범한 사람은 너의 믿음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사람, 성육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여러 가지 진실한 태도와 관점을 드러내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 교제해 보기로 하자.

세 번째 항목의 주된 내용은 사람이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것이다. 이 기분이 과연 무엇인지가 오늘 교제의 핵심이자 요점이다. 물론, 여기서의 '기분'은 하나의 대명사, 하나의 개괄에 불과할 뿐, 어떤 한 가지 기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도사린 것은 사람의 각종 관념과 상상, 그리고 사람의 각종 패괴 성품, 심지어 사탄의 본성 본질이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데 자신을 가로막거나 자기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아주 순조로울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생활도 무척 규칙적이고, 아주 즐겁고 평안하다. 주변 상황도 무척 순조롭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낼 때도 대부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하는 일에서나 업무를 배울 때도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고,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고, 실행의 원칙도 비교적 밝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척 정상적이고 순조롭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속으로 하나님과 무척 가깝게 느껴진다. 자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무척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아주 기분이 좋고 늘 평안과 즐거움 속에 살면서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매일 제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배운다. 모든 것이 다 특히 좋고 순조로울 때 사람은 계속해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몰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겠다고 다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무척이나 위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이런 광경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으냐? 여기에 사람의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의 대가가 보이는 듯하고, 모든 게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온화하고, 그토록 순조로워 보인다. 이 모든 모습으로 볼 때 사람은 오로지 일방적으로 적극 노력하며 하나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협력하는 것이라 별로 나쁜 게 없다. 따라서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무한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하다. 매번 찬양에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노래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내게 기회를 주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집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말한다. "실제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따르려는 그분이십니다. 당신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그토록 온화하고 아름답고 또한 조화로워서 마치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무척이나 쉽고 수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조화로움과 온화함이 정말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느냐? 정말 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1)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의 모습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패괴 성품을 표출하지 않기가 어렵고, 자신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원망을 터뜨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열정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 상상과 관념이 충만한 사람이 참된 분량으로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순조롭게 이런 환경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 점은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진실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고 드러나게 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곤혹스럽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간적으로 흑암에 빠져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눈앞에 맞닥뜨린 환경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은 예전의 그런 느낌을 찾고 싶어 하지만, 예전의 기분, 예전의 사상 관점과 태도로 기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사람은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하나님이 날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설마 내게 패괴 성품이 있다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게 된 건가? 하나님이 날 도태시키시려는 건가? 그러면 난 끝난 게 아닌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믿는 것만 못하겠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 또 가정이 화목하고 괜찮은 앞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별로 얻은 것도 없어. 하지만 정말 믿지 않으면 그동안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른 게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은 문득 처량해지고 온몸이 편치 않다. '하늘의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신데, 땅의 이 하나님은 진리를 교제하고 공급하는 것 말고 내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뭘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그분은 너무 미미하고 정말 사람 마음에 맞지 않아.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좀 있는 게 어때서? 사람의 방식대로 처리한다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약간의 패괴 성품은 눈감아 주고 관대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이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 상대도 안 해 주시는 걸까?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이런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건 별일도 아닌데 이런 일로 혐오하시다니,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 사랑이 과연 어디서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속으로 순식간에 하늘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땅의 이 그리스도, 이 평범한 사람과는 더욱 멀어진다. 속으로 이렇게 처량함을 느낄 때 사람은 몇 번이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겁낼 것 없어. 하늘의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 돼. 하나님은 내 든든한 방패이고 내 힘이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순간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위에 있고, 만물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이 앙망하고 우러러 받드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고, 사람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사람의 정신과 마음, 육을 기댈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땅의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 사람의 마음에 더 이상 의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느냐? 책망과 훈계를 받고 드러날 때, 좌절을 만날 때 사람의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사람의 소위 참된 믿음을 곧바로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에게 의탁한다. 반면 땅의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냐? 맨 처음 반응은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는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회피하고, 숨고, 멀리하려 한다. 사람은 이런 기분이 든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사람이 깨달은 진리와 소위 참된 믿음, 충성심, 사랑과 순종은 금세 변해서 쉽게 무너진다. 이 모든 환경이 바뀌는 순간, 성육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도 그에 따라 바뀐다. 사람이 과거에 바쳤던 충성심, 헌신, 대가, 그리고 소위 순종은 그 순간 충성심도, 참된 순종도 아닌 일종의 열정으로 드러난다. 이 열정 안에는 무엇이 뒤섞여 있느냐? 사람의 감정, 인위적인 좋은 것, 그리고 인류의 의기가 뒤섞여 있다. 이 의기는 혈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나는 누군가를 따른다면 반드시 의리를 지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힘을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걸 바쳐야죠." 이것은 인류의 혈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인류의 이런 모습은 이 순간에 드러난다. 무엇 때문에 드러나느냐? 그건 바로 사람의 사상 관점 안에서는 이미 이 평범한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하지만, 사람의 실제 분량, 사람이 깨달은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볼 때,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평범한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여겨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빛 비춤,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느낄 때,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할 때 사람은 주관적인 바람에서 하나님이 증거한 이 평범한 사람을 사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앗아 갔을 때, 사람이 참된 인식도 없고 참된 분량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전부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이 표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실제 태도이다. 이 실제 태도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그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담긴 사람의 패괴 성품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탄에게 패괴된 이후, 내면에 하나님에 대해 일종의 방어하는 태도가 생기고,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고 하시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지 장벽만 존재하느냐?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 단지 장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다른 본질의 문제다. 사람은 패괴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패괴 성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 보자. 둘은 설령 말을 해도 겉으로만 몇 마디만 나눌 뿐 속으로 장벽이 생겼다. 이 장벽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서로 맞지 않은 데다 누구도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아서 관점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이렇게 생겨난다.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정도가 약하고 부적절하지 않으냐? 장벽이 생긴 것은 맞지만, 장벽이라는 단어로 사람 내면의 패괴 성품 문제를 설명한다면 정도가 너무 가볍다.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된 뒤로 사탄의 패괴 성품과 패괴된 본질을 지니게 되었고,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사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참된 믿음도 없고, 참된 순종도 없다. 이것이 사탄이다. 사람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패괴 성품, 패괴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도, 참된 순종도 없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것이 모두 사람의 입맛과 기분에 맞고, 사람의 필요에 맞고,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켜서 모든 게 순조롭고 뜻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덕을 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좋은 말을 몇 마디 한 것이다. 이런 걸 두고 덕을 보고 아양을 떤다고 한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내뱉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참된 것이겠느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겠느냐?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 본질에 맞지 않는 이런 인식은 참된 인식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혈기에서 비롯된 일종의 상상이자 관념이다. 이 관념이 무너지고 폭로되고 드러날 때 사람은 좌절한다. 이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람이 전에

하나님은 사랑스럽다느니,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좋다느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람에게서 비판받고 정죄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반대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말과 행동, 본분 이행,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들과 지내는 일 등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고심을 느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그럴 때 네 내면의 불순물은 줄어들 것이다. 그때 네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한 것이다.

사람은 징계를 받고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원망, 오해를 품는다. 이런 게 생겨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만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껴진다. '다들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난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마땅히 나를 축복하고 위로해 주셔야 해. 내가 실수했을 때는 망신당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나한테 귀띔해 주셨어야지! 이런 일들을 모두 나보다 먼저 행하셔서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길을 돌아서 가지 않게 하셨어야 해!' 이와 같은 관념이나 생각은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일제히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다. 이때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고 역경을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그다지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총애를 받는 건 아니라고 느낀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런데 내가 뭣 하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전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하면서 무척이나 적극적이고, 언제나 몇 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 늘 못다 한 말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얘기하고 표현하는 등 하나님의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어 했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도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묻는 말에도 간단하게 한 마디로 얼버무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하나님이 묻는다. "요즘 본분 이행은 어떠냐?" "괜찮습니다." "뭐 어려운 점은 없느냐?" "가끔 있죠." "형제자매들과는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느냐?"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흥, 내 일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데 남들하고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겠어?' "연약함은 없느냐?" "괜찮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귀찮고, 완전히 소극적이고 불평하는 태도다. 사람이 완전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서 원망과 억울함으로 꽉 찬 상태라 한마디도 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이냐? 지금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내적 상태도 착 가라앉아서 누구와 얘기를 나눌 기분이 아닌 것이다. "요즘 기도는 하느냐?"라는 질문에 "기도해도 늘 그 말이 그 말이죠."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요즘 내적 상태가 안 좋은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리를 구했느냐?" "저는 다 알아요. 다만 적극적인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해가 생겼구나.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인식하였느냐? 어떤 패괴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너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하게 됐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태도냐? (소극적이고 대항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 일말의 순종도 없고, 원망과 억울함만 가득하다. 그의 정신세계, 사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이 말하는 불상, 보살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 그 불상이나 보살은 그저 사람에게 지배받을 뿐 영원히 아무 말이 없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훈계하면 안 되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위로만 해 줘야지 책망하거나 폭로해서는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되고, 징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려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기뻐하고 열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사람 생각과 다르게 해도 하나님인가? 그래도 내가 그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진심을 바치는 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따라서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사람의 첫 반응은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문제, 내적 상태,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와 방식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기분, 체면,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은 관념을 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려 하지 않으며 피조물이 되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순탄한 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사람은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역경을 마련하여 사람을 징계하고 드러내서 사람이 그 가운데서 공과를 배우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면 사람은 즉시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런 관점과 위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의 기분이 좋고, 내적 상태가 괜찮고, 열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책망과 훈계가 닥치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이 닥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얼마나 큰 변화이냐!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냐?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피조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갖춰야 하는 태도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준행해야 할 원칙은 대체 무엇이냐? 한 사람으로서, 패괴된 인간으로서 도대체 어떤 관점과 위치에서 하나님이 준 모든 것과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대해야 하는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대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대해야 하느냐? 사람은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때이든, 네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 사실상 사람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영원히 피조물이다. 만약 네가 피조물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네가 매우 패역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는 성품 변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에서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네가 기꺼이 피조물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겠느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 한 가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잘못이 없고, 단지 잘못은 사람에게만 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특히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할

때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언행과 패괴 성품을 성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의 옳고 그름을 검사하거나 연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자신의 본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면 네가 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패괴 성품이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면 문제는 커진다. 패괴 성품이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너는 제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분과 취향, 그리고 감정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류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진리를 구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심지어 속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네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아주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다.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지금 네 감정, 의지, 소망, 이상이 얼마나 크든, 지금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마치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 두 사람에게 묻는 것과 같다. "당신은 신부(신랑)의 남편(아내)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플 때나, 재난이 닥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두 아내(남편)와 함께 이겨나가겠습니까?" 두 사람 다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하고 가슴이 벅차서 상대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상대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서로 맹세한다. 그 순간의 굳은 맹세는 무엇이냐? 사람의 순간적인 기분과 바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둘에게 그런 인격이 있겠느냐? 모두 그런 인성을 갖추었겠느냐? 그건 미지수다. 앞으로 10 년, 20 년, 30 년이면 진심을 보게 될 것이다. 3~5 년이 지나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10 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30 년 후 갑자기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처음 바람은 어디로 갔느냐? 굳은 맹세는 어디로 갔느냐? 일찌감치 저 멀리 던져 버렸다. 굳은 맹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건 단지 바람이나 일시적인 기분일 뿐이다. 기분과 바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이번 삶을 함께하고, 함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준을 높게 잡자면, 최소한 두 사람이 모두 인격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인품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환난, 좌절, 곤란 등 수많은 일을 마주해야 하는데, 그중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십중팔구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포용과 인내, 사랑, 이해, 배려 등 인성 안에 담긴 비교적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부축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언약에만 의지하고, 당시의 이상과 바람, 그리고 그 환상적인 말에만 의지한다면 끝까지 갈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다. 만약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저 열정과 바람에만 의지한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길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기분대로 하지 않고, 환경과 기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최소한 무엇을 갖추어야 하겠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맹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는 단계가 있다. 사람이 믿은 지 1, 2 년 되었을 때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사람에게 열정이 없으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뜨뜻미지근해서 별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러나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런 사람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고, 명확한 태도가 없다. 따라서 갓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 이 열정은 사람에게 매우 긍정적인 것을 가져오고, 사람이 진리와 이상(異象), 하나님 사역의 취지를 빠르게 깨달아 얼른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진리 실제에도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갓 믿었을 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고, 의지와 이상(理想)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믿은 지 3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열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 위험할 것이다. 이런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늘 상상과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성품 변화의 일을 대하고, 상상과 관념대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러면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 평생을 온실에서만 살고, 은총과 축복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너는 언젠가는 현실 생활을 마주해야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각종 환경을 마주해야 한다. 네가 그런 다양한 환경을 마주할 때,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 네 열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단지 네가 자제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게 할 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네가 만약 진리를 구하고 깨닫는다면 얘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겠느냐? 네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열정과 관념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기도하며 진리 원칙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의식과 태도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무척 중요하고, 이런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아마 이번에 닥친 시련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진리에서도 별로 깊어지지 않고, 진리 실제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시련 속에서 이런 순종의 의식, 순종의 태도를 얻은 덕분에 너는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정당한지를 진실로 체험했다. 너는 비록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게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환경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마련한 이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는 네가 피조물의 본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않음을 느끼고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다. 너는 마음이 편안한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에게 막연하게 기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약간의 경외심을 갖는 동시에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보아라, 사람이 진리를 구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열정에 기대어 의지만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차이가 크지 않으냐? 무척 차이가 크다. 사람이 열정에 기대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일이 닥쳤을 때는 반항하고, 이치를 따지고, 원망하고, 억울해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난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날 달래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전에 공을 얼마나 세웠는지 헤아려 주지 않으시지? 어째서 상은 고사하고 벌을 주시지? 내 나이가 겨우 몇 살인데, 내가 뭘 알겠어? 집에서는 부모님도 날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어. 금이야

옥이야 하며 아기처럼 대해 주셨어. 하나님 집에 온 뒤로 내가 많이 자랐으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는 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이런 억지를 부린다. 이런 억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만약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이를 깨달았다면 이런 억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 사람이 평소에 본분을 이행할 때 이런 진리를 모두 깨닫고, 모두 인식했다면 일이 닥쳤을 때 여전히 이런 원망과 혈기가 생기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평범한 피조물로 생각할 것이고, 나이와 성별, 높고 낮음, 귀천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일 때 사람의 내면에는 순종이 자리한다. 의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때 사람은 기분이나 정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게 사랑과 순종,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훈계와 책망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들이다. 주된 반응은 무엇이냐?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고 좌절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와 따스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 하늘의 하나님도 멀리하고 싶어 하고 땅의 하나님도 멀리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두어 마디 책망하면, 다음번에 나를 만날 때는 숨어 버리고 나와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한다. 평소 책망과 훈계를 받지 않을 때는 늘 내 곁에 와서 차도 따라 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본다. 기분도 좋고, 바지런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사이도 가깝다. 그러다 책망을 받는 순간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차도 따르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몇 마디 물어보면 자리를 피하고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형제자매들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갓 믿은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관념이 무척 많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패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도 나는 책망할 수가 없었고, 말을 할 때도 부드럽게 해야 했다. 정말 책망하기라도 했다간 관념과 패역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살살 달래면서 상의하고, 진리를 많이 교제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했다. 상의도 교제도 없이 곧바로 요구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는 음식이 너무 짜군요. 다음엔 좀 싱겁게 하도록 해요. 너무 짜지 않게요. 너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식에도 신경 써야지 무식해선 안 돼요. 긍정적인 사물은 받아들여야죠. 만약 못 믿겠으면, 짠 음식이 신장을 상하게 하지 않는지 의사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상의하는 건 그나마 낫다. 만약 네가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면 먹고 죽으라는 겁니까? 뭣 하러 이렇게 짠 것만 먹나요? 너무 짜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식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짜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 식사 때는 아예 네 음식에 소금을 빼 버릴 것이다. "왜 이렇게 싱거워요?" "싱거우세요? 너무 짜다면서요? 너무 짜서 신장이 상한다면서요. 그럼 아예 소금을 안 넣으면 되잖아요. 신장도 상하지 않고 말이에요." 말을 심하게 해선 안 되고 역시 달래며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과 얘기할 때는 방식이나 시간에 신경을 써야 했고, 또 그들의 기분을 살피며 상의해야 했다. 가끔 어쩌다 조금이라도 엄하게 말해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간 속으로 반발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은 달랐다. 평소에 네가 뭘 시키면 재빨리 하다가도 한번 기분이 상하면 그는 뭘 하든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당신에게 잘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야 당신에게도 잘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대충 하면 되지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사람은 다루기 어렵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어처구니가 없고 이치고 뭐고 없다. 그는 반성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자백하고 통곡했지만,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책망하고 훈계했더니 역시 그대로였다. 이런 자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고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요컨대,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이 상하면 혈기로 하나님을 대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나와 만날 때 책망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인상을 찌푸리며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태도도 좋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고 돌려 말하고 완곡하게 표현해야 한다. 내가 사람처럼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나는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겉으로는 별 반응이 없지만 속으로는 토라진다. 그러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늘 실수를 저지르면 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그를 처리해야 한다.

(2) 그리스도가 쫓겨 다니며 머리 둘 곳 없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대하는 모습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하루하루가 위험의 연속이다. 상황이 무척 좋지 않고 언제든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 너희가 모두 쫓겨 다니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자주 숨어 다녔다. 하루에 두세 군데를 옮겨 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간 적도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갈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였다. 낮에 어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밤에는 어디가 안전할지 알 수가 없었다. 때로는 간신히 지낼 곳을 찾았는데, 큰 붉은 용이 하도 조사를 다녀서 다음 날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 중 하나야. 이게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건 진짜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소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사역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치르는 대가에 감사할 것이다. 인성이 아주 형편없고, 악독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 그리고 호기심에서, 혹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지낼 곳이 없다고요?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이고,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군요. 내일 어디서 지내야 할지 본인도 모르고, 지금 몸 둘 곳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상황이 위험할수록 그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나는 완전히 버리지 않고 마지막 한 수는 남겨 뒀지요. 어때요? 당신은 돌아갈 집이 없죠! 난 당신이 결국 이렇게 '머리 둘 곳 없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지낼 곳을 알아봐 드려야겠네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 부류의 사람이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들이 그래도 계속 따르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할 것이다. 줄행랑을 치고 저 살 길을 찾아 떠나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과거에 설교를 얼마나 들었든, 그런 설교들은 그의 마음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이 사람은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신분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피해 숨어 다니고, 사탄에게 쫓겨 머리 둘 곳도 없고, 몸 둘 곳도 없다고? 하나님이라면 쫓길 때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는 요술이라도 부려서 아무한테도 안 보이게 몸을 숨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중국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내가 온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써 가며 나를 응대하고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줄행랑을 치고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뒤에서 비웃으며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이 바로 불신파, 적그리스도이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기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리스도도 위험에 처하는구나. 만약 잡혀가기라도 하면 교회 사역은 끝장이고, 하나님 집 사역도 중단되겠지. 그건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 틀렸다는 의미야. 그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 내 삶을 살고 돈이나 벌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쫓겨 몸을 숨길 곳, 머리 둘 곳이 없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같이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교회 사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 우스갯거리로 삼고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더 심한 경우, 내가 숨을 데가 없고 머무를 데가 없는 것을 알고 그 틈에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 재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파와 적그리스도들이 적지 않았다. '교회는 끝났고, 하나님 사역도 끝장이야. 사탄에게 완전히 무너졌어. 우리도 얼른 도망치자. 얼른 흩어지자!' 이들 불신파,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그들의 흉악한 성품을 드러내고, 불신파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회에 약간이라도 변고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바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려 하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흩어지고 물러나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는 이 흐름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몰골이다. 이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이다.

(3)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생겼을 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겼을 때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성육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분위기가 강하고, 하나님의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반발심이 생기고, 관념과 정죄가 생긴다. '어쩌면 어디로 보나 하나님 같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 같을까?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일 수 있을까? 만약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따르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그는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일하는 것에 관념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생활, 차림새에도 관념이 생기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방식, 어투, 어휘 사용 등에도 모두 관념이 생긴다. 관념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대하느냐? 속으로 그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관념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관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건'은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온다. 이 관념이 생기면 약점이 생긴 것이고, 약점이 있으면 일이 손쉬워진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관념을 가진 것을 약점을 잡은 것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육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적그리스도는 왜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사탄 무리가 하나님의 대업이 성공하길 바라겠느냐, 바라지 않겠느냐?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바라지 않느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 무리는 천성적으로 진리를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이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무척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류를 폭로하고 심판하는 말씀은 모두 이런 적그리스도, 악인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 저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견디기 힘들고 불편해한다.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다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네. 즉, 도태되고 버려져야 할 것들이지.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치만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시고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떡한담?' 그는 이 일로 속을 끓이면서 자기가 얻지 못하면 남도 얻지 못하기를 바란다. 남들이 얻는데 자기는 얻지 못하면 그는 속으로 몹시 미워하고 기분이 언짢아한다. 그는 이 성육신이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이 사역이 가짜이기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평정을 찾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는 생각한다. '만약 이 사람이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다 속은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흩어져야 해. 이들이 흩어지면 아무도 얻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얻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그는 이런 마음이다. 자기가 못 얻으면 남들도 얻지 못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한 사역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한 모든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정죄받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못 얻어도 만족스럽고 편안하며,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없겠느냐? 관념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하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의 관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그에게 관념이 생기기는 매우 쉽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 말씀은 어디에서 온 건지를 봅니다. 당신이 어디서 들었거나 배운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얘기하라고 시킨 겁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보고하고 일러바친 건 아닙니까? 누구를 폭로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연구한다. 그렇다면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는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속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반발하고, 진리를 증오하며, 이러한 본성 본질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가 듣는 것은 이론과 도리를 제외하면 전부 관념이다. 어떤 관념이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 때로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건 경건하지 않아! 헐후어를 쓸 때도 있는데, 이것도 그다지 엄숙하지가 않고 말이야! 말씀하실 때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수준도 높지 않아! 어떤 때는 말씀에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던데 대학을 나온 거야 만 거야? 어떤 때는 어떤 대상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굴 두고 하는 말씀이지? 누가 고자질한 게 아닐까? 누가 얘기했을까?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때 왜 맨날 내 얘기만 하시지? 하루 종일 나만 응시하고 지켜보고 계신가? 하루 종일 사람 흠만 찾으시나? 그리스도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성육신이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우레가 치는 것 같은 무게감이 없어. 그가 나타내는 것들은 어쩜 그렇게 사람 같을까? 사람이 맞아. 암만 봐도 사람이야. 성육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을까, 없을까?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실까? 사람과 교류할 때 처세술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관념이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것은 하나같이 진리와 무관한 것들이고, 전부 사탄의 사상과 논리, 처세 철학이다. 그의 내면에는 사악함이 가득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내적 상태와 성품이 가득하다. 그는 하나님을 연구하러 온 것이지 진리를 구하고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의 관념은 언제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다. 그가 관찰할 때도 관념이 생기고, 연구할 때도 관념이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관념이 형성되는데, 그는 그것들을 한사코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가 성육신에게서 인성의 일면을 볼 때 관념이 생겨나고, 신성의 일면을 볼 때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또 관념이 생겨난다.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순종도 아니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아니다.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눈빛과 속마음, 행동거지를 관망하고 연구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의 어조와 말투, 어휘 사용,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바와 같은 모든 것에 귀를 바짝 세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관망하고 연구할 때,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뒤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이다. 그는 이 사람을 연구하려 한다. 이 사람을 낱낱이 연구해서 알아내려 한다. 연구해서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사람이 과연 어디가 하나님 같은지 연구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같지 않으면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심정으로 성육신에 대해 계속 관념을 품은 채 놓지 않고 혹은 복을 받을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얼른 기회를 찾아 떠난다.

적그리스도에게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의 적그리스도 본질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본질 때문에 그는 관념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 들고 보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다가도 성육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첫눈에 하나님 같지 않으면 즉시 관념이 생기고 태도가 달라진다. 성육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받쳐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또 막연한 환상과 복받으려는 속셈을 품고 억지로 하나님 집에서 힘이나 좀 들이고 본분이나 좀 이행하면서 하나의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관념으로 가득해서, 설령 책망을 받지 않더라도 본분을 이행하려는 열의가 아마 크게 꺾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성육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성육신 하나님을 따로 떼어 놓은 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성육신 하나님이 자기 관념에 맞지 않을 때, 자신의 관념에 어긋날 때는 서둘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제로 자신의 관념을 억누르고, 자신의 관념을 봉쇄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 받든다. 마치 관념이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 도사린 그리스도에 대한 불복과 불평, 경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일에서 계속해서 관념이 생기고, 더 나아가 관념을 한사코 붙잡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관념이 없을 때는 연구하고 분석하지만, 관념이 있을 때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모자라 관념을 한사코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는 관념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긴다. 이런 자는 사탄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관념이 있을 때 드러내는 모습이다.

(4) 발탁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의 모습

교회에서 자질도 좀 있고, 사역 능력도 좀 갖춘 어떤 사람들은 발탁되었을 때, 매우 열정적이고 본분 이행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책임감을 갖고, 흔쾌히 대가를 치르려 하며, 충성심도 있다.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해임되고 지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지위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형제자매는 어떻습니다. 우리 그 집은 인테리어를 할 때가 됐고요. 우리 마당도 정리해야 하고요...." 뭐든 '우리'라고 한다. 발탁될 때, 그는 하나님 집 사람이다. 그럴 때 그는 마치 하나님과 한마음, 한집안 식구인 것처럼 호흡을 맞추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 집 사역을 처리하며, 하나님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 발탁되고 중용될 때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또 나에게 말하든 아니면 형제자매에게 말하든 말끝마다 '우리'라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그 사람이 퍽이나 괜찮고, 마음씨도 좋으며, 따뜻한 것 같다. 하나님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그렇게 마음을 쓰며 책임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려 하는 등 진리를 추구하며 열정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체될 때도 그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교체되자마자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런 태도도 자취를 감추며, 더는 '우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또 무슨 일을 맡겨도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 그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전에는 당신이 저를 발탁해서

지위도 있었고, 당신과 한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지위가 없어져서 한집안 식구가 아니니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든 저한테 상의하지 말고, 제가 알게 하지도 마세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저야 당신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나 전해 주면 그만이죠. 시키는 일은 하겠지만 당신과는 이제 한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너를 외부인 취급한다. 일을 시키면 마치 삯일을 해 주는 것처럼 겉으로만 건성으로 할 뿐이다. 전에는 다섯 가지를 처리했다면 지금은 한두 가지만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표면적인 일만 좀 하고 끝이다. 왜 그렇겠느냐? 그는 말한다. "전에는 당신과 한마음이어서 이것저것 도와드렸습니다. 당신 일을 제 일이라고, 우리 공동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대신해서 처리했죠. 그런데 결국 당신은 말 한마디로 저를 교체시켰습니다. 제 체면도 생각 안 해 주고요! 그랬으면서 어떻게 저더러 당신 대신 일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다시 저를 발탁해서 지위를 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관두세요. 저한테 다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쓰려면 명예와 지위를 줘야 합니다. 지위도 안 주면서 말로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면 그건 무슨 명분입니까?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 줘야죠!" 이제 그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일을 시켜도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는다. 태도가 변한 것이다. 내가, 혹은 하나님 집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그는 그것을 별도의 일, 외부인의 일로 치부한다. 만약 가서 한다면 그건 너의 체면을 크게 세워 준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일을 안 하자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말이다. 하지만 가서 하자니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이다. 그는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의 생각은 이렇다. '전에는 당신을 100 퍼센트 신뢰했습니다. 당신의 일을 제 일로 생각하며 처리했죠. 그런데 당신은 안 쓰겠다고 하고는 바로 저를 교체시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당신은 저를 푸대접한 겁니다. 좋아요. 당신이 저에게 인을 베풀지 않았으니 저더러 의가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시 저를 쓴다고 해도 저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끊어졌으니까요.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렇게 부려 먹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굽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남들에게 휘둘리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교체되어 지위를 잃을 때,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진다. 지위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 집 일을 자기 집 일로 생각하며 처리하지 않았다. 교체되어 지위를 잃고 난 뒤에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라고 시켜도 원하지 않으며, 그와 상의해야 하고, 심지어는 설명하고 명분을 줘야 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에 당신은 저를 교체했죠. 쓰지 않겠다고 하고는 바로 교체하더군요. 이번에 저한테 뭘 시키려면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하든가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그게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허세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 집에서 이런 사람을 쓰겠느냐?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게 아무리 뛰어난 재주, 대단한 수완이 있더라도, 아무리 리더십이 있더라도 하나님 집에서는 너를 쓰지 않을 것이다. "악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시는 겁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는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이자 사람을 쓰는 원칙이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손에 쥐게 한다면 형제자매와 교회에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이런 나쁜 일을 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가 적그리스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발탁해서 봉사하도록 쓸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로 드러난 뒤에도 하나님 집에서 그를 발탁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는 혼자 착각하고 김칫국부터 들이켠다. 일부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흥, 하나님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될걸. 내가 없으면 그 사역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지. 누가 날 대신할 수 있겠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도발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하나님 집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사역이 술술 풀리는지 아닌지, 완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지금 하나님 집의 각종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개되는 것은 온갖 적그리스도, 악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고 출교한 일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큰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는 그들을 제명하고 출교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잘난 체하고 원망하고 있다! 뭐가 그리 원망스럽단 말이냐? 너는 자신이 재주 있고, 머리 좋고, 자질 있고, 사역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나님 집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 선민들의 교회 생활, 본분 이행 생활, 일상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순조로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그들은 이걸 모른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 하나님 집에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집에 자기가 없으면 사역이 전개되지 못하고, 각종 업무 사역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은 공의와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 왜 모르겠느냐? 이런 간단한 일을 어째서 적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건 적그리스도에게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본질이 있어서 그렇다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긍정적인 사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악하고 악독한 모습이 좋고 옳은 것이라고,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다고, 자신만이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틀렸다!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이며, 모든 적그리스도는 정죄되고 버림받고 도태될 대상이다. 하나님 집에 그들의 자리는 없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은사와 자질, 수완이 좀 있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데 능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자신들이 당연히 발탁되고 중용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 이들은 정죄되고 제한되고 버려졌으며, 심지어 교회에서 이미 제명되고 출교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처럼 '고귀한' 인물, 이렇게 수완이 대단하고 재주도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곤두박질치고 하나님 집에서 버림받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도무지 납득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다시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사탄에게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탄에게 이치를 논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와 같다. 사탄을 형용하는 말은 오직 한마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거짓말 좀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뭐가 나쁘죠? 교활하고 간사한 게 뭐가 나쁩니까? 충성심이 없는 게 뭐가 나쁜가요? 얼렁뚱땅 넘기고 대충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있으면 어때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뭐가 나쁘죠? 무슨 큰 죄를 짓는 건가요? 이건 무슨 원칙 문제라고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수완 있는 사람이 독립 왕국을 세우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는 큰 물고기가 새우를 잡아먹고, 큰 새우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수완이 있으면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게 당연한데, 이게 뭐가 나쁜가요? 수완이 좋은 만큼 권력도 큰 거고, 권력이 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음란한 게 뭐가 나쁜가요? 음란한 게 어때서요? 사악한 흐름을 따르는 게 뭐가 나쁘죠?" 이런 말들을 들으니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역겹습니다.) 단지 역겹기만 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똑같이 인두겁을 쓰고 있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사물을 혐오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혐오하는 거지? 사람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진리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왜 부정적인 사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런 부정적인 사물의 사악함과 역겨움을 인식하지 못할까?' 사람은 속으로 개탄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은 한편으로는 역겨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할 말을 잃는다. 그들의 본성은 정말 고치기 어렵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인류이지 짐승이나 마귀 부류가 아니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마귀요 짐승으로, 그들은 인류로 분류되지 못한다. 이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이해가 되었느냐?

(5) 교회가 처한 각종 상황을 대하는 모습

적그리스도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항목에서 방금 모두 몇 가지를 교제했느냐? 그중 하나가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였다. 또 뭐가 있었느냐? (성육신 하나님께 관념이 생겼을 때, 발탁되거나 교체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쫓겨 다니는 것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모두 네 가지였다. 교제를 계속해 보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름의 계산과 의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세력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한다. 따라서 그들은 관망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관망하느냐?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인원이 늘고 있는지, 복음 사역의 확장 상황은 어떤지, 순탄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집의 위세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힘쓰는 사람,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다음으로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서의 신분과 지위는 어떤지 살펴본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집의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게다가 더 많은 사람이 가정과 직장,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은 나중에 복을 받을 때 자기도 몫을 챙기려면 더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집 사역에 몸을 던지고, 본분 이행의 대열에 뛰어들어서 그중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 집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운명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멈추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이런 야심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하나님 집의 지위와 명망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다하여 자기 미래와 운명을 위해 따져 보고, 저울질하고, 경영하는 한편, 하나님 집의 발전 상황이 어떤지, 국내외 위세가 어떤지, 인원은 점차 늘고 있는지, 교회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지, 사회 유명 인사들과 연락이 되는지, 서양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는지 등을 관망한다. 그들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망하며 알아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늘 자기 미래와 운명을 저울질하며 교회의 발전 상황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들을 찾는 한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해외 사역이 순조롭게 확장되어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서양에서의 사역이 점차 크게 확장되고 추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안심이 된다. 안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안심하면서 성육신인 그리스도를 약간 더 '존중'하고 우러러보게 되었을 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잡혀갈까? 집권당의 손아귀에 넘어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얼마간 멸시했다. 성육신 하나님이 머물 만한 곳이나 머리 둘 곳 없을 때도 많고, 쫓기느라 여기저기 숨어 지낼 때도 많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과 억지 '존중'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런데 성육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인류가 동경하는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을 내심 부러워했다. 여기서는 존중이 아닌 부러움이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서양에서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죄되고, 판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내면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하나님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당신은 하나님인데 어째서 교계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에 대한 그 많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건가요? 당신은 왜 나서서 해명하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이라도 꾸려야지요! 인터넷상의 당신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 교계에서 퍼트리는 당신에 대한 유언비어는 듣기 거북할 지경이라고요!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다 부끄럽고 그런 일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해요. 당신은 동양에서 정죄되고, 서양에서도 정죄되고, 교계와 인류,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다 창피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창피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눈에 보이는, 속으로 생각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멸시와 동정심도 생긴다. 이 동정심은 억지로 갖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동정심이 생겼겠느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큰 사역을 하면서 당신은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시니,

사심 없이 바치는 것이겠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과 굴욕을 당하시는 겁니까? 이치대로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큰 굴욕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딱하세요. 어려운 일이죠. 속으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는 그리스도에게 이 정도의 동정심을 갖는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저라면 그렇게 큰 고통은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변호해 줄 사람들을 찾아야죠. 변호인단을 꾸려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과 다른 소문은 없애고, 또 교계를 찾아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보여 줄 겁니다. 비방과 정죄를 일삼는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징벌받게 해서 본때를 보여 줘야죠. 그러면 그들도 감히 그런 짓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지금껏 자신을 위해 해명 한마디 없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배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설마 겁쟁이인가요? 아,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가슴에 묻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큰 억울함을 당해도 꾹 참으면서 사역을 확장하고, 또 노파심에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공급하시지만 그들은 관념이나 품고 거역하기만 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 모든 걸 견디다니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동정할 만한 사람이군요.' 그의 동정심은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동정심이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면서 그가 한 '좋은 일'이란 이게 전부다. 고작 이 정도의 '좋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제대로 하긴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현생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와 이런 고통을 함께 겪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정죄받고 버림받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가 받는 이 모든 고통을 그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부정하기 위한 빌미와 증거로 삼았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을 겪고자 하는 염원과 태도가 없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받는 이 모든 고통을 관찰하고 이 인류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하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복음 사역이 차츰 온 인류에게 확장되어 전망이 밝을 땐, 조금씩 성육신 하나님에게 다가가며,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일말의 존경과 부러움을 갖는다. 동시에 그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 집에 접근하고자 하며, 하나님 집의 일원, 하나님 사역을 확장하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 그뿐이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겠느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의 각종 사역이 확장되는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집과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이다. 만약 인류 사이에서, 특히 서양의 민족 중에서 "이 말씀들은 정말 권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니 이 평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도(道)가 바로 참도인 게 틀림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은근히 기뻐한다. '다행히 난 떠나지 않았는데, 정말 참도가 맞구나! 봐, 서양인들도 성육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잖아. 그분 말씀을 많이 듣고, 당장 가서 설교를 들어야겠어!' 그 순간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고,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것만 같아서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그리고 인류 사이에서 하나님 집의 확장 사역이 이따금 좌초될 때, 혹은 하나님 집의

사역이 교란이나 지장을 받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을 때, 나아가 하나님 집이 곤경에 부딪힐 때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또다시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말씀하셨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선민들 중 겁먹은 사람은 없나? 하나님 집을 떠난 사람은 없나? 바깥세상의 유명 인사, 원로 인사 중에 하나님 집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팔 걷고 나서 주는 사람은 없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곧 끝나는 건 아닐까? 나도 얼른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 크게 파문이 일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그가 하나님 설교를 다시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공허한 말이나 고상한 말은 이제 그만 하세요. 당신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집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점령당하는 마당에 당신이 하는 그 말씀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집의 위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으니 하나님 집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겠죠.' 내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나를 존경할 리가 있겠느냐? 동정할 리가 있겠느냐? (그럴 리 없습니다.) 남은 게 무엇이냐? 조롱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험담하고 헐뜯으며, 하나님 집을 조롱한다. "보니까 곧 큰일 나겠네. 당신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그 진리들이 소용이 있나요? 당신의 말이 무슨 소용이죠? 어떤가요? 일이 닥치지 않았나요?" 마귀의 모습이 튀어나온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하나같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냐? 인성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도 없이 사악하기 짝이 없다. 뒤통수를 친다! 하나님 집의 밥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면서 일만 생기면 팔이 밖으로 굽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고 하나님 집을 조롱한다. 이런 게 마귀가 아니면 무엇이냐? 영락없는 마귀다! 그는 하나님 집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성육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군다. 하나님 집이 사탄에게 둘러싸여 정죄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하늘을 받치고 우뚝 선 사나이가 발아래 황금이 있다고 어찌 남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그는 조롱하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목청과 어조를 높여 얘기하며 관리처럼 굴기 시작한다. 정상이 아니다. 마귀 모습이 튀어나오면서 순식간에 변한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언제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너무나 진실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족속이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 본질이고, 사탄에 속하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추악한 민낯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을 비웃고 성육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할 거리를 준비하고 수집하며, 언제 어디서나 팔을 밖으로 굽혀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으려 한다. 하나님 집에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그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다. 반면 형제자매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집 사역의 모든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 그는 괴롭고 속이 쓰리다. 하나님 집에 어서 일이 터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암초를 만나 좌초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 집에서 형제자매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모두가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등, 모든 게 순조로울 때 적그리스도는 심기가 불편해진다. 형제자매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그리스도를 크게

높일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이고, 그가 가장 크게 심판받고 고통받는 때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서 온갖 소식을 알아보고 다닌다. 그런데 만약 오랫동안 하나님 집의 복음 사역 확장이 어떤지, 하나님 집의 각종 업무 사역이 어떻게 진전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해외 인원이 늘고 있는지, 교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지, 각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등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한 뜻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더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속으로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의미하고 흥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성육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하고, 심지어 시끌벅적하고 세력이 큰 종파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따금 하나님 집에 관한 좋은 소식, 이를테면 형제자매들의 간증 영상이 어떤 인권단체의 눈에 띄어 크게 주목받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속으로 좋아하고, 희망과 기쁨에 휩싸인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이 어느 유명 단체에 주목을 받아 보도가 되면 그는 더욱 좋아하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가 봐. 일이 이루어지려나 보군!" 만약 운 좋게 교회 이름이 어느 큰 인물, 심지어 지도자에 의해 거론되기라도 하면 적그리스도는 더욱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번 생에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선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일이야.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속으로 그분을 받들어 모실 거야. 모 지도자가 이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존경하는데 나도 존경해야지. 이 하나님은 지도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인정받았어. 그럼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무슨 유감이 있을까? 더더욱 그분을 끝까지 따라야 하지 않겠어?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떠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고생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르고, 무슨 일이든 형제자매들과 많이 의논하고,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지. 나중에 교회가 확대되고 명성이 높아지면 높은 직함을 얻고 출세할 수 있을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흐뭇하기만 하다. '너무나 탁월하고 확실한 선택이야! 난 어쩜 이리 똑똑할까? 전에는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바보 같았는지! 젊어서 충동적이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내리기가 쉬웠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온건해지고 숨길 줄도 알다 보니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떠나지 않기를 잘했고, 그 소문들을 믿지 않기를 잘했어. 소문에 미혹되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위험했어! 이제는 좀 조심해야지. 이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 잘해 드리자!' 그는 순간적인 흥분과 충동으로 건강식품이나 좋은 물건들을 사서 바쳤다. 윗면에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건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밑면에는 "이에 삼가 바칩니다. OOO 올림, OOOO년 OO월 OO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특별한 선물로 무척 귀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은 뜻이 있고, 사연이 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바친 제물을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물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일부 사람들이 물건을 바치는 데는 이면에 바로 이런 속셈, 이런 배경의 영향과 부추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모든 일을 저울질할 때 '이익'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선시한다.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무슨 일이든 나름대로 저울질을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각각의 일반 신도들은 대부분 하나님 집 각종 사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사무적인 일들을 알아보는 것은 진리 추구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네가 알아도 소용이 없다. 알았다고 해서 네가 생명과 진리를 갖추었다는 의미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네가 분량이 작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런 일들은 진리와 무관하고, 네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물고 늘어진다. 그들은 이런 일을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며 알아보고 수집하는데, 수집한 다음에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퍼트린다. 그는 형제자매라면 누구나 그런 일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나는 여간해서 그런 일을 알아보지 않는다. 관계자를 만날 경우 얘기는 좀 나누겠지만, 일부러 그런 일을 알아보러 다니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사역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사역의 진전 상황은 어떤지, 무슨 문제나 허점은 없는지 알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가서 알아본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궁금하거나 관심이 간다고 해서 그런 일을 알아보지 않는다.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단지 사역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소식의 출처, 호기심과는 관계가 없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에 그런 일을 파고들기를 좋아하며, 그가 이런 일을 파고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들은 겉면의 이런 형편, 환경을 이용해, 그리고 교회가 각각의 시기에, 또 각 종파에서, 각 종족 집단에서 처한 상황을 이용해 하나님이 한 사역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는 어떤 작자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분명히 이런 자는 불신파이다.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도 그는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회가 각국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 이런 자는 엄연히 불신파이다. 딴생각을 품고 있는 불신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아마 다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예배에서 적그리스도의 각종 본질을 폭로할 때마다 일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들은 폭로당하면 꼬리를 감추고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교제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알아보러 다닐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떠도는 소문을 알아볼 것이다.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묻고 다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몰래 알아볼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방인이나 종파,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평가나 의견을 알아보려고 머리를 짜낼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말이다.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눈이 뒤집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다.

방금 우리가 폭로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 사역의 확장 상황을 통해 교회와 성육신 하나님을 대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의 한 측면이다. 내가 말한 이런 일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언급할 만한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교제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교제를 듣고 다시는 감히 이런 상황을 묻고 다니지 않고,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냐? 겨우 이만한 가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폭로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에 다시 교제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은 너희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장은 너희가 제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수집하고 말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깨달은 것들은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다. 어떤 일의 본질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교회, 하나님 집,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똑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하나의 개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성육신했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교회, 하나님 집, 하나님(즉 그리스도), 이 셋이 쉽게 분리된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야.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분을 이행하는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이건 어찌 보면 사람의 시중을 든다는 뜻도 되지 않나? 사람에게 일을 해 준다는 뜻도 되지 않나?' 많은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세 가지는 확실히 나누기도 어렵고, 또한 같이 연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목표로 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이다. 즉,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 칭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교회의 상사는 누구냐?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형제자매라는 이 칭호, 이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물론 본분 이행이라는 범주로 귀결되어 역시 본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형제자매, 하나님 집 사이에는 등호가 성립되며, 모두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일을 처리하든,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교회라는 무형의 기구이기도 하고, 형제자매라는 유형의 집단이기도 하고, 나아가 하늘의 그 막연하고도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다. 성육신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의 최고 지도자라는 역할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집의 대변인, 대리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목표로 하는 대상에 대해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예를 들어, 그에게 형제자매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면 그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혹은 그에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 집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는 좋아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그에게 같은 일을 하라고 분부하거나 맡기면 그는 속으로 실망한다.

'사람을 위해 일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을 위해 일하러 온 게 아니야. 본분을 이행하러 온 거지. 난 아무개의 시중을 드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개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는 사람도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교회를 위해 일을 좀 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집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일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며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해. 이건 내 본분이고 내 책임이야.'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이론적 근거는 온데간데없다. 그는 속으로 내키지 않아 하고 언짢아하며 하기 싫어한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거라면 괜찮지.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형제자매를 위해 일하는 거라면, 형제자매는 모두 하나님 집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사람들이니 그것도 괜찮아.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집이라는 칭호는 신성하고, 위대하고, 고상하니까 내가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당하고, 체면도 서고, 명분도 있어. 하지만 당신처럼 하찮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건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이것이 본분을 이행하는 건가?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이건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해야 하지?' 그는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해한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건 사역도 아니고, 본분 이행도 아니고, 형제자매를 위해 혜택을 도모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나보고 당신을 위해 해 달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드리지요. 하지만 떨떠름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걸 누가 기억하고 알겠습니까? 누가 좋게 봐 줍니까? 상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본분 이행에 해당합니까? 진리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속으로 내키지가 않고, 그 일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받아들이면 안 되는 임무를 받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난처해하며 마지못해 그 일을 한다. 동시에 속으로는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무척 하기 싫은 티를 낸다.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내 개인적인 일은 억지로 시키지 않을 테니 내키면 하고, 안 그럼 다른 사람을 알아봐서 하겠다는 사람에게 시키겠다고 했다. 간단하지 않으냐? 하나님 집에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마음에 드는,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꼭 네가 아니어도 된다.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나님 집에서 믿을 만하고 착실한 인성에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찾기 쉽습니다.) 내가 비록 뒤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거나 사이 좋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사적으로 교류하며 정이 특히 깊은 사람도 없지만, 30 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들은 것은 전부 내가 한 말이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든 내면 깊은 곳으로든, 아니면 표면적으로든 입으로든, 모두 이 사람을 믿고 따른다.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특별한 이로운 점이나 약속을 준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누구를 칭찬하거나 발탁한 적도 없지만,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따를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잖이 먹고 마셨다. 내가 얘기한 그 말에서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든, 처신의 도리를 깨달았든 많이 얻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볼 때 나는 너희에게 신세 진 게 없지 않으냐? 이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해야겠다. 너희는 나에게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 중 누군가에게 일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싫어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 내가 너희에게 일을 맡길 때 너희를 달래고, 너희 비위를 맞추고, 또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 주고 약속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을 위해 일하려니 왜 이리 김이 샐까요? 콩고물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이 말을 들으니 너희는 어떤 기분이냐? (화가 납니다.) 만약 한 평범한 서민이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한 고위 관리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일을 맡긴다면 그는 어떻게든 빌붙으려 할 것이다. 어찌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가 지위가 있는 사탄과는 서로 합할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속으로 멸시하고,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저버린다.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하면 그는 기꺼이 무릎이라도 꿇고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많이 얻었으면서도, 그에게 일어서서 그리스도와 평등하게 대화하며 어울리라고 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그는 마귀에 속하는 자이지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또 사람을 시켜 일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았다. 말을 전한 사람이 얘기했다. "이번 사람은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지, 이깟 일이 뭐라고. 그건 당연한 거니 말을 전해서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이런 말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으니 어떤 느낌이냐? 마음이 차갑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이냐? (그건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려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일을 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은 어떠냐? (인격이 저열하고 양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얘기만 하면 감동받은 나머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건 무한한 감격이다! 이런 주제를 꺼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요동을 친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성육신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하라고 하면 그는 큰 치욕을 느끼며 속으로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건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믿는 대상은 막연한 하나님이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성육신 하나님은 하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에게는 구두도 닦아 주고, 양말도 빨아 주고, 심지어 빨래도 기꺼이 해 주면서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싫어했다고 한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죠? 형제자매 일은 해 주면서 그리스도 일은 하기 싫어하다니,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나 맡기면서 하나님 집 원칙에 따라, 교회 규정에 따라 하라고 하면 그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익을

얻게 형제자매들을 고려해야죠." 예를 들어,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과일나무 심는 일을 맡기고, 이 일대에 어떤 과일을 심는 게 적합한지 시장에 가서 좀 알아보라고 했다. 현지 기후와 토양에도 맞아야 하고, 현지 사람들은 어떤 과일을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다음, 그런 과일을 선택해서 적당량을 심자고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얼른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행해야 하느냐?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세부 내용을 이해한 다음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말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현지 기후에 맞춰야 하고, 또 어떤 과일들이 영양가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 너희가 볼 때 내가 꼼꼼하고도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시행했겠느냐? 현지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의견을 발표하라고 했다. 다들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다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 통계를 내서 수량과 비율에 따라 과일나무를 심었다. 이런 식으로 시행했다. 그가 형제자매의 의견을 널리 구한 것은 이 형제자매라는 집단, 형제자매라는 칭호가 그의 마음속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취지이자 목표인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 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형제자매가 기뻐하고 만족하면 하나님 역시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한 대표이며, 진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 집의 대들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형제자매라는 이 칭호와 집단을 떠날 수 없고, 어느 누가 하나님 집에서 일하고 본분을 이행하든 유일한 봉사 대상은 곧 형제자매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시행했고 내게는 결정권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일러 줘도 그에게는 공허한 도리와 구호에 불과했다. 그는 형제자매가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도록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주어서 하나님 집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말하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그저 떠벌리기만 하고 형식만 갖추면 그만이죠. 나머지는 다 형제자매들 일이고 당신과 상관없으니 그냥 옆에 가만 계세요! 저희가 뭘 먹고 마시든 당신과 관계없으니 당신은 돈만 내면 됩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지극히 높은 진리죠. 하나님 집에 봉사하고, 형제자매에게 봉사해서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고 충분한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요.' 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건 적그리스도의 소행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싫어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진리를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과 구호를 따로 찾아내 시행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진리를 위배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버린다. 이런 사소한 일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아이고, 형제자매가 화난 것 좀 보세요." "아이고, 형제자매가 좋아하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형제자매들이 타격받은 것 좀 보세요. 형제자매가 정말 괴로워해요." 그의 마음에서 형제자매의 지위가 어쩜 그리 높으냐?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네 가슴은 얼마나 넓어야 하겠느냐? 그럼 좋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봐라. 네가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늘어나도 별거 아닐 테니 당연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모든 형제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 사람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만큼은 못 받아들인다. 이건 어떤 인간이냐? 이게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는 어떻게 성질을 정해야 하느냐? (마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일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형제자매가 참여하도록 하고, 형제자매가 의견을 발표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리더를 선출하고 교체하도록 하고, 형제자매가 결정하게 하니까, 그는 형제자매가 하나님 집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 집의 민주적 선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적 선거의 원칙은 무엇이냐? 형제자매가 민주적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냐? 사람의 패괴 성품에 내맡기는 것이냐? 마귀 사탄이 권력을 잡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형제자매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진리가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라는 이 천성적으로 패괴된 사람이 권력을 잡게 하는 것도, 혈기가 권력을 잡게 하는 것도, 사람의 관념이 권력을 잡게 하는 것도, 사람의 거역과 대적이 권력을 잡게 하는 것도, 사람의 사악한 성품이 권력을 잡게 하는 것도 아닌, 진리가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왜 어떤 교회는 선거에서 여전히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이 선출되거나 교회 리더 일꾼이 의사 결정한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선거의 원칙은 진리 원칙에 의해 규정한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적그리스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작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집에서는 형제자매들이 크게 높임을 받고, 높이 받들어지며, 형제자매라는 이 칭호, 이 집단은 하나님 눈에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형제자매가 존귀하겠느냐? 형제자매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진리 실제를 갖추지 않았고, 일 처리에도 아무런 원칙이 없다. 또한, 하나님 집의 각 사역을 엉망으로 하기도 한다. 만약 상부에서 관여해서 문제를 제때 바로잡아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 형제자매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을 숱하게 저지를 것이다. 이들에게 진리가 있느냐? 크게 높임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천성이다. 그가 진리를 부정할 구실을 찾고, 그리스도를 정죄할 구실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천성이 아니냐? 그가 사탄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주로 적그리스도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에 관해 교제하고 있다. 우리가 교제한 각각의 항목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기분과 관계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 기분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패괴 성품,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생기고, 다양한 사상의 지배 아래 다양한 관념, 관점, 각도, 입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양한 기분이 생겨난다. 다양한 기분이 생긴 뒤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하고 땅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대하는 다양한 방식과 방법, 태도가 형성된다. 이 방식과 방법, 태도를 보면,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정죄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매번 진리에 관계되고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에 관계될 때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역할을 맡는다. 일이 없을 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심지어 입버릇처럼 "하나님", "하나님" 하며 불러 댄다. 무슨 얘기를 하건 그 칭호부터 붙인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 들어 보세요." "하나님, 구하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등등을 외친다. "하나님" 하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가득하고, 적대감과 경멸이 가득하다. 교회와 하나님 집, 그리스도가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요구할 때나 웃는 낯으로 대할 때, 그들의 태도는 무척이나 상냥하고 온순한 듯하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엄하게 대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들은 반감과 혐오, 경멸의 태도로 그리스도를 대하며 심지어 멀리하고 저버리기까지 한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상과 복을 받게 하겠노라고 명확하게 약속할 때, 그들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고 심지어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 빌붙어서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등 자신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아낌없이 희생한다. 하지만 어떤 태도를 지니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수용과 믿음이 없고, 참된 순종은 더더욱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언제까지나 멀리하고 정죄하고, 관망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또 그들의 기분이 어떻든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비록 가끔 뜻하지 않게 바뀌거나 돌아서기도 할지라도 그건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그리스도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결코 진심으로 이 평범한 사람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적그리스도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제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바로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했던 질문인데, 이 일들을 폭로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이 일들을 폭로하는 가치를 간단하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 담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폭로함으로써 사람이 거기서 인류의 패괴된 면면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인식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너는 네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며, 많은 것이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불순물이기에 정결케 돼야 한다.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가 모두 존재하는데, 적어도 소극적인 면에서 보자면 네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모습임을 알게 해 준다. 긍정적인 면은 바로 네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대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는 점이다. 그 말은 곧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논리에 맞고 인정에 부합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으면 밀고

나가는 거고,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곧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일을 대하는 것이라면 이런 너의 태도를 두고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니,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사람이 유일하게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아니면 듣기에 거북하고 거슬리는 말이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그를 진리로 받아들여 자신을 바꾸고 정결케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폭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성육신으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나타나시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리이므로 저희는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들 이 말에 아멘이냐? (아멘.) 나도 아멘이다.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사람들과 생활하든,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는 사람이 가장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다. 다음으로, 하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할 때 지녀야 할 태도는 바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그 밖에 사람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냐? 머리를 꽉 채워서 정신적 공허함을 해결하려는 것이냐? 앞으로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정화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리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사람은 알아야 한다. (사람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패괴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패괴 성품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명망 있고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인류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째서 겉보기엔 똑같이 사람인데 성육신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은 언어와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시지만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육신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여야만 사람의 패괴 성품이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패괴 성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얻어야 사람의 패괴 성품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얻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도리가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느냐? 지식이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느냐? 관념과 상상이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성육신한 실제의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네가 어떤 명인이나 위인, 높은 사람을 숭배해도 소용이 없다. 어느 하나 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너를 구해 줄 수 없다. 또한, 무슨 공부를 하거나 업무, 지식을 배워도 네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너는 말한다. "나는 그 평범한 사람이 하찮게

보여." 그렇다면 너의 그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 사실이 그러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네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출현하든 하나님은 진리이며, 이건 영락없는 사실이고 절대적인 사실임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대하고 이 평범한 사람을 대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구할 만한 진리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들을 폭로하는 이면에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너희가 몇 가지를 정리하면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둘째,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갖춰야 할 태도는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고, 사람은 오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육신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여야만 패괴 성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출현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리이며, 이는 영락없는 사실임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하지 않으냐?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네 가지 모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진리 원칙에 관계되는지, 사람은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른다. 기존에 깨달은 진리는 도리로 변해서 적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이 도리를 아무리 많이 이해해도 소용없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2020 년 6 월 20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4)

2.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지난번 예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제 10 조의 두 번째 소제목인 '성육신 하나님을 멸시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우리가 해당 항목을 어디까지 교제했느냐?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입니다.) '기분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한다'까지 교제했다. 먼저 몇 가지를 교제했는지 되짚어 보자. '기분대로'라고 할 때 여기서 해부한 상황은 몇 가지였느냐? (다섯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쫓겨 다닐 때, 성육신에 대해 관념이 생겼을 때, 사람이 발탁되거나 교체되었을 때, 그리고 각종 상황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대충 그런 것이었다. 너희는 이 내용들을 들을 때 단순히 그 일들을 듣기만 했느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얻고 깨달았느냐? 너희는 어떤 관점으로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내적 상태와 모습을 폭로하고 해부하실 때 자신에게 대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표출하는 성품과 본성 본질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폭로된 내적 상태, 모습, 본질은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신에게 이런 패괴 성품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점차 깊어지면서 어떤 성품과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지금 너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네가 전에 이와 유사한 일을 한 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너와 무관하다거나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네게 이런 성품과 행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각종 모습을 교제하고 폭로한 지 이미 일 년이 넘었다. 일 년이 넘도록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교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말해 보아라, 교제하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철저하냐, 그렇지 않으냐? (철저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철저하다! 이 정도로 교제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보이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내적 상태와 성품, 본질을 폭로한 것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에도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된 짓과 독단을 일삼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원래의 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위가 생기면 그런 경향이 더 심해져서 더욱 철저하게 드러나며,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계속 교체되고 제명된다. 이건 어찌 된 일이냐?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담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들은 천성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본질과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교제하고 폭로해도 이들 적그리스도와 악인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이것은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본성을 고치기 힘들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와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와 방식을 보면 그들은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여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어느 정도 채찍질과 같은 작용을 하느냐? 행동을 억제하고 양심 도덕의 기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느냐? (조금은 작용합니다.) 만약 이런 작용마저 없다면 그래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의 각종 성품 본질에 대해 그나마 분별도 어느 정도 생기고, 마음속 깊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증오하게 된다. 아울러 자신의 패괴된 성품 본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고,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들을수록 소극적이 되는 사람은 없느냐? 이런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망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내적 상태, 성품을 폭로할 때마다 전부 나와 맞아떨어졌고, 한 번도 나랑 상관없었던 적이 없었어. 언제면 내가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언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수록 소극적이 되고 궁지에 빠진다. 이 모습이 정상이냐? (비정상입니다.) 너희는 소극적이 되느냐?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에 관한 일을 폭로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 괴로우냐?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든, 어쨌든 소극적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너희는 굳게 선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이 되지 않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 말씀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방면의 행동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품을 인식하고, 자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에서, 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표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이 방면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말씀들은 헛되이 들은 게 아니고 네게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항목 중 네 번째,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교제해 보자.

4)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듣는 것이냐?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의 듣는 태도를 개괄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즉, 복종하지 않고 참된 순종도 없으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이쪽 방면의 모습과 성품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로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과 사람이 좋다고 여기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물,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사물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불복하고, 불평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만의 견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다. 그의 견해는 긍정적인 사물의 규율과 법칙에 부합하느냐? 아니다. 그의 견해는 두 가지 방면을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는 사탄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이익과 사탄의 본성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견해와 태도 역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는 사탄의 논리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성품 본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선포자이자 화신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고, 연구하기 좋아하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환심을 사고 아첨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마음속으로는 그런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참된 사랑과 순종은 더더욱 없다. 패괴된 인류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때, 그의 겉모습은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언행 및 인성의 여러 면도 평범하고 정상적이다. 심지어 그가 사역하는 형식과 방식, 방법 역시 어느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실제적이며, 초연하지도, 공허하지도, 막연하지도 않고, 현실 생활에서 괴리되지 않는다. 요컨대, 겉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는 높지도 위대하지도 않고, 언행이 심오하거나 추상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육안으로 관찰해서 무슨 비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정상적이다. 우선 성육신하여 이 모든 사역을 한 본질과 성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접어 두고, 오로지 성육신이라는 이 역할의 모든 표면적인 것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만 말해 보자. 언행, 생활 규칙, 성격, 취미, 교육 수준,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방식, 그리고 그가 표현해 낸, 그가 아는 일 등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볼 때 초자연하지 않고, 높지도 위대하지도 않고, 공허하지 않고, 무척 실제적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검증과 같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겉에 드러난 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모두 성육신이라는 범주 안에 귀결시켜 인식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 유독 적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줄 모른다. 그들은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처럼 더없이 평범한 인물은 자신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낀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늘 이 평범한 사람이 그다지 하나님 같지 않다고 느낀다. 또한, 항상 이 평범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 처리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내면을 보면 그들은 이런 평범한 사람을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평범한 부분일수록 이들 적그리스도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그 어느 방면의 모습도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반발하기까지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때로는 사역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결점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류의 패괴 본질을 폭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가지 일의 본질과 경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일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해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가지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류 사람의 결말을 규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을 발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한다. 물론,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 성품과 관련된 진리 외에도 각종 사물에 관련되거나 인류의 지식, 여러 업무에 관련된 주제도 적지 않다. 그리스도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류의 생존, 생활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라면 그리스도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루는 방식에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이 만약 사람의 생존과 생명 진입에 관련되고,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주제에 관련된다면 모두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급하는 인류의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업무 측면에 관련된 일,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진리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인류가 인식한 이런 화제의 관점, 태도,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인류가 한 가지 지식을 대하는 태도는 숭배하는 것이고, 이 지식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각각의 지식을 다룰 때 해부하고 분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너희는 한 가지 업무에 정통하고 이 방면의 지식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너희가 이 방면의 지식을 응용함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어떻게 이 지식을 응용하느냐? 그 안에 진리 원칙이 있느냐?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칙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본분을 이행할 때 지식에 기댈 것이다. 비록 나는 그 업무와 지식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원리를 조금 아는 정도이지만, 어떤 방식과 원칙으로 그 지식을 응용해야 그것을 하나님 사역에 봉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안다. 이것이 바로 차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점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구현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이 차원을 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시선으로 가늠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음모와 계략으로 바라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현미경, 투시경을 사용한다면 볼 수 있겠느냐? 그건 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다면, 영계와 통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계와 통하는 사람은 영계를 볼 수 있고 영체를 볼 수 있는데, 어째서 성육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계와 통하는 사람이 설령 하나님의 영체를 보았다고 한들 하나님임을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조상, 그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육신 하나님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가 경배할 수 있겠느냐?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보든 소용없다.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이것은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만약 인정할 수 있었다면 그는 진작부터 믿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일하신 사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언제나 불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조금 나타내셔서 그에게 영계가 과연 어떤 곳인지 보여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지.' 그런 것이냐? 영계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복종하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겨우 몇 년 만에 복종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의 본성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도 그를 정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의 천성이다. 그의 천성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적그리스도 부류는 영원히 하나님, 진리, 긍정적 사물과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며, 죽어도 이를 그만두지 않는다. 이는 죽어 마땅한 대상이 아니냐? 죽어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건 죽어 마땅하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 평범한 사람을 겉에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연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일할 때 적그리스도에게는 온갖 다양한 모습이 생겨난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을 대할 때의 각종 모습으로부터 그의 본성 본질을 폭로해 보자.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이나 진리 원칙을 교제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행을 얘기할 경우, 이런 것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역도 이론을 얘기하고 구호를 외쳐서 사람들을 고무시킨 다음 각오를 다지게 한다고 끝이 아니다. 본분과 관련된 사역은 그 어떤 것도 간단하지 않고 모두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떻게 옳은 사람을 선발해서 쓸 것인가,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내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인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혹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화롭게 협력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그리스도가 일부 구체적 사역에서 사람이 시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교제할 때,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구호를 외치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최소한 사람이 에너지와 대가, 시간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적합한 사람도 찾아야 하고, 업무도 배워야 한다. 각각의 업무에 관련된 상식과 이론, 구체적인 조작 방식과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난이도 높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난이도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난처해하고 압박감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서 압박감을 느끼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인도해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하고,

깨우침과 도움을 구하고, 일을 그르치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구하고, 또한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 달라고 구할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역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그에게 시행하도록 했을 때, 또한 그 사역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는 속으로 반발하며 하기 싫어한다. 하기 싫어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는 말한다. "왜 좋은 일은 저한테 안 오는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만 주고, 요구만 하십니까? 제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노예나 심부름꾼인 줄 아세요?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순종이냐? 받아들이는 태도이냐?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반발이고 대항입니다.) 어째서 반발하고 대항하는 것이냐? "가서 고기 몇 근만 사 오세요. 요리해서 다 같이 먹게."라고 말하면 그가 대항하겠느냐?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서 밭 좀 갈도록 해요. 밭 갈 때 돌도 좀 골라내고요. 그런 다음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육이 고생해야 하는 일, 어렵고 압박을 받는 일 앞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하기가 싫고, 반발심과 원망이 들기 시작한다. '왜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오지? 가벼운 일, 하기 쉬운 일을 할 때는 왜 내가 안 보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저분한 일은 나한테 시키고 말이야. 내가 만만해서 괴롭히기 쉬워 보이나?' 그는 속으로 반발하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냐? 어떤 게 더러운 일, 힘든 일이냐? 어떤 게 어려움이냐? 모두 본분이 아니냐? 배정받은 대로 가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르려 드느냐? 이게 일부러 못살게 구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일부러 자기를 못살게 굴고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 어려움이 닥쳐서 육이 고생해야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조건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냐? 어려움이 좀 있으면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자기가 볼 때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천한 일, 남들이 무시하는 일이라면 기를 쓰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거절하며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분부,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원칙을 대할 때,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 보이는 모습은 바로 반발하고 거절하며 속으로 반감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익을 얻는 일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안일함을 누리려 하고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한다. 육이 고생해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지어 남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라면 그들이 기분 좋게,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절대적인 순종에 이를 수 있겠느냐? 전혀 도달하지 못하며, 완전히 불복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기 싫은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취향과 입맛,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절대적인 거절, 절대적인 반발이고, 일말의 순종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속으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 일에 대해 어째서 저런 견해를 보이시지? 어째서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정의하시지? 이것도 진리인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가?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기록되었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셨어. 저런 세부적이고 사소한 얘기는

없었는데 그리스도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세부적인 일만 얘기하고 해부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관념도 없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서 생명과 구원, 복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에 대해 지닌 견해와 평론, 태도,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생각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일종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에 관념이 생겼을 때 속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관념을 책망해 달라고 기도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관념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저울질하며, 순종의 마음은 전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생기면 그는 속으로 반발하고 서서히 그리스도와 대립하기 시작한다. 대립하는 태도가 생겨날 때, 적그리스도가 순종하려고 하겠느냐?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반발할 것이다. '흥, 이번에는 나한테 약점을 잡혔군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은 그 일도 논리적 추론에 따라 처리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눈으로 본 것에 근거하시는군요. 당신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 본질에 맞지 않아요!' 그는 속으로 불복한다. 그가 불복할 때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봐야겠어요. 기다리고 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고 깨우쳐 주시는지 봐야겠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미 제 고려 범위를 벗어나서 제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아직도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을 읽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볼 때 그는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만 인정하고, 땅의 그리스도는 한사코 부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일관되게 공허한 글귀와 도리 속에 살면서 높고 위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일찍이 했던, 활자로 찍힌 말씀은 극도로 숭상하고 추앙하지만, 더없이 평범한 이 사람은 그의 마음에 아무런 지위도 갖지 못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야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인정하고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크고 깊은 관념을 가졌든, 일단 활자로 인쇄되면 그들은 관념이 사라지고, 일단 문자로 만들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배한다. 이는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생기기 쉽고, 관념이 생기기도 쉽다. 적그리스도는 관념이 생긴 뒤에는 마음속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된다. 순종은 없고 오로지 반발만 있을 뿐이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쉽게 관념이 생기느냐?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쉽게 관념이 생기느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이들이 관념이 생기기 쉽다. 관념이 생기면 그는 속으로 반발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당시 배경과 환경, 그리고 인류의 필요를 근거로 처음에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도 달라졌다. 달라진 건 큰 문제가 아닌데도 적그리스도는 트집을 잡고

관념을 가졌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행하라고 해서 겨우 이해하고 어렵사리 실행하고, 또 지켰어. 복받을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대체 무슨 뜻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일단 방식과 방법, 혹은 말을 바꾸면 일부 사람들이 격노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낡은 관점, 낡은 이론, 그리고 사람의 도덕 기준과 양심 기준, 심지어 사람의 논리적 사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한 말과 서로 어긋나거나 중간에 오류라도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선은 받아들인 다음 천천히 구하고 이해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먼저 반발하고, 그다음에는 마치 진리를 잘 실행하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기라도 하듯 막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충분한 증거를 찾아 그리스도의 말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관념을 해결한다. 그러면 관념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해결될 수 없느냐?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관념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 관념은 마음속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관념을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관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햇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상상과 관념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하고 이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관념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거리감과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가 이런 거리감과 관념을 품은 채 본분을 이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얻겠느냐? 복을 받으려는 욕망이 날로 커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요구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다. 사람의 요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사람의 야심, 욕망, 관념, 상상 속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관념이 생기느냐?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을 해야 하고, 저런 말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극적이고 연약해지자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또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사람에게 위안을 주셔야 해. 하늘의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아. 닿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땅에 오셨으니 사람한테는 편리한 조건이 생긴 거야. 내가 소극적 상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겠다.' 하소연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충과 연약함을 얘기하고, 또한 자신의 패괴 성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사람이 속으로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위안과 듣기 좋은 말을 바란다. 자신이 더 이상 서글프지 않고, 기뻐서 위안이 되고, 더 이상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 줄 그런 말들을 하나님에게서 바란다. 그렇지 않겠느냐? 특히 이렇게 상상하는 부류도 있다. '사람의 연약함과 소극성은 사람 입장에서는 연약함이고 소극성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활짝 웃게 할 수 있어. 말씀 한마디면 마음에 그 어떤 근심 고민도 사라지고, 소극성과 연약함이 한꺼번에 싹 사라질 거야. 다시 어떤 일이 닥쳐도 굳건할 수 있고, 다시는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고,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어. 그래 좋아,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좀 해 달라고 하자!' 너희 생각에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겠느냐? 하나는 이 사람이 왜 소극적으로 변했는지,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또 하나는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어떤 원칙들을 고수해야 하는지 교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겠느냐? 우매하고 완고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의 의미가 담긴 말로 자극을 좀 주어 격려하도록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을 어느 정도 폭로함으로써 늘 소극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사람이 늘 소극적이 되는지 알도록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늘 소극적이 된 사람은 모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위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늘 소극적이 되는 것이 정상이란다. 사람이 늘 소극적이 되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야. 아이가 어른의 일을 맡아서 부담이 크니까 늘 소극적이 되는 거지. 분량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일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어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또한 부모도 책임이 있어.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은 거니까 네 탓이 아니야." 상대가 묻는다. "그럼 저는 어떤 패괴 성품이죠?" "그건 무슨 패괴 성품도 아니란다. 단지 나이가 너무 어린 거야. 가정 환경도 좋고 응석받이로 자라서 그래. 몇 년 지나서 성장하게 되면 좋아질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꼭 안아 주면서 긍정 에너지를 전해 준다면 사람이 속으로 훈훈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말 열 살 남짓한 아이를 만난다면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하겠지만 성인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 건 바보를 속이는 짓이다. 그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너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한편,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알려 줌으로써 네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네가 가는 길이 정해진다. 그리스도가 한 이 모든 일의 본질을 볼 때,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농락하지 않지만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을 마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데다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거리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를 마음속에 담아 둔다. 본래는 하나님이 정말 자애롭고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런 게 아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나를 이끌어 소극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라는 그의 상상, 이런 요구는 실현될 수 있겠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장담하건대 마음이 순식간에 따뜻해지면서 다시는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금방 밝아지고, 실행할 길도 금방 생길 거야.' 이런 상상은 현실적이겠느냐?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서 사람이 늘 관념과 상상에만 기댄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으며, 반드시 진리를 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뒤에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나를 만나자 내게 말했다. "저는 10 대 때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뒤에서 진심으로 기도해라. 진실로 회개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일을 조사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하지 못하게 저지하자 그는 속으로 생각을 품었다.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인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데,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군요.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당신은 왜 듣지 않습니까?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세한 얘기는 따로 있는데.' 내가 말했다. "네가 죄를 인정하는 최종 목적은 회개하려는 것이지,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니잖냐. 마음속 깊이 정말 회개한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 나에게 자세한 사정과 경위를 소상히 얘기한다고 네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다. 네가 정말 회개했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회개한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설령 얘기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무슨 말이든 다 듣는 줄 안다. 이를테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지른 음란한 행위라든가 절도 행위, 혹은 남을 정죄하고 모함한 일 등, 그들은 내가 사람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이런 일도 모두 듣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일체의 생각, 과거에 했던 일들을 궁금해하고 꿰뚫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알고 싶어 하는 줄 안다.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겠느냐? 그건 틀린 생각이다. 나는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본질, 사람이 걷는 길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런 것들만 알아도 사람이 구원받는 큰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 각자의 금생과 내세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몰라도 된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도 정상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모르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럼 아마도 모든 사람의 가정 환경, 어릴 때부터 성장한 환경, 성장 과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다 파악하고, 내막을 알고 싶겠죠. 그러면 사역하기가 쉽고, 약점을 잡아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기가 수월할 텐데요.'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이런 관념과 상상을 품은 일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얘기하려 한다. "아이고, 모르시는군요. 저희 집이 전에는 이러이러했답니다...." 내가 말한다. "집안일 같은 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체험에 대해서나 좀 얘기해 보아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고, 제가 전에 사귄 사람이 꽤 되는데 아직 모르시는군요." "전에 제가 누구를 모함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알고 싶어 하고, 인간 세상의 온갖 추잡한 꼴, 인류의 타락한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줄 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해 준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싶으면 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내 책임은 오직 네가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가르치고 알려 줘서 네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것과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해도 괜찮지만, 그것과 무관한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품는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마음도 없고 포용심도 없구나.' 그가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주민위원회 주임처럼 남의 집안 생활의 사소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네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입고, 돈은 어떻게 벌고, 경제 사정은 어떤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 그런 일에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이다. 특히 그리스도가 한 말에 대해 관념을 갖거나 그리스도의 말과 그의 관념이 전혀 맞지 않을 때, 적그리스도는 관념을 내려놓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을 해부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을 고집하며 속으로 몰래 그리스도가 한 말을 정죄한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집에는 각각의 업무에 관계된 사역, 예를 들어 음악, 문서, 영상 등 각각의 사역이 많이 생겨났다. 이런 사역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 역시 각 업무와 관련된 일부 사역에 참여한다. 물론 대개는 지도하는 일이고, 각 사역을 자리매김하는 사역도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 그리스도는 여러 업무에 관계된 일부 지식과 상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잘 모르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 아니냐?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건 매우 정상적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로 각 사역은 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물이 점점 많아지고 우수한 결과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당신은 업무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전혀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참여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를 지휘하고 지도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 말대로 하면 다 맞는 겁니까? 당신 말대로 하면 치우친 길로 가지 않고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가 사역을 지도할 때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먼저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치에 맞는지, 문외한은 아닌지, 우리보다 나은지 들어 보자. 만약 우리보다 나으면 받아들여서 그분 말씀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따로 선택하고 다른 방법을 쓰자.'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은 철두철미하게 불복하는 상태이다. '우리는 전문가야. 이 일을 한 지가 얼만데. 이 일은, 이 임무는 눈 감고도 완수할 수 있어. 당신 말을 듣는 것은 그저 과정만 거치는 거 아닌가? 무슨 근거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당신이 하는 말들이야 형식적인 말이잖아? 당신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너무 무능해 보이지 않겠어? 하지만 지금 다들 듣고 있으니 일어나서 반대는 못 하겠군. 반대했다가는 적그리스도로 처리될 테니 우선은 듣는 체하자. 듣는 체하면서 형식을 따르는 거야. 나중에 우리 식대로 하면 아무것도 그르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무리 진리 원칙을 교제하며 아무리 확실하게 얘기해도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에 늘 자기만의 정해진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나 자기가 업무를 잘 안다고, 자기가 이 일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진리 원칙이 어떤 건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업무에 관계된 사역을 지도할 때는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능력이나 재주를 겨루는 때이다. 심지어 가끔은 그리스도가 업무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우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적그리스도는 더 나아가 몰래 비웃고 멸시하며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사역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더욱 반발하고 싫어한다. 그는 속으로 철두철미하게 불복하며 말한다.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시는데, 당신이 뭘 아세요? 이 업무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세부 사항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화 찍는 일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리얼하게 연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녹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각각의 업무에 관계된 진리 원칙을 속으로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속으로 그리스도와 신경전을 벌이고, 심지어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를 놀리거나 비웃고, 마음속은 불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사역을 시행할 때 겉으로는 절차상 우선 하나님이 교제한 내용의 메모를 한 번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원래 하던 그대로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는 대꾸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실제 상황을 아십니까?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원칙만 주신 거고, 우리가 실제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죠.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이렇게 처리해야죠. 하나님 말씀 중에 진리에 관련된 것은 듣고,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교제한 진리 원칙을 그는 들었고 기록도 했다. 그리고 절차상 다들 메모한 내용을 한 번씩 훑어봤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누가 결정했느냐? 그에게는 진리가 권세 잡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권세 잡는 것과 더욱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권력을 잡은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그에게는 진리가 공기에 불과하고, 도리와 구호에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그만이다. 사람은 원래대로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잘 대답하고 태도도 무척 간곡하지만, 현실 생활로 돌아오면 모든 게 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성육신에 대해 언제나 관념을 품고, 언제나 반발하고 속으로 불복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성육신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 믿는다. 바울과 마찬가지다. 바울은 성육신한 예수를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관념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써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고 예수의 말이 진리라고 증거하지도 않았다. 또한,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런 건 모두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바울이 바로 진정한 적그리스도이다. 이제 너희는 모두 바울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설령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가 한 일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만약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안배하고 배치한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면 적그리스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순종하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면서 임무를 배정해도 적그리스도 부류는 시행할 리가 없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꺼린다. 그리스도가 사역을 어떻게 안배하든 시행하기 싫어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 뛰어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이 생기면 서너 사람과 협력하고 상의하세요. 진리 원칙을 많이 교제하고 원칙에 따라 일해야지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듣겠느냐? 전혀 듣지 않는다. 그 말은 애저녁에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결정하려

든다. 네가 그에게 말한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구해도 됩니다." 정말 문제가 생겨서 다들 상부에 구하려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뭘 묻고 그래요? 이만한 문제로 상부를 귀찮게 하려고요? 우리끼리 결정합시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결정할게요.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죠!" 듣기야 좋은 말이지만, 정말 일이 생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만약 교회 사역에 손해가 생기면 그 결과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리더 일꾼이 부주의하게 예배를 안배하는 바람에 예배드릴 때 형제자매들이 잡혀가서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지고 넘어졌다.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말에 책임을 지느냐? 너무나 무책임하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태도로 사역을 대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적그리스도가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진리를 실행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한 단어, '대항'이다. 끈질기게 대항하는 것이다. 대항 안에 담긴 성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불복에서 생겨난다. 성품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는 속으로 불복하는 것, 즉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에게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하고,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사람들과 상의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무슨 일이든 사람들과 상의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운데! 이런 일은 나 혼자 결정해도 돼. 남들하고 협력하고 상의하면서 원칙대로 일하긴 무슨. 그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쪽팔린 일인데!'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무슨 일이든 간파할 수 있고, 주관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자기 식대로 한다. 그는 누구에게도 불복한다! 적그리스도는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사람들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리 알았다고 잘 대답해도, 아무리 듣기 좋게 말해도 자신의 패역한 내적 상태를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사탄 성품을 고치지 못한다. 그는 내면에서 거세게 대항한다. 어느 정도로 대항하느냐? 지적인 말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것이 한데 놓여져서 생기는 일종의 현상, 즉 배척이다. 우리는 그것을 '대항'으로 해석한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은 바로 상부에 대항하는 것이다. 상부에 대항하기 좋아하고 누구에게도 불복한다.

그리스도가 한 말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취하는 유일한 태도는 바로 불복이고, 유일한 행동 방식은 바로 대항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당이 꽤 넓은데 나무 그늘이 없구나. 겨울에는 햇빛이 골고루 비춰서 사람들이 볕을 쐴 수 있지만 여름에는 좀 더우니 나무를 좀 사도록 하자. 좀 빨리 자라고 나중에 그늘도 큰 것으로. 또 지저분하지 않고 미관상 괜찮은 나무로 심자." 몇 가지 원칙이냐?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빨리 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지저분하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늘이 큰 것이다. 말하자면 가지와 잎이 빽빽한 나무이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데, 얼마를 사고, 어디에 심고,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지도 내가 다 일러두었다. 이 일은 시행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쉽습니다.) 이 일이 어려운 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편이 아니다. 어째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냐? 나무를 파는 곳이 있고, 하나님 집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나무를 사기 위한 기본 조건이 모두 갖춰졌고, 사람이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다. "뭐라고요? 나무를 산다고요? 고작 그늘 만들고 환경 미화를 하려고 돈을 써야 한다니,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은 하나님의 제물인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좀 더우면 어때서요?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햇볕 좀 맞는다고 죽기라도 한답니까? 그런 게 햇빛과 비와 이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볕을 쬐기 싫으면 집 안에 있으면 되지 돈까지 써 가며 그 복을 누리려 하다니, 좋은 생각만 하는군요!"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이 일은 나 혼자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직접 들이받는 것도 좋지 않아. 정죄받을 거야. 다들 원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다면 의사 결정팀에 얘기하자. 별도로 형제자매들에게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 만약 의사 결정팀에서 통과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거지. 설령 형제자매가 동의했다고 해도 안 되지.' 그는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이 일을 얘기했다. 그런 다음 다들 의논하고 의견을 발표하게 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나무를 사는 건 좋은 일이죠. 모두에게 이익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맞받아쳤다. "뭐가 좋은 일이에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괜찮나요? 모두 이익을 보려고 누구 돈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 돈을 쓰는 건데, 그건 제물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가요?" 다들 곰곰이 생각한다. '제물을 낭비해서 다들 혜택을 보고 이익을 얻는 건 그다지 합당한 일이 아니군.' 의논 끝에 결국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돈을 아껴야 하니 누가 분부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토론한 끝에 결론을 얻었다.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의 이번 분부에 대한 우리의 최종 결의는 대항하는 것이다. 제물을 쓰지 않고 하나님 집의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무를 사지 않고 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무를 안 사왔길래 그에게 물어봤다. "왜 나무를 안 샀느냐?" "아, 이제 사려고요." 철이 다 돼서 보니 다른 집 나무들은 다 싹을 틔우는데, 그는 아직도 나무를 사지 않았다.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상의 끝에 사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말은 전혀 먹히지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상의하고, 토론하고, 분석한 끝에 결국 내 분부를 거부하기로 다 같이 결정을 내렸다. 그 뜻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 당신은 한쪽으로 비키세요. 이건 우리 집이니 당신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무슨 식이냐? 대항이 아니냐? 어느 정도로 대항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근거가 있었다. 하나님 집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제물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너희가 볼 때 이 근거는 어떠냐?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닙니다.) 종종 제물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 무리들이다. 그는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론을 지어내서 우매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했고, 결국 정말 일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한 말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교란되고 파괴되는 바람에 지지부진하고 시행되지 못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관건은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의 위선을 철저히 분별하지 못하고 늘 일의 표면적인 부분에 미혹되어 사물의 실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데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방해한 탓에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 선민들은 종종 그들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내리고 어떤 일을 분부할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교란이 없으면 금방 이행할 수 있지만,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훼방을 놓으면 그 일은 지지부진하고

이행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내린 지침과 사람에게 처리하라고 분부한 일은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구실을 찾아 부결시키기도 한다. 부결시킬 때 그는 일종의 형식을 취해서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게 한다. 그는 말한다. "이건 형제자매가 거수로 통과시킨 사안이고 모두가 함께 결정한 결과입니다. 저 혼자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형제자매의 결정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일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진리가 권세 잡고 있다는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그리스도가 한 말에 대항하는 것이 진리가 권세 잡고 있는 것이냐? 그건 분명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국면을 통제하면서도 진리가 권세 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무계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정말 위장에 능하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에게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만약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모두를 생각해서 하는 일임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분이 영 좋지 않고 불편해서 어떻게든 교란하고 파괴하려고 한다. 만약 그 일이 그가 제시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지덕지한다면 그는 그것을 이행할 때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품이냐? (사악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위장에 능해서 호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유한다. 또한,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너는 어떤 진리를 실행했느냐? 그리스도가 한 말씀, 너에게 분부한 일을 네가 모두 부결하고, 순종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네가 실행한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동료도 아니고, 네 동업자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다! 네가 설마 모르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너는 언제나 분석하고, 연구하고, 거기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하고, 이익과 폐단을 저울질하기도 한다. 이것은 잘못된 위치에 선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남의 말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능하며, 결국에는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대한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불신파가 아니냐? 언제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 본질을 알 수 있겠느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할수록 의혹이 커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눈곱만큼도 없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그리스도는 확실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가 한 말씀과 분부한 일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을 수 있다. 다만 예배 시간에 꺼내어 모두에게 토론하고 연구하도록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평범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결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질과 같지 않으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신 적이 없다. 또한 예수에게 구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대신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징벌받았다.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상 너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

진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연구하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분석하고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실행 절차를 어떻게 확정할지, 그것이 너희가 교제하고 토론해야 할 범위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늘 그리스도의 신성 본질을 의심하고, 늘 불복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행하라고 한 일은 언제나 가져와서 연구하고 논의한 다음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 이 성질은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입장에 서서 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분부하거나 사역을 안배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상의한다. 그는 무엇을 상의하는 것이냐? 어떻게 순종할지를 상의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분부가 옳은지 그른지를 상의하고, 이행해야 할지 말지를 연구한다. 그의 태도가 이행하려는 태도냐? 아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자기와 같이 그 일을 이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의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얼 하고 있느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하려 한다. 이런 성질이 아니냐?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와 생각을 통일하고, 말과 태도를 통일하고, 의견을 통일하게 해서 그와 일치시켜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결정, 그리스도의 분부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수법이다. 적그리스도는 다수가 그렇게 하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에게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러면 하나님 집도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리석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혼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면 역량이 너무 작고 혼자 세력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하는 이런 수법을 쓴다. 그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상 관점을 품고 나와 같은 방법을 취하도록 미혹한 다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통하지 못하고 이행되지 못하게 할 거야. 누가 와서 사역을 점검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돼.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어! 난 처리해 주지 않을 거고 이행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날 어쩔 수 있나 두고 보겠어!' 그는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집에서 그를 처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도 그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처리하기가 쉬우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면 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면 바로 도태시키고 발로 차서 쫓아내 버리면 된다. 하나님 집에서 너에게 리더가 되도록 허락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한다면 그건 마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너에게 리더 자리를 허락한 것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순종하고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라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며 하나님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을 네 본분으로 여기는데, 미안하지만 너를 파면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하나님 집에는 너를 쓸 권한도 있고 너를 자를 권한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는 리더를 맡아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자르십니까? 이건 가루를 빻고 나서 당나귀를 죽이는 격이

아닙니까?" 정말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너를 자르겠느냐? 당나귀가 연자매를 돌려야 할 때 마구 발길질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길들일 수가 없다면 가루를 빻고 나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언제 죽일지는 행동을 봐야 한다. 네가 볼 때 좋은 당나귀라면 사람이 떼어 내려 하겠느냐? 연자매를 돌릴 때는 당나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력자이다. 그렇다면 당나귀가 가장 필요할 때 당나귀를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느냐? 연자매를 돌리지 않고 앞으로 양식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당나귀를 죽이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우,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마구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가루를 빻을 수 없다면 그 당나귀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 분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복하고 불평하면서 어떤 사역도 이행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부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그를 파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파면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뭐가 그리 급하냐? 그의 행동을 봐야 한다. 파면당해서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 집에서 힘쓸 수 있으면 출교하지 않을 것이고, 힘쓰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여기저기 관념을 퍼뜨리고 악행을 저질러 교란한다면 원칙에 따라 그를 출교할 것이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너희가 볼 때 몹시 가증스럽지 않으냐?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어떤 면이 가증스러우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서는 이행될 수 없다. 그는 이행하지 않는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자질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가르쳐도 할 줄 모른다. 이런 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교제하는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질이 어떠냐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관계된다.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대항하고, 진리 원칙에 대항한다. 순종하지 않고 대항만 할 뿐이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분별해 보고, 방금 얘기한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에 매달렸다. 책임감이 무척 강한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림자도 안 비쳐서 사역이 무척 바쁜가 보다 했다. 분명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본분을 이행할 때 대가도 잘 치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들이 사는 집과 마당에 작업해야 할 게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지도하게 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이 리더가 현장에 나와서 대신 그 일들을 지도하고 책임지면서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집안일, 허드렛일을 내가 항상 앞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하고 힘을 들이는 이런 건 대부분 진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사람이 열심히만 하고,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않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간단하고, 또 쉽게 해낼 수 있다. 나중에 여기 일은 거의 완성이 되었지만 그 뒤로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그 일을 이 리더에게 맡겼다. 그에게 그곳 환경과 위생을 잘 관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들은 잘 정비하라고 했다. 주로 두 가지였다. 첫째는 정해진 장소와 각 방 안팎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했다. 둘째는 식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식물 같은 것은 물을 잘 줘서 죽지 않게 하고, 계절과 생장 상황에 따라 가지치기를

해 주고, 필요하면 비료도 주라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너희가 보기에 많으냐, 적으냐? 일이 힘들겠느냐?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많은 게 아니다. 식사 후 산책하는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자기가 거주하는 곳 환경은 자기가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것이고, 정상 인성의 삶에서 이런 일은 빼놓을 수 없다. 네가 사는 환경은 네가 관리해야 한다. 관리하지 않으면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동물은 환경을 관리할 줄 모른다. 마땅히 대소변을 처리하는 장소도 따로 없고, 아무 데서나 먹고 자는 등 정해진 자리가 없다. 사람을 동물과 비교할 때 고등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환경을 관리할 줄 알고, 환경이 깔끔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줄 알고, 환경에 대해 요구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에게 제시한 이런 요구가 과분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지시한 다음 나는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리더가 세부적인 일을 이행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그곳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러 갔다. 길가를 걸으며 보는데 정말 가슴이 쓰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치밀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감정이 생기겠느냐? (그가 하나님 분부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 날씨가 그래도 건조한 편은 아니었지만 새로 심은 어린나무는 누런 잎사귀도 많고 심지어 떨어진 잎도 있었다. 화가 나는 것은, 꽃나무 두 그루의 초록빛 잎사귀가 자줏빛으로 바뀌다 못해 거의 누레지다시피 했다. 너희는 이 일을 들으면서 화가 안 나느냐? 더 화가 나는 것은, 입구에 있는 깨끗한 콘크리트 발판 위에 광주리, 비닐봉지, 쓰레기가 널려 있고, 작업이 끝난 나뭇조각, 못, 공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딱 한 종류 사람들이 있긴 하다. 동물에 속하는 자들은 환경에 대해 요구하는 바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다. 향기가 나든 악취가 나든, 깔끔하고 쾌적하든 그렇지 않든 좋고 나쁜 것을 모른다.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 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화가 치밀 것이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그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사람이냐? 내가 부탁한 일을 그는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했다. 그곳 환경을 잘 관리하고 몇 가지 물건을 잘 돌보는 일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네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왜 해내지 못하느냐? 내가 앞에서 지켜볼 때는 그나마 일을 좀 하다가 내가 가 버리면 다들 내팽개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건 어찌 된 일이냐? 이곳을 집으로 생각이나 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의 따스한 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느냐? 정말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너는 네가 거주하는 환경도 관리하지 않았다. 또 내가 지시해도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일을 하라고 일렀더니 그는 조금 일한 다음 사용했던 도구는 거기다 그대로 방치했다.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 쓰라 그래. 내 알 바 아니야. 난 먹고 잘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런 인성이 다 있느냐? 뭐 이런 도덕성이 다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정상 인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나 애를 써 가며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안배했다.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이다. 너희는 감사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기 생활 환경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어째서 그걸 해내지 못하느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다. 이 일 역시 원인이 있었다. 사람이 하나님 집에 온 것은, 가정과 일을 버리고 왔든,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고 왔든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지 머슴 노릇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이냐? '돈 한 푼 받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무슨 근거로 당신을 위해 환경을 관리해야 하지? 무슨 근거로 당신을 위해 이렇게 힘을 들여야 하지?' 그는 이런 생각이었다. 그는 본직 사역을 잘 하고 본분만 잘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만 좀 하면 되고, 그 외에 무슨 분부를 한다면, 본분 업무에 관계된 일은 듣겠지만, 나머지 일들은 네가 직접 사람을 찾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 뜻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나라 백성인데 어디 그렇게 더럽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등 인류인데 항상 우리에게 그런 저급하고 천한 일만 시키면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됩니까! 우리는 귀한 신분인데 어째서 늘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알고 난 뒤, 대부분 사람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고, 하지 않으려 하고, 일할 때는 서로 누가 잘하나 비교하고 꾀를 부리는 이런 일을 그나마 좀 이해하게 되었다. 바로 대부분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은 싫어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천성을 가졌다. 게다가 언제나 되는대로 살자는 이런 사상에 지배되어 진리 추구를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할 일 없으면 회의하고,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부처럼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생활은 우리 크리스천과는 관계가 없으며, 크리스천의 생활은 '저속한 취미'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곧 속세를 떠났으니 무슨 청소나, 살충 작업, 농사일, 가지치기, 꽃 심기와 같은 일은 우리와는 무관하고, 우리는 그런 저급한 생활에서 떨어져 나온 지 오래다는 뜻이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상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는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계 조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면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한술 더 떠서 일부러 기계를 험하게 다루다가 며칠 안 가서 망가뜨린다. 새로 사 온 기계가 다 망가져서 한 번 수리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다. 그는 생각한다. '당신이 나보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계를 고장 냈습니다. 기계가 없으니 쉴 이유가 생겼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죠? 나한테 자꾸 뭘 배우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결과인가요?' 어떤 기계는 수리비가 기계 값과 맞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것을 방금 전 "하나님 집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집 제물입니다."라고 했던 말과 비교하면 어느 말이 진짜이고 어느 모습이 진짜이냐? 그는 기계를 망가뜨렸고, 몇 번 수리하는 비용이면 기계를 한 대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낭비한 것, 이 모습이 진짜이고, 앞서 제물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은 거짓이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말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다. 방금 말한 사례를 적그리스도의 성품, 적그리스도의 본질로 귀결시킨다면, 오늘 얘기한 어느 방면과 관계가 있으며, 어느 방면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는 말한다. "저는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 머슴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너는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누가 너에게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정해 주었느냐? 이런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에 해당하지 않느냐? 네가 하루하루 사는 것과 같다. 나가서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채소가 먹고 싶으면 직접 기르는 것, 이것은 너 자신의 일이다. 집안의 다른 일들은 네 일이 아니냐? 네가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라는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머슴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는 이 말은 문제가 있다. 머슴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머슴 취급했느냐? 아무도 너를 머슴 취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일을 하고 힘을 좀 들였다고 머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머슴 취급하지 않았고, 하나님 집에서도 너를 머슴으로 부리지 않았다. 네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본분에 해당한다. 작게 보면, 이것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다. 네 육의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보장하고 네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크게 보면, 그중 어떤 일도 전부 하나님 사역의 확장에 관계된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어떤 일은 하기 원하고 어떤 일은 하기 싫어하느냐? 어째서 고르는 것이냐? 어째서 힘을 좀 들이는 일, 쓸고 닦는 일, 환경 관리하는 일을 머슴이 하는 일로 여기고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것이냐? 여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분부한 말씀, 모든 요구에 대해 자신이 하기 원하는 일이면 본분으로 여기고, 하기 싫고 반발심이 드는 일이면 머슴이 하는 일로 여긴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사람의 이해에 편차가 있는 것이다. 이 이해상의 편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사람에게 취향이 있어서 그렇다. 이 취향은 어디에 편향되느냐? 사람의 육이 고통을 받느냐 아니냐에 근거한다. 육이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고단하고 피곤해지면 사람은 반발한다. 자신이 하기 원하는 일, 빛이 나고 체면이 서는 일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그것을 본분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사람은 단호히 대항하고 거절한다. 네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소용없고, 그는 그저 거절하고 대항한다. 사람의 이런 내적 상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우냐?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떤지에 달려 있다. 진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육을 저버릴 수 있다면, 참된 순종과 순종의 태도가 있다면 돌아서기가 쉽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과거에 황제들은 일을 전혀 안 했는데요." 그런 것이냐? 황제들도 대부분은 하루 종일 황궁 안에서 즐기기만 했던 게 아니다. 어떤 황제는 어릴 때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다. 황제가 되어 친정을 시작한 뒤로는 미복 차림으로 민정을 살피러 다녔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기까지 했다. 이런 황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황제는 있다 해도 극소수였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누리려 한다면 꿈속을 헤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힘을 들여서 일하는 것을 천한 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옳은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들여서 일하는 것을 힘쓰는 것으로 보고,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만 본분 이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드시 하라고 요구하는 일, 하나님 집 각 방면의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의 본분에 해당한다. 무슨 사역을 하든 모두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본분의 범위는 무척 넓어서 여러 방면을 아우른다. 하지만 네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사실대로 말해서 그것은 네 의무이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 마음을 들여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너를 칭찬하고,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누구든 본분을 대할 때 늘 회피하고 숨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가볍게 말하자면, 너라는 사람은 너무 나태하고 약은 것이며, 빈둥거리면서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너라는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고, 충성도 순종도 없는 것이다. 힘을 들이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데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본분에 충성심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시키든 가리지 않고 다 할 것이다.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잘 해내며, 그 일을 짊어진다. 이것이 바로 본분 이행의 원칙 중 하나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힘을 들여 일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말에 반대하며 "당신들은 언제나 실내에서 본분을 이행하니, 비바람을 맞는 일도 없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겠죠. 우리보다 훨씬 편하죠. 우리 입장이 되어 보라고요. 비바람 맞으면서 밖에서 몇 시간씩 일해 보라고요. 어디 견딜 수 있는지 봅시다!"라고 말한다. 사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얼마간은 고생해야 한다. 육체노동은 육체노동대로, 정신노동은 정신노동대로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 무슨 일이든 말하기는 쉬워도 막상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정작 일을 할 때 한 측면으로는 사람의 인품을 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지를 봐야 한다. 먼저 인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것이며, 진리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곧고, 인품이 올바르며, 바른 기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품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리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네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나 이 일에 대한 견해와 생각,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과 진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너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네게 진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을 할 때 건성으로 임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을 것이고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소극적이 되면 열정이 사라져 건성으로 임하고 싶어진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저 본분을 이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약간 있을 뿐 힘을 들이며 고생하는 것은 원치 않고 늘 몸을 사리고 싶어 한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진작에 감찰했는데 왜 그를 상대하지 않았겠느냐? 바로 하나님 선민들이 각성해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내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고. 모두 똑같은 밥을 먹는데 당신들은 일을 하느라 녹초가 됐잖아. 하지만 나는 전혀 힘들지 않지.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야!'라고 생각한다. 정직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다. 사실

본분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어떤 점이 똑똑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할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난 마음을 다해 할 거야. 온 힘을 다할 거고, 조금도 대충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난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기 위해 일해야 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올바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사람을 정리할 때, 본분을 이행하면서 잔꾀를 부리던 자들은 모두 도태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인 정직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된다. 이 정직한 사람들의 내적 상태는 점점 좋아지며,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얻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무슨 일을 시키든 고르거나 선택하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도 않으며,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연구하거나 분석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머릿속에 다른 꿍꿍이도 없고, 무슨 일이든 순종한다. 그들의 내적 상태는 언제나 그렇게 정상적이기에 위험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켜 주고, 질병이나 역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다. 앞으로는 복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스럽고 힘든데도 기꺼이 원하는 정직한 사람을 보면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게 바보 같은 것이냐? 그건 성의이고 참된 믿음이다.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없으면 많은 일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류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마음속으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어째서 그들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냐?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훔치거나 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복된 일을 일반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너무나 간사하고 사악해서 정직함에 이르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만한 걸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여러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본성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나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는 영원히 이 복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할 줄 알고, 바람을 보고 노를 저을 줄 안다. 늘 이것저것 재면서 먹잇감이 보여야만 미끼를 던진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순종은 없고 거래하려는 마음만 있다. 그의 이런 태도, 이런 본질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일에서도 갖가지 사람의 본질, 갖가지 일의 본질, 갖가지 일에 관계된 진리를 그는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놓여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읽을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또 두뇌가 있어서 연구할 줄 아는 그가 어째서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몇 살이 되든, 설령 80 살까지 살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의 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눈은 가려지지 않았던데요." 그의 마음이 이미

가려졌다. 가려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음이 트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영원히 가려졌다. 전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 가려졌느냐? 사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할 생각이 없고, 그를 구원할 생각도 없다. 단지 적당한 때, 관건이 되는 중요한 때 그를 가로막아 하나님 집이 손해 보는 일은 막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지금껏 그를 깨우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깨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당신은 세 시간을 얘기하지만 그는 여섯 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깨우친 것 아닙니까?" 그가 몇 시간을 떠들든, 설령 서른 시간을 떠든다 해도 글귀와 도리만 떠들 뿐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자들보다 더 말을 잘하지 않느냐? 설교 고수가 아닌 자가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와도 그는 여전히 대적하고 정죄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멸망되고, 침륜되고, 큰 화를 만난다. 겉으로 보면 다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누구나 매일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낮에는 본분을 이행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다양한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고 구분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길을 걷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언제나 진리를 향해 노력하면서 차츰 진리 실제에 진입한다. 어떤 사람들은 잘살고 싶은 마음에 본분을 갈수록 얼렁뚱땅 이행하다가 결국 도태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이 갈수록 정직해지고 생명 성품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도 사람도 다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글귀와 도리에만 치중해서 얘기할수록 하나님에게 미움받아 폐기된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설교를 들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고 진리에 흥미를 잃고 점점 순종이 사라진다.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려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많은 일을 겪은 후 많은 진리를 깨닫고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다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며 똑같이 본분을 이행했는데 왜 8 년이 지나고 10 년이 지난 뒤 결과가 달라지고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느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의 본성 본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들려줄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일이 우리가 얘기한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보아라. 어떤 교회에 중간에서 훼방만 놓는 확실한 악인이 몇몇 있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권력만 잡으려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 교란하고 망치기만 했다. 또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무슨 일에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말만 듣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그들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교란을 받고, 하나님 집 사역과 교회 질서가 영향을 받고 파괴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큰 악행을 저지르거나, 형제자매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인성, 본질, 갖가지 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형제자매나 하나님 집 사역, 자신의 본분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그는 순전히 악인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형제자매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그와 마주치면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그가 큰 잘못을 초래하고 큰 화를 불러일으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놀랄 만한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를 제명하고 내보내야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최소한 그의 본분을 교체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그를 격리시키거나 제명해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집은 이런 악인이 사역의 요지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옳은 원칙이 아니냐? 그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서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그를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파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간파해서 그를 정리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당신이 간파했다고 바로 정리해 버리면 그건 당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진리가 권세 잡는 겁니까? 예배를 열어 형제자매들에게 교제하고 해부해 주고, 사역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셔야죠. 절차를 안 지키면 교회의 사역지침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부터 교회의 사역지침을 준수해야지, 깨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형제자매를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세히 알게 해 주셔야죠. 형제자매들이 이 방면의 진리에 대해 밝히 알아야지, 속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죠. 형제자매들이 모두 분별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어떤 사람을 제명한다고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너희 안에도 그런 관점이 있다는 증거다. 내가 말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느 중요한 사역 장소에 마귀가 있었는데 그는 인성이 좋지 않았다. 본분을 이행할 때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싫어서 빼질거리는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했다. 책망이라도 받으면 행패를 부렸고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늘 직책을 맡아 결정권을 행사하려 했고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싶어 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취향대로 할 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가 사역을 책임지는 동안 내가 시킨 몇 가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그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교란하기까지 했다. 교회는 본분을 이행하는 사역의 요지이다. 여기에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호강하러 오고 여생을 보내러 온 것이라면, 너는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집은 복지원이나 자선 단체가 아니다. 이런 천박한 것들은 어디서든 괜찮은 인간이 못 된다. 그가 어떤 본분도 충성스럽게 이행하지 않고 늘 건성으로 임하며 되는대로 살려고만 하니 나는 그를 당장 제명하라고 했다. 이 일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냐? (실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단한 일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그 말을 한 지 3 개월이 지나서야 그 악인을 강제로 내보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그자를 제명하라고 요구한 뒤, 그 교회의 리더는 사역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했느냐? 그는 예배 모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고, 토론을 거듭한 결과 대다수가 제명에 찬성했으나 찬성하지 않은 한 표가 있어서 그 일이 계류된 것이다. 이 리더는 찬성하지 않은 사람을 좀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과 상의해서 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자를

내보냈는지 두 번이나 물었는데, 그 리더는 내보내지 않았다면서 아직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료는 정리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건 바로 당사자를 제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댄 것이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그 사람의 미움을 살까 봐 제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상부에서 엄명을 내렸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보내야 합니다. 그가 나가지 않으면 당신이 나가든가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하니 선택하십시오!" 그는 명령을 받고는 '내가 나갈 수는 없지. 아직 이 자리에 충분히 있지도 못했는데!'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그 마귀를 내보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리더가 어째서 마귀를 두둔했겠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이 닥치면 모든 형제자매들 의견은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견은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규정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형제자매들 의견을 구하고 나면,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모두 존중하면서 유독 그리스도의 말씀만큼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도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다.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어째서 그 일을 시행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것이냐?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말은 다 틀에 박힌 말이고 도리이자 구호일 뿐이야. 실제적인 일이 닥치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전혀 간파하지 못해. 당신의 그 말은 모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모두 책으로 인쇄된 것이지, 당신의 실제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따라서 당신이 한 사람을 악인, 적그리스도로 규정한다고 해도 그게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왜 나는 이 일을 모르지?' 그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니냐? 그는 생각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두 번밖에 안 만났으면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부만 보고 악인이라고 했어. 형제자매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째서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신 말은 어쩌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나는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지도 못했고, 어떤 나쁜 짓들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당신이 하는 말에 나는 아멘 할 수 없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관념이 있더라도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겠지. 형제자매들이 투표를 통해 이 일을 결정하게 하는 거야. 형제자매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 당신이 그래도 형제자매를 책망할 수 있을까?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 사람과 겨우 몇 번 접촉하고 바로 그를 악인으로 규정했는데, 어째서 사람에게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거지? 봐봐,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나는 악인이 되어선 안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겠어. 당신처럼 단박에 사람을 규정하는 법이 어딨어? 사람을 제명하는 일이 어디 쉽나? 사람들이 연약해지면 어쩌려고? 그리스도라면 일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게 맞지. 형제자매가 아무리 어리석고, 패역하고, 무지해도 포용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단정 짓고, 매정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널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 그 긍휼은 어디로 간 거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악인으로 규정하고, 내보내려 하는데, 이건 규정에도 너무

맞지 않잖아!' 이건 관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내리면 그에게서 통과되지 못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그는 질질 끌며 온갖 핑계를 대거나 온갖 방식을 써서 대항한다. 즉, 시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네가 시행하지 않겠다면 나는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리더를 맡길 것이다. 너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땅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 없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그를 돌려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혹을 품는다. 그는 말한다.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이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인성의 일면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은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영이 권세를 잡는다면 그는 관념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의혹을 품지 않으면서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의혹을 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해도 그가 성육신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 설령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의문스럽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끝까지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사실을 속으로 완전히 인정한다. 그런데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의 생각에는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 집의 일이라면 모두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모두가 합의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옳으냐? 그건 커다란 착각으로, 가장 터무니없는 말이고, 가장 황당한 말이다.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패괴된 인류에게는 눈곱만큼의 진리도 없는데 모두가 의논해서 어떻게 진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만약 모두가 의논해서 진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패괴된 인류에게도 진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제일 황당한 일이 아니냐? 따라서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은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것임을 의미하지, 모두가 권세를 잡고 모두가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모두가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단, 이렇게 실행하면 어떤 효과에 이를 수 있느냐?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게 되며,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다. 모두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다. 만약 진리를 깨달았다면 직접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언젠가 하나님 선민이 모두 진리를 깨달아 직접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선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이런 증거만이 하나님이 땅에서 왕권을 잡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출현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적그리스도나 거짓 리더들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을, 형제자매가 권세를 잡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어떤 사역을 하든, 그는 자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자신이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몇몇 사람과 교제해서 모두가 결정하게 하는데 이것이 진리 실행을 의미할 수 있겠느냐? 모두의 결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겠느냐? 이렇게 실행하면 진리가 권세를 잡게 되겠느냐? 하나님 집은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다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는 형제자매에게 의견을 내고 각자의 관점을 의논하도록 한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형제자매가 곧 진리의 대변인이고, 진리의 대명사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분명히 옳지 않다. 하지만 어떤 적그리스도, 거짓 리더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행한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이니 진리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냐? 민주적으로 결정한 일이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란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느냐? 만약 민주주의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와서 진리를 선포할 필요 없이 그냥 민주주의가 권력을 잡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패괴된 인류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실행하더라도 진리를 실행해 낼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행동 방식이 아무리 사람의 뜻과 입맛에 맞아도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본질적으로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철저히 그리스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내세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모두가 교제하는 방식과 민주주의가 권세를 잡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을 대신한다. 이 성질과 결과는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무엇을 교제하든, 사람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더라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시행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는지 주시하다가 결국에는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의 말만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행할지 여부는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대다수 사람이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추종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만 결정권을 쥐고,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권세를 잡지 못하게 교회 사역을 엄밀히 감시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끝내고 사역 안배를 마치고 나면,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는 저희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역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적그리스도는 입만 열면 "형제자매가 다 같이 교제했어요.", "형제자매가 합의를 이루었어요."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진리를 깨닫겠느냐? 형제자매가 누구냐? 사탄에게 깊이 패괴된 무리가 아니더냐? 그들이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그들에게 진리 실제가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들이 진리의 화신이냐? 진리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진리와 관계가 있느냐?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어째서 늘 형제자매를 상전으로 여기는 것이냐? 어째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느냐? 어째서 진리를 근거로 말하거나 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나쁜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형제자매란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눈먼 자가 아니냐? 이제 사람은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고, 많은 사람이 본색을 드러냈다. 모두 사탄에 속하는 족속들이고, 순전히 짐승에 속하는 자들인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정말 눈곱만큼의 진리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적그리스도를 해부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말한다. "거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민망해 보여요. 어떻게 맨날 적그리스도만 해부하십니까?" 해부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부해서 사람이 분별할 줄 알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온갖 이단 사설을 퍼트려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장악해서 독립 왕국을 세울 수 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제했다. 교제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황당한 행동 방식, 터무니없는 관점을 모두 보았다. 적그리스도는 늘 자신이 권세를 잡으려 하지,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을 민주적인 형식으로 바꾸고는, 일이 있으면 모두가 상의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권세 잡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지 않으냐? 진리는 모두가 상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냐?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리스도의 분부를 모두가 상의해서 확정하려 하느냐? 그건 사탄의 음모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론을 퍼트려 사람을 미혹한다. 어떤 사역을 시행하든 모두 자기가 결정해서 완전히 진리 원칙을 위반한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과연 무엇이냐?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의 본질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교만하며, 사람이 최소한 지녀야 할 양심과 이성조차 없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그저 사탄에 속하는 부류이고 마귀라고 할 뿐이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마귀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일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태도로 대한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항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진리를 교제하거나 사람을 분별하거나 사역 임무를 배치할 때 그는 듣고 받아 적으며 무척 진지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온갖 일을 그는 모두 또박또박 적고 여러 가지 표기를 한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진리에 매우 흥미가 있고,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진리를 매우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확고한 것 같다. 이런 표면적인 현상으로부터 이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이 사람의 성품, 본질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느냐? 역시 알 수 없다. 겉으로는 받아 적으며 귀로도 듣고 있지만, 그가 속으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적힌 내용을 보며 그는 생각한다. '이게 다 뭐지? 쓸모 있는 말은 하나도 없군. 한 마디도 수준 높아 보이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 같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도 전혀 없어. 찢어 버리자!' 이것은 일종의 태도가 아니냐? 내가 봤던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동시에 필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시행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시행하지 않았다. 실행해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과 그의 본분에 관계되고, 진입해야 할 것은 그 본인의 진입과 관계가 있지만, 그는 시행해야 할 것도 시행하지 않았고, 개인의 진입은 더더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전부 진리이고,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이고, 전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들 하지만, 매번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 진리나 길은 보이지 않고, 생명이라는 것도 못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이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시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맞춰 볼 수 있습니까? 맞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듣고 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당시에는 왜 적기까지 했을까요? 보아하니 태도도 무척 단정하고, 진지하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은데,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아주 진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속셈은 하나뿐이다. 그는 무성의하게 대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만나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높고 크고, 헤아릴 수 없고, 기묘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정상적이고, 보잘것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씀을 진리, 길, 생명과 연결 지을 수가 없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네가 그에게 더없이 평범한 이 말씀들을 진리로 생각하며 준수하고 실행하라고 하고, 생활의 지침이나 생존의 목표 등으로 삼으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는 속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그는 말한다. "저는 왜 이 평범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할까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게 보이나요? 이건 그저 평범한 말씀 아닌가요? 전부 사람의 언어, 사람의 문자, 사람의 문법이고, 심지어 사람의 표현과 어휘를 사용하고, 또 사람의 속담과 문화를 해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제 눈엔 그게 안 보일까요? 당신들이 모두 진리라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며 맞추고, 다들 받아 적으니까 저도 받아 적긴 하지만, 당신들이 그를 진리로 생각해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진리'가 얼마나 신성한 단어이고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진리에 관계된 것은 곧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일반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도 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느낌도 없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거기서 유익을 얻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뭣 하러 그를 따라야 합니까? 어째서 그의 말씀을 시행해야 합니까? 어째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본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는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도 없고, 더욱이 그 말씀을 실행하지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않는다. 대신 반발하고, 대항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마지못해 조금 적지만, 속으로는 눈곱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접한 후에 "하나님과 마주해서 얘기하고 교제하니 정말 즐거웠어요."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말한다. "그럼 저도 가 봐야겠어요.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표정과 동작, 언사가 어떤 식인지, 거기서 뭘 좀 얻거나 발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사람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봐야겠어요." 이런 태도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대하는데, 그에게 참된 실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구경하러 온 것이지 전혀 진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어찌 보면 길에서 잡담이나 나누는 여자들 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하든 진지하게 대할 필요 없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이런 식이다. "당신은 당신 관점을 얘기하고, 저는 제 관점을 고수하고, 우린 각자의 생각을 침범하지 맙시다. 당신도 날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씀을 받아들일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태도가 아니냐? 이건 무슨 태도냐?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참 이상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지 않고 떠나면 그만 아니냐? 누가 너에게 믿으라고 강요했느냐? 아무도 너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교제하면 곧바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당신은 이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당신은 당신의 견해가 있고, 저는 제 견해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견해가 있는 법이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 단지 일종의 논조에 불과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단지 일종의 학술적인 논조에 불과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아라. (사람이 일 처리하는 원칙이자 방향이고,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지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양식과도 같다. 그는 너의 육을 지탱해서 네가 살아가게 하고, 더욱이 네가 잘 살게 해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 준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일종의 지식이나 논조, 주장이 아니다. 지식, 논조, 그리고 사람의 전통문화는 사람을 패괴시킬 뿐이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싶다면, 표준적이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고 싶다면, 진리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입니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더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반대하고, 반발하고, 정죄한다. 따라서 그는 진리를 얻지 못한다. 그의 사상 관점은 이런 것이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말 한 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실행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뭣 때문에 나는 맞는 말을 해도 남들이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지? 뭣 때문에 당신이 말한 것은 맞고 내가 한 말은 모두 틀렸지? 뭣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진리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단지 지식이고 도리인 거지?'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사실 때문이다. 그건 바로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곧 성육신한 하나님이며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의 말씀을 떠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 그깟 이론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아무런 손해도 없다. 적그리스도의 말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반면 그리스도가 말씀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와서 그저 평범하게 몇 년 생활한 다음 가 버리면 이 인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인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다가 죄 속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점점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역이 끝나는 날 모두 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하려는 말씀을 선포하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공급하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낸다면 이 인류에게 전환의 계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전환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는 뜻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정죄받고 파멸되는 국면에 처한 인류의 상황이 구원의 기회와 희망이 생기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환의 계기가 아니겠느냐? 인류에게 희망이 찾아오고, 인류는 서광을 보게 되었고,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멸하고 징벌할 때 파멸되지 않고 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인류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평범한 사람을 그토록 적대시하고 혐오하게 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로 결정된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성육신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 더 있다. 그는 말한다. "저는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인 걸 보면 관념이 생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은 하나님의 선포이고 진리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념이 생기고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질 경우,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또 쉽게 관념이 생기고, 제가 너무 깊이 패괴된 것으로 드러날 텐데, 만일 하나님께 정죄되기라도 하면 저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역시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낫습니다. 역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교제와 말씀, 특히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땅에서 제멋대로 왕 노릇 하기 위해 속으로 하나님이 하루빨리 땅을 떠나기만 바란다. 적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 이 평범한 사람이 그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그는 속으로 늘 이런 궁리를 한다. '예전에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나 자신이 뭐든 모르는 게 없고, 뭐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달라졌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불쌍하게 느껴져.'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으로 믿는 한편, 그리스도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고 그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만 읽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희망이 생기고, 또한 교회에서 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가졌던 바람이 충족된다. 적그리스도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와 성육신 하나님은 물과 불처럼 영원히 합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자신은 빛을 보기가 힘들고, 정죄되고 도태될 위험, 파멸되고 징벌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지 않고 사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선민이 그리스도를 앙망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생길 것이다. 팔을 휘두르며 크게 외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자신이 왕권을 잡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은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재능의 크고 작음, 재주의 높고 낮음을 겨루고, 누구의 말이 더 위력이 있고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를 겨룬다. 같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도 다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 재주가 있고 학문이 있는 것만 못하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경쟁하고 승패를 가리려고 하는가 하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의 화신이자 진리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들 가운데서 권세를 잡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선민들 가운데 퍼져 나가 시행되지 못하게,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 사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하나님 선민들 사이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여러모로 갖은 애를 쓴다. 마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신들이 푸대접을 받고, 자신들이 교회에서 정죄되고 버림받고 어두운 구석에 방치된 그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본질에서, 성품에서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에게 맞서는 존재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이겨서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스도가 한 모든 사역을 모두 물거품으로, 헛수고로 만들어서 결국 몇 사람 얻지도 못하게 하려 한다. 어디서 사역하든 결과가 없어야 그가 기뻐한다. 만약 그리스도가 선포한 진리를 사람들이 다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암울해지고, 다시는 빛을 볼 날이 없을 것 같아서 마치 지옥에 떨어진 기분을 느낀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본질은 후천적으로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냐?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선천적으로 마귀가 환생한 것이고 마귀가 세상에 온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볼 때,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들 역시 고분고분하게 힘을 들이고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일단 기회가 생기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양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사실이 표면화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이런 일이 발생했고, 특히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 일을 겪거나 목격한 사람도 많다.

2020 년 6 월 27 일

부록 2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는가(1)

1.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보려고 한다. 내가 얘기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에 얘기한 그 주제들과 관계가 있는지 들어 보아라.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니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 옛날이야기들이다. 첫 번째는 노아 이야기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인류가 너무나 깊이 패괴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 귀에 닿자 하나님은 홍수로 이 인류와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하겠다는 것이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운 좋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멸하려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노아였다. 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 시대를 끝내고 이 인류를 멸하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했다. 어떤 일이었느냐? 어느 날, 하나님은 공중에서 노아를 부르며 말했다. "노아야, 이 인류의 악함이 이미 내 귀에 닿았다. 나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려 하노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방주의 크기는 내가 너에게 정확히 알려 줄 테니, 너는 각종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각종 생물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모여들 때 하나님의 날이 곧 오리라. 그때 내가 너에게 신호를 주겠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일을 시행했느냐? 하나님이 얘기한 잣나무를 비롯해서 방주를 만들 때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하는 동시에 온갖 생물을 기를 준비를 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은 노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긴 이후, 노아는 '하나님이 언제쯤 세상을 멸하시려나? 언제 이 세상을 멸한다는 신호를 내게 보내 주시려나?'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모든 사항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긴 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갔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후부터 노아는 하나님이 얘기한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 조금도 태만히 굴지 않고 실행해 나갔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고, 일 년 또 일 년이 흘렀다. 그렇게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중요한 임무를 굳게 지켜 나갔다.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은 석판 위에 글자를 새겨 놓은 듯 노아의 마음에 새겨졌다. 바깥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굳게 지켜 나갔지, 단 한 번도 낙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새겨졌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시행되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하나씩 마련하였고, 방주는 노아의 꾸준한 작업 속에

하나님이 당부한 양식과 규격대로 조금씩 형태를 갖춰 갔다. 비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헐뜯어도 노아는 일 년 또 일 년 그렇게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였다. 하나님은 몰래 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지만, 노아에게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에 의해 감동되었지만 정작 노아 본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각종 생물을 모았다.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지키고 실행해야 할 지고의 명령이자, 그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무엇을 시키든, 어떤 분부를 내리든 그는 전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자신이 일생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했다. 그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전부 시행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준행했다. 그렇게 방주는 나무로 한 조각 한 조각 붙여서 만들어졌다. 노아의 모든 행동, 노아의 매일매일은 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하나님의 분부를 위해 바쳐졌다. 겉으로 볼 때 노아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큰일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노아의 일거수일투족, 나아가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내디딘 모든 발걸음, 그리고 그가 손으로 한 모든 일은 다 귀하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이자 이 인류가 응당 본받아야 할 것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맡긴 부탁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은 참되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방주는 지어졌고, 각종 생물 역시 방주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세상을 멸하기 전,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곧 닥쳐오니 얼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었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렸느냐? (120 년입니다.) 120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냐?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수명으로도 살지 못하는 세월이고, 심지어 두 사람의 나이를 합쳐도 이만큼 산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노아는 120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했고, 매일 똑같은 일만 했다.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아직 정보의 유통이랄 것도 없었던 시대, 모든 것을 사람의 두 손과 노동력에 의지해야 했던 시대에 노아는 그렇게 하루하루 같은 일만 했고, 120 년 동안 포기한 적도, 중단한 적도 없었다. 120 년이란 대체 어떤 개념이냐? 인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120 년이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120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120 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탁을 굳게 지키면서 불평한 적도, 포기한 적도 없고, 어떤 외부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은 채 끝내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똑같이 완수했다면, 이는 어떤 일이냐? 이는 인류 가운데서 희귀할 뿐 아니라 보기 드물고, 심지어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이다. 인류 역사 전체의 기나긴 과정을 통틀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공사의 거대한 규모와 난이도를 보더라도, 공사에 소모된 체력과 에너지, 그리고 공사가 지속된 시간으로 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노아가 한 이 일은 인류 가운데 극히 드문 일이며,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자 본보기이다.

노아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노아는 분명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아는 현대의 과학이나 지식을 알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인류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다. 즉,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할지, 사람의 본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믿음과 순종을 보였다. 오직 그것뿐이었다. 이 몇 가지 단순한 신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한 부탁을 완수하기에 충분했다. 그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 그가 지속한 시간은 몇 달도, 몇 년도, 몇십 년도 아니었다. 백 년이 넘어갔다. 이 수치가 놀랍지 않으냐? 노아 외에 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누군가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아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겠느냐? 왜 노아는 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군가는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노아에게는 패괴 성품이 없었겠느냐? 어째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의 사람들은 할 수 없겠느냐? (지금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지 못하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얼마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인성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성에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정상 인성의 이성이다.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는 것, 이는 처신의 최소한의 기준이자 한 사람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이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의 사람들을 노아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없다면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짐승, 마귀입니다.) 짐승, 마귀라는 말이 듣기 거북할지는 몰라도 사실에 부합한다. 좀 우아하게 말하자면 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성도, 이성도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며, 짐승보다도 못하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부탁을 인생 최대의 중요한 일로 삼아 행하고 굳게 믿으며 백 년 동안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사람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일을 노아에게 맡긴 것이다. 노아처럼 그렇게 인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두 번째를 찾기 힘들다.

노아가 해낸 일은 사실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저 조건 없이 행했으며, 하나님이 시킨 방식 그대로 집행하고 시행했다.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득실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한 말씀만 기억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니 너는 얼른 방주를 만들어라. 완성한 다음 홍수가 닥칠 때 너희는 모두 방주에 오르도록

해라. 방주에 오르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거짓은 단 한 마디도 없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실현될지는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사람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긴 다음 서둘러 시행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생각이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사실이 그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너희를 노아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이다.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인성이 없습니다.) 노아는 사람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즉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었지만, 너희는 갖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아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지만, 너희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엄연한 사실이지만, 너희는 노아가 해낸 일의 절반은 고사하고 한구석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노아는 120 년을 변함없이 지속했는데, 너희는 몇 년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100 년? 50 년? 10 년? 5 년? 2 년? 반년? 누가 반년이라도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한 나무를 찾아서 벌목하고, 나무껍질을 벗겨 응달에서 말린 다음 목재를 갖가지 모양과 크기로 다듬는 일을 너희는 반년이라도 지속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이 반년도 지속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렇다면 석 달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석 달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피부도 약합니다. 숲에는 모기도 있고, 빈대도 있고, 개미도 있고, 벼룩도 있잖아요. 저한테 달려들면 정말 그 고통은 못 견딜 겁니다. 또 매일 나무를 베는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바깥에서 바람과 햇볕을 맞아 가며 하다가는 이틀도 못 가서 햇볕에 타 버리고 말 거예요. 전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분부하실 일 중에 좀 가벼운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분부할 때 네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석 달도 지속하지 못한다면, 네게 진실한 순종이 있겠느냐? 네게 순종하는 실제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석 달도 지속할 수 없다면, 보름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저는 잣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나무를 벨 줄도 몰라요. 벌목할 때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요. 만에 하나 깔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나무를 베고 나서도 전 기껏해야 한두 개 정도밖에는 짊어지지 못해요. 더 많이 짊어졌다가는 어깨랑 허리가 다 작살나지 않겠어요?" 보름도 지속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컴퓨터를 다루고 명령을 내리는 것 말고 뭘 할 줄 아느냐? 노아의 시대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이었겠느냐? 단연코 아니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상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아닌 네가 살아갈 자격이 있겠느냐? 홍수가 닥쳤을 때 너는 살아남을 자격이 있겠느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면 너는 멸망의 대상이다.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는 데 보름도 지속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집행할 수 없다면, 보름도 지속할 수 없고 보름도 고생을 견디지 못한다면 네가 깨달은 그 정도의 진리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단속하는 데 조금의 작용도 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너에게 글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토록 많은 진리를 깨달았으면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고 15 일만 고생하라고 해도 견디지 못하겠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겠느냐?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고통, 그가 지속한 120 년과 비교할 때 너희는 노아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하려는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기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큰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눈에 진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짐작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 눈에 무엇이겠느냐? 사람이겠느냐?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그 답은 매우 분명하다. 자격이 없다! 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15 일로 줄였는데, 겨우 2 주밖에 안 되는데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너희의 믿음, 충성심, 순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 충성심, 순종은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우쭐대지만 내가 볼 땐 너무나 형편없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탄스럽고, 가장 본받을 만한 것은 노아가 120 년 동안이나 굳게 지키며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점이다.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골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를 불렀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노아 역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순조롭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완수했다. 이를 두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요,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너희에게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치욕의 기호이고, 말했을 때 감동의 눈물을 자아낼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노아의 여러 가지 모습, 특히 그가 의혹을 품거나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100 년 동안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100 년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점, 바로 그런 믿음과 의지력은 지금 사람과는 비교 불가이며,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노아의 충성심과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에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구호를 외치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마치 진리를 많이 깨닫고 진리를 얻은 것 같지만 노아와 비교하면 노아가 한 모든 일의 백 분의 일, 천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얼마나 거리가 머냐! 천양지차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에서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아차렸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품성, 어떤 마음,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겠느냐? 노아가 갖춘 것들을 너희는 갖추었느냐? 만약 스스로가 노아의 믿음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조건을 따지고 거래를 한다 해도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전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솔직히 한마디 하겠다. "잘난 체 그만해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눈에 구더기만도 못한 네가 뻔뻔하게 하나님과 조건을 따지고 거래를 하려 드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구더기만도 못하다면, 하나님 집에서 개라도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 너는 하나님 집의 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너는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이 말이 너희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듣고 있자니 기분이 씁쓸하지 않으냐? 이는 일부러 너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으로, 조금도 거짓이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부탁을 이렇게 대한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고, 모두 내 속마음이다. 노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

또 하나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다. 하루는 두 명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사자들의 이번 임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뒤에서 몰래 웃었다. '그건 불가능하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믿지 않았다. 사자는 사라의 웃는 소리를 못 들었겠느냐?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었고, 하나님도 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조용히 관찰했다. 우매하고 무지한 여자인 사라는 그 일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한 일은 사람의 간섭을 받겠느냐?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거절하고, 항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고, 불만이 있고, 믿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에게 해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이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도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그는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만사 만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재한다. 사람이 언제 자식이 생기고 어떤 자식을 얻는지 등을 포함해 이런 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노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은 많은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았다.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인생을 살지, 그의 후대는 어떨지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았고,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변동도 없다. 그러니 한 우매한 여자의 웃음이 무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바를 행하였으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무려 백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는 백 년을 살면서도 아들이 없어서 삶이 무미건조하고 또 무척 쓸쓸했다. 백 살 된 사람이 자식, 특히 아들이 없을 때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내 인생도 완벽하지는 않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인생이 조금 쓸쓸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떠했겠느냐? (기뻤습니다.) 기쁜 나머지 기대로 충만했다. 살아생전에 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해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했다. 이건 정말 기묘한 일인데, 그 기묘한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가 기뻐할 만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느냐? (후대가 생겨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다. 또 가장 기쁜 일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아이는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맞았다.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 주었느냐? "이 아이는 내가 친히 너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전에 약속한 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그 아이의 특별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친히 아브라함에게 알린 점이다. "너는 백 살에 자식을 하나 얻을 것이니, 그 아이는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주는 아이다." 그 아이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알려 준 데다 하나님이 친히 준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냐! 그 아이의 특별한 의의를 사람은 계속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본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었겠느냐? '드디어 자식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셨어!' 태어난 그 아이를 제 손으로 품속에 안았을 때, 그의 맨 처음 느낌은 분명 이랬을 것이다. '나는 사람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서 이 아이를 넘겨받았어. 이 아이는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왔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정성껏 기르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이로 키워야지.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그가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였다. 게다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을지는 지금도 쉽게 상상이 간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식을 몹시 아끼고, 안쓰럽게 여기고, 총애하듯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하나님 말씀이 발화되고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증거하는 자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병이 있고, 하나님이 한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느낀 한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지를 느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기분이 복잡하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가 속으로 하나님에게 하고자 하는 유일한 한 마디, 너희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말이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그는 감격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깊은 감사와 찬미를 바쳤다. 이 아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이루기로 계획하고 결심했고, 이 아이에게서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이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의 발전 과정과 전 인류를 통틀어 그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 가치와 존재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겠느냐?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이삭을 얻은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와 요구대로 정성껏 이삭을 길렀다. 매일 평범한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며 이삭에게 하늘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삭은 조금씩 철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 제단이 놓인 위치도 알았다.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다. 이삭이 막 철이 들면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을 무렵,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이번 제사에는 어린양 대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삭을 보배처럼 아끼는 아브라함에게는 마른하늘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었겠느냐?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물론, 30, 40 세 장년이라 해도 이런 소식을 듣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뭐?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나이가 많고 귀가 먹어서 잘못 들은 건가? 다시 확인해 보자.' 그가 물었다. "하나님, 저더러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이삭이 당신이 원하시는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렇다, 틀림없다!" 재차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 없고,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임을 알았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괴롭지 않았겠느냐?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괴로웠겠느냐? 그는 생각했다. '몇 년 사이 아이가 드디어 자랐는데 산 제물로 바친다면 제단 위에서 어린양처럼 도살당해야 한다는 뜻이야. 도살은 곧 죽음이고, 죽는다는 건 오늘 이후로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말인데....' 여기까지 생각하니 그가 감히 계속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없었습니다.)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계속 생각하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그저 고통일 뿐이었다. 이건 단순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게 아니었다. 며칠, 몇 년은 못 보지만 그래도 자식이 계속 살아 있고, 속으로 걱정은 되지만 자식이 다 크면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자식을 일단 제단 위에 바치면 사라지는 것이고 더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쳐서 돌려보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 아이 없이 쓸쓸하게 지냈는데, 만약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계속 그 아이가 없었다면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겼다가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크다. 그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다! 자식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린다는 것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노는 모습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자식을 기를 수 없고, 즐겁게 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도 지켜볼 수 없고, 자식이 곁에서 함께해 주는 그런 천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남은 것은 오직 고통과 그리움뿐이다. 아브라함은 생각할수록 괴로웠다. 하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농담도 아니고, 잘못될 리도 없어. 바뀌는 일은 더더욱 없어. 게다가 이 아이는 원래부터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람은 마땅히, 그리고 두말없이 돌려 드려야 해. 십 년간 천륜의 즐거움은 특별한 은혜였고,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누렸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돼. 본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야. 사람이 자기 소유로 차지해선 안 되지. 그건 사람의 사유 재산이 아니야.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조건을 달면 안 돼. 하물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친히 알려 주시고 친히 주셨으니 그분이 바치라고 하시면 바쳐야지!'

시간은 일분일초 어김없이 흘러가고 제물을 바쳐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왔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갈수록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점차 차분해졌다. 어째서 차분해졌느냐? 무슨 원인으로 그가 고통에서 빠져나와 마음속으로 이 일을 올바른 태도로 대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람의 태도는 순종이어야 하며 이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는 어린 이삭을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여느 때처럼 준비된 어린양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 이삭이 물었다. "아버지, 오늘 바칠 제물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나요? 그럼 오늘은 뭘 바칠 건가요?" 이삭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했느냐? 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저항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다음 일어난 일련의 일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는 불붙일 나무를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 장면, 그 시점에 제삼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 노인네가 독하기도 하지. 인성도 인간미도 없게시리! 당신 아들인데 정말 모질게 그럴 수 있소? 정말 손댈 수 있겠소? 당신 마음이 그렇게 독하오? 정신이 있소, 없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곁으로 불러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준비해 둔 밧줄을 꺼내 이삭의 손발을 묶었다. 그가 한 일련의 동작을 볼 때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 정말이냐, 거짓이냐? 그는 정말로 바치려고 했고, 불순물은 전혀 없었다. 하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삭을 들어 올렸다.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쳐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직 미성년인 친아들을 제단의 불붙일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은 울고 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바치는 일련의 동작을 하면서 제물로 바칠 물건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 아브라함은 평소 어린양을 잡던 칼을 꺼내 두 손에 움켜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이삭을 겨눴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내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한 자 한 자 그의 마음을 내리눌렀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목숨을 건졌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에게 바쳐질 제물이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다. 하나님이 어린양 한 마리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징조도 미리 보이지 않았다가 그가 칼을 들어 내리꽂으려는 순간에야 그에게 멈추라고 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고, 이삭도 생각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일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번에 제물을 바치려던 건 진심이었느냐, 아니면 거짓이었느냐? (진심입니다.) 진심이었고, 불순물이나 기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쳐도 괜찮고 저 자신을 바쳐도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쳤다. 어떻게 바친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바로 그렇게 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다가 자식이 자란 다음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고 하며 도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 사리에 맞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이건 억지 아닌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주었다가 몇 년 후에는 다시 달라고 하다니. 가져갈 테면 가져갈 거지,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자식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할 것까진 없잖아.' 제단 위에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고, 죽인 다음에는 또 불로 태워야 한다.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몇 가지 일을 네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 손으로 그를 묶고, 네 손으로 그를 제단 위에 올리고, 네 손으로 칼을 들어 그를 죽이고, 그런 다음 다시 네 손으로 불을 붙이고 그를 태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련의 일은 사람이 볼 때 하나도 사람의 뜻에 맞지 않고, 사람의 관념과 머리, 사람의 윤리 철학, 도덕 풍속에 비춰 볼 때 어느 하나 말이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거나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가진 그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고통스러워하고, 또 풀리지 않은 의혹을 좀 품은 것 외에 그가 반기를 들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욕했느냐?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일을 분부한 순간부터 그는 감히 등한시하지 못하고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비하는 동안 그는 어떤 심정이었느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침울했느냐? (고통스럽고 비통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다!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 일을 알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 아브라함은 하루가 일 년 같고, 행복하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으며,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신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나의 주 여호와의 이름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든 그르든, 이삭이 어떻게 생긴 자식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과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에게 일말의 고통도, 일말의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고통스러웠고,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걸 이겨 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친아들, 어린 자식을 제단 앞에 데려왔다. 그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 눈에 새겨졌다. 노아를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한 모든 동작을 지켜봤고, 그 모든 동작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비록 이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의 모범이다. 어째서 인류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진리를 얼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진리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순하게 믿고, 인정하고, 말씀을 따랐다. 그의 인성은 어떤 남다른 것을 갖추었느냐? (피조물의 이성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에 구현되었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이름은 칭송받아 마땅하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관념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상 인성의 양심을 갖추었다. 이 양심은 어디서 구현되었느냐? 그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마땅히 돌려 드려야지 계속 그것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사람이 갖춰야 할 양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 사람들은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에서 구현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람이 그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누리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라고 하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저항하고, 때로는 고생을 싫어하고 힘든 일을 꺼리기도 합니다.) 고생을 싫어하고 힘든 일을 꺼리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유를 대고, 조건을 달고, 거래를 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또 불평하고, 건성으로 대하고, 꾀를 부리고,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지만, 다 헤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여전히 건성으로 대하고, 여전히 대충 때우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꾀부린다.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은혜를 헤아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양심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성이 없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훈계하면 원망스럽고 기분이 상해서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본분을 이행하면서 조금 고생하거나 하나님이 마련한 상황에 약간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바로 싫어한다. 또 하나님이 마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종을 구하지 못하고, 육만 챙기려 하고, 제멋대로 굴려 한다. 이런 게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만 바라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사역을 시행하고 고생을 하면 자격을 내세우고, 높은 데 앉아 지위의 복이나 누리며, 간부티를 내기 시작한다. 또 실질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시행하지 못하면서 그저 지시나 내리고 감투나 쓰려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멋대로 날뛰며 함부로 굴려 한다. 제멋대로 굴고 막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다. 이것이 이성적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훌륭한 자식을 준 다음, 나중에 다시 앗아가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한다면 너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왜 못 합니까? 제 아이는 스무 살이 다 됐는데 저도 그 아이를 하나님 집에 바쳤습니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답니다!" 그걸 지금 바쳤다고 하는 것이냐? 너는 기껏해야 아이가 바른길을 가도록 이끈 것뿐이다. 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 자식이 재난 속에서 죽을까 봐 걱정인 것이다.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건 바치는 게 아니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분부를 듣고 난 다음 그 분부를 집행하는 어려움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또 모든 인류 각자에게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일이 가장 어려우며, 어떤 일도 이보다 어렵지는 않다. 이건 양이나 금전 따위를 바치는 것이 아니다. 몸 이외의 것, 물질적인 것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한순간의 열정으로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그 제물은 한 사람의 목숨, 아브라함의 혈육이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 또한,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이 준 아이였다. 하나님이 준 목적이 무엇이냐? 그를 성인으로 잘 기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라는 뜻이다. 아직 미성년인 그 아이를 지금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시 아이를 준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을 납득할 사람이 있겠느냐? 인류의 관념으로는 납득하지 못한다. 패괴된 인류는 모두 사심이 있기에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도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이 대체 어쩌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일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분부를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구절에 표현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반항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치를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일의 자초지종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다. 이것은 정말 갸륵한 일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 중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초지종도 알려 주지 않았지만 그는 진짜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하든 사람은 묻지 말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말을 아낀다면 사람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런 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어야죠." 이것이 피조물이 지녀야 할 태도이냐?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것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너에게 이해시킬 생각이었으면 진작 알려 주었다. 알려 주지 않은 건 네가 알 필요가 없다. 네가 이해할 필요가 없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려움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의 순종은 사라지고 불평과 오해, 대항만 남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너희의 모습은 정반대다. 그도 너희와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라고 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겠느냐?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모두 비밀이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훤히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에게 물어봐도 사람은 모른다.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해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 그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관찰해도 되고, 미뤄도 되고, 기회를 기다려도 되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도 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인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저도 인권이 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저더러 어리석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도 엄연한 사람이니 당신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자신을 평범한 피조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쪽을 택했다.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는 쪽을 택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면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한다. 들었으면 실행해야 하고, 실행했으면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 마땅히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마음속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의 말씀에 대해 분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네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면 너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분부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고상하고 위대한, 안하무인인 사람들 눈에는 아브라함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였을지라도 말이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친아들의 생명을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단 위에 올려 죽이려 하다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이 얼마나 자격 없고 모진 아비인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 그도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에누리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에 따르고 순종했다. 사람의 관념으로 보든, 패괴된 사람의 눈으로 보든, 하나님이 한 이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든 아브라함은 모두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격,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그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피조물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가장 갸륵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갸륵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현대 과학을 이해하고 있는 데다 전통문화와 패괴된 사회 풍조에 깊이 전염되고 물들고 영향을 받아 활발한 사상과 복잡한 관념을 지니며, 내면이 혼돈하다. 여러 해 동안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임을 인정하고 믿는 이런 전제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오만불손하고 무심한 태도, 무시하는 태도, 보고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하는 태도로 대한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냐? 어떤 일이든 이유를 물으려 하고, 어떤 일이든 자세히 알려 하고, 결말을 알려 하는 게 마치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는 듯하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헌신, 버림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일종의 불굴의 태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하는 모든 분부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너희는 그것들을 지켰느냐? 시행했느냐? 너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만약 속으로 계속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네 신앙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고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일들은 사람이 깊이 토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탐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들 안경을 걸친 현대의 문명인이다. 현대는 어디에 있고, 문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겠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교육 수준도 높고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고전과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압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스라엘도 여러 번 다녀오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만져 봤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라라트 산에 가서 방주 유적도 봤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다고요!"라고 말한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다른 높은 요구는 전혀 없고, 다만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만 요구한다. 이 정도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얘기도 필요 없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야기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 이 두 사람에게서 가장 갸륵한 점이 무엇인지 너희는 생각해 봤느냐?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냐?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밥 먹을 때도, 꿈꿀 때도, 본분을 이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배울 때도 되고 싶습니다. 기도도 정말 여러 번 했고 맹세하는 각서도 썼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를 저주해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제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 알려 주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느냐? 너의 그 '정말 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방적인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마치 한 도박꾼이 매일 도박장을 찾아가 돈을 다 잃고도 또 도박을 하려 하는 것과 같다. 이번 한 번만 끝나면 딱 끊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도 있다. 꿈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또다시 도박장으로 향한다. 매번 도박장에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매번 도박장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평생을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한다. 너희가 이런 도박꾼과 같지 않으냐? 늘 다짐하지만 다짐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버릇이 돼서 이제는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

3.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폭로하다

방금 한 이야기는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에서 너희는 주로 무엇을 깨달았느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줄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너는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피조물,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네가 살아 내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의 실행과 순종을 조금도 볼 수 없다면 '피조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눈에 든 사람'과 같은 몇몇 칭호에 물음표를 그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그려 보니까 네가 구원받을 희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알 수 없고 아주 막연해서 너 자신도 감히 단언하지 못한다. 앞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에 관한 고전적인 이야기 두 개를 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따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읽어 낸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바로 오늘날 사람의 이야기이다. 내가 하는 말 중 어떤 것은 아마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너희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너희의 인격과 존엄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밭 한 뙈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채소를 좀 심으라고 일렀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유기농 채소를 먹을 수 있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채소를 살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이는 좋은 일이 아니냐?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회의 흐름을 멀리하고, 사회의 다툼을 멀리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 다들 마음 놓고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작은 틀에서 봤을 때의 얘기다.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채소를 길러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한 처사다. 나는 채소를 심어서 주변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니냐? 당시 내가 지시한 사람도 내 말을 알아듣고 자주 먹는 채소 몇 가지를 심었다. 내 생각에 채소 심는 일은 간단해서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의 각종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에 나는 그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이 기른 채소를 먹고 있었으며, 먹고 남을 때는 닭에게 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채소를 이렇게 많이 심었으면 생산량이 꽤 됐을 텐데 교회에 나눠 주었느냐? 다른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심은 채소를 먹었느냐?"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 사람들은 채소를 직접 사 먹고 여기서 심은 건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각자 하는 말이 달랐다.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만 먹으면 그만이었다. 참 역겹지 않으냐? 나중에 내가 여기 책임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기른 채소를 너희가 먹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지. 여기는 이렇게 많이 심어서 다 먹지도 못하는데 다른 데는 채소를 사 먹는 게 합당하냐?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채소들은 길러서 너희만 먹을 게 아니라 주변 교회들에게도 나눠 주라고 말이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일을 내가 굳이 여러 번 당부하고 명문화해야 하겠느냐? 내가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모임을 열고 설교까지 해야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이 그만한 마음도 없겠느냐? 그만한 마음도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또 한 번 일렀다. "얼른 나눠 줘야 하니 시행하도록 해라." 그가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한번 보죠." 이런 태도였다. 얼마 후 또다시 그곳에 갔더니 밭에는 온갖 채소가 한가득이었다. 채소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수확한 채소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많아서 다 못 먹을 정도이고 썩은 것도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주변 교회에 나눠 줬는지 물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며 어물쩍 넘기려 했다. 딱 봐도 아무도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들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또다시 그 담당자를 찾아서 도대체 채소를 나눠 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눠 줬다고 했다. 나눠 준 상황이 어떤지 물었더니 그는 다 나눠 줬다고 했다. 여기까지 듣고 너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느냐? 그 사람들은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에 충성심과 책임감이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역겨운데, 더 역겨운 일은 뒤에 나온다. 나중에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채소를 받았는지 또 물어봤더니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낸 것들이 시장에서 버린 채소만도 못했어요. 이파리도

전부 상하고 모래랑 돌까지 섞여서 먹을 수가 없었지요." 너희는 이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속이 끓고 분노가 치밀지 않느냐? (분노가 치밉니다.) 너희도 분노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느냐? 채소는 마지못해 조금씩 나눠 줬는데, 별로 시원치 않았다. 이 나쁜 짓은 누가 저질렀느냐? 여기 어떤 악인이 있어서 그가 나눠 주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내 명령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 "저한테 나눠 주라고 하시길래 상하거나 우리가 안 먹는 것들을 나눠 줬는데, 이것도 나눠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난 뒤 나는 이 마귀 같은 인간을 내보내라고 했다. "이곳이 어떤 곳인데 감히 여기서 제멋대로 날뛰느냐? 여기는 사회도, 자유 시장도 아닌 하나님 집이다. 여기서 행패 부리고 날뛰려면 나가야 한다. 널 용납할 수 없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도록 해라! 될 수 있는 한 멀리 사라지고, 처음 왔던 곳으로 꺼져라!" 너희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처리한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옳으냐? (이런 사람은 인성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인성이 없는데도 어째서 내보내지 않은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이성도 없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지만, 악행을 저지르거나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본분 이행과 교회 생활에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우선 남겨서 봉사하게 하고, 악행을 저질러 방해하고 교란하면 그때 내보내도 늦지 않다. 이 인간은 왜 내보낸 것이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서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하나님 집의 사역에 영향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태해서 본분도 건성으로 이행한다고 했다. 그런 것이냐? 그는 전체 형제자매와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에 맞서고 하나님에 맞서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을 점거하고 하나님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다. 결정권을 갖고 싶으면 좋은 일을 했어야지, 그는 좋은 일은커녕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고 하나님 선민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만 저질렀다. 이런 사람을 너희는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악인을 제명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들은 그자를 간파하지 못하고 속으로 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언급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처리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하나님 집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냐? 너희는 이자가 청경채를 어떤 식으로 땄는지 알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청경채는 통째로 캐내지 않느냐? 잎사귀를 하나씩 따서 먹는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이 괴짜는 통째로 캐내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따서 먹게 했다.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 통째로 캐내지 못하게 했겠느냐? 통째로 캐내면 밭에 빈 공간이 생겨서 다시 땅을 갈고 작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을 줄이려고 잎사귀를 따서 먹게 했다. 그가 이렇게 시켜도 감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노예처럼 그의 말을 따랐고, 그는 거기서 결정권을 휘둘렀다. 너희가 볼 때 그를 내보내지 않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런 자는 남겨 두면 화근이 된다. 그가 간혹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 건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가 한 일은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교란하고 파괴하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는 태생부터가 마귀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자이고, 적그리스도 부류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누군가는 감싸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냐? 역겹지 않으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냐? 사랑이 있으면 네가 그를 먹여 살려라. 사랑이 있으면 그가 입히는 화는 너 혼자 당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는 손해를 입히지 못하게 해라! 사랑이 있으면 그가 정리되어 나갈 때 너도 따라 나가거라. 왜 여기서 비비고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들 무리는 태생이 마귀다! 내가 뭐라고 하든 듣지 않는다.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기어이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기어이 동쪽으로 가면서 나와 맞서기만 한다. 말을 좀 따르는 게 왜 그리 힘든 것이냐? 내가 그에게 채소를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고 그의 몫이 줄어들었느냐? 그가 채소 먹을 권리를 내가 박탈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나눠 주지 않았느냐? 그가 직접 들고 갈 필요도 없고, 별로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는 좋은 건 못 줄망정 상한 걸 주었다. 얼마나 못된 짓이냐?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는 채소를 나눠 주라고 했지 쓰레기를 나눠 주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을, 손만 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하지 못했다. 그게 사람이냐? 그만한 일도 못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순종을 한다는 것이냐! 너는 각을 세우고 대항하면서도 하나님 집에서 비비며 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전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여기서 몇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전부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도 만류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의 입에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너희가 볼 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합니다.) 그는 설령 입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칭송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마귀이고, 외식하는 자이다.

채소를 나눠 주는 사소한 일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물건을 쓰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 먹지 못하는 채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 주라고 했을 때 순종했느냐? 그 말이 시행될 수 있었느냐? 사람에게서는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지만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에게서는 영원히 시행될 수 없다. 그는 생각한다. '이 채소들을 나눠 주면 나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채소를 먹고 나서 다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나한테는 누가 고마워하지? 내가 막후의 영웅이야. 내가 힘을 썼고, 내가 채소를 심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지.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면 내가 심은 채소를 먹을 생각도 말라고!' 그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니냐? 악하지 않으냐? 너무나 악하다! 악인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느냐? 그는 태생이 마귀 사탄이며, 하나님과 대립하며 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를 쫓아내 버리고, 그 대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다.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합당합니다.) 나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내보내지 않으면 그는 일을 그르치고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가 당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못마땅하신 것 아닙니까? 단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만한 일로 사람을 내보내다니요. 그 사람은 사실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상한 채소를 조금 나눠 준 것뿐이고, 또 채소를 나눠 주지 않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적이 두 번 있지요. 그저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는 이만한 일도 따르지 못하고 여기서 훼방을 놓고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 집이고 어느 것도 네 것이 아니다. 이곳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산과 물 중에 네게 지배권이나 결정권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너는 자기가 결정하려 하고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느냐? 네 것은 가져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고, 네 개인적인 물건을 나눠 주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너는 그저 손을 좀 써서 네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 네가 해내지 못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집에서 나가야 하고 제명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이다. 만약 내가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정리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집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이 빈말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란과 훼방과 억지를 일삼는 악마, 적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였느냐? 하나님 집에서 제명하고 출교함으로써 그들을 형제자매의 대열에서 정리해서 내보내고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떠냐? 이 부류의 사람을 정리해서 내보내자 모든 사역이 순조로워졌다. 채소를 먹는 사소한 일에서도 마귀 사탄은 빈틈을 노려서 자신들이 결정하려 하고 제멋대로 하려 했다. 우리는 지금 사소한 일들만 얘기하고 있다. 비록 발생한 일들이 모두 사소하긴 해도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관련되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품이 어떻겠느냐? 정상인의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 이런 자는 인성이 없는 사람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닭을 기르되 닭에게 양식과 채소를 먹이고 방목해서 기르라고 했다. 그렇게 키운 닭에게서 나온 달걀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낫고, 고기도 유기농에다 적어도 호르몬이 없어서 사람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 비록 달걀과 고기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품질은 보장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느냐? (네, 알아들었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얘기한 말 속에 몇 가지 정보가 담겼느냐? 첫째, 이렇게 닭을 기르면 우리는 유기농 달걀을 먹을 수 있다. 얼마를 먹든 적어도 항생제가 든 달걀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달걀에 관한 요구 조건이다. 둘째, 고기에 대한 요구 조건은 호르몬이 없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제시한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요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한 요구는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 후로 병아리를 사다가 길러서 달걀을 낳는 계절에 달걀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항생제 맛이 나는 게 마트에서 파는 달걀 같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닭에게 항생제가 든 먹이를 먹인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나중에 닭 기르는 사람에게 닭들이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물어봤더니 골분을 먹인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닭을 키울 때는 산란을 촉진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인 유기농 사육법대로 방목해서 기르고

정상적으로 산란하게 놔두면 된다. 우리는 달걀을 대량으로 먹으려고 닭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서 유기농 달걀만 먹을 수 있으면 된다. 그저 이 정도의 요구뿐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닭에게 항생제나 호르몬이 들어간 먹이는 주지 말라는 말이고, 닭에게 주는 사료는 다른 곳이랑은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곳에서 기르는 닭은 3 개월이면 다 자라서 도축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알을 낳는다. 그야말로 알 낳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낳은 달걀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 고기가 맛이 있겠느냐? (맛이 없습니다.) 나는 닭을 키울 때 방목해서 기를 것을 요구했다. 닭이 스스로 바깥에서 먹이를 찾게 해서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먹게 놔두고 사람이 곡물이나 식량도 같이 먹이면 비록 달걀의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품질이 좋아져서 닭에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다. 이 요구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냐? 이 말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도 어려움이 없다.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달걀 개수에 대한 요구도 없고, 품질만 좋으면 된다.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들으면 바로 알아듣고, 간단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중에는 행동에 옮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닭 기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겠느냐? 그는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그는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춘 사람이고, 할 수 없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추워졌고, 순리에 따라 닭이 산란을 중단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를 너무나 잘 보여 주는 일이 하나 있었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는데 달걀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서 여전히 매일 달걀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노른자가 원래 색과 다르고, 흰자가 점점 단단해져서 갈수록 맛이 없었다. 어찌 된 일이겠느냐? 내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닭들이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알을 낳고 있는 거냐? 이건 좀 잔인하구나!" 나중에 알아보니 닭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사 온 사료를 먹고 있었다. 그 사료는 닭이 계절에 상관없이 쉬지 않고 알을 낳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말했다. "지금 계절은 닭이 알을 안 낳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달걀을 안 먹어도 되니 닭을 잘 먹여라. 내년 봄에는 또다시 알을 낳을 거고 품질도 좋을 거다. 먹는 거 밝히지 마라. 닭이 계속 알을 낳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겨울에도 달걀을 공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아직도 닭에게 계속 다른 곳에서 산 사료를 먹이는 거냐? 앞으로 그 사료는 먹이지 마라!" 내 말이 분명하지 않으냐? 첫째, 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꼭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둘째, 나는 닭에게 계속 그 사료를 먹여 가며 산란을 촉진하지 말라고 했다. 이만한 요구가 해내기 어려운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또다시 우리가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을 먹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멍청하다. 내가 하는 말을 왜 따르지 않느냐? 닭이 계속 알을 낳고 있었으니 닭에게 먹이는 사료는 분명 그대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일이다.

이것은 닭을 기르는 것에 관한 일이다. 너희는 여기서 어떤 걸 읽어 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거창한 것을 따를 겁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과 관계된 일이죠. 당신이 얘기하는 그 말씀들은 모두 생활의 사소한 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본분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대항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당신 말을 따를지 여부를 선택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 인성의 생활, 가정생활에 대해 당신이 뭘 아십니까? 모르면 발언권이 없으니 우리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는 큰일, 작은 일이 따로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은 마땅히 따라야 하고, 마땅히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따르겠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진리에만 순종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도를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인 그 부분을 준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활에 관계된 그 말씀들, 진리와 무관한 말씀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와 분리시키지 않았느냐? 진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았느냐? 진리를 공허한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나뭇잎의 모양과 색, 꽃의 모양과 색, 만물의 번식과 같은 것들이 진리와 관계가 있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일과 관계가 있느냐? 사람 몸의 구조가 진리와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은 모두 진리와 관계가 없지만,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진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너는 그런 것들의 올바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의 올바름을 부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은 만물의 법칙을 너는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태도는 어때야 하느냐?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 잘 모르는 일이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 옳다. 연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의 법칙을 위배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인류의 구원과 관계없는 생활 습관, 생활 상식, 생활 규칙과 같은 것들은 비록 진리의 등급과 차원에는 닿을 수 없지만, 전부 긍정적인 사물이다. 긍정적인 사물이라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사람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옳은 말이다. 그 밖에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 양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느냐? 마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냐? 위인이나 명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것이냐? 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원인을 물을 필요도 없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따르고, 시행하고, 집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고,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진리를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방금 닭과 달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마이동풍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당신 할 말을 하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 나는 당신이 하는 그런 요구에는 관심 없습니다. 당신에게 달걀만 드리면 되지, 당신이 어떤 달걀을 드시든 내 알 바 아닙니다. 유기농 달걀을 드시고 싶어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꿈을 꾸시는군요. 닭을 기르라고 해서 이렇게 기르는데, 거기다 요구까지 하다니, 얘기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런 자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건 뭘 하자는 것이냐? 뒤집어엎으려는 것이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곳이고 진리가 권세 잡는 곳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직접 얘기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뒤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에서 더욱 불가능한 일까지 이 두 가지 일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너 자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왜 아직도 여기서 비비고 있느냐? 너 자신이 바로 너의 하나님인데, 뭣 하러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내거는 것이냐? 그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에게는 먹히지가 않는다. 그는 귀담아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내면으로 말하자면,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겠느냐? 결코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뜻에 따라 판단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귀 사탄이 너에게 대립하고 사사건건 너와 신경전을 벌이는데 너 같으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사람도 그런 자는 구원하려 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닭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이만한 일에서도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번에는 양에 관한 일을 하나 말해 보려고 한다. 물론 이 역시 사람과 관계된 일이다. 봄이 찾아오자 따뜻한 봄기운에 꽃이 피고, 파릇파릇 풀이 돋고, 초록빛으로 물들며, 모든 것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양들도 겨우내 먹었던 마른 풀이 지겨워서 풀이 새로 돋아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선한 풀을 먹고 싶어 했다. 마침 이 시기에 새끼를 낳은 어미 양은 싱싱한 풀이 더욱 필요했다. 풀의 질이 좋고 양(量)이 많을수록 어미 양의 젖도 잘 나오고, 그만큼 새끼도 빨리 자라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그러면 가을쯤에는 살찐 양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기 마련이다. 사람이 이런 기대를 품으면 어떻게든 좋은 풀을 많이 먹여서 양을 살찌워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초지에 좋은 풀이 없으니 양이 먹어도 빨리 크지 않는구나. 좋은 풀이 어디 없을까?'라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양을 보러 갔는데 새끼 양이 아주 좋아 보였다. 사람을 보더니 달려와서 사람 다리에 앞발을 올리며 위로 올라와 말을 걸려고 했다. 개중에는 뿔이 자란 새끼

양도 있길래 두 뿔을 잡고 놀아 주었다. 그 새끼 양은 괜찮아 보였지만 비쩍 마르고 야위어 있었다. 나는 '새끼 양은 살도 보드랍고 털도 길지 않지만 뜨끈뜨끈한데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풀이 별로 안 좋지 않으냐? 이 초지의 풀은 양들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으냐? 땅을 갈고 새 풀을 좀 심어서 양들이 충분히 먹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싱싱한 풀이 부족해서 지금 마른 풀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이 계절에 아직도 마른 풀을 먹이다니! 어미가 새끼를 낳았으니 싱싱한 풀을 먹여야지 어떻게 아직도 마른 풀을 먹이냐? 해결할 방법은 생각해 봤느냐?"라고 묻자 그는 핑계를 잔뜩 늘어놓았다. 내가 초지를 좀 갈라고 했더니 그는 안 된다고 했다. 초지를 갈면 양이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다. 너희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부담을 조금 느끼지 않느냐? (어떻게든 좋은 초지를 찾거나 다른 곳에서 싱싱한 풀을 베어 와야 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있다. 너는 자기 배가 부르다고 다른 일은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좀 생각해야 한다. 양도 배불리 먹어야 한다. 나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했다. "이 초지를 갈아서 새로 풀을 심을 수는 없느냐? 가을에 심더라도 내년에는 양들이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곳에도 초지가 두 군데 있으니까 매일 양을 몰고 가서 싱싱한 풀을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두 초지를 번갈아가며 이용하면 양들이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잖으냐?" 내가 한 말은 실천하기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실천하기 쉽다고 하는데 어디 그렇게 쉽나요? 많은 양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몰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요." 양을 몰고 가라고 하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핑계나 어려움도 이렇게 많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알았다고 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봤더니 풀이 거의 사람 허리만큼 자라 있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양이 풀을 먹고 있을 텐데 어떻게 풀이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지?' 사정을 알아보니 아예 그곳에 양을 풀어놓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또 핑계를 댔다. "그 초지에는 천막이 없어서 양들이 거기 있으면 햇볕을 많이 받아요." 내가 말했다. "천막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양이 몇 마리나 된다고 그러냐? 너희가 여기서 지내면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그가 말했다. "우리를 만들 사람을 못 구했어요." 내가 "다른 일에는 사람을 잘만 구하던데 이만한 일에는 왜 사람을 못 구한단 말이냐? 사람을 구해 보기나 했느냐? 먹는 것만 밝히고 기르는 것은 나 몰라라 하다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양고기는 먹고 싶어 하면서 양에게는 싱싱한 풀도 안 먹이다니, 어쩜 그렇게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닦달하자 천막이 설치돼서 양들은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양이 싱싱한 풀을 먹는 게 쉽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일도 실행에 옮기는 게 그렇게나 힘들다. 매번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 핑곗거리나 어려움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가서 처리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린다. 나는 늘 확인하고 지켜보고 닦달해야 한다. 닦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마저도 내가 걱정해야 하느냐? 어떤 일이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너희가 말을 좀 따르게 하는 게 어째서 이렇게도 힘드냐? 네게 칼산에 오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라고 했느냐? 아니면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모두 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다. 너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어째서 해내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겠느냐? 내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더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게 시킨 이 일을 방주 만드는 일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건 하루 이틀이면 되는 일이다. 한 마디면 되는 일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백 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만약 너희가 노아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방주를 만드는 동안 너희는 옆에 서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며 그의 발목을 잡을 자들이다. 너희는 분명 그런 부류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네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 깨우침을 주길 바란다. 어쩌면 그렇게 염치가 없느냐? 너희가 볼 때 내가 얘기한 일들 중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너희 사람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에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관여하려 하겠느냐? 나는 의무가 아니라 단지 너희를 위해 관여할 뿐이다. 너희 중에는 이 일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니 내가 많이 신경 써야 하고, 너희는 말씀을 따르고 협력하면 된다. 이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조차도 못 한다. 그러고도 사람이냐?

더 심한 일도 있었다. 어떤 곳에 건물을 짓는데, 높이도 높고 공간도 크고 안에 놓을 물건도 많은 편이라 물건을 쉽게 나르려면 적어도 문이 양문형이어야 하고 높이도 2.4m는 돼야 했다. 정상인이라면 모두 이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단문형에 높이도 1.8m인 문을 설치할 것을 고집했다. 남들이 아무리 제안해도 듣지 않았고, 누가 말해도 소용없었다. 이건 얼간이가 아니냐? 머저리도 그런 머저리가 없었다. 나중에 누가 내게 이 일을 알려 주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양문형 문을 달아야 하고, 문 높이도 더 높여야 한다." 그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다.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그가 뒤에서 뭐라고 했겠느냐? "문을 그렇게 높이 내서 뭐 하려고? 좀 낮으면 어때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문 한 짝은 더 냈는데, 문의 높이는 그대로였다. 문의 높이를 높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높일 수가 없었겠느냐, 아니면 지붕에 닿아서 그런 것이었겠느냐? 어찌 된 일이었겠느냐? 그는 단지 말을 따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의 뜻은 이러했다. '당신이 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른이니 내가 결정해야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뭘 압니까? 당신이 건축을 압니까?' 내가 건축을 모른다고 해서 비율도 볼 줄 모르겠느냐? 건물도 높은데 그렇게 낮은 문을 달면, 키가 190cm인 사람은 들어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문틀에 머리를 박을 텐데, 그게 무슨 문이란 말이냐? 내가 건축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 말해 보아라, 내 의견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으냐? 그는 이런 실용성은 모르고, 그저 아는 것이란 규례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네는 문이 전부 그런데, 어째서 당신 말대로 문을 그렇게 높게 내야 합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필요 없으면 관두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당신 말대로는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너희가 볼 때 이 사람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힘은 좀 쓸 수 있다. 비록 즉시 그를 내쫓지는 않았고, 형제자매도 참고 나도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인성이라면 진리를 깨닫고 말고는 둘째 치고, 그가 하나님 집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계속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쫓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우선 그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 그런 성품이라면 힘을 좀 쓰는 것에도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가 결정하려 할 텐데, 하나님 집에서 그게 통하겠느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집의 기둥이자 대들보라고 생각하며 못된 짓을 일삼고 마음대로 결정하려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굳이 내쫓지 않더라도 오래 머물다 보면 하나님 집에서 언제나 진리와 원칙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흥미를 잃는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늘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게 통하지도 않고 사사건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진리와 원칙을 깨달을 텐데, 그가 제멋대로 굴 때, 그가 늘 어른 행세를 하며 자기가 결정하려 하고 원칙대로 일하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이 멸시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면 그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그는 자신이 이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다고, 자신은 태생적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느낄 것이다. '어쩌다 실수로 그만 하나님 집에 발을 들였을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힘만 좀 쓰면 재난을 피하고 나중에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닐 줄이야!' 그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라서 한동안 지내다 보면 흥미와 의욕을 잃고, 쫓아낼 필요도 없이 제 발로 나가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어째서 뭐든 다 관여하십니까?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참견해서 위신을 세우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 주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볼 때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사실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원래 리더 일꾼의 책임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관여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것이고, 앞으로의 사역에 지장을 줄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말을 따른다면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관여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없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가장 간단한 일을 하나 얘기해 보겠다. 위생이나 생활 환경 관리와 같은 사소한 일을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곳에 갈 때 만약 미리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앞에서 정리해야 하고, 그 와중에 기분도 썩 좋지 않고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미리 알려 준 경우는 가 보면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너희가 뒤에서는 어떤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일이고 정상 인성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한 부분이다. 너희는 모두 이렇게 나태한데 본분을 정말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곳에서는 십 년을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불 개기와 말리기, 청소하기를 가르쳤고, 또 집 안에서 어떻게 난로에 불을 지피는지 가르쳤는데 십 년을 가르쳐도 안 됐다. 내가 가르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양아치 기질이 너무 심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어디 가서든 이불이 개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가 버렸다. 어째서 고개를 돌리고 가 버렸겠느냐? 나는 냄새 나는 것이 싫고 역겹다. 딱 봐도 개돼지 우리만도 못한 곳인데 그런 곳에 내가 뭐 하러 머물겠느냐? 나는 그런 곳에서는 지내지 않는다. 사람은 이런 사소한 문제도 고치기 어렵다.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경우, 지금 분명히 말하자면 너희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네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그렇게 된 까닭을 알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게 말씀하고, 임무를 지시하고 일을 맡긴 다음 너의 행동과 네가 어떻게 차근차근 시행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하나님은 네가 이해했는지, 네가 이 일에 대해 속으로 무슨 호기심이나 의문을 품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네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본다.

한번은 우연히 몇몇 사람에게 프로그램 의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주요 원칙은 의상 색깔과 스타일이 점잖고 단정하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며 너무 괴상하면 안 된다는 것, 돈을 너무 쓸 필요도, 특별한 디자이너가 있을 필요도 없고, 고급 유명 브랜드에 가서 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볼 때, 의상은 입는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고, 점잖고 단정해야 하고, 남 앞에 입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색깔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 무대에서 별로 밝지도 예쁘지도 않거나 보기에 너무 어두운 몇몇 색만 피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괜찮고, 어떤 색이든 규례는 없다. 왜 이런 원칙이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든 만물에는 없는 색이 없다. 꽃과 나무의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모든 식물이 다 나름의 색을 가지고 있다. 새들도 색이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우리는 색깔에 대해 어떤 관념이나 규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얘기해 놓고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또 확인했다. 다들 잘 알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내가 말한 원칙대로 가서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그건 간단하지 않으냐? 그게 거창한 일이냐? 방주를 만드는 일에 비하면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 (작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보다 어려운 일이냐?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 옷에 관한 일이라면 태어나서부터 접하는 것이므로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특히 내가 원칙 범위를 정해 주었으니 사람들이 집행하기가 더 쉬워졌다. 관건은 사람이 내 말을 따르는지, 그대로 하길 원하는지에 달렸다. 얼마 후 프로그램과 영화가 몇 편 만들어졌는데, 주요 인물들의 의상이 모두 파란색이었다. 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다. 꼭 파란색 의상을 입혀야 한다고, 파란색 의상이 아니면 출연시키지 말라고 규정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지시나 지배를 받은 것이냐? 지금 세상의 흐름이 변해서 다들 파란색 옷만 입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각종 색상과 스타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사람들은 어느 색의 옷이나 다 입는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누가 검사했겠느냐? 누가 이 일을 통제했겠느냐? 어느 한 사람이 이 일을 지배하고 있지 않겠느냐? 분명 누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옷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파란색이었던 것이다. 내가 한 말은 전혀 소용없었다. 그는 진작부터

다 정해 놓았다. 어떤 옷이든 전부 파란색이어야 하고 파란색이 아니면 다른 색 옷은 입지 못하게 해 놓았다. 파란색은 영적인 색을 뜻하고, 거룩함을 뜻하고, 하나님 집의 상징적인 색이니 파란색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출연할 엄두도 못 내게 했다.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끝났다. 이렇게나 간단한 일을 내가 일일이 분명하게 얘기해 줬건만, 마지막에는 확인까지 해서 양쪽이 합의를 본 다음에 그 화제를 마무리했건만 결과는 어땠느냐? 내가 한 말이 마치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실행했다. 아무도 내가 한 말을 시행하지도, 지키지도 않았다. 그가 당시 잘 알아들었다고 한 건 무슨 뜻이었겠느냐? 상대를 가지고 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길거리 아낙네들처럼 하루 종일 잡담이나 하는데 나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고 일종의 위험한 신호이고 좋지 않은 신호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 일을 알려 줘야 하니 잘 들어라. 너희의 모습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재난 속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다. 일부는 재난 속에 떨어져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일부는 재난 속에 떨어져 연단을 받을 것이다. 재난은 피할 수 없다. 징벌받은 자들은 바로 죽음에 이르고 멸망할 것이다. 재난 속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만약 재난 속에서 연단을 통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다음 굳게 설 수 있고, 간증이 있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이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는 희망이 없고 위험하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희 입장에서 이는 좋은 일이겠느냐? 요컨대 내 입장에서 이는 좋지 않은 징조이며, 나는 이것을 좋지 않은 신호로 생각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실을 알려 주었으니,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 자유다. 이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 반복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제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고 시행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무척 간단한 일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이다. 물론 네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곧 하늘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태도이고,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려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이는 간단하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존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듣는 것이겠느냐?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실행해 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간단한 것이다. 문자적인 의미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치대로 말해도 쉽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행하는지, 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너희에게 달렸으니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당신을 진솔하게 대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당신을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당신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도 세 가지다. 자세히 듣고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아라.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일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도 된다. 첫째, 너는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계속 내가 한 모든 말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다. 둘째, 너 스스로가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자 그의 신도로 인정했다면 네가 스스로를 이 평범한 성육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둘째는 네가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오직 나만이 너희를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볼 때 내가 진실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게 얘기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항은 전부 여섯 가지인데,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잘 생각해 보아라. 이미 많이 다룬 주제이므로 너희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020 년 7 월 4 일

부록 3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는가(2)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교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 10 조와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는 모습 중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이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줄도 모릅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런 다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교제하셨습니다.) 다들 이해했다. 그렇지 않으냐? 지난번 예배 때 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뤘다. 하나는 노아의 이야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이 둘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대표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해한 다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이야기를 교제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피조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고, 또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요구를 마주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마땅히 어느 위치에 서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주된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두 개의 이야기를 교제함으로써 사람이 알고 깨닫도록 한 진리이다. 그 이야기들을 교제한 후,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어떤 입장, 어떤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과 요구를 대해야 하는지, 여기서 사람은 마땅히 어떤 진리들을 깨달아야 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했느냐? (첫째,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진솔하게 대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규칙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 규칙들을 내가 말해 주지 않을 경우 너희는 내가 얘기한 두 개의 이야기에서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한 가지 결론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단지 간단하고 규례적이고, 이론적 성질을 띠고 있는 행동 방법만 정리해 낼 수 있고, 그 안에 사람이 깨닫고 구해야 할 진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교제해 보도록 하자.

1.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노아의 태도

노아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보겠다. 이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번 교제 때 간략하게 얘기했다. 어째서 간략하게 얘기했느냐? 이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된다. 우리가 교제하려는 것은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안에서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하나님의 태도와 생각은 어땠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어땠는지 등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제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대하는 태도, 노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구원하려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요구 기준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구할 만한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구할 만한 진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부하고, 묵상하고, 교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노아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하는 노아의 여러 가지 태도에서 우리가 구할 만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사람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요구와 뜻이 무엇인지 교제해 보자.

노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평범한 인류 중의 일원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꾸물거리거나 늑장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구절구절을 조심스럽게 또 마음을 다해 들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마음으로 새겨듣고 조금도 태만히 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지 자세히 들었다. 그는 주의 깊게 들었는데, 분석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속으로 거절하고 반감을 품고 귀찮아한 게 아니라 조용히,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말씀, 요구한 일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분부가 끝난 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맡긴,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 방식으로 기록했다. 다음으로 그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원래의 생활 패턴과 계획을 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말씀 중 요구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그는 태만히 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고 맡긴 모든 일의 중점과 세부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숙고했다. 다음으로 노아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모든 재료를 찾으러 가는 일이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분부한 후, 그는 하나님이 맡기고 분부한 모든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안배하고는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계획과 안배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세부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집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눈에 띄는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노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분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하고 요구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후 노아가 보여 준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나 좋은 환경일 때 혹은 유리한 시기일 때를 선택하여 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하던 일 전부를 내려놓고 생활 패턴을 깨며 하나님이 분부한 방주 만드는 일을 앞으로 자신의 생활과 인생 중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실행했다.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소홀함이나 무성의함이 아니고 제멋대로 구는 것도 아니며 거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마음을 다해 기록하고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갖춰야 하는 태도이다. 여기에는 저항, 무성의함이나 제멋대로 구는 것이 없고 사람의 뜻이 섞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완전히 피조된 인류가 갖춰야 할 태도였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각종 재료는 물론 배 만드는 분야의 관계자와 각종 도구를 찾아다녔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공업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 무슨 일이든 인력과 수공업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에 방주와 같은 그런 거대한 물건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맡긴 방주 만드는 일을 완수하려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물론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각종 재료와 도구를 구하는 등의 일들도 간단한 게 아니었다. 노아는 아마 그런 큰 배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노아는 그 부탁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 말씀의 행간,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내용을 보고 이것이 간단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님을 알았다.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한편으로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불러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얘기한 세부 사항을 일일이 살펴볼 때, 이것은 평범한 사람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도록 맡긴 일에서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일을 대하면서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 뜻의 일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 뜻을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생활에 직면할지 예감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리란 사실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었다. 비록 노아는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이 직면하게 될 갖가지 시련이 얼마나 클지를 깨닫고 의식했지만, 속으로 저항하려는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 왜 감사했느냐? 바로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에게 맡겼고, 그것도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친히 알려 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와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노아 본인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 경륜에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노아에게 알려 주었기에 노아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짐들, 하나님이 말씀할 때의 어투,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의 여러 면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이 맡긴 방주 만들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마음으로 깨달았기에 그는 세세한 부분 어느 하나도 감히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를 내리자마자 노아는 계획을 세우고, 방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에 착수하여 인력을 구하고,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살아 있는 생물을 조금씩 방주로 모았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바람과 햇빛과 비, 혹한과 혹서를 견디며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관한 얘기는 잠시

접어 두고, 우선은 방주 제작 공사의 거대한 규모, 온갖 재료 준비,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하자. 이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작업은 사람이 상상하듯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겪어야 했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뜯어내고, 뜯어낸 뒤에는 재료도 다시 준비하고 다시 만들어야 했다. 지금처럼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자 장비를 사용하고 그 설치가 끝나면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었다. 지금은 사람이 하는 이런 수작업이 모두 기계화되어서 기계만 작동시키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원시 사회라 무엇을 만들든 무조건 수작업으로, 자기 힘으로 직접 해야 했다. 두 눈을 사용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정성을 들이고 노동에 의지해야 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구해야 했다. 온갖 어려움을 마주하며 밤낮으로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가 직면해야 했던 건 거대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만이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주변의 다양한 환경,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욕지거리에도 맞서야 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설령 당시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노아가 당시 직면하고 겪은 갖가지 어려움과 그가 마주해야 하는 갖가지 난관에 대해 조금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아는 먼저 가족들의 몰이해에 마주해야 했다. 가족들은 그에게 잔소리와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그다음으로는 일가친척과 벗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 판단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노아의 태도는 단 하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며 언제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노아의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살아 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부탁을 팽개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그가 방주 제작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동력이고, 또 하나님의 분부를 마주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들은 후 보였던 태도다. 온갖 어려움, 곤경, 난관 앞에서도 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고난도의 작업 과정에서 잦은 실패와 손해를 겪고 속으로 힘들고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했던 말씀, 즉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면서 했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높여 줌을 떠올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크게 격려를 받곤 했다.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버려둬선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야. 부탁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해.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육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분부한 내용 하나하나를 항상 가슴에 새겼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든 그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분부한 일만큼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순종의 자세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만들라고 요구한 방주를 계속 만들었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일년 또 일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었지만 노아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결심과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육이 간혹 지치고 피곤해서 병이 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긴 세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으며, 또한 하나의 피조물이자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해야 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실행했다. 전 과정은 사실 겉으로 보면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 즉, 방주 만드는 일,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완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해내고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사람의 열정, 사람의 구호도 필요 없었고, 사람의 충동적인 다짐은 더욱 필요 없었다. 이른바 창조주에 대한 앙모도 필요 없었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었다. 소위 앙모라든가 사람의 다짐, 사람의 열정, 또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유지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 앞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 노아의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 앞에서 사람은 그렇게 빈곤하고 가련하게 보일 수가 없고, 사람이 깨달은 그까짓 도리는 그토록 공허하고 빈약해 보일 수 없고, 나아가 그토록 구차하고 비루하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가 없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120 년을 보냈다. 120 일도 아니고 10 년도 아니고, 20 년도 아닌 120 년이었다. 현재 정상인의 수명보다도 몇십 년 더 길다. 시간의 폭으로 봤을 때, 또 그 일을 완수하는 난이도와 공정의 규모로 봤을 때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일시적인 생각이나 희망, 열정, 막연한 신앙에 불과했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만약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이 구두적인 약속에 불과했다면, 지금 너희처럼 글로만, 펜 끝에서만 적히는 기록에 불과했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그의 순종이 그저 결심이나 다짐, 소망에 불과했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만약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순종이 그저 형식적인 버림이나 헌신, 대가를 치르는 것에 불과했다면, 구호나 이론상으로만 많은 사역을 하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것이었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저 거래였다면, 그저 복과 상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의 열정이 10 년, 20 년 동안 유지될 수는 있다. 50 년, 60 년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20 년, 50 년, 80 년을 유지하는 열정이 순종으로 바뀌지 못하고, 참된 믿음으로 바뀌지도 못하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다. 그런데 노아가 갖춘 참된 믿음과 순종은 바로 현대인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현대인이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코웃음 치는 것이다.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은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데 저마다 얘기할 수 있고 할 말이 있다. 하지만 노아가 무엇을 갖췄는지, 어떤 실행의 길을 갖췄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태도와 하나님의 분부를 대하는 어떤 관점을 갖췄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어떤 인품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현대인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 노아 이야기를 할 때는 노아를 그저 전설 속 인물, 심지어는 평범한 백발 늙은이로 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정말 있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을 가질 뿐,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후 노아가 보인 모습들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 오늘 다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 일을 볼 때 이것은 큰일이냐, 아니면 작은 일이냐? 그저 옛날에 한 늙은이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인류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한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대상이자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오직 한 가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다. 그것은 바로 듣고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는 순종하며,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태도였다. 바로 이렇게 가장 귀한 태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대하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반발하고 거부하다가 뒷전으로 미뤄 두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경청하고 마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할지, 어떻게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뜻에 따라 실행할지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동시에 그는 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부탁이니 책임을 미룰 수 없고 반드시 순종해야 해.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부탁과 그분의 높여 주심 앞에 떳떳할 수 없어.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기신 일을 이번 생에 완수하지 못한다면 여한이 되고,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높여 주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창조주 앞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어.' 노아가 속으로 생각한 것, 그의 모든 관점과 태도는 그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 내고 하나님 말씀을 현실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며, 그를 통해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부탁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노아가 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 그의 마음속에서 나온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신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마음과 생각을 살핀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노아는 잘못된 선택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부탁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는, 전체 인류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방주 만들기와 같은 큰일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노아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갖추었느냐? 사실은 두 가지인데,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는 사람에 대한 요구 기준이다. 간단하지 않으냐? (간단합니다.) 이 유일한 사람은 이런 간단한 두 가지를 갖췄다. 하지만 노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걸 갖추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왜 갖추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지금 가정과 일터를 버렸습니다. 일도 앞날도 학력도 다 마다하고 자식도 재산도 버렸습니다. 저희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한 저희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노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공업이 발달하고 목재나 각종 도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계를 돌려서 뙤약볕 아래서도 작업할 수 있고, 밤낮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만한 일 하나 완성하는 게 대수인가요? 노아는 100 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지

않으시게 시간을 단축해서 10 년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일에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이야 많지요. 저희처럼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고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은 모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만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저희를 너무 하찮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한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과학 기술이 낙후되어 전기도 없고, 현대화된 기계도 없고, 하다못해 전동 드릴, 전기톱, 못도 없었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 부탁을 완수하는 건 저희에게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공중에서 저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가 아니라 열 개도 문제없습니다. 그게 대수인가요?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께서는 분부만 내리십시오. 어떤 요구든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사람도 많은데 방주 하나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열 개고, 스무 개고, 백 개고 원하시는 만큼 다 만들어 드리지요." 이렇게 간단하냐? (아닙니다.) 노아가 유일한 사람이라고만 하면 속으로 그 말에 맞서고 싶어 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없으니 좋게 생각하시고, 지금 사람들은 눈앞에 있지만 그들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시네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 눈에 안 들어오시나 봅니다. 노아는 그저 그런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에 공업이 없어서 일 조금 하는 것도 힘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당신은 노아가 한 일만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그가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지금 사람들이 받는 고통, 당신을 위해 치른 대가는 못 보시고, 지금 저희들의 믿음은 못 보십니다.'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활 환경이 어떤 조건인지를 떠나 이런 물질적인 것과 큰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도 아니고, 네가 어떤 과학 기술을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 네가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들었느냐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추었는지, 참된 순종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두 가지이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너희를 노아의 시대에 갖다 놓으면 누가 그 부탁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장담컨대 너희를 다 합쳐도 그런 일 하나를 해낼 수 없다. 절반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가 재료도 다 준비하기 전에 꽁무니를 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것이다. 소수만이 의지와 열정, 생각의 힘을 빌려 간신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겠느냐? 어떤 동력에 의지해야 견딜 수 있느냐? 참된 믿음과 순종 없이 몇 년이나 견딜 수 있겠느냐? 그건 인품에 달렸다. 인품이 괜찮고 양심이 좀 있으면 8~10 년 혹은 20~30 년 견딜 수 있고, 50 년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50 년이 되면 그는 또 고민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지? 홍수는 언제 닥치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는 언제쯤 나타날까? 평생을 이 일에만 매달렸는데, 만일 홍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평생 고생해 가며 50 년을 견뎠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포기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정죄도 하지 않으실 테니 난 내 삶을 꾸려야겠어. 하나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반응도 없으셔. 하루 종일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당시 천둥 치며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을까? 환각이었을까? 이 일은 언제면 끝날까?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셔. 하늘을 불러도 답이 없고, 땅을 불러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깨우쳐 주지도, 인도해 주지도 않으시니 관두자!' 그래도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시간이 길어지면 의심하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탁, 당시의 일시적인 열정, 다짐은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 삶을 꾸릴 생각에 하나님의 부탁은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방주 만드는 건 어떻게 돼 가느냐고 재촉하면 그는 말할 것이다. "아뿔싸,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어. 얼른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재촉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뒤로 미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이렇게 억지로 때우면서 일하는 태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이가 보여야 할 태도이냐?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옳지 않다. 여기에는 참된 믿음이 없고, 참된 순종은 더더욱 없다.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얘기할 때 너는 일시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한쪽으로 제쳐 두고 독촉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면 네 믿음은 곧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너에게 음성을 발하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 어떤 시찰하는 사역도 하지 않으면 네 믿음은 철저하게 사라지고, 너는 자기 삶을 살려 하고, 자기 경영을 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탁은 뇌리에서 사라지고, 당시의 네 열정, 다짐, 결심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히 큰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다. 한 마디로 신뢰할 가치가 없다. 너는 참된 믿음도 없고 신뢰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기에는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어째서 자격이 없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저희도 하죠. 아마 끝까지 해낼 수도 있을걸요!" 생활에 관한 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 중에 간단한 일이 있더냐? 만약 얼간이나 사기꾼, 무엇이든 건성으로 하는 사람, 부탁을 받고도 언제 어디서든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큰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믿을 만하고 인품이 훌륭해야 하며, 언제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네가 맡긴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완성하고,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도 다른 이에게 일을 맡길 때 이런 사람을 고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큰일 앞에서 방주도 만들어야 하고 남길 가치가 있는 자를 남겨야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겠느냐? 먼저 이론적으로 보자면,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다음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우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사람의 관념, 사람의 입맛과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하나님의 신분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 한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다음 세대에 살아남아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중책을 맡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긴 일을 목숨을 다해 완성할

수 있는 사람, 노아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맡긴 모든 일을 완성한 순간까지 그 기간에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이 사역은 완성할 수 없었고, 이 부탁은 완수할 수 없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과 심산, 또 개인적인 관념을 가졌다면 일 전체가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우선 하나님이 재료의 규격과 품종, 방주의 제작 방식과 방법, 그리고 방주 전체의 규격과 치수 등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얘기했을 때 노아가 만약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큰 물건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 재료들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울까? 정말 피곤하겠군!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수명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나님은 날 가만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라면 해야지 뭐. 방법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대략적으로만 따르면 되겠지. 하나님은 물이 들지 않는 소나무를 찾으라고 하셨어. 모 지역에 그게 있다던데 멀고 위험한 곳이란 말이지. 나무를 찾아서 손에 넣으려면 많이 힘들 테니 근처에서 비슷한 나무나 거의 차이가 없는 나무로 대체하는 게 낫겠어. 위험 부담도 없고 힘들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되지 않겠어?' 노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가 만약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이 참된 순종이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방주를 100 미터 높이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 보자. '100 미터는 너무 높아. 그렇게 높으면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높이를 좀 낮추자. 50 미터로 만들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올라가기도 좀 수월하니까 그래도 되겠지?' 그가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아닙니다.) 노아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찾은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한 세부 내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없었으며 하나님이 요구한 그대로 이행했다. 방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아무리 구하기 어려워도,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제대로 완성하려고 했다. 이 점이 그를 신뢰할 만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신뢰할 만한 부분이 그가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나 개인적인 의사도 없고, 개인적인 심산, 나아가 개인의 관념과 이익은 더더욱 섞이지 않았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아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 머리를 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겠습니까?" 행동에 옮길 때면 어려움이 생긴다. 사람은 늘 생각이 많아지고, 늘 자기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기 쉽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들으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 보니 힘이 든다. 조금만 고생해도 쉽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노아의 인품, 참된 믿음과 순종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요구를 마주할 때 노아가 어떻게 대하고 순종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이 순종 안에는 개인의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행하도록, 왜곡하지도 잔꾀 부리지도 똑똑한 체하지도 않도록, 자기는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위해 계책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분부한 일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호의를 베풀지도 않도록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이것이 실행해야 할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느냐? (백 이십 년입니다.) 백 이십 년이란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각종 살아 있는 생물을 모으는 일 한 가지만 했다. 비록 한 가지밖에 안 되는 많지 않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한 가지 일의 분량은 엄청났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왜 방주를 만들려 했느냐? 그 일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때 각종 생물들을 살려 두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각종 살아 있는 생물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무척 다급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의 어투에서, 또 하나님이 분부한 이 일의 본질로부터 노아는 하나님이 매우 다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절박하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에게 "역병이 닥쳐서 바깥에 널리 퍼졌다. 너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얼른 식량과 마스크를 사는 것이다. 이 몇 가지만 가서 해라."라고 한다면, 너희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일이 절박하지 않으냐?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렸다 해야 하느냐?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급한 일이고 큰일이다.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이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 뜻을 알아차리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던 일을 얼른 멈춰야 한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방금 분부한 이 일은 하나님이 조급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속으로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는 이 일을 서둘러 이행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하며, 다 완성한 다음 다른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순종이다. '전염병이 찾아왔어? 전염될 거라고? 전염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뭘. 전염되면 그때 얘기하지. 마스크와 식량을 사야 한다고? 마스크는 아무 때나 가도 있는데, 착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식량은 아직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리 급한가? 전염병이 닥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고 있는 일로 바쁘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분석한다면 이것이 순종이냐? (아닙니다.)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통칭은 패역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심하게 대하는 것, 저항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럴 리가 없다며 속으로 무시하는 것, 그 일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반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질질 끌고, 무심하게 대하고, 소홀히 대하면서 속으로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리와 관계된 말씀을 하시고,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시면 얼른 받아 적고 잊지 않겠지만, 식량과 마스크를 사는 사소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속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무심하고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당신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되죠.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태도로 대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노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증명할 만한 사실이 있다.

공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무슨 일이든 사람의 두 손으로 하고 이루어야 하는 그 시대에는 어떤 수작업도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일을 들었을 때 일의 심각성과 사태의 위급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것임을 알았다. 왜 멸하려 했겠느냐? 인류가 너무나 사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혐오한 것이 하루 이틀이었겠느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나는 오늘 이 인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이 인류를 멸할 것이니 너는 어서 가서 방주를 만들거라."라고 했겠느냐? 아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은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증오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절실한 마음으로 이 인류를 멸해 인류가 새로이 시작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인류를 만들길 원치 않았다. 노아를 다음 시대의 주인인 인류의 조상으로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 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절실한 뜻과 절박한 마음을 느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주의 깊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듣는 것은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정서가 더 있었다. 어떤 정서이냐? 바로 조바심이다. 이것은 진정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절박한 마음을 느꼈을 때 가져야 할 심정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후 노아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다. '오늘부터는 그 어떤 일보다도 방주 만드는 일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야. 나는 창조주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고, 창조주의 절박한 마음을 느꼈어. 그러니 시간을 끌지 말고, 되도록 빨리 그분이 얘기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야 해.' 노아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감히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행했느냐?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급적 빨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분부한 모든 세부 사항대로 처리하고 이행했다. 조금도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쨌든 노아는 창조주의 분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심히 대하지 않고, 속으로 저항하지도 않고, 본체만체하지도 않았다.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동시에 창조주의 뜻을 깨닫는 데 마음을 기울였다. 하나님의 절박한 뜻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욱 서둘러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가급적 빨리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빨리란 어떤 것이냐? 예전 같으면 한 달이 걸리는 일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아마도 3~5 일 더 일찍 완성하는 것이었고, 전혀 질질 끌지 않으며 뒤로 미루는 일도 없이 모든 진도를 최대한 밀고 나가는 것이었다. 물론 작업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손실과 착오를 줄이고 최대한 가급적 다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작업과 제작 공정을 제때 완성하고, 제때 잘 마무리하고, 품질을 보증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꾸물대지 않기'의 실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 '꾸물대지 않기'는 어떤 것을 전제로 도달한 것이냐? (하나님의 분부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전제와 배경 아래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아가 '꾸물대지 않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이들은 노아에게 참된 순종이

있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내면에 어떤 것을 갖추었기에 그런 참된 순종에 도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있다는 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바보다. 그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바심을 내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어쨌든 놀거나 게으름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 조금도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다. 그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겠느냐? 분명 없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힘을 좀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내면에 양심과 이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며, 노아는 이를 갖추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만약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질질 끌어 작업 효율이 전혀 없다면, 방주를 만드는 데 몇 년이나 걸렸겠느냐? 백 년이면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몇 대에 걸쳐 쉬지 않고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이 고정적 물체인 방주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외에 각 종류의 살아 있는 생물을 모으고 기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살아 있는 이런 생물들을 모으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다 쉽지 않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 분부를 듣고 하나님의 절실한 뜻을 깨달은 후, 이 일이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이 흡족하고 안심하도록,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일을 잘 해내고 하나님이 맡긴 부탁을 잘 완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마음이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었다. 방주를 만드는 태도에서 볼 때 노아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백 년 동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덕분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 노아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이 절대적인 순종 안에 담긴 세부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헤아림이다. 너희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는 도리를 얘기하고 구호를 외칠 줄만 알지 실행할 줄 모른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행하지 못한다. 얘기할 때는 꽤 분명하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해야 할 때는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소극적이 되고, 조금만 고생스러워도 불평하며 내팽개치려 한다. 8~10 년이 되어도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다. 20 년이 지났는데도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노아는 방주를 만든 지 백 년이 지나도 소극적이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정상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노아와 같은 인품이 결여되었다. 노아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너희보다 많이 깨달았겠느냐? 너희가 들은 설교는 너무나도 많다.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의 세 단계 사역의 내막, 하나님의 경륜,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깊은 비밀, 최고의 비밀을 모두 알게 했는데,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노아와 같은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도 노아가 해내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인성은 노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너희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고, 인성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너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품과 사람의 패괴 성품은 설교를 많이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즉시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일들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사람은 자신이 고대 성도들보다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탁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도 듣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우리도 진지하게 대하고 있어. 다 같이 교제하고, 그런 다음 계획하고 배치하고 이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 옛 성현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보면 차이가 크냐, 작으냐? 너무나 차이가 나며, 주로 인품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요즘 사람들은 패괴가 너무 깊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이익만 밝힐 줄 알지,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예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본분을 이행하려 해도 의지가 없고, 수고하려 해도 견디지 못하고, 대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르지 못하고, 진리를 실행하려 해도 실행해 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성이냐!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갖추어야 채워질 수 있단 말이냐?

지금까지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일에 대해 교제했는데, 이것은 그의 인성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방주를 만들어 기념한다든가 놀이 장소 혹은 커다란 구조물을 지어서 지표로 삼는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얘기한 사건으로부터 노아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이 이 사악한 인류를 혐오해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려고 뜻을 굳혔고, 다음 시대에 살아남게 되는 사람은 이 방주에 의지해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의 주된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와 함께 각종 살아 있는 생물들을 살려 두고, 이 인류는 멸하려 했다. 이는 큰 사건이 아니냐? 그건 집안의 잡다한 일, 어느 한 개인이나 종족에 관계된 사소한 일이 아닌, 중대한 일에 관계된 일이다. 중대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계된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큰일을 하려 하는데, 이 일은 인류 전체와 관계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경영과도 관계가 있고,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인류 전체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을 때 노아가 알게 된 세 번째 정보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일을 들은 다음 노아의 태도는 어땠느냐? 믿었느냐, 아니면 의심했느냐, 아니면 전혀 믿지 않았느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정도였느냐? 그가 그 일을 믿었다는 건 어떤 사실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이행한 정도, 실행한 정도에서 궁극적인 기정사실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모습을 볼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어째서 의심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그 일을 분석하지 않고 속으로 연구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일,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간단하게 듣고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라 내면 깊이 참된 인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비록 홍수가 언제, 몇 년 뒤에 닥칠지, 규모는 얼마나 될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한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세세한 내용은 알려 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정사실로 믿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이야기나 전설, 주장, 글을 대하듯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결심한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내면 깊이 믿고 확신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오직 하나, 즉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협력하라고 하는 일에 잘 협력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노아의 태도였다. 바로 노아에게 이런 태도가 있었기에, 즉 그가 분석도 연구도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이루려는 사실에 협력하기로 결심했기에 궁극적으로 방주가 완성되고 각종 살아 있는 생물이 수용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했을 때, 본 적도 없고 그 일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안에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가 의문을 품고 감히 완전히 믿지 못했다면, 방주를 만드는 마음가짐과 믿음에 영향이 가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요구한 규격대로 하지 않고 날림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한 살아 있는 생물들을 모두 방주 안에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암수 한 쌍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암컷만 있어도 되겠지요. 못 찾는 건 그냥 두겠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각종 살아 있는 생물을 모으는 큰일은 백 이십 년이 걸렸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가 백 이십 년을 지속할 수 있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외부 세계의 간섭, 가족들의 온갖 원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은 완성하기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물며 백 이십 년을 지속하려면 오죽하겠느냐. 지난번 너희에게 그 시간이 기냐고 물었더니 다들 그렇다고 했다. 너희에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고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보름은 버틸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마저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무척이나 실망했다. 너희는 노아만큼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10 분의 1 도 갖추지 못했다. 너무나 가련하구나! 우선은 너희 인성과 인격이 너무 저열하고, 또 한편으로 너희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면이 기본적으로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참된 순종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교제할 때 여전히 여기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두 가지를 갖췄다. 하나는, 대부분이 아직은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좋은 길을 가고자 한다. 그나마 이런 의지와 좋은 바람이 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이냐? 바깥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의욕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다가 바깥이 잠잠해지면 곧 편안함만 즐기면서 본분에 대한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육적인 것을 좇는다. 노아의 참된 믿음과 비교할 때 너희의 그런 모습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다. 설령 믿음이 약간 있다고 해도 불쌍할 만큼 작아서 시련의 검증을 버티지 못한다.

나는 사역지침을 내리지는 않지만 사역지침 내용 앞에 다음과 같은 말이 서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각국의 정세는 심각하고 혼란스러우며 세상의 조류는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징벌하려 하시니 우리는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재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병의 고통과 사망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전염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지금 이런 정세와 상황 앞에서 선행을 제대로 예비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올해는 충해가 무척 심각합니다. 인류는 기근에 직면할 것이고, 그러면 곧 사방에서 강도가 끊이지 않아서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영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과 같은 서론 말이다. 이런 식의 서론이 끝나면 바로 구체적인 지침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사역지침 내용 앞에 붙는 이런 서론은 사람의 믿음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나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역지침 앞에 이렇게 서론이나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것이냐? 서론을 첨가하지 않으면 사역지침이 사역지침이 아닌 것이냐? 사역지침을 내리는 이유가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대답은 분명하다. 지금 난 궁금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의의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창조주가 요구하는 각각의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은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냐? 만약 노아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피조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쓴 기준에 따르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닌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과 경배가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인류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육신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가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것인데, 바로 이런 본질이다. 매번 사역지침에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믿음'은 커진다. 매번 사역지침이 내려오고, 사람이 사역지침의 요구와 의의를 이해한 다음 사역지침에 따라 이행할 수 있게 될 경우, 사람은 자신이 조금 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에게 순종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람에게 믿음과 참된 순종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만약 노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사람이 말하는 이런 믿음과 순종은 과연 무엇이냐? 사실상 일종의 거래이다. 어디 믿음이나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말세가 왔으니 하나님이 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를 만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고, 치명적인 재난에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사람을 정말 높여 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재난에 떨어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 줄 수 없어요." 네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네 순종도 참된 순종이 아니다. 모두 남을 속이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노아의 참된 믿음과 순종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누가 알고 누가 관심을 가지느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번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한 다음, 다시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 읽어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노아, 아브라함, 욥,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 행위의 본질,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너희는 자세히 교제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나는 욥의 이야기를 진작부터 읽었고,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조금 알고 있다. 이 세 인물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나타낸 모습,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 날 것 같은 감동을 받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볼 때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 교제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시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욥이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백 살 때 아들을 하나 얻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인성, 그들의 양심과 이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무척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교제하실 때 노아가 백 이십 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지속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본분을 대하는 태도와 대조해 볼 때 저희는 꾸준히 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서 속으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들 감동받았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화제는 잠시 접어 두겠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교제가 끝나면 그때 다시 교류해 보기로 하자. 너희에게 내가 감동받은 부분이 어딘지 알려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동받은 부분이 같은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방금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참된 믿음에 대해 교제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정사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었다. 노아의 참된 믿음은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한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참된 믿음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그의 관념에 맞든 안 맞든, 그가 생활하면서 하려고 계획한 것이든 아니든, 또 그의 생활 내용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든, 나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 그의 유일한 태도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 있는 여러 생물을 구하고 자신의 일가족을 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인류를 멸하기 시작했을 때 방주는 노아의 일가족과 살아 있는 여러 생물을 싣고 물 위를 떠다녔다. 하나님은 40 일 동안 폭우를 내려 세상을 멸하였고,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방주에 들어간 살아 있는 여러 생물들만 살아남고 그외의 사람들과 생물들은 모두 멸망되었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느냐? 노아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즉 노아가 하나님에게 진실로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현실로 바꿀 수 있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맡긴 중요한 부탁을 저버리지 않고 완성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분부 때문이다. 또 하나는 주로 노아 본인의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귀중한 이 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한 참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에 마땅히 살아남아야 할 사람,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었다. 그 말은 곧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은 만물 가운데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는 노아에게 있는 고귀한 인품, 그가 갖춘 양심과 이성을 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참된 믿음과 순종을 보았다. 이것은 모두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부탁을 대할 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자 복받은 일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누리도록 베풀어 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피조된 인간,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2.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후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중요한 일은 후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친 일이다. 인품, 믿음, 순종 등 그가 이 일에서 보인 여러 가지 측면은 후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가 보인 여러 가지 면은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더욱이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다. 이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그에게 직접 알려 주었고, 아브라함은 백 살이라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경위는 분명 평범하지 않고, 여느

누구와도 다르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 준 아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 준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큰일을 하거나 큰 부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고, 특별한 일을 하거나 아이를 남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뜻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이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 준 하나님은 제사 때 아브라함에게 일렀다. "오늘은 아무것도 바치지 마라. 이삭을 바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었다가 그 아들이 장성하자 도로 거두어 가겠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입장은 이렇다. "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전 믿지 않았지만 굳이 당신이 주셨죠. 그런데 이젠 또 바치라 하시니, 이는 다시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까?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거둬 가시면 됩니다. 저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진 마셔야죠. 왜 굳이 제 손으로 바치라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러시는 건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셔 놓고 또 당신이 달라고 하시는군요. 무조건 당신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하시는 건 뭐든 옳습니까? 꼭 그렇진 않지요. 사람 목숨은 모두 당신 손안에 있지요. 당신이 준다면 주는 거였죠. 당신에게는 그럴 권병이 있고, 달라고 하실 때도 그럴 권병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시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당신이 주셨으니 장성해서 큰일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축복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어째서 이 아이를 죽게 하려 하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때 왜 주셨습니까? 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바치라니요. 제 고통을 가중하는 것 아닙니까? 저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신이 저에게 이 아들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이치는 아무리 따져 본들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사리에 맞지 않는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 담긴 도리를 얘기해 주었느냐? 그 일의 전후 사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 주었느냐? 하나님은 알려 주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내일 제사 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었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신분에 비춰 볼 때, 그 말씀은 명령이니 사람은 마땅히 이행하고 따르며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한 그 말씀, 그 일을 볼 때, 사람이 이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냐?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람의 감정과 세상의 모든 인간의 감정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런 요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설명해 주거나 말씀의 행간에서 조금이라도 읽어 낼 수 있게 해 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고 얘기할 생각도 없었다. 이 말씀에는 창조주의 요구와 사람을 향한 창조주의 명령이 담겨 있고, 사람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도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단순한 말씀, 도리에 어긋나는 말씀, 그리고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 명령과 요구는, 다른 사람이나 여느 방관자에게 그저 어렵고 힘들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맨 먼저 받은 느낌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나님이 내려 준 아들을 얻고 오랫동안 키우면서

가족끼리 기쁨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 명령 하나로 이런 행복과 멀쩡하게 살아 있는 아들을 잃게 생겼고, 빼앗기게 생겼다. 그는 가족 간의 기쁨은 물론 아들까지 잃은 뒤 영원히 지속될 고독과 그리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연로한 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죽도록 울지 않겠느냐? 또한 속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오해하며, 하나님과 따지고 들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사람의 모든 역량, 모든 패역과 난폭함이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또한 아들을 잃어버린 후의 고독을 느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의 뜻에 맞지 않았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인정상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사람의 어려움이나 감정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고통은 더더욱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말씀을 냉정하게 내뱉다니, 하나님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신경 쓴 것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 들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였다. 이 요구는 어느 누가 봐도 사람의 문화, 풍속, 인정에 맞지 않고, 심지어 사람의 도덕적 윤리관에도 맞지 않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삶의 도리와 인간의 감정을 무너뜨렸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람의 도덕과도 맞지 않아. 더욱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하나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으시지?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사리에 맞아서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윤리나 논리에 어긋나는 말씀은 당치도 않지. 그게 정말 창조주가 하신 말씀일까?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나? 창조주가 그분이 만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실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태도나 말투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의논의 여지도 없고, 사람이 선택할 권리도 없다.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요구이며,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의 명령이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확고한 요구였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하려는 핵심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고통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일을 준비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이 아들은 당신이 주셨으니 당신이 거두어 가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돌려 드려야지요.'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말에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지 않으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상 인성의 연약함, 정상 인성의 감정적 필요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일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참된 믿음과 순종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의 이성적인 일면은 무엇이냐? 이삭은 하나님이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사람은 어떤 평가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다. 창조주가 하는 모든 말씀은 창조주를 대변한다. 사람이 보기에 사리에 맞든 안 맞든, 사람의 지식과 문화, 도덕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 말씀의 성질은 달라질 수 없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사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그의 의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만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일을 대할 때 그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태도이며, 그 안에는 그의 정상 인성의 이성 그리고 그의 참된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다. 그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농담인지, 그에 대한 시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연구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추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리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선택의 여지도, 연구할 나위도 없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사람이 갖춰야 할 이성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창조주의 신분과 본질, 피조된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성과 태도를 갖추었기에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추호의 망설임 없이 결연하게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려 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의도나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할 때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다. 여기서 가장 하기 어려운 면이 곧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면이었다.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은 사리나 사람의 뜻에 맞지 않고,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도 말이 안 되고, 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연구할 것이고, 며칠 연구한 다음에는 이런 고민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비합리적이야. 어쩜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 이건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어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않겠어.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을 택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점이다. 이는 그의 참된 순종의 일면이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우선 한 가지를 확신했다.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그것은 진짜라고 굳게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농담이나 시험, 사람을 괴롭히는 말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신실하니 사리에 맞든 안 맞든 그의 말씀은 전부 진짜라고 굳게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가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삭을 얻고도 제대로 감사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성의를 표시하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제대로 보여 드려야지.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의향을 보여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 쓰시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 날 테스트하고 검증하시려는 거니 나는 형식을 좀 갖추면 돼. 그 일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 양도 한 마리 가져가고 이삭도 데려가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면 양을 바쳐서

구색만 맞추면 되겠지. 만약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바치는 시늉을 하면 될 거야.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양을 바치고 이삭은 바치지 않아도 좋다고 하시겠지.'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느냐?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의 인격이 어떤 것이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참된 순종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 때문에 마음속으로 받은 고통, 마음속에 생겨난 고통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면 깊이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을 지닌 점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유일한 태도는 청종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랐던 것이다. 가령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검다고 했을 때는 설령 자기 눈에 검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믿고 그것을 검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희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희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이토록 단순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내려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 백 살인데 아이를 내려 주신다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그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 안에 들어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하나님의 신분을 믿었다. 창조주에 대한 그의 인식은 진실된 것이었다. 그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된 것 아니었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걸 사람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이야.'라며 의심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반신반의한다. 그들은 눈으로 봐야만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하고, 무엇이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속으로 물음표를 그린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사실, 모든 일, 모든 분부를 꼼꼼히, 집중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과학을 연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연구해서 그 말씀들이 과연 진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랬다가는 속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들었다. 단지 당시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뿐, 그의 선택은 여전히 순종이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고, 피조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조된 인간에게 선택권이란 없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였다. 비록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내심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 때문에 극도의 중압감과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쪽을 택했다. 왜 돌려보내려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야 먼저 나서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사람은 이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다. 그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에서 보여 준 모습, 그가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자 테스트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았다. 일의 전말, 경과나 일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알았던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행사가 그를 검증하는 것인 줄 몰랐고, 이 검증을 받은 후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대에게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지 않고 그저 간단한 한 마디로 분부하고 요구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간단하고 사람의 뜻에 맞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애틋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창조주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방식을 선택했다. 그것은 창조주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유나 어떤 부가적인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떤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냐?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창조주가 곧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자 그의 주이며,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고 인류를 창조했음을 확신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둘째,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가 한 모든 말씀을 믿었으며 간단하게 직접 창조주가 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셋째, 창조주가 요구한 일이 얼마나 어렵든,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든 간에 그는 순종을 선택했다. 이치를 따지거나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구절과 하달한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실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보려는 대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바쳤다. 그가 한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이 옳고 하나님 눈에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일에서 드러난 창조주의 성품과 본질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의 요구 기준에 따라 의인을 대하고 그의 검증을 통해 선택된 사람을 대한다는 점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 기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어지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정확히 맞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일상에서 보인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이 보기에 충분치 않았다.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에게서 참된 순종을 보려 했느냐? 어째서 그에게 이 최후의 검증을 겪도록 했느냐?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있다.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자, 혹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모두 같은데, 바로 참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려는데 그에게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무모하게 일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려 준 후 아브라함은 그런 검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고,

이미 계획한 일이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바라던 대로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다음 사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고, 결과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나온 후, 아브라함이 갖춘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는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받도록 계획한 모든 축복을 이어받게 될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 이 일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거나 자신의 경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부탁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때는 그 사람에게 요구 기준이 있고 기대가 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하나는 너에게 요구한 일을 네가 이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에게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계속 성취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참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사람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든 어렵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네가 이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합격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일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너에게 요구하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고, 또 참된 믿음과 이성을 갖춘 좋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 검증은 인간이 보기에 사람의 뜻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지만 바로 이렇게 '사람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성품과 본질이 구현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검증을 거친 것이다. 아브라함은 검증 과정에서 창조주에 대한 그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에게 보임으로써 검증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은 평소 큰 풍파를 겪어 본 경험이 없었으나, 당시 하나님의 그런 검증을 거치면서 그가 평소에 지닌 믿음과 순종은 겉치레나 구호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한 상황에서 그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은 어떤 요소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니 사람에게는 창조주에게 맞서고 이치를 따지며 우열을 다툴 자격이나 창조주의 말씀을 분석할 자격이 없고,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그 어떤 요구에 대해 선택할 권리도 없다. 사람은 오직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참된 믿음이 참된 순종을 낳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든,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든, 그가 보고 들은 일이나 직접 겪은 일이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참된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그의 태도에는 더더욱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창조주가 사람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인간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담은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반발하며, 분석하고, 연구하며, 심지어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은 변치 않았다. 말과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임을 사실로 증명했다. 아브라함이 나타낸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느냐? 그가 의구심을 가졌더냐? 연구했더냐? 분석했더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연구도, 분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괴롭답니까?" 그렇다면 너는 사람이 괴로워도 안 된다는 말이냐? 그는 그렇게 괴로워도 순종했는데 네가 괴롭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그의 순종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그 순종이 진짜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는 피조된 인간이 사탄과 만물,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한 것이며, 이 증거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언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떤 점에서 후대 사람들을 감동시키느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부와 요구를 들은 후 그들이 한 말과 행동, 태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대하고 창조주를 대하는 그들의 진심이 그토록 단순하고 한결같다는 점이다. 그 안에 담긴 단순함과 한결같음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통하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의 그 단순함과 한결같음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자 가장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고, 나아가 남들은 엄두도 못 낼 부분이다. 그 세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사람의 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그들의 언행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들이 보인 태도에서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 완전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가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난 뒤,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무엇이었겠느냐? 그런 그들에 대한 깊은 추모의 감정, 깊은 그리움과 추대였다. 이것은 일종의 감동적인 기분이기도 하지 않으냐?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들었겠느냐? 기나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역사책도 전혀 없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을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말씀을 듣고, 각기 다른 부탁과 요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위해 각기 다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맡긴 각기 다른 일을 완수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들은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부탁과 요구를 받아들인 다음,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 그들이 귀담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들은 인류의 모범이고, 하나님 눈에 완전한 사람, 의인이기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창조주의 말씀을 정성 들여 듣고, 정성 들여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검증과 시련이 얼마나 크든, 그들이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손안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보기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이다. 이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에게 알려 주려는 것이고, 또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오랫동안 따르고도 창조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것이 일종의 책임과 의무, 본분임을 모르고,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된 인류가 갖추어야 할 태도임을 모르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태시키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고 그런 사람들을 혐오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있는 만큼 해당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르고도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고, 육신으로 하는 말씀이든 영계에서 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태되는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한 지 벌써 30 년이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진리를 선포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하든, 말씀하는 내용이 얼마나 되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는 단 하나,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니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다. 인류가 너무나 깊이 패괴되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구원받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맞서고, 대항하며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절하고, 또 무심하게 대하며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사역하시면서 왜 늘 진리를 선포하십니까? 왜 늘 저희에게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실 때는 당연히 저희와 상의하셔야 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당신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인권을 원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제시한 요구는 저희가 거수로 결정하고 또 다 같이 의논해서 의견을 일치시킨 다음 다시 얘기해야죠. 하나님 집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고 다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보인다. 비록 입으로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고,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할 자격이 없다면, 누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만약 네가 하늘의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공중에서 천둥 치는 방식으로 너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게는 너무 잘된 일이다. 내가 간절하게 입이 닳도록 너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나도 더 이상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가 하늘의 하나님은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너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듣고, 찾아라. 하늘의 하나님이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불 속에서 너에게 말씀하기를 기다려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네가 정말 그날을 맞이했다면 너의 죽을 때가 온 것이다. 그날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몸소 땅에서 사람과 마주보며 말씀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었지만, 사람은 오히려 멸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속으로 몰래 겨루고 반발한다. 하나님이 땅에 오면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이 속으로 기뻐하겠느냐, 화가 나겠느냐? (화가 나실 겁니다.)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잘 알겠느냐? 하나님의 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은 위험하다. 너희가 볼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품겠느냐?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진노를 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품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반감을 품고, 구원하지 않으려 한다. 알겠느냐? 하나님, 성육신, 진리 이 세 가지를 대할 때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간단한 일이 없다. 말씀을 듣고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스스로 계속 구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바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실행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듣고 끝이 아니다.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고, 노트에 적어 두고, 말 그대로 기억하고, 귀로는 들었지만 정작 마음에는 담아 두지 않고, 실행해야 할 때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을 따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노트에 적어 둔 그 말들은 모두 까맣게 잊은 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진정한 순종은 정성을 다해 듣고 이해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 즉 당연히 해야 할 책임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로만 받아들인다고 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후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기 위해 생각하고, 일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이행이란 이런 것이다. 순종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실행하고 이행하여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한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노트에 기록하고 종이에 받아 적더라도 정작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겉으로 볼 때 그 일은 네가 했어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된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패역이다.

한번은 누군가에게 일을 하나 맡긴 적이 있다.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아주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었다.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보니 사역에 부담이 있고, 진지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갖춘 듯했다. 일을 맡긴 뒤 그의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했지만, 보름이 훌쩍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내가 먼저 그를 찾아 맡긴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은 고작 그런 태도로 일을 처리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너는 당장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심정이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겠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꾼의 거짓말과 연결 짓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하며, 뱉은 말은 꼭 지킨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은 대로 곧장 실행할 수 있느냐?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하나 아주 중요하며,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실행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람과 상의하겠느냐? 절대로 아니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겠느냐? 절대로 아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탁이 하나의 명령임을, 사람이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의무감을 갖고 실행하며 집행해야 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요, 그저 한번 해 본 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한다면 너는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분부와 부탁 앞에서 사람이 항상 자신의 선택이 있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혐오할 것이다. 내가 직접 네게 분부하고 맡긴 일인데도 늘 너를 독촉하고 체크하게 하고, 걱정하고 질문하게 하며, 사사건건 점검하게 한다면, 너는 도태되어야 할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 도태시키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부류가 많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일을 분부한 다음 물어본다. "적어 두었느냐? 알겠느냐? 질문은 없느냐?" "다 적었고 질문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소리치는가 하면 심지어 나에게 호언장담하며 맹세한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다음 어떻게 이행하느냐? 자취를 감추고 감감무소식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단숨에 해치우지만 내가 맡긴 일은 그렇게 큰소리쳐 놓고는 얼마 안 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내가 계속 캐물었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일말의 양심도 이성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없고 개돼지만도 못하다. 사람이 집 지키는 개를 기를 경우, 주인이 없을 때 낯선 이가 오면 개가 대신 집을 지킨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좀 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거나 지켜보며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좀 한다. 이것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냐? 그런 자는 사기꾼이다! 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약속하느냐? 그건 고의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 일이 어려울 것 같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느냐? 어째서 대답은 잘해 놓고 나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사람을 속인다면 사람은 너를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속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런 사람은 정리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는 사람이 괜찮은 인간이냐? 하나같이 좋은 인간이 못 되고, 전부 마귀다. 도태시켜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거역하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독립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나태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교회에 커다란 손해를 입힌다! 이런 손해를 누가 메울 수 있느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또 원망하고, 불복하고 불만을 품는다.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마귀가 아니냐? 정말 구제 불능이고, 진작 도태되어야 했다!

오늘 교제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높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는 피조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전혀 높지 않으며,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사람은 참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깊이 패괴된 사람, 진리를 멸시하고 긍정적 사물을 싫어하는 사람, 진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나님에게 단순하고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인성의 이성이 있고, 양심을 갖추고, 긍정적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갖추었느냐?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한결같은 마음과 단순함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는 나이로 보자면 노아, 아브라함보다 젊지만 단순함을 보자면 그들보다 못하다. 너희는 단순함을 갖추지 못했고, 총명함과 지혜도 없으면서 잔꾀만 잔뜩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방법이 있느냐? 길이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좀 하신다면 저희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옳은 말이냐? (아닙니다.) 오늘 얘기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너희는 어떤 사실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천직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을 도태시키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념과 반발심을 품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위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이상, 네 유일한 책임,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행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논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이런 건 모두 피조물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느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느냐? 사실 매우 간단하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정성을 다해 듣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해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다음 정성을 다해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네가 들은 것,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 네 실행과 단단히 맞물려야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실행하는 것, 네가 순종하는 것, 네 손으로 하는 것, 네 두 발로 뛰어다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길이다.

2020 년 7 월 18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5)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오늘은 지난번 교제를 이어서 해 보자.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이 조항은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 두 부분은 이미 교제가 끝났고,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내용을 교제하도록 하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과 언사는 예전에 조금 교제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해서 믿음의 요소는 없고, 단지 의심과 시험, 추측의 요소만 있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 일이 닥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 원칙을 구하지 않고, 속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반발하고, 부인한다. 이런 게 전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 해부해 보겠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는 역시 몇 가지 면에서 조목조목 교제해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교제했을 때, 너희가 만약 일정한 이해 능력이 있고, 자질도 충분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빛 비춤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전에 교제한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함에 있어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이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조목조목 교제하도록 하겠다. 이 주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나뉜다.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한다

제 1 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한다. 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교제한 바 있다. 물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해부했다기보다는 곁들여서 교제를 조금 했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1 조와 관련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본성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그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면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든, 사람이 보기에 평이한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그건 모두 하나님 말씀이자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 진입, 성품 변화, 구원받는 것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의식하지 못하며, 그런 의식도, 그런 인식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 진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인식이 없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겉으로 볼 때 사람의 말이고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 의해, 하나님 집,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가 씌워진 후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 말씀의 겉면을 보면 그 말씀들은 사람이 자주 하는 말들인 것이다. 문자적으로 볼 때, 그 말씀에는 사람의 언어의 성분이 들어 있고, 사람의 언어의 논리와 사유, 어휘 사용이 있고, 또한 사람의 언어에 있는 속어, 성어, 속담, 심지어 헐후어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듯 그렇게 수준 높고 난해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천서(天書)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즉,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연구해 보다가 결국 속으로 이렇게 정의한다. '이 말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봐야 하고, 사람의 행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군.' 많이 들여다보고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낸다. 심지어 일부 적그리스도나 교만한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단숨에 여러 편, 혹은 여러 페이지를 읽어 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이내에 완독해서 머릿속,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일부 영적인 용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투, 방식,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 단계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한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그는 말했다. "하나님 말씀도 그저 그렇군. 단숨에 다 읽어서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한번에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격상시켜서 진리라고 하고, 사람의 생명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따라서 그의 눈에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이든, 그가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린 최종적인 정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상상하듯 그렇게 심오하고 난해하지 않고, 글을 읽을 줄 알고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꾸 읽어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생명에 진입하려면 깨달아야 할 각각의 진리들을 읽어 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깨우침도, 공급도, 도움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도, 천서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멸시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그렇고, 하나님도 그저 그렇고, 진리도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런 태도와 인식이 생긴 뒤로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진리를 멸시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지식과 두뇌, 기억과 잔머리를 이용해 그 말씀의 내용과 소위 그 말씀의 원리, 그리고 그 말씀의 어투, 방식, 또 상용어, 관용어가 포함된 어휘 사용을 재빨리 파악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얻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인해 그는 더욱 거리낌 없이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더욱 의심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보면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 사랑스러움을 멸시한다. 이런 일련의 멸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역겨움과 하나님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정죄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행동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변조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바로 인류가 살아가는 근간이자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려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 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려 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려 하는지에 대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리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백지상태이고, 아는 바가 없다. 즉, 문외한이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말씀은 이 말씀 다음에 해야 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야 하고, 저 말씀은 이런 말투, 저런 뉘앙스로 해야 하고, 이런 어휘 사용은 옳지 않고, 그런 어휘 사용은 생각이 짧고 하나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의 관점이 생겨난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유명인이나 위인의 저서만 못하다. 그는 하나님 말씀은 근엄함이 부족하고, 장황하며, 또 어떤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엄밀히 말해서 인류의 문법과 어휘 사용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지? 어떻게 진리일 수 있지?'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저울질하고 궁리하며 동시에 의심하고 정죄한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생기면, 적그리스도는 마수를 뻗친다.

몇 년 전에 찬양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은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에 곡을 붙여서 교회에서 부를 수 있게 했다. 편곡하는 과정에서 보니 하나님 말씀의 길이와 글자 수가 곡에 맞지 않고, 한 소절당 가사로 들어갈 글자 수가 너무 많았다. 또한 노래 전체의 선율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고 길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방법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표현이나 어휘를, 표면적인 의미는 바꾸지 않은 채로 조금 손을 댄 것이다. 예를 들어 4 자 성어를 두 글자 단어로 바꾼다든가 너무 긴 구절은 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 같으면 빼 버린 것이다. 이런 원칙을 따르며 그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한 하나님 말씀에 곡을 붙여서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찬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수정하고 삭제하며 손을 댄 말씀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나중에 이 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노래가 하나님 말씀 몇 편에서 발췌한 단락인지 물었다. 그들이 몇 편의 첫 단락이라고 알려 줘서 그 단락을 찾아 찬양집과 비교해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찬양집에 담긴 그 말씀은 말이 해당 편 말씀에서 발췌한 단락이지, 이미 원문을 알아볼 수 없게 손을 대 놔서 말씀의 어투도 온데간데없고, 많은 중요한 말씀이 삭제되었고, 말씀한 내용도 엉망이 되었다. 게다가 말씀한 순서도 뒤바뀌어 있었다. 만약 그 말씀이 어느 편에서 발췌한 것인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생각에 누구도 그게 어느 편 말씀인지 찾지 못해 전혀 맞춰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곡을 입히고 모두가 부르게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 주려 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사람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진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이 수다

떠는 정도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삭제하고 마음대로 변조했다.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누구의 허가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나아가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곡을 입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건 일종의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이냐? 이런 행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과연 경외심이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끼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대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인 태도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아주 제멋대로 바꿔 놓았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발현이며, 하나님 성품이 발현된 것이자, 하나님의 본질이 표출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라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일 수가 없다. 아마 적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책을 잘 꾸미고 천으로 싸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을지도 모른다. 이건 뭘 설명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냐? 이런 표면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오만불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표현, 말하는 방법, 어투를 손대고 싶어 한다. 심지어 일부 적그리스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설쳐 대느냐? 하나님 말씀이 자기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고, 문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심지어 문장 부호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바로 말을 퍼뜨리고, 침소봉대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느 한 군데 문장 부호가 틀렸고, 어느 한 군데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고, 어느 한 군데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걸 전세계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그는 조소하고 무시하는 뉘앙스로 곳곳에 소문을 낸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서 틀린 증거를 찾고, 꼬투리를 잡고, 허점을 보았고, 드디어 그 덕분에 하나님 말씀도 틀린 곳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고 속으로 맘 편히 생각하게 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문제나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대시하는 태도이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하는 얘기를 하자면, 방금 얘기한, 찬양팀에서 발생한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에게 경외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어떤 성품이냐?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사람의 말로 생각한다. 사람의 체험 간증문이라면, 말에 조리가 없고 완벽하지 않을 때 좀 손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을 사람이 감히 그렇게 손댄다면, 그건 어떤 성질이냐? 제멋대로 행동하는 성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감히 함부로 평론을 해 대고,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 자기 뜻에 맞지 않거나 자기 관점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손을 대는 것, 이런 일은 그 성질이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는 일과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음 대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어투와 방식, 서 있는 위치,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할 때의 어휘 사용, 또 인칭 등 많은 방면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념을 보이고, 다양한 종파 사람들이 다양한 입맛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복음팀 소속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사람을 욕하는 말 같고, 조금도 부드럽지 않고, 사랑이 없어요. 죄다 생활어이고, 일부는 특정 인종을 겨냥하기도 하고, 또 비밀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 말씀들은 복음 대상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어떡하나요?" 누군가가 말했다.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복음 대상이 이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면 삭제하면 되지 않나요? 사람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말씀이나 내용은 한 마디라고 해도 전부 표시해 뒀다가 인쇄할 때 다 빼 버리죠. 그러면 복음 대상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체면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하나 없고, 자기들 관념에 맞지 않는 말씀도 하나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적절해 보이겠죠. 그들에게 관념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새 사역을 아주 순조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댔다.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고, 상부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들은 삭제하고 변조한 하나님 말씀을 소책자로 인쇄해서 배포했다. 게다가 배포한 범위도 꽤 넓었다. 사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많이 얻기 위해, 자신들이 사역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 주고 본분 이행에 충성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은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 게다가 그 일을 실제로 해서 책으로 인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책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과 전혀 다른 책이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변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한 이 일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속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라고 의식하느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교제하고 나니, 너희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만약 3 년 전, 5 년 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한 마디도 손대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식이 없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본뜻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한 단락을 얘기함으로써 이루려는 효과를 바꾸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뜻과 핵심, 중점을 모두 지워서 없애 버린다. 이런 게 다 변조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우연한 기회에 복음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저희가 한 종족에게 하나님의 새 사역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폭로하신 그 부분 말씀에 반감을 품은

나머지 들으려 하지 않고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고 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사역과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육신하신 일에 대해 관념이 없어질 것입니다." 말해 보아라, 너희는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만나서 복음 사역에 대해 얘기를 나눌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슬쩍 마음대로 처리해서 그 말씀들을 바꿔 놓았을 것이다. 또 그들의 상상처럼 그 종족 사람들이 3~5 명, 열 명 남짓,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잠시 제쳐 두자. 그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관념에 맞는 말씀으로 바꾸려 하고,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를 폭로하고, 심판하고, 패괴된 인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말씀들을 지워 버리고자 하는데, 그건 일종의 어떤 성질이냐?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종족이나 어느 종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념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도 통과되지 못해서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반발하고, 싫어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만약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사람을 폭로해서 체면을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씀들을 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으려면 하나님도 한발 물러서서 말도 좀 완곡하게 하고, 듣기 좋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책략을 바꾸고 말씀하는 방식을 바꾸어 패괴된 인류에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특정 종파 사람들의 문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마디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관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관념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겠느냐? 전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들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실상이 아니라면,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방식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구절절이 모두 인류의 실상이고, 구구절절이 모두 인류의 생명 진입, 구원받는 것에 관계된 것이다. 인류가 관념을 품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가 사악하고, 불결하고, 너무 깊이 패괴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옳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관념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아들인 지 이렇게 오래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도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의 취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면면에 담긴 진리를 너희는 모두 알아듣고, 기억하고, 또 깨달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관념을 가질까 두려우냐? 만약 두렵다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복음 대상에게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 뜻을 증거해 내고, 그에게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오랫동안 듣고도 아직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명료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가 이행하는 것은 이 방면의 본분이고, 네가 매일 접하는 것은 다 이런 주제, 이런 내용, 이런 일이다. 너는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는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으려 하느냐?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의 일종이고, 사람이 취하는 비열한 수단의 일종이고, 사람이 보이는 무능한 모습의 일종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그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 본질의 모습이고,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한 자 한 자, 한 마디 한 마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방식, 모든 관점, 모든 단락의 내용을 존중할 줄 안다. 오로지 하나님의 원수만이 늘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며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대하지 않고 창조주의 선포로도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려 들고 마음대로 해석하려 한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들의 논리적 사유로 하나님 말씀을 고쳐 하나님 말씀이 패괴된 인류의 기호와 관점, 사고방식과 철학에 부합되도록 하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분의 내용이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한 것이든, 어떤 각도에서 말씀한 것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깨닫고, 더 쉽게 얻으며 하나님 말씀 중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인류의 언어, 인류의 방식, 인류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어조,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인류가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 준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과 말투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표현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약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들 적그리스도는 항상 지식, 유명인의 저작, 심지어 유명인의 연설과 단어 배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한다. 그들은 이렇게 비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평이하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통속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정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관점을 교정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하나님 말씀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오든 적그리스도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와 실행의 원칙, 그리고 생명 진입의 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시종일관 연구적 관점과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구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이리저리 연구하고, 논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고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했던 그 날부터 믿은 지 10 년, 20 년, 30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말하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으며, 하나님나라로 통하는 대문이나 천국으로 가는 통로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볼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느낌은 무엇이냐? 어째서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 통속적이라고 느끼느냐? 어째서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 흥미를 잃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징조냐? 좋은 징조냐 아니면 나쁜 징조냐? (나쁜 징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막다른 골목까지 왔고, 진리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이것은 믿음이 막장에 이른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 같이 가정과 일, 학업을 버리고 세상의 앞날을 버린 그 날부터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어느덧 경주하는 과정에서 낙오되어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B조로 간 사람도 있고, 일반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겨우 파트타임 본분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 이행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집에서 제명 대상이 되어 본분을 더 이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사람들, 이들은 어째서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만약 너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할 경우,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성품 본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건 아주 쉽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 이 일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기를 원치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원칙을 구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거의 읽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속으로 반감을 품는다. 어떤 반감이냐? 그는 생각한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알고 있으니 그만해도 됩니다. 그 말씀들은 나도 다 읽어 봤고, 모두 이해했다고요.' 모두 이해했는데 왜 제명되었겠느냐? 모두 이해했는데 왜 B조로 갔겠느냐? 어찌 된 일이냐?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에게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시죠!"라고 하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실제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결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막연한 방법이고, 실제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뉘앙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줄 아세요?"라는 뜻이다. 그는 사람에게 고충이 있다면 그건 단지 고충일 뿐이고, 사람의 내적 상태와 성품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 점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생각한다. '사람의 고충은 기계에 나사못이 하나 빠진 것과 같은 거라 나사못을 조이면 그만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난리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건 다 영적인 척하는 행동이고, 난 그렇게는 안 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 다 해결되는 줄 아나?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분명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네가 교제로 도와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면, 낭독이 끝난 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씀은 저도 다 외웠어요. 여러 번 외웠는데 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 말씀은 제가 당신보다도 잘 아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제 고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이것은 어떤 문제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패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골치 아픈 일이다. 그는 자신에게 패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특효약, 영험한 묘약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고 해석하는 측면의 모습에 대해 너희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 (합창 앨범 20 집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화면에 나열하라고 하셨는데, 당시 어떤 형제자매가 성경 구절이 길다면서 일부 글귀를 빼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라며 아주 호되게 해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니, 사람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 하나님 말씀이고 묵시이므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그 말들은 비록 원어로 된 원문이 아닌, 번역을 거친 번역문이지만 번역문의 뜻은 여러 해 동안 교정을 거쳤기에 원어의 원뜻에 거의 부합한다. 너희는 이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교제할 때라면 완전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설명해도 된다. 단 사건의 진상은 바꾸면 안 된다. 인용하려거든 반드시 원문의 글귀 그대로 발췌해야 한다. 이 원칙이 어떠냐?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지난 일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건 일종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의 말과 동등할 수 없으니, 사람은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 성경 원문이 여러 종류의 문자로 번역된 후, 어떤 뜻은 번역상 원문과의 일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같은 구절도 번역하다 보면 두 문자 간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번역자가 '주: 무엇무엇'이라고 주석을 달거나 '무엇무엇이라 번역하기도 함'이라고 괄호 안에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대답해 보아라. 성경 원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리 이 일을 신중하게 하겠느냐? 이방인들은 이를 가리켜 직업 정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정도도 없다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말씀을 읽고 나서 개인적 체험과 결부시켜 인식을 얘기하고 체험 소감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 말씀을 네 사적인 작품으로 생각하여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너의 해석이 필요치 않고, 너 역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네게 약간의 깨우침과 빛 비춤, 작은 체험이 있다면 이미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네가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네 해석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잘못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전에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 5:37)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요구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 정직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일을 처리하는지, 어떻게 본분을 대하는지, 어떻게 타인과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실행의 원칙과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구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는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지.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하나님도 정직한 자가 되라고 하시네. 알았어. 정직한 자는 바로 착한 사람 아니야?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오래간다'는 말 아니겠냐고. '좋은 사람은 일생이 편안하다',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죄'라잖아. 봐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 주시잖아.' 이런 말이 진리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 원칙을 찾아낸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릇된 주장과 황당무계한 논리라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류 가운데 사람이 듣기 좋고 옳다고 여기는 말과 연관 짓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진리를 인류의 슬로건이자 처신에 관한 논조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지만, 그들은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것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뜬 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되라 한다고, 착한 자, 머저리, 바보가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선 자신이 꽤 명석하고 하나님 말씀은 단지 다음과 같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리도 그렇게 심오한 건 아니네. 그냥 착한 자가 되라는 말 아니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건 간단하지.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을 욕하거나 때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니 용서할 수 있을 땐 용서하라'고, 매사에 남에게 관대한 거야.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좋은 사람은 일생이 편안한 법이야.' 말은 많지만, 한 마디도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 없고, 죄다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뿐이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나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궁리하고 분별해 보면 하나같이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고,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황당한 이론임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애쓰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방면으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알게 한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아. 하나님은 탕자의 회개는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도 하셨는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한 말씀이냐? (아닙니다.) 그가 또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7 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라고도 하고, "부처는 자비롭다."라고도 했다. 이건 엉망이 아니냐? 영적인 척,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척, 진리를 사랑하는 척하는 게 뭣도 모르는 문외한이고, 영적인 이해력도 없는 놈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나는 꽤 보아 왔다. 얼간이처럼 감히 입을 놀리지만 머리는 텅 비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는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요, 외식하는 것밖에 없다. 미혹하는 능력이 극에 달한 이런 부류는 언제나 이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 및 그럴싸해 보이는 신학적 논조를 이용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이 복종하고 실행하게 강제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겉으로 볼 때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꺼내 들고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 곧이어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퍼트린다.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에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끄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요구나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 원칙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공과 해석, 상상을 덧붙인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 사람을 교란하고 미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6 천 년 경륜의 사역을 하면서 전 인류에게 버려지고 대적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넓어요! '재상의 뱃속에서 배도 저을 수 있고',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는 10 년 걸려도 늦지 않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찌나 도량이 넓으신지!" 겉으로는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증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가 전달한 것은 어떤 정보이냐? 진리이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냐?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증거했느냐? 그는 재상을 증거했다. 그가 하나님을 재상에 비유하고 군자에 비유한 것은 모독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이냐?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초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미혹한다. 이들은 분량이 작고, 기초가 없으며,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에 미혹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영적인 말로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언급할 때는 "좋은 사람은 일생이 편안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니 용서할 수 있을 땐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이 말만 들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겠느냐? 왜 이렇게 거북해하겠느냐? 속으로 왜 이렇게 분노하겠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몇 년째 읽고 있느냐? 네가 노망이 들었느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느냐?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니 용서할 수 있을 땐 용서하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이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 중 어느 말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진리 원칙과 관계될 수 있느냐? 조금도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상과 의지, 추구를 가지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또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추구를 가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죠. '장군이 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훌륭한 병사가 아니다.'" 이는 사회에서의 조류이자 논조인데 하나님 집에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유용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부합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뭐 하러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인식과 깨우침이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목적을 이루었느냐?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수긍하느냐 아니면 반감이 드느냐? (반감이 듭니다.) 어째서 반감이 드느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황당한 이론을 하나님 말씀에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말들만 늘어놓아서 사람이 들으면 속으로 역겨워하고 싫어한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체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면서 상관없는 말, 뭣도 모르는 말들을 내뱉는다. 듣고 있노라면 역겹고,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사람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하는 말에서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부분을 해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부해야겠느냐? 사실 어려울 게 없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네요." 그가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어떻게 보든 다 좋다고 하시네요. 당신 말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과 같겠네요? 당신이 이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에 동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읽어서 뭐 하게요?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당신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사악한 인류의 처세 철학, 일 처리 방식, 논조로 취급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을 착한 사람, 멍청이, 바보처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해석하여 죄다 사악한 인류가 정리한 일종의 황당한 이론, 주장과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뜻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자 인류의 언어, 사람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너희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만약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직접 그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어째서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는 하지 않겠느냐? 설마 용어가 다를 뿐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속에 사람이 실행할 만한 길이 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은 영락없이 머저리가 되고, 살아 있는 사탄이 된다. 이 점을 너희는 인식했느냐?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실행한다면 그건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 만약 사람이 말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또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을 살아 내는 효과는 무엇이냐? (정상 인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말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진솔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면 사람은 갈수록 교활해지고 가식만 늘어서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고, 사탄의 처세 철학대로만 살면서 살아 있는 사탄이 될 것입니다.) 봐라, 차이가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직한 사람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순결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고, 가식과 기만,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순수하게 털어놓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대로 살아 낼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살아 내는 것이 속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처신의 원칙, 실행의 원칙은 무엇이냐? 사실 모두 꾸며 내는 것이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쉽게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보이지도 않으며, 쉽사리 다른 사람의 자존심,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속으로 조심하고 겉으로도 포장해서 아주 경건하고, 포용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배려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하지만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알아챌 수 없고, 내면에 패괴와 대적, 패역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챌 수 없다. 겉으로는 남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무척 상냥하며, 선량하게 보이게끔 가식을 떤다.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저지르고, 마음이 아무리 패역하며 사악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며, 겉보기에는 기꺼이 남을 돕고 기꺼이 베풀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레이펑(雷鋒)이다. 언제나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남들에게 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이 사람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냐? 좋은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긍정적이냐? 어느 쪽이 진리 실제가 있느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리 실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바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직한 사람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정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더욱 모른다. 그러면서 억지를 쓰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려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해석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게 분명한데도 잘 아는 체하고, 자기가 이해한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자신이 파악한 어휘, 주장, 논조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그리고 진리와 도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갈수록 이성과 양심을 갖추고 원칙 있게 일을 하도록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더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를 살아 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겉으론 사람의 기호나 관념에 부합하지만 진리가 아니고 내면에는 함정과 유혹, 그릇된 주장과 황당무계한 논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말들에 따라 행하면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삶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사탄처럼 변해 간다는 점이다. 사람이 철저하게 인류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무계한 논리에 따라 살고 행하며 이런 논조들을 오롯이 받아들였을 때, 사람은 곧 사탄으로 살게 된다. 사탄으로 살게 된다는 말은 사람이 곧 사탄이라는 뜻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공적으로' 살아 있는 사탄이 된 것이다. 어떤 이는 "나는 믿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야지."라고 한다. 네가 하나님이 한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사람의 관념이 진리인지 한번 두고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의 본질적인 차이이고, 진리와 그릇된 주장, 황당무계한 논리의 본질적 차이다. 사람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무계한 논리는 표면적으론 사람의 기호에 맞더라도 결코 사람의 생명이 될 순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얕고 이해하기 쉬워도, 아무리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더라도 그 본질은 진리이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진정한, 그리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요구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수 없으니 사람의 모든 행위와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혐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번 교제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조금도 틀림없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부류인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어느 때가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의 생명으로 삼지 않으니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이런 교제를 통해 일부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포함되느냐? 변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 변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칙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 점을 이해하면 된다. 그 점을 이해하고 나면 너희가 정리할 때 꺼려질 게 없지 않겠느냐? 원칙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에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변조하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번역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라는 것은 직역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의 본래 뜻, 하나님이 한 본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너더러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해석할 자격이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원칙을 잘 파악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변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변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원칙을 잘 파악하면 이런 잘못을 쉽게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여기에 담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리를 시켰을 때 늘 첨가하고, 뜻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적절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한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변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번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그냥 그 뜻에 따라 번역하면 보는 사람이 바로 이해되지 않을까요? 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깨달음과 빛 비춤을 얻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 원칙을 어기게 되니,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절대 사람의 말을 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소설이나 유명인의 저작 혹은 지식과 학문에 관계된 말을 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변조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고,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생활 속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이른다면 그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옳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첫 번째 모습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하는 모습에 대한 교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2)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두 번째 모습,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했다. 이 말씀들은 포함하는 범위도 아주 넓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다. 사람의 속셈, 관점에 관계된 것도 있고, 또 사람의 섬김에 관계된 것도 있고, 물론 더 많은 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에 관계된 것이고,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는 요구와 관계된 것이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 방식을 취했다. 이 여러 가지 말씀 방식 중에서 말씀의 어투는, 처음에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가깝게 했다가 그다음에는 인류에 대한 심판, 폭로로, 인류에 대한 정복으로 바뀌고, 나아가 사람에게 각 측면의 진리를 점진적으로 알려 주기에 이른다.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 측면에 걸쳐 아주 많지만, 아무리 많아도 전부 패괴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인류의 언어 방식대로,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투와 어휘, 그리고 언어 논리에 따라 말한 것이다. 요컨대 이런 언어, 말하는 스타일과 방식은 모두 아주 평이해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마음과 이성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모두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사람이 마음이 정상적이기만 하면, 이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 원칙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도움과 인도로 사람은 생활 속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 중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유독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신성의 각도, 영의 각도에 서서 한 말씀이다. 그 부분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다. 모든 인류의 눈에 비친 해당 부분의 말씀은 아주 심오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마치 비밀 같기도 하고 또 예언 같기도 하다. 각 구절, 각 단락, 각 편의 말씀은 하나같이 하나님 뜻을 읽어 내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배경 및 사람에게 하는 요구, 그리고 사람이 구해야 하는 진리 원칙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부분의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과 그 부록편으로, 이 부분의 말씀은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을 말씀하는지에 관한 얘기는 잠시 접어 두고, 내가 언급한 이 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교제하려는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라는 주제의 어느 부분과 관계되는지부터 얘기해 보겠다. 하나님이 하는 대부분의 평이한 말씀, 심오한 내용을 쉽게 표현한 말씀, 사람에 대한 경고와 일깨움의 말씀, 사람에 대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 사람에 대한 폭로와 심판의 말씀, 사람에게 공급하고 인도하는 말씀 등, 이런 말씀은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신격화하는 사람들, 차라리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답지 않게 너무 통속적이고 직설적이며, 전부 쉬운 말이다. 그리고 각 편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고 싶지 않고, 그 안에 심오한 내용이나 비밀도 별로 없어서 읽을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소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의 내용, 말씀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맛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읽고자 하는 것은 심오한 것,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무자천서(無字天書)와 비슷한 문자이다. 그들은 그런 것을 읽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 방식, 어투, 스타일로 된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 관념이 가득하고, 멸시와 조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평이하고도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은 아예 읽지도 않고,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속으로 이 말씀들을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말씀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냐?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각도에 서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말이란 어떤 개념이냐?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천서만이 읽을 가치가 있고, 심오하고, 깊이를 알 수 없고, 비밀을 간직한 말씀만이 읽을 가치가 있다. 반면 일반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는 그들이 볼 가치가 없고, 그들의 눈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하찮게 여긴 나머지 아예 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자리를 박차며 나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소리만 들으면 하품에 기지개를 켜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짜증내거나, 떠날 핑계를 찾거나, 중간에 끼어들어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지 보아라.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 네가 신학을 얘기하고, 어떤 궤변이나 사람의 관점을 얘기할 때면 가만히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높이 받들 때면 그는 돌변해서 순식간에 비정상적인 몰골과 마귀적인 몰골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이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들으면 정색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한다. 이건 어떤 성질이냐? 이건 어떤 성품이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합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모를 수도 있죠. 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분량이 작은 것도 안 됩니까?" 만약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분량이 작고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네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왜 반감을 느끼지 않느냐? 네가 큰 재난에 대해 얘기하거나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얘기하고, 비밀이나 계시록에 대해 얘기할 때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아라. 그때는 다를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로 볼 때 그들은 진리를 적대시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리를 적대시하는 이 본성 본질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반감이 들고 졸음이 쏟아진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무시하고 짜증내고 듣기 싫어하는 등 여러 가지 표정과 태도를 보이고 마귀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들은 겉보기에 본분을 이행하고 있고, 또한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어째서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 얌전하게 듣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날을 품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찌르기라도 했느냐? 그들을 정죄했느냐? 아니다. 그 말씀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공급하는 말씀이다. 사람이 들으면 각성하고 살 길을 얻어서 소생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항상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하느냐? 그건 바로 마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네가 신학을 얘기하고 사설과 궤변을 얘기하고 계시록을 얘기해도 그들은 반감을 품지 않는다. 심지어 네가 착한 사람이 되고 무골호인이 되는 얘기를 해도, 어떤 영웅 얘기를 해도 반감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들으면 반감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한다. 만약 차분히 들으라고 권면하기라도 하면 얼굴이 변하며 눈알이 벌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그건 바로 그 내면의 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 영은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속으로 분노가 일고, 내면에서 마귀가 야단법석을 피워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데,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무슨 뜻이냐? 분명 그들이 이 말씀들을 정죄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道)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구실이고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 관념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느냐? 아니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누구나 생각과 관념이 있고, 혹은 관점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을 일으킨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이성이

있다. 이 이성은 그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태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이성은 그들에게 일러준다. '설령 내 관념에 맞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설령 내 관념에 맞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고, 내 생각에는 옳지 않고,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은 진리야. 천천히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인식하고 내 관념을 내려놓게 될 거야.' 네 이성은 너에게 우선 네 관념을 내려놓으라고, 네 관념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일러준다. 네 이성은 너에게 순종하는 태도,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관념과 자신의 관점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맞서면 안 된다고 일러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 관념에 맞으면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들을 수 있고, 네 관념에 맞지 않더라도 해결 방법을 구해서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합할 수 있다. 이것이 대다수 이성을 지닌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이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탄 성품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죄요, 모독이요, 조소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런 평이한 인류의 언어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성과를 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다. 그렇다면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 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죄요, 부인이요, 모독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성의 각도와 제 3 자의 각도에 서서 사람 언어의 방식으로, 사람의 언어 구조와 표현으로 인류에게 하는 이런 말씀은 충분히 심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될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가끔 영생활도 하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다른 일이다. 그건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한다. "성육신한 인자가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아니야. 그러니 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실 필요도 없어. 순종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말이야." 그런데 성육신한 하나님이 영의 각도, 신성의 각도에 서서 선포한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충정을 쏟는 말씀이다. 이 충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군침을 흘린다. "바로 이 부분 말씀 때문에 당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처럼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되다니, 너무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됩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니, 바로 이 부분 말씀의 선포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앙하고 숭배하려는 그들의 욕망과 야심이 충족되고, 그들의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말한다. "정말 좋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쉽지 않아서 사람은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죠.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심오합니다!" 매번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추앙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준다. 설령 이 부분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의 배경, 궁극적으로 이루는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표현하려는 행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 부분 말씀에 대해 기대가 충만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성육신한 하나님의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인성의 각도, 제 3 자의 각도에서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함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땅의 하나님은 너무 미미하고, 믿기 어렵고,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과장이 아니라, 이 부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러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 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함으로써 더더욱 땅의 하나님의 낮춤과 미미함을 멸시한다. 이 부분 말씀을 볼수록 그들은 땅의 하나님,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얕다고 느낀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째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셋째 하늘의 언어를 쓰시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신성의 언어를 쓰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심안을 열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믿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당신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면 당신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당신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억지가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없는 사람에게 정상 인성이 있겠느냐? 정상 인성의 사고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일부분 사람들은 정상 인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거기에 끼어들어 그들과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다 고상한 내용이어서 말 중간에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은 딱 봐도 안 되겠어요. 셋째 하늘의 언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셋째 하늘의 언어라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어쩌라고요? 여전히 못 알아들으시니 끼워 줄 필요가 없어요." 너희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셋째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상해서 이를 수 없다 싶으면, 나는 재미없는 일을 사서 하는 대신 그냥 가 버린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공개적으로 이런 사설과 궤변이나 알맹이 없는 말을 하는데, 들으면 곧바로 그것이 사탄이나 천사장에게서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논조가 높고 시작점도 높아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듣자마자 마귀적인 말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이 안에 담긴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들은 아예 읽지 않는다. 그들은 맨 처음 호기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은 볼 가치가 없군. 실제적이고 가치 있고 무게 있는 내용도 별로 없고, 깊이 연구할 만한 내용도 없어." 여기저기 읽어 보다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을 보게 되었다. 이 부분 말씀은 신성 언어의 느낌이 있는 데다 수준과 깊이가 있어서 인류가 토론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들의 입맛에도 맞았다.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단락마다 과연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좀 해석해 줄 수 있나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 너희가 볼 때 그에게 알려 줘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고, 마귀, 사탄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것들은 자격이 없다.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부분 말씀의 비밀과 내용의 본질을 밝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근원과 배경을 밝힐 때가 되면, 역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열어서 알게 하고, 절대 사탄 마귀들에게는 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다행히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너희에게는 이 부분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하나님 사역 안에도 많은 비밀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번에 성육신한 것은 비록 성경에서도, 과거 예언에서도 크고 작게, 많든 적든, 그리 분명하지 않게 예언되었지만, 이 예언들은 상당히 은밀하다. 하나님이 이번에 성육신한 일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 또 6 천 년 경륜을 통틀어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은밀한 일이다. 인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피조물도 모르고, 능력이 가장 큰 사탄도 알 수 없다. 왜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알려 줄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아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몰랐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로 하나님이 그것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많은 징조와 예언, 많은 사실이 이 일을 가리키고, 이 일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이 일의 발생을 예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사탄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이것이 곧 사실이다. 사탄이 알게 하고 싶었다면 직접 알려 주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알지 못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나 이런 예견적인 일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그는 알 도리가 없다. 사탄의 능력이 크냐? 이렇게 보면 그것의 능력은 크지 않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과 같은 큰 일이 인간 세상에서든, 물질세계에서든, 아니면 영계에서든 징조가 전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징조를 모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려는 이 일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째서 사탄은 알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그토록 오래 사역했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냐? 언젠가 그것이 알게 됐을 때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라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고, 이 일의 성과와 수확은 이미 굳어졌는데, 그제서야 사탄이 발견한다면 이는 너무 늦지 않겠느냐? 이는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 손안의 패장'이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 관념에 맞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정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육신은 뭔가를 이룰 수 없고, 또한 사실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커다란 잘못이 아니냐? 그들은 오판했고, 자신들의 계략에 넘어갔다. 어째서 자신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과 사역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별 볼 일 없고, 사람 관념에 맞지 않고, 고상하지도 않은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 별 볼 일 없는 말씀의 행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진리, 길, 생명이 담겨 있어서 이 패괴된 인류를 능히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런 평범한 말씀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도태되고 정죄되고 최후에는 징벌받게 된다. 그들은 잘못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당신 말씀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들은 내 관념에 맞지 않아요. 내 관념과 관점, 내 사고 방식과 맞지 않으면 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일을 이루실 수 없을 겁니다!' 틀렸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게 할 생각이 없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은 사탄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도, 그들을 바꿀 계획도 전혀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버리기 때문에 정죄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관념 상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관념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관념에 맞지 않을수록 관념을 내려놓고 진리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관념에 맞지 않을수록 너에게 없는 부분,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고, 네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 나아가 네가 변화되기 위해 구하고 진입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깨달아야 할 점이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아주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신성의 말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서서 하는 말씀을 선택하거나 혹은 심오한 말씀, 일반인이나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꿰뚫어 볼 수 없는 말씀을 읽으려 한다.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으려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실행의 길도 아니다. 그의 호기심, 그의 공허한 사유, 그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네 주변에 하나님 말씀 중 비교적 평이한 말씀, 인성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은 보지 않거나 혹은 곡을 붙여도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고르고 고르면서 그냥 한번 보거나 듣거나 읽어 보자는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인다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둘 다 아니다. 이런 사람은 성품에 문제가 있다. 너희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찬양을 부를 때, 일상생활에 대한 진리 측면에 관련된 찬양은 부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종교 관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그릇된 관점을 폭로하는 내용,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관계된 내용이라면 그런 찬양은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성육신에 관계된 말씀과 내용,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증거하고, 성육신을

찬미하고 증거하는 찬양이라면 그는 한 자도 부르지 않고, 네가 부르기만 하면 반감을 가진다.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고 찬미하는 노래,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범함,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행정 법령,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는 찬양이라면 신나게 부른다. 게다가 일종의 묘한 기색을 드러낸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면 그는 정상이 아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악한 몰골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 성품의 공의와 위엄을 노래할 때 그는 탁자를 치고 발을 구르며 분노로 머리칼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부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어 모든 인류에게 대재난이 내린다고 하면 그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른다. 이런 사람들의 영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크게 진노할 때 나라들이 흔들린다."라고 한 말씀에 곡조를 붙인 다음 1 인칭을 3 인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때 나라들이 흔들린다."라고 했다. 정상인의 자세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제 3 자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말씀한 뜻과 배경을 이해할 것이다. 이것이 정상 인성의 이성이며, 정상 인성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부를 때는 어떠냐? 3 인칭을 바꿔서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의 자세는 정상인과 다르다. 정상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속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이건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이야. 내가 터뜨리려는 분노이고 내가 드러내려는 성품이야.' 이건 다르지 않으냐? 그는 비록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게 진노할 때 나라들이 흔들린다."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부른다. 자신이 분노하고 있고, 자신이 나라들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씀을 부를 때는 감흥이 있다. 이는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동시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이 신성으로 발한 음성과 말씀을 읽을 때, 정상적인 인성의 이성을 갖춘 사람은 제 3 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 뜻을 묵상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러지 않는다. 그는 이 말씀들을 노래하고 읽는 동시에, 자신이 이런 성품을 나타내고 이런 성품 안에서 살아가고 이런 본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감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성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투, 말씀하는 방식, 어휘 사용을 흉내내고 하나님 성품까지 흉내내려 한다. 이게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흉내낼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신성으로 음성을 발하고 말씀하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이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하나님이 신성의 입장에서 음성을 발하고 말씀함으로써 그는 실마리를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투로 인류에게 말씀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말씨로 인류에게 말씀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말씀을 아끼고 숭배하는 하나의 목적이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집 사역에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형제자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어 다른 사람을 꾸짖는 광경,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인용하며 사람을 꾸짖고, 정죄하고, 책망 훈계하고, 폭로하는 광경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게 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을 여러 사실의 근원에서, 또 배경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진정 충성심과 정의감,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보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그가 행동하는 본질과 근원, 동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교란,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어떤 모습인가를 떠나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를 꾀하는 것이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그 부분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로 규정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네 분량이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너는 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또한 함부로 흉내내면서 남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대하도록 강요한다. 그런 식의 행동과 행위, 드러내는 성품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너희가 볼 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것과 사람이 늘 지위를 갖고자 하는 야심과 욕망이 있는 것 중 어떤 성질이 더 심각한 것이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야심이 있고 교만한 성품이 있어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때로는 지위의 복을 누리며 지위를 애지중지한다. 이것은 패괴 성품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흉내내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인용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도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그의 말투와 말하는 방식이 그토록 하나님과 비슷해서 사람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오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기도 한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것은 구제 불가능한 문제이자 구제 불가능한 큰 병이다.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질이 결정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갖춘 본질과 성품은 자신의 노력과 추구를 통해 얻은 것도 아니고, 사회나 국가, 인류, 혹은 어느 한 사람이 길러 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러 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본질은 오래 전부터 미리 결정된 것이며, 타고난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사람에 의해 길러진 것도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한다.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이 더욱 하나님답게 보일 만큼 말투와 말하는 방식을 잘 흉내낼 수 있으면 자신에게 하나님 역할을 할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다. 더군다나 주제와 동떨어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두서를 찾을 수 없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냐?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야심이 늘 꿈틀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정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려 한다. 이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사악하고, 염치없고, 저질스러운 짓이냐! 그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정상이 아니다.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으름장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니 못 믿겠으면 한번 해 봐라. 네가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 행동해 본 다음, 네 안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속으로 어떤 기분인지 봐라.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속으로 정말 기쁘고 마음에 든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만족스럽다면, 너는 좋은 인간이 아니며, 위험하다. 만약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속으로 참소를 받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너에게는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고, 정상 인성의 이성이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 성육신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투와 말하는 방식도 모를 때,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는 비록 하나님이 되는 일에 대해 관심도 있고, 야심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감히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영적인 사람인 체하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 성결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체한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손에 넣게 되면서 야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뚜렷한 한 가지 모습은 바로 비교적 헤아리기 힘들고 심오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태도, 방식, 말투, 어휘 사용에 익숙해진 다음 흉내내 보려고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투, 방식이 어떤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할수록 좋다. 그는 공들여 기억하는 한편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한다. 그런 스타일과 방식, 말투, 어휘 사용을 흉내내며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하나님 역할을 한 기분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스스로 깊이 체득한다. 연습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어느새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말하는 걸 들어 보면 느낌과 어감이 마치 하나님 어감과 비슷해요. 그와 얘기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느낌이 나죠." 그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듣고 무한한 만족을 느낀다.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할을 한 기분이다. 이건 끝장난 것이 아니냐? 네가 다른 길이 있는데도 마다하고 굳이 이 멸망의 길을 택한다면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품는 것도 아주 위험하고, 그 생각을 자신의 행동으로 바꾸는 건 더욱 위험하다. 만약 행동이 점점 수습 불가해지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그것이 이뤄지고 실현된다면 그건 곧 철저하게 멸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중 일부는 이 방향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느냐? (제가 전에 중국 본토에 있을 때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 하나님 말투를 흉내내고 언제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세 명이 그녀를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그녀를 보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어디까지 행동했든 그건 막다른 길이다. 너희는 이 일을 간파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은 모두 인류가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이런 정보를 밝혔으니 인류는 그 정보 중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얻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추구한다면 그 길로 끝이다. 그건 멸망의 길이니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흉내내지 않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하나님의 그 신분으로 말씀하는 게 어쩜 저렇게 품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듣기가 좋은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저희는 하나님 역할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하나님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리죠."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부 말투와 어휘 사용을 흉내낸다. 비록 네가 주관적인 바람으로는 확실하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너의 그 흉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의 이 신분과 지위가 없이 이런 말씀을 한다면 흉내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과 얘기하고 교제하면 누가 나를 거들떠보겠느냐? 보면 나이도 많지 않고, 지식과 문화 수준, 학력도 높지 않고, 이렇다 할 사회적 지위도 없으니까 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본분을 이행할 때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옳은 말을 해도, 네가 간곡하게 말해도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냐? 신분과 지위가 없는 사람은 품격이 없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맞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진리라 해도 소용이 없다. 심지어 네가 하는 말은 무조건 부정하고 네가 하는 말은 뭐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흉내내려 하겠느냐?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물, 신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을 누가 흉내내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품격이 없고 우러러볼 가치가 없다.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너를 흉내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를 흉내내서 무시당하고 괴롭힘과 차별을 받으라는 것이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흉내내겠느냐? 사람들 눈에 품격이 있는 사람, 높고 큰 사람,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흉내낸다. 같은 사람이 신분과 지위가 생긴 후로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어째서 품위 있고 흉내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흉내내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흉내내는 것,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크고 높음, 겉으로 드러난 지위이다. 그렇지 않으냐? 내게 신분과 지위가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진리에 부합하는 말, 영적인 말을 한다 해도 이런 말이 너희들 사이에서 전해지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신분과 지위가 생긴 뒤로는 내가 늘 하는 말씀들, 나의 말투, 내가 사용하는 어휘, 내가 말하는 방식과 스타일을 많은 이들이 흉내냈다. 듣고 나면 역겹기 그지없다. 어느 정도로 역겹겠느냐? 들으면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나는 나를 흉내내는 자를 역겹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정죄한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서 자기도 원 없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 지위를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 서서 말하고 싶고,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투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자신도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보통 사람을 흉내낸다면 그건 별일이 아니다. 기껏해야 교만한 성품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투와 말씀하는 방식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나쁜 짓이다. 너에게 이르노니 넌 지뢰를 밟은 셈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 사악을 증오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권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과 피조물이 아닌 존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네가 그걸 흉내내려 하는 것은 모독이다. 갖추지 않은 것을 왜 흉내내려 하느냐? 갖추지 않았는데 너는 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느냐? 네가 흉내낸다는 것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속셈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부러워해서 흉내내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너는 그런 인격도 없고, 그런 분량도 없다. 너는 그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받고, 존중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실컷 만족하고 싶은 것이다. 이건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냐? 너무나 치욕스럽다! 흉내내는 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건 단지 역겨운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나는 진지하게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든, 내 어떤 말과 행동이 너희에게 숭배와 부러움, 질투를 불러일으켰든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다. 흉내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엄숙한 일이다! 패괴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투와 말씀하는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장난으로 생각해서 입에 달고 살면서 멋대로 장난치며 가지고 노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니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라! 네가 성육신의 말하는 방식과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설령 내가 못 듣는다 해도 단지 너에게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역겹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영의 말투를 흉내내며 전 인류를 향해, 또 대중을 향해 말하고 싶어 한다면, 너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이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한 가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말투나 말씀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 지위와 관계된 일련의 것들을 흉내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 한 가지를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된다! 만약 거슬렀을 경우, 즉시 바로잡고, 배반하고, 돌려세울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적그리스도로 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을 알려 주마. 하나님에게는 되돌릴 여지가 없고, 너는 완전히 끝이다. 하나님은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신분 본질에 관계된 면면은 절대 신중하게 대하고 장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 말투가 패괴된 인류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막대한 치욕이자 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인류는 절대로, 절대로 이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거스르면 죽는 것이다! 네가 안 듣겠다면, 또 못 믿겠다면 한번 해 봐라. 그때 가서 네가 정말 화를 일으켰을 때는 왜 알려 주지 않았느냐며 나를 탓하지 말아라.

2020 년 8 월 15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6)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의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 중 세 번째 부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교제를 계속하겠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배에서 두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교제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한다'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이 내용과 관련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본질과 관계가 있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 태도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원인 역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측면과 관련된다. 지난번 예배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 교제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모습을 더 교제해 보자.

3)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현실에 부합하고 이루어질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지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참된 믿음이겠느냐, 아니면 속으로 의심하고 관망하는 것이겠느냐? 그는 속으로 철저하게 의심하고 관망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 측면의 모습,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다'에 대해 교제해 보기로 하자. 엿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째서 '엿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느냐? (하나님, 엿본다는 건 몰래 관찰하고 훔쳐본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엿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모두 이해했을 것이다. 엿본다는 것은 바로 몰래 관찰하고 관망하는 것, 슬쩍 보면서 눈치채는 사람이 없으면 몰래 뭔가를 하는 것이다. 떳떳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동작이다. 분명히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은 공개적 장소가 아닌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이런 짓을 한다. 따라서 이런 모습, 이런 해석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엿보는 것은 일종의 어떤 행위이냐? (진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멸시하는 행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대범하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엿보는 것이냐? 엿본다는 것은 정말 일종의 동작이냐? 엿본다는 것은 그 해석에서 볼 때 분명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표정, 행동에서 알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모든 생각이 암암리에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남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고,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이를 두고 엿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태도이다. 분명히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며, 제 3 자의 관점, 적대시하는 관점, 또 관망하고 연구하고 의문을 품고 반발하는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성질이 심각하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보는 것,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상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일종의 관점에서 그가 표출하는 성품, 그가 표출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태도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엿보겠느냐?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중 본인이 뒤에서 깊이 연구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얘기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속으로 늘 의심하면서 관망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속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엿볼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비밀입니다. 또 사람의 앞길과 운명, 종착지에 관계된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 종착지, 비밀과 같은 것은 대부분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더군다나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영원히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늘 엿보느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지, 실현되는지, 사실로 성취된 것을 본인이 볼 수 있는지 등에 관련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 악인을 징벌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모든 이를 징벌하는 말씀도 있다. 그리고 재난을 예언한 분야의 말씀도 있다. 이것도 역시 한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는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언제 영광을 얻고, 언제 대업을 이루고, 언제 이 인류를 끝낼지에 관련된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전부 몇 가지이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고, 둘째는 사람을 저주하고 징벌하는 말씀이며, 셋째는 재난을 예언한 말씀이고, 넷째는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언제 대업을 이루는지에 관련된 말씀이다. 적그리스도가 엿보기 무척 좋아하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본질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 한 가지를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엿본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것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는 것이냐? 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모두 불신파이자 마귀이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철저하게 의심한다. 그가 의심한다면 어떤 짓을 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신분 본질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난 뒤 그에게 지각과 반응이 없겠느냐? 그가 착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입양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자신의 친부모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부모의

사랑과 보호, 부모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치른 모든 대가를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는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그는 가끔 부모의 대화를 엿들으며 부모가 자신의 출생에 관해 얘기하는 건 아닌지 살핀다. 평소에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누가 자기를 받았는지, 출생 시 몸무게는 얼마였는지 부모에게 캐묻는다. 그는 늘 이런 것만 알아볼 것이다. 부모가 그를 때리거나 혼내면 의심은 더욱 커진다. 부모가 무엇을 하든 늘 경계하고 의문을 품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 줘도 경계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의 이런 경계심, 마음속의 모든 활동과 생각, 태도는 모두 남몰래 하는 행동이 아니냐? 부모가 자신의 친부모인지를 의심하게 되면 그는 뒤에서 분명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불신파라는 자신의 본질로 인해 분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믿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태도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들을 대할 때 속으로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분명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그는 속으로 의심하고 반발하는 동시에 관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다.

방금 얘기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엿보는 다섯 가지 모습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개괄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엿보는 데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강조점이 있다. 생명 진입에 관계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 또 비밀을 해석하는 것에 관계된 말씀, 혹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말씀 등 이런 많은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관심을 가지겠느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말씀이 하찮다. 왜 그런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그는 그럴 생각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품 변화에 관련되고 사람의 생명 진입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볼 가치도, 생각할 가치도, 마음에 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 말씀들이 사람의 앞날,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지? 사람의 종착지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 말씀에서는 모두 작은 일만 다루니까 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어. 본인이 정말 괴롭고 도무지 방법이 없다면, 잠시 그 말씀들을 가져다 보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거나 자신이 넘지 못하는 언덕,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만이야. 그 말씀들이 사람의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그는 성품을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길, 진리로 삼고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다. 그가 바라는 것은 앞날과 종착지, 권력이다. 따라서 그런 말씀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 그 말은 곧 적그리스도가 보기에는 그 말씀들이 진리인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할 가치도 없고,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알아볼 가치는 더더욱 없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운명과 종착지에 관계된 말씀, 그의 신분과 지위에 관계된 말씀, 그의 모든 이익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그건 큰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이 몇 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과는 좀 다르고,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는 믿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지 관찰합니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말씀들을 중시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그의 욕망을 채워 주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만약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그의 야심이 채워진다면, 그가 만약 그 말씀들을 붙들고 지켜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패를 제대로 고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카드가 적중한 것이다. 그가 그런 말씀을 중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속으로 그 말씀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며, 그가 속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이 말씀들을 중시하는 동시에 속으로 의심하고 관망한다. 그 말씀들이 시시각각, 언제 어디서나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을 부정하는 증거와 약점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시종일관 뚫어져라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의 사역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나간 각 시기에 이런 말씀들이 실현되고 이루어졌는지를 본다. 명백하게도, 적그리스도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주시하는 동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의 태도는 결코 바뀐 적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연구하고, 언제나 속으로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을 엿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을 정죄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받아들이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순종하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려는 뜻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교제해 보자.

(1)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엿본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엿본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 선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과 은혜, 사람에게 약속하는 복에 관한 말씀들을 무척 많이 했다. 다양한 시기, 다양한 장소, 혹은 다양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과 약속에 대해 알려 주고,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사람은 어떤 복과 약속을 얻게 될지 등을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일정한 배경이나 상황에서 한 말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이런 약속과 축복은 모두 사람의 진리 추구, 성품 변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 등 긍정적인 모습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약속과 축복에는 모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조건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념 상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고, 일정한 규칙도 있다. 다양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이 같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대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시에 교회 리더를 맡았는데 그중 한 명은 언제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또 항상 징계를 받아서 분량이 매우 빨리 자랐다. 다른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둔하고, 반응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 발전도 더디었다.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같은 사역을 하며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똑같이 축복을 내리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거둔 생명 진입 측면, 혹은 표면적으로 얻은 은혜 측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분명한 차이'는 당연히 필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축복이나 서로 다른 대우, 혹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얻는 깨우침과 빛 비춤 등 이런 수확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한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허영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시기심도 많다.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하기 원하고 고생도 좀 할 수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지는 못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다. 비록 같은 패괴 성품이 있지만 사람이 비교적 정직하고 겸손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련해 준 모든 환경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해하고, 또한 정성껏 대할 수 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사역하고, 사역의 양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각자의 성품, 각자의 추구를 근거로 각기 다른 축복과 깨우침, 빛 비춤을 줄 것이다. 겉으로 볼 때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도 많이 받고, 징계도 자주 받고, 수확도 더 크다. 하지만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를 받는 일이 훨씬 적고, 겪는 고통도 훨씬 적어서 생명 성장도 느리고, 얻는 것도 적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얻었느냐? (고통을 많이 받고 자주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징계를 받아 늘 벽에 부딪히고, 패괴를 표출해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자주 받을 수 있다. 반면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무척 편하고, 즐겁고, 자유롭다. 나태해도 징계가 없고, 남을 시샘해도 징계가 없고, 사역에 책임감이 없어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서도 지위의 복을 누리며 매우 편안하게 살아간다.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 순수하게 이해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징계를 받고, 늘 벽에 부딪히고,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란다. 설령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질을 자주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이런 체험과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과 약속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대할 때, 한 사람이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얻었는지, 긍정적인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적인 이해득실과 물질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이 얼마나 얻었는지를 가늠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겠느냐? (징계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나태하고 충성심 없는, 전혀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지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그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고 축복을 내리는 이 일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엿보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주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말씀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손해 보는 일이고 명예를 잃는 일이잖아?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실현된다고? 만약 이렇게 실현되는 거라면, 난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자 추구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역하신다면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게 무슨 진리야?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 그딴 식이야?' 그의 마음에는 반발심이 생긴다. 그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이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사람 내면에 만들어 준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적그리스도 주변에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집안 장사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는 등 물질생활이 갈수록 나아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보며 생각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약속과 축복은 저런 사람에게서 실현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보아하니 하나님 말씀엔 권병이 있는 것 같아.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이길 잘했어. 큰 복을 얻어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지켜본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잠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약간이나마 인정하고 믿게 된다. 물론 이 인정과 믿음 뒤에 괄호를 쳐서 '검증이 좀 더 필요함'이라고 덧붙인다. 일상생활에서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다는 각종 증거를 계속 수집한다. 적그리스도는 관찰하는 동시에 이런 증거를 수집하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핀다. 물론 계속해서 관찰하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와 방식, 관점을 모방하려고 시도한다. 만약 자신도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대우와 즐거움을 얻게 되면 속으로 슬며시 인정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구나. 실현될 수 있는 거였어. 보아하니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정말 실력이 보통이 아닌걸. 그분은 사람에게 축복과 약속을 베풀어 주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면서 이익을 바라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 주실 수 있어. 뒤처지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계속 믿고 따라야겠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망한다. 그렇다면 그가 관망할 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가 대놓고 관망하면서 아무에게나 "저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약속은 안 믿어요."라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아차릴 수 없다. 네가 볼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열에 서서 일과 결혼, 가정 등을

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본분을 이행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통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 또한, 교란하는 말이나 소극적인 말도 하지 않고, 판단하는 말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교란하는 짓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겉으로 아무리 은밀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내면에서 그의 행위를 주도하고 좌우하는 것은 그의 관점과 사상이다. 그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관망하고 엿보는 것은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어느 방면이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냐? 사람은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 사람이 드러내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사람이 드러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의 폐부를 살핀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행위,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비교적 표면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한층 깊은 생각과 본성 내의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엿볼 때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시간을 바치고, 또한 육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바치지는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온 힘을 다하고 주저 없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저 겉으로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모든 과정의 큰 방향만 맞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추구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내면 깊은 곳, 그의 폐부에 자리 잡은 한 가지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달렸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분 본질이 진짜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해.'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진심일 수 있겠느냐? 그의 내면에 자리한 이런 생각들은 그를 가로막고, 항상 그를 일깨운다.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거나 전력투구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시늉만 하면 돼. 바보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붓지는 말아야지.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하나님께 내 목숨,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수는 없지.'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차렸느냐? (몰랐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배드릴 때나 사람들을 접할 때, 겉으로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류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깨달음과 인식, 체험도 교제하고, 신도들이 갖춰야 할 일부 표면적이고 평이하고 기본적인 행위와 모습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전혀 자라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대가를 치르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몇 년을 이행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의 생명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원칙을 구하지 않고 그저 수중의 일거리만 중단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하나님이 말한 원칙을 전혀 자신의 실행 준칙으로 삼지 않으며, 그저 표면적으로 사람이 감독하고, 단속하고, 인솔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감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약속과 축복이 누구에게서 확실히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실현되는지 명확하게 긍정하기 전까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그가 일하는 원칙과 방식,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일깨우는 한편, 동시에 속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저울질한다. 그가 하나님과 입씨름을 벌이는 초점이 무엇이냐? 그는 생각한다. '당신의 약속, 축복은 실현되지도 않았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없으면 당신 신분에 확신을 가질 수 없죠. 당신 신분에 대해 확신이 없는데 당신의 그런 말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속으로 하나님과 이 일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지 않으냐? 그는 말한다. "당신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여러 가지 내용이 만약 제게서 입증되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제 믿음은 100%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불순물이 섞여 있고 완전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태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목표물이 명확할 때 움직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 약속과 축복을 실현시킬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 말씀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당신을 믿고도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귀영화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당신의 비호를 받지 못할 거라면 뭣 하러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그의 사상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이익이 뒤따라야 한다. 그들은 이익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명예와 이익,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남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이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된 약속과 축복을 반드시 얻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명예와 이익, 지위를 누려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남보다 한층 높아야 하고, 남들이 우러러봐 줘야 하고,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리지 못할 경우, 그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참하나님인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논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이 진리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 궤변이자 사탄의 논리이며 진리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절대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 중에 어디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 복을 받고 화를 입는 일에 관해서는 구할 진리가 있다. 어떤 말씀이 사람이 지켜야 할 명언이겠느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10)라고 말한 적 있는데, 이 말은 진리이냐 아니냐? 이 말은 사람의 말이므로 진리의 높이까지는 오르지 못하지만, 여기에 진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진리에 부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복을 받든, 화를 입든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고, 모두 하나님의 주재라는 점, 이것은 진리다. 적그리스도가 그 점을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복만 받으려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육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으려 하고 화를 입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얻고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물질적 누림을 얻고,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축복하고 재앙을 없애야지 사람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당신을 믿는 일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고도 화를 입고 고통받는다면 사람이 당신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만사 만물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화를 입는 것을 겁내고, 이익을 얻고, 덕을 보고, 축복을 누리기만을 바란다. 그는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이익을 얻기만을 바란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기적이고 비열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관련된 말씀에서 보이는 일련의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일련의 모습은 주로 적그리스도의 추구 관점과 관련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이런 일을 대하는 그의 견해, 평가, 이해와 관련된다. 그는 비록 겉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거나 거기에 반발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는 그런 일을 비방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또한 선택적인 방식을 취한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반면 하나님이 한 일이 자신의 관념 상상에 따른 약속과 축복이 아닐 때, 적그리스도는 금세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의 정확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고 안배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한다.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가 명확한 말로 자신의 관점을 퍼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관망하고 엿보는 그의 이런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명 진입 방면의 일을 교제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일을 교제한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지 엿보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실현될 때는 쾌재를 부르고 환호작약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신의 관념대로 실현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암암리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편안하고 무탈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적 상태가 차가웠다 뜨거웠다를 반복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아갈 듯하다가도 기분이 저조할 때는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하며 기분이 오락가락하는데 다른 사람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기분이 좋을 때 그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권병은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라며 떠들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뱉기조차 쉽지 않다. 큰 소리로 하나님 이름을 찬미하는 것도 그 자신이고, 속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그 자신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면서 남들은 치르지 못할 대가를 치르는 것도 그 자신이고, 본분에 화풀이를 하며 하나님 집 이익을 팔아넘기고, 고의로 사역을 교란하고, 본분과 사역에 고의로 소홀히 임하는 것도 역시 그 자신이다. 겉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행위와 모습, 성품을 보면, 이런 다른 모습은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전혀 진리로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보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평생 굳게 지켜야 할 진리 원칙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엿보는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엿보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가 한평생 누리는 물질적인 대우, 심리적인 대우, 생활 환경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 그는 이 방면에 무척 관심이 많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기준으로 하나님 능력의 크기와 하나님 신분의 진위를 가늠한다. 그는 속으로 몰래 이런 궁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 엿보는 것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 진입 방면의 여러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과 관련된 것에는 눈을 반짝인다. 그런 것에는 눈을 번뜩이며 욕망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두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한번 쥐면 내려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대하는 측면의 모습이다.

(2)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엿본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엿본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된 사람에 대한 저주와 징벌의 말씀에 대해 첫째 항목과 같은 관점과 입장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그는 어떻게 엿보겠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저주하거나 징벌하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서 그들을 저주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징벌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이나 말씀으로 저주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관찰한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되는 건지, 지금은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의 재물을 횡령하고, 제멋대로 형제자매들을 괴롭히고 억누른 교회 리더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교회에서 활개를 치면서 못된 짓을 일삼고, 원칙 없이 행동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협력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징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신다는데, 어떻게 버린다는 거지? 그 사람을 보니까 매일 아주 편안하게 지내던데. 형제자매들을 억누르고도 가책받지 않고 형제자매들은 계속 참아야만 해.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말씀은 어쩌면 말뿐일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권병이 있어서 말씀이 끝나면 사람이 속으로 괴롭고 가책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가 속으로 괴로워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봐야겠어. 좀 관찰하고, 얘기하면서 떠봐야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요즘 체험하는 건 좀 어떠세요?" "꽤 좋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교회 생활이 괜찮아요. 형제자매들도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다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복음 사역도 잘되고 있어요." "사역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괴롭지 않으세요? 소극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징계는 받으시나요? 속으로 가책받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사역이 이렇게 잘되는데 가책받다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모자랄 판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으셨네. 그렇다면 악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하나님 말씀도 실현되지 않았군! 이 리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하니 마땅히 하나님 저주가 임해야 하는데, 왜 임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씀이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겠구나. 계속 관찰해 보자.' 하나님 말씀 중에 "대적하는 자는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많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현 단계 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까?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말씀대로 대적하는 자는 죽어야 할 텐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팔다리가 잘린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죽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식으로 집안이 화를 입어야 하는데. 이런 변고도 없는데 어떻게 대적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지? 아마 우리가 이해력이 달려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 실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 단언하긴 어렵지.' 적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이런 사실과 나름 머리를 굴린 분석을 통해, 또 자신의 '독특한' 눈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이 일은 그가 볼 때 영원히 커다란 의문이다. 그는 이 일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물론 그는 늘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고 징벌하시는지, 당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당신을 대적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귀 기울이겠느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파리나 벌레가 쓸데없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치부한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 시험과 도발, 비하와 모독의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것, 그의 생각, 관점, 입장이 하나님 눈에는 정죄되는 것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모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으로, 그는 암암리에 하고, 암암리에 엿보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속으로 그를 정죄하고 저주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분석한다. '이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까? 누구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벌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주와 징벌을 받았을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는 항상 속으로 이 일을 따져 본다. 이런 일을 그의 일상에서 큰일,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틈만 나면, 또 기회만 있으면 이 일에 대해 궁리한다. 여건만 맞으면,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주제만

언급되면 그의 입장과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지,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현실화될지 검증하려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째서 그는 온갖 궁리를 하며 속으로 끈질기게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느냐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역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재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관점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이해 방식으로, 사람의 두뇌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검증하고 재단한다. 아무리 봐도 사실이나 기대했던 구경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부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부정하고,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한 게 가치가 있는지를 더욱 의심한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한 악인이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자들이 각기 다른 정도로 징벌이나 저주를 받은 것을 보고, 그들의 말로를 볼 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에게 경건한 마음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거야. 멀쩡하던 저 사람은 갑자기 죽었어. 어제까지도 하나님을 욕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소처럼 건장했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 하나님 집의 사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나쁜 짓을 좀 저지르고 악행을 좀 행해서 집안에 변고가 생겼지. 그때부터 그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어. 저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만 하더니 이젠 미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귀신이 들러붙은 거야. 하나님이 그를 사탄에게 넘기고 더러운 귀신이 군거하는 곳에 두신 거지. 그가 악령에 씐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권병이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재하시니, 그분이 그를 악령에게 넘겨서 악령이 들러붙은 거야. 그는 정신이 나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가벗은 채로 큰길에서 마구 날뛰는 거야. 저 사람들의 말로 좀 봐. 징벌받고 저주받았어.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리 되었을까?' 그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들 중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한 사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판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의로 하나님 집에서 교란과 방해를 일삼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에게 맞서면 끝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사람에게 미움을 사면 그 사람이 날 어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그땐 큰일이야.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대가가 엄청날 거야! 최소한 정신이 나갈 거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넘기실 거야.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한 거야.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금생에 그의 육체를 거두고 멸하실 거야. 그럼 내세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 종착지가 없어지고 하나님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복도 못 받아.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조심해야겠어. 몇 가지 나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욕하려면 속으로 몰래 할 것. 둘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야심도 드러내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할 것. 셋째, 내 행위와 행동을 단속하고,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말 것. 만약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혀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큰일나지! 최소한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거고, 최악의 경우 저주받아 무저갱에 떨어져 완전히 끝장날 거야.'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며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이런 일을 통해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뇌 활동, 그리고 이런 일을 목격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정리한 행동 원칙은 그의 내면 세계의 활동이 아니겠느냐?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엿본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벌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런 일을 따져 보고, 계획하고, 궁리한다. 그가 궁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가 엿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로부터 진리를 얻어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람의 방법과 책략으로 이 모든 일에 대응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따져 보는 바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이런 일련의 생각이, 그가 하나님과 적대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가 줄곧 하나님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되고도 남는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대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책이 있다. 그의 대책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바뀐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는 착실하게 처신할 것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 집에서 일을 좀 하면서 저자세로 처신할 것이다. 날뛰거나 방종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대놓고 대충 얼렁뚱땅 넘길 것이다. 어쨌든 그의 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맡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고 일할 때는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계략, 술수, 위장하는 방식을 쓸 것이며, 속이고, 은폐하며, 감출 것이다. 그는 결코 자신이 속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며 의심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털어놓지 않는다. 오로지 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진리로 여기고 바람직한 방향과 목표로 삼아 행동하고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가 일상 생활에서 일하고 행동하는 방식, 사역과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방식은 물론, 그가 드러내는 행위, 행동 방식과 모습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는 착실하고 점잖게 처신하고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는 한편, 가급적이면 교란하고 방해하는 짓을 피하고, 교란과 방해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속으로 하나님에게 맞서고 대드는데 하나님에게 드러나 도태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의 그런 태도와 성품, 그리고 본질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적그리스도는 비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궁리를 하며, 어떤 관점이 있는지 전혀 감추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관찰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논리가 있으니, 그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생존의 길이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한 것, 내가 행한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과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내 내면세계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어. 나를 정죄하고 싶어도 어림없지!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어떤지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을걸.'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심산이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때 최고의 행동 원칙이라 생각한다. 행위만 잘못되지 않고, 방법상 문제만 없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남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주 똑똑한 것 같으냐?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으냐? 그는 감추는 데 능하다. 기도할 때 사거리에 나가 남들 앞에서 옳은 말만 늘어놓으니 나무랄 데가 없고, 믿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된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문을 닫고 가족들에게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그를 간파하지 못한다. 그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남들이 간파하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간파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것은 무엇과도 무관하며 그로 인해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표면적인 행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도 살핀다는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황당한 생각을 한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도 관여할 수 없어. 사람도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필 수 있기에, 네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너에 대해 내리는 정의에 관계된다.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사람의 행위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근거로 사람의 죄를 정한다는 점이다. 적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면서 하나님 역시 조용히 그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은 것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엿보며 도출해 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 그의 내면에 자리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았고, 그가 하나님을 비하하고, 모독하며 부인하고, 정죄한 모든 증거는 물론, 이 모든 두뇌 활동과 관점의 지배를 받아 생겨난 그의 표면적인 행위도 보았다. 그의 생각과 행동을 토대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는 적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원수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적그리스도가 똑똑하냐? 자신을 망쳐 버렸으니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의 생각에 자신은 제법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문제를 제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다 계산에도 능하다고, 계산만 끝나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건과 하나님이 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고,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와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우쭐거리며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수완을 보며 흡족해한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겨냥하는 말씀인지,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늘 자신이 아주 똑똑하고 완벽하며 지능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아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가 다행으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는 자신이 속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는 일을 무척 스릴 있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일로 생각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리석지 않으냐? 그가 사람과 겨룬다면 아마 높고 낮음, 위아래를 가릴 수 있고, 본인의 우월함과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엿보며,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엿본다면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네가 영화배우나 가수, 유명인, 위인 등 누구를 엿보든 상관없다. 단, 하나님만은 엿보면 안 된다. 엿봐야 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 지금 세상은 정보도 발달하고 정보의 유통 수단도 정말 다양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사상 관점, 일상을 엿보는 것이 별로 부끄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시시각각 엿보는 것은 대역무도이다! 사람에겐 패괴 성품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패괴를 표출해도 하나님은 네가 깨닫고 인식하도록 진리를 공급할 수 있고, 네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사람의 패괴, 과오, 죄를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말의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연구하기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시시각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엿본다는 것이다. 너는 뭘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려는 것이냐? 누구를 감독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이 일들의 근원과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것이냐? 너는 누구냐? 정말 본인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네가 엿봐야 할 대상이냐? 하나님이 네가 연구해야 할 대상이냐?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등, 성품 변화에 관련된 그 모든 긍정적인 실행은 정당하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연약해지고 소극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네가 늘 하나님을 엿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진정으로 패괴된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맞서지 않고, 이런 관점과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 오직 한 족속, 한 역할만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다. 사람의 과오, 사람의 패괴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일은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만 구원할 뿐 사탄은 구원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녔다면 사탄을 대변할 것이고,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엿볼 것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 저주와 정죄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3)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엿본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다는 내용 중 두 가지를 교제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저주와 징벌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의 두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적그리스도는 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한편,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고 싶어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속으로 저울질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온갖 의문을 품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검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적그리스도가 재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은 재난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기대와 온갖 상상으로 충만하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재난이 내려서 자신이 크게 눈 뜰 수 있기를, 자신의 바람과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언한 재난은 모두 하나님 대업의 성공,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 성도들의 들림 받음, 사람이 아름다운 종착지로 들어가는 것 등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재난을 예언하는 이 부분의 말씀에 더욱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하다. 앞서 두 가지 방면과 비교할 때 적그리스도는 이 방면의 말씀에 더욱 관심이 많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예컨대 지진, 전염병, 충해,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커다란 능력자이고 재능이 뛰어난 자이며, 그런 존재는 자신이 따르고 숭배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재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속으로 이런 식의 사고 논리와 사상 관점을 철석같이 고집한다. 그의 생각에는 이런 관점이 옳은 관점, 성립될 수 있는 관점이고, 똑똑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그날부터,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본 그 순간부터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그 일을 계속 생각한다. 종말의 날이 오고 하나님 사역이 대성공을 거둘 때,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형벌할지, 하나님이 어떤 재난을 내려 인류를 징벌하고 멸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재난에 빠뜨릴지,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재난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재난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하는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속으로 분석하고 머리로 기억하고 암기하며, 재난에 관련된 말씀은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 아울러 하나님이 예언한 이런 재난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는 어떻게 될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또 어떻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이런 예언을 보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희망이 생기고 방향과 목표가 생긴 것처럼 느낀다. 적그리스도는 재난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비한다. 그는 대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직장과 가정도 버린다. 동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하려는 모든 일이 빨리 성취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이 하루빨리 영광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자신이 하루빨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관점을 볼 때, 그가 늘 하는 이런 말과 기도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대업을 이루고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이런 바람의 이면에 적그리스도의 나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는 이런 기도, 이런 거짓 이미지로 재난을 피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동시에 재난이 빨리 오기를,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얼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범위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전과 다름없이 대가를 치르며 헌신하거나 고생하고 인내하는 등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머리를 쥐어짠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무시와 박해를 받았는지, 이날을 기다리느라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렀는지 모두에게서 인정받고자 한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대가를 치른 것을 봐서 재난이 내릴 때 자기한테는 그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신이 치른 대가 덕분에 재난이 내린 후 본인은 다행히 좋은 종착지를 얻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한다. 결국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좌절을 겪는다. 그의 행위와 행동이 정죄된 듯한데, 이것은 그의 희망과 환상이 파괴되고 그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품겠느냐?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나날들을 견뎌 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재난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도 못 봤어. 하나님은 과연 재난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는 일을 하나님은 과연 이루시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난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들 어서 떠나야지!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없다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계이다. 조그마한 좌절, 남들이 무심코 던졌을지도 모르는 정죄의 말, 폭로의 말이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추지도 못한 나머지 발끈한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노발대발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말씀하신 재난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원래 저는 재난을 예언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치르고 본분을 이행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당신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곧 들이닥칠 재난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당신이 말씀하신 재난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징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재난 속에 떨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면서 유유자적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재난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자 이렇게 오랫동안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당신은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걸 봐서라도 이적과 기사를 좀 나타내고 재난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보게 하심으로써 저희 믿음이 확고해지고 충성심이 견고해지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재난을 내려서 이 사악한 세상과 인류를 징벌하는 일이 그리 어렵습니까? 저희는 단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것뿐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을 필요가 없고, 본분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복음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좌절을 만나면, 살면서 순조롭지 못한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적그리스도의 본모습과 내면의 진짜 생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재난이 언제 내릴지,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말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사람의 체면을 살려 주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지, 너희에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마땅히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무산되는 줄 안다. 말씀이 무산되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될 자격도 없고 자신의 하나님이 될 자격도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논리이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에서 일깨움을 얻은 그는 사람의 좋은 행위, 사람이 치르는 모든 대가와 육적인 고통을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복과 맞바꾸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뿐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선포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시시각각 하나님을 검증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엿보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눈이 크게 뜨이고, 그런 말씀이 자신의 입맛과 관점, 필요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만약 자신의 바람에 어긋나고,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어긋나면 말씀을 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그가 속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한동안 고민하고, 견뎌 내고, 또 내면의 갈등을 겪은 뒤, 적그리스도는 교훈을 얻었다. "쉽게 하나님 말씀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가볍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재단해서는 안 돼. 사람은 아직도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 참고 견디며 마음을 넓혀야 해. '재상의 뱃속에서 배도 저을 수

있다', '푸른 산이 있는 한 땔나무 걱정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 이만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버텼는데, 그만큼 더 버티면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좀 더 견디고 한 번 더 걸어 보자. 욱하면 안 돼. 그랬다가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도로 아미타불이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손해야!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일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야. 여전히 계속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면서 견뎌야지.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잊으면 안 돼. 이 말은 언제든 성립되고, 언제든 최고의 진리야. 잘 지키고 시시각각 가슴에 새기자." 한동안 소극적이고 잠잠하게 지낸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적그리스도는 각종 역할을 맡으며 여러 사역을 담당했고,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날이 늘어날수록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 세세하게 따진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햇수가 늘어갈수록 그만큼 그가 대가를 많이 치르고, 또 많이 버렸다는 뜻이고, 그만큼 세상으로 돌아갈 길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난을 예언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게 다 진짜였으면 좋겠어. 모든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는 이 '반드시'라는 굳은 신념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여겼다. 이른바 참된 믿음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끝까지 노력해야 이긴다'는 말처럼,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견디고 또 견디도록 그를 다그쳤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신념을 고수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계속 엿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이 세상에는 재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재난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존 환경과 생태 환경을 바꾸고 사회의 많은 서로 다른 구조와 생활 방식을 바꾸는 등,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적그리스도의 눈에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내면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그 단계가 왔으니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견디고 기다린 일이 결국 헛된 일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가장 걱정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근, 전염병, 지진 등 이런 예언은 이루어졌어. 그런데 대재난에 대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일부가 천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의심을 한다. '그런 재난은 그냥 자연재해잖아? 유사 이래로 재난은 늘 끊이지 않았어. 그런 재난이 닥친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지? 왜 나는 보이지 않는 거지? 난 왜 모르는 거지? 만약 하나님 손으로 직접 하신 일이라면 신자들 눈에 당연히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이상(異象)을 주셔야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손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했어.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모두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연약해져.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어야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재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지.' 그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똑똑하고, 또 멋진 분석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해지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 불안과 욕망도 잠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잠시 양보하고 타협하는 동시에 큰 재난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큰 재난은 언제 내려오지? 큰 재난이 내리면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들림 받지? 날아오르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들어 올리실까? 큰 재난이 내릴 때 사람은 여전히 육체가 있을까? 여전히 지금의 옷을 입을까? 이방인들은 모두 죽게 될까? 그때는 상황이나 상태가 어떨까? 이 일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만 믿자. 그런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 이루어질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계속해서 거듭 스스로에게 묻고 거듭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재난이 그의 앞날과 운명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재난이 언제 닥친다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기회를 놓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지.' 그렇다면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겠느냐? '널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는 거야. 방해하거나 교란해서도 안 되고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돼. 조용히 처신하고 날뛰지 말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교회에서 출교당하지만 않으면 돼. 피난처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내 몫이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누가 앗아 가겠어?' 작은 재난이 점차 내려올 때, 모든 인류가 재난 속에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평정을 찾고 약간의 안정도 얻는다. 동시에 그는 또 큰 재난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성도들이 들림 받는 그날을 기대한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엿보는 건 여전하다. 이런 엿보는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사탄이 엿보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의심하고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권병과 전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몰래 궁리하고 속으로 저울질하며 만들어 내는 이 모든 대책이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은밀한 대책이다. 그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동시에 정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하나님은 속으로 조용히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행사, 나의 말씀을 엿보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자 악행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면의 말씀을 하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두 하나님 자신의 방식이 있다. 인간이 다행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푼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단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일을 누구에게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알려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신호는 분명하다. 그건 바로 인간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늘 이런 일들에 관여하고 꼬치꼬치 캐물으려 한다면, 늘 이런 일로 하나님을 트집 잡으려 하고 이런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냐? 하나님 눈에 너는 바로 사탄이자 원수, 마귀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의 일면이다. 사람이 만약 이런 걸 알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문제 삼고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는다면, 너에게 알려 주겠다.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또 어떤 방식, 어떤 이성으로, 어떤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걸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피조물의 신분과 본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본질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동물로 변하면 하나님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너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 만약 마귀 사탄으로 변한다면 너는 위험해진다. 마귀 사탄으로 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 모두에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행위를 엿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엿보지 마라. 하나님과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엿보지 마라. 너는 사람이고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네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네가 엿보는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네가 피조물이자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네가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것, 비밀과 예언에 관련된 일, 하나님의 신분에 관련된 일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로 이런 것은 네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네 생명 진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아는 만큼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네가 성품 변화를 추구하고 구원받는 일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엿본다면, 게다가 몇 번씩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완고하게 고수한다면, 이런 방식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구원받을 희망은 요원하다. 적그리스도가 재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엿본다는 이번 조항은 여기까지 교제하기로 하자. 이어서 다음 내용을 교제하겠다.

(4)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대업을 이루는지와 관련된 말씀을 엿본다

제 4 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대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말씀을 엿본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이와 관련된 말씀은 많지 않다. 얼마 안 되는 이런 말씀 중에 만약 그 내용이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면, 아무리 그 말씀이 눈에 띄지 않거나 은밀하다고 해도 그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다음 펜으로 표시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며 읽는다. 틈만 나면 가져다 공유하고 읽으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위로한다.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그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언제 대업을 이루는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사실이다.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기 전에 두 눈으로 하나님이 땅을 떠나는 순간의 장관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 확실하고, 그가 하나님도, 따르는 대상도 잘못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동시에 그가 복을 받을 확률도 크게 높아진다. 그 밖에도 만약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땅을 떠나는 광경, 하나님이 대업을 이루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곧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더욱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과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혹과 몰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 버림 등, 이 한 페이지는 넘어가고 그는 다시는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편, 하나님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참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케 되었는지 등을 지켜본다. 적그리스도가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많은 이들이 믿음도 크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때 자주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패괴 성품을 드러내서 책망과 훈계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B조로 보내지거나 격리되고, 더러는 출교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는 생각한다.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질 날은 아직 멀었구나. 답답해 미치겠군! 하지만 사람이 답답해 한들 어쩔 수 있나?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탓에, 또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탓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이루더라도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가늠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하는 사역이 과연 성과를 이루었는지, 하나님이 한 그 말씀들이 과연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람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과연 달라졌는지, 참된 수확이 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는 속으로 알 수가 없고, 눈으로 관찰한 사실 역시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 그가 목격한 모든 일,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그에게는 죄다 안개처럼 뿌옇고 아무리 풀어 보려 해도 풀 수 없다. '이런 일들은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군. 정말 간파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일이 설마 정말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한편으로 자기가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의심한다. '그가 하나님일까?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많은 이들이 모두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나도 믿어야 해.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 어딜 봐서 그가 하나님이지? 그가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가 사람들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과 유사한 생각들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자물쇠가 된다. 그는 생각한다. '이걸 어쩐담? 역시 최고의 원칙을 따르자. 기다리고 견디는 거야.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규칙이 있지. 모두가 떠나지 않으면 나도 떠나지 않고, 모두가 따르면 나도 따를 거야. 난 대세를 따를 거야. 다들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외칠 거고, 다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나도 사람들을 따를 거야. 여럿이 잘못하면 죄가 아니라잖아.'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고 그는 속으로 몰래 기뻐한다. '가장 의심이 많고 연약했던 그 시기에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금까지 믿으니 어떤지 봐. 그날이 곧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잖아. 특히 해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들 참도를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하나님 집에서 제작한 동영상, 영화, 찬양, 간증도 점점 늘어나고 갈수록 주목받고 있잖아. 이런 성과는 오직 하나님 사역으로만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어. 그렇다면 이 평범한 사람은 십중팔구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야. 그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라면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논리적 추론대로라면 이렇게 추론하는 게 일리 있고 맞는 말이지. 하나님이라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있고 하나님이라면 대업을 이룰 수 있어. 이런 현상으로 볼 때 교회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모든 게 비교적 이상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야. 이게 세상의 흐름을 좇는 것보다 낫지. 그런 걸 추구하면 별로 가망도 없는 데다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멸해지고 말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대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또 이런 느낌이 든다. '난 어쩜 이리 똑똑할까? 이런 길을 선택하다니 지능도 높고 머리도 좋다니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지능이 높고 총명한 것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냐!

적그리스도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땅을 떠나고 대업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저주와 징벌, 재난에 관련된 예언과는 달라. 이 일은 급하게 굴 게 아니야. 사람은 100%, 200% 인내심을 발휘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해.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든 성취될 텐데, 지금 참지 못하면, 적막을 견디지 못하고 이 고생을 감내하지 못하면 그날이 왔을 때 내 몫은 없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과거에 그 고통도 전부 감내했으면서 지금 이만한 고통을 못 견딘다면 너무 멍청하잖아!'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그날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조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착실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생각한다. '이왕 올인해 보기로 했으니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번에 인내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니까 끝까지 견뎠을 때 이 일이 성취된다면 그때는 큰 복을 받는 거야!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겠지. 이번 일은 모 아니면 도야. 큰 복을 받든가 큰 화를 입든가 둘 중 하나지.'

보아라, 적그리스도가 그래도 어리석지는 않은 게 아니냐? 그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파이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세밀하게 분석하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렇게 큰 일, 앞날과 운명에 관한 일, 하나님 대업의 성공에 관한 일은 건성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실지 그 연도와 달을 제대로 추산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의 행간에 드러난, 하나님이 땅을 떠나실 때의 방식과 현상을 모두 분석해야 해요.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가 이런 좋은 일을 놓치면 그건 천년의 한이 될 거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그날, 그 순간이라면 더더욱 알아야 해요." 누군가 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알죠?" "그건 하나님께 꿈에서 계시를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죠.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상(異象)을 얻고, 꿈이나 이상 속에서 하나님 대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는 순간 믿음이 완전히 확고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인내와 기다림은 더 이상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기꺼이 원해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될 텐데, 얼마나 좋아요!" 이래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인류에게 성육신 하나님이 얼마 동안 필요하든 언젠가는 이 육신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인류를 떠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의 사역은 이미 결말로 접어들고 있다. 그 결말까지 10 년이 남았는지, 20 년, 50 년, 80 년, 100 년이 남았는지, 우리가 파고들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다.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 결말의 개념이 과연 몇 년인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 우리가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렇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 사람이 구하여 얻을 수도, 사람이 알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할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길에 오르고, 진정으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업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안식처를 얻으면,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곧 인류의 안식이다. 인류가 정상적인 생존 환경과 생활 질서를 갖추면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과 맞바꿀 수 있다. 언제 인간이 그런 생존 환경을 갖추고, 언제 그 단계에 도달할지, 하나님이 언제 대업을 이루어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일이며, 하나님에게 계획표가 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표상의 시기가 과연 어느 시대일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일지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알고 있으며, 인간은 알 필요가 없다. 너에게 알려 줘도 소용이 없다. 날짜와 시각을 너에게 알려 준다고 한들 그것이 네 생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생명이겠느냐? 그것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피조물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엿보려 하고,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것과 같은 일은 피조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 준 규율과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마귀, 사탄이지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 땅을 떠나고 언제 대업을 이룰지, 하나님 영광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에 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일에 인간은 어떤 관점을 지녀야 옳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민에게 현현함으로써 하나님도 일찍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것이 피조된 인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마땅히 바라고 간구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며, 엿보는 짓이 아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놓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엿보는 짓이고, 원수가 하는 짓이다. 또한 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를지, 모든 것을 버릴지, 본분을 이행할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원수가 하는 짓이다. 진정한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의 신분, 하나님이 말씀한 그 어떤 내용을 대할 때는, 사탄과 악마, 원수의 관점이 아닌 피조물이 갖춰야 할 관점으로 대해야 한다.

(5)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엿본다

이어서 다음 항목을 교제해 보자.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은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관계된 내용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방식과 어투, 말씀의 내용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보여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명확한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알려 주고 밝히기도 한다. 이 두 부분의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행간에서, 또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성질, 그 말투와 말씀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신분과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문으로 알려 준다.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적그리스도는 전혀 보지 않는다. 그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불신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 신분, 하나님 본질을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신분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질은 또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은 그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가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설마 그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냐? 그는 인정할 리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품 속 공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병 등,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 관계된 이런 내용을 적그리스도는 멸시하고, 경시하고, 얕잡아볼 뿐만 아니라 역시 엿보는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대한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공의롭다고 하면 연구할 것이다. '당신이 공의롭다고? 세상에 감히 스스로를 공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한번 따져 보자고. 당신이 어디가 공의롭지? 당신이 어떤 공의로운 일을 했어? 난 인정 못 해! 그 말씀이 정말 실현된다면, 당신이 정말 내가 납득할 만한 공의로운 일을 한다면 당신이 공의롭다고 인정하지. 만약 당신이 한 일로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땐 내가 무례하게 나와도 나무라지 말라고. 난 절대로 당신에게 공의로운 성품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고생을 한 어떤 리더가 결국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서 거짓 리더로 규정되고 교체된 것이다. 교체된 후 그는 소극적으로 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며, 불평과 판단의 말을 쏟아 냈다. 그 소식이 적그리스도의 귀에 들어가 그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같은 사람도 교체되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더 큰 일이군요. 만약 당신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리더의 편을 들면서 억울함을 달래 주는 한편, 거짓 리더가 한 불평과 판단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속으로 몰래 하나님에게 맞선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럼 왜 교회를 위해 사역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사람을 교체하는 거지? 이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야. 이보다 더 충성스럽고, 고생하고, 대가를 크게 치른 사람은 못 봤다고. 그는 몸이 아파도 참아 가며 온종일 정신없이 일했어. 가족들에 대한 정도 내려놓고, 육의 편안함, 육의 앞날도 내려놓고,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사역했어. 전에 감옥에 갔을 때도 배신하지 않았지. 그런데 당신 한 마디에 교체되고, 당신 한 마디에 드러나다니, 그래도 당신이 공의로운가? 당신이 공의롭다는 사실이 어디에 있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 사역에서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 성품이 공의롭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속으로 말한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거야.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겠지. 오늘 드디어 하나님 사역에서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어. 이러면 쉬워지지.' 그는 속으로 은근히 쾌재를 불렀다.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을 따르는 내내 큰 붉은 용에게 탄압받고, 잡혀가고 모진 박해를 당한다. 각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선민이 잡혀가 박해를 받는 일도 흔하고, 그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잡혀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게 서서 증거하는 사람도 많다.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봉사를 이용해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복을 받으려는 불신파를 드러내는 동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선민을 온전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줄곧 하나님을 의심한다. '어째서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체포와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선민들을 구원하지 않지?' 그는 성육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계속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 선민은 왜 이런 구타와 혹형을 당할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야. 유다가 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이 혹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왜 그들을 구하지 않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지? 설마 냉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탄, 악마에게 이렇게 무참히 능욕당하고 실컷 혹형을 당하게

내버려두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지? 왜 내 눈엔 보이지 않지? 조심하는 게 좋겠어. 하나님은 시험이나 험악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을 지켜 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시련을 만나고,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기 십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대책이 있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른 대가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시련도 없는 거잖아? 그런 시련이 없으면 그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통을 안 받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똑같이 복을 받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굳이 육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아야 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난 이런 방식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들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라고. 나랑은 상관없으니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좀 피해 가고 비켜 가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하나님에게 붙잡혀 그런 역할을 맡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감추고 있는 이런 생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자 반발이고, 판단이자 대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고, 하나님 성품과 신분, 본질을 엿보는 동시에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 적그리스도는 그 결론을 마음속에 묻어 두고 스스로에게 경고한다. '조심해서 몰아야 배를 오래 몬다고 했어. 절대 재능이나 포부를 드러내면 안 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고, 높은 곳은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는 말도 있지! 언제가 되었든 모난 돌이 되지 말고, 높이 오르지도 말자.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떨어지는 법이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성품이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관념, 사람의 상상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사고, 사람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고, 사탄의 논리, 사탄의 사고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규정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반발, 패역이 가득하고 참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물음표와 의혹으로 정의하며, 잔뜩 의문을 품고, 부정하고, 비하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표하거늘 하나님의 성품조차 이렇게 대하니,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부인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 중 그 어떤 부분의 말씀, 그 어떤 방면의 행사를 대하든, 또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한 일이든 구체적인 개인에게 한 일이든 모두 사람의 관점과 사탄의 논리로써, 지식과 논리의 방식을 이용해 추리하고 판단하지, 진리를 대하는 방식 혹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관계된 이 말씀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하나님의 영을 대할 때나 적그리스도는 사실 같은 방식을 취하며, 별 차이가 없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자신에 관계되고 창조주에 관계된 것이라면 모조리 엿보고, 그런 다음 추측하고,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출하는 결론은 부정과 비하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

언제나 최종적으로 정죄와 비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째서 최후에는 늘 이런 결론이냐? 설마 피조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이냐? 이는 하나님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고 난 뒤 진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정죄하고, 비하하는 것이냐? 이는 문제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그건 바로 사람 내면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근본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인 바람에서도 그렇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반발심을 품고 시험하려 든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어디가 하나님다운지 좀 봐야겠어. 당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신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당신 말씀 중에 당신이 신성과 하나님 성품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말씀은 어떤 거고, 당신이 한 일 중에 당신에게 하나님 신분과 본질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은 어떤 건지 좀 봐야겠어. 당신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를 했나, 아니면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주기를 했나? 당신이 저주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기라도 했나? 당신이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기라도 했나? 당신이 한 일 중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적그리스도는 늘 이런 일, 진리, 길, 생명 이외의 일을 보려 하고,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분을 증명하고, 또 사람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려 하는데, 이는 출발점 자체가 틀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진리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이 최소한의 진리마저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멸시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한다. 그는 진리를 싫어하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한다. 그는 진리를 증오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느 말씀이 진리이고, 어느 말씀이 긍정적 사물인지 보지 못한다. 그 마귀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보지 못하는데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가 이런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대할 때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속으로 저울질하고, 계획하고, 궁리한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한 어떤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면 그의 태도는 금세 변할 것이다. 그가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한 어떤 말씀이나 일에서 약점을 잡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의 태도도 즉시 돌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도 그고, 하나님을 하나님 같다고 말하는 것도 그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 본질을 지니고 있느냐는, 오로지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것과 자기 머리로 한 분석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다.

최근 1~2 년 사이에 교회에서 체험 간증 영상을 어느 정도 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 간증 덕분에 일부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 어느 정도 의혹을 품은 사람들은 그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었다. 영상은 물론 적그리스도를 안정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간증을 한 이 사람들은 연령과 계층이 다양하고, 국가와 민족이 다른 이들도 있다. 그들의 체험

간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변화를 얻고 진리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현 단계 사역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지 않은 진리를 깨닫는 한편,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신분을 갖추고, 하나님 본질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물론 이런 체험 간증을 듣고 적그리스도도 예외 없이 조금은 내심 기뻤다.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성급하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 이 도(道)는 정말 괜찮군. 이 그리스도, 평범한 사람이 아마 하나님일 수도 있겠는걸. 이번에는 제대로 베팅했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사람 앞에 오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신분과 본질을 입증하면, 내가 복받을 희망과 확률도 점점 커질 거야.' 적그리스도는 관망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채찍질한다. '서두르지 말고, 참아야 해. 그냥 견디면 되는 거잖아.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볼 때, 교회 규모나 상황으로 볼 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나 이 사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도가 맞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급히 일어나 부정해야 할까? 그렇게 하지 말자. 바보같이 굴면 안 돼. 3~5 년 더 기다리자. 더 많은 이들, 명망 있고, 지식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더 강력한 증거로 이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거나, 혹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규모가 세계적으로 더 확대되면, 그때는 나도 뭔가를 얻지 않겠어? 크게 덕을 보지 않겠어? 교회가 세력을 얻으면 나도 세력을 얻지 않을까? 절대 떠나지 말자! 만약 이 모든 게 맞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그를 저버리고 지금 그를 부정할 경우 복을 하나도 못 받을 거야. 이 사람에게 전부 올인하자. 그의 신분과 본질이 과연 누구인지, 그의 성품이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지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갖는 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지, 교회 세력과 규모가 점점 커지는지 하는 일이야. 만약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만약 그가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나는 큰 복을 받고 크게 덕을 보겠지.' 매번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다소 위안과 기쁨을 얻는다. '어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한 일이 모두 공의롭다는 걸 믿지 않아도 여전히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걸 믿지 않아도 여전히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고 권병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고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걸 믿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또 어때서? 내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은 믿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머릿수를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견디면 누가 나를 어쩔 수 있겠어? 여전히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지 않겠어?' 너희가 볼 때 적그리스도의 그럴듯한 계산이 성공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될 때, 그는 어디에 있겠느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때 그는 어디 있겠느냐? 그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의 인내가

정말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가 인내하고, 보전을 꾀하고, 와신상담하고, 잔꾀를 부린 일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 그 악행을 상쇄할 수 있겠느냐? 그의 그럴듯한 계산, 그의 대책, 음모와 계략, 그가 속으로 저울질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엿봄이 정말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토록 영리하고 어떤 일도 물 샐 틈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런 말로를 맞이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직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로 삼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최후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원인이다. 이런 걸 너희는 다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비록 너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일러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해부함으로써 모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이해할 때 어떤 태도가 가장 올바른 태도이고, 피조물이 갖춰야 할 태도인지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2020 년 8 월 22 일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7)

3.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계속해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10 조, '진리를 멸시하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위배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를 무시한다'에 관해 교제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는 해당 주제의 세 번째 항목,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교제했다. 이 항목을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교제하고 해부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조하고 해석한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엿본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의 전부이겠느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이나 모습이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불손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손하게 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 중 하나이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에 대한 해석 중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는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보거나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전해 들은 것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을 말해 보라는 것이다. 보아하니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 잘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구나. 전에 내가 교제한 세 가지 모습에 관해 너희가 문자 그대로 좀 인식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생각해 내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냐? 전에 교제한 세 가지 모습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이 몇 가지 행위와 모습은 떳떳한 것이냐? 올곧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냐?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모습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이다. 이 몇 가지 행위의 본질의 이면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사탄, 마귀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순종, 수용, 체험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탄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온갖 태도를 형성한다. 적그리스도의 이 몇 가지 모습과 행위에서 표출되는 성품은 바로 영계의 사탄에게서 표출되는 것이다. 이 몇 가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시대에서든,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든 긍정적이지 않고 사악하고 부정적이며, 피조물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규정한다. 이 세 가지를 교제하고 나서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전부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에만 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 행위가 하나 더 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만약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아마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장면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고 두루뭉술해서 그리 뚜렷하지 않다. 그럼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품 취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교제해 보기로 하자.

4)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상품으로 취급한다고도 할 수 있다.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입으로 떠들면서 으스대고, 그런 다음 남들을 속여 신임과 옹호, 동조를 얻고, 쉽게 명예와 이익,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그의 디딤돌이 된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가 진리를 이용하고, 가지고 놀고, 짓밟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진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정확하겠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진리는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칙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이다.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의 생활, 너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느냐? 너희가 떠오르는 대로, 이해한 대로, 여과나 가공하지 말고 즉시 말해 보아라. 너희가 체험한 말로 말해 보아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진리는 한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이 정상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비록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진리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고, 모두 일상생활에서 겪고 정리한 체험 소감이다. 누가 또 말해 보아라. (진리는 저희의 패괴 성품을 정결케 해서 저희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해 줍니다.) 정말 훌륭하고 예리한 말이다. 또 말해 보아라. (진리는 생명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의지해 살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일상생활의 실행 원칙에 관계된다. 비교적 깊고 높은 해석이지만 매우 실제적이다. (진리는 사람 내면의 패괴 성품을 폭로할 수 있고, 일을 바라보는 내면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몇 가지는 전부 실제적이고, 진리가 사람에게 지니는 가치와 의미, 진리가 사람에게서 이루는 성과와 관련된다. 너희가 말한 내용은 우리가 전에 자주 얘기했다. 비록 각자가 말한 요지는 다르지만 모두 예전에 진리를 해석하고 정의했던 '진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이다. 너희가 교제한 체험적 인식에서 볼 때, 진리는 모든 긍정적 사물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긍정적 사물의 실제이다. 진리는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람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기준에 맞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고 열납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진리가 이렇게 소중하니 사람은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진리를 대해야 하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줄이므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명,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 사람의 항시적 도움과 공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진리가 말하고 요구하는 대로 실행하고 체험하며, 진리가 사람에게 주는 갖가지 요구와 원칙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 분석, 추측,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사람의 항시적 도움이자 공급으로,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은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고, 진리에 의지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진리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진리에 의지해 일상생활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실행 원칙을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에 의지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든 사람이 진리를 대할 때 가장 지양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상품으로 취급해서 제멋대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진정한 피조물이 가장 지양해야 할 행위이자 모습이기도 하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 그가 배후에서 하려는 짓, 그의 속셈은 무엇이냐? 상품을 손에 넣은 상인이 상품에 거는 기대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이익과 그가 원하는 넉넉한 돈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익이나 돈으로 맞바꿀 수 있는 일종의 물질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소중히 여기지도, 받아들이지도, 실행하지도, 체험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의 도(道)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진리로 여기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 것이다. 상인에게 상품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돈이나 원하는 이익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것 역시 당연히 이런 속셈과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고 할 때,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먹고 마시고 누리거나, 체험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중의 물건처럼 언제 어디서든 판매하고 팔아 버린다는 것이다. 그에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 팔아 버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물건처럼 거래해서 돈과 맞바꾸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매매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글자 그대로 봐도 적그리스도의 이런 방식과 행위가 부끄러운 짓이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짓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교제하려는 핵심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아주 명확한 모습이 있다. 너희가 좀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몇 년간 사역하고 말씀한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각이 혼탁하고 문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낸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어떤 문제이든, 어떤 주제이든 항목을 나누어 조목조목 해석하고 설명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적절하지 않으냐? (적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딱 좋은데요. 골치 아프고 마음 쓰이는 일은 좀 덜겠어요. 저희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 에너지와 마음은 큰일을 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에 써선 안 되죠. 저희에게 이런 사소한 일을 고민해 보라고 하시는 건 저희를 너무 얕보시는 거고, 어찌 보면 인재를 썩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희는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때로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교제해 주시고 한 글자씩, 한 마디씩 교제해 주셔야 저희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본의 아니게 실상을 얘기해서 너희 약점을 들추게 됐구나. 허나 사실이 이렇다. 들추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니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만약 대주제를 간단히 대략적으로 훑기만 한다면 그것은 괜히 얘기해서 힘만 빼는 것이다. 시간 낭비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는 내용을 소주제 몇 개로 나눠서 차근차근 해석하고 설명하겠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정말 이런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교제해 보자.

(1) 하나님의 말씀을 지위와 명예를 얻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삼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얻고 체면을 세우는 것이다. 물질적인 즐거움과 맞바꾸는 경우는 더 흔하고, 돈과 맞바꾸기까지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 말씀은 훌륭하구나. 구구절절 일리가 있고 올바른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과거 두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불문하고 이렇게 명문화되고 직설적인 말씀은 없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일부가 제한적으로 실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내용이 무척이나 풍부하다. 적그리스도는 내심 질투가 나고 부러워서 속으로 궁리한다.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언제쯤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저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쏟아 낼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는 이런 충동과 욕망이 생겨난다. 그의 충동과 욕망으로 봤을 때 그가 속으로 하나님이 한 이 말씀들을 부러워하고 숭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부러움', '숭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들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풍부한 내용을 부러워하고, 방대한 편폭과 분량을 부러워하며, 말씀의 심오함,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더욱 부러운 건, 자신은 할 수 없는 말씀이란 점이다. 이 몇 가지 '부러움'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신성의 선포나 진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공급하려는 생명, 진리로 여기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부러워한다는 건 분명 내심 그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 중에 많은 이들이 남몰래 얼마나 힘을 들였는지 모른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록하고, 암기하고, 종합하고, 정리하는 등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크게 공을 들인다. 얼마나 필기하고, 혼자 영적 생활을 할 때의 인식을 얼마나 적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가 한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언젠가 갑자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을 거침없이 내뱉기 위함이다. 그것도 봇물 터지듯 끊임없이 말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며, 사람이 달성해야 할 것을 공급하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서다. 그도 성육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적잖이 공을 들인다.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속으로 하려는 말을 기록하고,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음성을 기록하기 위해 남몰래 노트를 꺼내 적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적그리스도의 이 욕망은 채워질 수 없고, 그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기록하고 외우며 정리해도 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를 빌어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는다. 그가 속으로 아무리 갈망하고, 애를 태워도 하나님 말씀을 한 마디도 내뱉을 수 없다. 조바심이 나고 질투가 날수록, 또 도달하지 못할수록 그는 화가 치민다. 그는 뭣 때문에 화가 나고, 뭣 때문에 조바심이 나겠느냐? 눈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자기 아래, 자기 앞에는 자기를 숭배하고 앙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다. 화가 나고 조바심이 난 나머지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궁리하게 되는 것은 역시 이런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을까? 하나님 집에 오면 왜 이방의 세상과는 다른 거지? 왜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 집에 온 뒤로는 착실하게 행동하고 점점 나아지는 거지? 왜 대부분 사람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 집에서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일부는 제명되거나 출교되어도 떠나지 않는 거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이 책의 성과와 영향 때문이야.' 이 점을 깨달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더욱 부러워한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기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출구로 변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 말씀으로 목표를 옮긴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이외의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말들은 할 수 있어. 설령 도리이고 공허한 말일지라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굳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종종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하고 해석하고, 항상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 입으로 하는 말이나 전하는 말이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옳은 말씀으로 들리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지위가 점점 공고해지지 않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위신이 서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지위를 얻고, 더 높은 명성을 얻으려는 바람이 실현되기 위한 길이 생긴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희망을 본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다행스러워한다. '난 어쩜 이리 똑똑할까?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이 방법을 모를까? 난 너무 똑똑해! 근데 똑똑한 건 똑똑한 거고, 이 실상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목표와 계획이 생긴 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대충대충 보고 들은 다음 아무렇게나 떠들었는데, 지금은 전략을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시간 낭비야. 전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러는 건 너무 멍청한 짓이야!' 따라서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공을 들이고 실력을 발휘해 보려 한다. 어떤 일에 실력을 발휘하려 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 말투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각 단계, 각 시기에서 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도 연구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말씀들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하고 해석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숭배할지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노력의 이면에 깔린 옳지 않은 의도와 못된 심보 때문에 그가 내뱉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도리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적그리스도 본인에게는 수확이 없다. 수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며, 그저 전하기만 한 탓에 그에게서는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고, 잘못된 사상 관점이나 인생관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패괴 성품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의 여러 가지 내적 상태에 자신을 전혀 맞춰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그에게서는 딱 두 가지 결과만을 볼 수 있다. 첫째, 비록 그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모두 옳고 심지어 해석도 틀리지 않지만, 그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그가 아무리 기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추천하고 전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바로 그가 입으로는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추천하고 전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신부터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이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이룰 생각뿐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지위와 이익을 얻고 싶어 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여겨 대하고 경배한다면, 그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비록 지금은 이 목적과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것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란 말인가?' 네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도나 목적이 다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위한 것이고,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자신의 관념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좀 외우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기록이나 체험 소감을 좀 적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관념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일부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부 말씀, 비밀에 관련된 일부 말씀,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서 비교적 성행하고 사람들이 종종 설교하는 일부 하나님 말씀을 말이다. 외우고 정리하고 종합하는 방법, 체험 소감을 기록하는 방법 말고도 물론 더 많은 방법이 있으며, 해괴망측한 방법도 좀 있다.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얻고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 교회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마다치 않는다. 밤을 지새우고 꼭두새벽에 일어나길 밥 먹듯 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정신없이 바쁘게 설교 연습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말한 훌륭한 부분을 기록하는데, 바로 도리로 무장해 높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높은 설교를 할지를 고민하는데, 하나님 선민의 탄복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데에 가장 유용한 하나님 말씀을 골라 외운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자신의 고명함과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들은 몇 번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어떤 빛 비춤을 설교하고 어떤 이론을 설교하는지 그들은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 자신의 설교로 바꿔 버린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면에는 어떤 속셈과 동기가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자유자재로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보다 더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어떤 고생을 한다 해도 다 가치가 있다고 말이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지 2 년이 되고, 3 년이 되고, 5 년이 되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내용, 어투에 점차 익숙해진다. 심지어 일부 적그리스도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몇 마디는 외울 수도 있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외우는 동시에 말하는 방식, 어투, 심지어 억양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뻐한다. 어떤 부분이 기쁜 것이겠느냐? 그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되는 일이 정말 좋기만 하다.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숭배받고 둘러싸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공을 돌린다. 자신이 기회를 얻고 깨우침을 얻은 건 다 하나님 말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어투를 모방할 줄 알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 가고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에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투를 모방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억양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꽤나 쏠쏠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다. 적그리스도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위험한 일이 아니냐? (위험합니다.) 어떤 점이 위험하냐?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면 위험한 일이다. 그건 곧 바울과 같아지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은 구제 불능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루트로 삼는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 기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적이며 열독하고, 암기하고, 정리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열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투와 말씀의 방식을 모방하고,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도 모방했다. 이런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는 그것을 장사꾼이 도매가로 물건을 사들이는 본질에 비유하겠다. 즉, 적그리스도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보유하는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길로도 받아들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의 방식과 어투를 기억하고, 자신이 이 말씀의 선포자가 되려고 시도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어투와 방식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방식과 어투를 충분히 활용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거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하나님에게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어투와 방식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그 자신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숭배 대상이 되려고 했다. 그는 사람들 마음에서 보좌에 오르고 왕권을 잡아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고 싶어 했고, 이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장사꾼이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며 싼값에 사들이려 하는 행위에 빗대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모방하며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를 활용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들인 물건을 팔지 않고 모셔 두는 장사꾼은 없다. 그가 물건을 사들이는 목적, 물건을 보유하는 목적은 바로 그 상품에서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거두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단지 장사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싸고 빠른 방식으로 손에 넣어서 자신이 보유하는 부속물로 만들고, 그런 다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바라는 이익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 앙망, 나아가 사람들의 추종이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자신을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도리어 많은 이들로부터 추종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경우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서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도 실행하지 않고, 일 처리도 원칙대로 하지 않고, 교회 사역과 상부의 안배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째서 많은 이들이 그를 비호하고 감싸는 것이냐? 어째서 그가 리더를 맡으면 일부 사람들이 그를 지켜 주는 것이냐? 어째서 그가 교체될 때는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며 가로막는 것이냐? 문제투성이인 사람,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언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위장에 능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재주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이런 사람은 100%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설교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꾸짖어 그에게 고분고분하고, 그의 말을 두말없이 따르게 하고, 또한 그가 말하는 거창한 도리에 말문이 막히게 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는 법도 없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법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만약 리더를 맡는다면 그의 윗선 리더는 허수아비가 되고, 하부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그가 있는 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 하나님 집에서 하달한 원칙과 요구는 하나도 시행되지 못한다.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도 한바탕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 말씀은 암기하기도 한다. 예배에서 교제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고, 평소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낭송 녹음을 듣는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나 말 중에는 틀린 말이 없다. 겉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하고, 소위 옳은 사람인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 하나님 집의 요구와 원칙이 그에게만 가면 막히기 일쑤다.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와 하늘의 막연한 하나님만을 숭배할 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어떤 수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 흐리멍덩하게 믿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우매하고 마음이 혼탁한 자들, 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 불신파들, 맞장구나 치는 기회주의자들, 이들은 적그리스도 같은 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적그리스도가 설교하는 글귀와 도리를 진리 실제로 여기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리더가 아직 얘기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했잖아요. 우리끼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리더가 집에 없으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빛 비춤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길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우리 리더는 요 며칠 바빠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떠나면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도 모른다. 하나님에게 구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 방법도 배우지 않는다. 주인이 없으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이고, 마치 심장이 도려내진 것 같다. 그의 주인은 그의 눈이고, 그의 심장이자 간이자 폐이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주인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는 주인이 집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생각도 없고,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고 풀이해 주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주인이 전달자가 되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는 더없이 기뻐할 만한 일이다. '몇 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몇 년의 세월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어.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구나.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더니, 그만큼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없으면 못 산다는 추종자들의 말을 듣고 속으로 죄책감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남몰래 좋아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은 거로구나. 그때가 옳은 결정이었고, 몇

년간의 노력도 옳았어. 이렇게 하길 잘했어. 성과를 얻었잖아.' 그는 내심 기뻐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 증오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자기 행동 방식이 옳았다고 더욱 확신하고 긍정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간, 앞으로의 생활에서 그는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방식, 어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휘 사용을 더 많이, 더 깊이 모방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그의 속셈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정반대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사람이 지키고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뒷전에 제쳐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이런 말에 반감을 품고, 속으로는 이런 말이나 어휘에 은근히 반발한다. 일정한 '성과'를 얻은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행동 방식대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더욱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는 어떻고 세세한 톤은 어떤지,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등을 연구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세세하고 관용적인 어법도 놓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에 더욱 바짝 다가가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 깊이 연구하겠다고 다짐한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목표를 연구하고, 심지어 인류를 향해 말씀하고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는 선포자인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한다. 적그리스도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온갖 측면을 연구하는 한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흉내 내려 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것처럼 보이려 한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발생하는 듯하다. 적그리스도 역시 당연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동시에 당연하게, 또 저도 모르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사람들이 앙모하고 따르는 대상으로 둔갑시킨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여러 가지 내적 상태를 폭로하는지 연구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성과를 이루는지 연구한다. 그가 이 모든 걸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하는 동시에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정곡을 찌를 때, 적그리스도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 이런 방식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해! 나도 이렇게 말해야겠어. 나도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수년간 읽고 익히는 동안,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적그리스도의 바람과 욕망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표로 점점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일 처리를 원칙대로 하라고 말씀해도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는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행동 동기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마디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단 한 마디도 그의 인생관과 처세 철학을 바꾸지 못한다. 나아가 어느 한 마디 말씀, 어느 한 편의 설교, 어느 한 차례의 말씀도 그가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폭로하든, 어떤 패괴 성품을 폭로하든

적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서 이루려는 성과 등 진리와 무관한 일만 연구한다.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수록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의 마음속 욕망은 더욱 강렬해진다. 얼마큼 강렬해지겠느냐?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늘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연습을 하는 등, 마치 마귀 들린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간절하고 진실해도, 사람에게 아무리 큰 도움과 깨우침을 주어도 적그리스도는 본체만체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어떡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해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을까 하는 생각뿐이다. 욕망이 강렬할수록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 이면의 목적과 바람, 뜻을 이해하고 심지어 하나님 내면 깊은 곳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욕망과 바람이 강렬할수록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가급적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어투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닮아 가려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과 기질까지 갖추고 싶어 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매일 이런 마음과 생각, 속셈과 동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걷도록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의 생각에는 그 길이 정정당당한 길이고, 밝은 길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럿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 및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소감을 교제한다 해도 그의 마음은 동하지 않고, 그의 목표와 바람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마귀 들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길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간다. 그건 어떤 정신이냐? 요상한 정신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온갖 측면을 흡수해서 자신의 부속물로 삼고, 자신에게 더 높은 이익과 더 많은 금전을 가져다주는 상품으로 취급한다. 이 상품을 팔고 난 뒤, 그것들을 실컷 과시할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할수록 그는 속으로 만족을 얻고,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되려는 그의 욕망은 더 커지고 강렬해진다. 이것은 어떤 태도,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되려는 적그리스도의 욕망은 어째서 그토록 큰 것이냐? 누군가가 가르쳤느냐? 누가 부추긴 것이냐? 누가 지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느냐?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건 어찌 된 일이냐? 그건 바로 본성 본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외부의 조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주저함 없이, 전혀 후회 없이 이런 길을 간다. 그를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해부해도 귀담아듣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끝내 나쁜 길에 빠져든다. 이것은 바로 본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겉으로 보면 대적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만약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갈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적어도 이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겉모습에서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느냐? 겉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척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경청하고, 또한 외우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인 행동 방식을 볼 때 그는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겠느냐?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일이 닥쳤을 때 그중에서 한 단락을 인용하거나 두어 마디 외우기도 하는데,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인용한다. 하지만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 그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아라. 만약 자신의 지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에 흠이 가는 일이라면 그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느라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감추고 회피하려고 그 일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설령 남에게 화를 전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 무척 공을 들인다. 하지만 정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육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아라. 만약 그에게 원칙대로 일하라고 한다면,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든 어느 사람의 미움을 사든 상관 말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선 자신을 보전하는 쪽을 택한다. 설령 누구의 잘못인지 알고, 누구의 악행인지 알더라도 그는 폭로하지 않고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악인을 폭로한다면 그는 악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위해 변명할 것이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보아라. 그가 만약 진리 원칙대로 일하는 쪽을 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 성과이다. 만약 진리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소용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인식하겠느냐?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적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라고 하고,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던데요." 그는 말만 하고 끝이다. 정말 일이 닥치면 그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와 어떤 사람이 협력할 때 그가 한 말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옳고 진리 원칙에 부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체면이 깎이고 지위를 보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쪽을 택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100%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가 그 옳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그의 실제이냐? 그의 실제 분량이냐? 그의 선택이냐? 그가 가는 길이냐? 아니다. 그것은 그가 체험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다 도리이고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지위에 관계되고 이익에 관계된 일에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을 보전하고 지키며, 다른 사람을 마비시키고 미혹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과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본질을 볼 때 그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속셈과 목적을 보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비록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거야."라고 정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본질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본질을 볼 때,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그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이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 등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우매한 사람, 분량이 작은 사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불신파를 미혹하고, 심지어 악인들도 미혹한다. 이로써 그들이 자신을 진리가 있는 사람, 옳은 사람, 앙망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의탁하고 구하면 그는 속으로 만족해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에 쏟는 노력,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쉬운 일,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한다. "성육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지위와 명망을 지니고,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리스도처럼 대우받고 하나님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처럼 대우받고, 하나님의 신분 본질을 지닌 그분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울 게 뭐 있나요?"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천성이며, 사탄과 똑같은 야심과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가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더없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덕분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적그리스도에게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다. 만약 이 평범한 사람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는 희망이 매우 희박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것이 자신에게는 기회이고, 자신이 노릴 만한 틈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투와 말씀의 방식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까지 흉내 내어 점점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는 단서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자신이 점점 하나님처럼 보이고 점점 하나님에 근접해진다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르고, 무슨 일이든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 구하며 앙망하는 하나님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지위가 부러운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어떤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내면 깊은 곳은 어둡고 사악하지 않으냐? 떳떳하지 못하고 비열하며 더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역겹기 그지없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 말씀을 한참 들어 보았습니다만, 저희는 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을까요? 지금 하신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실제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너희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보았느냐? 너희 자신은 해당하지 않느냐? (저희에게도 이런 측면의 내적 상태나 표출이 있습니다. 비록 적그리스도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같은 본성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생각에는 이런 내적 상태가 위험하냐, 그렇지 않으냐? (위험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쉽게 고칠 수 있겠느냐? 이는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지킨다면, 예수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한 것처럼 간단한 일이니, 정말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 한 가지를 시행하라고 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씻은 듯 깨끗하게 핥아라. 그게 식량을 아끼는 거고, 또 위생적이다." 이것이 간단한 말이 아니냐? 시행하기가 어려우냐? (시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고충이나 내적 상태, 패괴 성품은 언급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구별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몇 마디로만 요구하면,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너에게 이 몇 마디는 곧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자 네가 지켜야 할 말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매번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하나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네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이 가장 간단한 일에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벗어 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말씀을 들은 후 너는 입으로 알았다고 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지만, 결국에는 다 먹은 그릇에 밥알 몇 톨이 남아 있는 걸 보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릇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고, 다음번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을 기억했지만 언제 실행할지 모를 일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실행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친 것이다. 넌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이 너에게서 시행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것이냐?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실행하지도 않는다. 별생각도 없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핥으라고? 모양 빠지게!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난 그렇게는 못 해! 핥고 싶은 사람이나 핥으라지.' 누군가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입니다."라고 하자 그가 대꾸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라 해도 안 돼요. 이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시원찮은 말씀이 있고, 논리에 안 맞는 말씀도 있고, 별로인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요구가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이야말로 진리죠! 밥 먹고 난 다음 그릇을 깨끗이 핥는 게 위생적인 겁니까? 그냥 씻으면 될 것을 왜 핥으라는 거죠? 그릇을 핥는다는 건

제 관념과 상상에 맞지 않고, 어디서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저보고 핥으라니, 어림도 없죠! 위생적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까? 전 물로 씻을 때도 소독물을 씁니다. 이런 게 바로 위생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가지고 속으로 반발하고 비웃고 헐뜯는다.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 감히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그 말씀에 견해나 관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가 견해와 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느냐?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며, 이 말씀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관념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군가 그릇을 핥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속으로 경멸한다. 그리고 겉으로 늘 빈정대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교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동시에 역행해서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으로 더 많은 이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한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고 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매번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물로 헹구는 것도 모자라 소독물과 세제로 여러 번 씻고, 다시 소독기에 넣어 소독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견해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사실 핥는 것으로는 균을 없앨 수 없어요. 물로 씻어도 균은 없어지지 않죠. 소독물에다 고온으로 처리해야 철저하게 소독이 되고, 그래야 위생적인 거라고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신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대적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견해를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정죄하고 대적하며 판단하도록 부추기고 미혹하기까지 한다. 그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길 때 그 관념을 해결해 주거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연구하도록 부추기고 미혹한다. 겉으로는 마치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하며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당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갖춰져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사람의 정의감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의 행위 이면에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 마귀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더 부끄러운 건 영적인 사람인 체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식으로 자신을 미화하고 남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체험하거나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입바른 소리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그릇을 깨끗하게 핥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식량을 아끼는 것이라고요."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갖 판단과 그릇된 해석을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방금 분석한 세 가지 유형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어느 것이냐?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본인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갖 대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느 측면의 하나님 말씀이든, 설령 자기 관념에 맞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의 관념은 물론, 인간의 전통문화와 철학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은 더더욱 적그리스도의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그가 어째서 설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마지막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골 빈 사람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사람에게 무얼 시키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좀 바보 같아 보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일하고 힘만 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요구와 기준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행동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저희를 위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구잡이로 행한다.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때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심하면 큰 화를 자초하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이며, 이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사탄의 도당으로, 죽어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네가 한 말이 옳아도 그는 듣지 않으며, 관념을 갖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요, 진리의 철천지원수이다. 겉보기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영리한 부류도 이들이다. 무슨 일이든 분별하고 연구하려 하고, 무슨 일이든 신경 쓰고 공들여서 알아내고자 한다. 결국,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하나님을 연구하기에 이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의견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는 자신에게 통하지 않으면 모조리 정죄하고, 자기한테 불리할까 봐 실행하지 않는다. 반면 겉으로 볼 때 무척이나 바보 같아 보이는 유형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듯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겉보기에 무척 단순하고 정직해 보인다. 터놓지 말아야 할 것도 터놓고, 보고하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하며, 심지어 일부 모습에는 유치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거나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 간단한 예를 들어 이야기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알게 하고,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이고 어떤 부류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아닌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분별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무심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건 너희가 오늘 교제하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깔끔히 핥으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그릇 핥는 행위를 위생적이고, 식량을 낭비하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와 관련하여 오늘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교제해 보았다. 상품이라고 하면 판매와 거래, 이익, 금전과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한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왜 그런 것이냐? 방금 예배 드릴 때 각자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말로 교제하고, 가장 간결한 말로 요약해 보았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이고, 진리는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진리는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이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다. 인류에 대한 진리의 가치는 말이나 물질, 금전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 진리는 사람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고, 또한 그 진리를 행동과 됨됨이, 생활, 인생 등의 지침과 방향,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다. 사람은 진리에서 실행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 등을 얻어야 한다. 진리는 사람에게 생명과 같기에 그 어떤 물질이나 부도 진리에 견줄 수 없다. 이 물질세계에서, 혹은 우주 세계 전체를 통틀어 진리에 비견될 만한 것은 없고, 진리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로써 진리는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상품 취급해서 판매하고 거래하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은 마귀, 사탄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도 남는다! 이런 사람은 영계에서는 마귀이자 사탄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그리스도이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며 팔아 사익을 챙기는 모습에 대해 교제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그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실 그의 행위와 행동 방식 나아가 그의 본질에서 볼 때 그는 이미, 또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다음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적당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팔아 이익을 얻는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명망,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 그리고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의 눈길이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지켜 주고 그의 지위와 체면을 지켜 주며, 심지어 그가 교체되고 도태되었을 때 그를 위해 변호하고 해명해 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취한 이익이다. 이런 이익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자 추구하는 것이며, 그가 속으로 오랫동안 계획해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그의 모든 행위는 그의 본성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그의 본성에 지배를 받은 것이다. 이런 측면의 모습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 말씀 책을 팔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다

이어서 교제하는 두 번째 방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행위와 행동 방식이다. 이 행동 방식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각종 하나님 말씀 책을 상품 취급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 책을 손에 넣은 후 돈을 벌 밑천이 생기고 본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인쇄된 하나님 말씀 책들은 그의 본전이자 그가 판매하려는 상품이며, 그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책들을 자기 손에 쥔 채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원칙에 따라 배포하지 않고 자기 의도에 따라 거기서 이익을 취한다. 하나님 집에서 책자를 배포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이고, 그것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몇 명에게 배포하든, 몇 권을 배포하든 모두 무료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무료가 아니며, 반드시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책들은 하나님 집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책들을 손에 넣은 다음 무료로 배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원칙에 따라 무료로 나눠 주지, 돈을 받거나 거기서 폭리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만이 이 책을 얻은 다음 그것을 사업 기회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야심과 욕심이 고개를 든다. '이렇게 두껍고 좋은 책을 공짜로 나눠 주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걸로 돈을 못 만지면 바보 아닌가? 게다가 이 책은 다른 데서는 사지도 못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읽고 싶어서 얼마를 주더라도 손에 넣으려 한다고.'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파악한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돈 벌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잖아. 책을 나눠 줄 때 차등을 두어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받고, 보통 사람에게는 중간 가격,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받거나 아니면 주지 말아야지. 나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에게는 가격 혜택을 주고, 나랑 안 맞는 사람에게는 좀 더 받아야지.'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정한 대로 책을 나눠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장사를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그가 하나님 집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시행했느냐는 차치하고, 우선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부터 얘기해 보자. 하나님 말씀 책을 손에 넣은 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다루는 생명의 도, 진리에는 관심 없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무렇게나 휙휙 넘기며 훑어볼 뿐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정복해서 좋은 종착지를 주신다고는 하는데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군. 그러니 이 책도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없긴 해도 보려는 사람이 많으니 잘됐지 뭐. 여기서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 책은 그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상품으로 전락한다. 이 말은 곧 이 책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거나 적어도 일부 있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 책 배포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거기에 끼어들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책을 무료로 나눠 주는 일을 하나의 거래, 장사로 변질시켰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돈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다른 무언가와 바꿀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해야 할 건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한 보람이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한 하나님 6 천 년 경영 사역이 사람에게 행해지는 근본

취지이자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 그의 소유와 어떠함, 그의 뜻을 무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 안에 거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세심하게 귀담아듣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무료로 얻었다면 속으로 하나님에게 보답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이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대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된 인류 사이에 맺어져야 할 묵계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거래로 변질시켰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을 기회 삼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고, 그 가운데서 얻어서는 안 될 금전과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런 행위는 저주받을 짓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말씀 중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면서 사례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한 마디에 얼마, 한 단락에 얼마, 설교 한 번에 얼마, 책 한 권에 얼마, 책망과 훈계 한 번에 얼마, 심판과 형벌 한 번에 얼마, 연단 한 번에 얼마, 생명 공급 한 번에 얼마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구문과 단락, 편 중에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책망과 훈계, 형벌과 심판, 시련과 연단, 하나님 말씀의 공급, 양육 중에서 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그중 사람이 돈으로, 물질로, 육의 대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선포한 이 모든 진리는 모두 값을 매길 수 없다. 값을 매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돈이나 그 어떤 물질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등가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등 이 모든 것의 진귀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도리어 거기서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또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을 혼내 주려고, 자신의 위신과 명망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권세를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쥔 채 아래 형제자매들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런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권력 잡고 있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들을 하나님 설교가 없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취급하느냐?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사유 재산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류를 향해 하는 말씀으로, 어느 누가 그 어떤 이유나 구실로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충당하고 있으며, 그는 관례를 깨고 이런 짓을 벌이려 한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최신 설교 녹음을 받은 뒤 자기가 먼저 들어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빛 비춤이나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설교를 배포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교 녹음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예배 시간에 으스대려는 것이다. 이렇게 으스대는 것이 바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으스대자 아래 사람들은 지금까지 못 들어 봤던 새로운 내용이기에 그를 우러러본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각지 교회에 설교와 녹음을 제때에 온전히 배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또 일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책을 배포할 때 상대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본다. 자기를 가까이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에게 배포한다.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받지 못한다. 무료로 제때 배포하는 원칙은 그에게 가면 에누리의 대상이 되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겨우 받을 수는 있지만 꼭 제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자기와 관점이 다르고 심지어 대립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골라서 배포하거나 아예 배포해 주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책을 배포하는 일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매수하기도 하고, 억압하고 혼내기도 하는 등 못된 짓은 뭐든 저지를 수 있다. 심지어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나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배포해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혼낼 것이다. 따라서 제때 하나님 말씀 책이나 설교 녹음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두려워한다. 설령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자기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더라도 감히 보고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억압과 괴롭힘을 당할까 봐, 상부와 연락이 끊길까 봐, 상부의 양육이나 공급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없겠느냐? 100% 있고, 반드시 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 권력과 이익을 다투고 패거리를 결성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일 외에, 하나님 말씀을 배포하는 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가 이익을 취하고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그의 이용 대상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너희가 있는 교회에서, 너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으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선거에서 저를 뽑지 않거나, 상부에 저를 고발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고자질했다가 들키면 앞으로 녹음 설교는 없습니다. 공급을 중단해서 양식을 끊어 놓겠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견딜 수 없게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흉악하지 않으냐? 너무나 흉악하다! 온갖 못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너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부에 보고할 수 있겠느냐? 다 같이 연합해서 그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너는 엄두가 나지 않아 잔뜩 움츠러들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난 분량이 작아. 난 나이가 많지 않아. 난 힘이 미미해. 적그리스도가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괴롭히기라도 하면 난 끝장나지 않겠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 주겠어?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 주겠어? 누가 날 위해 나서 주겠어?' 너는 어찌 그다지도 믿음이 작단 말이냐? 적그리스도를 맞닥뜨리고도 겁을 집어먹는데, 사탄이 눈앞에서 위협하면 더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네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 주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 하나님 말씀 책을 돈 내고 사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셈이냐? 하나님 말씀 책을 나눠 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너를 곤란하게 하고 거북한 소리를 해 대면 어쩔 셈이냐? 이 일이 다루기 쉬운 일이냐? 너에게 좋은 수를 알려 주겠다. 책이 배포될 즈음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그를 칭찬하고 추켜세워서 신임을 얻는 것이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 말씀 책과 설교 녹음을

너에게 나눠 주면, 그런 다음에 상부에 보고할 기회를 찾아라. 만약 상부에 보고할 길이 없다면, 기회를 봐서 분별 있는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쳐 적그리스도를 제한하고 결박하여라.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가장 합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다 적그리스도에게 들키면 어떡합니까?" 만약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하도록 해라. 언제 네게 용기가 생기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다시 시도해도 된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네 양식을 끊어 버릴 것이 두렵다면 우선은 객기 부리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언제 네게 분량이 생기고, 알맞은 사람, 옳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네 편에 서서 함께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서 내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그를 끊어 내도록 해라. 이 방법이 어떠냐?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정직한 게 아닌데요."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런 걸 두고 마귀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 이 마귀는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두려우냐? 정말 적그리스도가 네 주변에 있다고 해 보자. 바로 너희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 패거리가 있고 아주 가까운 자들이 몇몇 있다. 너는 두렵겠느냐?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려워하는 게 맞느냐? 이 두려움 안에는 적어도 좋은 것, 옳은 것이 하나 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를 두려워한다는 건 최소한 네가 속으로 그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너를 혼내고 괴롭힐 수 있고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너는 속으로 최소한 그를 이렇게 이해하고 분별한다. 비록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거나 분별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가 좋은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올바르고 선량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다. 착실한 사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귀 외에 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악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인을 두려워한다. 적어도 너는 속으로 그가 악인임을 알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 그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의 여러 행위를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통해 그의 본질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네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으면, 너의 그 두려움 안에 일부 요소가 더 추가되어 그에 대해 분별이 생긴다. 비록 속으로 그가 두렵지만 그와 한편이 될 수 없고, 속으로 그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이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입니다.) 그가 만약 너에게 자기와 같이 악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너는 동의하겠느냐? 너는 속으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너에게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욕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너는 동의하겠느냐? 그가 너에게 자기와 한편이 되어 사람들을 혼내고 괴롭히자고 한다면,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책을 주지 말자고 한다면 동의하겠느냐? 비록 동의하지 않겠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는 속으로 그가 한 일에 대해 분별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억지로, 강요에 못 이겨 그와 어떤 일을 했다 해도 너는 단지 강요에 못 이겨 한 것이지 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주범이 아니고 기껏해야 종범 정도이다. 비록 그 앞에서 네가 그를 폭로하거나 격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추종자나 공범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적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악인이 두렵고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양보하며 보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궁여지책으로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만큼 한 것을 가지고 굳게 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진리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을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굳게 설 수 있느냐? 너희는 길이 없으면 그저 양보하며 보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그가 악을 행할 때 난 감히 가담할 수 없어. 난 징벌이 두려워. 그는 악인이라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사람을 혼내고 괴롭히지만, 어쨌든 난 안 그랬으니 됐어. 그 악행이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너희는 이 정도라도 해내면 잘한 것이다. 단지 무골호인이 되어 중용의 길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증거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증거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론적으로 말하면 악인을 버려야 하고, 적그리스도를 버리고 폭로해야 한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에서 횡포를 부려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고발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겨우 그 정도이냐? 너희는 겨우 그 정도밖에 증거하지 못하고, 그 정도 분량밖에 없는 것이냐? 보고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모습과 악행의 사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분별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그에 대한 분별이 생긴 다음에는 폭로하고, 그런 다음 그를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절차도 옳고 과정도 옳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는 리더의 지위에서 그 일을 얘기한 것이다. 만약 일반 신도가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장부 기재와 장부 보고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장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외용 장부와 내부 장부를 따로 기록하다가 결국 내부 장부에서 200 위안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그 후 책임자가 와서 장부를 맞춰 보다가 금액 차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부용은 폐기하고 대외용만 남겨 두죠. 그러면 아무도 증거를 못 잡을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반대했다. "이건 제물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 돈인데 그러면 안 되죠." 책임자가 잠자코 있으니 다른 사람이 말했다. "200 위안이 별건가요? 적그리스도는 횡령했다 하면 몇만 위안인데."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이 일을 윗선에 보고했다. 의사 결정팀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200 위안은 별거 아니라며, 바빠서 그 건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 했고, 교회 리더에게 보고해도 역시 처리가 안 되었다. 다들 그 일을 나 몰라라 했다. 문제를 보고한 그 사람은 속이 상했다. '사람들이 어쩜 저럴까? 하나님 제물을 대하는데 어쩜 저리 무책임할 수 있지? 대놓고 속임수를 쓰다니!' 그는 이 일로 괴로워했다. 어느 날 내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보고했다. 장부 기록자가 장부를 적을 때 이것저것 빠뜨려서 장부를 엉망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결국 금액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 건이 큰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소위 책임자나 리더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도 처리해 주지 않았고, 장부 기록자를 내보내기는커녕 핑계를 대며 보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문제를 보고한 사람은 계속 보고를 하다가 결국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너희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보고한 것이냐? "200 위안에 왜 그리 집착하세요? 적그리스도는 횡령했다 하면 몇만 위안인데." 만약 그가 그들 중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은 태도였다면 그래도 보고를 했겠느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내 돈도 아닌데 누가 횡령하든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지. 어쨌든 나는 횡령하지 않았으니 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거나 "난 의사 결정팀이랑 교회 리더한테 보고했어.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지만, 그래도 난 책임을 다한 거야. 이젠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가 이런 태도를 지녔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은 기껏해야 의사 결정팀에 보고한 다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의사 결정팀에 보고할 당시는 마침 내가 교제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고, 그는 교제를 듣고 감동을 받은 터였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오랜 세월을 굳게 지키면서 번복하지 않았어. 내가 이 정도 어려움에 버티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래서 그는 계속 보고를 했고, 마지막에는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에서 이 일을 처리했다. 너희가 보기에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만약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이렇게 끝까지 버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너희도 역시 200 위안은 큰돈이 아니고 별일 아니니 그렇게까지 원칙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대할 필요 없다고, 차액이 커지면 그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여기겠느냐? '아무튼 난 책임을 다했고, 처리하고 말고는 리더의 일이야. 난 그저 보통 신도이고 내가 가진 역량으로 그에 걸맞은 기능을 발휘했어. 난 보고했고 내 의무를 다했으니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니야.' 너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너를 억압한다면 너는 보고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 사람은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삿대질하며 그를 정죄하고 항상 그를 혼내 주려 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냐! 나는 그 몇 명을 기억하고 있다. 왜 기억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집 밥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한 모든 진리를 누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제물을 그런 태도로 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집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자격이 없다! 너에게 굳게 서서 증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런 인품도 없다. 자기가 해야 할 것도 못하는 네가 하나님 집에 머물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수하며 하나님 집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독한 사람을 보면 겁내고, 착실한 사람을 보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 못난 인간들이 역겹다. 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역겹고,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역겹다. 특히 설교를 몇 년을 듣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자들, 속으로 아직도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하나님을 경계하는 자들이 역겹다. 이런 자들은 만약 악행을 저지른 명확한 사례가 없으면 적그리스도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런 자들이 역겹다. 얼마나 역겹겠느냐?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역겹다. 왜 그렇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해서 판매하고 거래하고 매매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을 취한다. 이런 자들은 거기서 어떤 이익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제물을 대할 때 지녀야 할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했다. 하나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자는 어떤 인간이냐? 바로 주님과 동료들을 팔아넘긴 유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감이 어떠냐?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 너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입장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못난 인간이라서 항상 움츠러들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두려워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너를 괴롭히고 혼낼까 봐 겁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너를 해할까 봐 겁낸다면, 늘 겁에 질려서 지혜롭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적그리스도와 타협한다면, 감히 보고하거나 폭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그를 저버리지도 못한다면, 너는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야말로 못난 인간,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하나님 말씀을 상품 취급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너를 위협하고, 너의 양식을 끊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네가 이긴 자겠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 베풀어 준 말씀과 영의 양식조차 너 자신이 얻을 능력도 없고, 그걸 먹고 마시며 누릴 수도 없다면 너는 얼마나 못난 것이냐!

지금까지 교제한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상품으로 대하는 모습들이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지 주마간산 격으로 쓱 보고 스스로를 꾸밀 뿐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부속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하고, 거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금전과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독하거나 먹고 마실 자유를 통제한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악인이자 마귀, 불신파, 이방인 족속이다! 하나님 집에서 보이는 족족 영원히 출교해야 한다! 너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버릴 수 있겠느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를 폭로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폭로하고 저버려야 한다.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 잡는 곳이다. 네가 만약 이런 분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가 네 내면에서 아직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네가 겁을 먹고 사탄과 악인을 무서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얻지 못하더라도 양보해서 자신을 보전하려 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는다면, 너는 굶어 죽어도 싸다. 그래도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겠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폭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상품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 선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의 사유 재산이 아니기에 누구도 말씀을 압류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들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누군가 그것을 압류해서 배포하거나, 누군가 거기서 폭리를 취하거나,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개인적인 계획을 품는다면 모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 선민들이 일어나 폭로하고 버려야 할 대상이고, 제명하고 잘라 내야 할 대상이다.

오늘 교제한 이 두 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긴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여겨 아끼거나 소중히 대한 적이 없다. 반면 차마 말 못 할 비열하고 지저분한 속셈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물질적으로나 비물질적으로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금전과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 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추켜세움과 앙망, 숭배, 추종을 받는,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 건 모두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고, 사람이 저버려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발견하면 일어나서 폭로하고 저버려서 그가 하나님 선민들 사이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을 만나면 그냥 상부에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너무 수동적이고 무신경한 것이다. 단지 상부에 보고하기만 한다면, 너는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들었으면서 보고할 줄밖에 모르니,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량이냐! 설마 적그리스도를 상대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어쩔 수 없을 때 취하는 방법이다. 세력도 약하고 분별도 별로 없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각종 모습과 행동을 폭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데도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못하고, 그를 저버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못난 게 아니냐? 네가 깨달은 그만한 진리가 아무런 작용도 못 한 것이다. 너는 네가 깨닫고 들은 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느냐? 만약 진리라면, 어째서 정정당당하게 일어나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못하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집권당이 된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려운 것이냐? 다만 한 가지 상황, 만약 무모하게 그를 폭로했다가 그가 너를 집권당의 손에 넘기는 상황이라면 좀 조심해야 하고 그를 격분시켜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방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서서히 그를 도태시켜야 한다. 소리 소문 없이 그를 도태시킨다면 더욱 대단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좋다. 오늘 교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안녕!

2020 년 9 월 12 일

제 11 조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1 조인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이런 태도로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전에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교제한 적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날과 운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교제할 때 이 분야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난번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하는 몇 가지 명언이 있다고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하는 두 가지 명언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제가 믿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이고, 또 하나는 "나를 책망하기에 당신은 아직 멀었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였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자신을 책망하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 또 한 가지, 책망을 받으면 바로 자신을 도태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 관념을 퍼뜨린다고 교제했다. 지금 말한 몇 가지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1.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가

방금,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면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해 전에 교제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를 교제하고 해부해 보려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어떤 구체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또 그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의 관점에서 그의 성품을 해부해 보기로 하자. 이왕 책망과 훈계라는 주제를 언급했으니 우선 적그리스도가 왜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는지부터 얘기해 보기로 하자. 책망과 훈계는 괜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느냐? 단지 그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냐? 누군가는 말한다. "지위가 있고 주목받는 인물은 모두 책망과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게 옳은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짓을 했기에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이냐? 만약 일반적인 문제라면 그를 엄하게 책망하겠느냐? 이 점을 교제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느냐? 이론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교만하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긍정적 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 그에게 책망과 훈계라는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호되게 폭로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느냐? 그가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적그리스도로 정의될 수 있으니 책망과 훈계를 받아 마땅하고, 심지어 호되게

폭로를 당해야 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해도 동정할 가치도 없으며, 그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누구라도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이냐? (아닙니다.) 확실하냐? 어째서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는 것이냐? 방금 내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아마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단지 도리만 이해하고 본질은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지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리만 이해할 뿐이다. 다들 적그리스도는 마땅히 책망하고 훈계하고 호되게 폭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적그리스도의 행동과 맞닥뜨리면 분별할 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리 실제가 없는 사람은 도리만 알고 무턱대고 규례에 끼워 맞출 뿐이다. 그러니 정작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내는 갖가지 행동과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이 갖가지 행동과 행위,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적그리스도는 독립 왕국을 세운다. 적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적그리스도의 본질 때문에 선민과 지지 기반, 사람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 독립 왕국을 세운다고 한다. 독립 왕국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자기 경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세력 범위를 경영하고, 자신의 권력을 경영하고 있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파벌을 결성하고 하나님 선민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중 하나의 이유가 아니냐?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아까 왜 말하지 못했느냐? 너희 입가에, 너희 머릿속에 이 말들이 맴돌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과 앞서 내가 말한 문자적 이유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하신 것은 다소 모호한데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은 자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건 모호하다. 그건 그저 도리이지 결코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는 구체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인 중 하나이다. 첫 번째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밀실에서 조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과 성질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다르다. 그렇다면 밀실에서 조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냐?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나쁜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밀실에서 조작한다는 건 어떤 일을 가리키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뒤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선거 때 뒤에서 표를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 일도 포함된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바로 암암리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고, 모든 사람을 등지고 국면을 장악하며, 특히 상부나 윗선 리더가 모르게 하는 것이다. 혼자서 몰래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원칙에 위배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 해가 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짓임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강행하려 한다.

사탄의 계략, 사람의 수단으로 국면을 장악하고 몰래 뭔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몰래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 그는 진리 원칙을 어기고, 교회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더욱이 양심을 어기며 행동한다. 그리고 행동이 투명하지 않은데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거나 자기 세력 범위에 있는 같은 편 몇 명만 알게 한다. 그럼으로써 국면을 장악하고 윗선 리더와 하나님 선민을 속이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밀실에서 조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후에도 대다수는 이 일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모른다. 왜 대다수가 모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하고 흉악한 점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형제자매와 윗선 리더, 상부를 속여 가며 행동한다. 네가 아무리 캐물어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연유를 모른다. 특히 많은 일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지만 대부분이 어찌 된 일인지 모른다. 이런 게 바로 밀실에서 조작하는 것이다. 밀실 조작은 적그리스도가 일할 때 자주 쓰는 방식 중 하나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속으로 저울질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는 혼자서 속으로 저울질을 하고, 같은 편이 있는 경우는 그들과 함께 몰래 저울질하고 계획한다. 즉, 자기 세력 범위 내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는 조종의 대상이자 음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알 권리가 없는 많은 이들이 얼떨결에 농락당하고 조종당하며, 얼떨결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밀실에서 조작하고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속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원칙에 어긋나고 하나님 집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그것이 횡포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일부가 일어나서 자신을 반대할 것이고, 만약 윗선 리더가 알면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교체할 수도 있어서 자기 지위가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는 밀실 조작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밀실 조작이 빚어 낸 결과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모두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다. 대부분이 미혹되고 속고,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의 밀실 조작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밀실에서 조작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책망하고 훈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폭로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밀실 조작은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적그리스도는 사역할 때 또 어떤 모습을 자주 보이느냐?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적그리스도가 남을 괴롭히는 것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자 그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늘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감을 갖고 반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법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적그리스도는 늘 그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억압하며, 단정하고

성실하고 그에게 알랑거리거나 아첨하지 않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억압한다. 적그리스도는 진리 원칙으로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속으로 그에게 불복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기회를 잡고 핑계를 대고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힌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을 억압하기도 한다. 상대가 그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면서 감히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상대가 그의 지위와 권력을 인정하고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하며 동조와 순종의 뜻을 보일 때, 그에게 어떤 다른 마음도 감히 품지 못할 때라야 만족하고 그만둔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적그리스도는 '공평'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하지 않는다. 누구든 그의 지위에 위협이 되면 그는 상대를 눈엣가시로 여기면서 기회를 잡고 구실을 만들어 괴롭힌다. 또 상대가 불복하면 괴롭히는데, 상대를 제압할 때까지 계속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은 진리 원칙에 너무 어긋나며, 진리와 적대된다. 그러니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책망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로하고 분별하고, 규정까지 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기호와 속셈, 의도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 그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정의감이 있는 사람, 공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 진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 진정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질투를 맞닥뜨리게 되며, 그에게 억압받고 배척당한다. 심지어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발아래 짓밟힌다. 적그리스도는 좋은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증오한다. 무릇 적그리스도가 질투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인물이며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온전케 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쓰고 온전케 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배척하는 수법을 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질투하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그의 행동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직접적인 교란으로 작용한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단지 성육신 하나님에게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적대적이다. 이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선민은 분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이 같은 성품은 진리를 교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그의 성품은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성품이다. 그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는 폭로하고 분별해서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선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미혹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하며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에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선민을 해하고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 선민들을 자기 손에 쥐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망치려 한다. 그러면 그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숙적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사역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은 독립 왕국을 세우고 밀실에서 조작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냐? (상부에서는 사역지침을 전달해서 하나님 선민들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적그리스도는 사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분별해야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형제자매들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사역지침에 대항하는 것이고, 또한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상부의 사역지침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행할 수 있고, 형제자매에게 교제도 해 주지만, 확인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나중에는 흐지부지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독자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주로 상부에서 어떤 사역을 배치하든, 아래에 어떤 사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든 전부 한쪽으로 제쳐 두고 신경 쓰지 않고, 전달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책을 배부하는 일을 예로 들어 보자. 말씀 책은 교회의 배부 원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권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자 한 권씩이라고? 그럼 내가 손해잖아? 그건 안 되지. 이 사역은 나에 대한 각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근거로 집행하고 이행해야겠어. 설령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안 돼. 평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배부하고, 헌금하지 않거나 집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나중에 나한테 달라고 사정하고 돈을 가져오면 그때는 그 사람 행동을 보면서 나눠 줘야지.' 이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냐? 이건 뭘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곧 사역지침 이외에 자체 규범을 정하고, 본인이 있는 현지 교회에서는 본인이 정한 규범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는 사역지침과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겉으로 볼 때는 책도 배부했고, 그 일도 했다. 하지만 무엇에 근거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 교회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한 규범, 개인의 방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엄격하게 그것을 이행하고 집행하지는 못하며, 반대로 혼자서, 그것도 몰래 수많은 조항을 정해서 현지 교회에서 실행하고 이행한다. 그런 건 단순히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즉, 그가 현지 교회에서 이행하는 사역지침은 상부에서 하달한 사역지침, 다른 교회들이 이행하는 사역지침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형식을 거치고, 사역지침을 받았고 읽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집 사역지침을 위배한다. 이런 게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냐? (그는 교회에서 권력을 잡고 무슨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바로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다. 그는 온갖 기회를 찾아 손에 넣고는 권력을 잡고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다들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려 한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고, 이곳은 오직 그가 권력을 잡을 뿐 다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한다. 만약 그를 통과하지 않고 넘어서려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누구도 그를 초월할 수 없다. 그는 주로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권력을 쥐고 싶어 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리더나 혹은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도 아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책망하고 훈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폭로하고 내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제물을 훔쳐 먹기도 하고, 본인이 누리기 위해 하나님 집의 돈을 쓰고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 이는 구체적 모습 중 하나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가 생긴다면 큰일이다. 그는 누구라도 그의 발아래 깔아뭉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 주위 시선을 사로잡으려 하고 덕을 보려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우위에 있어야 한다. 말할 때도 우위에 있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앉든 특권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남들보다 높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모두의 의견과 평가도 남들보다 높아야 한다. 지위가 없을 때는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 지위가 생기면 안하무인격으로 변한다. 누구든 그와 얘기할 때는 그를 우러러봐야 하고 누구든 그와 함께 걸을 때는 나란히 걸어서는 안 되고 한두 발짝 뒤에서 걸어야 한다. 그와 얘기하면서 누구든 목소리를 크게 내서도 안 되고,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도 안 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써도 안 되고, 안 좋은 시선으로 그를 봐도 안 된다. 그는 모든 것에 흠을 잡으려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누구도 그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에게 뭐라고 해서도 안 된다. 모두가 그에게 공손하고 그를 떠받들며 비위를 맞춰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생기면 어디서든 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을 과시해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든다. 그는 지위를 누리고 남들로부터 우러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의 향유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섬겨 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려 한다. 누가 자기를 섬기든 먹는 것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고, 먹는 게 부실하면 기회를 봐서 상대를 책망한다. 좀 부실하게 누려서도 안 된다. 의식주가 모두 특별해야지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안 된다. 보통 형제자매들과 같아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5, 6 시에 일어나지만, 그는 7, 8 시에야 일어난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물건은 모두 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봉헌한 제물도 우선은 그의 손을 한 번 거쳐야 한다. 그는 좋은 것, 값나가는 것, 마음에 든 것을 모두 골라 가진 다음, 남은 것은 교회에 넘긴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역겨운 짓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에게 지위가 생기면 욕심이 커지고 식견도 넓어지고 즐길 줄도 알게 되면서 돈을 쓰려는 욕망, 소비하려는 욕망이 생겨난다. 따라서 늘 교회 사역에 사용할 돈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분배하고 임의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권력, 이런 대우를 무척 즐기며 권한이 생기면 언제나 서명하고 싶어 한다.

수표에도 서명하고 동의서에도 서명하면서 여기저기 펜을 휘갈기고 돈을 물 쓰듯 쓰는 느낌을 만끽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가 없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지위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 오전에 선거에서 당선되면 오후에 바로 안하무인격으로 변한다.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서 일반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사실 변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그는 잔뜩 어깨에 힘주며 거드름을 피운다. 이건 뭘 하려는 것이냐? 교회에 얹혀살고 지위의 복을 누리려는 것이다.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리면 실컷 먹고 마시고, 거기다 건강 보조 식품까지 챙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비루한 몸뚱이를 보양하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특권을 누리는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 그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육적인 누림을 탐하는 자들은 리더가 되면 다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위만 생겼다 하면 금세 돌변한다. 그는 지위에 따른 갖가지 즐거움과 특별 대우를 단단히 악착같이 지키고 움켜쥔다.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어느 하나 본인에게서 빠져나가게 두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이런 방법 중에서 진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나도 없다. 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역겹고 혐오스럽다.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이성, 염치가 눈곱만큼도 없다.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생기면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경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유익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위의 복을 즐기고, 육적인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우러름과 떠받듦을 즐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모실 사람을 찾기도 한다. 자기가 마실 차도 다른 사람이 내와야 하고 입고 난 옷도 다른 사람이 빨아 줘야 한다. 심지어 목욕할 때도 전문적으로 등을 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식사할 때도 전문적으로 시중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더 심각한 경우 삼시 세끼 모두 식단이 있어야 하고, 식단 이외에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각종 탕까지 끓여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염치가 있느냐? 염치가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을 책망과 훈계만 하는 것은 좀 가볍지 않겠느냐? 책망과 훈계를 하면 그에게 염치가 생기겠느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매우 간단하다. 책망과 훈계를 한 다음 폭로하여 그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고, 본인이 인정하든 말든 교체하고 모두가 그를 버리는 것이다.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를 버릴 수 있겠느냐? 감히 나서서 고발하고 폭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척하는 것이냐? 지금은 뒤에서 너를 받쳐 주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용감히 나서서 폭로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용감히 폭로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네가 있는 곳이 안전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큰 붉은 용도 없으니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게 뭐가 두려워? 그냥 적그리스도일 뿐이잖아?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니, 내가 용감히 폭로하겠어. 나는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큰 붉은 용의 국가라는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그리스도가 너의 폭로 때문에 지위를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너를 혼내고 괴롭힐 수 있고, 팔아넘길 수 있고, 집권당 손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폭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태도가 즉시 바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너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옳으냐? 이는 옳지 않다. 너에게는 간증이 없으며, 그것은 네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네가 겉으로는 잠자코 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사탄아, 내가 너를 폭로하겠어. 내가 지혜로 너를 버리고, 교회에서 정리하겠어! 너는 하나님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 너는 마귀, 사탄이야! 내가 비록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대놓고 너를 폭로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를 버리고,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를 더 많이 찾아 함께 너를 버리겠어. 너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에게 조종당하지 않겠어!'라고 외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비록 안 좋은 상황에서 네가 공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면 네가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탁, 진리 원칙, 사람의 본분은 어느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특권을 누리고, 후안무치하게 지위의 복을 누리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마땅히 버려야 한다. 그가 하나님 집의 좀벌레가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더 많은 형제자매를 해치거나 미혹하지 않도록 그를 정리해야 한다. 하나님 집의 모든 자원은 이런 좀벌레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집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는 마귀이며, 버림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 뻔뻔스럽게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아무런 공헌도 없으면서 리더가 되자마자 권력을 잡고 지위의 복을 누린다. 형제자매를 닦달하여 맛난 음식을 만들거나 사게 만들어 형제자매의 고혈을 착취하고, 형제자매의 재물을 갈취한다. 그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여긴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냐? 이 얼마나 염치없는 생각이냐.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형제자매들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받고, 폭로되고 버림받아야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위아래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천성이 사악하다. 정직한 마음, 진리를 사랑하고 긍정적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했다. 언제나 음침한 구석에서 살면서 행동할 때 정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말할 때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악한 마음, 간사한 마음을 품는다. 그는 사람도 속이고 동시에 하나님도 속이려 든다. 사람의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감찰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는 본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진리에 대해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그 누구도 파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아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거짓말로 속이고 감추려 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지위가 없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정세를 통제할 기회가 없을 때는 누구도 그의 말과 행동을 속속들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본분을 이행할 때 속셈이 있나? 패괴를 표출하나?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는 결코 남들에게 실제 사정을 알게 하는 법이 없다. 어떤 일에 대해 관점을 몇 마디 밝히더라도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연유를 알 수가 없다. 그가 하려는 말이 뭔지, 그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지위가 생기면 사람들 사이에서 더더욱 은밀하게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야심, 자신의 명망, 자신의 체면과 명성, 자신의 지위와 존엄성 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설령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행동의 동기와 속셈이 잘못되었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하고, 언제나 억울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해서 형제자매들을 기만한다. 그리고 상부, 하나님에게도 입 발린 소리만 하고, 언제나 기만적인 수단과 거짓말로 상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상부에 사역 보고를 할 때나 상부와 이야기할 때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듣는 이가 허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 그가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사역에 어떤 문제나 구멍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잘 모르고 간파하지 못하는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묻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충분히 맡을 수 있다는 모습과 이미지만 보여 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위에 보고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 혼란이 발생하고 사역에 아무리 큰 구멍이 생기든, 자신이 아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든 그는 계속 감추면서 애써 상부에서 소문이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게 노력한다. 심지어 진실을 모두 감추기 위해 관련 있는 자나 실상을 아는 자를 멀리 보내 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어떤 방법이냐? 이것이 어떤 행위냐?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이냐? 분명 아니다. 이것은 마귀의 행위이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을 그는 필사적으로 가리고 덮는다. 사람이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를 두고 위아래를 기만한다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상부에서 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중시하는지 몰라요. 상부에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사역을 맡기고 이러이러하게 중책을 맡겼어요. 저를 무척이나 아껴서 사역 지도도 해 주시고 제 생명도 특별히 책임져 주신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직접 제 사역을 지도해 주셨다니까요." 반면 상부에는 사역에 무척 책임감이 강하고, 형제자매를 매우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제시한 다른 의견이나 생각, 자신의 사역에 존재하는 허점이나 편차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아래로는 어떻게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상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온갖 진실을 감추려 하는데, 상부에서 자신의 실제 사정을 알면 교체시킬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것이 위아래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으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진실을 숨겨서 사람들이 그의 실제 내적 상태, 진짜 상황, 진짜 인성, 진짜 사역 능력을 간파하지 못하도록 한다. 각종 수단, 각종 방식으로 감추는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이 입지를 굳혀서 지위의 복과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는 것이다. 위아래를 기만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특유의 행동 방식 중 하나다. 이 방식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모습, 이런 성품이 있으면 마땅히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지 방금 여섯 가지 원인을 소개했다. 첫째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밀실에서 조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넷째는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여섯째는 위아래를 기만하는 것이다. 또 있느냐? (사설과 궤변을 퍼뜨려 형제자매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받들지도 증거하지도 않고 일관되게 자신을 증거하고, 글귀와 도리를 말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증오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여섯 가지 본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이 어느 것이냐? (일관되게 자기를 높이 받들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심각한 성질이다. 그다음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궤변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더 있겠지만 대체로 이것들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오늘 교제의 중점은 이게 아니라,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즉,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의 태도,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태도 뒤에 숨겨진 근원, 그리고 그의 성품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제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교제한 다른 내용들은 이 주제와 다소 관계가 있는 소주제들이다. 전에 이미 충분히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이고 개괄적으로만 교제해 보고, 전에 교제했던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종합해 보았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본질을 지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부류가 자신이 한 일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볼 때 마귀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언제 인정했느냐? 그는 언제가 되었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이 방면의 본질에서부터 오늘 주제에 대한 교제를 시작해 보자.

2.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든,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맨 처음 보이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변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열 한 번째 모습에서 언급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회개하는 태도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는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냐?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더욱 쉽지 않다. 만약 네가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한다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못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몇 가지 모습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폭로되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우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고, 온갖 구실을 찾아 자신을 변명함으로써 책임을 미루려는 목적, 용서받으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이 자신의 인품,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치명적인 부분, 자신의 진짜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간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애써 자신을 포장해 자신의 결점과 문제, 패괴 성품을 감추려 든다. 악을 행한 것이 덜미를 잡혀 폭로되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어떻게든 그 과실을 보완하고 만회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일을 감추고 사정을 아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 선민이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한 짓이 하나님 집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교란과 방해를 가져왔는지 하나님 선민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상부에서 이를 아는 것이다. 상부에서 일단 알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완전히 끝나고 틀림없이 교체되고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악행이 폭로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원칙을 위반했는지, 자신이 어째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성품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 자신의 속셈이 무엇인지, 당시 내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마음 내키는 대로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속셈과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인지 먼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해부하지도 않고 더욱이 이런 일들을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머리를 쥐어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한다. 동시에 하나님 선민 앞에서 전력을 다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모두를 속인다.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들며, 속임수로 고비를 넘기고, 계속 하나님 집에 남아 나쁜 짓을 일삼고, 위세를 부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사람들이 그를 앙망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머리를 쥐어짜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바삐 보낸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속셈과 패괴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범한 잘못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에게 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속으로는 거센 파도가 일듯 반복적으로 걸러 본다.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허점을 남겼지? 어느 부분에서 부주의해서 트집을 잡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이 일에 빈틈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트집을 잡히게 되었지?' 그는 속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걸러 보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답을 찾지도 않고, 자신이 실행해야 할 진리, 자신이 지켜야 할 진리 원칙을 구하지도 않는다.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한 다음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일이 닥쳐도 구하고 순종하지는 않고, 온갖 수를 써서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 하면서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고, 그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이토록 어둡고, 패역과 사악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 언제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출구를

찾는다. 누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며 붙잡아 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말한다. '나는 뭐든 다 아니까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나한테 문제가 생겨도 난 당신들보다 낫다고. 겨우 그 정도 깨닫고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정말 어쭙잖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나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그 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퍅해서 어떤 말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속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한 일이 나중에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하는 것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속으로 가장 걱정하는 일, 가장 염려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성질의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의 제물을 유용하고 막 쓰고 남용했을 때도,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도 언제나 태연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태도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자신의 과오와 패괴를 인식하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머리를 쥐어짜서 온갖 구실을 대며 책임을 미루거나 남에게 전가해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만회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 사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어떤 손상이나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하나님 집에 입힌 손실을 만회하고 하나님에게 진 빚을 메우려고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방법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 만약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무능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만약 자신의 악행이 사람들에 의해 발각되고 폭로된다면 적그리스도는 잠시 부주의해서 실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뿐,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자신의 죄과를 씻어 내려 할 것이다.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집에 끼친 손실을 만회하고 어떻게 하나님 선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큰일은 작은 일로,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무마하려 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내세워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얻고,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 마음속에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과오로 자신에게 초래된 악영향을 최소화해서 상부에 어떤 안 좋은 인상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 이로써 상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파면당하고 조사받아 처리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만회해서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결한다. 이 과오와 잘못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질 생각도 없었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이면의 동기와 속셈, 패괴 성품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폭로하고 해부할 생각도 없었다. 자신이 교회 사역에 입힌 손해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끼친 손실을 만회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든 적그리스도 부류는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끓는 물을 부어도 꿈쩍 않는 죽은 돼지 같은, 후안무치한 자이고, 그야말로 살아 있는 사탄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나 당당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전혀 회개하려는 뜻이 없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려 본 적 없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조금이라도 괴로워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다. 반대로 그는 자신이 순간적인 부주의로 잘못이 탄로 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 주게 되어 버림받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후,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선민에게 해를 입히고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힌 후, 그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하나같이 과실을 보완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위해 변호하고 연기하고 쇼를 한다. 그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단지 순간의 부주의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하여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하나님 선민들의 신임과 호감을 얻음으로써 본인이 재기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은 다음 자신이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았는지, 폭로된 일에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책망받고 훈계받은 일을 크게 부풀려 자신이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통해 공과를 배우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고, 어떻게 상부와 더 가까이 접촉한 다음 상부의 인정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교제한다.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였는지를 교제함으로써 허상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상부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관념을 퍼트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를 듣고 상부에서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책망하며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연약함은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거나 대항하지 않고, 본분을 내팽개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런 말들은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고 기꺼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작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념과 생각,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동시에 그에게 부러움과 감탄, 추앙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난 후 사람이 등한시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저지른 과오와 잘못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집과 교회 사역이 입게 된 손해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을 처리할 때 취하는 수단의 하나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무를 소홀히 한 탓에, 본인이 어리석고 무지한 탓에, 본인이 독립 왕국을 세운 탓에 하나님 집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자매의 생명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는지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해부하지도 않는다. 이런 일들의 진상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왜 교체되었는지,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았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상부에서 그를 어떻게 책망했는지,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고 얼마나 매섭게 얘기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만 언급하고, 그런 다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본분을 이행했다는 얘기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다. 어리석고 무지한, 진상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들으면 생각한다. '상부에서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원칙도 없구나!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대가를 치러도 책망을 받는구나. 책망을 받고도 연약해지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한다니.' 적그리스도가 한바탕 교제하고, 미혹하고, 또 한바탕 공을 들여 일하고 난 뒤 사람에게서 이룬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더욱 반감을 느끼고 반발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자신의 패괴 성품,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 자신의 본모습을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교제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언급했느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조금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교체된 다음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라면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는 '여성 리더'와 같은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몇몇 유명한 적그리스도들에 대해 얘기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에 몇만 위안의 손실을 입히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저러하게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과 잘못, 누명은 남에게 씌우고, 모든 좋은 일, 옳은 일, 옳은 결정은 자기에게 돌렸다. 일 전체에서 자신이 주요 책임자이면서 잘못된 일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도대체 무얼 하는 인간이냐?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은 모두 다른 사람이 져야 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그는 바로 뛰어나와서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데, 온 교회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싶어 안달이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최소화해서 그 일을 아무도 모르도록 초기 상태에서 없애 버리려고 한다. 모두가 되도록 빨리 그 일을 잊게 만들고, 실상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이가 그에 대한 우러름을 회복하게 만들고, 되도록 빨리 자신의 원래의 지위와 권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의 책망이 아무리 적절하고 핵심을 찔러도 무조건 반발하고 반대하며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증인과 물증이 있어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속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참여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책망하지 않고 저만 책망합니까? 왜 일이 터지면 저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 겁니까?" 책망이 아무리 진리에 맞고, 실제 상황에 부합해도 그는 억울해하고 서러워한다. 자기는 고생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렀는데 자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저지른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이런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 형제자매가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는 곧바로 반항하고 반발하고 행패를 부리고 혈기를 드러내고 심지어 감히 손을 대기도 한다. 상부에서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는 마지못해 아무 소리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불쾌하고 내키지 않아 하고 또 늘 억지를 부리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재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다들 아셨으니 말이에요. 사실 아래 각급 리더나 형제자매 중 이런 짓을 저지른 이들이 많은데 단지 당신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저만 걸렸으니 제 운이 나쁜 거죠!"

아무리 상부에서 책망하고 형제자매가 책망해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의 진상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 마치 책임을 지거나 사실의 진상을 인정하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그 일 때문에 뒤에서 하나님 집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는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어떤 일을 잘못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다음 거기서 진리를 깨닫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진리 원칙을 깨닫지 않으며,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가장 주된 특징은 복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주로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사람이야말로 틀렸다고, 관점이 잘못되고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한 것이고 자신을 괴롭히고 트집을 잡으며 일부러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일에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바로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남들은 잘못해도 자신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가 분명 자신을 의인이자 성인(聖人)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만약 정말 자신이 패괴된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자신에게 패괴가 있으니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사람이면 잘못이 있기 마련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척 착실해 보이지만, 그의 인성에는 사람의 관념상 장점으로 간주되는 승부 근성이 내재되어 있고, 승부욕이 무척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제력이 특히 강하고, 스스로에 대한 요구도 무척 높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무슨 일이든 완벽하고 최고여야 하고, 흠이나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는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는 잘못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 무척 조심스럽고, 생각을 제대로 할 줄 알고 무척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빈틈도 없는 상황, 무척 꼼꼼하고 완벽하게 고려된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그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바로 자신이 일을 잘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를 반성하는 법을 모르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는 인성에 내재된 승부 근성과 승부욕을 긍정적 사물로 여기고 진리 원칙으로 여겨 지키고,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본분을 이행하면 영원히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건 사물을 보는 시각,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자신이 한 그 일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가 그를 책망하든, 또 책망한 내용이나 폭로한 일이 사실에 부합하고 말고를 떠나 그는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발견되면 그가 인정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누가 그 얘기를 꺼내도 입을 꾹 닫고 있는다.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본인 사역 중에 생긴 잘못과 빈틈을 누군가 폭로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는 짐짓 모른 체하며 누가 그랬느냐고 계속 캐묻는다. 그런데 자세히 계속 알아본 결과 뜻밖에도 그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상대가 말한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한 겁니다. 그저 당신이 잊어버린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염치를 아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일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하고 무안해서 금세 인정한다. "제가 잊어버렸군요. 그건 제가 한 거고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만회하고 바로잡을지 빨리 생각해 봅시다." 염치가 있고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잘못을 해결하고 만회한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적그리스도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고 폭로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즉시 말머리를 돌려서 어떻게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옆사람이 다 얼굴을 붉히며 민망해해도 적그리스도는 아무런 지각도 없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 일이 드러난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낯빛도 붉어지지 않고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거짓말하면서 책임을 미룬다.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염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교체된 직후에 잔뜩 억울해하며 실의에 빠진다. 지위도 잃고, 우러러보는 사람도, 시중 드는 사람도 없고, 지위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자신이 치른 대가와 고통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원통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의 본인 모습과 본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느끼는 가책은 전혀 없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마음속은 억울함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실을 보완하고, 책망과 훈계, 그리고 당시 교체된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군.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을 받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마음이 괴롭구나!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어. 나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앞으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는 하나님을 잔뜩 경계하고 오해한다. 이런 건 어떤 성품이냐?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 사역에 아무리 커다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신이 당한 하찮은 억울함, 자신이 치른 하찮고 가치 없는 대가는 무한히 과장해서 하나님 집에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 집에 입힌 손실은 그에게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는 생각한다. '그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따져 볼 필요도 없어. 무슨 손실이랄 게 있나? 누가 리더가 되든 다 제물을 어느 정도 막 쓰는 것 아니야? 어디 나만 그렇게 했나? 누가 리더가 되든 다 하나님 집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히는 것 아냐? 하나님 제물이 뭐지? 그 돈은 모두의 돈인데 남들은 써도 되고 나는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다른 사람은 막 써도 되고, 나는 막 쓰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하나님 집에 입힌 손실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입힌 손실이 나보다 훨씬 많지. 그런데 왜 나만 호되게 책망하고 나만 교체하는 거야? 원칙 없이 일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심하던데, 저들은 책망과 훈계를 받았으면서 왜 교체되지 않았지? 치른 대가로 말하자면 나보다 적게 치른 사람도 많아. 정성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정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설교로 말하자면 나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어딨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자면 누가 나만큼 많이 깨달았지? 상부의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면을 말하자면 나만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어? 버린 것으로 말하자면 나만큼 많이 버린 사람이 누가 있지?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나만큼 많이 한 사람 있어?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역하는 것도 나랑 비교할 사람이 없고, 형제자매가 투표로 누군가를 옹호하고 찬성해 준 사람을 말하자면 나보다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 보아라, 그는 이런 걸 비교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 만약 네가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고 본인이 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다음부터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 사역에 입힌 손실을 보완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그래도 네 문제를 추궁하겠느냐? 그래도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래도 너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기를 쓰고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에둘러서 원통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느냐? 설마 네가 정말 패괴 성품이 없고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는 말이냐? 설교를 그토록 많이 듣고도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이냐? 책망과 훈계를 조금 받았다고 억울해하는데,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를 책망하길 원하며 누가 너를 책망하고 싶겠느냐? 그리고 네가 만약 책임을 짊어진 리더가 아니라면 누가 너를 책망하길 원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주었고, 네가 교회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너 자신의 일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 집에서 리더를 맡고 책임자로 있는 이상,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집에 손실을 초래한다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네가 어떤 틀린 말을 해서 하나님 선민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네가 맡은 책임이 일반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부에서 너를 책망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너에게 그런 지위가 없거나 네가 그런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상부에서 너를 책망하겠느냐? 상부에서 책망한 평신도가 몇이나 되느냐? 네가 맡은 책임이 크고 네가 해야 할 사역 범위도 크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너무나 커서 틀림없이 책망을 받을 것이며, 이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네가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리더를 할 자격이 있겠느냐? 너는 리더를 맡을 자격이 없고, 형제자매에 의해 선출될 자격도 없다. 자격 미달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당할 용기도, 인정할 용기도 없다. 그런 이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러고도 무슨 리더를 맡겠다는 말이냐? 너는 자격이 없다. 자격 미달이다!

적그리스도는 본인에게 있는 적그리스도의 본질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하지 않으려는 이 몇 가지 일들, 그리고 그가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이행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되면 자기 경영을 하는 것 외에, 하나님 집의 사역에 유익이 되는 일은 전혀 할 리가 없고, 영원히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을 이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작은 일을 잘못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든, 큰일을 잘못해서 교회 사역에 큰 손실을 입히고 책망과 훈계를

받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에서 과오를 범해서 하나님에게 죄스럽다고 인정하지 못한다. 반대로 어느 때가 되었든 그 일로 초래된 손실이 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요 책임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렸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악을 행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그 일에서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본인이 일을 할 때 옳지 않은 속셈이 있는 점,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한 점, 함부로 행동한 점, 지위의 복을 누린 점, 직무를 소홀히 한 점, 하나님 집 사역에 손실을 입힌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는 과거 자신이 고생을 얼마나 했다느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유다가 되지 않았다느니, 전에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하면서 대가를 얼마나 치르고 공을 얼마나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동네방네 퍼트리고 소문을 낸다. 본인의 공로, 본인의 대가를 떠들고 다니는 것 말고도 하나님 집에서 본인을 책망하고 훈계한 일,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본인을 대한 방식이 잘못되고 불공평하다는 말을 퍼트리고 다닌다. 회개의 태도가 없는 것도 모자라 사방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처리한 것을 판단한다. 만약 그의 주장을 믿어서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가 하나님 집을 위해 치른 대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집에서 그를 대한 방식이 불공평하고 그를 억울하게 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그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가차없이 하고, 더욱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려는 뜻은 더더욱 없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동시에 본인 앞날의 종착지는 더욱 걱정한다. 자신의 종착지가 위협받는 것을 보았을 때, 혹은 하나님 집에서 다시는 자기 같은 사람을 양성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그리스도 부류는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폭로한 사람, 자신의 체면을 깎은 사람을 더욱 증오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자기 지위와 종착지가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이 영원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는 안면 몰수하고 몰래 관념과 소극성을 퍼트릴 것이다. 그는 자신을 책망한 형제자매나 윗선 리더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책망한 것이 일리가 없다고, 자기 사정도 봐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땅히 있어야 할 양심과 이성도 없다. 가련하고 역겹기 짝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을 일삼다가 호되게 책망과 훈계를 당한 일에서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한껏 억울함과 원망을 품은 채 하나님 집에서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공개적으로 관념을 퍼트리고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집과 맞서고, 끝에 가서 출교되기까지 적그리스도가 각 단계에서 보인 모습에는 정상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긍정적 사물을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적그리스도는 역겹기가 극에 달했고, 염치없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는 지위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포자기한다.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도 적그리스도는 지위의 복과 사람들의 우러름을 즐기려 하고, 지위와 명성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자가 그래도 사람이냐? 그는 바로 양가죽을 뒤집어쓴 늑대다. 겉으로는 사람 가죽을 쓰고 있어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사람이 아니다.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역겹고, 혐오스럽다!

2)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회개는 고사하고 관념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판단한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정도가 더 심하고 더 구체적이지 않으냐?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가져야 할 인식이 있다. 바로 사람이 패괴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은 이성과 인성이 없으며, 진리를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말이다. 유독 적그리스도 부류는 줄곧 자신이 너무 깊이 패괴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패괴된 인간은 모두 사탄에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이 바로 마귀 사탄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많은 이들이 모두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도 그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다. 어째서 심각하다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속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왜 안 받아들인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인정하는데요." 그게 무슨 인정이냐? 이방인들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패괴 성품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냐?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한 몇 가지 방면의 패괴 성품에 어느 정도 비춰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이 다양한 내적 상태에서 드러내는 각 방면의 패괴 성품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부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또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저 좀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한 번도 속으로 깊이 자신을 반성하고, 해부하고, 비춰 본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속셈, 생각, 관점 등을 해부하지도 비춰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그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들이 그에게는 단지 일종의 표현에 불과하고, 일종의 다른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성품과 성격, 사람의 행동과 본질에 대한 다양한 표현 중 하나일 뿐, 사람의 성품을 정의하는 준칙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정확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갖가지 패괴 성품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만 이해할 뿐, 마음속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성품을 단속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자신의 옳지 않은 관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만을 예로 들어 보자. 하나님이 교만한 성품을 폭로한 말씀에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출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성품을 저울질한다. 그는 거듭 저울질해 본 다음 인정한다. '나에게는 교만한 성품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드러낸 성품은 교만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야. 이런 내 태도는 교만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교만이야.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방식, 본분을 대하는 방식은 교만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행위를 거기에 비춰 본 것이다. 비춰질 수 있을 때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모두 실제 상황이고 확실히 거짓이 없다는 것을 부지중에 인정하게 된다.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음을 인정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잠시 접어 두고, 우선은 사람이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부터 얘기해 보자. 인정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성과 양심,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많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그런 다음 부지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로써 자신이 패괴된 인간이고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고 진리를 대할 때, 특히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망과 훈계를 받는다면, 그럴 때 사람은 속으로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책망과 훈계에 순종할 수 있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길 원하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함으로써 자신을 단속하고 꾸짖어 주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책망과 훈계에 대해 호감을 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유독 비정상적인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코웃음을 치는가 하면 속으로 반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로하고 정의하는 사람의 패괴 성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어떤 태도이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만한 성품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경우, 적그리스도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멸시한다. 왜 그런 것이냐? 그에게는 사탄의 논리, 즉 사탄이 진리를 대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당신은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큰소리 안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 치고 말할 때 패기 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위 있는 사람 치고 거드름 좀 안 피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뭐 별거라고요. 그런 건 바깥세상에서는 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들 여기서만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일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건가요? 그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혼자 결정해야죠. 권력을 독점할 줄 아는 사람이 수완이 좋은 거고요. 당신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의논할 게 뭐 있습니까? 당신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거고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재주를 타고났고, 자질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뭐든 잘하고, 어느 곳, 어느 그룹에 있어도 한몫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인재죠! 인재는 짓밟혀서도 안 되고 폭로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그룹에 있든 추천받아야 하고, 받들어져야 하고, 중용되어야죠! 인재이고, 재주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리더다운 풍모, 보스다운 풍모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파묻힌다면 그건 위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는 이런 억지와 그릇된 주장으로 하나님이 폭로하는 교만한 성품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따라서 네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정의한 사람의 패괴 성품의 갖가지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정통적이고 전통적이긴 해도 진리로 정의될 수는 없지. 그 말씀들은 일부 사람에게나 맞는 말씀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착실하기만 하지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도 별로고 아이큐도 높지 않아. 리더십도 없고 말이야. 합당한 파트너가 없으면 뭘 할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랑 의논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나 맞아.' 이런 주장은 사탄의 궤변과 사설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그러니 그는 어느 때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단지 절차만 지키고,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자신의 체면을 차릴 뿐,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여기고 자신이 실행해야 할 목표로 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저지른 잘못을 네가 책망하고 폭로하면 그는 인정하지 못한다. 나아가 그 일에서 그가 드러낸 성품과 본질을 책망하면 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패괴 성품을 드러냈을 때 항상 이유나 핑계, 변명을 대며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이 일에서 교만한 성품을 드러냈다면 그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급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목소리가 커졌다고 할 것이다. 저 일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두고 간사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만약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오해할 테니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내도 그는 매번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다. 요컨대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내도, 또 그 성품이 아무리 뚜렷하고 심각해도 그는 그것이 패괴 성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언제 한 말이 사실이고 언제 한 말이 거짓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 간사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법이 없다. 그와 반대로, 항상 자신이 무척 착실하고 남들에게도 극진하다면서 남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면 자기가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는지 변명하고 설명하느라 바쁘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좋게 꾸며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운다.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 마음을 얼마나 잘 구슬리고 포섭할 줄 아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수단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화자찬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가 하는 사역을 자기보다 더 잘 감당할 사람이 없다며 자랑한다. 적그리스도가 대가를 좀 치를 수 있고, 높은 도리와 이론을 좀 얘기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행동을 좀 취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을 수 있으면, 그는 자신의 패괴 성품을 감추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패괴 성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패괴 성품에 대한 이런 인식, 태도에 비추어 보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바로 저항하고 반발하고 필사적으로 발뺌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교회 사역에 입힌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이 그 일에서 드러낸 패괴 성품, 그리고 자신이 패괴 성품에 휘둘려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과 본질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일부 적그리스도들과 만난 적이 있다. 사역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게을러서 사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 호령만 했다거나, 나쁜 짓을 일삼고 독자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했을 때, 그들은 겉으로는 고분고분했지만 뒤에서는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로 볼 때, 그들은 책망과 훈계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에게 어떤 패괴 성품이 표출되는지 성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고 여전히 밀실에서 조작하고, 위아래를 기만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고, 특권을 누리는 등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째서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큰 권력을 손에 쥔 기회에, 큰 권력이 아직 있을 때 그들은 서둘러서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한다. 필사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하나님 집의 온갖 물질적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약간의 표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이란 전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소집해서 예배를 열고, 글귀와 도리를 얘기하고, 심지어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호령하는 것이다. 상부에서 그에게 맡긴 구체적인 사역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호령할 뿐이다. 가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지도하지만 그마저도 3 분을 못 버티고 그는 순식간에 종적을 감춘다. 그가 어떤 사람을 발탁하고 임명하면 누구도 안 된다고 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의 사역을 검사하고 감독하지도 않는다. 그가 발탁하고 임명한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은 폭로하면 안 되고, 누구도 그를 교체할 수 없다. 보고해서도 안 된다. 보고하는 순간 그에게 원한을 사게 된다. 자기가 쓰는 사람이 교회 사역에 아무리 커다란 손실을 입히고 아무리 커다란 교란을 초래해도 그는 애써 지켜 주려 한다. 만약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잽싸게 그 사람과 선을 긋고, 또한 잽싸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앞에서 일하든 뒤에서 일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들은 불신파이자 마귀, 살아 있는 사탄이다. 또한

후안무치하게 지위를 차지해서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하고 하나님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좀벌레 노릇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은 뒤 자기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기가 죽는다. 왜 기가 죽느냐? 왜 낙담하느냐? 지위를 보전하지 못하고 특권을 누릴 기회도 혜택도 사라지고, 우러러봐 주는 사람도 없고, 권모술수를 쓸 날도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해야 하고, 일어서서 말하고 호령할 기회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패괴 성품으로 인해 초래된 나쁜 결과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지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실의에 빠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체되는 순간에도 후안무치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느냐며 몇 번이고 요구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다시 기회를 주면 그는 뭘 하려고 하겠느냐? 여전히 교회에 얹혀살면서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으려 하고 또다시 나쁜 짓을 일삼으려 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면 그가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 그가 조금은 염치를 알겠느냐? 그의 인품이 달라지겠느냐? 다시 기회를 주면 그가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끝난 게 아니겠느냐? 너희가 만약 책망과 훈계를 받고,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상부에서 너희를 교체해야만 할 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말 교체되어 마땅하다고, 제 본성이 너무 사악해서 원칙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저지르고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교회 사역에 많은 손실을 입혔으니 교체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까? 나를 책망하고 훈계한 그 일, 그 말씀들이 과연 옳을까, 그를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에 받은 책망과 훈계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 다음 자신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이 한 그 일에 사람의 뜻이 섞이진 않았는지, 양심과 이성이 있었는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 일이 얼마나 되고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성찰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성찰할 것이다. 자기가 도대체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공평하게 대했는지, 지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앞날과 종착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갈등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뻔뻔하겠느냐? 그는 교체된 뒤로 형제자매가 자기에게 공손하지 않고 별로 부드럽고 친절하지 않고,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상대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토록 예민하게 굴면서도 패괴 성품에 대해서는 어째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은 본성이 아니냐? 이런 부류는 뻔뻔하지 않으냐? 염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인성에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올곧음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후안무치하다. 패괴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고 악행을 얼마나 저지르든 본인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가책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집에 빌붙어 밥을 얻어먹을 생각이나 한다. 책망받고 폭로되어도, 교체되어 지위를 잃어도 형제자매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기를 받들어 주기를 바란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냐?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대해 들으면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특히 교체되어 지위가 사라지면 실의에 빠지고 조금은 체면이 상할 것이다. 사람들 보기가 조금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만약 염치를 안다면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무슨 일이든 올바르게 대할 수 있고,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고, 왜곡되게 말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하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이 일에서 너를 책망하고 훈계했다면 네가 한 일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네게 어떤 패괴 성품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 일에서 네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건 분명 네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네게 책임이 있는 한 너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건 네가 저지른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정했으면 그다음으로는 성찰해야 한다. '이 일에서 내가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냈나? 만약 패괴 성품에 휘둘린 게 아니라면 사람의 뜻이 섞였던 건 아닐까? 어리석음 때문에 초래된 일은 아닐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는 길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성이 있는 것이고, 염치를 아는 것이고, 사물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공교롭게도 이 점이 결여되어 있다.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그는 이런 생각부터 한다. '내가 명색이 리더인데 당신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정도 안 봐 주고 나를 책망하고 내 치부를 들췄어. 그럼 리더인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 다 당신이 책망하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잖아? 앞으로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아무도 안 들으면 리더인 내 지위도 사라지지 않을까?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도 내가 지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형제자매가 봉헌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것이 옳은 생각이냐?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이냐? 정당한 생각이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성이 없는 것이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위신이란 무엇이냐? 리더란 무엇이냐? 설마 너에게는 패괴가 없다는 말이냐? 네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네 치부가 무엇이냐? 바로 네 패괴 성품이다. 네 패괴 성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네 치부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지 않다. 다만 네가 자질이 조금 있어 보이고 사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해서 양성한 것이고, 너에게 특별한 부담을 부여하고 짐을 좀 더 얹어 준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네게 지위가 생기면 패괴 성품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위가 있으니 저를 책망하면 안 되지요. 특히 사람 많은 데서 책망하고 훈계해서 사람들이 제 실상을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냐? 이 행동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세우려면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풀려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집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며 적그리스도 역시 그런 요구를 한다. 사탄에게 이성이 없으며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에서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억지를 부려 가며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상부에서 자기를 책망할 때는 그 방식과 장소, 어투를 신경 써 달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너는 패괴된 인간이다. 너를 책망하는 일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는 것인데 무슨 방식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 너를 세워 주는 건 형제자매를 모해하는 게 아니냐? 네가 하부에서 나쁜 짓을 일삼고 독립 왕국을 세우게 너라는 악인을 세워 주고 너의 지위를 지켜 달라는 것이냐? 그것이 형제자매에게 공평한 처사이냐? 형제자매를 책임지는 것이냐? 그건 형제자매를 책임지는 처사가 아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를 부리고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이고, 전혀 염치가 없는 짓이다. 잘못을 저질러서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그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어느 방면의 패괴 성품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성찰하지 않는다. 잔뜩 억지를 부린 다음 성찰은 고사하고 대책을 궁리한다. '대체 누가 일러바쳤을까? 누가 상부에 정보를 흘렸지? 누가 리더에게 이 일을 보고했지? 그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매운맛을 보여 주어야지. 예배 시간에 좀 갈궈서 본때를 보여 주겠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출구를 찾는다. '이번에는 조심성이 부족해서 탄로가 났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든 탄로 나지 않게 해야지. 방식을 바꿔서 상부도 속이고 하부의 형제자매도 속여서 아무도 모르게 하자. 잘한 건 얼른 일어나 내 공을 요구하고, 잘못한 건 얼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지.' 참으로 뻔뻔하지 않으냐?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인정한다. '나란 사람은 나빠. 내게는 패괴 성품이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반성해야지.'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요구대로 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한다. 그는 닿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어쨌든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는 이성적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은 그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한 것이고,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으면 인정해야 한다고 알려 준다. 그는 속으로 반발하지 않고 순종한다. 설령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주된 태도는 그래도 긍정하는 태도이다. 그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고, 앞으로는 그 일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뉘우치기는커녕 속으로 반발한다. 손으로 행하는 악을 내려놓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출구를 찾아 계속 나쁜 짓을 일삼고 자신의 악행을 계속하려 한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자신의 패괴 성품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근원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속셈, 그리고 패괴 성품이 드러날 때 자신이 품었던 여러 가지 내적 상태와 관점을 성찰하지 않는다. 그는 절대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건의와 일깨움, 폭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온갖 루트와 방식과 수단을 찾아 위아래를 기만하고 지위를 보전하려 하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집에서 교란하며 지위에 기대어 악을 행하려 한다. 정말 구제 불능이다!

적그리스도는 한 방면의 사역을 담당할 때 건성으로 대충 한다. 악인이나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가 하면 심지어 감싸고, 눈감아 주고, 보호하기까지 한다. 그가 교체되고 나서 다시 다른 본분을 이행하면 그때는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없느냐? (본성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토록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속으로 관념과 억울함을 품고 있다. 그러니 그가 어떤 본분을 진심으로 이행하겠느냐? 관념과 억울함이 없을 때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제멋대로 못되게 굴었는데, 관념과 억울함을 품은 상태에서 본분을 이행하면 진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겠느냐? 제멋대로 못되게 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 관찰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바뀌지 않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좋은 인간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너도 언젠가는 인정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패괴 성품을 드러내서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면 변화가 있게 된다. 내적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고, 태도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관점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다.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도 점점 더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날로 커진다. 인성도 보기에 갈수록 남들에게 존중받을 만해진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많이 받을수록 원통해하고 경계하며 억울해할 뿐 아니라, 내면의 관념과 증오,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 책망과 훈계를 받지 않을 때는 육적으로 조금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책망과 훈계가 많아지면 일말의 진심조차 사라진다. 정말 구제 불능이다! 너희가 잘 관찰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하고 붙잡아 주면서 정작 자기는 실행과 진입이 전혀 없다. 이것이 한 가지 특징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떤 사역을 하든 지위가 생기면 조금은 나서기도 하고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역할 때는 계속 건성으로 대충 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군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지위가 없어지면 그때는 안면을 몰수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고, 심지어 무법천지인 양 함부로 날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석할 때는 이치에 맞는 말만 늘어놓아서 듣고 있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마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패괴 성품을 드러내서 반대로 네가 그를 폭로하고 분석할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보면, 아주 못마땅해하면서 기를 쓰고 반박하고, 변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누구라도 그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그의 문제를 폭로했다가는 곤란해진다. 그는 너를 원수로 대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지위가 있을 때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고도 좀 하고 대가도 좀 치를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창생을 구원하는 선량한 얼굴이나 위선자의 얼굴로 가장할 수도 있지만, 지위가 사라지면 좋은 마음은 깡그리 사라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에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고 우러러보고 특별히 주목했던 것을 몹시 그리워하고 즐기려 하는데 정말이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무리에 있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도움이나 득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옹호와 우러름을 받고자 한다. 어느 누가 스스로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고 인정해도 그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거나 전에 어느 측면의 패괴 성품을 드러냈었다고 입을 떼는 법이 없다. 그는 결코 자신을 분석하지 않는다.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단지 "저는 마귀입니다. 저는 사탄입니다." 하면서 틀에 박힌 말만 좀 하면 그걸로 끝이다. 네가 "당신이 마귀 사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나 표출이 있습니까? 일을 할 때 당신의 속셈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도 그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이 아니겠느냐? 큰 붉은 용은 집권한 뒤로 무수히 많은 악을 행했는데, 집권 과정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인민들에게 더욱 심하게 해를 입혔다. 그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개과천선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도

있고,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그 뒤로 발생한 일을 보면, 사태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 큰 붉은 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지키고, 계속 권력을 장악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못된 짓을 더 많이 저지르기 위해 포석을 깔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마귀, 사탄, 큰 붉은 용과 똑같은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다. 위장하고 거짓말에 인이 박이고 염치를 모를 뿐 아니라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 뒤에서는 갖은 못된 짓을 일삼는다. 적그리스도도 형제자매 사이에서 옳은 말을 자주 하고, 겉으로 보기에 옳은 일을 자주 한다. 하지만 만약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면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다. 감독하고 독촉하지 않으면 그는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독립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는 권력을 잡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성 본질은 바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대가를 좀 치를 수 있는 것 말고, 형제자매나 하나님 집을 위해서 무상으로 조금 일하고 말해야 한다면, 그에게 그럴 만한 좋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부담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역을 점검할 때까지도 상부에서 이행하라고 요구한 일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 이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역을 이행하려면 힘들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데다가 자신은 이익을 더 챙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거나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고 기억한다면, 다들 그를 숭배하고 찬양하며 대대손손 그의 좋은 점을 기억한다면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는 즉시 뛰쳐나와 그 누구보다 기뻐 날뛸 것이다. 염치없지 않으냐? 사탄 마귀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무수한 악을 행하고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감지덕지하길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짝 따르고 치켜세우기를 바란다. 그것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도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도 이와 마찬가지다. 적그리스도가 설교를 얼마나 듣고 도리를 얼마나 깨닫든 그에게 사역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 건성으로 대충하면 안 되고, 독립 왕국을 세우면 안 되며, 제멋대로 못되게 굴어서도 안 된다고 해도 그는 그러지 못한다. 지위의 복과 안일함을 누려서도, 지위와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내서도 안 되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해도 그는 지키지 못한다. 제물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하나님 집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도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를 증거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는 영원히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 선민을 위해 무상으로 대가를 치르고 묵묵히 사역을 좀 하라고 해도 그는 그러지 못한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제멋대로 못되게 굴고,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자신을 증거할 수 있으며, 제물을 낭비하고, 교회에 얹혀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낼 수 있다. 그 밖에도 구호를 외치며 도리를 말하고,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권력을 잡으면, 보잘것없는 권력이라도 손에 쥐면 하나님 집의 재정 대권을 장악하려 한다. 무슨 물건이든 좋은

것과 비싼 것, 브랜드 제품만 사려 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는 권력만 조금 주면 바로 누린다. 권력만 조금 주면 바로 무리를 결성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고 상부는 물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권력만 조금 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자기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게 만들려 하고, 무리를 지어 도당을 결성하려고 한다. 권력만 조금 주면 형제자매들을 자기 손안에 꽉 쥐고 통제하려 한다. 만약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해서 그에게서 한 사람을 데려가려 해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반드시 그의 동의를 얻고 그와 상의해야 하며, 태도가 좋지 않아도 안 된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누구든 자기를 존중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잘 관찰해 보아라.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패괴 성품을 드러내면 회개할 수 있는지, 결국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떤 길에 오르게 될지, 이런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는 어떤 모습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어떤 모습일지, 그들이 지위를 대할 때는 어떤 모습일지,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희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만약 정리해 낼 수 있다면 조금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3)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에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세 번째 원인도 있는데,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원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교제했다. 이 원인은 앞의 두 가지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네가 진리를 교제해 주고, 진리 원칙과 일 처리 원칙을 얘기해 주면 그가 듣고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진리를 듣든 적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정죄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진리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사람의 행동이 원칙에 맞게 된다. 이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네가 교제하는 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면 적그리스도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실제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사실에 입각한 것일수록 적그리스도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너에게 억지를 부리려 하고,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면 그는 너에게 자기가 어떻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는지 늘어놓는다.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원칙대로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면 그는 너에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늘어놓는다. 네가 그에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정직한 마음과 진심으로 일하고 본분을 이행하는지 얘기해 주면 그는 관심도 없고,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일할 때 늘 수단을 부리고 음모를 꾸미며 계략을

쓴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행동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원칙이 있다. 사람이 보기에, 혹은 하나님이 보기에 그의 그 원칙이 아무리 그릇되고, 저급하고, 황당무계하더라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행동 방식과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네가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든, 그를 폭로하든, 그를 교체하든 그가 일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 시각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런 기준 중에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과학적인 것도 있고, 지식에 관계된 것도 있고, 전통문화에 관계된 것도 있고, 세상의 사악한 흐름에 관계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릇되었다고 해도 적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는 사회에 어떤 사악한 흐름이 유행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사회에 어떤 말이나 관점이 퍼지면 그것도 바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는 결코 만사와 만물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마시면서 그와 동시에 진리를 부인하고 정죄한다. 진리를 부인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각종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숭상하고 우러러본다. 하지만 그가 유독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본질을 보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에도 참가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본분도 이행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성품도, 세상과 사악한 흐름에 속한 그들의 관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그에게 생명 진입이나 성품 변화에 대해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은 몹시도 이상하고 역겹고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딱 들어도 문외한이 지껄이는 소리이다. 그는 그야말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머저리인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체하고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 결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웃기는 소리가 아니냐? 주변 사람 중 누가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하는지 살펴보아라. "어떤 유명인이 그랬어요. 어떤 책에서 그랬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어떤 명작에서 그랬어요.", "저희 쪽에는 이런 전통문화가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집 관례는 이래요."라는 등등 말이다. 누가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헛다리만 짚는지,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그런 허튼소리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소리, 황당무계한 소리만 지껄이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갖다 붙이려 하고 영적인 체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아라. 정말 역겹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에게 잘못된 관점이 있으며 자신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어긋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잘못에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원인,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일이 닥치면 회개하지 않고 각종 관념을 퍼뜨리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셋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잘못을 저지르면 패괴 성품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 자주 하나님 선민을 모해하여 수많은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을 그르치고 하나님 집 사역에 손실을 입힌 자라면, 만약 그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뉘우치려는 뜻이 없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분명한 점은 바로 그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총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아라. (첫째,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총 세 가지다. 앞의 두 가지 원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교제했고, 마지막 원인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앞의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교제하지는 않겠다. 그럼 오늘 교제는 여기서 마치겠다. 다음에 보도록 하자! (하나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2020 년 9 월 19 일

제 12 조　복받을 희망이나 지위가 없으면 물러나려 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2 조에 해당하는, 복받을 희망이나 지위가 없으면 물러나려 하는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자. 이 항목 역시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관계된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 적그리스도가 물러나려고 하는 원인은 지위가 없고 복받을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물러나려 한다. 표면적인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그의 지위, 그가 복받을 희망과 관계가 돼서 물러나려 하느냐? 이는 자세히 교제할 만하지 않으냐? 만약 너희에게 교제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방면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습을 어떻게 교제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전에도 여러 번 교제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권세를 좋아하고 높은 명망을 좋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깨지고 사라지면 그는 하나님 믿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걸 관두려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교제한다면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밖에는 없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단하게 교제해서 이 주제에 대한 교제를 몇 마디로 끝내 버리면, 적그리스도의 이 방면의 모습을 한 항목으로 따로 둘 가치도 없고, 어떤 본성 본질과도 관계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항목이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에 관계되고, 또한 적그리스도 개인의 추구와 그의 생존 관점에 관계된다면 아마 다방면의 내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주한 어떤 일이 그의 지위, 그가 복받을 희망에 관계가 되느냐? 그가 이런 것들을 대하는 관점, 생각, 태도는 무엇이냐? 물론 이런 내용을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전에 교제한,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일을 대하는 관점과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안점이 다르고, 다른 시각에서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지위와 복받을 희망을 잃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제해 보면 그의 추구 관점이 올바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선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가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태도와 사상 관점, 그리고 구체적인 언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해부하고 분석해 볼 만하다. 책망과 훈계에 관계된 주제는 전에 많이 교제했다. 늘 입버릇처럼 꺼내던 주제라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몇 차례 책망과 훈계를 겪으면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한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진리를 구하며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일에 새로운 출발점이 생기고 전환점이 생긴다. 호된 책망과 훈계는 매번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깊이 각인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된 책망과 훈계는 매번 적그리스도에게도 깊이 각인된다. 하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태도와 갖가지 모습, 그리고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생겨나는 사상 관점, 생각과 마음 등, 이런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반발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본질과 성품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완전히 거부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음속 깊이 싫어하고 거부하며, 전혀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고, 진실한 반성이나 회개는 더더욱 없다.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그를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로 책망하든,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든 작든, 그가 저지른 잘못이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든 적그리스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자신의 약점을 잡아 못살게 굴고, 나아가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하며, 사람대접을 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자기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냈는지, 책망받는 일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을 구했는지,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문제를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거나 묵상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기 뜻대로, 혈기대로 책망과 훈계를 대한다. 누가 책망과 훈계를 하면 분노가 솟구치며, 마음속에 불복과 원망이 가득해진다. 누가 타일러도 안 된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스스로를 인식하거나 성찰하지도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충 건성으로 하거나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는 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해결하지도 않는다.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고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심지어는 도발하고 선동하는 성격의 말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불복하고 불만을 품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속으로 일부 원망을 늘어놓는다. '나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 가며 사역도 아주 많이 했어. 비록 어떤 일은 원칙대로 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날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일로 꼬투리를 잡아서 한없이 책망하면 안 되지. 사람의 연약함도 헤아려 주지 않고, 사람 기분이나 체면도 생각해 주지 않다니,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구나! 게다가 겨우 이 정도 잘못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건, 내가 눈에 거슬리니까 나를 도태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자신한테서 드러난 패괴 성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이 아니다. 그는 이치를 따지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동시에 추측한다. 무엇을 추측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렀는데도 책망과 훈계를 받는 걸 보니 복받을 희망도 별로 크지 않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은 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드러내서 도태시키시려는 것 아닌가? 복받을 희망이 없다면 노력은 해서 뭐 해? 내가 고생은 해서 뭐 해?

복받을 희망도 없으니 안 믿느니만 못하지! 하나님 믿는 건 복받기 위한 거잖아? 복받을 희망이 없다면 무슨 헌신을 더 하겠어? 안 믿으면 그만 아니겠어? 안 믿는데도 당신이 나를 책망할 수 있겠어? 안 믿으면 나를 훈계할 수 없겠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올바른 관점과 태도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다음, 거기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해서 그 패괴 성품이 정결케 되도록 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소인의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한 목적을 넘겨짚고 연구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사람이 말하는 어투를 살피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과 태도를 관찰한다. 그로부터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드러나 도태되는 건지를 확인한다. 간단한 책망과 훈계에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렇게 커다란 동요와 생각이 일어난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반감부터 품고, 속으로 싫어하고, 거절하고, 대항한다. 그런 다음 눈치를 살피고, 뒤이어 바로 추측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 그리고 잔머리를 동원해서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관찰하고, 자신에 대한 윗선 리더의 태도를 관찰한다. 거기서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직 한 줄기 복받을 희망이 있는지, 정말 드러나고 도태되는 건지 판단한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으려 하고,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 하고, 살아남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위로하고 붙잡아 주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다면, 그 일은 그에게 자기가 아직은 하나님 집 일원으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심어 준다. 자신에게 여전히 복받을 희망이 있는 데다 희망이 아직 크다고 생각하면 그는 물러나려는 생각을 지울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사태를 보니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이미 막연해지고 이미 사라졌다면, 그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이것이다. "복을 못 받을 거면 믿지 말아야죠. 믿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믿으세요. 어쨌든 당신이 저를 책망하고 훈계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책망하는 그 말들은 다 틀린 말이니 듣고 싶지도 않고 듣길 원하지도 않는다고요. 당신은 책망과 훈계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수년간 추구해 오던 지위, 천국에 들어가려는 꿈이 허사가 되고 사라지려는 순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추구 방식을 바꾸고 자신의 추구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는 떠나려 하고, 물러나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복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얻고자 했던 상, 복, 면류관과 같은 환상과 희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동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동력도 사라진다. 이 동력이 사라지면 그는 교회에 남아 있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싶지 않고, 본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진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갖는 생각이며,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완전히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상으로든 행위상으로든 적그리스도는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과연 어떤 성품이냐?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이다. 사소한 책망과 훈계는 사실 자체를 놓고 보자면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첫째, 그를 책망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다. 둘째, 책망을 받는 사실로 볼 때, 그가 하나님 집 안배를 위배하고 진리 원칙을 위배해서 사역 과정에서 실수와 구멍이 생기고 교회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사람 뜻이라는 불순물 때문에,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에, 사람이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횡포를 일삼았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전 세계에서 큰 기구, 단체나 회사는 어디든 규정과 제도가 있으며, 누구라도 규정과 제도를 어기면 징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기도 하고 정당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규정과 제도를 위배하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제재를 자신을 못살게 구는 것,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트집을 잡아서 성가시게 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태도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이냐? 분명 아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는 이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교란과 방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겠느냐? 엄밀히 말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류는 어떤 사역도 감당하기 힘들다.

하나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훈련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억지를 부리고, 대항하며 대들고, 절대 굽힐 줄 모른다. 마치 자기는 성인(聖人)처럼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패괴된 인류 중에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잘못을 범하는 것은 매우 정상이다. 네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너를 정죄하지도 않고, 너를 저주하는 일은 더욱 없다. 단지 너에게 말로써 조금 책망하고 훈계할 뿐이다. 가끔 좀 호되게 할 때가 있는데, 말이 귀에 거슬리고 조금 듣기 거북해서 그것이 네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하나님 집 재물과 기물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 배상과 벌금이라는 징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심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으냐? 너에게 두 배로 배상하라고 하거나 갈취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가로 배상하라는 것인데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세계 일부 국가의 벌금보다 훨씬 가볍다. 어떤 도시들은 아무 데나 침을 뱉는다거나 종잇조각 하나만 버려도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그럴 때 네가 반항하고 거부할 수 있느냐? 벌금을 거부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더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제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너무 엄하고, 이렇게 사람을 제재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호되게 책망해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의 사탄 본성을 건드리면, 그 일은 그에게 견딜 수 없고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그는 하나님 집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집이라면 언제나 사람에게 포용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사람이 횡포를 부리고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해도 다 좋고 하나님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입니다.) 사람의 본성 본질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람이냐?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사탄, 마귀이고, 조금 저속하게 말하면 짐승이다. 규범을 모르고, 양아치 기질도 심하고, 게으르고 빈둥대는 걸 좋아하고, 또한 횡포를 부리려 한다. 또 하나 가장 골치 아픈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면 늘 세상에 속하는 처세 철학, 방식과 방법, 사악한 조류를 하나님 집에 들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것을 공을 들여 연구하고 학습하고 모방하다가 결국 하나님 집의 일부 사역을 뒤죽박죽

난장판을 만들어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처음 믿는 형제자매들마저 이를 보고 그는 경건함도 없고,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의 조류에 속한 것이지 크리스천의 행동 같지 않다고 해도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가도 좀 치르고 열정도 좀 있고 약간의 충동과 좋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 집에 가져와 본분을 이행할 때나 사역할 때 적용하다가 결국 교회 사역에 교란과 방해를 일으켜 책망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본분을 이행했는데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실현되는 건가요? 설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형식적인 말씀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네가 한 것이 기억할 만한 선행인지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행하는 본분, 네가 하는 사역, 네가 제시한 생각과 건의가 성도의 품위에 맞느냐?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에 맞느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이름을 고려했느냐? 하나님 집의 명성을 고려했느냐? 너는 성도의 품위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여전히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너는 하나도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네가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느냐? 네가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해서 하나님 집에서 그저 책망하고 훈계만 했을 뿐 네가 본분을 이행할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이고, 가장 참된 사랑인데, 너는 속으로 분노하는구나. 네가 분노할 이유가 있느냐?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믿은 지 2~3 년쯤 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 행동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방식, 그가 표출하는 관점, 심지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의 표정과 동작을 보면 그야말로 불신파, 이방인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제재해야 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 그에게 규칙을 정해 주는 한편, 정상 인성은 무엇이고, 성도의 품위는 무엇이고,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사람됨을 배워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8~10 년,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래 믿었지만 그의 사상 관점, 언행,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그럴 때 품는 생각과 마음을 보면 완전히 이방인, 불신파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도 꽤 듣고, 체험도 식견도 꽤 쌓이고, 형제자매도 꽤 많이 접해 보아서 당연히 나름의 생활 언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증을 얘기할 줄도 모르고, 말할 때 관점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나 간단해서 아무것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정말 빈곤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다. 한눈에 봐도 딱한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을 맡으면 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왜 책망을 받겠느냐? 그가 일을 할 때 진리 원칙에 너무 어긋나서 정상인의 양심과 이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돈을 주고 이방인을 고용해서 하나님 집 사역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해낸 일은 질적으로 어떻겠느냐?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겠느냐? 그들에게 순종하는 성분이 있겠느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란과 방해만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본을 썼는데,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인공이 어떻게 핍박과 환난을 체험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 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했는지를

썼다. 그런데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주인공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가끔 일이 생겼을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다. 전에 어떤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기도문을 썼다. 주인공은 어떤 일에 직면하기만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고작 이 몇 마디가 전부였다. 일이 바뀌어서 환경이 달라지고 심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으로 할 말도 없었다. 대본을 쓰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일이 생겼을 때 언제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면 그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일상을 영위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냐? 그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와 은사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러니 책망과 훈계를 당한다. 너희가 볼 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나아진 것도 없고, 머리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할 말도 없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는 속마음을 남겨 뒀다가 누구에게 얘기하려는 것이냐? 누구와 얘기를 하든,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다면 너는 어떤 인간이냐? 가장 인성이 없는 인간이 아니냐? 대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인성, 그의 신앙생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겪었는지 등등을 보여 주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빈껍데기일 뿐이라면 네가 만든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려는 것이냐? 네가 쓴 그 대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증거했느냐? 너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과 교육 수준을 증거하는 것이냐? 사람이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는지, 사람의 마음, 태도,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하고도 확실한 증거이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믿고도 기도할 줄 모른다. 그 오랜 세월 나아진 게 없는 것이 당연하다. 업무도 향상되지 않고, 생명 진입에서도 나아진 게 없다.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너희가 만약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면 너희는 위험한 결과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너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책망과 훈계만 받았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희망이 없다고, 결말을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망과 훈계만 받았다 하면 그것을 자신이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고, 상부의 눈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큰돈을 벌고 세상의 조류를 좇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생각을 품는다. 그의 계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다음 행보는 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집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지위와 권세를 얻고 어디서나 편익을 누리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 우러러보고 치켜세워 줄 때, 또한 자신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또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에 대해, 하나님 집 사역과 하나님 집의 앞날에 대해 믿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서 그의 복받을 욕망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한다. 그가 가진 이른바 가득한 믿음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깡그리 사라진다. 길을 갈 때나 말을 할 때도 힘이 없고, 본분을 이행할 생각도 없고, 열정, 사랑, 믿음도 사라진다. 그나마 있었던 약간의 좋은 마음도 사라지고 만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전혀 딴사람이 된다. 이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냐? 복받을 희망을 품었을 때는 겉으로 보면 힘이 넘치고, 하나님에게 충성심도 있는 것 같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하고 대가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주 바람 빠진 공과 같다. 다시 계획하고 다른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나머지 속으로 원망을 잔뜩 품는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인성과 인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척 위험하다. 이런 사람을 만날 경우, 만약 그가 봉사할 수 있으면 너희는 가볍게 책망하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그를 칭찬하도록 해라. 공을 튀기듯 힘껏 그를 추켜세우고 칭찬하면 그는 점점 높이 뛸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당신은 복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딱 보면 의욕이 넘쳐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집에서 분명 대들보가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 집의 사역은 손해볼 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아주 작은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힘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고치면 돼요. 나중에 가장 큰 면류관은 바로 당신 차지죠." 그가 어떤 일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훈계해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쩌다 이런 형편없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럼 안 되는데! 당신은 우리 팀에서 자질이 가장 뛰어나고 제일 많이 배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팀에서 가장 관록도 있고요. 당신에게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무슨 망신이에요! 다음에는 또 실수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또 그랬다가는 당신 명성에도 누가 되죠. 이번 일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뒤에서 살짝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게요. 지금 당신 체면을 정말 많이 생각해 주고 기분을 고려해 주고 있지 않나요? 보세요, 하나님 집에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죠?" "계속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류는 힘을 써서 복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말하고 행동할 때 결코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기도도 묵상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다. 이런 부류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 체면이 상하고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 혹은 자신의 결점과 문제가 폭로되면, 혹은 누군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성을 내며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한다. 더 심하게는 믿음을 중단하고 그런 다음 큰 붉은 용에게 신고하려 한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방법이 있다. 바로 책망과 훈계를 하지 말고 달래는 것이다.

방금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늘 복받을 희망과 연관 짓는데, 이러한 태도와 관점은 옳지 않고 무척 위험하다고 교제했다.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결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는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또 책망과 훈계, 꾸짖음, 질책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자기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닥치고, 자신이 폭로되고 책망받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을 때 그는 이내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이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겠느냐? 복받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 아니겠느냐?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가련하지 않으냐? (가련합니다.) 너무도 가련하다! 어떤 면에서 가련하겠느냐?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이 관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는 그의 추구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복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는 시종일관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내려놓지 않았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는 복받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설교를 꽤 많이 들었는데도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포기한 적도 없다. 또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로잡히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이 정결케 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복받으려는 희망과 속셈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그러다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추태를 결국 드러낸다.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과 훈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필연적 결과이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망과 훈계를 공과로 여겨 배우지 않으며, 진리를 구하거나 스스로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책망과 훈계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고, 사람의 속셈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반항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는 상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연구한다. 그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언제나 복과 상을 받는 것과 연관 짓는다. 그는 복을 받는 것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추구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 최고의 목표로 생각한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그는 복받으려는 속셈을 죽어라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것이고,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복받으려는 속셈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으면 우롱당한 거라고, 오직 바보만이 복받으려는 희망을 내려놓는 거라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논리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강하게 반발한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궤변과 위장에 능하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또한 불복과 반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마지막에 드러나 도태되기 십상이다.

2. 적그리스도는 본분 조정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복받는 일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무척이나 고집스럽다. 그는 복을 받겠다는 속셈을 한사코 내려놓지 않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반발심을 품고 자신을 위해 악착같이 반박하고 해명한다.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체되거나 본분이 조정될 때도 적그리스도는 복받는 부분에 있어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 예민한 것이냐? 바로 그의 마음이 복을 받으려는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바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본분이 조정되거나 교체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는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치를 따지고 들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 집 사역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문서 방면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 본분을 이행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물론 하나님 집에서도 그를 실망시킬 리 없다. 하나님 집에서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므로 어느 방면에 특기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겐 그것을 펼칠 공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에게 문서 사역을 안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봤더니 그는 그 방면에 특기가 없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재주와 자질로는 그 사역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당신은 열정이 있어요.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자질도 평범하지만, 당신이 원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당신을 인내하고 당신에게 계속 그 본분을 이행하게 할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집에선 눈감아 주고 교체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아쉬운 대로 그냥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이냐?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통상적으로 그의 자질과 특기에 근거해 그에게 적합한 본분을 안배하는데,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만 근거하는 것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본분에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령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 수습 기간을 두고 얼마간 훈련하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확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만약 얼마간 훈련해도 계속 성과가 없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 양성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본분을 조정하여 그에게 적합한 본분을 다시 안배해야 한다.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안배하고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육적인 기호에 따라 본분을 이행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제 가장 큰 꿈은 문인이나 기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가정 형편과 다른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집에서 문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얼마간 본분을 이행했지만 그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안 되고 영적인 이해력도 시원찮아서 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본분을 이행하도록 조정했더니 그는 불평을 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사역을 못 하게 합니까? 다른 사역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나님 집에서 원칙에 따라 본분을 조정한 것을 그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성이 없는 것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본인의 기호를 따르고 늘 본인의 선택이 있다. 이것은 패괴 성품이 아니냐? 네가 어떤 일을 좋아한다고 그 일을 잘하리란 보장이 있느냐? 네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기 좋아하면 그 본분을 기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일이 너에게 적합한 일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 네가 꼭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너는 이성을 갖추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본분 조정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순종을 실행해야 하느냐?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 집에서 진리 원칙에 따라 본분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본분 조정은 네 기호, 혹은 어느 리더 일꾼의 편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은사, 특기 등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분이 조정될 때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가 새로운 본분에서 한동안 훈련받고 그 본분을 이행하는 데 성과를 내고 나면 스스로 그 본분에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자기 기호대로 본분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떤 본분을 안배할 때,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의 기호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사역상의 필요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 집에서 개인의 기호에 맞춰 본분을 안배해야 하겠느냐? 개인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람을 써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어느 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하나님 집 사역의 필요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성과에 근거하는 것이다. 네게도 나름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고, 본분을 이행하고 싶다는 바람이 좀 있겠지만, 네 바람과 취미, 관심사가 하나님 집의 사역보다 우선해야 하겠느냐? 만약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저는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본분도 이행하고 싶지 않을 거고요.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뭘 하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본분 이행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양심과 이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바람과 취미,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치고 지장을 주는 것을 불사하는 이런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어떤 이는 "나를 희생하고 대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옳으냐? 이 말이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말이냐? (사탄의 그릇된 논리입니다.) 이것은 허튼소리이자 사람을 미혹하는 말, 위장하는 말이다. "나를 희생하고 대의를 이루라."라는 말을 본분 이행에 적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네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독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온전케 되고 축복받으려는 것인데, 너의 속셈은 바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무언가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실행하고 육을 저버리라고 요구한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네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네 속셈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네 말은 진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네게서 본분 이행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 않았다. 다만 네가 그 본분에 어울리지 않기에 본분을 조정하여 네게 어울리는

본분을 다시 안배해 주었을 뿐이다. 이는 무척 정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일이니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어떻게 올바르게 대해야 하겠느냐? 이 일이 닥쳤을 때, 우선 너에 대한 하나님 집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네가 주관적으로는 이 업무를 좋아할지라도 사실상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네 본분을 조정해야 한다. 너는 마땅히 순종하고 새 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얼마간 훈련을 한 뒤, 여전히 잘 못 할 것 같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교회에 얘기해야 한다. "저는 이 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나가면 사역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이냐! 절대 억지로 버티지 마라. 억지로 버티면 사역에 지장을 준다. 네가 빨리 얘기하면 교회는 너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본분을 안배해 줄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에게 무리한 본분 이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본분 조정을 체험하는 것은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 우선 이 체험은 네가 이성적으로 자신의 기호와 바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너는 과거에 취미로 문학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문서 사역을 하려면 영적인 이해력도 필요하고, 최소한 영적 용어를 이해해야 가능하다. 만약 네가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면 약간의 글 쓰는 특기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얼마간의 체험을 통해 영적인 이해력을 기르고, 영적 용어를 이해하고, 영적인 삶의 언어를 조금은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집에서 문서 사역이 가능해진다. 네가 얼마간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생명 체험의 언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실제 분량을 알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 집이나 형제자매에게 네 자질과 분량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너에게 좋은 일이다. 적어도 너는 본인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자신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자질과 취미에 대해 더 이상 상상에 머물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실제 분량을 알게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기에 적합하고 무엇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더욱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본분도 더욱 착실하고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또 다른 한 방면은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네가 얼마큼 인식하는지, 혹은 이런 점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너에 대한 하나님 집의 안배에 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순종이며, 까탈스럽게 굴거나 개인이 계획하고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이성이다. 만약 네가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데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반성할 줄 모른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네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본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충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거나 패괴를 표출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할 수만 있다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네 생명, 네 분량이 점점 자라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진리를 구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본분을 조정하는 일이 생길 경우, 교회의 결정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을 반성하고, 문제의 본질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사람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은 평범한 사람도 밝히

알고,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도, 넘지 못할 장벽도 없다. 사람은 본분 조정에 관한 일이 생기면 최소한 순종해야 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어느 정도의 수확도 거둬야 하며, 자신의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올바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어떤 일에서든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를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적극 협력하지도 않으며, 전혀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속으로 반감을 품고, 반발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며 머리를 짜내어 추측한다. '왜 나보고 이 본분을 이행하지 말라는 걸까? 왜 내 본분을 중요하지 않은 본분으로 조정했을까? 설마 나를 드러내 도태시키려는 걸까?' 그들은 속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민한다. 일이 닥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일이 닥치면 그의 내면은 거센 파도가 일듯 세차게 요동치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아진다. 겉으로 볼 땐 남들보다 문제를 더 잘 사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는 일을 고려할 때, 극단적이고, 복잡하며, 은밀하다. 정상적인 사람,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밥 먹듯 흔히 생각하는 일이다. 본분을 조정하는 이런 간단한 일에 있어 사람은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힘이 닿는 대로 해내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는 양심과 이성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다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이 조정되는 즉시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항하고 속으로 불복한다. 그가 마음속으로 품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추측하고 의심하며, 그다음 각종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그는 말로 시험하고, 행동으로 시험하고, 심지어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협박과 회유로 다른 이가 실정을 말하고 참말을 내뱉게 한다. 그는 대체 왜 자신의 본분이 조정되었는지, 왜 자신에게 그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지, 대체 누가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누가 그의 일을 망쳤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한다. 또한 그는 당사자를 만나 결판을 짓고자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유를 물으면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스스로를 반성할 줄도, 자신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줄도 모른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제 본분 이행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성으로 대충 임하면서 원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법이 없다. 그저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따져 물을 뿐이다. '왜 제 본분을 조정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나요? 왜 이렇게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죠? 왜 제 체면은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공격하고 배척하시나요?' 이 일련의 '왜'는 적그리스도의 패괴 성품과 그의 인품을 여실히 드러낸다. 적그리스도가 본분 조정과 같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토록 크게 부풀리고, 아우성치고, 갖은 수를 써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왜 간단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겠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는 법이 없고, 시종일관 자신의 본분, 명예, 이익, 지위를 복받을 희망이나 훗날의 종착지와 긴밀하게 연관

짓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명예와 지위를 잃게 되면 복받거나 상받을 희망이 사라지고, 자기 목숨을 앗아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조심해야겠어. 경솔하게 굴면 안 돼! 하나님 집, 형제자매들, 리더 일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믿을 수 없어. 모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한테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야. 스스로를 위해 계산하지 않는다면, 누가 남을 생각해 주겠어? 또 누가 남의 앞날을 생각해 주겠어? 남이 훗날 복을 받을지 말지를 누가 생각해 주겠어? 그러니까 난 스스로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야지. 실수해서도 조금이라도 경솔히 굴어선 안 돼. 그러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분별하고 간파해서 교체할까 봐, 복받으려는 꿈을 망쳐 놓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반드시 지켜야 복받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복받는 일을 하늘보다도, 목숨보다도 크게 생각하고, 진리 추구나 성품 변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본분을 잘 이행해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 구원을 받는 일을 다 사소한 일, 언급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복받는 일만 평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일로 여긴다. 어떤 큰일이나 작은 일이 닥치든 복받는 것과 연관 짓고 조심하고 신중하며 자신을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다. 그래서 본분이 조정될 때, 만약 직급이 올라가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도 복받을 희망이 있다고 여긴다. 만약 직급이 내려가면, 팀장에서 부팀장이 되거나 부팀장에서 보통 멤버가 되면,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고 복받을 희망이 묘연하다고 예감한다. 이런 관점은 어떠하냐? 올바른 관점이냐? 절대 아니다. 이런 관점은 너무나 황당하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충성을 다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 사람은 수많은 시련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특히 본분을 이행하는 일에서 더 많은 실패와 곡절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마지막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 본분 조정이라는 이 일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는 뭘 해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에게 글을 쓰는 일을 맡겨 봤더니 글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영적인 용어와 크리스천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비록 글솜씨도 좀 있고, 학식도 어느 정도 갖췄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에게 원고를 교정하게 하고 한동안 지나 보면 이것도 잘하지 못한다. 자질이 너무 떨어져 늘 구멍이 생겨서 또 본분을 조정해야 했다. 그는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안다고 했지만 이쪽 본분도 얼마간 이행하면 그것도 잘하지 못한다. 보니까 요리를 할 줄 알길래 형제자매들 밥을 해 주라고 시켰더니 음식이 짜지 않으면 싱겁고, 양이 많지 않으면 적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밥 짓는 일도 안 맞아서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도록 안배했다. 복음팀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끝났어. 찬밥 신세가 됐구나. 복받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 울 수밖에 없어.' 소극적이고 침울한 기분에 휩싸인 그는 주저앉고 무너져 내렸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증거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매일 이런 생각만 했다. '언제면 다시 문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까? 언제면 다시 기를 펴고 살 수 있을까? 언제면 다시 상부와 대화할 수 있을까? 언제면 의사 결정을 하는 윗선의 일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 언제면 내가 여전히 리더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몇 년을 기다려도 '복직'이 되지 않자 급기야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별 의미가 없구나. 세상의 출세 못 하는 사람들 같은 처지가 돼 버렸잖아.' 출셋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니 그는 더욱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큰 리더 한 번 못 맡아 봤어. 겨우 맡은 팀장 자리에서도 교체당했고. 다른 본분을 시켜 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 나란 인간은 지지리 운도 없지.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게 없네. 이게 바로 벼슬길이 순탄치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 집에서는 왜 나를 발탁하지 않는 거지? 내 지위와 명망은 땅에 떨어졌어. 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상부에서도 다시 날 언급하지 않아. 떵떵거리며 지내던 날은 다 지나갔구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집을 사랑하는데 왜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무 의미 없구나. 하나님 집에서 포부를 펼치며 남은 열정과 특기를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날 중용해 주시지 않고 눈길도 안 주시는구나. 다 의미 없다." 그가 계속해서 의미 없다고 떠드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본분 이행이 의미 없고,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게 의미 없고,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의미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의미 없고, 진리 원칙을 구하는 게 의미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게 의미 있다는 말이냐? 벼슬하는 것이 의미 있고, 복받는 것이 의미 있고, 복받으려는 욕망과 야심이 채워지는 것이 의미 있고, 어디서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고 명망을 얻는 것이 의미 있다. 그 외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미를 찾지 못해 김이 새고 실망스러울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발을 뻗으려 하는데, 하나님 집을 떠나려 하고 물러나려 한다. 이건 위험하다. 본분을 이행하는 일부 사람들, 특히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이방인과 자주 접촉하는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는 한 발은 안에, 한 발은 밖에 걸친 사람들이 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고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자신들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들은 한쪽 발을 아무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내디디며 하나님 집과 철저히 갈라서고 완전히 교회를 떠날 것이다. 본분 조정이라는 사안 하나에서도 어디로 배치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본인 소원대로 되었는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지, 조정된 후 어떤 위치와 레벨에서 본분을 이행하는지, 그는 이런 것들을 복받으려는 속셈, 욕망과 결부시킨다. 본분 조정이라는 일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와 관점을 볼 때 그의 문제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그는 정상적인 본분 조정을 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연관 짓고,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관 지었습니다. 본분이 조정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집의 안배를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위를 잃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게 의미 없다며 하나님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본분 조정이라는 일을 복받는 것과 연관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도 없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마음이 복받으려는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연관시킨다. 이런 식으로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며, 그저 드러나 도태될 뿐이다. 이는 사서 고생하는 것이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다.

본분 이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반드시 태도가 단정해야 한다. 이것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려면 네 장점을 보면 된다. 만일 교회에서 안배한 본분이 네가 잘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아니라면 의견을 제기하여 소통을 통해 해결해도 된다. 하지만 네가 이행할 수 있는 본분이고 또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인데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네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육을 저버릴 수 있다면 비교적 이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늘 본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면 남들에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네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너는 본분을 왜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하느냐? 네 뜻대로 본분을 선택하면 그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꼭 그렇지도 않다. 핵심은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데 있다.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는 본분이라고 해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 없이 늘 자기 기호대로만 행동하는데, 그 결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건성으로 대충 대해 마지막에는 도태된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늘 자신이 이행하기에 적합한 본분을 선택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나아가 진리를 구해 패괴 성품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본분을 이행하면서 육적인 편안함만 추구하고 체면을 중요시한다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없고, 어떤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어떤 본분을 이행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본분을 일시적인 관점으로 대하고 늘 건성으로 대하며 패괴 성품이 표출되어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본분을 몇 년이나 이행해도 생명 진입이 전혀 없었다. 그는 힘쓰는 자가 되어 도태되고 말았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아니냐?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이행할 때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법이 없다. 본분이 조정될 때 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나를 봉사자라고 생각해? 나를 쓸 때는 봉사나 좀 하라고 하고, 나를 쓰지 않을 때는 차 버리잖아. 나는 그런 봉사는 하고 싶지 않아! 난 리더 일꾼이 되고 싶어. 그건 화려하고 눈에 띄니까. 나한테 리더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고 힘만 쓰게 하려 한다면 어림도 없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태도겠느냐? 순종이 있느냐? 그는 무엇으로 본분 조정이라는 일을 대하고 있느냐? 혈기와 사람의 뜻, 패괴 성품으로 대하고 있지 않으냐? 본분 조정을 그렇게 대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먼저, 그가 다음에 이어질 본분 이행 과정에서 충성과 진심을 다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의 내적 상태는 어떠하겠느냐? (의기소침할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의 본질은 무엇이냐? 대항하는 것이다. 대항하며 의기소침하게 행동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소극적이고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늘 소극적이고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분 이행에 적합하겠느냐?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 것이겠느냐? 그는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며, 진리를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집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는 무척 합리적인 본분 조정인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두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 집에는 사랑이 없어 그를 기계처럼 부려 먹는다고, 그가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내친다고 말한다. 이는 억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인성이 없다! 더없이 합리적인 일도 그에게만 가면 왜곡되며, 매우 합리적인 방식도 왜곡되어 부정적인 사물이 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함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그는 비뚤게 생각한다. 어째서 비뚤게 생각하겠느냐? 그의 본성 본질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은 주로 사악함이고, 그다음이 흉악함이다.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의 주된 특징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은 그가 어떤 일이 닥치든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치우치게 생각하고 극단을 달리며 문제를 물고 늘어지게 한다. 또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못하게 한다. 곧이어 그는 주동적으로 공격하고 저항하고 보복하며, 심지어는 관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며, 일부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여 교회 사역을 교란할 것이다. 또 뒤에서 불평을 퍼뜨리며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 집의 일부 행정 제도, 그리고 리더의 일 처리 방식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함이다. 그는 혼자만 반발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와 함께 반항하고 자기편을 들게 만들려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간단한 본분 조정조차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온갖 이유를 들며 따지는데, 어떤 이유는 공개 석상에서 밝힐 수 없을 만큼 듣고 있으면 혐오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궤변과 사설을 퍼뜨린 다음, 적그리스도는 또 갖은 수를 써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상황을 만회하려 든다. 만약 이런 시도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는 뉘우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는 진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가 회개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복을 못 받게 하면 나도 당신들이 복을 못 받게 할 겁니다! 복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적그리스도 부류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어처구니없는 모습의 이면에 있는 본성 본질은 극에 달한 이들의 사악함과 흉악함이다. 지금 교제하는 이 내용은 그들의 이런 본성 본질의 발현과 표출을 잘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분이 한 번 조정되거나 교체되어도 화를 낸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교체되는데 여러 본분을 전전해 봐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면 자기는 복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물러나려 한다. 요컨대 본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는 관계없이 조정되기만 하면 그들은 속으로 그 일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연구한다. 그러다 이 조정이 복받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야 마음을 놓는다. 하지만 복받는 일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거나 자신들의 복받을 희망에 영향을 주는 조정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들은 당장 일어나 반항하며 자신들의 본성 본질을 드러낸다. 만약 그들이 반항에 실패하고 까발려지고 버림받으면, 그들은 자신을 위한 퇴로를 준비하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 집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달라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흡연과 음주는 물론 이상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치장했던 요란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그동안 하나님 믿느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는 데 급급해한다. 그들이 물러나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앞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해 잘 먹고 잘살지, 자신의 살길은 어디 있는지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재빨리 자신을 위해 살길을 찾고, 이 사악한 조류와 사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장사를 할지 관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육적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먹고 마시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다.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본분이 조정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건 자신과 밀접히 관련된 복받는 일이다. 복받을 희망이 좌초되면 그들은 물러나려 하고, 하나님 집을 떠나려 하고, 이방인의 생활로 돌아가려 한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의 본성 본질은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의 추구, 사람의 선택도 무척 중요하지 않겠느냐? 한 생각의 차이다. 하나의 옳은 선택이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너를 순식간에 이방인으로 바꾸고, 하나님 집, 하나님의 사역, 네 본분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바꾸기도 한다. 한 생각의 차이, 한순간, 하나의 사소한 일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무심코 한 선택, 무심코 품은 작은 생각, 하나의 단순한 관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이 다음 순간에 어디에 있을지 결정할 수도 있다. 아무 일 없는 상황이나 선택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에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많은 진리를 깨달아 분량이 있으니 굳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선택에 직면했을 때, 중대한 원칙과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네가 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가 네 운명을 결정하고 네 거취를 결정한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늘 선택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관적인 바람은 모두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순종은 없고 오직 반항밖에 없다. 진리도 없고 인성도 없으며, 오직 사람의 패괴 성품, 그리고 사람의 사설과 궤변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늘 그들이 하나님 집을 떠나 사악한 조류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복받을 희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믿지 않을 거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집에서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대역무도한 생각, 이런 사설과 궤변, 이런 사악한 생각은 늘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존재하며 맴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설령 중도에 물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방해와 교란을 일삼다 제명되고 출교될 것이다. 어떻게든 끝까지 버틴다고 해도 사실상 그들의 본성 본질을 봤을 때 이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필연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 설령 그들이 속으로 '나는 절대 하나님 집을 떠날 수 없어. 그러고 싶더라도 절대 떠나지 않겠어. 죽어도 하나님 집에서 죽고, 하나님 집에서 버틸 거야. 난 끝까지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주관적인 바람이 하나님 집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강요하더라도 그들의 최후의 운명은 역시 진리를 싫어하고 극에 달한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집을 떠나는 것이다.

3. 적그리스도는 교체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방금 적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를 교제했다. 하나는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본분이 조정되는 경우인데, 주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교제해 보았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나 본분이 조정될 때 어떤 관점과 태도를 보이든, 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복받을 수 있는지와 연관 짓는다. 만약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려 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고 본분이 조정되는 일은 사실 보통 사람이나 야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두 사소한 일이라서 사람에게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 측면으로는, 네가 본분을 이행할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고, 또한 네가 구원받을 희망을 박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놀랄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상심할 필요도 없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 일을 복받는 일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갖가지 패역한 생각과 행위가 생겨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 물러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갖는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적그리스도는 물러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 지위를 갖고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의 경우 교체될 때 그의 태도, 그의 처리 방식, 그의 선택은 또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문제를 더욱 잘 보여 준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 권세, 명망과 같은 몇 가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이자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교체될 때, 리더의 직함이 없어지고 지위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권세와 명망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던 우러름과 옹호, 앙망과 같은 특별 대우가 사라진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처럼 지위와 권세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교체되면 맨 먼저 날벼락을 맞은 듯한 반응을 보인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그의 하늘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다. 그에게 희망을 걸게 해 주던 대상이 사라지고, 살면서 지위의 복을 누리게 해 주던 기회가 사라지고, 그가 횡포를 부리도록 지배하던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그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먼저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지위가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향의 형제자매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날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 비위를 맞추려 들까? 여전히 나를 우호적으로 대해 줄까? 언제나 날 지켜 줄까? 여전히 내 곁을 따를 수 있을까? 여전히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대신 처리해 줄까?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웃는 얼굴로 맞아 줄까? 지위가 없어졌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 남은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발붙이지? 지위가 없어졌으니 복받을 희망이 줄어든 것 아닐까? 그래도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큰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복받을 희망이 좌초되었다거나 복받을 희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마음은 무거운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가 낮이고 밤이고 간절히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곧 사라진다는 건 그에게는 갑자기 날아든 비보와도 같다. 지위가 사라지는 건 적그리스도에게는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아주 산송장이 다 되고, 육은 마치 빈 껍데기와도 같아진다. 영혼도 없고, 그의 생활을 주도하는 것도 사라진 것 같다. 그에게는 간절한 바람도, 기대도 없다. 폭로되고 교체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손을 떼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복받으려는 욕망과 지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평범한 따르는 자가 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 계기는 그를 좋은 방향,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가 더 나쁜 방향, 소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로 볼 때, 그는 교체되면 절대 이를 계기로 복을 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욱 열심히 복받을 기회와 희망을 쟁취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복을 받고, 재기하고,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꽉 움켜쥐려 한다. 따라서 교체에 직면한 적그리스도는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대항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위해 최대한 교체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 일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려 애쓴다. 그는 여전히 복받을 희망을 유지하려 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망, 권세를 전과 같이 유지하려 하면서 자신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유를 내세운다.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했고 뭣 때문에 실수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밤을 새워 가며 남들을 돕고 교제해 줬는지, 자신이 이 일에서 과실을 저지른 원인이 무엇인지 늘어놓는다. 그는 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상황을 만회하고, 교체되는 비운을 면하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일에서 가장 쉽게 자신들의 패괴 본성을 노출하고 드러내느냐? 바로 자신이 폭로되고 교체되는 순간, 즉 자신이 지위를 잃는 순간이다. 적그리스도의 주된 모습은 바로 기를 쓰고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그들은 속으로 반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하나님 선민들이 폭로하는 갖가지 악행의 사실 앞에서도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 다음에는 죄명이 성립되면 제명되고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이다. 그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심지어 잘못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코 자신을 참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 더욱이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해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정말 구제 불능이다. 인성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양심과 이성을 조금도 갖추지 못하고, 인성도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속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가 얻게 될 복의 크기와 맞먹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집에서든, 혹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든 다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의 지위와 등급은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인류의 마지막 결말도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고 말이다. 또 사람이 이번 생에 하나님 집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내세에 얻게 될 복과 면류관, 상의 크기와 맞먹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이

성립되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일단 따지지 않겠지만, 그 본성 본질로 볼 때 그가 지위를 좋아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아울러 그는 본인이 현생에서는 빛나는 자리와 높은 명망을 얻고, 손에 권력을 쥐고, 내세에서는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얻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볼 때, 그것은 현생에서 지위와 권력, 그리고 명망을 갖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거나 또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좀 해서 미래의 복, 면류관, 상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처세 철학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자 관점이기도 하다. 그의 사상 관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사악의 극치에 달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든 그는 개의치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면서 그 속에서 즐기고 스스로 누리고 감상한다. 또 그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지 알아보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하게 자신이 천성적으로 남보다 똑똑하고, 천성적으로 지혜와 재주, 뛰어난 은사가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앙망을 받아야 하고, 수중에 권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의 관제를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그가 이끄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 이 역시 현생에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내세에도 역시 다른 누구도 얻지 못하는 복을 얻으려 하는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사상 관점이 있다는 건 조금 후안무치하지 않으냐?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냐?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무슨 근거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으려 하느냐? 너는 무슨 근거로 사람들을 관제하려 하느냐? 너는 무슨 근거로 권력을 가지려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느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진리를 갖추고 인성이 있는 것이냐? 좀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좀 키 크고 잘생겼다고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 호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잘생기고 특기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하고, 영구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았느냐? 아니다. 형제자매가 너를 리더 일꾼으로 선출한 것이 너에게 지위를 준 것이냐? 네가 현생에서 받아야 할 복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리는 것을 현생에 백배 얻은 것으로 이해한다. 지위와 권력이 있고 호령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관제할 수 있는 한, 어딜 가든 옹위를 받아야 하고 시중드는 사람, 에워싸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무슨 근거로 이런 걸 누리려 하느냐? 형제자매가 너를 리더로 선출해서 이 본분을 이행하도록 한 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형제자매로부터 우러름과 앙망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통제해서 지위의 복을 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역지침에 따라, 진리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이 누구를

리더로 선출한 이상 교체하면 안 된다고 예정하지도 않았다. 너는 네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무도 너를 교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널 교체하는 게 어떻다는 것이냐? 너를 출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를 가련하게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인데, 너는 그것도 마다한다. 너는 무슨 이치를 따지는 것이냐?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면 물러나서 믿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썩 물러나거라! 하나님 집이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없으면 지구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냐? 네가 없으면 하나님 집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잘못 생각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없어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태양은 여전히 떠오른다.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뿐, 사람은 어느 누가 없어도 되고, 교회 사역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집도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 몸에 밴 것이 아니냐? 남들로부터 앙망과 우러름, 아첨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너에 대한 사람들의 앙망을 누리느냐?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너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라는 것이냐? 너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는 절까지 받고 싶은 것이냐? 이건 후안무치하지 않으냐? 어떤 사람들은 교체되면 가족이 죽은 것보다도 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모든 일을 들추어 하나님 집과 따지는데, 마치 교회에 그가 없으면 아무도 교회를 이끌지 못하고, 그가 교회 사역을 오늘날까지 떠받쳐 온 것 같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룬 성과이다. 하나님 선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선민들이 굳게 서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 리더가 바뀌고 또 바뀌고, 많은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 모두 교체되어도 하나님 선민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 그것은 이들 거짓 리더, 거짓 일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가 그런 이치를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부 그릇된 이치, 엉터리 이치가 아니냐? 네가 만약 정말 진리 실제가 있어서 하나님 선민들에게 많은 생명 진입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하나님 선민들도 다 안다. 네가 만약 진리 실제가 없고, 또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른다면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은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많은 거짓 리더, 거짓 일꾼들이 교체되면 자꾸만 이유를 따진다. 마치 그가 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무슨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았다. 교회 생활의 정상 질서도 그가 유지한 것이 아니다. 그가 없어도 하나님 선민들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가 없어도 하나님 선민들은 원래대로 본분을 이행한다. 네가 진리 실제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영향과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집에서는 너 같은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은 쓰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집에 너를 교체할 권력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사역을 엉망으로 해서 교회 사역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큰 손실을 입혀서 상부에서 너무 마음을 쓰게 하니, 너를 쓰는 게 너무 번거롭고, 너무나 역겹고 반감과 혐오감이 든다. 네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것을 보니 책망과 훈계를 받을 자격도 없구나. 너를 차 버리고 바로 도태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도 너는 상부에서

너에게 리더를 계속할 기회를 다시 주기를 바라느냐? 단념해라! 양심과 이성이 없고 악행을 저지르고 교란을 일으키는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 도태는 영원한 도태이다. 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너를 쓰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교란하면 바로 너를 도태시킨다.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불복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교체하셨는데, 어째서 제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너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교체된 것이다. 여러 차례 책망과 훈계를 겪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서 너를 교체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무슨 이치를 따지려 드느냐? 너는 명예와 이익, 지위만 추구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아서 교회 사역을 답보 상태에 머물게 했고, 많은 문제가 쌓였는데도 처리하지 않았다. 상부에서 너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워야 하느냐? 네가 사역하는 것을 붙잡아 주고 도와줄 때, 너는 뒤에서 밀실 조작을 일삼으며 상부 몰래 원칙에 위배되고 면목이 없는 일을 정말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써 가며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많이 사서 하나님 집에 정말 많은 손해를 입히고 교회 사역에 정말 큰 화를 입혔다! 이런 악행을 너는 어째서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느냐? 하나님 집에서 너를 교체하려 할 때에도 너는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네가 계속 횡포를 부리도록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단 말이냐? 하나님 집에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 자신의 본성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더더욱 없는데, 이런 너에게 기회를 또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바로 악인이고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못한다. 상부에서 얼마간 지도하고 도와준 후에도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모르고, 심지어 사무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자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이다. 상부에서는 또 각 방면의 사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물어보고, 검사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제자매들에게 제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각 방면의 사역은 항상 상부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원칙을 교제해 줘야 한다. 원칙을 교제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할 줄 모르거나 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횡포까지 부린다. 어떤 사역을 하든 한 번도 상부에 구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늘 밀실 조작을 일삼는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 이런 사람은 어떤 본성에 해당하느냐? 그는 진리를 사랑하느냐? 양성할 가치가 있느냐?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느냐? 첫째, 일하기 전에 구하지 않고, 둘째, 일하는 도중에 보고하지 않고, 셋째, 일한 다음에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그런 주제에 교체되지 않으려 하고, 교체된 후에도 불복하다니, 이건 구제 불능이 아니냐? 너희가 볼 때 구제 불능인 사람은 대부분 후안무치하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냐?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나태하고 편안함을 탐한다. 어떤 사역도 입만 움직이고 호령만 하고, 말만 좀 하면 그걸로 끝이다. 전혀 감독하지도, 검사하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 누가 만약 감독하고, 검사하고, 확인하면 그는 반감과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혼내 주려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이 모양이다.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면서 그런 주제에 복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 집, 상부와 높고 낮음, 위아래를 다투려 하고, 따지려 든다.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교체되면 매우 불복하고 분개한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성이 조금도 없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횡포를 일삼으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다. 교체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책임을 남에게 미루며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떠맡을 사람을 찾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건 그 사람이 한 겁니다. 그건 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 같이 의논한 겁니다.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마치 책임을 지면 정죄되고 도태되어 복받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그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기어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의 마음가짐을 보면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 집에 대항할 수 있다면 그의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대할 때 첫째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둘째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하나님 집에서 규정하고 교체하면 하나님 집에 대항하며 여기저기 원망과 소극성을 퍼뜨려 하나님 선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으려고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간이다! 교체되어 지위를 잃으면 어떻다는 것이냐? 너를 출교한 것도 아니고 네 생존권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 너는 회개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패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무척 간단한 일도 적그리스도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 물론 일부 적그리스도는 교체되었을 때 겉으로는 마지못해 순종하고, 너무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설마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는데, 그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체된 후 표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반발심을 품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점이 하나 더 있다. 즉, 어떤 곳에서 일하든 혼자 튀려고 하고,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앙망하기를 바라고, 리더나 팀장과 같은 명분이 서는 직무나 직함이 없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남보다 높은 신분과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인성과 생명 체험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갖은 방법으로, 애써 기회를 찾아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구슬리고, 사람을 꾀고 미혹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려 한다. 어떤 점을 우러러보게 하려 하겠느냐? 비록 그가 교체되었을지라도 썩어도 준치라고, 자기는 여전히 매이기 때문에 닭보다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독선, 남다른 점이 아니겠느냐? 그는 지위가 없는 것, 일반 신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 착실하게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의 '원대한 계획과 큰 뜻'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의 우러름과 앙망, 그리고 수중의 권력이다. 따라서

명의상 직함이 없더라도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분투하고, 자신을 위해 입을 열고 해명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애써 자기를 표현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이 멀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자신의 인지도와 명망을 높일 기회를 애써 찾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와 장점을 보여 주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자신을 과시하고 추켜세우려 한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비록 자기가 더 이상 리더도 아니고, 별다른 지위도 없지만 여전히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는 일반 사람이 되기를 꺼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꺼린다. 권세와 명망을 손에 넣고자 하고, 남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네요.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과 지위 같은 것이 별로 쓸모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야심만만한 적그리스도에게는 지위와 권세, 명망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생존 목표 역시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지위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며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지위가 없을 때도 애써 자기 명예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구제 불능이며, 이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교체되기 전후에 일련의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권세와 명망을 얻지 못했을 때,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복받으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뉘우치며 진리를 추구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결코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도 없다. 그보다는 몇 번이고 가늠한다. '내가 앞으로도 지위를 얻을 희망이 있을까? 지위가 사라져도 복받을 희망이 존재할까? 복받으려는 욕망이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나는 과연 어느 등급일까?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까?' 자신이 교회에서 명망이 높지 않고, 여러 사람 사이에서 유력시되지도 않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명성이 철저하게 땅에 떨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떠받들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자신이 복받을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고 느낀다. 이 모든 걸 확인하는 순간, 이 정도로 가늠하게 되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위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지? 환경이 바뀌면 나무는 죽어도 사람은 산다고, 내가 장소를 옮기면 아마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건 없잖아? 뜻도 못 이루고, 뜻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여기를 못 떠날 건 없잖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 적그리스도는 곧 떠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떠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남아 있기를 바라느냐? 만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만류할 필요 없습니다.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붙잡아도 소용없다, 이게 사실이다. 이건 왜 그런 것이냐?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부류에게는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이 고통이어서 그렇다. 기생,

창부에게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가르치며, 양갓집 부녀자가 되고 현모양처가 되라고 하면 그녀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관계된 일이다. 따라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물러나려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 타이르지 마라. 그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저는 비록 적그리스도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사탄을 저버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를 파리 쫓듯 쫓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순리대로 하되, 한 가지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즉, 자주 감독하고 단속하는 것이다. 그에게서 악을 행하려는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제명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감독과 단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분하게 생각해서 힘쓰지 않으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를 도와서 일을 이루게 해야 한다. "당신은 인재니까 바깥세상으로 가서 포부를 펼쳐야죠. 당신은 개천에 있을 용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여기서는 마음껏 헤엄칠 수가 없으니 재능을 썩히는 거죠.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마 출세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그에게 타일러서 내보내라. 그가 돈과 재물, 지위를 추구하고, 지위의 복에 연연하면 그를 세상으로 돌려보내 일해서 돈 벌고, 그런 다음 한자리하면서 육적인 생활을 누리게 해 주어라. 아마 어떤 이들은 그들을 이렇게 대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냐고 할 것이다. 사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흥, 오늘 발탁했다가 내일은 또 교체하고, 지위를 주고서는 단속하고 감독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고, 정말 까다롭구나! 나한테 이런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난 지금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진작 출세했을 거야. 적어도 시 단위 간부도 됐겠지. 난 태생이 관료가 될 재목이야. 세상에서 뭘 해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거고, 뭘 해도 잘해서 어느 업계에서라도 이름을 날렸을 거야. 난 사업가 스타일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너는 얼른 비위를 맞춰서 그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주고 타일러서 얼른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권세, 명망을 추구하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받게 된다. 그렇다면 너희는 기꺼이 보통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 생활에 만족하며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바른길이다. 언제나 대단한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불 위에 올려놓고 구워지는 것과 같고, 분쇄기에 들어가 갈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고생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어째서 그런 느낌을 받겠느냐?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기어이 그 길을 택한다. 너희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패괴된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기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사람은 믿음도 작고 분량도 작다. 그래서 약간의 좌절을 만나면 자기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혐오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언제나 벽에 부딪히고, 언제나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낙담하고 연약해지고 소극성을 보인다. 때로는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건 반항이 아니라 그저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죽을 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물러나려는 것과는 다르다. 적그리스도가 물러나려 할 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패괴된 보통 사람은 낙담해서 떠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교제해 주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차츰 그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바꾸고, 그의 거취, 그의 결정,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조금씩 회개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끈질긴 의지가 생기고, 차츰 강해진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생명 진입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대항하려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죽으면 죽었지 복받으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약간의 생명 진입도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지못해 힘을 쓰거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물러나라고 권해라. 이것이 현명한 결정이고 현명한 처리 방식이다.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한들 네가 그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의 추구 방식과 관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영원히 바꿀 수 없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류하고, 도와주고, 붙잡아 주는 것은 그가 드러내는 소극성과 연약함, 패괴 성품이 패괴된 보통 사람에게 늘 있는 것이고, 정상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줌으로써, 붙잡아 주고 도와줌으로써 사람은 조금씩 강해지고, 분량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믿음이 생기고, 본분도 진심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류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은 본인이 힘쓰는 것을 원치 않고, 또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물러나도록 권해라. 왜냐하면 네가 권하지 않아도 그는 진작 떠나고 싶었거나, 혹은 언제 어디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교체되었을 때와 물러나려 할 때의 여러 가지 모습과 생각이다.

4. 적그리스도는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 속하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책망과 훈계를 거의 받지 않고, 교체를 겪어 본 적도 없으며, 당연히 본분이 조정되는 일도 거의 없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 못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얼마나 되는지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을 보고 자신이 복받을 희망이 작다고 느껴져서 물러나려는 생각을 한다. 한결같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 중 어떤 이는 지식과 모종의 특기가 좀 있는데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한다. 물러나자니 복받을 기회를 잃을까 두렵고, 그대로 있자니 그렇다고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도 못한다. 이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중에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업무 지식을 배우려 하고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내서 자신이 얻고 싶은 지위나 각종 이익을 얻기를 고대한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조용히, 성실하게 지내지만 마음은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명언은 무엇이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조용히 있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경쟁하지도 다투지도 않는다. 하지만 속에는 '원대한 포부'가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누군가 발탁되고 누군가 리더 일꾼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한껏 우울해하고 실의에 빠진다. 어느 누가 발탁되어 양성되고 중용되든 그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타격이고, 심지어 누군가가 형제자매들에게 우러름과 칭찬, 추대를 받으면 그들은 속으로 질투하고 슬퍼한다. 심지어 몰래 눈물을 떨구며 수시로 자문하는 사람도 있다. '난 언제쯤 남들이 우러러볼까? 언제쯤 지명받고 상부에 알려질까? 언제쯤 내 특기와 장점, 은사, 재주가 리더 눈에 띄고 발탁되어 양성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근심하고 소극적이 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못마땅해서 소극적이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불굴의 정신으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충고한다. "나는 원대한 포부가 있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에 만족할 수 없고, 평생을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이 살기는 싫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뛰어나고 성과를 내야지. 평생을 이렇게 조용히, 밋밋하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 난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어. 더 많이 노력할 거야. 시간을 죄다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지식을 배우고, 업무를 연구해야지.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해내고, 남들이 교제할 수 있는 건 나도 해야지." 한동안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회 선거 때 그는 또 선출되지 못했다. 매번 교회에서 양성하고 발탁하고 중용할 사람을 찾을 때마다 여전히 그의 자리는 없다. 매번 발탁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때마다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고, 매번 느끼는 실망은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소극성을 띠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 것은 기약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물러나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내키지 않아서 또 한 번 고군분투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군분투할수록 추천받고 발탁되어 쓰임 받고 싶은 바람은 더 커지고, 속으로 이렇게 바랄수록 돌아오는 것은 결국 실망이었다. 허영심과 복받으려는 욕망은 이렇게 그를 괴롭혔다. 실망할 때마다 그는 마치 불에 구워지고 달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고,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고, 손에 넣고 싶어도 잡을 수 없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낙담,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다. 물러나고 싶었지만, 그러다 큰 복을 잃게 될까 두렵고, 복에 집착할수록 복은 잡히지 않았다. 결국 복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괴로움에 빠져 계속해서 발버둥치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형제자매들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리더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파격적으로 나를 중용하실 수 있겠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도 실망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복받을 희망을 하나님에게 걸어도 역시 확실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실의에 빠졌다. 교회에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자신의 관상을 보아도 복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생각했다. '물러날까, 남을까? 복받을 희망이 정말 조금도 없는 걸까?' 이렇게 거듭 망설이고 고민하는 동안 일 년이 지나고 또 일 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발탁되거나 중용되지 않았다. 그는 지위를 다투고 싶었지만, 또 그건 그다지 이성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투지 않으면 언제 발탁되고 중용될까 싶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많은 이들이 발탁되고 중용되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중용되지 않으니 속으로 곤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길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내적 상태, 자신의 사상 관점, 자신의 편차와 결점을 절대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는 말할 때도 사리 분별을 잘하고 일할 때도 조금은 이성이 있는 듯하지만 마음속에는 야심과 욕망이 무척 강렬했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고, 자신의 복받을 희망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성과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과 하나님 집, 심지어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마음 한가득 적개심과 분노를 품었다. 누구 하나 자신의 노력과 특기, 자신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를 발탁하지 않고 중용하지 않는 것이 한스러웠다. 마음속에 그토록 커다란 질투와 증오가 생겼는데 그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다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착실하게 본분을 이행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그럴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스스로를 감추며 지내다 보니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갈수록 커졌다. 어느 정도로 커졌겠느냐? 그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집 사역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산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모두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기를 바랐다. 그는 형제자매들도 증오하고 하나님도 증오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하고 이 세상에 구세주 따위는 없다고 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귀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런 부류는 평소에 꽤 깊이 스스로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처럼 잘 위장하지만, 사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감춘 사람이다. 속으로는 살의를 깊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에 누구도 간파하지 못한다. 누구도 그의 내막을 모르고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그와 얼마간 지낸 사람은 이 사람이 질투심이 강하고 남과 겨루는 것을 좋아하고, 남 앞에 얼굴 내미는 것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특히 강해서 무엇이든 1 등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냐?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복받으려는 욕망이 더 크다. 그는 자신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점, 자신의 사역 능력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용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년간의 수고에 부응하고 수년간의 대가와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내면에 자리한 야심과 욕망이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거나 중용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집에서 사역 능력이 있을수록, 중용되거나 발탁될수록, 사람들이 우러러볼수록 복을 받고 면류관과 상을 받을 확률이 커지고, 만약 사역 능력이 없고 무슨 특기가 없으면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은사, 특기, 능력, 기량,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사역 능력에서부터 이기려는 의지, 끈질긴 태도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

안에 포함되는 소위 장점과 강점이 바로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밑천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는 기준이냐? (아닙니다.) 그건 진리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의 논리가 아니냐? 사악한 시대, 사악한 세상 조류의 논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물을 판단하는 논리와 방식, 기준,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보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일 듣고 있고, 매일 보고 있고, 또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점은 어째서 바뀌지 않는 것이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무리 듣고 본다고 한들 그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속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리 없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이 아무리 터무니없고 편집적이더라도 그는 영원히 고수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바르다 해도 그는 배척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본성이다. 중용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는 여우의 꼬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흉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한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부정하는 그의 본성 본질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 있다. 또한 그런 본성 본질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계산과 계획, 노력을 통해서도 여전히 중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저버리려 하고, 하나님 집을 떠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권력과 이익을 두고 남과 다투지 않고, 독자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독립 왕국을 세워 지위를 경영하지 않지만, 그 본성 본질을 보면 역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그에게 자신은 어떻게 추구하든 옳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든 거론할 가치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고, 사용할 가치는 더더욱 없다. 이건 대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를 감동시킬 수도 없고 그의 마음에도, 그의 눈에도 들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은사와 재주,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수단, 그리고 사람의 야심, 원대한 계획과 위업이다. 그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건 패괴된 인류가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자 사탄이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道),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는 요구와 정확히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사탄에 속하는 것, 사악한 것,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악착같이 단단히 움켜쥔다. 그것을 지고지상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대신한다. 이것은 대역무도한 짓이 아니냐? 이렇게 대역무도하고 어처구니없이 행동하다가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유일한 결말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틀림없이 이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가 볼 때 이것은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냐? 그들이 신봉하는 원칙은, 금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조용히 엎드려서 시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러는 동안 본인은 예비하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원칙과 생존의

원칙,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들의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앙모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자들은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독립 왕국을 세우고 지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권력을 잡은 후 독립 왕국을 세울 수 없겠느냐? 사람을 혼내고 괴롭힐 수 없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진리 원칙대로 행동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만약 중용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는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발탁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발탁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들 옳은 사람들은 모두 억압받을 것이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이 부류 사람들의 적그리스도 본질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주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했던, "중용되지 않고 복받을 희망이 없으면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부류 역시 적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 직무에서 교체된 다음, 상부에서 앞으로는 더는 그를 양성하거나 쓰지 않겠다는 말에 무척 괴로워하며 통곡하기 시작한다. 마치 도태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다시 너를 양성하거나 쓰지 않는 것이 네가 도태되었다는 뜻이냐? 네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냐? 명예와 이익, 지위가 정녕 너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냐?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잃었을 때 스스로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뉘우쳐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네가 속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집에서 교체된 것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앞으로 다시는 너를 발탁하거나 쓰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죄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조금은 이성적인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 집에서 더 이상 너를 양성하거나 쓰지 않겠다는 말에 소극적이 되고 괴로워한다. 이것은 네가 추구하는 것이 명예와 이익, 지위라는 뜻이고,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너는 복받으려는 마음이 그토록 강하고, 지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니 교체되어 마땅하다. 너는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하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지위와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만약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도 받을 것이다. 너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냐? 지금 너희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괴롭겠느냐?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부 리더가 자기를 두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록 괴로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말에 소극적이 되어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 '나보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복받을 희망도 사라진 것 아닌가? 앞으로 내가 복받을 일은 없겠구나. 그럼 더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나한테 봉사하라고 해도 안 될 걸. 누가 당신한테 공짜로 힘을 써 준대?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아나!' 이런 자가 양심과 이성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갚을 줄 모르고, 약간 봉사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자는 끝이다. 끝까지 봉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도 없다. 바로 불신파이다. 네가 하나님에게 진심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에 대한 어떤 평가도 네가 더욱 참되고 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하도록 해 줄 뿐이니 너는 그것을 바르게 대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본분을 이행하는 일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설령 복을 받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봉사하려고 해야 한다. 원망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지배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입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하는 것으로, 사람이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 요구에 따라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바에 따라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 그만한 진심이 있고, 자신이 다해야 할 본분에 최대한 힘을 바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이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손에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비이성적이지 않으냐? 만약 네가 스스로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고 힘은 많이 썼지만 원칙대로 일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앗아 갈 수 없다. 너는 네가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해서 너란 사람은 진심이 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축복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은 틀릴 리 없고,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미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모두 옳으니, 설령 네가 하나님이 한 일에 관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 일이 사람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네 뜻에 맞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너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렇지 않으냐? 그건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너를 어떻게 대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복과 은총, 상, 면류관 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 주고 누구에게 내려 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왜 그런 것이냐? 그건 모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인류와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공동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한 사람에게 내려 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약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분, 지위, 본질과 사람의 신분, 지위, 본질, 이 둘 사이에는 영원히 등호가 성립될 수 없고, 영원히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다. 사람이 이 일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다. 그것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제 2 의 길은 없다.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패역이고, 네가 따지고 반항한다면 그것은 대역무도이다. 너는 멸해져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사람은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갖춰야 할 태도이다. 예를 들어, 네가 개나 고양이를 기를 때 그것들이 너에게 온갖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사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주인에게 요구하는 개나 고양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 개가 자기보다 더 잘 지내는 걸 보고 자기 주인을 따르지 않는 개가 있느냐? (없습니다.) 개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주인님은 나를 먹여 주고 재워 주는데 나도 집을 지켜 줘야지. 설령 주인님이 먹이를 안 주거나 좀 부실한 걸 주더라도 집을 지켜야지.' 그는 결코 분수에 안 맞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잘해 주든 말든 주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반가워서 꼬리를 계속 흔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개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든 말든, 맛있는 먹이를 사 주든 말든 언제나 주인에게 한결같고, 항상 집을 지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늘 요구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한다.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사람은 패괴 성품이 있어 피조물의 본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본능을 잃고 사탄으로 변했다. 사탄으로 변한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이 다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개가 집을 지키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다.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개와 고양이는 젖 먹던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제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본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주인이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다.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진리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너무 깊이 패괴되어 이성과 양심이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패괴 성품이 시시각각 장난을 치며 표출된다. 그리고 그것이 네 사상과 선택에 영향을 주어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가 늘 주관적인 바람과 생각, 기호를 갖게 만들고, 진리가 네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네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고, 시련을 주고, 연단해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역할만 한다. 전형적인 마귀 사탄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차 없이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 손에서 복과 면류관, 상을 받으려 한다. 어느 정도로 다툴 수 있겠느냐? 염치없고 어처구니없는 지경이다. 만약 자신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드러나고 도태되면 그는 가슴에 한을 품고 하나님에게 악담을 퍼붓고, 리더 일꾼에게 악담을 퍼붓고, 교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증오한다. 이로써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추악한 낯짝이 완전히 드러난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2 조에 해당하는 모습은 '복받을 희망이나 지위가 없으면 물러나려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게 물러나는 것인지 간단히 얘기해 보자. 물러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자면, 사람이 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고 물러난다고 한다. 하나님

집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걸 싫어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게 달갑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교회와 형제자매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두고 물러난다고 한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의 물러남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진정으로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 집을 떠나서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제명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믿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 그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결코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물러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 집의 일원이 아닌 셈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부류는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 다른 부류는 교회 생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인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는 등 교회 생활과 관련 있는 이런 활동을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 부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물러난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본분 이행을 거절하는 부류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 어떤 사역을 시키고 어떤 본분을 시키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심지어 말을 전하도록 시킬 때도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일도 그는 하려 하지 않는다. 이방인을 찾아 도와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그가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본분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형제자매가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온갖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이것이 바로 본분 이행을 거절하는 부류이다. 이 부류 역시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물러났다. 이렇게 물러난 것은 하나님 집에서 그를 제거하거나 제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에게 이미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이미 물러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왕래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더더욱 아니다. 또한 네가 본분 이행을 거절하고 피조물이 다해야 할 소임도 다하지 않으면 그건 더욱 심각하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이미 물러난 사람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출교하거나 제명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먼저 물러난 것이고, 먼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떡으로 배만 불리려 하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임을 완전히 드러낸다.

2020 년 10 월 17 일

제 13 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통제한다

1.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13 조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통제한다'에 대해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보면, 전부 진리를 싫어하고, 흉악하며,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성품 및 본질과 관련이 있다. 제 13 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통제한다'는 말에서 적그리스도가 야심은 물론이요, 탐욕까지 지니고 있으며, 마음속에 요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요구가 정당하겠느냐?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긍정적이겠느냐? '통제'라는 단어만 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통제가 잘못된 것이겠느냐? 너희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지 않으냐? (싫습니다.) 싫어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이고 본질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는 부정적인 사물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고 하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구체적인 방법, 행위, 언어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상 관점, 속셈, 동기도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정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겉모습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우러름을 받고,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사람들 마음에 그의 지위가 생기게 해서 그를 우러러보게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이 결과의 성질은 남을 미혹하는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 주관적 의도는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작은 선심을 써서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뽐내어 다른 사람에게 우러름과 앙모를 받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슬리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목적이다.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척합니다. 책망과 훈계가 닥쳐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식한 척, 순종하는 척하여 남들 눈에는 그가 매우 열심히 추구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은 사람으로 위장해 남들에게 우러름과 앙망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목적이다. 적그리스도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매우 영적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사실 그는 어떠한 인식도 없으면서 영적인 사람의 겉모습으로 가장해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앙망을 받으려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 한다. 또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뽐내고 내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진리를 깨달았고 분량이 있다고 여겨,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하지요. 그렇게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글귀와 도리를 말한다'라는 말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말한 것이 글귀와 도리인지 모른다. 그는 그것이 실제이고, 높은 이론이자 설교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만약 글귀와 도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원칙을 어기고,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며, 겉으로만 그럴듯한 영적 이론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사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과 상부의 연락을 차단하고,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독립 왕국을 세워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 또한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사로잡아 실제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신뢰를 얻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는 목적은 상부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실제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하여 상부와 형제자매의 신뢰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형제자매들이 자기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언뜻 올바른 것 같은 규례를 제정해 지키게 합니다. 이로써 진리를 대체하고, 그런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리 실행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 마음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는 각종 규정과 규례를 만들어 진리 원칙을 대신하고, 영적인 척, 진리를 깨달은 척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여 사람들 마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그가 만든 각종 규정이 교회 생활과 사람의 본분 이행에 도움이 된다면, 또 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회 내 다양한 부류 사람들에게 진리를 교제하는 한편, 행정 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 제도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것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각종 규정이 진리 원칙처럼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각종 규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해 보아라. 어떻게 말해야 적절하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정을 만들어 영적인 척, 진리를 깨달은 척하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적절하다. 또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허풍을 떨어 자신의 뛰어남과 견해를 드러냄으로써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모두가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일에 대해 다시 이론을 내세우며 모두의 제안을 부인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보다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들 무슨 일에서든 진리를 교제하거나 진리 원칙을 구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번지르르한 말로 다른 사람의 제안을 부정하고 자기를 뽐내며, 남들이 자기를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사람을 통제하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해서는 예전에 적잖이 교제한 바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는 수법, 모습,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며, 관점으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한다. 요컨대,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단순히 털어놓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을 미혹해 남들에게 우러름과 숭배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의 표면적 언행은 모두 거짓 이미지이다. 전부 좋은 행위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따져 보면 그런 행동의 이면에 있는 속셈과 목적은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전부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성과 진리를 싫어하는,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는 비열하고 떳떳하지 못한 갖가지 수법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는 그의 사악한 본성의 특징이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늘 남을 통제하고, 우롱하고, 조종하려 할 뿐이다. 그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그의 지배를 받기를, 사람들 마음속에 그의 지위가 있기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기를, 어떤 일이 닥치면 그를 앙망하기를, 그의 말과 관점에 영향받고 제약받기를, 또 그의 뜻대로 지배와 통제를 받기를 원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함 아니겠느냐? 마치 호랑이한테 목이 물려 있는 것과 같다. 숨을 쉬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시뻘건 아가리에 단단히 꽉 물려 통제된 채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 못하며, 놔 달라고 애원해도 불가능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성품이다. 네가 그에게 "사람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안 할 순 없나요? 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나요?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는 없나요?"라고 상의한다면, 그가 동의하겠느냐? 너의 선한 행동이나 네가 깨달은 진리로 그를 말릴 수 있겠느냐? 그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으로 볼 때, 그의 사상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남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그의 욕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사람은 그를 바꿀 수 없고, 그와 협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흉악하다고 한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네가 좋은 행동으로 그를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인 실제 체험으로 그를 돕고 붙들어 주면, 그가 변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설령 실패하고 좌절하는 체험을 하더라도, 심지어 질병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지위를 추구하는 그의 욕망이 변하지 않아 어디에 가든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장소를 바꾸고, 무리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나이가 들면 약간이라도 변할 수 있겠느냐? 권력과 권세에 대한 추구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좀 담담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의 그런 성품은 변하지 못합니다.) 흉악한 성품이 내면에서 지배하고 통제하기에 그는 변하지 못한다. 보아하니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을 일부 사람들이 겪거나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근거가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주관적으로는 그가 내려놓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말해 보아라. 출교당한 후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내지 않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사라진 적그리스도가 있겠느냐? 그가 환경과 지리적 위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갖고 발언권, 결정권,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때, 다양한 수법과 방식을 이용해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 거짓 이미지를 보여 준다. 심지어 여러 수법과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패괴 성품과 인품을 숨김으로써 진리를 싫어하는 본질과 적그리스도 본질을 남들이 분별하거나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척, 완벽한 사람인 척, 결점이나 흠이 없고 패괴 성품이 전혀 없는 사람인 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를 우러러보고 앙망하고 부러워하고 숭배하게 하며, 나아가 그에게 의존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한 것은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 결과이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모습을 교제할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 측면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 주제에 관해 이미 많이 교제하였다. 오늘은 더 이상 이 주제에 관해 교제하지 않겠다.

2.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재정을 통제한다

오늘 교제의 핵심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며 권력을 향한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치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교회 재정에도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욕망은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특히나 좋아하여 재정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애정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재정을 통제한다'라고 정의한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둘 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분명 이는 떳떳한 일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그런 야심과 욕망만으로도 충분히 역겹고 떳떳하지 못한데, 여기에 교회 재정마저 통제하려 하다니,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또 다른 한층 더 경멸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비해 분별하기 쉽지 않으냐?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과 성품을 분별해 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은밀하고 괴이하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견해와 수단 또는 사탄의 간계를 그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이라면 이 경우는 분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방법들은 너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눈과 귀로 이런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을 때, 너희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분별해 낼 수 있겠느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제물을 보관하는지 그가 알아보는 경우처럼요.) 이 경우는 분별하기 쉽다. 재정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탐욕이나 재정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지, 보통 사람은 알아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제해 보자.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한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예전에 봤었던 교회 재물을 사취하거나 건드렸던 사례 아니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나이가 어려 이런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일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자세히 교제하여 교회 재정과 관련된 문제와 규칙, 그리고 일부 금기에 대해 알려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교회 재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욕심도 없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비교적 민감한 주제이니, 제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째서 옳지 않으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 교제하는 이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점에서 봐도, 너희 모든 사람이 이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히 이해할 가치가 있다. 이 일을 빌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분석하려면, 우선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서 교회의 재물이란 대체 무엇인지, 이런 재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들이 이런 재물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나누는지를 교제해야 한다. 우선, 교회의 형제자매가 봉헌한 금전이나 각종 물품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인품을 보면 탐욕이 있다. 그것도 지극히 탐욕스러워서 이런 재물을 무시하지 않으며 매우 관심이 많다. 교회의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사한다. 교회 재정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먼저 깊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문의하고 알아봐 최대한 이런 정보를 얻으려 한다. 만약 그에게 탐욕과 의도하는 바가 없다면,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관심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재물들을 점유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첫 번째 모습은 교회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1) 교회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

적그리스도는 일단 지위가 생기면, 마음속 깊은 곳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것은 바로 리더가 되면 교회 재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통제하려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교회의 재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가 이 교회의 책임자로 있는 한, 그가 담당하는 형제자매가 봉헌한 재물은 그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점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생각임이 분명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바로 재정에 공을 들이고 기웃거리는 것이다. 우선 그는 누가 재정을 관리하는지, 몇 사람이 관리하는지, 현재 장부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오른팔인지, 자신의 심복인지 알아본다. 아니라면, 서둘러 이유를 대고 교체한 다음 자신의 심복으로 바꾼다. 그가 그저 재무 관리 인원을 바꾼 것으로 끝내겠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의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교회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꿰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봉헌하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 적그리스도는 이런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 옷을 살 때도 교회 돈을 가져가고, 병원에 갈 때도 교회 돈을 가져간다. 옷이 부족하면 형제자매가 기부한

좋은 옷을 몇 벌 고른다. 고른 다음에도 성에 차지 않아서 모든 옷을 한 번씩 입어 보고는 제일 좋은 옷은 자기 몫으로 남기고 제일 형편없는 옷들은 필요 없으니 교회 몫으로 돌린다. 요컨대, 자신의 식비와 생활비, 심지어 0.2 위안 차비마저 교회 돈을 사용한다. 더 심한 경우 어떤 적그리스도는 교회 돈으로 사치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각종 개인 용품을 사기도 한다. 적그리스도는 리더가 되면 사역은 아직 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 재물을 누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또 매우 적극적이다. 교회 재물을 누린 후, 그의 전반적인 정신적 면모와 삶의 질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한다. 한가할 때는 머리를 하고, 마사지를 받고, 관리를 받고, 보양식을 먹으며, 심지어 각종 전자 제품 사양도 더 좋아진다. 적그리스도는 취임하자마자 교회 내의 부자와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기록해 두니, 이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자주 헌금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의 살아 있는 보배이자 적그리스도의 총아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포도원에는 재앙이다. 여우는 잘 여문 포도를 다 먹어 치울 뿐 아니라 포도원을 다 망쳐 놓는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는 형제자매가 봉헌한 것이면 돈이든 물건이든 제물이라는 대명사로 통칭되는 이런 것이 모두 교회의 '공공' 재물이다. 이 공공 재물은 모두가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봉헌하고 모두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용권이 실제로는 리더에게 있다는 뜻이다.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교회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리더이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것이든, 특히 좋은 것은 모두 그에게 귀속되고 그의 권력 아래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는 '형제자매가 재물을 봉헌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겠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이 제물들을 나눠 쓰시기라도 하겠어? 그렇다면 이 제물들을 어떻게 소모하고, 분배하고, 사용하는지는 역시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재물에 대해 이런 뻔뻔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더 뻔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에서 봉헌한 이런 재물들을 누리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물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리더가 대신 소비하고,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의 봉헌을 당연하게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여기고, 누가 무엇을 언제 봉헌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그가 알아야 하고 그를 통해야 한다. 그는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외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교회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에게는 리더가 가치 있는 자리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는데, 여기에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봉헌한 제물을 누가 사용하고 점유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언급한 적이 있더냐? 교회의 리더 일꾼, 사도, 선지자에게 교회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있더냐? 리더가 되면 교회 재물을 사용하고 점유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째서 이런 착각을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중에 교회의 재물에 대한 이런 명문 규정이 없는데, 어째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재물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빈말에 불과하며,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아닐 때, 교회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겠느냐? (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리더가 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설마 그가 리더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물을 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의 사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의 본성이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냐? (아닙니다.) 이는 인품의 한 가지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면 분석해 보자. 적그리스도에게 내재된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사악함과 흉악함입니다.) 흉악함이 먼저이고, 사악함은 그다음이다. 흉악함이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바로 원래 그가 지니고 있지 말아야 하는 것, 그에게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제로 점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흉악한 성품이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마귀 사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놓고 다투는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쟁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제물도 쟁탈한다. 표면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탐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재물마저 강점하고 집어삼키려 하니, 본질이 흉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네가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새 누빔 재킷을 샀는데, 누가 보더니 "제 것보다 좋네요. 제 건 낡아서 다 헤졌고 디자인도 구식인데, 당신 것은 어쩜 이렇게 좋은가요?"라고 하면서 강제로 네가 입고 있는 누빔 재킷을 벗겨 내고 자신의 낡은 누빔 재킷을 너에게 준다. 너는 반대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가 너를 혼내고,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데, 반항할 수 있겠느냐? 반항하지 못한다. 네가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이 너의 물건을 점유해 버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흉악한 성품이다. 교회 재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경우와 다른 점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관리'가 되어 교회 재물을 장악하면, 교회 재물은 그의 소유가 된다. 누가 무엇을 봉헌하든 모두 강점해 버린다. 강점이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런 교회 재물들을 교회 규정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고 분배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제한 후에는 그 한 사람만이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꾼이 필요로 해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사용하며, 교회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한다. 너는 그가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그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교회 헌금이 많지 않은데 그가 혼자 점유해 다 써 버려서 교회 사역에 쓸 돈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교회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 재물들을 자신이 번 것인 양 혼자 쓸 생각만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있는 곳이 괜찮네.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어. 교회 규정이나 원칙에 따를 필요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 리더가 되고서 드디어 돈 걱정 없는 삶을

누리게 되었어. 돈을 쓰고 싶을 때 말만 하면 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제멋대로 하며,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을 하든 교회 원칙과 사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재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원칙이 없다. 설마 그가 원칙을 모르겠느냐? 아니다. 그는 교회 재물의 분배 원칙과 사용 원칙을 훤히 알고 있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위가 없을 때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도 일단 리더가 되면 완전 때깔이 달라진다. 먹고, 입고,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어 평범한 음식은 먹지 않고, 옷에도 품질과 브랜드를 따져 가며 무엇이든 고급을 쓰려고 한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되면 마치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모두 자기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먼저 가져와야 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리더가 되면 교회 재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다. 게다가 너무 심해서 역겨울 정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인품은 어떠하냐? 리더가 되고 나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제물을 점유하려 하며, 우선적으로 제물을 사용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토적, 악질 불량배, 토호만이 이런 짓들을 한다.

어떤 리더가 이런 짓을 했는데, 너희는 그가 한 짓이 어떤지 분별하고, 다 같이 분석해 보아라. 어느 날 내가 한방 건강보조식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누구한테 사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디에서 보낸 거지? 누가 구매한 걸까? 어째서 내가 모르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 리더가 상부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구입한 것이었다. 그는 상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제자매들은 그의 말을 듣고 "상부에서 구입한다는데 뭐 어려울 게 없죠. 교회 돈으로 사야죠. 상부에서 사는 건 뭐든 괜찮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요. 저희는 이견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누구의 돈을 쓴 것이냐? (하나님의 제물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쓰는데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인심을 쓰는 것이냐? 상부의 허가를 받았느냐? 그는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구입했다. 구입할 때 '상부에서 필요할까? 이걸 사는 게 맞나? 얼마나 사야 할까? 상부에서 이 돈을 쓰도록 허락할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바로 물건을 구입했다. 사람의 이런 후한 인심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느냐? 이게 무슨 의리이겠느냐?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께 물건을 사 드리고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어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물건을 사들여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 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바로 "제가 당신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런 능력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일도 할 줄 아는 걸 모르셨죠? 어때요? 깜짝 놀라셨나요? 기분 좋으세요? 위안을 받으셨나요?"라는 의미이다. 너는 누구의 돈을 썼느냐? 자신의 돈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돈을 썼다면, 하나님의 동의를 거쳤느냐? 하나님의 돈을 훔쳐 썼으면서 하나님께 깜짝 선물을 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논리이냐? 누구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이냐? (하나님 집의 돈입니다.) 하나님 집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제물로 인심을

쓰는 것이다.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이런 일을 들으면 너희는 역겹다고 느끼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득의양양해한다. 물건을 건네준 후 그는 고민한다. '왜 답이 없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어째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그 물건을 써 보니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에 좀 더 살까요?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으로 저를 중용하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한 게 도대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제가 당신 돈으로 당신을 위해 일을 했는데, 이런 사랑은 어떤가요? 기쁜가요? 말 좀 해 봐요. 왜 답이 없는 거죠?' 내가 그에게 답을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어째서이냐? 이 일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내 마음은 줄곧 이 일로 역겨움을 느끼며, 그가 산 물건만 봐도 역겨워진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역겨운 게 당연하지 않으냐? 이 일은 분석할 가치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이냐? 충성심이냐?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모두 아닙니다.) 이것은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 돈으로 당신에게 좋은 물건을 사 주어 응답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 나를 각별히 총애하게 할 겁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는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들통이 났다.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첫째, 이 일은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나는 그에게 이 일을 시키라고 전달한 적이 없다. 둘째, 만약 그가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 했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관련 사항들을 물어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지, 어떤 등급의 것을 사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가 물어보지 않은 것은 어떤 성질이냐? 작게 보면 똑똑한 체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횡포다! 내가 너에게 그 물건을 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냐? 네가 스스로 기분 상할 짓을 사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이 일을 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분석한, 재물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견해이다. 그는 자신이 그 교회의 리더이니 교회의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께 봉헌한 제물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제물을 사용하고 점유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 교회에서 그는 왕권을 잡고 토호가 되었다. "무엇을 사든 당신에게 알릴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인간이냐?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뻔뻔하다. 지위가 주어지고 리더가 되면, 그는 왕이 되려 하고 교회의 재물을 강점하려 한다. 교회의 이런 재물을 자기 혼자 결정하니 자신에게 점유권과 사용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나에게 물건을 사 주고, 또 어떤 물건을 사는지도 전부 그가 결정한다. 네가 나에게 사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무슨 물건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가 간섭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느냐? 이는 천사장이고, 지위가 주어지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을 한 사람은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느냐? 첫 번째 잘못은 바로 교회의 재물을 자신의 사유 재산인 양 분배한 것이다. 두 번째 잘못은 바로 그가 내 물건을

사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다. 세 번째 잘못은 그가 결정한 후 상부에 알리지도, 구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 몇 가지 잘못은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적그리스도는 현지에서 경영을 잘해서 그가 말만 하면 노예들이 고분고분 일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큰 돈으로 이 물건을 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요?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적합한가요? 대체 누가 허락한 건가요?"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 노예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책임감이 있느냐? 충성심이 있느냐? 그들은 충성심이 없으니 도태되어 마땅하다. 이는 제물을 제멋대로 원칙 없이 사용한 선례이다.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물건을 사면서 내 동의를 거치지 않다니, 이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이들이 한 짓이 화가 날 일이 아닌지 들어 보아라.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내가 앉은 의자의 쿠션이 너무 푹신해 앉으면 푹 꺼져 높이가 좀 낮다. 그런데 탁자는 높아서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야 한다.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약간 높고, 너무 푹신하지 않은 의자를 사라고 했다. 이는 쉬운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지금 내가 쓰는 의자의 높이를 잰 다음, 그 의자보다 2 인치 이상 높은 의자를 찾은 후에, 의자의 쿠션이 얼마나 푹신한지를 살펴보고 지금보다 딱딱한 의자를 찾으면 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다가 적당한 것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찾으면 된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으냐?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느냐?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기에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얼마 후 예배에 나가 그들에게 샀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알아봤는데 딱히 적당한 게 없었습니다. 또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요."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덜컹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은 생활용품이 매우 다양하고 등급별로 다 있어서 의자 하나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자, 사는 사람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원하시는 사이즈로는 나온 게 없어요. 당분간 그냥 쓰시죠."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지 뭐. 안 사면 돈 굳고 좋잖아. 우선은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내가 다른 곳에 갔는데 그곳에 좋은 의자가 몇 개 있었고 앉아 보니 쿠션도 적당했다. 딱 봐도 고풍스럽고 품질이 좋은 의자였다. 나는 사진을 찍어 그들에게 이런 디자인으로 아무 색깔이나 사라고, 만약 매장에 없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했다. 또 사무용품을 파는 곳에 가서 찾아보라고 콕 찍어 줬다. 나중에 그들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모두 그건 옛날 디자인이라 요즘은 안 나온다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들의 일 처리 능력이 너무나 모자라 정말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을 맡겼는데 두 번 모두 구입하지 못했다면서 거절해 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더 알아보라고, 다른 온라인 상점에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기다리는 사이에 나는 교회 창고에서 의자를 하나 발견했다. 분홍색 꽃무늬로 싼 메모리폼 방석이 있는 의자였다. 아직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선으로 곧게 뻗는 등받이, 팔걸이, 다리, 좌면 등 모든 부분이 다 직선이고 각이 져 있었다. 내가 이거 만든 의자이냐고 하자, 어떤 사람이 얼른 나서서 대답했다. "의자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마침 앉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라고 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래 한번 앉아 보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 앉아 봤더니 심하게 배기고

메모리폼이 지나치게 딱딱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덧붙였다. "괜찮습니다. 좀 더 푹신하게 할 수 있어요. 아직 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앉아 보세요." 뭘 또 앉아 보라는 것이냐? 걸상에 앉아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최소한 배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관두어라."라며 계속 찾아보라고 했다.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재료, 디자인, 치수를 정해서 맞춤 의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배긴다고 하고 딱딱하다고 하다니, 어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만들어 주는 대로 앉으면 되는데, 굳이 사려고 하시네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은 없다고요. 그런데도 기어이 사 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돈을 써야 하잖아요? 절약 좀 하면 안 되나요? 만들면 얼마나 경제적인데요. 재료는 몇 푼 안 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지 말고 되도록 만들어야죠. 어쩜 그렇게 아낄 줄을 모르시나요?'라고 말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그 의자를 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안 쓰는 게 낫겠느냐?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그 의자를 안 쓰자 그는 의자를 그곳에 방치하였고, 그들 역시 아무도 그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그 의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딱딱한 소파의자에는 앉아 본 적이 없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나중에 어찌 된 영문인지 정말로 의자를 사 왔으니,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물건을 사 달라고 요구한 경우였다. 게다가 내 입으로 직접 그들에게 말했는데, 일 처리가 매우 역겨웠다. 의자 하나 사는 데도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었다. 그들을 통해야 했고, 그들과 상의해야 했으며, 또 남들 눈치를 봐야 했다. 기분이 좋으면 사 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사 주니 사용할 수가 없다. "좋은 의자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도 아직 그런 의자는 못 써 봤어요. 좋은 것만 바라시는군요. 그냥 목수가 만든 의자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의자를 쓰게 되면 그때 쓰세요." 사람은 이런 존재 아니겠느냐?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인격이 저열한 사람 아니겠느냐? 제물을 사용해 물건을 사라는 것이고, 그저 그들의 손과 눈을 좀 움직이면 될 일인데, 그런 일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번거롭다. 만약 그들에게 본인 돈을 쓰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처음에 누구의 돈을 쓰라고 말하지 않아서, 본인의 돈을 쓰라는 줄 알고 놀라서 사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 내가 너에게 물건을 사라고 시킬 때 네 돈을 쓰라고 하겠느냐? 교회에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는 것이지 네 돈을 사용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게 어째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이냐? 사람에게 인성이 없다! 일을 해 보지 않고, 함께 지내보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을 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 따위는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

제물 관련 주제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어떤 곳에 작은 주방이 있었는데, 취사도구, 그릇, 수저를 다 같이 사용하는 바람에 겨울에 간혹 독감에 걸리고는 했다. 그래서 내가 소독기나 오존기를 구입해 취사도구, 공용 그릇과 수저를 전부 소독하라고, 그래야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이냐?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존기를 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마음을 놓았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겼다. 속아서 오존기가 아니라 건조기를 사 온 거였다. 게다가 품질도 너무 나빠 소독 효과도 없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알지 않았겠느냐?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머저리는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어째서이냐? 내가 일을 맡긴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개상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체 어떤 물건을 사 왔는지, 품질은 어떤지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일 처리는 어떠하냐? 제대로 한 것이겠느냐? 그 사람이 신용이 있겠느냐? 믿을 가치가 있겠느냐?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격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이며, 진짜 머저리이다. 그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곧이어, 일을 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오존기로 소독하는 거 좋네.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도 오존기를 사야 하지 않을까? 너희가 사면 우리도 사야지. 너희는 주방이 작아 작은 걸 사지만, 우린 식당이 크니까 큰 걸 사야 해.' 그런 생각이 들자, 머저리 몇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결정해 버렸다. 그 결과 오존기를 사 왔는데, 형제자매들은 다들 각자의 그릇과 수저를 사용한다고, 그릇을 함께 쓰지도 않는다고, 소독할 필요 없다고, 소독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 기계는 방치되었고, 지금까지 포장도 채 뜯지 않은 제품들이 창고에 남아 있다. 이러한 일 처리는 어떠하냐? 이성이 있는 것이겠느냐?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함부로 돈을 낭비한 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상부에서 이걸 사라고 했다고 생각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필요 없는 물건도 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큰돈을 아낌없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잘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 알았다. 그 물건들은 그 머저리들끼리 몰래 의논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다. 그저 그렇게 제물을 낭비했을 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다. 어떤 물건이 구입하기에 적당한지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구입한 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 물건을 구입한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그 주방에 소독기를 사 주라고 시켰다. 내가 모든 식당에 다 사 주라고 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든 식당에 사 준 그의 의도는 무엇이겠느냐? 제물을 자기 사유재산처럼 여겨 자기가 분배하고 싶은 대로 한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 기계를 사기 전, 그는 나에게 "작은 주방용으로 하나 샀는데, 그럼 큰 식당용으로도 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묻지도 않았다. 구입한 후에도 오존기 몇 대를 샀는지, 전부 얼마를 썼는지 보고하지 않았고, 게다가 형제자매들이 쓰지 않는데도 내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렇게 역겹게 처리되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책망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교회에서 출교해야 합니다.) 이 일의 성질로 볼 때, 그를 출교하는 게 가혹한 처사는 아니다. 이 일이 제물과 관련이 있고, 제물과 관련이 있으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함부로 한 것이다! 너는 그 돈이 너의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사용하고 낭비할 권리가 있느냐? 그들은 내가 물건을 구매하라고 맡긴 일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까다롭게 따졌다. 그래서 일 처리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그들과 상의도 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맡기지 않은 일이나 사라고 하지도 않은 물건은 그들이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사 버렸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다수의 사람에게 그 물건이 실용적일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낭비했다. 얼마 전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식량이 부족할까 봐 반년이나 일 년 치 양식을 구입해 두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3 일 만에 구매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유기농과 전환기 유기농 식량을 샀다는 것이다. 이런 일 처리는 어떠하냐? 깔끔하지 않으냐? 내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일을 끝냈다. 그들은 자기 일은 시원시원하게 했다. 무척이나 능숙하고 신속했으며, 머리가 좋고 주도면밀해 보였다.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도 샀으니 말이다. 그 생필품은 없는 게 없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 왔으며, 심지어 사탕과 견과류와 같은 주전부리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살림할 줄 아네. 돈 쓸 줄도 알고, 과감히 쓰기도 하네. 능력이 있고, 야생동물보다 더 강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동이 빠르네. 살아남기 위해 산과 바다도 옮길 수 있으니, 너희가 못 할 것은 없구나." 그 일을 통해 나는 그들이 생각이 없거나 일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 무척 적극적이고, 똑똑하며, 움직임도 빠르고, 효율이 높아서 내가 재촉하거나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항상 원칙을 찾지 못했고 실수가 생겼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집의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일단 그들의 성품과 본질이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확연히 다른 일 처리 태도를 통해 그들의 저열한 인격이 드러났다. 어느 정도로 저열했느냐? 내가 정의를 내려 주겠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다! 이 정의가 적당하지 않으냐? (적당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사실에 근거해 솔직하게 말한 것이지, 근거 없이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람을 쓰는 동안에는 그가 어리고, 자질이 부족하고, 기초와 분량이 없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고, 진리와 원칙을 교제해 주지만, 결국 인격이 저열한 것은 저열하고,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려 한다.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염치를 손톱만큼도 지니고 있지 않다. 하나님 집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일을 할 때, 그는 한 번도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는 함부로 돈을 썼고, 제멋대로 물건을 샀으며, 또 죄다 쓸데없는 물건들만 샀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는 진지해지기 시작해, 절약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을 견지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자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그 돈이 대체 누구의 것인지,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이는 머저리나 하는 짓 아니겠느냐?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교회에서 귀중품과 고가품을 구입할 때는 재무 부서나 동역자인 형제자매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물을 낭비하지만, 자기 돈을 쓸 때는 아끼고 따져 가며 쓰고, 하나님의 제물을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너무 가증스럽다! 너무 역겹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날 때마다 역겹다. 이런 짐승들은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데 하나님 집에 살 자격이 있겠느냐?

예전에 한 리더가 있었다. 그는 각 지역의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바친 물품들을, 귀중품을 포함해 평범한 옷과 건강보조식품 등등을 모두 자신이 '보관'했다. 명품 백을 들고, 가죽 구두를 신고,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하는 등,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사용하고 점유해 버렸다. 어느 날, 상부의 형제가 그에게 "각지의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바친 물품을 왜 가져오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는 "형제자매가 교회에 바친 거라고 했지,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교회에 준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 말의 숨겨진 의미는 바로 자신이 교회의 전권 대표이니 '당신은 그런 물건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쓰라고 준 겁니다.'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그 물건들은 나 쓰라고 준 거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닌데, 뭘 물어보나요? 당신이 물어볼 자격이 있나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느냐? (화가 납니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말해 보아라, 형제자매가 교회에 바치는 것이 교회 리더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신이 교회에 바치는 건 특정 리더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원래 그런 의도인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가 바칠 때 "이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적었을 때만 그 물건이 리더 개인의 소유물이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돈이든 물품이든 봉헌한 것은 모두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제물이라고 통칭한다. 제물이라고 불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교회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맞다. 교회 사역에 사용할 때도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교회 내에서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회 사역의 각종 지출이 포함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지출과 교회 사역의 모든 비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이러한 사용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항목 중 제물을 개인의 임금, 보수, 비용, 사례금으로 변환해도 되는 항목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물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물의 사용과 분배는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안배해야 하며, 주로 교회 사역에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누가 리더이면 제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교회 재물 사용 원칙에 따라 제물을 분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늘 제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부끄러운 짓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 돈은 리더의 것이고, 형제자매가 바친 물품도 리더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각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뻔뻔하다!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사악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비열하고 저열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주제와 일을 교제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 깨닫고 실행해야 하는 진리를 분명히 교제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들을 교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일부 진리를 항상 문자적 의미의 도리로만 이해하는 데 머물게 될 것이며 비교적 공허할 것이다. 만약 현실의 일들을 결합해 진리를 교제한다면, 사람이 쉽게 일을 꿰뚫어 보게 되고, 진리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교제하는 것이 결코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누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분명 발생했고, 게다가 마침 우리가 교제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에 그들이 살아 있는 교재가 되고, 우리가 교제하고 분석하려는 전형적인 사례 속의 인물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매우 정상적이다. 원래 진리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말, 사상, 관점, 행위

및 성품과 관계가 있다. 만약 현실 생활에서 벗어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교제하고 분석한다면, 언제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제하고 분석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람이 실행해야 할 원칙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道)를 깨닫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해도 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만약 이런 일들이 진리와 관련이 없고, 우리가 분석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없다면 나도 말하기 싫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의 성품과 본질이 우리가 교제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교제해야 한다. 교제의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품과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사람의 적그리스도 성품을 분석하는 것이다. 매번 이런 주제와 관련해 교제할 때마다 너희가 그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된 진리와 사람의 패괴 성품은 생각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너희가 어떤 일과 사람만을 기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인 견해, 차별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면, 이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거의 매번 적그리스도 본질의 다양한 모습을 교제하고 분석할 때마다 일부 사례를 전형으로 삼아 너희에게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는 무엇인지를 교제해 주었다. 만약 이렇게 교제하였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질이 너무나 부족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해 능력과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것이고, 교제한 사례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선, 교제한 사례 속에서 자신과 대조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지, 자기가 만약 지위와 권세가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자기도 그런 사상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또 그런 성품을 표출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그 밖에, 교제한 사례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기가 깨닫고 준수해야 하는 진리 원칙을 찾아야 한다. 즉, 자기가 실행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자신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고 어떻게 실행해야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분석을 통해 자신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맞춰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일의 경과와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기억했다가 다시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실행하고 진입해야 하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다면, 일이 닥쳐도 어떻게 이런 진리를 적용해 사람과 일을 꿰뚫어 보거나 자기를 인식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는 이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갓 리더로 뽑혀 각종 사역의 실제 상황을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아직 정식으로 각종 사역에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암암리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물은 누가 보관합니까? 그 명단을 보고해 주세요. 또한, 모든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주세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겠어요."라며 알아보고 다녔다. 다른

사역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들의 이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에만 흥미를 갖고 열중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는 제물에 손을 대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그가 이미 리더가 되었으니, 마땅히 교회 재물을 그에게 넘겨주어 그가 알 권리와 통제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냐? (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어째서이냐? 네가 안 준다면, 하극상 아니냐? (그에게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면 안 됩니다.) 맞다. 그에게 문제가 있으니 주면 안 된다. 너희의 대답으로 이제까지 교제한 것이 헛되지 않았으며, 너희가 이해했음이 증명되었다. 어째서 그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냐? 리더의 직책과 본분은 제물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며, 제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본분과 직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전문 인력이 제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게다가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 엄격한 규정과 원칙이 있다. 어느 누구도 제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제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할 권력은 더더욱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올바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제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려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리더이니 당연히 마음대로 제물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진리이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째서 네가 남용하느냐? 어째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네가 그럴 자격이 되느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쓰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하나님 선민이 허락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강점하고 낭비하는 것은 그의 흉악한 성품 때문이며, 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관점이지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모든 제물, 보관하는 사람의 정보, 계좌 번호, 비밀번호를 통제하고 장악하려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 실제 상황을 알고 잘 보관했다가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분배하여 사람들이 제멋대로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겠느냐? 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의 행동에서 그가 약간이라도 선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리더로 뽑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교회의 각종 사역의 효과가 어떤지, 제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 장소가 안전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계좌 번호, 비밀번호, 액수를 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다. 진정으로 제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로 뽑힌 후에 보관 장소가 안전한지, 보관하는 사람이 적합한지, 그가 믿을 만한지, 제물을 욕심내 점유하지는 않는지, 원칙에 따라 보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물의 액수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에 관해서는 보통 탐욕이 없는 자, 정인군자는 모두 회피할 것이다. 반면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를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리더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다 인수인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역은 다 인수인계했는데, 제물은 왜 안 하는 거죠?"라는 명목하에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명목으로 교회의 재정을 통제하려 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가 정당하게 사역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와 원칙에 따라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재정에 딴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정상 인성의 사고를 갖춘 사람이라면 모두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리더가 그런 일을 하자 누군가가 보고해 제지했다. 그런 다음 나에게

보고하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옳은지를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니 리더에게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재물을 먼저 통제하려 하다니, 큰 붉은 용을 닮지 않았느냐? 큰 붉은 용이 형제자매를 잡아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짓은 일단은 때리지 않는 것이다. 때려서 네가 멍청해지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까 봐, 교회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후에야 교회 리더가 누구인지를 물어본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함이다. 그 리더의 행동은 큰 붉은 용의 행동과 성질이 동일하다. 다른 사역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일에도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오직 재정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이상하지 않으냐? 이상한 사람의 행동은 너무 티가 난다! 지위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돈을 손에 넣으려 하다니,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분별해 내 그는 빠르게 교체되었다. 이렇게 티 나게 행동하는 부류의 경우,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품, 인성, 학력, 가정 환경, 하나님을 믿은 기간, 기초가 있는지, 생명 체험이 어떤지와 같은 다른 것을 분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 일 한 가지만으로도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너희가 연합해 그를 파면하고 교체해라. 그의 인도는 필요 없다. 어째서이냐? 만약 그에게 인도하라고 하면, 교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물 쓰듯 다 써 버리고 점유해 버려 교회 사역이 마비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돈만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자, 늘 돈에 눈독을 들이는 자, 탐욕이 있는 자들을 만났을 경우, 만약 조짐이 보이기 전에 다들 얼떨결에 그를 뽑았다면, 그에게 은사와 사역 능력이 좀 있어서 모두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리더가 되고 나서 그저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길 생각만 한다면 빨리 그를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 분명 옳은 일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된다. 리더가 하루 없다고 해서 교회가 해체되지는 않는다.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을 믿지, 어떤 리더를 믿는 것이 아니다. 말해 보아라, 형제자매가 잘못 볼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가 리더가 아닐 때는 그의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잇속을 차리지 않았으며, 무슨 물건을 사도 자기가 돈을 냈고, 남에게 베풀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더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교회 재정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은 이런 사악한 기운을 제압하지 못한다.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하루 만에 변한 것이겠느냐? 그는 원래 그런 작자였다. 단지 예전에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다가 지금은 그런 환경에 따라 드러난 것뿐이다. 사람이 드러났는데, 뭐 하러 예의를 차리느냐? 최대한 멀리 꺼지게 걷어차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있습니다.) 항상 교회 재물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잘 꿰뚫어 볼 수 없으면 뽑지 마라. 만약 일시적인 우매함으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뽑았는데 그가 재물을 탐하는 유다임을 발견했다면, 빨리 쫓아내 제명해야 한다. 예의를 차리거나 망설이지 마라. "그가 탐욕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며칠도 안 돼서 그의 귀신 같은 몰골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교제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을 그가 조금씩 표출해

낼 것인데, 그제야 그를 교체한다면 늦지 않겠느냐? 교회 사역이 이미 손해를 입었다. 내 말을 못 믿고 망설인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 울지나 마라. 먼저 사람이 제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전에 교제한 것들은 모두 태도, 표출, 관점, 말,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을 변별해야 했고, 그의 성품을 통해 그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 오직 이 방법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직접적이며, 간단하고, 수월하다. 그에게 이런 모습만 있다면, 항상 우선적 혹은 강제적으로 제물을 점유하려 한다면 그가 확실히 적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교체되어 형제자매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제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교제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 재정을 통제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다. 점유와 사용, 이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물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하는 행동 방식이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대체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제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항목에서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치는 것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2)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친다

(1) 제물을 낭비하다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되면 제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권력이 생기면 그는 제물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겠느냐? 교회의 규정과 교회 사역에 필요로 하는 원칙에 따라 분배하고 사용하겠느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일이 아주 많다. 지위가 생긴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 일부 사역은 교회 재물의 사용 및 분배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 재물의 분배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갖고 있겠느냐? 근검절약하는 것이겠느냐? 알뜰하게 따져 가며 쓰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겠느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 집을 위해 고려하겠느냐? 아니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도 그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돈 들여 차를 타고, 항상 차를 타거나 렌트해서 다니면 또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느껴 하나님 집의 돈으로 차를 사려 한다. 차를 살 때도 저렴하고 성능이 평범한 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성능이 좋고 많은 부분이 원래 그대로 수입된 명품 차만 고르는데, 차 한 대 가격이 백만 위안이 넘는다. 그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집에서 돈을 내요. 하나님 집의 돈은 모두의 돈이니, 다 같이 모아 차 한 대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이 얼마나 큰데요. 우주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집에서 차 한 대 사는 게 뭐라도 되나요? 사탄의 세계에서 남들은 수백만 위안짜리 차를 모는데, 우리 교회가 백만 위안짜리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절약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공용이잖아요."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로 백만 위안 넘게 써 버렸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차를 사고는

누리기 시작했다. 걸어가야 하는 곳도 걸어가지 않았고, 자전거로 가야 하는 곳도 자전거를 타지 않았으며, 차를 렌트해 갈 수 있는 곳이어도 렌트하지 않고 꼭 자가용을 타야 했다. 마치 그가 뭐 얼마나 큰 사역이라도 하는 양 허세가 심해졌다. 적그리스도는 돈을 뭉텅뭉텅 함부로 쓴다. 뭐든지 좋은 제품, 고급 제품, 첨단 제품을 산다. 일부 기기나 설비 같은 경우에 보급형과 고급형의 가격 차이가 몇만 위안이나 되는데도 그는 기어이 고급형을 사려 한다.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니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보급형이나 저가형도 돈이 없어 못 사면서 하나님 집에서 돈을 낸다고 하니 고급형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아니겠느냐? 이는 제물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제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성이 저열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적그리스도는 제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면 제물을 강점하고, 전혀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며, 뭐든지 비싼 것을 산다. 안경을 사도 비싸고,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이 차단되는, 가장 선명한 것을 산다. 컴퓨터도 고사양의 최신형을 산다. 자신이 이행하는 본분에서 사용할 수 있든 없든, 무슨 설비나 공구를 산다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늘 고급품을 사려 한다. 이는 제물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 돈이면 아껴 써야 하고 물건이 실용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집의 물건을 살 때는 실용성이나 절약은 생각하지도 않고, 유명하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 비싼 것을 골라 산다.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제물을 물 쓰듯 낭비하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의 행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상부의 형제와 함께 칫솔을 사러 상점에 갔다. 그는 상부의 형제에게는 1 위안이 넘는 칫솔을 사 주고, 자기는 15 위안이 넘는 수입 칫솔을 샀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상부의 형제와 그 평범한 형제의 지위가 다르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지위, 신분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차치하고, 상부의 형제가 그동안 힘들게 사역한 것만 따져도 그가 고급 칫솔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데, 그의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끼는 것이다. 그런 물건은 첨단 기술 제품도 아니니 그렇게 비싼 걸 사용할 가치가 없으며, 그 돈을 더 쓸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신분, 가치, 지위를 놓고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써야 하는 사람이 가장 평범한 것을 샀고, 평범한 것을 써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샀다. 이는 무슨 문제이겠느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느냐? 좋은 것을 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나님 집의 돈이라고 가장 좋고 비싼 것을 사다니,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겠느냐? 상부의 형제와 함께 물건을 살 때도 면전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가 몰래 혼자서 물건을 사면 어떻겠느냐? 얼마나 낭비하겠느냐? 그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십여 위안의 차이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됐든 그는 모두 과감히 사고 써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물을 쓰고 하나님 집의 돈을 쓰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 집을 위해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몇 번이나 잡혀가 감옥살이도 했는데, 그러니 난 마땅히 특별 대우를 누려야 해.'라고 생각한다. 너의 이런 '마땅히'가 진리이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서 감옥살이를 했거나, 고난을 겪었거나, 하나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은 마땅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제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강점하고, 제멋대로 낭비해야 한다고, 이것이 행정 법령이라고 규정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 리더 일꾼,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제물을 사용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였느냐? 바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며, 제물을 사용하고 점유할 특별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물을 어느 한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변하게 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제물의 사용과 분배에 대해 하나님은 또 낭비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낭비는 어떤 부류 사람의 행동 방식이고,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의 행동 방식이냐? 짐승, 불량배, 깡패, 건달,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열한 소인배나 하는 짓이며,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하는 짓이다. 조금이라도 인성이 있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되면, 제물과 교회의 재물을 사용할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다 사고 싶어 하고, 과감하게 다 사며, 어떤 것이든 다 얻어 내려 한다. 무엇을 사고 누리든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가격을 묻지도 않는다. 누가 싸구려나 평범한 것을 사 주면 그는 오히려 화를 내고 앙심을 품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2) 제물을 유용하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유용'이다. '유용'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쉽다. 교회의 재물을 형제자매에게 주거나 교회 사역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용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용이란 무엇이냐?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제멋대로 몰래 사용하는 겁니다.) '몰래 사용한다'라는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목적성이 약하다. 만약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의 생활비로 몰래 사용했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유용이 아니다. 유용이란 정죄되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떤 교회 리더가 교회의 돈을 통제했는데, 자기 자녀의 대학 진학 자금이 모자랐다.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벌하시려거든 저를 벌하시고, 아이는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지금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니,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대학 학비가 아직 2~3 만 위안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빌렸어도 아직 부족한데, 당신의 돈으로 아이 학비를 내도 되겠는지요?" 기도를 마친 후 마음이 매우 평온해지자 하나님이 동의했다고 생각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유용 아니겠느냐?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하나님 집의 제물 사용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유용이다. 가족이 병이 났거나 장사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할 때도 제물에 눈독을 들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하늘과 바다처럼 넓어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장사해서 돈을 벌면 두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쓰게 해 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제물을 사용했다. 친척이나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그의 수중에 돈이 있기만 하면 쓰라고 줬다.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은 더더욱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 교회의 돈을 유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유용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용이다. 몰래 유용하고는 나중에 전액 상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 제물 유용이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면죄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유용할 때 이유, 사정,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용한 것이라면, 이런 유용은 용서받을 수 있고 정죄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물 유용 죄는 매우 큰 것이다! 이는 유다와 뭐가 다르냐? 제물을 유용한 자는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아이의 대학 진학, 집안의 사업, 노인의 병 치료, 농사지을 때 비료 값, 이럴 때도 이 돈을 쓰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형제자매들의 헌금 영수증마저 없애 버리고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얼굴 한 번 붉히거나 조마조마해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예배드릴 때 형제자매가 봉헌한 돈을 받고, 예배가 끝난 후 그 돈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형제자매는 그 사람이 제물을 유용하는 걸 직접 보고도 여전히 그에게 돈을 보관하게 한다. 책임지거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들 그 사람에게 밉보일까 두려워 그가 그렇게 돈을 쓰는 걸 지켜만 본다. 그렇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겠느냐? 만약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라면,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네가 이 돈을 바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하나님 집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께 바친 이 돈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쓰고 낭비했는데도 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 또한 이를 보고하거나 제지하지도 않았다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가 그의 죄에 동참하였으니, 그가 정죄되면 너 역시 피할 수 없다.

(3) 제물을 외부로 빌려주다

제물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제물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모두 행정 법령과 관계되며, 모두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성질인 것이다. 교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의 재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냥 묵혀 두는 거야. 지금 은행에 있는 채권,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이율도 괜찮은데, 교회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면 하나님 집에 유리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교회 어느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빌려준다. 빌려준 목적이 무엇이냐? 좋게 말하면 하나님 집을 생각해 하나님 집에 이자를 벌어 준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에게는 사심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빌려준 다음, 나중에 원금만 하나님 집에 돌려주고 이자는 자기가 꿀꺽하려는 심산이다. 이것은 딴마음이 생긴 것 아니냐? 이를 두고 외부로 빌려주는 것이라 한다. 외부로 빌려주는 것이 제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집에는 인정이 있으니, 가끔 형제자매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제물을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에게 호소하고 선동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 좀 빌려주는 게 대수인가요?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그들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다수의 우매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냥 빌려주죠. 어쨌든 모두의 돈이니 모두가 한 사람을 도운 셈 치면 되죠." 한 사람의 그럴싸한 말에 너도나도 장단을 맞추더니, 결국 돈을 외부로 빌려준다. 그렇다면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라는 네 말이 지켜졌느냐? 지켜졌다고 한다면 이 돈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이 요구한 원칙대로 사용해야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한 말이 지켜지지 않고 네가 바친 돈이 네 말처럼 되지 않는다면, 네 봉헌은 무엇이 되느냐? 아이들 장난 아니냐? 하나님을 희롱하고 속이는 것 아니냐? 너는 자신이 바치고자 하는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썩 달갑지 않고 그곳에 두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바친 것이 후회되어 일부를 되가져가거나 혹은 바칠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보니 필요해서 되가져간다면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돈이나 물건은 사람이 일단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것은 제단 위에 바친 것과 같다. 제단 위에 바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물이다. 설령 그것이 돌 한 덩이, 모래 한 알, 찐빵 하나, 물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제단 위에 놓은 이상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사람은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네가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정당한 필요라 할지라도 안 된다. 사람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좀 나눠 주는 게 어때서요? 당신께서 지금 목이 마르시지 않아 물이 필요 없는데, 목마른 내게 물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동의하는지를 봐야 한다. 하나님이 동의한다면, 하나님이 그 권리를 네게 주었음을 증명하므로 네가 사용할 권한을 얻는다. 만약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용할 권한이 없다. 사용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큰 금기를 범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껏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떤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쉽게 거스르는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 많은 사람이 늘 눈독을 들이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분배하고 싶어 한다. 사람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점유하고, 심지어 펑펑 쓰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끝이고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존엄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바로 교회의 규정과 사용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이토록 엄격하고, 상의의 여지가 없으며, 제 3 의 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는 등의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눈에 모두 적그리스도로 규정된다. 어째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마저 감히 함부로 손대고, 사용하고, 낭비한다면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것을 이런 태도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밖에 없다. 보통의 패괴된 사람도 이렇게는 하지 않으며, 동물도 이러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원수, 사탄, 큰 붉은 용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느냐? 과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의 진상이며, 전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탄의 부류가 어찌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존엄이다!

(4) 제물을 편취하다

또 일부 사람은 각종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집에 재물을 요구한다. "저희 교회에 의자가 부족하니 의자를 사 주세요. 저희 교회의 일부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애플 컴퓨터를 사죠. 사역할 때 항상 연락해야 해서 전화가 없으면 안 되니, 아이폰을 사죠. 한 대만 사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합니다. 때로는 각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해야 하는데, 회선이 하나면 감시당하기 쉬워요. 회선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4~5 대의 핸드폰과 2~3 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사역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그의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죄다 편취한 것이다. 전에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 여자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로, 하나님 집의 인테리어를 할 때, 한 남자와 짜고 교회의 돈을 편취하여 하나님 집에 매우 큰 손해를 입혔다. 그 남자는 인테리어를 할 때 이방의 작업반장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취했고, 뭐든지 고급으로 사서 예산 외의 돈을 많이 썼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 어리석은 여자가 은폐하고 속이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함께 하나님 집의 돈을 편취하다가 결국에는 탄로 나서 둘 다 출교되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자초해 생명을 망친 것이다. 울어 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이럴 줄 알았다면, 애당초 왜 그렇게 했느냐! 제물을 편취할 때 너는 어째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녀를 출교하고 돈을 상환하라고 한 것이 지나친 처사이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싸다! 이런 사람은 동정할 가치가 없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여걸은 멋대로 이방인에게 교회의 많은 돈을 빌려주어 나중에 역시 처리되었다.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돈 좀 빌려준 것뿐이잖아. 갚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제명할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신자가 되고, 나가서 일을 하다니,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냐? 너는 어째서 그녀가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녀가 한 그런 짓들은 보지 않는 것이냐? 그녀가 저지른 그런 일들만으로도 충분히 네가 평생 역겨워할 만한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겠느냐? 모두 어리석은 멍청이고 무골호인이다!

(5) 제물을 훔치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마지막 모습은 제물을 훔치는 것이다. 어떤 우매한 사람은 봉헌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원칙을 지킨답시고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헌금을 준다. 그러고는 "이번 헌금액이 매우 많으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 주세요. 장부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알게 되면 저를 숭배할 거예요. 형제자매가

알고 저를 우러러보게 되지 않도록 이 일을 은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돈을 주고 나서는 뿌듯해하며 '나의 봉헌에는 원칙이 있어. 조용하고, 냉정하며,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우매한 행동 방식 때문에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빈틈을 파고들게 되었다. 그가 헌금하자마자 적그리스도는 바로 은행에 저금해 자기 것으로 귀속시켰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음에 헌금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원칙에 부합합니다. 헌금은 조용하게 해야 해요. 하나님 집에서 헌금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조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헌금했어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얼마나 헌금했는지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더더욱 말해서는 안 되죠."라고 했다. 헌금한 그 사람은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어째서 그는 그렇게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음흉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남을 믿다가 결국에는 돈을 도둑맞았다. 이는 빈틈을 보여 적그리스도가 파고들어 돈을 훔쳐 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고들 빈틈이 없어도 사람이 여전히 돈을 훔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장부에 기재할 때 일부러 잘못 기재하거나 금액을 축소해 기재했다가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돈을 조금씩 훔쳐 내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매우 많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며, 인격이 저열하고 악독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기회가 없는 경우만 빼고 말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탐욕이 있는 자는 항상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넘볼 수 있을지, 빈틈을 노릴 수 있을지, 남의 덕을 볼 수 있을지, 몰래 쓸 수 있을지를 궁리한다.

어리석은 여인이 한 명 있었다. 언젠가 내가 교회에서 책을 인쇄하려 한다며 그녀에게 인쇄에 대해 아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이론을 이야기한 후 곧이어 말했다. "일반적으로 책 인쇄는 모두 커미션을 받아요. 만약 이방인에게 일을 맡긴다면, 분명 비리가 많을 거고, 확실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말하면서 그녀의 얼굴에 희색이 돌고, 안구도 돌출되고, 눈썹도 위로 올라가고, 얼굴도 붉어졌다. 기뻐하며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인쇄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여기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떻게 인쇄하는지, 어떤 책을 인쇄하는지, 품질은 어떤지, 인쇄소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커미션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커미션을 먼저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가난에 미쳐 버렸구나. 하나님 집에서 책을 인쇄하는데 너도 커미션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책을 주는데, 그래도 커미션을 받고 싶으냐?"라고 말했다.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아직 그녀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물어봤을 뿐인데, 커미션을 언급했다. 만약 이 일을 그녀에게 시킨다면 커미션만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전부 그녀가 훔쳐 갈 수도 있다. 그녀에게 얼마를 주든 전부 다 편취하고 훔칠 것이다. 내 말이 지나치냐? 이 어리석은 여인이 좋은 인간이겠느냐? 그녀는 여자 도적이고 불량배라 무슨 돈이나 감히 다 벌려고 한다. 네가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형제자매에게 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네가 이렇게 하면 형제자매가 동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선민이 너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라.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역겨운 사람도 있다. 그는 하나님 집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이방인과 짜고 가격을 올려 하나님 집에서 높은 가격을 내게 해 하나님 집에 손실을 입혔다. 만약 사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거나 만류했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에서 돈을 가져갔다.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나서 그가 이익을 얻었고 체면도 세웠기에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기뻐했다. 이런 것이 바로 팔이 밖으로 굽는 것이며, 제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태껏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털끝만큼도 쟁취한 적이 없다. 예전에 책 인쇄를 책임졌던 몇몇 어리석은 여인이 왜 교체되었느냐? 바로 팔이 밖으로 굽어 제멋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 어리석은 여인들은 이방인과 업무를 교섭할 때 무조건 가격을 깎았다. 남들이 역겨운 나머지 하기 싫을 정도로 원가보다 더 가격을 깎은 것이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억지로 동의하기는 했지만 품질 면에서 농간을 부렸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장사할 때 원가 이외에도 생활비와 인건비를 충분히 벌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벌지 못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가격을 협상하고, 무조건 가격을 깎은 것이다. 너는 이것이 하나님 집의 돈을 아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품질과 제본에서 농간을 부렸다. 거기에서 적자를 메꾸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 아니겠느냐? 손해를 보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네가 이익을 얻도록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네가 이익을 얻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장사가 아니라 복지 기구이다. 그 어리석은 여인들은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집의 일을 이렇게 해 버렸다. 엉망으로 해놓고는 끝까지 변명으로 가득했다. "저는 하나님 집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아낀 거죠. 한 푼이라도 아낀 거는 아낀 거죠. 두 푼을 아끼면 한 푼을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헛소리다! 영업 규정이란 게 뭔지는 아느냐? 규칙이란 게 뭔지, 합리적이라는 게 뭔지는 아느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책들은 품질이 나빠서 몇 번 펼쳐 보지도 않았는데 책장이 떨어졌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망가져 다시 인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돈을 아낀 것이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쓴 것이냐? (돈을 더 많이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여인이 저지른 엉망진창인 일이다.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대하는 일에서 원칙과 인성이 전혀 없다는 점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그가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 소유로 귀속된 물건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정말이지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는 제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우롱하고, 제멋대로 대하며, 전혀 존중하지 않고, 선을 지키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는 물건도 이렇게 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대하겠느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고, 사악함과 흉악함이 주축이 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이는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이다. 기억해라,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치는 자는 그의 다른 모습을 볼 필요도 없다. 이 몇 가지 모습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충분히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알아볼 필요 없고,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가 대체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 나중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를 관찰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원수임이 분명하다. 너희가 살펴보아라, 너희가 이미 선출한 리더이든, 아니면 선출할 예정인 리더이든, 아니면 너희가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들 중에 이런 행동과 경향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적그리스도이다.

오늘 이런 일들을 교제했는데, 너희는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진리를 하나라도 깨달았느냐? 너희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내가 말해 주겠다. 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에 눈독을 들이지 마라. 그 바친 것이 무엇이든, 값이 나가든 값어치가 없든, 네게 쓸모가 있든 없든, 귀중한 것이든 아니든 아예 눈독을 들이지 마라. 능력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벌어라. 네가 얼마를 벌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 하나님 제물에 눈독을 들이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이러한 경각심과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물을 낭비하고, 횡령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치는 사람은 모두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며, 이러한 행위와 행동을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요행심을 품지 마라.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는 규정된 것으로, 상의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유용할 때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돈을 쓸 때는 나이가 어렸고, 무지했습니다. 그때 몰래 가져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고작 20~30 위안, 30~50 위안 정도예요." 문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일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네가 손댄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은 공공의 재산이 아니며, 모두에게 속하는 것도, 교회에 속하는 것도, 하나님 집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너는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또 "나의 물건과 제물은 교회 소유이며, 교회가 분배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다. 더더욱 "나의 제물은 모두 교회의 것이고, 하나님 집의 것이다. 형제자매가 관리하며, 누구든 보고하여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였더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단 제단 위에 바쳐진 이상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하나님 소유로 귀속된다. 사람은 사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사용할 자격도, 권력도 없다. 네가 제물에 눈독을 들이고, 제물을 유용하고, 편취하고, 훔치고, 외부로 빌려주고, 낭비하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것으로 정죄되며, 적그리스도의 행위이다. 이는 성령 모독죄와 마찬가지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존엄이니, 사람은 이 일을 경시하지 마라. 네가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훔치면 아마 법적으로 1~2 년 혹은 3~5 년 형을 선고받고, 3~5 년 수감된 후에는 그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물을 사용한다면, 그 죄는 하나님에게는 무기한적인,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나는 분명 너에게 이 말을 알려 주었다. 누구든 어기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때 가서 내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오늘 여기에서 내가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이 말을 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믿든 안 믿든 네 마음대로 해라.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두고 보아라. 징벌을 받고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가슴과 등을 쳐도 다 소용이 없다.

2020 년 10 월 24 일

제 14 조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지난 예배 때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업무까지 통제하는 것에 대해 교제하였다. 주로 몇 가지 내용을 교제했느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물을 낭비하고, 유용하고, 외부로 빌려주고, 편취하고, 훔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교제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14 조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제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지 살펴보겠다.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에서 '하나님 집'과 '자기 세상'이라는 두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제집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집'이 '자기 세상'으로 바뀌면 문제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먼저 '자기 세상'이란 단어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집을 자기 세력권으로 여겨서 측근과 자기 식구들을 키워 교회를 장악합니다.) 이 역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더 있느냐? 겉으로만 봐도 이곳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권,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행사하며 독점하는 곳,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독차지하며 제재하는 곳, 적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곳이란 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해부와 폭로 면에서 많이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주된 모습은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여러 모습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교제했으니 이어서 하나님 집이 무엇인지에 관해 교제하겠다. 너희는 하나님 집에 대해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느냐? 형제자매가 모인 단체가 하나님 집이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단체와 모임을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회 리더, 집사, 각 팀의 팀장으로 이루어진 모임을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 집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교회만이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말로 하나님 집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단순한 정의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평소 이런 영적인 용어와 단어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았나 보구나. 너무나도 꼼꼼하지 못하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집일지 묵상해 보아라. 이론적으로 정의한다면 진리가 권세를 잡은 곳, 하나님 말씀을 실행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집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형제자매의 모임을 자기의 세력권,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곳,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든,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여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막힘없이 통행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경륜이 시행되고 성취되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고, 진리가 권세를 잡은 곳이지, 특정인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경영을 하여 개인의 바람, 대단한 업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되는 짓만 한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실행되며 체험되는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그는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사람들 속에서 지위나 권력,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뜻과 생각, 욕망이 사람들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에만 골몰한다. 다시 말해 그의 권력 범위 안에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이미지와 명성, 권위가 과연 어떤지 등이 그가 중점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하고 사역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이끌며 사람에게 공급하여 사람을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로써 사람이 그의 뜻을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사에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어 사람을 그의 앞으로 오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순종하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걸음마다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사람을 그의 권력 아래에 꽁꽁 묶어 둔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짓만 일삼는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구슬려 자기 권력 아래에 두고, 한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까지 그의 권력 아래 두려고 온갖 방법으로 구슬린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따라 그의 바람대로 살고, 그의 바람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며 모든 일을 해서 결국 그의 말과 그의 바람, 그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달하려는 성과에 그도 똑같이 도달하려 하는 것이다. 그가 도달하려는 성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아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권력만 생기면 그의 세력권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제하고 본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통제하려 한다. 그는 교회와 하나님 집,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전부 그가 권력을 행사하여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려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식대로 적그리스도 역시 사람을 미혹하여 그의 앞으로 오게 하려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 집, 교회를 그의 집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속셈과 본질이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과 진리를 적대시하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해부해 보자.

1.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독점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자주 교제했던 것이자 적그리스도 고유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즉, 적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지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째서 지위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겠느냐?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핵심을 잘 말해 주었다. 지위가 있어야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일을 처리하기 수월하다. 권력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욕망과 야심, 목표가 실현될 가망이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간사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바꾸려면 먼저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매우 두드러진다. 너희가 경험하고 들었거나 직접 목격한 적그리스도 중 권력을 독점하지 않은 자가 있더냐? 능글맞고 간교한 방식이 됐든, 겉으로는 부드럽고 느긋해 보이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흉악하고 매우 비열한 술수의 방식이 됐든, 혹은 난폭한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적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먼저 권력을 독점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욕망은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초월한다. 패괴 성품을 지닌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패괴 성품을 지닌 보통 사람은 단지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본인의 평판이 좋으며 대화할 때 우위를 점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권력이 없거나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다. 권력을 조금은 좋아하고 욕망하지만 적그리스도만큼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정도겠느냐? 권력이 없으면 매일 그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못하면서 불안해하며 입맛을 잃고 잠을 설친다.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보통의 패괴된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 무척 기뻐하긴 하지만 권력이 없어도 그다지 고뇌하지는 않는다. 서운한 마음이 약간 들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기에 삶을 이어 나갈 수 없다. 마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지위가 있어야만 눈부신 삶을 살 수 있고, 지위와 권력이 있어야 멋지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생각이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지위만 생기면 유난히 흥분한다. 사람들이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든다. '요즘 왜 그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을까? 어쩐 일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신수가 훤할까? 왜 저리 좋아할까?' 알아보니 그에게 지위와 권력이 생겼고, 발언권이 생겼고, 사람을 부리게 되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위신이 서게 되었고, 지지자가 생겼던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권력이 생기면 그의 정신 상태가 달라진다.

권력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욕망 측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평범하지 않다. 보통의 패괴 성품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무리에서든 갖은 방법을 다해 출중한 사람이 되려 한다. 어떻게든 자기를 연기하고 과시해서 자신의 우위와 장점을 보여 주고 남들의 주목을 받는다. 어떻게든 교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교회에서 선거가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기를 과시할 기회, 자기 바람을 실현할 기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 말이다. 그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뽑게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한다. 그는 권력을 얻고 나면 일을 처리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일 처리가 왜 수월해지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이 없으면 겉으로는 그의 야심과 욕망, 그의 본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숨기고 위장하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지위가 생겨 권력이 주어지면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수중의 권력을 확대하고 단단히 움켜쥐려 할 것이다. 권력을 단단히 움켜쥐고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적그리스도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을 독차지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오면 그때가 바로 그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자 그가 간계를 부려 크게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적그리스도는 부임과 동시에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자기와 잘 어울리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골라낸다. 반면 올곧은 사람, 자기편에 서지 않을 사람, 자기가 하나님 집의 원칙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고발할 사람과는 선을 긋는다. 이렇게 가려내고 나서 한번 살펴보고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와 관계가 좋은 친척이 많네. 다들 나와 잘 어울리고 서로 말이 통할 수 있겠어. 이들을 내 밑에 두고 쓰면 내 세력이 커지지 않겠어? 교회에서 내 입지가 공고해지지 않겠냐고? 옛말에 '인재를 추천할 땐 가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 이방인도 관직에 오르면 친지나 절친에게 도움을 받는다는데, 나도 이제 관리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겠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먼저 가족을 발탁해야겠다. 아내랑 아들딸은 말할 것도 없지. 가족부터 직무를 맡겨야겠어. 아내한텐 무슨 일을 맡기지?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직무이니 재정 권한은 꼭 내 사람 손에 맡겨야 해. 그래야 마음껏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지. 이 돈은 남의 손에 맡겨선 안 돼. 남의 손에 맡기면 결국 남의 돈이라 관리, 감독을 받으며 돈을 써야 할 테니 그러면 너무 불편해. 그렇다면 지금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마음일까?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교체해서 아내한테 재정을 맡겨야겠어.' 그가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가 말한다. "좋아요. 이제 당신이 교회 리더이니 교회 헌금도 당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지시한 사람이 관리해야죠." "그런데 당장은 기존 재무 책임자를 교체할 방법이 없어." 아내가 한번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재정을 너무 오래 맡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하면 되잖아요. 부실 채권, 수금 문제나 횡령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요. 누가 무엇을 관리하든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터지기 쉽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밑천이 생기면 누구의 말도 안 듣기 십상이죠. 또,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이도 많잖아요. 흐리멍덩해져서 깜빡하기도 쉬워요.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손실을 끼칠 거예요. 이렇게나 중요한 직무이니 교체해야죠." 그럼 교체하자는 말은 누구에게 시키느냐? 교회 리더인 그의 입에서 교체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 형제자매가 알아서 그의 아내로 교체하자고 해야 한다. 아내의 제안에 교회의 헌금이 그녀의 손에 관리되게 된다. 하지만 원칙상 한 사람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하나님 집 재물을 횡령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함께 관리할 사람으로 사촌 여동생을 추천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은

기간도 길고, 헌금도 많이 했으며, 평판도 좋아 믿을 만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두 분 모두 당신 가족이잖아요. 외부 사람으로 더 구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적그리스도는 재정의 관리와 통제를 도울 어리석은 늙은 자매를 한 명 더 추천한다. 적그리스도는 일단 재정을 자기 가족의 통제하에 두고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모든 명세 내역을 가족이 장악하게 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

적그리스도가 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재물을 통제하면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아직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책임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전부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하부 각 팀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지, 그의 권력이 말단까지 미치는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각 팀이 사역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제한다. 예를 들어 영상팀의 사역에 문제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문제는 모두 책임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책임자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큰 실수가 생기고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책임자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니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로 교체할까요? 대상자나 후보자가 있습니까? 이 팀에서 누가 사역을 가장 잘 합니까?" 다들 생각하다가 "실적이 괜찮은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뽑아선 안 되죠. 제가 한 명 추천해 드릴게요. 올해 25 살인 제 아들입니다. 전자 컴퓨터학과를 나와서 각종 특수효과, 영상을 전공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고 그다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실무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전공자가 계신가요?" 사람들이 대답한다. "전공자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해서 하나님 집의 이 사역의 원칙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이해하고 있나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죠."라는 적그리스도의 대답에 다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는 그의 말에 순순히 따르면서 누굴 발탁하든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요직을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집에서 복음 사역이 매우 중요한데 해당 책임자가 자기 사람이 아니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바꾸겠느냐? 마찬가지로 트집을 잡는 것이다. 그가 "지난번에 전한 그 복음 대상자는 요새 어떤가요?"라고 묻자 한 사람이 대답한다. "한 달 정도 믿다가 부정적인 선전을 곧이듣고는 안 믿게 되었어요." "왜 안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해 주지 않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니고요? 아니면 환경이 두려워 자기가 위험해질까 봐 분명하게 교제해 주지 않은 건 아닌가요? 시기적절하게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건 아닌가요? 그가 고충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닌가요?" 연달아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다. 그래도 그는 복음팀 책임자가 너무 많은 문제와 흠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며 강제로 교체해 버린다. 그러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말한다. "아무개 자매는 복음도 전해 봤고, 경험도 있으니 괜찮아 보입니다." 이 말에 형제자매는 "당신의 둘째 누나잖아요. 말은 잘해도 인성이 안 좋고 평판도 형편없어요. 그분에게 맡겨선 안 돼요."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동의 못 하시면 복음팀을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추천한 사람은 부팀장으로 하고 여러분이 적격자를 팀장으로 뽑아 보시던가요!" 형제자매가 한 사람을 뽑자 그는 둘째 누나를 부팀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동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야 복음팀의 명맥이 간신히 유지되는 것이다.

어디서든, 어떤 사역에 해당하든 적그리스도는 자기 측근이나 자기편 사람을 꽂아 넣으려 한다. 그가 리더를 맡고 지위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각 팀 팀원의 생명 진입 상황, 각 팀의 사역 진척 현황을 알아보거나 각 팀의 사역 중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인사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각 팀의 팀장이 누구인지, 각 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서고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의 입지에 위협이 될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일은 대단히 꼼꼼하게 파악하지만 교회 사역 상황은 전혀 알아보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내적 상태나 생명 진입 상황, 교회 생활이 어떤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는다. 반면 각 팀의 책임자가 그의 측근인지, 그와 어울릴 수 있는지, 그의 권력과 지위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파악하고 훤히 알고 있다. 그는 팀마다 올곧은 사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알랑방귀를 뀌는 사람, 부화뇌동하는 사람, 비위를 맞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 하고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발탁하고 중용할 생각에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설교를 많이 듣게 해서 그의 측근으로 키우고자 한다.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감이 있어서 과감하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고 사악한 세력, 지위, 권세에 굴하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경계하고 혐오하며 차별하고 배척한다. 반면 알랑방귀를 뀌는 자, 특히 자기 가족이나 친척 등 그의 주위를 얼쩡대는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식구로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권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그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그의 바람대로 시행한다. 이들은 모두 양심과 이성, 인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조금도 없는 불신파이다.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양성하고 보호하며 자기 식구로 여겨서 자기 권력 아래에 둔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자기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자기 세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일단 적그리스도가 우두머리, 수장이고 자기 세상에서 자신의 말이 곧 법인 절대 권력의 왕이다. 그와 육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과 직계 친족 그리고 측근, 형제들, 열성 팬, 기꺼이 그의 시중을 들며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꺼이 그와 한패가 되어 함께 나쁜 짓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집의 안배나 하나님 집 행정 법령의 규정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 진리 원칙이 어떻든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상의 구성원이다. 그들을 싸잡아 적그리스도의 도당이라 부른다. 적그리스도 세상의 이들 구성원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집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모든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최고 원칙으로 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존재하면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 무리의 교란과 미혹, 파괴로 인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교회에서 시행되지도 못하고 통행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도 없으며, 진리 원칙에 따른 일 처리는 더더욱 할 수 없다. 또한, 교회의 각 사역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된다.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그리스도에게 교란당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며 사역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 사역을 잘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몰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모든 사역이 마비되어 신경 쓰는 사람도, 관심 갖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설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도 적그리스도에 의한 화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정신을 못 차리도록 교란당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모를 것이다. 문제를 알아차리고는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사역을 주도하려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사람, 정의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는 억압한다. 어느 정도로 억압하겠느냐? 네가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용서를 빌며, 고발하거나 상부에 보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역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거론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진리를 교제하거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너를 내버려둘 것이다. 네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를 폭로한다면 그는 갖은 방법을 다해 너를 혼내거나 괴롭히고 온갖 방식으로 너를 정죄하고 억압할 것이다. 심지어 적그리스도 세상의 구성원들과 그 외에 부화뇌동하는 자, 옹졸하고 비겁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너를 버리고 억압하게 할 것이다. 결국, 믿음과 분량이 작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좋아할 것이고, 그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쥐고 나면 권력을 독점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족이나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 사역을 맡길 뿐 아니라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모아 그를 위해 죽도록 봉사하게 한다. 앞으로 지위를 잃지 않고 권력을 계속 손에 쥐려는 목적인 것이다. 그의 세상에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의 세력이 커지고 그의 권력 또한 커진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게 맞서는 사람,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감히 그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의 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수록 그는 하나님 집과 하나님에게 맞설 밑천을 갖게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집에서 그를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권력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그의 처리 방식, 그리고 그의 여러 행위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세우고 나면 그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 교회의 복음 사역이 어떻든 그가 속을 태우겠느냐? 그가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겠느냐? 그저 형식적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두세 마디 말만 건성으로 던지는 게 전부다. 그가 이리저리 둘러보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형제자매의 상황을 살피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 상황에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는 그의 세력권 안에 자기에게 반항하려는 자, 자기를 얕잡아 보는 자, 자기에게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자,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자는 없는지 직접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구축하고 나면 당당하게 왕을 자처하니,

네가 그를 맹주라고 하든, 토호라고 하든, 산적 두목이라고 하든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지위와 권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의 세력권 내, 자기 세상에서 그는 권력을 독점하며 자기 혼자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일당인 모든 사람의 숭배와 앙망, 우러름, 알랑방귀, 아부, 아첨, 심지어 모든 우월감과 특별 대우까지 누린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단지 그깟 욕망을 충족하려 이러겠느냐? 아니다. 좀 더 실질적인 잇속을 차리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모든 대우를 누리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구축하여 도당을 형성하고 나면 고대의 황제 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산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말 한마디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오늘 날씨가 좋아요. 왜 이렇게 닭고기가 당기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면 정오도 안 돼서 누군가가 암탉을 고아 온다. 점심을 먹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술을 마셔선 안 되지만 음료수 정도는 괜찮겠죠?" 모두들 두목의 말을 듣고는 재빨리 사러 간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는 게 아니냐? 그가 손만 뻗으면, 입만 열면 원하는 것을 대령해 오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말한다. "날이 쌀쌀해졌네요. 작년에 입던 울 니트에 좀이 쏠아서 구멍이 났더군요. 계속 입으면 보기 안 좋을 거 같아요. 이미지에 타격도 있을 테고요. 올해 입을 울 니트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사람이 그에게 몇 벌 사주겠다고 하니 그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고 성도의 품위에 맞게 원칙을 가지고 돈을 써야 한다고 대답한다. 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울 니트를 몇 벌 사 온다. 사 온 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일부러 시킨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한다. "누가 사 온 건가요? 이러시면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사 왔나요? 옷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단 교회 헌금으로 대신 내라고 하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상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일 뿐 그에겐 전혀 상환할 생각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원하는 모든 것을 힘 한 번 들이지 않고 누린다. 그가 이런 것을 누리면 마음에 참소를 받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가책을 느끼겠느냐? 그가 추구하고 밤낮으로 학수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편익은 사양해 봤자 사양한 의미가 없다. 사양한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못 쓰고 버려지기 때문이다. 대신 편익을 누린다면 듣기 좋은 말을 해 주고 돈을 쓴 사람이 기꺼운 마음이 들게 해서 딴생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상에서 수하의 사람으로부터 여러 특별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대복종하도록 훈련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그가 사람들에게 아침 5 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5 시 전에 전원 기상해야 한다. 늦게 일어나면 책망과 훈계를 받고 그의 눈치를 봐야 한다. 식사 시간에는 그가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앉지 못하고, 그가 젓가락을 들기 전까진 아무도 먼저 먹지 못한다. 그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가 결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가 대장이고 왕이니 그의 말이 곧 법이다. 따라서 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혼쭐이 날 것이다.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서 조금도 거스르지 못한다.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이고 자신의 본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적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하며 그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 높이 떠받든다. 만약 적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그와 다른 관점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떻게든 반박하고, 깎아내리고, 해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다가 그 사람이 고분고분해지면 그제야 그만둔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상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편안하게 생활한다. 형제자매의 헌금은 그에게 귀속되고, 부족한 것은 형제자매가 챙겨 줘야 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필요를 충족해 주고 그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형제자매가 즉시 챙겨 줘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노예처럼 훈련시킨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청종해야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고,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한다. 적그리스도는 높은 설교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도리를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탄복하게 한다. 또 그에 대한 사람의 모든 시기와 의심, 분별,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려는 생각이나 그를 저버리려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권력이 만고불변할 수 있고, 교회에서 공고해질 수 있으며 변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주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권력이라는 두 글자이다. 자기 세상 사람이든 자기 세상 밖의 사람이든, 그의 도당이든 아니면 그를 분별하는 형제자매든 이들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분별하여 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일단 사람들이 그를 버리면 그는 외톨이가 되고 지위도, 위신도 사라지고 권력도 박탈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세상을 공고히 하고, 자기 도당의 기반을 다지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미혹하고 통제해서 손안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그가 누리고자 하는, 권력이 가져다주는 특별 대우 역시 단단히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영악하게 처신하고 사람을 구슬릴 줄 안다. 그가 경영하는 자기 세상에는 그를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그를 대신해서 정보를 알아봐 주고 원만하게 수습해 주는 사람 등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 적그리스도가 경영하는 세력권에 자질이 훌륭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오랫동안 통제할 수 있다. 교회의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 타락하고, 미혹되어 구제 불능의 지경에 이를 것이다. 설령 상부에서 사역을 파악하려 사람을 보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조금도 물샐틈없이 통제되어 그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미혹된 사람들은 누가 가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해부하며 진리 원칙을 교제하든 그 말을 듣기는커녕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진리에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해부하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도당, 그리고 그의 세상 속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집의 일을 함께 상의하고 연구한다. 누가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누가 교체되었는지, 상부에서 또 무엇을 폭로하는 내용의 교제와 설교를 보냈는데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전달할지,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고, 누구에게

나중에 전달할지, 여기에 삭제하거나 짜깁기해서 미리 손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최근 외부와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상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지는 않았는지, 하부 사람과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등 이런 일을 항상 함께 상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내통하고 결탁해서 대책과 계략, 방법을 상의해서 상부의 모든 사역지침에 대응하고, 또한 하부의 형제자매 상황을 상의하고 연구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상 사람들과 온종일 함께 공모하고 한통속이 되어 못된 짓을 일삼는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교제하지 않고 교회 사역은 더더욱 교제하지 않는다.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지, 어떻게 교회 사역을 진척시킬지, 어떻게 형제자매를 이끌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시킬지, 혹은 어떻게 외부 환경에 대응할지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올바른 일은 전혀 교제하지 않고, 누가 누구랑 가까워졌는지, 이들이 모여서 누구에 관해 논의했는지, 리더에 관해 몰래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연구하고, 누구 집이 돈이 많은지, 헌금은 했는지 주시한다. 그들은 늘 뒤에서 이런 일만 이야기한다. 늘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상부의 사역지침을 판단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형제자매에 대처하고 상부에 대처한다. 그들은 늘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만 한다.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형제자매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질이 훌륭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해 일을 꾸미고 트집을 잡으며,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망쳐 놓고 매장하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든 그 패거리들과 함께 몰래 상의하는데, 그 안에는 항상 음모와 계략이 있다. 적그리스도 일당이 하는 말은 허술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거기엔 항상 문제가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밖의 사람에게 그들은 늘 여지를 남기며 경계한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그들은 못 할 말이 없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판단하며 상급 리더를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까지 판단한다. 말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자기 세상 밖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들은 우물쭈물 더듬거리며 말을 아낀다. 심지어 외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로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눈짓 하나, 괴상한 웃음 하나에는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 심지어 끙끙대는 소리나 기침 소리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 모두 그들만의 암호인 것이다. 어떨 때는 머리를 긁거나 귀를 후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을 구르거나 손을 비비기도 하는데 여기엔 다 의미가 있다. 이 모두가 적그리스도 무리가 자주 보이는 모습이자 그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독점한 후에 보이는 여러 행위이기도 하다. 그들이 보이는 여러 모습을 볼 때, 인성의 관점으로 해부할 때 그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정의감이 있느냐? 양심과 도덕성이 있느냐? 이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냐? 전부 아니다. 이들은 후안무치해서 형제자매가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 집에서 나쁜 짓을 일삼고 제멋대로 날뛰며 형제자매에게 해를 끼친다. 잠깐 교회에 얹혀사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대대손손 얹혀살려 하니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빠는 마귀가 아니겠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늘 '국가의 대사'를 함께 상의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뒤에서 상의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상의하느냐? 그들이 교회 사역을 교제하겠느냐?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지고 있겠느냐? 어떤 지역의 교회는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 있어서 형제자매가 큰 붉은 용과 정부의 미행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정부에 장악된 많은 형제자매가

잡혀가고 투옥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이를 상관하느냐? 그들이 형제자매가 박해당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서적이나 재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을지 뒤에서 논의하겠느냐? 교회에 유다가 나타나면 그들이 제때 처리하고 관련된 형제자매를 안전한 곳으로 안배하여 잘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이 생기면 항상 무슨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괴롭힐 궁리를 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사역을 파악하려 리더 일꾼을 보내면 그는 이들을 피해 다닐 궁리를 하거나 이들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또 구실을 찾아 이들을 쫓아내서 자기 사역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를 알아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적그리스도도 있다. 그는 형제자매가 그의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두려워 상부에서 파견한 리더를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융숭하게 대접해 하부의 형제자매와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리더가 형제자매의 상황에 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다 좋습니다. 저희 복음 사역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배반자 유다도 출교시켰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도 처리했습니다. 모두 제명했죠. 하나님 말씀 책도 정상적으로 배포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일도 보고한다. 상부에서 그를 조사할 때 그는 자기를 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하고, 윗선 리더의 시선을 교란해서 그를 고발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리더가 교회 사역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해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렇게 하면 그는 교체되지 않을 것이고 위험도 사라진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지키는 목적은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는 수많은 추종자와 끄나풀, 도당 그리고 측근을 키운다. 그가 이들을 키우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권력을 독점해서 그 권력이 약해지거나 폐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실제 사례가 있느냐? (예전에 리더가 적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의견을 내거나 자기를 폭로하기만 하면 억압하고 하나님 말씀 책을 몰수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 그 교회의 소그룹 예배에 갔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악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저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제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윗선 리더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제가 어떻게 어떻게 나쁘다며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형제자매와 접촉하지 못하게 저를 연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 적그리스도는 리더 일꾼 두 명과 손잡고 교회 여덟 곳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들이 몇 달에 걸쳐 교제하며 분별하고 나서야 그 적그리스도 패거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이렇다. 그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권력을 잡고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누구든 그의 지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면 몹시 민감하게 구는데, 그는 이런 쪽으로 특히 예민해서 이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 지위에 위협이 될 거란 걸 즉각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이 사악함이 아니겠느냐? 그는 왜 이 일에 이토록 예민한 것이냐? 남들은 왜 지각하지 못하느냐? 이는 사람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본질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즉, 그는 권력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일단 누군가 그가 맡고 있는 교회에 오면 그는 이렇게 연구한다. '이 사람이 내 지위와 위신에 위협이 될까? 나를 발탁하러 온 걸까, 아니면 교체하러 온 걸까? 내 문제를 파악하러 온 걸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역을 교제하러 온 걸까?' 그는 먼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이런 일에 대해 그가 유독 민감한 이유는 지위와 권력에 대해 그는 특수한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지위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력을 잃고 수하에 추종자도 얼마 없는 외톨이 장수가 되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손에 쥔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는 맡고 있는 교회가 세 곳이든, 다섯 곳이든, 아니면 열 곳이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 권력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쟁취한 것이며, 혁명과 술수를 통해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목숨과 맞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큰 붉은 용처럼 말이다. 만약 누군가 독재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면서 공산당에게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라고 한다면 큰 붉은 용이 뭐라고 하겠느냐? "민주적으로? 그러려면 이천만 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것이다! 공산당이 이 권력을 쥐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나! 권력을 빼앗고 싶다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을 갖다 바쳐야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권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네가 진리를 교제하여 그를 설득하면 그가 권력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그는 너와 다투려 할 것이고, 싸우려 할 것이다. 아무리 비열한 방법과 술수를 써서라도 그의 권력을 지키려 할 것이다. 하나님 선민이 모두 각성해서 힘을 모아 그를 폭로하고 파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사악하지 않으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하고 흉악한 성품을 충분히 입증하고 보여 준다. 그는 통제의 대상이 기꺼이 원하든 말든, 자기에게 진정으로 승복하든 말든, 자기에게 순종하며 자신을 따르려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한다. 누구라도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한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방금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에 대해 교제하였다. 이런 방법과 모습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지닌 흉악하고 사악한 성품과 본질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에게 도리와 인정,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얘기하거나 그를 책망하고 훈계해서, 또는 진정으로 감화시켜서 그가 권력을 독점하는 이 방식을 포기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적그리스도도 결국 패괴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감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이치로 깨닫게 해서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알려 주고 이치를 깨우쳐 준다면 그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도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 집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거나 자기 도당으로 꾀어서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등 인성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도 저지르지 않겠죠." 적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바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그를 잘 타이르라고 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 그에게 이치를 알려 주면 그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성립되지 않느냐? (그에게 이치를 설명해도 통하지 않고, 설명하면 할수록 반감만 들 겁니다. 거기에 책망하고 폭로하기까지 한다면 그는 상대를 증오할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그가 한두 번 들었겠느냐? 어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10 년, 20 년 믿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니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알량한 지식과 도리가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인간 사회에서 국가에는 교육이 있고, 사회에는 법률이 있어서 사람에게 좋은 걸 배우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어째서 사람을 바꾸진 못하느냐? 국가의 교육과 제도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국가가 장려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제 부처, 예를 들면 소년원, 감옥 등은 모두 사람을 통제하고 교도하는 가장 권위 있고 엄격한 곳인데 이곳이 사람의 본질을 바꿔 놓더냐? 일부 강간범, 절도범, 불량배들은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리는 상습범들인데, 이들이 결국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누구도 바뀔 수 없다. 사람의 본질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도 바뀌지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이 본질 역시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온 힘을 다해 감화하고 구원해서 그들의 본성을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하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했다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버려야 합니다.) 먼저 분별하고 해부하여라. 간파하고 나면 버려라. 관념이나 상상에 기댄 채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교만하고 독선적인 게 마치 적그리스도 같다고 해서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맹목적으로 하지 마라. 접촉하며 파악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분별을 통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차츰차츰 인정하고 확인하고 나면 일단 모두에게 교제하고 해부해 주어서 그를 분별하여라. 그런 다음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여 그를 버려라. 먼저 그를 분별하고 해부한 다음에 그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위장에 능하고 비교적 간사한 적그리스도의 경우, 너는 그와 접촉해서 먼저 그를 파악하고 분별한 결과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확신하지만 형제자매는 아직 그에 대해 모르고 진실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네가 형제자매와 교제하면서 그를 해부하면 그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그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건 당신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어쩌겠느냐? 네가 만약 "어쨌든 저는 그를 분별했으니 그에게 미혹되지 않을 거고 속박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말도 듣지 않을 거고, 그에게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분별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게요. 그의 모습,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다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제 말을 듣든 말든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미혹되고 통제돼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된다면 그건 인과응보겠죠. 당해도 싸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다.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얼마나 들었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 보지 못하고 분별할 줄도 모른다. 눈앞에 버젓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꿰뚫어 보기는커녕 미혹까지 당한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를 억압하지 않고, 직접 그를 욕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면전에서 연기하지 않으면,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들이 사실을 말해 주어도 소용없고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다. 그는 자기 눈으로 적그리스도의 소행을 보고 적그리스도의 해악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냥 적그리스도를 따르다 해를 입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를 입고 나면 깨달을 겁니다.) 이것이 조금 모진 행동이 아니냐? (그에게 모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스스로 해를 입고 나야만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긍정적인 말을 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없는 자들이다. 예를 들어 네가 "그 일대는 위험해요. 혼자 밤길을 다니면 강도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벌써 몇 명인지 몰라요. 당신도 밤길 조심하시고 일찍 돌아오세요!"라고 하면 그는 믿지 않고 한사코 밤에 일행 없이 혼자 나간다. 그럼 너는 그냥 그를 혼자 가게 놔두고 정말 사고가 나지 않게 몰래 지켜 주어라.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말 사고가 나려 할 때 사고가 나지 않게 그를 지켜 주고, 그가 공과를 배우고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 결국 네 말이 옳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그가 심각한 해를 입어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얼간이나 충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흉악함과 사악함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를 형제자매처럼 대하며 어울린다. 심지어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며 마음을 다해 대하고 그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입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한 번 당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여러 번 해를 입고 나서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되고, 네가 다시 교제해 주고 붙들어 주면 믿는다. 이 방법은 괜찮다. 이런 일로 끝내 쓴맛을 보고야 마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 분별력이 없는 얼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집에서 적그리스도 한 명을 교체할 때 수긍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했고 모두가 인정했는데도 그는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교제해 줄 방법도 없었다. 결국, 그는 적그리스도를 따랐다. 한동안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는 심각하게 해를 입고 나서 울면서 돌아왔고, 그가 악독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예전부터 그렇게 악독했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호감을 품고는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려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든 용인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가 없어지고 그가 적그리스도와 대등하게 지낼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에 대해 견해가 생겼고, 그의 관점이 달라지자 문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결국 그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따르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되게 당하고 나서 적그리스도를 간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간파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일렀지만 그가 승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별수 없었다. 이런 사람은 시행착오를 해서 고생 좀 해봐야 한다. 이를 두고 고생해도 싸다고 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래도 싸다고 하겠느냐? 눈앞의 복을 마다하고 기어이 고통을 받겠다니 별수 없는 것이다. 고통부터 받고 고생부터 해야 하니 고생해도 싸다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독점할 때 먼저 시키는 대로 절대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요직을 맡긴 다음 동요하는 사람들을 훈련한다. 즉, 줏대 없는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훈련되어 자기 세상의 구성원이 되면 그도 안심한다. 절대로 그에게 쓰일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히 포기하고 자기 세상 밖으로 배척한다. 그에게 절대복종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의 도당이고, 그의 세상의 충직한 구성원이다. 그는 이들을 자신의 추종자, 수행원,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의 권력은 이들에게 행사된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그의 권력이 유효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고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바꾸는 데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며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그 대가의 결과는 하나님과 진리를 적으로 삼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권력의 가치와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 맞설 밑천이 생기고, 별도의 자기 파벌을 만들 밑천이 생기며, 독립 왕국을 세울 기반이 생기고, 권력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밑천이 생기는 데 있다.

2. 적그리스도는 상황을 조종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그 첫 번째 모습인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교제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권력을 얻고, 권력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그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권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지, 마지막으로 권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교제하였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 외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바로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다. 상황을 조종한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고 나서 자기 세상을 세우고, 자기의 도당과 측근, 세력권이 생기고 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역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그가 관장하는 일이나 세력권에 다른 사람이 연관되거나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은 목숨과도 같다. 그의 세력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그가 결정해야 하고, 그의 세력권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관련되는 사람이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최종 결과는 모두 그에 의해 좌우되고 통제된다. 전부 그의 바람과 필요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게 어떤 손실도 입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일이 만약 그의 간섭이나 개입, 조종 없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는 아마도 평판이 나빠질 것이고 고발되어 교체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지위는 보전되지 못할 것이고 손에 쥔 권력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전부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은 그의 명예와 지위에 관련되고, 그의 권력과 관련된다. 그의 권력과 무관한 일은 개입하지 않고 못 본 체해도 된다. 특히 하나님 집의 사역,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이나 교회 생활 등 자기 지위나 권력, 상부와의 왕래나 소통과 관련 없는 일이기만 하면 모두 신경을 끄고

개입하지 않으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음팀이 한 달에 얻는 인원수는 그의 지위와 관련되기에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매월 등록 인원수로 그의 지위가 보장된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인원수에 도달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할 것이다. 다른 일은 돌보지 않고 말이다. 예를 들어, 그의 관할 범위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 달에 100 명은 얻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이달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100 명에 미달되면 적그리스도는 이 일에 힘을 쏟으며 초조해한다. 그가 왜 초조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순조롭게 확장되지 않아서 그가 부담을 느끼고 초조해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복음 사역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건성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양육하고 해결할지 초조해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손이 부족하니 어떻게 일손을 조정해서 늘려야 할지 걱정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가 초조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는 어떻게 그 숫자를 100 에 맞춰서 그 수치에 수작을 부렸다는 걸 상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초조해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 인원수가 80 밖에 안 돼 100 에 못 미친다는 것을 실토한다면 상부에서 사람을 보내 조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해야 상부에서 이 숫자에 예민해하지 않겠느냐? 그는 98 명이라고 보고한다. 누군가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죠. 이건 기만입니다. 그래선 안 돼요."라고 하면 그는 "괜찮아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라고 말한다. 그가 인원수를 왜 이렇게 보고하겠느냐? 여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겠느냐? 별생각 없이 이 숫자로 보고하겠느냐? 그는 연구했던 것이다. 실제는 80 명밖에 안 되는데 100 명이라고 보고하면 차이가 너무 나니 거짓말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98 명이라고 보고하면 상부에서 보기에 100 명에는 못 미치지만 분명 실제 수라고 여기고 조사하지는 않을 테니 그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100 명을 얻어 놓고, 200 명을 얻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상부에서 사람을 보내 조사하면 그에게도 다 대책이 있다. 100 명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다음 달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상부에서 조사할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그는 공을 가로챌 궁리를 한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명도 못 얻어 놓고 30 명이나 50 명을 얻었다고 보고하고는 다음 달에 만회할 방법을 찾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여 얻은 인원수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기만하며 수작을 부린다. 인원수를 어떻게 보고할지, 몇 명으로 보고할지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한결같이 하나님 선민의 본분 이행을 간섭하고 교란한다. 그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본분 이행에 성과가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권력만 믿고 사람들의 눈을 가린 채 아랫사람은 억압하고 상부를 기만한다. 그가 상황을 조종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진상이 폭로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며, 상부를 기만하여 그가 하부에서 사역하는 현황이 어떤지, 그가 과연 하부에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고 있는지, 사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황을 조종하는 목적은 바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을 숨기며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그의 악행과 제멋대로 부리는 횡포를 은폐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진상 등을 은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 돈이 일부 필요해서 그들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면 그는 일단 하나님 집에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다. 수천 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백 위안밖에 없다고 하고, 수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천 위안밖에 없다고 한다. 사실 그는 교회 헌금을 수만 위안이나 움켜쥐고 있으면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느냐? 이 제물을 차지해서 자기를 위해 쓰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상황을 조종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상황을 조종하며 제물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그들 교회에 글재주가 있는 인재는 없는지, 음악 인재는 없는지, 영상 제작 인재는 없는지 물어보면 그는 "글재주가 좋은 인재가 있는데 올해 78 세입니다. 기자 출신이시죠. 그런데 위장병이 심하세요."라고 대답한다. 사실 그 사람은 30 대의 한창인 나이에 심각한 위장병도 없다. 그가 왜 그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 하겠느냐? 어째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겠느냐? 상황을 조종하려는 것이다. 이런 인재를 보내고 나면 그의 통치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역시 인재를 잡아 두려는 것이다. 이 인재가 그의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붙잡고 있느냐? 어째서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할 때 보내 주기는커녕 허위 정보를 조작하겠느냐? 그가 사람을 미혹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니 사실상 이 역시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가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은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나님 집에 당사자의 상황을 사실대로 전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자기가 쓰려는 것이다. 혹여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집에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영상 제작 인재를 하나님 집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한다. '영상 인재를 제공하는 이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겠어? 남의 논에 물을 댈 순 없지. 내 아들과 딸, 친척 몇 명이 영상 제작을 좀 할 줄 아니까 하나님 집 요건에 맞는지는 제쳐 두고 일단 보내고 보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친척이나 친구를 앞세우니 다른 사람의 몫은 없다. 이것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서 이야기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권력만 믿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모든 일을 혼자 장악하고 혼자 결정하니 그는 모든 일의 관리자이자 배후에서 획책하고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로 상황을 조종한다고 하는 것이다. 상부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그들 교회에 보낸 사람이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과 본분 이행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 서적과 설교 녹음 등 자료가 모든 하나님 선민에게 배포되었는지 알아보고자 몇몇 사람들과 접촉하려 하면 그는 "어려울 것 없죠. 형제자매 두 분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한다. 이 두 사람이 누구겠느냐? 모두 자기 세상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의 여동생과 처남이다. 그가 상부에서 보낸 사람을 이 둘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 생활은 참 좋습니다. 여러 설교와 간증 영상이 무척 많죠. 우리 교회 리더는 교회 사역을 하느라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든 그들 교회에 가도 실제 상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교회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악인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지, 어떤 사역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일은 모두 은폐한다. 가서 보면 흡족해할 만한 장면밖에 없는데 전부 허상이다. 오직 한 가지, 상부에서 보낸 사람이 교회 헌금을 적절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일부 가져갈 필요가 없는지 물으면 그는 곧바로 교회 헌금이 많지 않다고 대답한다. 다른 사역은 전부 좋은 쪽으로

말하지만 헌금 현황만큼은 예외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문을 막아 버린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각종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사람은 통제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보내 하나님 집에 가서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인성이 나쁘고, 악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이해력이 전혀 없고 인성도 악랄하며 본분도 건성으로 이행하고, 믿음에 기초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방인처럼 말이다. 이들은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방해하고 교란하며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는다. 고생을 견디기 힘들다며 하나님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 유언비어나 관념을 퍼트리는 사람, 본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매일 드라마에 빠져 살거나 시시껄렁한 영상만 보는 사람도 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쫓겨났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 중 95% 이상은 인성이 좋지 않다. 어느 정도로 좋지 않으냐? 극도로 형편없고 인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전부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 아니더냐? 교회가 보냈다면 이런 자들을 보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니, 어떤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보내진 사람들 역시 적그리스도의 친척, 측근, 도당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느냐? 정말 인성이 있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인재를 제공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사심을 배제하지 않겠느냐? 인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류는 적그리스도이다. 좋은 일은 최대한 차지하려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은 가차 없이 거절하고 협력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조종하는 것에는 교회에서 권력만 믿고 사람의 눈을 가린 채 혼자 결정하는 것 말고도 더 역겨운 일이 하나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도당과 결탁해서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탁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저지르는 일이 전부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짓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겉보기엔 화기애애하고 위아래 질서가 있으며 서로 간에 각별한 사랑과 겸손, 존중, 예의, 인품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기만이며 위장이다. 그들이 왜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서로를 극도로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겠느냐?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이 결탁하는 목적은 서로 보완하고 붙들어 주면서 진리 실제에 진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교회 사역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이용하고 의지하며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결탁하는 목적은 거목 밑이 시원하듯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 사적인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그들이 함께 있으면 친밀한 가족같이 화목한 것처럼 보인다. 연장자에게는 이모, 동년배한테는 자매나 형제라 친밀하게 부르니 세속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도우며 의지한다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칭찬하면 그들은 무척 기뻐하고 흡족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라고 말하고는 서로에게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그들이 한 가족이고 도당임을 더욱 확실히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결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 큰누이 아무개는 기업의 대표 이사라 사회적으로

네트워크와 인맥이 무척 넓어 적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준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은혜를 입다 보니 그녀를 큰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들의 진학이나, 딸의 취업 등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녀와 상의해서 그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누군가 입원했을 때 양약을 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 근무자가 교회에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당장 그 사람을 자기 도당에, 자기 가족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결탁하여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덕을 보고 함께 이익을 취한다. 그러니 그들은 함께 있으면 무척 조화롭게 융화되어 화기애애하며 마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화목한 모습의 이면에는 저마다 꿍꿍이를 숨기고 있다. 상대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지, 자신은 어떻게 남들을 도와서 서로 덕을 보며 다른 사람의 인정에 화답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상을 세우고 도당이 생기고 나면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일마저 도와주는 무리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취업, 대학 진학, 승진, 중병 진찰, 이사는 물론 심지어 수감되고 나서도 돈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꺼내 주는데,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적그리스도가 보기에 '가족'이 유용하지 않겠느냐?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가족'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교류 원칙으로 삼는 모습, 양심에 기대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사람 사이에 정상적으로 왕래하고,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하는 모습, 마음을 터놓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신의 패괴 성품을 교제하고 인식하는 모습, 서로의 장점을 취해 단점을 보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없는 것이다. 이런 무리, 이런 세상은 적그리스도 일당의 세상이니 진리가 권세를 잡지 않고 성령 역사가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반면 적그리스도 일당은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평안한 삶을 누리니 여기를 자기 집으로 여긴다. 사실상 이곳은 하나님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사회이자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세상으로 바꾸고, 사회단체로 바꾸고, 적그리스도의 집단으로 바꾼다. 그들은 멸망의 가증한 일을 일삼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수법과 방식이 완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사람이 입만 살아서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양아치 기질이 넘쳐흐르고 음험하고 사악하며, 아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온화하고 우아하며, 문명적이고 예의 바르며 격식을 알고 심지어 교양과 자질, 인품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가 음험하고 간사하며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서로 결탁하고 연줄을 대면서 세력을 겨루고 과시하며 사회적 계층이나 연고 관계를 따지고 사회에서 누구의 세력이 크고, 누구의 지위와 명성이 높은지, 누구의 수완이 좋은지를 따진다. 그들의 언동을 봐서는 그들에게 진실한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그들의 신앙은 게임이자 야바위인 것이다. 이들 사악한 무리는 교회를 사회단체로 바꾸고, 서로 결탁한 사악한 무리의 세상으로 바꿔 놓고는 말끝마다 허울 좋은 말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어떻게 형제자매의 혜택을 도모하며, 어떻게 어떻게 형제자매를 돕고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박하는 사악한 방식으로, 온갖 비열한 수단으로 형제자매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자기는 본분을

이행하며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의 이면에 깔린 본질은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자기 권력 아래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자기 세상으로 바꾸고, 사회단체로 바꾸며, 사탄의 권력하에 있는 사람의 집단으로 바꾼다. 이런 집단이 교회겠느냐?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역겹지 않으냐? 이런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들 무리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겉으로 보면 그들은 화기애애하지만 그들에게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교제하면 그들은 몹시 반감을 드러내고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화기애애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에게 진리를 교제하면 그들은 너를 외부인으로 여기고, 네가 교회 사역을 교제하면 더더욱 너를 외부인으로 생각한다. 또 본분을 이행할 때 실행해야 할 진리 원칙에 대해 교제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머리를 긁적이거나 하품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마귀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어째서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귀적인 모습이 나타나겠느냐? 그들 모두 많은 사랑을 지닌 것 아니었더냐? 어째서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외적인 일을 처리할 때 매우 열정적이고 충성적이지 않더냐? 충성심이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 실제가 있다면 다른 이가 진리를 교제할 때 기뻐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내적 상태가 늘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악령이 들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겠느냐? 이는 평소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들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는 방증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그들을 철저하게 드러내니 그들은 부끄러워 성을 내고 평소와는 달리 악행을 일삼고 교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기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마귀적인 모습을 보이며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다.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조종하는 일은 확실히 존재한다. 경미한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조종하고, 심각한 경우 한 집단이 여러 사람을 조종하고 모든 일을 조종한다. 한 사람이 일과 상황을 조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지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을 훈련해야 한다. 한 무리의 사람을 회유하고 통제하여 자기를 보좌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전하게 하고, 그가 상황을 조종하는 것을 돕게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 무리를 형성하면 그의 세력권이 확장되고, 그가 조종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며, 관련되는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도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너희가 만약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만난다면 어쩌겠느냐? 이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들의 주된 구성원에는 너덧 명, 십여 명이 있는데, 그들은 각각 여러 일을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인사 조정 업무를 보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상부에 대응하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든 즉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 은폐하는 사람, 계략을 꾸미는 사람, 사람에게 해를 끼칠 나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악인의 졸개 역할을 하는 사람, 수소문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들에게 혜택을 마련해 주는 사람, 진료해 주는 사람까지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사회에서 별 세력이 없고 착실하며 일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사회에서 지위와 명성,

세력이 있는 사람, 공직에 있던 사람,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일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물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찾는다.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사려면 약 40 만 위안이 드는데 일 잘하는 투기업자는 반값에 신차 못지않은 중고차를 적그리스도에게 사 준다. 이런 사람이 그에게 접근한다면 그가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끌어들이는 사람은 다 이런 자들이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 집,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을 사회단체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게 하려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만약 한 평범한 신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가정과 직장을 버릴 수 있고 착실하지만 일 처리 능력이 없다면 그가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장사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세력도 있어서 아무도 괴롭히지 못한다면 이런 나이 많은 여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이용 가치가 있겠느냐? 그녀만 보면 별 이용 가치가 없겠지만 그녀의 가정을 보면 이용 가치가 차고 넘친다. 그녀는 형편이 넉넉해서 사람을 응대할 수도 있고, 일이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든 회유하고 미혹하여 그의 편에서 자기에게 이용당하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사람들이 인품이 좋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나면 성장하고 진실로 대가를 치를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등한시한다. 네가 올곧을수록, 네게 양심과 이성이 있을수록 그는 더욱 반감을 품는다. 네가 올곧고 진실한 말을 하면 그는 네게 반감을 품고 너를 역겨워한다. 너를 보면 피해 갈 것이고, 네가 그와 접촉하면 네게 이용 가치가 있지 않은 이상 겉으로 입에 발린 소리만 할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그의 권력과 지위에 유리한 사람을 좋아한다. 만약 이 사람이 그에게 이용당할 때 그를 도와 일을 처리하고, 그를 도와 진상을 은폐하며, 그를 도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적당한 핑계를 찾고, 그를 도와 형제자매를 감쪽같이 미혹해도 아무도 폭로하거나 간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그의 이용 대상이고 그가 받아들일 대상이다. 만약 누구에게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권세를 가졌으면 누구든 찬양하며, 지위를 가졌으면 누구든 따르고, 누구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이용 가치가 있지만 적그리스도도 신중하게 대할 것이다.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이들은 그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서 어떤 일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만약 회의에 등급이 있다면 중요한 회의에는 이런 사람을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고, 3 등급이나 4 등급 모임, 일반 모임에만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리더가 새로 오면 줏대 없는 이들은 언제든 그를 저버리고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이런 자들을 교활하게 대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상황을 조종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그 일을 꽤 체계적이고 절도 있게 진행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이용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측근이고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측근인지 속으로 등급을 매겨 놓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윗선 리더나 잘 모르는 사람 등의 낯선 사람과 접촉할 때는 항상 먼저 탐지해 본다.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추구하는 바가 있는지, 취향이 있는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몇 년이나 믿었는지, 진리 실제가 있는지, 자기를 분별하고 있는지, 생명 진입에 부담감이 있는지 등 여러 면으로 가늠하고 살펴본 다음 온갖 방식으로 떠보고 시험해 본다. 만약 이 사람이 얼간이라면 경계를 풀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가 영리해서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조심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믿고 사람들의 눈을 가린 채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부류의 사람을 모두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것도 포함된다. 하나님 집의 규정이 그에게는 빈말,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는 공기와도 같으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야심과 욕망은 사람을 통제해서 자기 말에 따르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모든 일은 물론 자기 눈앞과 세력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통제하려 한다. 통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조종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니, 곧 모든 것이 통제 속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의 지위, 그의 세력권에 관련되는 모든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다 참여하고 간섭하려 하며, 그 어떤 이득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어 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에게 그다지 순종하지 않으며 늘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는 이들을 손볼 궁리를 한다. 그런데 책망하고 훈계할 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내려보낸 서적과 설교 녹음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한다. 비교적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겐 곧바로 배포해 주고, 자기 말을 안 듣고 근래 태도가 안 좋은 사람에겐 이번에 수량이 한정적이라고 하면서 배포하지 않는다. 그는 너의 행동을 지켜본다. 네가 만약 분명히 이해하고 일을 간파하고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게 다가간다면 적그리스도는 구실을 찾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번엔 하나님 집에서 1 인당 하나씩 돌아가기에 충분한 양을 보내 줬네요. 이번엔 당신 몫도 있습니다." 얼마 후 네가 다시 그를 가까이하지 않는 게 보이면 그는 너를 손볼 것이다. 물건이 오면 네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아예 주지 않을 것이며, 핑계를 대며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몰수할 것이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남몰래 저지른 나쁜 짓을 알고 신고할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자기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회유책으로 선수를 친다. 그런데도 회유책이 시원치 않아 먹혀들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여전히 신고하려 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집중 공격하고 강제로 위협하게 한다. 이 사람이 타협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제야 그만둔다.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남들이 자기를 폭로하고 고발할 것을 우려해 적반하장으로 선수를 친다. 일부러 무고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 모함한 다음 구실을 찾아 격리하거나 출교해 상부나 교회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는 안도하며 한시름 놓는다. 이것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저지르는 이런 짓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 방식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 자기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기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악행을 수없이 일삼는다. 교회에서 인사 제도와 인사 안배를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더 많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기 위해 형제자매 관계를 이간질하여 서로 공격하고 판단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사람을 부추겨서 비교적 정의감이 있는 형제자매를 집중 공격하게 하며, 아예 대놓고 형제자매들에게 상부에서 자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야기한다. 또 그는 상부에 서신을 작성하여 자신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리고, 그가 지금 자신을 인식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린다. 그가 서신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상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는 온갖 수단과 방식을 동원하여 상황을 조종하고, 그의 도당을 통제하며, 형제자매를 기만함과 동시에 하나님 집을 기만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상황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수법이다. 물론 구체적인 수법은 더 많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면서 보이는 여러 수법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3.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한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고, 상황을 조종하는 것 외에 그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느냐?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인사 측면에 대해 교제했고,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주로 일의 전개 양상을 통제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표면적인 행동이고 상황을 조종하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 좋은 것들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누구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맞느냐? (맞습니다.) "사람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간사하고..."(렘 17:9)라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겠느냐? 그가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 간사해서 통제하기 어려우니 그냥 통제하지 않을래요. 멋대로 생각하라지요. 전 권력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잘 통제하면 그만이죠. 이들의 행동과 방식은 제가 통제할 테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단속하시죠. 제겐 그런 능력은 없으니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라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타협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보면 사람의 전부를 통제하는 것이 그의 야심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을 자신의 권력 아래로 끌어들이고 모든 일을 통제한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몇 명이나 연관되는지, 어떤 일과 관련되는지,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떨지는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해 놓은 대로 전개되도록 한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자기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이런 행동을 분별하고 있는지, 반감은 없는지, 겉으로 그를 공손하게 대하면서 아첨할 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과 속이 정말 같을지, 그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등은 그가 몹시 고민하는 한 가지 문제다. 고민할수록 그는 답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모습인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하는 것이 쉬우냐? 캐내고 통제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취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두 가지 동작과 행위이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쥐고, 일이 전개되는 인과 관계와 일의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 그가 이런 것을 통제할 때 자기 수하의 사람이나 세력권 안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하는지, 자기를 완전한 사람처럼 대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에게 견해나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분별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이 속으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 이런 것은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수하의 사람 중에 분별력이 없어 이용하기 좋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해 주면 그들은 고무공 같아서 다룰수록 기세가 오르고 강해지니 그는 이런 사람을 앞잡이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앞잡이를 자기 대신 사람의 마음을 캐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다. "요즘 우리 교회 리 자매님과 어머님의 봉헌이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봉헌을 잘하던 분들인데 이젠 우리한테 잘 오지도 않더군요. 두 분 요즘 어떤가요?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는 않던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한 번 가 보셔서 붙들어 주세요." 이 사람이 리 자매 집에 가서 보고는 '집에 낯선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 이들 모녀가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걸 보니 무슨 어려움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걸까? 좀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댁에 계시면서 최근에 새로운 빛 비춤을 받은 게 없나요? 제가 요즘 무척 연약해졌는데 교제 좀 해 주세요." 그 모녀는 그가 진리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온 줄만 알고 이렇게 교제해 준다. "요즘 저희는 새로운 빛 비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랍니다.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저도 예전엔 사람만 의지했는데 나중에 어떤 자매 한 분과 교제하고는...." "어떤 자매라고요? 그 자매가 어딨죠? 외부 사람은 아닌가요?" "외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인데, 밖에 나가서 몇 년간 본분을 이행하다 돌아왔죠." "이 역시 외부 사람과 접촉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경솔하게 외부 사람과 접촉하다니 교회에 보고해야잖아요!" 그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 속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들어 있다. 하나는 이 모녀가 리더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리더를 어느 정도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외부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다. 외부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리더에게 딴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돌아와 적그리스도에게 보고한다. 적그리스도가 그걸 듣고 유쾌하겠느냐? 그가 '잘됐다. 내 수하의 사람이 마침내 나를 분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망했다. 이 모녀가 원래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교회에서 진심으로 믿고 봉헌도 많이 하고 말이야. 정체 모를 사람과 접촉하더니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어. 그들이 앞으로 봉헌을 잘할까? 골치 아프게 됐군. 위험해.' 적그리스도는 불안해한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게 되어 변심하려 하니 불안한 것이다. 예전에 이들은

착실하고 말을 잘 들었으며 그를 별로 분별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든 따랐다. 그런데 이제는 변심해서 그를 분별하게 되었고 그를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저버리려 하고, 자칫하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 난감해진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누군가의 낌새가 이상하면 측근이나 끄나풀을 보내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게 한다. 만약 아무런 변동 없이 예전처럼 그에게 변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을 놓고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그가 조종하거나 상상한 것이 아닌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골치 아파진다. 그는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다가 초조한 나머지 손을 쓰게 된다. 그가 손을 써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와 한마음이 되어 변심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반드시 그에게 알려야 한다. 시시각각 그에게 보고하여 충성심, 결심, 진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항상 사람 마음의 동태나 생각, 속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원칙을 통제하려 한다. 그에게 딴마음을 품은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그 사람이 변하도록 손을 쓴다. 만약 변하지 않아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적이 될 것이다. 적이 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느냐?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당한다.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다. 이 외에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곁의 사람도 늘 걱정한다. 늘 헤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분별하고 고발할까 걱정하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제물을 훔쳐 먹고 독단적이고 내 맘대로 행동한 걸 봤을까? 봤다면 분별하지 않을까? 날 고발하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몰래 음란한 짓을 하고 고민한다. '이 일을 누가 알고 있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위장하고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떠봐야 하지 않을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처럼 사악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그가 전문이다. 그는 사람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 사역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 최근에 제가 표출한 패괴 성품을 인식해 보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마음과 얼굴을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교제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씁시다. 하나님 집에서는 모든 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고 모든 게 숨김없이 열려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일하니 누구도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형제자매님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제가 먼저 저 자신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나태하고 육의 안일에 빠져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최근 복음 사역도 별로 좋지 않고, 교회 생활도 그다지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복음 사역이 바빠 겨를이 없었죠. 물론 제 책임입니다. 사람의 상상에 기대 교회 생활은 형제자매의 자각에 달려 있으니 제가 굳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인이고 하나님 말씀도 명확하니 저는 복음 사역에만 전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형제자매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겠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개를 숙여 사죄드립니다." 다들 그 모습을 보고는 '그가 변했어. 예전처럼 간사하지 않아. 오늘은 웬일로 저렇게 솔직한 걸까? 이상해. 아무래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을 할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탄 마귀라는 것과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부의 어떤 처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형제자매의 어떤 질책과 비판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저를 리더 직에서 해임한다고 해도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 자매님과 그분의 딸을 제 사역의 후임자로 추천합니다." 후임자까지 다 골라 놓다니, 이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 그는 말하면서 울먹이더니 그의 집 자매를 끌고 와서 말한다. "요즘 당신도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방해와 교란만 일삼으면서 형제자매를 마구 책망했으니 당신도 교체되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본보기로 비판하더니 이제는 또 가족을 비판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진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들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저희는 진작에 당신들을 분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의논하고 결정했죠. 이 역시 하나님 집의 사역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뽑는 것도 당신들끼리 결정해 버리니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알 권리조차 없는 거죠. 뽑힌 사람이 실제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교란해도 당신들은 교체하지 않더군요." 형제자매가 저마다 한 마디씩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적그리스도가 듣고는 '망했다! 그래도 그들이 진심을 전부 쏟아 낸 건 잘된 일이야. 내 사역에 유리하거든.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나 몰래 상부에 직접 투서를 보내서 내 등에 칼을 꽂으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 이 계획으로 영민하게 반응해서 때마침 이들의 속마음을 파악했으니 다행이지.'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능청스럽게 이런 말을 한다. "저에 대한 형제자매님의 신뢰에 감사드리고, 제 잘못을 솔직하게 질책하고 비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꼭 고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징벌과 저주가 제게 임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할 때는 엿듣거나 엿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비장의 무기란 게 무엇이겠느냐? 민주와 자유를 들먹이며 사람들에게 발언의 자유를 충분히 주고, 자신의 견해와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주어서 그들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하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원망의 목소리라도 말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과 어긋나거나 속으로 자기에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일망타진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수법이 어떠냐? 너무나도 사악하다! 큰 붉은 용과 닮지 않았느냐? 그들 자체는 한패여서 그들의 본성 본질은 똑같다. 큰 붉은 용이 이렇지 않더냐? 네가 적그리스도의 행동거지를 보았다면 이는 큰 붉은 용의 추악한 몰골을 본 것과 다름없다.

적그리스도는 듣기 좋은 말이나 옳은 말로 사람을 유인해서 자기에게 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사람의 실제 상황을 떠보고, 캐내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에게 한 그런 말로 인해 회개해서 그 즉시 손을 떼고 악행을 멈추며 손에 쥔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며 자기 세상을 해체하겠느냐?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 뒤 자신과 합하는 사람은 남겨 놓고 자신과 합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처치한다. 우리는 이런 배경으로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출교당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 서적을 몰수당한 형제자매가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형제자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를 이 꼴이 되도록 괴롭혔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며 믿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흑암 세력, 사악한 세력에게

타협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택해야 할 길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러두겠다. 적그리스도인 자를 발견했는데 그의 세력이 커서 네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는 리더 일꾼이 많다면, 그리고 네가 그를 폭로할 경우 격리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면 너는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홀로 그를 책망했다간 승산이 없다. 너는 먼저 진리를 깨달아 분별이 있는 사람 몇 명과 연대하여 그들과 함께 구하고 교제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 일꾼 두 명을 더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여라. 몇 사람이 일치된 행동으로 적그리스도를 함께 폭로하고 처리하면 승산이 생긴다. 만에 하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 크다면 상부에 투서를 작성해 보내도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너희를 억압하는 리더 일꾼이 정말 몇 사람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들이 우리의 폭로와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에서 당신들을 처리하시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승산이 더 생길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온당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절대 홀로 싸우지 마라. 몇몇 리더 일꾼의 지원 없이는 필경 실패하고 말 것이다. 투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내야만 승산이 있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히 음험하고 교활하니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일단 그를 건들지 마라. 그에게는 이치를 논하거나 변론하는 것도,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것도, 진리를 교제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그를 바꿔 놓을 수 없다. 그를 바꿔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해야 하는 일은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털어놓거나 이치를 논해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르게 폭로하고 고발하여 상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 그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그를 잘라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만약 그가 네 속마음을 떠보고 캐내서 네가 그를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면, 네가 이미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에게 사실대로 말해선 안 됩니다. 일단 그의 말에 따르면서 제가 그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몰래 그를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이 방법이 어떠냐? (좋습니다.) 마귀 사탄의 간계를 간파해야지, 그의 계략에 넘어가거나 그가 파 놓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탄 마귀를 상대할 때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사실대로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네가 사실을 말할 대상은 하나님과 진정한 형제자매들이다.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에게는 영원히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네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네 마음을 주재하고 감찰할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도, 특히 마귀 사탄은 네 마음을 통제하고 감찰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네게서 사실을 캐내려 할 때, 너는 '싫다'라고 말하고 대답을 거부하며 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너의 권리이다. 만약 네가 "이 마귀야, 나를 떠보려고 하는구나. 나는 네게 사실대로 말해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생각을 알려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고발하겠다. 어쩔 것이냐? 네가 감히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적발할 것이다. 또 네가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라는 말씀이 있다. 그럴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찰하고 점유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고, 사탄 마귀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적그리스도는 알 자격이 있겠느냐?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가 너를 떠보고 마음을 캐내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너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에게 사실을 말해 줘선 안 된다. 방법을 생각해 더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그를 폭로하고 저버리며 그를 지위에서 끌어내려야지, 절대 그가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를 교회에서 단절시키고 다시는 하나님 집에서 교란하며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보면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그것은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각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자기 심복을 형제자매들에게 보내 정보를 캐내고 수소문하게 한다. 때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이나 사람들의 잡담까지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늘 이런 일을 이용해 꼬투리를 잡고 심지어 사상 관점에 입각해 비판하기까지 한다. 이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동향을 즉시 파악하고, 그가 국면과 각 사람의 상황을 자유자재로 통제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권력과 지위에 관하여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척 구체적이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겠느냐? 한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관점, 물질을 대하는 관점, 돈을 대하는 관점, 지위를 대하는 관점,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대하는 관점, 사직을 대하는 관점 등이 어떤지 손금 보듯 훤히 꿰뚫어 보려고 한다. 훤히 꿰뚫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진리로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자기 세상을 위해 일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통제하는 목적이다.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눈에 의미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2020 년 11 월 7 일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1)

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에 관해 교제하도록 하겠다. 이 항목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폭로한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낸다. 이 두 방면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관계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이자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주된 모습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주된 모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교제는 잠시 미뤄 두고, 먼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어떤 사상, 관점,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와 모습, 행동이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자.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 창조주 자체를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호칭 역시 허무한 것, 사람이 허구로 상상해 낸 것으로 생각하죠. 이건 설명하고 교제하기 쉽지 않나요? 어째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관계된 것인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이 더 있을 수 있나요? 좀 침소봉대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복잡한가요?" 이런 생각이 옳으냐? 만약 너희에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이 주제를 교제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교제하고 해부하겠느냐? 예를 들어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의 간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말한다. "이 사람은 아주 간사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진실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다 교제한 것이냐? 그렇다면 간사함의 구체적인 내적 상태와 모습은 무엇이냐? 그의 간사함을 어떻게 해부해야 하느냐? 생활 속에서 처신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그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의 처세 방식은 무엇이냐? 그의 인품은 어떠냐? 그가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관점은 무엇이냐? 그가 매우 간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자세한 내용이 있다. 간사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간사한 것인지 이런 것만 말하거나 그 단어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과 행위, 사상 관점, 일 처리 방식, 인품 등을 해부해야 한다. 간사한 사람의 주된 특징은 누구와도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이다. 사실 이런 자가 꼭 나이가 많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세상 물정을 많이 겪었으리라는 법도 없다. 심지어는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데도 꿍꿍이가 가득하다. 이는 나이는 어려도 꿍꿍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자는

태생적으로 간사한 사람 아니겠느냐? 자신을 깊이 숨겨 누구도 그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그가 언제 한 말이 진실이고 언제 한 말이 거짓인지 누구도 추측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그는 위장과 궤변에 몹시 능하다. 그는 늘 남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 본모습을 숨기므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가 꾸며 낸 허상뿐이다. 고결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현명하고 유덕한 척, 솔직한 사람인 척,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조하는 사람인 척 위장하여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게 한다. 그와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든 너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그의 관점과 태도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교제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실상을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꽤 인성이 있고 영적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척 위장한다. 그가 대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다. 이것이 간사함의 여러 모습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태하다고 할 때, 나태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태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마음 쓰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함의 구체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냐? (아닙니다. 그건 그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나태함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떤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무슨 일에도 부담과 책임감을 갖지 않고, 육이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 낸다.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면서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빈둥거리며 되는대로 살아간다. 일만 했다 하면 우는소리를 하고, 숨어 버리는 통에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나태함의 두 가지 주요 모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제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게걸스럽다고 할 때, 게걸스러움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은 인성 안에서 쉽게 해부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신의 식욕을 채우려 합니다.) (맛있는 것만 있으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게걸스러운 모습이다. 어디에 맛있는 게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음식은 맛있게 잘 하는데, 가격이 비싸고 거리도 좀 멀어서 차로 한 시간 거리였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차로 한 시간이면 먼 것도 아니네. 사람이 사는 게 다 먹고 마시고 놀려고 하는 거 아냐? 먹으러 가자!' 그런데 한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본연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는 고민한다. '거기 가려면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가면 성과는 있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길에서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거기 가면 뭘 먹지? 밥을 해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 물갈이하면 어떡하지? 밤에 못 자면 어떡하지?' 본연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점만 떠오른다. 반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 모든 곤란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곤란도 곤란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게걸스러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다시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로 돌아가 보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구체적인 사상 관점, 내적 상태의 표출을 보이느냐? 일이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음을 증명하는 어떤 태도, 관점, 생각이 있느냐? 이는 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에는 과연 어떤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모습이 있느냐? (어떤 일을 만나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선벌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은 곧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겠느냐? (하나님 창조주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형벌의 사역이 사람의 패괴를 정결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사탄에게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성을 띤 더욱 본질적인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분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성을 띠지 않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을 해부하려면 우선은 두 가지를 해부해야 한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모두 이 두 가지에 포함된다. 예전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제했다. 이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해부하는 것이 더욱 힘이 있다. 그것이 더욱 대표성을 띤다.

1)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자. 하나님의 신분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그렇다면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분은 무엇이냐?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그 호칭도 맞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신분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를 때 너는 '만물의 주재자'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너에게 네 어머니의 신분은 너를 낳고 길러 준 사람이다. 그렇다고 네가 어머니를 '저를 낳고 길러 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엄마'입니다.) 이것이 네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다. 따라서 창조주, 만물의 주재자의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다. 피조된 만물과 그 이외의 만물에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의 신분은 만물의 주재자이고, 그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명칭을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분만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 '본질'이란 말은 잠시 접어 두고, 신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 하나님 신분을 갖춘 하나님 자신, 그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인류 전체를 이끌고, 인류 전체를 주재하고, 또한 만물을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분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그가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적그리스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이 만물 사이에서 한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더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대하는 관점, 방식, 각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정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이고, 그만이 하나님으로 불릴 자격이 있고, 그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만물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일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상 인성의 이성을 통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인류를 이끌고 있고, 그가 정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물의 모든 법칙, 모든 조화가 하나의 말로 형용하기 힘든 무형의 규칙 안에서 지배받고 안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안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어떤 위인이나 영웅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감지할 수 있는 그분이 주재하고 있다. 그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사람이 최소한 갖춰야 할 이성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물 보는 관점과 시각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성을 갖추지 않았고, 이런 사물 보는 관점과 시각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사람은 감지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명확한 말로 인류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이런 일들을 적그리스도는 우연히 발생한 일, 인위적인 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일들은 사람이 상상해 낸 일, 사람이 지어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하든, 얼마나 많은 사실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신분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안배할 수 있다고, 이런 주재자가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이라고 증명하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가 이렇게 인식하겠느냐?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실을 내세우며 증명하든 그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겉으로야 별말도 없고, 반박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지만 그는 속으로 결코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뒤에 일련의 물음표를 붙인다. 그는 하나님 신분을 믿는 사람은 바보이고 미혹당한 것이라고, 그런 건 사상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라고 믿는다. 그는 사람의 자유 의지는 당연히 자신이 다스리고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물 가운데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땅히 과학적인 방식에 따라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일률적으로 논하면 안 된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교회에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형제자매들이 많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는지를 증거하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고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았는지 증거했다. 증인과 물증이 모두 거기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더욱 믿음이 확고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는 듣고 난 뒤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느냐?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느냐? 네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아무리 옆에서 몇 사람이 그 일을 직접 증명해도 그는 믿지 않는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닌 이상, 제 눈으로 본 게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이 체험하고 겪은 건 단지 우연이고, 어쩌다 그런 것뿐이죠. 평생 동안 위험한 일 안 겪고 우연히 생긴 일 안 겪어 본 사람이 어딨어요? 우연히, 어쩌다 발생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아마 당신이 혼자 상상한 것이겠죠. 아마 당신이 운이 좋아서 귀인이 도와준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명이 길어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겠죠." 봐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그런 일들을 그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형제자매에게 한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또한 사람이 체험한 그 일들이 정말로 발생했다고도 믿지 않는다. 그는 생각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만약 있다면 그건 사람이 근거 없이 상상해 낸 거야. '낮에 한 생각을 밤에 꿈 꾼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건 다 환각이야.' 형제자매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축복,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닿을 수 없는 일을 체험했다는 말을 듣고도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역시 믿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고, 빛 비추고, 인도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모두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내고 사람의 지식으로 분석하고 이해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체험 간증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사람이 이 방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 방면에 닿으려고 노력하면 인식이 생기지 않겠어? 나도 만약 이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생각하고 몰입하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체험 간증이 나올 수 있어.'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체험 간증에 대해, 즉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깨우치고 빛 비추고, 어떻게 심판하고 형벌하고, 책망하고 징계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마련해서 사람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지 등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을 증거해도 적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아니다.

잠시 교회와 형제자매 이 범위를 벗어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대하는 관점을 살펴보자.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로병사와 사회의

변화, 정국의 변화, 재난 발생 등과 같은 일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이고 문제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인류의 운명, 사람의 생사존망, 그리고 각자가 일생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을 대할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재임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알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리 짓고 길 고친 사람은 두 눈이 멀고, 사람 죽이고 불 지른 사람은 자손이 잘된다." 이 말이 사물의 본질적인 규칙이냐? 진리이냐? 철학적 이치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생존하는 현황의 표면적인 현상이다. 사람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할수록 죄를 받아 '두 눈이 멀고', 악한 짓을 할수록 형통하고 세상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의 발전 법칙에는 이 말과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말도 있다. "착한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천 년을 산다." 이건 또 어떤 인간이 발명해 낸 소리냐? 이런 말을 민간에서는 속담이라고 한다. 이런 속담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냉소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디서나 벽에 부딪히고, 운명이 순탄하지 않고, 뜻이 있어도 펼치기 어렵고, 어딜 가든 형통하지 않는다. 자기는 능력도 좀 있고, 재주도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이름을 날리거나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출세해서 조상을 빛내지도 못하고, 어딜 가든 배제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착취당한다. 그렇다고 스스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사회도 인류도 공평하지 않아. 상선벌악도 없고, 업보 같은 이런 일도 없어.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벌받지 않고, 좋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남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결국 좋은 보답도 받지 못하지. 그러니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고. 착하게 산 결과가 '두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니 악하게 살아야 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사람들은 뜻을 얻지 못해서 인간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가 없다고, 세상에 구세주는 없다고 원망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억지를 도출해 내어 이 인류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한다. 사실상 이 모든 일이 발생한 배후에 원인이 없겠느냐? 인과 관계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 적그리스도와 이 사람들의 관점은 같은 것이다. 그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 신분을 갖춘 하나님 자신이 주재하는 이 모든 것이 공의롭다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신분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억지 논리와 그릇된 주장을 믿는다. 그는 그런 억지 논리와 그릇된 주장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남들에게 숭배와 추종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서왕모, 옥황상제, 팔선,

관음, 여래불 등이 그가 속으로 진정으로 숭배하는 대상이다. 전설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옥황상제가 최고인데, 그는 모든 죄지은 자들을 천계에서 속세로 보내 징벌받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척 감탄한다. "옥황상제는 정말 신이구나! 신의 풍모, 신의 기질을 갖추고, 신의 재능을 갖췄어!" 이런 전설과 민간에서 받드는 소위 선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은 생각한다. '소위 선인들은 기량도 크고 능력도 커서 신이라고 불릴 만하지. 인간 세상의 불공평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천계에서 해명을 들을 수 있어. 공정을 요구한다면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이야. 예를 들어 역사적 인물인 포공, 관공은 모두 영계에서 인류를 위해 정의를 신장하는 존재들이야.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법원은 불공정하지만 포공이나 관공에게 가져가면 공정이 보장되지.' 사람은 이런 민간 전설 속 인물이 인류에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악인을 징벌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바로잡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게 해 주고, 사회 밑바닥의 가난한 사람, 능력 없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고 추종하기만 하면 사람이 받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이 당하는 이 모든 능욕과 착취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가 받은 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소위 이런 보살, 부처처럼 인류를 위해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 사람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치료약이 없었다. 효성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관음보살상에 공양을 올렸다. 그는 매일 향 세 개를 피우고 맛있는 음식들을 바치며 빌었다. 만약 어머니의 병이 나아서 30 년을 더 살게 해 준다면 자신은 30 년을 덜 살아도 좋으니 어머니의 수명과 바꾸게 해 달라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남은 생은 채식만 하면서 살생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렇게 향을 피워 절하면서 빌고 정성을 바친 결과 그의 어머니 병이 나았다. 이것이 보살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뜻이냐? 그의 어머니가 30 년 더 사는 대신 그가 30 년 덜 산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이라고 확신했다. 그 후로 그는 채식만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하루는 속으로 고민이 됐다. '어머니도 다 나아서 오래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이제 금기를 깨도 되지 않을까? 닭 다리 한 개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을 건 먹어야지.' 닭 다리를 먹었을 때는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마음도 편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구토가 나오고 설사가 나더니 며칠 고생해도 좋아지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보살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벌을 내리신 게 아닐까? 전에 한 말은 정말 꼭 지켜야 하나 보는군.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에 그는 서둘러 향불 세 개를 피우고 맛있는 것을 잔뜩 올린 다음 죄를 뉘우쳤다. 그랬더니 다음 날 병이 나았다. 영험함을 목격한 그는 속으로 더욱 확신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살님은 지켜보고 계시구나. 속임수를 쓰면 안 되겠어. 자기가 한 약속은 잘 지켜야지 안 그랬다가는 보살님께 벌받을 거야!' 그 후로 그는 속으로 '보살'이라는 호칭을 더더욱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향 세 개를 피우고, 명절 때마다 공양을 바쳤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옥황상제, 관음보살, 관공 등 사람들이 모시는 이런 우상이 신이라고 더욱 입증이 되었고, 그것들은 사람 마음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사람은 마음속에 아무런 의혹도, 의심도 품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설령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집에서 이런 우상이나 진흙 불상도 모시지 않지만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심심찮게 듣거나 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처가 어떻게 병을 고쳐 주고 어떻게 자신의 정의를 행사해서 악인이 죄를 받게 했다느니, 어떤 사람은 지관을 데려다가 자기 집 안 배치를 풍수지리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지관 혹은 음양가를 모셔다가 음택을 보고 묏자리를 골랐더니 후대에 고관이 배출되거나 후손이 출세했다느니 등 이런 얘기들 말이다. 이런 얘기는 그의 마음에 하나의 인상을 남긴다. 즉,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이 생활 속에서 접하고 보는 부처나 옥황상제처럼 재주와 능력이 있고, 심지어 인류가 섬기는 이런 우상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그들은 마음속에서 옥황상제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군사와 장군을 보내어 천계에서 하늘의 법칙을 어긴 이들을 속세로 내려보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사람이 섬기는 어느 우상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 주어야 하나님 신분을 갖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 신분을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한다. 따라서 큰 붉은 용이 똬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역할 때, 형제자매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파괴되고, 하나님 사역이 방해받고 교란당하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면,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면, 형제자매가 잡혀갈 때 그분이 당연히 천상에서 이상(異象)을 나타내고 천둥소리를 내며 분노를 발산해서 형제자매를 잡아간 그 악질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놀라 꽁무니를 빼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리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지? 큰 붉은 용이 이렇게 미쳐 날뛰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왜 인류를 위해 공정을 집행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어째서 큰 붉은 용의 행보를 가로막지 않으시지? 어째서 큰 붉은 용을 징벌하지 않으시지? 설마 하나님 신분을 갖춘 하나님이 단지 말씀하고 진리를 공급할 줄만 아시는 건가? 옥황상제, 관음보살, 여래불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재주도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군.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권병이 있다고 하는데 능력은 어딨지? 권병은 어딨지?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 진리만 공급할 줄 아는 이분이 하나님인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형제자매가 잡혀가려고 할 때는 악질 경찰들 앞에 벽을 쌓거나 그들이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미치거나 멍청해지게 만드셔야지. 하나님이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속으로 음성을 듣고 혹은 강렬한 느낌이나 뚜렷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곧 위험이 닥칠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지? 환경이 닥칠 때 하나님은 왜 아무런 귀띔도 안 해 주시지? 사람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왜 그 마귀, 악질 경찰들을 제지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시지? 그들이 형제자매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봉으로 형제자매를 내리칠 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만약 옥황상제나 관음보살이라면 자기를 믿는 중생들이 절대 그런 고통을 받게 두지 않을 거고, 분명 손 내밀어 도와주었을 거야. 악질 경찰들이 눈이 멀고, 입이

돌아가고, 사시가 되고, 정신이 나가고,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고, 불치병에 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만들겠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일이 생겨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구해 주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환경을 마련해서 사람이 위험에서 빠져나가도록 해 주지도 않으셔. 악질 경찰이 맨주먹인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실 게 아니라 마땅히 손 내밀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불공평함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구해 주시는 분이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야.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기는 하는 걸까?'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적그리스도는 줄곧 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의혹이 생긴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동안에 점쟁이나 음양가를 만나면 점을 쳐서 자기 미래의 운세가 어떨지, 옥고를 치르게 되지는 않을지, 일은 순조로울지, 소인배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만약 옥고를 치르게 된다면 그걸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까지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대해 늘 관념을 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점에 늘 의문을 갖는다. 비록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긴 하지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참된 믿음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연구할수록 의혹이 생기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더욱 늘어난다. 그의 주된 관념은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인성을 갖춰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정상 인성이고 이적과 기사도 없으면 하나님임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육신이어야 하나님이다. 정상 인성만 있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설령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시종일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평범하다고 의심한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해 해결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일을 바라볼 줄은 더욱 모른다. 이것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대하든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일에서는 더더욱 관념을 지키며 죽어라 놓지 않는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만 있으면 관세음보살이든 부처든 마조(媽祖)든 상관없이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 신분을 갖춘 하나님 자신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는 아무리 많은 진리를 선포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여긴다.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자 전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야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자 전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육신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 선민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이끄는 일,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는 일, 이로써 진리를 깨닫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 등 이 모든 실질적인 사역을,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의 생각에 하나님은 신주 뒤에 숨어서 사람에게 공양을 받고, 사람이 바치는 음식을 먹고, 사람이 피우는 향으로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 내밀어 도와주고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정성껏 소원을 빌면 마땅히 큰 능력을 보여 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즉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참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하찮게만 보인다. 왜 그렇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모든 양육, 목양, 구원 사역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현세에서 일이 잘 풀려 만사형통하는 것이고, 현세에 징벌받지 않고 내세에는 천당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의 관점과 필요는 진리를 증오하는 그의 본질을 증명한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사악함을 좋아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한다. 나아가 사탄 악령의 행위, 사탄 악령이 하는 허튼소리처럼 부정적이고 사악한 것들을 천지신명으로 모시고, 진리로 모신다. 그것들을 평생 숭배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삼고, 인간 세상에서 마땅히 추앙하고 퍼뜨려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신분에 대해 갖는 관념과 생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 집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발탁되어 쓰임받지 못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매순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이런 부류 중에는 10 년을 믿은 자도 있고, 20 년을 믿은 자도 있다. 너는 그가 뿌리가 튼튼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설사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언제든 상황이 허락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는 얼마든지 거짓 신, 악령을 믿을 것이다. 만약 출세 가도를 달리며 고위 관료가 되어 이름을 떨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는 가차 없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흐름을 좇을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말한다. "하나님인데 어째서 큰 붉은 용에게 박해받고 쫓겨 다니지? 하나님인데 어째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큰 붉은 용을 멸하지 않지? 그 많은 하나님 선민이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 박해받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 선민들이 사탄의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지켜 주거나 구원해 주지 않지?" 그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과 꼭 마찬가지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 어째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지?' 적그리스도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 펼쳐 보이는 가치와 의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구구절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을 봉사하도록 이용하고 부각물로 삼아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고, 순전히 불신파에 속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주로 어떤 원인이 있느냐? 그중 한 가지 원인은, 그가 관념 속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바로잡지도 않고, 인류를 위해 정의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즉시 징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 사이에 그토록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무심하기 짝이 없고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눈에는, 그리고 그가 접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가 목격한,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모두 그의 관념에 맞지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느냐? 그는 생각한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두시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악인이 아직도 잘살고 있는 거지? 왜 가진 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거지? 왜 가진 자들은 매일 산해진미를 먹고 그렇게 호강하는데, 저 많은 사람은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 거지? 왜 착실한 사람은 멸시당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해야 하지?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매일 여덟 시간 이상 노동해도 급여는 쥐꼬리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도 안 돼서 남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거지? 사회에서, 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불공평한 일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두시는 거지? 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난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지? 왜 똑같은 사회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집안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지?'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스스로 간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모두 하나님에게 넘겨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믿은 지 3~5 년이 흘러도 답을 찾지 못하고, 8~10 년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했다. 20 년이 되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왜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아직도 그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한 번도 관음보살이나 옥황상제처럼 되어 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권병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신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셔야지! 특히 교회에는 왜 언제나 악인이 나타나 방해와 교란을 일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훔쳐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하나님이 징계와 징벌을 내리시는 걸 본 적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 믿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믿음을 중단하고 사회로 돌아가 취직하고, 몇 년 후에는 돈도 벌고 잘만 지내던데. 어떤 신자들은 사는 게 불신자들보다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생하고 수난을 당하지.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아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궁핍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어. 설마 하나님 믿는 의미가 이건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가 이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생활이 이런 건가? 사람에게 일이 닥쳐서 스스로 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왜 사람이 얼른 깨닫고 눈 뜰 수 있게 예사롭지 않은 일을 좀 해 주시지 않는 거지? 사람은 이해 못 하는 일도 많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왜 등불을 밝혀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해 주시지 않는 거지? 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는 거지? 사람이 악을 행하고 방해하고 교란할 때도 하나님은 나서서 그 악인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말씀도 한 마디 하지 않고, 악인이 벌을 받게 하지도 않으시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지 못했어. 사람에게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적그리스도 부류의 마음에서 이 모든 '왜'라는 물음은 답을 얻지 못한다. 그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왜 결코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더욱이 호전되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은 마땅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사람의 모든 생활과 정신적인 면모, 사상, 특히 삶의 질, 사람의 능력과 재주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10 년, 20 년 관찰해도 이 일들을 볼 수 없는지, 사람의 관념 속에서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은 후로 해결되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한다. 이 문제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실이 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신분을 갖춘 그분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부정당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불순물이 너무 많다. 사실 그들은 참된 믿음이 없고 죄다 위장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방인이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줄곧 의혹을 품고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모두 마음속에 감추고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게다가 위장에도 능하다. 따라서 몇 년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내내 그들은 영락없는 불신파였다. 그들은 환상을 품은 채,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상상과 관념, 그리고 사람의 전통 지식과 도덕 관념을 품은 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판단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신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최후의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신분과 본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기준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지식을 숭상하고 명인과 위인을 숭상한다. 따라서 그는 명인과 위인에게서 나오는 것들에 한 번도 다른 의견이나 반감을 가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리스도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을 보면 멸시하고, 그리스도가 그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한 것을 보면 싫어하고 증오하느냐? 그건 바로 그들이 숭상하고 좋아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는 기이하고, 사악하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한다. 반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는 적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모두 정죄받는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이 분별력이 자라고 실제적으로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생활하도록 안배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말과 행동, 이성 등 여러 면이 모두 정상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한동안 접해 본 형제자매들은 그가 말을 할 때 늘 상식에 어긋나고 두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또 별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는 늘 형제자매들에게 자기가 어떤 이상을 봤다거나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 주곤 했다. 예를 들어, 오늘 자기가 만두를 찌라는 계시를 받아서 꼭 만두를 쪄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 다음 날 마침 외출할 일이 생겨서 직접 만두를 들고 문을 나섰다. 그 뒤로 그는 또 꿈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십 리 밖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가서 봤더니 마침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했고, 상대는 그걸 받아들였다. 그는 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에게서 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매일 뭘 먹는다든가, 어딜 간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할 때도 정상 인성의 생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근거나 원칙으로 삼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찾아가 교제하는 법도 없었다. 언제나 느낌에만 의존하고, 언제나 음성과 계시, 이상한 꿈만을 기다렸다. 이 사람이 정상이냐? (아닙니다.) 그의 삼시 세끼, 일상생활을 보면 규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늘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를 분별해 낸 사람들이 그의 이런 모습은 악령이 들린 것이라고 했다. 형제자매들은 조금씩 그를 분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도져서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옷도 입지 않은 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뛰쳐나가는 등 정신병자가 되었고, 이 일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제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지 않았느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이미 분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아서 아직 이런 일을 겪어 보지 못한 탓에 쉽게 미혹될 것이다. 하지만 미혹을 받든 분별을 하든, 만약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들리는 일에 대해 참된 분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목적과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실제로 분별력이 자라고 공과를 배워서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분별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르치듯 악령이 역사하는 건 어떤 거라고 말로만 알려 준다면, 실제적인 연습과 훈련 없이 책에 나온 이론만 얘기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도리와 견해만 깨달을 것이다. 네가 직접 겪고,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만 악령이 역사한다는 게 어떤 거고 악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분별하고 저버리는 등 그런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이런 환경에서 얻은 것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은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 이성이 있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일 처리 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악령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미리 저에게 알려 주지 않으십니까? 왜 악령을 정리해서 내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는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좋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 상상이 가득하다. 게다가 마음속으로 마귀와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고, 또한 자기 마음속 우상을 참하나님이 한 모든 일과 대조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부터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은 어쩜 그리 바보 같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악령이 출현하게 허락하실 수 있겠어?' 이것은 잘못된 이해가 아니냐? 우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라면 분명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니까. 관음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그 불상에서도 눈물이 떨어져.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려 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에게 돌아가 인간 세상의 모든 고초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하나님이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기 선민들을 가슴에 품어야지 교회에 악령이 출현하게 허락하시면 안 돼. 그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그리스도는 먼저 속으로 하나님 신분을 더욱 의심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한 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이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아직도 뭐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다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 어린양을 아끼고 보호하실 거고, 두 손으로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람의 피난처이니까 사람은 어떤 고통도 받으면 안 돼. 사람에게는 그 어떤 부정적인 일, 나쁜 일도 닥치지 않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부정, 관념, 정죄로 가득하다.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의 눈에는 전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부정하는 증거와 빌미가 된다.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중공의 고문과 박해에 시달릴 때 경찰이 전기인두로 사람 몸을 지졌다. 그가 아파서 혼절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등줄기가 서늘했다. 적그리스도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참으로 지독한 사탄 마귀구나! 인성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도 없고, 수단도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 뜨고는 못 보겠어! 내가 만약 옆에 있었다면 인두를 차갑게 만들고, 또 솜으로 변하게 해서 사람 몸에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닿게 할 텐데. 마치 하나님 손이 어린양을 어루만지듯 사람 몸을 어루만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고, 사람이 더욱 믿음을 가지고, 더욱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할 거야.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군. 형제자매를 보고도, 자기 식구가 이렇게 커다란 고통을 받는 걸 보고도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왜 사탄 마귀의 손을 제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차갑게 만들지 않으시지? 인두가 사람 몸에 닿는 순간에 하나님은 왜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시지 않지? 관음보살이었다면 절대 저렇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는 중생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중생들이 조금이라도 괴롭힘 당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하늘보다 넓은 가슴,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중생을 품고 있어. 그게 정말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본인의 생각과 주장, 견해가 있다. 심지어는 '고견'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말씀에 맞춰 볼 필요도 없고, 진리를 구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증거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분을 증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분을 지닌 하나님이 갖춘 본질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명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언제나 사탄, 각종 악령, 혹은 관음보살, 부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다.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이룬 성과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의 존재를 부정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 신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본질, 그가 드러내는 생각, 그리고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속으로 품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요구, 불만, 의문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분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근본 원인에 대해 교제하고 해부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의 불의를 싫어하고 공평과 공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인성이 선량하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슴에 자비와 사랑을 품고, 사악함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부류이냐? (진리를 증오하고 싫어하며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서는 악인입니다.) 그것도 한 측면이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다리 짓고 길 고친 사람은 두 눈이 멀고, 사람 죽이고 불 지른 사람은 자손이 잘된다."라는 세상적인 이 말에 무척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가 이 세상을 슬퍼하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성질이냐? 이 말에는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뜻이 조금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과 이런 정서를 가지고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한다. "다들 하늘은 공평하다고, 하늘도 눈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보답을 받지 못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형통할까? 이 세상에 공평함은 어디에 있지? 인간 세상의 불공평한 일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다 하늘이 눈이 없고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곧 하나님에게는 공평하다고 할 만한 구석이 없고, 부처나 관음보살만 공평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 잔뜩 분개하고 원망하고, 또 부정하고 정죄한다. 이 모든 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어떤 원인 때문이냐?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로 인한 것이다. 어떤 본질이냐? 구체적으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내리는 정의에는 관념과 상상이 가득하며, 참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는 자신의 관념 상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을 평가한다. 그의 관념 상상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순전히 사탄 마왕이 인간에게 주입한 온갖 사설과 궤변을 근거로 한다. 이런 사설과 궤변은 그것이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고집스럽더라도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사람의 심리적인 필요와 감정적 필요에 부합하기에 이런 것들은 공교롭게도 적그리스도의 처신 기준과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는 근본부터 틀렸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가 속으로 세력을 좋아하고, 고급스럽고, 격조 있고, 세련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왕궁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매일 최고의 대우를 누렸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가장 좋은 것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활이 사람이 추구해야 할

생활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간은 부럽고 샘도 나겠지만 곧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한 곳에서 살아야지, 그런 생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건 아니야.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해. 우린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본분을 이행할 조건이 돼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우리 아버지는 황제가 아닐까? 아버지가 부자에 황제였다면 내 인생도 정말 살 만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아버지가 황제일까? 저자는 어쩜 사는 데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도 걱정이 없는 데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을까? 하늘은 불공평해! 저자는 능력도 별로 없어. 재능이 있길 하나, 교양이 있길 하나, 머리가 좋길 하나. 그런데 무슨 재주로 저런 걸 가졌지? 나는 왜 가질 수 없지? 나는 못 가지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다니, 정말 밉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난 하늘이 불공평한 게 싫고, 하늘이 내게 안 좋은 운명을 준 것도 싫고, 내 운이 사나워서 못난 인간이 성가시게 구는 것도 싫고, 우리 집 풍수가 안 좋은 것도 싫어!'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한번 마음에 증오심이 자리 잡으면 별의별 억지스러운 말을 다 뱉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무척 인자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속으로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들에는 긍정적인 사물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전하는 속담이나 관용어를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슬퍼하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은 것 같지만 사실 이자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승승장구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악질분자들이다. 세상에서 권력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다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정도나마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아예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기는커녕 싫어하고, 사악한 세력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고, 세상의 사악한 흐름을 좋아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 선포하고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술 더 떠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 하나님이 한 일이 사람에게 갖는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크든, 그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구세주 행세를 하려 한다. 그래서 다리 짓고 길 고친 사람은 눈이 멀지 않게 하고, 사람 죽이고 불 지른 사람은 자손이 잘되는 게 아니라 징벌받게 하려고 한다. 또 사회 밑바닥에서, 사람들 속에서 고통받고 수난을 겪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고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만들어 주려 한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잠재우고 사람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해 내려고 한다. 적그리스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박애'이자 무한한 '큰 사랑'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답지 않아. 내가 가장 하나님답고, 내가 가장 하나님 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한 일은 모두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대중들의 입맛, 대중들의 필요에도 맞지 않아. 대중들의 필요, 대중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고, 중생을 제도하고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야."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야심과 본질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천사장이고 마귀 사탄이다. 그가 하나님의 신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가슴에 큰 사랑을 품은 자신의 이런 모습, 성품, 본질은 하나님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보면 이 세상을 슬퍼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갖추지 않았고, 이런 가슴과 도량, 이런 어진 덕성, 이런 큰 사랑을 갖춘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과 본질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만약 네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한다면 너에게 원망을 품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를 따른다면, 그의 신분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고, 그에게는 부처와 같은 가슴과 큰 사랑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뻐하며 너에게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가 이 방면에서 드러내는 본질은 사악함이 아니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를 칭송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모든 일, 치른 대가를 증거해도 그는 속으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일은 내가 치켜세울 수 없지. 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 그건 모두 사람이 혼자 김칫국을 들이켜는 거고, 사람의 상상이야.' 네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심,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을 증거하고, 창조주가 사람에게 한 이 모든 일을 증거하면 혼자만 속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째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야? 나도 당신을 꽤나 양육하고 붙잡아 줬잖아. 나도 아직 당신을 사랑하며 도와주고 있다고.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땐 그래도 내가 붙잡아 주고 교제해 주고, 또 함께해 줬는데, 어째 내 칭찬은 하지 않는 거지?' 누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미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분이 언짢고 그 사람을 질투하여 미워한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상대가 하는 얘기와 상대가 교제하는 체험 간증에 아멘 할 것이다. 또한, 자세히 경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다니,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앞으로 저런 일을 만나면 진리를 구해야겠어. 그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는데, 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는 지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죄송스럽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나는 깨닫지 못했어. 이제 보니 내 분량이 그보다 작고, 또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질도 부족하구나. 분량이 어리고 작은 나 같은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어. 그는 시련 앞에서 대체 어떻게 돼서 연약해지지 않지?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있어. 내가 그런 환경을 만나면 연약해져서 아마 쓰러졌을 거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분량이 작은 걸 아시고 그런 환경이 닥치지 않게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행사는 다 좋아!'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말을

들으면 싫어한다. '뭐? 하나님 행사는 다 좋다고? 어디가 좋다는 거야? 하나님 행사가 다 좋다면 사람이 왜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지? 하나님 행사가 다 좋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출교되는 거지? 하나님 행사가 다 좋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방해와 교란이 생기는 거지? 나는 좋은 일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힘도 들이고 봉헌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기도 했는데, 다들 왜 내 칭찬은 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보답이나 상을 안 주시지? 다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기가 부끄러우면 뒤에서 해도 되는데, 어째서 아무도 나를 칭찬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없지? 설마 나에게 칭찬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건가?' 그는 속으로 기분이 언짢다. 평범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별 느낌이 없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증거하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미워하고 질투한다. 누군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피조물답게 처신하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창조주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자 하면 적그리스도는 듣기만 해도 속으로 싫어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쩜 그리 기꺼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내 말 한 마디 따르는 건 왜 그리 어려워하는 거야? 내 말도 틀린 데가 없다고!'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추종자가 되어 언제나 자기를 칭찬하는 걸 좋아한다. 입만 열면 자기 얘기를 하고, 항상 자기를 마음에 두고, 꿈에서도 자신의 좋은 점,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칭찬하기를 바란다. 그가 병이 나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을 이어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고, 몇 날 며칠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본보기로 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한을 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요컨대, 적그리스도 부류는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신분과 본질을 지닌 이 한 분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행한 모든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2)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는 두 번째 모습,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신분을 지닌 창조주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적그리스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 데도 역시 사실적 근거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믿음과 인식, 이해는 사람의 관념과 상상 위에 세워지고, 우상에 대한 사람의 인지와 이해 위에 세워지고, 그 우상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 위에 세워진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관념과 상상,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배되는 것이냐?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이 모시는 그 우상들, 그것들은 인류 가운데 발붙이기 위해 사람의 관념 상상과 입맛에 맞는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내세우며 사람을 미혹한다. 이를테면 "부처는 자비롭다.", "하느님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덕이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7 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 "운명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지게 되고, 운명에 없으면 억지로 구해도 가질 수 없다."와 같은 말들이 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머리 위 삼척에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머리 위 삼척이 어떤 곳이냐? 그건 공중이고 사탄이 머무는 곳이다. '천지신명'은 어떤 것이냐? (사탄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자주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응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늘 말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이런 속담이나 철학 이치를 진리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말들이 진리겠느냐? 진리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응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착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의나 진리겠느냐, 아니면 사람이 가진 약간의 좋은 마음이겠느냐? (사람의 좋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 약간의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다리 짓고 길 고친 사람은 두 눈이 먼다."라는 말에서 다리를 짓고 길을 고치는 것은 착한 마음인데 어째서 두 눈이 머는 것이냐? 좋은 결과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것은 나쁜 일인데 나쁜 결과가 생기겠느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느냐? "사람 죽이고 불 지른 사람은 자손이 잘된다."라는 이 말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말을 부정했다. "응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에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이런 말이나 주장을 긍정적인 사물로 간주하고 진리로 여긴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소위 이런 옳은 말을 정신적 지주, 일종의 정신적 위안으로 삼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괜찮아. 살다 보면 희망이 있을 거야. 이 세상은 그래도 공평과 공의가 살아 있어. 정의가 지켜지고 있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 결국 이 모든 것은 설명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사람의 이런 주장이 과연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인식이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참된 모습이겠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런 격언이든, 속담이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겠느냐? (그런 말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일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이 도리처럼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그 말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전에도 교제했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일을 대하든 방관자의 관점에서, 돈과 권력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다. 이런 관점과 입장에서 모든 일을 대하면 문제의

본질이 변하고 달라지지 않겠느냐?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모든 일의 발전 법칙이나 발전 규칙을 바라본다면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유물론자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의 처세 철학과 수단, 방법, 방식을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게임의 룰을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이고,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유물론자는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이 권력을 얻으려면 첫째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부리는 데 능해야 하고, 셋째는 독해야 하고, 넷째는 변덕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유물론자의 관점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바라보는 이 몇 가지 관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이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에게 사악한 본질이 없다면 그가 '사람을 부리는 데 능하다'는 말을 생각해 낼 리가 있겠느냐?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사람은 변덕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 흉악한 본질이 없다면 '독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의 본질에 의해 생겨난 여러 가지 생각은 그가 단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가 처세하고 처신하는 원칙이 그런 것이겠느냐? (그의 처세 원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정리해 낸다. 따라서 그의 수단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노련해져서 결국 악랄해진다. 악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주 모질고, 독하고, 음험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질고, 독하고, 음험한 그의 이런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젊어서건 나이가 들어서건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철학과 법칙, 게임의 룰, 수단, 경험을 따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위배되느냐? (위배됩니다.) 자신이 정리해 낸 그 모든 법칙들을 집행할 때 적그리스도가 받드는 원칙이나 취지는 무엇이냐? 그의 동력은 무엇이냐? 그는 말한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줄 알아야 해요. 모질고, 독하고, 음험해야 한다고요. '도량이 좁으면 군자가 아니요, 배짱이 없으면 장부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느니, 하늘의 안배를 기다린다느니 하는 건 없어요! 벼슬아치든 제왕이든 다들 흉악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그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다들 싸우고 죽여서 얻어 낸 거 아니에요?"라는 뜻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깥세상에서 적그리스도는 이 생존 법칙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같은 수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같은 인생 법칙을 신봉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관대해지거나 개과천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출세하려면 수단을 쓸 줄 알아야 해요. 다 같이 있는 자리, 특히 이름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라면, 어떻게든 자신을 나타내서 우두머리나 윗사람, 상부의 눈에 띄어야 발탁되고 중용될 기회가 생기고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생기죠. 그 밖에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반드시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하고 기만할 줄 알아야 해요. 남들 앞에서는 좋은 일만 하고, 못된 짓,

나쁜 짓, 엉큼한 짓,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남들 뒤에서만 해야 하죠. 절대 그 누구에게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자신의 가장 좋은 면만 보여 주면서 잘 위장해야 하고, 꼬리가 아무리 길어도 잘 감추면서 인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인심을 잃으면 그땐 늦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도 이런 수단과 생존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인식한 형제자매들이 하는 모든 간증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말한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리하고 짜깁기하면 그런 체험 간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다 사람이 상상해 낸 거고 다 가짜예요.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짜깁기라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 편이고 스무 편이고 다 가능하지만 귀찮아서 안 할 뿐이라고요. 당신들의 그만한 수법도 제가 눈치 못 채겠어요? 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한다고 듣기 좋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야말로 자신을 증거하고 두각을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이 모든 증거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의 온갖 환경이나 국면, 각국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는 간파하지 못한다. 외부 환경을 지키거나 바꾸거나 마련하는 등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그는 간파하지 못한다. 그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는 건 형식적인 말이야. 사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정권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나라 정권과 법률의 제약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는 말은 빈말이 되는 거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주재하신다고 한들 그 나라의 정권과 법률을 뛰어넘으실 수 있겠어?' 따라서 외부 환경이나 국면이 교회에 불리하고 교회 사역에 불리하면 적그리스도는 뒤에서 은근히 좋아하고 비웃으면서 마귀의 몰골을 드러낸다. 교회 사역이 모두 순조롭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로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 외부 환경의 방해가 없고 형제자매의 내적 상태가 갈수록 좋아질 때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꿈틀댄다. 그는 죽도록 질투가 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며 증오한다. 왜 증오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하는 곳이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실현되고 검증되는 곳이다. 교회가 잘되면 하나님 권병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사실이 존재하고 증명되면 적그리스도에게는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일이다. 뺨을 맞은 후 그가 즐겁고 평온하고 위안이 되겠느냐, 아니면 불복하고 분개하겠느냐? (불복하고 분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겉보기에 교회의 상황, 형제자매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으면, 이들이 박해받고, 억압받고, 배척당해서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으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사역과 교회 생활이 모두 나날이 발전하고 새로워지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언짢아한다. 왜 언짢아하겠느냐? 그 일이 자신의 관념에 너무나 맞지 않고,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재와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어 자신의 관점이 뒤집히면 그는 괴로워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사상

관점과 불만의 정서로 볼 때, 그는 큰 붉은 용과 한통속이 아니겠느냐? 큰 붉은 용과 본성 본질이 같지 않겠느냐? 완전히 같다.

온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따르는 법칙과 규칙을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바라본다. '대자연은 오래전에 형성되었고, 사계절도 오래전에 형성되었어. 추위가 길어지면 더워지기 마련이고, 더위가 길어지면 추워지기 마련이야. 나뭇잎이 떨어져야 할 때는 바람 한 번 불면 떨어지지.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 아닌가? 이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주재라는 거지? 어째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어떻지? 사람들은 지금 많은 동물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고, 인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 다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고 하던데,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하시는지 보이지가 않지? 다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고 하던데, 그러면 악인은 왜 늘 잘 풀리고 좋은 사람은 왜 늘 득세하지 못할까?'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세상에 구세주라는 건 없어.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 세계 여러 나라의 위인이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국면을 바꾸고 있어. 만약 그런 위인이나 능력자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이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하시지? 나는 왜 느껴지지 않지? 나는 왜 인식할 수 없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에는 어째서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많지?' 그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할 때 나타내는 성품, 하나님의 행사 원칙, 하나님의 본질 등에 대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살아생전에 겨우 한두 가지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창조주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한두 가지 인식하더라도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한 많은 사역이 모두 하나님 신분과 지위에서 한 것이고, 피조된 인류의 사상, 인지와는 영원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체험하는 일 중에서 한두 가지 인식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이를 수 있고, 이해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를 수 있다. 반면 자질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두 가지에도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로 볼 때 사람은 영원히 창조주의 생각에 닿을 수 없다. 네게 한두 가지 인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말세의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진리를 깨닫고 체험한 후에야 이를 수 있다. 그러려면 필생의 에너지를 바쳐야 한다. 하나님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인 경우, 그들의 본질로 말하자면,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신분 본질과 관계된 그 어떤 일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영원히 인정하지 못한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진리를 부정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 신분 본질은 더욱 증오한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얼간이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영원히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에는 많은 일이 포함되고, 많은 진리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분 본질과도 관계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재하는 만물 사이에서 어떻게 만물을 지배하겠느냐? 방식에서, 시간에서, 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겠느냐? 이 몇 가지로 보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 영적인 이해력이 전혀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얼간이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을 영원히 인식할 수 없다. 영원히 인식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인식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인식한다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추리일 뿐이다. 추리는 그저 논리에 부합할 뿐이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의 진상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잠시 제쳐 두고 천사장, 사탄, 마귀, 큰 붉은 용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것들이 하나님 선민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사역을 교란하자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것들을 안절부절못하고 허둥대며 어쩔 줄 모르게 하였다. 대응할 수가 없게 되자 그것들이 최후에는 용서를 빌며 말했다. "다시는 하느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큰 붉은 용도 하느님이 있다고 인정했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맞서려 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자 용서를 빌며 다시는 하느님과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굴복하고 용서를 빌었겠느냐? 아니다. 그것들은 숨을 돌리고 나면 또 싸운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고,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일 중에서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매우 미시적인 일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에 대해, 만물은 너무 크고 거시적이어서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이 멀어 꿰뚫어 보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순종하겠느냐? 이해하겠느냐? 인식하겠느냐?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더욱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는 현실 생활에서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은 모두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한 것을 두고 그는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라고, 자신은 날 때부터 명문 대학에 들어갈 재목이었다고 얘기한다. 삶이 잘 풀리고 돈을 벌게 되면 그는 자신이 태생적으로 부자가 될 재목이었다고, 점쟁이들도 자기에게 인생이 순탄할 것이고 관운도 있고 재운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면 그는 원망을 품는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내 운명은 왜 이 모양이지? 운도 나쁘고 말이야!' 그는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우쭐대며 기고만장해서 건방을 떨고 극성을 부린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면서 사태를 되돌리고 벗어날 궁리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은 다 좋다고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사태를 되돌리거나 벗어나거나

바꾸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모든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운명이 이렇게 안 좋고, 제 운이 이렇게 형편없다고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믿지 않고, 저처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빛 볼 날이 없다는 것도, 저처럼 귀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없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요. 사실 운명이란 빈 껍데기이고 한낱 주장일 뿐이에요. 스스로 쟁취하고 노력해야 하죠. '고생을 해 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최고의 신조예요. 언제라도 이 말을 잊지 말고 이 말로 스스로를 격려해야 해요."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좋다느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느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한다느니 하고 떠들지만 결국에는 "고생을 해 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한다. 겉으로 하는 말은 모두 영적인 말이지만, 뒤에서 시행하고 실행하고 따르는 원칙은 모두 사탄의 처세 철학과 논리적 사고이다. 여기에 일말의 순종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한다. 이런 모습과 사례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겠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정죄하겠느냐?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든,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재만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밥 짓는 건 자기 손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저 입만 벌리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있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재하신다고 해도 사람이 노력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적그리스도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 그릇되게 해석하기까지 한다. 그릇되게 해석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원하는 모든 이익을 쟁취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핑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의 진짜 관점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불신과 부인, 정죄,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관점이다.

오늘 교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를 해부해 보았다. 교제를 듣고 나서 어떤 인식을 좀 얻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어서 고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이자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 멸해져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냐? 너희는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변할 수 없겠느냐? 어떤 부류는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인테리어도 궁궐처럼 하고 고급차도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보면 마음이 들썩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돈이 좋긴 좋구나. 벼슬이 좋긴 좋아.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어쩜 저렇게 운이 좋을까? 어떻게 저 돈을 벌었을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만 보면 특별히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고 아첨해 댄다. 상대에게 무슨 일이든 해 주려 하면서 어떻게든 굽실대지 못해 안달이다. 그는 사회의 사악한 흐름을 무척 좋아하고, 한술 더 떠서 언제나 그

안에 휩쓸리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괴로워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내쳐졌다고 생각한다. 외롭고, 무기력하고, 기댈 곳도 없고, 위안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늘 이것 때문에 슬퍼한다. 또 어떤 부류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워서 늘 그 일을 입에 올리며 칭송한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돈 있고 백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감옥에서 며칠만 있다가 나왔어요. 저런 게 능력이죠!" 그는 사회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러러본다. 또 어떤 부류는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무척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인다. 심지어 정치와 관계된 일에 무척 참여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몸담고 싶어 한다. 앞서 말한 이런 자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적그리스도와 똑같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적그리스도와 한패이다.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 속하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요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하다. 설령 아직은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지위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사악한 세력과 한패이고, 사탄과 한패이다. 그들은 사악함을 숭상하고, 마귀 사탄이 내세우는 그 어떤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유행하고 퍼지는 그 어떤 사악한 흐름도 모조리 숭상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집과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수요 적그리스도이다.

2020 년 11 월 14 일

제 15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2)

오늘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제 15 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 교제해 보기로 하자. 지난번 이 주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제했는데,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부정한다'이고, 둘째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부정한다'이다. 지난번에는 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일이 진리이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의와 진리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교제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며, 사탄의 모든 견해와 관점을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저울질한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한 일을 높이 받들고 숭배하고, 급기야는 칭송하고 찬미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그것으로 대체하려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이 한 모든 일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의문을 품고,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여 결국에는 정죄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명과 진리, 자신의 인생 방향과 목표로 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서고, 언제나 관념과 상상, 사탄의 사고와 논리, 사탄의 성품과 방법 등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가늠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추측하고, 관망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부정한다.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행위와 그의 갖가지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진정한 신자도 아니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신 진리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자들이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은 첫째, 최소한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고, 둘째, 유행을 따르려는 것이고, 셋째, 복을 받고 싶어서이다.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것에 불과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을 계획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 원칙으로 삼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로 삼을 계획도 전혀 없다. 또한 자신의 관점과 관념을 바꾸거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계획도 전혀 없다. 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능력과 은사와 재주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자랑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집에서 우러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 자신들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생에 백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이런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계획을 이루려 한다. 그들이 이런 야심과 욕망, 계획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그들이 주관적으로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내려놓고 해결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들은 결코 그럴 계획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폭로하든 관계없이, 설령 그가 맞춰볼 수 있더라도, 설령 그가 자신의 계획과 생각, 자신의 속셈이 하나님 말씀과 대립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굳게 고수한다. 또한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관점을 돌이키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폭로,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강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데 어처구니없이 교만하다. 아울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깊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의 본성 본질과 각종 패괴 성품에 대해 폭로한 것을 증오한다.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며, 심지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증오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이 확실히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도 남는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근거 없는 미움과 적대시, 반발, 판단, 부정 또한 적그리스도 부류가 확실히 흉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적그리스도의 각종 성품은 패괴된 인간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것이며, 그의 여러 성품은 그 어떤 보통의 패괴된 인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 성품을 아무리 깊고 자세하게 폭로해도 적그리스도는 그저 부정하고 거부하며,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사람이 충분히 악하고, 모질고, 사악하고, 독하고, 악랄해야만 마지막에는 굳게 설 수 있고, 이 사회와 사악한 조류 속에서 독자적인 자리에 서며 끝까지 설 수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논리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본질,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전능함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고 증오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증거해도, 그 증거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진실해도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님이 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 안에 구할 만한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최고의 교재, 최고의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이 알게 모르게 하는 사소한 일에도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인류 사이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든 비천하게 여겨지든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고, 숭배하고, 추종한다. 그런데 유독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부처가 자신이 사람을 극락세계로 제도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적그리스도는 생각한다. '이 극락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천당보다 한 단계 낮아서 그다지 이상적인 것 같지 않군. 비록 사탄은 만능이어서 사람에게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람의 온갖 야심과 욕망을 채워 줄 수 있다지만, 유독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줄 수 없단 말이야. 사탄은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하지 못해.'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그것이 참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을지,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채워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고민한다. 그는 계속해서 저울질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해 하나님 집에 몸을 의탁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과연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행사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점에 대해 그가 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찬미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 받들고 증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고 구슬린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롱하며 하나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인류, 만물이 창조주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해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관점, 그가 지니고 있는 모습과 표출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런 관점과 모습을 보인다면, 성육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가 참되게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는 일에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 더욱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뚜렷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제해 보겠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교제하고 폭로하고 해부한 후 너희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느냐?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사역 혹은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정확히 말하면 투기하러 온 불신파이자 바리새인이다. 어떤 이는 겉보기에도 악인이 분명하고, 어떤 이는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고 행동거지도 우아하고 단정하고 고상한데, 이런 자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외형적으로 악한 부류, 외형적으로는 악하지 않고 경건한 부류, 이 두 부류가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로 불신파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불신파의 경우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을 대하는 모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교제하려는 내용이다.

1)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출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라는 이 특수한 신분을 지닌 보통 사람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신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람들 관심의 초점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출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교제해 보자. 이 방면에 대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 육신 출신의 여러 면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것부터 교제해 보겠다. 다들 알다시피 은혜시대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이었는데, 지금 말로 하면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다. 부잣집이나 관리 집안, 배경 좋은 가문도 아니었다. 심지어 예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이 점은 너무나 뜬금없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첫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출신에 관계된 여러 면을 보면 성육신 하나님이 태어난 가정은 매우 평범했다. 어머니 마리아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출중한 인물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가 비범하고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얘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녀가 불신파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목수였다. 목수는 수공업자로 수입은 보통이었으나 부자가 아니었기에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생활은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럭저럭 사는 정도였다. 예수가 태어난 이런 가정은 지금 사람의 수입과 생활 수준으로 가늠해 보면 간신히 중산 계급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은 인류 사이에서 고귀한 편이냐, 미천한 편이냐? (미천한 편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태어난 가정은 명문가나 부유하고 이름 높은 집안도 아니었고, 요즘 말하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집안이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부잣집이나 지위 있는 집안 아이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주위를 에워싸며 옹위해 주지만 예수가 태어난 가정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높은 지위와는 거리가 먼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무도 주목하거나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떠받들거나 옹위해 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그런 배경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등 교육을 받고 상류 사회의 각종 생활이나 사상 관점 등에 영향을 받거나 물들 조건이 되었겠느냐? 당연히 그럴 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가 받은 것은 서민 교육이었다. 그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수의 출신과 성장 배경은 대단할 것이 없고, 사람들이 상상하듯 고귀한 배경도 아니었다. 그의 성장 환경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 단순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의식주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서 특별할 것이 없었으며, 상류 사회의 특별하고 우월한 생활 조건은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출생 배경과 성장 환경이었다.

이번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비록 성별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르지만 그 출신은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하고 내세울 만한 지위도 없는 가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평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평범함은 곧 대중화된 생활 환경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즉, 급여로 생활하며 그럭저럭 사는 수준이었고, 부잣집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접한 이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그리스도가 접한 생활 역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별로 특별한 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악기나 바둑, 서예, 그림을 배울 조건이 되느냐?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접할 기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예를

배울 조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의 사람과 일, 사물을 접할 기회는 더더욱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출생한 가정은 매우 평범하다. 부모는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직장에 나가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 조건은 보통이었다. 이런 조건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평범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가 출생한 환경은 이방인들이 볼 때 우월한 조건도 없었고, 가정 배경에서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어떤 명인은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선조들이 모두 교육자에다 고급 지식인들이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절로 학자 집안의 기질과 기품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도 이런 가정 배경을 선택했느냐? 아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내세울 만한 가정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도 없고, 우월한 생활 환경은 더더욱 없었는데,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왜 성육신 하나님이 굳이 이런 가정, 이런 생활 환경과 성장 배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제쳐 두고, 이 방면의 의미는 우선 접어 두자. 그리스도가 대학을 다녔는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내막을 알려 주겠다. 나는 대입을 치르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열일곱 살에 집을 떠났다. 내가 대학을 진학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관점이다. 이 일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뭘 감추거나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그런 건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과 조금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성육신 하나님의 출생 배경, 가정 환경, 성장 환경 등 이 몇 가지 요소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육신을 인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크게 관계도 없지만 어째서 여기서 이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하겠느냐? 그건 바로 오늘 해부하려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관점 중 하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내세울 만한 지위나 존귀한 신분, 내세울 만한 가문, 사회적 배경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월한 성장 환경, 걱정 없고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성장 환경은 더더욱 선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등 교육을 받고 상류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배경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육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몇 가지 측면을 볼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려는 사역에 영향을 주겠느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후기 사역의 과정, 사역의 성질과 성과로 볼 때 하나님 사역의 계획과 절차, 사역 성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출생 환경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선민이 구원받는 데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택한 99%가 모두 같은 배경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인식해야 할 성육신 하나님의 출신에 담긴 한 측면의 의의이다.

앞서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과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의 출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부해 보자. 먼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출생 환경과 배경을 속으로 은근히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냐? 속으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야. 하늘보다 높고 인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시지.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극히 높으셔야 해.' 지극히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이의 머리를 밟고 서야 한다는 말이다. 지위가 높고

존귀한 대갓집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야 하고,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고, 절대적인 권위, 권병과 세력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무척 부유한 재력가여야 하고, 동시에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태자처럼 일대일로 공부하고 귀족 학교도 다니면서 귀족 같은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자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부하는 교재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왕이 되기 위해 왔기에 제왕술을 배워야 한다.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는지 공부하고, 삼십육계를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언어와 악기, 바둑, 서예, 그림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사역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건 그가 충분한 지식과 재능을 갖추고, 또한 사람을 다스릴 독심술(讀心術)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의 출신에 대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념을 품은 채 성육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 일을 다시 인식하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관념과 관점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점을 인식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태도와 원칙으로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관점과 관념으로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씀을 판단한다. '그리스도가 한 이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고, 저 말씀은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고 문법상으로도 잘못됐어. 딱 보니 그리스도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하는 말 아닌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리스도를 탓할 수도 없지. 사실 그분도 존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야. 태어난 가정이 좋지 않으니까. 부모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보기에 왜 그다지 우아하고 고귀하지 않지? 어째서 사회의 지적이고 고상한 사람들, 상류 사회의 공주나 왕자와 같은 언행이 없지?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어쩜 그의 신분과 이렇게 맞지 않아 보이지?' 적그리스도는 이런 관점과 관망적인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하는 말,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의 언행을 바라본다.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관념이 생겨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도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 그는 말한다. "이렇게 평범한 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분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 바람과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너무 평범해서 하찮게 보일 정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평범하고 일반적이라고 느껴질수록, 그리스도가 너무 정상적이라고 느껴질수록 속으로 자신이 높고 크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몇몇 적그리스도들은 비교하기 시작한다. '보아하니 나이도 어리고 잘 꾸밀 줄도 모르시네. 사람들이랑 얘기할 줄도 모르고. 남들하고 말할 때 넘겨짚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왜 곧이곧대로 말하지? 당신이 말씀하는 것이 왜 하나님답지가 않지? 어떤 점이 당신이 하나님임을 보여 주지?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언행, 당신의 차림새가 어디가 하나님다운가? 내가 볼 땐 닮은 데가 전혀 없어. 그리스도는 당연히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언변이 뛰어나야 하는데, 당신은 늘 했던 말을 반복하고, 어떤 때는 단어 사용도 부적절해.' 적그리스도 부류는 그리스도를 수년간 따르고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육신 하나님인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속으로 더욱 멸시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한 그리스도의 출신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이어서 사회에서나 인류 가운데서 자신에게 어떤 혜택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런 이익도 누리게 해 줄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은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누구누구 집 자식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게 어때서요? 당신이 나를 어쩔 건데요? 당신 집이 대단한 집이고, 부모가 고위직이라도 되면 내가 그래도 당신을 두려워하겠지만 당신이 이런데 내가 당신을 겁낼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증거하는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는 겁 안 나요! 나는 계속 뒤에서 당신을 판단하고 당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멋대로 평가할 거고, 할 일 없으면 당신 가정, 출생 지역을 연구할 겁니다." 이런 건 다 적그리스도가 트집을 잡기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결코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념과 상상에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판단하고 반발한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선포한 것이 모두 진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적그리스도는 권세와 지위를 무척 숭배하기에 그리스도가 만약 권세 높은 명문가 출신이면 그들은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서민 가정 출신에 권세도 없으면 그는 전혀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연구하고, 판단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 이 사람이 곧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말과 행동을 삼가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들이냐? 이건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약 네가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네가 따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너는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감히 원칙을 거스르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까닭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물론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적대감을 품는다. 적대감을 품으면서도 손을 떼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정당한 직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틈만 나면 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탐문한다. "그리스도가 돌아왔나요? 저 집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생활이 여러 면에서 달라졌나요?" 틈만 나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다닌다. 이들은 가증스럽지 않으냐? 역겹지 않으냐? 비열하지 않으냐? 비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는 일단 제쳐 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추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들의 인품은 어떠냐? 비천하다. 하나같이 천한 인간들이고, 극도로 비열하고 추잡하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면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도 좋다. "당신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뒤에서

당신을 판단해도 당신이 나를 어쩔 수 있나요? 내가 당신을 부정하면 당신이 나를 어쩔 건데요?" 네가 믿지 않겠다면 믿어 달라고 사정하지 않겠다.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뒤에서 그런 얕은 수작을 부릴 필요는 없다. 그런 수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네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네 생명이 자라거나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런 역할도 못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적어도 한 가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인성이 극도로 비열한데,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믿지 말고 물러가거라! 왜 아직도 하나님 집에서 버티면서 가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복은 받고 싶고, 야심과 욕망까지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비열한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열함이 극에 달해서 이런 기가 막힌 짓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집을 20 년간 떠나 있으면, 그들이 그 집을 20 년 동안 '특별히 보살폈고', 30 년을 떠나 있으면 30 년 동안 '보살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지, 그렇게 한가한지 궁금했다.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겉으로는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감시하고, 트집 잡고, 적대시하고,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러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믿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하나님 집에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 웃음거리가 되지 마라! 너희가 만약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놓인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만약 너희도 그럴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하려는 적그리스도 무리이다. 그들은 죽어도 손을 떼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게서 꼬투리를 찾고 증거를 찾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본질과 하나님 신분을 부정하려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든 틀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출생 환경과 배경이 평범하든 대단하든 틀림이 없고,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거리가 하나도 없다. 네가 만약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어떤 트집이나 증거를 잡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증명하려 한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너는 찾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나가거라. 그러면 이 골칫거리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뭐 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리스도에게서 트집을 잡고 증거를 찾아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네 정당한 직업도 아니고, 네 본분도 아니며, 네 책임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든, 어떤 인성을 갖추었든 그것은 하나님 자신, 즉 창조주의 선택이지,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옳고, 어떻게 하든 진리이고, 어떻게 하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평범한 가정이 아닌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너 같은 일개 서민, 비천한 사회 하층민이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럴 기회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해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잘못이냐? 이것은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사랑이고 가장 긍정적인 사물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행한 가장 긍정적인 사물을 하나님이 괴롭히고 놀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감시하고 트집을 잡으려 한다. 너는 무엇을 감시하는 것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성도 믿지 않으면서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따른다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뭐 하러

이런 장난을 치느냐? 재미있느냐? 그 후 나는 나중에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접할 때 호기심을 보였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상대하지 않았다. 네가 만약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내 개인적인 정보만 캐려 한다면 물러가거라. 나는 널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많이 듣고 하나님의 사역과 목양을 이토록 오랫동안 받아들이고도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모자라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천 년 전, 바울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또한 미친 듯이 박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백성 중 한 명으로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소위 말하는 교육, 물듦,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눈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는 신분이 미천하고 별다른 지위도 없으며 인간 사회에서 낮은 계급의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필사적으로 대적했다. 정부를 이용하고 자신의 세력과 호소력을 이용해 예수를 정죄하고 대적했으며, 예수가 하는 사역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갔다. 그는 예수를 대적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한 일은 정의롭고 자신이 정의로운 힘을 상징한다고, 자신이 대적하는 상대는 하나님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출신이 고귀하지 않고 미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무척 편안하고 평안했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네가 예수가 하나님이 입은 육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의 설교와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평범한 사람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악랄한 수법을 쓸 필요가 있느냐?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꾸며 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와 사람을 두고 다툴 필요가 있느냐? 네가 지어낸 거짓말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더냐? 예수가 한 일 중 어떤 것이 네 이익과 지위에 영향을 주었느냐? 없다. 예수는 하층 사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했고, 적지 않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이는 바울 같은 사람의 생활 환경과는 전혀 결이 다른 세계였다. 그렇다면 그가 왜 예수를 박해했느냐?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 본질의 농간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당신 설교가 아무리 수준 높고 옳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조한다고 해도 내가 당신더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내 눈에 거슬리면 당신을 박해하겠어. 아무렇게나 죄명을 씌워서 끝까지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에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맞게 행해지거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적그리스도들은 거리낌이 없이 판단하고, 부정하고, 정죄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가 바울을 친 후 바울은 마침내 "주여 뉘시니이까"라고 인정했다. 예수는 "내가 바로 네가 대적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의 출신이 미천하다고 해서 그리스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고, 그에게는

권병이 있어서 말씀으로 사람을 칠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을 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을 치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 어쨌든 당신이 예수인 이상 나는 당신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어. 내가 절하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바울은 예수가 자기를 친 일로 인해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의 생각에 예수가 자기를 친 것은 비록 나쁜 일이지만 그 덕분에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특수한 신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꿀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지고, 평범한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가?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이고 당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야. 당신은 서민들 가운데서 자랐고 당신 가정의 사회적 지위도 낮은 데다 당신 본인도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당신이 교회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인정하나? 당신 학력은 어떻게 되지? 당신 부모는 학식이 높은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나는 지식수준이 높고, 상류 사회만 접하며, 부모 또한 많은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배경도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이 말에 숨은 뜻은 무엇이냐? '예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나 바울처럼 이렇게 비범하고,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예수가 세상에 있었을 때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회개의 도(道)를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게 전부 아닌가? 그 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승천했어. 그게 뭐가 어렵지? 나 바울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고 존귀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어. 예수처럼 사람들 사이를 많이 다니면서 인지도를 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내게서 이익을 얻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신분을 낮추고, 설교와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사람을 더 많이 얻는다면,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자잖아? 예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나 바울이 못 될 게 뭐야? 식은 죽 먹기지! 나도 예수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람들 사이를 다닌다면, 예수와 똑같은 신분,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 않겠어?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조건을 갖추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의 신분에 대한 그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그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가 사역하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즉 후천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땅에서 입은 육신이고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입은 육신임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들은 바울과 같다. 먼저 그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과 야심을 가지고 있고, 바울과 같은 행동을 한다.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들의 야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은 성육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느 관점에서 보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보든 거기서 진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리스도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면 그 그리스도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무런 출신 배경 없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등장한다면 그 얼마나 경이롭고 비범한 일이겠느냐는 것이다!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것, 범상치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 호기심을 채우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는 차라리 그런 그리스도를 따를지언정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서 태어난 영락없이 평범한 사람,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뒤흔들지도 못하는 이런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한동안 관찰한 후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규칙을 도출해 낸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흉내 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말투, 말하는 방식과 어조,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어휘도 흉내 내고, 심지어는 숨소리나 기침 소리까지 흉내 낸다. 흉내 내는 것이 무지의 소치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냐? 평범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평범한 말 몇 마디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좋아하며 속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겠느냐, 아니면 속으로 불쾌해하고, 분개하고, 적대감을 느끼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겠느냐? (부러워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됐지? 나는 왜 아닐까? 당신, 몇 개 국어나 할 수 있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줄 아나? 당신이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줄 수 있지? 당신에겐 어떤 은사와 특기가 있나? 어떤 능력을 가졌지? 당신은 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 거야? 당신, 고작 이 정도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었다면, 내 능력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는 이 일에 공을 들이려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를 보면 바울의 관점에 더없이 찬성하면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실현 가능한 꿈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착실한 사람이 되고 착실한 피조물이 되라고 하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이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고 다 좋은데, 다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째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양육과 목양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생긴다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도 평범한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만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당신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 하나님의 생명이 생겨서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적그리스도 부류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평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들의 욕망과 야심은 그들을 부추긴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은 무능한 모습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 말고도 자기만의 더 높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추구해야 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목표야! 얼마나 사람을 고무시키는 목표냐고!' 이런 생각은 어떠냐? 권장할 만한 생각이냐? 정상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냐?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본질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판단하고, 시험하고, 부정하며 정죄하는 언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뭐 두려울 게 있어? 당신도 사람일 뿐이잖아?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내가 당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어때서? 당신을 감시하고 연구하는 게 어때서? 그건 내 자유지!'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의 이런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이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20, 30 년동안 그리스도에게 맞서며 속으로 계속 그리스도와 힘겨루기를 한다. 사실을 알려 주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 그건 네 자유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성육신 하나님을 대한다면 분명한 건, 이런 행동은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사, 특히 성육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모두 행정 법령과 관계된다. 네가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를 대하고,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네 결말은 이미 정해졌음을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거리낌 없이 대항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요, 사탄이자 마귀이니,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찾아 가거라. 하나님 집에서는 막지 않으며, 하나님 집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바울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른 그를 찾아 가고, 목사가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른 목사를 찾아 가거라.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든 네 자유지만 너를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 자유이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에게 그런 권력이 없겠느냐? 그런 존엄성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말세의 사역을 하러 왔다고 증거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며 순종한다. 하지만 일부는 끝까지 대항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믿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을 일편단심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직접 저에게 '이 사람은 내가 입은 육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게 아닌 이상 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날은 그가 징벌받는 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등, 네가 저지른 일들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마디는 진짜다. 바로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증거하려 하고, 인류 앞에, 그리고 진정한 피조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려 한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하거나 음성을 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발하는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런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의 삶이 편하겠느냐? (편치 않을 것입니다.) 왜 편치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처럼 뻔뻔한 무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서고 하나님에게 대든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은총을 베풀고 너그러이 용서하겠느냐? 축복하겠느냐? 약속을 내리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번 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 채찍질과 징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생명 공급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막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이다. 바울이 맞이한 결말을 적그리스도 부류 역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어떻게 대하는가

방금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첫 번째 모습, 즉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출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관점과 인식을 지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등에 대해 교제하고 해부해 보았다. 적그리스도의 각 방면의 모습을 해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른 방면, 즉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 즉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해부해 보도록 하자.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는데도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거기다 원래보다 체력과 기운이 더 좋다면 이것을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상적인 사람은 8~10 리만 걸으면 피곤한데, 그리스도는 80 리를 걸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발도 안 아프고, 몸도 제비처럼 가볍고, 기운도 더 난다면 이것을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한기가 들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병이 나지 않고, 눈에 강한 빛이 들어왔을 때 그보다 몇십 배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고, 컴퓨터를 아무리 오래 들여다봐도 눈이 피로하거나 근시가 되지도 않고, 태양을 아무리 오래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 않고, 다른 사람은 밤길을 갈 때

손전등을 들고 가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 없이 밤이 될수록 눈이 더 밝아진다면 그런 게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모두 아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늘 접하는 상식들이다.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이 마르고, 말을 많이 하면 지치고, 많이 걸으면 발이 아프고,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뜻이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 과연 무엇이냐? 육의 정상적인 필요와 본능에 부합하고, 이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의 정의이다. 정상 인성의 능력과 범위, 정상 인성의 이성에 부합하고, 또한 정상 인성의 희로애락에 부합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땅에서 입은 육신이다. 그에게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언행, 정상적인 생활 규율과 생활 패턴이 있다. 사흘 밤낮 눈을 붙이지 않으면 졸음이 몰려와 서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오랜 시간 걸으면 피곤해서 얼른 쉬고만 싶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와 예배드리며 서너 시간 교제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쉬기도 해야 한다. 이것이 육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이다. 육의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고, 정상 인성의 각종 모습, 각종 본능에 완전히 부합하며,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런 육신에는 인성의 많은 모습과 표출이 있다. 인성의 외적인 생활 방식, 생활 규율이 모든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만든 인류가 지닌 특성과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본능은 성육신 하나님도 똑같이 지니고 있고,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다. 인간이 문을 뚫고 나갈 수 없고, 벽을 뛰어넘을 수 없듯 성육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지 않으십니까? 문이 잠겨서 갇히셨습니까? 당신은 당연히 문을 뚫고 나오셔야죠. 사람은 10 리를 걸으면 지치지만 당신은 80 리를 걸어도 지치지 않으셔야죠. 사람은 하루에 세 끼를 먹지만 당신은 30 일이 되도록 드시지도 않고,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드시기 싫으면 안 드시고, 안 드셔도 평소처럼 예배에서 설교하고, 사람보다 기운차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은 오곡 잡곡을 먹고 병이 나지만 당신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과는 다른 면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죠." 이런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이런 건 모두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지 진리가 아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다. 그가 정상 인성으로 하는 모든 활동, 그의 생활과 언행은 모두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에게 이런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본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나님도 절대 이 규율을 어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이 긍정적인 사물이 될 수 있는 연유이자 근거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 때 인류의 여러 모습과 인류의 본능을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본능을 만들어 주어서 사람의 생활에 이런 규율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입은 육신이 이런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규율을 어기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된 육신의 본질 역시 하나님이며, 그들의 근원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원칙과 근본 취지

역시 같다. 이런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는 그저 더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가 많은 일에서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예지력과 예견 능력이 없고, 유에서 무가 되고 무에서 유가 되게 할 수 없고, 더욱이 정상적인 사람을 능가하거나 육의 능력과 본능, 사람의 정상적인 사유를 능가해서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과 정반대로 이 평범한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에게서 표출되고 나타난 것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없다. 그의 말씀과 사역을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정상 인성의 활동에서 하나님이라는 느낌,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의 표출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아무리 봐도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이 잘못 본 게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확실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큰 붉은 용에게 박해받고 추적당한다. 머리 둘 곳 없고 편히 거할 곳 없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다. 이 모든 박해를 겪을 때 그 역시 사방으로 숨어 다닌다. 그는 은신술도 부릴 줄 모르고, 토둔법도 쓸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피할 비범한 능력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미리 정보를 듣고 서둘러 도망치는 것이다. 환경이 닥치면 사람은 속으로 긴장하고 무서워한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긴장하지 않겠느냐? (긴장하실 것입니다.) 옳은 말이다.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정상인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맞다. 잘 대답했다. 너희는 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그것이 제대로 된 이해다. 그리스도도 긴장하고 무서워한다. 하지만 그가 겁을 내겠느냐? 집권당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들과 타협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그저 긴장이 되고 무서워서 얼른 이 마귀 소굴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혹 어떤 일을 잊어버리기 쉽다든가,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등등이다.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것, 그건 단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특성이자 본능이고, 기호이자 상징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이 있고, 생존 본능이 있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에 정상적으로 말하고 사역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아울러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본분 이행에 관한 일을 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 때문에 모든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실제적임을 더욱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이익을 얻으며 거기서 얻는 이익은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은 정상 인성의 상징이자 성육신이 모든 정상적인 사역과 활동, 인성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너무나 사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느낌이나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말한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답지 않아요! 사람의 관념에 있는 하나님이 갖춰야 할 요소를 그분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첫째, 비범하고 초월적이고 기이해야 하고, 둘째, 초능력이 있고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반드시 겉모습이 하나님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본질을 갖춰야 하는 등, 이런 요소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좀 하고 사역을 좀 했다고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기가 너무 쉽겠네요? 육신이 평범하고 정상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국 대륙에서 큰 붉은 용이 박해할 때 나는 형제자매 몇 명과 함께 늘 여기저기 숨어 다니느라 인신의 자유가 없었고, 이따금 소식이 들려오면 도망치기 바빴다. 그런 상황에서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냐? 그들이 단순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그들은 성육신의 본질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관념도 갖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정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며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을 그들도 함께 받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박해받고 추격당해도 그들은 변함없이 따르면서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런 일 때문에 연약해지는 일은 없었다. 오직 몇 군데 지역에 갔을 때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환경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도망쳐 나왔고, 자기들 지역이 아니면 지낼 곳이 없고 정착할 곳을 못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쳇, 그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성육신 하나님인가? 당신의 딱한 모습을 좀 보라고.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어딨어? 어디가 하나님답냐고? 그러고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니, 본인부터 빨리 구원하시지! 당신을 따르면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림없는 소리!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당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머리 둘 곳도 하나 없어서 우리 인간들, 세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잖아.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이면 안 되고, 당신이 성육신 하나님이면 돌아갈 집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언젠가 그가 하나님나라 복음이 해외에 확장되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큰 붉은 용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기를 펼 수 있고,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이 왕권을 잡고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평소와는 180 도 달라져서 성육신 하나님이 왕권을 잡는 것에 대해 관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느냐? 패괴된 인류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권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권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권병이 없으십니까? 권세가 권병보다 훨씬 작은데, 그분은 어째서 권세도 없으십니까?" 성육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 성육신 하나님의 직책은 무엇이냐? 권세를 과시하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욕설을 듣고, 비방당하고, 적대시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예외 없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에 대해 관념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많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 창조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깊어지고, 더욱 실제적이고, 참되고, 정확해진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면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영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비범한 능력도 없고 세속을 초월한 사람도 아니고, 인류와 함께 똑같은 생활 환경을 체험한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경계하고, 나아가 참소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이 저지른 진리에 위배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 나 스스로도 알아보지 않고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으면 알지 못한다. 이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범주에 속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정상 인성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나에게 하나하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 내 처분에 맡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다. 그는 관찰하는 시선, 떠보는 방식으로 시험하면서 생각한다. '이 일은 당신이 모르니 잘됐군. 당신이 알아도 나는 대응할 방안이 있고, 당신이 몰라도 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당신에게 대응할 거야. 일을 축소하고 무마해서 당신이 전혀 모르게 하면 이 일은 지나가겠지. 이왕 모르는 거니 앞으로도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언젠가 당신이 알게 되는 날에는 이미 다 끝났을 텐데 당신이 나를 어쩌겠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인간은 대체 어떤 부류냐? 좋은 사람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인성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일부 리더들이 밑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발탁하고, 제물을 낭비하고, 물건을 함부로 사들이는 일을 저질렀는데, 얼마를 쓰든, 얼마나 큰 일이 생기든 그들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을 가도 자문을 구하거나 묻는 법이 없었고, 자기들이 결정했다. 내게는 점검도 하도록 하지 않아 결국 내가 캐물어야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나를 외부인 취급했다. '당신이 왔으니 당신이 눈앞에서 본 일들은 좀 얘기하고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한 일은 절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끼어들거나 관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몇 번을 갔는데도 그들은 계속 내가 관여하지 못하게 했고, 행여나 내가 관여할까 봐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일부러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서로 의기투합하고 합의해서 서로 곁눈질을 하며 말을 맞췄고, 누구 하나 서로의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서로 감싸기 바빴다. 내가 안 다음 책임을 추궁하려 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감싸기만 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얼버무리며 나에게 말장난이나 했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스도라는 이 평범한 사람은 정상적이고 간단한 사유,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것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무슨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없으니 우리가 당신 뒤에서 수작을 좀 부릴 수도 있고, 우리끼리 마음 놓고 대범하게 자기 경영을 할 수도 있지. 교회 돈이 우리 손에 있으니 사고 싶으면 그냥 사고, 사인할 때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사인하면 돼. 심사도 필요 없고 돈도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 당신이 이런 일을 관리할 수 있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당신이 있을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우리 세상이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를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들은 생각한다. '당신이 정상 인성을 지녔다면 우리는 당신을 괴롭힐 수 있지. 초자연적인 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 이런 건 어떤 인간이냐? 인성을 논하자면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품성이 좋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 오합지중이 아니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집에서 사역하면서 누구를 대표하느냐? 사람도 대표하지 못하는 그들은 사탄을 대표한다. 그들은 사탄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탄의 종이자 사탄의 공범으로, 하나님 집 사역을 무너뜨리고 교란하러 온 자들이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탄의 공범이 하나님 선민을 잡아가고, 박해하고, 해치는 큰 붉은 용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큰 붉은 용은 성육신 하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무서울 게 없다고 보기에 마음대로 잡아가려 하고, 잡으면 죽이려고 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공범인 이들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본질이 같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믿느냐? 하나님으로 여겨 믿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여겨 믿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네가 그를 이렇게 대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바로 네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멸시하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간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간덩이 부은 자를 분류하자면, 피조물, 하나님 선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와 같은 이런 유형이나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자들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겠느냐? 사탄의 진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런 무리는 적그리스도들로 규정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세력 범위 안에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횡포를 부리고,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속인다. '어떤 일이라도 당신에게 구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당신은 간섭할 권한도 없고, 끝까지 알 수 없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가 볼 때 그리스도에게 그를 처리할 권한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출교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인정사정 봐 주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를 공급하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거들떠보지 않는다. 권력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얻을 것이고, 권력을 잡으면 그리스도와 대등한 자리에 서서 세상을 나눠 가지려 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고하를 겨루고 지위를 다투려 할 것이다. 자신의 세력 범위 내에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려 할 것이다. "내 말 한마디가 잘 먹히는지, 그리스도인 당신 말 한마디가 잘 먹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 세력 범위 안에 있으니, 교회 돈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물건도 내 맘대로 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겁니다. 난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쓸 거고, 내가 쓰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만약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잘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실제와 본질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앞에서 더욱 방자하게 굴고, 겁 없이 날뛰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능가하고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품는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와 고하를 다툴 수 있는 밑천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생긴 뒤에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그를 비난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와 담소를 나누고 대등한 자리에 서고 일상적인 이야기나 속마음을 나눠도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당신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제 연약함과 패괴 성품을 털어놓았으니 당신도 당신 내적 상태를 좀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후의 모든 체험을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였는지 얘기했으니 당신도 당신 체험을 좀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이러는 건 어쩌자는 것이냐?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을 보고 그를 너의 가족이나 친한 벗, 친구, 이웃으로 바꿔 놓고 싶은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무리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라 해도 그의 본질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이가 얼마이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너보다 경력과 이력이 많든 적든, 네가 볼 때 그가 겉으로 대단해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그는 언제까지나 너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왜 다르겠느냐? 그는 겉모습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 안에 사는 하나님이다. 그의 본질은 너의 본질과 영원히 다르며, 그는 본질이 언제까지나 모든 인류를 능가하는 지고지상한 하나님이다. 이 점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볼 때 그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그의 신분은 그리스도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그를 한 사람으로 여겨 믿고, 네가 그를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패괴된 인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위험해질 것이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고, 그의 신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분이다. 그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의 껍데기 속에서 사는 것은, 그가 패괴된 인류의 일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류가 그를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인류가 그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그와 권력을 다투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사람이 그를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이 사람의 방식과 관점으로 그를 가늠하고, 그를 너의 친구나 동년배, 동료, 상사로 바꿔 놓으려 한다면 너의 처지는 위험해진다. 왜 위험해지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에게서 패괴 성품이 발현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네 악행이 곧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이는 위험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속이기 쉽고, 그가 인간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 순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뀐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 바뀌겠느냐? 더 이상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따르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탄과 만물의 주재자의 관계가 되고 만다. 인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 버린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할 때 너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 눈에 비친 자기 가치를

바꾸고,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철저하게 망친다. 너 자신의 방종과 패역, 사악함, 교만함 때문에 그것을 망치는 것이다. 네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만, 이런 바탕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고 이끌 것이고, 너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 장난이 돼 버리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사람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뭐가 나빠?' 사실 별로 나쁠 건 없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여기는 건 너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 한 측면으로는 네 지위가 올라가고, 또 한 측면으로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또 한 측면으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무척 편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너는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갖게 되고, 살아가는 가치를 갖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것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냐? 네가 만약 진정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너는 존엄성과 인격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내는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무릎 꿇거나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인류의 생존 법칙, 게임의 룰이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칙과 룰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일에 적용하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랬다가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된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모든 구성원들은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본성 본질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큼은 인간과 같지 않다. 그리스도는 비록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외양을 갖추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의 생활 규율과 방식을 갖췄지만 그의 본질은 그 어떤 패괴된 인간과도 같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대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 이런 기준으로 인류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런 것이냐?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입은 정상적인 육신이고,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해서 속이고, 우롱하고, 그와 다투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이렇게 명백한 잘못을 적그리스도들, 진리를 싫어하는 이 사악한 무리는 결코 의식하지 못한다. 어째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들의 본성 본질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계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면서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결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 온 그들은 또 낡은 방법을 고집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한다.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으니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들의 본성 본질이 그렇게 확정되었으니, 이런 부류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제명하고 출교할 대상이 아니냐? 모든 하나님 선민이 버리는 대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이런 자들을 정죄하고 제명하고 도태시키는 일에 대해 아직도 관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련하냐? (가련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가련하지 않으냐? 그들은 괘씸하고 가증스럽기에 가련하지 않다.

3)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대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방금 구체적인 사례를 일부 폭로해 보았다. 이 방면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인 낮춤과 감춤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특유의 성품 본질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대할 때와 같은 본질적인 모습과 방법이 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사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멸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런 다음 부정한다. 즉, 3 부곡이다. 처음에는 먼저 관찰하고, 관찰한 다음에는 정죄하고, 정죄한 다음에는 부정한다는 말이다. 이는 다 습관적인 것이며,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낮춤과 감춤이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볼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있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격과 관계된다. 겉으로 봐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야심이 없고,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으며, 사람을 얽매려 하지 않고 독심술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는 말이 간단하고, 솔직하고, 분명하며 떠보거나 구슬리는 방식을 써서 사람이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면 얘기하고 원치 않으면 억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람의 패괴 성품과 각종 내적 상태를 폭로할 때는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또 하나, 그리스도는 일 처리 방식이 간단하다. 나를 접해 본 사람은 이런 인상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좀 직설적이고 처세 수단이 없군요. 지위는 있지만 어느 그룹에서도 별달리 우월감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정말 이 지위가 없고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타고난 내 성격은 사람들과 있으면 되도록 뒤로 빠지려 하고, 나서기 싫어하고, 특기가 있어도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면 떠받들려 할 텐데 그러면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다. 따라서 나는 어디를 가든 나를 떠받들며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들을 따돌린다. 얘기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서둘러 각자 위치로 가서 할 일을 하도록 한다. 패괴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옹호하는데요! 당신한테 푹 빠졌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설명해야 할 것도 다 설명했으니 너도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난 관심 없으니 내 주변을 맴돌지 마라.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인 당신은 그토록 큰 사역을 하셨으니 늘 의기양양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항상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결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고, 그런 우월감도 없다.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나는 느끼지 못한다. 너희가 볼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조건이면 그는 매일 우쭐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가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겠느냐?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에워싸고

받들어 주길 바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재주가 좀 있으면 그는 늘 사람들과 회의를 열 궁리만 한다. 연설할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갈채를 받는 기분을 누리려는 것이다. 그에게 이것은 술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다.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느냐? 나는 왜 그 좋다는 걸 못 느끼는 것이냐? 나는 왜 그 좋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세상의 가요계나 음악계에서는 재주가 좀 있는 사람, 특히 노래와 춤이 둘 다 되는 사람은 여신이나 킹카, 천왕, 가왕, 나아가 대부, 대모, 창시자로 불린다. 이런 건 모두 좋은 이름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샤오왕(小王), 샤오리(小李)로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탈바꿈해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자신을 천왕 천후로 부르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패괴된 인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나대면 안 되고, 무슨 신으로 불려도 안 되고, 무슨 왕이나 여왕으로 불려도 안 되고, 조용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첸베이(謙卑)라고 하는 건 좀 평범하기도 하고 충분히 작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니 웨이샤오(微小), 먀오샤오(渺小), 웨이천(微塵), 샤오샤오(小小)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리(沙粒)라든가 나미(納米)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저속한 부분에서 궁리를 한다. 이름을 샤오차오(小草), 샤오먀오(小苗)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니투(泥土), 니바(泥巴), 펀투(糞土) 등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 하나같이 듣기 거북하고 천한 이름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얼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아주 교만하고 못됐으며, 심지어 그중 악인도 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작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건방지고, 사악하고, 악독하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육신해 땅에서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은 비록 간단하고 짧았지만 그것은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하여 승천하고 다시는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다. 인류의 정상적인 사유와 논리대로라면, 성육신 하나님은 33 년 반 인류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죄되고, 모욕을 당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에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승리와 영광의 성과를 누리고, 33 년 반 혹은 더 오래 살면서 지상에서 그에 대한 인류의 경배와 앙망을 누리고, 받아 마땅한 지위와 대우를 누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단계 사역을 할 때 살며시, 조용히 왔다. 아무런 의식도 치르지 않았고, 조금 재주가 있다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인간과는 달리 "내가 왔노라,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천하에 명백히 알리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세 박사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 말고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 생활은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그 고생과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치대로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준 일은 인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큰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인류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의 경배를 받고 인류의 추앙과 부복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살며시, 조용히, 소리 없이 떠났다. 그 후 2 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었다. 그 과정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고, 살육이 난무했고, 온 인류의 정죄와 비방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은 계속 진리를 선포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2 천 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해명하며 예수가 자신이 입은 육신이니 인류가 그를 경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만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자신의 종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각국 각지로 파견해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을 받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가 오리라고 한 메시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이 한 일임을 사실로써 증명하고, 예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고 온 인류를 구속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사실로써 증명했다. 그리고 이번의 성육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 똑같은 형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왔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인류에게 크나큰 복이자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더욱이 인류의 행운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너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분이 있는 하나님 자신은 태생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롭다. 그가 인류 가운데 옴으로써 인류의 각종 패괴 성품을 마주해야 하며, 이것은 그가 구원하려는 인류가 하나같이 그에게 역겨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에게는 교만한 성품이 없고, 사악함과 간사함이 없다. 그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공의롭고 거룩하다. 하지만 그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의 본질에 적대되고 반대되는 인간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관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다. 패괴된 인류의 눈에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커다란 사역을 하시고, 그 큰 영광을 얻으시고, 그 많은 사물과 일을 주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소문내지 않고 표명하지 않지?' 사람 입장에서 그건 식은 죽 먹기다. 좋은 일 한 가지 한 것을 가지고 열 가지로 부풀리고, 좋은 일 조금 한 걸 가지고 두 배, 세 배 끝도 없이 부풀리며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래라는 게 없다. 하나님은 뭔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듯 사례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와는 달리 지위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무얼 하든 너희는 모두 나의 좋은 점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한 일을 마음속에 새기며 영원히 나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본질이 없다. 하나님은 야심이 없고 패괴된 인류의 교만한 성품이 없다. 그는 표명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이 표명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위가 있음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었다. 그가 아무리 낮추고 감추어도, 아무리 은밀하게 일해도, 아무리 인류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도 그의 말씀, 사역, 그리고 그의 행사 등이 사람에게서 이루는 최후의 성과는 필연적으로 피조된 인류가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창조주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기꺼이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그에게는 야심과 욕망이 있고, 교만한 성품과 흉악한 성품, 사악한 성품이 있다. 그는 진리도

없으면서 사람을 점유하고 통제하려 하고, 진리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경배하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볼 때 이는 사악한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이 그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에게 다투는 본질이 있느냐? 하나님이 얻는, 피조된 인류의 경배와 순종이 다투어서 얻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는 것이냐?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인류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창조주만이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만든 기계가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기계를 발명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본떠서 만든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패괴된 인류를 진정한 인류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의 권병을 사용하지 않고, 해명, 변명, 억압, 미혹, 통제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수단도, 방식도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사탄과 적그리스도뿐이다.

이만큼 교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은 무엇이냐? 고의로 신분을 숨기고 고의로 본질과 실상을 숨기는 것이 감춤이냐? (아닙니다.) 낮춤은 인위적으로 꾸며 내는 것이냐? 억제하는 것이냐? 가장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성육신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갖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의 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게 평범한데 어째서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신분은 존귀하니 스스로를 낮춰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낮춰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는 스스로를 올려 보지도 않고, 낮춰 보지도 않는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말을 할 뿐이다.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높게 보는 것도 낮게 보는 것도 옳지 않다. 높게 보는 것은 교만이고 낮게 보는 것은 가장이고 간사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당연히 명인의 품격이 있어야 하고, 언행도 고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과 차림새, 치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신분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나는 말한다. "어떤 게 신분이냐?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뭐가 어떻다는 것이냐? 나는 관심이 없다. 네가 나를 우러러보면 역겹고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러니 절대 나를 우러러보지 마라."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사회의 그 여성 기업인들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차림새를 보십시오. 딱 봐도 능력자,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따라 하지 그러십니까?"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 여자들을 따라 해야 하느냐? 나는 내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건데 내가 왜 위장해야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해야 하느냐? 나는 나인데,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위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속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볼 때 성육신이 어떤 이미지와 외양을 갖추고 어떤 언행을 갖춰야 그의 신분에 부합하느냐? 너희에게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있다. 아니면 그런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내 기준이 진리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겠느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나만 보면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든 관념을 품으면서 매일같이 나에 대해

종합하고 규정하는 것이냐? 역겹지 않으냐? 그는 어째서 나를 그렇게 보느냐? 그에게 그리스도가 하는 건 뭐든 옳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고, 계략이 담겨 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서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양한 신분과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교만함도 없고, 사탄의 야심과 욕망도 없고, 인류가 말하는 지위에 대한 욕심은 더더욱 없다. 그가 지닌 하나님 자신의 본질 이외에,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이르기까지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은 낮춤과 감춤이다. 이 낮춤은 꾸며 낸 것이 아니며, 이 감춤은 고의로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영계에서든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서든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성육신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자 불신파이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권병은 없는 것 같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만능이라고 하면 그건 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큰 권병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인류를 주재하겠어?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데 그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나? 지혜와 전능은 어느 게 더 클까? 지혜가 전능을 좌우할 수 있을까? 전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라는 이 본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간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의혹을 품지만 그 후에 천천히 그것을 해소하는데, 체험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구하고 인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성적인 인식이 조금 생긴다. 그러나 유독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모습,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의혹을 품은 뒤, 그것을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점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을 품고 더욱 심하게 정죄한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이 크게 성공할 것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영광의 기세로 만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의심한다. 의심한 후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찬미하고 칭송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본질도 아니야. 이런 낮춤과 감춤은 하나님이 갖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은 무능한 모습이야. 세상에서 사람은 지위가 좀 있으면 왕이나 제후, 황제가 되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동시에 복음 사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권력이 점점 커지지 않겠어?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이런 일을 할 계획도 없고 이런 권력을 가질 계획도 없어. 그런 권력이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그를 따르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만국 만민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그가 이 낡은 세계를 멸하고 패괴된 인류를 멸할 수 있을까? 딱 보면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지녔는데, 어떻게 큰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늘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은 모든 패괴된 인류, 특히 적그리스도가 인정할 수도, 공감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자신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의심하기 위한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권병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와 꼬투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한 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관할하는 범위에서 하나님 선민들에게 무자비하고 가차 없이, 두려움도 전혀 없이 손을 댈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 자신의 야심을 전혀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세력 범위, 자신이 손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수를 뻗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이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을 미혹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집과 철저하게 갈라선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낮춤과 감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교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사람이 인식해야 할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 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하나님은 육신에 감춰져 있고, 말세의 이번 단계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과 형식상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단계 사역에서 비록 이적과 기사는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말씀은 지난 단계 사역에 비해 훨씬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크나큰 굴욕을 안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신성의 본질을 지닌 하나님 자신만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감춘 채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낮춤과 감춤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탄은 절대 할 수 없다. 사탄이 인간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육신을 입느냐? 우선은 위대하고, 흉악하고, 간사하고, 사악하다. 그런 다음 사람을 우롱하고 지배하는 여러 술수와 수단에 정통해야 하고 동시에 온갖 기만술이 있어야 하고 매우 모질고 독해야 한다. 행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 계속해서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고 자신을 선전해서 결국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부르고 황제로 부르면 그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탄의 행동과 정반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감추며, 그와 동시에 창조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의 말씀, 자신의 생명을 사람 내면에 만든다. 이로써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 정상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류의 생활을 하는 진정한 피조물이 된다. 비록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인류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친히 성육신하여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꾸준히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을 돕고, 붙들어 주고,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물론 형벌과 심판, 채찍질과 징계도 내리면서 사람이 나날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사람이 나날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이 나날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 긍정적 사물의 실제이다. 인류 사이에서 인류는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했다. 나는 인류를 위해 대가를 얼마나 치렀다. 인류는 나를 찬미하고 칭송해야 한다."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렇게 요구했느냐? 아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결코 조건을 내세워 사람과 교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두었으니 너희는 그를 잘 대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도록 해라.

그가 시킨 일을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나중에 대업이 이루어지면 너희 모두 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이런 의도가 있느냐? 없다.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온갖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옭아매고, 통제하며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앞에 오게 만들려 한다. 그리고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소문내고 광고하려고 한다.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은 인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찬미하고 칭송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업신여기고 모독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았다.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한 교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무슨 질문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자!

2020 년 11 월 21 일

부록 4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1)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중 열다섯 번째 항목을 지난 예배 때 모두 교제하였다. 열다섯 가지 항목을 교제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과 본질에 관해 정리해 보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이나 인식이 생겼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비교적 명백한 자는 분별할 수 있지만 비교적 교활하고 음험한 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자. 첫 번째 측면은 적그리스도의 인품이고, 두 번째 측면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제를 많이 하지 않고 사례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많이 교제하면 너희가 알아들은 것 같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봐도 대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정리하여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 윤곽이 좀 더 명확할 것이다.

1. 적그리스도의 인품

첫 번째 측면인 적그리스도의 인품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이 과연 어떠한가에 관한 내용이다. 인성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양심과 이성, 인격과 존엄 그리고 인성의 선악 등이 포함된다. 적그리스도의 인품을 분별하는 것은 이런 부류가 지닌 인성의 여러 측면과 연관된다. 그럼 먼저 정상 인성은 보통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정상 인성이 갖추어야 할 품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정직함과 선량함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염치가 있습니다.) 염치를 아는 것과 올곧음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배려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 정리해 보자. 먼저 정상 인성은 정직한 품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밖에 선량함, 진실함이 있는데 진실함은 정직함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이 가진 동정심을 인품이 갖춰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정심은 선량함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이 선량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단순하고 염치를 안다. 염치를 안다는 것에는 존엄,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은 올곧음이다. 올곧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정의감이 있고, 악을 원수 대하듯 하며, 사악을 증오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올곧기만 해서는 안 된다. 포용과 인내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내적 상태를 살피거나 배경을 구분할 줄도 모르면 안 된다. 이는 인품에 결핍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포용하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은 선량함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물론 한 조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품성에는 정직함, 선량함, 진실함, 단순함, 염치를 아는 것, 올곧음, 포용하고 인내함 등 총 일곱 가지가 있다.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이 품성들은 한 사람이 정상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교제하는 주제는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이런 품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품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인품은 과연 어떠한가'에 관한 내용이다. 방금 이야기한 정상 인품의 여러 면을 대입해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중 한 가지나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더냐?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에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 적그리스도의 인품 속에 어떤 것들이 그가 사람들로부터 적그리스도로 규정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부류에 속한 자는 인성이 좋지 않고, 정상 인성이 없는 적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지 정리해 보자. 방금 정리한 몇 가지 정상 인성의 모습 중 한두 가지만 갖추고 있다면 정상 인성을 조금 갖췄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전부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품을 적그리스도는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인성은 대체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 측면부터 교제해 보자.

1)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

정상 인품이 갖춘 것 중 첫 번째는 정직함인데 적그리스도의 인품 속에 정직함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정직한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의 인성은 분명 정직함과는 반대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 속에 그가 지니고 있는, 정직함과 상반되는 비정상적인 인성은 무엇이냐? (항상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으냐? 이 사람이 거짓말만 한다고 하거나 그다지 솔직하지 않다고 하는 건 정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말로 그의 인품을 묘사하는 것은 또 정규적이지 않다. 그러니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는 말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정직하지 못한 인성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는 것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 속에 자주 나타나고 표출되는 첫 번째 모습이다. 이것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말에 인이 박인 모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교제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인성이 정직하지 않다. 즉, 전혀 솔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모두 과장되며, 자신만의 속셈과 목적을 품고 있다. 또 그의 말과 행동에는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고 남에게 밝힐 수도 없는 음모와 간계가 도사리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는 과장과 거짓이 너무 많기에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든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틀렸는지 알 길이 없다. 그는 정직하지 않고 마음속이 몹시 복잡하며 수작과 간계를 많이 부리기 때문이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라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다. 무슨 일이든 말을 빙빙 돌리고 마음속으로 거듭 궁리하며 이어질 결과와 여러 측면의 장단점을 생각한 후에 말로 가공한다. 그렇게 나온 말은 듣기에 몹시 어색하다. 정직한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고 사기당하거나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와 대화하고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몹시 피곤하고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말을 할 때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있는 대로 얘기하는 법이 없다. 그가 하는

말은 늘 종잡을 수가 없고, 그가 일을 하는 목적과 속내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는 말을 꺼낸 후에 탄로 나면, 그러니까 상대에게 허점을 간파당하거나 들키면 재빨리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 둘러댄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며, 그 후에는 또 그 거짓말을 합리화한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기 위해 남을 속이고, 또한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지어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가 언제 솔직한 말을 하는지 모르며, 그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듯 안색 한 번 변하지 않고 심박 수도 빨라지지 않는다. 이는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가끔 적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척 잘하고 남을 이해하며, 말을 아주 따뜻하게 해 듣는 사람은 따스함을 느끼고 크게 감동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조차 진심인지 꿰뚫어 볼 수 없으며, 며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말에는 언제나 속내와 목적이 들어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에 인이 박여 어떤 거짓말을 하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이를 속일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사실이 밝혀지면 계속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들을 속인다. 이런 사람의 처세 원칙과 방식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상대에 따라 말을 가려 하며,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능수능란하게 처세술을 펼치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와 한동안 함께 지내면 미혹되거나 교란될 뿐, 어떤 공급이나 도움, 이로움도 얻을 수 없다.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이치에 맞는 말이든 터무니없는 말이든, 사람의 인성에 부합하는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거칠고 수준 낮은 말이든 수준 있는 말이든, 기본적으로 전부 허위적인 말이고 과장된 말이며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 사람의 언어, 그가 말하는 방식과 표현 방법, 말의 의미, 말에 들어 있는 속셈을 통해 이 부류에게는 정상 인성이 없고, 정직한 사람의 인성 기준 또한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은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 그들의 거짓말은 평범한 사람의 거짓말이나 기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는 일반적인 패괴 성품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본질을 보면 그들은 바로 마귀이다. 마귀는 이렇게 늘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진실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말을 지어내고 궁리해야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은 지어내거나 궁리할 필요 없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데 네가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는 너를 속인다. 그가 하는 거짓말과 기만하는 일은 반응이 느린 사람의 경우 어쩌면 이삼일이 지나야 깨닫고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거짓말에 인이 박였으니 그런 인품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분명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 이런 행위는 학교 교육으로 생겨난 것이겠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느냐? 전부 아니다. 그것은 천성으로,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 어느 부모도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라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 그 어떤 거짓말에도 얼굴을 붉히거나 심박수도 빨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반면, 자신이 무척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과 수단으로 다른 이를 우롱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며, 속으로 은근히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천성이다. 적그리스도는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다. 바로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 그들의 본성 본질이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비록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설교도 듣지만 전혀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는 법이 없다. 아무리 많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불신파라는 증거이다. 그는 아무리 일리 있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결코 자신과는 대조해 보지 않고, 자신을 해부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많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오히려 꾸미고 포장하면서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간사한 사람임을 인정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밖에도 그는 거짓말을 해야겠다 싶으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야겠다 싶으면 남을 속인다. 이는 본성이 아니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본성은 정상 인성의 모습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마귀의 본성이고 사탄의 성품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귀이고 마귀의 화신이다.

적그리스도의 인품의 첫 번째 모습은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고 우리는 이를 마귀의 본성으로 규정한다. 이 마귀의 본성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교류하든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는 말은 마귀나 뱀의 말과 같아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특별히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며 마귀의 말을 경솔히 믿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이런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퇴고, 분석, 분별에 견디지 못한다. 그는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나이를 묻는 말에도 그는 고민한다. '무슨 의도로 내 나이를 묻지? 나이가 많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고 양성하지 않으려나? 젊다고 하면 경험이 없다며 나를 얕보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간단한 일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반문한다. "몇 살로 보이나요?" "쉰?" "비슷해요." "마흔다섯?" "이제 곧이요." 그가 정답을 알려 주었느냐? 그의 대답을 통해 그의 나이를 알았느냐? (모릅니다.) 이것이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거짓말에 인이 박인 모습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간증할 때조차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거짓 간증은 저주받고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짓이다. 간증할 때도 허위로 날조하고 거짓말로 기만하니 정말이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보다.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 남들은 간증할 때 체험과 인식이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걸 보면 그는 호박에 줄 긋듯 꾸며 낸다.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고 남들이 체험한 걸 짜깁기하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인식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런 체험적 인식, 깨우침이 없는데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했다고 말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 일에서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면서 그는 그 결과가 아무리 심각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류는 누구든 속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도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도왔던 사람, 그와 함께 역경을 이겨 낸 사람은 속이지 않겠죠? 그와 혈연관계인 사람은 속이지 않겠죠?"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는 말은 누구든 속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부모,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까지 모두 속일 수 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속인다. 심지어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런 뒤탈이나 지장이 없을 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일도 그는 속일 수 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일도 그는 속이고 거짓말로 해결한다. 이것이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 아니겠느냐?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은 사탄 마귀의 주된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이 정직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에 인이 박였으니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가 잘못을 저질러 책망과 훈계, 형제자매의 질책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고, 앞으로 회개하겠다고 하면 섣불리 믿을 수 있겠느냐? (섣불리 믿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섣불리 믿을 수 없느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들이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겉으로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면서 맹세한다 해도 믿지 마라.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며 사람을 속이는 눈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뱉는 회개하는 말이나 괴로워하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남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목 놓아 울며 잘못을 시인하고 맹세하며 입장도 밝히지만 뒤에서 그와 사이가 좋고 비교적 믿을 만한 사람이 보고하는 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개석상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참회하며 시정하겠다고 맹세하니 겉보기에는 진심 어린 말 같지만 뒤에서 하는 말은 그가 당시에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으며 더 많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그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당시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는 소극적인 것을 퍼뜨리며 이치를 따지고 변명한다. 이렇게 변명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이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맹세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신뢰할 가치가 있겠느냐?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아니냐? 죄를 인정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도, 깊이 참회하며 시정하겠다는 것도, 심지어 맹세마저 거짓말이니 마귀의 본성이 아니냐? 그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형제자매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직한 태도와 말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절대 이런 류의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면 남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 이 얼마나 체면을 구기고 망신스러운 일이야? 위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 내가 누군데, 무릎 꿇을 수 있겠어? 인식하지 못해도 잘 인식하고 있는 척해서 속여야겠어. 사람들 마음속에 내 입지부터 다지고 보자.'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방식과 근원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이런 부류는 절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 그의 인품이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이든 속이고 은폐하려 하며, 남들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고, 남들이 진상이나 실상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어둡고 음침하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이런 측면의 인품은 인성이 없고 마귀의 본성을 지닌 것으로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다. 입만 열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심지어 잠꼬대조차 진실한 말은 없고 죄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인품에는 정직한 면이 없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남들을 어떻게 속일지, 어떻게 기만할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사람을 미혹할지, 미혹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운을 뗄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믿게 만들지 생각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정직한 태도가 없고 정직한 견해나 생각이 없다. 그는 자나 깨나 매 순간을 남을 속이고 농락할 생각만 하는 내적 상태로 살아가고, 자나 깨나 매 순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미혹하며 어떻게 기만할지 생각한다. 그가 머릿속으로나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죄다 이런 것들뿐이다. 이것이 본성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의 깊은 내면과 인품으로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의 생각과 내면세계에서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귀의 본성을 띠고 있고 진리, 긍정적인 사물과 배치되어 바람직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에 있는 거짓말에 인이 박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은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제멋대로 굴 수 있지 않으냐?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으냐? 독립 왕국을 세울 수 있지 않으냐? 제물을 낭비할 수 있지 않으냐? 사람을 미혹할 수 있지 않으냐? 사람의 마음을 구슬릴 수 있지 않으냐? 전부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에 인이 박인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사실이 폭로되면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증언하고 폭로하든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엔 깜빡했다며 어리숙한 척하는 방법으로 너에게 응수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진실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니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라고 고개 숙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진실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가 깨달았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반항하며, 대항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진리조차 그는 실행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니 그에게 지위와 앞날 운명, 자신의 속셈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그가 내려놓고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못 하는데 이보다 어려운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

너희 주변에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이 있느냐? "아직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사실대로 말해 주겠다. 너는 매우 위험하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에게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그가 마귀와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가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나 배경에서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토록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대하며 해결한다면, 처신하거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면, 진실한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전부 속셈이나 목적, 사탄의 계략이 담겨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니 이는 구제 불능이 아니냐? 적그리스도 부류의 거짓말에 인이 박인 여러 모습을 통해 그의 거짓말이 너무 많고, 그가 말하는 목적이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며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모든 말에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속셈이 담겨 있고 정상 인성의 정직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정상 인성의 정직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직함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을 우리는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는 마귀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기 쉽지 않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 음험하고 악랄하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외에 적그리스도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겠느냐? 정상 인성에는 반드시 선량함과 진실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교제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분명 이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정상 인성이 갖추고 있는 것을 분명 갖추지 못했고, 그가 지닌 것은 죄다 정상 인성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선량함, 진실함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음험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그렇다. 정확하게 말했다.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선량하고 진실한 인품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가 지닌 것은 죄다 선량함이나 진실함과는 상반되는 음험하고 악랄한 것들이다.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 방금 이야기한,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과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음험함과 악랄함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거짓말을 꾸며내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서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에는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도 있고 음험하고 악랄한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나쁜 짓을 해놓고 책임지기 싫을 때 허상을 만들거나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악하고 비열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음험하고 악랄한 모습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공격하고 보복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은 악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 명예, 명성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보복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음험하고 악랄하다'라는 말을 보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대단히 악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양심에 기대거나 그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지배하여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한다. 그의 처세 방식은 정상적이거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에게 미혹되고 이용되며 그의 공격하는 무기가 되게 하는 방식과 수단을 쓴다. 그는 누구를 대하든, 겉으로 보기엔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진심이 전혀 없다. 이용 가치가 있어 보이면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보지 않고 멀리한다. 심지어 비교적 점잖고 취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온갖 방식과 수법으로 미혹하고 포섭해서 자기한테 이용당하게 만든다. 하지만 연약해졌거나 어려움이 생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도움을 주는 법이 없고, 이런 사람일수록 괴롭히고 미혹하며 심지어는 이용하려 한다. 이용할 수 없으면 걷어차 버리는데 남에게 사랑이나 동정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여기에 선량함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는 악독한 모습 아니겠느냐? 간계와 수법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속여 상대가 자신의 빈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꺼이 자기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힘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방식이자 철학이다. 그를 분별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괴롭히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제멋대로 죄를 씌운 후 형제자매에게 버림받게 하고 그런 다음 제명되고 출교당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 부류는 음험하고 악랄하여 선량함이나 진실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는 진심으로 남을 돕는 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동정심은 물론이고 사랑의 마음은 더욱 갖지 않는다. 그는 남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이익과 이득만 도모한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생겨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누가 됐든 타산을 따져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를 도와주면 나중에 그가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는 늘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수법을 쓰겠느냐? (그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추켜세워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밟아 버립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추켜세우는 것 역시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작은 선심을 베풀어 사람을 구슬리고 자신의 공로를 뽐내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뽑게 만든다. 또 무엇이 있느냐? (후보자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 편견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다. 음험하고 악랄한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예전에 적잖이 교제한 바 있다. 음험하다는 것은 간계가 많다는 뜻이다. 처세하며 일하는 원칙 모두 수단에 의지하는데 진실함은 없고 죄다 거짓이자 기만이다. 악랄하다는 것은 주로 일을 처리하는 수법이 모질고 독하다는 뜻이다. 무자비하고 인간미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를 가리켜 악랄하다고 하며, 이는 사람의 선량함과 반대된다. 인성이 선량한 사람은 일반적인 일이 생겼을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관용을 베풀며 남을 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결점이 있어도 따지지 않고 약점을 잡지도 않는다.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또한 동정심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준다.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선량함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품성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도와주면 대가를 치러야 해. 당신이 득을 보게 해주면 내가 얻는 건 뭐지? 당신을 동정하면 난 누구에게 동정받아? 당신을 도우면 내가 잘해 준 걸 당신이 기억이나 할까? 내가 희생해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라고? 당신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지? 예전에 날 도와준 적이나 있어? 당신이 뭐라고?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만약 왕의 딸이나 재벌집 아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아. 당신을 도와주면 덕을 보거나 이득을 좀 볼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뭘 보고 당신을 돕겠어? 당신을 도와서 내게 좋을 게 뭐야?' 난관에 부딪히거나 연약해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 선량함이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연약해진 사람을 보면 비웃고 비꼴 뿐 아니라 속으로 계산하며, 심지어는 이 기회를 틈타 자기를 과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는 다 선량한 게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주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한다. 나서지 않으면 몰라도 한번 나서면 이득을 보려 하고 목적과 꿍꿍이를 갖는다. 한 사람을 도우면 한 명의 조수를 얻으려 하고, 두 사람을 돕거나 동정하면 한 쌍의 유력한 조수를 얻으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음험함과 악랄함은 주로 무엇을 하든 목적성이 유난히 강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먼저 자기 이익부터 고려한다. 동시에 수법이 비열하고, 졸렬하고, 야비하고,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및 원칙에는 진정성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저 이용하고 우롱하며,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바로 걷어찬다. 만약 네가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면 그는 거짓된 관심을 보일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도 아닌데요!" 참으로 '극진한 보살핌'이다. 하지만 어느 날 네게 이용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는 바로 관계를 끊고 너를 한쪽으로 걷어찬 다음 상대도 안 해 줄 것이다. 마치 애초에 모르는 사이처럼 말이다. 네가 정말로 일이 생겨서 그를 찾아 도움을 청하면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처음 약속할 때처럼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네가 이용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그가 너의 잘못을 발견하고 약점을 잡는다면 빈정거리고 비웃을 것이요, 심지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이 수법이 어떠하냐? 선량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냐?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음험함과 악랄함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성이 있겠느냐?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절대로 없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이익과 자기 체면, 명성, 사람들 가운데서의 지위와 명망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용하고,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며 상대하지 않는다. 네가 먼저 다가가더라도 그는 상대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만약 언젠가 그에게 네가 필요해진다면 갑자기 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다. 몹시 친절해지고 서글서글해져서 너를 어리둥절하게 할 것이다. 너에 대한 그의 태도가 왜 바뀌었겠느냐?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네게서 이용 가치가 보이면 그는 태도를 바꾼다. 너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이런 부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겉으로는 확실히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간파할 수가 없고, 매일

보이는 표정과 언행에서도 그에게 어떤 확실한 문제가 있는지 간파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특히 그가 가장 절친하고 친밀한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며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관찰하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속셈, 태도, 수법을 관찰해 낼 수 있다. 그들은 이익만 꾀하면서 사탄의 철학에 따라 살아가며, 정상 인성은 하나도 없다.

인성 안에 음험하고 악랄한 품성이 있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정직하고 선량하며 사람이나 일에 진실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가 이런 부류의 사람과 가까워지길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런 부류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다니, 저들은 모두 멍청이야. 속으로 생각부터 해 놓고 말해야지. 왜 사실대로 말할까? 왜 참말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들을 딱할 정도로 어리석게 여기며 깔본다. 이들은 선량하거나 남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곤경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성심성의껏 돕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잘되길, 자기를 통해 득을 보고 도움을 얻고 이로움을 얻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걸 어리석고 우둔한 짓으로 여긴다. 그는 인성에 존재하는 이 긍정적인 것들을 좋고 아름다운 것, 사람이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이 품성들을 속으로 혐오하고 반감을 품으며 업신여긴다. 정직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고, 선량한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며, 진실한 사람은 더더욱 어리석다고 한다. 비교적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비교적 정직하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마음씨가 선량해서 남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해치는 법이 없고 남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갖는 사람, 또 자기 이익을 버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며,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면 마음에 부담과 책임감이 생기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더욱 업신여긴다. 비교적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심과 충성심, 책임감을 갖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진실한 태도로 본분을 대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는 내면 깊이 업신여기고 증오하며, 겉으로도 노골적으로 피하고 멀리한다. 적그리스도의 눈에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이 긍정적인 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칭찬하고 장려할 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간계, 수법, 사람을 대하는 자기 내면의 방식, 자신의 악랄함이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언제든, 무슨 일을 하든 속으로 자신의 수법과 간계를 생각하고 가공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럴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입고 자신의 체면이 깎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성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100 퍼센트 그러지 못한다. 아무리 정직함과 선량함 등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도, 이 긍정적인 것들을 갖추고 이 긍정적인 인성에 따라 사람과 본분, 다방면의 일을 대하라고 요구해도 적그리스도는 마음속 깊이 이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적대시한다. 왜 그러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그의 본질 속에는 마귀의 본성에 속하는 음험하고 악랄한 인품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품을 갖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선량함, 진실함을 보이는 것과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인품이다. 적그리스도의 음험함과 악랄함의 발현과 표출이 정상 인성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죄다 사탄의 간계이며 음모다. 사탄의 음모와 간계가 보여 주는 성질은 음험함과 악랄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상 인성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교제한 음험하고 악랄한 여러 모습을 바탕으로 주위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가늠해 보아라. 적그리스도 부류가 이런 음험하고 악랄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 행동할 것이다. 또 그가 행동한다면 사람이 보고, 듣고,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접할 수 있다면 느낌을 받는 한편,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음험하고 악랄한 인품은 흔히 볼 수 있고 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모습일 것이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진 속셈도 아닌, 표출되어 나오는 인성 및 행동의 방식이자 방법, 수단이다. 사람은 이런 측면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3)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정상 인성 중에는 단순함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단순한 사람이냐? 분명 아니다. 방금 교제한 음험하고 악랄한 것,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은 단순함과 상호 대립적이다. 단순함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 교제하지 않고 염치를 아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염치를 아는 것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으로, 이는 이성적이라는 의미이다. 염치를 아는 것에 대응되는 부정적인 말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 후안무치하다는 뜻으로, 문어로 염치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어떤 행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나 방식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지위를 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바로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지위와 선민을 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든 말든 그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 지위를 차지하고 나서 교회에 얹혀살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민을 등쳐 먹고 자기는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그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생명을 전혀 공급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그의 권력 아래로 끌어들여 자기 말에 따르고 자기를 위해 봉사하며 목숨 바쳐 일하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지위가 생기게 만들고자 한다.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축복, 전능을 찬미하면 그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해한다. 늘 자기를 칭찬하고 마음속에 그를 품고 숭배하며 앙망하는 데다가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가 무슨 일이든 그를 위해 해야 하고 그를 고려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처리하든 매사에 그를 앞세우고 그의 생각과 기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제물을 훔쳐 먹고 낭비하며,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차지한다. 이 또한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제물을 훔쳐 먹는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봉헌한 것을 보내왔는데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니 그중 상부에 보낸다는 표시가 없는 물건이 두 병 있었다. 설명도 없어서 무엇인지 모르니 그는 제 맘대로 상부에 보내지 않고 남겨

두었다. 나중에 내가 그들에게 그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가 두 병 있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마침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이 두 병을 가져왔을 때는 이게 무엇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상부에 보내는 것이라는 표시도 없어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표시되어 있었고 저희에게 쓸모가 있었다면 두고 썼거나, 팔 수 있었으면 팔았겠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지에서 보내오는 귀중품 중에는 설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 설명이나 표시가 없는 물건도 많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너희가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것들을 누구에게 주어야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상부에 보낸다는 표시가 없었는데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께 드리는 물건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당신에게 드린다는 표시가 없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권한은 제게 있죠. 당신께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팔고 싶으면 팔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쓰기도 싫고 팔기도 싫으면 그냥 거기에 놔두고 썩힐 거예요!'라는 것이 이 말의 저의다.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관점이 이렇다. 이 관점이 어떠냐? 이 귀중한 물건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가지고 오거나 지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가지고 귀중한 물건을 교회와 하나님 집 혹은 형제자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지금껏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봉헌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평범한 물건, 값싼 물건조차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데 이런 귀중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적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성에 갖춰져야 할 이성이다. 그렇다면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적어도 상부에 물어봐야 한다. "이 물건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두 마디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두 마디가 한 사람의 인품에 정상적인 이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간단한 두 마디 말,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갖추어야 할 이성을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어째서 그는 그 물건들이 교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는 상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상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말의 속뜻이 무엇이냐? 그가 왜 이 말을 덧붙였느냐? (자신이 함부로 제물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의 인성에 염치를 아는 품성이 갖춰져 있겠느냐?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 이런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인성은 어떠하냐? 염치가 없지 않으냐? 그가 정말 그것이 제물인 것을 몰랐겠느냐? 그것이 제물임을 알았지만 인성에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뱉을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당연하다는 듯 함부로 제물을 누리고 차지하며 낭비하면서 자기 소유로 두었던 것이다. 오직 적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닌 부류만이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없다. 그들의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측면의 모습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잘못해도 뉘우칠 줄 모르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어떻게 만회하고 회개할지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교체되면 억울해하며 시종일관 자기를 위해 이치를 따지고 간사하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를 염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서든 남들을 가르치며 공허한 이론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를 영적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자기가 얼마나 사역하고 고생했는지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제자매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당연하다는 듯 교회에 얹혀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특별 대우까지 누리는데 이를 염치가 없다고 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질이 형편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실행 원칙도 찾지 못하고,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면서 자기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잘한다고 허풍을 떠니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든 아는 척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성내고 질투하며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괴롭히니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자신이 분명 늘 거짓말을 하고 여러 패괴 성품을 지녔으면서 자신은 패괴 성품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랑받는 사람인 척한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고생을 잘 견디고, 순종하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며, 노고와 원망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위선을 떨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하다. 분명 아무런 인식도 교제하지 못하고, 어떤 진리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며, 아무런 체험 간증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하며 말뿐인 자기 인식을 늘어놓아 자기가 무척 영적이고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 자기가 문제가 많고, 인성도 나쁘며, 본분도 충성을 다해 이행하지 않고, 늘 자기 머리나 잔꾀로 사역하며, 진리를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영적이며, 자질이 있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이 없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늘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 분명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역이든 실행 원칙을 찾지 못하며, 구하지도, 교제하지도 않고, 자신의 잔꾀와 경험, 머리에 의지하여 하면서 남을 지휘하는 리더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겐 화가 나고 성을 내니,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자기에게 야심과 은사, 약간의 잔꾀가 있어서 늘 하나님 집에서 나서려고 하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중용하고 양성해 주기를 바라며, 양성해 주지 않으면 속으로 언짢아하고 분해하면서 하나님 집이 불공평하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다며 원망하고, 하나님 집에 자기 같은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 같은 사람이 없다며 원망한다. 자기를 양성하지 않으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몸을 사리고 농간을 부리려 한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 집에서 누군가 자기를 우러러보며 치켜세워 자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 집에서 원대한 뜻을 떨칠 수 있기만을 바란다. 이것이 야심과 욕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자주 보이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네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선민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만약 진리는 하나도 없는데 나서려고만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것이다! 여기에 야심과 욕망까지 있어서 한바탕 크게 해 보려고만 한다면, 이런 자는 틀림없이 큰코다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사회에서 지위와 명성이 조금 있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집에 오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며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려 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시키는 대로 복종시키려 한다. 자격을 과시하고 경력을 따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 권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여 일부 성과를 내고 공헌을 하면 형제자매가 자기를 원로나 고위 인물, 특별한 인물로 여겨 공손히 대해 주길 바라는 것도 모자라 자기를 앙망하고 따르며 자기 말까지 듣기를 바란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결하며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팽개치고 훼방 놓고 조롱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부끄러움을 모를 뿐 아니라 몹시 악독하기까지 하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의 인품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측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를 회개하고, 인식하며,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성이 없으며 역겹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는 그것이 당연하고,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래야 이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은사와 능력을 지녔으니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공을 세웠으니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는 고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는 구제 불능이 아니냐? 이는 정상적인 인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품이다. 보통의 패괴된 사람은 정도만 다를 뿐, 어느 정도 이런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깨닫는 것을 통해 이런 건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생기고, 이런 계획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생길 때 저버리고 내려놓으며 뉘우쳐야 한다는 것,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대로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보통의 패괴된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는 영원히 자신의 이런 생각과 마음, 욕망이 잘못된 것, 정죄되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사물, 사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과 인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하고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옳은 것,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을 자신에게 있어야 할 실행, 지켜야 할 원칙이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보통의 패괴된 사람의 차이점이다. 너희 주변에 누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심지어 의식조차 못 하는지 살펴보아라. 그가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은 수치심이 없는 것인데, 이는 분별하기가 가장 쉽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잠 21:29)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듯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만이 영락없는 악인이다. 적그리스도는 후안무치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일,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의식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 옳은 것,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관점과 행동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다.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런 비합리적인 요구,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속셈과 생각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임을 의식해서 저버리고 내려놓느냐? 아니면 진리를 듣고 나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의식이 있을 땐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고 자신의 이런 생각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매우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저버립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저버린다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저버리지도 않으며 자기 생각에 따라 속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을 얼마나 했든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사악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자신이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해 저버리지만,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해도 지각하지 못하다가 폭로되고 나서야 의식하고, 그런 다음에야 기도하며 저버립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의식하고 나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너희는 무감각하고 비춰 보지 못할 때가 많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식하면 곧장 참소받고 가책을 느끼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열하고 비천하며 인격이 천박하다면서 스스로를 증오하고 역겨워한다. 그런 다음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고민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의식하고 나서 저버릴 수 있다면 구원의 희망이 있지만 의식하고 나서도 저버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 무감각하고 자질도 형편없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할 수 있고 저 자신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자질이 얼마나 좋고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든 자기를 저버리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맞서고 저항하면 끝장이다. 구제 불능인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역시 그의 인품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너희 주위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은 이런 부류가 아닌지 살펴보아라. 늘 자신이 완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 높은 자리에 올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어떤 무리에서든 남들과 우열을 가리려 하는 사람, 결국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걸출한 인물이 되어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군계일학처럼 무리 중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말이다. 네가 특별할 게 무엇이냐? 네게 뿔이 있느냐? 아니면 눈이 세 개더냐? 그것도 아니면 머리가 세 개에 팔이 여섯 개라도 되느냐? 특별할 게 없다. 그런데도 너는 왜 스스로를 군계일학이자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첫째, 육이라는 본능이 특별할 게 없고, 둘째, 자질이 특별할 게 없다. 더 중요한 점은 너 또한 다른 사람처럼 패괴 성품이 가득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부류라는 사실이다.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너의 그 알량한 특기나 능력, 은사, 재능은 언급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물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람은 공개 석상에 꺼내놓고 자신의 후광, 영예나 밑천으로 삼고는 여기저기서 뽐낸다. 그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를 밑천으로 사람들을 등쳐 먹으면서 좋은 대접을 누리고 남들의 우러름을 즐긴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정상적인 인성의 이성으로 생겨나는 비합리적인 요구와 생각, 속셈, 마음 등은 모두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에 속한다.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 인성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주요 특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특징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제물을 써서 형제자매에게 맛있는 것, 좋은 것, 좋은 옷을 사 주면서 그것은 형제자매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형제자매가 하나님 집에서 근심 없이 즐겁게 생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어떤 생각이냐? 무척 인간적인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돈으로 여기고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어떤 측면의 문제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측면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위만 생기면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는 제물로 사람의 환심을 사며 말한다. "형제자매들이 입을 옷도 부족할 정도로 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군요. 이 일은 제가 알았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돌보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온정과 큰 사랑,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서 돈을 들여 생활의 다방면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컵은 보온이 되고 마시기 편하며 외출 시 휴대가 간편한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의자는 기대면 푹신해서 오래 앉아도 등이 아프지 않고 앉기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지요. 앉을 때 편하고 높이와 각도, 쿠션감도 적당해야겠죠. 돈이 얼마나 들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집의 기둥이고 하나님 집 사역 확장의 밑천이자 주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면 하나님 집의 사역도 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울면서 감사해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며 계속 부르짖는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듣고 나서 '마침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 어째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냐? 이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제물을 이용해 선심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아껴 주는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무엇이냐? 작게 보면 자신도 덩달아 덕을 보기 위한 것이고, 크게 보면 사람의 환심을 사서 영원히 자기를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지위가 생겨 자기를 좋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자기 돈을 쓴다면 그가 형제자매를 이렇게 대하겠느냐? (그럴 리 없습니다.) 그의 진상이 드러나고, 그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뜻에 따라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인격이 없고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겠느냐?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인성에 갖춰져 있고,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에는 음험하고 악랄한 면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가 하는 말 중 어떤 말이 진실이더냐? 마치 그가 사람을 무척 배려해 주고 사랑하며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제물만 쓰니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하나님 집이고, 득을 보는 쪽은 본인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부끄러움을 모를 뿐 아니라 음험하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본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에 인이 박여서 어디서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한다. 진실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역겨운데 자신은 솔직하고, 선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동정심이 많고, 누구에게도 모진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차마 보복하지 못한다고 어디서든 자랑하고, 또한 자기가 완벽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고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런 본성을 가졌고, 그의 인성은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그리스도의 이 측면은 분별하기 쉽지 않다. 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그리스도에게서 특이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평소에 난폭하게 굴고 거짓말에 인이 박였으며, 말은 청산유수로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한다. 하지만 일할 때는 용두사미에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아무런 원칙도 없다. 하나님 집에서 어느 정도 본분을 이행한 후에도 무슨 일을 하든 실수투성이이고 미덥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하며 여기저기서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지, 자기를 우러러보는지 알아본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실수하고 무슨 일을 하든 미덥지 못하니 하나님 집에서 그를 내보내게 된다. 이토록 확실한 모습을 그는 인식하기는커녕 내보내질 때 억울한 사람인 양 행세했다. 이 억울해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가 예전에 저지른 악행,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한 것, 독립 왕국을 세운 것, 자기 세상을 만든 것,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원칙 없이 행동한 것, 전혀 진리를 구하지 않은 것,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날뛴 것 등 이런 악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눈곱만큼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집에서 오랜 세월 본분을 이행했고, 그토록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며, 오랜 시간을 들여 많은 에너지를 바쳤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명성이 땅에 떨어지니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하거나 동정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억울해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 억울해하는 모습은 어떤 인성의 모습이냐? (비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는 자기가 한 일들, 그가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자기가 한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일, 방해하고 교란한 일을 모두 부인하면서 마지막엔 억울한 사람인 양 행세했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고, 그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이런 사람을 너희는 본 적이 있느냐?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그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든, 그는 세력을 끌어들여 독립 왕국을 세운다. 그가 있을 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주목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을 압도해야 한다. 그는 누구와 이야기하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결국 내보내질 땐 자신이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그를 위해 나서 주길 바란다. 너희 생각에 그를 위해 나서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있다면 진상을 모르는 자나 얼간이일 것이고, 그에게 미혹된 자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4)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적그리스도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도 없다. 부끄러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무척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는 이해하기 쉽다. 바로 이익만 꾀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마음을 기울이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며, 정성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일은 본체만체하며 내버려둘 뿐,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누가 방해하고 교란해도 상관하지 않는데, 이는 그와 무관한 것이다. 좋게 말하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비열하고 야비하며 저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말로 규정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는 자신의 지위, 명예에 유익한 일이라면 공을 들여 말하고 행동하며, 기꺼이 어떤 고생도 감내한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성장에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인의 방해와 교란, 온갖 악행들로 교회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신경 쓰지도 않는다. 누군가 악행을 저지른 악인을 발견해 그에게 알리면 그는 보지 못했다며 모르는 척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를 고발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명예와 이익, 지위만 추구한다고 폭로하면, 그는 눈이 벌게져서 서둘러 사람을 모아 대처 방법을 연구하고, 누가 뒤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누가 주모했는지, 누가 가담했는지 알아본다. 그는 식사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라도 이 일을 파악하여 철저히 해결하려고 한다. 심지어 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리해야 그는 속 시원해한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니냐? 이게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냐? 이는 순전히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영을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역을 맡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지만 생각하고, 현재 자신에게 유리한 그 정도의 일만 고려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그에게는 그저 부업 같은 일이라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촉구할 때만 움직이고, 그저 자신이 하기 좋아하는 일,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일만 한다.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일, 복음 확장 사역,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그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여 그에게 알려도, 또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양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교회 사역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한다. 문제를 그의 앞에 갖다 놔도 그저 대충 처리할 뿐이다. 상부에서 직접 그를 책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할 때라야 상부에 보이기 위해 억지로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한다. 그 후엔 또 자기 일로 바쁘다. 교회의 사역,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도 쓰지 않으며, 심지어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그는 대충 대답하고 얼버무리며 마지못해 대응한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니냐? 또한, 적그리스도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남 앞에 나설 생각만 한다. 인지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그 일을 배워서 하려고 든다. 두각을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된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밖에 모른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우열이나 승패를 겨루고, 누구의 명성이 더 클지 겨룰 뿐이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신을 숭배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자기 말을 듣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교제하거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고 어떻게 본분을 이행하면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이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사역에 편차나 허점은 없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명예와 이익, 지위를 얻거나 야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두하여 일할 뿐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 아니냐? 이는 그의 내면에 야심과 욕망, 무리한 요구가 가득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야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낸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동력과 근원은 모두 그의 야심과 욕망,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어떤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상부에 결과를 보고하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교체되지 않고 자기 지위를 보전하려고 형제자매에게 공을 들여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 봉사하게 만든다. 그는 사역할 때 글귀와 도리만 말하며 진리 원칙은 교제하지 않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며 남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남들이 본분 이행과 생명 진입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도 전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도 붙들어 주지 않는다. 억압하거나 꾸짖는 게 아니면 그저 도리를 말하고 구호를 외친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해서 얻은 성과로 자신을 미화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것이다. 만약 형제자매가 이행한 본분의 성과가 좋으면 그는 기뻐하며 상부에 가서 공을 내세우며 속으로 자신이 본분을 훌륭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하며 자화자찬한다. 또한 그는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 주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이끌고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형제자매가 이 사역을 완수하도록 도왔는지,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악인을 제명했는지 상부에 알린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자신이 치른 대가와 자신이 세운 공을 한바탕 늘어놓음으로써 사역을 훌륭히 이행한 것이 자신의 공로임을 상부에 알게 한다. 이 말은 곧 "저는 명실상부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리더로 뽑은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었습니다."라는 뜻을 상부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성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몇 마디 있다. 예를 들어, 그에게 한 교회의 리더를 맡기면 그는 늘 이런 말을 한다. "제 교회, 저희 교회 생활은 이 정도로 좋습니다. 저희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은 이 정도로 훌륭하고, 이 정도로 깊고, 다들 생명 체험이 있습니다. 제 형제자매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사역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입버릇이다. 그의

입버릇을 통해 그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를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자신이 통제하는 교회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여긴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어째서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에 속하는 모든 모습은 부끄러움을 몰라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비열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분명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일 것이다. 그에게 리더 직을 맡겨 교회 한 곳을 책임지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을 이끌며 본분을 이행하게 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면 그는 이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여긴다.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완전히 그가 결정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의 시설과 재산을 모두 사유 재산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이다. 그는 하나님 집의 재산과 하나님의 선민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것들을 남들과 우열을 가리기 위한 밑천으로 여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의 선민에 해를 끼치는 것도 불사한다. 너희 생각에 적그리스도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사탄의 졸개이자 세상에 내려온 악마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교회도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말해 보아라. 형제자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 중 하나님 집이 아닌 곳이 있더냐? 교회가 아닌 곳이 있더냐? 그런데도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세력 범위 안에 있는 일만 신경 쓰며, 다른 곳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심지어 문제가 눈에 띄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겨 교회 사역에 손실이 발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며 한바탕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이 듣기에는 이성적이고, 일할 때 범위를 넘지 않는 것 같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서 일할 뿐,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닌 인성의 또 다른 전형적인 특징인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질이 아주 뚜렷하고, 그 방면의 모습이 특히 두드러진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경우, 만약 그 일이 그에게 명예와 이익을 가져다주고, 얼굴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큰 관심을 보이며 받아들이고자 한다. 한편, 그것이 남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으며 애만 쓰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일이라면, 혹은 그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의 명예와 이익, 지위에 불리한 일이라면 그는 그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아니라는 듯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난관에 부딪힐 때 절대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법이 없고, 나아가 대국(大局)적으로 행동하며 교회 사역을 고려하는 법도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의 사역 범위 안에서 전반 사역의 필요로 인원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인원을 몇 명 이동시킨다면, 그 교회의 리더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가 자기 교회의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인원 이동을 죽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교회 리더인 그가 왜 하나님 집의 통합적인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겠느냐? 대국적으로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겠느냐? 만약 그가 하나님 집의 전반적인 사역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교회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느냐? 교회 리더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그리고 하나님 집의 통합적인 안배와 배치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래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하나님 집의 배치와 안배에 순종해야지, 절대 어떤 한 리더 일꾼에게 통제되어 그가 소유하고 그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집의 통합적인 안배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단, 리더 일꾼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인력을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이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칙에 맞게 정상적으로 인력을 이동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선민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어떤 리더 일꾼도 누군가를 통제할 권력을 갖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 집 사역이 아닌 사역이 있느냐?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과 관련 없는 사역이 있느냐? 모두 하나님 집의 사역으로, 경중의 구분이나 네 일과 내 일의 구분 같은 건 없다. 원칙을 따르고 교회 사역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이동한다면 그 몇 사람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는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적합한 그 사람들을 자기 곁에 남기는 한편, 평범한 사람 두 명을 보낸다. 그러면서 일에 아주 바쁘다는 둥, 일손이 부족하고 진짜 찾기 힘들다는 둥, 그 두 사람을 보내면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둥 핑계를 대며 난처하게 한다. 또한,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 인원을 이동한 것이 네가 그에게 신세를 진 것으로 느끼게 한다. 이는 마귀의 행실 아니겠느냐? 이방인은 이렇게 일한다. 교회에서 늘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일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냐? 절대 아니다. 이는 이방인이고, 불신파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만약 적그리스도 주변의 자질 좋은 사람을 이동시켜 다른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반항하고 거부한다. 그는 내팽개치고 하지 않으려 하며 리더나 팀장 자리에 있으면서 열의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그는 왜 교회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는 유능한 조력자를 보낼 경우, 자신의 사역 성과와 사역 진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역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고생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다. 그는 안일을 탐하는 데 인이 박여 조금이라도 더 일하거나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인력 이동을 강행한다면, 그는 원망을 한가득 쏟아낼 것이며, 심지어는 자기 사역을 내팽개치고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 집에서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 어떤 리더나 팀장, 개인과도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규칙이다.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도모하고 계산하는 적그리스도는 자질이 좋은 형제자매들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겉으로는 자질 있는 사람을 주변에 남겨 둔 채 하나님 집의 인력 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 사역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전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교회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교체되고 지위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전반 사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지위만을 고려하는 것,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교회 사역에 피해를 주는 대가도 불사하고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최소한 양심에 근거해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집의 사람이지 나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야. 나 역시 하나님 집의 일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집의 인력 이동을 가로막겠어? 하나님 집의 전반적인 이익을 생각해야지 내가 책임지는 범위 안의 사역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 집은 전반적인 사역을, 교회는 국지적인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 집에서는 교회에 특별한 요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 일꾼은 먼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 무척 이기적이라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회 사역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눈앞의 이익만 고려하고 하나님 집의 전반적인 사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감히 하나님 집에서 방해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자는 누구보다 인성 없는 사람이고, 악인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는 늘 교회의 사역과 형제자매, 심지어 자신의 책임 범위에 있는 하나님 집의 재물까지 모두 자신의 사유 재산이라 여겨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두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하나님 집에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손에 넘어가면 마치 사탄에게 점유당한 것처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는 마치 토박이 건달이나 산적 두목처럼 군다. 누구든 그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면 순순히, 고분고분 그의 지휘와 배치에 따르며 그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품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집의 사역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만을 고려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 형제자매가 바친 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를 바쳤든 하나님 집에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적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바친 것은 우리 교회의 소유이니 우리 교회가 보관하고 써야 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권한이 없고, 그것을 가져갈 자격은 더더욱 없지.'라며 잘못 생각한다. 그러니 네가 그들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면 그는 네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 실제 액수를 사실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가져갈까 봐서라니, 무슨 말이죠? 자기가 쓰려는 게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한데 그걸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하라고?' 상부에서는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원칙이 있다. 너는 왜 일을 그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느냐? 너에게 사역에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남겨 주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집에서 일괄적으로 안배한다. 그 재물은 특정 교회 리더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사역과 세력권 안의 재물을 보장받기 위해 이 물건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기가 차지하고는 아무도 쓰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역시 적그리스도의 인품 중 하나의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못되고 악하며, 추악하고 사악하고 옹졸하고 비열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역겹고 화가 난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사람다운데, 말도 듣기 좋게 하며, 어떤 도리도 잘 알고 능통한 듯하다. 그런데 일만 하면 그들의 추악한 인성이 드러나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적그리스도의 인품에는 하나같이 이런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시 말해, 인품에 흉악하고 사악한 성품이 있기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의 인성이 선량하고 올곧으며,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으냐? 분명 옳지 않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이익에 눈이 멀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인이다. 이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5)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한다

적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교회나 세상의 일부 유명인이나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한없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며 아첨까지 한다. 그는 기독교를 믿으면 정계 지도자 아무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면 큰 교파의 아무개 목사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 명분을 내걸고, 유명인을 숭배하고 따라 하려 한다. 최소한 유명인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묻어가야 흡족해한다.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라면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적그리스도는 한결같이 환심을 사고 아첨하며 알랑방귀를 뀌는 것도 모자라 하인처럼 시중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올곧고 정직하며 선량하더라도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괴롭히고 깔아뭉갠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개가 사회에서 기업 CEO다, 아무개 아버지는 부자다, 아무개 집이 잘산다, 아무개는 가문이 대단하고 사업 규모가 크다, 사회에서 명성이 높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교회의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악을 행했든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하며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 한다. 그가 어떤 등급의 리더를 따르면 곧 그 등급 리더의 추종자, 졸개, 노예가 된다. 권력, 세력, 돈,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겸손하며 무능해 보인다. 무척이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무슨 말에든 고개를 끄덕이며 청종할 수 있다. 반면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말할 땐 거친 기세로 사람을 짓눌러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한다.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가 누구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게서 어떤 문제나 흠, 약점도 찾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인품이냐? 음험하고 악랄한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추악한 인성의 일면이 아니냐? 이런 인성을 지닌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권력자와 이야기할 때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가 약자와 이야기할 때 진실을 말하겠느냐? (모두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 항목에서 보면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은 극도로 악랄해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람을 진리 원칙, 인성, 하나님 집에서의 진리 추구 여부에 따라 대하는 법이 없고 오로지 사람의 지위, 세력에 따라 사람을 보고 대우한다. 지위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며 접근하는데 심지어 그들에게 맞거나 욕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없이 한결같이 저자세로 약한 척한다. 하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설사 그것이 사탄의 황당한 이론과 그릇된 주장이고 진리와 전혀 무관하더라도 그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능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고 깔본다. 아무리 원칙과 진리에 부합하더라도 그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반박하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린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 속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특징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처세하는 방식이나 원칙을 보면, 그들을 영락없는 불신파로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의 인품에서 저열하고, 야비하며, 옹졸한 측면을 볼 수 있다.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전형적인 사교 방식이다. 이방인과는 시시덕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도 형제자매에게 고개만 돌리면 공통된 화제가 없어 입을 다문다.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본분을 이행하는 것, 생명 진입이나 성품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면 말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 이방인의 일, 특히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 정계 인물, 사회 명사, 가수, 배우, 사회 흐름, 놀고먹는 일에 관해서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막힘없이 말한다. 그런 생활, 그런 사회적 지위를 대단히 동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역시 자신의 고충이 있고, 속셈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설사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놀고먹는 일이라면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형제자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시하며 깔본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교회의 리더를 보면 '리더답지 않아. 어딜 봐서 관료라는 거야? 세상의 관료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기품이나 품위가 전혀 없어!'라고 생각한다. 또 일부 리더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속으로 무시한다. 이런 부류가 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나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도 별 볼 일 없으시네. 교육 수준도 낮고, 키도 작은 데다가 외모도 특출나지 않으셔. 딱히 품위도 없는 것 같고, 입고

꾸미는 것도 그저 그래. 다들 그분에게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으셔.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뭘 입는지 좀 보라고. 당신의 옷과 신발은 어느 브랜드시죠? 헤어스타일은 또 어떻고요? 유명 헤어숍에서 머리를 자르셨나요? 머리 한 번 자르는 데 얼마나 드셨나요?' 내가 "난 머리를 자르는 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서 직접 자른다."라고 하면 그는 "뷰티 숍은 다니시나요? 호텔에서 묵으세요? 몇 성급인가요? 호화 크루즈는 타 보셨어요?"라고 묻는다. 내가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경험이 너무 없으시네요. 그렇게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셨으면서 세상의 호화로운 것들,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어쩜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으세요? 여건이 되시니 경험해 보세요. 최소한 고급 뷰티 숍, 5 성급 호텔은 가 보시고, 호화 크루즈도 타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는 타 보셔야죠." 그는 나를 보면 속으로 무시한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예배 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 말씀을 들어야 해요."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이리 한 마리한테 먹을 것을 주면 다 먹고 나서 너를 무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이리의 본성이다. 적그리스도는 돈이나 세력도 없고 그저 진리만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는 평범한 형제자매를 보면 깔보고 배척한다. 그가 그리스도 역시 보통 사람이라는 것, 외모나 겉모습, 기질 등 여러 면에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설마 내면의 성품과 관점을 곧바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그의 인품에서 비롯된다. 그가 정상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처럼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그의 본질과 인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의 인성에서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측면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역겹고 혐오스럽다.

지금까지 교제한 적그리스도 인품의 몇 가지 측면의 특징들은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봐도 이런 부류의 인품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간파할 수 있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사람의 인품은 훌륭하냐, 형편없냐? (형편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의 인성은 좋으냐, 나쁘냐? (나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인성은 좋으냐, 나쁘냐? (나쁩니다.)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의 인품은 훌륭하냐, 형편없냐? (형편없습니다.)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할 줄만 알고 이런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의 인품은 어떠하냐? (악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극도로 악랄해서 정상 인성을 지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쓰레기이고 마귀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무릇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는 자는 모두 사람이 아닌 마귀이다.

6)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즉,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요구가 한없이 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동경이 마음에 가득해서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다. "대다수 적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의 인성에 그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떤 원칙으로 먹고 입고 꾸미겠느냐?

지위만 생기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기회와 여건이 생긴 것이기에,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음식은 격식을 따지며 사치스러운 것을 먹으려고 신경 쓴다. 입고 쓰는 것은 반드시 명품이어야 하고, 집과 차도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워야 한다. 심지어 공구 카트 하나를 사더라도 호화로운 장비여야 한다. "그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따지는 걸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의 인성에 이런 욕망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가 일단 하나님 집에서 제물을 장악하면 뻔뻔하고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무엇이든 사고 누리려 한다. 차를 마셔도 고급 차에 찻잔도 도금된 것이어야 하고, 밥을 먹어도 산해진미에 특등급 인삼까지 먹어야 한다. 컴퓨터, 휴대전화는 예외 없이 글로벌 일류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어야 하고, 안경은 수천 위안짜리이어야 하며, 머리 한 번 하는 데에도 수백 위안을 들이려 한다. 마사지나 사우나도 수천 위안이나 그보다 더 비싼 것을 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엇을 하든 고급에 명품이어야 하고, 스타나 유명인, 권력자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려 한다.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얻으면 이런 추한 면들을 드러낸다. 예배 때 3~5 명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 그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서 300~500 명을 모으려 한다. 다른 사람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불리하니 3~5 명이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어찌 고작 몇 사람만 듣습니까? 이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당을 한 채 사서 설교해야 위엄이 있어요." 이건 제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이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호화로운 생활, 물질에 대한 필요에 대해 억누르기 힘든 욕망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인품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특징이다. 유명한 음식, 고급 세단, 명품 의류, 고가의 럭셔리 상품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욕망을 쏟아낸다. 이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분명 마귀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돈이 없는 일부 적그리스도는 고급 액세서리나 2, 3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을 번뜩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5 캐럿짜리는 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1 캐럿도 없는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큰 복을 얻으면 500 캐럿을 머리에 쓰고 다녀야지.' 그에게 욕망이 있지 않으냐? 명품을 입고 호화 크루즈를 타고 바다 위를 누비는 부자가 TV에 나오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낭만적이며 너무 고상하고 부럽다는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린다. '난 언제쯤 저런 사람이 되고 군계일학이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저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반복해서 보고 또 보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따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왜 믿는데? '고생을 해 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잖아. 앞으로 내 삶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가 호화 크루즈를 탔으니 나는 호화 여객기나 비행접시를 타고 달에 가겠어!' 이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현실성이 있느냐? 정상 인성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즉, 물질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얻고 나면 욕심이 끝도 없어서 탐욕의 눈빛과 본성을 드러내며 영원히 갖고자 한다. 적그리스도의 인성엔 권력자를 부러워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물질과 양질의 삶에 대해서도 욕망을 가지고 있다. 정상 인성은 생활이나 물질에 대해 정상적인 범위 내의 필요를 가진다. 하나는 일상생활의 필요이고, 다른 하나는 일과 생활 환경의 필요이며, 또 하나는 신체적인 필요이다. 이런 것들은 쓰기에 충분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그치는 것을 비교적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부류는 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원하고 누리니 욕심이 끝이 없다.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어느 섬김 가정에 갔을 때 차린 음식이 전부 가정식이면 속으로 약간 화를 낸다. 게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환심을 사거나 아첨하지 않고,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속으로 혐오하는 마음마저 든다. 그래서 생각한다. '어딜 가면 좋은 음식을 먹고 큰 방에서 지낼 수 있을까? 누구 집 형편이 좋더라? 누구 집이 차로 마중 나오고 배웅해 줄 수 있어서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을까?' 그들은 항상 이런 일을 고민한다. 너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지는 않느냐? (인성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자제할 수 있느냐? 편안함을 즐기는 것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다르다. 적정선에서 그쳐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패괴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적정선에서 그치지 않으며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인이 박였다. 이 항목에 관해 보충할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적그리스도 한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자매가 그녀에게 패딩 점퍼를 열 벌 넘게 사 주었는데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외출할 때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바꿔 입었습니다. 나중에 리더가 되자 그녀는 하나님의 제물로 승용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섬기려고 좋은 집을 한 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쇼핑할 때는 그녀를 섬기는 자매가 뒤를 바짝 따라다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에 드는 옷을 가리키면 그 자매가 얼른 가서 사주었죠. 그녀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섬김 가정에 만두를 먹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 둡니다. 그러면 만두 찔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만두가 식을 수 있으니 미리 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늦게 찌면 집에 와서도 배를 곯아야 하니, 그것도 안 될 일이죠. 그녀는 황태후처럼 몹시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는 출교당했습니다.) 이 무지몽매하기 그지없는 자들을 좀 보아라!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집과 승용차까지 사 주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좋은 것들을 즐기지 않으면 헛된 삶이라는 것이 그의 원칙이고 이론이다. 이 이론이 옳으냐? 이는 순전히 이방인과 짐승,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의 관점에 속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불신파요 이방인이다. 이런 사람은 지위가 생기면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가 되고, 지위가 없으면 악인이 된다.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음험하고 악랄한 것,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것 등의 몇 가지 특징은 모두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 속에 있는 전형적이고 대단히 대표적인 특징이자 뚜렷한 특징이다. 보통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런 모습은 일종의 패괴 성품이거나 사탄의 패괴를 거친 비정상적인 인성, 혹은 인성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양심과 지각이 생기면 사람은 이것들을 내려놓고 저버릴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진리 추구는 물론, 본분 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인성 속에 지니고 있는 이런 품성과 특징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정죄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왜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이런 인품을 지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구원받을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도태되어 지옥에 떨어질 대상이다.

2020 년 12 월 12 일

부록 5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2)

2. 인품과 성품 본질의 차이

지난번 예배 때는 적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어떤 인품이 있었는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첫째,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둘째, 음험하고 악랄한 것, 셋째,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넷째,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다섯째,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 여섯째,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총 여섯 가지였다. 이 여섯 가지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은 인성이 없고, 양심과 이성이 없으며 인격이 저속하고 인품이 형편없다. 만약 한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고, 간파하지 못해도 그의 인품, 예를 들어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염치가 없는 것, 음험하고 악랄한 것 등 나쁜 인품을 파악한다면 잠정적으로 그 사람을 양심적이고, 마음씨가 선량하며 인품이 고귀한 사람이 아닌 인성이 나쁘고 형편없으며 악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없으면 일단 악인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그의 인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인성의 이런 몇 가지 측면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런 부류는 80% 적그리스도의 부류로 규정할 수 있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성이 악하고, 나쁘며, 형편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면 잠정적으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릇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 이런 부류의 사람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없으며 정직하고도 선량하며 단순하고도 올곧은 사람, 남들에게 진실하면서도 염치가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 중에 적그리스도는 없다. 우선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은 형편없다. 그에겐 양심이나 이성이 없고 인성을 갖추고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품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에서 봤을 때 지위가 없는 그저 평범한 추종자이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의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품이 형편없어서 적그리스도 인품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부류는 잠정적으로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발탁하거나 지위를 주어선 안 된다. "그에게 지위를 주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해지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맞겠느냐? (틀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지위를 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할 것이다. 먼저 그는 독립 왕국을 세울 것이고, 또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집에 유익한 일을 하겠느냐?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생기면 독립 왕국을 세워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고, 방해하며 교란하고, 패거리를 만들며 악인이 하는 모든 짓을 저지를 것이다. 이는 여우를 포도밭에 들이는 격이니 하나님의 선민을 악인의 손에 넘기고, 사탄, 마귀에게 넘기는 꼴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일단 권력을 잡으면 여지없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만약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의 인품으로만 판단한다면, 진상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은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쩜 사람을 덮어놓고 부정하고 정죄하시나요?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로 규정하시다니 이런 사람에게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서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첫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셋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몇 가지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인품이 고귀한지 저급한지, 좋은지 나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지난번 예배 때 적그리스도의 인품에서 보이는 여러 측면의 행위와 말하는 방식, 일 처리 방식 등에 관해 교제하였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으로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보고 분별해 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이는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며 혹은 규정할 수 있는 또 한 측면의 중요한 특징이다.

성품에 관해 예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사람의 패괴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강퍅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이 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그 외의 것, 예를 들면 이기적이고 비열함 등의 성품에 관한 내용은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와 관련이 있거나 비슷하다. 대답해 보아라. 인품과 성품 본질에 차이가 있느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인품은 주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한다. 한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지, 인격이 존귀한지, 존엄성이 있는지, 인성의 도덕이 있는지, 도덕적 수준은 어떤지, 처신에 최소한의 선이나 원칙이 있는지, 인성이 선한지 악한지,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사람의 인품과 관련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인품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선과 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흑백과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 경향으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진리와 관련되지 않는다. 단지 양심의 기준, 인성의 선악으로만 판단할 뿐이라서 진리의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성품과 관련되는 경우는 한 사람의 본질로 판단해야 한다. 그가 선을 좋아하는지 악을 좋아하는지, 정의와 사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 그가 보이는 모습과 선택, 그리고 표출하는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그의 반응은 어떤지는 진리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상대적으로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그에게 패괴 성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선량하다면 그에게 교만함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정직하다면 그에게 강퍅한 성품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고, 인격이 아무리 고귀한들 그에게 패괴 성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나 패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역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고 사람의 성품 본질에 강퍅함, 교만함, 사악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진리가 있다거나, 그에게 패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단지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정직하며 올곧고 심성이 선량하며, 염치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사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품의 좋고 나쁨은 오로지 양심과 도덕, 인격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지만 성품 본질은 예전에 말한 여섯 가지 패괴 성품으로 판단한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높고 인격과 양심, 이성이 있는 데다 심성도 선량하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의미일 뿐, 그가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갖추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무엇을 입증하느냐? 그가 비록 좋은 인품을 지녀서 인격이 상대적으로 고상하고 행동거지나 됨됨이의 도덕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것이 곧 그에게 패괴 성품이 없다거나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의 성품이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의 패괴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의 성품에 상대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말해, 일을 할 때 진리를 구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며, 진리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패괴 성품이 수시로 표출되어 교만함과 간사함, 심하면 흉악한 성품을 표출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의 행동의 근원과 방향, 목표가 진리 원칙에 맞고, 일을 할 때 찾고 구하고 순종한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성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의 인품보다 고귀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선천적으로 좋아서 사람 눈에 인성이 괜찮아 보이기만 할 뿐,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상상이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겠느냐? 엄밀히 말하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의 인품이 괜찮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인품이 괜찮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이냐? 상대적으로 인격이 있는 것,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지낼 때 비교적 공평하고 공정한 것, 남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 상대적으로 정직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양심 있게 행동하는 것, 법률과 인륜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두 가지 기준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지내면 그가 비교적 올곧다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있으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든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춘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실행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런 인성은 그다지 고귀한 인성이 아니다. 즉, 한 사람의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성품의 변화는 더더욱 대신할 수 없다.

인품은 사람의 양심, 도덕, 인격에 대한 말로서 한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려면 그의 양심과 도덕, 인격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품은 무엇에 대한 말이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여러 면에서 훌륭하여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패괴된 인류의 눈에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로 판단한다면 소위 그의 좋은 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의 성품을 보면 교만하고, 강퍅하며, 간사하고, 사악하며, 심지어 진리를 싫어하는 것도 모자라 흉악한 성품까지 드러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 본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리로 판단한다. 한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패괴 성품이 낱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비록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무척 양심적이고 인격적이며 도덕적 수준이 높아 보여서 남들에게 성인(聖人), 완벽한 사람으로 추앙받을지라도 진리와 하나님 앞에 오면 그의 패괴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모든 패괴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이 그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사역할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퍅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사악함, 흉악함의 패괴 성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냐? 성인이 아니냐? 좋은 사람이 아니냐? 그는 그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인류는 모두 똑같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 인격, 도덕이지 진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리로 판단하지 않은 인품은 어떻겠느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한 자의 패괴 성품이 조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패괴 성품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폭로되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패괴 성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에게 나타나면 사람의 눈에 성인,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는 자의 패괴 성품이 전부 폭로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패괴 성품과 사람의 인품은 사실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에게 나타나 사역할 때 사람의 패괴 성품과 추태가 폭로되는 것이다. 이때가 되어서야 사람은 좋은 인품의 이면에 패괴 성품도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성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더 은밀하고 미혹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패괴 성품이고, 무엇이 성품 본질이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이야말로 한 사람의 본질이다. 한 사람의 인품은 오직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틀에 박힌 처신만 상징할 뿐, 한 사람의 인성 본질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인성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무엇이냐는 말이고, 한 사람의 인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좋은지, 마음씨가 선량한지, 인격은 어떤지, 도덕적 수준은 있는지 등의 평이한 것들을 말한다. 무엇이 인품이고 무엇이 성품 본질인지 이해하였느냐? 이는 차츰 터득할 수밖에 없고 한 단어나 한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만약 정의한다면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게 되어 규범화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분명해져 버린다. 이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너희가 깨달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에는 강퍅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 등 모두 여섯 가지가 있다. 이 여섯 가지 중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정도나 상황이 약하고 가벼우냐? (강퍅함, 교만함, 간사함이 좀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패괴 성품의 이런 측면의 모습에 관해 어느 정도 지각과 인식이 생긴 것 같구나. 이 세 가지도 비록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에 속하고, 본질을 따지면 역시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약하다. 즉 비교적 보편적이다. 패괴된 인류는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외에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 이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만약 앞의 세 가지를 평범한 패괴 성품이라 한다면 뒤의 세 가지는 정도가 더 심한 비범한 패괴 성품이다. 더 심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 세 가지가 상황이나 본질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거역하며, 대항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말이다. 이 세 가지는 진리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며 판단하는 등 사람이 나타내는 더 심각한 성품이다. 이 세 가지 패괴 성품은 앞의 세 가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앞의 세 가지는 비교적 보편적인 것으로 패괴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 태어난 어느 인종, 어느 종족이든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뒤의 세 가지는 각 사람의 본질에 따라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패괴된 인류 중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만 사악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의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 적그리스도를 제외한 보통의 패괴된 인류는 일정 정도, 혹은 특정 조건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사악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의 성품을 표출한다. 비록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의 본질은 사악하지 않고, 흉악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품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심성이 선량하고 인격적이며 올곧고 염치가 있는 등 인품이 상대적으로 좋다. 따라서 뒤의 세 가지 심각한 패괴 성품은 간혹 일정한 조건과 환경에서만 표출될 뿐, 이런 성품이 그의 본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통의 패괴 성품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속으로 불복한다. '다들 건성으로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으시지? 어째서 나만 이렇게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거야?' 이런 불복은 어떤 성품이냐? 흉악한 성품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사람을 편애한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드는 성질이 있는 것이니 이는 흉악한 성품이다. 이런 부류의 흉악한 성품은 이런 상황에서 표출되는데 다른 점은 이런 부류는 심성이 선량하고 양심과 지각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올곧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흉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 그의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의 양심이 작동하면 자신의 흉악한 성품과 싸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축복하시고, 내게 은총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양심이 없는 것 아냐?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양심의 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좋은 인품이 작동한다. 양심이 속에서 작동하자마자 그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불복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내려놓아지며 사라진다. 이것은 양심이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표출한 것이 흉악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표출한 것은 흉악한 성품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양심과 인성이 있어서 그의 양심이 그의 흉악한 성품을 억제하여 그가 이성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가 이성적으로 변하고 냉정을 되찾으면 그는 반성할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과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 '방금 너무 충동적이었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닐까? 이건 특별한 은혜잖아? 그런데도 난 왜 억지를 부렸을까?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래선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겠어. 손에 쥔 악을 내려놓고 다시는 거역하면 안 돼. 내가 건성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두 번 다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본분 이행의 원칙이 무엇인지 구해야겠어.' 이는 좋은 인품이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 역시 흉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양심의 작용, 이성적 판단을 통해 결국 그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인품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런 사람의 패괴 성품 중에 흉악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흉악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본질이 흉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표출하는 패괴 성품에는 흉악함이 있지만 그가 양심과 이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흉악함은 패괴 성품 중 하나이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패괴 성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패괴 성품을 표출해서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품 중 양심, 인격, 이성 등이 작용하여 그의 흉악한 성품이 자신의 행동과 진리에 대한 태도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진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이다. 비록 흉악한 성품을 표출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재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통의 패괴된 인류의 모습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단지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을 뿐,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다.

사악한 성품을 예로 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는 가장 사악한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과거 자기가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며 나쁜 짓을 하고 많은 과오를 범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좋은 종착지가 없을 거라고, 결말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근심한다. 늘 자신의 결말과 종착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그는 늘 '앞으로의 결말과 종착지가 과연 좋을까 나쁠까? 지옥에 떨어질까, 아니면 천국에 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봉사자일까? 멸망할까, 아니면 구원받을까? 이런 측면을 언급하신 하나님 말씀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뿐이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온통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것이라 그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딜 가서 물어볼지 고민한다. 그 후 발탁되어 중용될 기회를 찾으면 이렇게 떠보려 한다. '상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예전에 내가 저지른 악행과 과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방증이니 아직 희망이 있어.' 이어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입을 연다. "저희 형제자매 중 많은 사람이 업무에 숙달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은 기간도 짧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제일 길고, 실족하여 실패한 적도 있어서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죠. 기회가 된다면 중임을 맡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로 상부가 자기를 발탁할 의향이 있는지, 자기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시험해 본다. 사실 그는 정말 그 짐과 책임을 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자기에게 아직 구원의 희망이 있는지 속을 떠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 시험의 방식 이면에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사악한 성품이다. 이 방식을 얼마간 표출하고 그가 어떻게 했든, 얼마나 실행에 옮겼든, 결국 표출한 성품은 분명 사악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며,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악한 성품이 표출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인성이 있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행동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사악한 본질이 아닌 패괴 성품만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격적이고, 존엄한 사람은 속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지? 어쩜 아직까지 내 종착지에 연연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보면서 확답을 얻으려 할까? 비열하기 짝이 없군!'이라는 생각에 내심 불안해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말도 뱉어 버렸으니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속으로 깨닫게 된다. '나란 사람은 선의와 정의감이 조금 있지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도 있어. 이건 소인배의 수작이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겠어? 너무나도 비열하고 뻔뻔한 짓이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해야 하느냐, 아니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해야 하느냐? (기도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정당한 패괴 성품의 표출이고, 어느 단계가 양심의 작용이며, 어느 단계가 진리의 실행이겠느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옮기는 단계는 사악한 성품에 지배되고, 반성하는 단계는 양심의 작용에 지배되지 않겠느냐? 그가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양심의 작용에 지배되는 것이다. 그 후엔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는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는 것 역시 인격, 양심, 인품의 작용에 지배된다.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성과 패괴 성품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세 가지 단계가 아니냐? 패괴 성품이 표출되고 나서 양심이 작용하고, 그러고 나서는 손에 쥔 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한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인성이 있고 패괴 성품이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양심과 지각이 있어서 인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인성이 좋은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에서 적그리스도와 패괴된 인류가 표출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기본적으로 똑같다. 하지만 뒤의 두

가지 단계는 다르다. 가령 한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흉악한 패괴 성품을 표출하면 곧바로 양심이 작동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사사건건 약점을 잡아 자기를 난처하게 하고 못살게 군다고 원망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과 패괴 성품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어떻게든 은밀하게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표출하는 패괴 성품을 보면 그의 인품이 어떠냐? 그는 양심이 없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며 흉악함과 악독함을 표출하고 앙갚음한다. 그는 거짓말을 꾸며 내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제자매가 진상을 보지 못하도록 모함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을 다해 해명하고 변호하며, 이를 사방에 퍼뜨리는데, 이것이 바로 흉악한 성품의 연속이다. 그에게는 양심이나 지각이 없을뿐더러 자기를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흉악한 성품을 계속 표출하고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에게 대들고 대항하려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 일이 수습되면 그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겠느냐? 일은 지나갔고,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이번 일이 그의 책임이니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가 인정하겠느냐? 그가 뉘우치고 죄책감을 갖겠느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한결같이 대항할 것이다. '어쨌든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라고 해도 난 선의로 그런 것이고, 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들도 잘못했으면서 왜 추궁하지 않지? 더군다나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가 회개하느냐? 죄책감을 가지느냐? 그는 죄책감도 갖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왜 알아주지 않죠? 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나요? 어쩜 상을 주지도 않죠?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을 묻고, 제 문제를 들추는데, 이건 트집 잡는 게 아닌가요?" 그의 마음가짐과 내적 상태가 이렇다. 이는 분명 흉악한 성품이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사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인정하기는커녕 한결같이 대항한다. 그가 입으로는 욕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몇 번을 욕했는지 모를 일이다. 보는 눈이 없다고 리더를 욕하고, 형제자매 중 좋은 사람이 없다고, 자기에게 지위가 있을 때는 늘 아첨하다가 지위가 사라지니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와 교제하지도 않으며, 웃어 주지도 않는다고 욕한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시종일관 그가 표출하는 성품은 흉악하다. 양심의 작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회개하고 뉘우칠 마음 역시 조금도 없다. 더욱이 그는 돌이켜 진리 원칙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한결같이 따지려 들고 대항하며 원망한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회개할 수 있는 부류와 마찬가지로 패괴 성품을 표출하지만 그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으냐?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패괴된 인류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보통의 패괴된

인류이다. 둘 중 어떤 부류가 악인이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부류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교체되고 징계받는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전혀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고 한결같이 따지려 들고 뉘우치지 않으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낌 없이 판단하고 떠벌리는지를 보면 된다.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가 그냥 그만두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대항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니 앞으로 본분은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겠어. 어차피 제대로 이행해도 상을 못 받고,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으니 건성으로 할 테야. 나한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협력하며, 진리를 구하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한 선만 지키겠어. 시키면 하고 못하게 하면 떠날 거야. 당신들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쨌든 난 이렇게 할 거니까. 나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하지는 마. 무리한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어.' 이는 흉악한 성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느냐? (못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부류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가 사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반성하는 법이 없다. 그는 양심이 없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하고, 어떤 속셈이나 욕망, 야심을 갖든 양심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적기가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한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든, 그는 주저 없이 그의 관점을 고수하고 그의 야심과 욕망, 속셈 그리고 일관된 행동 방식과 방법을 유지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왜 가책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으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의 모든 인성 중 자신의 패괴 성품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가 표출하는 패괴 성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보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든, 시종일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더욱이 마음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양심과 이성이 없어서 야기된 모습이 무엇이냐? 그가 표출한 성품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저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있는 사람에 대해 그의 본질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지닌 사람만이 부정할 여지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두 부류의 인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인성에 지배되는 상황에서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역시 같지 않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으면 선택하는 길도 달라진다. 또 선택하는 길이 달라지면 일 처리 원칙과 결과 역시 차이가 생긴다. 적그리스도 성품만 지닌 사람은 양심의 작용과 이성이 있고, 염치를 알고 상대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편이기에 패괴 성품을 표출할 때 심적으로 가책을 받아 반성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과 자신이 표출한 패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육을 저버리고 패괴 성품을 저버림으로써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양심의 작용이 없고, 양심과 지각도 없으며, 염치는 더더욱 모르기에 패괴 성품을 표출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표출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패괴 성품인지 정상 인성인지, 과연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법이 없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는 시종일관 자신이 표출한 패괴 성품과 자신이 택한 길이 옳다고 고집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든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심각한 패괴 성품을 표출해도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나아가 자신이 표출한 패괴 성품을 깨닫지도 못한다. 물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야심과 패괴 성품을 저버리며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도 못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볼 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적그리스도 본질이 있는 부류는 진리를 깨닫거나 실행할 수 없으며, 구원받는 결과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부류의 차이점이다.

3.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오늘은 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제하겠다. 방금 말한 사람의 여섯 가지 측면의 패괴 성품 중 어떤 세 가지 성품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지닌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느냐?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입니다.) 범위를 이 세 가지로 좁혔으니 앞의 세 가지는 교제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지닌 사람에게 강퍅함, 교만함, 간사함의 패괴 성품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앞의 세 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느냐? (앞의 세 가지는 보통의 패괴된 인류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요약해 주었다. 성품 본질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앞의 세 가지 패괴 성품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진정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뒤의 세 가지, 즉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이다. 이 세 가지 패괴 성품이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비록 앞 세 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패괴 성품을 빠짐없이 전부 지니고 있을뿐더러 보통 사람보다 심각하다. 그의 강퍅함은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으로 요약하고 규정할 수 있고 그 강퍅한 정도를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교만함, 간사함 역시 이 세 가지 성품으로 요약하고 규정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의 주된 특징이 바로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이라는 것이다.

1) 사악하다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의 세 가지 패괴 성품 중 사악함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중 가장 전면적인 측면의 성품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흔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어째서 사악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묘사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부류를 무척 사악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의 생각에서 볼 때 그가 매일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이

그가 사악한 본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묵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생각과 언행, 처세를 분석하고 관찰하여 이런 부류의 사악한 본질이 과연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먼저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매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인지도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고 가문을 빛내 머리에 후광이 생길까? 남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앙망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지위가 있는 건 좋은 거 같아. 위엄 있게 말하고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던데, 왜 나를 찾아오지는 않지? 어째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까? 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고 일에 대한 판단력도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우러러보지도 않을까? 난 언제쯤 두각을 보일 수 있으려나? 언제쯤 모두가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떠받들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저 두 사람은 왜 저렇게 사이가 좋아? 어떻게든 이간질해서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야 나도 동료가 생겨서 외톨이가 되지 않지.'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결국 이간질로 귀결된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떤 일이든 빛 비춤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는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나쁜 길로 끌어들이고, 찬물을 끼얹어 소극적으로 만들지 고민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고 말고를 떠나 모두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 뽑힌 리더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리더와 가까워져야겠어. 그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부를 떨지? 돈이 좀 있으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고 사줘야겠다. 만약 컴퓨터가 필요하면 그 정도 돈은 들이고 싶지 않아. 만에 하나 나중에 리더가 안 되면 그 돈을 들인 보람이 없잖아? 장갑이나 옷 정도는 사줄 수 있지. 투자 가치가 있어. 돈은 요긴하게 써야지 허투루 쓰면 안 돼. 또 말로만 아부 떨고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해. 리더 취향이 어떤지 살펴봐야겠어. 그리고 매일 식사 시간에는 밥을 떠주고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도 해줘야지. 리더가 별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같이 별로라고 해주고, 리더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얼른 추천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야지.'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알랑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일할 때 이런 생각에 골몰한다. '다른 사람들은 힘을 아끼지 않고 일해도 나는 바보처럼 굴지 말고 요령껏 해야지. 너무 힘들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 집이 날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일을 하나도 안 하면 하나님 집에서 쫓겨날 거야. 어떡하지? 리더가 있을 땐 땀 좀 흘리면서 힘껏 일하는 거야. 리더만 보면 돼. 리더가 없을 땐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거나 구석에서 시간 좀 때우는 거야. 남들이 세 번 삽질할 때 난 반 삽만 뜨고, 남들이 물건을 세 번 다섯 번 나를 때 난 한 번만 나르면 돼. 쉴 수 있을 때 쉬고, 요령 피울 수 있으면 피우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무리해서 병이라도 나거나 쓰러지면 누가 알아줘? 누가 치료해 주겠어? 리더가 신경이라도 쓸까? 하나님께서 신경 써 주실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그러니까 일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눈에 띌지 생각해 놓고, 요령을 피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들키지 않고 눈에 안 띄는지 생각해 놓아야 해.' 이것이 무슨 생각이냐?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1)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겨냥해 하는 행동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사악한 것뿐인 이런 부류의 인품이 어떠냐? 인격이 저속하고 음험하다. 그의 성품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사악함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의 성질 중에 올곧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고귀하고 떳떳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 요약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이런 부류의 사악한 성품이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온종일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이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의 생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성질의 방식에 관한 생각이 들겠느냐? 방금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끊임없이 타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는 한결같이 타산적이다. 그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사람이면 모두 타산의 대상이 된다. 둘째, 그가 말없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 행동의 방식과 방법, 근원은 착실한 행동도 아니고, 진리의 실행도 아닌 허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성질이나 방식은 무엇이냐? 기만하고 위장하며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가 위장하고 사람을 기만한다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지위와 명성, 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툰다. 명성을 두고 다투고, 결정권을 두고 다투며, 누구의 아이디어가 많은지, 누구의 생각이 고명하고 합리적인지, 누가 모두에게 옹호받는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다툰다. 이런 것만 다툰다. 그에게 지위가 없어도 이렇게나 사람을 타산적으로 대하는데 지위가 생기면 어떻겠느냐?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슬리고 매수하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격하고 배척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을 듣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여 결국 사람들을 모두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이는 모두 괴롭힘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모두 악한 것뿐이고, 표출하는 모든 성품 역시 악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성품을 정확하게는 사악함이라고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 분수에 맞게 본연의 위치를 지키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 중간에서 갑에게는 을이 나쁘다 을에게는 갑이 나쁘다며 이간질하기만 하면 둘 사이는 틀어진다. 이것이 이간질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타산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교회에서 곧 선거가 있으면 보통 사람, 야심이 없는 사람은 '누가 뽑히든 순종하겠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리더로 삼으시든 소란을 피우거나 교란하지 않고 그를 옹호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신에게 가망이 없어 보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모두에게 괜찮은 물건을 좀 사줘야겠어.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예배하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 사다 놓아서 모두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선거 때 모두가 나를 일 순위로 생각하겠지?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헛수고가 아니고, 돈도 허투루 쓰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곧장 가장 싸면서도 외관이 괜찮아 보이는 공기청정기를 한 대 샀다. 또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다. '한동안은 조심해야겠어. 말실수나 남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삼가야지. 사람을 만나면 비위를 맞추고, 항상 '정말 미인이십니다! 정말 잘 추구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은 저보다 짧지만 추구하시는 건 저보다 훨씬 나으시군요. 인성도 좋으시고요. 당신처럼 인성이 좋으신 분은 구원받으실 거예요. 전 틀렸습니다.'라고 칭찬해야지. 나를 겸손히 낮추고 곳곳에서 나보다 남들을 치켜세워서 그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짓은 적그리스도에게 식은 죽 먹기다. 타산으로는 보통 사람이 그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이방인은 뭐라고 하느냐? (팔려 간 것도 모르고 돈까지 세어 준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한다. 많은 사람이 그가 팔아넘길 대상이자 타산의 대상이다.

말해 보아라.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겠느냐? 자기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그는 자기를 인식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인성이 없고,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고 일을 할 때 주도면밀하지 못하며, 교회가 안배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마귀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진리에 잘 순종하는지 보여 준다. 그는 자기가 왜 책망과 훈계를 받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가 한 짓이 교회 사역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손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고, 공허한 말, 도리에 관한 말,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음으로써 하나님 집이 그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처사이며, 마치 그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면 속으로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여러 악행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책망과 훈계에 순종하겠다던 그의 교제는 무슨 말이겠느냐? 그의 진심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위장이며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적인 말이다. 그가 사람을 미혹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며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 말을 듣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가 옳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자기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집 사역에 초래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지 않느냐?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게 되어 그의 인성이 어떻고, 그의 성품 본질이 어떤지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 보게 되면 그를 버릴 텐데, 그래도 그의 수법에 넘어가고 미혹되겠느냐? 그래도 그를 우러러보겠느냐? 그래도 그를 치켜세우겠느냐? 그래도 그를 숭배하겠느냐? 모두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인식하는 척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위해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나서도록 미혹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속셈이자 목적이다. 그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지엽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만드는 방식은 몹시 사악하지 않으냐? 정말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너무 좋은 말을 해 줘서 제가 감동을 받은 나머지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이들은 그를 무척이나 숭배하고 우러러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뜻밖에도 적그리스도였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 결과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혹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이 절대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일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 역시 무척 많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명언이 있다. "얘들아,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많은 수단도 필요 없이 네 무릎을 꿇려서 내게 절하며 나를 조상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겠다.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죽도록 괴롭힐 거야!"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아첨하며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고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무능한 사람, 노예로 보이면 괴롭히지 않는다.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 자기를 폭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그의 명성과 좋은 일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면 괴롭힐 궁리를 한다. 적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 욕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불복종하는 사람, 자기가 한 일을 분별하는 사람, 늘 자기를 본체만체하는 사람, 자기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온종일 관찰하고 시험한다. 한동안 관찰하다가 이런 사람이 두세 명 발견되면 예배 시간에 그들의 문제를 겨냥하여 교제하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옳은 말이지만 사실상 저격하는 말이고, 이유와 목적이 있는 말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복종하고 자기를 분별하여 늘 폭로하고 고발하며 파면할 생각만 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 몇 사람이 엄두를 못 내고 위축되어 상황이 그가 원하는 대로 전개된다면 그는 그들을 내버려둘 것이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그래도 예전처럼 그를 가까이하지 않고 상부에 그를 폭로하고 고발하여 그를 파면하고자 한다면 그의 다음 단계 괴롭힘의 타깃이 될 것이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좀 더 거칠고 센 방식을 동원하여 트집을 잡고, 그들을 괴롭힐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기 전까지 그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반대파를 이렇게 괴롭히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은 악랄하다. 일단 그는 명분을 찾아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뒤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 괴롭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끝난다. 그전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계속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목적은 작당하여 교회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으냐? 적그리스도는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고 세력을 형성하며 중요한 순간에 자기 대신 목소리를

내며 맞장구쳐 줄 사람, 자기 대신 악행을 은폐하고 변호해 줄 사람 등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 대신 행동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대신 고자질하거나 자기를 위해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한다. 그에게 지위가 있으면 이 무리는 그의 독립 왕국이고 그에게 지위가 없으면 그와 그의 무리는 교회에서 세력을 형성해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방해하며,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교란한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질 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은 위장과 위선에 능하다는 것이다. 원래 성품은 몹시 흉악하고 무척이나 음험하고 악랄하며 교만한데, 겉으로는 무척 겸손하고 온화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위장이 아니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매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뭘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보고 비교적 단정한 사람, 영적인 사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다운 사람으로 볼까? 어떤 자세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교양 있고 품격 있으며 점잖고 고상하게 여길까? 어떤 자세로 걸으면 사람들이 내게 리더의 기품,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일반인이 아닌 높은 사람으로 볼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떤 말투와 어휘를 쓰고, 어떤 눈빛, 어떤 표정을 가져야 나를 사회 엘리트나 고위 지식인 같은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겉치장과 언행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한 번 보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칭찬도 자주 해 줘야겠어. 또 사람들 앞에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고, 영적인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 주고 기도도 많이 해 줘야 해.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깔아서 사람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고, 나를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있고, 너그럽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야겠어.' 이것이 위장이 아니냐? 이는 모두 적그리스도 부류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들의 생각은 이방의 조류에 속한 것들로 가득하니 이는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대변한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는 음탕한 기생도 모자라 창녀처럼 화장하고, 옷도 사악한 조류나 유행을 따라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와 함께 있을 땐 또 다른 옷차림과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이 위장에 몹시 능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여러 측면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 표출하는 성품 등 그 어떤 측면에서든 그의 성품 본질이 사악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진리나 긍정적인 것, 바른길, 하나님의 요구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행동과 방식, 목표는 모두 사악하고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어 진리에 부합하기는커녕 위배된다. 정리하자면 모두 악한데 이런 악한 성질이 사악하다 보니 사악함으로 통칭하는 것일 뿐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단순하고 솔직한 것, 충성심과 진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것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 단순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더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더냐? 한결같이 위장한다. 만일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에게 꼬리를 밟히면 한결같이 포장하고 해명하며 변명하고 사실을 은폐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름의 이유까지 늘어놓는다. 그의 이런 방식 가운데 진리의

실행에 이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라도 있느냐? 있을 리 만무하다.

방금 교제하고 해부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품 본질인 사악함이었다. 우리는 먼저 적그리스도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부터 접근하고 해부하였다. 그의 생각과 관점, 여러 사물을 대하는 방식 및 방법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을 해부하고, 이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의 성질을 해부하였다. 또한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를 통해 그가 표출하는 성품 본질도 해부하였다. 이런 사례 중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성품을 표출하는 사람 중에 인성이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표출하는 사람의 인품 속에 정직함, 선량함, 단순함, 진실함, 올곧음 등의 품성이 갖춰져 있더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의 인품은 음험하고 악랄하며, 거짓말에 인이 박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염치가 없다. 이런 인품의 특징은 상당히 명확하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종일 사악한 것만 생각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인품이 극도로 형편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형편없느냐? 양심이 없고 인격이 없으며 정상적인 이성은 더더욱 없다. 이런 몇 가지조차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무엇이냐? 본질은 이리이다. 이리는 마귀나 적그리스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으냐? 이리는 사냥한다. 소나 양을 잡아먹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천성이다. 그런데 이리에게는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키우거나 그것의 목숨을 구해 준다면 이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해치지 않는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타산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순종하거나 '아멘' 하지 못하고 반대 목소리를 낸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부류를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겠느냐? 이 비유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때 종교에서 적그리스도이거나 악인인 사람을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한 것은 그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부류의 인성 본질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비유였을 뿐이다. 그러나 진리를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마귀는 마귀이며 적그리스도는 마귀와 같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은 만물 생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 예를 들어 이리나 다른 육식 동물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더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는 말을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격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본능과 생존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서 위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사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오로지 긍정적인 것과 진리만 겨냥하고 큰 붉은 용처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짓을 일삼는다.

(2)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겨냥해 하는 행동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겨냥해 하는 여러 사악한 모습에 관한 교제를 마친 후 온종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사악한 생각 중에 하나님을 겨냥하여 보이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제하겠다. 예전에 이런 측면을 여러 번 다뤘으니 같이 정리해 보자. 정도가 약한 것부터 이야기해서 점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넘어가 보겠다. 첫 번째가 의혹을 품는 것이고 그다음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며, 그 밖에 추측, 경계, 요구, 거래가 있다. 또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몹시 심각하다. 뒤로 갈수록 성질이 심각해지는데 부인, 정죄, 판단, 모독, 경멸, 공격, 대듦, 대항이 있다. 이 단어들은 표면적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깊이나 주안점이 달라서 다른 관점이나 적그리스도의 다른 방식을 통해 이 단어들의 성질상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다.

① 의혹을 품는다

의혹을 품고, 연구하고, 추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모습들이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의혹을 품는다. '성육신이 하나님이실까?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어디가 진리 같다는 거지? 단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이 조금 있는 것뿐인데 말이야. 비밀, 예언 같은 말은 사람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선지자들은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늘 나쁜 일만 일삼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체포하고 박해할 때, 우리를 잔혹하게 해할 때 하나님은 어째서 관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주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마음속에 이런 의혹이 생기지만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재를 인식하면 이런 의혹들이 점점 해결되어 진실한 믿음으로 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악한 본질을 지닌 사람은 이런 의혹이 변하겠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적그리스도는 불신파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불신파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게 의혹을 품는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말하면 이런 부류는 천성적으로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긍정적인 것이고 진리이다. 그가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이 전부 사실이고, 하나님의 주재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재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가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은 영원히 불식시킬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고, 사람이 다 목도한 것이다. 평소 믿음이 누구보다 작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몇 년간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을 바꾸지 못한다. 객관적인 이론으로 말하자면 이런 부류가 불신파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상

적그리스도 부류가 진리를 싫어하고, 사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의 행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고 증거하든, 얼마나 큰 사실이 적그리스도의 눈앞에 놓여 있든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도 사악한 것이다. 이 점은 한 가지 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토록 크고 명확한 사실을 그는 보고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의혹까지 품는다. 반면 이방인이나 마귀, 악령이 말하는 소위 부처, 신선이 하는 일은 보지도 못했고 근거도 없는 일인데도 믿으니 이상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도 그는 의심하고 멸시하며 한결같이 마음속에 의혹을 품으면서 사탄, 마귀가 하는 괴상한 일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탄복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나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사탄이 터무니없이 날조한 일은 신뢰하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릴 정도로 숭배하니, 이것이 바로 이상한 짓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의혹을 품는다는 사실은 줄곧 존재했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를 증거하는 사람이나 이를 입증하는 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 본질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부류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정상 인성의 사고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 인성의 사고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그가 긍정적인 사물, 진리, 모든 일 이면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이해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으니 이런 부류는 정상 인성의 사고를 지니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 진리와 하나님 말씀, 긍정적인 사물과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류가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동물은 사악한 성품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는 사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류를 보고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의혹을 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이는 생각의 한 상태이자, 그의 행동에서 표출되는 하나의 성품 본질이기도 하다. 이는 가장 평이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흔한 것이다.

② 연구한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 진실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진실하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답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부류가 하나님 집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목소리만 들리지, 보이지 않아. 목소리로는 여자이고, 말씀으로는 문맹이 아니라 배우신 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내용을 들어 보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모호하게 들리지?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 진리라고 하는데 왜 난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온통 인성에 관한 것,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 사람이 행동하면서 표출하는 여러 가지 내적 상태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고? 썩 이해가 가질 않아. 어쨌든 듣는 사람마다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며, 구원받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 게다가 체험 간증 글을 써서 간증하는 사람도 많던데.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다운가? 얼굴도 본 적 없으니 혹시 만나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목소리만 듣고, 말씀 내용만 들어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연구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상을 파악하여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인데, 그를 따를지 말지, 어떻게 따를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복과 종착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답을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 확정하고, 이 사람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일지, 존재하기는 하는지, 하늘의 하나님 성품,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 태도, 그의 능력과 재능, 권병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확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삶과 행동의 지침이자 목표로 삼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의 패괴된 인류는 어느 정도 연구하고 나면 '이건 옳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은걸. 이렇게 연구한다고 답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연구해서 얻는 게 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숨으실 테니 사람은 진리를 얻을 수 없어. 다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사람이 거기에서 길을 찾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안 될 일이지. 두 번 다시 연구해선 안 돼.' 그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고, 또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과 합할 수 없으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이고, 사람이 패괴 성품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진리 원칙에 부합할까? 패괴 성품이 표출될 때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패괴 성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며, 사람을 진리에 진입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진리 원칙을 찾는 것이다. 매사에 원칙을 찾으면 목표와 방향, 길과 실행 방식이 확립된다. 이 몇 가지가 확립되면 사람에게 행할 길이 생기기에 행동할 때 쉽게 행정 법령을 어기지 않고, 쉽게 패괴 성품을 표출하지 않으며, 쉽게 방해하거나 교란하지도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쉽게 대적하지도 않게 된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적절한 길을 찾았고, 이 길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길이자 인생의 바른길이며,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관망하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쓸모없다. 어떤 식으로 연구하든 사람이 표출하는 여러 패괴 성품은 해결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는 길로 점점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괴된 인류의 정상적인 진입 방식이고, 정상적인 체험 과정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러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에 들어와 하나님 집의 문턱을 넘은 첫날부터 바로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 집은 뭐든 재미있어. 모든 일이 새롭고 이방 세상과 달라. 하나님 집에서는 모두가 정직해야 해. 모두가 한 가족처럼 떠들썩해!' 그는 형제자매들을 연구한 끝에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 하늘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네. 측량하기 어렵고, 이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간편한 방법이 생겼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구하기가 편해졌거든.' 일부 사람들은 운 좋게 땅의 하나님을 접하고 그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연구하기가 더 편해졌다. 그들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땅의 하나님이 이야기꽃을 피울 때는 어떤 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일에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웃고 기뻐하는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언짢고 화를 내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과 화목한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책망하고 어떤 상황에서 책망하지 않는지,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어떤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사람이 뒤에서 그를 연구하고, 뒤에서 그를 기만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그가 아는지 연구한다. 큰 틀에서의 연구를 마치면 적그리스도는 다시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이 땅의 하나님이 무엇을 먹고 입는지, 평소 생활의 규칙은 어떤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디를 즐겨 찾는지, 심지어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맑은 날씨를 좋아하는지,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지, 바람 불고 비 올 때 외출하는지 등 이렇게나 구체적인 일까지 연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을 지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러 온 건지는 간과하고 계속 연구한다. 그는 "당신이 뭘 하러 오셨든 상관없어요. 제 눈에 들면 당신은 제 연구 대상인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성실하게 일념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건 야바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고 했으니 제가 당신을 믿는 것은 제 보물을 당신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연구하지 않는 건 저 자신한테 미안한 짓이고, 제 종착지, 미래의 운명에 무책임한 짓이니, 끝까지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연구해 오면서 오늘까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육신이 맞을까? 잘 모르겠어. 어쨌든 따르는 사람도 무척 많고 현재 복음의 확장세도 비교적 좋아서 이대로라면 널리 전파될 것 같으니 낙오하면 안 되겠어. 하지만 그래도 연구는 해야겠어.' 이런 사람을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성품 본질을 지니고 있어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방의 한 단체나 집단에서 그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연구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이용하며 상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연구한 다음 결과에 따라 비위를 맞추고 상사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산다. 하나님 집에 와서도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 여전히 연구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모두 진리임을 영원히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선포한 그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인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영원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영원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 계속 사탄에게 박해와 추격을 받는 것, 악인이 교회에서 악행을 일삼고 교란하는 것, 종교계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것만 보인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고수하고, 항상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의 관념과 상상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런 소위 증거라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를, 그리고 사람이 깨닫고, 인식해야 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연구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기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생각지 못한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을 온전케 하고, 그들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게 하려고 악인의 악행을 이용해 봉사하게 하기도 한다. 그들을 드러내어 제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혐오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태되는 대상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상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 배워야 할 공과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긍정적인 효과이며,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성품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귀중한 것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혹을 품거나 계속 연구하는 것인데, 연구로 밝혀내지 못해도 계속 연구하는 것이다. 그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으면 그는 "피곤하긴요. 하나님을 연구하면 신나는걸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건 재미있고, 흥미롭고, 매력적이에요!"라고 답한다. 이것은 마귀적인 말이 아니냐? 영락없는 사탄의 몰골이고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연구하러 온 것이다.

③ 추측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추측에 관해 교제하겠다. 사전적 의미에서 추측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에는 구체적인 모습과 생각, 행동이 있는데, 추측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를 바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나서도 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이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본질을 지녔는지는 더더욱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알지도 못한다.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기회가 생기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사람이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교제하시는데 혹시

내가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걸 누가 그리스도께 알려서 날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분명 누가 고발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날 겨냥해 폭로하시는 걸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아시고도 날 좋아하실까? 속으로 나를 싫어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나를 교체할 준비를 하시는 건 아닐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도 교체되지 않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놀래라. 그리스도가 속이 좁은 분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러지 않으셨어.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번에 그리스도를 뵈었을 때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어요. 못 배운 사람처럼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민낯이 드러났죠. 그리스도께서 제 인상을 나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를 도태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분을 뵙지 않을 땐 모든 게 괜찮은데 뵙기만 하면 문제가 터지네요. 앞으론 안 보려고요. 만나면 피해야겠어요. 가능한 한 멀리 피할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와 왕래하지 않을 거고, 어울리거나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이고, 무슨 행동이냐? (추측입니다.) 이것이 추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제 밑천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제 자질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저를 양성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제가 한 일을 폭로하면서 제가 어리석고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도 앞으로 저를 온전케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제 입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땐 미리 시나리오를 써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속 얘기도 그대로 하지 말아야겠어요. 속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심사숙고하고 할 말은 미리 정리해 보면서 저의 가장 우수한 점과 장점을 그리스도께 보여 드려야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완벽하냐고요!" 이것이 추측이다.

추측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는 의혹을 품고, 연구하며 추측까지 한다. 결론적으로 그가 어떤 것에 치중해서 생각하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나 생각, 방식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 본질이 사악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의혹을 품든, 연구하든, 추측하든, 어쨌든 그는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결코 뉘우치지 않으며 한결같이 이런 몇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고, 이런 몇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진리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또 그는 얼마나 오래 연구하고 추측했든, 결과가 있든 없든 그는 한결같이 이 길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는 반성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피조물이 취해야 할 방식이고 태도일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건 무슨 성질일까? 표출하는 건 무슨 성품일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진리에 부합할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최종 결과는 뭘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되지 않을까? 결과가 안 좋을 텐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대로 행동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걸까?' 그가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하지 않느냐? 그의 인품에 양심과 이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황당한 일을 하고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가 비이성적이라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어떤 입장과 자리에 서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나의 평범한 사람, 패괴된 사람,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탄의 족속이자 사탄의 후예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하나님과 웃고 떠들면서 사람과 어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은 이럴 때 드러난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 본질이 그를 지배하여 그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자기는 물론 남에게도 해가 되는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지만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이런 행동의 이면에 깔려 있는 성질이 무엇인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얼마나 고생했으며, 몇 번이나 실패했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참소받지 않으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려 하는 것도 모자라 안하무인격으로 연구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에 대해 몇 번이고 의혹을 품고 추측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의혹을 품지 않으면 연구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추측한다.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닌 사악한 본질의 몇 가지 측면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천성적으로 사악하다 보니 일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혹을 품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추측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것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전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게 뭐가 좋아요? 시시해요. 하나님께 의혹을 품고 하나님을 연구하며 추측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큰 붉은 용의 "하늘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한없이 즐겁다."라는 말과 같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본성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자 진실한 묘사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적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사악하며 그 사악함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악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회개할 거라며 적그리스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이 주장이 옳으냐? '제 버릇 개 못 준다', '강산은 쉽게 변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듯 사람을 대하는 기준과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를 대하고 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작자라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의혹을 품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본성에 지배받은 것이다.

④ 경계한다

다음으로 경계에 대해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생각과 관점은 이렇다. '사람의 운명을 절대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통제하시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시는 순간 망하는 거야.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해야 행복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면서 고생만 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행복은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해.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거나, 매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깨우치시며, 인도하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에겐 인권이 있고, 자주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 의지가 있어. 사사건건 하나님께 보고하고, 구할 필요는 없다고. 얼마나 무능해 보이겠어? 그런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려거든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말할 때 단어 선택도 신중하셔야 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 일생과 청춘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고는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이루실까? 정말 배우자가 필요하거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지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죗값을 치르게 하실까? 큰일 났네!' 그 후로 그는 시무룩하고 울적해하며, 죗값을 치를까 봐 이성만 보면 얼른 자리를 피한다. 이런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니 손쓸 여지는 남겨 놔야 합니다. 자기의 앞날은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러지 않고 탄약과 식량이 바닥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당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재하시는 건 다른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재하시는데 당신 같이 미미한 사람한테 신경이나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만 신경을 쓰시지 이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획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며 당신을 내보내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산이 대단하다. 그 밖에도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나서도 대가를 치르고 진실하게 헌신하지만 인성이 좋지 않고 성품이 악하며 적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 집에 큰 손실을 일으켜 쫓겨났다. 그 후로 그는 얌전히 지내고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우며 누구와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예전에 저는 남들과 되도록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결과 누군가 하나님 집에 보고해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걸어 잠그고 포장하는 법,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털어놓을 수 없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는 믿지 않을 거고, 형제자매는 더더욱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조차 믿을 수 없으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런 행동이 무엇이냐?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책망과 훈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거나 드러나고 나면 "나쁜 마음은 먹지 말되 경계심은 가져라."라는 결론을 내린다. 사실 그도 적잖이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스스로를 위장하며 이런 황당한 논리를 도출해 낸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드러냄과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경험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이런 실패의

교훈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한 원인을 찾고 실행해야 할 길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 번 좌절하고 실패하면 오히려 더 심해져서 하나님에게 품는 의혹이 더 늘어나고 가중되며,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더 거세지며, 하나님에 대해 추측하는 수준도 더 심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도 심해지는데, 그의 경계심은 원망, 분노, 불복종, 불평으로 가득한 것도 모자라 점점 부정, 판단, 정죄까지 생긴다. 이러면 점점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과 사람, 사물, 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냄과 징계 등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 진리를 구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재라는 사실을 믿으려는 인식이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분명히 없다. 그의 경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품은 의혹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추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품은 그의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을 연구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추측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계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생각에서 생겨난 여러 생각과 관점, 그리고 이런 생각과 관점에 지배되어 생겨난 여러 행동과 행위에서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야말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거나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그의 사악한 성품 본질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2020 년 12 월 19 일

부록 6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3)

3.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1) 사악하다

(2)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겨냥해 하는 행동

지난번 예배 때는 주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관해 교제하고 종합하였다. 패괴된 인류의 여섯 가지 성품 가운데 세 가지를 선택해 해부했는데, 그 세 가지는 각각 진리를 싫어하는 것, 흉악함, 사악함이었다. 지난 시간에는 사악함에 대해 교제하며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모습을 해부함으로써, 즉 온종일 악한 것만 생각하는 이 부류 사람의 모습을 대입해 봄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 본질을 실증하였다. 적그리스도는 온종일 악한 것만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부하였다. 한 가지 측면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사상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은 무엇인가, 그의 패괴 본질 안에서 어떤 행동과 모습이 표출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에 대해 그의 사상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측면의 교제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측면에서 적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관념, 관점, 속셈, 나아가 그의 생각 속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교제하였다. 예를 들자면 의혹을 품고, 연구하는 것이 있었다. 또 무엇이 있었느냐? (추측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혹을 품고, 연구하고, 추측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관해 교제하도록 하겠다.

⑤ 시험한다

시험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행동, 혹은 어떤 사상이 드러내는 내적 상태와 본질이 시험이냐? (어떤 과오를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면 늘 하나님에게서 내막을 알려고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며, 자기가 과연 좋은 결말과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하는 것의 측면이다. 그럼 통상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험이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과오를 저지른 후 하나님이 그 과오를 기억하고 정죄할 것 같고, 그 본인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정죄할지 알 수 없다면, 그는 테스트할 방법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태도인지 볼 것이다. 먼저 그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아무 깨우침도 빛 비춤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까지 추구해 온 방식을 철저히 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든 대충 건성으로 임하며, 5 의 힘을 쓸 수 있는데도 3 만 쓰고, 3 의 힘을 쓸 수 있는데도 1 만 썼다면, 이제 5 의 힘을 쓸 수 있으면 5 를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든 일도 자기가 하고, 늘 앞다투어 남 앞에 나서서 많은 형제자매가 그 모습을 보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저지른 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겨 내지 못하는 일이 닥치면 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를 깨우치고 인도하는지 살핀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느끼면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과오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반면, 그렇게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큰 태도 변화를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가 예전과 뭔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예전의 그 과오를 정죄하고 그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으니, 그 후로는 본분을 이행해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아직 복받을 희망이 있다면 얼마간 진심을 바쳐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모습과 생각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방금 너희는 한 가지 측면의 이론만을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러한 일에 대한 사상 속 구체적 행동 방식,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관점과 내적 상태에 대해서도 폭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일에 대해 어떤 인식이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실로 느끼는 바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일에 대해 의혹으로 가득할 것이다. 비록 그가 주관적인 바람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그는 마음속에서 몇 가지 일을 계획하는 동시에 집행하고 시행하기 시작한다. 시행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과연 알고 있을지, 그 일을 들킬지,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 드러내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관찰한다. 물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단순히 확신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의혹으로 가득하며, 이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많은 행동 방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에 의혹을 품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어떤 일들을 생각한 후 두려움이나 알 수 없는 공포감을 품고 몰래 뒤에서 이런 생각을 퍼트려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조금씩 드러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막을지, 폭로할지 살핀다. 만약 폭로하고 규정한다면, 급히 꼬리를 말고 다른 방법을 쓴다. 만약 그가 보기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모르고, 그를 간파하거나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 마음속으로 자기 직감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옳다고 100% 믿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다. 이는 어떤 행동 방식이겠느냐? 이런 행동 방식이 바로 시험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천성적으로 성품이 사악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정직한 태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또 정직한 말로 얘기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떳떳한 게 아니라 우회적이고 수상쩍으며, 자기 생각이나 속셈을 바로 말하는 법이 없다. 그것을 말했다가 남들이 자기를 파악하고 간파하면 그의 야심과 욕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하고

대단하게 보일 방법이 없다고, 앙망받고 숭배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떳떳하지 못한 속셈과 욕망을 늘 숨기고 가린다. 그럼 그는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방식을 쓰겠느냐? 다양한 방식을 쓴다. 이방인들 말에 '미끼를 던지고 속을 떠본다'는 구절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이런 행동을 한다. 그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다. 여러 방식, 예컨대 완곡한 방식, 수소문하는 방식, 혹은 떠보는 방식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낸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성품이 사악해서 진리를 구하는 법이 없고,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명리와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 그는 명리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일이면 하고, 명리와 지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명예와 지위와 관련이 있고 남들 앞에 나서고 체면이 서는 일이라면 앞다투어 하지만, 교회 사역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원망 사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이든 구하려는 태도로 대하지 않으며, 시험하는 방식으로 미끼를 던지고 속을 떠본 후 할지 말지 결정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하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 같은 부류가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 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수소문하고 말의 속내를 알아내려 하며, 리더와 상부가 자신에게 말할 때의 말투와 태도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 같은 부류의 결말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이런 수법과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험하는 성질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책망받은 후 자기가 왜 책망받았는지, 그 일을 할 때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하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진리를 구해 자신을 인식하고 지난 과실을 만회해야 할지 성찰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에게 거짓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자신에 대한 상부의 진짜 태도를 빙빙 돌려 수소문한다. 예를 들어, 책망받은 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바로 상부에 구하며 자신에 대한 상부의 어조가 어떤지, 인내심이 있는지, 자신이 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지, 자신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는지, 자신에게 계속 일을 맡길 것인지, 자신을 높이 볼 것인지, 자신이 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상부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핀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시험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속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압니다.) 그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질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가장 간단한 부분이다. 너는 자신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저버려야 할 때 무척 힘들어하며 생각한다. '관두자. 이번 일은 내 복이나 종착지와 관계돼서 자신을 저버릴 수는 없어. 다음번에 다시 보자.' 다음번에 또 자신의 복이나 결말과 관계되는 문제가 닥치면 그때도 자신을 저버리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양심과 지각이 있다. 비록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지니지는 않았어도 문제가 되고 무척 위험하다. 반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내적 상태로 살면서 자신을 저버리지 못한다. 양심과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가 그를 폭로하고 책망하며 그의 내적 상태를 지적한다고 해도 끝까지 버틴다. 그는 절대 자신을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일도, 자신의 그런 내적 상태를 내려놓거나 해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들은

교체된 후 이렇게 생각한다. '교체된 것은 정상적인 일 같지만, 영 체면이 서지 않아. 큰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겠어. 교체되면 앞으로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아직 희망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집에서 쓸모가 있을까?' 그는 궁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낸다. '내 손에 1 만 위안이 있으니 이럴 때 유용하게 써야겠다. 그 돈을 봉헌한 다음 나에 대한 상부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내게 호감이 생기는지 지켜보겠어. 만약 하나님 집에서 그 돈을 받는다면 나한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그 돈을 받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니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해.' 이는 어떤 행동이냐? 이것을 가리켜 시험한다고 한다. 요컨대, 시험하는 것은 사악한 성품 본질 중 비교적 눈에 띄는 모습이다. 사람은 갖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확실한 소식을 알아낸 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다. 시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어떤 자는 말로 떠보고, 어떤 자는 물건으로 시험하며, 또 어떤 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꾀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은 무엇이냐?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제 마음이 평안한지 살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방식은 무척 자주 사용된다. 또 한 가지는 예배 때 교제하면서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지, 하나님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는지 보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 이 밖에도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깨우치고 인도해 주는지, 자신에게 특별한 생각이나 방법,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살핀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또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맹세한 대로 저를 대하시는지 관찰합니다.) 그런 것도 해당한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든, 만약 그렇게 해서 양심에 참소를 받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동과 성품을 인식하고 바로 뉘우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적인 패괴 성품이다. 하지만 사람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고수하며 저버리지도 내려놓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그는 자신을 반성하는 법이 없고, 진리를 구하는 법도 없다. 그저 일관되게, 한결같이 갖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시험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도, 진리를 구하는 법도 없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진리에 순종하고 성품 변화를 이룰지 구하는 법도 없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뜻을 간파하기 위함이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은 분명히 사악하다. 그는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참소도 받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설사 자신과 대조해 보더라도 후회하거나 그만둘 뜻이 없고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려 한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의 사상 관점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없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고 자신의 방식과 수단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태도와 정의를 알아내려는 것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과 대조해 볼지라도,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조금이나마 있을지라도 전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하나님 집에는 한 가지 규정이 있었다. 제명되고 출교된 사람이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진실로 회개한다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는 규정이었다. 마침 제명된 사람 한 명이 이 조건에 부합하기에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 그를 찾아가 교제한 후 교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과연 정말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을까?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 정말 예전에 내가 저지른 그 일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걸까?' 그는 믿지 못하고 궁리했다. '돌아오라고 했지만, 점잔을 좀 빼야지, 바로 그러겠다고 하면 안 돼. 출교되었던 몇 년 동안 외부에서 무척 고통스럽고 가련하게 산 것처럼 말이야. 자중해야지, 돌아오라고 했다고 바로 어디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할지 알아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물론 기분은 아주 좋지만 차분해져야 해. 하나님 집에서 진심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나를 돌아오게 한 다음 나를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려는 건지 알아보자.'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출교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너무 큰 손해를 끼쳐서 평생 만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돌아오라고 한 이상,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자신을 더 많이 반성하고 인식해야겠죠. 지금 저는 아직 하나님 집에 돌아갈 자격도,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들과 만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뵐 낯은 더더욱 없지요.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한편 두려워했다. '나는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말한 건데, 만에 하나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에 리더가 동의하면 끝장 아닌가?' 사실 속으로는 무척 걱정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그다지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척했다. 그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겠느냐? (교회에서 정말 그가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지 시험한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사탄 마귀의 행동 아니겠느냐?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이런 수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긍휼이니 너는 마땅히 자신의 패괴와 부족함을 반성하고 인식한 후, 지난 잘못을 만회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대한다면, 이는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사람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바로 사악한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과 표출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정의 등을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행동을 저버리고 내려놓으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성품 본질을 지닌 부류는 이런 행동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행동에 염증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자신에게 그런 수단과 방식,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긴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고. 내가 어디 당신들처럼 바보같이 하나님과 진리를 대할 때 순종하고 말을 듣겠어? 난 당신들처럼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방법을 생각해서 몇 가지 방식과 수단으로 이 일에 대해 알아낼 거야. 순종하고 말을 듣는다 해도 그 내막은 알아야지. 무슨 일이든 나를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우롱할 생각은 말라고.' 그는 이런 사상 관점을 지니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을 대할 때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진심도 없으며, 나아가 충성심도 없다. 시험하는 것과 관련된 모습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⑥ 요구한다

다음 항목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것의 세부 모습은 더욱 다양하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이방인들의 말마따나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확실한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이익이 있으면 행동하고,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이렇게 가늠할 것이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잇속을 차릴 수 있고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그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 만약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만 잇속을 차리고 나를 과시하지 못한다면,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탁과 요구를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만약 그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얼마간 대가를 치렀는데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반응이 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왜 이익을 얻지 못한 거지? 우리 집 장사가 과연 이윤을 본 걸까?' 만약 계산해 봐서 수입이 지난달보다 많다면, 그는 계속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설령 위험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 장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윤이 지난달보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 그는 그 즉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혹을 품는다. '하나님,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게으름 피우거나 교활하게 굴지 않았고, 건성으로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뛰어다니며 행한 사역은 지난달보다도 많고요. 그런데 왜 저희 집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희 집 장사가 왜 잘 안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탁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곧바로 달라진다. '당신께서 저희 집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으니, 제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시에 일어나야 하면 6 시에 일어날 거고, 8 시에 집에서 나가야 하면 10 시에 나갈 겁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5 명의 복음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2 명에게만 전할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죠!' 그가 계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자기가 기여하고 지불한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 등가를 이루어야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가 구하고 원하는 것의 몇 배가 되어야 수지가 맞다고,

그것을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어떤 사역과 본분을 맡기든, 그는 한 가지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바로 대충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다. 대충 할 수 있으면 대충 하고, 건성으로 임할 수 있으면 건성으로 임하면서 절대 일말의 진심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요구하는 것이고 거래하는 것이다. 거래하려는 생각이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며, 거래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 집의 사역을 대하고, 자신의 본분을 대할 때 마음속에 일말의 진심이나 충성심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머리와 에너지, 시간, 그리고 육적으로 받은 고통과 치른 대가로 복받으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상을 얻어 내고자 한다. 물론, 이번 생에 육적인 평안과 기쁨, 내면의 평온, 가정의 행복, 나아가 순조로운 주변 환경을 얻어 내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우러름과 앙망,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 요컨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서 절대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며, 절대 일말의 충성심도 바치지 않는다.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든 대충 건성으로 임하든,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류는 일이 안 풀리고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혹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일, 사물이 닥칠 때, 바로 생각한다. '내게 닥친 이 일들이 내 이익과 뭔가 충돌하지는 않을까? 내 명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내 앞날과 훗날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본분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든, 그들은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법이 없고, 내면이 거래 심리로 점철되어 있다. 장사꾼의 눈빛으로 자신이 지불하고 바친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제공한 자본으로 얼마나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이다. 혹자는 "저희는 진리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지? 진리를 깨닫는 건 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것들은 값어치가 없어.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건 이번 생에 백배를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거지. 이번 생에 모든 사람에게 떠받들어지고 우러름을 받으며 하나님 집에서 크게 높임 받고, 내세에는 만국을 다스려야지. 그거야말로 진짜 실속 있는 이윤이라고.'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야심이고, 그들이 본분 이행 이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거래 내역과 요구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자신의 본분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이는 그 알량한 '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생을 얻고 재난을 피하도록 보호받으며,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의 모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바람이 가득하다. 그 바람들을 통틀어 '요구'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원하지 않지만, 그 밖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원한다.

한때 형제자매와 교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위험한 사역을 맡은 적이 있다거나 집에 돌아가기 힘든 형제자매들을 섬긴 적이 있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햇수도 많은 편이라 대부분 사람에게 공로와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다. 그들 자신도 그런 우월감과 우위를 느끼며 나이를 내세워 거만하게 군다.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집을 위해 여러 기여를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해외에 가게 해 주시는 게 있지. 그건 복을 누리는

일이잖아. 만약 자격을 논한다면 내가 우선 아니겠어? 나는 하나님 집을 위해 기여를 한 적이 있으니 우선순위에 오르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나를 원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때 감옥살이를 해서 출옥 후 돌아갈 집이 없어지자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특별히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돈을 좀 내줘서 집을 사 준다든가, 자신의 남은 삶을 책임져 준다든가, 자신이 제시하는 모든 물질적 수요를 충족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만약 그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차를 줘야 하고, 그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집에서 영양제를 사 줘서 몸보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이를 내세워 거만하게 구는 것이고, 자격을 논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뻔뻔하게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집과 차, 사치스러운 삶을 원한다.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무상으로 그를 위해 일을 처리하고 뛰어다니게 하는 등 그의 피고용인, 노예가 되게 한다. 이는 교회에 얹혀사는 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은 전부 네 책임이다. 또 네가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얻는 것은 모두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네가 스스로 원한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네가 생명을 얻는 것 또한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설사 네가 한때 하나님 집과 교회를 위해 위험한 사역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공로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높여 준 것이다. 네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교회에 얹혀살 밑천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는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특히 이 부류는 어떤 진리 실제도 교제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고 젊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의 지난 역사를 교제하고 자격을 내세울 뿐, 가치 있는 생명 체험의 교제나 인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저 허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울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맡지 못하고, 어떤 진정한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얹혀살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요구하니 이는 후안무치한 것 아니겠느냐? 만약 자격을 논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허세를 부리더냐? 내가 너희에게 물건을 요구하더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부류는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후안무치하기 때문이다. 그는 본분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이 거래 심리로 점철되어 있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올바른 관점이 없으며, 그것을 자신의 본분과 의무,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얼마간 본분을 이행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사역은 아무도 하지 못해. 그러니 내가 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이름이 나고 어디를 가든 우러름을 받겠지. 또 어디를 가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생길 거야. 하나님 집에서 우두머리가 될 테니까 무엇을 원하든 갖게 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테지.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을 고려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 집의 사역을 대할 때, 조금의 진심도, 기꺼운 마음도 품지 않을 것이다. 설령 표면적으로는 기꺼이 원하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곧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상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곳곳에서 교회에 얹혀살며 잇속을 차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볼 때, 그의 적그리스도 성품 본질을 '사악함'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본분과 하나님의 부탁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상 관점은 사악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기준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자기 뜻대로 하고, 자신을 위해 명예와 지위를 도모하며, 진리를 구하거나 스스로를 반성하는 법이 없다. 사역 과정에서 어떤 편차와 문제가 생기든 그는 진리를 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늘 진상을 덮고 자신의 체면과 허영을 지키며 언제나 스스로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그의 마음속은 사악함과 사탄 철학,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진리를 구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순종할 생각도 없다. 항상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에 따라 원하는 대로 한다. 어떤 일을 하든, 그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로울지, 어떤 본분을 이행해야 명리와 지위,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영예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속으로 계산한다. 그는 이런 것들만 가늠한다. 일단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기록부에 자신의 공이 기록되기를 바라며, 이와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런 장부를 만든다. 자신의 공로를 절대 한 건도 빼놓지 않고 확실히 적어 두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사역이 많아지고 공로가 커질수록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상과 면류관을 받을 희망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본분을 대하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태도와 관점은 이러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래하고 요구하는 심리가 가득하다. 이는 그의 본성 본질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의 마음속은 왜 하나님에게 거래하고 요구하는 심리로 점철되어 있겠느냐? 이 부류 사람의 성품 본질이 틀림없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분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과 관점에서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들의 성품 본질이 사악하다는 사실이 완전히 실증된다. 얼마나 많은 진리를 교제하든, 사람의 패괴 성품을 어떻게 폭로하고 해부하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성품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는다. 복과 상을 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속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폭로하고 해부하는 것은 상을 주기 싫어서라고, 사람이 공짜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거라고 여긴다. 그는 마음속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념과 오해를 품고 하나님에게 더더욱 반발한다. 그래서 패괴된 인류의 사탄 성품과 본질을 해부하면 할수록, 사탄의 간계와 속셈, 목적을 폭로하면 할수록 적그리스도 부류는 더더욱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는 진리를 교제하면 할수록 자기가 복받을 희망이 요원해진다고, 진리를 교제하면 할수록 고생하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상과 면류관을 얻어 내는 방법이 통하지 않고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진리를 교제할수록, 그렇게 폭로할수록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점점 더 흥미를 잃는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대가를 치르면 어느 정도의 상을 얻을 수 있는지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으며, 고생하며 사역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길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느낀다.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부류는 하나님이 징벌할 대상임을 느끼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진다. 자신의 날이 끝에

이르렀다고, 마지막 날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설교를 한 편 또 한 편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 너희가 모두 머리를 푹 숙인 것을 보았는데,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느냐? 너희가 걸어온 길 역시 적그리스도의 길이었음을 의식한 것이냐? 너희의 머릿속에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악한 생각이 가득한 것이냐? 이제 지각했느냐? 얼른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얼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적그리스도 성품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너희가 모두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복받으려는 속셈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 얼른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서서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올라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쉽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한 후 그 잘못된 추구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그릇된 관점, 복받으려는 속셈을 버린다면, 오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추구하고, 사람을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너는 내적 상태가 점차 정상이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오르게 된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두려운 것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옳지 않고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한사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너는 적그리스도 본성 본질을 가졌으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만약 많은 악을 행한다면 징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평범한 패괴된 사람과 다른 점은 명리와 지위, 복받기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어쩌다 한 번,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며, 그가 걷는 길에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 존재한다. 즉,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사탄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평범한 패괴된 인류는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내면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본성이 사탄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 잘못하면 끝까지 잘못하며, 영원히 바로잡지도, 회개하지도 못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거래 심리로 가득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적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요구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쯤은 부끄러운 일 아니야.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른 것도 아니잖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독립 왕국을 세우고 내 멋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못살게 굴지도 않았어. 하나님 집 사역에 어떤 영향이나 손실을 준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한다. 이는 구제 불능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하고 아무리 폭로하고 책망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구제 불능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네가 그에게 사악하다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 사악함을 고집한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너는 이 부류의 사람과 진리를 교제하겠느냐?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사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사악한

성품 본질로 점철되어 사악한 성품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그의 천성으로, 누구도 그를 바꿔 놓지 못한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어째서 변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진리를 교제하든, 얼마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확실히 폭로하든 그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며,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사물인지 모른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일에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한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한 무척 많다. 형체가 있는 것과 형체가 없는 것,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 등 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욕망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전혀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본분을 이행한다고 해 보자.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알릴 기회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손에 넣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기술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충성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서 이 본분을 받아들인 후 매일 어떻게 해야 이 본분을 잘 이행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분을 위해 제 필생의 에너지를 바치고자 합니다. 또한, 당신을 위해 제 청춘과 전부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난을 겪으려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시고, 제게 총명과 재지를 주십시오. 제가 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준을 끌어올리게 하시고, 제 기술을 더욱 높여 주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충성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관점을 표명한 후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은 형태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거래나 요구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의 초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부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긴 본분에 전혀 진심을 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계획도 없다.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아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명성을 날리고 얼굴을 알리느냐 하는 것이지,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 본분을 이행하는 기간에 자기가 깨달아야 할 진리와 구해야 할 원칙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마자 먼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명망과 지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총명과 재지니, 독특한 견해니,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니, 영적 눈을 뜨는 것이니 등을 말이다. 그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진심을 바치고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거래 심리와 요구 사항이 가득하다. 그러고도 사람 스스로는 그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아 마음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설령 사람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얼마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런 기도, 이런 거래를 하나님이 열납하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본분 이행을 열납하지 않는다. 네 내면에 진심과 충성심이 없으며, 진실한 순종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네가 주관적 바람으로 추구한 것은 지위와 명망이고, 너에 대한 사람들의 우러름과 앙망이다. 하지만 그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는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일이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수판을 놓기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회계사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거래하는데, 원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눈에 전부 무리한 요구로 보일 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얻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고 구원받고자 추구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하나님이 네 본분 이행 과정에서 네게 빛 비춤을 주고, 업무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인지도를 높여 주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네 명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빛 비춤과 깨우침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본분에 활용해서 본분을 더 잘 이행하고, 원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와 동시에 본분 이행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깨우침과 빛 비춤, 은총을 많이 얻었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임을 점차 깨닫게 된다. 또 사람은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행사가 더없이 좋다고, 사람이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자 인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느끼고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든 그는 그 공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그러다가 언젠가 자기 공로를 계산해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상을 요구할 때, 하나님에게 정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철회하면 적그리스도는 드러날 것이다. 여태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성령 역사이자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지 않으면 그의 은사와 총명함, 지혜는 사라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도 사라진다. 그러면 그는 한 명의 바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이런 일이 닥쳐 이 지경에 이르러도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은 줄곧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무리하게 하나님에게 요구해 왔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괜찮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러름 받고 앙망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존중과 옹호를 얻어야 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원한을 가득 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 형제자매들을 가리켜 양심이 없고 배은망덕하다고 욕할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 집이 토사구팽한다고 원망할 것이다. 이는 어떤 존재겠느냐? 몰염치한 작자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이런 부류 아니겠느냐?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 아니겠느냐? "내가 쓸모 있을 때, 중용될 때는 모두 나를 위주로 돌아가더니 이제 중용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군요. 나랑 얘기할 때는 표정도 좋지 않고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근원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악한 성품 아니겠느냐? 그의 사악한 성품 속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거래 심리로 가득하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요구를 한다. 그 뜻인즉슨,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졸였으니까 당신들은 공손한 태도로 내 앞에 와서 예의를 갖춰 말해야 해. 내게 지위가 있든 없든 당신들은 모두 내가 훌륭하다고 기리며 영원히 마음속으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나를 잊는 건 양심이 없는 거야. 당신들이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좋은 것을 쓰든 다 나를 생각해야 해.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늘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하나님 말씀 서적은 누가 인쇄한 겁니까? 누가 당신들에게 갖다준 겁니까? 만약 제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더라면, 옥살이하고 사형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책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양육해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당신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신들이 마음 편히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교회 사역이 지금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집이 그들 없이는 사역의 진전을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그들 없이는 지구가 돌지 않는 것 같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가 이 말을 외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공을 가로채려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려는 것이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지금 자기를 쓰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냉대한다고, 하나님 집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나님 집은 그를 공경하지 않고 그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가 외치는 이 말에는 사람들을 욕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그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욕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봉사를 하겠느냐?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전부 교란하고 방해하는 짓이고, 적그리스도의 말은 전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는 인성이 없는 마귀인데, 무슨 근거로 그에게 양심을 논하겠느냐? 그에게 양심을 논하는 것이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를 따르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얻겠느냐?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몰염치한 생각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양심을 가지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저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여 구원받으라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면 그만이라고 요구할 뿐이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를 생각해 남겨 놓으라고, 좋은 곳에 머물면 나를 생각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머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질투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양심이 없다고 하더냐?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양심이 없다고 사람들을 욕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를 교체할 때, 형제자매들이 더는 그를 예전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내뱉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람들과 하나님을 욕하고, 무슨 말이든 다 지껄이는 등 마귀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이 드러내는 갖가지 모습이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래 심리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요구와 바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발탁되거나 교체될 때, 하나님 집에서 중용되거나 중용되지 않을 때, 적그리스도 부류에게 생겨나는 갖가지 모습은 전부 사악한 본질로 귀결해야 한다. 이는 조금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다.

⑦ 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독한다

이어서 '부정', '정죄', '판단', '모독' 등 몇 가지 단어에 관해 교제하겠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마음에는 혐오감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 말할 필요도 없이 순종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추측하며, 또 언제나 하나님의 행사에 관념과 갖가지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저울질한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지식의 관점으로, 또 도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걸까?' 그는 이렇게 저렇게 수년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과 행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이자 생명이자 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궁리한다. '다 진리라고? 그냥 평범한 말 아닌가? 흔하게 하는 말 아냐? 별로 심오할 것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며 생각한다.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신다고 하지만, 모르겠는걸. 돋보기나 천체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아직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100%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니, 세상에는 기이한 일, 신비로운 사건들도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 존재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과연 어떻게 행사하실까? 모르겠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는 거겠지.' 관찰을 통해, 그는 하나님 집에서 수시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며 자주 사람들을 발탁하고 교체한다는 사실을, 또 수시로 갖가지 본분이나 업무 관련 사역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토론하고 교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 그는 생각한다. '이런 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초자연적이지 않고 전부 무척 정상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고. 느낄 수 없다면 성령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건 다 사람이 의식 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해 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령 역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과연 존재할까?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실까? 말하기 어려워.' 5 년을 체험해도 확신을 못 하고, 10 년, 심지어 15 년을 체험해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들이 불신파임이 드러났다. 이 불신파는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섞여 지내며 대세를 따른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도 전하고,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하면 그도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발탁될 기회가 오면 그는 하나님 집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위를 위해 억지로 힘을 좀 들이지만, 이와 동시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방해하고 교란한다. 평범한 일원으로서 지위가 없다면, 그는 몸을 사리면서 체면이 서는 일만 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되는대로 지내는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집에서 마지못해 본분을 이행한다. 또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한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을 바쳐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뭘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먼저 관찰하자. 정말 그 내막을 알아낼 수 있고 복받을 희망이 보인다면, 힘을 들이고 헌신해도 헛수고는 아닐 거야. 만약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하고 내막을 알아낼 수 없다면, 이렇게 하루하루 때우는 것도 손해는 아니야. 어쨌든 힘들지 않고, 그렇게 많은 걸 바친 것도 아니잖아.' 이는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하지 않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며,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진실로 대가를 치르지도 못하니, 이것이 바로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되는대로 살아간다고는 하나, 그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매우 바쁘게 돌아간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에 대해 관념과 생각으로 가득하며, 자기 관념에 맞지 않는 많은 일을 마음속에서 지식과 법률, 사회도덕, 전통문화 등으로 따져 본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는데, 진리를 알아내거나 진리 실행의 원칙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한 사역에 대해 각종 정죄와 판단, 심지어는 모독까지 한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무엇을 판단하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은 전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행해. 뭐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성령이 이끌며 인도하신다는 거야?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라고 말한다. 이는 불신파의 말 아니겠느냐? 사람이 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누군가를 뽑고 양성하는 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는 마음속으로 불복한다. 적그리스도가 진실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일들을 하겠느냐? 그는 상대를 실각시킬 것이다. 만약 실각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형제자매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 집은 불공평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없고. 세상에 천리마는 많지만 백락은 흔치 않아."라고 말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자기는 천리마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집에 백락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자기 관념에 맞지 않게 처리한 그 일을 정죄한 후 뒤에서 이것저것 퍼트린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관념을 퍼트리고, 소극적인 기운을 퍼트리는 것이다. 물론 그가 하는 말들은 다 무척이나 귀에 거슬린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문화적 소양이 있고, 외모도 괜찮은 데다가 외모 관리도 할 줄 압니다. 게다가 도시 사람이고요.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서 재능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상부와 소통도 하지 못해 발탁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는 사람은 모두 말재간이 있고 아부할 줄 알고 수완이 좋은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말재간이 없죠. 드러나지 않는 재능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집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천리마는 많지만 백락은 흔치 않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을 판단하고, 뒤에서 그것을 퍼트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 방식을 지식과 철학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연구하고 추리하여 마지막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묵상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이론과 좋은 어구로 삼는다.

또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거나 원칙으로 하여 그 각각의 일을 바라보거나 정의하거나 가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사탄의 철학, 이론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도출한 결론은 바로 모든 일이 그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적그리스도의 눈에 정죄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서 늘 권력을 잡고 싶어 하지만, 이렇다 할 자질도 특기도 없어 하나님 집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만 맡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나 물건 전달 등 간단한 사무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류의 사람은 교회 리더나 설교자 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은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못하며, 자기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하나님 집의 크고 작은 일을 전부 물어보고 알아보고 내막을 알고자 하며, 나아가 개입하려고 한다. 힘쓰는 일을 좀 하라고 하면 그는 늘 이런저런 것을 알아본다. "우리 하나님 집의 서적 인쇄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상 감독으로 뽑힌 사람은 어떤가요? 지금 누가 감독을 하고 있죠? 각본은 누가 쓰나요? 누가 우리 지역 리더인가요? 그 리더는 어떻죠?" 그가 왜 이런 일들을 알아보겠느냐? 그가 이런 일들에 대해 묻고 신경 써야겠느냐?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전부 사무적인 일로, 진리와는 무관하다. 그럼 이 '마음씨 좋은 사람'은 왜 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느냐? 걱정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힘이 남아도는 것이겠느냐? 전부 아니다. 위로 올라가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야심이 있어서이다. 그럼 그는 그것이 야심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임을 의식하겠느냐? 의식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런 이성이 없다. 그는 인성이 악랄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간단한 본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늘 나쁜 모습을 보이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편한 것만 좋아한다. 심지어는 여기저기에서 온갖 정보를 알아내다가 결국 그런 모습 때문에 제명된다. 하나님 집에서 그를 제명한 것은 옳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걱정하기를 좋아하고 온갖 정보를 알아내기를 좋아해서 제명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늘 공밥을 먹기에 여기에서 되는대로 살지 말라고 내보낸 것이다. 무슨 일을 시키든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를 썼다간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이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명될 위기에 처하자 조급해진 그는 그제야 진리 원칙을 구하며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제명하거나 출교하는 원칙이 과연 뭔지 찾아야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저를 제명하는 거죠?"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당신처럼 그렇게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하며, 무슨 일을 하든 교란하고 망쳐 놓는 사람은 제명의 원칙에 100% 부합합니다."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사람을 제명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찾으려 드니, 참 가소롭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 중 일부는 제명되고, 일부는 일반 교회로 보내진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본분 이행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가 진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적그리스도 부류는 영원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불신파이며, 진리에 부합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물도 적그리스도에게 판단되고 정죄되기 때문이다. 내막을 알아내기를 좋아하고 야심만만해서 늘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자신의 본분에는 전혀 진심과 충성심을 다하지 않던 적그리스도는 쫓겨날 때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말한다. "제 선의와 진실한 충성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군요. 왜 저를 쫓아내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내키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이 크나큰 열정과 선의가 하등 값어치 없는 것이 되다니, 하나님도 불공평하십니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의 이 말에 사람다운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실상에 부합하는 게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거친 말이고 터무니없는 말이며 불신파의 말이다. 또 전부 불평이고 원망이며 정죄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다. 만약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위장하면서 하나님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에게 청소를 시키면 여기저기 제멋대로 싸돌아다니며 일을 하지 않고, 그에게 주방 일을 시키면 두 사람 몫의 밥도 하기 싫어하면서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것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리더가 되어 명령을 내릴 줄만 아느냐? 하나님 집에서 이런 사람을 제명하여 내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냐?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데도 그들은 뒤에서 욕하고, 떼쓰고 행패를 부리며, 막돼먹은 여자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이 닥치거나 자기 욕망과 바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일이 닥쳤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겠느냐? 진리를 구하겠느냐?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일어나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말만 나온다. 그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집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좋아. 먼저 나한테 각박하게 굴었으니, 내가 너그럽지 않게 굴어도 원망하지 마. 우리 끝장을 보자고. 누가 더 독한지 어디 지켜보잔 말이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겠느냐? 정상적인 피조물이 지녀야 할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반드시 진실로,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독하고 욕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지금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집에서 네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할 만한 100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만약 네게 이성과 인성, 하나님에 대해 일말의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겠느냐? 일말의 인성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대한 적도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원수지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탄, 마귀이다.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 행한 어떤 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을 외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본질이고, 적그리스도의 타고난 본질이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악함 아니겠느냐? 이는 극도로 사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은 정도는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성품의 표출과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선택하는 길을 통해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이고 어떤 부류가 힘쓰는 자이며 어떤 부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지 판단할 수 있겠느냐? (모두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표출하지만, 어떤 이는 양심의 지각이 있어 패괴 성품을 표출한 후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며 진리를 실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지각이 없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옳으냐? (옳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똑같이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해 육을 저버리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한 후 후회하는 사람,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칠 수 있는 사람,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고 올바른 길과 진리 실행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선민이다. 또 한 부류는 자신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이 닥쳐도 성찰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다 할 진실한 인식이 없으며, 마음속으로 강렬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회개니 뉘우침이니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진리나 구원받는 일에 관해서도 흐리멍덩하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기꺼이 힘을 쓰고자 하고, 뭘 시키든 하지만, 일을 참답게 대하지 않고 때로는 방해하고 교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악인은 아니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일을 처리할 때면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하는 법이 없고, 진리 원칙대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진리에도 흥미가 없다. 본분을 이행하고 힘쓰는 일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진리 추구에 대해 말하면 바로 힘을 잃고,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본분 이행에 충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하는 편이고 얼마간 진심을 보인다. 또한, 각종 패괴 성품에 대해 인식할 수 있지만, 일이 닥쳤을 때 반성하는 법이 없으며,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힘쓰는 자이다. 마지막 한 가지 부류는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며, 마음속이 사악함으로 가득하고, 늘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한다. 또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 진리에 대한 정죄, 판단, 모독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밖에도 스스로를 인식하는 법이 없고, 아무리 많은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인정하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으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지 여부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하다. 너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선민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그것도 아니면 힘쓰는 자

부류냐? 지금 첫 번째 부류를 향해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느냐?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인성이 없는 악인은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이고, 얼마간 인성이 있고 양심과 이성이 있으며, 인품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류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한편, 인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쁜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 진리에 아무 흥미도 없고 진리 추구를 전혀 원하지 않지만, 본분을 이행할 때 얼마간 진심을 보이는 부류는 힘쓰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다. 적그리스도가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힘쓰는 자 부류에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의 여지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후 경험과 체험, 깨달은 진리가 많아지면 조금씩 힘쓰는 자 단계에서 하나님의 선민 단계로 옮겨갈지도 모른다. 지금은 깨닫는 진리가 적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본분 이행과 진리 실행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다. 또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등 육적인 각종 필요를 내려놓을 만한 분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힘쓰는 자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부류는 상대적으로 양심이 있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 점차 진리를 깨달음에 따라,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햇수가 늘어나고 체험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겨난 후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조금씩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이 추구해야 할 길 역시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또 진리에 흥미가 생기고, 갈수록 진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차츰 구원받는 길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진보하고 변화할 여지가 있다. 반면, 적그리스도 본질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마귀이자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는 영원히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표출하는 사악한 성품과 본질 속 부정, 정죄, 판단, 모독에 관해 교제하였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관념에 맞지 않고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이 닥치면 즉시 일어나 반항하며, 이와 동시에 정죄한다.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니,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고발해야겠어. 증거를 찾아 그 일을 명백히 밝힐 거라고. 나는 해명하고 변호할 거고, 그 일의 전말을 정리할 거야. 대체 누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내 명성에 먹칠을 하였는지, 내 일을 망쳐 놓았는지 보겠어.' '닥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말은 적그리스도 부류의 마음속에서 빈말이 되며, 그의 일 처리 방식과 방법, 원칙을 지도하거나 바꿔 놓지 못한다. 반대로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에서 천연적인 것에 의존하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내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수법을 이용해 행동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죄이고 판단이고 모독이다. 사람의 사상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탄의 논리와 사상으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적그리스도가 보여 주는 모습이 사탄과 같은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어투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악한 본질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하나님을 믿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해서 정상 인성의 사유와 이성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느냐? (알 것입니다.) 그럼 정상 인성을 지닌 성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모르겠느냐?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지, 사람의 이성 안에 기준이 없겠느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굽실거리고 비위를 맞추며 아부할 줄 안다. 설령 상대가 너를 때리고 욕할지라도 온갖 방법을 생각해 그에게 맞추고 순종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고 사랑인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상처이고 증오인지 사람이 모르겠느냐? 판단 기준이 없겠느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 그러니까 인두겁을 뒤집어쓴 이 생명체가 동물과는 차이가 있고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방증이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고 사랑인지 아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입만 열었다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히 모독하고 욕하는데, 이것이 정상인이 할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사람이 동물을 키울 때, 설사 그것이 야생동물일지라도 한동안 함께 살면서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시켜 주면, 그 녀석은 주인을 영원히 공경하며, 가족이나 일족의 구성원처럼 대한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다르다. 네가 한때 그 녀석의 주인이었다면, 그 녀석이 두세 집을 전전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네 냄새만 맡아도 즉시 정이 들 것이다. 또한, 그 녀석이 사나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물의 사나움은 천성이다. 그 천성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생존 본능이지, 흉악한 성품도, 사악한 성품도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악함과 차이가 있다. 새끼 사자를 데려다 기른 두 사람이 있었다. 얼마 후 사자가 점점 커지자 그들은 계속 먹이를 주기가 힘들어졌고, 녀석이 1 살이 됐을 때 다시 자연으로 방생했다. 그리고 3 년 후, 그들은 다시 그 사자를 만났다. 사자는 멀리서 그들 둘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처음에는 그들도 걱정했다. '우리를 잡아먹지 말았으면. 저건 사자잖아.' 하지만 사자는 그들을 형제처럼 끌어안았고, 그들은 사자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었다. 사자는 그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또 헤어질 때가 되자 매우 아쉬워했다. 보아라, 사자는 야생동물 중 가장 사나운 동물이다. 육식동물이 사람과 함께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여 준다. 무척 감동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나운 동물에게서도 정과 의리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사탄의 성품 본질을 가진 부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모독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있으면 그런 모습이 생기고, 나아가 그런 행동 방식이 생긴다. 이는 동물보다 못한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 자신의 육친이나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이고 사랑과 보호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주게 되는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전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행동을 보여 치가 떨리게 한다. 그러니 이 부류의 사람은 천성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확히 말해서, 이 부류의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고 살아 있는 사탄이며, 마귀에 속하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을 정죄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이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본질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든, 심지어 그것이 네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에 놓고 언제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경멸, 대항, 저항에 관해서는 예전에 교제한 바 있다. 어떤 자는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따로 자기 근거지를 만들며, 패거리를 짓고, 독립 왕국을 세운다. 또 어떤 자는 뒤에서 몰래 욕하고, 어떤 자는 마음속으로 욕하며 대항하고 아우성친다. 공개적으로 욕하든, 몰래 욕하든 전부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사탄에 속하는 부류이다. 그들은 분명 정상인이 아니며, 기준에 맞는 피조물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닥칠 때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또 받아들이지 못하며 원망하고, 강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극적으로 변해 태만하게 굴기도 하지만, 대항하거나 대드는 수준까지 가지는 못한다. 또 한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 징계를 받으면 조금씩 뉘우치게 된다. 이는 평범한, 패괴된 인류가 일이 닥쳤을 때 보이는 모습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는다. 어떤 일이 그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일로 욕하고, 다음 일이 그의 뜻에 맞지 않으면 또 욕한다. 욕하는 동시에 대항하고 대든다. 심지어 어떤 적그리스도는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대드는 것 아니겠느냐? 대항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하는 것이다. 전혀 순종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고 대항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사악한 성품의 갖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2) 진리를 싫어한다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제 2 조, '진리를 싫어한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진리를 싫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세부 내용을 적잖이 교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해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 부류를 규정하도록 하겠다. 진리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성품 특징은 단순히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한다는 것이다.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진리를 대하는 태도 중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일 뿐,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대항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신경을 안 쓰려 하며, "긍정적인 사물이니, 진리니 하는 게 다 뭐야? 그런 걸 얻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걸 얻으면 잘살고 능력을 키울 수 있나?"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 싫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싫어한다는 것은 일종의 태도 표명이다. 어떤 태도겠느냐?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반감을 느끼고 거부하며 듣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는 증거를 찾아 진리를 정죄하고 폄하하려고도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 본질이다.

적그리스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한 사역을 체험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역시 지면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말씀들은 다 사람이 옳은 길에 오르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론에만 머무른다. 이론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예컨대, 어떤 사람은 책에 나온 이론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생활과 대조하고는 이 사악한 흐름, 인류의 패괴, 그리고 전 인류의 각종 필요를 보며 그 말들이 비현실적이고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사람이 이 사악한 흐름과 사악한 사회에 적응하거나 순응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 말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저 입으로 말하는 데 그친다고,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인류의 바람이나 환상을 만족시켜 주는 데 그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이 지위를 좋아하여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받들어지고 숭배받고 싶다면,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를 뽐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등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진리는 딱 그러한 사물을 정죄하며, 사람의 그런 욕망과 야심을 정죄하고 부정한다. 실생활 속에서 사람은 두각을 드러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요구는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모두 정죄된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요구는 하나님 집에서 통하지 않고, 발휘될 여지가 없으며, 실현될 공간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가 포기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해했어. 이제 보니 진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잊고 버리게 하고, 관용과 아량을 갖게 하는 거였어.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야.'라고 정의한다. 진리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린 후 그가 진리에 흥미를 보이겠느냐, 아니면 반감을 보이겠느냐? 그는 진리에도, 하나님에게도 반감을 보인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늘 진리를 얘기하시고, 사람의 욕망과 야심 등 정결치 않은 것들을 드러내셔. 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진리를 교제하시는 목적은 지위와 욕망, 야심에 대한 사람의 추구를 박탈하는 데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고, 사람의 바람과 꿈을 이뤄 주실 수 있다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이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 줄은 몰랐어. 아무래도 별로인 것 같아. 내 안에 야심과 욕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행간을 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과 맞지 않으셔. 나는 이런 실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역, 그분의 일 처리 원칙,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는 왜 마음에 거슬리는 걸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양심을 갖추는 것, 일이 닥쳤을 때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것,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등 이런 것을 나는 못 해!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상정도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생각한 그가 하나님에게 호감을 갖겠느냐, 아니면 거리감을 느끼겠느냐?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동안 체험한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자기처럼 야심과 욕망이 있고 포부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쓰일 곳이 없다고, 포부를 펼칠 수 없다고 여긴다. '하나님 집에서는 어떻게 해도 두각을 드러낼 수가 없어. 빛 볼 날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더러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느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느니,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다느니 그러잖아. 발탁해서 중용하기는커녕 정죄한다고. 내가 독립 왕국을 세우면 그게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그게 또 뭐? 나한테는 권력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 선거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속임수를 쓰면 그게 뭐? 이방인들은 다 그러지 않나? 하나님 집에서는 왜 안 되는 거야? 그건 몰염치한 행동이라느니 그러는데, 그게 왜 몰염치한 행동이야?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도 있잖아. 그건 정당한 거라고! 하나님 집은 재미없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무 흉악해서 함께 지내기가 힘들단 말이지. 하나님 집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하잖아. 여기에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다스리는 진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대장이고 주인이고 왕일 텐데.'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부단히 갖가지 일을 겪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며, 여러 본분에서 교체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깨닫는다. '하나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닥치든 진리로 판단하고 해결해. 모두 진리를 강조한다고. 하나님도 한결같이 진리를 얘기하시잖아. 나는 여기에서 포부를 펼칠 수 없어!' 여기까지 체험한 그는 진리, 진리가 권세를 잡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진리라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 등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된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겠느냐? 제일 처음, 자기가 인정한 진리의 도리적인 측면조차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극도의 반감을 보인다. 그래서 그는 예배만 했다 하면 졸고 걱정한다.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서너 시간이야. 언제쯤 끝이 날까? 듣기 싫다!' 그의 마음을 형용하는 말이 있으니, 바로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다."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진리가 권세를 잡는 한 자기가 빛 볼 날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언제까지고 제한받고 정죄되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대상이 될 거라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중용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리와 하나님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된다. 그가 왜 처음에는 혐오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는 처음에도 혐오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 집의 모든 것이 낯설고 개념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혐오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 그때도 본성 본질 속에서 진리를 싫어했다. 이 사람들의 본성 본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는 천성적으로 불의와 사악한 것, 권세, 사악한 흐름, 권력을 잡는 것, 남을 통제하는 것 등 모든 부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들을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를 싫어하는 존재이다. 이 밖에, 그의 추구를 볼 때, 그는 지위를 추구하고, 두각을 드러내기를 추구하고, 자기한테 후광이 나기를 추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며 위엄과 권세를 갖는 것, 어디에서 말하고 일하든 위신과 힘을 갖고 남들을 통제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또한 진리를 싫어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리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다. 혹자는 "그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적그리스도는 기억력이 좋고 말재간이 뛰어나서 배운 것을 바로 써먹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부류가 자질이 좋고 성령 역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전부 도리이고 빈말로, 진리 실제가 전혀

없으며 사람을 미혹하는 말임을 깨닫는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부류로, 높은 설교를 하기 좋아하고, 영적인 이론을 의미 없이 떠들며, 말이 청산유수 같다. 말만 했다 하면 종잡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그는 "이것은 셋째 하늘의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싫어하는 가장 주된 모습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일 처리, 특히 본분 이행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모습이 있다. 그중 하나는 진리를 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는다. 이 밖에, 진리를 실행하는 법이 없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느냐? 구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실행할 수 있다. 그는 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며, 심지어는 경멸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기에 결코 진리 실행과 연결되지 않는다. 설령 가끔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닥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면 그는 "뭐가 좋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은 수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상대가 "당신 생각대로 따르면 하나님 집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해요."라고 말하면 그는 "무슨 원칙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 생각이 바로 원칙이라고요!"라고 말한다. 이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장 주된 모습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큐티 생활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으로 정신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틈이 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묵상하거나 찬양을 부른다. 또 며칠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속이 공허해진 것 같아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한 단락 읽음으로써 마음을 충실하게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는데,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진 게 아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안 읽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열흘 안 읽어도 아무 지각이 없으며, 1 년 안 읽어도 마찬가지로 잘 살아간다. 심지어 3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지각이 없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은 채 언제나처럼 편하게 잘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혐오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 읽지 않았다면 바쁘기 때문이고, 열흘 읽지 않았다면 이 역시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한 달 동안 읽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1 년 동안 읽지 않았다면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다.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전에 교제한 바 있다. 그럼 그는 그리스도가 뭘 했다고 멸시하겠느냐? 그를 괴롭히고 해쳤느냐, 아니면 그의 뜻에 맞지 않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의 어떤 이익에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사적인 원한이 없으며, 심지어 아예 일면식도 없다. 그럼 그가 왜 멸시하겠느냐? 근본 원인은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있다.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를 멸시하는 것이다.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가 포괄하는 범위는 무척 넓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과 만물의 법칙, 각종 생명체와 그들의 생활 법칙 같은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각종 생활 법칙이 있다. 일례로, 사람의 삶과 가장 가까운 생로병사를 들 수

있다. 정상인은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몸이 약해진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며 치아도 헐거워져서 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재하며, 그 누구도 이 자연법칙을 어길 수 없다. 정상인은 누구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람이 몇 살까지 살든, 몸 상태가 어떻든, 사람의 본분 이행 방식이나 태도, 사람이 서야 할 자리 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부류는 불복하며 말한다.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까지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 제가 늙어 보이나요? 당신들이 이 나이가 되면 하지 못할 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50 살만 돼도 다리를 잘 못 쓰겠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팔팔하다고요. 저는 담을 뛰어넘고 벽을 타는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정해 놓은 정상적인 법칙에 도전하려 하고, 그 법칙들을 깨서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비범한 초인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 주려 한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진리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밖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흐름과 흑암 권세를 숭배한다. 이는 그가 진리를 적대한다는 사실을 더더욱 실증한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정권과 전설 속 각종 악령의 능력, 재주, 소행, 그리고 사악한 흐름과 흑암 권세를 엎드려 절할 정도로 숭배하고 탄복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굳게 믿으며, 한 번도 의혹을 품은 적이 없다. 마음속으로 싫어하기는커녕 앙모와 숭배, 부러움으로 가득하며, 심지어 내면 깊이 그런 것들을 바짝 뒤따르고 있다. 이 사악하고 어두운 것들에 대해 적그리스도는 마음속 깊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 그는 진리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사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 진리를 좋아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이런 자는 사악한 세력과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탄의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굳게 믿는다. 반면,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반감과 멸시가 가득하다. 진리를 싫어하는 항목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3) 흉악하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는 '흉악함'도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류의 사람이 지위를 가지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지위가 없을 때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인성이 어떤지를 보면 된다. 인성이 악독하고 음험하고 악랄하다면 100% 적그리스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지위를 가져 본 적이 없고, 리더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인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악랄한 인성을 지녔는지, 악인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그가 악인이라면 지위를 가질 필요도 없이 100%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다른 한 가지 전형적인 성품 본질은 바로 흉악함이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이 사자나 호랑이 등 먹이 사냥을 하는 맹수의 흉악함과 같겠느냐? (같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이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이다. 그것은 육체의 필요이자 본능이다. 하지만 그 동물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는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흉악함은 이 동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네가 건드리지 않으면 사납게 굴지 않고, 꼭 건드려야만 사납게

굴더냐? 또는 네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통제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으면 통제하더냐? 네가 그의 말을 들으면 너를 괴롭히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롭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함은 일종의 성품이자 본질이다. 그것은 영락없는 사탄의 본질로, 본능도, 육체의 필요도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성품의 한 가지 모습이자 특징이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은 어떤 모습과 표출, 행동으로 드러나겠느냐? 그가 하는 어떤 일이 그의 흉악한 성품과 악인의 본질을 대표하겠느냐? 말해 보아라. (사람을 혼내고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패거리를 짓고 이간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거리를 짓고 이간질하는 것은 좀 음험하다. 그것은 사악한 성품에 속하는 모습으로, 아직 흉악한 수준은 아니다. 관념을 퍼뜨리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은 흉악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역지침에 대항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며 하나님의 제물을 강점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대항하는 것은 흉악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제물을 강점하는 것은 탐욕일 뿐 아니라 흉악한 성품의 모습이기도 하다. 제물을 강점할 수 있는 자는 성품이 너무도 흉악해서 비적과 같다. 방금 종합한 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해 보아라. (사람을 혼내고 괴롭히는 것,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는 것,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관념을 퍼뜨리는 것,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 사역지침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제물을 강점하는 것입니다.) 총 아홉 가지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의 모습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구체적인 모습들은 더 있지만, 앞서 말한 것들과 유사하니 더 이상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런 행동과 수법을 보이는 부류가 바로 악인이다. 그의 행동이 음험한 것이 한 측면이다. 예를 들어,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는 것, 관념을 퍼뜨리는 것 등은 비교적 음험한 행동이다. 이 밖에, 그는 수법이 악랄하고 흉악한 편이다. 이는 성품이 흉악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측면의 성품 본질로 볼 때, 적그리스도 부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기꺼이 하나님 집에서 힘을 쓰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하나님과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하다. 하나님 집에서 힘쓰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그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한다. 또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본분 이행의 질서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방해하고 망치려 들며, 이와 동시에 하나님 집 사역과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명 진입,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교란하려 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또 하나님 집에서 왕권을 잡고자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통제하려 하며,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자기 파벌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히 그의 추종자로 바꿔 놓음으로써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여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 부류가 하나님 집에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좋은 역할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성에서 추구까지, 그들의 야심과 욕망에서 그들이 걷는 길,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보면 이 부류는 하나님 집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망치는 역할만 할 뿐, 조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법이 없고, 그들의 본성 본질은 진리를 싫어하며,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오늘까지,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모습에 대해 완전히 교제를 마쳤다. 너희는 오늘 교제한 내용을 통해 적그리스도 부류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가장 간단한 한마디 말로 종합하자면, 악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악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너희는 훨씬 더 명확해졌느냐? 이해하기가 쉬워졌느냐? 최근 몇 년간 계속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해부했고, 너희도 숱한 연단을 겪으며 자신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걱정하다가 오늘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그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마지막 결과는 좋은 것이었다. 즉, 너희가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녔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내가 교제한 어떤 말이 너희를 일깨워 주었느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의 차이를 교제해 주셔서 얼마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해도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성품 본질을 지닌 사람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악을 행해도 전혀 지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간 적그리스도 성품을 표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바람으로 생긴 일이 아니다. 발견한 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조금씩 뉘우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이며, 자신은 아직 만회할 여지가 있고,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적그리스도 성품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악인만 아니라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이 없다는 의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적그리스도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드느냐?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성품 본질의 모습에 대해 너희가 종합해 보아라.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본질을 짚었구나.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고 좋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앙모하고 추구하려고 한다. 다만 자질이 떨어져서 길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대시하지도 않는다. 이는 미지근한 부류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는 진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한다.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만 하면 증오심을 느끼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면 태도를 바꿔 마음속으로 반감을 느끼며,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영원히 진리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진리 실행을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는 절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 그는 인성이 없으며,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2020 년 12 월 26 일

복음 사이트 방문

App 다운로드

복음 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YouTube: https://l.kingdomsalvation.org/kr/video

Facebook: https://l.kingdomsalvation.org/kr/facebook

E-mail: contact.kr@kingdomsalvation.org
